조선문학예술년감

주체89(2000)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예술년감

주체89(2000)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예술년감 주체89(2000)를 내면서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이겨 내고 강성부흥의 새 력사를 창조하기 위한 위대한 전환적국면이 마련된 잊을수 없는 주체88(1999)년.

뜻 깊은 이해 온 나라 인민들과 더불어 우리 문학예술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조국의 운명이시고 민족의 미래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작품창작과 공연활동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최근년간 우리 문학예술이 이룩한 모든 성과는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문예방침이 가져다 준 고귀한 결실이며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높은 창작적열정과 헌신적노력이 낳은 자랑찬 열매입니다.》

이해에 시와 소설, 영화와 미술 등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서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시대의 명작들이 수많이 창작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 따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에 커다란 힘과 열정을 북 돋아 주었다.

그런가 하면 가요와 기악, 극작품과 무용, 교예를 비롯한 무대예술부문의 창작 및 공연활동에서도 자랑찬 성과들이 수많이 이룩되여 장엄한 력사적진군을 떠밀어 주고 주체예술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시대의 선도자, 진격의 신호나팔과도 같은 시대적인 명작들이 왕성하게 창작되고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의 피를 끓게 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공연활동이 성황리에 진행되여 우리 문학예술이, 우리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지도, 뜨거운 사랑의 빛나는 결실이다.

전당, 전군, 전민을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에로 이끄시는 그토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문학예술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문학예술창작과 공연활동을 세심히 지도해 주시였다.

때로는 자정이 넘도록, 때로는 새날이 밝도록 한편한편의 시와 가사, 영화들을 보아 주시고 때로는 전선시찰의 달리는 승용차안에서 한편한편의 노래들을 들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로고, 그 심혈속에 그리고 한편의 작품을 보시고도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과 시대적요구에 맞게 성격형상으로부터 세부형상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세심히 가르쳐 주신 장군님의 비상한 통찰력과 현명한 령도에 의해 이해에 창작된 작품들과 공연활동들은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필승의 신념과 락관을 안겨 주는, 우리 인민의 투쟁에 더욱 힘찬 박차를 가해 주는 혁명의 진군가로 될수 있었다.

우리의 문학예술을 시대를 떠밀어 주고 혁명을 전진시키는 위력한 추동력,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주체의 문학예술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바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상한 사색과 탐구, 세심하고도 정력적인 지도와 뜨거운 사랑은 정녕 끝이 없다.

《조선문학예술년감》 주체89(2000)에는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력사에 길이 전하여 질 뜻 깊은 주체88(1999)년에 주체적인 문학예술건설과 발전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 로고, 그 사랑속에 이룩된 문학예술창작과 공연활동에서의 성과의 일부가 편집되였다.

비록 미흡하고 내용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이 도서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문학예술에서의 한해성과를 리해하는데 적으나마 도움이 될것이라고 믿는다.

편 집 부

차 례

사진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문학예술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주체88(1999)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 주신 주체적문학예술발전을 위한 강령적지침 주체88(1999)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축하문

주체88(199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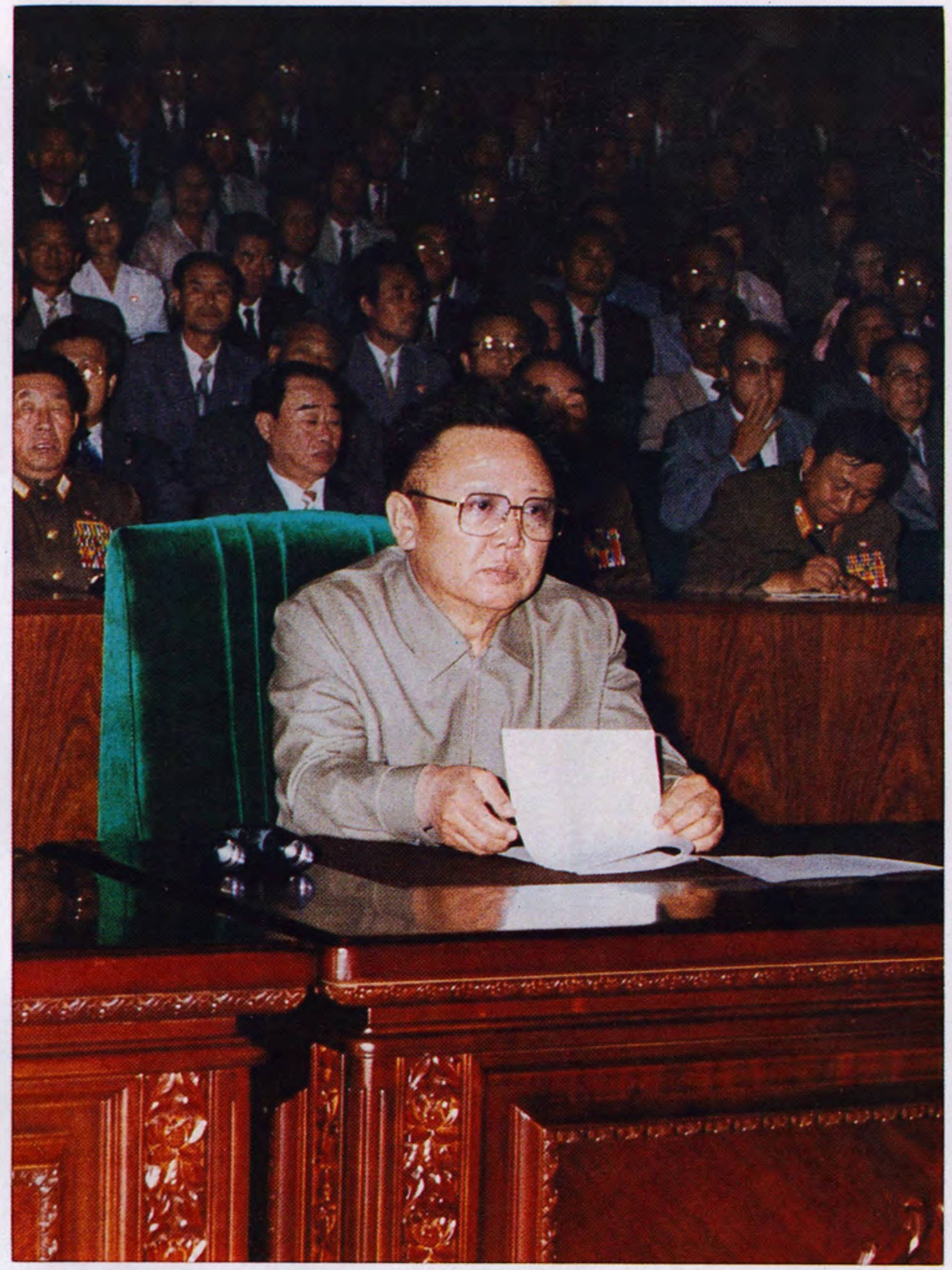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주체88(1999)년

문학예술창작과 창조

군중문학예술

문학예술교류



공화국창건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조선인민군 제549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조선인민군 4.25예술영화촬영소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경희극 《동지》를 관람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조선인민군 제1224군부대 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을 보아 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775군부대관하 민경중대 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을
보아 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제526군부대와 제264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조선보석화 어버이수령님 김원식, 박철



조선화 **혈전의 진두에 서시여** 정현일



유화 **위대한 수령님과 위증민** 김홍광



유화 김책동지와 첫 상봉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오성규



유화 **태양의 품** 김창길, 김응남



유화 옥돌골군민운동회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엄정민



유화 국제련합군회의에서 조국광복을 위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는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최하택



유화　고향 만경대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　전병진



조선화　전화의 나날에 리승기박사를 찾아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고수진



출판화　조국의 숲을 가꾸는 숨은 애국자라고 하시며　김영호



조선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다녀 가신 포전을 찾으시여　박대연, 오현철



조선화　강성대국건설의 나날에　정동혁



조선화　맨 주먹으로 자동차를 만들던 때처럼　억세게 전진하자고 하시며　박동철



조선화 **자강도인민들을 락원의 행군에로 이끄시여** 김성민



조선화 **희천의 한 선반공을 만나 주시며** 임혁, 김동환



조선화　**락원의 불빛**　김동환



출판화　**강원땅에 천지개벽이 일어 나도록 이끌어 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변효찬, 김영호, 박명철, 김영남, 김철희



조선화　인민군군인들의 스키훈련을 보아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정 철



조선화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김철희, 림승천



유화 《판문점의 초병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소》 로운봉



조선화 승리의 신심과 랑만을 안겨 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김기철



조선화 **감자농사의 사령관이 되시여** 리성근



조선화 **토끼를 잘 기른다고 치하해 주시는 어버이장군님** 송재철, 김성복



조선화　제2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을 지펴 주시며　김성민, 최창호



출판화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동지　홍춘웅



조선화 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길에서 박창룡, 곽영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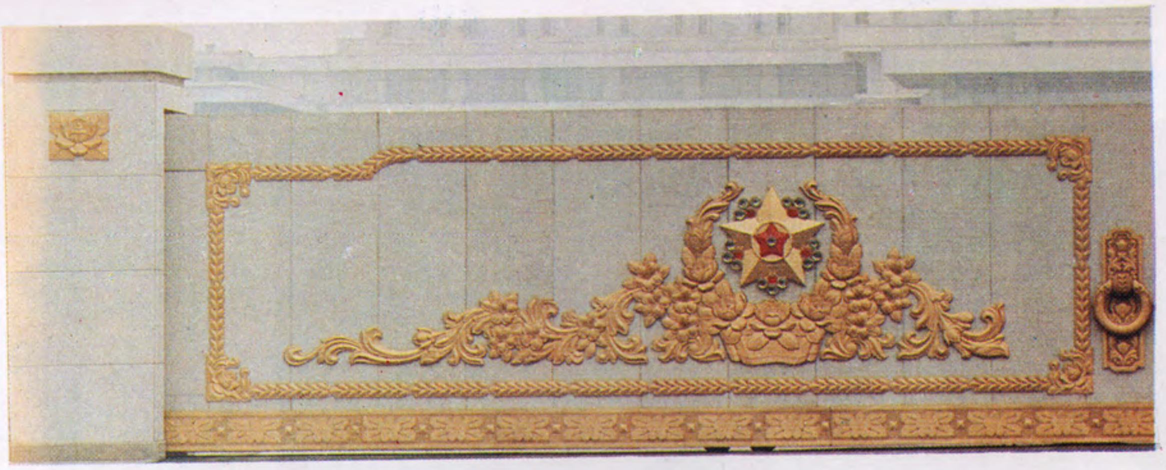
조선화 녀성비행사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 김학림, 리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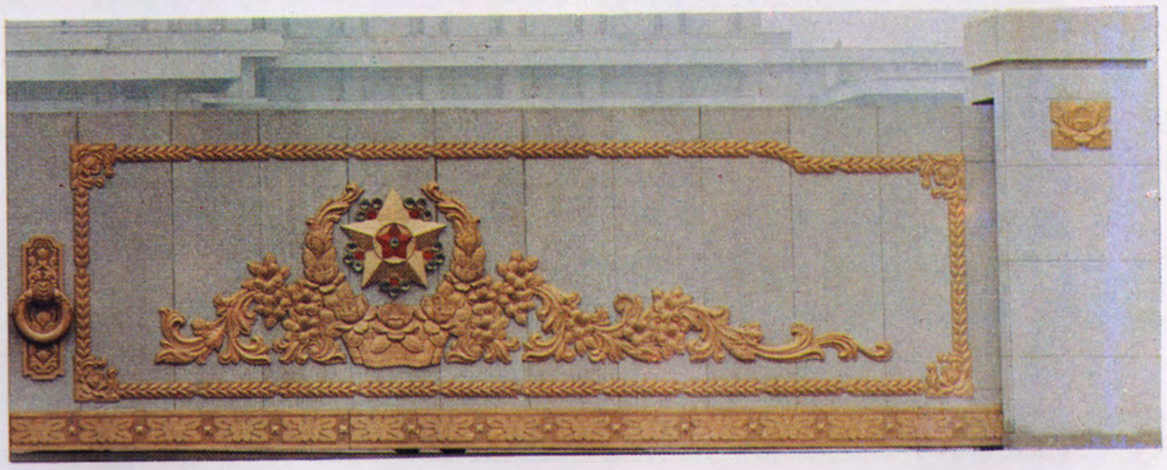


조선화 첫 녀성락하산병이 되시여 최광현, 최우균



조선화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 리 창





대원수별을 부각한
금수산기념궁전 돌대문



금수산기념궁전 돌울다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모신 울음홀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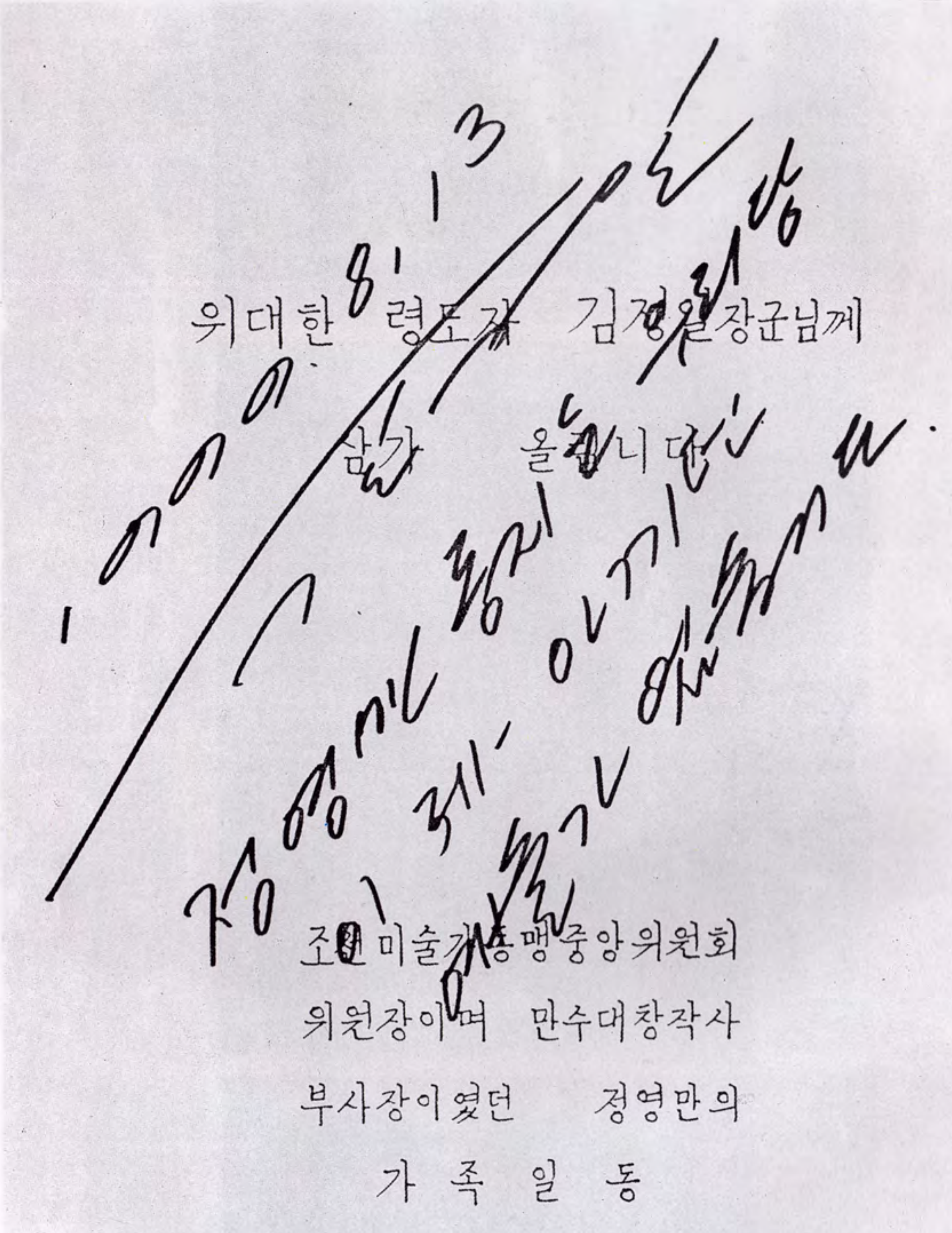


울음홀의 부각군상들 (우측)





울음홀의 부각군상들 (좌측)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올립니다

조선미술가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며 만수대창작사

부사장이였던 정영만의

가 족 일 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정영만유가족에게 보내신 친필서한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진행하신 문학예술지도 주요일지

주체88(1999)년

1월 2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송년시 《잊을수 없어라 1998년이여》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월 6일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준비사업정형을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적문예사상연구모임진행정형을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월 11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신년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1월 13일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음악무용대학창립 50돐기념행사준비사업정형을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선전화초안 28점을 지도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55돐기념 전국 문학축전조직사업과 제4차 장중편형식의 작품 100편창작사업을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노래 2편의 보급방향에 대하여서와 새로 형상한 계몽기가요의 재형상방도에 대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월 20일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문학신문》발간사업정형을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서사시 《빛나라 태양이여》의 감상조직문제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공화국창건 50돐경축 국가미술전람회총화사업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월 23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수령에게 충성 다해 온 백인준의 모범을 따라 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리는 문제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월 25일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화문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주체87. 11~12)의 보급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영화 《밀림이 설레인다》(제6~12부)의 창작정형을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월 27일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선전화초안 3점을 지도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안주시 덕성고등중학교 리송이학생이 창작한 혁명일화노래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노래 《불패의 강국이여 앞으로》와 《더 좋은 래일로》를 지도해 주시였다.

2월 3일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과학영화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나오는 항일혁명투사들과 연고자들의 초상미술작품 18점을 지도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가사 13편을 지도해 주시였다.

2월 8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금성

친위 제615군부대관하 중대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을 보아 주시였다.

2월 10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산수련시 《내나라의 명산－칠보산》과 새로 창작한 시 6편을 지도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화창작실태를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텔레비존련속소설 《대하는 흐른다》(제1～12부)의 완성정형을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2월 14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화문헌 《빛나는 삶의 품》 제11부 《〈고난의 행군〉과 숨은 영웅들》,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제11부)의 보급방향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2월 15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기록영화 《인민배우 유원준》의 완성정형을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2월 16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991군부대관하 2중3대혁명붉은기 녀성고사총중대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을 보아 주시였다.

2월 24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예술영화들인 《추억속에 영원하리》, 《우리 위원장》, 《따뜻한 눈송이》의 보급방향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17차 4월의 봄친선예술축전준비사업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자강도예술단창립 50돐기념행사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국립연극극장건설정형을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경사로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올려 줄것을 청원하여 온 문학작품들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3월 1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중대장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요술작품들과 이미 지도 받은 요술종목들을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3월 3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대창작사에서 창작한 백두산명소작품 25점과 계급교양주제미술작품 20점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환원복구한 군중무용 《흘라리》, 《옹헤야》, 《청춘의 자랑》, 새로 창작한 군중무용 《어깨춤》, 《양산도장단춤》, 《손벽춤》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교육부문사업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3월 4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예술영화들인 《명줄》, 《평양에 온 두 대표》의 보급방향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3월 10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화문헌 《현지지도의 길우에 꽃핀 사랑의 전설》(1)의 보급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정리한 혁명전실들인 《신기한 수첩》, 《금수산의 지맥》, 《언 감자국수》를 지도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예술인들이 준비한 경희극 《살기 좋은 고장》을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9차 《2.16예술상》개인경연진행정형을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3월 13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영화들인 《추억속에 영원하리》와 《명줄》,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최현편 제1～3부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3월 17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창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교양사업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노래 《장군님은 위대한 수호자》를 지도해 주시였다.

3월 18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최현편 제1～3부의 보급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경희극 《동지》에 대한 관람조직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3월 24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24대련합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가사 9편을 지도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영화 《밀림이 설레인다》 (제7～10부)의 창조사업을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영상미술작품초안 4상과 다시 형상한 영상미술작품 3상을 지도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안전성에서 새로 창작한 노래 2편의 보급방향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무용예술령도사집필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3월 31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노래 《장군님 그품속에》, 《장군님과 함께라면》, 《정일봉은 천하의 절경일세》, 《감자자랑》, 기악곡 《친애하는 그이는 우리와 함께》를 지도해 주시였으며 그 밖의 노래 8편에 대하여서는 보급방향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4월 5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67대련합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4월 7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17차 4월의 봄친선예술축전준비정형을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4월 8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정론시 《조국땅에 봄이 온다》와 새로 창작한 서정시 4편을 지도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미술작품초안들을 지도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영화 《우리는 여기서 산다》의 창조과정을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4월 9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화문헌 《조국광복을 위하여》(제15부), 《민족최대의 명절 2월 16일》(주체88년)의 보급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기악곡 《조선의 장군》, 《그리운 강남》을 지도해 주시였으며 새로 창작한 가요 3편에 대하여서는 보급방향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4월 14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백두산 3대장군을 모시고 진행한 공연일지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4월 15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개풍군일대를 방어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금성친위군부대관하 중대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을 보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최근 영화창작실태와 관련하여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작사 창작가들을 높이 평가해 주시였다.

4월 21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시초 《영웅찬가》와 《강원땅의 새 노래》를 지도해 주시였다.

4월 25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67돐에 즈음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교예단의 요술공연을 보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4월 28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가사 7편을 지도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교육부문사업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5월 4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화문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주체88.1～3)의 보급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영화 《밀림이 설레인다》 (제7, 8부)의 보급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5월 5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미술작품초안들을 지도해 주시였다.

5월 7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경희극 《동지》를 관람하시였다.

5월 8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경희극 《동지》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5월 10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959고사포병군부대관하 녀성고사총중대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을 보아 주시였다.

5월 12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상미술작품창작 및 보급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5월 17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제593군부대와 제337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5월 19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노래 《총대로 받들리 우리의 강성대국》을 지도해 주시였다.

5월 26일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창작 국가준비위원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가사 6편을 지도해 주시였다.

5월 28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49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시였다.

5월 31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제526군부대와 제264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6월 2일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동시초 《장군님과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노래의 보급방향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6월 6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노래 《하얀 구름아》를 지도해 주시였다.

6월 7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군인들의 서예경연조직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6월 9일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영상미술작품초안 12상을 지도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지행련시초 《백리청춘로반우에서》를 지도해 주시였다.

6월 15일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자강도안의 로동계급들과 함께 강계지구로동자예술소조종합공연을 관람하시였다.

6월 16일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창건 55돐경축 대공연준비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서사시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와 장시 《6월의 푸른 하늘아래에서》를 지도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영화 《밀림이 설레인다》 제9, 10부의 수정문제와 제12부의 촬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텔레비죤예술영화 《압록강 2천리》의 완성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한덕수작사가요집》의 편집출판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가요 《장군님 초소에 모신 날》과 3편의 노래의 보급방향에 대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6월 23일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대창작사창립 40돐기념행사준비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시 2편과 가사 8편을 지도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노래 3편의 보급방향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6월 26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협주단 안무가 인민배우 홍정화의 독무회조직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6월 27일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화문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주체87(1998).1~12)와 《현지지도의 길우에 꽃 핀 사랑의 전설》 제2부의 보급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영화 《법동농민》의 보급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6월 29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기악곡들인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장군님의 군대가 되자》, 《우리 님 영웅되셨네》를 지도해 주시였으며 새로 창작한 노래 2편의 보급방향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6월 30일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발굴정리한 혁명전설들인 《신기한 발자국》《666》, 《해삼대》를 지도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영화 《밀림이 설레인다》 (제9, 10부)의 보급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7차 평양국제영화축전조직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7월 1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서사시 《불멸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를 지도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노래 《수령님은 밝은 미소 보내시네》를 지도해 주시였다.

7월 2일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영화 《우리는 여기서 산다》의 보급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노래 《수령님 생각》을 지도해 주시였으며 이 밖의 2편에 대하여서는 보급방향을 가르쳐 주시였다.

7월 5일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미술작품들을 지도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창광봉사관리국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 올려 줄것을 청원하여 온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목각천연색사진과 수예작품들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동평양대극장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 올려 줄것을 청원하여 온 유화 《백두산의 저녁노을》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7월 11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화문학창작을 선행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7월 14일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영화 《대홍단책임비서》 속편창작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텔레비죤예술영화 《민족의 사나이》 (제7~12부)의 완성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장편소설 《삭풍》의 출판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부문대학사업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동안유치원 김효남어린이가 붓글로 써올린 편지를 보아 주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7월 21일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문학예술령도사의 집필출판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시 4편과 가사 12편을 지도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선전화초안 20점을 지도해 주시였다.

7월 27일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승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해군 금성친위 제155군부대 군인들과 함께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창건 55돐경축 대공연준비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서정시 3편을 지도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5돐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사업개시 35돐에 즈음하여 수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장군님께 올려 줄것을 청원하여 온 문학예술작품들에 대해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8월 3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요술작품창작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8월 4일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화문헌 《조국광복을 위하여》 제16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주체88.5~6)의 보급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텔레비죤예술영화 《금패령의 겨울》 (제1~6부)의 완성정형을 료해하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국통일주제의 노래들인 《마중가자 통일해돋이》, 《통일의 한길

로 손 잡고 가자》, 《통일맞이 춤을 추자》를 지도해 주시였다.

8월 5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노래 《이 땅우에 울리는 웃음소리 노래소리》와 《노래하자 강원땅아》, 다시 작곡한 노래 《붉은 철령》을 지도해 주시였으며 그 밖의 노래 2편에 대하여서는 보급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1편에 대하여서는 다시 형상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8월 6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작가, 작곡가들이 좋은 작품들을 써내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8월 16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영화 《불씨》의 완성정형을 료해하시였다.

8월 18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상작품초안을 지도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청년절을 맞으며 새로 창작한 노래 2편의 보급방향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대예술단조직 30돐기념행사조직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8월 25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화문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기념궁전 건설사업을 지도》 (제3부)와 《빛나는 삶의 품》 (제12부)의 보급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문예총중앙위원회 사업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미술박물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창건 55돐 경축 대공연준비사업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8월 28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영화 《불 같은 사람》의 완성정형을 료해하시였다.

9월 1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영화 《불씨》의 보급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서정시 《철령》과 가사 8편을 지도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문학예술종합출판사에서 만든 노래지도일지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9월 3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예술인들의 귀환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노래 《환영한다 정성옥》을 지도해 주시였다.

9월 6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화문헌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구성》의 보급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대창작사창립 40돐기념 미술전람회에 모실 영상미술작품초안들을 지도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국립연극극장건설실태를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18차 윤이상음악회와 제13차 윤이상음악연구토론회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9월 7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영화 《사랑의 대지》(전, 후편)와 《미래를 사랑하라》의 완성정형을 료해하시였다.

9월 8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공화국창건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9월 10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영화 《사랑의 대지》를 보시고 수정대책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9월 15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서거 50돐에 즈음하여 창작한 장시 《인민의 어머니》와 서정시 3편을 지도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마라손선수 정성옥과 관련한 미술작품초안들을 지도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번역영화제작소의 사업과 경영활동정형을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9월 20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화문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어버이수령님 서거 5돐행사 엄숙히 거행)의 보급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영화 《사랑의 대지》 수정대책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공화국창건 51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제1차 전국요술축전진행정형을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희천청년전기련합기업소에서 만든 문학작품집 《웃으며 가자》의 출판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9월 22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영상미술작품초안들을 지도해 주시였다.

9월 29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가사 9편을 지도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연극 《어머님의 당부》 공연보장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안전성에서 창작한 노래의 보급방향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0월 6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49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시였다.

10월 7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공화국창건 51돐기념 전국 음악무용축전진행정형을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장편기행시 《강성대국행진곡》을 지도해 주시였다.

10월 10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창건 54돐에 즈음하여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10월 13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문학예술종합출판사에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을 모시는 사업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화문헌 《빛나는 삶의 품》 제13부 《〈고난의 행군〉과 숨은 영웅들》, 예술영화 《불 같은 사람》, 《미래를 사랑하라》의 보급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장시 《전선길의 가을》과 새로 창작한 기악곡들인 《장군님 식솔》, 《병사들아 영웅이 되자》를 지도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올려 줄것을 청원하여 온 문학작품들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0월 17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224군부대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을 보아 주시였다.

10월 20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상조각작품초안들을 지도해 주시였다.

10월 21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화력사자료들의 영구보존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2.16예술상》 개인경연진행정형을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경애하는 장군님께 올려 줄것을 청원하여 온 평양음악무용대학 교원 강신혁의 바이올린교재곡 7편과 사리원시에 살고 있는 전쟁로병 정민이 만든 무용자료집을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0월 26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영화 《밀림이 설레인다》 (제11부)의 보급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영화와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실태와 창작가, 예술인들의 생활을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시 4편을 지도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각 도예술단 기구문제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국 악기품평회진행정형을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신인무용발표회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0월 27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선전화초안 10점을 지도해 주시였다.

11월 3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가사 9편을 지도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나오는 연고자들의 초상미술작품초안을 지도해 주시였다.

11월 10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화문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주체88.8~9)와 예술영화 《사랑의 대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국립희극단에서의 작품창조사업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교육출판사에 예술교재인쇄공장을 꾸리는것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1월 17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대창작사창립 40돐기념 미술전람회조직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경애하는 장군님께 올려 줄것을 청원하여 온 문학작품집 《강성대국 대통로에 울리는 청춘송가》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1월 18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청년기동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11월 21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텔레비죤련속극 《열망》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1월 24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대예술단에서 새로 창작한 노래 《빛나는 삶의 품》, 《우리는 노래로 이겼네》를 지도해 주시였으며 새로 창작한 노래 4편에 대하여서는 보급방향에 대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기록영화촬영소와 조선과학영화촬영소의 사업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1월 26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련속편의 창조사업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1월 29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775군부대관하 민경중대군인들의 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12월 1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화문헌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의 보급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가사 10편을 지도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교육부문실태를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국 연극축전 진행정형을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2월 3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국보적인 작품에 대한 리해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2월 8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화문헌 《강원땅의 위대한 전변을 마련하시여》의 보급과 텔레비죤예술영화 《한 보위일군의 수기》(제1~9부)의 완성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영화 《대홍단책임비서》 속편창작실태를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아동영화원판필림보장문제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발굴한 혁명전설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2월 12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영화창조사업전반실태를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텔레비죤방영사업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2월 15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상미술작품초안 14상을 지도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영화 및 텔레비죤예술영화창작실태를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노래 3편의 보급방향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2.16영화축전조직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년간 문학예술작품창작총화를 위한 주체적문예사상연구모임조직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창립일제정문제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2월 21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영화창작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2월 22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시 2편과 가사 11편, 우화 2편을 지도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음악무용연구소를 내오는 문제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국립교향악단의 사업실태를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2월 24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12월 27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노래 《천리방선초병들은 아침인사 드리네》를 지도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교육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2월 28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송년시 《아름다운 추억의 해 1999년이여》를 지도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부문에 나타나고 있는 도식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2월 29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화문헌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2)의 보급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영화 《승냥이》, 《아들은 돌아 왔다》의 완성정형을 료해하시였으며 텔레비죤예술영화 《민족의 사나이》(제13~15부)의 완성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설명절을 맞으며 준비한 공연종목들을 지도해 주시였으며 극장들의 공연실태를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2월 30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창작한 노래 《우리의 장군님은 강철의 령장》을 지도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문학예술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주체88(1999)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신년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신년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 조선인민군 원수 리을설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인민무력상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동지,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현철해동지, 장성우동지, 박재경동지, 상장들인 리명수동지, 김윤심동지, 오금철동지와 조선인민군 장령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 김중린동지, 김용순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및 1부부장들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이 공연을 보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뜻 깊은 경축공연을 보게 된 크나큰 감격과 기쁨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가슴은 뜨겁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순간 관람자들은 극장이 떠나갈듯 한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조선의 장군》, 《동지애의 노래》, 《위대한 내 나라》, 《압록강 2천리》,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신심높이 가리라》, 《대홍단 삼천리》, 《붉은기 높이 조선은 나간다》, 《어머니조국은 부른다》, 《훈련 또 훈련》, 《군민일치 노래 부르자》, 《불패의 강국이여 앞으로》, 《천만이 총폭탄되리라》를 비롯한 합창곡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출연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위대한 령장의 품속에서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위력과 모두가 성새, 방패가 되여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우리 군대의 철석 같은 신념과 의지를 힘 있게 과시하였다.

또한 출연자들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총진군에 떨쳐 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장엄한 기상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관람자들은 용맹과 열정, 투지와 신심을 안겨 주는 전투적인 공연을 보면서 지난 온 한해 몸소 강행군의 앞장에 서시여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다함 없는 흠모의 정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으며 장군님을 따라 이 땅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울 불 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륭성번영의 한길로 도도히 전진하는 영웅조선의 불굴의 기상을 그대로 힘 있게 노래한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 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 오르고 흠모의 열정이 뜨겁게 굽이쳐 충성의 대하마냥 세차게 흜어 번지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훈합창단 예술인들이 조선인민군의 백절불굴의 혁명적군인정신

이 맥박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615군부대관하 중대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을 보아 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615군부대를 시찰하신 후 군부대관하 포항 제16영웅중대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을 보아 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용무동지,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현철해동지, 박재경동지, 상장 리명수동지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이 동행하였다.

꿈결에도 뵙고 싶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뜻 깊은 공연을 하게 된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군인들의 가슴가슴은 해솟는 바다마냥 세차게 설레이였다.

4중창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독창 《내가 지켜 선 조국》, 중창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기악합주 《혁명을 위하여》, 합창 《중대생활 좋다》, 시와 노래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을 통하여 중대군인들은 총폭탄이 되여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원쑤들이 감히 덤벼 든다면 단매에 족쳐 버리고 우리 인민의 쌓이고 쌓인 원한을 풀고야 말 인민군군인들의 전투적기상과 의지를 힘 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용무동지,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현철해동지, 박재경동지, 상장 리명수동지와 조선인민군 장령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국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리용철동지가 공연을 보았다.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또다시 모시고 공연하는 영광과 행복을 지닌 공군사령부예술선전대원들은 크나큰 감격과 행복에 휩싸여 있었다.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예술선전대 예술인들은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출연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숭고한 사상세계와 고상한 도덕품성을 격조 높이 노래하였으며 그 어떤 광풍이 불어쳐 와도 혁명의 붉은기를 더욱 높이 추켜 들고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 같은 신념과 의지, 전투적기상과 백절불굴의 투지를 힘 있게 과시하였다.

관람자들은 혁명적기백이 약동하는 전투적인 공연을 보면서 수십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정력적인 군령도로 영웅적조선인민군을 사상의 강군, 필승불패의 무적의 강군으로 키워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였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 나감으로써 우리 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무력

으로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와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이룩해 나갈 불 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군인정신이 세차게 맥박치는 공연을 보시고 군인들의 정신세계와 생활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한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공연활동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 군대내에서 활기 있게 벌어 지고 있는 예술선전은 군인들의 사상교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커다란 감화력을 가진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더많이 창작하며 공연활동을 힘 있게 벌리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예술선전대원들은 전선시찰의 그토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공연을 또다시 보아 주시며 세심한 지도를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 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해 하면서 사상전선의 전초병답게 전투적인 예술활동을 더욱 과감히 벌려 군대와 인민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굳은 결의에 넘쳐 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991군부대관하 2중3대혁명붉은기 녀성고사총중대 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을 보아 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2월 16일 조선인민군 제991군부대관하 2중3대혁명붉은기 녀성고사총중대를 시찰하신 후 중대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을 보아 주시였다.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현철해동지, 박재경동지를 비롯한 장령들이 동행하였다.

오매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중대에 모시고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 드리게 된 최상의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군인들의 가슴속에서는 격정의 파도가 용암마냥 끓어 번지고 있었다.

합창 《최고사령관동지의 건강을 축하함》, 송시와 합창 《간절한 소원》, 독창과 방창 《언제나 병사들과 함께 계시네》, 4중창 《뵙고 싶었습니다》, 시와 노래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중창이야기 《전사들의 귀속말》, 기악합주 《혁명가요련곡》, 합창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을 통하여 녀성군인들은 모두가 성새, 방패가 되여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무장으로 주체혁명위업과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할 인민군군인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 자기들의 보람찬 군무생활의 일단을 잘 보여 주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기백이 약동하는 공연을 보시고 사상과 기술, 도덕과 문화소양 등 모든 면에서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군대의 모범이라고 하시면서 이 위대한 힘을 당할자는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중대장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중대장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 조선인민군 원수 리을설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인민무력상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용무동지, 조선인민군 차수들인 전재선동지, 박기서동지와 조선인민군 장령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뜻 깊은 공연을 보게 된 끝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하여 조선인민군 중대장대회 참가자들의 가슴은 해 솟는 바다마냥 설레이고 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순간 전체 관람자들은 극장이 떠나갈듯 한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중대강화의 새 력사를 펼쳐 주시여 우리 혁명무력을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워 주시고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은 《언제나 수령님을 우러러》, 《동지애의 노래》, 《조국보위의 노래》, 《아무도 몰라》, 《결전의 길로》, 《정일봉의 우뢰소리》, 《요일풀이노래》, 《내가 지켜 선 조국》, 《오늘도 7련대는 우리앞에 있어라》, 《군민일치 노래 부르자》, 《어머니조국은 부른다》, 《승리의 열병식》,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를 비롯한 합창곡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인민군장병들의 피 끓는 심장의 웨침인양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충성의 노래, 투쟁의 노래는 관람자들의 가슴속에 세찬 격동을 불러 일으켰다.

출연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주체적인 군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수십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군령도로 우리 인민군대를 당과 사회주의위업을 무장으로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참다운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 무적필승의 혁명적무장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따라 부강조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 나가려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철석 같은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 주었다.

관람자들은 용맹과 열정, 투지와 신심을 안겨 주는 공연을 보면서 혁명무력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중대를 주체형의 혁명군인들의 강철의 전투대오로 튼튼히 꾸리도록 따뜻이 손 잡아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중대를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모든 군인들을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리수복형의 육탄영웅, 길영조형의 자폭용사들로 억세게 준비시키며 무력으로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와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이룩해 나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백전백승의 무적의 대오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전투적기상이 나래치는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 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어버이장군님을 우러러 격정의 환호를 터치는 군인들의 열화 같은 흠모의 열정으로 하여 장내는 충성의 대하마냥 세차게 설레이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훈합창단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대와 인민을 혁명투쟁에로 힘 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인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을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군대와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하시면서 공훈합창단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24대련합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24대련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신 후 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조선인민군 대장 현철해동지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이 동행하였다.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뜻 깊은 공연을 진행하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출연자들의 가슴가슴은 끝없이 설레이고 있었다.

공연무대에는 합창 《만경대의 노래》, 《조선의 행운》, 대화극 《맏며느리》, 녀성독창 《고마워라 장군님 그 사랑》, 5중창이야기 《달력에 새겨 진 마음》, 실화이야기 《천백배로 복수하리라》, 북과

노래 《우리는 천리마타고 달린다》, 트럼본과 중창 《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 토막시극 《우리의 배낭》, 시와 합창 《주체의 강성대국 빛내여 가자》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공연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혁명의 일익을 믿음직하게 담당한 녀성혁명가들로 씩씩하게 자라며 투쟁하고 있는 자기들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랑만과 희열에 넘친 보람찬 생활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멸적의 총창을 억세게 틀어 잡고 조국보위성전에 떨쳐 나선 남편들과 일심동체가 되여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주체혁명위업과 강성대국건설위업을 기어이 완성하고야 말 군인가족들의 철석 같은 신념과 의지, 혁명적기개와 불굴의 기상을 힘 있게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대련합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이 사상예술성이 매우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대단히 만족해 하시면서 그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혁명적인 투쟁기풍, 생활기풍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67대련합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4월 5일 조선인민군 제567대련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신 후 군인회관에서 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조선인민군 대장 현철해동지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이 동행하였다.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공연을 진행하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출연자들의 가슴은 끝없이 설레이고 있었다.

공연무대에는 합창 《태양절을 노래하세》, 《우리 장군님 높이 모시리》, 대화시 《축배》, 독창 《장군님은 전초선에 계시네》, 대중창이야기 《승리의 노래 높이 준마타고 달리세》, 시이야기 《첫 군인가족영웅》, 트럼베트와 북합주 《사회주의는 우리거야》, 2중창 《고향집추억》, 6중창 《웃으며 가자》, 토막이야기 《새 세대의 자각》, 시와 합창 《장군이시여 우리를 사열하시라》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한 없는 사랑과 배려속에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억세게 밀어 나가는 녀성혁명가로 살며 싸우는 자기들의 크나큰 긍지와 행복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총대를 잡은 남편들과 함께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주체혁명위업과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몸 다 바칠 군인가족들의 철석 같은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 주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개풍군일대를 방어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금성친위군부대관하 중대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을 보아 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4월 15일 개풍군일대를 방어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금성친위군부대를 찾으시고 태양절을 맞는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신후 군부대관하 중대군인들의 예술소

품공연을 보아 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현철해동지, 박재경동지, 상장 리명수동지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이 동행하였다.

민족최대의 뜻 깊은 명절날에 꿈결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만나뵙고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 드리게 된 최상의 영광과 행복으로 출연자들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이였다.

합창 《태양절을 노래하세》, 설화와 합창 《기다렸습니다》, 노래이야기 《중대가 웃네》 남성독창과 합창 《경애하는 그이 품에 안긴 이 행복》, 설화이야기 《변할수 없는 착취계급의 본성》, 녀성독창과 합창 《나는 알았네》, 합창시와 합창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을 통하여 군인들은 위대한 령장의 손길아래 무적강군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의 필승불패의 위력과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일편단심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주체혁명위업과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총대로 기어이 완성하고야말 인민군군인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 주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군인정신이 세차게 맥박치는 전투적인 공연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준비되였을뿐아니라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들로 자라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67돐에 즈음하여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창건 67돐에 즈음하여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4월 25일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 조선인민군 원수 리을설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인민무력상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용무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 연형묵동지, 조선인민군 차수들인 백학림동지, 김익현동지, 리하일동지, 전재선동지, 박기서동지, 김룡연동지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 조선인민군 군종, 병종 사령관들과 장령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경사스러운 건군절날에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며 따르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뜻 깊은 경축공연을 보게 된 관람자들의 끝 없는 격정과 환희로 하여 장내는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순간 장내가 떠나갈듯한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였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의 나날들을 자랑찬 위훈으로 빛내이며 건군절을 맞는 인민군장병들을 고무격려하시면서 조선인민군창건 67돐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공훈합창단은 《언제나 수령님을 우러러》, 《조선인민군가》, 《아무도 몰라》, 《어머니조국은 부른다》, 《경애하는 그이 품에 안긴 이 행복》, 《충성의 대답소리 〈알았습니다〉》, 《군가에 발을 맞추자》, 《군민일치 노래 부르자》 《충성의 한길로 가고 가리라》, 《천만이 총폭탄 되리라》를 비롯한 합창곡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출연자들은 창건후 오늘에 이르는 근 70성상의 장구한 기간 자기 수위에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장을 모시고 주체의 혈통을 굿굿이 이어 오며 백전백승의 투쟁사를 수 놓아 온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영광찬란한 전투적로정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영원히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무장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갈 조선인민군의 의지와 기개를 힘 있게 시위하였다.

관람자들은 시대정신이 힘 있게 맥박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공연을 보면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준엄한 혁명의 년대들을 승리적으로 헤쳐 온 력사의 나날들을 크나큰 긍지속에 감회깊이 돌이켜 보았으며 일편단심 장군님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하늘땅을 뒤흔드는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 오르고 뜨겁게 굽이치는 충성의 열정으로 하여 장내는 용암마냥 끓어 번지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이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투쟁의 기수, 투쟁의 나팔수답게 앞으로도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활동으로 군대와 인민을 새로운 위훈에로 힘 있게 불러 일으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경희극 《동지》를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경희극 《동지》를 관람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인민무력상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동지,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현철해동지, 박재경동지, 상장들인 리명수동지, 정호균동지와 조선인민군 장령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국태동지, 김용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춘황동지가 공연을 보았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뜻 깊은 공연을 보게 된 인민군장병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 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순간 장내가 떠나갈듯 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 오르고 흠모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 쳤다.

뜨거운 격정을 터치며 폭풍 같은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은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영웅적조선인민군을 백전백승의 무적강군으로, 강성대국건설의 제일기둥, 수령옹위의 제일결사대로 억세게 키우시여 주체혁명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 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창작가, 예술인들이 창조한 경희극 《동지》는 언제나 병사대중속에 들어 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 하며 전사들을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 주는 인민군지휘관들의 고상한 혁명적동지애를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술인들은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격동도 있는 특색 있는 경희극을 통하여 인민군대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정신적특질인 혁명적동지애의 세계를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펼쳐 보여 주면서 최고사령관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관병일치는 전군을 하나의 생명체로, 한식솔로 만들고 조선인민군을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위용 떨치게 하는 위력의 원천으로 된다는것을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해명하였다.

출연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상하일치, 관병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더욱 활짝 꽃 피워 우리 혁명무력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총대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동지애로 시작되고 동지애로 승리하여 온 우리 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고야 말 우리 군대의 철석 같은 신념과 의지, 전투적기상을 잘 보여 주었다.

관람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키워 주신 우리 군대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그 불패의 위력을 가슴뜨겁게 절감하면서 조국보위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몸 다 바칠 충성의 결의를 다짐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 일심단결의 위력이 거세찬 대하마냥 도도히 맥박치는 공연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 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 오르고 열화 같은 흠모의 열정으로 하여 불도가니마냥 끓어 번지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창작가, 예술인들이 높은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을 안고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경희극을 훌륭히 형상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경희극 《동지》에서 보여 주는바와 같이 항일유격대의 혁명정신을 빛나게 계승한 조선인민군은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관병일치가 확고히 보장된 무적의 대오로 자라났다고 하시면서 우리 군대는 그 어떤 군사과학이나 기술로써도 만들어 낼수 없는 이 위력한 관병일치의 무기를 가지고 있기에 준엄한 혁명전쟁들에서 백전백승할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 우리 군대의 전체 지휘관들은 뜨거운 혁명적동지애를 지니고 전사들을 친형제, 친자식과 같이 아끼고 사랑할뿐아니라 사업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지휘관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더 높이 발휘하여 우리 혁명을 앞장에서 선도해 나가는 견결한 투사로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창작가, 예술인들이 지난 40년간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혁명적인 예술활동을 힘 있게 벌려 군대와 인민을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적극 고무추동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인들은 전군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사상사업의 일익을 담당한 사상전선의 전초병이라고 하시면서 예술창조와 예술활동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은 전선과 후방에 대한 끊임 없는 현지시찰의 길에서 겹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 없이 자기들의 공연을 친히 보아 주시고 지도해 주시며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에 대한 끓어 오르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해 하면서 혁명군대의 예술부대답게 예술활동을 더욱 힘 있게 벌려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기여할 불 타는 결의에 충만되여 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959고사포병군부대관하 녀성고사총중대 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을 보아 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959고사포병군부대를 시찰하시고 군부대관하 녀성고사총중대 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을 보아 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조선인민군 차수 박기서동지,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현철해동지, 박재경동지, 상장들인 리명수동지, 정호균동지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국태동지, 《로동신문》 책임주필 최칠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들인 박송봉동지, 장성택동지들이 동행하였다.

꿈결에도 뵙고 싶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을 부대에 모시고 뜻 깊은 공연을 하게 된 크나큰 감격과 영광으로 하여 중대군인들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이였다.

중대군인들은 설화와 합창 《장군님 뵙고 싶었습니다》, 대화시 《축복의 노래》, 합창 《포병의 노래》, 녀성중창 《좋아 합니다》, 3중창이야기 《웃음 많은 병사》, 합창극 《중대생활 좋다》, 북제창 《정일봉의 우뢰소리》, 선동과 합창 《복수자가 여기 있다》, 합창시와 합창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을 통하여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한 항일의 7련대의 육탄정신, 방패정신으로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무장으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고야 말 인민군군인들의 억척 같은 신념과 백절불굴의 의지를 힘 있게 과시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필승의 신념과 락관에 넘쳐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군대의 도도한 기상을 그대로 보여 주는 공연을 보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훈련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혁명적이며 전투적으로 하고 있는 녀성혁명가들의 자랑찬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제593군부대와 제337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제593군부대와 제337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인민무력상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동지,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현철해동지, 박재경동지, 상장들인 리명수동지, 정호균동지와 장령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자나깨나 그리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뜻 깊은 공연을 하는 최상의 영광과 행복을 지니게 된 군부대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순간 관람자들은 극장이 떠나갈듯 한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전선시찰의 길에서 돌아 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끓어 오르는 격정에 목 메여 열광의 환호를 터치는 관람자들은 인민군대를 필승불패의 무적의 강군으로, 혁명의 기둥,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으로 억세게 키우시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고 계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은 합창 《조선의 행운》, 《세상에 부럼 없어라》, 대화시 《우리 아버지》, 실화극 《사랑의 경연》, 2중창과 가야금병창 《그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제창이야기 《병사들을 위해 바치리》, 3중창이야기 《우리는 자랑 많은 군관의 안해라오》, 기악합주 《붉은기높이 조선은 나간다》, 시이야기《계급적원쑤를 잊지 말자》, 극이야기 《어머니의 마음》, 기악과 5중창 《우리를 당할자 없다네》, 대중창이야기 《우리도 준비되였다》, 합창 《우리 앞날 밝다》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출연자들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공연을 통하여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어엿한 녀성혁명가로 자라나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억세게 떠밀어 가고 있는 자기들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랑만과 희열에 넘친 보람찬 생활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혁명의 총대를 틀어 잡고 조국보위성전에 떨쳐 나선 남편들과 함께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와 나라의 통일위업완성에 몸과 마음 다 바칠 군인가족들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힘 있게 과시하였다.

관람자들은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충천한 기세로 웃으며 전진하는 군인가족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그대로 보여 주는 공연을 보면서 우리 군인가족들이 혁명투쟁의 앞장에서 살며 싸워 나가도록 내세워 주시고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 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심로의 나날들이 가슴 뜨겁게 되새겨 져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해 하였으며 일편단심 장군님을 따라 무장으로 주체혁명위업과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고야 말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깊은 공감을 불러 일으키였다.

공연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 오르고 열화 같은 흠모의 정이 뜨겁게 굽이쳐 충성의 대하마냥 소용돌이쳤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이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랑만에 넘친 자기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 군인가족들의 정신세계와 투쟁기풍, 생활기풍은 참으로 훌륭하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백배, 천배로 억세여 진 우리 인민의 사상, 문화, 도덕의 높이를 그대로 보여 주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에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투쟁기풍, 생활기풍을 확립하는데서 예술활동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대중적인 예술활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593군부대와 337군부대 가족예술소조원들은 끊임 없는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 가시는 그토록 바쁘신속에서도 자기들의 소박한 공연까지 친히 보아 주시고 한 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 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에 눈시울을 적시면서 조국보위와 부강조국건설에 한몸 다 바쳐 갈 충성의 결의에 넘쳐 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49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5월 28일 조선인민군 근위서울 김책제4보병사단을 시찰하신후 조선인민군 제549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현철해동지, 박재경동지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이 동행하였다.

공연무대에는 합창 《정일봉의 우뢰소리》, 녀성소중창 《장군님 뵙고 싶었습니다》, 녀성독창과 방창 《보람찬 병사시절》, 재담 《자랑》, 손풍금과 노래 《경애하는 그이 품에 안긴 이 행복》, 선동이야기 《병사들을 사랑하라》, 혼성4중창 《온 나라에 소문났네》, 남성중창 《결전의 길로》, 선동극 《우리의 총대는 용서치 않으리》, 시와 합창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군인예술인들은 우렁찬 진군의 함성인양 열정과 기백으로 충만된 공연을 통하여 모두가 총폭탄이 되여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혁명의 총대로 우리 당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고야 말 인민군군인들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힘 있게 과시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군대의 성격에 맞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최전연의 고지들을 찾아 병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 주고 있는 선전대원들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제526군부대와 제264군부대 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5월 31일 태양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제526군부대와 제264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은 합창 《만경대는 혁명의 요람》, 《조선아 이 자랑 노래하자》, 합창이야기 《인민의 소원입니다》, 5중창 《자랑하세 천하제일명장》, 가야금독병창 《나는 초병의 안해》, 대화시 《사

랑의 선물옷을 입고》, 노래와 요술이야기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극2중창 《정다운 목소리》, 가무제창이야기 《우리도 병사》, 북과 기악합주 《천리마 달린다》, 시이야기 《우리도 전초선에 서 있다》,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이야기와 4중창 《평양의 딸들》, 시와 합창 《신심높이 가리라》를 비롯한 특색 있는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조국방선의 전 전선에서 총 잡은 남편들과 함께 당의 선군위업수행을 위하여 거세찬 진군을 다그치고 있는 녀성혁명가들의 도도한 기상이 무대에 그대로 옮겨 온듯 공연은 시종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넘쳐 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출연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그이의 사랑의 품속에서 가장 빛나는 혁명적삶을 누려 가고 있는 끝 없는 긍지와 자부심,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락관과 신심에 넘쳐 억세게 살며 투쟁하는 자기들의 보람찬 생활을 격조 높이 노래하였으며 조국보위성전에 떨쳐 나선 남편들과 일심동체가 되여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하고야 말 군인가족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힘 있게 과시하였다.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 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 오르고 충성의 열정으로 하여 장내는 세차게 설레이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이 자기들의 생활과 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인가족들의 예술공연수준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훨씬 발전하였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전체 예술소조원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혁명적군인정신, 혁명적정서와 생활관을 지니고 있기에 가족들도 오직 당과 혁명을 위하여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극복하며 전투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전군에 나래치는 혁명적군인정신은 우리 혁명을 힘 있게 추동하는 위력의 원천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인가족들은 조국보위의 전초선에 선 남편들과 함께 한몸그대로 육탄이 되여 사랑하는 조국과 사회주의제도를 사수할 결사의 각오를 안고 살며 싸우는 참으로 기특하고 자랑스러운 녀성혁명가들이라고 하시면서 군인가족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투쟁기풍, 생활기풍을 적극 따라 배워 온 사회에 혁명적기백이 더욱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은 예술을 대중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문예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천으로 확증하였다고 하시면서 예술활동을 대중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전체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은 전선시찰의 그토록 바쁘신속에서도 자기들의 공연을 친히 보아 주시며 따뜻이 고무격려해 주시고 한 없는 사랑과 은덕을 베풀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다함 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조국보위와 강성대국건설에 한몸 다 바칠 충성의 결의에 넘쳐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자강도안의 로동계급들과 함께 강계지구로동자예술소조종합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자강도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신후 로동계급들과 함께 강계지구로동자예술소조종합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자강도위원회 책임비서 연형묵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전병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들인 박송봉동지, 리용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춘황동지가 동행하였다.

자강도를 찾으시여 위대한 전환의 봉화를 지펴 주시고 새로운 대고조의 앞장에 세워 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또다시 모시고 뜻 깊은 공연을 하게 된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출연자들의 가슴가슴은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다.

공연무대에는 노래와 춤 《장군님 모신 행복 끝 없습니다》, 시와 노래 《영원한 믿음》, 남성중창 《우

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가무 《자강땅의 자랑일세》, 중창이야기 《한 마음 우리 제도 빛내가자요》, 북제창 《락원의 행군 북소리》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혁명의 령도계급으로 억세게 살며 투쟁하는 자기들의 끝 없는 행복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강성대국건설의 선봉부대답게 준마를 타고 구보로 달려 나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힘 있게 과시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이 로동계급의 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해 주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전승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해군 금성친위 제155군부대 군인들과 함께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46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해군 금성친위 제155군부대를 방문하시고 부대군인들과 함께 군인회관에서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 받은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현철해동지, 박재경동지를 비롯한 장령들이 동행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국태동지, 김용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리용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장성택동지가 함께 참가하였다.

공연무대에는 《언제나 수령님을 우러러》, 《동지애의 노래》, 《조국보위의 노래》, 《아무도 몰라》, 《결전의 길로》, 《우리의 7.27》. 《내가 지켜 선 조국》, 《조국의 바다 지켜 영생하리라》, 《오늘도 7련대는 우리앞에 있어라》, 《군민일치 노래 부르자》, 《정일봉의 우뢰소리》, 《어머니조국은 부른다》, 《승리의 열병식》,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를 비롯한 합창곡목들이 울랐다.

출연자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함으로써 영웅조선의 존엄과 불굴의 기개를 만천하에 과시한 조선인민군대와 인민의 자랑찬 위훈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지난 전쟁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무모한 전쟁의 불장난에 매달린다면 백배, 천배의 보복타격으로 가증한 원쑤놈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지구상에서 쓸어 버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 주었다.

관람자들은 멸적의 투지와 전투적기상이 나래치는 공연을 보면서 빛나는 승리로 수 놓아 온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았으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두차례의 준엄한 혁명전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되고 다져 진 반제자주의 전통을 굳건히 계승해 나감으로써 피로써 지켜 낸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할 불 타는 결의를 굳게 다짐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예술인들의 귀환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9월 3일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예

술인들의 귀환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 인민무력상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동지,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현철해동지, 박재경동지와 장령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전병호동지, 김국태동지, 김기남동지, 김용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및 1부부장들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인 정하철동지, 로동신문사 책임주필 최칠남동지, 조선중앙통신사 사장 김덕용동지와 문학예술, 출판보도 부문의 유능한 작가, 론설원, 기자, 편집원들이 공연을 보았다.

오매에도 그리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뜻 깊은 공연을 보게 된 크나큰 감격과 기쁨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순간 뜨거운 격정에 눈시울을 적시는 관람자들은 장내가 떠나갈듯 한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여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예술인들은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경희극 《동지》를 가지고 군인들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속에 들어 가 공연활동을 벌릴데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을 높이 받들고 근 4개월간에 걸쳐 전선군부대들과 여러 지방들을 순회하면서 정력적인 공연활동을 진행함으로써 군대와 인민들에게 귀중한 혁명적량식을 안겨 주었으며 그들을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로 힘 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이번 인민군군인들과 각지 근로자들은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구가한 경희극 《동지》를 보면서 무한한 힘과 용기를 얻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예술인들은 지방순회공연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돌아 온데 대한 충성의 보고를 올리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동지애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여 가장 숭고한 경지에 이른 우리 군대의 관병일치의 참모습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한 대걸작인 경희극 《동지》를 다시금 무대에 펼치였다.

출연자들은 커다란 견인력과 감화력을 가진 공연을 통하여 상하일치, 관병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더욱 활짝 꽃 피워 우리 혁명무력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동지애로 시작되고 동지애로 승리하여 온 우리의 주체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고야 말 인민군군인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힘 있게 과시하였다.

관람자들은 우리 군대의 무적필승의 위력의 원천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해명한 공연을 보면서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군령도로 영웅적조선인민군을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키워 주시였을뿐아니라 온 사회를 혁명적군인정신이 꽉 들어 찬 강력한 정치적보루로 다져 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일편단심 장군님을 따라 《동지애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주체혁명위업과 강성대국건설위업을 기어이 빛나게 완성할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우리 혁명대오의 혼연일체, 일심단결의 위력이 거세찬 대하마냥 도도히 맥박치는 공연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 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 오르고 충성의 열정이 뜨겁게 굽이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의 혁명정신을 빛나게 계승한 조선인민군은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관병일치가 확고히 보장된 무적의 대오로 자라났다고 하시면서 그 어떤 군사과학이나 기술로써도 만들어 낼수 없는 이 위력한 관병일치의 무기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 군대는 필승불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예술인들이 군인들과 근로자들속에 들어 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공연활동을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예술인들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200회에 달하는 순회공연을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군인들과 인민들을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혁명적인 예술활동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창작가, 예술인들이 혁명군대의 예술부대답게 군인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선봉투사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예술창작과 예술활동을 더욱 힘 있게 벌리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은 전선시찰의 길에서 겹쌓인 피로도 무실사이 없이 또다시 공연을 보아 주시며 순회공연성과를 축하해 주시고 새로운 위훈에로 불러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 없는 감사의 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활동을 진공적으로 벌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기여할 충성의 결의에 충만되여 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공화국창건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절에 즈음하여 9월 8일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 연형묵동지, 조선인민군 차수 전재선동지와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현철해동지, 박재경동지, 상장들인 정호균동지, 김윤심동지, 오금철동지를 비롯한 장령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전병호동지, 김국태동지, 김용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및 1부부장들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이 공연을 보았다.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뜻 깊은 경축공연을 보게 된 관람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 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순간 전체 관람자들은 극장이 떠나갈듯 한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우리 혁명무력을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워 주시고 우리 공화국을 강위력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켜 주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공훈합창단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밀림이 설레인다》,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누가 나에게 가르쳤던가》, 《결전의 길로》,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천리마 달린다》, 《대홍단 삼천리》, 《조선의 모습》, 《장군님은 위대한 수호자》, 《장군님 백마 타고 달리신다》, 《충성의 한길로 가고 가리라》, 《천만이 총폭탄되리라》를 비롯한 합창곡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출연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위력한 무기이며 우리 인민의 행복의 요람인 공화국의 기치 따라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 온 자랑찬 로정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 막아도 혁명의 붉은기를 더욱 높이 추켜 들고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야 말 군대와 인민의 철석 같은 신념과 의지, 전투적기상과 투지를 힘 있게 과시하였다.

관람자들은 만사람의 심장을 쿵쿵 울리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혁명적인 공연을 보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아래 력사의 준엄한 시련을 헤치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자주의 항로를 따라 억세게 전진하여 온 자랑찬 나날들을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돌이켜 보았으며 일편단심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어버이수령님의 건국업적이 찬란히 빛나는 이 땅에 기어이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울 불 같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휘황찬 미래를 향하여 도도히 전진하는 영웅조선의 장엄한 기상을 그대로 보여 주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 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 오르고 열화 같은 흠모의 열정이 뜨겁게 굽이쳐 충성의 대하마냥 세차게 설레이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훈합창단 예술인들이 조선인민군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 맥박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49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0월 6일 조선인민군 제507군부대시찰을 마치신후 조선인민군 제549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인민무력상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동지,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현철해동지, 박재경동지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이 동행하였다.

공연무대에는 시와 합창 《누가 나에게 가르쳤던가》, 녀성5중창 《자랑하세 천하제일명장》, 대화시 《영원한 삶의 품》, 남성중창 《가마마차 달린다》, 선동극 《우리의 총대는 용서치 않으리》, 합창 《높이 들자 붉은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공연을 통하여 모두가 총폭탄이 되여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무장으로 당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고야 말 인민군군인들의 철석 같은 신념과 의지를 힘 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예술선전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당창건 54돐에 즈음하여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선시찰의 길에서 당창건 54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제136군부대 장병들과 함께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국태동지, 김기남동지, 김용순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용무동지,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현철해동지, 박재경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리용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춘황동지와 조선인민군 장령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부대에 모시고 뜻 깊은 공연을 보게 된 최상의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군부대군인들의 가슴은 뜨겁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군부대군인회관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순간 군부대 군인들과 가족들은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자!》, 《총폭탄!》, 《결사옹위!》라는 우렁찬 구호의 함성을 터치면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으며 조선로동당을 세련된 령도력과 강한 전투력을 지닌 불패의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당과 군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환호하는 군인들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면서 당창건기념일을 맞는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 받은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은 이날 《언제나 수령님을 우러러》, 《높이 들어라 〈ㄹ.ㄷ〉의 기발》, 《조선로동당 만세》, 《조국보위의 노래》, 《아무도 몰라》, 《결전의 길로》, 《내가 지켜 선 조국》, 《세금 없는 우리 나라》, 《군민일치 노래 부르자》, 《정일봉의 우뢰소리》, 《어머니조국은 부른다》, 《승리의 열병식》, 《장군님 백마 타고 달리신다》,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를 비롯한 합창곡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출연자들은 최전연의 하늘가를 진감하는 공연을 통하여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령도 따라 50여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영웅적조선인민군과 인민이 창조한 자랑찬 위훈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또한 출연자들은 우리 당과 사회주의조국을 무장으로 튼튼히 보위해 가는 조선인민군의 백절불굴의 혁명적군인정신과 일편단심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야 말 군대와 인민의 철석 같은 신념과 의지를 힘 있게 과시하였다.

관람자들은 우렁찬 진군나팔소리인양 심장의 피를 끓게 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공연을 보면서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뚫고 력사적인 승리와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여 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았으며 장군님을 따라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 주신 이 땅우에 기어이 인민의 락원,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야 말 불 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휘황찬란한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세기를 주름 잡으며 강성대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센 기상을 그대로 반영한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 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 오르고 열화 같은 흠모의 열정으로 하여 장내는 충성의 대하마냥 세차게 굽이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인들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 예술인들이 조선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고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군부대 전체 군인들은 뜻 깊은 당창건기념일에 친히 부대에 찾아 오시여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에 대한 끓어 오르는 감사의 정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해 하면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사회주의조국방선을 목숨 바쳐 사수할 충성의 결의에 충만되여 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224군부대 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을 보아 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0월 17일 조선인민군 제1224군부대를 시찰하신후 군부대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을 보아 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인민무력상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동지,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현철해동지, 박재경동지, 상장 리명수동지와 조선인민군 장령들이 동행하였다.

또한 여기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국태동지, 김용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리용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들인 박송봉동지,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춘황동지가 함께 참가하였다.

자나깨나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을 부대에 모시고 예술소품공연을 보여 드리게 된 최대의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군인들의 가슴가슴은 세차게 설레이였다.

기악과 5중창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대화시 《장군님 마음속에 우리가 산다》, 4중창과 노래 《태양의 위성이 되자》, 시와 합창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을 통하여 군인들은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한 항일의 7련대의 육탄정신, 방패정신으로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당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총대로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있는 일당백군인들의 혁명적군인정신, 그들의 보람찬 군무생활의 일단을 잘 보여 주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군인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그대로 보여 주는 씩씩하고 랑만에 넘친 공연을 보시고 훈련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혁명적이며 전투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13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공연을 보시고 지도해 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715군부대를 시찰하신후 조선인민군 제313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공연을 보시고 지도해 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인민무력상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동지, 조선인민군 차수 전재선동지,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현철해동지, 박재경동지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이 동행하였다.

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원들은 설화와 합창 《구름너머 그리운 장군별님께》, 남성5중창 《정일봉의 우뢰소리》, 녀성4중창 《내가 지켜 선 조국》, 재담극 《오직 하나》, 혼성중창이야기 《전사들은 속삭인다네》, 선동시극 《잊지 말자 피의 교훈을》, 선동과 합창 《충성의 대답소리 〈알았습니다〉》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원들이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여러가지 형식의 예술작품들을 창작하여 군인들속에서 기동적인 예술활동을 벌리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인 예술은 군인들의 정치사상교양의 중요한 무기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군대내에서 예술선전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청년기동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선시찰의 길에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청년기동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현철해동지, 박재경동지와 조선인민군 장령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김용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리용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들인 박송봉동지, 장성택동지가 공연을 보았다.

조선인민군 청년기동선전대원들은 선동과 노래 《오늘의 7련대 되리라》, 혼성중창 《장군님 백마 타고 달리신다》, 실화극 《수령결사옹위의 화신들》, 남성독창과 방창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선동과 노래 《병사여 죽어도 베고 죽자 군사규정을》, 혼성중창 《말해 주리 병사의 사랑을》, 재담극 《병사들을 사랑합시다》, 토막독연극 《병사의 자세》, 선동과 노래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혼성중창 《최고사령관기 날리며 승리를 떨치리》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출연자들은 높은 전투성과 호소성, 커다란 감화력과 견인력을 가진 다양한 예술작품들을 통하여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생동하게 잘 보여 주었으며 모두가 총폭탄이 되여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주체의 혁명위업과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고야 말 우리 군대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힘 있게 과시하였다.

관람자들은 병사들의 가슴마다에 강렬한 정서와 락천적이며 전투적인 열정을 안겨 주고 그들을 투쟁과 위훈에로 힘 있게 불러 일으키는 혁명적인 공연을 보면서 위대한 사상의 무기로 우리의 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 사상의 강군으로 키워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표하였으며 장군님의 령도 따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 올 불 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혁명적군인정신이 세차게 나래치는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 주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청년기동선전대원들이 군인들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에로 불러 일으키기 위한 기동선전을 전격적으로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청년기동선전대원들이 지난 기간 항일유격대식선전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전연과 후방, 건설장의 군인들을 쉬임없이 찾아 다니며 멸적의 투지와 용맹을 안겨 줌으로써 혁명무력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인교양에서 예술선전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예술선전활동을 기동적으로, 전격적으로 벌려 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청년기동선전대원들은 전선시찰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공연을 친히 보아 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에 대한 끓어 오르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해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전군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할 충성의 결의에 충만되여 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775군부대관하 민경중대 군인들의 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1월 29일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775군부대를 시찰하시고 군부대관하 민경중대 군인들의 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인민무력상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동지,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현철해동지, 박재경동지, 상장 리명수동지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이 동행하였다.

꿈결에도 뵙고 싶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부대에 모시고 자기들의 예술소품공연을 보여 드리게 된 끝 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군인들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다.

설화시와 합창 《장군님 뵙고 싶었습니다》, 시와 노래 《장군님 여기는 최전연입니다》, 기악합주와

노래 《장군님 모신 자랑 노래 부르자》, 대화시 《사랑의 첫 자리에 우리가 삽니다》, 4중창이야기 《지새지 말아 다오 평양의 밤아》, 요술과 노래 《부르자 자랑찬 병사의 노래》, 선동과 노래 《잊지 말자 승냥이 미제를》, 합창시와 합창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은 모두가 성새, 방패가 되여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어머니조국을 목숨 바쳐 사수할 전초병들의 불굴의 기개를 힘 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의 절대불변의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그대로 보여 주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불사신의 용맹으로 조국의 전초선을 믿음직하게 지켜 가고 있는 민경중대군인들의 투쟁정신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2월 24일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인민무력상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용무동지,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현철해동지, 박재경동지, 상장들인 리명수동지, 김윤심동지, 오금철동지와 조선인민군 장령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계응태동지, 최태복동지, 김국태동지, 김기남동지, 김용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및 1부부장들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인 정하철동지, 로동신문사 책임주필 최칠남동지, 조선중앙통신사 사장 김덕용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외무성 제1부상인 강석주동지가 공연을 보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뜻 깊은 공연을 하게 된 공훈합창단성원들은 끝 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 있었다.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 받은 공훈합창단은 《경례를 받으시라》, 《반일전가》, 《장군님 모시고 기어이 돌아 오리》, 《장군님은 조선의 운명》, 《누가 나에게 가르쳤던가》, 《병사의 발자욱》, 《오늘도 7련대는 우리 앞에 있어라》, 《조선의 장군》,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우리는 잊지 않으리》, 《제2의 천리마대진군 앞으로》, 《승리의 열병식》, 《천만이 총폭탄되리라》를 비롯한 합창곡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출연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여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영웅적조선인민군이 걸어 온 영광스러운 로정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또한 출연자들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아도 혁명의 붉은기를 더욱 높이 추켜 들고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과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야 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 전투적기상과 투지를 잘 보여 주었다.

공훈합창단은 천만산악도 만리격랑도 단숨에 넘고 헤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적필승의 전투적기상을 반영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들을 높은 사상예술적기량으로 힘 있게 부름으로써 투쟁의 기수, 투쟁의 나팔수로서의 위용을 뚜렷이 과시하였다.

관람자들은 혁명적군인정신과 전투적기백이 약동하는 공연을 보면서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건군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기 위하여 불철주야의 로고를 다 바치시여 선군혁명령도의 위대한 력사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 나감으로써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 올 불 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사람들의 심장의 피를 끓게 하는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 주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연을 보시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인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예술인들이 전선과 후방에서 혁명적인 예술활동으로 군인들과 인민들을 새로운 위훈에로 적극 고무추동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 주신 주체적문학예술발전을 위한 강령적지침

주체88(1999)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송년시 《잊을수 없어라 1998년이여》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월 2일 송년시 《잊을수 없어라 1998년이여》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송년시 《잊을수 없어라 1998년이여》를 여러번 읽어 보았는데 잘 썼다고, 나의 의도를 시에 잘 담았다고, 마치 나와 한자동차를 타고 다닌 사람이 쓴것 같다고 높이 평가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송년시를 쓴 작가들을 표창할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신년경축공연을 보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라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월 11일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신년경축공연을 보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늘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이 신년경축공연을 아주 잘하였다고 특히 오늘 공연에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한것이 좋다고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이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에로 불러 일으키기 위한 공연활동을 더욱 힘 있게 벌려 나가리라고 믿는다고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공연을 보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3월 1일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공연을 보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이 오늘 공연을 잘하였다고, 공연성격에 맞게 곡목편성을 잘하고 형상도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중대장대회 참가자들이 오늘 공연을 보면서 커다란 감명을 받고 앞으로 부대에 돌아 가 일을 더 잘할 결심을 굳게 다졌을것이라고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이 오늘 공연을 잘한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합창단 전체 지휘성원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이 세계적인 합창단으로서의 명예를 빛내여 나가자면 혁명군대의 성격에 맞는 주체적인 관현악을 창조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은금과 손풍금을 배합한 관현악에서는 손풍금을 잘 살려 쓰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관현악에서 손풍금의 역할을 높이자면 편곡단계에서부터 손풍금을 살려 쓰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창조단계에서 연주가들의 형상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이 세계적인 합창단으로서의 명예를 빛내여 나가기 위하여서는 합창형상창조에서 반복과 도식을 피하고 매개 노래의 성격과 양상을 잘 살리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는데 대해서와 창작가, 예술인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수준과 예술적기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실속 있게 짜고 들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깨우쳐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영화들인 《추억속에 영원하리》와 《명줄》,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최현편 제1~3부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3월 13일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 창작한 예술영화들인 《추억속에 영원하리》와 《명줄》,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최현편 제1~3부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먼저 예술영화 《추억속에 영원하리》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최근에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 예술영화 《추억속에 영원하리》를 잘 만들었다고, 그 영화를 보고 몇곳을 수정하도록 하였는데 처음보다 훨씬 좋아 졌다고 하시면서 지금 그 영화를 본 군인들과 인민들의 반영이 대단히 크다고 평가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예술영화 《추억속에 영원하리》는 경희극 《편지》를 가지고 만든 영화이라고 하시면서 처음 경희극 《편지》를 가지고 예술영화를 만들라고 하였을 때에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경희극 《편지》가 잘되였기때문에 그것보다 더 잘 만들수 있겠는가 하면서 많이 걱정하였다고 한다고, 내가 경희극 《편지》를 가지고 예술영화를 만들 때에는 희극작품으로 만들지 말고 정극작품으로 만들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 영화가 경희극보다 인식교양적의의가 더 크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예술영화 《추억속에 영원하리》는 현 시기 군인들과 인민들을 교양하는데도 좋지만 먼 후날 후대들에게 우리가 《고난의 행군》시기에 어떻게 살며 투쟁하였는가 하는것을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 주면서 그들을 교양하는데도 좋을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예술영화 《명줄》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예술영화 《명줄》도 잘 만든 영화이라고 하시면서 이 영화는 이야기거리가 간단하지만 군인들과 인민들을 교양하는데 아주 좋은 영화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속편인 최현편 1~3부와 관련하여서도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속편인 최현편 1,2,3부도 잘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영화에서 독립군운동의 종말을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잘 형상하였다고, 조선독립군운동의 종말은 현명한 령도자가 없이는 결국 그 어떤 뜻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영화의 역인물선택도 잘하고 배우들의 연기수준도 높다고 하시면서 특히 최현동

지의 역을 한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고, 그는 역형상에서 최현동지의 개성적특성을 잘 살렸다고 지적해 주시였다. 계속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최현동지의 역을 한 배우는 지난 시기 별로 나타나지 않던 동무인데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속편인 최현편을 찍으면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평가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최현동지의 아버지역을 한 배우도 연기를 잘한다고 평가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작사 창작가들을 높이 평가해 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4월 15일 조선인민군창작사 창작가들을 높이 평가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조선인민군창작사에서 군복을 입은 수령님과 나의 초상화를 5가지 방안으로 형상하여 올려 보낸것을 보았는데 모두 품을 들여 잘 형상하였다고, 인민군창작사에서 새로 형상한 3대장군위인상도 좋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창작사 창작가들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날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 창작한 경희극 《동자》를 록화한것을 보았는데 잘하였다고 평가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최근 영화창작 실태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4월 15일 최근 영화창작실태와 관련하여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선 혁명영화 《밀림이 설레인다》 제7,8부를 잘 만든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 보천보전자악단음악을 많이 쓰라고 하였는데 혁명영화 《밀림이 설레인다》에서 보천보전자악단과 왕재산경음악단,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음악을 잘 썼다고, 합창 《밀림이 설레인다》와 《오늘도 7련대는 우리앞에 있어라》가 영화의 장면들에 아주 잘 맞는다고 평가해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예술영화 《법동농민》의 창조에서 나타난 결함들에 대해 지적해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과 같은 시대적명곡을 잘 쓰지 못한데 대하여서와 주인공의 성격형상을 생활의 론리와 감정의 론리에 맞게 잘하지 못한데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서 영화창작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과업과 방도들을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 만든 경희극 《동지》는 종자가 좋다고 하시면서 그 경희극을 본 간부들의 반영도 좋다는데 대해 지적해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미 창작된 혁명영화 《사령부를 멀리 떠나서》에 대하여 높이 평가해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영화 《사령부를 멀리 떠나서》는 잘된 영화이라고 하시면서 그 영화에 대한 인상이 강하여 그런지 그만한 수준의 영화가 다시 나올것 같지 못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문학을 앞세우기 위한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창작에서 기본은 영화문학이라고 하시면서 다른 나라 영화는 형식에 많이 치우치지만 우리 영화는 내용이 기본이라고, 영화문학이 좋으면 영화는 성공하기 마련이라고 가르쳐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 작가들의 진영이 약해 진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작가후비양성사업을 당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전망성이 있는 대상이 있으면 대학에 보내든지 작가양성반에 보내든지 하여 작가후비로 키워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와 함께 현직작가들이 창작을 마음대로 할수 있게 물질적보장사업을 잘해 주어야 하겠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67돐에 즈음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보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4월 25일 조선인민군창건 67돐에 즈음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보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이 조선인민군창건 67돐 경축공연을 아주 잘하였다고, 공연무대에 수령님과 우리 당의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 온 영웅적조선인민군대의 전투적행로를 감회 깊게 돌이켜 보게 되는 군가들과 명곡들을 많이 올리고 높은 수준에서 잘하였다고, 공훈합창단이 오늘 공연을 한시간동안 공간 없이 진행하였는데 빈틈이 없다고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 공연은 언제 보아도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하다고, 머리가 흐리터분한 사람들이 공훈합창단의 공연을 보면 정신이 번쩍 들것이라고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늘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대단히 만족하게 보았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 성원들에게 은정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교예단의 요술공연을 보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4월 25일 조선인민군교예단의 요술공연을 보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늘 요술공연을 잘하였다고, 기능요술 《시계재주》와 《불재주》, 《애인의 손목》에 출연한 배우들이 재간이 있다고 하시면서 환상요술 《피리 부는 사나이》는 예술영화 《홍길동》의 한장면을 요술화하였는데 착상이 새롭고 형상수준도 높다고 평가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앞으로 요술작품창작에서 반주음악을 잘 쓰는데 주의를 돌려야 하겠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경희극 《동지》를 보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5월 7일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예술인들이 출연한 경희극 《동지》를 보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먼저 작품이 거둔 특출한 사상예술적성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늘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경희극 《동지》를 매우 감명 깊게 보았다고 하시면서 경희극 《동지》는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격동도 있는 특색 있는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작품은 내용도 좋고 경희극으로서의 양상도 잘 살렸다고, 경희극 《동지》는 사상성이 매우 강한 작품이라고 하시면서 경희극 《동지》는 우리 인민군대가 지니고 있는 정치사상적위력의 기초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혁명적동지애가 인민군대의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된다는것을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해명하였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작품의 종자가 좋다고, 작가가 현 시기 당에서 의도하는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형상의 초점을 집중시키고 이야기를 극적으로 잘 꾸몄다고 하시면서 작품이 마감을 힘이 있으면서도 격동적으로 처리한것이 좋다고, 인민군대 장병들이 이 경희극을 보면 자극을 많이 받게 될것이라고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배우들의 연기형상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경희극 《동지》에 출연한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였다고, 오늘 공연에 지난해 경희극 《편지》에 출연하였던 배우들이 거의 그대로 나오는데 연기를 진실하면서도 생동하게 잘한다고 평가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최근에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 만든 영화들을 보면 배우들이 연기를 잘한다고 하시면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최현편에 출연한 배우들이 역인물의 성격을 살려 연기를 잘하였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경희극 《동지》에서 소대장역을 하는 동무는 예술영화 《비행사 길영조》에서 대렬기비행사로 나오는 동무인데 오늘 공연에서 연기를 아주 잘하였다고, 그의 연기는 개성이 있다고 평가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경희극 《동지》는 지난해에 창조된 경희극 《편지》보다 더 잘되였다고, 나는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 경희극 《동지》를 인식교양적의의가 매우 큰 시대의 명작으로 훌륭히 만들어 내놓은데 대하여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창작가, 예술인들이 경희극 《동지》 창조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다시금 높이 치하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작품수정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경희극 《동지》를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작품으로 더 세련시키기 위하여 일부 장면들을 고쳐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방도들을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경희극에서 일섭이라는 상급병사가 군관학교에 보내달라고 한 자기의 부탁을 소대장이 들어 주지 않는다고 하여 그를 고깝게 생각하면서 다른 중대에로 가겠다고 하는것은 현실과 잘 맞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 장면을 상급병사가 소대장의 거친 사업작풍에 불만을 가지고 다른 중대로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로 고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그렇게 하면 생활론리에도 맞고 작품의 주제사상을 해명하는데도 좋을것이라고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경희극 《동지》를 가지고 인민군군인들속에 들어 가 순회공연을 많이 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최근에 중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과 관병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는데 이런 교양적가치가 있는 경희극을 군인들에게 보여 주면 강연이나 해설담화를 수십번이나 하는것보다 더 큰 실효를 나타낼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경희극 《동지》를 사회일군들에게도 많이 보여 주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인민군대가 경희극 《동지》와 같은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내놓은것은 우리 혁명과 사회앞에 하나의 큰 기둥을 세웠다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 경희극 《동지》를 가지고 예술영화를 잘 만들어야 하겠다고, 경희극 《동지》는 종자가 좋기때문에 예술영화로 만들면 훌륭한 영화가 될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경희극 《동지》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5월 8일 경희극 《동지》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경희극 《동지》를 잘 만들었다고, 경희극 《동지》는 작품의 종자도 좋고 교양적의의도 큰 작품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관병관계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는 때에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상하관계, 부하에 대한 지휘관의 뜨거운 사랑을 주제로 한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여 내놓았다고 높이 평가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경희극 《동지》에 출연한 배우들이 연기를 잘한다고, 특히 소대장역을 맡은 배우가 역형상을 잘한다고 하시면서 그는 생긴것도 구분대 소대장처럼 패기 있게 생기고 연기에서도 소대장성격을 생동하게 형상하고 있다고, 진짜 소대장을 보는것 같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분대장역을 한 배우와 초급병사역을 하는 배우도 연기를 잘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남자배우들의 력량이 강하다고 평가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앞으로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와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매해 새로운 경희극을 창작하여 내놓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경희극은 배우들의 기량을 높여 주는데서도 좋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군인들의 서예경연조직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6월 7일 인민군군인들의 서예경연조직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에서 서예경연을 조직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전군적으로 보면 서예에 능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것이라고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홍정화독무회 조직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6월 26일 조선인민군협주단 안무가, 인민배우 홍정화의 독무회조직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협주단 안무가 홍정화가 올해 8월에 생일 60돐을 맞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계기로 그의 독무회를 조직해 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는 어릴 때부터 무용을 잘하여 세계적으로 소문을 낸 동무이라고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공로 있는 인민군대안의 창작가들에 대한 평가사업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7월 10일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공로 있는 인민군대안의 창작가들에 대한 평가사업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특출한 공로가 있는 인민군대안의 창작가들에 대한 평가사업을 잘하여야 하겠다고, 지난 시기 사회의 창작가들과 예술인들이 좋은 작품을 써내거나 작품형상에서 연기를 잘하였을 때에는 국가적인 표창도 해주고 승용차도 선물로 주었지만 인민군대의 창작가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사실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작품을 내놓은 창작가들의 공로는 연기형상을 잘한 배우들의 공로에는 대비도 되지 않는다고, 최근년간 인민군대안의 창작가들도 시대와 혁명의 요구,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내놓았는데 그들에 대한 평가를 잘해 주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노래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를 창작한 조선인민군협주단 창작가들도 평가를 잘해 줄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위대한 수령님 서거 5돐을 계기로 서사시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를 창작한 조선인민군출판사 작가도 높이 평가해 줄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최근에 인민군대에서 나온 서사시와 경희극, 예술소품과 같은 문학예술작품

들이 수준이 높은데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앞으로 인민군대에서 좋은 작품을 쓸수 있는 작가들을 많이 키워 내야 하겠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화문학창작을 선행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7월 11일 영화문학창작을 선행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 새 영화가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영화가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것은 영화문학이 많지 못한것과 관련되여 있다고 지적해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영화문학이 걸렸다고 하시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영화문학작가가 따로 없다고, 다른 나라에서는 연출가가 좋은 소설을 각색하여 대본을 써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는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를 만드는데도 사람을 적게 쓰는것이 세계적추세라는데 대하여서도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승절에 즈음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보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7월 27일 전승절에 즈음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보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이 오늘 공연을 보장하느라고 수고하였다고,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이 오늘 불리한 조건에서도 공연을 성과적으로 보장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은 이번에 이룩한 성과에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예술창조사업과 공연활동을 더욱 힘 있게 벌려 세계 일등급의 합창단으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하겠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 배우들의 생활을 잘 돌봐 주어야 하겠다고, 특히 공로가 있는 배우들을 적극 내세워 주고 잘 돌봐 주어야 하겠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에 가슴에 훈장을 많이 단 오랜 배우들이 있어야 합창단의 위풍을 돋구고 관록을 시위할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협주단의 홍정화의 생일 60돐을 맞으며 독무회를 하였는데 아주 잘하였다고 한다고 하시면서 홍정화는 수령님과 우리 당이 키운 재능 있는 무용배우이라고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금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 경희극 《동지》를 가지고 최전연부대들에 나가 순회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반영이 아주 좋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기회를 봐서 경희극 《동지》의 공연을 다시 보아 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요술작품창작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8월 3일 요술작품창작과 관련하여 가르치심

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조선인민군교예단 배우들이 하는 요술공연을 다시 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잘한다고, 특히 오늘 《바줄묶기》를 잘한다고 평가하시면서 그런데 새로 창조하여 내놓은것이 없다고, 앞으로 조선인민군교예단에서 새로운 요술을 많이 창작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작가, 작곡가들이 좋은 작품들을 써내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8월 6일 작가, 작곡가들이 좋은 작품들을 써내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를 쓴 작가에 대하여 료해해보니 역시 작가들은 젊었을 때 좋은 글을 많이 쓴다고, 그는 내가 현지지도한 단위들에 계속 다니면서 취재하여 글을 쓰고 있다고 하시면서 젊은 작가들이 좋은 글을 써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가 수령님의 서거 1돐을 맞으며 훌륭한 서사시를 써낸것처럼 좋은 글들은 거의 다 40대, 50대 작가들이 써내고 있다고, 지금 좋은 글을 쓰는 작가들은 거의 다 40대, 50대의 작가들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잘 썼다고 평가한 글을 쓴 작가들을 보면 80%이상이 젊은 작가들이라고, 좋은 시와 노래도 젊은 창작가들이 써내고 있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나이가 많은 창작가들을 보면 그들도 40대, 50대에 창작을 많이 하였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판문점3자련합대회에 출연할 조선소년단 축하단의 축하문을 잘 썼다고, 축하문을 쓴 작가가 서사시 《세상에 부럼 없어라》도 썼는데 글을 잘 쓴다고 평가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젊은 작가, 작곡가들이 우리 인민의 교양에 좋은 작품들을 더 많이 써내며 나이 많은 창작가들도 분발하여 좋은 작품들을 써내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경희극 《동지》의 귀환공연을 보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9월 3일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예술인들의 경희극 《동지》의 귀환공연을 보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늘 경희극 《동지》를 다시 보았는데 지난 5월에 볼 때보다 작품이 문학적으로 더 째이고 형상수준도 높아 졌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창작가, 예술인들이 그동안 전연부대들과 지방도시들에 나가 순회공연을 진행하면서 작품을 더 세련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하였다는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경희극 《동지》는 지난해 창작공연된 《편지》보다 훨씬 잘되였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해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경희극 《자강도사람들》을 창작하여 내놓았는데 그 작품은 경희극 《동지》와는 대비도 되지 않는다고, 경희극 《동지》는 최근에 본 경희극작품들중에서 제일 잘된 걸작이라고 평가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작품은 인식교양적의의가 매우 크다고, 경희극 《동지》는 우리 인민군대가 지니고 있는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감명 깊게 보여 주었을뿐만아니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스스로 돌이켜 보고 주인공들처럼 살며 일해 나갈 새로운 결심을 다지게 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경희극은 확실히 감화력이 큰 작품이라고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번 순회공연과정에 배우들의 연기형상수준도 많이 발전하였다고, 공연에 출연한 배우들이 연기를 진실하고 생동하게 하기때문에 하나와 같이 친근감이 나고 사랑이 간다고 하시면서 특히 소대장역을 하는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고, 분대장과 초급병사역을 하는 배우들도 연기를 잘한다고 평가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경희극에서 상급병사 지일섭의 역을 하는 배우의 연기가 진실하다고 하시면서 경희극 《동지》의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그들에게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경희극 《동지》의 공연을 더 진행하여야 하겠다고,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하고 큰 감화력과 견인력을 가지고 있는 경희극 《동지》의 공연을 이것으로 끝마치기에는 아깝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예술인들에게 당의 의도를 알려 주어 그들이 순회공연에서 발휘한 열정을 가지고 경희극 《동지》를 한 200회까지 공연하여 더 많은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보여 주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경희극 《동지》를 가지고 만드는 예술영화의 주인공을 사단장이 아니라 련대장으로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이 작품을 가지고 만드는 예술영화를 어떻게 만들겠는가 하는것을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주인공을 사단장으로 하면 급이 지내 높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안에 얼마 되지 않는 사단장을 전형화하는 영화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사단장을 형상한 영화를 만들려면 군사가로서의 기질도 보여 주는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 작품을 가지고 만드는 예술영화의 주인공을 련대장으로 하면 영화에서 더 많은 문제들을 취급할수 있고 교양의 폭도 넓힐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예술인들에게 오늘 공연을 대단히 만족하게 보았다는것을 전달해 주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공화국창건절에 즈음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보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9월 8일 공화국창건절에 즈음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보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이 오늘 경축공연을 아주 잘하였다고, 공연성격에 맞게 합창곡목들을 잘 선정하고 형상도 잘하였다고, 특히 합창 《누가 나에게 가르쳤던가》를 잘 불렀다고 하시며 그 노래는 예술영화 《추억의 노래》의 주제가인데 좋은 노래이라고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합창 《천리마 타고 달린다》도 잘 불렀다고,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이 공화국창건절경축공연을 훌륭히 진행한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공훈합창단의 전체 성원들에게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영화《사랑의 대지》의 수정대책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9월 10일 예술영화 《사랑의 대지》를 보시고 영화의 수정대책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선 녀교원이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이모가 병문안을 와서 내놓는 잉어남비탕을 남비채로 정옥에게 먹으라고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식 생활문화에 맞지 않는다는데 대하여 깨우

쳐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병원원장이 자기의 의술이 약하여 정옥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고 하는것이 맞지 않는다고, 개인병원 원장도 아닌 그가 그렇게 말하는것은 맞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시였으며 피 묻은 치마저고리를 의사협의회에 내놓는 장면도 반일교양을 하는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병을 고쳐 주지는 못한다고 하시면서 반일교양을 하는것만으로는 의학기술적문제를 풀수 없다고 지적해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에 설정된 애인선이 좋다고 평가해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가 진실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에서 귀국한 불구자처녀의 병을 병원에서 몇해씩 치료하고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가 아무런 의학지식도 없는 인민학교 교원이 고치는것으로 형상한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우리 사회제도에 대한 반영이 잘 안되였다고, 인위적인 감이 있고 무리가 간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영화에서 주변사람들은 랭랭하고 우연히 한 녀교원이 정성을 다하여 환자를 고쳐 주는것으로 형상한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녀교원을 부각시키는데는 좋을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환자에 대하여 관심이 부족하고 외면하는것으로 된다고, 그것은 결국 사회의 랭정성을 말해주는것으로 되는데 그것으로 환자의 성격도 이지러지게 하면 우리 사회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될것이라고 깨우쳐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환자에 대한 녀교원의 정성도 우리 사회제도의 고마움속에서 은을 내는것으로 하여야 한다고, 절대로 꾸며 내는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문학이 깊이가 없고 노래도 어떤 대목은 맞지 않는데 대해 지적해 주시면서 영화문학을 론리성과 철학성이 있게 쓸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녀교원을 차라리 의사로 설정하고 환자도 방금 귀국한것으로 하는것이 나을것 같다고, 그렇게 하여 의사의 정성으로 환자의 병을 끝까지 고쳐 주는것으로 하면 더 좋을것이라고 수정대안도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문학에서 시간개념을 똑똑히 주어야 한다고, 영화문학을 쓰는데서도 주의하여야 하며 심의를 하는데서도 이런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영화의 시대를 수령님시대로 할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에서 시대를 똑똑히 규정하여야 한다고, 영화문법을 어기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영화를 다시 편집하도록 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창건 54돐에 즈음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보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0월 10일 조선로동당창건 54돐에 즈음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보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이 오늘 공연을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공연은 언제 보아도 좋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합창 《언제나 수령님 우러러》에서 선창을 하는 배우가 노래를 아주 잘 불렀다고, 그는 《압록강 2천리》, 《누가 나에게 가르쳤던가》와 같은 높은 음역의 노래선창도 손색없이 부르는 훌륭한 고음가수이라고, 그는 노래형상수준이 높고 음색도 독특하기때문에 누가 그의 흉내를 내자고 하여도 낼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는 우리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 세대 가수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 시기에 한다 하는 가수들은 주로 유럽나라들에 가서 성악을 배웠지만 그는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주체적인 음악교육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올해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였던 로씨야군대협주단 성원들이 그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세계적인 가수라고 감탄하면서 그가 평양음악무용대학을 다닌것이 사실인가고 하였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금 공훈합창단에 있는 남자선창자들은 다 소리가 독특하고 노래형상수준이 높다고,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 선창자들은 우리 당의 재부이며 공화국의 재부이라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이 공연을 잘한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하며 그들의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텔레비죤련속극 《열망》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1월 21일 텔레비죤련속극 《열망》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요즘 텔레비죤으로 내보내고 있는 텔레비죤련속극 《열망》이 교훈적이라고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텔레비죤련속극 《열망》에서는 공장당책임비서가 지배인을 내세우고 당적으로 도와 주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책임비서는 지배인에게 결함이 좀 있지만 그가 기술을 아는 일군인것만큼 그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떠밀어 주어 공장앞에 제기되는 당적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한다고 하시면서 당일군은 어디까지나 정치일군이지 행정기술일군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뿌리 뽑고 당적, 정치적지도를 강화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시기에 텔레비죤련속극 《열망》은 당일군들이 보고 참고할수 있는 작품이라고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다부작예술영화《민족과 운명》 련속편창조 사업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1월 26일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련속편창조사업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련속편을 창조하는데서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영화를 만드는것은 잘못된것이라고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 영화다운것은 로동계급편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여러차례 보고 수정방향을 주었으니 그렇게 되였지 그냥 내버려 두었더라면 무엇이 되였을지 모른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국보적인 작품에 대한 리해문제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2월 3일 국보적인 작품에 대한 리해문제와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 일부 일군들과 창작가들속에서 국보적인 작품을 창작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소리이라고 가르쳐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작품은 창작가들이 창작하여 내놓은 다음 인민들이 보고 국보적인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하여야 국보적인 작품으로 되는것이지 창작가자신이 국보적인 작품을 창작한다고 하여 국보적인 작품으로 되는것이 아니라는데 대하여 깨우쳐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텔레비죤방영사업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2월 12일 텔레비죤방영사업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립희극단의 공연은 극장에서만 하게 하고 텔레비죤방송으로는 내보내지 말아야 하겠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립희극단공연을 텔레비죤방송으로 내보내면 사람들이 텔레비죤을 보고 극장에는 가려고 하지 않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극장에 가게 하기 위해서도 국립희극단공연을 텔레비죤방송으로 내보내지 않는것이 좋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예술영화 《피바다》와 관련하여서도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이들이 예술영화 《피바다》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반일교양, 계급교양에 제일 좋은 영화인데 어린이들이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니 문제이라고 하시면서 청소년들에게 예술영화 《피바다》를 다 보여 주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영화창작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2월 21일 혁명영화를 람발하지 말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 형편에서는 혁명영화를 1년에 1편정도 만들어도 된다는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의 별》을 비롯하여 혁명영화들이 적지 않게 나갔는데 그 영화들은 지금도 교양적의의가 크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혁명영화를 만들면서 허구를 지나치게 허용하거나 력사적사실을 외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영화는 회고록에 서술되여 있는 력사적사실들을 떠나서 만들면 안된다고, 력사적사실을 외곡하면 가짜가 진짜로 될수 있고 진짜가 가짜로 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혁명영화를 심사숙고하여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공연을 보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2월 24일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공연을 보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이 오늘 공연을 잘하였다고, 특히 선창자들이 노래를 아주 잘 불렀다고 평가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늘 합창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에서 선창하는것을 들으며 눈물이 나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고, 노래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는 나온지 20여년이 지나고 그 곡을 지은 작곡가도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나는 최근에 시련과 고난이 겹쌓일 때마다 그 노래를 들으며 힘을 얻군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합창 《신심높이 가리라》에서 선창한 동무도 노래를 잘한다고 하시면서 그 합창을 텔레비죤으로 많이 내보냈기때문에 우리 인민들이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늘 공연을 본 일군들이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에서 새로 창작형상한 합창 《우리는 잊지 않으리》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합창은 노래의 종자도 좋고 그에 맞게 양상도 잘 살렸다고, 누구든 그 노래를 들으면 우리 당과 인민이 《고난의 행군》을 어떻게 이겨 냈는가 하는것을 감회깊이 추억하면서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얻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노래 《우리는 잊지 않으리》는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이끌어 온 우리 당의 력사를 감동적으로 보여 주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교육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2월 27일 예술교육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예술교육에 아직도 사대주의가 남아 있다고, 지난 날 예술교육부문에서는 다른 나라의 교측본이나 명곡들을 가지고 교육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나는 예술교육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대주의적인 현상을 비판하고 혁명가극 《피바다》를 비롯한 5대혁명가극을 가지고 우리 나라 선률로 교육하도록 하였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부문에 나타나고 있는 도식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2월 28일 예술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식과 관련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예술영화를 비롯하여 예술부문에 도식이 있다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화면에 전화 받는 사람이 머뭇거리면 수령님께서 걸어 오시는 전화를 받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고 초상화가 나오면 눈물이 글썽하여 우는 장면이 나오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예술부문에서 하나의 도식이라고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돌려 주신 사랑과 배려

주체88(1999)년

1 월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월 13일 평양음악무용대학창립 50돐과 관련하여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보내주도록 배려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월 20일 송년시 《잊을수 없어라 1998년이여》를 창작한 시인들을 표창하도록 배려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월 20일 공화국창건 50돐경축 국가미술전람회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입선자들에게 은정 넘친 배려를 돌려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백인준의 사망과 관련하여 1월 20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고 《로동신문》을 비롯한 신문과 방송에 부고를 내며 장례를 기관장으로 하고 령구를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백인준의 유가족들에 대한 병치료와 관련하여 1월 23일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2 월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2월 10일 만수대예술단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자강도예술단창립 50돐과 관련하여 2월 24일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보내주도록 배려를 베풀어 주시였다.

3 월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3월 1일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에 감사를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배우 정운모의 병상태를 료해하시고 3월 1일 산삼과 록용, 산꿀을 보내주도록 배려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9차 《2.16예술상》개인경연진행정형을 료해하시고 3월 10일 입선자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윤이상음악연구소 소장 김정호의 사망과 관련하여 3월 15일 장례를 기관장으로 하며 유가족들에게 사회주의애국렬사증을 수여하도록 배려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예술영화촬영소 공훈배우 온성조의 사망과 관련하여 3월 22일 장례를 기관장으로 하도록 배려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인민배우 문예봉의 사망과 관련하여 3월 26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고 신문 《민주조선》, 《평양신문》, 방송에 부고를 발표하며 장례를 기관장으로 하고 령구를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안치하며 유고로 남긴 장편수기를 완성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교양사업에 리용하도록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3월 26일 작가 천세봉의 유가족들의 사업과 생활을 료해하시고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였다.

4 월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4월 5일 피바다가극단 인민배우 조청미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4월 15일 조선인민군창작사 창작가들을 높이 평가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4월 20일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조직위원회 성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4월 25일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에 자신의 명의로 선물을 보내주도록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창립 40돐과 관련하여 4월 28일 당중앙군사위원회 축하문을 보내주도록 배려하여 주시였다.

5 월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5월 5일 금수산기념궁전 전설들을 발굴정리하는 사업에서 공로 있는 작가들을 표창하도록 배려를 돌려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대창작사 조각가 공훈예술가 정사혁의 사망과 관련하여 5월 12일 장례를 기관장으로 하며 유가족들에게 사회주의애국희생증을 수여하도록 배려를 돌려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연출가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인민예술가 김영호의 사망과 관련하여 5월 20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고 장례를 기관장으로 하며 고인의 령구를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안치하고 《평양신문》과 《문학신문》에 부고를 내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6 월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6월 10일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국립연극단 공훈배우 김중신의 사망과 관련하여 6월 15일 장례를 기관장으로 하며 유가족들에게 사회주의애국희생증을 수여하도록 배려를 돌려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대창작사 부사장 《김일성상》계관인, 2중로력영웅, 인민예술가 정영만의 병상태를 료해하시고 6월 16일 치료대책을 세워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정영만의 사망과 관련하여 6월 18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고 장례를 사회장으로 하며 령구를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안치하고 유가족들에게 사회주의애국희생증을 수여하며 부고를 《민주조선》, 《평양신문》, 《문학신문》, 방송으로 내보내도록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6월 23일 작가들의 창작사업과 생활에 대해 료해하시고 은정 깊은 배려를 돌려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대창작사창립 40돐과 관련하여 6월 23일 공로 있는 창작가들에게 국가표창을 하도록 배려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배우 김원숙의 병상태를 료해하시고 6월 23일 사향을 비롯한 귀중한 약재들을 보내주시고 치료대책을 세워 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6월 23일 평양음악무용대학 교원 장명숙의 병상태를 료해하시고 산삼과 산꿀을 보내주며 보건성에서 치료대책을 세우도록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번역영화제작소 인민배우 엄미화의 생일 70돐에 즈음하여 6월 23일 생일상을 보내주도록 배려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백인준의 유가족과 작가 신진순의 생활을 료해하시고 6월 23일 은정 깊은 배려를 돌려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대창작사 종업원들의 살림집실태를 료해하시고 6월 30일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 주시였다.

7 월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7월 5일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총장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인민배우 엄길선의 병상태를 료해하시고 치료대책을 세워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작가들의 창작조건보장과 관련하여 7월 5일 은정 깊은 배려를 베풀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대예술단 인민배우 최영길의 사망과 관련하여 7월 9일 장례를 기관장으로 하고 유가족들에게 사회주의애국희생증을 수여하도록 배려를 베풀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7월 10일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공로 있는 인민군대안의 창작가들을 평가해 줄데 대한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고문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인민예술가 김원균의 병상태를 료해하시고 7월 27일 산삼과 산꿀을 보내주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8 월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판문점 3자련합대회 조선소년단 축하단 관계부문 일군들과 출연자들에게 8월 16일 감사를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대예술단조직 30돐에 즈음하여 8월 18일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보내주고 공로 있는 창작가, 예술인들을 표창하며 기념공연을 진행하도록 배려해 주시였다.

9 월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9월 1일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의 살림집완공과 관련하여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하여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9월 3일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예술인들과 피바다가극단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 평양음악무용대학 교원이였던 리태희, 평양교예단 인민배우 최복남의 사망과 관련하여 9월 5일 장례를 기관장으로 하도록 배려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9월 8일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에 감사를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인민예술가 최병렬의 병상태를 료해하시고 9월 15일 사향을 보내주며 필요한 치료대책을 세우도록 배려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대창작사 실

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로력영웅, 인민예술가 로익화의 생일 60돐과 관련하여 9월 15일 생일상과 고급승용차를 보내주도록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예술영화촬영소 공로자작업반의 실태를 료해하시고 9월 20일 공로 있는 배우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9월 20일 제1차 전국요술축전 당선자들에게 은정어린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인민배우 전재연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여 9월 21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국립연극단 배우 배정순의 건강상태를 료해하시고 9월 29일 은정깊은 배려를 베풀어 주시였다.

10 월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국음악무용축전 입선자들에게 10월 7일 선물을 보내주도록 배려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0월 7일 피바다가극단 인민배우 김기원의 생일 60돐에 즈음하여 생일상을 보내주도록 배려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대창작사 도자기창작단 창작가 《**김일성**상》계관인, 인민예술가 우치선의 생일 80돐에 즈음하여 10월 21일 생일상을 보내주도록 배려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0월 26일 박무준의 병상태를 료해하시고 사향을 보내주도록 배려해 주시였다.

11 월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대창작사 인민예술가 김승희의 생일 60돐에 즈음하여 11월 3일 생일상을 보내주고 《**김일성**상》을 수여하도록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1월 8일 만수대창작사 창작가들과 종업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1월 10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김일성**상》계관인 김만영부부의 건강상태를 료해하시고 산삼, 록용, 산꿀을 보내주고 치료대책을 세워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1월 14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병훈의 생일 70돐에 즈음하여 생일상을 보내주도록 배려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1월 17일 무대작품국가심의위원회 심의원들의 사업을 료해하시고 선물을 보내주도록 배려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1월 17일 조선미술작품보급사 일군들을 국가표창하도록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였다.

12 월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2월 1일 전국연극축전 입선자들에게 은정어린 선물을 보내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2월 15일 영화창작에서 우수한 창작가, 예술인들을 평가해 주도록 배려를 베풀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2월 22일 영화 및 방송음악단 지휘자 인민예술가 홍승학의 병상태를 료해하시고 사향을 보내주도록 배려해 주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2월 28일 4.15문학창작단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조선영화문학창작사 작가들에게 설명절에 즈음하여 사랑의 선물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축하문

주체88(1999)년

평양음악무용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온 나라 인민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 진군을 다그치고 있는 때에 창립 50돐을 맞는 평양음악무용대학 전체 교직원, 학생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음악무용예술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38(1949)년 3월 1일 나라의 예술인후비를 키우는 원종장인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창립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의 독창적인 예술교육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주체예술교육의 최고전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평양음악무용대학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50년동안 자랑찬 발전의 길을 걸어 오면서 창작가, 예술인 후비양성과 음악과학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예술을 발전시키고 주체예술의 전성기를 마련하는데 공헌하였다.

대학에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와 당의 예술교육방침에 맞게 정치사상교양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여 혁명적수령관이 튼튼히 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유능한 예술인재들을 수많이 키워 냈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높은 창조적열정과 지혜를 발휘하여 우리 식의 음악무용기초리론들과 원리들을 내놓고 무용표기법을 비롯한 가치 있는 과학연구창작성과들을 이룩하여 예술교육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무대예술을 튼튼한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이 주체문화예술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에는 평양음악무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고귀한 노력이 깃들어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평양음악무용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을 지니고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관철하여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음악무용대학에서는 우리의 무대예술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한몫 든든히 할수 있는 창작가, 예술인들과 세계적인 패권을 쥘수 있는 뛰여 난 예술적재능과 기량을 가진 독연가를 많이 키워 내야 합니다.》

평양음악무용대학 교직원, 학생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예술교육사상과 불멸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이며 일편단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만을 굳게 믿고 음악과 예술로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충신, 열렬한 애국자가 되여야 한다.

대학은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예술적재능을 소유한 쓸모 있는 예술인재들을 더많이 키워냄으로써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대학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강령과 내용, 방법을 개선하고 그 질을 끊임없이 높이며 학생선발을 잘하고 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과학리론적으로 실속 있게 하여 뛰여 난 예술적재능을 가진 독창가, 독주가, 독무가들과 유능한 창작가들을 많이 키워 내야 한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우리 당의 문예사상과 리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음악무용교육과 창작실천에서 나서는 과학리론적문제들을 깊이 있게 해명하며 우리 식의 교재곡과 교측본을 많이 창작하여 주체음악무용예술을 발전시키는데 더잘 이바지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실천투쟁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고 혁명적으로 단련하며 주체예술의 대화원을 꽃 피울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배워 인민의 사랑을 받는 재능 있는 예술인, 실력가로 준비하여야 한다.

대학은 문화혁명의 거점답게 교육환경을 더잘 꾸리고 교육수단과 설비들을 현대화하며 교육규률을 강화하고 교육행정사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평양음악무용대학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혁명임무수행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당의 두터운 신임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88년 3월 1일

자강도예술단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자강도예술단창립 50돐에 즈음하여 예술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자강도예술단은 주체38(1949)년 4월 1일에 창립된후 지난 50년동안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보람찬 창조의 길을 걸어 오면서 맡겨 진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자강도예술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정책을 높이 받들고 가극 《장자강반에 핀 꽃》과 민속무용 《약초 캐는 로인들》, 단막극 《우리 어버이》를 비롯하여 우수한 무대예술작품들을 내놓았으며 혁명교양, 계급교양, 공산주의교양에 이바지하는 예술작품들을 수많이 창작공연하였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전투를 벌리고 있는 로동계급과 인민들속에서 예술선전과 선동활동을 진공적으로 벌려 자강도의 경제사업에서 전환이 일어 나고 강계혁명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자강도예술단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을 지니고 창작공연활동을 힘 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의 사상전선을 지켜 선 초병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하겠습니다.》

자강도예술단 창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하며 창작공연활동에서 끊임 없는 혁신을 일으켜 예술단에 깃들어 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예술단은 정책적대를 확고히 세워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높이며 창작공연활동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고 계급적원칙을 지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예술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시대정신이 맥박치고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정서생활을 생동하게 반영한 예술작품들을 많이 창작공연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필승의 신념과 락관을 가지고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 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예술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며 실력전을 벌려 높은 창작공연실적으로 당과 혁명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자강도예술단 창작가, 예술인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창작과 공연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 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88년 4월 1일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창작가, 예술인들과 군인, 종업원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 없는 충성심을 안고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창립 40돐을 맞이하는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창작가, 예술인들과 군인, 종업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무력을 강화하는데서 영화예술이 노는 중요한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48(1959)년 5월 16일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를 몸소 창립하여 주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영화창작의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 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건군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상전선의 제1선을 맡고 있는 4.25예술영화촬영소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수십차례나 촬영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체적인 창작, 창조체계를 세워 주시였으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영화들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4.25예술영화촬영소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보다 훌륭한 창작조건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최근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렵지만 막대한 자금을 들여 현대적인 촬영소를 새로 꾸려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 주시였다.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는 창립후 지난 40년동안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충성으로 빛나는 자랑찬 로정을 걸어 오면서 자기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커다란 공적을 이룩하였다.

4.25예술영화촬영소는 당의 문학예술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혁명영화 《사령부를 멀리 떠나서》, 예술영화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 《월미도》, 《7련대의 아들》을 비롯한 수백편의 사상예술성이 높은 영화들을 창작하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과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인민군대를 주체형의 당군으로 더욱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4.25예술영화촬영소는 영화창작과 함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인덕과 당의 군민일치사상, 혁명적군인정신을 주제로 한 여러편의 경희극들을 훌륭히 창작공연하여 군인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기여하였다.

4.25예술영화촬영소는 영화기술을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 있게 벌려 수많은 가치 있는 연구성과들을 도입함으로써 영화촬영의 속도와 질을 훨씬 높였으며 영화예술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게 하였다.

4.25예술영화촬영소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영화제작능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시설들과 농목장을 비롯한 후방기지들을 꾸려 영화창작과 물질문화생활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놓았다.

오늘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는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 나가는 충성의 대오로 자라났으며 재능 있는 창작가, 예술인들과 훌륭한 창작수단들을 가진 우리 혁명무력의 전투적인 예술부대로 강화발전되였다.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와 같은 강유력한 예술부대를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크나큰 영예이며 자랑이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창작가, 예술인들과 군인, 종업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 없는 충성심과 혁명임무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을 지니고 당의 주체적인 문예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 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영화들을 더많이 창작하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로 불러 일으키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합니다.》

예술영화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앞장에서 옹호고수하고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기본교양수단의 하나이며 호소성과 실효성이 높은 위력한 사상선전무기이다.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는 자기의 전투적사명에 맞게 영화창작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하며 군인들과 인민들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 있게 불러 일으키는데 더잘 이바지하여야 한다.

4.25예술영화촬영소 창작가, 예술인들과 군인,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우리의 운명이신 최고사령관동지만을 끝까지 믿고 따르며 한목숨 바쳐 결사옹위하는 리수복형의 육탄영웅, 길영조형의 자폭용사가 되여야 한다.

창작가, 예술인들과 군인,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본주의사상을 철저히 배격하며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관철하는 위대한 **김정일**사상의 절대적인 숭배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여야 한다.

4.25예술영화촬영소는 모든 힘을 영화창작에 집중하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정신과 높은 혁명의식, 계급의식, 필승의 신심과 혁명적락관주의, 관병일치, 군민일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군사물주제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영화들을 더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실력전을 벌릴데 대한 당의 요구대로 정치학습과 예술학습, 기량훈련을 강화하고 현실체험을 잘하여 풍부한 지식과 높은 예술적기량을 소유함으로써 창작하는 모든 영화들을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시대의 명작이 되게 하여야 한다.

촬영소 기술일군들은 기술혁신운동을 계속 힘 있게 벌려 전공분야의 기술기재에 완전히 정통하고 가치 있는 연구성과들을 더많이 이룩하며 선진영화기술을 적극 받아 들여 우리의 영화기술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4.25예술영화촬영소는 혁명군대의 전투적인 예술단체답게 부대안에 혁명적군풍과 정규화적면모를 확립하고 당에서 세워 준 창작, 창조체계와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며 창작가, 예술인들속에서 혁명적인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워야 한다.

4.25예술영화촬영소 지휘성원들은 언제나 창작가, 예술인들속에 깊이 들어 가 정치사업을 힘 있게 벌려 그들의 창작적열의를 적극 불러 일으키며 영화창작에 대한 조직사업과 보장사업을 짜고 들어 영화창작을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후방사업을 잘하여 창작가, 예술인들과 군인, 종업원들의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25예술영화촬영소안의 당조직들은 창작가, 예술인들과 군인, 종업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생활지도를 실속 있게 하여 그들을 철저히 혁명화하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 있게 벌려 촬영소의 전반사업에서 끊임 없는 혁신이 일어 나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창작가, 예술인들과 군인, 종업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더욱 악랄해 지고 있는 현 정세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인 전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우리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으로 더욱 강화하며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데서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에 대한 당의 기대는 참으로 크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창작가, 예술인들과 군인,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령도 따라 준마를 타고 구보로 달려 당의 문예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체88(1999)년 5월 14일

만수대예술단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만수대예술단조직 30돐에 즈음하여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방침을 높이 받들고 예술창조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예술단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58(1969)년 9월 27일에 조직하여 주신 만수대예술단은 지난 30년동

안 자랑찬 발전의 길을 걸어 오면서 주체예술의 개화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만수대예술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중요행사공연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으며 혁명가극 《꽃 파는 처녀》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발굴형상하여 주체예술의 전통을 순결하게 계승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바지하였다.

만수대예술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가요 《동지애의 노래》와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높이 들자 붉은기》를 비롯하여 우리 당의 숭고한 뜻과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담은 수많은 명곡들과 무용작품들을 창작공연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의 혁명관과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무장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의 경제선동방침을 받들고 들끓는 생산현장과 건설장들에서 화선식예술선동을 활발히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경제건설투쟁에로 힘 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만수대예술단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대외공연활동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함으로써 우리 당의 령도밑에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주체예술의 위력을 남김없이 시위하고 우리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대렬을 늘이는데 이바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만수대예술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지난 30년동안 당과 수령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을 지니고 당의 문예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의 사상전선을 지켜 선 초병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수대예술단의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결사옹위하며 더 높은 창작공연성과로 우리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야 한다.

만수대예술단은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리론, 창작원칙과 방법을 예술창조활동의 유일한 지침으로 틀어 쥐고 철저히 관철해 나감으로써 우리 당의 의도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는 훌륭한 음악무용작품들을 더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

예술단은 혁명가극 《꽃 파는 처녀》공연과 음악무용종합공연에서 당이 세워 준 기준을 드팀없이 고수하며 모든 창작공연활동에서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장하여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문화정서적으로 교양하고 예술창조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예술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다그치고 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깊이 들어 가 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 그들을 적극 고무하고 보다 큰 위훈에로 불러 일으켜야 한다.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이 맡겨 준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정치적식견과 예술적기량을 끊임없이 높이며 비사회주의적현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사업과 생활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만수대예술단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예술창조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당의 신임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88년 9월 27일

만수대창작사 창작가, 종업원들과 일군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만수대창작사창립 40돐에 즈음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을 지니고 창조적열정을 높이 발휘하여 혁명적미술창작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창작사의 전체 창작가, 종업원들과 일군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48(1959)년 11월 17일에 창립하여 주신 만수대창작사가 걸어 온 지난 40년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화발전되여 우리 당 사상전선의 일익을 훌륭히 담당하고 당과 혁명앞에 커다란 업적을 쌓은 영광의 40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만수대창작사 창작가들과 일군들을 우리의 주체미술을 떠메고 나가는 믿음직한 담당자로 키워 주시였으며 시대의 대기념비적미술창조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도록 현

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창작사의 창작가들과 일군들은 주체미술발전에서 지닌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깊이 인식하고 높은 충성심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석고상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형상하였으며 천리마동상과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만수대대기념비와 왕재산, 삼지연대기념비,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기념비적벽화들을 비롯한 시대의 대기념비들을 걸작으로 창작건립함으로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에게 충성 다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교양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만수대창작사 창작가들과 종업원들은 최근 년간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훌륭히 형상하고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숭엄하게 꾸리는 사업에 창조적재능과 열정을 다 바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는데 특출한 공헌을 세웠다.

창작사 창작가들과 일군들은 미술에서 주체를 확립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조선화를 기본으로 하여 미술의 모든 종류와 형태를 우리 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 《칠보산의 가을》을 비롯하여 주체성과 민족성이 뚜렷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국보적인 조선화, 유화, 조선보석화, 도안들과 고려청자기를 비롯한 민족수예, 공예품들을 훌륭히 창작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만수대창작사는 창작가들의 정치사상적수준과 창작적기량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어 주체미술을 빛내이는 이름 있는 창작가들과 재능 있는 젊은 창작가들을 많이 키워 냈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창작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현대적으로 꾸리고 기술혁신성과를 적극 받아 들여 나라의 위력한 종합적인 미술창작기지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만수대창작사 창작가, 종업원들과 일군들이 지난 기간 당과 수령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을 지니고 창작적재능을 높이 발휘하여 미술창작과 제작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주체미술의 일대 개화기를 마련하는데 크게 이바지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은 순간을 살아도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보람 있게 살며 창작활동을 적극 벌려 당이 요구하는 좋은 작품들을 더많이 창작하여야 하겠습니다.》

창작사 당조직들은 창작가들과 종업원들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 우리 시대 전형들의 모범을 적극 따라 배워 창작사업에서 끊임없이 새 경지를 개척하게 하며 일군들이 예술행정사업과 관리운영사업을 과학적토대우에 올려 세우고 창작사를 정중하고 알뜰하게 꾸려 국보적인 미술작품을 많이 창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만수대창작사의 전체 창작가, 종업원들과 일군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혁명적미술창작에서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88년 11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주체88(1999)년

철도성미술창작사와 각도(시)미술창작사 일군들과 미술가들에게 공훈예술가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주체88(1999)년 2월 5일부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미술창작부문에서 오래동안 사업하면서 혁명적열의와 재능을 발휘하여 백두산3대장군의 영상작품들을 형상, 수복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미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한 철도성미술창작사와 각도(시)미술창작사 일군들과 미술가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예술가칭호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공훈예술가칭호(로력훈장)

최정균	철도성미술창작사 실장
최류해	평양시미술창작사 미술가
오정민	자강도미술창작사 실장
리일구	황해남도미술창작사 부원

윤신재동지에게 공훈예술가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주체88(1999)년 2월 12일부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 있는 혁명사적물들을 보존관리하고 그 운영을 개선강화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한 함경남도혁명사적관 미술원 윤신재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예술가칭호(로력훈장)를 수여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손대원, 김숙이동지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주체88(1999)년 2월 25일부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교육의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며 예술교육사업을 개선하고 예술창

조사업을 활발히 벌려 학생들을 재능 있는 예술인후비로 키우는데서 공로 있는 평양음악무용대학 강좌장 손대원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배우칭호(국기훈장 제1급)를, 음악당 연주가 김숙이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배우칭호(로력훈장)를 수여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강예철동지에게 공훈예술가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주체88(1999)년 2월 25일부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오래동안 예술선전부문에서 근무하면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형상하여 예술선전대와 중대예술소조,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을 높은 수준에서 준비보장하는데 이바지한 조선인민군출판사 작곡가 강예철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예술가칭호(로력훈장)를 수여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전국경제선동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공훈배우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주체88(1999)년 3월 4일부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중요부문의 생산현장에 나가 경제선동사업을 힘 있게 벌림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 일으키는데 이바지한 전국경제선동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배우칭호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공훈배우칭호(로력훈장)

오성희 철도성예술선전대 성악배우
장선미 황해북도예술선전대 화술배우
동성일 평안남도예술선전대 화술배우

공훈배우칭호

김경옥 만수대예술단 성악배우

리옥실, 김인복동지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예술선전대원으로 오래동안 사업하면서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결사관

철하기 위한 경제선동을 힘 있게 벌림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나라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로 불러 일으키는데 크게 이바지한 자강도예술선전대 배우 리옥실, 김인복동지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낫) 및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88(1999)년 3월 20일

조선미술박물관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전투를 힘 있게 벌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크게 이바지한 조선미술박물관에 태양절에 즈음하여 **《김일성훈장》**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88(1999)년 4월 5일

신전동지에게 로력훈장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주체88(1999)년 4월 5일부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으며 맡겨진 혁명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데 크게 이바지한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지휘자 신전동지에게 생일에 즈음하여 로력훈장을 수여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총련문예동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주체88(1999)년 5월 17일부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문예사상을 높이 받들고 문학예술활동을 힘 있게 벌려 각계층 동포들을 총련조직에 튼튼히 묶어 세우며 애국과업수행에로 불러 일으키는데 이바지한 총련 문예동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예칭호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공훈예술가칭호(로력훈장)

박영미	총련 문예동 히로시마지부 위원장
김희영	총련 문예동 사무국장
박재명	금강산가극단 문예국 부장

공훈배우칭호(로력훈장)

장기생	금강산가극단 사무국 부장
박선미	금강산가극단 무용부장
김명숙	금강산가극단 성악부 부부장

안동춘동지에게 《김일성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작가로 오래동안 사업하면서 시대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과 사상감정에 맞는 소설들을 훌륭히 창작완성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주체혁명위업수행에로 불러 일으키는데 크게 이바지한 4.15문학창작단 작가 안동춘동지에게 《김일성상》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88(1999)년 5월 27일

송민화동지에게 공훈예술가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주체88(1999)년 6월 10일부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선인민군협주단에서 오래동안 창작사업을 하면서 시대의 명작들을 수많이 창작하여 군인들과 인민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 있게 불러 일으키는데 이바지한 조선인민군협주단 창작부 음악창작실 실장 송민화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예술가칭호(로력훈장)를 수여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김우경동지에게 《김일성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작가로 오래동안 사업하면서 3대장군의 혁명전설집을 발굴정리하여 편찬하는데 공헌하였으며 수많은 아동문학작품들을 시대의 걸작으로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소설문학분과위원회 작가 김우경동지에게 《김일성상》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88(1999)년 6월 15일

잡지 《조선문학》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구현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수많이 집필편집함으로써 작가들의 창작적열의를 높여 주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 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한 잡지 《조선문학》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88(1999)년 6월 15일

잡지 《아동문학》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구현하여 어린이들의 동심세계를 훌륭히 반영한 문학작품들을 수많이 집필편집함으로써 작가들의 창작열의를 높여 주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충성동, 효자동으로 준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한 잡지 《아동문학》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88(1999)년 6월 15일

표세종동지에게 로력훈장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주체88(1999)년 7월 3일부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오래동안 맡겨 진 혁명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데 이바지한 함경남도미술창작사 표세종동지에게 생일에 즈음하여 로력훈장을 수여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조선문화유물창작사 일군들과 창작가들에게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주체88(1999)년 7월 23일부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국보적가치가 있는 장편력사화 《민족의 성지－대동강력사문화》와 화상, 조각상들을 창작하고 원상대로 복원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한 조선문화유물창작사 일군들과 창작가들에게 국기훈장 제1급을 비롯한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전경성동지에게 공훈예술가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주체88(1999)년 8월 5일부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궁전을 청소년들의 과외교양기지로 튼튼히 꾸리고 알뜰히 관리운영함으로써 중요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혁명인재로 육성하는데 이바지한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작곡가 전경성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예술가칭호(로력훈장)를 수여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청년중앙회관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주체88(1999)년 8월 5일부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회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알뜰히 관리운영함으로써 중요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청소년학생들을 혁명인재로 육성하는데 이바지한 청년중앙회관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로력훈장을 비롯한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리금숙동지에게 공훈예술가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주체88(1999)년 8월 13일부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미술창작부문에서 오래동안 사업하면서 사상예술성이 높은 미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한 평양시안전국 미술창작실 실장 리금숙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예술가칭호를 수여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정래범, 김명숙동지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주체88(1999)년 9월 17일부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문학예술부문에서 오래동안 일하면서 많은 예술작품들을 창작형상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예술인후비양성사업에 크게 이바지한 평양연극영화대학 강좌장 정래범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예술가칭호(국기훈장 제1급)를, 평양음악무용대학 음악당 직원 김명숙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예술가칭호(로력훈장)를 수여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만수대예술단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주체88(1999)년 9월 23일부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예술부문에서 오래동안 사업하면서 음악예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으며 예술활동과 화선식경제선동을 힘 있게 벌림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로 불러 일으키는데 이바지한 만수대예술단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예칭호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인민예술가칭호(국기훈장 제1급)
김건일　　창작실 작곡가

인민배우칭호(국기훈장 제1급)
조혜경　　성악배우
리영욱　　성악배우

공훈배우칭호(로력훈장)
김행일　　연주가
박계수　　성악배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상을 해임 및 임명함에 대한 정령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9월 30일 정령에는 최재현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문화상에서 해임하고 강능수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상으로 임명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오문경동지에게 공훈예술가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주체88(1999)년 9월 30일부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미술창작부문에서 오래동안 사업하면서 국가적으로 제기되는 도안, 상표와 인민소비품본보기책을 창작, 편집, 발행함으로써 산업미술발전에 이바지한 경공업미술창작사 도안창작실 실장 오문경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예술가칭호(로력훈장)를 수여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조승학동지에게 공훈예술가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주체88(1999)년 9월 30일부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충성의 창작전투를 힘 있게 벌려 짧은 기간에 학생소년들을 위한 가요 100여편을 훌륭히 창작완성함으로써 청소년학생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데 이바지한 평양학생소년궁전 창작과장 조승학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예술가칭호(로력훈장)를 수여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경희극 《동지》에 《인민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동지애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한 인민군대의 관병일치의 참모습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함으로써 군인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경희극 《동지》에 《인민상》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88(1999)년 10월 15일

손원주, 리문호동지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주체88(1999)년 11월 18일부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예술부문에서 오래동안 일하면서 당정책적요구를 훌륭히 반영한 수많은 희극작품들을 창작공연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제2의 천리마대진군에로 불러 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한 국립희극단 배우 손원주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배우칭호(국기훈장 제1급)를, 배우 리문호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배우칭호(로력훈장)를 수여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김승희동지에게 《김일성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미술부문에서 오래동안 일하면서 시대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수많은 미술작품들을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창작완성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단 미술가 김승희동지에게 《김일성상》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88(1999)년 12월 10일

림영호동지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주체88(1999)년 12월 10일부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훌륭히 구현한 경희극 《동지》를 창작공연함으로써 군인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한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배우 림영호동지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김성민동지에게 《김일성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백두산3대장군의 존귀하신 영상을 최상의 높이에서 수많이 형상하는데 크게 기여한 만수대창작사 부사장 김성민동지에게 《김일성상》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88(1999)년 12월 24일

리도섭, 김광정, 신정남동지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

고 금수산기념궁전 돌울타리제작공사를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는데 크게 기여한 만수대창작사 돌조각제작단 형상원 리도섭, 김광정, 운수대 운전사 신정남동지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낫) 및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88(1999)년 12월 24일

만수대창작사 창작가들과 일군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과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주체88(1999)년 12월 24일부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대중적기술혁신운동과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 들여 짧은 기간에 조형예술적으로 훌륭하게 형상한 세계적인 돌울타리를 제작함으로써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는데 크게 이바지한 만수대창작사 창작가들과 일군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예칭호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김일성청년영예상》

오성준	돌조각제작단 형상원
윤철호	공예창작단 공예공
박영철	차상률동무가 사업하는 제작단 형상원
전창국	동상제작단 형상원

인민예술가칭호(국기훈장 제1급)

김영섭	도안창작단 미술가
인영일	돌조각제작단 조각가
신현수	도자기창작단 미술가
서대무	벽화창작단 미술가

공훈예술가칭호(로력훈장)

문정웅	조선화창작단 미술가
오영성	〃 〃
조동해	출판화창작단 〃
박청미	수예창작단 〃
문기성	벽화창작단 〃
리경섭	보석화창작단 〃
최영즙	도안창작단 〃
박성문	유화창작단 미술가
최영식	조선화창작단 미술가

공훈자동차운전사칭호(로력훈장)

리동영	운수대 운전사

김성근동지에게 《인민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예술부문에서 오래동안 일하면서 인민상계관작품인 조선화 《해금강의 파도》를 비롯하여 수많은 국보적작품들을 창작형상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문화정서적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단 미술가 김성근동지에게 《인민상》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88(1999)년 12월 24일

지달승동지에게 로력훈장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주체88(1999)년 12월 24일부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오래동안 맡겨 진 혁명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데 이바지한 문화성 조선민예련합상사 송화미술원 미술가 지달승동지에게 생일에 즈음하여 로력훈장을 수여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모범적인 단위들에 3중3대혁명붉은기와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고 맡겨 진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다그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단위들에 3중3대혁명붉은기와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

주체88(1999)년 6월 15일 정령에는 만수대창작사 오동명동무가 사업하는 제작단에 3중3대혁명붉은기를, 주체88(1999)년 9월 3일 정령에는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제5창작단에 3대혁명붉은기를, 주체88(1999)년 11월 2일 정령에는 만수대창작사 차상률동무가 사업하는 제작단에 3중3대혁명붉은기를, 평양악기공장 손풍금직장에 2중3대혁명붉은기를, 주체88(1999)년 12월 29일 정령에는 영화관리국 자재상사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주체88(1999)년 문학개관

주체88(1999)년은 우리 당의 령도 따라 강성대국건설에로 총 진격을 개시한 력사의 해이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 이 얼마나 우리 인민들과 작가들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켰던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대의 전진에 앞장서 나가며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투쟁을 선도하는 문학예술이라야 생활의 참다운 교과서로,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 있게 불러 일으키는 사상적무기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력사적인 이해 우리 작가들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에 떨쳐 나선 우리 인민들의 영웅적투쟁과 생활을 반영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시대의 명작들을 수많이 창작함으로써 인민의 교양자, 시대의 선도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해에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 주시였을뿐아니라 선군정치로 그 진격로를 승리적으로 열어 나가시였다.

이와 같은 장엄한 새 현실을 문학에 반영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이 거창한 위업을 진두에서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풍모와 선군혁명령도업적을 빛나게 형상하여야 하였다.

작가들은 력사의 진실과 시대의 미학적요구를 심장으로 절감하고 강성대국건설의 주제는 바로 선군혁명령도의 주제라는 새로운 인식과 관점에 서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선군정치의 생활력을 형상하는데 온갖 창조적열정과 심혈을 기울였다.

강성대국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난 이해에 우리 시단에 개화만발한 그 모든 아름다운 꽃들은 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와 그 자욱자욱에서 피여 난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철령을 넘으시면 서정시 《철령》(황성하), 《최전선에 부치는 편지》(림성희)가, 자강땅을 다녀 오시면 서정시 《나는 강계사람이다》(김철후)와 장편기행시《강성대국행진곡》(김만영)이, 토지정리전투장을 현지지도하시면 시초 《강원땅의 새 노래》(송명근), 서정시 《전선길의 가을》(박경심)이,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장 중시하시면 기행련시초 《백리청춘로반우에서》(김재원 외 7명)가, 칠보산을 돌아 보시면 산수련시 《내 나라의 명산－칠보산》(정동찬 외 7명) 등이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창작되여 나왔다.

시초 《영웅찬가》(고남철 외 8명)와 《승패에 대한 시》(김정곤)도 착상이 기발하고 선군시대의 전투적기백이 맥박치는 수준 있는 작품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와 선군혁명령도업적을 어느 한측면이나 어느 한계기에서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폭 넓고 심오하게 노래한 작품은 그이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5돐을 맞으며 창작된 백의선의 장시 《6월의 푸른 하늘아래에서》와 송년시 《아름다운 추억의 해 1999년이여》이다.

장시 《6월의 푸른 하늘아래에서》는 서정적주인공－시인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사업을 령도하기 시작하신 그 뜻 깊은 날과 35성상의 력사에 새겨진 령도의 자욱자욱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면서 우리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을 어찌하여 친근한 어버이로 부르며 그토록 받들어 모시는가 하는것을 격정에 넘쳐 토로하고 있다.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35성상의 긴긴 세월 고생이란 고생을 다 겪으시며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 주신 인민의 참다운 령도자이시고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핵공세와 《봉쇄》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 주시고 강성대국에로 우리 조국을 도약시켜 주신 조국과 민족의 수호자이시며 우리 인민의 간절한 념원을 헤아려 태양의 집－금수산기념궁전을 마련하시여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실수 있도록 하여 주신 새 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시기때문이다.

서정적주인공은 이렇게 **김정일**장군님을 인민의 어버이로 열렬히 칭송하면서 그이께서 우리 당, 우리 군대, 우리 사회주의를 이끄시여 거룩한 첫 걸음을 시작하신 그 6월 19일은 《우리 혁명의 대로가 열린 영원한 행운의 날》이며 《이날이 있어 우리의 오늘이 있고 강성대국의 새 시대가 있》다고 그리고 《20세기의 봉우리/ 그 35성상이 거연히 빛나고 있어/ **김정일**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신/ **김일성**민족의 붉은 대가정은/ 세상에 제일 강성대국으로/ 대대손손 번영하리라!/ 대대손손 행복하리라!》고 6월의 푸른 하늘아래에서 긍지높이 웨친다.

이처럼 장시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적풍모와 그이를 인민의 어버이로 모신 우리 인민의 한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랑, 그이께서 당사업을 령도하기 시작하신 력사의 날과 35성상의 령도업적이 가지는 그 거대한 민족사적의의가 철학적으로 심오하고 정서적으로 뜨겁게 노래되여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와 그이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 없는 흠모심을 가장 적중하고도 집약적으로 표현할수 있는 인민의 어버이이시라는 시상을 작품의 종자로 삼고 장군님의 위대성을 수령송시의 풍격에 맞게 격양된 률조로 숭엄하고 뜨겁게 노래한것으로 하여 장시는 창작된 그때는 물론 오늘과 래일에도 계속 인민들속에서 애독될 기념비적명작으로 되였다.

주체88(1999)년의 마지막을 장식한 송년시 《아름다운 추억의 해 1999년이여》도 아름다운 추억의 정서를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수령송시이다.

강성대국건설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영원한 인민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건당, 건군, 건국의 길에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과 그 고귀한 혁명유산은 강성대국건설의 만년초석, 만년재보이다.

시인들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거창한 투쟁을 반영한 작품을 창작하면서 이해에도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형상하는데 계속 힘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많은 시작품들이 창작되였는데 그가운데서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창작된 서정시들인 《아, 우리 수령님》(홍현양), 《해빛》(리연희), 《만민의 꽃 **김일성**화》(엄애란) 등은 종래의 기념일시들에서 하나의 형식처럼 되고 있던 주제적성격과 해설식의 격식화된 틀에서 벗어나 시적종자를 독창적으로 잡고 수령칭송의 숭고한 감정을 정서적으로 뜨겁게 노래한 서정시다운 시작품들이다. 이와 함께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5돐에 바쳐 진 서사시 《불멸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김만영)와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신병강)는 인민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 주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수령송시들이다.

특히 서사시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는 경애하는 장군님으로부터 훌륭하다는, 철학성이 있고 깊은 여운을 남기는 세계적인 걸작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아 안은 기념비적명작이다.

서사시는 우선 동지애로 혁명을 개척하시고 동지애로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 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와 그 동지애의 력사에 아로 새겨 진 불멸의 업적을 숭엄하고 뜨겁게 노래하고 있다.

서사시는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을 동지를 위해 바치시는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과 꼭 같으신 동지애의 최고화신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

서사시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동지애의 세계, 동지애의 력사가 실지 있은 력사적 사실과 뜻 깊은 사연들에 대한 시적화폭으로 감동적으로 펼쳐 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에 마련된 그 소박한 연회장의 사연과 어버이수령님께서 수화기를 통해 경애하는 장군님과 함께 추도가소리를 들으시는 장면은 그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 주는것인가!

그러므로 서사시의 감동은 시인의것이기전에 사실자체에서 찬미되는 감동이다.

그렇다고 하여 시인의 노력이 무시될수는 없다.

시인은 우리 혁명의 승리적과정을 동지애의 력사로 보고 그 동지애의 력사에 수 놓아 진 뜻 깊은 사연들과 사적들을 폭 넓게 연구하고 시의 종자에 맞게 선택하였으며 시적으로 가공하여 잘 배렬하고 전개하였다. 때문에 시의 세부들과 화폭들이 그처럼 커다란 감동을 안겨 주는것이다.

시에 펼쳐 진 서사서정적화폭들과 함께 그에 이어지는 시인의 주정토로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감동을 더욱 크나큰 격정으로 받아 안게 하고 있다.

눈물에 대한 주정토로는 그 좋은 실례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동지들을 잃고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김정일**동지는 더 눈물이 많다고, 나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 좋다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심장으로 받아 안고 서정적주인공－시인은 눈물에 대한 주정을 이렇게 터뜨렸다.

그렇다
령장이 흘리는 눈물
그것은 단순한 사랑과 동정
인정세계에서 흘러 나오는
그런 눈물이 아니여라

그 눈물은
혁명의 한길에서 맺어 진
뜨거운 인정
뜻을 같이 하는 서로의 가슴들에 지닌
심장과 심장이 분출하는 그 모든것을
천배, 만배로 더한
가장 고귀한 감정의 결정체

불 같은 인정이 없고
심장이 찬 랭혈의 인간들은 감히 흘릴수 없는
혁명가의 깨끗한 량심이며
가장 위대한 사랑의 정화

이 주정토로는, 이 눈물의 철학은 우리 장군님께서 얼마나 뜨거운 인정과 고결한 동지애를 지니신 위대한 인간, 위대한 혁명가이신가 하는것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게 한다.

보는바와 같이 서사시에는 서사적인것과 서정적인것이 조화롭게 밀착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있다. 그러면서도 서정서사시에서와 같이 서정적인것이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서사적인것이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작품이 서사-서정적인 문학으로서의 서사시의 형태적특성을 잘 살리고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사상적으로 심오할뿐아니라 예술적으로도 원만한것으로 하여 이 서사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평가를 받게 된것이다.

확실히 서사시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는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개척된 새로운 양상의 서사시문학발전에 새롭게 기여한 또 하나의 기념비적작품으로서 인민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다.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시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서거 50돐에 즈음하여 창작된 장시 《인민의 어머니》(정은옥, 김은숙)도 위인송시창작에서 새로운 경지를 보여 준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이다.

장시는 김정숙동지의 위인적풍모를 위인형상의 생리에 맞게 인민의 어머니로 숭고하고 뜨겁게 노래하고 있다.

인민의 어머니! 이 존칭은 한생을 인민을 위해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인민적풍모에 가장 어울리는 명명이며 여기에는 녀사를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 같은 심정과 철석 같은 의지가 담겨 져 있다.

시인들은 김정숙동지의 한생에서 인민의 어머니이시라는 사상적알맹이를 발견하고 그것을 작품의 종자로 삼아 녀사의 위인적풍모를 일반 어머니들과 같이 소박하고 수수한 어머니이면서도 한가정의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인민모두를 《한집안 식솔로 안으시고》 인민을 위한 고생을 락으로 여기시며 《이 나라 천만 아들딸들에게》 어머니의 다심한 사랑을 깡그리 기울이신 온 나라 가정의 어머니, 만민이 영원히 우러러 받들고 따르는 인민의 위대한 어머니로 칭송하고 있다.

녀성특유의 그 세심하고 다정다감한 정서로 열렬히 칭송하면서 시인들은 어찌하여 그처럼 인민의 어머니로 되시였고 또 어찌하여 그토록 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사랑을 받고 계시는가 하는것을 뜨거운 서정속에 철학적으로 웅심 깊게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이 장시는 어머님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감수하고 깊이 생각하게 하는 정서도 있고 사색도 있는 위인찬가로 되였다.

이해의 우리 시단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것은 정화흠을 비롯한 총련작가들의 조국방문시묶음 《조국에서 부른 노래》이다. 시에는 어두운 이국땅에서 살면서 《고난의 행군》을 하는 어머니조국에 대해 한시도 마음 놓지 못하던 총련작가들이 조국에 와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받들고 강성대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벅찬 현실을 보고 터치는 환희와 격정, 조국에 대한 자랑과 사랑의 정서가 매우 진실하고 진정에 넘쳐 있다.

김정일장군님의 나라
내 조국보다 더 좋은것
세상에 없어라

이것은 서정시 《조국을 떠나면서》(정화수)의 결구인 동시에 시묶음의 모든 서정시들에 관통되여 있는 기본사상이다.

조국에 대한 자랑과 사랑의 정서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끝 없는 민족적긍지와 장군님에 대한 격찬의 정서로 승화하고 있는 바로 여기에 이 시묶음의 높은 사상예술성이 있다.

시대의 주도적감정에 기초하여 다양한 양상과 다양한 개성으로 노래한 이 서정시들은 조국의 작가들과 숨결을 같이 하며 주체사실주의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재일조선문학의 일단을 보여 주는 성과작인것으로 하여 더욱 그 의의가 있다.

이해에 창작된 이 모든 시편들이 독자들의 심금을 크게 울려 주는것은 작품들에 선군정치로 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밀고 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의도, 감정정서가 빛나게 구현되여 있기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문학이 그 소재와 종자, 사상과 정서에 있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학으로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하고 있다는것을 웅변적으로 실증하여 준다.

이해에 소설창작에서도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령도업적을 형상한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인 《전환》과 《평양의 봉화》가 성과작으로 창작되였다.

장편소설 《전환》(권정웅)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초기인 1960년대 중엽에 당건설과 혁명사업전반에서 일대 전환과 앙양을 일으키신 그이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심오하게 형상한 작품이다.

소설은 우선 걸출한 사상리론가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풍모와 사상리론적업적을 형상하는데 모를 박았다.

당시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대두한 현대수정주의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미명하에 그 혁명적진수를 거세하고 수령의 권위와 업적을 헐뜯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며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포기하고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단결을 파괴하고 있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와 그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예리하게 꿰뚫어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100년사상사총화를 발기하시고 그 연구토론을 심화시키시는 과정에 혁명의 운명과 승패는 전적으로 수령에게 달려 있다는, 혁명투쟁에서 차지하는 수령의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을 심오하게 론증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론을 밝히신다.

소설은 수령론의 창시과정과 그 진리성과 정당성을 확신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내면세계를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그림으로써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예민한 시대적감각과 뛰여난 창조적예지, 비상한 탐구력과 심오한 사색으로 주체적혁명리론의 초석인 수령론을 창시하시여 혁명실천과 혁명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라는것을 형상적으로 확증하고 있다.

장편소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을 보좌해 드리면서 주체의 수령론에 기초하여 당사업과 군건설, 경제사업과 문학예술부문을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령역에서 새로운 전환과 비약을 일으켜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불멸의 업적을 감명 깊게 그리고 있다.

작품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우리 당이 어떻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우리 인민군대가 어떻게 백전백승의 수령의 군대로, 우리 문학예술이 어떻게 수령의 문학예술로 강화발전되였는가 하는것을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탁월한 정치가, 령도의 거장으로서의 장군님의 위대한 풍모를 훌륭히 보여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소설은 전사들과 인민들의 정치적생명과 운명을 친어버이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빛내여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매한 인간성과 위대한 인민적풍모도 감동적으로 형상하고 있다.

작품은 사상의 심오성과 예리한 정치성, 높은 지성도로 하여 철학성이 강한 수령형상소설로서의 풍격을 가지게 되였으며 바로 이때문에 그것은 수령형상작품계렬에서 자기의 얼굴과 위치가 뚜렷한 장편소설의 하나로 되고 있는것이다.

장편소설 《평양의 봉화》(안동춘)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력사적인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우리 나라에서 성대히 진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있게 형상한 성과작이다.

소설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작품의 중심에 모시고 그이의 위대성을 부각하는데 모든 형상을 집중시키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 이전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수정주의바람에 휘말려 들어 급격히 우경화되고 있던 1980년대 중엽, 그 당시 조성된 엄중한 정세와 나라의 경제형편으로 보아 우리 나라에서 세계청년학생축전과 같은 큰 국제적행사를 맡아 한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류의 운명개척에서 차지하는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세계청년운동의 강화발전과 조선청년들이 이 운동앞에서 지닌 력사적책임과 사명을 원만히 다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우리 나라에서 개최하도록 결단을 내리신다. 그리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200일전투》에로 불러 일으키시여 축전대상건설을 비롯한 방대한 축전준비를 짧은 시일안에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도록 전격적으로 밀고 나가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그토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후의 고전적로작 《**현 시대와 청년들의 임무**》를 집필하시여 세계청년운동의 진로를 환히 밝혀 주시고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전례 없는 대정치문화축전으로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모든 사업을 세심히 보살펴 주신다.

작품은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 비상한 조직력과 전개력을 지니신 걸출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령도자로서의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와 함께 믿음과 충성, 사랑과 보답으로 수 놓아 진 경애하는 장군님과 청년들사이에 맺어 지는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도 감명 깊게 펼쳐 보이고 있다.

소설은 실지 있은 력사적사실과 감동적인 생활화폭들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물론 세계청년운동도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게 된다는것을 강조하면서 장군님을 세계의 오늘과 래일을 이끄시는 탁월한 령도자,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형상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이 장편소설의 생명력이 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5돐을 맞는 이해에 수령형상소설들도 많이 창작되였다. 《눈보라》(김명익), 《영원》(김영근)을 비롯한 단편소설들은 백두산 3대장군의 위대성을 품위 있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 주고 있다.

혁명전설은 수령형상문학의 중요한 한 갈래이다. 이해에 혁명전설발굴정리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반영한 백두광명성전설집(4)《무지개대문》(김우경)이 나온것도 주목할만한 성과이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5돐을 계기로 《금수산기념궁전전설집》(1)이 나온것은 력사에 특기할 사실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기이한 자연현상에 대한 여러가지 전설적인 이야기들과 함께 금수산기념궁전과 관련된 전설들도 수많이 창조되였다.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종교성지로 알려 져 있는 예루살렘이나 메카도 많은 신화, 전설들을 전하고 있지만 태양의 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은 그 어디와도 대비할바없이 숭고하고 성스러운 전설들을 많이 낳았다.

김우경을 비롯한 작가들은 그 전설들가운데서 32편의 전설들을 먼저 발굴정리하여 《금수산기념궁전전설집》(1)에 편집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전설들로 하여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불멸의 이야기들이 세상에 널리 알려 지고 후세에 길이 전해 지게 되였다.

《금수산기념궁전 전설집》(1)은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물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는 남조선인민들과 해외교포들, 외국인들속에서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다.

이해에 우리 문학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또한 장중편소설에서 선군시대 일군들의 시대적전형을 훌륭히 창조한것이다.

장편소설 《열망》(김문창)은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는 그 어려운 시기 당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 어떤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사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작품의 기본 문제로 제기하고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그에 심오한 해답을 준 성과작이다.

작가는 작품의 주인공인 탄광기계련합기업소 책임비서를 인간문제, 사람들의 운명문제를 안고 모대기는 피가 뛰고 감정이 있는 산 인간으로, 생산기술적문제도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풀어 나가는 참다운 당일군으로, 처음부터 완성된 인간이 아니라 사업하는 과정에 사상적으로 발전하는 일군으로 훌륭히 성격화하고 있다. 주인공에게 심각한 인간문제를 체현시키고 그의 성격장성과정을 진지하게 파고 들어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사업하고 투쟁하는 선군시대 당일군의 전형을 빛나게 창조한 여기에 이 장편소설의 높은 인간학적풍격과 심오한 사상예술성이 있다.

바로 이때문에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의 투쟁과 생활을 담고 있는 이 소설이 강성대국건설에 떨쳐 나선 오늘의 우리 인민과 그 앞장에 서 있는 당일군들에게 커다란 교훈과 고무를 안겨 주는것이다.

장편소설 《산촌의 홰불》(박찬은)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이신작칙하여 궁벽한 산골군을 살기 좋은 락원으로 전변시켜 나가는 군당책임비서를 원형에 기초하여 진실하게 형상한 작품이다.

소설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일군들의 어깨우에 나라의 강성부흥이 지워 져 있다는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일군들이 당정책관철의 기수로서 헌신분투할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밖에도 당일군을 주인공으로 하여 탄광생활을 그린 장편소설 《지금은 봄이다》(신용선), 천해양식연구사들의 생활을 형상한 장편소설 《인간을 지키라》(김진성),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기 위하여 헌신하는 일군들과 축구선수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장편소설 《월계관》(김덕철), 광복후 일본땅에서 민족교육을 지켜 싸우는 재일동포들의 피어린 투쟁을 취급한 장편소설 《봄잔디》(량우직), 망망대해에서 미제놈들의 도발을 짓부시며 조국의 존엄을 지켜 싸우는 선원들의 영웅적투쟁을 보여 주는 중편소설 《불 타는 대양》(김정남) 등이 창작되여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선군시대에 창조된 작품들의 주인공들은 다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시대정신을 체현한 전형적인 성격들이며 여기에 지난 시기 형상된 주인공들과 구별되는 그들의 새로운 성격적특징이 있다.

단편소설에서도 선군시대 인민들과 청년들의 고상한 성격과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잘 형상하고 있다. 단편소설 《륜리》와 단편실화소설 《사랑의 령마루》가 바로 그러한 작품들이다.

단편소설 《륜리》(리준호)는 한 외과의사의 형상을 통하여 자신보다도 남을 위하는데서 삶의 희열과 보람을 느끼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혁명적인생관과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숭고하게 보여 주고 있다면 단편실화소설 《사랑의 령마루》(로정법)는 한 처녀의 형상을 통하여 그가 눈 먼 영예군인과 한생을 같이 하는것은 그 영예군인에 대한 인정적인 동정심이나 인간됨에 매혹된 일반적인 사랑의 감정에서가 아니라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그이의 뜻대로 살고저 하는 숭고한 시대적감정과 아름다운 륜리관에서 출발한것이라는것을 감명 깊게 보여 주고 있다.

극문학에서도 이해에 빛나는 창작적결실이 이룩되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는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창작가, 예술인들이 창조한 경희극《동지》이다.

극작가들은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경희극의 이 높은 사상예술적성과를 따라 배우며 강성대국건설로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 가 새로운 인간관계와 극적성격들을 진지하게 탐구하여 사회적문제성이 강한 단막극들을 훌륭히 창작하였다.

발전소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과 생활을 그린 《노을 비낀 언제》(리성원), 최첨단공작기계설비생산에서 혁신과 비약을 일으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취급한 《고향의 형제》(호도균), 산소열법으로 주체철생산에 성공하는 로동계급과 우리 시대 과학자들의 투쟁을 보여 주는 《네번째 술잔》(김영)등은 다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강성대국건설은 문제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며 투쟁하는 시대의 전형들을 원형에 기초하여 극적으로 잘 형상한 단막극들이다.

아동문학에서도 선군시대 아이들의 전형적성격과 주도적감정을 년령심리적특성에 맞게 형상하는데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동시초 《장군님과 아이들》과 아동단편소설 《밝은 봄하늘》만 보아도 명백하다.

동시초 《장군님과 아이들》(김청일 외 7명)에서 시인들은 아동주인공들을 학교나 유치원, 가정의 울타리안에서만 형상하던 종래의 창작관습에서 벗어나 그들을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자욱이 력력히 새겨 져 있는 전선길, 철령,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신천과 같은 시대적으로 중요한 생활바탕의 한복판에 세워 놓고 아이들의 시점, 아이들의 숨결로 아버지장군님을 끝 없이 흠모하며 장군님의 뜻대로 살고저하는 우리 시대 아동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동심세계를 진실하고 참신하게 노래하고 있다. 이 동시는 아동시문학의 형상세계를 넓히고 선군시대 아동들의 정서세계를 본질적측면에서 빛나게 전형화한 혁신적인 작품이다.

아동단편소설 《밝은 봄하늘》(리준길)에서는 어머니가 병으로 사망한후 집에 홀로 있으면서도 인민군대에 나가 있는 오빠가 제대될가봐 마음 쓰는 소녀주인공의 갸륵한 심정과 소녀를 기특하게 여기시며 그의 소원을 풀어 주시는 장군님의 형상을 통하여 총대로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 나가려는 우리 시대 소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아버지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감동 깊게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아동중편소설 《붉은 기와집》(송혜경)도 동심에 맞게 아이들의 생활을 잘 그린 특색 있는 작품이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 하는 문학은 동화이다.

장편동화 《사랑의 집》(김형운)과 지능동화집 《남이의 자연거울》, 《생길이가 준비한 물고기대회》(김대승) 등은 작가적탐구가 깃들어 있는 재미 있는 작품들이다.

특히 지능동화집은 다년간 이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 온 작가의 고심어린 탐구의 열매로서 지능동화문학개척에 이바지한 의의 있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해의 문학을 돌아 보면서 기쁘게 생각되는것은 40대, 50대의 작가들이 지칠줄 모르는 정력을 가지고 창작의 앞장에 서서 좋은 글들을 많이 써내고 있고 60대, 70대의 작가들이 또한 왕성한 창작적열정으로 힘 있게 전진하고 있으며 문단에 새로 등장한 청년작가들과 녀류작가들이 배낭을 메고 현실에 깊이 들어 가 명작들을 당당히 써내고 있는것이다.

이해에는 군중문학운동도 새로운 활기를 띠고 힘있게 벌어 졌다.

문학통신원대렬이 급격히 늘어 나고 문학소조운영이 더욱 활발해 졌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문학소조, 평안남도 령대탄광 문학소조를 비롯한 10여개의 문학소조들이 전국적인 시범단위 문학소조로 되였으며 여러개의 문학소조들이 새로 조직, 운영되고 있다.

그리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군중문학작품들이 창작되였으며 그가운데서 시초 《조국과 병사》, 단편소설 《륜리》, 동화 《잃어 버렸던 이름》등은 《6월4일문학상》을 수여 받는 영광을 지녔다.

×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에 이룩된 그 모든 성과들은 전적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마련된 고귀한 열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의 이해를 맞으시며 우리 당과 인민앞에 강성대국건설의 진로를 뚜렷이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우리 문학이 나아 갈 길을 환히 밝혀 주시였으며 1월 13일에는 작가들에게 당창건 55돐기념 전국문학축전을 성대히 벌릴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켜 문학의 모든 분야에서 창작적앙양이 일어 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새해벽두부터 선군정치로 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시며 온 한해 전선시찰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가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때로는 작전대우에서, 때로는 전선길을 달리는 야전차안에서 우리 작가들이 쓴 작품들을 한편한편 지도하시여 시대의 명작으로 완성시켜 주시였다.

이해에 우리 장군님께서 친히 지도하여 주신 문학작품만해도 무려 수백편이나 된다.

이 사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커다란 로고와 심혈을 바치셨는가 하는것을 잘 말해 준다.

이토록 작품을 일일이 지도해 주시고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모든 성과를 고스란히 작가들에게 돌려 주시여 공민의 최고영예인 《**김일성**상》을 비롯하여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 주시였으며 창작에서 자그마한 성과가 있어도 거듭거듭 한 없는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 주시였다.

언제나 우리 작가들을 동행자로 믿어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선순회공연을 마치고 돌아 온 조선인민군 4.25예술영화촬영소 예술인들의 경희극 《동지》의 귀환공연관람에 우리 작가들을 곁에 앉혀 주시였고 나라사정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도 작가들의 식량문제, 살림집문제도 풀어 주시였으며 작가들의 특별휴양까지 마련해 주시는 참으로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렇듯 세심한 지도와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인 이해에 그처럼 빛나는 창작적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던것이다.

우리 시대의 가장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며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스승으로, 자애로운 어버이로 모시고 있기에 우리 문학은 이해뿐만아니라 해마다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할것이다.

이것이 주체88(1999)년의 문학총화에서 얻어 지는 결론이다.

박사 **장 형 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도하여 주신 문학작품주요목록 주체88(1999)년

혁 명 전 설

제 목	작 가	정리년월일
신기한 수첩	김우경	주체88년 3월 10일
금수산의 지맥	김종석	〃
언감자국수	김우경	〃
신기한 발자국	〃	〃 6월 30일
666	〃	〃

제 목	작 가	정리년월일
해삼대	한웅빈	주체88년 6월 30일
보이지 않는 돌절구	김우경	〃 12월 8일
록저이야기	〃	〃
초기마을전설	〃	〃

시

(주체88. 2. 10)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산수련시) 내 나라의 명산-칠보산		로동신문 주체88년 2월 21일
서둘러 붓을 들면	정동찬	
오를수록 아름다워	전승일	
칠보산의 단풍	주광남	
흐린 날에도	주광일	
가까이 가지 말아	최충웅	
조약대정각에 올라	정동찬	
해칠보	문기창	
탑승길에서	최영화	
칠보산 새 전설	정동찬	
정이월 눈칠보	최영화	
아름다와 지고 또 아름다와 지라	박호범	
(서정시) 세월의 인사	박경심	〃 2월 15일
(〃) 그이는 빨찌산의 행전을 풀지 않았다	백의선	
(〃) 좋은 아침이다	김은숙	〃 2월 16일
(〃) 소중한 생각	황성하	〃 2월 14일
(〃)나는 이 나이에 산다	김영택	
(〃) 나는 주체의 봉화를 안고 자랐다	박정애	

(주체88. 4. 8)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서정시) 아, 우리 수령님	홍현양	로동신문 주체88년 4월 12일
(〃) 해빛	리연희	〃
(〃) 만민의 꽃 김일성화	엄애란	〃 4월 13일
(〃) 나는 장군님의 딸이다	김일신	
(정론시) 조국땅에 봄이 온다	김만영	〃 4월 11일

(주체88. 4. 21)

(시초) 영웅찬가		로동신문 주체88년 4월 25일
이 시를 시작하며	고남철	
영웅의 고지에서	김정철	
그대는 이 땅에 내리지 않았다	한원희	
조국은 알았다	한기운	
열번째로 온 봄에	김휘조	
딸	리명옥	
고향의 이야기	김명철	
금별의 탑	황승명	
이 시를 끝내며	김기철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시초) 강원땅의 새 노래	송명근	로동신문 주체88년 4월 30일
첫 봄에		
마장리 8반		
무거운 흙덩이		
잃어 진 뙈기논에 대한 이야기		
이 한마디만은…		
잠 아니 오는 새벽에		
넓어 지고 넓어 지라 대지여		

(주체88. 6. 2)

(동시초) 장군님과 아이들		아동문학 주체88년 제8호
옷자락	김청일	
빛나는 그 자욱은 조국입니다	김 철	
빨리빨리 컸으면	라경호	
행복의 돛배	김웅택	
그런줄도 모르고	김학근	
철 령	장용환	
눈물에 젖은 금별메달	박향희	
나는 왜 그런 생각 못했을가	최성희	

(주체88. 6. 9)

(기행련시초) 백리 청춘로반우에서		로동신문 주체88년 6월 24일
이 땅의 시작점에서	김재원	
붉은기 날리는 《청년마을》	계 훈	
청춘의 시간	심재훈	
발파전 한때	류춘선	
기타여 울려라	권오준	
상봉의 백리길	정영호	
교각우에서	장호건	
가자, 10월의 광장으로	안창명	

(주체88. 6. 16)

(장 시) 6월의 푸른 하늘아래에서	백의선	문학신문 주체88년 제25호
(서사시) 영원하라 동지 애의 력사여	신병강	평양신문 주체88년 7월 3일

(주체88. 6. 23)

(서정시) 나는 먼 길 가는법을 배웠다	김영택	평양신문 주체88년 6월 30일
(〃)동무들아 군복을 입자	리영철	〃 7월 1일

(주체88. 7. 1)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서사시) 불멸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	김만영	로동신문 주체88년 7월 4일

(주체88. 7. 21)

(서정시) 바다는 속이지 못한다	홍현양	로동신문 주체88년 7월 29일
(〃) 검은 십자가	오필천	〃
(〃) 분노의 땅	김영근	〃
(〃) 52일	박창근	〃

(주체88. 7. 27)

(서정시) 최전선에 부치는 편지	림성희	로동신문 주체88년 7월 30일
(〃) 봄하늘 이야기	박경심	〃
(〃) 내 마음의 호수	김진주	〃

(주체88. 9. 1)

(서정시) 철 령	황성하	로동신문 주체88년 9월 8일

(주체88. 9. 15)

(서정시) 어머님은 대지에 계신다	리연희	〃 9월 21일
(〃) 나의 어머니는 군복 입고 계신다	박정애	〃
(〃) 그리운 어머니	엄애란	〃
(장시) 인민의 어머니	정은옥 김은숙	〃 9월 19일

(주체88. 10. 7)

(장편기행시) 강성대국행진곡	김만영	로동신문 주체88년 10월 13일

(주체88. 10. 13)

(장시) 전선길의 가을	박경심	〃 10월 16일

(주체88. 10. 26)

나는 강계사람이다	김철후	〃 11월 9일
장자강물결우에 띄우는 노래	로경철	〃
북방의 하루	김정경	〃
나는 12월의 당원이다	계 훈	〃

(주체88. 11. 17)

(서정시) 영웅되여 돌아 가리	오덕록	문학신문 주체88년 제49호
다 듭시다	리동철	〃

(주체88. 12. 22)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서정시)최고사령부는 최전선에 있다	김은숙	로동신문 주체88년 12월 25일
(〃) 12월의 노래	김일신	〃

(주체88. 12. 28)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송년시 아름다운 추억의 해 1999년이여	백의선	로동신문 주체88년 12월 31일

가 사

가 사

제 목	작 가	창작년월일
인민은 그 품에 길이 살리라	백인준	주체88년 2월 3일
전선길에 눈이 내리네	정 렬	〃
아버지의 모습	김석천	〃
인민의 집에 사시네	백의선	〃
달력을 번질 때면	김은숙	〃
신천과 병사	리영일	〃
심장을 바치자 어머니조국에	류동호	〃
인민은 노래하네 김정숙장군	최경심	〃
어머님께 경의를 드리옵니다	리룡성	〃
전승탑의 메아리	박영철	〃
칠보산의 메아리	정동찬	〃
명승의 칠보산	문기창	〃
어버이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리명근	〃
끝 없는 사랑의 길	류동호	〃 3월 24일
우리의 태양절	홍민식	〃
한목숨 바치자 장군님 위하여	한광우	〃
고향길	김기호	〃
대홍단은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리연희	〃
병사에겐 행진곡이 좋아	최정남	〃
군복	최연희	〃
강원땅의 새 노래	박상민	〃
구보로 달리자	정 렬	〃
대홍단에 경사가 났소	정서촌	〃 4월 28일
저 병사가 틀림 없어	김일규	〃
사랑의 봄	한향미	〃
함께 갑니다	림공식	〃
병사는 그대 지켜	장선국	〃
우리의 행군길에 기쁨도 많네	오필천	〃
당원의 모습	김석천	〃
장군님전사	진병국	〃 5월 26일
장군님 오신 그날에	송명근	〃
먼 동이 터올 때	차명숙	〃
영웅과 이야기하네	정예남	〃

가 사

제 목	작 가	창작년월일
내 나라의 그 이름	김정철	주체88년 5월 26일
목숨으로 수호하리 우리 평양	오재일	〃
고향의 밤	리상도	〃 6월 23일
내 고향의 6월풍경	박창근	〃
청춘다운 맛이 나게	리태식	〃
전선행렬차	김경석	〃
장군님은 인민을 자랑하시네	권오준	〃
총대와 청춘	리혁철	〃
날 보고 준마처녀래	리광숙	〃
세월에 이어 지는 넋	림정학	〃
사랑의 자욱	박미성	〃 7월 21일
금수산의 포도향기	주 홍	〃
영원한 그리움	최영화	〃
흐르는 시간	김선지	〃
이름 없는 주막집	최문식	〃
그 기발을 나에게	변홍영	〃
사랑으로 살자	김진주	〃
우리는 심장 하나만을 가지고 왔네	류동호	〃
천하도 눈아래	리명옥	〃
군복 입은 처녀시절	김은숙	〃
정책이 좋으니 내 나라 번영하네	김영희	〃
그 승리가 사랑이였네	라성국	〃
병사는 받들어 총	박해출	〃 9월 1일
언제면 그 언제면	황성하	〃
자식의 도리를 다하렵니다	신지락	〃
사랑을 명령했네	김열송	〃
우리의 청춘시절	문기창	〃
가을날의 소원	리진학	〃
못 잊을 천리마시대	허수산	〃
사랑의 지평선	김정곤	〃
그 생각 더욱 간절해	최충웅	〃 9월 29일
아 장군님생각뿐	김 숙	〃
가을바람 속삭이네	오재신	〃

가 사

제 목	작 가	창작년월일
장군님 사랑	리성간	주체88년 9월 29일
우리는 붉은기로 승리하였네	리정술	〃
사랑의 힘은 얼마나 강한가	유영하	〃
우리 집 유산	류동호	〃
청춘이 빛나면 한생이 빛나	함영근	〃
내가 가꾼 버드나무	리영호	〃
사랑의 귀속말	진춘근	〃 11월 3일
전호가의 함박눈	주명옥	〃
3대장군의 새벽길	최광조	〃
전선길에 금나락 설레이네	송찬웅	〃
영원한 수령님 손길	전병석	〃
물자랑 고기자랑	김영택	〃
당원의 나이	김승남	〃
철령을 넘어 초소로 가자	황명성	〃
천만의 심장에 불이 되였네	리명근	〃
장군님의 명절날	김송남	〃 12월 1일
우리 장군님 다녀 가시면	계 훈	〃
전해다오 천리전선길이여	최정호	〃
장군님의 미소	정준기	〃
나도 한마음	류동호	〃
그 품에 미래가 웃네	신문경	〃
아름다운 생의 자욱 새기여 가자	박상민	〃

가 사

제 목	작 가	창작년월일
빨찌산국수	유국진	주체88년 12월 1일
어머니의 자랑	김선지	〃
쉽게는 못 가	량덕모	〃
장군님의 길	박정애	12월 22일
장군님의 한평생이 전선길에 새겨 지네	허룡갑	〃
수령님력사는 길이 흐르리	김혜련	〃
마음속에 어머님 찾아 옵니다	리명근	〃
장군님과 총	류명호	〃
내 마음 별에 담아	한창우	〃
장군님을 그리며 달리자	류동호	〃
병사는 언제나 군기와 함께	박해출	〃
한모습 되자	홍현양	〃
초소에 핀 진달래	정서촌	〃
막내딸	홍금철	〃

우 화

제 목	작 가	창작년월일
슬픈 상봉	박화준	주체88년 12월 22일
옛 친구의 말	문영철	〃

주체88(1999)년에 창작된 문학작품주요목록

소 설

장편소설

제 목	작 가	출판기관
총서 《불멸의 향도》중 평양의 봉화	안동춘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전환	권정웅	〃
지금은 봄이다	신용선	〃
산촌의 홰불	박찬은	〃
열망	김문창	〃
월계관	김덕철	〃
봄잔디	량우직	〃

장편소설

제 목	작 가	출판기관
수평선	림재성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인간을 지키라	김진성	금성청년출판사

중편소설

제 목	작 가	출판기관
불 타는 대양	김정남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은 장 도	경석우	금성청년출판사

단편소설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영 원	김영근	조선문학 주체88년제2호
양춘을 불러	차승철	〃 제3호
새로운 전선	강복례	〃 제4호
전환	박일명	〃 제6호
첫 선물	조상호	〃 제7호
첫 녀성락하병들	송병준	〃 제9호
고고성	김성판	〃 제10호
경축의 밤	전세창	청년문학 주체88년 제2호
사랑의 자욱	유종원	〃 제4호
2일간	박사영	〃 제7호
외투	림재성	〃 제9호
반짝이는 별들	동의희	〃 제10호
흥남의 해돋이	방정강	〃 제12호
뜨거운 겨울	리명진	문학신문 제7,8호
소왕청	김청수	〃 제15호
사랑의 섬	황동선	〃 제17호
풍경화	길수암	〃 제23호
장수보약	김영근	〃 제24, 25호
평범한 하루	박혜란	〃 제27, 28호
눈보라	김명익	〃 제29호
달래천가에서	박찬은	〃 제41호
명사수	김정길	〃 제51호
평화의 조건	김대성	작품집《태양찬가》
푸른 기슭	최봉무	〃
구룡연의 단풍	조상호	〃
사랑의 자욱	유종원	〃
문을 활짝 열어라	김기범	〃
대령강의 풍경	엄성영	조선문학 주체88년제1호
두번째 불무지	정철호	〃
다시 본 모습	김혜영	〃
지향	석유균	〃 제2호
푸른 수첩	한인준	〃
형제봉의 새벽노을	김성희	〃 제3호
숲에 들렸다 가시라	김홍익	〃 제4호
이끼 덮인 성벽	림종상	〃
들에서 만난 사람	송병준	〃 제5호
수학려행	김선환	〃

단편소설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사랑의 메아리	정영종	조선문학 주체88년 제7호
모성의 권리	김혜영	〃
고향의 노래 (운문소설)	최치성	〃
유쾌한 낚시군	전홍식	〃 제8호
술을 끊은 리생(고전소설)	김재국	〃
명절전야에	한익훈	〃 제9호
두번째 상봉	한웅빈	〃
잊을수 없는 추억	손철남	〃
돌아 올 권리	장기성	〃 제10호
나의 가정이야기	강귀미	〃
흙, 뿌리	전인광	〃 제11호
5천년을 찾아	강성일	〃
고려태조의 신하	강상호	〃
소나무무늬 상감자기	강귀미	〃 제12호
백년을 부를 노래	지경일	〃
우리의 명예	정성우	청년문학 주체88년 제2호
처녀의 모습	심길순	〃
140리	반상서	〃 제5호
고향땅	최한섭	〃
교도의 계률(단편력사소설)	리성식	〃
밀림속의 발자욱	한인준	〃 제8호
세월이 흐른 뒤 찾아온 손님	송병준	〃
전쟁이 끝날무렵에(추리소설)	리금철	〃
사돈간의 싸움(고전소설)	김재구	〃 제10호
하늘은 푸르다	장동일	문학신문 제2호
담당의사	배경휘	〃 제5, 6호
항의 전환	백형덕	〃 제9호
눈보라	〃	〃 제19호
전창호(고전소설)	김재국	〃 제25호
류다른 결혼식	김도환	〃 제30호
내물은 바다로 간다	주종선	〃 제35호
기적(벽소설)	리대주	〃 제37호
침묵	최한섭	〃 제39호
아침(벽소설)	김도환	〃 제42호
준마의 기수	조정서	〃 제44호
흰 구름(벽소설)	공천영	〃 제45호
들국화	리라순	〃 제47호

실화문학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선구자	김대성	문학신문 주체88년제50호
앞채의 무게	류정옥	조선문학 주체88년 제3호
불씨	조정서	〃 제4호
땅과 인생	리 빈	〃 제5호
해살	박승록	〃 제6호
대답(단편실화소설)	권강일	〃 제8호
사랑의 령마루(〃)	로정법	〃
기계다리(〃)	김덕철	〃
동지	박승록	〃 제10호

실화문학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끝나지 않은 병사시절	림병순	조선문학 주체88년 제12호
새 버섯이야기	김금옥	청년문학 주체88년제1호
합심(실화)	리춘복	문학신문 주체88년 제12호
조국의 재부	김대성	〃
첫날(단편실화소설)	로철수	〃 제16호
열정(〃)	로정법	〃 제19호
동해관문의 초병들(실화)	김송남	〃 제32호
류다른 경축공연	안홍윤	〃 제48호
농장벌의 일화	박원초	〃 제49호

시, 가사

송시, 헌시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설날의 축원(송시)	김영길	조선문학 주체88년 제1호
2월의 봄빛(〃)	신문경	〃 제2호
장군님께 드리는 헌시	신운호	〃 제6호
조선의 축원(헌시)	김형준	청년문학 주체88년 제2호

장 시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높이 들리 우리의 붓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조선문학 주체88년 제2호
만발하라 강성대국의 새봄맞이꽃이여	박정애	문학신문 주체88년 제34호
사랑의 력사는 영원하리	리윤길	〃 제50호
영원한 호위장군	리범수	작 품 집 《인민의 추억》
경례를 받으시라	신병강	문학작품집《경례를 받으시라》

서정서사시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령장의 총대우에 봄이 있다(서사시)	김경민(남)	로동신문 주체88년 5월 22일
기다리는 땅	리 영	조선문학 주체88년 제7호
백화는 만발한다	김진욱	청년문학 주체88년제2호
조선의 총소리	김영길	〃 제4호
이 땅에 양춘을 불러	최치영	〃 제8호
동지애의 영원한 노래속에	신지락	〃 제9호
조국의 평범한 날에	주명옥	〃 제12호
말하라 불 타는 전선길이여	홍현양	문학신문 주체88년 제44호
류다른 사진	리 석	평양신문 주체88년 3월 13일
감은 어떻게 익는가	김형준	문학작품집《경례를 받으시라》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우산장사모곡(4행련시)	김 철	조선문학 주체88년 제2호
룡문대굴(시초)	박근원	〃
축복		
위인의 성지 《백두밀영》		
《풍년탑》		
승리의 메아리		
황홀경의 《나라》		
희천의 하루(일화련시)		〃
아침과 함께 오신분	정성환	
기다림	리연희	
두시간	주광일	
수령님과 장군님	김영택	
내 삶의 백두산(시초)	김은숙	〃 제3호
내 마음의 고향집		
백두산의 마가목		
뜨거운 소백수		
내 마음에도 소나무 한그루		
백두의 붉은 파도		
끝나지 않은 6천리(기행련시)	김만영	〃
못 잊을 6천리 길우에		
녹지 않는 눈		
잠 못드는 밤		
북방의 새 모습(1)		
북방의 새 모습(2)		
북방의 새 모습(3)		
장자강의 물소리		
불 타는 땅		
끝나지 않은 기행		
겨레의 합창(시초)	박세일	〃 제4호
어버이의 부르심앞에		
4 월		
우리는 7천만이다		
《오복》		
출 항		
고향시초	박웅전	〃
웃으며 오고 웃으며 가는 길로		
나는 분교에서 자랐다		
산촌의 저녁풍경		
《사람들이 좋지요뭐》		
우리 고장엔 모기가 없다		
고향에 대한 생각		

련시, 시초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승패에 대한 생각(시초)	김정곤	조선문학 주체88년 제5호
행 진		
바줄당기기경기		
달린다 달린다		
아빠는 문지기		
우리 롱구선수들		
쌍그네		
제목없이		
응원풍경		
승패에 대한 시		
장군님과 신천(련시)	정예남	〃 제6호
그이의 뒤를 따른것은		
만나주시다		
아버지		
오늘도 여기 계시다		
7월의 생각(시초)	한창우	〃 제7호
먼길		
전승의 날에		
오늘도 그날처럼		
조선의 7월		
총대		
백두의 서정(〃)	김영길	〃 제8호
귀틀집 한채		
조국의 의미		
하얀 봇나무숲		
불어라 백두의 바람이여		
성강의 봉화(〃)	리영삼	〃 제9호
구내길에서		
쇠물이 끓어		
출강이다		
쇠물의 대		
성강의 봉화		
이들처럼 땅을 사랑하라(〃)	문동식	〃 제10호
노래로 높아 지는 산정우에서		
쌀함박		
내가 만난 당비서		
산길을 오르며		
물속에서 불 타는 해		
우등불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조국의 품에 닻을 내려 (시초)	리정택	조선문학 주체88년 제11호
삶의 닻은 어디에…		
갑문을 나설때면		
그 사랑 끝이 없어		
파도와의 대화		
조국의 부름		
이 땅에 려명을 불러(련시)	리동후	청년문학 주체88년 제3호
새벽길		
동지		
푸른 정기		
나는 여기서 자랐다(시초)	전수철	〃 제7호
파견장		
아침검사		
나는 미장공이다		
집터를 닦으며		
첫 훈장		
우정		
나는 여기서 자랐다		
끝나지 않는 메아리(〃)	리찬호	〃 제6호
질러오신 길		
통나무의자		
전사의 즉흥시		
부루쌈에 깃든 이야기		
샘줄기		
영원한 순간		
삶의 품(〃)	최인덕	〃
가을날의 추억		
꽃송이		
영생		
돌사진		
정과 의리		
기둥		
렬사와의 대화		
나는 온성에서 자랐다(〃)	박유철	〃 제8호
나는 온성에서 자랐다		
렬차에서		
삶의 길앞에		
두만강기슭에서		
유물		
끝은 길에 대한 생각		

련시, 시초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푸른 가을(시초)	오인철	청년문학 주체88년 제10호
푸른 가을		
쉴참의 한때		
무지개		
말다툼 마시라!		
푸른 계절은 가지 않네		
벌목장의 청춘들(〃)	김형준	〃 제11호
인생과 년륜		
나무다리		
숲속소묘		
밀림의 달밤에		
비결		
《푸른 꿈》이야기		
나는 평양을 떠나지 않았다	윤정길	〃 제12호
나는 평양을 떠나지 않았다		
빨래줄		
사랑의 일기		
나는 옥중의 사람이다 (시초)	주정웅	문학신문 주체88년 제11호
나는 옥중의 사람이다		
한해와 마흔네해		
량심과 심장		
그들곁에 있으리		
나의 목숨이 끊어 진다면…		
꿈의 소원(련시)	박해출	〃 제20호
새벽		
꿈은 아름다워		
사랑도 무르익어 오곡도 무르익어		
신천이여(시초)	김형준	〃 제29호
오 신천이여		
어머니의 당부		
파편에 대한 시		
신천벌의 종소리		
산 화석		
못		
조국에서 부른 노래 (시묶음)	(총련)	로동신문 주체88년 8월 20일
조국을 바라보며	정화흠	
본가집	김윤호	
눈빛	홍윤표	
룡문대굴이 빙긋 웃네	박종상	

편시, 시초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내 가슴 치는 생각	김윤호	로동신문 주체88년 8월 20일
복비가 내려요	홍윤표	
평양풋고추	정화흠	
늙음을 모르누나	정구일	
백두산에 올라	정화수	
조국을 떠나면서	〃	
북녘에 띄우는 노래(시모음)	(남조선)	〃 10월 12일
송가로 왔다	김강신	
국기를 본다	문수언	
금메달	오일수	
멋 있어	강희웅	
쾌승의 날	〃	

서정시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새해와 함께	리 석	조선문학 주체88년 제1호
조선의 새해	박희구	〃
하늘이 올리는 송가	최영화	〃
아침은 빛나라	김송남	〃
당과 총대	류동호	〃
오늘의 대홍단	박영학	〃
복수는 총탄으로만 하지 않는다	허 일	〃
성 돌	리동수	〃
분옥이의 이야기(담시)	한원희	〃
백두산의 불 타는 새벽	홍현양	〃 제2호
백두산	차영도	〃
내 마음의 해돋이	홍문수	〃
군공으로 빛나는 땅에서	김명익	〃
귀항의 날	〃	〃
주소 없는 편지	〃	〃
그 순간에	리 영	〃
먼저 찾는 전사로 내 살리라	엄애란	〃
밀림속의 병기창	최주원	〃
흰 눈 덮인 대지는 잠들었어도	박해출	〃
신천이여, 나와 함께 가자	박 철	〃
강성대국의 첫 새벽길	홍현양	〃 제3호
가리라 승리자의 신심드높이	석광희	〃

편시, 시초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나는 진정 어머니가 되였는가 (시초)	김성욱	문학신문 주체88년 제31호
나는 진정 어머니가 되였는가		
밤길을 걸으며		
좌우명		
물이 되리		
어머니의 기쁨		
선두기러기		
북방의 꽃동산(편시)	박근원	〃 제42호
장군님의 환하신 미소		
장군님 오실 날 기다려		
고향마을에서		

서정시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푸르게 살리	오영재	조선문학 주체88년 제3호
막장길에 이어 진 하늘길이여	리충평	〃
운전지휘원의 마음	한정현	〃
분노의 땅에서	한창우	〃
분노의 무게	〃	〃
신천의 침묵	〃	〃
미제야 기억하라	〃	〃
태양절이 시작되는 땅에서	정동찬	〃 제4호
위대한 영생	문동식	〃
봄이여 네가 웨쳐다오	〃	〃
고향집에서	김명익	〃
35년도에 떠난 길	〃	〃
력사의 친필비앞에서	리 석	〃
붉은 단풍나무	〃	〃
대오여	권강일	〃
장군님과 가마마차(담시)	박천걸	〃 제5호
이 땅은 어떻게 아름다와 지는가	신문경	〃
빨찌산의 집	백의선	〃
봄이 웃는다	〃	〃
그 길	〃	〃
그날 아침	〃	〃
그 념원 펼치니	김휘조	〃
빛나는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다	김영택	〃

서정시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쇠물이 웃는다	최정용	조선문학 주체88년 제5호
풍년종다리	김영근	〃
연백벌의 새벽	채동규	〃
봄날의 저녁	김충기	〃
세월에 비낀 운명	동기춘	〃
우리에겐 위대한 당이 있어라	석광희	〃 제6호
보천보에서	리찬영	〃
백발자욱	〃	〃
당원이 서 있는 곳이면	한창우	〃
통일의 축포도 내가 쏘리라	〃	〃
분계선 감나무앞에서	〃	〃
나의 노래 나의 추억은	리영철	〃
행복에 대한 시	채동규	〃
산중의 작은 역을 지나며	한정현	〃
꽃은 피값이 아니다	김영근	〃
《6.25》는 곁에 있다	최창남	〃
병사에게는 짐이 있다	김충기	〃
잠들지 마시라	림성희	〃
다시는 그날이 오지 않도록	〃	〃
새벽에	김순학	〃
군사분계선표말뚝과 하고 싶은 말	홍철진	〃
새벽닭이 운다	〃	〃
어린이의 셈세기를 들으며	리광근	〃
세월과 우리 수령님	림공식	〃 제7호
태양의 궤도	동기춘	〃
진주돌에 대한 이야기	〃	〃
영생의 노래	김철후	〃
누가 묻는다면	로상현	〃
금수산의 노을속에	오필천	〃
백전백승하리라!	신운호	〃
아침과 저녁길	최영화	〃
갈망	최승칠	〃
우리 사람들	김석주	〃
나에게 하는 말	〃	〃
무사치 않을것이다	〃	〃
미리 말해 준다	〃	〃
조선의 힘	〃	〃
개선의 광장	신문경	〃 제8호
개선의 밤	김정곤	〃

서정시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랑 만	김정곤	조선문학 주체88년 제8호
조국통일형제의 노래	문동식	〃
건설자의 통일생각	박세일	〃
통일역에서	〃	〃
뜨거운 말	리명근	〃
통일된 조국에서 살고 싶다	〃	〃
기상나팔소리 울릴 때	김상조	〃
들국화	리광규	〃
눈비 오는 어려운 때일수록	서진명	〃
삶의 시작도 끝도	최인덕	〃
큰 기쁨	김정호	〃
미국에 부치노라	김창근	〃
위대한 나의 조국이여	림공식	〃 제9호
영원한 초침소리	김선지	〃
나에게는 영웅제자가 있다	허수산	〃
청춘, 사랑	김정철	〃
백두산의 돌(총편)	안영덕	〃
감자오그랑죽(〃)	안성미	〃
백두가 말하는 소리(〃)	박종일	〃
고지엔 병사들만 있지 않다	리명옥	〃
고향이여	김진주	〃
앞으로! (벽시)	오재신	〃
풍상의 메아리	김명익	〃 제10호
우리 큰집 뜨락	박근원	〃
출근길	〃	〃
퇴근길	〃	〃
당중앙지붕의 붉은기	〃	〃
장군님 결승선에서 맞아 주셨네	정성옥	〃
장하다 민족의 딸아	정성환	〃
이 나라 녀성의 이름으로	황성하	〃
백두의 길을 걸으며	김석천	〃
밀영풍경	〃	〃
눈보라에 대한 송가	〃	〃
네가 좋더라, 바다여	주광남	〃
초침소리	〃	〃
비 오는 거리에서(담시)	리 석	〃
귀맛(〃)	〃	〃
해놓은 일을 보면(〃)	〃	〃
어머니생각(〃)	김석주	〃
발가숭이시절(〃)	〃	〃

서정시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아침보도는 짧았다	문용철	조선문학 주체88년 제11호
내 조국의 딸이 되리	정성옥	〃
정성옥선수는 시를 썼다!	황명성	〃
정성옥 그대의 주로를 따라	문동식	〃
인생과 병사시절	조창제	〃
뜨거워 다오	김송남	〃
지령전화 막장을 찾네	〃	〃
해녀와 손녀	〃	〃
12월의 함박눈	리진묵	〃 제12호
조국은 말했네(총련)	김신현	〃
놀랄 일이다(〃)	정화수	〃
그 마음 고마워(〃)	김윤호	〃
우리의 하늘과 땅(〃)	홍윤표	〃
쪼각난 상투수법(〃)	정화흠	〃
영원히 나는 그 품에	진춘근	〃
나는 이 나날에 자랐다	김충기	〃
소중한 한해	〃	〃
문은 열려 져 있다	송재하	〃
그 품에서 나는 행복해	박경심	〃
부모와 자식(교훈시)	량덕모	〃
새해에 부치는 노래	석광회	청년문학 주체88년제1호
저 하늘에 우리의 별이 있다	최정용	〃
하늘높이 쏘아 올린 그 인공위성으로	서진명	〃
오늘도 그 언덕에 서시여	홍문수	〃
대홍단벌의 아침	정은옥	〃
추억이여, 오늘을 기억하라	주명옥	〃
함께 가자고	오병륜	〃
사랑의 담시	박재주	〃 제2호
벌이여 네가 보고 싶어	리연희	〃
미래를 위하여	채동규	〃
처녀의 손거울	김해연	〃
장군님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문동식	〃
너는 아름다우리 주체88년이여	신문경	〃 제3호
왕재산의 참나무에	리동수	〃
평양-남포(벽시)	홍현양	〃
나는 김정일장군님의 병사다	박천걸	〃
우리의 길	리연희	〃

서정시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조선은 최후결산을 하리라	류동호	청년문학 주체88년 제3호
나의 추억은 왜 아름답나	황명성	〃
태양절의 꽃물결	권태여	〃 제4호
약수골의 메아리	박창화	〃
렬차가 떠나는 역두에서	리 석	〃
피는 붉어야 한다	량덕모	〃
뜨거운 땅 (총련)	박호렬	〃
사랑과 행복	〃	〃
뿌리	〃	〃
시 읊는 소리	오필천	〃 제5호
나는 조선사람이다	량덕모	〃
어머님의 생애가 있어	전찬기	〃
바꾸지 않으리라 병사의 성격을	허 일	〃
땀은 왜 아름다운가	정은옥	〃
5.1절무대	리영철	〃
달 밝은 시내가	채동규	〃
태양의 성지	김형준	〃 제7호
잊지를 말아 다오	주명옥	〃
빛나는 삶이여	김철혁	〃
금수산기념궁전으로 가는 길	채동규	〃
포항의 파도소리	한기운	〃
태양은 눈 부시다	오필천	〃 제8호
우리는 태양의 위성들이다	김영근	〃
장군님!	김철후	〃
만경대의 할아버지	리연희	〃
우리 세대의 모습	김충기	〃
다시금 심장에 새겨 안노라	정은옥	〃 제9호
우리의 봄날(담시)	문동식	〃
백양나무아래서	권태여	〃
영광 드린다 우리 당에	김형준	〃 제10호
우리의 하늘	량덕모	〃
내 조국에 사랑을 바치리	최중히	〃
꽃바다는 설레인다	리학문	〃
먼 바다 갈매기	리 영	〃
환 희	〃	〃
봄날의 휴일날에	〃	〃
하얀 기념비(풍자시)	황규휘	〃
세월의 흐름소리	문용철	〃 제11호
나는 용해공시인이다	권오준	〃
조국은 너를 축복한다	김충기	〃

서정시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청춘, 우리가 있다	리명근	청년문학 주체88년 제11호
못 잊으리 주체88년이여	한광춘	〃 제12호
장군의 12월	주광일	〃
병사의 마음에도 샘물이…	진춘근	〃
아름다운 조국앞에	함영근	〃
통일념원	김영근	〃
우리 영원히 사랑하리(총련)	신선애	〃
새해의 인사를 드리옵니다	정성환	문학신문 주체88년제1호
빛나는 조국	김영택	〃
세월이 다하도록 영원히	조 윤	〃
조국의 첫날밤	허창길	〃
새해의 첫 아침에	홍현양	〃 제2호
조국이여 앞으로(산문시)	한원희	〃
장 군	주정웅	〃 제3호
먼 후날 나는 말하리	엄애란	〃
세발자전거에 대한 담시	권태여	〃
영원한 기적소리	김영택	〃
신천의 복수를 받아 내리라	박유라	〃
김정일장군님은 우리의 승리	김철혁	〃 제4호
고향의 어머니에게	한광춘	〃
최후승리의 새 언덕을 향하여	문동식	〃
직동은 기다립니다	정성환	〃
미래로 가는길(벽시)	류동호	〃
창조로 오늘을 빛내이자(〃)	리동수	〃
얼굴이 환해야 (〃)	엄애란	〃
시간의 물음앞에 (〃)	홍현양	〃
래일이 보고 있다 (〃)	정은옥	〃
청봉의 별빛아래	김병두	〃 제5호
아 가장 아름다운 꽃이여	문기창	〃
천백배 복수하리라!	최주원	〃
날으자 천리마여(벽시)	신문경	〃
발전소의 흰 연기(〃)	유국진	〃
온도는 내 심장의 열도(〃)	리영철	〃
여기로 오라(〃)	박천걸	〃
오늘도 저 푸른 하늘가에는(〃)	겸영택	〃
땀은 불보다 뜨겁다(〃)	박경심	〃
어머니의 허리띠	박영	〃 제6호
경모의 정이 강산에 넘치여라	남태범	〃 제7호

서정시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2 월	김진주	문학신문 주체88년 제7호
아, 보여 주고 싶구나	최치영	〃
꽃 한송이	〃	〃
2월은 세기를 비친다	김만영	〃
추위와 청년돌격대원(벽시)	석광희	〃 제8호
그리움의 길	박천걸	〃 제9호
기다려 온 봄	량덕모	〃
쌀성을 쌓자	권태여	〃
나는 충성의 한표를 바친다	리영철	〃
선거자명부앞에서	허 일	〃
그 논뚝들은 사라졌다	전찬기	〃
넓어 지는 땅	리정술	〃
강원땅	〃	〃
별 많던 그 밤에	박창화	〃 제10호
축 복	리연희	〃
녀인들의 손	박정애	〃
병사의 축원	김영길	〃 제11호
시금석	문동식	〃
이른 봄 좋은 봄	채동규	〃
나는 조국강산을 안고 산다	강홍모	〃
나와 흙과 낟알	허성훈	〃
청년돌격대원 그 나이에	홍현양	〃 제12호
《지원폭포》에 부치여	오필천	〃
충신의 메아리	문동식	〃
회고록을 펼치면	박창화	〃
봉화산 푸른 숲의 설레임소리	최득필	〃
영생이란 무엇인가	윤두만	〃 제14호
돌사진앞에서	〃	〃
달 비	박창화	〃
조국의 푸른 숲(벽시)	김근엽	〃
한철, 한때	〃	〃
아 태양절	리영철	〃 제15호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김경기	〃 제16호
그날을 안고 산다	황승명	〃
꿈결에도 그리는 날	김명철	〃
대천의 물소리	김정철	〃
영원한 조선의 환호성	리 석	〃 제17호
호반의 둥근 달아	고남철	〃
동강의 불빛	리명호	〃 제18호
푸른 섬광	문동식	〃

서정시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나는 조선로동계급이다	리 호	문학신문 주체88년 제18호
오늘도 그 자리에	량덕모	〃 제19호
위대한 령장을 우러러	김영택	〃 제20호
또다시 전선에로	리명호	〃
5월의 어머니	리근지	〃
영광의 승용자앞에서	오재일	〃 제21호
푸른 신호등	주정용	〃
기적소리 들려 올 때면	김승남	〃
앞세워 다오	권태여	〃
초봄	로상현	〃
쉽지 않아도(총련)	서정인	〃
보천보에 부치는 노래	황 영	〃 제22호
직포공의 마음	최장수	〃
위대한 선각자앞에	문동식	〃
실은 한날 실이 아니다(벽시)	한찬보	〃
녀인들의 마음 (〃)	〃	〃
예술의 주인공들(〃)	안정기	〃
거저는 못 지나겠단다	허성훈	〃
심장! 그 하나만을	리명근	〃 제23호
동지의 세계가 태여난 집	박근원	〃 제24호
해가 솟고 또 솟아	〃	〃
내 삶의 영원	리동후	〃
집을 나서며	김형준	〃 제25호
시작점	리명근	〃 제26호
언젠가는 결산하리라	최영화	〃
금수산기념궁전으로 가는길	채동규	〃 제27호
나는 수령님을 만나뵈웠다	김승남	〃
그날의 종소리	리명호	〃 제28호
우리는 기다린다	박근원	〃
신천땅은 말한다	김영길	〃 제29호
두만강기슭 남양교에서	최치영	〃 제30호
승리의 7.27	리명호	〃
성강의 봉화	문동식	〃 제31호
로상대 정말 좋다!	박동선	〃
우리의 대오앞엔 붉은기가 휘날린다	리명옥	〃 제32호
영원한 축복	허수산	〃 제33호
심장으로 듣습니다	리금녀	〃
조선춤(총련)	리성례	〃
나의 청춘	류명호	〃 제34호
우리의 려장은 가볍지 않다	송재하	〃

서정시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통일의 한길로	리동수	문학신문 주체88년 제34호
우리는 모였다	김휘조	〃
계급의 심장을 두드리며	장혜명	〃
삭도길 십리(벽시)	김송남	〃 제35호
화선식사랑 (〃)	김히선	〃
운전사 그 마음으로 (〃)	〃	〃
령장의 존함으로 선언한다	오필천	〃 제36호
내 조국의 지도가 되네	박두천	〃
조국땅에 나붓기는 공화국기발은…	최인덕	〃
그날의 추억	함영근	〃
위성의 노래	김형준	〃
내 삶의 영원한 노래	김명길	〃 제37호
민족의 딸 정성옥아	홍현양	〃
너는 온 세상에 보여 주었구나	리명근	〃
내 아들	박근원	〃
시인에게	권오준	〃
어머님군복	김영택	〃 제38호
김일성민족의 장한 딸이여	박두천	〃
우리 장군님의 딸	김 숙	〃
분노의 선언	한광춘	〃
달리는 꽃물결	한영애	〃 제39호
고향을 생각할 때면	한길초	〃
풍년벌노래를 가꾸는가봐	강남섭	〃
애국자	정성환	〃 제40호
돌아 서는 배길에서…	리 영	〃
당은 나의 운명	김 철	〃 제41호
미래는 사랑이라네	리명근	〃 제42호
그 하루	리일섭	〃
위인의 빛발	정준기	〃 제43호
조선의 모습	한창우	〃
병사가 사랑하는 처녀	〃	〃
고향의 축복	김충기	〃
그 빛 그 열이	홍문수	〃
사랑에 사랑을 합쳤습니다	리명근	〃
복수자의 시	최영화	〃
내 조국의 하늘은 푸르다	윤정길	〃 제45호
그이 내여 주신 자리에…	리 영	〃
네 이제 알게 되리	박근원	〃
우리는 장군님의 병사	한성호	〃

서정시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내 고향의 가을은 좋아	윤경남	문학신문 주체88년 제45호
단풍이 타는 계절에	정동근	〃 제46호
우리 정성옥	김영택	〃
오늘에 달리는 시간(총련)	박종일	〃
장군님 오신 그날에	류명호	〃 제47호
환희	최광조	〃
신천녀인의 이름으로	김충기	〃
뜨거운 숨	박정애	〃 제48호
아 800여리 제방길이여	서진명	〃
전사들은 안다	권태여	〃 제49호
산촌마을 새 풍경	윤정길	〃
개꿈을 꾸지 말라(풍자시)	리영복	〃
쪽발이는 떠들어도(〃)	〃	〃
락원은 새 봉화를 추켜 들었다	김휘조	〃 제50호
힘차게 달린다 락원은	김정철	〃
조국의 웃음(총련)	리성례	〃
민들레(〃)	리기성	〃
전조등불빛	박근원	〃 제51호
어머님의 생애가 있어	전찬기	〃
온 나라가 안다	김영택	〃
언제나 최고사령부 가까이에	장혜명	〃 제52호
옷에 대한 담시	리철후	〃
어버이사랑	김영택	〃
내 사랑이 얼마나 열렬한가를	안윤식	〃
대통령의 《처가집》(풍자시)	김영림	〃
불 타라 나의 심장아	백의선	로동신문 주체88년 1월 7일
열번째 백두-한나길	오영재	〃 8월 15일
장하다 조선의 딸아	김석천	〃 9월 4일
축복을 받으라 장군님의 딸이여	류동호	〃 9월 5일

서정시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다	김병훈	로동신문주체88년 11월 2일
그날에 심장으로 말하자	황성하	〃 11월 17일
감사를 드리노라 나의 조국이여	조창제	〃 12월 15일
대양절이 왔다	리영철	민주조선 주체88년 4월 15일
8월은 뜨겁다	한광춘	〃 8월 13일
조국은 기다린다	리동수	〃 9월 4일
조선은 너처럼 달린다	유국진	〃 9월 5일
공화국기발을 우러러	리명호	〃 9월 9일
북방의 하루	김정경	〃 11월 9일
천년만년 노래하세	리정택	평양신문 주체88년 2월 11일
나의 평양	조영식	〃 3월 18일
수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리 석	〃 4월 14일
전선길에 새겨 진 사랑의 전설	김경식	〃 4월 20일
영광이 있으라	김영택	〃 4월 25일
위대한 가치	리동수	〃 5월 5일
평화력에 부치노라	지상기	〃 5월 18일
대홍단으로 가는 길	조영식	〃 5월 19일
무산지구의 봄우뢰소리	리연희	〃 5월 23일
위대한 전환의 날이여	리명근	〃 6월 19일
어머니의 모습	리 석	〃 6월 25일
우리는 엄숙히 선언한다	김석천	〃 6월 27일
우뢰가 되여 불벼락이 되여	신형길	〃 7월 27일
하나된 조국이 보인다	김영택	〃 8월 16일
공화국기를 우러러	리영철	〃 9월 5일
영원한 9월의 환희여	박천걸	〃
충성의 송가	홍현양	〃 10월 8일
성스러운 당기발을 우러러	리명근	〃 10월 10일
영광의 탑 승리의 기치여	신형길	〃 10월 17일
천리마여 나래치라, 더 빨리, 더높이	송찬우	〃 11월 24일
은혜로워라 조국의 품이여	리윤길	〃 12월 16일

가 사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장군님 따르는 한생각	김응회	조선문학 주체88년 제1호
우리의 김정일장군	리영철	〃 제2호
봄과 함께 영원한 우리 수령님	김우경	〃 제4호
장군님만 우러러 사네	류동호	〃 제6호
대홍단감자음식 천하에 별미라네	최창근	〃
구월산 폭포	박정애	〃 제7호
적기가는 조선의 행진곡	김경기	〃 제8호
비행사와 종다리	〃	〃
강원땅이 웃는다오	김명철	〃
어서 만납시다	리명옥	〃
장군님따라 준마로 달리자	안정기	〃 제9호
받아 주세요	유영하	〃 제10호
바다와 청춘	오재신	〃
백학이 날아 드네	강승계	〃
차창의 달	정　렬	〃 제11호
대홍단아 네가 바로 내 고향	김휘조	〃
나의 추억은 왜 아름답나	황명성	청년문학 주체88년 제3호
잊지를 말아 다오	주명옥	〃 제7호
우리도 리수복영웅이 되리	안근배	문학신문 주체88년 제2호
우리는 장군님의 아들딸	문기창	〃 제4호
달리는 차창을 따라	리연희	〃 제5호
천하절승 칠보산아	리일섭	〃 제6호
김정일장군님 우러러 받들어 총	한창명	〃 제7호
세기의 영광	강남섭	〃 제8호
김정일장군찬가	리광근	〃 제9호
장군님과 청춘	신지락	〃 제11호
영원한 내 삶의 품	한기운	〃
고향의 맑은 시내물	고남철	〃
자강땅의 물노래	주광일	〃
병사란 그 이름	김일규	〃 제12호
장군님 안겨 주신 보검	김원복	〃
벌로 가자 들로 가자	리영복	〃

가 사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병사의 량심	리기택	문학신문 주체88년 제17호
백두산의 해돋이	박경심	〃 제18호
군민의 단오놀이	전계승	〃 제19호
대동강 실버들	김명철	〃 제19호
아몰라 어째서인지…	최충웅	〃
찔레꽃 핀 전호가	리　석	〃 제21호
불 타는 한마음	박남원	〃
고마운 어머니	계　훈	〃
평양은 기다립니다	백광명	〃 제22호
장군님은 봄	리범수	〃
장군님을 위해	김봉운	〃 제24호
구월산을 노래하세	리범수	〃
구보로 달리자 강성대국 향하여	김기영	〃
선조암의 해당화	리정술	〃 제26호
아버지의 축복	박해출	〃
우린 정말 군대복을 받았소	김휘조	〃
어머님 계시는 집	박정애	〃 제29호
어머님을 불러 보면	차명숙	〃
그 봄날이 그리워라	리기택	〃 제31호
뽕풍년 고치풍년	권태여	〃 제32호
전호가의 산딸기	한광우	〃
준마타고 구보로	윤두근	〃
백두산의 노을	김응회	〃 제33호
느티나무 정자나무야	윤경남	〃
풍년벌 노래로 가꾸는가봐	강남섭	〃 제39호
김정일장군님께 영광 드린다	송찬웅	〃 제40호
구월산 너도 천하명승 이루었구나	최로사	〃 제42호
미래는 사랑이라네	리명근	〃
사랑에 사랑을 합쳤습니다	〃	〃 제43호
병사와 소나기	김송남	〃 제44호
장군님의 새벽	강창영	〃 제45호
바치는 내 마음	박유라	〃
주소 없는 집	최문식	〃 제46호
분조장처녀 돌아 오네	박상민	〃 제47호
내 마음인줄 알아다오	김진학	〃
백두벌처녀	최문식	〃 제48호

단편소설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우리를 부러워 하라	변제전	아동문학 주체88년 제4호
고 향	박웅호	〃 제6호
아버지의 모습	리준길	〃 제7호
봉선화	로효식	〃 제9호
드넓은 바다	리동섭	〃 제12호
계 승	량철수	작품집《영원한 해님》
유치원가방	신종붕	〃
특별증명서	안　준	작품집《정일봉의 해돋이》
소낙비	리동섭	〃
박수소리	리희룡	〃
오누이가 안고 온 선물	리현해	아동문학 주체88년 제1호
철이의 발견(유년소설)	한웅빈	〃
밝은 봄하늘	리준길	〃 제2호
《고맙습니다》	리경명	〃
홰불	박종렬	〃 제3호
부엉이 우는 밤	최복선	〃
잊지 못할 동무	손형호	〃
지혜의 샘(과학환상소설)	리광근	〃
《은하기지로 가는 길》(〃)	리금철	〃 제4호
놀이감(유년소설)	박유라	〃
세간놀이(〃)	장인옥	〃
아버지를 찾은 소년	김룡복	〃 제5호
한 집안	장　혁	〃
주남이(유년소설)	리서애	〃
포도나무	장　혁	〃 제7호
밝은 미래	리학문	〃
영각소리	리춘복	〃 제9호
백년만에 만난 형제 (과학환상소설)	리광근	〃
우리 집 식구	리경명	〃 제10호
아름다운 풍경	신종붕	〃
살구 한알 토끼풀 한줌 (유년소설)	손형호	〃
설화령의 꼬마부대	신형규	〃 제11호
은일이의 편지(유년소설)	리서애	〃
아버지의 선물	류창하	〃 제12호
영원한 노래	장　혁	작품집《영원한 해님》
첫 맹세	민경숙	〃

동 화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씨 앗	허원길	아동문학 주체88년 제1호
피리 부는 소년	김박문	〃
소나무이야기	황령아	〃
팽이발전소	손병민	〃 제2호
남빛 도라지	고희웅	〃
웅이의 승강기	김형운	〃 제3호
보물모자	김영삼	〃
까치의 수건	손병민	〃 제5호
재토끼와 똥보곰	정춘식	〃
속담으로 키운 아들 (속담동화)	박상용	〃
은빛 손달구지	최낙서	〃 제6호
돈과 머슴	리순복	〃 제7호
참개구리가 된 이야기	리희건	〃 제8호
불마귀를 물리친 의형제	리석규	〃
향금이와 그네(유년동화)	최복실	〃 제8호
달아 보지 못한 산호메달	리원옥	〃 제9호
노란 도토리	최복선	〃 제10호
도요새와 알락왜가리	전종섭	〃 제11호
계절선녀	손병민	문학신문 주체88년 제28호

우 화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그늘밑	윤학복	아동문학 주체88년 제1호
맹꽁이(우화묶음)	문영철	〃
바보맹꽁이		
눈 감아 준 맹꽁이		
남의 욕까지 먹은 맹꽁이		
하늘소와 다람이	전종섭	〃
개꿈	경명섭	〃 제2호
시중 들던 여우	박화준	〃
장수와 검	지홍길	〃 제3호
깨여 진 거울	김진열	〃
결불 맞은 족제비	윤학복	〃 제4호
인정 많은 양아지미	고상훈	〃 제5호
보름달과 바람장수	윤학복	〃 제8호

우 화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비둘기장에 들어 간 까마귀	김의훈	아동문학 주체88년 제8호
나무에서 내렸다가	고상훈	〃 제9호
벗겨 진 가면	윤학복	〃 제10호
조약돌과 시내물	문영철	〃
으르렁대던 승냥이	김박문	〃 제11호
고양이가면	안경주	〃 제12호
《하늘왕》과 비둘기	리순복	〃
부러진 코	문영철	문학신문 주체88년 제3호
못 캐온 약초	박화준	〃 제8호
《대통령》과 권투선수	문영철	〃 제12호

동요동시초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신천땅에서 부르는 노래(동시초)	지하선	아동문학 주체88년 제1호
신천땅의 셈세기		
박물관의 고무신		
원암리의 밤나무		
못		
우리 발걸음		
노래하자 자랑하자 우리의 고향	박명선	〃 제2호
백두밀영고향집		
높이 솟은 정일봉		
소백수 돌-돌		
2월의 꽃무지개		
우리 함께 춤 춰요	김학근	〃
축구뽈이 씽		
또 물을거야		
할머니의 거울		
우리 함께 춤 춰요		
어서 가자 행복의 큰집으로 (장시)	김청일	〃 제3호
노래하자 만경대	장준범	〃 제4호
태양절		
꽃동산		
고향집		
맹세		

동요동시초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새봄은 어떻게 왔나 (동시초)	마운룡	아동문학 주체88년 제4호
지름길		
어느 소리 이겼나		
내 고향의 설맞이		
새봄은 어떻게 왔나		
자랑 많은 우리 학교	한광우	〃 제6호
세쌍둥이 휘장		
그 동문 누굴가		
꼬마풍력발전소		
영웅등록장		
우리는 장군님의 소년근위대	김옥형	〃 제7호
교과서의 글발로 노래로		
그날의 승리러는 우리의 맹세터		
졸업생중대 나란히		
신명산의 나팔소리		
우리는 하나(동시초)	김련실	〃 제8호
비둘기야		
나는 보았답니다		
판문점의 잣나무야		
통일이 웃으며 마중 와요		
구월산을 노래해요	경명섭	〃 제9호
높이 솟은 산		
돌거북		
딱따구리		
춤바다에 솟았죠		
《장하구나, 아버지장군님의 딸아!》(련시)		〃 제10호
내 조국의 큰 경사	박명재	
1등비결	림금단	
그 발걸음의 시작은…	박향희	
얼마나 기쁘셨으면…	박유라	
이 꽃다발을 받아 주세요	김히선	
나도 언니처럼	김청일	

동요동시초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승리산의 아들이 부른 노래(동시초)	김히선	아동문학 주체88년 제10호
내 고향은…		
내 고향의 인사		
할아버지와 자손들		
자동차사열식		
대동강 푸른 물결아		
인민군대 될래요(동요초)	윤태빈	〃 제12호
생일 같죠 명절 같죠		
정다운 인사		
인민군대감이래요		
인사 드려요		
내 고향의 새 이름	김광렬	〃
처음이래요		
칭찬끝에 나눈 말		
덕이 많은 내 고향		
꿈 많은 감자		
내 고향의 새 이름		

동 요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무얼 보실가	김청일	아동문학 주체88년 제1호
삼가 드릴래(총련)	김광숙	〃
설눈이 좋아요	김재갑	〃
달아달아 밝은 달아	김옥형	〃
시내물아	김재춘	〃
축하장 쓰자	백광명	〃
겨울동무 내 동무	최윤철	〃
너희 몰랐지(유년동요)	박유라	〃
간절한 소원	박명재	〃 제2호
백두산노을	장준범	〃
장군님 계시니(총련)	류창하	〃
장군님의 품은 꽃동산	김응택	〃
감자꽃	김재갑	〃
대홍단벌 거름더미 숨 쉬는 더미	김기철	〃
아이 고와	리순복	〃
별들아 물어 보자	문동식	〃
고무공(유년동요)	안형국	〃
빨리 가고 싶은 길	김광삼	〃 제3호
웃으며 활개치자	장준범	〃

동 요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우리 가는 길	김학근	아동문학 주체88년 제3호
우리 마을 봄	길정철	〃
55동 새 마을	김창무	〃
우리 집 새해 달력	박유라	〃
내 동생의 대답	박명재	〃
별아별아 돌아라	최성희	〃
고향	장용환	〃
자동차도 빵빵(유년동요)	정신룡	〃
나의 인사(〃)	최윤철	〃
포도송이 주렁주렁	문동식	〃 제4호
조선독립 북소리	장익성	〃
정말 기쁜 꿈	윤동향	〃
내 동생 인사	박은경	〃
영웅로병할머니	김인명	〃
조선군대놀이	김시범	〃
오늘은 태양절(유년동요)	리창주	〃
어깨동무	김청일	〃 제5호
기뻐서 방실	리정남	〃
물폭포 노래해요	리창주	〃
동해바다 헤가르며(총련)	류창하	〃
부러워서 야! 야!	김학근	〃
욕바가지	백광명	〃
별들이 반짝(유년동요)	김련실	〃
연자돌	리정남	〃 제6호
아버지의 박사메달	박갑인	〃
《호박풍년》자랑(풍자동요)	김시범	〃
그리운 마음	오흥수	〃 제7호
푸른 수목원	장익성	〃
림성골의 등잔불	길정철	〃
부러운 형님	리영윤	〃
묵사발된다	박강윤	〃
모두모두 영웅감(유년동요)	정명이	〃
통일해 마중(환상동요)	마운룡	〃 제8호
나를 보고 방긋(유년동요)	최인혁	〃
9.9절이 왔어요(총련)	리덕호	〃 제9호
해님은 알죠	장익성	〃
큰힘 되였죠	김종정	〃
불 타올랐죠	〃	〃
꼭 될래요	김정순	〃
따라 온 종소리	곽영순	〃
꽃 한송이	하영희	〃

동 요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울보》할머니	박명선	아동문학 주체88년 제9호
내 고향 갑산	박희창	〃
당마크의 붓대	김재갑	〃 제10호
우리의 큰 명절	장만기	〃
해님복을 타고 났어요	리영윤	〃
욕하지 않아	서원윤	〃
나무 심고 가꿔요	오수남	〃
파도야(유년동요)	김시범	〃
남이와 빨간 별 (〃)	박갑인	〃
누나의 심정	강금철	〃 제11호
기쁜 가을	장익성	〃
나의 꽃다발	박강윤	〃
공화국기 펄펄	김영수	〃
반기여 줘요(유년동요)	김광삼	〃
하늘높이 동동	김학근	〃 제12호
다듬이질소리	현 철	〃
붉은 기발 펄펄	한기운	〃
조선지도 꽃밭(총련)	정구일	〃
사랑의 배(〃)	김아필	〃
큰 바구니	백광명	〃
웃는 우편함(유년동요)	오병철	〃
토끼춤 동산(〃)	박동선	〃
나는 미국놈들을 보았어요	라경호	문학신문 주체88년 제3호

동 시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만수축원꽃바구니 삼가 드려요	김학근	아동문학 주체88년 제1호
불 타는 노을	구형회	〃
찬란한 오각별	장만기	〃
우주의 첫 노래	오홍수	〃
밤나무골에서	리정남	〃
감자꽃 소곤소곤	장 혁	〃
《손님》 많은 자강도	길정철	〃
나이를 세며	한용재	〃
꿈만 같아요	강현만	〃 제2호
꽃바구니	최점훈	〃
크나큰 쌍안경	〃	〃
풍년싹	마운룡	〃
원쑤를 갚아 주마	전태화	〃

동 시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고산진의 장수샘	류정화	아동문학 주체88년 제3호
오늘도 함께 가셔요	류재남	〃
선생님은 오늘도 여기 계셔요	박희창	〃
나도 평양의 아들	박은경	〃
동이만한 왕감자	리경호	〃
인민군대만 나서면	김응택	〃
태양절 꽃바구니	김학근	〃 제4호
장군님발자국	길정철	〃
나의 자리	김정종	〃
우리 군대	김광렬	〃
대홍단에 살고 파	김련실	〃
키 크는 산	리영윤	〃
전기수차 빙글빙글	장용환	〃
아버지의 승용차	리정남	〃 제5호
고운 방울 오늘도 흐르나 봐	한용재	〃
뜨거운 얼음	〃	〃
다시 울린 기적소리	로창남	〃
웃으며 마중해요	윤태빈	〃
할아버지의 돌사진	김정순	〃
내 고향벌자랑	류해선	〃
수박만큼 크거라	강현만	〃
5.1절 아침	문희서	〃
아름다운 양각도	곽문철	〃
같은 시간속에 있어도	김룡길	〃
오늘도 빛나고 있어요	김 철	〃 제6호
우리 분단위원장	박희창	〃
꾀드기지 말어	류재영	〃
아기들의 울음소리	김청일	〃
그때 내가 있었다면	라경호	〃
네 이름앞에서	박은경	〃
노을속에 계십니다	리창주	〃 제7호
빛나는 금별훈장	〃	〃
축하 드리자	오병철	〃
너를 재워 안는다	박명재	〃
우리 연필	백광명	〃
무명목도리앞에서	김학근	〃
곤장덕을 오르며	리정남	〃 제8호
무엇일가	〃	〃
어머님 계신 자리	〃	〃
우리도 7련대	문희서	〃

동시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두벌농사 가꾸는 누나	최윤철	아동문학 주체88년 제8호
앞산 뒤산 발파소리	문동식	〃
군대오빠야	하영희	〃
5점꽃탑	류재영	〃
아 신천땅아	김광삼	〃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문희서	〃 제9호
등사기의 로라소리	로창남	〃
삼지연에 오너라	김재갑	〃
어머님의 바느질고리	장만기	〃
밝은 눈	라인철	〃 제10호
아버지의 동시	김명익	〃
조선소년	〃	〃
그 이름만 불러 봐도	지하선	〃
모두모두 구보로	〃	〃
고와 진 풍년새야	김옥형	〃
엄마로끼는…	길정철	〃
꽃주단을 펼쳐 주자	조성심	〃
어머니라 불러요	리창주	〃
새로 생긴 황금파도	한용재	〃 제11호
황금벌의《무용단》	〃	〃
들국화	〃	〃
온 세상이 하!	김련실	〃

동시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정성옥언니에게	박명선	아동문학 주체88년 제11호
온 식구가 사양공	정명이	〃
명절날 아침	길정철	〃
어머님의 권총	한광우	〃 제12호
그날의 방아소리	〃	〃
국제친선전람관 (총련)	고봉전	〃
제일 큰 표창	최중영	〃
축하의 박수	한영애	〃
내 꿈도…	하영희	〃
머리채	김 철	문학신문 주체88년 제3호
신천이여 너의 이름은	박은경	〃
설레이는 느티나무	홍근표	〃 제13호
내 고향도 대홍단	고정철	〃 제32호

가사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한마음 잊지 않아요	김 철	아동문학 주체88년 제1호
노래하자 우리의 태양절	강정수	〃 제4호
장군님품은 우리들의 봄	김허선	〃 제8호
부럼 없는 이 행복 노래 불러요	박희창	〃 제11호

문학작품경개문

장편소설《산촌의 홰불》

장편소설《산촌의 홰불》(박찬은작)은 오랜 기간 벌방지대에서 당사업을 하다가 심심산골군인 명신군의 책임비서로 부임된 주인공 림동훈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아글타글 애 씀으로써 군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려 나가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명신군으로 말하면 70년대 후반기까지만 하여도 우리 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산골군으로서 어버이수령님의 수첩 첫 자리에 올라 있었으며 그로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곳 인민들의 생활을 두고 항상 마음 쓰시는 군이다.

명신군을 추켜 세울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신임속에 이곳 군당책임비서로 부임되여 온 림동훈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닥친다.

우선 땅이 척박하고 논이 없어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결과 벌방에 비해 인민생활이 퍽 뒤떨어져 있었다.

또한 읍조차 제대로 꾸리지 못하였고 사람들은 락후한 생활인습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나서 자란 고장을 잘 꾸릴 생각보다 명신을 뜰 생각을 하고 있었다. 특히 처녀들이 다른 고장으로 시집을 가고 명신총각들한테는 시집오지 않으려 하였다.

그보다도 더 큰 애로는 일군들의 고리타분한 일본새였다. 그들은 군을 남들처럼 꾸리자면 50년도 더 걸려야 한다며 혁신할 생각은 않고 앉아 뭉개고만 있었다.

림동훈은 군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로형도,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곽풍세 등 보수적인 일군들과 강한 투쟁을 벌리며 군을 꾸리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벌려 나간다.

군에서 제일 걸린 석탄을 찾기 위해 산속을 뒤지면서 고생하기도 하고 농촌문화주택을 산기슭으로 옮기고 밭을 논으로 풀어 인민들에게 흰쌀밥을 먹이기 위한 투쟁, 읍을 통이 크게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 등 그는 군내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틀어 쥐고 자신의 한몸을 깡그리 바쳐 나간다.

이 과정에 일부 편협한 일군들의 오해도 받으나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모진 육체적과로로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훌륭히 실천하여 명신군을 어버이수령님의 수첩에 제일 잘 사는 군으로 오르게 하여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일념으로 심장을 불 태운다.

그의 불 타는 충성심과 헌신적인 노력속에 군의 면모는 나날이 변모되여 간다.

그가 소문없이 일을 잘하여 명신군이 잘 살게 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과 정부의 간부참관단까지 보내시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군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린 명신군의 모범을 전국이 따라 배우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여 그에게 로력영웅칭호도 안겨 주시고 몸이 약해 졌을 때에는 산삼도 보내시며 건강도 보살펴 주신다.

장편소설《열망》

장편소설《열망》(김문창작)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임에 의해 주인공 전영범이 회남탄광기계공장 당비서로 임명되여 오는것으로 시작된다.

생산총화를 위한 회의에 참가한 영범은 일부 일군들이 제기된 난관앞에 주저하며 생산을 적극적으로 내밀지 못하고 있다는것을 느끼게 된다.

또한 공장실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그는 지배인과 기사장사이에 서로 호흡이 잘 맞지 않는다는것을 알게 된다. 공장일이 잘되자면 책임일군들부터가 합심해야 한다는것을 자각한 그는 이들의 사업을 당적으로 적극 밀어 주면서 서로 합심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돌린다.

그러나 전극의 자체생산을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자력갱생기지를 꾸리는 문제에 대한 지배인과 기사장의 태도는 서로 달랐다.

무슨 일이든지 하자고 하는 기사장과는 달리 지배인은 여러가지 타산을 앞세우면서 선뜻 응하지 않는다. 이것을 제기된 고난앞에 겁을 먹은 일군의《소심성》으로 잘못 인식한 전영범은 기사장의 열의를 적극 지지해 주며 자체전극생산을 다그치도록 한다.

지어 그는 수입을 주장하면서 자체전극생산을 외면하는 지배인을 고깝게까지 생각한다.

그러나 자체로 생산한 전극이 생산원가가 많을뿐 아니라 현장에서 큰 은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자 그는 생각이 깊어 진다.

날이 감에 따라 전영범은 사업에서 결패가 있고 내밀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기사장의《적극성》이 국가적인 리익과 공장의 전망보다도 본인의《능력》을 과시하고《명예》를 얻기 위한데 있다는것을 간파하게 된다. 반대로 지배인의《소심한 타산》이 국가적인 리익을 도모하고 생산의 정상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리적인 타산이였다는것을 발견하게 된다.

지배인의 순결한 당적량심을 알게 된 전영범은 그의 사업을 적극 도와 나선다.

이와 함께 그는 공장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속에 들어 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도 기울이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북돋아 주며 공장을 추켜 세우기 위해 애쓴다.

이 과정에 그는 조성된 난관앞에 겁을 먹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우는 소리만 하는 어제날의 친우인 직장장 윤병암을 직장장위치에서 해임시키고 그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을 따라 배우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 그런가 하면 공장을 위해 애 쓰는 젊은 반장인 김형우를 대담하게 직장장으로 등용하고 자기 안해와 안명신에게 부탁하여 그의 가정을 돌봐 주도록 한다.

바로 이러한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을 믿으시고 최첨단기술의 종합체라 할수 있는 선압기를 만들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맡겨 주신다.

전영범은 지배인, 기사장과 선압기생산대책을 토의하는 한편 한석민기사와의 사업에 관심을 돌린다.

그는 자신이 도당에 있을 때 공장에 내려 와 회의를 지도하면서 한석민의 문제를 잘못 처리한것으로 하여 설계실에서 나온 그에게 선압기설계를 맡겨 기술로써 당에 충성 다하도록 이끌어 준다.

또한 제 힘을 믿지 못하는 기사장과 기술신비주의에 빠져 당의 요구를 외면한것으로 하여 연구소에서 공장으로 내려 온 강필훈(기사장의 아들)이 선압기 제작과정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새롭게 살아 나가도록 이끌어 준다.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려는 불 타는 열망을 안고 일군들과 기술자들, 기능공들과 생산자대중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전영범은 신비하게만 생각하던 선압기를 끝내 공장자체의 힘과 기술로 완성하여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다.

이 과정에 기사장도 한석민이도 그리고 어제날 패배주의, 기술신비주의에 빠졌던 윤병암과 강필훈이도 새롭게 태여나며 새 세대 로동계급인 한옥련은 조선로동당원으로 성장한다.

이와 같은 형상을 통하여 작품은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려는 불 타는 열망을 안고 살며 투쟁해 나갈 때 그 어떤 고난과 난관도 성과적으로 뚫고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문제 그리고 현 시기 우리 당이 바라는 자력갱생은 현대적기술에 의거한 자력갱생이라는 사상과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철저히 따져 보아야 한다는 문제를 강조한것으로 하여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장편소설《지금은 봄이다》

장편소설《지금은 봄이다》(신용선작)는 석탄문제때문에 마음 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려를 덜어 드리기 위해 어느 한 탄광에 내려 가 일군들과 탄부들을 조직동원하여 새 탄밭을 마련함으로써 조락의 위기에 처했던 탄광을 살려 내고 석탄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 놓는 한 당일군에 대한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중앙위원회에서 부과장으로 사업하고 있던 주인공 김순국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석탄생산문제로 심려하신다는것을 알게 되자 해당 부서에 제기하여 원래 자기가 일하던 내문탄광 당비서로 내려 간다.

탄광의 실태는 자못 엄중하였다.

새 탄밭을 전망성 있게 조성하지 못한 결과 년산 100만t이상의 석탄을 생산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교시를 관철할수 없게 된것은 물론 탄광의 존재자체가 론의되는 상태였다.

이렇게 되자 일부 탄부들은 앞길이 막힌 탄광을 버리고 다른 고장으로 이사 가기도 한다.

하지만 지배인 박창현은 조성된 환경앞에 맥을 놓고 속수무책이며 지난 시기 심부탐사를 내밀었다가《명예심》때문에 막대한 자금과 로력을 랑비했다는 추궁을 받은 기사장 림형빈은 병을 구실로 해임문제까지 상급에 제기하였다.

탄광실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김순국은 마지막숨을 몰아 쉬는 탄광을 살려 내기 위해서는 일군들과 일부 탄부들속에 침습한 패배주의사상을 극복하며 심부탐사를 계속 내밀어 새 탄밭을 빨리 조성하여야 한다는것을 자각하게 된다.

그는 동요하는 탄부들을 안착시키기 위해 탄광운동장을 보수정리하고 탄부들을 위한 휴양소부지도 현지확인하며 탁아소도 개축하고 써클도 조직한다.

또한 탄광축구조의 덕길이를 비롯하여 이미 탄광을 버리고 떠나간 탄부들을 데려 오기도 하며 탄부들을 안착시키기 위해 애 쓴다.

이와 함께 림형빈기사장이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참답게 빛내여 나가도록 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그가 책임지고 심부탐사를 계속 할것을 결정한다.

그러던 어느 날 기사장의 순결한 마음과 심부탐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 평양에까지 올라 가 박사를 만나고 돌아 오는길에 휴양소부지까지 돌아 보고 온 김순국은 뜻밖에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뵙게 된다.

도당비서로부터 탄광의 실태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아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그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늘의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그를 고무격려해 주시며 바쁘신 시간을 내여 탄부들의 휴양소자리까지 몸소 잡아 주신다.

김순국은 더 많은 석탄증산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보답하도록 일군들과 탄부들을 적극 불러 일으킨다.

그리하여 당비서를《생각》하며 심부탐사에 적극 발벗고 나서지 않던, 지어 지배인의 충동질에 따라 함흥의 맏아들집에 가려고까지 했던 림형빈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심부탐사사업에 한몸 아끼지 않는다.

한편 부 생산처 지도원인 박경필은 자기의 리기적인 목적밑에《검은금회사》의 권고대로 내문탄광을 수출탄광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머리 쓴다.

그는 삼촌인 박창현지배인을 텔레비죤과 랭동기로 유혹하면서 이미전에 페갱한 선녀봉갱을 수복하도록 부추긴다.

선녀봉갱을 살려 매달 2,000t의 석탄을 수출하는 것을 탄광의《생명선》으로 생각한 지배인은 심부탐사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선녀봉갱수복작업을 내민다. 지어 그는 경필이의 장단에 맞춰 세멘트공장에 보내게 되여 있는 석탄중에서 2,000t을 수출용으로 원산항에 실어 가도록 하는데 동의한다.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 김순국은 기사장과 함께 탄부들에게 호소하고 그들과 함께 긴장한 전투를 벌려 2,000t의 석탄을 더 생산하여 세멘트공장에 보내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자기 잘못을 깨달은 박창현은 김순국에게 자기 비판을 한다. 김순국은 그가 범한 과오로 지배인자리에서 물러 나려 한다는것을 알자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탄광을 추켜 세우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과오를 씻도록 한다.

드디여 탄광은 점차적으로 자기 궤도에 오르게 되여《고난의 행군》을 시작한 때로부터 몇년만에 처음으로 지표별 월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며 세멘트공장과의 축구경기에서도 이기게 된다.

그러한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화로 김순국을 찾으시여 그가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인 공격정신으로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 나가고 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해 주신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배인이 범한 과오의 원인에 대하여 일깨워 주시면서 그를 잘 도와 주라고, 그는 앞으로 일을 많이 해야 할 일군이라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 주신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에 감격한 김순국, 박창현, 림형빈 등 일군들과 탄부들은 심부탐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내밀어 마침내 새로운 석탄밭을 찾아 내고야 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고난의 행군》을 하는 어려운 기간 이곳 탄부들과 일군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심부탐사를 진행하여 수천만t의 석탄매장량을 찾아 내여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여 감사문까지 보내주신다.

또한 심부탐사와 새갱개발에서 모범을 보인 탄부들과 일군들에게 명예칭호와 훈장, 메달을 수여해 주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신다.

소설은 뜻 깊은 4월의 명절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신 감사문전달모임에 이어 기사장 림형빈, 오랜 탄부 석근혁 등 일군들과 탄부들에 대한 국가수훈식 장면으로 마감 짓고 있다.

다른 일군들과 탄부들이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니고 감격에 겨워 할 때 비록 메달 하나 받지 못했지만 주인공 김순국은 탄광이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크나큰 긍지와 행복감에 휩싸여 마음속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장편소설《수평선》

장편소설《수평선》(림재성작)은 오래동안 인민무력부문에서 사업하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수산상의 새 직무를 받아 안은 한 항일혁명투사가 우리 당의 수산정책을 결사관철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품의 주인공인 예비역장령 최진범은 수산상이라는 새 직무를 지니게 되였지만 바다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것으로 하여 사업을 놓고 걱정한다.

당시 수산부문사업은 부진상태에 놓여 있었다.

인민생활향상문제로 깊이 마음 쓰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산물 80만t고지를 점령할 목표를 제시하시고 수산부문에서 300일출어일수를 보장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으나 이 부문 사업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 나지 못하고 있었다.

너무도 생소한 부문이여서 초기에는 주저하기도 하지만 최진범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일떠선다면 능히 해낼수 있다는 결심밑에 사업에 달라붙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대로 수산물 80만t고지를 점령하자면 먼 바다와 가까운 바다에서 동시에 고기를 잡아야 했고 특히 출어일수를 보장하는것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낡은 사고방식과 일본새에서 벗어 나지 못한 일군들은 사무실에서만 맴돌며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하지 못한다.

이런 실정에서 최진범은 수산상의 위치를 바다와 멀리 떨어 진 평양이 아니라 물고기잡이의 주요거점의 하나인 신포지구로 정하고 직접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전투를 지휘하면서 일군들과 어로공들을 힘 있게 불러 일으킨다.

그는 생산총화와 같은 회의도 륙지가 아니라 배우에서 진행하도록 하며 경험 많은 어로공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고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한 방법도 모색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색과 탐구, 헌신적인 노력은 비상한것이였지만 그에 못지 않게 난관도 컸다.

수산부문에 오래동안 잠재해 온 낡은 관습과 완고한 틀을 깨버리기도 힘들었지만 이 부문에 침투한 간첩암해분자들의 책동과 일부 준비되지 못한 일군들의 그릇된 처사로 최진범은 거듭되는 시련과 곡절을 겪게 된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받아 안은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되새긴다.

항일혁명투쟁의 초시기부터 최진범을 위대한 사랑의 한품에 안아 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몸 가까이로 불러 주시고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으며 그가 수산상의 직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우리 당의 수산정책을 잘 받들어 나가도록 따뜻이 일깨워 주시고 걸음걸음 떠밀어 주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을 안고 그는 더욱 분발하여 보수적이며 침체한 모든것을 대담하게 짓부시며 수산부문에서 새로운 대고조의 된바람을 지펴 올린다.

이 과정에 간첩파괴암해분자들의 책동이 여지없이 폭로분쇄되고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사업과 생활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된다.

마침내 수산부문에서는 지난 시기 도저히 불가능한것으로 되여 있던 300일출어일수보장이 성과적으로 집행되며 원양어로의 길도 개척되여 물고기잡이에서는 일대 혁신이 일어 나게 된다.

장편소설《월계관》

장편소설《월계관》(김덕철작)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우리 나라 축구를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체육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품의 주인공인 기술부단장 백광진은 지난 8차세계축구선수권대회때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로 선수로 출전하여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는데 이바지한 오랜 체육인이다.

까따르에서 진행된 제15차세계축구선수권대회 본선경기참가를 위한 지역별 최종예선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패하게 되자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을 저버리고 나라의 축구발전을 위해 분발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게 된다.

축구선수단 문지기인 아들 경별이가 아버지와 또 가정의 운명문제를 생각하며 축구련맹에 가는것을 반대해 나서지만 백광진은 축구발전을 위해 장대업련맹위원장에게 제기하여 끝내 훈련처 처장으로 사업하게 된다.

그는 처안의 일군들의 실무수준을 높여 주기 위해 애 쓰는 한편 당의 의도대로 축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의 한 고리로 훈련수단과 방법, 전술적문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현상응모모집사업도 조직한다. 이 과정에 축구지도원 황동일이 좋은 안을 제기했을 때에는 우선 과외체육학교 선수들속에 도입하도록 하며 종합팀이 구성되자 팀의 훈련방식으로 선정해 넣기도 한다.

그는 우리 선수들은 원래 육체적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축구는 안된다는 정성우지도원의 패배주의적인 립장을 알게 되자 장대업위원장의 권고를 마다하고 황동일을 책임지도원으로, 정성우를 그의 보조지도원으로 임명하도록 한다.

특히 그는 우리 선수들이 당에서 제시한 사상전, 투지전, 기술전의 요구대로 자신을 준비해 나가도록 선수선발과 훈련조직을 짜고 든다.

그는 경기담이 없고 투지가 약한것으로 하여 4월련맹전과정에 두차례나 절호의 기회를 놓쳐 버린 림창길이를 놓고 강한 요구성과 구체적인 지도로 약점을 극복해 줄 대신 그를 버리려 하는 정성우와는 달리 림창길을 종합팀선수로 추천한다.

고산지대에서의 훈련을 통하여 선수들이 강의한 의지와 육체적준비를 더욱 튼튼히 하며 백두의 혁명정신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해 백두산지구에 축구훈련장을 꾸리도록 한 백광진은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이후 더욱 분발하여 현지에까지 나가 훈련을 지도한다.

높은 육체적부담을 요구하는 백두산지구에서의 훈련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종합팀의 기둥선수들이라고 할수 있는 나이 많은 강철삼, 한창신 등이 높은 훈련강도에 의하여 쓰러졌고 시일이 흐를수록 선수들의 훈련의욕과 기세가

저락되였다.

이것을 보며 정성우는 우리 선수들의 육체적준비상태를 놓고 비판에 잠기며 현지에 내려 온 장대업위원장은 자기의 임기기간에 발전은 고사하고 현상유지조차 하지 못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위구심에 사로잡혀 황동일에게 훈련강도를 낮출것을 요구하는 한편 병치료를 구실로 백광진을 평양으로 데려내온다.

백광진이 평양으로 떠나자 축구발전을 위해서는 훈련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던 책임지도원 황동일이마저 저으기 소심해 져 선수들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지 못한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 와 진행한 검열경기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황동일은 다시 훈련강도를 높인다.

이 과정에 강철삼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배짱만 부리자 백광진은 우리의 축구선수는 조국을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뽈을 차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뜨겁게 비판한다.

과외체육학교 지도원 권창무의 생일 60돐을 계기로 그를 찾아 갔던 백광진은 한 평범한 체육인에게 공훈체육인의 칭호와 함께 생일상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배려에 크게 감동한다. 특히 뜻하지 않게 부상 당한 림창길에게 사랑의 불사약까지 보내주신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은 백광진을 비롯한 체육인들을 무한한 감격에 휩싸이게 한다.

이를 계기로 정성우도 마침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며 백광진의 제의로 책임지도원으로 임명된다. 또한 황동일은 청년종합선수단 책임지도원으로 된다.

훈련을 더욱 강화하던 어느 날 인민군군부대들에 대한 끊임 없는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 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신영학에게 림창길의 안부도 몸소 물어 주시며 선수들을 아낄데 대하여서와 백광진이 자신께 올린 편지에서 다진 결의를 꼭 실천하기를 바란다는 뜻 깊은 말씀을 하신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그동안 내적힘을 많이 키웠는데 경기를 해 보아야 한다시며 귀중한 자금을 들여 브라질팀과의 경기를 진행하도록 은정 깊은 조치도 취해 주신다.

브라질팀과의 경기를 앞두고 아직도 자기의 힘을 믿지 못하는 장대업은 책임지도원 정성우에게 방어에 력량을 집중하라고 하는 한편 백광진에게도 타협안을 내놓는다.

그러나 백광진은 그의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날카로운 비판을 들이대며 우리 시대 인간의 참된 삶은 애국과 량심에 있으며 애국과 량심에 승리의 월계관이 있다고 절절히 호소한다.

결국 브라질팀과의 두차례의 경기는 장대업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상상을 뒤집어 엎고 자랑찬 승리로 끝난다.

이 경기에서 림창길은 자기의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성공적인 득점을 이룩하며 백경별은 조국의 문대를 믿음직하게 지켜 낸다.

경기를 놓고 장대업은 마침내 자신의 결함을 심각히 뉘우치게 된다.

소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고급승용차(자가용)를 타고 유럽나라들에 대한 원정경기를 떠나는 백광진과 선수들에 대한 묘사로 끝나고 있다.

장편소설 《봄잔디》

장편소설 《봄잔디》(량우직작)는 광복직후 일본땅에서 민족교육을 지켜 내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시련에 찬 투쟁을 펼쳐 보이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는 총련조직이야말로 재일조선인들의 운명을 지켜 주고 보살펴 주는 조국의 따사로운 해빛이라는 것을 예술적형상으로 확증하고 있다.

한때 조선학교 교원이였던 주인공 장문규는 광복후 일제가 페쇄한 조선인학교를 다시 설립할데 대한 문제를 민전(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지부상임위원회에 제기하고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일본반동당국의 눈을 피해 가며 술을 만들어 판다.

민애청(민주애국청년동맹)다나가와지부 위원장인 장문규와 부위원장 정봉수, 맹원 리경혜 등 학교를 재건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모진 시련과 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민전 센낭지역 의장인 윤호문은 이들이 학교재건사업을 중지하고 일본의 로동운동에 합세하여 3반투쟁(반미, 반요시다, 반재군비)에 나설것을 강박하며 지어 애 써 마련한 돈을 일본의 로동운동에 지원금으로 내도록 한다.

그런가하면 미제의 충실한 주구로서 재일동포들의 단합을 파괴하기 위해 《민단》지단에 총무부장으로 기여 든 최재팔놈은 《민단》지단장이며 방적회사사장인 리갑신을 부추겨 이들이 학교재건자금마련을 위한 술가공을 못하게 하고 교사로 리용할 학교에서 사는 사람들의 철거를 방해해 나선다. 지어 놈은 일본반동당국에까지 밀고하여 술을 만들어 생활을 유지해 가는 동포부락에 대한 수색소동까지 조장시킨다. 이 사건으로 장문규가 하숙하던 집주인 성동수가 순사부장 노꾸찌에 의해 살해되고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체포되게 된다.

장문규는 동포들을 궐기시키고 자신이 직접 앞장에 서서 조선사람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일본당국을 규탄하는 동시에 체포된 사람들의 무죄석방을 위한 투쟁을 벌린다.

그는 또한 학교터에서의 조선사람들의 살해사건

에 대한 의문과 사장인 자기도 모르게 직원들을 해고한데 대한 분개로 리갑신에게서 쫓겨 나자 그의 딸 경혜를 겁탈하여 자살케 한후 정체를 숨긴채 갖은 모략을 다 꾸미는 최재팔놈의 죄행을 폭로단죄하고 놈을 추방하기 위한 투쟁도 성과적으로 이끌어 나간다.

그의 적극적인 투쟁에 겁을 먹은 《민대》(민전대책위원회)본부의 일부 기회주의적이며 투항주의적인 일군들은 장문규를 유인하여 《죄》를 책벌심문하는 《사문》놀음을 벌리고 윤호문은 《민애청》위원장직에서 그를 근신해임처벌까지 내린다.

이끌어 줄 옳은 조직을 가지지 못한 안타까움에 모대기고 있던 장문규는 이전 《조련》간부였던 황정문을 만나게 되며 그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재일조선인운동에 관한 가르치심을 받아 안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을 때에만 사대와 허무주의에 빠진 재일조선인운동이 로선상오유를 극복하고 동포들의 민족적권리를 옹호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한 그는 일본당국의 무기반입책동을 폭로분쇄하며 밀주사건혐의자로 체포된 조선사람들을 무죄석방하기 위한 투쟁을 승리적으로 이끌어 나간다. 이 과정은 동포들을 계몽시키고 단합시켜 조선인학교를 내오기 위한 사업의 련속이기도 하다.

시련과 희생을 동반한 간고한 투쟁끝에 마침내 조선학교의 개교식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민대》의 리기문, 김승환 등 사대적이며 민족허무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은 장문규와 윤호문 등 애국적인 활동가들과 그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을 협박, 박대, 멸시, 해임처분하려 날뛴다. 지어 놈들은 장문규에 대한 테로까지 감행해 나선다.

그러나 그는 애국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

이러한 때 민전 제19차중앙위원회가 열리며 회의에서는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가 토의된다.

그리고 주체44(1955)년 5월 24일에 소집된 민전 제6차림시대회에서는 민전을 조직적으로 해산한다는 것이 선포되고 다음날인 5월 25일에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결성대회》가 열린다.

장문규는 센낭지역을 대표하여 윤호문, 조윤근, 채창수와 함께 이 회의에 참가하게 된다.

소설은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재일조선운동이 수난에 찬 과거에 종지부를 찍고 오늘과 같이 《봄을 맞는 잔디처럼 대지를 뒤덮으며 기세차게 뻗어 나》갈수 있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해빛아래 태여난 총련조직이 있었기때문이라는것을 밝혀주고 있다.

서사시 《불멸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

《이 시를 김일성민족 후손들에게 바친다》라는 부제목을 단 서사시 《불멸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김만영작)는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5돐을 맞으며 창작발표된 시이다.

《해마다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북받쳐/내 크게도 작게도 서사시를 써왔다만/5년이란 세월을 다 합쳐/이 시를 감히 쓸 생각》을 못하였었지만 《…잊지 못할 5년사 거슬러 보니/그것은 그대로 영웅의 서사시/위대한 인간의 불멸의 서사시여서/그 서사시의 한갈피에라도/력사의 붓을 달리고 싶어/내 또다시 붓을 들었》다는 시인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이 서사시는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여 있다.

서사시의 1장에서는 지난 5년은 《잠결에도 꿈결에도/ 수령님의 모습을 뵈옵고/ 수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살아 온 5년》,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의 5년이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의 공백이 다 메꾸어 진 영생의 5년이라는것을 노래하고 있다.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바와 같이 수령님을 잃고 생긴 공백의 그 세계는 오직 수령님만이 대신해 주실수 있는것이다.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생긴 그토록 크나큰 상실의 공백은 《또한분의 우리 수령님/ 김정일동지》가 계시여 메꾸어 질수 있었던것이다.

정녕 우리 장군님은 언제나 우리 수령님과 함께 계시며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 주신 오늘의 김일성동지이신것이다.

하기에 시인은 《수령님을 잃고 보낸 5년세월/ 너의 어느 한 갈피에/ 너의 어느 한순간에/ 공백의 세계가 있었더냐》고 세월에 물으며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

이 땅에 흘러 가는
한줄기 바람조차 대답하는듯
산은 산마다 메아리치고
강은 강마다 굽이치며 웨치는듯
공백이 없었다고
단 한순간도 없었다고

아, 천만인민의 심장속에
장군님은 수령님으로 계시여
5년세월 이 땅엔
해 뜨고 달 뜨는 낮과 밤이 있었다!
꽃 피고 열매 맺는 사시절
불멸할 우리의 세월이 있었다!

서사시의 2장에서는 지나온 5년세월을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로 끊임없이 빛내여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칭송하여 노래하고 있다.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그날로부터 5년세월《우리 장군님께서는《그 언제한번/ 혼자 가신적이》없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이 나라 길이란 길은 다 걸으시며/ 병사들과 인민들을 찾아 가실 때》면《언제나/ 수령님을 모시고 함께 가시》였다.

장군님께서는《그 어느 초소/ 그 어느 구내/ 그 어느 마을에 들리시여도/ 수령님의 사적비를 먼저 찾으시고/ 불멸의 그 위업을 감회깊이 더듬으시며/ 우리의 가슴속에/ 다시다시 새겨 주》시였다.

《수령님의 영생을 지키고/ 수령님의 유훈을 반드는/ 이 세상 단 하나의 길이기에》우리 장군님께서는《남패자의 그 눈보라가 또다시 불어 쳤》고《56년 그날의 눈보라가 또다시 터졌》던《고난의 행군》시기 선군혁명령도로 우리의 인민군대를 이끌어 승리와 영광을 떨치시였고《수령님 한평생 타고 오신/ 그 사연 많은 인민행렬차를 타시고》우리 인민에게 온갖 사랑을 다 부어 주시였던것이다.

사상도 령도도 덕망도 수령님 그대로이시고《우리 수령님 한평생 걸어 오시며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빛내》여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기에 장군님의 령도 따라《우리 당이 가고/ 우리 조국이 가고/ 우리 사회주의가 가는 성스러운 그 한길에는/ 두분의 수령의 자욱/ 태양의 자욱이 력력》한것이다. 다시 말하여 우리 장군님 계시여 어버이수령님의 력사는 그대로 이어 지고 있는것이다.

서사시의 3장에서는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곧 **김일성**동지이시라는것을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다.

《수령님의 뜻이자/ 혁명의 요구이고/ 수령님의 의지이자/ 시대와 력사의 정의이라고 하시며》《수령님의걸음으로/ 인민들을 찾아 오시고/ 수령님의 음성으로/ 우리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수령님의 품으로/ 우리들을 안아 주시는 장군님》의《그 품이 있어/ 인민은 오늘도/ 수령님의 품/ 태양의 따사로운 품에서/ 수령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 안으며/ 수령님의 한식솔로 살》고 있는것이다.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사색하고 일해 나가시》며《당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 헌법도 위대한 **김일성**헌법/ 민족도 위대한 **김일성**민족/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도 **김일성**동지》로,《정녕 선대수령의 모든것을 그대로 받드시며/ 그이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높이 모시는》**김정일**동지를 모셨기에《이 5년세월에》우리는《사상도/ 신념도/ 의지도 백배로 더 강해 졌》고《우리의 국력도 비할바없이 더 강해》질수 있었던것이다.

하기에 병사들과 인민들은《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안고/ 가슴 벅찬 수령복에 눈시울 적시며》《**김일성**동지는 **김정일**동지! /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라고《7월의 이 언덕에서》목청껏 웨치는것이다.

시인은《이 나라 이 땅에서/ 수령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부르며/ 수령님의 은덕을 노래하며/ 자자손손 살아 갈 우리의 후손들》에게《세월이 흘러/ 이 세상 모든것이 다 잊혀 진다 해도/ 진리의 이 웨침만은 절대로 잊지》말것을 호소하며 서사시를 이렇게 결속 짓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걸출하고
위대하신 수령을 모시여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우리 조국은 세상에서 가장 강대하거니

아, 사랑하는 인민과 더불어
무궁번영하는 조국과 더불어
영원불멸할 5년사와 더불어
천년만년 빛나빛나시라
위대한 **김일성**동지이시여!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시여!

시초 《영 웅 찬 가》

4.25의 건군절광장에 굽이쳐 흐르는 영웅들의 열병대오를 보며 군복 입은 90년대 영웅들의 영웅전을 펼친다는 시《이 시를 시작하며》(고남철작)로 시작되는 시초《영웅찬가》에는 평안북도안의 시인들이 창작한 시 9편이 들어 있다.

1211고지에 오른 시인이 영웅의 시를 읊으시며 리수복영웅중대를 찾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되새기며 격정을 토로하는 시《영웅의 고지에서》(김정철작)는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여섯번이나 그 험한 철령을 넘어 최전연병사들을 찾아주신 장군님의 그 품속에서 수천수만의 리수복이 태여나 육탄영웅, 자폭영웅으로 그 자랑을 떨쳐 가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결속하고 있다.

이 땅의 고지와 고지는 영웅의 고지
이 땅의 전사들은 모두가 영웅전사
그 수천수만의 영웅을 거느린
우리 장군님은 정녕 영웅중의 영웅
오 만고절세의 영웅이시여라!

시《그대는 이 땅에 내리지 않았다》(한원희작)에서는 수령결사옹위의 길에서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된 길영조영웅을 못 잊어 그의 부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영웅의 사진첩을 펼》치시며《길영조비행사는 정말 진짜 영웅》이라고 하신 그 믿음, 그 사랑에 실려《그대는 오늘도 저 푸른 하늘에 날고 있》다고 하면서《수억만 뭇별이 사라진대도/ 최고사령부 하늘가에 언제나 떠나지 않는 별》인《…그대는 오늘도 이 땅에 내리지 않았다!》고 노래하고 있다.

《첫눈이 내리던 그 아침》에《동해의 북단포구에서 떠난 배 한척》과 선원들의 운명에 대한 소식을 90일만에 접하게 되는 내용을 담은 시《조국은 알았다》(한기운작)에서는《파도에 부대끼고 찢기여/ 형체도 알아 볼수 없는 그들의 모습/ 허나 그 가슴들을 풀어 헤치는 순간/ 눈 부시게 펴져 오른 해발이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초상화여》라고 격정을 터뜨리면서《자기의 수령을 위해/ 자기의 조국을 위해/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어떻게 최후를 마치였는가를》《우리의 조국》과《세계는 알았다》고,《그들은 열다섯명 공화국의 영웅들이다!》고 결속 짓고 있다.

《봄이 왔네 까치봄에 열번째 봄이/ 영웅이 떠나간 그해부터 열번째 봄이》로 시작되는 시《열번째로 온 봄에》(김휘조작)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터지는 수류탄을 전우들을 위해 덮고 간》김광철영웅을《온 나라가 따라 배울 동지애의 영웅》으로 내세워 주시고 그에게《영원히 가지 않는 삶의 봄을》주신데 대해 노래하고 있다.

시《딸》(리명옥작)에서는《아버지도 미처 몰랐》던,《총대로 장군님 영원히 모시고파/ 빨간 령장 달고서 중대에 남은 사연/ 전사생활을 다시 한 그 마음》을 장군님께서 알아 주시여《곁에 불러 기념사진도 찍어 주》시고 금별메달을 달아 주신 내용을 전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
슬하에 아들딸도 많은 우리 장군님에겐
사내대장부들도 영웅
단발머리처녀들도 영웅
정말로 그 품엔 영웅도 많아
딸 영웅도 많이 거느린분이
우리의 최고사령관이랍니다

시《고향의 이야기》(김명철작)는《얼음장에 떠 실려 적진으로 흘러 갔던/ 우리 동창 그 병사 영웅되였》다고 소곤거리는 룡골산처녀들과《원쑤놈들이 벌벌 떨》게《아버지장군님 노래를》부른《그 아저씬 우리 아저씨》라고 떠드는 유치원꼬마들 그리고《글쎄 장군님은 새벽 세시에/ 영웅의 편지를 보아 주셨다오/ 친히 회답서한까지 보내주셨다》고 긍지높이 말하는 빨래터녀인들의 이야기를 펼치면서《우리 고향은 영웅의 고향/ 장군님 아시는 영웅의 고향이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시《금별의 탑》(황승명작)은 서해갑문건설과 강원도토지정리, 금강산발전소를 비롯한 조국보위와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위훈에 대해 전하면서《아, 병사들의 군공으로 빛나는 세월속에/ 인민의 행복도 조국의 번영도 있나니/ 금별우에 금별이 빛나고/ 그 사랑우에 위훈이 솟아 오른/ 내 나라는 정녕 그대로/ 금별의 탑이여라》고 끝을 맺고 있다.

시《이 시를 끝내며》(김기철작)에서는《위대한 수령님의 위업을 안으신/ 우리 장군님》께서《선군령도로/ 민족을 이끌어/ 시대를 이끌어/ 강성부흥의 조국을 이끌어/ 승리, 승리, 승리만을 떨치》심으로써《온 나라는 빛나는 금별의 광장》으로 전변된데 대해 노래하면서《영웅조선 떨치는 절세의 영웅/ 강성대국 떨치는 민족의 영웅/ 위대한 장군님께》최대의 영광을 드리고 있다.

이렇듯 시초《영웅찬가》는 1990년대 군인영웅들에 대한 시적형상을 통하여 평범한 전사도 영웅으로 키워 주시고 전군을 영웅의 대오로 키워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품은 영웅을 낳는 위대한 품이며 장군님 계시여 우리 조국은 백전백승할것이라는것을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다.

정론시 《조국땅에 봄이 온다》

정론시《조국땅에 봄이 온다》(김만영작)는《눈보라속의 봄》,《봄의 철학》,《봄의 대행진》이란 소제목으로 구성되여 있다.

《눈보라속의 봄》에서는 봄은 해마다 오건만 이해의 봄은《반만년력사에 처음 맞는/ 전환의 봄/ 승리의 봄》이라고 하면서 시련을 이겨 내고 새봄을 맞이한 인민에게 보내는 시인의 인사를 펼쳐 보이고 있다.

시인은《얼마나 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커다란 시련을 헤치고/ 이 봄을 맞는것이랴/ 남들 같으면/ 열번도 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력사의 전무후무한 고난속에서/ 수령을 믿고/ 당을 믿고/ 용기백배한 사람들》그리고《열번 스무번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도/ 백번천번 웃을줄 안 사람들/ 찬 겨울에도 그늘을 모른 사람들/ 봄을 맞을 당당한 권리를 가진/ 우리 인민이 마침내 봄을 맞》은데 대해서와 인민경제 각 부문, 각 초소들에서 자기의 아들딸들이 발휘한 영웅적인 투쟁위훈속에 우리 조국땅에 승리한 새봄이 왔다고 격정을 터뜨리면서 다음과 같이 끝을 맺고 있다.

아, 이 봄은
우리 장군님
눈보라속에서 싹을 틔우고

벌써 눈보라속에서 태동시킨
장쾌한 조선의 봄
류다른 봄이여라

《봄의 철학》에서는 이 땅에 찾아 온 봄은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 험로역경의 헌신속에서 마련되였음을 노래하고 있다.

시에서 노래하고 있듯이 이해의 봄에는《온 겨우내 연푸른 솜동복을 입으시고》《그 연푸른 솜동복자락 안에/ 봄을 고이 싸안으시고》우리 인민, 우리 조국에 새봄을 안겨 주시기 위해《줴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시고 한사발의 샘물로 시장기를 잊으시며《자신의 생신날에도/ 량강땅의 눈보라를 헤치》시며《북으로 천리/ 남으로 천리/ 이 나라 끝에서 끝까지/ 걷고 걸으》신 우리 장군님의《천만고생》과《험로역경에서 겪으신/ 그 로고의 무게가 실리여》있는것이다.

하기에 시인은《유난히 반짝이는 봄빛은/ 그분의 눈빛/ 봄의 따사로움은/ 그분의 온기/ 봄의 향기는/ 그분의 숨결》이라고,《온 누리에 가득히 봄빛을 뿌리시는/ 우리 장군님》을 닮아《우리의 봄은》《그리도 밝고 청청한것이》며《그리도 기세차고 양양한것이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아, 이 땅의 가장 추운 곳에서
이 땅에 가장 따뜻한 봄을 설계하시고 안아 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봄의 철학이여
그이는 —
인민의 봄의 창조자이시여라
사회주의 봄의 선구자이시여라

《봄의 대행진》에서는《봄과 더불어/ 보무당당히 나아가는》우리 조국과《봄시위처럼/ 새 세기로 굽이쳐 가는/ 우리 인민의 도도한 흐름》은《이 봄을 이끄시고/ 이 격류의 진두에/ 세계를 한손에 거머쥐고》《백두의 기상으로 거연히 서계시》는《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님의 세련된 령도 따라 강성대국의 새 력사를 펼치여 나간다는데 대하여 노래하고 있다.

시에서는《우리 인민을/ 가장 어려운 나날에/ 가장 슬기롭고 불굴한/ 가장 존엄 높고 용감무쌍한/ 영웅으로/ 승리자로 키워/ 이 봄의 언덕에 높이 올려세워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숭배심,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 따라《**김일성**조국의 강성부흥을/ 만천하에 떨》쳐 나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다.

《아직은 우리의 고간에 흰쌀이 넉넉치 못하고/ 아직은 우리의 상점에/ 상품들이 많지 못해도/ 최후승리자의 그 웃음, 그 랑만이》차넘치는 이 봄은《우리 장군님 선군령도로 안아 온/ 주체만세의 봄》이라고 하면서《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강성대국을 떨치는/ 붉은기의 봄/ 태양의 봄》인《우리의 봄은 나아가나니》《이 봄을 마중하라/ 새 세기여/ 력사에 류례 없는/ **김정일**동지의 봄을 마중하라》고 호소하고 있다.

문 학 작 품

단편소설

눈 보 라

김 명 익

1

그해 설달이였다.

어디서나 눈, 눈이 펄펄 날렸다.

박춘덕은 처음에는 멀리서, 이어 가까이에서 그다음에는 지척에서 울려 오는 듯한 음향에 잠에서 깨여 났다.

전화종소리였다. 잠이 실린채로 전실에 나가 수화기를 들었다. 교환수의 초조한 목소리가 울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부장동지를 찾으십니다.》

《…장군님께서?! 가만…》하고 박춘덕은 수화기를 내려 놓고 서둘러 옷을 찾아 입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두손으로 정중히 수화기를 받쳐 들었다.

《경애하는 장군님! 박춘덕이 전화 받습니다.》

그런데 수화기에서는 전류의 흐름소리뿐 그이의 음성은 울려 나오지 않았다. 그는 수화기를 더 바싹 귀에 가져다 붙이고 온 정신을 모았다.

(혹시, 나를 찾으시다 수화기를 드신채…)

피뜩 맞은켠의 벽시계를 올려다 보았다. 새벽 4시였다. 그런데 이때 수화기에서 그이의 숨결소리가 울려 나왔다. 잠에 드신 숨결이였다.

박춘덕은 불시에 눈부리가 저려 났다.

그는 자기의 늙고 거친 숨소리가 그이의 쪽잠을 방해라도 할가 보아 애 써 숨을 죽여 가며 수화기를 그냥 들고 서 있었다.

시간이 몇분 더 흘렀을가?

김정일동지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수화기의 진동판을 울렸다.

《박춘덕동뭅니까?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몇달째 못 봐서 그런지 오늘 밤에 별로 보고 싶어 찾았는데 허허… 깜박 잠에 들었댔구만… 피곤하겠지만 나에게 잠간 왔다 갔으면 합니다. 새벽에는 전연부대에 나갈 예정이 돼서 지금밖엔 시간을 낼수 없을것 같습니다.…》

《장군님, 알겠습니다. 곧 떠나겠습니다.》

전화는 끝났다. 허나 박춘덕은 한동안 수화기를 그대로 든채 내려 놓지 못했다.

그가 솜동복도 입지 않은채 집을 나섰다는것을 의식했을 때에는 차가 이미 집무실청사앞에 당도했을 무렵이였다.

밤하늘에서는 눈이 더 줄기차게 내렸다. 전나무가지들에 수북이 쌓였던 눈덩이들이 소리없이 꺼져 내리며 주위에 하얀 눈가루를 뿌려 놓았다. 광막한 눈세계의 신비스러운 광원인듯 당중앙청사의 불빛은 이 밤 따라 더 휘황하고 유정하였다.

이윽고 박춘덕이 집무실에 조용히 들어 섰다. 방에는 숙연한 정숙이 흐르고 있었다. 층계들을 급히 오르느라고 몹시 숨이 찬 박춘덕의 호흡소리가 방의 고요를 흐트러 놓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집무에 여념이 없으시였다. 박춘덕을 일별한 그이께서는 어서 앉으라고 이르시고 무둑히 쌓여 있는 문건들을 당기여 쉬임없이 번지며 때로는 붉은색연필로 표식을 하고 혹은 펜을 들고 표지에 활달한 필체로 친필을 하기도 하시였다.

그러다 잠시 웃몸을 의자등받이에 젖히며 시선을 창문이 있는 벽면쪽에 위치한 지구의에 보내시였다.

명상의 노를 저어 가는듯 조용히 일어 서서 지구의에 다가가신 **김정일**동지께서는《행성》을 환한 표정으로 내려다 보다 천천히 동쪽으로 돌리시는것이였다.

그동안 숨이 턱에 닿았던 박춘덕의 숨소리도 어지간히 잦아 들었다.

이윽고 박춘덕을 찾은데 대해선 아예 잊은듯 하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로소 집무탁에서 물러 서며 미소를 지으시였다.

《앞으로는 내가 급히 찾는 일이 있더라도 천천히 다니도록 해야겠습니다.》

《…》

일순 박춘덕은 송구스럽고 또한 뜨거운것이 목에 걸려 머리를 떨구었다. 인생 70고래희라고 하는 70

객도 훨씬 지났지만 어디에 가 있다가도 찾으시면 두주먹을 쥐고 뛰여 오군 하는 고지식한 성미인 박춘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는분이 **김정일**동지이시였다. 그래서 이 밤에도 다급히 오느라 숨이 차하는 박춘덕을 진정시켜 주느라고 일부러 동안을 두었다가 만나주시는것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사뭇 감회가 어린 표정으로 박춘덕을 바라보시였다.

아직도 총이 센 머리칼은 그렇게 희여 지지 않았고 남달리 굵은 목에 각목을 건너 지른듯 든든해 보이는 어깨, 사람들이《통뼈》라고 말하군 하는 쇠장대 같은 팔과 두텁고 아귀가 센 두손, 과묵한 성미… 그 모든것은 전반생을 목수로 살아 온 그에게서 생의 표적들이라고도 할수 있었다. 지금 나이에도 때없이 꽁무니에 대패를 차고 다니고 싶은 의욕에 육신이 근질근질할 때가 있는 목수출신의 박춘덕인것이다.

오늘은 이 목수출신의 로일군을 남달리 사랑하시는 **김정일**동지께서 장기질환을 가지고 있는데다 년로한 그의 건강이 걱정되여 전적으로 병치료를 받도록《특별조치》를 취해 주신지 꼭 석달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박춘덕은 저윽 눈언저리가 붉어 져 서 있었다. 이 밤 감개가 무량했으나 원체 말수더구가 적은 그는 자기의 감정을 다사하게 표현할줄 몰랐다. 이 시각 마음 내키는대로 하라면 멀리 떨어 졌던 어머니를 만난 어린애마냥 그이의 품에 안기여 그리움에 실컷 엉엉 소리내여 울고 싶은 심정이였다.

《장군님, 이해엔 다시 못 만나뵈옵누나 하고 생각했더랬는데…》

김정일동지께서는 웃으시였다.

《그래요?! 난 거 박춘덕동무의 텁텁하고 고지식한 성격이 좋아 찾군 합니다. 그게 아마 박춘덕동무에 대한 나의 정인가 봅니다. 인간의 정이란 참…

헌데 그동안 병치료가 잘되였다는데 사실입니까?

가만, 어디 좀 걸어 보오.》

박춘덕은 집무탁주위를 조심조심 걸었다. 절고 있는 다리를 숨길수가 없었다.

《이리 오시오!》

김정일동지께서는 무릎을 꺾고 앉으시여 박춘덕의 바지 왼쪽가랭이를 손수 걷어 올리시였다.

옛상처자리를 묵묵히 쓸어 보시는 그이의 안색은 저으기 어두우시였다.

《이 다리때문에 일생 남다른 고생을 하누만… 아무래도 온천치료 같은걸 더해야 할것 같소. 안되겠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바지가랭이를 내리우며 일어서시였다.

《너무 마음 쓰시지 마십시오. 고목이 다된 이 늙은것의 다리가 무엇이라고…

장군님, 이제는 빨리 일을 했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다 말하는것처럼 군로신일이 됐으니 정말이지 면목이 없습니다. 아닌말로 목수일이라도 막 하고 싶습니다…》

《박춘덕동무야 광복직후부터 수령님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일은 길고 세월은 짧다고 할수 있지요.

박춘덕동무는 애젊은 시절부터 수령님 가까이에서 일해 왔고 지금은 나와 함께 일하고 있으니 2대째 우리 혁명에 충실한 로세대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박동무 같은 일군들이 우리곁에 많아야 하겠는데…》

김정일동지께서는 바지혼솔에 두손을 붙이고 경건히 서 있는 박춘덕의 오른손을 당겨 굵은 피줄들이 나무등걸처럼 얼기설기한 손등을 묵묵히 쓸어 주시였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제가 뭘 하는게 있습니까. 저는 그저 장군님을 모시다가 죽겠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용히 안경을 벗어 드시였다.

《나를 모시다 죽는다?… 아닙니다. 인민을 모시다 죽어야지. 나도 인민을 모시고 받들다 한생을 마치겠습니다.…》

그이께서는 다시 안경을 끼시였다.

그리고나시여 집무탁의 문건들속에서 두툼한 작품을 하나 찾아 드시였다.

《참 박동무도 어제 당보에 나간 이 송년시를 보았겠는데 시를 잘 썼습니다. 나의 의도를 시에 잘 담았습니다. 마치 나와 한 자동차를 타고 다닌 사람이 쓴것 같습니다.

지난 새해벽두에 집을 떠나 온 한해 인민들의 집에 있었다는 표현들이 다 진실하게 안겨 옵니다. 시인들이 우리 시대에 대한 사색과 정서, 탐구가 아주 깊습니다.

시인들도 이렇게 노래하는데 나나 박동무나 우리 인민과 더불어 한생을 살면서 사등뼈가 휘도록 일하는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윽고 창밖의 눈발을 내다보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집무탁 서랍을 열고 무엇인가 찾다가 박춘덕이더러 가지고 있는 담배가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피우던 담배가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박춘덕은 당황한 눈빛을 감추지 못하며 웃주머니에서 창황히《건설》을 꺼냈다.

《괜찮습니다. 담배야 나누어 피우는 재미가 있지 않소. 자, 같이 태웁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흔연한 표정으로 곽에서 손수 두가치를 당겨 한대를 박춘덕에게 권하시고 성냥을 그으시였다. 불꽃이 피여 올랐다. 일순 그 불꽃은 마치도 세계를 호흡하시는 그이의 숨결과 친화력의 불꽃인듯 박춘덕의 눈가에 백열의 화강처럼 눈 부시게 비쳐 들었다.

《참, 좋은 밤입니다. 밤은 명상의 어머니라고 하던데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밤을 지새우며 생각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는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수령님처럼 나도 〈일복〉을 타고 난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더 많은 일감을 안고 삽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집무탁앞에 놓여 있는 탁상일

력을 당겨 일력장을 번지시였다.

그러자《12월 31일 화요일》일력장이 나졌다.

그이께서는 펜을 들고 새날의 일력장에 무슨 글인가 적어 놓으시였다. 그러시고나서 흥분에 넘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새해에 선군정치의 위력을 더 크게 떨치며 당과 군대, 국가사업에서 또 하나의 전환을 가져 오실 결심이라고 하시였다. 선군령도야말로 이 행성을 조선중심의 행성으로 되게 하고 바야흐로 새 세기의 령마루에서 우리 당과 군대가 세계정치를 주도할것이라고 선언하시듯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다.

창밖에서는 눈보라가 일었다.

순식간에 천리로 내닫는듯 밤의 장막을 산산이 들부시며 우우-몰아 쳐갔다.

동방조선의 줄기줄기에서 터져 오른 눈보라는 장엄한 기폭처럼 온 지구를 향해 휩쓸어 가는듯 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서로 어기게 깍지 끼셨던 억세고 탄력이 넘치는 두팔을 푸시며 오른손을 엇비듬히 머리우로 올렸다가 순식간에 허공을 내리긋기도 하고 언뜻 두팔을 벌리며 좌우로 쭉쭉 가르기도 하시는가 하면 왼손으로 원을 크게 그리다 으스러지게 주먹을 쥐며 박력 있게 흔들기도 하셨다.

순간도 정지가 없는 부단한 동적영상과 비반복적인 자세로부터 비롯되는 듯한 충만된 활력, 빛발치는 예지, 서슬찬 약동, 불굴의 의지, 해돋이의 열정, 때론 눈물겨운 인정과 봄별의 정서, 백설의 순결, 해빛의 미소와 시의 대양을 안고 온밤 집무하시는 모습은 연한 군복빛의 한겹 잠바옷을 입고 조국과 민족을 책임지고 국사와 정사를 다 보시는 그 수수하고 평범한 차림새와는 너무도 대조되는듯 싶었지만 통털어 장군형정치가의 기상에서 현대조선의 성격을 보는것만 같아 박춘덕은 눈굽이 짜릿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상시계에 시선을 보내였다가 사뭇 정중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셨다.

《내 오늘 박춘덕동무를 더 찾게 된것은 수령님께서 생전에 나에게 남기신 말씀이 계시기때문입니다.

수령님의 그 말씀을 오늘 집행하자고 합니다.…

광복직후 박춘덕동무가 어머님의 부탁을 받고 만들었던 그 의자가 생각납니까? 허허… 생각이 난단 말이지요.》

박춘덕은 생각이 났다. 그런데 그 의자가 어떻게 되여 반세기도 지나간, 더우기나 오늘 밤에 화제로 되는것일가?…

《왜 잊을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수령님과 더불어 흘러 온 일들은 그 어느것 하나도 력사에 지워 지질 않지요.

그때의 의자를 내가 지금껏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리로 가봅시다!》

그이의 뒤를 따라 복도로 나서는 박춘덕의 뇌리에는 기쁨 절반, 의문 절반이 엇갈려 돌아 갔다.

너무도 뜻밖이다. 력사는 밤에 창조된다더니 이 밤에도 그 어떤 력사의 갈피들이 번져 지는게 아닐가?

박춘덕은 그 어떤 예감에 휩싸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의자?!…의자?!)

불현듯 박춘덕의 눈앞으로는 먼 50여년전의 일들이 서서히 떠올랐다.…

2

조국이 광복된 그해 12월 어느 날이였다.

그날 저녁에도 눈이 펑펑 내렸다. 노예의 사슬을 풀어 헤친 광복된 강산우에, 사람들의 머리우에, 어깨우에 함박눈꽃이 피였다.

당시 평양 선교리의 강안쪽 막바지에 있는 박춘덕의 집에 빨찌산군복차림의 웬 낯모를 두 젊은이가 찾아 왔다. 토성랑 토목공사장에서 일하는 박춘덕목수를 찾는다는것이였다. 며칠째 온 시내를 수소문하여 마침내 찾았다고 반색을 하며 집안에 들어 서려던 두사람은 집이 너무 좁아 한사람만 방에 들어 올수 있었다.

광복전에 세집을 내여 살던 날품팔이군의《가옥》은 오막살이나 다를바 없었다.

손님은 박춘덕에게 친절히 례의를 표하고 나서 목공일을 꼭 방조 받아야 할 일이 있어 그러니 래일이라도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청사로 와주면 감사하겠다는것이였다.

박춘덕은 선선히 그 요구를 받아 들였다. 약속이 되자 손님들은 가겠다고 했다.

손님들을 바래우려고 움쭉 자리를 일던 박춘덕은 그만 억- 하고 풀썩 주저 앉았다. 다친 다리가 말썽을 일으킨것이다.

《며칠간만 기일을 줄수 없겠습니까? 에잇, 빌어먹을 이놈의 다리때문에…》

손님들은 깊은 동정심에 휩싸여 그렇게 하자고 했다. 그들은 돌아 갔다.

그로부터 닷새후.

피대줄로 멜끈을 한 목공도구를 넣은 나무함통을 한쪽 어깨에 메고 허리에 대패를 찬 박춘덕이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청사 보초소에 나타났다.

세상에 태여나 일곱살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다니며 배운 그 고달픈 대패질을 하느라 나이 서른도 되기전에 휘여 든 등어리를 구부정하고 입에는 버릇처럼 쇠못을 한개 문채 서 있는데 20대의 준수한 젊은 녀인과 군복차림의 이마가 류달리 훤칠한 사람이 총총히 걸어 나왔다.

박춘덕은 별로 조심스러워 져 입에 물었던 쇠못을 성급히 꺼냈다. 그 모양을 지켜 보던 보초병이 빙그레 웃었다.

《박춘덕동무로구만요. 일제의 학정밑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일전에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걸음을 해주니 고맙기 이를데 없군요.》

흰 저고리에 검정치마를 단정하게 입은 녀인이 박춘덕의 막돌 같은 손을 따뜻이 잡아 주었다.

《다리를 몹시 다쳤다던데 어떠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다리를 다쳤습니까?》

《…》

박춘덕은 당황했다. 지금토록 살아 오면서 팔다리가 성하고 육신이 편한 날도 바이 없었거니와 보다는 속절 없는 노예살이운명을 지지리 끌며 죽지 못해 연명해 온 그에게 있어서 다리쯤 좀 저는것 같은 것은 너무나도 례상사였다.

하지만 이 시각 어딘가 기품이 범상치 않은데다 사려깊이 묻는 그 물음에 대답을 해야 했다.

박춘덕은 그처럼 아프고 쓰라렸던 가슴노리에 봄물이 그들먹이 흘러 드는것을 느끼며 광복전해 초가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날 박춘덕이 날품팔이를 하려 토성랑토목공사장에 가느라고 대동교를 건느고 있었다. 이때 마주오는 보기 드문 화려한 4륜마차가 있었다. 마차우엔 일장기가 보였다. 일본《천황》히로히도의 동생 야스히도의《행차》라는것이였다.

훈패를 단 백색상의에 싯누런 금줄들을 왼쪽어깨로부터 가슴팍에까지 드리우고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스데끼를 감아 쥐고 앉은 놈이 보였다. 이제 서른을 좀 넘긴 야스히도는 룡상처럼 화려한 마차안에 방약무인하게 앉아 길 가는 조선사람들에게 질시의 차거운 눈초리를 던지고 있었다. 태평양전쟁이 일본의 패전으로 기울어 질것이 확연했지만 단말마적으로 지탱해 보려 동분서주하고 얼마전에는 대륙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을 부상시키려는 야욕밑에 만주국《황제》인 부의까지 만나면서 돌아 치는 야스히도였다.

그리고 만주를 병탄하고 거기에 노구찌재벌을 들이밀어 일확천금을 얻어 보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만주 신흥재벌인 야유가와와 또다시 손을 잡고 조선, 만주일대의 경제적리권을 틀어 쥐려고 싸다니는 야스히도이기도 하였다.

어느 겨를에 나타났는지 일본헌병대와 경관들이 늘어서 다짜고짜로 조선사람들은 다 머리를 숙이고《동조동근》인《황국신민》으로서의《천황족》에게 경의를 표시하라고 울러 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에 잘 응하지 않았다. 왜놈들은 일본도를 뽑아 들고 칼등으로 사람들의 어깨를 내려 치고 허리를 찌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머리를 숙이게 하려고 했다.

박춘덕은 더 오연히 고개를 쳐들고 가던 길을 내처 걸었다.

아니나다를가 일본경관들이 박춘덕에게 서라고 소리치며 뒤따라 왔다.

《조센진이나 천황의 국민이다. 천황근친족도 몰라 보는가? 앙…》하고 눈초리가 표표하고 체구가 우람찬 한놈이 당장 머리를 숙이지 못하겠냐고 하며 격검채를 휘둘렀다.

그러더니 박춘덕이더러《국민선서》를 했는가고 따지고 들며《와다꾸시 도모와 다이니본 데이고꾸노 신민데 아리마스》(우리들은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다)하고 일본말로 외우고 나서 그대로 따라 외우라고 하였다.

《난 유감스럽게도〈황국신민〉이 아니요. 그런 선서를 나는 모르오.》

박춘덕이 내밸듯이 말하며 가던 길로 돌아 섰다.

《뭐야, 죠센진이나…》

악에 치받친 놈은 또다시 격검채를 휘둘러 댔다. 윙윙-소리가 났다. 그러나 박춘덕의 머리는 수그러지지 않았다. 그는 몸에 휘감기는 격검채를 나꿔 채여 휙- 대동강에 던졌다. 일본경관들은 무리로 박춘덕에게 달려 들었다. 그를 넘어 뜨리고 질질 끌어 갔다. 두다리를 란간사이에 끼워 넣고 총탁으로 머리와 허리, 다리를 내려 쳤다. 이어 군화발로 사정없이 허벅다리를 짓밟았다.

《너 죠센진이나 사람인가. 다신 하늘에다 머리를 들고 걸어 다닐수 없게 해줄테다. 이 버러지 같은것들.》

박춘덕은 다리바닥에 쓰러졌다. 하지만 그는 머리를 쳐들고 다시 일어 서군 하였다. 온몸에서는 랑자하게 피가 흘렀다.

박춘덕이 하도 목숨이 질기여 죽지 않고 부서진 다리를 끌며 집으로 왔을 때는 다음날 새벽녘이였다.

그때로부터 그는 일생 다리를 절게 되였다.…

흰 저고리옷고름을 눈가에 가져 가는 녀인을 띄여본 박춘덕은 인차 말끝을 닫았다.

《참말, 악독한 왜놈들입니다. 이제 우리 힘을 합쳐 치료를 잘하도록 해야 하겠어요. 그리고 목수동무에게 초면에 안되였지만 한가지 긴한 부탁이 있는데 의자를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의자를 말입니까! 어떤 의자게요?》

박춘덕은 놀라움도 컸지만 한편 호기심도 동하여 반문했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게 만들었다는 의자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의자를 하나 잘 만들었으면 해서 그럽니다. 어떠세요.》

녀인의 안색은 저으기 상혈되여 있었다.

《안할 말로 그런 희한한걸 어떻게 저같이 비천한 토목공이…》

《아닙니다. 박춘덕동무는 잘 만들수 있을거예요. 자재랑은 우리가 힘 써보구요. 설계도 좀 해봤는데 맘을 놓고 만들어 보세요.》

《옛날에 임금이 앉았다고 하는 옥좌 같은데 대비도 안되게 한번 잘 만들어 보시오. 박춘덕동무!》

군복차림의 키가 후릿한 일군이 웃으며 덧붙였다.

그로부터 꼭 보름만에 박춘덕은 설계상의 요구대로 의자를 미흡한 점이 없이 만들어 냈다.

의자는 인차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청사로 실려 갔다.

그 일이 있은후, 그때 녀인과 함께 맞이해 주었던 훤칠한 인상의 그 일군이 박춘덕을 찾아 왔다.

자기가 김책이라고, 인사소개를 미처 못하고 일을 시켜서 안되였다고 하더니 무작정 박춘덕을 부둥켜안고 빙빙 돌아 갔다. 김책이 자기의 생활에서 제일 기쁜 일이 있을 때 하군 하는 최상의 감정표현이였다.

《박춘덕동무, 이번에 톡톡히 수고를 했소. 박동무가 우리 조선빨찌산들의 큰 숙원을 풀어 주었소. 재간이 이만저만이 아니더구만.》하고 입을 연 김책은 김정숙녀사께서 대단히 기뻐 하며 박동무에게 손수 구한 약재와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해 달라고 했기에 왔다고 말하다《아, 참…》하며 손을 들어 자기의 이마를 쳤다.

《박동무에게 의자를 부탁했던분이 누구신줄 아오?…

그분이 바로 조선빨찌산의 녀장군으로 소문이 자자한 김정숙녀사이시오.》

박춘덕은 불시에 심장의 박동이 멎는듯 한 충격과 함께 뒤이어 다시 걷잡을새없이 높뛰는것을 느꼈다. 놀라왔다.

(도대체 의자를 누가 쓸것인데 그토록 3천만의 민심을 뒤흔들던 명성 높으신 녀장군이… 또 조선빨찌산들의 큰 숙원이라고 하는건 무엇일가? 모를 일이다. 세상에 모를 일이 하도 많다만 이것만은 참말 모를 일이다.)

김책이 동안을 두었다가 말을 이었다.

《박춘덕동무, 용서하시오. 의자를 어떤분이 앉으실것이라는것을 일전에 얘기도 못해 주고 부탁을 하다나니, 허지만 그렇듯 훌륭하게 만든 의자를 놓고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기뻐 하시오. 박춘덕동무가 만든 의자는 우리 민족의 령도자 **김일성**장군님께서 정사를 보시며 앉으실 의자입니다!…》

《…!》

(아니, 그럼 이 박춘덕이, 이놈의 박춘덕이 **김일성**장군님께서 앉으실 그런 옥좌를 만들어 올렸단 말인가?! 이게 일장춘몽이 아닌가?… 이, 천자도 못 읽는 목수쟁이가…)

김책이 어제 의자를 **김일성**장군님의 집무실에 놓아드렸다고, 그이께서도 못내 기뻐 하시며 목수청년에 대해 상세히 물어 주셨다고 계속 이야기했으나 박춘덕은 그 말들이 모두 비몽사몽간에 듣는것만 같았다.

툭툭툭… 누군가 분명히 어깨를 두드린다는것을 느끼였을 때 그는 이 모든 일들이 꿈이 아니라는것을 알았다.

김책이 못내 대견한듯 그의 어깨를 뜨겁게 두드려주고 있는것이였다.

다음 순간 격정의 파도가 흉벽을 쳤다. 걷잡을새없이 두볼을 타고 후두둑- 눈물이 폭포치듯 떨어 졌다.

그는 종착없이 걸었다.

(이런 변이라구야! 따라지목숨이던 천한 목수쟁이앞에 이같은 행운이 차례지다니… 광복이 좋긴 좋구나. 세월도 좋구 목수도 좋구나…)

박춘덕은 자기가 목공일을 배운것을 이때처럼 행복스러이 생각한적은 없었다. 애초, 당초에 있을법도 아니였다.

그러나 한편 이 나라 백성의 도리로서 20여년 세월 산에서 싸우시며 조국광복을 안아 오시느라 인간최악의 고생을 다 겪어 오신 장군님께 더 좋은, 더 편리한 의자를 만들어 드리지 못한것만 같은 자격지심으로 하여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그후부터 박춘덕은 당청사 목공실에서 일했다.

민주의 건국시절 대패를 차고 아니 다닌데가 없었다. 아무리 밤을 새우며 일하고 또 일해도 힘든줄 몰랐다. 힘이 샘 솟는듯 했다. 도대체 이 광복시절에 목수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있을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박춘덕이 목수가 된것을 평생의 불행으로, 그것으로 하여 그는 이 나라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슬픔을 당해 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것은 주체38(1949)년 9월 22일,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32살이라는 너무도 청청하신 시절에 분하게도 서거하신 날이였다.

온 나라가 울고 민족3천만이 비통해 하였다. 광복된 인민은 너무도 일찌기 백두산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그처럼 위대하고 아름다운 국모를 잃은 슬픔으로 하여 처처에서 곡성을 터뜨렸다.

그런데 그날 밤 김책이 박춘덕을 따로 불렀다.

김책은 흑흑 눈물을 삼키며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어조로 박춘덕이더러 녀사를 마지막으로 모실 준비를 충정 다해 잘해야 하겠다고 하는것이였다.

김책의 말이 끝나기전에 박춘덕은 까무라쳤다. 간신히 의식을 차렸을 때 박춘덕은 왜 나를 살렸는가고 설분을 토하며 그 일만은 자기가 절대로 못하겠다고, 천하에 배우지 말았어야 할 목공일을 배운것이 한이라고 꺽꺽 소리내여 울었다.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도 명성 높은 녀장군이시였지만 생활은 얼마나 검박하고 빨찌산생활 그대로였던가. 며칠전에도 병환이 위급하여 급히 병원으로 가셔야 했지만 끝내 대기승용차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걸어서 떠나신것을 박춘덕이 알고 거리에 나가 인력거를 불러 들였을 때 그렇게도 격해 하신 녀사이시였다. 이 김정숙이 산에서 총 잡고 싸운것이 백성들이 끄는 인력거우에 올라 앉자고 그런것이 아니다, 인력거군에게 어서 같이 가서 사죄하고 용서를 빌자고 하신 녀장군이시였다. 하지만 박춘덕의 안해가 몸져 누웠을 때에는 차는 두었다 언제 쓰겠는가고 하시며 그 대기승용차를 친히 불러 주시였었다.

생각할수록 녀사의 평민적모습이 가슴을 쳤다. 더우기 마지막길을 가시는 녀사께 갈아 입혀 드릴 좋은 옷 한벌 번번한것이 없는것을 목격하자 더 가슴이 쓰리였다. 하루는 김책의 부인이 가을철이 되였는데도 녀사께서 계절에 맞는 저고리를 입지 못하고 있는것을 보고 자기가 입던것이지만 같이 나누어 입자고 드린 일이 있었는데 녀사께서 남몰래 손수 빨아서 인두로 다려 놓은 그 남색저고리를 보았을 때 가슴천정에서 피가 뚝뚝 돋는것만 같았던 박춘덕이였다.

3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청사쪽 별채의 어느 한 방에 이르시였다.

박춘덕은 사뭇 숙연한 감정에 휩싸여 그이의 곁에 따라 섰다.

그이께서는 조용히 방문을 여시였다. 넓고 정숙한 실내에는 형광등불빛이 환했다. 마주 보이는 창문에는 직사광이 비쳐 들지 않도록 연홍색의 융단차일이 드리워 져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방 가운데에 놓여 있는 가구앞으로 다가가 눈이 부시게 흰 천포장을 천천히 벗기시였다.

《박춘덕동무! 어서 가까이 와서 보시오.》

박춘덕은 다가갔다. 순간 그는 마치도 자기가 그 어떤 숭엄하고 성스러운 력사를 향하여 걸어 가는듯한 심정이였다.

그는 너무도 낯이 익은 의자앞에서 못 박힌듯 움직일줄 몰랐다.

50년전… 한 이름 없는 목수청년이 만들어 드렸던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위원장집무실의 의자가 틀림 없었다. 안락의자형에 목팔걸이가 달리고 연한 살색의 가죽을 댄 높은 등받이우에 꽃무늬장식을 한 의자였다.

한 광복청년의 인생사에서 그처럼 행복스러웠던 시절이 질게 비껴 간 의자를 쓸고 또 쓸어 보는 그의 커다란 손등우에 맑은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 졌다. 광복전 토목공사장에서 고역에 시달리며 일하다 너무나 허기지고 손맥이 빠져 더는 대패를 쥐고 당길 힘이 없을 때에는 대패와 팔목사이에 끈을 매고 당기군 하여 오늘도 그때의 허물이 나 있는 오른쪽 팔목에도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 져 흘렀다.

점도록 의자곁을 떠나지 못하는 박춘덕에겐 부지중 잘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생기였다.

이 의자가 어떻게 오늘까지 보존되였을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시기전까지도 사용하시였을가? 그렇지 않으면 반세기전의 의자가 이렇듯 생생히 남아 있을가? 세월은 이 의자우에도 50여년이 넘는 풍상의 년대들을 얹어 놓지 않았던가…

박춘덕의 그 의문을 헤아려 보신듯 **김정일**동지께서는 정겨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사실 수령님께서는 이 의자에 하루밖에 앉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하루 앉아 집무를 보고 나시여 이런 의자에 앉아서 정사를 보기가 어쩐지 옹색하다고, 인민들과도 간격이 생기는것 같다고 하시며 나는 권좌우에 군림한 임금도 통치자도 아니다, 그저 백성의 심부름군인데 이런 의자에는 광복을 맞은 우리 인민들이 앉아야 하지 않겠는가, 난 그저 빨찌산때의 생활이 더 편하다, 산에서 싸울 때 조국광복회10대강령도 동강밀영지에서 진대나무에 앉아 쓴적이 있다. 그러니 난 그저 나무걸상 하나 있으면 된다고 하시며 끝끝내 이 의자를 사양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민주건설시기에 열성자회의들을 여시고 애국농민들을 만나주실 때면 이 의자에 김제원, 리계산을 비롯한 인민의 대표들을 앉혀 주시고 이제야 제격이라고, 의자가 진짜 제 주인들을 만났다고 그리도 기뻐 하셨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목이 갈리신듯 말씀을 끊었다가 이으시였다.

《그리고 참, 1960년을 전후한 시기 수령님께서 강선제강소에 자주 나가시여 로동계급들과 만나 담화하실 때 진응원동무랑 앉도록 하기 위해 내가 의자를 강선에 내보냈던 일도 잊혀 지질 않습니다.

그후 언제인가 사적부문에서 의자를 박물관에 소장시켜 놓겠다고 제기하는것을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그 이후에 의자를 특별히 잘 보관해 두었다가 왜정때부터 다리를 절고 있는 박춘덕동무에게 자신의 기념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며 대장쟁이집에 식칼이 없다고 박춘덕동무도 목수일을 오래 해왔지만 집에 좋은 의자가 없을터이니 꼭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는 겹쌓이는 과로속에서도 나라일을 돌보시느라 좀처럼 기회를 내지 못하시다 너무도 뜻밖에 우리곁을 떠나시게 되여 오늘까지 박동무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저으기 경건한 표정으로 박춘덕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나는 오늘 수령님의 생전의 뜻대로 박춘덕동무에게 오래전부터 당에서 장중보옥처럼 보관해 온 이 의자를 전달하자고 합니다.

생각하다 생각하다 며칠 있으면 마침 박춘덕동무가 생일 일흔다섯돐을 맞겠는데 아무래도 생일날을 맞으며 전해 주는것이 좋을것 같아 오늘 밤 전달하게 됩니다.

박춘덕동무!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기념으로 두고두고 앉도록 하시오, 축하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박춘덕에게 다가서시여 그의 두손을 모두어 잡고 오래도록 흔들어 주시였다. 아침의 해살인양 그이의 안광에서 뿌려 지는 빛발이 박춘덕의 온몸을 눈 부시도록 비쳐 주고 있었다. 박춘덕은 무궁한 해와 마주선듯 한 감격의 현훈에 몸을 비칠했다.

《장군님!…고맙습니다! 장군님!…》

마침내 박춘덕의 어깨가 물목이 터진듯 세차게 물결쳤다.

《박춘덕동무! 고맙다는 인사는 수령님께 드려야 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도 우시였다.

손수건을 꺼내여 눈굽을 누르시였다. 가슴속 호심에서 출렁이던 뜨거운것이 샘 솟아 오른것이였다.

어제도 최전연으로 떠나기 앞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수령님의 집무실에 들리여 오래도록 쓰신 집무탁과 포의자, 실내화, 《목란》텔레비존수상기를 하나하나 쓸어 보다가 금고를 열어 보시였다. 여시면 수령님께서 전우와 찍으신 사진밖에 없다는것을 익히 아시면서도 오실 때마다, 가실 때마다 벌써 몇번째 또 열어 보신 그이이시였다.

그때마다 수령님께서는 평생의 풍상고초를 다 겪으며 살아 오셨지만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서 남겨 준것은 유언 한줄, 은조박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 젖어 들군 하시였다.

예로부터 사람은 인생살이를 하다 세상을 하직할 때엔 하다 못해 가산 한조박이라도 남기고 간다고들 했다.

수령님도 인간이시다. 인민의 어버이이시면서도 한가정의 아버지이시였다. 하지만 수령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도 가정에 남기고 가신것은 아무것도 없으시였다. 하기에 전우와 찍으신 사진밖에 없는, 영원히 비여 있는 빈 금고가 80여평생을 살아오신 수령님의 총 가산이였다.

일생 향락이라는것을 모르고 평민생활을 해오시였고 가실 때에는 조국과 민족을 한생의 유산으로 남기시고 슬하의 수천만 인민들도 모르게 조용히 떠나신 수령님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슥토록 깊은 감회에 잠기시여 창밖을 내다보시였다. 하염없이 눈꽃이 날렸다. 그 눈꽃들은 불빛에 흰 꽃보라인양 휘뿌려 지기도 하고 천리수해 밀림속의 눈발처럼 뽀얗게 서리기도 하였다. 12월의 눈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밤 12월의 눈은 수령님의 눈이기도 하다고 생각되셨다.

생눈을 집어 삼키시며 남패자에서 북대정자에로의 고난의 행군을 단행하신 때도 12월이였고 향하땅에서 조국전쟁의 국면을 열어 나가신 때도 12월이였으며 56년도의 준엄한 난국을 헤쳐 가신 때도 12월이였던것이다.

그 준엄했던 12월의 일들을 다 꼽자면 드리없었지만 수령님께서 걸어 오신 12월의 자욱자욱들을 다 찾아 보시려는듯 창밖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던 **김정일**동지께서는 박춘덕이쪽으로 천천히 돌아서시였다.

《생각할수록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참, 박동무가 수령님으로부터 처벌을 받던 일이 생각나누만… 그때가 아마 수령님께서 대안전기공장을 현지에서 지도하고 계실 때였지요?…》

《에, 옳습니다. 그 시기 대안지구의 음료수수질이 너무 나빠 수령님께서 여러날째 고생을 하시기에 저희들이 평양에서 물을 한통 싣고 내려 갔다가 아닌게 아니라 된욕을 치르었습니다.》

박춘덕은 지금도 생각하면 낯을 들수가 없는듯 얼굴이 화끈 달아 올라 몸을 궁싯거리였다.

령도자가 인민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지도사업을 해야지 나만 딴가마를 걸어 놓고 딴 물통을 가져다 놓고 살면 되겠는가?

당장 당책벌을 주겠으니 당검열위원회에 올라 가라고, 그러되 가지고 온 물은 용해작업반에 가지고 가서 땀 흘리는 로동자들에게 한식기씩 마시게 하고 보고하라고 하시던 수령님의 노하신 음성이 이 시각 다시금 울려 오는듯 했다.

《…정말 눈에 흙이 들어 가도 그때의 일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그렇겝니다. 수령님의 그러하신 인민적성격을 몸 가까이에서 따라 배우며 박춘덕동무가 오늘처럼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 밤에 박춘덕동무에게 또 한가지를 축하해줄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어제 당중앙위원회에서는 박춘덕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장으로 임명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지금 제 나이가 얼만데 그 높은 직무에… 저야 그저 깎구 자르구 밀구 하는 목수일밖에 더 아는게 있습니까.》

《부장동무! 목수가 중앙당 부장으로 되는것이 로동당세월이 아닙니까. 수령님께서 오늘의 부장동무를 보시면 얼마나 기뻐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다 수령님의 뜻입니다.》

그이께서는 박춘덕에게 그윽한 미소를 보내시였다. 그러시다 조용히 집무탁앞으로 가시였다. 그리고 주런이 놓여 있는 전화기들 가운데서 푸른빛이 도는 첫번째 전화기를 드시였다. 그러나 다시 내려 놓으시였다. 몹시도 서운한 안색이시였다. 가끔 자신도 모르게 기쁜 일이 있으면 드시군 하는 수령님의 집무실과 련결되여 있는 전화기였던것이다.

《자, 그럼 부장동무! 얼마 있으면 날도 밝겠는데 눈을 좀 붙이도록 하시오. 난 아무래도 전연병사들과 한 약속이 있어놔서 오전중에 철령을 넘어서야 할것 같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급기야 작별하려는듯 박춘덕에게 오다 말고 의미 있는 미소를 지으며《부장동문 46년도 공산당원이지요?》하고 뇌이시였다.

《그리고 부장동문 내가 준 과업을 언제나 드틴적이 한번도 없었지요?》

그이께서는 또 짐짓 물으시였다.

《예?… 무슨 뜻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박춘덕은 사뭇 의아한 표정이 되여 두눈을 슴벅이다가《어떤 과업이라도 주시면 꼭 수행하고 보고하겠습니다. 46년도 공산당원구실을 마지막까지 잘하겠습니다.》하고 대답 올렸다.

《좋습니다! 로동당원들은 그래야 합니다.

그럼 새로 임명된 부장동무에게 첫 과업을 하나 주겠습니다. 전번에는 최고사령관으로서 준 과업이였는데 이번엔 총비서로서 주는 과업입니다.

과업집행정형은 내가 직접 만나서 보고 받겠습니다. 집행기간은 1개월입니다.

과업의 내용은 인차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못 엄한 어조로 말씀하시고나서 잠시 서기실로 가시였다가 들어 오셨다.

펴끗 탁상시계를 보신 그이께서는 집무탁우에 쌓여 있는 문건들에서 시급히 비준해야 할 당과 군대, 국가사업과 관련한 문건들과 새날의 《로동신문》, 《조선인민군》신문으로부터《소년신문》,《문학신문》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신문, 세계통신보도자료, 최

신 콤퓨터기술자료, 각계층 인민들이 보내온 편지, 100살장수자들의 건강상태자료, 새로 창작한 가요록음테프, 롱구경기를 수록한 비데오카세트, 소나무에 잣나무를 접하여 잣나무화하기 위한 자료 등을 두개의 커다란 문건가방에 차곡차곡 챙겨 넣으시였다.

그리고 탁상일력장에 적으셨던 글을 다시 보고 나서 탁아소, 유치원 원아들과 인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우유를 공급하고 있는 실태와 대책에 대한 문건을 넣는것을 잊지 않으시였다.

달리는 승용차안에서 계속 보시고 들으시고 연구하시고 결론 주시고 비준하시고 정책을 세우실《일감》들이였다. 그러니 이 시각부터는 당중앙과 최고사령부가 야전승용차로 옮겨 지는것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출입문가에 있는 옷걸이에서 야전복을 벗겨 입으시였다. 려장은 그것이 전부였다. 한겨울이지만 목도리도 장갑도 보이지 않았다. 누구나 겨울철과 이른봄철까지 부드럽고 따뜻한 목도리를 바람 한점 스며 들지 않도록 덧옷안에 두르지만 그이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 엄동설한에 전선길을 걸을 때도 장갑을 끼시는것을 박춘덕은 여적 본적이 없었다.

문득 박춘덕은 료양생활기간에 그이의 수면보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가 하여 만들어 올렸던 침대생각이 떠올랐다.

그이께서 부디 리용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쓰고 계시는지 문의해 보고 싶어 졌다. 그러나 단념했다. 절로 부끄러워 졌다. **김정일**동지께서 언제 침대에서 쉬시기에, 오히려 차중의 쪽잠에 습관되시여 침대에서 쉬는것을 불편해 하시는데 그런 오망스러운 생각을 한것부터가 면괴스럽기 이를데 없었다. 무릇 그 침대도 백돐장수자의 어느 가정이 아니면 어느 소년단야영소에 가 있으리라 …

참으로 군로신일의 세상이였다.

수령은 평민의 생활을 하고 인민은 하늘처럼 떠받들리운다. 목수가《옥좌》에 앉고 령도자는 평의자에 앉는다.

한 평범한 목수에게 3대위인의 인간상이 그처럼 거룩할진대 인민의 위대하신《평민》의 장구한 력사를 다 알기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좁고 이 위인들을 후세만년 받들어 가기엔 이 강토가 또한 너무나도 작은것만 같구나 하는 억제할수 없는 생각에 박춘덕의 가슴은 터질듯 부풀어 올랐다.

(그렇구말구!… 위대하고 위대한 민족의 영걸, 이 인민적평민의 수령을 모신 우리 인민은 얼마나 행복한것이냐.

아… 이 땅우에 두번 다시 태여나 살고 싶고나. 로당익장이 되여 그이를 천년만년토록 받들고 싶구나!…)

×

떠엉, 떠엉, 떠엉-

인민대학습당의 종소리가 야음을 타고 멀리멀리 메아리쳐 갔다.

새벽 5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집무실을 나서시였다.

빠른 걸음으로 현관복도를 나서신 그이께서 승용차의 앞좌석에 앉으며 차문을 힘차게 닫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새날의 사업에 착수하신것이다. 새벽 5시는 그이께서 하루일을 끝내시고 또 하루 새날의 사업을 시작하시는《교대》시간이였다.

이 나라의 마지막밤을 닫으시고 첫 새벽을 여시는 분이 **김정일**동지이시였다.

승용차의 발동이 걸리고 차는 벌써 수도의 거리를 누비며 전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밤새 내리던 눈은 새벽녘에 이르러 또다시 눈보라로 변했다.

새날의 마지막어둠을 휘감으며 눈보라, 눈보라가 터졌다. 려명의 하늘가로 치솟고 치닫다가는 우우- 태질하듯 울부짖으며 홀연 대공에 온통 자오록한 은가루를 휘뿌려 놓았다.

어디에나 엄동설한이였다. 또다시 폭설이 쏟아 진다. 땅이 솟고 하늘이 내려 앉는듯 눈보라가 하늘땅을 빙글빙글 안고 돌아 갔다.

그속을 뚫고 승용차가 질풍처럼 내달렸다.

승용차뒤로 이해의 마지막눈보라를 휘몰아 가는 듯 뽀오얀 눈발이 따라 가며 타래쳐 올랐다.

눈보라, 눈보라…

위대한 첫생의 탄생이 우렁찼던 천고밀림의 새벽녘에도 눈보라가 세찼다. 그 백설의 장쾌한 노호를 안으시고 오늘도 눈보라 만리를 헤치며 혁명의 최전선에 계시는 그이를 우러러 바래워 드리며 박춘덕은 오래도록 움직일줄 모르고 서 있었다.

이때 박춘덕의 앞으로 미끄러지듯 승용차 한대가 조용히 와섰다. 운전수가 내렸다. 어서 온천휴양지로 떠나가자고 하는것이였다.

박춘덕은 좀전에 **김정일**동지께서 한달후에 그 집행정형을 직접 보고 받으시겠다고 엄하게 주신 과업의《내용》이 어떤것인지 비로소 알았다.…

승용차는 동남쪽으로 서서히 떠났다.

위대한 수령의 무조건부적인 과업을 집행하기 위해 떠나가는 박춘덕의 심중은 눈물겨웠다.

불현듯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송년시가의 구절구절들이 홍벽을 치며 솟아 올랐다.

…
자신의 집을 떠나 가정을 떠나
풍찬로숙하신 우리 장군님
인민을 찾고 찾으시여
온 한해 인민의 집에 계신
아, 우리의 **김정일**동지!
…

실화문학

앞채의 무게

류 정 옥

이른 아침이였다. 나는 여느 날보다 퍽 일찌기 10월5일자동화종합공장구내에 들어 섰다.

벌써 몇번인지도 모르게 이 공장 초급당비서를 찾아 갔댔으나 매번 빈 방앞에서 돌아 서군 했던것이여서 오늘은 마음 먹고 서둘렀다.

키높이 자란 수삼나무들이 수려하게 둘러 선 산뜻한 청사의 복도에 들어 선 나는 기쁨에 가까운 안도감을 느꼈다.

초급당비서의 방문이 빙긋이 열려 있는것이였다. (됐구나!) 하면서도 나는 그가 또 어느 현장으로든 나가려고 문을 여는참이나 아닐가 하는 조급증을 안고 걸음을 재게 놀렸다. 그러나 문앞에 이른 나는 주춤 서버리고 말았다.

방안에서 따지는듯한 엄한 목소리가 울려 나오는것이였다.

《그것도 말이라고 하오. 동무가 우리 공장에 당부원으로 온지 벌써 몇달째인데 아직도 담당기술과에 대한 파악이 고작 그런 정도요?》

이것은 분명 초급당비서의 목소리일것이다. 아마 벌써 아침모임이 시작된것 같았다.

나는 하는수없이 대기실 비슷한 간막이 옆방에 들어 가앉았다. 며칠을 뒤쫓아 다니다가 만날수 있게 된 초급당비서를 놓칠수 없었다. 몇시간이든 끝날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다.

웅글은 목소리는 계속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우리 공장에 왜 기술과를 네개씩이나 내오도록 하셨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하오. 그만큼 우리 공장은 기술적요구가 높고 복잡하기때문이 아니겠소. 우리 기술과들은 물론 각 기술부서들을 그 높은 요구에 따라 세우지 못하고서는 공장이 제발로 걸어 갈수가 없소. 뭐니뭐니해도 중요한 생산예비는 우리 기술자들의 머리속에 있소.》

그 목소리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계속되였으나 어성이 다소 누그러졌다.

《우리 공장엔 웃지 못할 이야기가 하나 있소. 한 20여년전 일이라고 하오. 동무들중에도 들은 사람이 있을수 있는데 나도 여기 와서 들은 소리요. 오래동안 농업분야에서 사업하던 한 일군이 공장(그때는 그저 10월5일전기공장이였소.)의 책임일군으로 온적이 있는데 오자마자 열린 생산협의회에 참가하여 노기스가 부족하다는 제기를 받고는 당장에 해결하자고 하면서 그것이 한자동차쯤이면 되겠는가고 했다는거요. 그 일군은 선반공들이 부속을 깎을 때 치수를 재보는 자인 노기스가 그 무슨 기계부속인가 했다는거요.》

당비서의 방에서는 폭소가 터졌다. 그러나 잠시후 계속되는 그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동무들이 지금 웃기는 하지만 아마 동무들부터 현재 우리 공장에서 흔하게 쓰는 공구들이나 합금소재의 이름 같은걸 다는 모를거요. 재삼 강조하지만 우리는〈고난의 행군〉을 다그치는데서 자력갱생모범공장의 앞채를 멘 일군들이요. 힘이 없이는 앞채를 멜수 없소. 당면하게 우리는 지금 단시일내에 소형풍력발전기 100대를 만들데 대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말씀을 어떤 일이 있어도 관철해야 하오. 이 과업을 수행하자면 우리 당일군들이 기술적문제들을 파악하고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속에 들어 가 걸린 문제들을 풀어야 하겠소.》

잠시후 그 목소리는 여유 있게 울려 나왔다.

《자, 담배들도 한대씩 피우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소형풍력발전기생산에서 우리 당위원회 일군들이 각자 해당 부문에서 걸린 문제들이 무엇인가 또 제기할것들이 무엇인지 들어 봅시다.》

담배곽을 꺼내는 부스럭소리들이 들렸다.

《가만 내가 라이타를 어쨌더라?》

나는 이쪽저쪽 주머니를 만져도 보고 책상서랍을 이리저리 뒤져 보는 그의 거동이 보이는것만 같았다. 그런데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비서동지 라이타는 여기 있습니다.》

《엉?! 내 라이타가 어떻게 동무한테 가 있소?》

《정기사동무가 주던데요. 아침출근길에.》

《정기사가?》

《비서동진 어제밤 풍력발전기 역변환기성능을 개조하느라고 정기사동무와 함께 밤을 새우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시치미를 떼재도 안됩니다. 비서동지가 돌아 가신 다음 부속품함을 정리하다가 그속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허허…그참 황아장사 망신은 고불통이 시킨다더니.》

《비서동지, 이건 낯 익지 않습니까? 비상용반창고

를 감아 놓은것인데.》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다.

《가만 있자. 그건 또 어떻게 동무한테 가 있소?》

《열처리장에 두고 왔더군요.》

《아참, 그랬던가…내 글쎄 집사람한테서도 늙어 가면서 점점 덜룽해 진다는 말을 듣군 하오.》

《확실히 그런것 같습니다.》

그 소리에 모두들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 공장에 와서 며칠동안 보고 들은 사실들이 새삼스레 떠올랐다.

…이 공장으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여러차례의 현지지도사적이 깃든 영광의 공장이다.

공장의 규모와 생산품은 방대하다. 제품의 가지수만도 수백종에 달한다. 생산공정이라든가 생산품의 가지수를 두고 그저 한마디로 방대하고 굉장히 많다는 말로밖에 표현할수가 없다. 따라서 거기에《먹여》야 할 원료와 자재, 부속의 가지수와 규격은 수백, 수천종을 헤아린다. 그것을 제대로 다《먹이》며 왕성하게 돌게 하자니 그 밑천과 원천은 막강해야 하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막강한것은 자력갱생의 위력이였다. 공장의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은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라는 당의 호소에 열정과 사색, 탐구를 쏟아부었고 일군들은《고난의 행군》의 앞채를 메고 이끌었다. 하여 공장은 《고난의 행군》몇해동안을 제발로 걸어 가는 공장으로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으로부터 만점짜리 공장, 자력갱생본보기공장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아 안게 되였다.

공장에는 새 기술연구집단만도 여러개 있고 부문별마다 기술혁신조들이 조직되여 있었다.

나는 물론 그들부터 만나보았다. 초급당비서를 만나려고 몇번이나 방에 갔었으나 빈 방앞에서 돌아섰고 그가 나갔다는 현장으로도 찾아 갔으나 번번이 헛걸음을 쳤던것이다.

어제는 당위원회 부원이 대주는대로 그의 행처를 찾아 구내의 한쪽끝에 있는 공업시험소로 찾아 갔었다. 허나 거기엔 벌써 그가 없었다.

공업시험소에서는 금속공장에서 받아 와야 할 소형풍력발전기의 축강을 자체로 뽑아 내고 있는중이였다. 말 그대로 작은 시험로 하나밖에 없는 공업시험소에서 축강을 뽑아 내고 있는 어려운《전투》에 공장지배인이 벌써 며칠째 밤을 새우고 있었던것이다.

초급당비서는 지배인을 한숨 쉬도록 집으로 떠밀어 보내고 축강생산에서 걸린 문제를 풀도록 대책을 토론해 주고 자리를 떴다는것이다.

초급당비서는 그 길로 풍력발전기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역변환기성능을 높이기 위한《전투》가 한창인 조종장치분공장으로 갔다는것이였다.

구내의 한쪽끝에서 퍼그나 떨어 진 조종장치분공장으로 부리나케 따라 갔으나 또 허사였다.

기술자들과 소매를 걷고 역변환기개조에 달라 붙었는데 상급당에서 급히 부른다는 전화련락을 받고 자전거질주를 놓은후였다. 떠나면서 그는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했다는것이였다.

그는 마치도 나를 만나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는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공장사람들도 내가 초급당비서의 시간을 빼앗지 못하도록 모두 약속이라도 한듯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기술자들과 연구집단성원들을 만나는것으로부터 나의 일을 시작하였던것이다.

연구집단과 기술혁신조원들을 만나보면서 나는 아리숭한 일에 부닥쳤다. 그 기술자들속에서 김충일이라는 꼭 같은 이름을 매번 보게 되는것이였다. 두번째로 찾아 갔던 기술혁신조인 낡은 형태의 기계식고주파유도로를 반도체식으로 현대화한 전기기술자들속에서도 김충일이라는 이름을 보고 나는 의아함을 금할수 없었다. 한것은 처음에 찾아 갔던 금속연구집단기술자들중에도 김충일이라는 이름이 있었기때문이다. 그런데 세번째로 찾아 간 콤퓨터수자조종에 의한 종합적인 열처리기지를 꾸린 전자공학자들속에서도 또 같은 이름을 보게 되였다.

물론 우리 나라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한 공장의 기술일군들중에 김충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을수는 없을것이다.

만약 그것이 모두 한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기에 그처럼 여러 분야에 걸친 기술을 가질수 있으며 그보다는 어느 시간에 얼마만한 정력을 가졌기에 그 모든 연구사업과 기술혁신에 참가하고 있는것인가.

풀수 없는 의문이였다.

나는 콤퓨터수자조종 열처리공청년에게 물어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내가 물어 볼 틈도 주지 않고 흥이 나서 말하는바람에 나 역시 그의 말에 끌려 들고 말았다.

《작가선생은 여러 공장들을 다녀 보셨을테지만 우리처럼 높은 수준에서 완전히 자동화된 열처리기지를 가진데는 몇이 안될것입니다.》

그는 스무살안팎의 말쑥한 청년이였다. 요즘 류행되는 바지에 줄무늬가 가로간 편직샤쯔가 활짝 드러나도록 작업복을 열어 제끼고 조종반에 앉아 있는데 그의 옆에는 외국어단어장이 놓여 있었다.

청년은 자랑스레 그 유익성을 꼽아 내려 갔다. 8개의 열처리로가 하나의 수치조종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작업》한다. 열처리실수률은 종전에 87%로부터 100%이다. 과학성에 있어서는 1,500℃에서 1°차이며 온도유지시간은 1초도 편차가 없다.

로력은 8명으로부터 2명으로 줄었다.

청년은 쾌활한 인상으로 벙긋거리며 뭔가 자랑거리를 더 생각해 내려는듯 눈을 슴벅이였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김충일이라는 놀랄만한 정력을 가진 박식가에 대해 물었다.

청년은 오히려 제편에서 눈이 둥그래 지며 한참동안 나를 쳐다보다가 되물었다.

《아니, 그럼 우리 초급당비서동지를 아직 모르십니까?》

《초급당비서가?!…김충일?》

나는 아연해 졌다. 정말로 나의 놀라움은 컸다.

청년의 자랑거리는 물목이 터진듯이 초급당비서인 김충일에게로 쏠리였다.

《우리 비서동지는 실력이 있는 전자공학가입니다.》

《초급당비서동지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비서동지를 아직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이제 만나보시면 알게 될겁니다. 이 열처리장도 우리 비서동지가 주동적으로 시작하고 기술적으로 밀어 주지 않았다면 아마 아직도 30년전부터 쓰던 수동식열처리장이 그대로 있을겁니다.》

청년은 그 과정을 조리 있게 설명했다.

…공장에서는 80년대말부터 재래식열처리장을 현대화할데 대한 문제를 상정시키고 조직사업도 하고 일군들에게 분공도 주었지만 감히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기술일군들이 외국에 더러 가보고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어느 연구소에 가보니 한대의 로에 전자계산기를 도입하는데 수많은 자금이 들었고 주체82(1993)년에 어느 나라에 가보았는데 6개의 로에 도입하는데만도 수백만딸라가 들었다는 소리뿐이였다. 몇달후 김충일초급당비서는 기술자들의 협의회를 조직하고 그들에게 당적분공으로 열처리로의 콤퓨터화에 대한 과업을 주었다.

그자리에서 그는 모두가 깜짝 놀랄만한 자기의 연구안을 내놓았다. 필요한 전자계산기는 16비트짜리 한대면 충분하다.

열처리에 따르는 수감요소는 백금열전대나 크로멜전대이면 된다. 열처리로에 들어 가는 니크롬띠는 원천이 긴장하기때문에 해결하기 어렵다. 그 대용으로 깐딸선을 개발해서 쓰되 이것은 금속실에서 해야할 당적분공이다.

온도에 따르는 금속조직의 변화에 대해서는 해당기술파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것이다. 등등…

《자, 보십시오. 작가선생, 우리 비서동지가 얼마나 멋 있습니까. 기술개조에 드는 엄청난 자금을 이렇게 자체의 힘으로 해내도록 과학적인 설계안을 내놓고는〈날 따라 앞으로!〉하는데 누가 따라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 비서동진 다방면적으로 기술을 파고드는 사람이여서 기술자들속에서 신비주의나 보수주의 같은것이 옴짝을 못한답니다. 하긴 우리 청년들도 옴짝을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

《우리 비서동진 머리가 비상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들이 발표되면 그 다음날엔 벌써 토 한자 틀리지 않고 통달합니다. 우리가 떠듬거리면 청년들의 머리가 그렇게 게을러서 무엇에 쓰겠는가, 그렇게 게으른 머리를 가지고서는〈고난의 행군〉을 할수 없다고 하는것입니다.》

청년의 입에서는《우리 비서동지》라는 말이 떨어질줄 몰랐다.

《허지만 우리 비서동지는 인정도 많고 아주 소탈합니다. 공장적으로 수백명이 넘는 나 같은〈코흘리개〉들을 대하는데서도 그저 인사나 끄덕 받고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요즘 무슨 공부를 하는가, 청년시절에 배워야 한다, 외국어도 소유해야 한다, 체육도 잘해서 몸단련도 하고…》청년은 자기네 당비서에게 완전히 반해 버린듯 하였다.…

사람이 반하면 그의 약점까지도 존중하게 된다고 한다. 나 역시 청년의 말을 통채로 믿을수 없었지만 당비서 김충일을 만나보고 싶은 충동이 더욱 강렬해 졌다.

당일군이 당사업 즉 사람과의 사업을 잘해서 사람들속에 권위가 있고 인격이 높아 지는 경우는 어디서나 볼수 있는 일이지만 과학기술의 만능으로서 존경을 받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그것도 어느 한 기술분야만이 아니다.…

열처리공청년은 김충일을 현대 전자공학전문가라고 했으며 기계식고주파유도로를 반도체식으로 현대화한 기술자들은 그들대로 김충일을 전기에 박식하다고 하였고 초음파연신기를 제작한 기계기술자들은 김충일을 기계설계전문가라고 하였으며 금속연구집단에서는 또 그들대로 김충일을 금속전문가라고 하였다.…

그중에 금속연구집단기술자들의 이야기는 참으로 인상적이였다.

이들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특수합금재료인《베릴리움청동합금》,《린청동합금》을 비롯한 수종의 합금재료를 대신하는 대용제를 개발하였다.

연구조를 책임졌던 조장은 그 연구조에 망라되였던 성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짚어 가며 그들이 달성한 과학기술적가치에 대해서 상세히 말해 주었다. 그는 연구조의 한 성원이였던 김충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다.

연구사업의 첫 시작으로서 3명의 기술자가 외국문헌조사에 3개월이나 시간을 바쳤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베릴리움이나 석을 다른것으로 대용했다는 자료는 전혀 없다는것만을 확인하였을뿐이다. 그들이 손맥을 놓고 있을 때 김충일은 자기자신과 함께 연구조원들을 각성시켰다.

《우리는 뭔가 잡도리부터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소?》

《?!…》

《다른 나라들이란 석이나 베릴리움이 얼마든지 있는 나라들인데 무엇때문에 대용제를 만들어 쓰겠소. 이건 짬짬이 문헌들을 찾아 보다가 내가 찾아 낸 결론이요.》

조장도 같은 생각으로 긍정하였다.

《옳습니다. 아직도 우린 남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고 먼저 생각해 보는 경향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니까. 나부터도 외국자료를 먼저 뒤적거렸으니말이요. 무엇보다도 절박한 우리의 조건, 우리의 난국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만이 풀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달라 붙었어야 할것이였소…그래 뭐 좀 다른 방도를 찾아 본게 없소?》

조장이 모색중에 있던 탐구안을 내놓았다.

《알루미니움이나 규소, 망간, 크롬 같은것으로 대용합금제를 얻어 낼수 있지 않을가 하는 가설을 세워 보는중인데 아직은…》

조장은 신심이 없이 말꼬리를 흐렸으나 김충일은 그의 손을 으스러지게 잡았다.

《그러니까 우리 두사람의 견해가 일치했구만. 이건 벌써 가설이 아니라 정설에 도달할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일것만 같소.》

《?!》

연구조원들은 모두 놀랐다. 수많은 일을 안고 있는 당비서가 어느 틈에 문헌조사를 했으며 금속에 대한 속성과 특질들을 연구분석하고 탐구하여 묘한 방안을 탐색해 냈을가…

그로부터 연구사업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였다.

그러나 흔히 쓰는 금속재료를 가지고 대용제를 만들어 낸다는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과학기술적문제였다.

수십차례의 실패, 푼전을 아껴 써야 하는《고난의 행군》시기에 엄청난 자금지출과 자재랑비… 그들은 실망과 죄의식감에 주저앉을 때도 많았다. 계속되는 실패, 자재와 자금의 랑비가 한도를 넘어 섰다. 법적인 책임감앞에 자신들을 세워 보며 의기소침해 지기도 하였다.

그럴수록 김충일은 그들에게 힘과 의기를 북돋아주었다.

《이보우, 동무들, 우리의 법은 진정한 애국심을 처벌하지 않소. 우리의 법보다 더 무서워 해야 할것은 패배주의적인 비관과 주저, 자기 보신과 동요요.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우리 공장이 제발걸음을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권위를 결사옹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요. 또한 오늘의 경제건설이나 과학탐구는 단순한 경제실무적문제가 아니요. 우리의 생활이고 운명인 사회주의를 지켜 내는가, 못내는가 하는 판가리싸움이요. 사람이 운명을 걸고 악을 먹으면 무서운것이 없는 법이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무기를 쥐여 주시지 않았소.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다.〉이 명언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드팀 없는 신조로 되여야 하오.》

김충일은 먼저 실험대앞으로 다가갔다. 말 없는 《날 따라 앞으로!》의 구령이였다.

그들은 무려 40여차례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린청동판이나 베릴리움청동판에 못지 않게 휨성도 좋고 전기전도성도 좋으며 변색되지 않는 대용재질을 얻어 내고야 말았다.

초급당비서방에서 걸상 옮기는 소리들이 났다. 모임이 끝난 모양이다. 이어 사람들이 나왔다. 나는 마지막사람과 어기며 당비서방에 들어 섰다. 키가 크고 어깨가 쩍 벌어 진 건장한 체구의 50대의 중년이 한순간 의아스레 나를 바라보다가 짐작이 간듯 미소를 지었다.

《아, 몇번이나 찾아 오셨댔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별로 들려 드릴만한 이야기도 없는데 공연히 수고를 시켜서 말입니다.》

번듯한 이마에 검은 눈섭이 선명하고 억실억실한 눈이 광채를 띠고 있었다. 걸보기엔 특별한 점을 찾아 볼수 없었다. 공장, 기업소에 가면 흔히 만나볼수 있는 일군, 평범한 당일군의 인상이였다. 나는 인사말을 나눈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비서동진 어느 어느 대학을 나오셨습니까?》

《어느 대학이라니요?!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공장에 와서 들어 보니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속에서 비서동지의 지식에 대한 평가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에서…》

김충일은 손을 저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것 없다고 그런 뜬소문을 아예 믿지 마십시오. 난 원래 대학을 몇개씩 다닐 재목이 못됩니다.》

…김충일은 1960년대 초엽에 김책공업대학(당시)을 졸업하였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문한 기계설계전문가였다.

그에게 금속전문가라는 말이 붙게 된것은 김책공업대학 금속공학부에서 부문당비서사업을 한 경력이 있는데다가 당비서로 온후 사업상 필수적인 요구로부터 순전히 자습으로 얻은 지식이였다. 그 지식이 기술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을 주게 되자 금속전문가로 소문이 난것이다. 전기전문지식 역시 독학으로 터득하였다. 자동화종합공장에서 전기를 몰라 가지고서는 로동자, 기술자들의 생산활동에 깊이 침투할수가 없었다.

전자공학도 마찬가지였다. 김충일이 대학을 다닐때는 우리 나라에서 1세대 전자계산기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던 때였으므로 피상적인 상식밖에 몰랐다. 지금은 5세대 전자계산기가 개발되는 시대이다. 하기에 김충일은 자기보다 20년후배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출신인 전자계산기실 실장을 선생으로 정하고 배우기 시작하였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전자계산기에 대해서도 그럭저럭 알게 되더군요. 내가 이것저것 공부를 좀한다는걸 안 우리 도서실 대출원동무가 새로 나오는 기술서적들과 잡지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준답니다.》

정말로 그의 책상에는 여러권의 기술서적들이 쌓여 있었다. 수천명의 종업원을 가진 큰 공장의 당일군이 언제 어느 시간에 그것도 세네가지 분야의 과학기술을 파고 드는것일가, 당일군이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것도 아니다.

생산기업소 당일군들은 다른 비생산부문의 당일군보다 몇배로 더 힘들다는것을 나는 잘 안다. 더구나《고난의 행군》나날에 부족한것이 많은 조건에서 자체의 힘으로 생산을 정상화한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것은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가늠할수가 없을것이다.

정치사업과 함께 생산지도일군들과 같이 뛰여야

하며 로동자, 기술자들과 함께 고심어린 탐구를 하고 고락을 같이 하며 무거운《짐수레》의 앞채를 메고 이끌어야 한다.

생산단위를 책임진 당일군이 생산과제를 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오늘의 당일군으로서 제몫을 했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비서동진 하루에 몇시간씩 주무십니까?》.

《예?》

그는 의아한 눈길로 잠시 나를 건너다 보더니 묻는 뜻을 짐작한듯 가볍게 웃었다.

《나는 원래 무척 절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잠 자는 시간도 드레가 없고 먹는것도 역시 생각나는대로랍니다. 퇴근시간도 까맣게 잊어 먹고 있다가 집사람의 전화를 받고야〈아차!〉하고 일어 서는 때가 있는가 하면 방금 쓰던 라이타를 어데다 두었는지, 손수건을 언제 어디서 떨구었는지도 모른답니다.》

《…》

그것은 아마도 그의 타고 난 무절제가 아닐것 같다. 그의 사색과 모든 시간은 한초한초까지도 그 개인의것이 아닐것이다. 공장의 수백가지 일과 수천명 종업원들의 시간일것이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자는것마저《무절제》속에 빠져 들게 하고 방금 쓰던 소지품도 어데다 놓았는지 모르게《덜퉁》한 인간으로 만들면서 사색하고 탐구하며 뛰고 또 뛰며 무거운《짐마차》의 앞채에 어깨를 들이 밀게 하는 힘이 무엇이며 그것은 어데서 생기는것일가?

단순히 강한 의지이고 열정이며 책임적인 의무감이겠는가. 또 전화종이 다급히 울렸다.

김충일비서는 책무지를 밀며 구내전화기를 당겨 송수화기를 들었다.

나는 그때에야 책무지에 가리웠던 작은 탁상액틀을 보았다. 앞뒤판이 유리로 된 손바닥만한 액틀에는《결사옹위정신》,《혁명적군인정신》,《자폭정신》이라는 빨간 글발이 씌여 있다.

어데서나 볼수 있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정신적 면모를 말해 주는 직관물이였다. 헌데 액틀 맨밑에는 눈에 선 글발이 또 하나 있었다.

《앞채의 무게!》라는 글줄이였다.

(앞채의 무게?!…)

전화를 받는 김충일비서의 어조는 단호하였다.

《…아니요. 4.15까지의 날자는 절대로 어길수 없는 초급당위원회 결정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목재가 들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일군들이 산판으로 떠나도록 합시다.…》

나는 전화내용이 짐작되였다. 지금 이 공장에서《전투》를 벌리고 있는 소형풍력발전기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외진 초소들에 보내주실 은정어린 선물이였다. 헌데 발전기의 날개를 만들 목재가 미처 들어 오지 못해서 제 기일을 보장하기가 어렵게 된 형편이였다.

《지배인동무는 자리를 뜨면 안됩니다. 공장전반사업을 지휘해야지요… 거긴 내가 가겠습니다. 아니, 우리야 함께 앞채를 멘 사람이 아닙니까.…저녁차로 떠나도록 조직사업을 합시다…》

나는 김충일비서의 정력에 넘친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하였다.

저 사람은 어제밤도 기술자들과 밝힌 사람이다. 오늘 저녁은 또 멀리 자강도의 산판으로 떠나려 한다. 초급당비서가 직접 가지 않은들 어떠랴만 중대사가 될가봐 마음을 못 놓는 가장처럼 매사에 어깨를 들이 밀고 있다.

《비서동지가 산판에까지 직접 가야 합니까?》

나는 전화를 끝내고 난 그에게 물었다.

《자재일군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발전기생산에서 제일 걸린 문제가 목재입니다. 앉아서 마음 조이기보다는 직접 가서 한대의 나무라도 메내는것이 속 편합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뚝심을 들여 통나무 같은걸 멘다던가 땅을 파고 등짐 같은걸 지는데서라면 그쯤한것은〈날 따라 앞으로!〉에서 별로 걱정할것이 없습니다. 보다 어렵고 힘든것은 우리 공장에서 자력갱생의 기본고리라고 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푸는데서 앞채를 메야 하겠는데 나로서는 참으로 헐치 않습니다.…내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할가요.》

…김충일이 일에 몰리우고 졸음이 매달린 땐 간혹 의지와 자각이 흔들릴 때도 있었다.

어느 월말생산전투때였다.

새 기술개발연구조나 기술혁신조 그리고 생산현장들을 돌아 보며《무슨 조건이 그리 많은가》,《우는 소리를 하는데서는 나오는것이 없다》,《수령결사옹위정신은 회의때 결의나 다지는 구호가 아니다.》하면서 해종일 분주히 보낸 날이였다.

밤 늦게야 사무실에 돌아 와 밀렸던 사무처리를 하고 전자공학교과서를 펼쳐 들자 저도 모르게 눈까풀이 내려 걸렸다.

김충일은 책을 덮어 놓으며 자신을 합리화하였다.

(당일군이 기술을 그만큼만 알아도 기술자들을 지도하는데서야 걸릴것이 없지 않은가. 이젠 좀 쉬염쉬염…)

이렇게 생각하면서 퇴근차비를 하는데 구내전화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어느 현장에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는가 하고 김충일은 수화기를 들었다. 허나 전화는 뜻밖에도 전자계산기실 실장인《선생님》이 월말전투로 며칠째 결강한《학생》을 호출하는 전화였다.

《이거…미안하게 됐소. 나때문에 아직 퇴근하지 못했구만…오늘은 그만 두기요. 시간도 늦었고〈학생〉도〈선생〉도 다 머리가 피로한데…》

전화기에서는 의외에도 웃음기가 실린 실장의 공격이 날아 왔다.

《비서동지, 무슨 조건이 그리 많습니까?》

《뭐라구?!》

《앞채를 메기가 그라 헐한줄 아십니까? 앞채의 무게가 어떤것입니까?》

《허허…》

김충일은 일군들앞에서 자신이 자주 쓰는 말투를 본따서 역습을 하는 실장에게 손을 들고 말았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곧 갑지요, 허…》…

김충일은 여전히 웃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그때 실장동무가 진심으로 고마왔습니다. 나는 공장의 책임일군들과 기술일군들에게 이런 말을 하군 합니다.

정신육체적으로나 과학기술적으로 풀기 어렵고 뛰여 들기 힘든 가시밭에서 앞장에 선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쉽다면 무엇때문에 우리 일군들에게 앞채를 메라고 하겠는가. 우리 어깨에 실리는 앞채의 무게-그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떠메고 계시는 조국의 무게와 잇닿은 한줄기이다.

지금 우리 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 전쟁소동 등 온갖 고립압살책동으로 하여 그 언제도 있어 본적이 없는 최악의 난국을 겪고 있는 우리 조국의 앞채를 량어깨에 떠메시고 〈고난의 행군〉을 진두지휘하신다. 장군님께서 떠메신 앞채에 운명을 걸고 자신을 깡그리 바치라. 자기 어깨에 더 많은 짐이 실리도록 하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보다도 나자신에게 하는 충고입니다.》

잠시 말을 끊고 눈길을 내려 뜨리는 그의 얼굴엔 자책의 표정이 어려 있었다.

《사실말이지 우리 장군님께서는 오늘의 조성된 난국을 함께 헤쳐 가시자고 전당 당일군대회를 마련하시고 크나큰 믿음을 주셨는데 그 백분의 일도 보답을 못한것만 같아 죄스러운 때가 많습니다.》

(바로 저것이로구나!)

먹고 자는것마저 잊게 하는 저 사람의 정열과 의지를 떠미는 힘이…그것이 바로 당일군의 자세이고 인생의 신념일것이다.

저런 당일군이 많아야 위대한 장군님께서 떠메신 난국의 무게가 그만큼 덜리울것이 아닌가.

나에게는 모든 일군들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불쑥 일었다.

자신들의 어깨가 더더욱 무겁게 더 많은 짐을 지고 강행군의 앞장에 서라고…

김충일은 담배곽을 꺼냈다. 그리고는 웃주머니와 책상서랍을 여기저기 열어 보았다.

《라이타를 어떻게 했더라?》

라이타는 탁상일력옆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는 탁상일력에 시선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라이타를 발견하지 못한채 탁상일력에 써놓은 사업내용을 보고 급히 송수화기를 들었다.

《김충일입니다…동무네 작업반에서 공업대학 결석생이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요?》

전화를 하면서도 그는 웃주머니를 더듬었다.

역시 사업밖에 모르는《덜퉁한》수재형이다.

무슨 일이든 손에 잡기만 하면 모든것을 잊어 버리고 온 정력과 사색을 쏟아 붓는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다. 사소한 신변다반사에도 빈틈이 없어야 할 당일군으로서 약점이라고 할수 있겠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오히려 그것이 더 마음에 끌리기까지 하였다. 왜냐면 그만큼 자기 사업에 깊이 몰두하기때문이다.

초급당비서에 대해 그처럼 긍지를 가지고 말하던 열처리공청년의 존경심에 의심할바 없는 공감이 가면서 그가 하던 말이 생각되였다.

장군님의 로작들을 토 하나 틀리지 않고 머리속에 새긴다는 사실만 해도 그렇다. 그것이 어찌 단순히 비상한 그의 기억력에 달렸겠는가. 50대의 그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으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떠메신 앞채를 받쳐 드리는 하나의 주추돌이 되고저 밤잠도 줄여 가며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들과 과학기술문헌들을 파고들며 자신의 높은 실력으로 앞채를 메고 강행군대오를 힘차게 이끌어 나가는 당일군.

나는 어쩐지 이 직장, 저 직장에서 라이타며 또 무엇을《잃어》버리고 다니는 그《덜퉁성》이 크고 작은 신변사를 잃어 버리고 오직 당의 뜻을 받들며 로동자, 기술자들속에서 사는 김충일의《흔적》처럼 생각되여 그것이 그에게 더 어울리는것만 같았다. 전화를 끝내고 송수화기를 놓던 김충일은 그제야 라이타를 발견하고 허거픈 웃음을 지었다.

서사시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

이 시를 위대한 수령님 서거 5돐에 삼가 드린다.

신 병 강

이 땅에
흐르는 세월에서
정녕 있어서는 아니될
민족의 대국상으로
하늘땅이 몸부림치던 그때로부터
어느덧 다섯해

어버이를 잃고
피눈물속에 한해를 보낸 인민들에게
수령님의 전사, 수령님의 제자답게
우리 힘차게 일해 나가자시던
장군님의 친서를 받아 안고
온 나라가 산악처럼 일떠서던 그때로부터
어느덧 다섯해

눈물의 바다
피의 바다를 넘어
장군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믿고
시련을 맞받아 헤쳐 온 5년
우리 장군님의 혁명실록으로
만대에 길이 빛날
성스러운 5년

내 군복깃 여미며
조선혁명박물관
《수령님과 전우》관에 들어 서니
오늘도 만경대생가앞에서
백두산전우들과 함께 계시는 수령님
분명 나에게 말씀하시는듯

—시인!
또 나에 대한 시를 쓰려고 하오?
쓰려면 나의 전우들에 대하여 써주오
김혁이, 김책이, 강건, 오중흡…
잊지 못할 전우들이 오죽 많소

용서를 비나이다
수령님이시여!
저 사품쳐 흐르는 대하도
그 시원이 있듯이
수령님 노래로 시작된
전사의 붓
정녕 달리는 갈수 없는
나의 붓

이 아침도
《동지애의 노래》를 싣고 끝없이 설레이는
저 백두밀림의 파도에
어버이수령님을 찾아
금수산기념궁전으로 흘러 가는
저 영생축원의 물결우에
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하늘만리에 붓을 달려도 다 못 쓸
동지를 위한 수령님의 한평생
동지를 위한 장군님의 한평생을
삼가 노래하나이다

×

내 숭엄히
발걸음 옮기며 생각에 잠기노니
수령님과 전우란 그 이름
가슴마다 소중히 깃들은것은
그 어디서부터였던가

광막한 누리를 태우며
주체의 횃불이 타오르던
화전의 그 언덕이던가
《건설동지사》의 이름으로
첫 당조직이 태여나던
카룬의 그 밤이였던가

동지애로 개척되여
동지애로 승리해 온 조선혁명
일찌기 김형직선생님의
동지획득사상을 간직하시고
전 생애를 다 바쳐
동지애의 력사를 창조하신
우리 수령님

하나의 동지를 얻고저
바람 세찬 만주광야 험한 가시밭
사선의 고비는 얼마나 넘으셨고
걷고 걸으신
험로역경의 그 길은 몇만리더냐

동지를 품에 안으시고
동지의 대오를 이끌어 오신 천만리
파란만장의 그 나날에 흘린 피와 눈물
가슴 아픈 희생은 또 얼마이더냐

항일혈전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 새긴
백두밀림 그 어느 지점을 짚어 보아도
천금 주고 살수 없는
위대한 동지애로 수 놓아 진
수령님의 만고풍상의 생애가
오늘도 가슴 사무치게 어려 와
절로 눈시울 젖는 마음

말하라
여기 조선혁명박물관의
《수령님과 전우》관으로부터
저 먼 백두산기슭 삼지연대기념비
이 땅의 무수한 렬사들의 기념비군상들이
어떻게 태여났는가를

말하라
솔 푸른 대성산혁명렬사릉의 반신상과
애국렬사릉의 돌사진…
이 땅의 무수한 교사들과
고향마을에 세워 진 렬사들의 동상
그들의 이름으로 빛나는 명칭들이
어떻게 태여났는가를

아, 동지여!
생전에 우리 수령님

어느 한시도 잊지 못하신
성스러운 그 이름속에
어려 오누나

이역만리 오두막에서
《…너는 김혁
나는 성주》
수령님 남기신 불멸의 그 글발
쏟아 지는 눈물 씹어 삼키시며
숙영지 우등불가에서
수령님 쓰고 쓰시먼
전사의 그 추도문

고인의 가슴에
금별메달 달아 주시며
수령님 하염없이 흘러 내리는 눈물에
젖고 또 젖던 그 손수건

가시는 마지막날까지도
수령님 자신의 금고에 귀중히 간직하셨던
못 잊을 전우의 사진

저 하늘의 수억만 별처럼
동지를 위해 바치신
헤아릴수 없는 수령님의 만단사연을
무슨 말로 다 노래할수 있으랴

혁명의 길에서 잃은
전우들을 품에 안으시고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인간이 겪울수 있는,그 모든 고생
슬픔과 괴로움을 다 체험하신분
언제나 전우들을 생각하시며
잠 못 이루신 어버이수령님

정녕 못 잊으시는
그 마음에서가 아니였던가
수령님 자주
백두산으로 가시였음은—
밀림의 설레임소리만 들어도
전우들의 모습이 어려 온다고
피로써 맺어 진 동지들이여서
세월이 흘러도 전우들의 그 이름
더 밝아만 진다시던
어버이수령님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늘《동지애의 노래》를
록음으로 들으시며
전우들을 추억하시던 수령님
집무를 보시다가는 쌍안경으로
대성산혁명렬사릉을 바라보시였어라

—오늘은 날이 밝아
　정숙동무 모습이 잘 보이는구만
　저렇게 전우들속에 함께 있으니
　정숙동무가 얼마나 좋아 하겠소

—박달이가 떠나간지도
　벌써 수십년세월이 흘렀구만
　그가 광복된 조국땅을
　단 한번만이라도 제발로 걸어 보고
　　갔다면
　내 가슴 이리도 쓰리지 않겠소

—세옥이반신상은
　그가 전사한 대홍단에 세워 주긴 했어도
　자주 꿈에 나타나군하오
　언젠가 대홍단에 갔던 동무들이
　세옥이한테 꽃다발을 못 가지고
　　갔다길래
　내 좀 싫은 소리를 했댔지…

아, 떠나간 백두산전우들을
자신의 곁으로 다 불러 주시고도
전사의 반신상앞에
꽃묶음 하나 없어 주지 못한것이
그리도 가슴에 걸리시여
두고두고 그 일을 잊지 못하신
수령님

조국땅 한끝
두만강변을 지나가시다가도
외국방문의 그날
차창 너머 만주광야를 바라보시다가도
희생된 전우들의 모습이 어려 와서
뜨거이 그 이름들을 되뇌이시며
몸소 차중에서 부르시던
《혁명군의 노래》여!

세월의 백발은 머리우에 날려도
아직도 백두산시절의 나어린 전령병
단발머리 작식대원, 재봉대원인듯
수령님앞에서
투사들 허물이 있었던가
《유격대막냉이》
《유격대꾀꼴새》라
수령님 또한 친근히 불러 주시며
한바탕 오락회도 열어 주실 때면
만강의 연회공연무대가 다시 펼쳐 진듯
수령님께서도 유쾌히
한 곡조 넘기시던 노래

…
총이 없는 어깨엔 새가 앉았네
총이 없는 어깨엔 새가 앉았네

아, 이것이였구나!
피줄을 이은 혈연관계도
나이와 직권도 초월한
인간 김일성동지를 따르는
사상의 한뜻
마음의 한뜻

수령님과 전우의
그 숭엄한 세계를 펼쳐 주는가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그날의 소박한 연회장에서 있었던
가슴 뜨거운 사연
오늘도 천만심장을 울리고 있어라

…
그 몇번째
로투사는 자리에서 일어 나
수령님께
간절히 아뢰는것인가
—수령님!
　꼭 한마디만 할수 있게
　저에게 언권을 주십시오

로투사의 그 마음
수령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였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가 말문을 열면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는지…

—김일동무
　이 좋은 날 또 사람들을 울리겠소?
　오늘은 마음껏 들고
　마음껏 웃으면서
　좋은 이야기나 나눕시다
　어떻소? 동무들의 생각은…

그러자 투사들
한결 같은 의사를 담아
수령님께 말씀 드린다

—수령님!
　수령님앞에서야
　울면 어떻고 웃으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만 할수 있게
　언권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단 말이지…
　언권을 주되 요구조건이 있소
　그것은 짧게 그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엄금할것을 담보한 조건에서
　나는 김일동무에게
　언권을 줍니다

드디여
자리에서 일어 난 로투사
어찌하여 이 순간
《동지들!…》
이 한마디 말문을 열고는
못 박힌듯 서만 있는가
부르르 떨리는 입술…
흘러 내리는 눈물…

간고한 항일의 혈전만리
한지에서 잠 못 자고 굶으며
풍찬로숙으로 이어 진
수령님의 만고풍상의 생애가
가슴 저리게 어려 와서인가

달리는 말파리우에서
수령님 고열속에 부르시던
《반일전가》의 노래소리…
천교령의 눈보라가
다시금 눈앞에
회오리쳐 오는가

호곡하는 빙천설지에서
대원들에게 나누어 주시던
한홉의 미시가루
쉰개 가루봉지이야기…
적후공작 나간 대원들을 기다리시며
꺼질줄 모르던 사령부귀틀집 불빛
장작불에 달아 오른 난로우에
온밤 끓던 물주전자…

아, 백두산에서
20대 청년장군을 맞이하던
그날의 환희가 어제련듯
아직도 가슴에 젖어 있는데
우리 수령님 머리우에
흰서리가 무슨 말인가
로투사는 북받치는 오열을 터치여라

—동무들!
　우리가 일찌기
　수령님을 모시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될번 했는가
　태양이 없이야 조선이 뭐고
　인민이 뭐겠는가…
　우리 이걸 똑똑히 알고
　백골이 진토가 된다 해도
　수령님을 천세만세 잘 모셔야 하오!

여기저기서 흐느낌소리…
장내는 격정의 파도로 설레인다
수령님 격하신 감정 애 써 누르시며
호탕히 웃으시며 하시는 말씀

—내 이럴줄 알았다니…
　이제는 내가 동무들에게
　《언권》을 얻고
　좀 이야기하자고 하오!

아, 수령님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 서신다
흘러 간 한평생을 돌이켜 보시는
뜻 깊은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 있으랴만
수령님 하시는 말씀은
동지들에 대한 이야기

만경대를 떠나 혁명의 길에 오르시여
지하투쟁을 할 때나
무장투쟁을 할 때나
동지들은 나를 도와 주고
나를 극진히 보호해 주었다고

—그들이 뭐
　내가 앞으로 수상을 할줄 알고
　그렇게 한것은 아니야
　순수 동지적의리지
　이게 바로 동지애라는거야…
　광복후에도
　동무들은 정숙동무를 못 잊어
　모란봉에 있는 그의 묘소를 찾아 갔고
　남 몰래 눈물도 흘렸소
　그옆에 자리를 펴고 누워
　온밤 이야기를 나눈 동무들도 있었지

　동무들은 내가 없이는
　못 산다고 했는데
　나도 동무들이 없이는 못 살아
　동지가 없이
　무슨 혁명이고
　무슨 락이겠는가…

아, 뜨거운
뜨거운 수령님의
그 말씀 들으며
투사들 또다시
진정의 눈물을 쏟았어라

수령님 한평생 간직하신
동지애, 전우애는
나라와 민족이 따로 없고
국경의 한계가 없었으니
우주와도 같이 넓으신
그이의 품에서 동지는
천사람도 적었고
만사람도 적었어라

오늘도 대동강반의 주체사상탑
저 3인군상이 높이 든
성스러운 마치와 낫과 붓이
수령님과 함께 찍은
그날의 못 잊을 사진들이
그 사연 다 말해 주는가

수령님 환히 웃으신다
쇠물이 끓는 전로앞에서
나는 동무를 믿는다고
한 로장의 손을 억세게 잡아 주시며

이 동무는 토지혁명때부터
내가 잘 알고 있는
오랜 농촌혁명가라고
자신의 곁에 세워 주시며

이 동무는 비날론을 발명한
공로 있는 과학자라고
몸소 축배잔을 부어 주시며…

수령님 두팔을 벌리신다
너의 아버지 장울화는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도와 준
잊을수 없는 동지라고
그 자손들을 한품에 안으시며

애국을 바라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차별없이
과거를 백지화해 주시며
그날의 화성의숙
새날소년동맹시절의
변함 없는 그 마음으로
인생고희에 백발을 날리며 찾아 온
해외동포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수령님 손을 높이 드신다
반제전선에 함께 서 있는
우리의 친근한 전우라 하시며
우리 나라를 찾아 왔던
수많은 외국의 벗들의 손을 잡고
뜨겁게 흔드시며…

내 시인의 자격으로
필봉높이 웨치노니
이 세상 또 어데 있었던가
우리 수령님처럼
출중한 인품과 인정을 지니신분
우리 수령님처럼 동지가 많아
동지부자가 되신분!
전대미문의
동지애의 업적을 이룩하신분!

수령님을 잃고
눈물의 바다를 이룬 세계
지구의 꽃들을 다 꺾어 안고
수많은 나라 조의대표단들이 앞다투어
조선의 대사관으로
평양으로 달려 온 꽃바구니들—
어찌 그것이
령전에 놓여 지는 화환의
  꽃이라고만 하랴

그것은 수령님의 인정미
한 없는 동지의 사랑이
이 지구우에 피여 올린
수령님의 인간만세
동지만세의 대화원이였어라

우리 수령님
항일의 혈전속에서 피를 뿌리시며
씨앗처럼 묻으시고 가꿔 오신
그 동지애의 숲은
시련의 폭풍만리에 우후죽순처럼 자라
무성한 밀림으로 파도쳐 설레인다

동지를 위해 피바다 천만리
동지를 위해 불바다 천만리도
서슴없이 웃으며 헤쳐 갈
수천수만의 혁명전우들을
우리 수령님 80평생
위대한 혁명유산으로 이 땅에 남겼어라
조선혁명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였어라

×

뜻과 인덕으로 벗을 얻고
동지를 얻는것이 혁명가라 했더라
팔백금으로 집을 사고
천금으로 이웃을 산다고 하였지만
천만금을 주고도 못 사는것이 동지
오직 사랑만이
동지를 얻는 유일한 길이여서
혁명은 곧 사랑임을 선포한
우리 장군님의 혁명철학

한번 손을 잡아도
억세게 틀어 잡으시는 그 손길
한번 그러안아도
철철 정이 넘치시는 그 품

동지를 위해 바치시는 사랑
어쩌면 꼭 수령님 같아
동지를 위해 바치시는 믿음
어쩌면 꼭 수령님 같아
운명도 미래도 그 품에 맡기고 따르는
위대한 동지!

그대들 나를 믿노니
나도 그대들을 믿는다는
나뽈레옹의 말을 타매하시고
나는 그대들을 믿는다
그대들도 나를 믿으라는 믿음의 정치로
천만전사들 슬하에 품으신
그이는
최고의 동지부자
동지애의 최고화신

그이는
혁명전사들의 수첩에
함께 찍으신 사진뒤에
올려 오는 보고문건들에
동지애로 뜨거운
사랑의 친필을 남겨 주셨다

《영원히 한길에서》
《너는 허담…
나는 정일…》
《수령님을 모시고 너와 나》
…

가는 혁명의 길에
우여곡절이 있고
뜻하지 않은 사변이 일어 난대도
다진 맹세 변치 말고 지켜 가자시던
그날의 장군님 사랑과 믿음이여!

그이는 최고사령관이시기전에
우리 모든 전사들의 친근한 동지
초소를 찾으실적마다
만나는 전사들에게 하시는 첫 인사도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드시는 축배의 인사도 먼저
《동지들의 건강을 축복합니다》
어깨를 겯고 부르시는 노래도
《동지애의 노래》

정의인 열의인으로 끓어 번지시는
뜨거운 그 심장이기에
동무도 살을 째이면 피가 나오고
가슴을 헤쳐 보면 심장이 있을 인간인데
인간이 어쩌면
그런 목석인이 되였는가고
가슴 아파 하시는분

때로 편협한 일군들이 올린
료해자료를 보시고는
나는 이 동무를 믿는다고
이 동무는 수령님께서 키우신 사람이요
결함이 있으면 고쳐 주자고 해야지
목을 떼자고 해서야 되겠는가고
준렬히 일러 주시는분

설이면 설마다
그리고 생일날마다
백두의 전사들을 잊지 않으시고
수령님을 모시고 싸워 온
우리 혁명의 원로라 하시며
사랑의 선물도 보내주시고
혁명선배를 끝없이 존대하신
우리 장군님!

아 목 메여
내 다시금 불러 보노라
수령님의 오랜 전우!…
우리 당이 존경하는 동지!…
나의 가장 친근한 동지!…
당신의 젊은 동지 !…

천만번 되새겨도
그 뜻 바이 헤아릴길 없는
위대하고 성스러운
동지의 이름으로 빛나는
그 부르심이여!

그이는
동지의 이름으로 수술립회도 서시였고
환자의 소생을 위하여
당중앙 정치국회의도 미루시였다
그이는
동지의 그 이름으로
국경을 넘어 날으는
특별비행기도 띄워 주시였다

그이는 오직
동지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분
동지를 위해서라면
하루밤에도 천리길을 가시는
특유한 동지애의 소유자
동지를 위한 일이라면
육탄이 되여 나서시는
동지애의 화신

그이는
그 인정미로
천만시련도 이겨 나가시고
그 인정미로
천하를 얻으시는 분

하기에
병을 완치하고 돌아 온 로투사
수령님께 인사를 드릴 때

그를 안아 일으키시며
수령님께서 말씀하셨어라

인사는 나보다 **김정일**동지에게 하라고
만신창이 되였던 동무를
김정일동지가 살려 냈으니
웅당 동무는 두귀를 잡고
그에게 절을 해야 한다고—

이 시각 나는 생각하노라
광복된 조국땅
수령님 품속에서 어엿이 자란
군관학교 졸업생들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계시는
어머님 영상을

이 기쁜 날을 보지 못하고 간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리도 머리를 들지 못하시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던
김정숙어머님

누구보다 인정이 많으시고
동지를 사랑하는것이
만경대일가분들의
천품이고 래력이여서
우리 수령님
우리 어머님
그리도 눈물이 많으셨던가

생전에 수령님
자주 말씀하시였더라
나도 항일무장투쟁시기
동지들을 잃고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김정일동지는 나보다 더 눈물이 많다
난 눈물이 많은 사람이 좋아!…

그렇다
령장이 흘리는 눈물
그것은 단순한 사랑과 동정
인정세계에서 흘러 나오는
그런 눈물이 아니여라

그 눈물은
혁명의 한길에서 맺어 진
뜨거운 인정
뜻을 같이하는 서로의 가슴들에 지닌
심장과 심장이 분출하는 그 모든것을
천배, 만배로 더한
가장 고귀한 감정의 결정체

불 같은 인정이 없고
심장이 찬 랭혈의 인간들은 감히
  흘릴수 없는
혁명가의 깨끗한 량심이며
가장 위대한 사랑의 정화

사람들이여!
그대 주작봉마루로 오르라
거기서 숭엄히 울려 나오는
추도가를 무심히 듣지 마시라
추도가가 들려 주는 그날의 사연
다시금 심장에 새겨 안으시라

수령님의 오랜 전우이며
우리 당에 충실한 로투사를
혁명렬사릉에 안장하고 내려 온
그날의 그 저녁
수령님은 전화로 장군님을 찾으시였다

그 순간
수령님 드신 송수화기에서 들려 오는
비장한 추도가소리…

수령님은 다 아시고 계시였다
그처럼 우리 혁명의 원로로
수령님의 오랜 혁명전우로 존경하던
로투사를 잊지 못해
빨찌산추도가와 더불어
충신의 한생을 추억하시며
집무실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고 계실
우리 장군님의 절통한 마음을

장군님 록음기를 끄시려 하자
그냥 놔두라고
우리 함께 추도가를 들으며
고인을 추억하자고
수령님 뜨겁게 말씀하시며
송수화기를 드신채 그냥
장군님 집무실에서 울려 나오는
추도가를 들으시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실 때
아, 인민은
뜨거움의 눈물을 삼키며 함께 듣고 있었다
위대한 두분이
몸소 송수화기를 드시고 들으시는
빨찌산추도가, 추도가…

그 추도가를 들으며
심장으로, 심장으로 우러르고 있었다
천년바위도 녹여 낼
쇠물같이 뜨거운
한없이 숭엄한 그 눈물…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
위대한 동지애로 넘치시는 위인상을!
묻노니 사람들이여!
얼마나 많은 전사들의 령전에서
목 메여 추도문을 읽으시며
우리 장군님
이런 눈물을 흘리셨더냐

전사의 희생이
너무도 믿어 지지 않아
한달음 달려 오신 그이
자는듯 누워 있는
고인의 가슴을 애 타게 흔들며
크나큰 슬픔을 터치시던
장군님

—나를 만나면
  그렇게도 반가와 달려 오던 동무가
  왜 그냥 누워만 있소?—
  끝까지 혁명을 하자고
  우리 서로 다짐하고서
  이렇게 중도에서
  먼저 가는 법이 어디 있는가
  허—담—이!…

사랑하는 전우를 떠나보내며
찾고 또 찾으시던
수령님의 그 목소리인가
뜨거운 심장이 터치는 그 눈물로
장군님은 다 바래주시였다
대오를 떠나가는 수많은 전사들을

아, 그날에 높이 울리던
추도가의 장중한 군악이여!
거수경례를 높이 올린
륙해공군 장병들의 기나긴 행렬이여!
연도를 따라 지축을 울리며 나가던
장갑차의 우람찬 메아리여!

동지여
너 이 사랑 다 알기나 하고 가는가…
하염없이 흘리는 눈물을 훔치며
그날에 우리는 보지 않았던가
화환에 드리운 붉은 댕기에 빛나는
《**김정일**》
태양의 그 존함을

정녕 그 댕기는
전사의 영생을 노래하며 힘차게 나붓기는
혁명의 붉은 기폭이였고
그것은
생사운명을 같이 할전우들의
영원한 동지애의 노래였다

그이는 오늘도

전사들을 위해 최고사령관도 있다시며
명령과 복종관계가 아닌
혁명전우관계로 여기시며
보통병사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담배도 나누어 피우시고
야전식사도 함께 하신다

감나무중대
소박한 병실마당가에서
쌍둥이 오누이와
기념사진도 찍어 주시고
녀병사의 고향을 찾아
부모도 만나주신다
발전소건설을 다그쳐
전기난방화가 실현되면
하루밤 병실에서 쉬여 갈수 있게
자신의 잠자리도 정하시고
훈련장의 병사들과 함께
가마마차의 밥맛까지 들어 보시겠다
간곡한 당부도 하신다

한생 군복을 입고 초소를 지키느라
언제 한번 동부인해 보았겠는가
좋은 공연이 있을 때마다
친히 조직해 주신 부부극장관람이여!
목란관연회여!

최고사령부 작식대원
남편들과 한전호에서 싸울
영원한 혁명동지, 혁명전우가 되라고
친히 마련해 주시는
군인가족예술소조축전무대여!

싸움의 그날에도
전사들을 화선휴양에로 부르시던
수령님의 그 사랑을 주시는듯
전쟁의 불구름이 몰아 오던 그날에도
전선을 차지해야 할 군지휘성원들을
동해명승지로, 백두산혁명성지로
　불러 주신
위대한 사랑이여!

—내가 왜 동무들을 이렇게 해주는가
　앞으로 전쟁이 일어 나면
　제일 먼저 전선으로 나갈 동무들인데
　혹 다시 못 볼 동무도 있지 않겠는가…

아 전화의 날
김책에게 꿰진 양말을 신겨 보낸것이
그리도 마음에 걸리시여
두고두고 외우시던 수령님 그 마음으로
오늘에 주실수 있는 사랑을 다 주시여
후회 없을 마음만을 안고 계시려는

장군님의 그 인정의 세계를
우리 그 무엇으로 다 헤아릴것인가

수령님 한평생 안고 계신
애정과 소원을
선군혁명령도의
장장만리길에 이어 놓으시고
이 나라 고지와 고지
전사들이 있는 하늘, 땅, 바다초소에
위대한 동지애의 서사시를 수 놓으신
우리 장군님

사랑의 그 길에 울리신
우리 장군님의 말씀
천만의 가슴을 저민다
—어제도 자동차안에서
　잠간 눈을 붙이다 말았습니다
　잠을 한번 마음껏 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조국이여!
인민이여!
장군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는가

두어깨에 실리신 혁명의 중하가
그 얼마나 크시였으면
이제는 쪽잠마저 잊으셨단말인가!—

목 메여라
아, 우리는 그날에
최고사령관동지도 군인이 아니십니까
식사시간에 식사를 하고
잠 잘 시간에 잠 자는것이 군인인데
어찌하여 장군님만은
그리도 군사규정을 어기시는가고
너와 나 한마디 말씀도 올리지
　못했단 말인가

아 동지를 찾아
사선의 천리도 지척인듯 가시던
수령님모습으로
전사들을 찾아
막아 서는 사나운 풍랑도
백설준령도 다 넘으시여
언제나 전사들속에 계시는분!

그 사랑이
동지애의 석축이 되여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허물수 없는
결사옹위의 만리성벽을 쌓았다
그이 타신《동지행》렬차를 따라
이 땅에 충성의 천만 대오가

용암의 파도마냥 굽이쳐 흐른다

《동지행》렬차를 타시고
이 나라 전선천리
수령님 걸으신 초소길 다 걸으시고
수령님 만나주신 전사들 다 만나주시며
수령님의 생전의 뜻 이어 가자고
그이 부르시는《동지애의 노래》

그처럼《동지애의 노래》를
사랑하시는 그이이시기에
총비서로 추대되신 그날에도
어버이수령님을 못 잊어
수령님 즐겨 부르신
《동지애의 노래》를
당보에 싣게 하여 주셨나니

이는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위대한 혁명동지이신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가장 깨끗한 충성의 선물
가장 숭고한 경의의 표시
그이의 영원한 동지가 되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맹세가 아니던가

그렇다
한별의 노래높이
동지애로 개척되여
동지애로 승리해 온 우리 혁명이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진 맹세 변치 말자
동지애로 만난시련도 이겨 나가며
동지애로 최후승리를 이룩할
우리 혁명이기에

장군님은 천만의 대오앞에
김혁이, 김책이를 세워 주시며
리수복, 길영조, 김광철을 따라 배우라고
《동지애의 노래》를 선창하신다
온 나라의
《동지애의 노래》합창을 지휘하신다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것이 혁명적동지애라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것은
동지에 대한 배신과 변절이여라

오늘도
주작봉마루에 펄럭이는
이 대리석붉은기는 선언하는듯
동지의 의리를 목숨으로 지킨자

이 붉은기아래 들어 설 자격이 있고
동지의 의리를 버린자
백두산권총앞에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우리 수령님
백두산에서 지고 오신 배낭
열혈충신들의 넋이 꽉 들어 찬
동지애의《큰 배낭》

그 배낭을 벗지 말고
그 배낭을 더 억세게 메고
백두에서 시작된 혁명의 길
수령님뜻을 받들어 끝까지 가자고
충신들의 넋을 심장마다 심어 주시고
동지애의 천만대오를 이끄시는
우리 장군님

동지애는 혁명가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금석
진짜 충실성은 진심으로 다져 지고
가짜 충실성은 변심으로 흩어 지거니

죽어도
수령님을 찾아 가서 혁명을 하다
백두산에 묻히고
백번 다시 죽어도
수령님 슬하에서 싸우다 그품에서
　순직하겠다던
투사들의 불변억척의
그 신념을 가슴에 안으라

사상과 뜻을 같이한
진짜 동지들이 있고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심으로 뭉친
단결의 힘만 있으면
천만대적이 무엇이랴

불순물이 제거되여
강철의 순도가 높아 지듯
혁명의 배신자들이 떨어 져 나갈수록
우리 당
우리 사회주의는 더 강대해 졌다
장군님 두리에 의리로 뭉쳐 진
일심의 대오, 충신의 대오는
백배, 천배로 더 순결해 지고
더 굳건해 졌어라

그렇다
동지애의 세계로
전당과 온 사회를 이끄시여
수령님 유산으로 남기신

내 나라, 내 조국을
강성부흥의 대국으로 건설하고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도
　이룩하시겠다는것이
장군님 지니신 확고한 의지
드팀 없는 신념

우리는 총대높이 맹세한다
설사 누가
우리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고
우리의 목을 베고 심장을 찔러도
백두의 용암인양 펄펄 끓는
의리의 붉은 피만을 분수처럼 내뿜는
장군님의 열혈충신이 되리라
장군님의 동지가 되리라

우리의 의리는 총대처럼 곧고
우리의 의리는
백두의 령봉처럼 불변하다
우리의 의리는
천지의 맑은 물처럼 순결하고
우리의 의리는
백두의 해돋이처럼 열렬하다

우리의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 자폭정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매혹과 숭배의 바다에
그 깊은 뿌리를 두었거니
준엄한 결전의 그날이 오면
수천만 군대와 인민은 어깨성을 쌓고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리수복형의 육탄영웅
길영조형의 자폭용사가 되리라

아, 성스러워라
우리의 이 맹세는
꽃바람 부는 평온한 날에 다진 맹세가
　아닌
피눈물을 씹어 삼키며 수령님령전앞에
　다진 결사의 맹세여서
어기면 역적이 되고
지키면 충신이 되는
가장 숭엄하고
가장 뜨거운 심장의 맹세

그 맹세를 지켜
장군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믿고
우리 당과 인민이 싸워 온 5년은
500년
5천년과도 맞먹는

위대한 승리의 5년!

우리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고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우리의 친근한 동지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무한히 아끼고 따르며
백전백승 그이의 령도 따라
모진 시련의 광풍을 쳐몰아 내고
강성대국의 찬란한 전망을 열어 제낀

주체가 승리한 5년!
선군령도가 승리한 5년!
자력갱생이 승리한 5년!
위대한 동지애가 승리한 5년!

내 지금
만수대언덕에서 바라보노라
우리 수령님 락관하신
태양의 세기-**김정일**세기
21세기의 찬란한 미래를

보노라
위대한 장군님 계시여
수천수만 동지의 대하가 굽이치는
이 땅의 장엄한 흐름을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흐름
일찌기 백두산을 떠나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장군님을 따라 천만리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의 길을 함께 가는
일심단결의 대오
세기와 세기를 넘어
태여나고 태여날 후손들도
영원히 동지애의 세계속에 살리라

삼천리여
온 세계여
우러르라
눈길 들어 우러르라
해빛 눈 부신 만수대언덕
천만 동지의 대오를 거느리신
우리 수령님 거연히 손길 드시고
동지애로 시작된 조선의 대행진을
동지애로 더욱 빛날 새 세기
김정일세기의 대통로로 인도하시며
온 세계 자주화위업을 이끄신다
동지애의 력사는
후손만대에 영원하리라!

(주체88. 6. 16)

장시

인민의 어머니

— 이 시를 빨찌산의 어머니 김정숙동지의 서거 50돐에 드리노라 —

정은옥, 김은숙

꽃이 피면
송이송이 꽃속에 그립고
눈이 오면
송이송이 눈속에 못 잊는 어머니

눈 부신 9월의 해빛속에
더더욱 그리워
못 견디게 그리워
우리 삼가 꽃을 안고
여기 주작봉마루에 오르나니

한층계 또 한층계
오르고 오를수록
어머니생각 더해 져
숭엄해 지는 마음들

머리 흰 로인들도
붉은 넥타이 아이들도
금별이 빛나는 병사들도
어깨 나란히 오르는 그리움의 산마루

뜨거운 마음과 함께
소리없이 놓이는 꽃송이
그리움에 젖는 꽃송이
우리 삼가 놓으려니
선뜻 놓을수 없구나

놓을수 없어
쉬이 놓을수 없어
꽃을 안고 어머니모습 우러르니
오늘도 붉은 기폭앞에
수수한 저고리를 입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

흰머리칼 한오리 없지 않은
푸르청청한
그 젊으신 나이
우리와 같은 서른두살에 가신 어머니

그처럼 높은 뜻을 펼치셨어도
수수한 저고리를 입고 계시는 그 모습
어머니는 한생
너무도 소박한 생활을 하시였구나

묻노니 세월이여
누구보다 고생 많아
누구보다 오래오래 사셔야 할
우리 어머니
어이하여 그리도 일찍 가셨던가

눈길 들어 바라보니
회령은 구름너머 저 멀리
6살 애어린 시절에
짚신 한컬레 보짐에 넣으시고
차디찬 두만강을 건느신 어머니

어려 와라
설음 많던 타향길을
광복의 봄길로 이어 놓으시려
14살 우리 어머니
혁명의 총 잡고
빨찌산녀장군의 첫 자욱 새기신
백두의 산발들이

말해다오 세월이여
눈보라 울부짖던 천만산악우에
뜨겁게 새겨 진
어머니의 천신만고의 그 자욱자욱
그 어느 혈전의 바위아래
그 어느 숲속엔들
그 자욱 찍히지 않았으랴

그 어느 얼음장아래
그 어느 작식터엔들
그 손길 가닿지 않았으랴

높고 험한 산이란 산은
다 밟으시고
차디찬 눈이란 눈은
다 맞으시며
백두의 만고풍상을 헤쳐 오신
우리 어머니

그 만고의 풍상엔
잊지 못할 사연이 많아도
이 주작봉마루에서
내 마음에 얹어 보는
빨찌산시절의 목도리

잊을수 없어라
잊을수 없어라
도천리지하공작임무를 주시던 그날
어머니께 하신 수령님말씀

—정숙동무
  위험한 적후로 보내는 동무에게
  내 줄것이 없구만
  이제는 락엽지고 찬바람도 부는데
  이 털실로 목도리라도 떠서 쓰오

아 괴어린 백두산에서
천만 고생 다하는 어머니에게
이 세상 억만금도 주고 싶으신
수령님이시였건만

너무도 간고하고
너무도 어려웠던 그 시절
수령님 안겨 주신
소박한 밤빛털실 한토리

그 털실로
달 밝은 밀영의 밤에
어머니 뜨고 뜨시던 목도리
지하공작의 나날
사령부의 불빛이 그리울 때면
품에 안고
뜨거운 눈물 흘리던 그 목도리

우리 어머니
그 목도리
공작지에서 돌아 와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서거 50돐에 즈음하여 150여편의 시가작품창작발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서거 50돐에 즈음하여 우리 인민의 한결 같은 뜨거운 마음을 담아 백두산녀장군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150여편의 시가작품들이 훌륭히 창작발표되였다.

헌시《영원히 인민의 마음속에》와《영원한 어머님 모습》,《숙영지에 계시는 어머님》,《총대로 빛내신 삶》,《틀어 쥐신 총》,《훈련기지의 밤은 깊어 가도》,《영원한 해발로》등의 시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오신 백두산녀장군의 위대성을 잘 형상하였다.

특히 장시《영원한 호위장군》과《사령부와 함께》,《백두산에 남아 있는 목소리》,《북야영의 그 밤에》등의 시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백방으로 옹호고수하시고 수령님의 안녕을 목숨으로 보위하시는 김정숙동지의 모습, 친위전사의 숭고한 모습을 형상한것으로 하여 만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해주고 있다.

혁명의 폭풍속에서 조선혁명의 창창한 미래를 안아 키우시여 우리 민족이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며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 나갈수 있게 하여 주신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업적은 김일성조선과 더불어 길이 빛나리라는것을 격조높이 노래한《소백수》,《백두밀영고향집》,《어머님 기뻐 하십시오》등의 시들도 훌륭히 창작되였다.

《집삼마을》,《금강의 단풍》,《어머님 금천벌을 찾으시였네》,《부령에서 바라보니》,《어머님께서 찾아 오신 그날은》,《만경대의 버드나무야》등의 시들은 항일의 나날에 이어 새 조국건설에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고결한 인민적풍모에 대하여 감명 깊게 형상하였다.

새로 창작된 시들중에는《내 나이 들어 갈수록》,《친위전사의 그 길을 이어》,《조국진군길에 우리 마음 따라 세우며》,《우리는 회령을 떠나지 않았다》를 비롯하여 백두산녀장군의 숭고한 넋을 이어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갈 우리 인민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보여 주는 작품들도 많다.

또한《영원한 우리 어머니》,《어머님을 불러 보면》,《김정숙어머님은 조선의 녀장군》,《최고사령관기의 원수별》,《백두의 후손들이 그품에서 자라났네》등의 가사작품들도 창작완성하였다.

시가작품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따라 배워 당과 수령에게 충성 다하는 열렬한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며 제2의 천리마대진군으로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쳐 나가는 우리 인민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에로 힘 있게 고무하였다.

어떻게 하셨던가

박달나무도 얼어 터지는
백두의 모진 추위속에서도
한겹 군복을 입으시고
눈보라 만리길 걸으시는 수령님

그 모습 마음속에 아프게 밟혀 와
도천리로 떠나시던 그밤처럼
밀영의 우등불아래서
풀고 푸시여 한뜸두뜸 떠올리신
사령관동지의 겨울내의

그런데 몇해가 지나
그 겨울내의 다시 풀릴줄
우리 어이 알았으랴

백두의 하늘가에 쌍무지개어리고
소백수기슭엔 버들개지 피여 나던
2월의 그날
수령님께서 내놓으시는 그 내의
어머니 다시 풀어 뜨신
크지 않은 뜨개포단

몇번이나 다시 풀고
몇번이나 다시 뜬 그 목도리에
다 어려 있구나
이 나라 빨찌산 3대장군의
고난의 력사가

그 고생을 얼마나 못 잊으셨으면
우리 수령님
금수산집무실 창가에서
주작봉마루의 어머니모습을
자주 눈물겨워 바라보셨으랴

바라보시면
권총을 비껴 들고
원쑤의 총탄을 막아 서던
친위전사의 모습이
다시금 가슴에 뜨거우셨어라

바라보시면
젖은 행전 품에 안고
눈보라속을 헤쳐 가던 녀전사
추위에 온몸이 얼어 드시던 그 모습이
다시금 아프게 어려 왔어라

천이 걷고 만이 걸어도
다 대신할수 없었던
어머니의 그 자욱자욱은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을 위해 조국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인민의 어머니의 불멸의
 한생이였거니

그 자욱을 따라서
수령님 받드는 천만의 대오가 왔고
오늘은 그 자욱 이어서
장군님 따르는
일심의 대오가 굽이쳐 가나니

세월이여
이 하늘 이 땅에 새겨 진
어머니의 그날의 자욱자욱을 쓰다듬는
9월의 해빛은
어머니의 미소에 실려 와
이리도 밝고 따뜻한것 아니더냐

우러르면
정 깊은 눈길
붉은 별 군모아래
백화처럼 환하게 웃으시는
빨찌산의 어머니
이 세상 제일 아름다운 우리 어머니

다는 몰랐구나
천품인줄로만 생각했던
그 해빛 같은 웃음속에
얼마나 크나큰 육체적고통을 감추고
　사셨는지

그날엔
세월도 몰랐던 아픔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야 우리 알아
세상에 알리노니

광복된 그 이듬해
해방산언덕에
민주의 새 노래 울리는데
점심무렵 택에 들어 오신 수령님
조용히 울리는 발걸음소리에
밖을 내다 보셨어라

그런데 어인 일인가
장에 갔다 오시는듯
나물바구니를 드신 어머니
조심조심 발끝으로
아픔을 참아 가며
애 써 걷는 그 모습이여

—정숙동무
　왜 그렇게 걷소?
　발을 편안히 땅에 짚지 못하고…

우렁우렁한 음성에
걸음을 멈추신 어머니
밝은 웃음을 지으시며
나직이 드리는 말씀

…별일 없습니다 장군님

어머니는 태연하셨으나
이마에 내돋는 땀방울 땀방울
손에 드신 봄냉이나물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수령님
그이는 모든것을 다 알아 보시였다

피 어린 백두의 전장을
앞장에서 달려 온 녀전사
그 장설속에
발뒤축이 얼고 터지여 땅을 짚을수 없어
발끝으로밖에 걸을수 없었던것을…

이제는 광복된 땅
백두산에서 언 상처 다 녹이고
백두산에서 쌓인 로고 다 풀고
고생끝에 오는 락 한껏 누리며
이 땅 이 대지를 보란듯이 활보하시면
아니된단 말인가

하다면 우리 수령님마음
그렇게는 아프지 않으셨으리

아, 수령님눈가에
소리없이 맺히는 뜨거운 이슬
흐려 지는 눈앞에 어려 오는
못 잊을 추억의 산발들이여!

세월이여
건국의 그 기슭에서 너는 보았으리
우리 어머니 그 몸으로
보통강개수공사장과
풍년모내는 봄들판에서
이 나라 첫 대학의 건설장에서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또 보았으리
땅크병들
비행사들속에서
포병들의 사격훈련장에서
첫 군관학교의 졸업식장에서
장병들과 함께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렇게 사시며 그렇게 고생하시며
빨찌산의 숙소나 같았던
해방산의 작은 집에서
젖은 손 언제 한번 마를새 없었던
우리 어머니

수령님의 생활비를
쪼개여 차려 주신

콩나물잔치상은 그 얼마
손끝에 멍이 들도록
밤 새워 지어 주신
만경대원아들의 옷은 또 그 얼마

오 그런 밤이면
그렇게 밤을 새울 때면
너무도 저린 무릎
그 아픔을 참으시느라
온 밤 주무르시며
조용히 두드리시던 그 다듬이질소리
오늘도 우리 가슴에 울려 오누나

인민을 위한 고생을
락으로 여기시며
인민을 위한 고생을
사서 하신 우리의 어머니시여

그래선가
쉽게 놓을수 없구나
선뜻 놓을수 없구나
위대한 어머니의 서른두해 생애앞에
너무도 가벼이 얹을수 없는 꽃이여
어머니 불멸의 생애앞에
너무도 소박한 우리의 꽃이여

가슴 뜨거워라
영생의 산상에 서신 오늘도
너무도 수수한 치마저고리차림새
이룩하신 업적은 하늘에 닿았으나
생활은 그렇듯 소박하신 어머니

어느 해 가을날
수령님과 어머니
경치 좋은 금강산을 보시고
좋은 날, 좋은 철에 어서 오시라고
강원도인민들이 보내온
금강산풍경병풍

그 병풍을 쌌던
수수한 보자기천이
광복된 조국땅에서
어머니의 처음이자 마지막옷이 될줄
어이 알았으랴

나라가 아무리 갓 광복을 맞았어도
어떻게 보자기천을 물들여 가지고
옷을 해입겠는가고
녀투사들 눈물겨워 말씀 올렸건만

이렇게 하면
내가 해입을 천이 한감 절약되여
인민들에게 옷감 한감이

더 차례지게 할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머지 않아 인민들이 잘 살 때에
우리도 비단옷을 해입자고
웃으시며 말씀하셨나니

어머니는
수령님 인민을
한집안식솔로 안으시고
어머니란 그 이름을
인민을 키우는 사랑으로 빛내주시였어라

진정 바람 세찬 타향에서 부모를 다 잃고
피눈물속에 헤여 진
언니와 조카에게 주고 싶으신 그
　사랑까지 합쳐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에게
천으로 만으로 더 기울여 주신 어머니

광복의 그 해가 저물어 가던
눈 내리는 그밤
이름 없는 산야에 선혈을 뿌리고
조국에 돌아 오지 못한
전우들의 그 모습을 그리며
수령님은 풍금을 타시고
어머니는 눈물에 젖어 부르시던
　그 노래소리
세월이여
너는 그 어느 갈피에 간직했느냐

광복된 조국의 첫 선거장
인민주권을 받드는
뜻 깊은 그날에
제일먼저 투표하셔야 할
어머니이시였건만

찬바람에 건강을 념려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백두산에서 단련되여 일 없다고
많은 사람들과 꼭같이 줄을 서서
한시간반을 기다리시다
투표를 하시였거니

인민을 위한 길에선
단 한번의 특혜도 받지 않으신
우리 어머니는
정녕 이런 평민생활을 하시였구나

아, 그래서
가시는 한생의 마지막밤마저
병상을 돌보러 온 의사를
인민이 기다린다시며
병원으로 되돌려 보내시고
모진 아픔을 이겨 가셨던가

말해다오 세월이여
피눈물의 소나기가
하늘땅을 적시며
가슴을 찢던 50년전
그 9월 22일

왜놈세상에서
어혈든 병을 고치고
인민들이 무병장수를 누리라고
적십자병원자리도 잡아 주시고
건설장에서 흙짐도 지시더니
자신의 아픔은 인민이 알세라
왜 그리도 깊이 묻어 두시였던가

빼앗긴 조국을 찾으려
백두산에서 천만고생을 하시고
수령님 뜻을 받들어
건국의 초행길 걸으시며
첩첩중하를 이겨 내시느라
너무도 컸던 그 로고
그 로고로
서른두살이 그만 한생으로 된 어머니의
　생이여

그래서
이 좋은 세월에
100돐 장수자들의 모습을 볼 때면
어머니생각이 간절해 진다는
장군님의 말씀
세월이 갈수록 더해 지는
우리의 그리움속에 더더욱 뜨거워라

인생의 춘하추동을
사시절에 비기면
어머니의 짧으신 한생은
봄꽃시절
너무도 애 젊으신 한생

하건만
그 짧디짧은 서른두해에
어머니는
천만생을 합쳐도 다하지 못할 그 모든 일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하실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셨으니

어머니의 서른두해의 년세는
이 나라 가장 높은
백두의 절정우에
별처럼 새겨 진 서른두해
위대한 삶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인민의 하늘가에 빛내준 서른두해

세월이여
어머니를 잃고 흘러 간 50년이여

사신 날보다
돌아 가신 날이 더 길어
이제는 어머니 만나뵈온 사람들보다
뵙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 졌어도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 없거니

우리 마음속엔
어느 하루 어느 한순간도
어머니와 떨어 져 산 날은 없었어라
흐르는 해와 달속에 더 가까와 지는
인민의 어머니 김정숙어머니이시여

어머니는 오늘도 함께 계신다
조국의 운명, 인민의 운명을 안고
백전백승의 지략을 펼치는
혁명의 최고사령부에
우리 장군님과 더불어
붉은기 날리는 당중앙에
언제나 함께 계신다

어머니는 계신다
천리방선의 병사들속에
자강땅의 로동계급속에
감자꽃 피우는 대홍단처녀들속에
밝게 웃는 아이들속에
아 수천만 인민들속에
어머니는 계신다

오 경의를 드리노라
위대한 그 업적앞에
천송이만송이 꽃을 드린들
우리 마음 다 담으랴만
우리 수령님을 길이 받드는 길에
우리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길에
언제나 어머니를 모시고 따를
뜨거운 마음을 담아
삼가 우리의 붉은 꽃송이를 드리노라

오늘도 래일도
어머니를 노래하며
영원히 어머니의 딸로 살
나의 한생
우리의 한생을 놓아 드리는
아, 심장의 붉고붉은 꽃송이여

인민의 꽃바다우에
청청한 서른두살의 생애
백두산의 그 년세로
인민의 어머니의 모습으로
김정숙어머니는 계신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체88. 9. 15)

서정시

해 빛

리 연 희

우리의
날과 날을 비치는 해빛
4월명절 태양절엔
유난히도 따스한 해빛

둘러 보면
피는 꽃도
그 해빛속에 피여 나는 꽃
넘쳐 나는 봄빛도
그 해빛속에 넘쳐 나는 봄빛

참으로 이날엔
그 어느 창가에서 울려 나오는
아이들의 노래소리도 그 해빛이 준 노래
벌 가득 첫싹을 품어 안은 감자밭에도
그 해빛이 움 틔운 정겨운 햇싹

이날의 해빛은
우주의 빛을 다 모아
생각 깊은 마음속에 줄줄이 비쳐 내리는
장군님 뿌려 주신 밝은 해빛

이날은 수령님이 그리워
누구나의 마음속에
그리움이 사무치는 날
그래서 우리 장군님
인민의 마음속에 안겨 주시는 목 메이는
해빛

수령님 다녀 가신 마을은
그 사랑의 해빛으로 찾으시고
수령님 잡아 주신 손과 손들은
그 따사로움으로 뜨거이 잡아 주시고
수령님 제일 사랑하시던
병사들이 더더욱 수령님을 그리워 한다고
천리 먼 전선에도 더 밝은 미소로
찾아 주시는
우리 어버이!

그래서 이날은
이 땅 어디서나 그 누구나
생각이 깊어 지는 날
장군님 사랑이
가슴에 파고 드는 날

그래서 이날은
해빛우에 해빛이 웃는 날
누리가 밝고
마음이 밝고
산과 들이 온통 밝은 날

태양절 이날은
수령님 환히 웃으시여
인민이 함께 웃는 날
인민들과 함께
우리 장군님 기쁘시여 웃으시는 날

아 정녕
이날의 해빛은 새로웁네 눈 부시네
이날의 해빛은 뜨거웁네 목 메이네
태양절 태양절이여
장군님 안겨 주신 해빛의 명절이여

(주체88. 4. 8)

서정시

동무들아 군복을 입자

리 영 철

우리는 열일곱 애젊은 나이에
교문을 나선다
동무들아 군복을 입자
조국앞에 자기를 세울
그날이 왔다

병사의 군복은
조국이 주는 옷
어머니가 지어 주던 계절옷이 아니다
눈에 얼고 비에 젖어도
푸른 빛을 버리지 않는 군복
우리의 성격에 꼭 맞는 청춘의 옷이다

군복을 입으면
선생님앞에 드릴 인사도
병사의 씩씩한 거수경례
렬차를 타도 우리의 렬차는 군용렬차
주소도 군사우편대호
우리의 삶을 군복이 다 말해 주리

군복을 입으면
가장 떳떳한 아들로 되리라
사랑도 심장을 조국에 바치는 병사의 사랑
그것으로 우리의 가슴은 더 넓어 지리라
그것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먼길에
빛나는 자욱을 남기게 되리

군복은 우리의 교과서
학창시절 다 읽지 못한 진리를 주는
푸른 빛
군복을 입으면 모든것을 다 알게 되리
사랑도
증오도
인생도
조국도
피와 땀으로 새기게 되리

아 군복을 입으면
우리는 최고사령관기와 운명을 같이하
는 청춘
그 붉은빛을 간직한 가장 행복한 청춘
목숨을 바쳐도 장군님을 위하여
동무들아 군복을 입자
동무들아 조국의 옷을 입자

(주체88. 6. 23)

서정시

나는 강계사람이다

김 철 후

—나는 강계사람이다
이렇게 때없이 불러 보면
가슴엔 뜨거움이 차올라
눈시울은 찌릿이 젖나니

내 눈을 들어
저 강 굽이굽이 발전소들과
아이들 뛰여 노는 마을을 바라보니
이 마음속에 또다시 몰아 치는 정원의
눈보라
그 눈을 헤쳐 오신 장군님모습이여

시간이 없으시면
시간을 내시여
새벽에도 오시였다
강계사람 우리를 키우시려
밤에도 오시였다
강계정신 그것을 주시려

이 가슴속에 사무치는것
눈보라를 꼭 헤쳐야만 하시는 그 고생
장군님은 천분으로 타고 나셨는가
장갑도 없이
자강땅 6천리 눈보라길 헤치신 장군님

부디 그날의 그 눈보라가
장군님 헤치시는 마지막눈보라였으면
장군님 걸으시는 마지막고생이였으면
간절한 그 생각으로
얼음을 까내고 토목언제도 쌓았다
멈추어 선 기계를 베고 잠도 자보았다

그 나날 우리 알기나 했던가
자신의 인생의 한 부분을
이 자강땅에 바치신 장군님
그렇게 오시고 또 오시는것이
우리에겐 행복과 기쁨이여도
장군님에겐 크나큰 고생인줄

모든것이 척박하고 부족한 그것으로
지난 날 그이의 옷자락에 너무도
매달렸던 그것이
죄스러워 마음에 걸려
장군님의 고생을 놓고
다시는 그렇게 살수 없어
창조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 갔거니

이렇게 강계사람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장군님의 크나큰 로고를 제일 먼저 알아
우리 장군님을 제일 먼저 받들고 일어
선 사람들

그것이 너무도 대견하시여
장군님은 우리 손에
준마의 첫 주인의 고삐를 쥐여 주시고
수많은 고난의 오솔길들을
강성대국의 대통로로 열어 가며
이 지구를 북마냥 울리며 달리는
제2의 천리마선구자로 내세워 주셨거니

이제는 그 이름 지니여
이 세상 모든것이
부럽지도 두렵지도 않다
오늘도 래일도 조국에 바쳐 갈 힘은
장군님 안겨 주신
무궁한 자력갱생의 힘
강계사람의 정신

그렇다 나는 강계사람이다
지금 이 시각도
그날의 눈보라길처럼
천리전선길 그 어느 령길을 걸으실
그 거룩한 자욱자욱에
이 마음 따라 세우며
전선길 먼 하늘을 우러러
충성의 이 심장 불 태우는
아 나는 강계사람이다

(주체88. 10. 26)

서정시

나는 먼 길 가는 법을 배웠다

김 영 택

나는 애 젊은 로동청년
아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아도
내 삶의 길 이것만은 안다
잊지 못할 고난의 나날속에서
나는 먼 길 가는 법을 배웠다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고
사나운 해일은 재해를 몰아 오고
원쑤들의 봉쇄는 우리 갈 길 다 막았건만
《고난의 행군》길에서
나는 래일을 위한 그 길을
얼음을 씹으며 오늘에 가는 법을 배웠다

최후의 승리를 위한 강행군길에서
끼니는 번지는적 있어도 번짐이 없이
출근부에 이름을 써넣던 나날
죽어도 기대를 베고 눕는것이
내 청춘 내 간직한 신념
죽어도 장군님손을 잡고 숨지는것이
내 운명 가야 할 한길임을 나는 알았다

어찌하여 장군님 영상을 품속에 지니고
저 멀리 대양 한끝에 쓰러진 병사들이
시체가 되여서도 이 땅을 찾아 왔던가
그들의 넋이 살아 숨 쉬는 이 땅에

푸르른 삶을 둔 나는 청춘
장군님과 조국은 하나임을 나는 알았다

조국이여! 믿으시라
천년을 살고 만년을 살아도
참된 삶의 이 진리를 간직한 청춘
장군님 따라 가는 길이 승리의 길임을
최후의 승리가 영원히 우리의것임을
사무치게 깨달은 이 아들을 믿으시라
아 나는 혁명의 먼 길 가는 법을 배웠다

(주체88. 6. 23)

서정시

장군님 결승선에서 맞아 주셨네

정 성 옥

나는 어머니조국의
사랑의 젖줄기를 빨며 자라난
이 나라의 딸 평범한 마라손선수

허나 나는 평범하게 달리지 않았다
주체의 내 조국이 지켜 보고
시련을 이겨 낸 인민 기대하며 지켜 보는
세계륙상선수권대회 마라손선수로
출발선을 찬 첫 걸음부터
결승선의 마지막걸음까지

그 길이 아니던가
압력과 회유
봉쇄의 시련을 박차고
구보로 달리는
내 조국의 진격의 길
아, 그래서 나는 결코
평범하게 달릴수 없었어라

그 길은 105리가 아니였다
장군님 현지지도의 긴긴 로정
최전연초소로 오르는 험한 길이였고
강계와 성강, 대홍단으로 가는 길이였다

정녕 그 길은
력사가 아직 모르는 역경을
맨 앞장에서 헤치시며
우리 장군님 열어 가시는
승리의 길이였다

하여 나는
걸음걸음 장군님 그리며 달리였다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의 박동에
내 작은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장군님 거룩한 보폭에
내 작은 걸음을 따라 세우며…

힘겨웠다

하지만 기적 같은 힘이
용암처럼 근육에 뻗치였으니
그것은 무엇때문이였던가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안겨 왔다
장군님의 다정하신 음성이 들려 왔다
아, 우리 장군님께서 결승선에 계셨다
두팔 벌려 성옥아 어서 오라 부르셨다

달아 오른 가슴으로
결승선에 들어 서는 그 순간은
우리 장군님의 품에 와락 안기는
녀전사의 가장 행복 넘친
영광의 순간이였다

나를 포옹한 장군님품은
따사로워라, 자애로워라
아버지장군님
그 위대한 사랑과 믿음의 품으로

100만 환영의 꽃바다도 펼쳐 주시고
영웅으로《마라손녀왕》으로
세계의 단상에 하늘높이 올려 주시였거니

조국이여!
세계여!
이 작은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우뢰소리를 들으시라

우리 장군님은 승리의 상징
기적의 화신이시여서
그 품속에 이름 없던 이 나라의 딸이
세기의 영웅으로 왕으로 솟아 올랐거니

장군님을 그리며 내가 달려
금별메달
장군님을 따라 내 조국이 달려

강성대국

아—우리의 김정일장군님은
영원히 결승선에 계신다
너도나도 장군님을 그리며 달리자
강성대국결승선에 거연히 계시는
우리 장군님 품으로

(주체88. 7. 27)

첫 봄에

시초 《강원땅의 새 노래》중에서

송 명 근

줄기줄기 산줄기 험준한 강원땅에
봄이야 해마다 오고 또 오지만
이게 정녕 내 고향의 봄이란 말이냐
산골농사 끝난 곳에
벌방농사 시작되는 봄!

논두렁 밭두렁 거미줄처럼 엉키여
펼 길 없던 주름투성이 산자락땅
오늘은 그 주름을 활짝 펴고
땅이 웃는구나
봄이 웃는구나

이해의 이 봄은 천지개벽의 봄
이야기해 다오 벌이여 벌이여

이 산골땅에 이 벌을 펼쳐 주시려
우리 장군님
내리는 눈비는 얼마나 맞으시였고
그 험한 철령은 몇번이나 넘나드셨던가

잊을수 없어라
우리 장군님
들추는 차안에서 쪽잠도 못 드시고
토지정리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 주신
창도땅 대백리의 그 새벽
진눈까비 맞으시며
진흙덩이 매달리는
고산땅을 걸으시던 그 자욱자욱

끝 없는 로고의 그 자욱자욱우에 펼쳐 진
철원이랴 평강이랴 안변벌이랴
봄빛이 넘치고
인민의 웃음이 넘치는 이 봄, 이 벌은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첫 결실!

땅이여 너 이제는
산골농사 끝난 곳에
벌방농사 첫 씨앗을 안으라
안으라, 장군님사랑의 씨앗을!
강원땅에 만풍년을 부르고 부르라!

(주체88. 4. 21)

서정시

최전선에 부치는 편지

림 성 희

저물어 날이 저물어
이 북변땅을 떠나실적에
평양으로 가신다고, 댁으로 가신다고
웃으시며 우리 집을 나서신 장군님

밤 깊어 밤이 깊으니
이제는 댁에 들어 서시여 편히
쉬실것이라고
오늘만은 쌓이신 피로 푸실것이라고

기쁨에, 기쁨에 마음도 즐거운데
아 또다시 밀려 드는 그리움!…
그리움!…

서둘러 펜을 듭니다 그리움에 못 이겨
평양으로 평양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아침보도는 웬말입니까?
장군님 또다시 철령을 넘어

최전연의 최전선을 찾으셨다니?…
쉬여서 가시라고
내리는 진눈까비 그어서 가시라고
옷자락에 매여 달리는 우리들에게
오늘만은 집에 들려 발편잠을 자겠다고
새 감자품종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고
웃으시며 떠나가신 장군님이 아닙니까

온밤 내리던 진눈까비

그 험한 철령에서
다 맞으셨단 말입니까
온밤 몰아 치던 세찬 바람
그 골 깊은 계곡에서
다 맞으셨단 말입니까

이 세상 모든 소원 다 풀어 주시고도
이 세상 모든 약속 다 지켜 주시고도
그 약속만은 어기신채 평양을 지나가신
아버지장군님

우리 언제면
진으로 들어 서시는 아버지를 뵙습니까
우리 언제면
한밤이라도 편히 쉬시는
아버지의 그 시간을 지켜 드립니까
원쑤가 눈앞에 있는 최전선
민족의 운명이 판가리되는 최전선
그 최전선에 언제나 계시는
아버지장군님

그리움에 그리움에 젖은 이 편지를
우리는 평양에 부치지 않습니다
철령너머 최전선!
장군님 언제나 계시는 최전선!
그 최전선으로 부쳐 드립니다

(주체88. 7. 27)

조선소년단 축하단 축 하 문

명 준 섭

여기는 북녘땅
저기는 남녘땅
갈라 져 살수 없는
북과 남의 뜨거운 마음들이
파도처럼 밀려 오고 밀려 오는
판문점, 판문점!

통일된 조국을 우리들에게 물려 주자고
사선을 넘고 헤치며
멀고 먼 남의 나라 땅을 돌고 돌아
여기 통일대축전장으로 달려 온
남녘의 통일운동단체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들
기다렸습니다

일본과 중국, 유럽과 아메리카,
오스트랄리아
온 세상 방방곡곡에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달려 온
아버지, 어머니, 여러 선생님들
기다렸습니다

민족의 자유와 대단결을 위한
판문점 3자련합대회
이 대회는
7천만겨레가 하나되여
조국통일의 돌파구를 열어 제낄
민족대단결의 대회, 통일애국의 대회

아 우리들은
온 나라 3백만 조선소년단원들의
뜨거운 한마음 담아
이 대회에 참가한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태여나 처음으로
이 판문점언덕에서
저 남녘땅을 바라봅니다
저기도 우리 나라
우리 땅이건만
어찌하여 저리도 낯 설고
자다가도 놀라 소스라칠
시커먼 총구가
우리를 겨누고 있는것입니까

저 높은 콩크리트장벽은
무엇때문에 쌓았고
천겹만겹의 철조망은
과연 무엇때문에 처놓았습니까
여기서 바라보니
북과 남을 갈라 놓은 분리선은
한뽐도 못되는데

어찌하여 우리 겨레
서로 오가지도 못하고
한장의 편지마저
주고 받지 못하는것입니까

돌돌돌 내물소리 정답던
마을은 간 곳 없고
가을이면 빨갛게 무르익던
감나무는 어디로 가고
주인 없는 뒤울안 장독에선
떨어 진 씨앗이 움 터
아름드리 나무로 자랐어요

밤마다 팔을 베고 자던
그 손녀가
할머니품에서 떨어 지고
한집안에서 살던
아버지와 아들이 헤여지고
한뜨락에서 뛰놀던
형님과 동생이 생사조차 알지 못해요

아 헤여져선
순간도 살수 없는 사람들이
헤여져서 이제는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반세기도 넘는 긴긴세월을
갈라 져 살았습니다
50여년전에 약을 구하러
이웃마을에 갔던 우리 할머니
밤사이 원한의 분계선이 가로 막혀
돌아 오지 못했어요

《할머니!》소리쳐 부르면
《옥이야!》
지척에서 들려 올
할머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우리의 애 타는 목소리만이
저 콩크리트장벽에 메아리칩니다

화창한 봄날
길가에 꽃을 심던
분계선마을아이들

못다 심은 꽃모를 안고
저 원한의 콩크리트장벽을
저주로 쏘아 봅니다

분렬은
이런 아픔입니다
분렬 분렬은
이런 고통입니다

아 이런 분렬을 끝장내 주시려
한평생 통일 위해
마음도 제일 많이 쓰신
김일성대원수님
통일의 길도 제일 많이 걸으신
김일성대원수님

하기에 우리는 지금
판문점 저 언덕에 높이 솟은
대원수님의 친필비를
뜨거운 눈물에 젖어 우러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슴엔 안겨 옵니다
분렬의 그날로부터
통일은 애국
분렬은 매국이라 하사며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통일의 큰 집을 짓자고
4월남북련석회의도 몸소 마련하신
대원수님

통일의 원쑤들이
《두개 조선》조작으로 미쳐 날뛸 때도
온 겨레를 통일에로 부르시며
잠시 휴식도 잊으셨던
대원수님

얼마나 조국통일을 생각하셨으면
집 하나를 지어도 통일각
기관차 하나를 만들어도 조국통일호
새거리 하나를 세워도 통일거리
몸소 그 이름까지 지어 주셨겠습니까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으로
조국통일의 3대헌장
조국통일의 3대기둥을 세워 주신

김일성대원수님을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정녕 잊을수 없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나어린 우리 가슴도 미여 집니다
대원수님께선
위대한 생애의 그 마지막날에도
불편하신 몸으로
그처럼 부피 두터운
조국통일문건을
하나하나 보아 주셨습니다

깊어 가는 밤
어디선가 울려 오는 소쩍새소리
온 삼천리강산이
통일의 아버지이신
대원수님의 품에 달려 와 안기는데

7천만 겨레의 통일소원
쌓이고 쌓인 겨레의 그 념원
넓은 한가슴에 안으시고
대원수님께선 붓끝에 힘을 주시며
한자두자 쓰셨습니다
김 일 성
1994. 7. 7

아 하늘도 번개를 일구고
우뢰를 울리고
피눈물의 소나기가
온 강산을 두드렸습니다

대원수님의 그 친필
조국통일문건에 남기신 친필
마지막수표가 될줄이야
우리 어찌 알았겠습니까

땅을 쳤습니다
북, 남, 해외가 따로 없이
통일의 아버지를 부르며
목 놓아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온 민족이 울고 온 강산이 울 때
우리 아버지 김정일장군님
온 세상의 아픔을 다 안으시고도
겨레를 피눈물의 바다에서 일떠
세우셨습니다
7천만을 통일에로 부르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아 위대한 통일저작으로
7천만겨레의 가슴가슴에
조국통일의 밝은 홰불을
활활 지펴 주신 아버지장군님
통일의 대문을 열어 주시려
큰 걸음으로 나오셨습니다
여기 판문점으로
북남삼천리에 세찬 통일열풍을 일으켜
주시며
저 통일친필비앞에
제일 먼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가슴을 치던 7월 8일 그 새벽
대원수님 집무실책상우에
통일을 부르며 놓여 있던
그 친필문건을 다시금 보시는듯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오래도록 서계셨습니다

설레이던 나무잎새도 숨을 죽이고
무겁게 내려 앉던 흰 안개도
장군님 옷자락에
조용히 감겨 드는데
우리는 들었습니다
온 겨레는 들었습니다

항일전의 그날
조선은 살아 있다고
보천보 밤하늘에 울리던
대원수님의 선언과 꼭같이
이땅에 통일맥박을 높이 울려 주신
아버지장군님의 위대한 선언을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우리는 기어이
통일의 상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 아버지장군님의 말씀
그것은 정녕
산악 같은 통일의지로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하신
통일대선언이 아니였습니까

그 의지 그 담력으로
저 위험한 판문각로대에도 몸소 나오시고
살벌한 분계선너머도 굽어 보시며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고
우리 대에 기어이 통일하자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신
아버지장군님

너무도 로고가 크셨습니다
통일을 위해
조국통일을 위해
휴식날도 모르셨습니다
명절날도 없으셨습니다

분렬의 력사를 끝장내자고
찬비도 맞으시고
사나운 눈보라길도 헤치시며
전선에서 전선으로
공장에서 농촌으로
끝 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가실 때
아버지장군님 우러러
우리 얼마나
뜨거운 눈물 삼켰습니까

어제는 민족앞에 죄를 지었어도
오늘은 통일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큰 허물도 나무람 않으시고
손 잡고 함께 통일로 가자고
다정히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장군님

온 나라 일을 다 돌보시면서도
남녘에서 또 저 멀리 해외에서 온
종교인 할머니, 기업가할아버지도
만나주십니다
문필가 선생님도 만나주십니다
대학생 오빠언니들도 보살펴 주십니다

지구의 한끝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일은 그 누가 몰라도
아버지장군님께선 다 아시고
《조국통일상》도 안겨 주시고

통일의 한길을 가다 쓰러지면
더욱 못 잊어 사랑의 품에 안아
신미리애국렬사릉에도
영생의 모습으로 세워 주시는
아버지장군님

아십니까
걸음걸음 통일을 안아 오시는 그 길에
줴기밥 한덩이로 끼니를 에우시고
흔들리는 차안에서
쪽잠도 드신다는것을

아십니까
아버지장군님께선
민족이 당하는
분렬의 고통이 괴로우시여
온밤 뜬 눈으로 새우시며
남녘의 일자리 없는 로동자들도
걱정하시고
학비난에 우는 아이들도
생각하신다는것을

지금도 림진강언덕
허리 부러진 철탑을 바라보시며
뜨겁게 하시던 그 말씀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하나의 강토
하나의 혈맥을 이어 온
삼천리 금수강산이
여기서 끊어 지다니 될 말입니까
이런 아픔을 안고 사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또 있겠습니까—

아 아버지장군님
그날에 바라보신 고압선
오늘도 겨레의 피 타는 소원을 안고
윙윙—소리치며 웁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
저기를 보십시오
나어린 우리들의
통일의 목소리마저 막으려고
두 다리를 버티고 서 있는
저 철갑모 쓴 미국놈들의 몰골을

우리는 묻습니다
저 미국나라 대통령에게
어린 소녀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부모형제들의 얼굴조차 모르고 사는
우리 민족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는가를

다시한번 묻습니다
하나의 피줄을 나눈
동포형제를 쏘라고
미국제 피 묻은 총을 쥐여 준
그 죄악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그렇습니다 참을수 없어
이제 더는 참을수 없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얼마나 많은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이
원쑤놈들의 단두대에도
통일을 부르며 올랐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한오리 두오리 늘어 나는
귀밑머리 흰서리엔
조국통일을 위해 바쳐 온
그 오랜 세월들이 어려 있고

얼굴마다에 깊어 가는 주름에는
만난을 이겨 내며
통일의 한길을 곧추 걸어 온
애국의 그 자욱자욱이 새겨 져 있음을
아 통일위업에
한몸 다 바쳐 온 선생님들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을
7천만은 잊지 않습니다
조국은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궁전에 오셨던
남녘의 할아버지
우리들의 춤노래 보아 주시며
울며 웃으며 남기신 그 약속을!

《애들아
다음번에 올 땐
꼭 통일된 조국을 안고 오마
그날에는
남녘의 아이들도 함께 오마》

한밤 두밤
우리는 기다렸어요
인민학교 그날에 다진 약속
이제는 중학생도 다 넘어 서는데
어찌하여 그 약속만은
지켜 주지 못하나요
이제 또 우리 동생들에게까지
못다 지킨 그 약속을
넘겨 주어야 하나요

아니예요 아니예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겐 통일의 태양 계십니다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의 밝은 태양!
자주로 통일을 안아 오시는
위대한 아버지
민족대단결로 통일을 불러 오시는
자애로운 아버지

우리는 힘차게 웨칩니다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이십니다
아버지장군님 계시여
통일은 우리의것
아버지장군님 계시여
민족은 꼭 하나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
신심도 더 굳게
발걸음도 더높이
통일, 통일대행진으로
기어이 통일조국
높이높이 세워 주세요

우리는 부탁합니다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이 되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분렬된 우리 나라를
하나된 통일조국으로
우리들에게 물려 주세요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
이제 가는 곳은 서로 달라도
이 판문점통일대축전을 잊지 말고
저 통일친필비앞에서 다진 맹세를 지켜
아버지장군님의 높은 뜻 받들어
모두가 통일영웅이 되여 주리라는것을

우리는 기다리렵니다
이제 다시 통일대축전장에서 만날 때는
여기는 북녘이라는 말
저기는 남녘이라는 말
이런 아픈 말 다시는 하지 않고
통일된 조국이라는 말만 하며
기쁘게 만날 그날을
손 꼽아 기다리렵니다

범민족통일대축전 만세!
전민족대단결 만세!
조국통일 만세!

(주체88. 8. 3)

작가의 말

시작부터 끝가지

—장시《6월의 푸른 하늘아래에서》를 창작하고—

백 의 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5돐을 맞으며 창작한 장시《6월의 푸른 하늘아래에서》가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킨것은 전적으로 작품에 담겨 진 위인의 생활 그자체가 뜨거운 공감력을 가지고 있기때문이라고 본다.

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35성상의 업적중의 업적이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를 이룩하신것으로 보았으며 여기로부터 장군님의 빛나는 35성상은 인민의 어버이가 되신것이라는 이 한마디로 규정해 보고 싶었다.

이것이 바로 이 시의 종자가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왜 어버이가 되셔야 하였으며 어떤 인민의 어버이가 되시였는가.

나는 세가지 문제에 력점을 찍고 이 세 력점을 하나의 큰 력점인 총체적인 종자에 관통시키려고 하였다.

이렇게 되여 장시의 절이 1, 2, 3으로 갈라 졌다.

장시 1절의 력점은 장군님께서는 지니신 천품과 생의 본령으로 하여 달리될래야 달리될수 없는 인민의 어버이이시라는것이였다.

장시 2절의 력점은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 주시는 인민운명의 어버이, 인민수호의 어버이이시라는것이다.

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 선군령도의 업적을 여기에 담아 노래하려고 하였다.

장시 3절의 력점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에게 태양의 집—태양민족,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집을 주신 어버이이시라는것이다.

한 가정에도 살림을 펴고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야 할 집이 있어야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우리 인민이 5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을 잃고 일어 설수도 앞을 볼수도 없는 엄청난 불행을 당하였던 그 시각에 어버이가 되시고 태양이 되시였으며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집을 세워 주신 어버이이시다.

서시와 종시가 없이 씌여 진 장시이므로 1절에서 시의 계기가 제시되여야 하며 3절에서는 시의 결구가 맺어 져야 한다.

그래서 장시의 1절에서《이 땅에는 수천만 인민이 있는데 어이하여 한분 그이를 어버이라 부르는지 세상사람들은 물을수도 있다》고 하면서《나는 오늘 6월의 푸른 하늘아래에서 말하련다》라는 계기를 주었다.

그리고 장시의 3절에서 우리 당, 우리 조국, 우리 혁명이 걸어 온 35성상의 력사, 그 위대한 총체, 그 찬란한 만대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어버이라 부르는 이 다정한 한마디속에 다 있다고 주장하면서 작품을 결속하였다.

시를 좀 함축할데 대한 동맹일군들의 의견을 받고 초고를 연구해 보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련들을 통채로 잘라 내기도 하고 반복되였다고 생각되는 시행들을 거슬러 내니 정말로 작품의 종자가 뚜렷이 살아 나는것이였다.

역시 창작과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로부터 작품의 핵으로 되기까지의 과정이였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제작업, 종자작업이였다.

이 작업을 재빨리, 능란하게 하는가 못하는가가 작가의 능력인것이다.

그래서 작가는 일생동안 견인불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것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평 론

우리 당력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에 대한 심오한 형상

총서《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전환》에 대하여

김선일

총서《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전환》(권정웅 작)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던 첫 시기인 1960년대중엽을 시대적배경으로 하면서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몰아 치는 현대수정주의역풍을 맞받아 헤치시면서 조선혁명을 전환의 궤도우에 올려 세우신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의의 있는 작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가 시작된 때로부터 당사업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부문 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 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혁신과 앙양이 이룩되였습니다.》

수령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옳바로 반영한 혁명사상을 창시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할수 있는 참된 길을 밝혀 준다.

그러므로 수령형상문학에서는 탁월한 사상리론가로서의 수령의 풍모를 그리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게 된다.

총서《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전환》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업적을 그리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그이의 탁월한 령도력과 고결한 인간적풍모에 대한 형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나가고 있는 소설이다.

총서《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전환》은 무엇보다도 천재적인 사상리론가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그리는데 초점을 두면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전면적으로 검토총화하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 주체적인 수령론을 창시하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심오하게 밝혀 내고 있다.

맑스와 엥겔스에 의해《공산당선언》이 나온 후로부터 보아도 공산주의사상리론의 발전력사는 약 100년간이나 된다.

그 기간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은 멀리 전진하여 왔으며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사상의 발전도 끊임없이 진행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중엽에 이르러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서는《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적용》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좌우경기회주의가 대두하여 심각한 우여곡절을 겪고 있었다. 특히 현대수정주의는 수령의 권위와 업적을 허물고 이른바《시대의 변화》를 떠들면서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포기하는데로 나가고 있었다. 현대수정주의의 위험성은 리론상, 학술상의 범위를 크게 벗어 나 행동으로까지 번져 지고 있는것이였다. 그리하여 많은 나라 공산당, 로동당안에 분파가 생겨 옥신각신하게 되고 사회주의나라들은 행동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작품은 이러한 력사적현실을 배경으로 하면서 당시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엄중한 사태를 그 누구보다도 명철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 해결책을 탐구해 나가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라는것을 보여 주는데 형상의 초점을 집중하고 있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면서 주체사상이 온 인류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상임을 확신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먼저 맑스-레닌주의고전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100년사상사총화를 발기하시고 그토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사업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신다.

유능한 학자들인 엄한정, 원시준, 리종화 등과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공산주의100년사상사에 대한 연구토론을 심화시켜 나가시는 소설의 장면들은 참으로 철학세계로 펼쳐 지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공산당선언》을 통해 로동계급의 수령의 출현을 발견하시고《자본론》을 통해 수령을 받드는 혁명가의 태도와 립장에 대하여 도출해 내신다. 그리고《고타강령비판》을 통해서는 수령의 혁명사상에서 리탈할 때 혁명투쟁은 위기와 곡절을 겪게 된다는 심오한 진리를 밝혀 내신다.

그리하여 100년사상사총화 중간단계에서 로동계급의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론증하시여 주체적인 수령론을 내놓으시게 된다.

소설은 이와 같이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수령론이 어떻게 나오게 되였는가 하는것을 타당성 있게 밝히면서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론을 내놓으신 그이의 불멸의 사상리론업적을 심오하게 형상하고 있다.

소설은 이러한 형상적화폭을 통하여 그이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수 없는 뛰여 난 시대감각과 예민성, 과학적탐구와 정치적판단에서 특출한 대담성을 지니신 천재적인 위인이심을 힘 있게 강조하고 있다.

소설은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의 수령론을 리론상으로만 밝히신것이 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와 조선혁명의 실천적경험에 토대하여 엄연한 진리로 확증하신것임을 밝히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철소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들속에 들어 가시여 자기 수령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들의 충성심에서 자신의 탐구방향이 옳다는 신념을 더욱 굳히신다.

더우기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안에 있었던 우연분자, 기회주의자들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 내시면서 사회주의위업의 전진도상에서 겪게 되는 우여곡절이 궁극에는 수령론에 귀착된다는것을 해명하신다.

소설에서는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과 외교일군인 허담, 항일혁명투사들이며 군사일군들인 오진우, 오백룡, 제철소 로장인 유상철 등 여러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이들의 절대적인 흠모심과 충성심을 감득하시며 위대한 전환의 기치를 마련해 가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숭엄하게 형상하고 있다.

전연구분대 방문을 떠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진우로부터 항일혁명투쟁시기 있었던 리봉준대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며 혁명은 수령에 의해 시작되고 수령에 의해 령도되며 수령에 의하여 승리하게 된다는 수령중심론을 더욱더 확고한것으로 간직하시는 내용,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숨을 거두는 마지막순간 당증과 함께 간직했던 어버이수령님의 초상사진을 꺼낸《아바이전사》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 인민의 삶의 목적과 의의를 헤아리시는 내용, 조국에 개선하신 수령님께서 처음으로 제철소에 오시여 로동계급들과 만나시였던 자리를 자기 운명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제철소로동계급에게서 커다란 충격을 받으시는 내용 등 소설은 풍만한 형상화폭들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창시하신 수령론이 우리 혁명의 실천을 통해서도 명백히 확증된 진리임을 힘 있게 보여 주고 있다.

작품은 한걸음 더 나아가 리론실천적으로 완벽하게 해명된 수령론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과연 어떤 불멸의 의의를 가지며 그 거대한 공적은 무엇인가를 밝혀 냄으로써 천재적인 사상리론가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력사적견지에서 뚜렷이 부각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창시하신 수령론을 받아 안은 엄한정박사의 격동된 내면심리세계를 이렇게 펼쳐 보이고 있다.

《수령론! 그것은 인류사상사에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발견이다.

물론 력사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발견하고 그 의의를 명철하게 정식화하신분은 다름아닌 우리의 영명하신 **김정일**동지이시다!

수령론! 이 의의는 세월이 흐를수록 공산주의리념으로 온 인류가 살아 가게 될 그날까지 그 가치와 의의가 확대될것은 의심할바 없다.…

맑스에게는〈자본론〉이 있다. 레닌에게는〈제국주의론〉이 있고 **김일성**동지에게는 주체사상론이 있다. 여기에 **김정일**동지의 수령론이 놓인다면 인류는 그 개개의 정점들을 디디고 정확하고도 안전하게 자주성의 새 세계로 건너 갈수 있을것이 아닌가. 이것은〈공산당선언〉맨끝에〈만국의 로동자는 단결하라!〉라고 했던것처럼〈수령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자!〉라고 결구에 적어 놓을수 있을것이다.》

이처럼 소설은 리론과 실천, 력사의 과거와 오늘, 미래에 대한 철학적묘사를 통해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적인 수령론을 창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고 인류자주위업완성의 새길을 열어 놓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심오하게 밝혀 내고 있다.

총서《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전환》에서는 주체의 수령론에 기초하시여 당사업과 군건설, 경제사업과 문학예술부문을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일대 전환을 이룩해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깊이 있게 그리고 있다.

당시 우리 당내에는 국제적으로 불어 치는 현대수정주의역풍이 이러저러한 형태로 밀수입되고 있었으며 또한 그것을 일부 야심가들이 리용하려고 책동하고 있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창시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외곡말살하려는 책동이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당사업은 주선이 명백치 못하고 좌왕우왕하고 있었다.

문학예술부문이나 경제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반 사실들도 매우 엄중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나아가서 당과 국가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심중한 문제였다.

소설은 이러한 실태의 본질을 그 누구보다도 환히 꿰뚫어 보시고 바로 잡아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령도력을 빛나는 형상적화폭으로 그려 보이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평양시민들의 생활문제를 풀기 위해 몸소 뻐스도 타보시고 식료상점과 농장에도 나가시여 하나하나 대책을 세우시는 과정에 당사업에서 주선이 명백치 못하고 당사상사업이 왕청 같은데서 헤매고 있음을 간파하신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형상은 그이의 예리한 판단력과 높은 정책적안목을 보여 주면서 뛰여 난 령도자의 품격을 살려 내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소설은 주체적인 수령론에 기초하여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활동을 여러 인물선과의 관계속에서 깊이 있게 형상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전선동부 부부장 전상환과 조직지도부 부부장 문춘선에게 당의 창건

자, 령도자는 곧 수령이다, 때문에 우리 당안에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이외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수령의 혁명사상, 오직 이 하나만이 있어야 한다고 힘 주어 말씀하신다.

소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러한 결심과 단호한 조치가 있어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여 그 어떤 풍랑도 헤쳐 나갈수 있었음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 있다.

우리 당건설과 관련된 원칙적문제들을 제기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도 만족해 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은 참으로 가슴 뜨겁게 안겨 온다.

《오늘은 내가 혁명을 해오다가 제일 통쾌한 말을 듣게 되는구만. 대찬성이요. 28년도에 제명당했던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반세기가 지나는동안 공산당의 본보기가 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돌격대가 되면 혁명을 한 보람이 있을거요. 그것은 필요한거구 또 능히 가능한거요. 그렇게 하기요. 그러니 조선로동당이란 함선은 이제야 영명하고 대담한 타수를 만난 셈이요. 이제는 어떤 풍파도 이겨 내고 목적지에 무사히 가닿게 될거란 말이요. 아주 통쾌하오, 통쾌해!…》

얼마나 가슴 뜨거운 말씀인가.

철의 론리와 담대한 기상을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를 맞이한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커다란 만족과 우리 혁명의 전도에 대한 굳은 확신은 크나큰 감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소설은 이외에도 외교부문에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대외에 널리 선전하는 사업이 힘 있게 벌어 져 주체사상신봉자대렬이 날을 따라 늘어 나고 우리 문학예술은 새로운 혁명문학, 수령형상문학으로 발전할수 있었으며 우리의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일당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수령의 군대로 강화되게 되였음을 진실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또한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이 성과적으로 건립되고 제철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터에 대형유화판을 일떠세우게 된것을 감동적으로 형상하고 있다.

소설은 이와 같은 여러 사건과 사변들을 통하여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시고 그것을 무기로 하여 모든 분야에서 일대 전환의 서막을 열어 놓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다.

총서《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전환》은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의 자애로운 어버이가 되시여 그들의 운명을 따뜻이 보살펴 주시고 빛내여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매한 인간적풍모의 위대성도 감동 깊게 형상하고 있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풍모이다.

그러므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간적풍모의 위대성을 잘 그리는것은 수령형상창조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소설에서는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 없는 믿음과 사랑을 단순히 인정상의 문제로가 아니라 수령론에 기초하여 해명함으로써 형상의 유기적통일을 훌륭히 보장하고 있다.

과오를 범한 일군들의 사상적병집을 수령의 사상과 의도에서의 리탈에서 찾고 그들을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아 손 잡아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매한 풍모는 주요인물들인 전상환과 천세봉과의 관계에서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불행한 유년시절을 보낸 전상환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 안고 어엿한 당일군으로 성장한다.

그런데 그는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업하지 못한 결과 적지 않은 결함을 범하게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가 자기의 과오를 고치기 위해 노력할 대신 대오에서 떨어 질 생각을 하고 있다는것을 아시고 가차 없는 비판을 들이대신다. 허나 그이의 심중에는 혁명전사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뜨겁게 흐르고 있었으니 이튿날 그의 생일을 축하해 주시며 비참한 과거사도 들어 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갈 동지로 굳게 믿어 주시는 모습은 크나큰 감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사랑속에 전상환은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한몫 하는 믿음직한 일군으로 자라나게 된다.

소설은 작가동맹위원장 천세봉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형상하고 있다.

동료작가들도 미처 알아 두기 힘든 작품진척정형도 다 료해하시고 작가들의 창작적고충을 진심으로 리해해 주시는분, 그가 위병때문에 아스피린을 복용하는데 건강에 해로울수 있다고 하시며 자그마한 생활세부까지 속속들이 다 꿰뚫고 계시는 다심하신분,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수 있는 작가적준비를 갖추어 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분, 작가가 창작상 과오를 범하여 고민에 빠졌을 때에는 친히 만나 보시면서 창작에서 범한 과오를 창작을 통하여 시정해야 한다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의 치료를 위해 외국료양까지 조직해 주시는분, 이러한 넓고 따사로운 품속에서 우리 작가들은 수령의 작가, 당의 작가로 성장할수 있었으며 새로운 혁명문학이 태여날수 있었음을 소설은 감동 깊게 밝혀 내고 있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세계는 의식을 잃은 허담을 살려 내는 장면에서도 뜨겁게 형상되고 있다.

머나 먼 외국려행의 길에서 평양으로 돌아 오던 허담이 혼수상태에 빠져 의료일군들도 어쩔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안타까이 그의 이름을 몇번이고 부르고 부르신다.

그러나 좀처럼 반응이 없자 그이께서는 그가 절대로 잘못되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가슴에 손을 눌러 대시며《허담이! 눈을 뜨시오. 김정일이 왔소. 한마디 말이라도 해보고 헤여져야 할게 아니요. 허담이!》라고 웨치신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 났다. 허담은 그이의 존함이 들려 오자 드디여 회복하기 시작한것이다. 참으로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화폭이다.

자칫하면 영영 일어 나지 못할번 했던 혁명전사를 기적적으로 살려 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니신 믿음과 사랑의 세계의 숭고한 높이가 있음을 소설은 힘 있게 보여 주고 있다.

소설에서는 또한 우리 인민들에게 베푸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을 감동 깊게 보여 주고 있다.

불순분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연극단 연출가 리형걸과 엄한정의 딸 엄영심과의 사랑은 찬서리를 맞게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거창한 사상리론활동을 벌려 나가시는 그 분망한 속에서 엄한정의 얼굴에 비낀 그늘속에서 가정내막을 헤아리고 몸소 리형걸과 엄영심의 참된 사랑이 꽃 펴나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제철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된 한창수와 김명옥에게 뜻 깊은 선물을 보내 주시고 전상환을 직접 보내시여 축하해 주도록 하신다.

이외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진우를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돌려 주시며 학자들의 건강을 각근히 념려해 주시는 장면 등은 그이의 숭고한 동지애와 인간적풍모의 위대성을 부각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소설은 이러한 형상들을 통해 사회적정의는 영명한 지도자에 의하여 수호된다는 진리와 함께 인간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 주는것을 단순히 인정상문제가 아니라 당적원칙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간적풍모를 감동 깊게 밝혀 내고 있다.

작품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위대한 풍모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의 위대한 사상과 풍모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예술적으로 밝히는데도 힘을 넣고 있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권총을 넘겨 받으시는 장면, 김정숙어머님의 마지막유언을 들으시는 장면 등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풍모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무한한 헌신성이 수령의 위대한 풍모를 이룬다는것을 밝힌것은 작품이 달성한 또 하나의 성과이다.

총서《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전환》은 다음으로 수령형상문학으로서의 높은 예술적품위를 훌륭히 보장하고 있다.

소설의 예술적품위를 담보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심오한 철학성을 훌륭히 구현하는것이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는 심오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력사가 보여 주는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수령은 다 위대한 철학가였다. 수령은 종래의 철학사상을 전면적으로 검토총화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철학사상을 내놓으며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지도리념으로 삼는다.

수령의 사상리론활동은 지도사상으로 내세운 철학사상을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리론을 정립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령도도 그 철학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수령형상문학에서는 수령의 비범한 철학세계를 깊이 있게 펼쳐 보여 형상의 철학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총서《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전환》에서는 100년사상사총화를 통하여 주체적인 수령론을 창시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상한 사상리론활동을 주선으로 세우면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히 세워 나가도록 이끄시는 그이의 불면불휴의 활동이 심오한 철학적깊이를 가지고 풍만하게 형상되였다.

그리고 선행한 맑스—레닌주의 사상리론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가 폭 넓고 심오하게 분석되고 있음으로 하여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이 력사의 위인들과의 대조속에서 깊이 있게 밝혀 지고 있다.

하여 소설은 절세의 수령을 맞이한 우리 혁명의 영광, 민족의 행운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굳게 간직하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또한 수령형상창조의 원칙적요구와 고유한 생리에 맞게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우리 장군님의 내면세계를 심도 있게 보여 주고 있다.

복잡다단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우리 혁명의 제반 실태를 예리하게 분석하시는 심오한 사색세계, 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두고 깊이 료해하시고 옳바로 이끌어 주기 위해 마음 쓰시는 체험세계 등은 절세의 위인의 고결한 풍모를 보다 가슴 뜨겁게 감득할수 있게 하여 주고 있다.

특히 어버이수령님과 백두산녀장군이신 김정숙어머님의 가르치심을 받던 시절에 대한 추억을 오늘의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감동 깊게 펼쳐 보임으로써 형상적의의를 더욱 강조해 주고 있다.

소설에는 눈 내리는 어느 날 밤 어머님에 대해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내면세계에 대한 묘사가 있다.

《어머님께서는 수령님을 호위하기 위해 항상 마음을 쓰시였다. 한생을 그렇게 살아 온 어머님이시다. 적탄이 비발치는 항일전의 나날에나 그리고 광복이 되여 반동들이 살판치는 그 삼엄한 속에서 호위에 호위를 계속하시였다.…

그런데… 그런데 이 **김정일**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것인가?… 수령님을 호위하는것이란 신변의 안녕을 지키는것과 함께 당, 우리 당을 그 어떤 풍파

에도 드놀지 않게 보위하는것이 아니겠는가… 명실공히 수령님의 의도대로 당이 꾸려 지고 활동하도록 해야 할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실태는…

그이께서는 뜨거운 입김을 내불며 결연히 고개를 드시였다.》

참으로 의미 깊은 묘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내면세계에 깊이 침투하여 그이의 고결한 풍모와 사상정신적원천에 대하여 심오하게 밝혀 내고 있는 이러한 묘사는 수령형상문학으로서의 인간학적품위를 훌륭히 갖추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작품이 제기한 기본문제 해결에로 조화롭게 묶어 세우면서도 력사적사실을 현대성의 견지에서 다루어 내고 있으며 철학적사색과 풍만한 지성이 슴배인 묘사로서 형상의 품위를 돋구고 있다.

작품은 허담, 오진우, 천세봉과 같은 력사적인물들을 설정하면서도 당시의 력사적현실을 진실하게 그릴수 있게 전형적인 인물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였으며 모든 사건, 사실들을 실재한 력사에 맞게 그리면서도 오늘의 견지에서 보다 풍부하고 깊이 있게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수령론과 관련한 많은 내용들을 현대성의 견지에서 밝혀 냄으로써 작품의 력사문헌적성격을 살려 내면서도 오늘 우리 인민들에게 수령결사옹위정신의 사상정신적량식으로 되게 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에 어울리게 철학적사색이 깃든 언어묘사를 통해 작품의 지성세계를 높이고 풍부한 지적내용을 담고 있다.

심오하고 풍부한 철학적내용을 형상적으로 훌륭히 소화하면서 세계적인 명인들의 일화, 명제뿐아니라 고사까지 능란하게 활용한것은 작품의 인상을 한층 돋구어 주고 있다.

맑스가 즐겨 인용하던 단떼의 명제나 손자의 병법을 비롯하여 동서고금의 상식적인 자료들은 작품의 주제사상적과제해명과 자연스럽게 맞물리면서 형상의 품위를 돋구어 주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총서《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전환》은 그의 높은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불길속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우리 인민을 크게 고무하는 의의 있는 작품이다.

이런 작품은 력사와 더불어 길이 남을것이다.

평 론

력사와 더불어 영원할 사랑의 성화

총서《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평양의 봉화》에 대하여

최 언 경

잊지 못할 주체78(1989)년 7월 1일, 혁명의 수도 평양의 하늘에는 봉화가 올랐다.

그것은 세계청년운동사에 일찌기 있어 본적 없는 특기할 사변으로 력사에 아로 새겨 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의 개막을 알리는 력사의 봉화였다. 순간 축전장을 꽉 채운 20만의 눈길과 함께 온 세계가 평양의 그 봉화를 우러러 보았다. 천지가 떠나갈듯 환성을 터쳤다.

하다면 평양의 봉화, 그것은 과연 무엇으로 타며 무엇을 말하려는것인가. 이것은 세계가 경이와 경탄을 가지고 시대앞에 던진 물음이였다.

총서《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평양의 봉화》(안동춘작)는 이 시대의 물음에 력사의 증견자와도 같이 실재한 력사적사실그대로의 진실한 화폭으로 훌륭한 사상예술적해답을 주고 있다.

평양의 봉화, 그것은 사랑으로 밝히고 사랑으로 불 태우는 위대한 사랑의 성화이다. 그것은 진정 조선의 미래이며 희망인 우리 청년들의 창창한 래일을 위하여, 자주화된 새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세계청년들을 위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바치고 기울이신 사랑과 로고의 고귀한 열매이다.

참으로 세계청년들, 인류의 미래에 대한 태양의 열과도 같이 뜨거운 사랑을 안으시고 걷잡을수 없이 시시각각으로 돌변해 가는 세계정세의 추이를 속속들이 헤갈라 보시는 천재적예지와 비범한 안광, 일단 결심하시면 지구라도 통채로 떠옮길 초인간적의지와 무비의 담력으로 평양축전을 축전사상 최대의 성공축전으로 되게 하시고 마침내 그 거대한 승리를 평양의 봉화로 만방에 떨치게 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거룩한 위인적 풍모, 그 불멸의 령도업적을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서 빛나게 형상한것이야말로 장편소설《평양의 봉화》가 이룩한 더없이 귀중한 사상예술적성과이다. 바로 여기에 작품이 총서《불멸의 향도》에서 차지하는 특이하고도 당당한 력사적지위가 있으며《고난의 행군》을 이겨 내고 강성대국건설에 일떠선 우리 인민을 힘 있게 고무하는 커다란 교양적의의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평양에서 열리는것은 매우 큰 의의를 가집니다. 세계 5대륙의 진보적청년학생대표들이 주체의 조국인 우리 나라에 와서 국제적친선과 단결을 강화하고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함께 투쟁해 나갈 결의를 다지는것은 세계청년운동발전에서 뜻 깊은 일로 될뿐아니라 우리 혁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의 힘 있는 시위로 될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과 세계의 미래를 위하여 이토록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것이기에 그 어떤 곤난이 앞을 막아 나선다 하여도 기어이 평양축전을 단행하실 단호한 결심을 하시였다.

소설의 감동적인 화폭이 생동하게 보여 주는바와 같이 한다면 하시는것이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우리 장군님의 비범한 기질이다.

위대한 장군님이 아니고서야 감히 그 누가 그때의 그 복잡한 세상형편에서 평양축전을 단행할수 있다고 엄두나 낼수 있었겠는가.

실로 축전앞에 조성된 정세는 너무도 엄혹하였으며 헤쳐야 할 난관 또한 헤아릴수 없이 엄청난것이였다.

사실상 축전을 둘러 싼 세계정세는 험악할대로 험악하고 팽팽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조국인 조선에서 울려 갈 반제자주의 힘찬 웨침을 두려워 한 제국주의세력과 온갖 반동들이 평양축전을 한사코 반대해 나선것은 더 말할것도 없었다. 적들은 격변하는 정세에 편승하여 평양축전을 사전에 파탄시키려고 온갖 비렬한 책동과 음모를 다하였다. 소설에서는 미국대통령 레간의 직접적인 지시밑에 평양축전을 저지파탄시킬 음모책동을 스스로 맡아 나선 제임스 켐프의 로회교활한 행동선을 통하여 이것을 여지없이 폭로해 보이고 있다.

적들의 이러한 음모는 바야흐로 붕괴되여 가고 있던 일부 사회주의나라의 배신자들이 거기에 맞장구를 쳐나섬으로써 더욱 엄중성을 띠였다. 엊그제까지 미국의《랭전》이요,《열전》이요 하는 호통에 맞서《해볼테면 해보자》고 제법 으르렁거리던 크레믈리의 주인들이 이즈음에 와서는《평화의 시대》요,《화합》이요 하면서 백악관의 정객들과 악수를 한다, 입을 맞춘다 광대놀음을 벌렸던것이다. 소설에서 보여준것처럼 얼마전까지만 해도 평양축전을 지지해 나섰던 그들이 종잡을수 없이 모호한 태도를 취해 나섰던것이다.

한편 청와대의 괴뢰들은 이통에 한몫 끼여 들어《올림픽》이요,《북방친화정책》이요 하고 가소로운 나발을 불어 대면서 안으로는 전쟁놀음에 미쳐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 가고 있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의 지지자, 동정자들도 갈피를 잡지 못해 하면서 우려의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 모든 정세는 사실상 축전의 가능성보다는 불가능성을 명백히 말해 주고 있었다. 그렇게도 격변해 가는 복잡한 정세속에서 그 엄청난 난국을 뚫고 평양축전을 성사시킬 묘안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더는 없을상 싶었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준비사업을 맡고 있는 사로청(당시)일군들마저도 신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사태가 오죽했으면 항일의 로투사로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몸 가까이 모시고 사업해 온 주성익이마저 생각을 거듭한 끝에 장군님께 평양축전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편지까지 올렸겠는가. 모든 힘을 군력강화에 돌려야 할 이때에 그처럼 큰 잔치를 치를수 있겠는가 하는 진심으로부터의 걱정때문이였다.

그러나 이 모든 엄혹하고도 엄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평양축전은 반드시 해야 하며 또 할수 있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결심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시였다. 아니, 정세가 나빠 질수록 축전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절박하고 확고한것으로 굳히시였다. 바로 불가능한것으로 보여 지는 그 험악한 정세속에서 절박한 필요성을 절감하시였으며 그 절박한 필요성에서 확고한 승리의 가능성을 보신것이다. 혼란되여 가는 시대의 소용돌이속에서 길을 헛갈리지 않도록 청년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는것은 이제 와서는 력사앞에 지닌 숭고한 의무로 되였다고 그것을 스스로 한가슴에 받아 안으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세계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아것이 세계에 대한 나의 사상입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평양축전, 그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일뿐아니라 어길수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이기도 하였다.

평양축전의 발기를 누구보다 기뻐 하시고 뜨겁게 지지해 주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도 청년들을 위한 사업에 기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시며 사회주의나라 당들과의 사업문제는 념려 말라고 말씀하신것이였다.

장군님께서는 그때 한 없는 고마움과 함께 또다시 수령님께 일감을 드리게 됨을 아프게 여기시였으며 그럴수록 전 세계청년들에게 수령님께서 추켜 드신 주체의 밝은 빛을 반드시 보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 뜨겁게 하시였다. 이리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의 빛, 그 사랑의 밝은 빛을 전 세계청년들이 보게 하시려 평양축전의 그 무거운 중하를 한몸에 떠메시고 격동하는 시대의 한가운데 나서시였다.

장편소설《평양의 봉화》는 세계정세의 이러한 추이를 그대로 반영한 심각한 극적정황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자취를 따라 그이의 령도선을 주선으로 하여 이야기를 펼쳐 나가면서 시종일관 극에서 극에로 사건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 높이 추켜 드신 손길을 따라 천만갈래로 흩어 졌던 세계청년들의 마음이 오직 한곬으로, 평양축전에로 흘러 들기 시작하였으며 이미 그 시각에 평양축전의 성공은 결정되였다는것을 작품은 힘 있는 진실로 참으로 감명 깊게 잘 보여 주고 있다.

소설은 처음부터 심각한 극속에서 시작된다.

평양축전준비사업이 그 시작부터 커다란 난국에

부닥친것이다. 그것은 축전의 주최문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대기는 우리 대표들에게 이번 회의에서 축전장소만이 아니라 축전성격과 구호문제, 시기문제도 동시에 결정하고 종지부를 찍을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단호한 일팔타결의 전술이였다.

일팔타결! 상상을 초월하는, 기상천외하고 놀랍기만 한 기적 같은 전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부 사람들이《만세》구호가 더는 불가능하다고 본 바로 거기에서 더는 미룰수 없는《만세》구호의 절박한 요구를 절감하시였으며 그리하여 축전기일도 91년, 90년도 아니고 80년대안으로 당겨야 한다고 보시였다.

사람들을 경탄시킨 기적은 그날로부터 한달도 넘기지 않아서 일어 났다.

위대한 장군님의《일팔타결》안이 승리한것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세계의 면전에서 천지를 진감하는 뢰성과도 같은 첫 장훈을 부르신것이다.

소설은 누구도 부정 못할 력사적자료의 풍부한 인증과 그 무엇으로서도 흐트러 뜨릴수 없는 장군님식의 철의 론리로 이 귀중한 사상예술적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평양축전이 안고 있는 심각한 정치적문제에 대한 일팔타결의 화폭, 그것은 진정 복잡하고 첨예한 정세의 추이를 밑뿌리까지 파헤쳐 보시고 광란하는 역류를 몰아 내고 향방없이 흩어 지는 수천의 지류를 하나의 거세찬 대하에로 합류시켜 력사의 전진을 힘차게 노저어 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예지에 대한 참으로 빛나는 상징이다.

정치적난관은 일팔타결되였으나 아직도 헤쳐야할 난국은 한두가지가 아니였으며 따라서 소설의 극도 발전하고 형상도 끝없이 심화되여 나간다.

평양축전의 주최가 확정된 오늘 그 준비사업을 어떻게 하겠는가, 과연 3년동안에 그 방대한 규모의 건설을, 막대한 경제적부담을 감당해낼수 있겠는가. 역시 문제는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렇게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쏘련청년대표들은 제12차축전때 3만 4천여명의 손님을 치르고 20억루블의 돈을 들였으며 안전보장사업에만도 두개 사단의 군대를 풀었다고 자랑삼아 말하면서 조선에서는 자기네처럼 하기가 어려울것이라고 덧붙이기까지 하였다.

비위를 거슬리는 거드름이였으나 문제가 문제인것만큼 사로청일군들은 축전사상 제일 컸던 12차축전과 맞먹게《최대규모》안을 제기하였으며 이 사업을 책임진 준선부부장은 그 수자를 다시 깎아서 만든 축전규모안을 장군님께 올리였다.

그의 생각은 줄창 나라가 걸머지게 될 자금문제에 무겁게 가닿고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축전규모문제, 자금문제에서도 장군님의 초지는 변함이 없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축전규모란 결코 인원수가 기본으로 되여야 한다는법은 없다고 하시면서 참가단체, 참가나라수를 기본으로 볼데 대하여 현명하게 가르쳐 주시였다. 자금지표도, 참가인원수도 더 높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축전준비를 위해 자금을 풀어주시겠다고 크나큰 배려를 돌려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귀중한 자금을 준선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이 돈은 우리 수령님과 항일의 로투사들로부터 수백만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 주는 선물로 받아야 할것이요. 여기서는 세계청년들도 례외가 되지 않소.

한푼도 허실하거나 잘못 쓰는 일이 없어야 하겠소.》

묻건대 세상에 사랑이란 말이 생겨 동서고금 그 어디, 그 언제 이런 사랑 있어 본적 있었던가. 이처럼 태양에서 찬란히 빛발쳐 나오는 그 눈부신 빛파도 같은 예지와 함께 그 태양에서 쏟아 져 흐르는 뜨거운 별파도 같이 온 세계를 따뜻이 품어 주는 위인의 그 숭고한 사랑의 한 없는 세계를 하나의 력사적사실에 집약시켜 의의 깊게 보여 준 여기에 위인 형상에서 장편소설《평양의 봉화》가 이룩한 또하나의 귀중한 성과가 있는것이다.

축전준비사업으로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어깨에 지워 진 중하는 진정 끝이 없었다.

3년간에 260여개의 대상건설을 끝내야 할 방대한 건설사업이 그이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세계건설사에 전무후무한 일이다. 주체86(1997)년까지 계획했던것을 축전을 예견하여 5~6년 앞당긴셈인데 이제 또 2~3년을 더 앞당겨야 하는것이다. 그것도 광복거리만 해도 창광거리의 4배가 넘었고 대상중 110여개대상은 인민대학습당과 맞잡이거나 그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것들이였다.

그러나 계획을 단 하나도 조절함이 없이 그대로 내밀자는 위대한 장군님의 결심에는 드팀이 없으시였다.

실로 쑥대만이 무성하던 허허벌판에 현대적인 광복거리가 일떠서기까지 이 력사적인 건설의 나날에 그것을 몸소 진두지휘하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바치신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소설은 감동적인 화폭속에 생동히 그리였다.

어찌 그뿐이랴, 하루하루를 분과 초를 쪼개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 몇번이나 거듭하여 친히 보아 주신 개페막도안…

청년들을 위하여,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바치고 또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한 없는 로고에 떠받들리여 마침내 축전준비사업은 성과리에 끝나가고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적인 축전준비가 기본상 되였다는것을 세상에 공포케 하시고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력사적로작《현 시대와 청년들의 임무》를 발표하시였다.

장편소설《평양의 봉화》는 세계청년학생축전과 세계청년운동발전에서 그처럼 거대한 의의를 가지

는 력사적로작을 받아 안게 된 세계청년들의 환희로운 모습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상리론의 높은 세계와 업적을 감명 깊게 보여 주었다.

축전을 2달 앞둔 5월 1일과 2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5월 1일 경기장을 비롯한 축전대상건설물들의 준공식에 참석하시고 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폭풍치는 만세의 환호성과 감격의 열파속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건설자들에게 최대의 만족과 사의를 표시하시며 오늘은 내 소원 하나가 크게 풀린 날이라고 그리도 기뻐 하시였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 이르시였을 때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의 환호에 손 저어 답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안광에는 뜨거운것이 어려 있었다.

이 영광의 순간을 위하여 우리 장군님 바치신 로고와 흘리신 땀은 산을 쌓고 강을 이루고도 남을것이였다.

마침내 세계가 숨 죽여 기다리던 력사의 시각이 다가왔다.

력사적인 주체78(1989)년 7월 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예지로 밝혀 주시고 사랑과 로고로 마련해 주시였으며 담력으로 펼쳐 주신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의 개막시각이 온것이다. 소설은 작품의 종자가 담겨 있고 형상의 넋이 깃들어 있는 봉화에로 묘사의 각광을 집중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감회 깊게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저 봉화는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혁명투사들이 지펴 올린 불이고 조국해방전쟁시기부터 오늘까지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싸운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의 억센 기상과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 순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생의 기쁨을 다 합쳐 느끼는 기분속에 계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참으로 뜻 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나는 오늘 만경대를 떠났을 때부터 오늘까지를 그려 보고 또 래일에 대해서도 생각했소. 아직도 길은 멀고 험난하다는 생각도 했고 … 하지만 나는 휘황차고 밝은 승리와 영광의 미래를 환히 보았소. 사람들한테는 춥고 어두울 때 불이 없다면 모든것이 끝장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이, 아니 향도의 태양, 위대한 태양이 있소!…》

그렇다. 위대한 태양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앞날의 세계는 영원히 밝고 찬란할것이다.

작가와 더불어, 조선과 더불어 인류는 말한다.

《거인의 심장을 형상한 홰불! 저 불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인적풍모를 형상하는데서 장편소설《평양의 봉화》가 이룩한 사상예술적성과의 요인은 무엇보다도 위인의 력사에 실재했던 사실과 사건, 생활과 자료들을 놀랄만큼 풍부하고 진실하게 반영한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그 무엇으로써도 대신할수 없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광 넘치는 혁명실록을 더하지도 덜지도 않으면서 그대로 진실하게 재현하기 위하여 기울인 작가의 고심어린 탐구와 충성의 뜨거운 지성을 력력히 감득하게 된다.

장편소설《평양의 봉화》가 아니였다면 평양축전의 개페막행사의 황홀경에 그처럼 격찬을 보낸 세계청년들, 지어는 우리 청년들마저도 그들에게 그 거룩한 사랑의 봉화를 지펴 주시기 위해 우리 장군님께서 바치신 그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미처 다는 헤아리지 못했을것이다. 그것은 생동하게 체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너무도 거대하고 심오한 위인의 세계인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인적풍모를 형상하는데서 장편소설《평양의 봉화》가 이룩한 사상예술적성과의 요인은 또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심각한 극조직에 있다.

소설은 사실상 극의 련속이며 극으로 시작하여 극으로 끝났다고 할수 있다. 한고리 풀리면 또 한고리, 극은 다시 보다 심각한 극으로 이어 지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이 극의 한가운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계신것이다. 극이 심화될수록 장군님의 위대한 위인의 세계는 더 높이, 더 깊이, 더 넓게 밝혀 지고 있다.

소설의 이러한 극조직은 사실상 항일혁명투쟁이나 조국해방주제의 작품에서와 같이 적대세력과의 직접적인 충돌과 갈등이 아닌 그속에서도 세계제국주의와 반동들, 혁명의 배신자들의 공세와 압력을 지략과 예지, 담력과 의지로 단호히 분쇄해 버리시는 그 거인적인 위인의 풍모를 눈 부시게 부각할수 있게 하였다.

참으로 위인의 감정선을 따라 줄기차게 흐르는 극의 발전은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돋구고 작품의 시종일관한 견인력을 담보한 중요한 형상적요인으로 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인적풍모를 형상하는데서 장편소설《평양의 봉화》가 이룩한 사상예술적성과의 요인은 또한 생동한 인간성격의 창조와 뜻 깊은 인간관계에 의하여 인간학적으로 훌륭히 담보된데 있다.

소설에는 항일의 로투사 주성익으로부터 시작하여 청년일군들 특히는 애정이 가는 우리 시대의 처녀들인 돌격대원 지혜련과 림향옥이들의 성격이 생동한 개성으로 그려 지고 있으며 플리오와 왈드, 하씬 등 세계청년일군들의 형상도 이채롭게 그려 지고 있다.

이 생동한 개성들은 자기 고유의 매력을 가지면서 위대한 장군님을 중심으로 하여 맺어 지는 다양한 뜻 깊은 인간관계속에서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부각해 보이는데 훌륭히 이바지하고 있다. 그들에 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피심은 위인의 형상에 생활과 향기를 주는 형상적요인으로 되고 있다.

소설에는 적절한 개소에서 인용된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과 건설현장에 몸소 차를 몰고 오신 그이의 땀배인 장갑에 대한 세부 등 생동하고 진실한 세부묘사들은 작가의 묘사특기를 잘 보여 준다.

총서《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평양의 봉화》는 이 모든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우리 청년들과 인민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 주고 그들을 강성대국건설에로 힘있게 고무할것이며 정의와 진리,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청년들과 인민들에게 투쟁의 진로를 가르쳐 주는 힘 있는 무기로 될것이다.

평 론

단편소설과 예술적흥미

리창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에서는 인민대중이 현실적으로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문제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그것을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풀어 나가야 할뿐아니라 이야기줄거리도 재미나게 엮어 나가야 한다.》

이해 3.4분기에 적지 않은 우수한 단편소설들이 잡지《조선문학》과《문학신문》에 발표되여 독자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수령형상단편소설들인《눈보라》(김명익작),《평범한 하루》(박혜란작),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형상에 바쳐 진《첫 녀성락하병들》(송병준작) 등을 비롯하여 인간생활의 여러분야를 취급한 소설들인《사랑의 령마루》(로정법작),《내물은 바다로 간다》(주종선작) 등은 사상예술적으로 이채롭거나 비교적 우수한 작품들이다.

이밖에도 단편소설《사랑의 메아리》(정영종작),《모성의 권리》(김혜영작) 등은 문제제기와 형상기교의 측면에서 작가적탐구와 사색이 깊은 작품들이다.

단편소설《눈보라》는 백두산3대장군의 위인적풍모를 함께 모신 특색 있는 작품으로서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형상적으로 일관성 있게 구현하고 있다. 즉 작품에서는 우리 나라에서《수령은 평민의 생활을 하고 인민은 하늘처럼 떠받들리우는》생활을 한다는 사상적내용을 감동적으로 그려 보이고 있다.

작품에서는 광복후 한 평범한 목수였던 박춘덕이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의 부탁을 받고 항일혁명투사들의 숙원을 담아 수령님께서 집무실에서 앉으실 고급의자를 만들었는데 그후 수령님의 유훈교시에 따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의자를 생일 75돐을 맞는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야기를 기본줄거리로 하고 있다.

작품에서 특징적인것은 우선 기본이야기줄거리에 백두산3대장군의 위인적풍모가 잘 반영되도록 이러저러한 생활세부들과 력사적자료들을 시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적절히《삽입》하여 구성을 립체미가 있게 잘 짜고 든것이다.

목공인 박춘덕에게 지나 온 경력을 물으시고 그에게서 왜놈들때문에 다리를 절게 된 기막힌 사연을 들으시고는 흰 저고리 옷고름을 말없이 눈가에 가져가시는 백두산녀장군 김정숙어머님.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대로 오랜 기간 장중보옥처럼 보관해 온 의의 있는 사적물인 그 의자를 박춘덕에게 전달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참으로 이 소설에서는 의자 하나를 두고도 백두산3대장군의 거룩한 모습을 얼마나 실감 있고 뜨겁게 잘 그려 보이고 있는가.

작품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하나의 자연묘사를 통하여서도 장구한 기간에 있은 감동적인 사실들을 펼쳐 보이는 식의 형상수법을 능란히 적용하고 있는 점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박춘덕을 당중앙청사의 집무실로 부른 날에 있은 눈보라에 대한 장면묘사에 이어 고난의 행군시기 남패자에서 북대정자에로의 힘겨운 로정을 상상해 보시는 장면묘사 그리고 주체45(1956)년 12월의 난국을 돌이켜 보시는 장면묘사 등은《눈보라》라는 의미 깊은 장면묘사에 따르는 감명 깊은 력사적화폭들이다. 이로하여 작품전반에는 한편의 서사시를 련상시키는 강한 서정성이 부여되고 있다.

소설에는 이밖에도 집약적이며 간명한 초상묘사를 비롯한 단편소설의 생리에 맞는 언어형상의 높은 예술적기교가 반영되여 있다.

이로하여 작품은 이해에 창작발표된 수령형상소설가운데서 사상예술적품격이 높은 단편소설로 될수 있었다고 말할수 있다.

단편소설《첫 녀성락하병들》은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조국광복의 성전을 앞두고 녀성락하병들을 키우시기 위한 길에서 새 조선의 믿음직한 건군의 기둥을 마련하시는 불멸의 혁명업적을 감명깊이 그려 낸 작품이다.

작품에서는 성시에 공작 나갔던 한 대원이 아드님의 옷을 해드리라고 구해 온 귀중한 천으로 녀대원 정금이의 어린 아들 명철에게 해입힐 색동옷부터 지으

시는 김정숙어머님의 뜨거운 인간애가 잘 그려 져 있다. 또한 친히 락하병이 되시여 불 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녀대원 한사람한사람을 무적필승의 투사로 키우시는 백두산 녀장군 김정숙동지의 위인적풍모가 뜨겁게 그려 져 있다.

소설에서 특징적인 점은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건군업적을 조국광복을 위한 성전을 준비하던 시기의 군사훈련정황에서 련대장과 그의 동생이며 혁명동지인 정금이 그리고 락하훈련이 잘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던 옥분이와 같은 여러 상대인물들과의 관계속에서 진실하게 그리고 있는 것이다.

단편소설《평범한 하루》에는 항일혁명투사인 오중흡동지를 혁명의 길로 이끄시여 참된 충신이 되도록 키워 주시고 오늘은 또 그의 딸 복순이를 친히 만나시여 아버지처럼 훌륭한 충신이 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특출한 위인적풍모와 뜨거운 인간애가 장구한 기간의 몇몇 특징적인 사건들과 생활세부를 통하여 의의 깊게 형상되고 있다.

작품의 구성은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현재로 부단히 이야기순서를 바꾸어 가면서 혁명의 1세들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대를 이어 계승할데 대한 시대의 초미의 문제를 줄기차게 풀어 나갈수 있도록 립체적으로 잘 조직되고 있다.

지난 3.4분기에 이렇듯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수령형상단편소설들이 적지 않게 창작발표된것은 올해 단편소설문학이 거둔 커다란 성과의 일단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기간에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작품들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소설들이 수많이 발표되였다.

그가운데서 단편실화소설《사랑의 령마루》는 한 특류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 한 최연희라는 녀성로동자의 미거를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사상, 군사중시사상을 높이 받든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높이에서 특색 있게 그려 낸 우수한 작품이다. 소설은 특류영예군인인 김정서에 대한 최연희의 사랑을《어느 한 사람과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시작된것이 아니라 우리 장군님의 군대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되였고 꽃 피여 난 숭고한 감정》에 귀착시키고 있다. 이로하여 작품에는 시대정신이 세차게 굽이치고 있으며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풍모가 새로운 높이에서 형상되고 있다.

주인공 최연희는 바다가의 한 료양소에서 해병출신의 한 영예군인과 사귀였다. 그는 한 의학박사의 아들이였다.

연희는 그와 헤여진후 우리 인민들속에 나날이 높아 가고 있는 원군정신에 비추어《나는 무엇으로 장군님의 군대를 받들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하던 끝에 그 해병영예군인을 찾아 갔다. 그런데 그 영예군인은 그사이 병이 더쳐 이 세상사람이 아니였다. 그리하여 그는 집으로 되돌아 왔고 자기의 고향도시로부터 수십리 떨어 진 곳에 있다는 또 다른 해병출신의 특류영예군인을 찾아 가 그와 일생을 함께 할 결의를 피력했다. 했으나 그 영예군인은 그의 제기를 듣고 펄쩍 뛰였다. 몸이 아픈데 장가가 다 무엇인가 하는것이였다. 물론 내속은 다르지만 한 처녀의 행복을 희생시킬수 없다는것이였다.

하지만 연희는 자기가 영예군인과 일생을 함께 하는것은 희생이 아니고 우리 인민의 원군기풍을 따라 배워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사상, 군사중시사상을 받드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와 일생을 함께 한 연희는 료양소에서 사귄바 있던 해병의 아버지인 유명한 의학박사에게 청을 드려 남편의 척추수술을 성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온갖 지성을 다 바친다.…

작품은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가 하는 물음에 훌륭한 예술적해명을 주고 있다.

작품에서는 주인공 최연희의 생활관, 사랑관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사상, 군사중시사상을 심장으로 받드는 사람, 경애하는 장군님의 충직한 아들딸이 된 자부가 넘쳐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것을 형상적으로 풀어 보이고 있다. 바로 그것으로 하여 주인공 최연희의 사랑관은 독자들의 심금을 더더욱 뜨겁게 울리는것이며 또 이런 인간을 내세워 주는 시대의 참된 륜리도덕으로 하여 최연희를 리해하고 도와나서는 의학박사며 그의 안해와 같은 여러 상대인물들의 깨끗한 인간미는 더없이 고상한것이다. 이러한 인간미는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가 된 우리 사회인간들의 정신도덕적풍모의 일단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단편소설《내물은 바다로 간다》에서는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에 탄원한 애어린 처녀 장인애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불러 주신 강성대국건설의 보람찬 전초선에서 집단을 위해, 자기를 키워 준 이 땅을 위해 무엇인가 진심을 바칠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문제를 특색 있고 생동한 몇개의 세부로 잘 풀어 보이고 있다.

작품은 문제성도 좋고《리발사건》이나 특식경기와 같은 생활세부들도 이채롭다. 마치 그것은 한폭의 수채화와도 같이 독자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만든다. 아니 그것은 로동생활의 첫 시작부터 집단과 사회를 위해 유익한 일을 하려는 청년들의 불 같은 지향으로 하여 더욱 아름답다.

장진산골의 림산로동자지구에서 자라난 장인애는 몸집도 체소하고 나이도 이제 겨우 열여덟에 불과한 처녀였다. 이러한 처녀를 두고 중대장은 남들의 짐이 되기전에 하루 빨리 전 직장에 되돌아 가라고 한다. 그러자 처녀는 자기를 쫓아 보내지 말라고, 이제 열흘만 시간을 주면 낮에는 리발도 배우고 밤에 대신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정사정한다. 그러던 장인애가 중대별 특식경기에 훌륭한 감자음식을 내놓아 특등의 영예를 지니게 된다.

작품에서 특징적인것은 우선 주인공 장인애를 이야기의 처음부터 등장시키지 않고 감추어 놓았다가

돌격대를 떠난 부정인물 미옥이와 대조시켜 개성도 있고 교양적가치도 크게 잘 형상한것이다.

감추어 놓은 주인공—이는 성격형상에서 여러 인물들의 생활을 통하여 굴절되여 그려 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형상방식은 작품의 처음부터 주인공을 등장시킨 경우보다 작품의 이야기를 꾸미기가 힘들다. 하지만 이 경우의 형상방식은 주인공의 모습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높여 줄수 있으므로 작품의 예술적흥미를 돋구어 줄수 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높은 리발기술을 가지고 있고 악기도 잘 타는 미옥이라는 처녀가 돌격대생활이 어렵다고 혁명초소를 버리고 떠난 사실에 류의하면서 그와 대조되는 애어린 돌격대처녀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끌고 나갔다. 그리고 격식화된《틀》이 없이 점차적으로 장인애를 주인공의 위치에 끌어 올림으로써 독자들의 예상을 뒤집는것으로 작품의 예술적흥미를 잘 보장하고 있다.

소설의 언어형상도 좋고 취급된 주인공의 생활도 특색 있는 세부묘사로 개성화되여 있다. 이로 하여 이 소설은 심각한 갈등을 내재한 작품이나 그 양상은 밝고 랑만적이다. 소설은 단숨에 읽히운다.

단편소설《사랑의 메아리》는 우리 시대 인간들은 혁명임무를 두고 개인적사정을 거들어 변명하거나 리해를 바라는 식으로 일을 대치해서는 안된다는 심각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한 작품이다.

작품은 오늘《고난의 행군》, 강행군에 이어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다그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우리 인민들의 사상미학적요구와 시대의 요구에 부합되는 절실하고 의의 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한것으로 하여 특색이 있다. 이야기를 꾸민 솜씨도 괜찮고 작가의 형상기교도 비교적 재치 있는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단편소설《모성의 권리》는 계급교양주제의 작품으로서《기연기봉》적인 이야기를 담은 비교적 읽히우는 소설이라고 말할수 있다.

작품에서 강조한바와 같이 이 땅의 어머니들은 누구나 다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나 나라가 없던 지난날 이 땅의 어머니들은 자식 하나 키워 낼 삶의 터전이 없었고 그로하여 자식을 나무에 업혀 놓고 일터로 가지 않으면 안되였었다.

하지만 지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 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국의 품, 이 나라 모든 어머니들의 모성애를 꽃 피워 주는 위대한 품이 있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가장 초보적인 인간의 권리마저 상실당하였던 지난 날의 비극을 더는 알지 못하는것이다.

작품은 이러한 심각한 인간문제를 째인 극적구성을 통하여 비교적 실감 있게 잘 풀어 보이고 있다.

지난 3.4분기에 발표된 단편소설들가운데는 이밖에도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반영한 단편소설《두번째 상봉》(한웅빈작)과 같이 풍자적양상을 효과 있게 리용한 작품도 있고 조국을 지켜 싸운 한 체육인의 생활을 그린 단편실화소설《기계다리》(김덕철작)와 같은 작품도 있다.

이 단편소설들은 예술적기교의 측면에서는 일정하게 평가할 우점도 가지고 있으나 이와 함께 론의할 점도 적지 않다.

《두번째 상봉》에서는 외국인이 쓴 수기의 형식 즉 1인칭형상수법으로 이야기를 꾸몄더라면 좀 더 작중인물의 내면세계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일수 있었을것이고《기계다리》에서는 실화소설인만큼 단편소설로서의 재치만 부리려 하지 말고 주인공의 생활을 이러저러한 생동한 세부들을 탐구하여 실감 있게 그려 주었더라면 독자들의 심금을 울려 주었을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시대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높은 미학적요구에 맞는 사상예술적품격이 높은 단편소설들을 왕성하게 창작해냄으로써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떨쳐 나선 우리 인민의 장엄한 진군을 적극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문학부문소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신진순에게 친필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신진순이 올린 편지를 보아 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어린 친필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친필은 다음과 같다.

《1999. 10. 7
김정일》

광복전 경기도 리천에서 태여난 신진순은 우리 민족모두가 그러하였듯이 일제의 온갖 민족적멸시와 천대속에서 불우한 운명을 강요 당하였던 녀성이다.

조국이 광복된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긴 그는 비로소 참다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되였으며 수령님의 건국로선을 받들고 일해 나가는 나날에 탁월한 수령을 모신 무한한 긍지와 행복을 가슴깊이 새겨 안게 되였다.

녀성관리위원장으로, 출판보도부문의 기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로,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어 진 그의 성장로정에 새겨 진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각별한 사랑은 정녕 끝이 없다.

하기에 그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받아 온 사랑만 해도 분에 넘치는데 이번에 또다시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료해하시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감사의 인사와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를 삼가 드리였다.

그는 편지에서 고령이 다 된 오늘에도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위치에서 일하도록 해주신 믿음에 하나도 보답 못하고 있는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거듭거듭 사랑과 배려를 안겨 주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제 더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있다면 남녘에서 희생된 두 오빠와 녀동생의 후손들도 조국이 통일되여 장군님품에 안길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랄뿐입니다.

그는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한생을 행복하게 사는 자기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하신 수령님을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우리 가문의 어버이로 모시고 있는것보다 더 큰 자랑과 긍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김일성민족의 자부심을 안고 백두산3대장군의 사랑속에 한생을 보내온 이보다 더 큰 영광을 그 어디에 비기겠습니까.

6살때 아버지를 잃고 16살난 오빠가 세대주가 된 집에서 집을 나와 고학의 길에 나섰던 제가 전쟁시기 남편도 잃었지만 위대하신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외로움을 모르고 행복한 한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도 위대하신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안고 이 행성우에 빛나는 사회주의조국의 아들딸로 영원히 살아 갈것입니다.

그는 끝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민족의 행복을 위하여 귀중하신 몸 부디 안녕하시기를 간절히간절히 바란다고 지적하고 15년전 자기가 쓴 시《당》을 삼가 올리였다.

편집부는 그 시를 전재한다.

당

당은 조국의 심장
당은 조국의 량심
민족의 예지와 힘의 최고봉
당은 투쟁과 건설의 총 참모부

당은 조국의 심장, 나의 심장
나 당을 만나 마흔해 되였노라
당의 품에
조국과 함께 마흔해를 자랐노라!
조국강토 복판에서

미제원쑤와 칼날을 맞부비며
전투와 건설의 백열전 마흔해!
당이 손 잡아 이끌어
위대한 조국
어머니당의 품에 내 자라났노라!

당의 품에 마흔해
그러나 당은 더 먼저
조국의 하늘높이 있었노라!
민족의 심장깊이 있었노라!

백두산정에 피워 올리신 불길
누리를 비쳐
당은 그날부터
민족의 심장깊이 있었노라!

진리를 찾아 첫 걸음 떼던 날
나의 가슴 푸른 하늘 가득히
빛발치고 있었노라
암흑의 땅, 목숨 내건 비밀장소에
잔인무비한 일제의 고문실철창속에
그 빛발 새여 들어
투사들의 심장 용광로로 끓었나니

당은 백두산정에 그날부터 있었노라
당이 있어
오늘의 조국을 믿었기에
그들은 당당히 단두대에 올랐노라
희망 안고 감방속에서 숨 져 갔노라

당이 있어
삼천리 통일된 강토우의 행복을 믿기에
오늘도 그들은 잔혹한 파쑈폭압 맞받아
노도와 같이 격랑과 같이
투쟁의 한길 달리고 또 달리노라!

당중앙 높이 든 주체의 홰불
온 누리에 찬란히 빛발쳐
세계 싸우는 인민들
인류의 미래를 믿어
행성의 번영을 위해

달리노라! 폭풍과 같이, 해일과 같이!
광란하는 제국주의
되살아 난 파쑈광증 맞받아
세계는 투쟁의 한길로
내달리노라!

당은 조국의 심장
당은 나의 심장
백전백승 우리 당의 령도 따라
내 번개되고 벼락이 되리
조국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가차없이 드팀없이
원쑤를 치리
고난과 재앙을 다 물리치고
조국의 자랑, 민족의 자랑
생애를 불 태워 빛내여 가리!
위대한 어머니
영원한 당의 품이 나에게 있어!

송년시《잊을수 없어라 1998년이여》에 대한 주체적문예사상연구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송년시《잊을수 없어라 1998년이여》를 보시고 여러차례 주신 평가의 말씀을 문학작품창작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주체적문예사상연구모임이 1월 28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병훈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군들과 평양시내 작가동맹 맹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송년시《잊을수 없어라 1998년이여》가 거둔 특출한 사상예술적성과들에 대한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인 백의선은 위인의 위대한 생활이 송년시를 쓰게 했다는데 대해 먼저 강조하고나서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작가가 훌륭한 작품을 쓰려면 무엇보다먼저 작품의 핵으로 되는 종자를 똑바로 골라 잡아야 한다.》

이 작품의 종자는 인민의 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종자는 위대한 장군님의 생활 그자체에서 나온것입니다.

계속하여 그는 작품창작에서 인간의 생활감정을 가장 진실하게 형상하고 인간의 심금을 가장 뜨겁게 울려 줄수 있는 그런 종자를 선택하려는것이 작가들의 첫 모대김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체험하였지만 그런 종자는 진실에 있고 그 진실은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생활 그자체였다고 강조하였다.

송년시가 거둔 성과의 다른 하나는 생활에 대한 깊은 체험, 말하자면 위대한 장군님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뜨거운 체험에 있다고 하면서 종자에 알맞는 모든 생활세부들, 시인의 감정을 뜨겁게 불러 일으켜 준 그 생활은 모두 사실 그대로였다고, 창작에서 성과를 거두는 시인들을 보면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 그 한마디한마디를 깊이 연구하고 있으며 그이의 자욱자욱을 따라 생활을 구체적으로 가슴에 안기 위해 애쓰는것이 생활화되였다고 말하였다.

우리 시대에 와서 송년시는 수령형상문학의 한 형식으로 고착되여야 하지 않겠는가고 생각한다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그 거룩한 자욱따라 해와 해는 흐르고 력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과 우리 시인들의 도덕과 의리의 감정은 해마다 이어 지고 이어지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송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바치는 수령형상문학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당당히 말하고 싶습니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인 문동식은 송년시가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종자탐구에서 시대의 주도적인 사상정신세계를 생활적인 서정으로 꽃 피울수 있는 특색 있는 종자를 발견하고 그 종자를 중심으로 작품의 형상적대를 잘 세운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송년시《잊을수 없어라 1998년이여》에서 시인들은 준엄한 계급투쟁의 복잡다단한 사변들로 충만된

지난해의 시대적흐름과 생활을 깊이 있게 투시해 본 결과 지난해에 우리 장군님께서 계신 집은 인민의 집이였으며 인민의 집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혼연일체의 대가정이였다는것입니다.

송년시는 집이라는 특색 있는 생활적인 종자를 탐구하고 그것을 핵으로 시의 감정정서를 집, 가정, 사랑과 화목, 우애와 단합의 인정적이고 생활적인 곬으로 추구해 나감으로써 송시를 명실공히 풍만한 생활감정으로 일관시킬수 있었습니다.

시인들은 송년시에서 집이라는 종자를 강조함으로써 시의 주제와 사상을 해명하고 부각시키는데서 참으로 재치 있는 솜씨를 보여 주었습니다.

송년시가 거둔 성과와 경험은 반드시 송년시를 비롯해서 서정시, 장시, 가사창작에서도 하나의 법칙은 생활형상의 제 요소가 내포되여 있는 특색 있는 종자를 탐구발견하고 거기에 기초하여 생활의 감흥과 정서를 가지고 시를 쓸 때만이 명작을 창작해 낼수 있다는것입니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문학평론가 박춘택은 토론에서 송년시가 커다란 감화력을 발휘하는것은 시적내용이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형상된데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송년시에 그려 진 생활은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사상을 체현하시고 언제나 인민들과 병사들속에 들어 가 혁명활동을 벌리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보여 주고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의 본질을 구현한것입니다.

송년시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에 맞는 생활들이 생동히 노래됨으로써 송년시의 시적내용은 철학적심오성을 담보하게 되였으며 장군님의 인민적령도풍모와 고결한 인간애가 빛나게 부각되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송년시에서 참으로 지난 1998년은 사회주의 큰집을 지키고 빛내여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천신만고의 365일이며 우리 최고사령관동지의 풍찬로숙의 365일이며 우리 인민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바치신 우리 어버이의 불면불휴의 365일이였음을 크나큰 격정속에 새겨 안게 되였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창작실 실장 윤두만은 토론에서 송년시가 잘된 비결의 하나는 철학적 무게를 가진 특색 있는 종자의 요구에 맞게 구성조직, 감정조직을 잘한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송년시의 형태상특성에 맞게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 보는 추억의 감정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신 그 거룩한 자욱우에 실음으로써 구성의 대를 튼튼히 세운것과 함께 종자를 꽃 피울수 있는 환원반복구성법을 능란하게 활용하여 구성의 조형미와 립체미를 보장하였을뿐아니라 주정토로로 일관된 시류형상특성에 맞게 형상고리를 잘 설정하고 다양한 시점에서 장군님의 사상과 정서, 감정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구성의 심도를 보장한것 등이 송년시의 특색 있는 구성묘미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총 49련으로 된 송년시에서 6련과 27련이 구성의 조형미, 립체미를 보장하는데서 노는 형상적기능은 실로 크다고 하면서 시의 6련은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과 종자를 안는 서정의 불꽃으로 되는 동시에 혈친적인 그리움의 정서를 생동하고 구체적인 생활표상과 시적화폭으로 펼쳐 나갈수 있게 한 형상적고리로, 감정촉발의 출발점으로 되며 27련은 6련의 사상감정을 확대반복하여 정서의 흐름에 굴곡과 파동을 주고 종자를 활짝 꽃 피우는데로 일관하게 지향되도록 강한 견인력을 주어 감정의 새 마당을 펼치고 정서의 다리를 놓아 급전비약기능을 수행하게 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시 전반부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생활적인 감정정서를 펼쳤다면 후반부로 넘어 가면서는 점차 정론적이며 철학적인 감정으로 자연스럽게 전이하면서 폭 넓은 시적일반화를 할수 있게 구성조직을 한것은 송년시의 세련된 구성기교로 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이런 감정조직, 구성형식은 우리 식 사회주의대가정, 인민의 집이라는 대상을 구체적인 산 생활감정으로 파악할수 있게 한 가장 효과적인 구성, 작품의 심도와 철학성을 담보해 주는 감정조직이라고 강조하였다.

김형직사범대학 조선어문학부 창작강좌장 허수산은 토론에서 장시형의 송년시에서의 서정성구현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송년시가 서정구현문제에서 일정한 시사를 주는 문제점은 우선 명백한 시상의 선택과 노래하려는 대상에 대한 깊은 침투이라고 하면서 그는 이 시에서 시인들은 인민의 집이라는 새로운 시상을 확고히 틀어 잡았다고,《우리 장군님도 인간/ 단란한 가정의 아버지이시건만/ 자신의 집을 떠나시여/온 한해 인민의 어버이로/인민의 집에 사신/우리 장군님…》바로 이것이 시인들이 틀어 잡은 새로운 사상, 형상의 핵이라고 강조하였다.

송년시가 일정한 창작적시사를 주는 문제는 또한 시의 서정의 주도적성격을 옳게 규정한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이 시에서 주도적인 서정의 성격은 그리움의 정서입니다. 시에서는 그리움의 정서를 서정의 주도적성격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여의 서정들도 여기에 융합되여 꽃 필수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옳은 형상수법의 선택 즉 대비와 대조수법의 선택과 시인의 뜨거운 주정토로와 아름다운 시적화폭의 교차속에서 높은 시적일반화의 실현 등도 일정한 창작적시사를 주는 문제들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송년시에서의 서정성구현문제는 이밖에도 시어선택과 아름다운 시적언어표현, 음악성 높은 운률조직에 의해서도 해결되는바 이 시는 이 점에서도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 시의 모범을 따라 장시형의 송년시가 명실공히 시가 되여 우리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 시대의 명작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모두가 분발해 나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결성 40돐기념모임진행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문예동)결성 40돐을 기념하는 모임이 6월 29일 일본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다.

모임에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 권순휘부의장과 배진구문화선전국장, 문예동 김정수위원장을 비롯한 총련의 작가, 예술인들, 총련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모임에서는 총련의 작가, 예술인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랑독된 다음 총련의 작가, 예술인들에게 공훈예술가칭호와 공훈배우칭호가 각각 수여되였다.

모임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성과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에서 보낸 축전이 소개되였다.

모임에서는 한덕수의장이 연설하였다.

기념보고를 김정수위원장이 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 드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이날 문예동결성 40돐기념공연이 진행되였다.

제53차 작가강습 진행

제53차 작가강습이 4월 27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에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김병훈위원장 등 작가동맹 맹원들과 문학창작지도일군들, 출판부문 일군들이 강습에 참가하였다.

강습에서는 먼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주체의 사회주의리론을 세계 사회주의운동의 공인된 지도사상으로 발전완성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다》,《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하는 명작을 더많이 창작하자!》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다.

이어 창작 및 현실체험, 경험토론들이 있었다.

작가 김우경은《혁명전설발굴과 정리사업에서의 몇가지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작가 김광남은《순천지구 현실체험과정에 얻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작가 한원희는《시초〈영웅찬가〉창작경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토론에 참가하였다.

이어 작가들의 식견을 넓히는데 이바지하는 여러가지 강의들과 문화사업들이 있었다.

작가강습은 작가들로 하여금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에 힘 있게 이바지하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할수 있도록 적극 떠밀어 주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조선문학축전상》제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기대와 은정이 깃든《조선문학축전상》이 새로 제정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잡지《조선문학》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매해 7월호에 진행하는 지상축전에서 당선된 소설, 시, 평론, 수기를 비롯한 좋은 작품들을 써낸 우수한 작가, 기자, 편집원들에게 금메달과 축전상장을 수여할데 대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 주시였다.

잡지《조선문학》은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아래 우리 나라의 첫 문예출판물로 태여난 잡지《문화전선》의 후신이다.

잡지는 태여난 첫날부터 어버이수령님의 깊은 관심과 보살피심속에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문학잡지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여 왔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7월 몸소 잡지 창간호를 보아 주시고 대단히 만족해 하시면서 잡지편집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문학예술종합출판사《조선문학》편집부에서는 잡지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하여 주체79(1990)년부터 7월호마다 지상축전을 힘 있게 벌려 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조선문학》잡지의 현 실태를 깊이 헤아리시고 우리 나라에서의 첫 잡지상인《조선문학축전상》을 새롭게 제정하여 해마다 지상축전에서 당선된 우수한 작품들과 작가, 기자, 편집원들에게 상장과 메달을 수여하도록 하시였으며 몸소 메달도안을 지도하여 주시고 금메달을 품을 들여 제작하도록 해주시였다.

지난 9월 말 평양에서 진행된 전국작가강습을 계기로 문학예술종합출판사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첫《조선문학축전상》과 금메달이 지난 기간 지상축전들에서 우수하게 당선된 작가, 기자들에게 수여되였다.

《조선문학축전상》에 당선된 작품들과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주체80(1991)년 7호
평론《우리 시대 녀성들의 사랑의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김해월
정론시《승리》 차영도

주체81(1992)년 7호
단편소설《상봉》 남대현
시《맑은 샘》 리동후
평론《누리에 울려 퍼지는 최고사령관 찬가》 장용남

주체82(1993)년 7호
단편소설《동산》김성관
시《새파란 풀밭》량덕모
평론《혁명연극〈승리의 기치 따라〉에 대하여》 김성우

주체83(1994)년 7호
단편소설《흰 운동화》김리돈
담시《표창에 대한 이야기》림공식
평론《남산의 푸른 소나무와 더불어 푸르른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적시가문학》리수림
단평《특색 있는 시형상으로 노래한 내 조국의 자랑찬 모습》신경애

주체87(1998)년 7호
단편소설《군관신분증》전인광
시《금수산기슭에서》김명익
시《나를 시인이라 불러 달라》김봉운
론설《당중앙위원회 구호는 우리 문학의 시대정신》최길상

주체88(1999)년 7호
수기《조선문학과 나》장형준
단편소설《사랑의 메아리》정영종
단편소설《모성의 권리》김혜영
시《먼 길》한창우
시《우리 사람들》김석주

각도(시) 작가동맹소식

새해 공동사설을 피 끓는 심장마다에 받아 안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안의 작가들이 새로운 혁신과 위훈창조로 들끓는 전국 각지의 공장, 기업소, 건설장들에 달려 나가 작품창작과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기세와 열의를 더욱 북돋아 주고 이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량강도에서

조선작가동맹 량강도위원회의 시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자욱이 깃들어 있는 대홍단군 홍암분장과 삼지연군 무봉로동자구에 대한 현지답사를 진행하면서 창작사업을 활발히 벌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자욱이 스며 있는 로정들을 답사하면서 시인들은 우리 인민에게 보다 큰 행복을 안겨 주시기 위해 머나먼 북방의 두메산촌을 여러차례 찾아 주신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로고와 뜨거운 사랑에 격정을 금치 못해 하였다.

시인들은 대홍단군 홍암분장의 제대군인마을과 감자연구소 시험포전, 삼지연군 무봉로동자구의 목욕탕, 덕수터, 발전소 등 여러곳을 참관하면서 이곳 사람들과 만나 담화도 하고 취재도 하였다.

답사기간 이들은 서정시(가제들임)《2월은 무르익어라》(박용봉),《벌이 정들어》(김광렬),《우리 집 뜨락》(서봉제),《대홍단의 경사》(박희구) 등 10여편의 시가작품들을 창작하였다.

평양시에서

새해 공동사설에 접한 평양시안의 시인들은 즉시 전투복차림으로 현지경제선동에 떨쳐 나섰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달려 나간 시인들은 열생산직장과 타빈직장에서 혁명적인 시랑송으로 전력증산에 떨쳐 나선 로동계급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 주었다.

먼저 시인 오영재의 시랑송《나는 믿노라》에 이어《불을 지피자》(최영화),《새해 첫날 아침에》(김철),《그대들을 먼저 찾아 왔노라》(황성하),《새해의 첫 인사》(김만영)가 랑송되자 이곳 로동자들은 시인들처럼 자기들의 심장도 뜨겁게 달구어 더 많은 전력생산으로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것을 결의해 나섰다.

한편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장에 달려 나간 송찬웅, 석광희, 홍현양, 한찬보, 문동식, 문기창, 장혜명, 차영도, 조창제, 리연희, 엄애란, 주광일, 리창식 등은 자강도청년돌격대의 전투현장에서 시랑송경제선동을 진행하였다.

현장을 옮겨 가며 3차에 걸쳐 진행한 경제선동에서 이들은《열어 나가자 새 세기의 첫 대통로를》,《우리가 가는 길》,《고향의 어머니에게》,《우리의 길》,《올해의 마지막돌격전》,《돌격대원 그 나이에》,《얼마나 좋은가 노래가 있다는것은》등 15편의

힘 있는 시들을 랑송한데 이어 20여편의 벽시들도 전시하였다.

강동지구에 나간 황성하, 박정애, 박경심, 리연희 등 녀성시인들도 뜨거운 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차넘치는 시랑송경제선동으로 새해 진군길에 떨쳐나선 현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기세를 북돋아 주었다.

또한 이곳 시인들은 새해벽두부터 혁명적인 시창작전투를 세차게 벌려 불과 며칠 안되는 기간에 헌시《새해의 인사를 드리옵니다》(정성환)를 비롯한 10여편의 서정시와 많은 가사들도 창작하였다.

강원도에서

조선작가동맹 강원도위원회의 작가들도 토지정리로 들끓는 전투현장에 달려 나가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리였다.

위원장 유영하 그리고 리정술, 김동호, 강승계 등 이곳 작가들은 원산시 상자협동농장 토지정리전투장에서 이곳 전투원들과 함께 흙짐도 지면서 현지에서 벽시를 창작하여 전시하였다.

벽시《분토》,《온 나라가 왔다》,《땅과 조국》,《곧바로 가라》등은 강원도토지정리에 참가한 이곳 전투원들의 사기를 부쩍 돋구어 주었다. 원산시 진거름생산현장에 나간 허여극, 오재신, 조명기, 마운룡 등의 작가들도 진거름생산에 자기들의 땀방울을 바쳐 가며《먼 후날을 내다보네》,《뜨거운 땅》,《쌀로 지키자 우리의 사회주의》등의 벽시를 창작하고 랑송하여 농업근로자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개성시에서

위원장 리성덕동무를 비롯한 조선작가동맹 개성시위원회의 작가들은 공동사설을 접한 즉시 가족들까지 발동하여 성의껏 준비한 시와 노래들을 가지고 시안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과 주변협동농장들에 나가 현지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을 크게 고무격려하였다.

시《건설하자 강성대국, 위대한 장군님의 나라를》,《그이의 숨결 따라 그이의 발걸음에 맞추어》,《재봉공의 손》,《력사의 정점에서》와 노래, 힘 있는 선동들은 새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과업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그 관철에로 힘 있게 호소한것으로 하여 대중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 주었다.

황해남도에서

조선작가동맹 황해남도위원회의 작가들도 년초부터 공동사설관철에 떨쳐 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들어 가 경제선동활동을 힘 있게 벌리였다.

해주제련소에 나간 시인들은 이곳 로동계급을 찾아 다니며 일터마다에서 시도 읊고 일손도 도우면서 그들이 린비료생산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도록 적극 떠밀어 주었다.

시인 김영근은 시《강성대국이 보인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떨쳐 나선 우리 인민의 위용을 감명 깊게 노래하였으며 시인 채동규, 김충기 등은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나래를 펼쳐 나가는 로동계급의 거세찬 숨결을 시에 담아 노래하였다.

×

이밖에도 리춘복, 박상민, 김승남, 안윤식, 강남섭, 권택무, 차명숙 등 평안남도안의 작가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사적이 깃들어 있는 승리자동차종합공장과 령대탄광 등 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안의 여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경제선동을 진행한것을 비롯하여 각도 작가동맹의 작가들은 힘 있는 화선식경제선동으로 년초부터 강성대국건설에 떨쳐 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적극 떠밀어 주었다.

독자모임진행

장편소설《력사와 인간》(제1부)에 대한 독자모임진행

장편소설《력사와 인간》(제1부)에 대한 독자모임이 4월 중순 김형직사범대학에서 있었다.

모임에는 김형직사범대학 조선어문학부 교원, 학생들과 작가양성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교원 박춘명이 발언하였다.

그는 소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력사주의적원칙과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을 구현하는데서 성과를 거둔 작품의 하나이라고 하면서 력사와 인간이라는 매우 크고도 의의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여러가지 형상수법을 리용하여 깊이 있게 밝혀 낸데 대하여 개괄하여 언급하였다.

이어 작가양성반 학생 리준호, 문학과 학생 박성철, 학부장 김용부가 토론하였다.

그들은 소설에서 인간 김구의 모습을 깊은 감동을 가지고 볼수 있었다고 하면서 인간성격을 창조하고 인간의 내면세계를 파고 들어 거기로부터 작품의 주제, 사상을 밝혀 내야 하는 소설의 생리적특성을 잘 살려 낸데 이 작품이 거둔 성과의 하나가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어머니와 안해를 비롯한 가정에 대한 인정세태선을 김구의 애국적성격의 바탕으로 깔아 주었기때문에 파란곡절 많은 27년동안 림시정부를 고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형상이 진실하게 안겨 올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총적으로 소설은 상해림시정부와 함께 곡절 많은 인생행로를 걸어 온 김구의 형상을 통하여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면 나라와 민족, 개인들의 운명이 어떤 곡절을 겪게 되는가 하는것을 력사적사실자료들과 깊이 있는 예술적형상으로 감명 깊게 펼쳐 보였다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그들은 또한 소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주체문학론**》에서 명시하신대로 성격문학으로 되고 생활을 방불하게 펼친것이라든가 인간문제를 깊이 있게 파고 들어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한것, 지성이 높은 작품으로 창작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밖에도 그들은 소설에서 작가의 소설가적인 기교 즉 높은 구성력과 묘사력을 느낄수 있다고 하면서 그 실례로 27년간의 림시정부력사를 보여 주면서도 무리가 가지 않게 구성을 짜고 들면서도 사건과 생활을 지루감이 없이 펼쳐 나간것, 당시의 상해를 비롯한 자연과 풍토, 생활환경과 풍습을 방불하게 그려 내고 주인공 김구와 려운형, 안창호, 리승만 등 등장인물들의 심리세계를 깊이 있게 파고 들어 묘사한것 등을 들었다.

모임에서는 소설을 창작한 작가 김청남이 발언하였다.

장편소설《영원한 병사》에 대한 독자모임진행

장편소설《영원한 병사》에 대한 독자모임이 건군절을 앞두고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의 주최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조선어문학부 교직원들, 문학창작과 학생들과 함께 소설가 김홍무가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교원 김려숙, 리정수, 학생들인 박혜련, 백철국, 리명건 등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울데 대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창작된 소설이 독자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게 된것은 그 어떤 크고 요란한 사건이나 생활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늘 목격할수 있는 평범한 인간들의 생활과 숭고한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그려 낸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소설의 예술적감화력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무엇보다먼저 주인공인 영예군인 리경석의 평범한 생활을 통하여 명예와 량심이라는 심오한 철학적문제를 밝히고 있으며 소박한 인간의 마음속에 한생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영원한 병사로 살맹세가 어떻게 깃들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빛을 뿌는가를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 보임으로써 50년대 60년대의 생활을 그리면서도 현 시대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것이 참답게 사는것인가를 깨우쳐 주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소설의 감화력은 다음으로 주인공 리경석의 성격규정을 잘하고 그 성격적대를 바로 세운데 있다고 볼수 있다는데 대하여 그들은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그들은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순결한 량심을 성격적핵으로 하여 평범하고 소박하며 그지없이 고지식하고 인정미가 넘치는 성격을 탐구해 낸것 등을 실례로 들어 언급하였다.

특히 영화영사원으로 된 생활적전제와 장마철 우기대책이나 세우고 움직이지 말데 대한 상급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영사기를 싣고 농촌마을을 찾아 다니는 장면은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주인공의 성격적대를 부각하기 위하여 형상적으로 노린 대목이라고 볼수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소설의 감화력은 또한 묘사력과 구성의 묘미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각이한 인생관을 지니고 각이한 직업과 직종, 생활처지에 있는 다양한 인물들의 내면심리를 담담한 필치로 생활의 론리와 정황에 맞게 묘사한 묘사능력, 10여년간의 생활을 기본으로 하면서 회상수법을 통하여 전쟁시기의 생활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비약과 함축으로 구성을 집약화한 구성의 탄력성 등이 그 실례로 된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모임에서는 소설의 창작과 관련된 독자들이 알고싶어하는 문제들에 대한 질문에 이어 소설가 김홍무의 발언이 있었다.

총서《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평양의 봉화》에 대한 독자모임진행

총서《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평양의 봉화》에 대한 독자모임이 6월 중순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문학관계부문 일군들과《**김일성상**》계관인 작가 안동춘이 참가하였다.

또한 조선대학교(외문학부, 어문학부)학생 조국방문단성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작가 안동춘이 장편소설《평양의 봉화》의 창작경위에 대하여 소개한데 이어 리문희, 윤아대, 조순령 등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소설을 통하여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의 대성공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현명한 령도의 위대한 결실이라는것을 다시금 가슴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들은 소설을 통하여 조국의 가장 아름다운 참모습을 보게 되였고 조국청년들의 순결하고 고상한 정신세계를 뜨겁게 받아 안은데 대하여 그리고 조국과 비록 멀리 떨어 져 살지만 조국인민과 함께 사회주의조국을 지키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해 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주체88(1999)년 영화예술개관

시련도 많았고 곡절도 많았던《고난의 행군》을 이겨 낸 승리자의 긍지 드높이 강성부흥하는 사회주의조선,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던 잊을수 없는 주체88(1999)년.

아직은 고난의 흔적이 력력한, 아직은 모든것이 부족되고 어려운 불리한 조건속에서도 우리의 영화예술인들은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자신들의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영화창조사업을 힘차게 다그쳐왔다.

하여 이해에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예술영화와 기록영화, 과학영화와 아동영화들을 수많이 창작해냄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더욱 힘 있게 고무추동하였으며 주체영화예술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예술영화

주체88(1999)년은 예술영화창작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 뜻 깊은 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영화예술은 혁명적이며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으로 하여 사람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우리 시대의 인간전형을 내세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줌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투쟁의 무기, 생활의 교과서로 되고 있습니다.》

이해 예술영화창작에서 이룩된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령도자에 대한 끝 없는 숭배심을 지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영화들이 시대적인 높이에서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창조된것이다.

이해에 예술영화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은《밀림이 설레인다》제7~11부를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훌륭히 완성하여 수령의 위대성으로 우리 인민을 교양하고 그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어버이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영상을 화폭의 중심에 모신 이 영화에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면서 엄중한 위기에 처하였던 조선혁명이 어느분에 의하여 어떻게 구원되였는가 하는것을 고난의 행군시기에 있은 이야기를 통하여 깊이 있게 밝혀 내고 있다.

특히 영화에서는 비범한 예지와 림기응변의 탁월한 전략전술, 세련된 령군술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 우리 혁명은 그토록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승승장구할수 있었다는것을 감명 깊은 예술적형상으로 확증하고 있다..

일제의 거짓선전과 모략에 걸려 본의 아니게 사령부를 해치기 위해 밀영에 들어 왔던, 그로 하여 남편까지 당장 제 손으로 쏴 죽이겠다던 분옥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 주어 혁명가로 키워 주시며 사경에 처한 오중흡7련대와 애인을 잃고 적구에서 홀로 모대기고 있을 전사를 위해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 않으시고 찾아 가시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슬픔도 함께 나누시는것을 비롯하여 동지들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은 정녕 끝이 없다.

동지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수령님의 그 위대한 천품에 끝없이 매혹되였기에 전사들은 그이를 어버이로, 민족의 태양으로 절대적으로 숭배하며 한몸 서슴없이 바쳐 수령님을 결사옹위해 나서는 것이다.

수령과 전사들사이에 맺어 진 혁명적동지애의 관계, 사랑과 충성의 예술적화폭을 통하여 동지애로 시작되고 동지애로 승리하여 온 우리 혁명의 자랑찬 력사를 시대적높이에서 감명 깊게 펼쳐 보인 바로 여기에 이 영화의 비상한 감화력과 현실적의의가 있는것이다.

이해에 창작된 다부작예술영화《민족과 운명》의 련속편인 최현편 1~3부 역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수령에 대한 끝 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한 성과작의 하나이다.

선군혁명시대인 오늘날 인민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다.

인민군대가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될 때에만 당과 국가의 존엄과 영예도 지켜낼수 있고 인민의 안전과 행복도 담보되게 된다.

이것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횡포한 도전에 단독으로 맞서 혁명의 붉은기를 지켜 내기 위한 투쟁속에서 우리 인민이 찾고 간직한 혁명의 철리이다.

영화는 주인공 최현의 형상을 통하여 인민군대가 틀어 잡은 총대의 사명과 임무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해명을 주고 있다.

영화에서 보게 되는바와 같이 인민군대가 틀어 잡은 총대는 다름 아닌 자기의 령도자를 옹위하는 총대로 되여야 한다는것이 주인공 최현이 곡절도 많았던 인생길에서 심장깊이 간직한 총대에 대한 신념이다.

총이 있어야 나라를 찾을수 있다며 아들에게까지 총을 쥐여 주고 의병운동에 내세워 주었던 그의 아버지 최화심은 일제에 의해 의병대가 전멸되자 운명을 앞두고 최현에게 다시는 손에 총을 잡지 말라고 당부하며 이렇게 한탄한다.

《득권아! 백만자루의 총이 있구 백만의 의병이 있어도 우리를 이끌어 줄 령수가 없구나.…》

아버지의 시신앞에서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한 민족의 울분을 터뜨리며 총대를 꺾어 버렸던 최현은 그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다시 총대를 틀어 잡는다.

이 과정에 그는 총대도 탁월한 령도자를 모실 때에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지켜 낼수 있다는것을 뼈 저리게 체험하게 되며 총대로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하는것을 총 쥔 군인의 첫째가는 의무로, 자기 삶의 좌우명으로 삼는다.

하기에 그는 강철무가 최고사령부의 작전적의도에 맞지 않게 제멋대로 개인복수전을 벌렸을 때 사상이 없는 총대는 막대기와 다름 없다며 엄하게 비판하는것이며 부대안의 모든 군인들이 위대한 수령님만 믿고 따르며 수령님을 결사옹위하도록 교양하고 이끌어 주는것이다.

이처럼 영화는 주인공 최현의 형상을 통하여 총대철학에 대한 심오한 사상을 밝혀 냄으로써 현 시기 우리 군대와 인민들로 하여금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도록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밖에도 혁명가의 생을 잇는 명줄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라는것을 보여 주는 예술영화《명줄》,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지니고 살며 투쟁해 나가는 투사들의 숭고한 모습을 형상한 예술영화《미래를 사랑하라》, 조국해방전쟁의 그토록 준엄했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최고사령부를 찾아 간고한 길을 헤쳐 나가는 평범한 농민을 형상한 예술영화《법동농민》(전, 후편)을 비롯하여 이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을 당과 수령에 대한 끝 없는 충실성으로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예술영화들이 많이 창작되였다.

영화들은 수령결사옹위가 혁명승리의 기본요구로 제기되고 있는 시대적인 환경에 맞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지니고 살아도 죽어도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에 끝까지 충성 다하도록 적극 고무추동함으로써 사상교양의 위력한 무기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였다.

이해 예술영화창작에서 이룩된 성과의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과 위훈을 반영한 현실주제의 영화들이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수많이 창작된것이다.

그중에서도 예술영화《추억속에 영원하리》는《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투철한 수령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에 대한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력사문헌적의의가 있게 형상해 낸 성과작의 하나이다.

지난해에 창조된 경희극《편지》에 기초하여 창작된 영화는 사회주의수호의 1211고지인 농업전선을 도와 줄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어느 한 협동농장에 달려 나간 인민군군인들이 농장원들과 함께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갖은 시련과 난관을 이겨 내고 한해농사를 훌륭히 결속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은 형상을 통하여 영화는 우리 당의 군민일치사상의 정당성과 불패의 위력을 힘 있게 확증하였다.

특히 영화는 군인들이 발휘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을 통하여 사상에서도 제일, 투쟁기풍에서도 제일인것으로 하여 사회의 본보기로 되고 있는 우리 인민군대야말로 우리 혁명의 제일기둥으로 된다는것을 선군혁명시대에 맞게 잘 형상하였다.

이런것으로 하여 영화는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인민군대의 사상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을 적극 본 받아 주체의 강성대국을 앞당겨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힘차게 벌려 나갈수 있도록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이와 함께 예술영화인《우리 위원장》,《불 같은 사람》,《평양에 온 두 대표》,《우리는 여기서 산다》, 텔레비죤예술영화들인《압록강 2천리》,《금패령의 겨울》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건설의 각 부문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불 타는 충성심을 안고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해 헌신분투하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투쟁위훈을 반영한 영화들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성과적으로 창작되였다.

영화들에서는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새겨 안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과감히 뚫고 헤쳐 나감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보다 높은 혁신적앙양을 일으켜 나가는, 실적으로 당을 받들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여 나가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모습을 개성적인 인물성격과 생동한 생활내용으로 감명 깊게 형상하였다.

그리하여 영화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 때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능히 뚫고 헤쳐 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보다 앞당길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하여 주었다.

처녀의 몸으로 온갖 지성을 다 바쳐 불구자인 귀국동포처녀가 대지를 마음껏 활보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영화《사랑의 대지》(전, 후편)도 이해에 창작된 현실주제작품의 성과작의 하나이라고 말할수 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부모를 다 잃은 애어린 소녀였던 주인공 귀녀를 처녀의 몸으로 스스로 맡아 키워 준 귀녀의《이모》, 사랑하는 애인과 리별하면서까지 정옥이의 병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귀녀와 정옥이의 완치를 위해 서로가 발 벗고 나서며 자기들의 피까지 서슴없이 바치는 병원 의사들과 로동자, 사무원, 청년학생들…

이들의 성의가 너무도 고마와 불과 몇살 우인 귀

녀를《엄마》라고 부르며 귀녀의 품에 안기는 정옥.

영화는 이와 같은 형상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빛내여 주시는 조국의 품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위대하고 따사로운 사랑의 품이며 그 품에 안겨 모두가 친형제, 친혈육이 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사는 우리 인민이야말로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인민이라는것을 뜨거운 격정속에 열렬히 강조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을 진실하게 펼쳐 보이면서 이 고마운 제도를 마련해 주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한것으로 하여 영화는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이해에 계급교양주제의 작품창작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였다.

혁명의 수뇌부보위는 보위일군의 신념이고 량심이며 의리이여야 한다는 숭고한 자각밑에 우리 제도를 내부로부터 와해전복시키기 위해 날뛰는 적들의 간첩집단인《석금망》을 적발소탕해 버리는 보위일군들의 투쟁을 담은 텔레비죤예술영화《한 보위일군의 수기》(제1~9부)와 세계프로레스링왕자로서 조선사람의 기개와 용맹을 떨친 력도산(본명 김신락)을 형상한 텔레비죤예술영화《민족의 사나이》(제1~15부), 토지개혁으로부터 농업협동화시기를 배경으로 농촌에서의 심각한 계급투쟁을 천세봉의 장편소설에 기초하여 보여 준 텔레비죤련속극《대하는 흐른다》(제1~12부)가 그 대표작이라 말할수 있다.

주체의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은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고 있다.

작품들은 이러한 현실적, 시대적요구에 맞게 계급적원쑤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며 놈들과는 끝까지 싸워 결장을 내야 한다는 계급투쟁의 심오한 진리를 깨우쳐 줌으로써 군대와 인민이 높은 계급의식을 가지고 살며 투쟁해 나가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해 텔레비죤극작품창작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해에 텔레비죤실화극들인《당부》(제1~3부), 《룡남산의 아들》(제1, 2부)과 텔레비죤극들인《갈매기》(제1, 2부), 《우리 7현판사람들》(제1, 2부)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의 혁명적자각과 투쟁열의를 북돋아 주고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주제의 텔레비죤극작품들이 이채롭게 창작되였다.

특히 작가 김문창의 장편소설《열망》에 기초하여 창작된 텔레비죤련속극《열망》(제1~13부)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높이 받들고 최첨단설비인 선압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성과적으로 생산해 내는 어느 한 기계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투쟁을 통하여《고난의 행군》시기 갖은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떨쳐 나선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모습과 위훈의 일단을 진실하고도 감명 깊게 보여 주고 있다.

작품에서는 우리 혁명의 생명선인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 당적지도문제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면서 당, 행정, 기술일군들사이의 합심문제와 공장관리운영에서의 실리보장문제에 력점을 찍고 있다. 이와 함께 작품에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자력갱생에 대한 문제 즉 오늘날의 자력갱생은 뒤떨어진 것을 창의고안하는 식의 자력갱생이 아니라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이라는것을 전극생산, 선압기생산문제와 조화롭게 결합시켜 생동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작품에서는 또한 어려운 시련속에서 더욱 자각되고 성장발전해 나가는 새 세대 청년들과 비록 곡절은 있지만 시련을 이겨 내고 당의 두리에 굳게 결속되여 가는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이 가장 엄혹했던《고난의 행군》을 어떻게 이겨 냈는가를 력사적사실 그대로 진실하고도 깊이 있게 보여 주고 있다.

강성대국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의의 있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심오한 해답을 준것으로 하여 작품은 이해에 관중들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였으며 우리 인민의 투쟁에 더욱 힘찬 박차를 가해 줄수 있었다.

이처럼 예술영화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이해에 시대정신이 세차게 맥박치는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예술영화들과 텔레비죤극작품들을 기동성 있게 수많이 창작해 냄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더 큰 힘과 용기를 안겨 주고 력사의 장엄한 진군을 힘차게 떠밀어 줄수 있었다.

기록 및 과학영화

주체88(1999)년에는 기록 및 과학영화창작에서도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였다.

우선 기록영화부문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해에 기록영화부문에서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국보적인 의의를 가지는 력사문헌으로 수록하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이해에 편집방영된《조국광복을 위하여》제15, 16부와《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어버이수령님 서거 5돐행사 엄숙히 진행)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 혈전만리를 헤쳐 오신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수령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여러 행사들을 수록, 편집한 기록영화들이다.

그런가 하면 주체87년과 주체88년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진행하신 현지지도내용을 수록편집한《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와《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기념궁전건설사업을 지도》제3부를 비롯하여《위대한 령장을 모시여》제11, 12부,《현지지도의 길우에 꽃 핀 사랑의 전설》제1, 2부,《강원땅에 위대한 전변을 마련하시여》,《빛나는 삶의 품》제11~13부들인《〈고난의 행군〉과 숨은 영웅들》등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위대성, 인덕의 위대성을 그대로 담은 기록영화들이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과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이어 이 땅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기 위해 쪽잠과 줴기밥조차 미루어 가시며 우리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해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빛나는 업적, 뜨거운 사랑을 화폭마다에 그대로 수록한것으로 하여 이 기록영화들은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재부, 만년국보로 된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와 불멸의 업적을 만년대계의 력사문헌으로 고착시키고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수 있게 한것은 이해 기록영화부문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이며 빛나는 업적이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선전에 이바지하는 영화들을 다양하게 창작한것 역시 이해 기록영화부문에서 이룩한 성과의 하나이다.

기록영화부문의 창작가들은 절세의 위인들의 탄생일을 맞으며 나날이 성대하게 진행되는 기념행사들을 력사문헌으로 남기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짜고 들어 이해에《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제1차 **김일성**화전시회》,《제3차 **김정일**화전시회》등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완성하여 내놓았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행사를 수록한 기록영화라 하여 행사흐름을 전달하는 단순한 기록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이 력사적사실 그대로 최대의 높이에서 부각될수 있게 영화를 구성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취사선택하여 편집함으로써 영화의 폭과 심도를 훌륭히 보장한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화들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고 계시는 우리 민족과 전 인류의 위대한 태양이시라는것을 직관적인 화폭으로 확증하여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당정책관철에 떨쳐 나선 우리 인민의 이해의 투쟁을 력사자료로 고착시키고 대중을 새로운 앙양에로 불러 일으키기 위한 기록영화창작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당의 령도 따라 강성대국건설에로》제1, 2, 3부와《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선구자들》등은 새해 공동사설관철에 힘차게 떨쳐 나선 각 부문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영웅적인 투쟁모습과 자랑찬 위훈을 력사문헌적의의가 있게 기동적으로 수록하였을뿐아니라 그 모범을 전국에 일반화하여 온 나라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한 작품들이다.

이밖에도 토지정리의 새 력사를 마련하여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전하여 주는《옥답으로 전변된 강원땅》, 당의 의도대로 풀 먹는 집짐승들을 많이 기르고 그 덕을 보는 사실자료들을 반영한《풀 먹는 집짐승기르기》(5. 전망성 있게 내밀어),《활발히 벌어 지는 토끼기르기》,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의 명승지로 전변된 구월산과 모란봉의 아름다운 자연풍치를 보여 주는《서해명승 구월산》과《모란봉》등 다양한 주제의 기록영화들도 수많이 창작되였다.

특히《쓰라린 지난 날을 잊지 말자》,《잊지 말자 신천땅의 피의 원한을》등 계급교양주제의 기록영화들이 시대적요구에 맞게 창작되였다.

영화들은 구체적인 만행증거자료들과 체험자, 증언자들의 실담과 론증을 통하여 계급적원쑤들의 착취적본성과 살인귀적만행을 폭로단죄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지니고 주체의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이해 과학영화부문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그 성과는 우선 과학영화를 통하여 충실성교양에 적극 이바지한것이다.

이해에 창작된 과학영화《태양절에 **김일성**화 피우기》,《가정에서 **김정일**화 가꾸기》는 꽃의 생리적특성과 가꾸고 관리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요구들을 원리적으로 알기 쉽게 해설해 줌으로써 모두가 가정과 일터마다에 불멸의 꽃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를 활짝 꽃 피우는데 도움을 줄뿐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 순결한 충성심을 키워 나가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그 성과는 또한 과학영화의 당정책화를 실현한것이다.

《중소형발전소건설》(4),《콤퓨터에 의한 기계진단체계》,《감자농사》(1, 2, 3),《염소겨울철먹이준비》,《가정에서의 토끼병예방》그리고《농업상식》제25호,《과학상식》제74호, 75호, 76호, 77호 등은 당의 의도와 요구를 제때에 반영한 과학영화들이라 말할수 있다.

영화들에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추켜 세우는데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리적으로 해설해 줌으로써 현 시기 제기되는 당정책적요구들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성과적으로 관철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밖에도 과학영화부문에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과학화, 현대화실현과 생산과 건설에서 긴절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손쉽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며 사람들의 건강증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과학영화들도 적극 창작되였다.

아동영화

이해 아동영화창작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였다.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학생들속에 애국심을 키워주고 어려서부터 슬기로운 지혜와 용감성을 지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아동영화들이 많이 창작되였다.

지난해에 이어 이해에 창작된《다람이와 고슴도치》의 제13부《비밀문건》, 제14부《적후에서의 한 순간》, 제15부《흰눈작전》은 간악한 족제비놈들의 소굴에 침투하여 슬기로운 지혜와 용감성을 발휘하면서 꽃동산을 침범하려는 놈들의 흉계를 짓부셔 버리는 다람이와 고슴도치의 의인화된 형상을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소년들이 어려서부터 높은 애국심을 키워 나가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포악한 가물치에 대한 겁을 먹고 쫓겨 다니던 참개구리네가 단합된 힘으로 그놈과 맞서 싸워 처물리치는 내용을 담은《샘늪의 참개구리》, 해적놈들에게 빼앗겼던 수정구슬을 찾아 오는 내용을 담은《신기한 수정구슬》등은 단합된 힘이야말로 그 어떤 원쑤도 이겨 낼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것을 깨우쳐 줌으로써 집단주의정신을 키워 주는데 이바지한 영화들이다.

다음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식을 재미 있는 이야기속에 깨우쳐 주는 아동영화들도 대상의 년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창작되였다.

무더운 여름철 종자물고기운반과정에 있은 이야기를 통하여 보은에 대한 원리를 깨우쳐 주는《왜 몰랐을가요?》, 짐승마다 체온이 다르다는 상식과 밀물과 썰물에 대한 지식, 중량에 대한 지식을 깨우쳐 주는《령리한 너구리》의 제47부《렬차안에서》와 제49부《바다가에서 있은 일》, 제50부《야웅이가 받은 꽃다발》등이 그러한 영화들이다.

영화들에서는 기초적인 지식을 몰랐던탓에 고충을 겪거나 봉변을 당하는 이야기속에 지식적인 내용을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아동영화가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라 지식을 주는 훌륭한 교과서와도 같은 역할을 수행할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아동영화부문에서는 롱구를 잘한다고 우쭐대며 훈련을 게을리하던 야웅이네가 꾸준히 훈련을 한 멍멍이네편에 지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양지동산 꼬마선수들》, 공부를 잘하지 않은 결과 본의아니게 마을을 위험에 잠기게 하는 내용을 담은《덕만이와 쇠돌이》, 멍멍이에게 줄 산꿀을 가져 오던 곰이 잉어에 욕심이 동하여 산꿀과 잉어를 바꾸는 이야기를 보여 주는 《령리한 너구리》제48부《꿀단지에 비낀 두 모습》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의 아동영화들도 창작되였다.

이와 같은 영화들은 꾸준히 학습하고 훈련하여야 하며 동무를 위한 마음에는 티가 없어야 한다는 등 학생소년들의 학습과 도덕생활에 도움을 주는 영화들이다.

이처럼 이해 아동영화부문에서는 높은 애국심과 풍부한 지식, 생활의 교훈을 깨우쳐 주는 다양한 주제의 아동영화들을 대상의 년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재치 있게 창작해 냄으로써 조국의 미래인 학생소년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 내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

참으로 지난 주체88(1999)년은 우리 인민에 대한 사상교양과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며 주체영화예술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는데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된 해이다.

이해에 창작된 영화들이 당의 령도 따라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일떠선 우리 인민에게 필승의 신념과 락관을 안겨 주고 그들의 영웅적인 투쟁을 힘 있게 떠밀어 주었다는것은 이해 영화예술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 준다.

영화예술부문에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는 전적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현명한 령도, 뜨거운 사랑의 빛나는 결실이다.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에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창작되는 영화의 한편한편을 일일이 보아 주시고 세심히 지도하여 주시였다.

이해에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하게 창작되여 우리 인민들의 사상교양에 크게 이바지한 예술영화《밀림이 설레인다》와 다부작예술영화《민족과 운명》의 련속편인 최현편, 예술영화들인《법동농민》과《사랑의 대지》등 그 모든 영화들에는 영화를 시대의 명작으로 완성하고 이 과정에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 주기 위해 기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의 자욱이 그대로 력력히 아로새겨 져 있다.

영화문학단계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일깨워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지도와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의 영화예술인들은 그토록 불리한 조건속에서도 왕성한 패기와 정열에 넘쳐 영화창작전투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던것이며 이해에 창작된 모든 영화들이 당사상사업의 위력한 무기로, 혁명과 건설을 힘 있게 떠밀어 주는 위력한 추동력으로서의 본분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었던것이다.

영화예술부문의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영화예술건설과 발전에서 이룩한 이해의 자랑찬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영화창작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해 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최성호**

주체88(1999)년에 창작된 영화작품 주요목록

예술영화, 텔레비죤극작품

예술영화

제목	제작 년월	제작기관	색	폭	권수	문학	연출	촬영	미술	작곡	주요배역
《밀림이 설레인다》제7,8부	주체88년 5월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천연색	소폭	9권	리춘구 홍원철 최영학	정건조 길승철	최병렬 김동희	김일룡	유명천 황진영	강덕, 김원숙 김일현, 김철, 김성수, 리금숙, 박성, 림호남, 김선옥, 최응철, 김순
《밀림이 설레인다》제9부	주체88년 6월	〃	〃	〃	8권	리춘구 최영학 홍원철	김현철	한룡수	최도일	유명천 황진영 김제선	김원숙, 강덕 방석운, 조명선, 박영미, 림호남, 김순, 원정련, 최청희, 장명희, 김은숙
《밀림이 설레인다》제10부	주체88년 6월	〃	〃	〃	8권	리춘구 최영학 홍원철	김현철	한룡수	최도일	유명천	김원숙, 강덕 박영미, 김순, 원정련, 방석운, 최청희, 조명선, 김일현, 림호남, 김선옥
《밀림이 설레인다》제11부	주체88년 10월	〃	〃	〃	10권	리춘구 홍원철	김현철 정건조	한룡수 전홍석	김일룡 최도일	유명천 김창걸 조성수	강덕, 김원숙 김철, 김일현, 김순, 최응철, 림호남, 김선옥, 리금숙, 안현철, 정광남
《민족과 운명》제45부 최현편 제1부	주체88년 3월	조선인민군 4.25예술영화촬영소	〃	〃	9권	리춘구 리덕윤 리주민	조경순 최부길 김원하	오태영 박세웅	박상수 민유진	서정건 배용삼 석 철	최봉식, 리원복, 오미란, 리익승, 김명호, 황성옥, 김계현, 리상렬, 현창걸
《민족과 운명》제46부 최현편 제2부	주체88년 3월	〃	〃	〃	9권	리춘구 리덕윤 오현락	조경순 최부길 김원하	오태영 박세웅	박상수 리병철	서정건 배용삼 석 철	최봉식, 리원복, 오미란, 리익승, 최창수, 김순호, 김명호, 황성옥, 장성국
《민족과 운명》제47부 최현편 제3부	주체88년 3월	〃	〃	〃	8권	리춘구 오현락 리주민	조경순 최부길 김원하	오태영 황진석	박상수 민유진	서정건 배용삼 석 철	최봉식, 리원복, 오미란, 리익승, 김명호, 황성옥, 정춘란, 장유성, 김광문

예술영화

제 목	제작 년월	제작기관	색	폭	권수	문학	연출	촬영	미술	작곡	주요배역
《우리 위원장》	주체88년 2월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천연색	소폭	9권	리춘수	오혜숙	전홍석	최진욱	전봉덕	정순옥, 조명선, 리윤수, 최수호, 신명욱, 김광렬
《추억속에 영원하리》	주체88년 2월	조선인민군 4.25예술영화 촬영소	〃	〃	10권	박호일	강중모	김영욱	김원성	설명순 석 철	리익승, 박행순, 안영철, 현창걸, 정의겸, 리성일, 윤수경, 장성국, 장유성
《따뜻한 눈송이》	주체88년 2월	평양연극영화대학 청소년영화 창작단	〃	〃		김상진	김봉호	한승혁	박창근	함 철	공봉숙, 로춘란, 홍금희, 김철, 리정심, 리원복
《명줄》	주체88년 3월	조선인민군 4.25예술영화 촬영소	〃	〃	8권	오혜영	홍광순	박세웅	최 용 리철호	배용삼 윤정호	현창걸, 리월숙, 김봉삼, 손철민, 김광문, 김철
《평양에 온 두 대표》	주체88년 3월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	〃	8권	신명식	김청일	황룡철	로영길	김창걸	박금실, 리용관, 신명욱, 강여선, 전정희, 김윤홍
《법동농민》 (전, 후편)	주체88년 6월	〃	〃	〃	전7권 후7권	설주용	장인학	곽철남	김철헌	량영철 김수남	정운모, 김옥희, 김혜경, 박영희, 신학명, 고삼혜
《우리는 여기서 산다》	주체88년 7월	〃	〃	〃	10권	리종현 오금영	장영복	김학철	리인식 김명실	성동환	김련화, 고승룡, 김명남, 최진화, 량해승, 최룡
《불씨》	주체88년 9월	〃	〃	〃	9권	홍도준	리경진 리용진	정봉추	정화진	박용필 한시준	최창수, 김광렬, 리용관, 류경애, 최룡, 홍순정
《불 같은 사람》	주체88년 10월	〃	〃	〃	8권	안준보 김국성	최형식 리재준	한희광 류룡수	김철균	고수영	고승룡, 김준식, 김영숙, 정미숙, 남룡우, 정선화
《미래를 사랑하라》	주체88년 10월	〃	〃	〃	9권	최영학	전백연	심영학	안상복	조성수	리영호, 박성덕, 리종국, 공봉숙, 김광렬, 김명문
《사랑의 대지》 (전, 후편)	주체88년 11월	〃	〃	〃	전7권 후7권	지희란	리관암	류승철	장응준	전창일	장선희, 김련화, 강여선, 리윤수, 신명욱, 김준식

텔레비죤예술영화

제 목	제작년월	제작기관	문학	연출	촬영	미술	작곡	주요배역
《압록강 2천리》 제1~7부	주체88년 6월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김수봉	김효산	김진근	박성남	리면상 성동환	박용철, 최희영, 최명남, 리래성, 로복실, 김영식, 리경희, 김영일, 박수영
《민족의 사나이》 제1~12부	주체88년 7월	〃	오진흥 류부연 김계일	고학림	표 광 라진호	려연구	성동환	리상현, 유원준, 최창수, 신명욱, 김선옥, 박춘범, 리완복, 허경문, 장선희
《금패령의 겨울》 제1~6부	주체88년 8월	〃	송재환 임철수	박현종	고일혁	채금철 홍성혁	민유철	리윤수, 조영란, 리향숙, 박동철, 리성학, 김성화
《민족의 사나이》 제13~15부	주체88년 12월	〃	오진흥 류부연 김계일	고학림	표 광 라진호	려연구	성동환	리상현, 유원준, 최창수, 신명욱, 김선옥, 박춘범, 리완복, 허경문, 강원숙
《한 보위일군의 수기》제1~9부	주체88년 12월	〃	청명기	조명길	김춘성	서일광	김영성	량해승, 강남훈, 조명선, 리성심, 리금선, 한창필, 강효선, 강원숙, 리춘화

텔레비죤극작품

제 목	제작 년월	제작기관	문학	연출	촬영	미술	작곡	주요배역
텔레비죤련속극 《대하는 흐른다》제1~12부	주체88년 2월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현백학, 안부경	안문하	리홍진	김필수	김혁	리근호, 리경희, 조성신, 원정희, 김복실, 박태수, 박영학, 리용덕, 고종환
텔레비죤실화극 《당부》(제1~3부)	주체88년 9월	조선중앙 텔레비죤	원인걸	박승복	김성소	백성훈	함철	서창호, 황영희, 김경철, 안선영, 차룡웅, 박성욱
텔레비죤극 《갈매기》(제1,2부)	주체88년 10월	〃	손광수	신정남	안부경	박성욱	조일룡	김영희, 방석운, 장금실, 서건, 강금희, 조영희
텔레비죤련속극 《열망》(제1~13부)	주체88년 10월	〃	로성수, 정영범	로성수	김길부, 리룡우	정민교	한상철	곽원우, 서명산, 박동근, 장관옥, 문성철, 강인숙
텔레비죤실화극 《룡남산의 아들》(제1, 2부)	주체88년 4월	〃	한형수	채창원	남승룡	서승철	량영철	박성욱, 김은영, 차룡웅
텔레비죤극 《우리 7현관 사람들》(제1,2부)	주체88년 11월	〃	안철	염용길	천금석	백성훈	한상철	박연웅, 방석운, 박성욱, 김창희

기록영화

제 목	제작년월	색	폭	권수	구성	연출	촬영	해설
서해명승 구월산	주체88년 1월	천연색	소폭	2	김산옥	김창익	김명의, 강철웅, 신석범	백연숙
만수대예술단 중국에서 공연	주체88년 2월	〃	〃	3	최윤구	리도경	주영빈	박경실
당의 령도 따라 강성대국 건설에로(1)	〃	〃	〃	2	조성일	위경석	김영식	박경실
새로 육종한 홍초감자	〃	〃	〃	1	조성일	송영섭	송은호	박경실
인민배우 유원준	〃	〃	〃	4	김산옥	김창익	김영학	백연숙, 김병근
제3차 김정일화전시회	주체88년 4월	〃	〃	1	백정성	한 호	최영화	김원주
그날의 영광을 안고	〃	〃	〃	3	김 룡	선우철	김만억, 김정주, 김인철	박왕명, 박경실
옥답으로 전변된 강원땅	주체88년 5월	〃	〃	2	강어룡	강어룡	김혜남, 황세현, 김광욱	박왕명, 박경실
쓰라린 지난 날을 잊지 말자	〃	〃	〃	〃	백정성	량춘숙 박은옥	김광호, 강철웅, 김성도	박경실
잊지 말자 신천땅의 피의 원한을	주체88년 6월	〃	〃	〃	김산옥	리동섭, 박은옥	김명의, 김성도	박왕명, 박경실
제17차 4월의 봄 친선 예술축전	〃	〃	〃	3	김석정	김석정	리형철, 고덕창, 리상국	박왕명, 백연숙
제1차 김일성화전시회	〃	〃	〃	1	백정성	김창익 홍철호	강철웅, 최영화	박경실
당의 령도 따라 강성대국 건설에로(2)	〃	〃	〃	2	리계원	송영석	김승무, 김영식, 김정길, 송유호	박왕명, 백연숙
우리의 행운	〃	〃	〃	5	최윤구	황정희	김문관, 김룡준 외 3명	박왕명, 박경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 중화인민공화국 공식친선방문	주체88년 7월	〃	〃	2	리도경	리도경	강영린, 리상국	〃
평양에서 온 진출자들	〃	〃	〃	3	조성일	김윤섭	김홍철, 김인철, 신명종, 김달섭	백연숙, 백상섭
배천군사람들	〃	〃	〃	2	김희찬	김대길	리준철	박왕명, 박경실
모란봉	주체88년 8월	〃	〃	2	백정성	최창수	김영학, 강철웅 외 2명	백연숙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	〃	〃	4	선우철	선우철	손성호, 김정주, 김인철, 박성진	박경실
활발히 벌어 지는 토끼기르기	주체88년 9월	〃	〃	2	김봉성	리도경	리상국	박왕명, 박경실

기록영화

제 목	제작년월	색	폭	권수	구성	연출	촬영	해설
당의 손길아래 자라난 조선담배공업회사	주체88년 9월	천연색	소폭	3	리철우, 김진세	박관섭	박관섭	박왕명, 박경실
나의 공장, 나의 일터	〃	〃	〃	2	한룡수	리정근	최창옥, 천경일	〃
당의 령도 따라 강성대국 건설에로(3)	주체88년 10월	〃	〃	〃	김수경	김호남	리근만	〃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선구자들	〃	〃	〃	〃	김봉성	김석정	오형학	〃
푸른 숲에 비낀 조국애	〃	〃	〃	〃	한룡수	송영석	김정길, 최창복, 김영식	〃
풀 먹는 집짐승기르기(5) 전망성 있게 내밀어	〃	〃	〃	〃	한관언	김대길	렴웅길, 한현수	〃
범민족통일대축전	〃	〃	〃	4	백정성	한호 홍철호	최영화, 백영진, 김영진, 강철웅	〃
모성영웅들	주체88년 12월	〃	〃	3	김룡	전재선	리광근, 리진렬, 오형학, 김원남	백연숙

과학영화

제 목	제작년월	색	폭	권수	구성및연출	촬영	미술	해설
가정에서 김정일화가꾸기	주체88년 2월	천연색	소폭	1	민천일	신영길	한창호	김원주
연재에서 얻은 고질소성탄	〃	〃	〃	〃	우동식, 리명철	하원만	정정현	〃
벼농사와 평당포기수	〃	〃	〃	〃	한병연	채도섭	홍윤호	〃
4요소생물비료	〃	〃	〃	2	황덕일	방 진	리옥수	〃
좋은 종자토끼 퍼치기와 기르기	〃	〃	〃	〃	정수일, 리효식	하원만, 김광철, 송병선	고영남 홍윤호	〃
감자농사(1) (감자심기와 가꾸기)	〃	〃	〃	〃	리호철	김명환, 송병선, 김생려	조일남	〃
삽흙돌	주체88년 3월	〃	〃	1	리효식	박일룡, 송병선, 박일창	고영남	〃
구빈리에서의 염소젖가공	〃	〃	〃	〃	전영일	류지운, 박 혁	장백산	〃
새형의 정머리	〃	〃	〃	〃	전영일	현정수, 조명숙, 서 진	장히덕	〃
농업상식 제25호	〃	〃	〃	〃	정승기, 김철수	채도섭, 김광철, 송병선	리명삼, 고영남	〃
고구마농사	〃	〃	〃	2	신영길	신영길, 김학철	장갑택	〃
가정용고체연료	주체88년 4월	〃	〃	1	정수일	채도섭	송룡택	〃

과학영화

제 목	제작년월	색	폭	권수	구성및연출	촬영	미술	해설
태양절에 김일성화피우기	주체88년 4월	천연색	소폭	1	민철일, 명광호	신영길, 김남윤, 김학철	한창호	박경실
어디서나 곡축을 만들수 있다	주체88년 5월	〃	〃	〃	전영일	강경호, 김학철	정창남	김원주
과학상식 제74호	주체88년 5월	〃	〃	〃	변천웅	기성도	장희덕	백상섭 김원주
과학상식 제75호	주체88년 6월	〃	〃	〃	김수학	방 진, 김학철	리성철	김원주
석탄지하가스화	〃	〃	〃	〃	변천웅	기성도, 조명숙	량성일	〃
단백질	주체88년 7월	〃	〃	2	김재순	김영환, 박일창, 김학철	황덕만	〃
과학상식 제76호	〃	〃	〃	1	최근태	김관철, 송병선	고영남	〃
흥미 있는 흙속버섯재배	주체88년 8월	〃	〃	2	김종학	리춘경, 김생려	김 운	〃
다원소 액체비료《자양》	〃	〃	〃	1	황덕일	윤광춘, 김남윤, 김학철	김태용, 리옥수	〃
가정에서 토끼병예방	〃	〃	〃	〃	성치국, 민천일	윤광춘	오정녀	〃
좋은 나무를 많이 심자(1)	〃	〃	〃	〃	김광일	윤광춘, 김학철	강갑태	김원주
염소 겨울철먹이준비	주체88년 9월	〃	〃		리종호	류지운	김학철	〃
중소형발전소건설(4)	〃	〃	〃	〃	박홍봉	박일룡, 송병선	홍윤호	〃
과학상식 제77호	주체88년 10월	〃	〃	〃	김일룡	서 진, 조명숙	박강일	〃
새로운 부선기	〃	〃	〃	〃	석룡식	김봉현, 송병선	류룡택, 리명삼	〃
타조알 깨우기와 새끼기르기	〃	〃	〃	2	박길남	김영환, 김학철	김철수	〃
콤퓨터에 의한 기계진단체계	〃	〃	〃	〃	고경남	정춘히, 조명숙	장련수	〃
큰 단백풀	주체88년 12월	〃	〃	1	김룡국	강경호, 조명숙, 김생려	전창남	〃
감자농사(2)	〃	〃	〃	2	김철수	김명환, 송병선, 김생려	조일남	〃
요드와 건강(1)	〃	〃	〃	〃	김종학	정춘히, 량성일	한창호	〃
감자농사(3)	〃	〃	〃	1	정승기	김명환, 송병선, 김남윤	김현철	〃
소나무숲을 잣나무숲으로	〃	〃	〃	〃	김창석	기성도, 조명숙	량성일	〃

아동영화

구분	제 목	제작년월	색	폭	권수	문학	연출	촬영	미술	작곡
만화	다람이와 고슴도치 제13부 (비밀문건)	주체88년 2월	천연색	소폭	3	리영춘, 김화성	김영철, 도 철	한영철	우승혁, 계 훈, 조정철	김명희, 함 철
〃	다람이와 고슴도치 제14부 (적후에서의 한순간)	주체88년 7월	〃	〃	〃	리영춘, 김화성	김광성	한영철	리철석, 정동철	김명희, 함 철
〃	다람이와 고슴도치 제15부 (흰눈작전)	주체88년 12월	〃	〃	2	리영춘, 김화성	김광성	한영철	리철석, 김경수	김명희, 함 철
〃	령리한 너구리 제47부 (렬차안에서)	주체88년 9월	〃	〃	〃	리정화	김광성, 리석훈	리영훈	리동철, 김광협	백인선
〃	령리한 너구리 제48부 (꿀단지에 비낀 두 모습)	주체88년 10월	〃	〃	〃	방순용	김광성, 리석훈	리영훈	리동철, 김광협	백인선
〃	령리한 너구리 제49부 (바다가에서 있은 일)	〃	〃	〃	〃	김수화	김준옥, 박광현	김길남	문창일, 김응호	김성희
〃	령리한 너구리 제50부 (야웅이가 받은 꽃다발)	〃	〃	〃	〃	김춘옥	박경수	남경수	류세종, 리영일	백인선
인형	개구리가 그린 그림	주체88년 1월	〃	〃	〃	최태형	손종권	서 광	정효섭	한상철
만화	신기한 수정구슬	주체88년 2월	〃	〃	3	김화성, 리영춘	김광성	김형룡, 한영철	윤영길, 홍영남	함 철
인형	셋째의 착한 마음	주체88년 4월	〃	〃	〃	최태영	박광진, 손종권	강태영, 서 광	조제현, 정효섭	한상철
만화	양지동산 꼬마선수들	〃	〃	〃	2	허정현	김영철, 김인철	한영철, 한봉기	김경수, 리문철, 리성진, 김경화	김성희
지형	샘늪의 참개구리	주체88년 6월	〃	〃	〃	김태홍, 김수화	리인철	장철호	리경철	정병철
인형	왜 몰랐을가요?	주체88년 9월	〃	〃	〃	엄순희	손종권	서광	김은하	백인선
〃	덕만이와 쇠돌이	주체88년 10월	〃	〃	3	최태영, 김수화	김영철	한영철, 전광훈	김인철, 계 훈	김성희
만화	농부와 얼룩이	주체88년 12월	〃	〃	〃	엄순희	김광성	한영철, 김성락	김인철, 정동철	한상철
지형	오동나무잎	〃	〃	〃	2	한 영	리인철	장철호	조제현, 최영식	정병철

영화작품경개문

예술영화《밀림이 설레인다》제7~11부

예술영화《밀림이 설레인다》제7부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적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상강과 하강, 청봉 등지에서 분산활동을 벌리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한편 7도구치기에서 당한 참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암투끝에 세칭《이마무라밀서》사건이란것을 둘러 싸고 이마무라와 노조에《토벌》사령관놈사이에는 개싸움이 벌어 진다.

방대한 무력으로써도 유격대를《소멸》할수 없었던 일제는 비렬하게도 혁명가의 유가족들과 그 안해들을 위협공갈하여 혁명의 사령부를 해치려는 흉계를 꾸민다.

그 일환으로 사령부비서처 문지학의 안해인 분옥이가 놈들의 임무를 받고 밀영으로 들어 온다. 교활한 일제의 기만술책에 넘어 가 사령부의 위치를 알아 내며 사령부를 순식간에《전멸》시킬 독약까지 가지고 들어 온 분옥은 놈들의 선전과는 달리 남편이 살아 있다는 꿈 같은 소식에 접하게 된다. 또한 유격대원들의 뜨거운 인정미앞에서 자기가 놈들에게 속히웠다는것을 깨달은 그는 즉시 임무수행을 포기하고 량심의 죄책에 모대기며 자신에게 내려 질 처분만을 기다린다.

워낙 받은 임무자체가 조선혁명의 운명에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수 있는 매우 엄중한것이다보니 밀영의 유격대원들은 한결같이 분옥이를 리종락이처럼 단호히 처단하려고 한다.

문지학 역시 제 손으로 분옥을 쏘아 죽이겠다고 몸부림치며 분옥이도 남편의 손에 죽을것을 바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편과 혁명가들의 준엄한 심판에 운명을 맡기고 있는 분옥이를 죽음의 고비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이께서는 애오라지 남편 하나만을 믿고 외로움과 고독속에 살아 온 분옥의 마음속 설음을 속속들이 헤아려 주시며 혁명가의 안해가 일제의 마수에 걸린것을 그 누구보다도 가슴아파 하신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분옥이를 유격대에 받아 주시고 그들 부부의 사랑을 아름답게 꽃피워 주신다.

영화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이시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인간애와 한없이 넓은 도량을 지니신 인간중의 인간, 위인중의 위인이시라는것을 힘 있게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제7부에서는 혁명의 사령부를 노리는 적들의 집요한 발악적책동에 대처하여 혁명대오안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철옹성같이 다지시며 뜨거운 인간애와 동지애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해 나가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인적풍모의 일단을 가슴 뜨겁게 보여 준다.

예술영화《밀림이 설레인다》제8부는 혁명동지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위대한 동지애의 힘으로 험로역경을 헤쳐 나가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풍모를 감동 깊게 펼쳐 보이고 있다.

상강과 동강방향으로 나간 7련대와 8련대와는 달리 통신 한장 없는 청봉밀영의 전우들을 생각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괴로와 하신다.

당시 청봉밀영에서는 밀영책임자 엄광호의 무분별한 독단과 편견에 의해 간과할수 없는 엄중한 사태가 빚어 지고 있었다. 엄가에 의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녀대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가 비난을 받는가 하면 아사끄와 함께 밀영에 왔다고 하여 사령부작식대원 금옥이가 변절자로 락인되여 처단 당할 위험에 빠진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엄가의 부당한 처사에 정면으로 대결하시며 밀영의 일을 두고 누구보다 심려하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생각으로 잠 못 이루신다.

한편 적후공작원 백사천(유스께)으로부터 사령부로 가장하고 왜놈들을 본때 있게 답새기던 오중흡 7련대가 일제의 포위속에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7련대를 구원하기 위해 시급히 부대를 상강구쪽으로 출발시키신다.

이밖에도 영화에서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령관동지의 말씀을 자로 하여 생활하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조선혁명은 바로 위대한 장군님이시기에 사령부의 안전은 곧 우리 혁명의 제일생명이라고 하면서 앉으나 서나 사령부결사보위의 맹세로 심장을 불 태우는 오중흡7련대장, 위험한 적구에서 언제나 장군님만을 그리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임무에 충실하는 문지학과 백사천을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의 투철한 혁명적수령관, 수령결사옹위의 정신세계를 깊이 있게 보여 주고 있다.

예술영화《밀림이 설레인다》제9부는 혁명전사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위해 늘 마음 쓰시는 김정숙동지의 충성의 세계를 감동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사령관동지의 안녕을 위해 부대를 사령부로 위장하고 활동하던 오중흡7련대가 적들의 포위에 들어 사경에 처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부 지휘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시고 7련대를 구출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대를 적들의 경계가 삼엄한 대도로로 그것도 대낮에 강행극복하도록 이끄시며 심대한

타격으로 일제놈들을 족치시여 7련대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무렵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령부와 멀리 떨어 진 청봉밀영에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나가신다.

밀영책임자인 엄가놈은 사령부의 로선에는 맞지 않게 혁명의《저조기》에 대해 떠벌이는가 하면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 아사끄를 반동으로 몰아 사형하려 하면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파괴한다.

놈의 기회주의적이며 투항주의적인 정체를 제때에 꿰뚫어 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한몸의 위험도 무릅쓰시고 엄가놈과 정면으로 대결하여 싸우신다.

이러한 때 청봉밀영에 도착하여 실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김정숙동지의 순결한 충성심을 깊이 깨닫게 된 사령부파견원은 엄가놈의 반혁명적죄행을 폭로단죄할 대책을 세우고 다시 사령부로 떠난다. 언제나 사령부의 안녕만을 생각하시는 김정숙동지께서는 떠나는 그에게 사령부의 안전문제에 사소한 이상이 생기면 곧 알려 줄것을 신신당부하신다.

그후 김정숙동지께서는 9호지점에 도착할데 대한 련락을 받게 되신다. 그러나 7련대에 대한 구출전투과정에 사령부의 위치가 적들에게 로출되고 적의 대병력이 사령부로 집중된다는 소식에 접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적들을 청봉밀영으로 유인할 단호한 결심을 내리신다.

영화는 사령부가 청봉으로 오게 된다는 거짓소문을 내신 김정숙동지께서 사령부의 안녕을 고수하기 위한 적들과의 싸움에서 한목숨 다 바칠 비장한 각오를 다지시는것으로 끝나고 있다.

예술영화《밀림이 설레인다》제10부는 청봉밀영에서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기 위하여 투쟁하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을 보여 주고 있다.

사령부의 안전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는 김정숙동지께서는 적의 간첩인 숙자에게 거짓정보를 넘겨 주어 적들을 청봉으로 유인하기 위한 기묘한 작전을 펼치시고 대원들과 함께 붉은기아래서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할 불 타는 결의를 다지신다.

령활한 전법으로 청봉으로 달려 드는 적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안기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동지들이 적들의 포위속에 들게 되자 단신으로 놈들을 유인하신다.

앞에는 벼랑이 가로 놓이고 뒤에서는 적들이 달려 드는 최후의 순간 김정숙동지께서는 마지막탄알까지 적의 가슴팍에 안기고 천길벼랑으로 몸을 날리신다.

김정숙동지께서 사령부의 안녕을 위해 적들을 청봉으로 유인하시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곧 대원들을 이끄시고 청봉으로 오시여 적들을 소멸하고 청봉의 대원들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다.

한몸의 위험도 무릅쓰고 사령부의 안전을 보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구사일생으로 살아 오신 김정숙동지를 만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더없이 반갑고 기쁘시였으나 회의를 열고 그이의《모험적인 행동》에 대하여 비판하도록 하신다.

혁명동지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사랑속에 열린 회의는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 배우는 회의로 변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숙동지를 몸 가까이 부르시여 식사도 함께 나누시며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 주신다.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자애에 넘친 사랑과 믿음을 가슴 뜨겁게 받아 안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장군님만을 하늘처럼 믿고 산다고, 장군님께서 안 계시면 정숙이는 죽고 만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 부디 신변에 주의하시기를 간절히 말씀올린다.

이와 같은 화폭을 통하여 영화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동지애의 세계,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의 세계를 감동깊이 보여 준다.

예술영화《밀림이 설레인다》제11부는 장백현 부후물치기밀영에서 대원들과 함께 새봄을 맞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시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악한 일제의《토벌》공세와 사나운 겨울을 의지의 힘으로 이겨 낸 대원들에게 조국진군의 구상을 펼쳐 주시여 승리의 신심을 안겨 주신다.

또한 행군속에서 맺어 진 대원들의 혁명적사랑을 두시고도 북대정자에 전 부대가 모이는 봄날 허만덕이와 심선녀의 결혼식을 차려 주자고 하시며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 주신다.

언제나 사랑과 믿음으로 혁명의 난국을 헤쳐 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 시기 일제의 마수에 걸려 본의 아니게 사령부를 해치려 했던 분옥에게 중요한 련락임무를 주신다.

한편 위대한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유격대원들과 생활하는 과정에 조선혁명가들이 지닌 고상한 인간적풍모와 사상정신세계에 매혹된 아사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시는 중요한 련락문을 7련대에 전달한후 적들에게 체포되여 희생된다.

비보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애인을 잃고 홀로 비감에 잠겨 있을 전사를 위해 한몸의 위험도 무릅쓰시고 일제의 대병력이 집중되여 있는 신경에까지 가시여 백사천과 슬픔을 함께 나누시며 그에게 뜨거운 동지적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7련대에 통신을 띄워 신경으로 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백방으로 보장하도록 하신다.

영화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사상과 신념, 사랑과 의리로 맺어 진것이 우리의 혁명대오이며 그것으로 필승불패하는것이 조선혁명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밝혀 내고 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제45~47부

최현편 제1~3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인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총대, 그것이 바로 혁명의 총대라는 심오한 종자에 기초하여 창작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최현편 제1~3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최현동지의 적후투쟁과정의 일단을 기본선으로 하고 여러 회상장면들을 결부시키면서 그가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의 숭고한 모범을 감명 깊게 보여 주고 있다.

최현편 제1부는 적후에 강력한 제2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은 주인공 최현이 고산진을 떠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단 하루밤만이라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문전보초병이 되고 싶어 경위초소에서 밤을 지새는 군단장 최현에게 전선사령관인 김책은 어버이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함께 찍으신 사진을 주며 김정숙동지처럼 수령님을 잘 받들어 모시자고 뜨겁게 말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극진한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현은 적후에 제2전선을 형성하고 미제침략자들의 뒤통수를 후려치기 위한 준비를 면밀하게 짜고 든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고 모든 군인들과 적후의 인민들이 혁명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 잡도록 교양한다.

한편 최현군단의 출현에 질겁한 적들은 비렬하게도 의거자들로 이루어 진 강철무련대를 내부로부터 사상와해시켜 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한다. 이에 격분한 강철무련대장은 최고사령부의 작전적의도와 맞지 않게 자의적으로 적들과의 전투를 진행한다.

지나온 뼈 저린 체험을 통하여 사상이 없는 총대는 막대기나 다름 없다는것을 절감하고 있는 최현은 그의 무규률적인 행동을 호되게 추궁하며 그에게 혁명의 총대는 바로 자기 수령을 옹위하는 총대로 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절절히 깨우쳐 준다.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귀감이신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영원한 경위대원이 되자는 최현의 뜨거운 호소는 강철무로 하여금 삶의 좌표를 명확히 선정할수 있게 한다.

최현편 제2부는 주인공인 최현이 총대를 꺾지 않으면 안되였던 과거 독립군시절의 피눈물나는 이야기를 군단 지휘관들과 병사들에게 들려 주면서 총대도 위대한 수령을 모실 때만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참답게 구원할수 있다는 진리를 그들에게 깨우쳐 주는 과정을 진실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작전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완강한 방어로 적의 공격을 저지시킨 인민군대안의 기본전선부대들은 신속히 반타격전에로 이동한다.

최현의 제2군단은 평강과 철원의 적을 완전소멸할데 대한 새로운 전투명령을 받게 된다.

새 공격작전을 준비하는 적후활동과정에 리승엽도당과 일부 군인들이 《최현장군》이요, 《최현부대》요 하면서 부대장인 자기를 내세우려 하자 최현은 이를 엄하게 대하며 모두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만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숭배하도록 한다. 그에 따라 자기들을 《최현부대》라고 하며 적후활동을 벌리던 한 구분대의 지휘관이 제재를 받게 된다.

최현은 진정한 혁명의 수령을 모시지 못한 투쟁이 얼마나 비참하며 설사 천만자루의 총이 있어도, 천만의 군사가 있다 하여도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하였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기력한것인가 하는것을 자신의 독립군시절에 대한 회상을 통하여 군인들에게 깨우쳐 준다.

구식무기를 들고 일제와 변변히 싸우지도 못하고 방황하다가 신식병기를 주겠다는 로씨야사람들의 말에 환상을 가지고 아라사땅으로 넘어 갔던 최현의 아버지 최화심을 비롯한 의병들은 일제의 압력에 굴복한 로씨야측으로부터 무장해제요구를 받게 된다. 이를 거절하고 만주로 넘어 가던 독립군들은 교활한 일제와 로씨야백파도당에 의해 비참하게 전멸된다. 마지막운명을 앞두고 최화심은 백만자루의 총이 있고 백만의 의병이 있어도 이끌어 줄 령도자가 없는것을 한탄하며 아들 최현에게 다시는 총을 손에 쥐지 말라는 유언을 남긴다.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탓에 비극적인 운명을 겪어야 했던 독립군과 아버지에 대한 추억은 그로 하여금 혁명의 총대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더욱 깊이 자각하게 하여 주었다.

최현은 평강, 철원공격작전을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강철무네 87련대로 하여금 적들의 이목을 세포에로 끌도록 전투임무를 준다.

사상이 없는 총대란 빈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한 강철무는 련대를 지휘하여 세포전투를 진행하며 적들을 완전소멸한다.

영화에서는 이모부의 말대로 강철무를 설복하여 서울로 데리고 가려고 하던 설란이 전사한 종군촬영가를 대신하여 최고사령부에 보고할 기록영화촬영에 나서는 과정도 감명 깊게 펼치고 있다.

영화는 이와 같은 형상을 통하여 령활한 작전과 능숙한 지휘로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적구상을 빛나게 관철해 나가는 혁명가 최현의 투철한 수령관, 군사실력가로서의 풍모를 깊이 있게 보여 주고 있다.

최현편 제3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적후전선에서 싸우는 군단의 모든 지휘관, 전사들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 전법대로만 살며 투쟁하도록 이끌어 주는 최현의 투철한 수령관과 혁명가적풍모를 보여 주고 있다.

강철무의 87련대가 평강으로 기동을 시작했다는 소식과 함께 어느 한 공병중대에서 중대장이 자기 부하에게 총질을 했다는 군단참모장의 보고를 받은 최현은 즉시 현지에 내려 가 사실을 확인한다.

사연인즉 식량공작을 나갔던 특무장이 한 할머니네 집에서 감자 두마대와 돼지 한마리를 얻어 가지고 왔는데 중대군인들은 인민의 재산이라며 돼지를 잡을수 없다고 말린다. 그러나 특무장은 굶고 있는 대원들을 위해 칼을 들고 나선다. 이에 격분한 중대장이 발사한것이였다. 하건만 특무장은 자기의 과오를 좀처럼 깨닫지 못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현은 몇명의 대원들과 함께 특무장이 구해 온 식량을 가지고 할머니를 찾아 가 대신 사죄하면서 전사들에게 미국놈들과 싸워 식량을 해결하라는것이 장군님의 뜻이라고 일깨워 준다.

적후부대들의 령활한 전술에 걸려 적들이 갈팡질팡하게 되자 최현은 군단에 철원해방전투를 위한 행군명령을 내린다. 행군과정에 평강출신의 병사 안병서로부터 그가 늘 가지고 다니는 사모관대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해 들은 병사들은 철원해방전투에서 무비의 희생성과 용감성을 발휘한다.

한편 평강으로 향하는 87련대의 꼬리를 문 적들은 련대를 귀순시키기 위해 갖은 발악을 다한다. 특히 송요찬놈은 미군하사관 구타사건으로 괴뢰군대대장시기의 강철무에게 언도되였던 사형판결형이 무효로 선언되였다고 방송을 불어 대면서 강철무련대장의 마음을 돌려 세우려고 꾀한다.

놈들의 비렬한 음모적책동에 분개한 강철무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평강해방전투를 단행하여 승리적으로 결속 짓는다.

영화에서는 또한 강철무의 공화국북반부에로의 의거동기와 미국을 자기들의 《우방》이라고 생각하면서 강철무의 의거에 대해 리해를 못하는 설란에 대한 형상도 펼쳐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적들의 군수렬차를 전복시키고 영웅적인 최후를 마치는 월봉산유격대 소대장 주정금에 대한 형상도 감명 깊게 처리하고 있다.

영화는 이와 같은 형상을 통하여 우리가 틀어 잡은 총대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끝까지 옹호하고 사수하기 위한 계급의 총대, 원쑤격멸의 총대이라는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술영화 《추억속에 영원하리》

예술영화 《추억속에 영원하리》는 주체87(1998)년에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 창조한 경희극《편지》를 예술영화로 다시 형상창조한 영화이다.

영화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아안은 인민군군인들이 사회주의농촌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대를 떠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느 한 농장마을에 도착한 주인공인 련대장 철석은 농사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당면한 모내기를 적기에 끝내기 위한 전투를 조직지휘한다.

그는 양수기가 고장나자 제대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련대와 함께 농장에 달려 온 성근이와 함께 밤 새워 수리하여 살려 내며 3작업반의 뜨락또르가 다이야때문에 써레질을 중단하게 되자 전투지휘용승용차의 다이야모두를 떼내여 뜨락또르를 가동시킨다. 그런가 하면 군인들과 함께 진펄을 헤치며 쓸모없이 버림 받던 많은 면적의 수렁논을 개간해 낸다.

어버이수령님께 맹세 다진대로 농사를 잘 짓지 못한 자책감을 안고 있는 처녀관리위원장 옥심은 혼기를 놓치면서까지 시집도 가지 않고 오로지 농사일에만 마음 쓰며 농장원들은 통강냉이죽을 쑤어 먹으면서도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꼭 잘 살 날이 온다고 철석같이 믿는다.

이들은 군인들의 결사관철의 정신에 큰 고무를 받으며 농사일에 더욱 분발해 나선다.

군대와 인민은 죽도 나누어 먹으며 왕가물을 이겨내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을 벌린다.

이러한 때 전선시찰의 길에서 이들의 전투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라고 하시며 군민의 힘으로 오늘의 난국을 뚫고 나가자고 커다란 힘과 고무를 안겨주신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한 군인들과 농장원들은 혹심한 왕가물과 무서운 태풍피해를 이겨 내고 마침내 풍요한 가을을 마련한다.

영화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하여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가 기적을 창조하는 위대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는것을 힘 있게 강조하고 있다.

예술영화 《우리 위원장》

예술영화 《우리 위원장》은 당의 지방예산제방침을 받들고 군내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 한 군인민위원회 녀성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은정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인 주인공 김금록은 이전에 종이공장 지배인으로 일하다 사망한 남편 현정수의 전처자식인 혜정이가 남긴 편지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된다.

평양에서 연구사로 일하던 혜정은 아버지의 생전의 뜻을 자기가 실현할 결심밑에 은정군에 내려온다.

그러나 여러가지 난관으로 하여 종이공장이 제대로 돌아 가지 못하고 있는것을 목격한 그는 크게 실망하여 금록에게 원망과 타매의 편지를 남겨 놓고 다시 평양으로 돌아 갔던것이다.

이를 계기로 금록은 자신을 돌이켜 보며 군내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더욱 분발해 나선다.

그는 종이공장을 비롯한 군내 생산공장들에서의 생산정상화를 위해 기술자들을 불러 일으키며 걸린 고리들을 풀어 나가가 위해 애 쓴다.

그러나 부위원장 박윤석은 화강석을 외국에 팔아 버는 돈으로 걸린 원료문제를 해결하자며 주인공의 지향과 노력에 제동을 건다.

여기에 종이공장의 새 지배인 태범이가 동조한다.

그러나 금록은 물러 서지 않는다.

금록과 현정수의 뜨거운 진정을 알게 되자 태범이도 자신을 뉘우치고 혜정이를 은정군으로 데려 와 연구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연구실험과정에 가스폭발사고로 부상을 당하면서도 금록은 자체의 원료에 의거한 생산정상화를 위해 헌신한다.

마침내 군안의 지방산업공장들이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을 높이 울리게 된다.

영화는 이와 같은 형상을 통하여 우리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이 되려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실감있게 보여 준다.

예술영화 《따뜻한 눈송이》

영화는 맵짠 추위속에서도 거리에서 근무를 서는 처녀교통지휘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 언제나 장군님만을 그리는 처녀교통지휘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화는 주인공인 은심이 군복을 입고 초소로 떠나는 동창생 정심이와 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장군님께 충직한 딸이 되자고 서로 굳게 약속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근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던 은심은 정심이 오빠인 정식이로부터 정심이가 초소에서 보낸 편지를 받아 보게 된다.

학창시절 야영의 마지막날 아버지장군님께서 지나가신 길을 쓸고 정리하던 그때의 일을 돌이켜 보는 정심이의 편지를 읽어 보면서 은심이는 그에게 회답편지를 쓰나 아버지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기전에는 그 편지를 보내지 않기로 결심한다.

어느 날 근무수행도중 교통질서를 위반한 현상을 보고도 안면관계로 외면한것으로 하여 은심이는 초소장으로부터 추궁을 받고 콩우유차를 단속하게 된다.

이 과정에 은심은 어려운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어린이들과 이제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입대하는 초모생들에게까지 변함없이 사랑의 콩우유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에 깊이 감동하게 된다.

정심이의 편지를 또다시 받아 보면서 그리고 평양에 견학을 온 정심이와 해안포중대 군인들을 만나 그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뵙던 감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은심은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더욱 가슴 불 태우게 된다.

그는 전선시찰의 길에서 돌아 오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을 최대로 보장해 드릴 일념으로 밤잠을 잊어 가며 지휘훈련도 하고 생일날에도 밤근무를 맡아 서면서 군인들의 차수리도 도와 준다.

아버지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며 새벽근무를 서던 은심은 영광스럽게도 전선시찰을 마치고 돌아 오시는 장군님의 승용차를 안내해 드리는 행복을 지니게 된다.

승용차에 덮여 있는 두터운 얼음과 성에를 보며 그는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위해 바쳐 가시는 아버지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에 눈시울을 적신다.

다음날 은심을 비롯한 처녀교통지휘원들은 추운 겨울밤에도 근무를 서는 자기들을 위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폭신한 솜동복과 털모자를 보내주시였다는 가슴 뜨거운 소식에 접하게 된다.

아버지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 져 있는 새 솜옷과 털모자를 받아 안은 은심과 교통지휘원들은 장군님께 충성 다할 한마음으로 심장을 불 태운다.

이와 같은 형상을 통하여 영화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조국의 위대한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이시며 그이 품에 안긴 우리 인민의 행복과 영광은 영원한것이라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예술영화 《명줄》

예술영화 《명줄》은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 국내의 한 무장부대를 지도하던 유격대공작원이 엄중한 과오를 범하여 사령부로 호송되던 도중 호송병들까지 희생되는 복잡한 정황속에서도 혁명전사의 참된 신념과 량심을 지켜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찾아 사선의 고비들을 헤쳐 나가는 과정을 펼쳐 보이고 있다.

1940년대 초 국내의 한 비밀근거지에서는 조국광복의 대사변시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진격에 합세하여 전민항쟁의 불길을 지펴 올릴 사명을 지닌 무장대의 한 부대가 일제의 《토벌》에 막대한 손실을 입는 가슴 아픈 사태가 빚어 진다.

유격대공작원인 주인공 박진석의 주관과 해이심이 적 밀정에게 역리용 당하는 수치와 무장대의 거의 전멸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였던것이다.

목숨으로도 보상할수 없는 과오를 범한 박진석의 앞에는 혁명의 준엄한 판결이 기다리고 있었다.

꿈결에도 그리며 달려 가고 싶던 사령부로 죄인이 되여 무장을 해제 당한채 호송되여 가는 박진석은 심한 정신적번민에 휩싸인다.

어린 시절의 스승이였던 지하조직책임자 림시원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 포로되여 그가 내세운 《조직원》을 료해도 없이 폭약구입사업에 인입시킨 자신의 무경각한 처사, 그로 하여 빚어 진 대원들의 가슴 아픈 희생.

용서 받을수 없는 그를 두고 적들까지도 그가 명줄을 잇는 길은 귀순하는 길뿐이라고 지껄인다.

걸음걸음이 괴로움으로 이어 지던 행군도중 박진석은 적들과의 조우전에서 자기를 호송하던 두 전우를 잃게 된다.

그가 호송원들을 죽였다고 해도 보증할길 없는 조건에서 진석은 극도의 좌절감에 싸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

그러나 희생되는 그 순간에도 해진 자기의 신발을 걱정하며 자신의 신발과 무기를 안겨 주던 전우들의 사랑과 믿음, 혁명가의 신념과 량심을 새길수록 진석은 자총과 귀순의 길을 택할수 없었다.

그는 단신으로 사령부를 찾아 눈보라 휘몰아 치는 산길을 헤쳐 나간다.

그러던중 의식을 잃고 강로인의 집으로 업혀 온 그는 거기에서 비밀근거지에서 헤여졌던 애인인 초야를 만난다. 그로부터 사령부로 가는것을 삼가하라는 림시원의 편지를 받게 된다.

초야도 다시 만나리라 기약할수 없는 그 길로 진석을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진석은 처형을 받아도 죽을번한 자신에게 믿음을 주시고 혁명의 군복을 입혀 주신 위대한 장군님을 기어이 찾아가겠다고, 그것이 혁명가로서의 명줄을 잇는 길이라고 토로하며 길을 떠난다.

화전골에서 앞길을 막아 서며 혁명의 도피를 설교하는 림가의 궤변에 단오한 타격을 가하며 천신만고의 길을 헤친 진석은 끝끝내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긴다.

영화는 이러한 감동적인 화폭을 통하여 혁명전사의 고귀한 생명은 수령에게 운명과 미래를 맡기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충성의 의리와 량심을 변함없이 지켜 갈 때 빛나게 이어 지고 영생하게 된다는 사상을 힘 있게 강조하고 있다.

예술영화 《평양에 온 두 대표》

예술영화 《평양에 온 두 대표》는 상동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인 주인공 창덕이 농사일에 뻐심을 들일 대신 비닐박막타령만 하는 5작업반 반장에게 6년전에 전국농업대회에 참가하였다가 겪은 자신의 교훈적인 이야기를 들려 주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상동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인 창덕과 하동협동농장 작업반장인 그의 애인 순애는 다같이 대표로서 전국농업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올라 온다.

다 같은 대표로서 평양에 올라 왔지만 이들은 평양역전에서부터 차이나는 대접을 받게 된다.

대표들을 안내하기 위해 마중 나온 일군의 지시에 따라 순애는 고급뻐스에 타는데 창덕에게는 일반뻐스가 차례진다. 또한 대회기간 고급호텔에서 생활하게 될것이라고 제김에 들떠 있던 창덕은 일반려관에 들게 되며 반대로 소박한 생각을 품고 있던 순애는 고급호텔에 들게 된다.

대회장에서도 남들이 보란듯이 앞자리에 앉았던 창덕은 그만 그 자리에서 일어 나 뒤자리에 가앉아야 했다.

그것은 대회에 같은 대표의 자격으로 참가하였지만 계획수행정형을 놓고 대표들을 대우하기때문이였다.

그에 따라 농사계획을 넘쳐 수행한 하동협동농장의 작업반장인 순애는 항상 높은 대우를 받게 되였고 반면에 농사계획을 수행하지 못한 상동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인 창덕은 그에 맞는 대우를 받게 되였던것이였다.

그제야 창덕은 대회에 참가했다는 그 한가지 사실을 놓고 자만했던 자신을 뉘우치며 농사일에 뻐심을 들이지 못한 지난 날을 돌이켜 본다.

농사일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걸린 문제를 자체로 풀어 나가면서 농사를 알심 있게 할 대신 창덕은 지난 시기 이것저것 타발만 하면서 분발하지 않는다.

결과 농사계획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농촌에 자원진출한 순애는 대지에 깨끗한 량심과 충성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쏟아 붓는다.

그의 이악하고도 성실한 일솜씨에 감탄하여 어제날 자기의 제자라고 생각해 오던 순애를 두고 창덕은 자신이 이제는 그의 제자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동생인 창덕이가 애인과 함께 농업대회에 참가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누이와 매부는 창덕이로 하여금 그 처녀를 집으로 데려 올데 대해 요구한다.

계획을 수행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일반대우를 받고 있다는것을 숨기고 있던 창덕은 이로 하여 더 큰 곤경에 빠져 망신하게 된다.

그의 이와 같은 이야기는 높은 실적을 내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할 대신 조건타발만 앞세우던 5작업반 반장을 비롯한 농장원들에게 큰 자극을 주게 된다.

영화는 주인공 창덕이가 감자재배방법을 배우기 위해 대홍단에 갔던 자기의 안해 순애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특별비행기를 타고 전국농업부문일군 열성자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가는 모습을 커다란 감격속에 체험하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상을 통하여 영화는 사람의 가치는 일을 많이 하여 높은 실적을 내는데 있으며 나라와 인민을 위한 그 실적속에 우리 일군들의 당에 대한 충실성의 높이가 있고 애국충정도 있다는것을 깨우쳐 준다.

예술영화 《법동농민》전, 후편

예술영화 《법동농민》(전, 후편)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따르는 길에 인생의 행복과 긍지가 있다는것을 절감하며 간난신고끝에 최고사령부를 찾아 간 법동농민을 원형으로 하고 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자 주인공 기태는 가족과 함께 북행길에 오른다. 이 과정에 남반부의 과학자들을 인솔하여 후퇴길에 오른 리인민위원장 창국 그리고 철도로동자를 비롯한 각이한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복잡다단한 북행길을 헤쳐 가면서 이들은 서로의 마음과 정을 나누며 곤난을 극복해 간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으로 《산귀신》의 신세를 면하고 처음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던 광복후의 나날들을 그려 보며 기태는 그 아무리 준엄한 시련이 앞을 막아 서도 수령님만을 따를 결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는다. 그리하여 그는 후퇴길에서 안해와 리인민위원장을 잃고 아들의 비보도 접하게 되지만 변함없이 북으로 걸음을 다그치며 감히 최고사령부의 《종말》을 떠벌이는 《치안대》놈들을 단호히 처단해 버리기도 한다.

한편 정임과 남반부의 과학자들은 소박하면서도 견결한 그의 모습을 통하여 위인의 손길아래 성장한 인민의 사상정신적면모를 보며 인생의 참된 진리를 가슴깊이 새겨 안게 된다.

고산진으로 달구지를 몰아 가던 기태는 한밤중 어느 한 령길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군님을 찾아 북으로 간다는 평범한 농민인 그의 소박한 대답을 들으시고 이런 인민이 있는 한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수 있다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말씀을 하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분에 넘치는 말씀을 심장에 새기며 기태는 수령님을 따라 천리, 만리라도 달려 갈것을 더욱 굳게 결의 다진다.

영화는 주인공 기태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조국의 모든 위력과 무궁한 힘은 수령과 인민이 생사운명을 같이 하는 위대한 혼연일체에 그 원천을 두고 있다는것을 깊이 있게 밝혀 내고 있다.

예술영화 《우리는 여기서 산다》

예술영화 《우리는 여기서 산다》는 정든 도시를 떠나 농촌에 뿌리 내리고 농장마을을 도시 부럽지 않은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려 나가는 한 처녀관리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화암협동농장에 진출해 오는 도시청년들에게 농장청년인 대석이와 청일이가 학교에 간 관리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는것으로 영화가 시작된다.

큰물에 터지는 동뚝을 한몸으로 막고 희생된것으로 하여 화암사람들이 잊지 못해 하는 이전 3대혁명소조원처녀의 동생인 주인공 금복은 자신도 언니처럼 화암땅에 진심을 바칠것을 결심한다.

당의 의도대로 자기 농장에서 기어이 두벌농사를 지을것을 결심한 금복은 농장청년인 대석이와 농장에서 몇년째 대용비료연구를 해오고 있는 영민연구사와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린다.

그는 고향땅에 대한 사랑을 헌 신짝처럼 버리고 도시로 시집 간 애인을 두고 전 세대들의 피와 넋이 스며 있는 농촌에서 핵심력량이 보존되지 못하고 있

는데 대하여 가슴 아파 하는 대석이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에 깊이 감복한다.

금복관리위원장의 사심 없고 진지한 방조속에 대석은 마침내 대용연료연구에서 성공하며 영민연구사 역시 대용비료연구에서 성공한후 농촌처녀인 석화와 한생을 같이 할것을 약속하고 화암땅에 뿌리 내린다.

관리위원장 금복과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농장에서는 한해 농사를 잘 짓게 되며 농장은 자력갱생모범농장으로 전변된다.

화암땅을 도시 부럽지 않는 사회주의리상촌으로 꾸려 나가는 길에서 일생을 같이 할것을 서로 언약하며 금복과 대석은 일을 더많이 하여 농장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꼭 모시자고 굳게 다짐한다.

이처럼 영화는 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관철해 나가는 길에서 청춘도 사랑도 꽃피워 가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세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예술영화 《불씨》

예술영화 《불씨》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영천지구에 우리 나라 기계공업의 어머니공장을 건설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을 받들고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생활을 보여 주고 있다.

한쪼각의 쇠, 한푼의 돈도 전쟁의 승리를 위해 쓰이던 때 새로 지배인으로 임명된 주인공 강태성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35만원의 자금을 가지고 기계공장건설장으로 떠나는것으로부터 영화가 시작된다.

자금사정으로 건설을 중지해야 할 상태에서 지배인을 목 마르게 기다리던 건설장의 일군들은 그가 가지고 온 돈이 기계설비 몇대값밖에 안된다는것을 알게 되자 실망하게 된다. 그러나 태성은 그 돈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을 깨우쳐 주며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공장건설에로 불러 일으킨다.

기계 한대를 운반하자고 해도 피를 흘려야 하는 준엄한 때에 식량난까지 겹쳐 로동자들이 굶게 되자 태성은 고충속에 모대기게 된다. 결국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신의 생활비까지 아껴 모아 두시였다가 보내주신 건설자금을 로동자들의 생활비로 나누어 준다. 그러나 로동자들은 한몸이 벽돌이 되여서라도 기어이 공장을 일떠세울테니 건설자금을 소비하지 말자고 하면서 받았던 생활비를 다시 내놓는다. 이들의 순결한 량심앞에서 지배인 강태성은 잠시나마 나약해 졌던 자신을 자책하며 공장건설을 더욱 내민다.

그러나 난관은 끊임없이 덮쳐 든다.

35만원의 사연 깊은 돈을 가지고 방수재료를 구하기 위해 떠났던 양덕만이 자취를 감추었다는 뜻밖의 소식이 날아 들었고 여러가지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아 나선다.

엄청난 시련앞에서 기사장을 비롯한 일부 일군들은 그 누구도 영천땅에 기계공장이 일떠선다고 믿지 않을것이라며 동요한다.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이들에게 전달된다.

자기들을 치하해 주고 고무해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접한 태성과 이곳 로동계급은 더욱 분연히 일떠나 공장건설을 다그친다.

이들은 적들의 맹폭격속에서도 기계운반과 건설을 다그친다. 또한 자취를 감추었다던 양덕만이가 자신은 굶주리면서도 건설자금을 단 한푼도 다치지 않고 방수재료를 해결해 온것은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크게 고무해 준다.

이런 간고한 투쟁속에 공장건설이 완성되여 간다.

영화는 주인공들의 투쟁모습을 통하여 전화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펴 주신 주체적기계공업창설의 불씨가 있고 믿음직한 로동계급이 있어 오늘의 자랑찬 자립적기계공업이 일떠설수 있었다는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술영화 《불 같은 사람》

예술영화 《불 같은 사람》은 어느 한 세멘트공장에 내려 간 성의 일군이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일군들을 도와 나라의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를 생산보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화는 세멘트공장 장송지배인이 주인공인 영철처장과 차를 함께 타고 가면서 그의 참된 인간됨을 회상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자이며 제대군관인 영철은 발전소건설용세멘트생산을 책임진 전권대표로 공장에 내려 와 실태를 료해하면서 성에 제기하여 생산계획을 조절 받으려는 지배인의 행동에 발을 맞춘다.

그러나 협의회과정에 그는 당에서 맡겨 준 과업을 무조건 수행하려는 로동계급의 투철한 자세와 립장에서 자신이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것을 깨닫게 된다.

당조직을 찾아 가 자신을 반성한 영철은 로동계급속에 들어 가 생산을 높일 실질적인 방도를 찾아 모색한다. 이 과정에 그는 옥금기사의 반화장치연구에

관심을 두게 된다.

한편 지배인은 로보수를 제때에 하고 소성온도를 높여 생산성과를 올릴 생각은 하지 않고 조카인 명신이네 자재상사에서 중유를 받고 대신 발전소건설용세멘트를 일부 빼돌리려 한다.

이 사실을 안 영철처장은 명신이에게서 갖은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세멘트수송을 중지시킨다.

영예군인으로서 불치의 병진단을 받게 된것으로 하여 영철이가 명신이를 멀리했다는것을 알리 없는 명신이와 지배인은 그를 겉과 속이 다른 의리 없는 인간이라고 속으로 나무람한다.

하지만 영철은 지배인이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일해 나가도록 꾸준히 교양한다.

당에서 하라는대로 일단 시작한 일에 자신을 깡그리 바쳐 나가는 그의 혁명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새는 사람들을 무한히 감동시키며 그들을 세멘트생산투쟁에로 힘 있게 불러 일으킨다.

특히 그가 공화국영웅이라는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더욱 큰 감동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형상을 통하여 영화는 말이 아니라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높은 실적을 내는 일군이 바로 우리 당의 진짜배기충신이며 오늘 우리 시대 일군들이 따라 배워야 할 참된 인간이라는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술영화 《미래를 사랑하라》

예술영화 《미래를 사랑하라》는 1930년대 말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남패자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을 받들고 최후의 순간까지 혁명승리를 락관하면서 싸운 지대장 박길산을 비롯한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만에서 중대장으로 활동하던 주인공 박길산은 허장성세하는 일제의 공격앞에서 자기 식의 판단을 내세우며 투쟁을 기피하는 석준중대장을 대신하여 방정현전투를 단독으로 진행한다. 이 전투에서 두눈에 부상을 입으면서도 그는 사령부의 방침관철에서 견지해야 할 전사의 자세를 대원들에게 보여 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사령부의 명령을 결사관철해 나가는 그의 투쟁을 높이 평가하시며 대원들이 삼가 올리였던 산삼과 함께 친서를 그에게 보내주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을 안고 그는 더욱 과감한 투쟁을 벌린다.

그는 사령부를 《토벌》하기 위해 밀려 가는 적의 대병력을 유인하기 위한 전투를 희생적으로 벌린다. 그 과정에 적들에게 체포된 그는 모진 악형을 당하면서도 전우들과 함께 감방벽에 《미래를 사랑하라》는 글발을 새기며 최후의 순간까지 혁명적지조를 지켜 용감히 싸운다.

영화는 주인공 박길산과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지닌 미래에 대한 사랑, 혁명적락관주의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하는 순결한 충실성과 투철한 혁명적신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오늘의 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추동하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깊이 있게 보여 주고 있다.

예술영화 《사랑의 대지》전, 후편

예술영화 《사랑의 대지》(전, 후편)는 한 처녀의사가 앉은뱅이 귀국동포처녀를 위하여 청춘도 사랑도 다 바쳐 가며 치료해 줌으로써 그가 대지를 활보할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의학과학원 연구생인 주인공 귀녀는 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 앉은뱅이처녀인 정옥이를 알게 된다.

좀처럼 곁을 주지 않는 그에게 따뜻한 정을 부으며 귀녀는 정옥이가 일본땅에서 조선옷을 입었다는 죄 아닌 《죄》로 어려서부터 불구가 된 기막힌 사연을 알게 된다.

귀녀는 병원당조직을 찾아 가 혈혈단신인 정옥이와 함께 살면서 그의 병치료를 돕도록 도병원 의사로 받아 줄것을 제의한다. 귀녀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감동된 병원에서는 그에게 살림집을 따로 장만하여 주고 유능한 의사들도 붙여 준다.

귀녀는 인민군군관인 웅철이와의 결혼까지 미루며 정옥이에게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 기울인다.

그의 지극한 정성에 의해 드디여 3년만에 전혀 감각이 없던 정옥이의 다리신경이 살아 난다.

영화의 전편은 정옥이를 홀로 두고 차마 떠날수가 없어 귀녀가 전연부대로 조동되여 가는 웅철이를 선뜻 따라 나서지 못하고 그에게 결별의 편지를 전하는것으로 끝난다.

후편에서는 급성위장출혈로 입원한 정옥이를 위해 피를 바치는 의료기관 일군들과 로동계급들, 정옥이의 생일을 뜻 깊게 차려 주는 생활, 일본땅에서는 상상도 못할 진실한 사람들의 후더운 인정과 보살핌속에서 인간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게 사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뜨겁게 새겨 안게 되는 정옥이의 심리세계 등을 감동깊이 펼쳐 보이고 있다.

어느 날 정옥은 자기때문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살아 오던 귀녀가 전연에서 희생된 웅철이로 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고도 변함없이 자기에게 정을 쏟는것을 보고 끝내 뜨거운 눈물을 쏟는다.

그는 불과 자기보다 몇살 우이지만 자신을 친자식처럼 보살펴 온 귀녀를 향해 자나깨나 불러 보고 싶던 가장 그리운 부름 《엄마!》라고 웨치며 그의 품에 안긴다.

귀녀의 지극한 정성에 의해 마침내 대지를 마음껏 활보하게 되는 정옥의 형상을 통하여 영화는 사람들모두다 친형제가 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사는 가장 우월한 인간사랑의 대화원 사회주의제도, 이 고마운 제도를 마련해 준 우리 당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다.

텔레비죤련속극 《대하는 흐른다》제1～12부

텔레비죤련속극 《대하는 흐른다》(제1～12부)는 천세봉의 동명의 장편소설에 기초한 작품이다.

작품은 광복직후 우리 나라 농촌을 무대로 하여 농촌에서의 3.7제투쟁과 토지개혁실시과정을 심각한 계급투쟁속에서 반영하고 있다.

광복전 일제의 《징용》에 끌려 가던중 호송병놈을 족치고 탈출하여 피신해 있던 주인공 마영기는 광복과 함께 고향에 돌아 온다.

광복의 희열에 들떠 집에 돌아 왔으나 마을형편은 여전하였다. 광복전 친일주구로서 농민들을 못 살게 굴던 지주 배덕수의 《권세》는 예전 그대로였고 집살림은 말할수 없이 황폐화되여 있었다.

한편 그가 집에 돌아 왔다는 소식을 들은 교활한 배덕수놈은 머슴에게 쌀을 지워 그의 집으로 보내면서 마영기의 분노를 누잦히고 그의 환심을 사려한다.

그런가 하면 첩의 딸인 배명희를 그에게 붙여 주면서 그가 자기를 반대해 나서지 못하게 할것을 꾀한다. 특히 자기의 《앞잡이》로 써먹으려고 한다.

그러나 광복전부터 배덕수에 대한 피 맺힌 원한을 품고 있던 마영기는 그 쌀을 다시 놈의 집에다 내버리며 그후 배덕수를 반대하여 3.7제를 기어이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 선다.

그러나 교활한 배덕수는 농민들을 위협하는 한편 마름 배치순이를 앞세워 각성되지 못한 농민들이 소작료를 종전대로 실어 오도록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단속하기 위해 길목에서 보초를 서던 마영기는 어느 날 3.7제투쟁을 위해 마을에 왔던 친우인 철도로동자 장길봉이를 잃는다. 친우의 죽음앞에서 마영기는 3.7제투쟁이 농촌에서의 심각한 계급투쟁이라는것을 뼈 저리게 체험하게 된다.

투쟁속에서 점차적으로 계급적으로 각성된 그는 농민들을 발동하여 3.7제운동을 승리적으로 결속한다.

3.7제의 실시에 이어 진행된 농촌에서의 토지개혁은 말 그대로 누가 누구를 하는 첨예한 계급투쟁이였다.

배덕수를 비롯한 악질적인 지주들과 부농 등 계급적원쑤들은 토지개혁을 방해하고 파탄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놈들은 배씨문중의 농민들을 자기쪽으로 끌어 당기려 하는가 하면 각성되지 못한 농민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강박하고 위협하면서 토지개혁에 나서지 못하도록 책동한다.

그러나 마영기는 항일혁명투사와 군당일군의 지도를 받으며 놈들의 책동을 짓부시며 토지개혁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 나간다.

한편 그는 계급적으로 불행한 처지에 있는 배명희(아버지는 지주 배덕수이나 어머니는 배덕수의 빚값에 첩으로 들어 왔다 배명희를 낳은후 버림을 받고 쫓겨 나 죽었다.)를 혁명의 편으로 이끌어 야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한다.

토지개혁의 실시가 눈앞에 다가오자 배덕수를 비롯한 불순분자들은 미국놈들의 지령을 받고 남조선에서 기여 든 배덕수의 아들놈과 함께 마영기를 비롯한 토지개혁핵심성원들에 대한 테로행위까지 꾸민다. 제놈들의 흉계가 배명희에 의해 탄로날 경우에 처하게 되자 배덕수는 자기 딸에게 총을 쏘아 중상을 입힌다.

그러나 명희는 총에 맞은 몸으로도 끝까지 마영기를 찾아 와 이 사실을 전함으로써 놈들의 흉계는 파탄되고 많은 계급적원쑤들이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처단된다.

작품은 이와 같은 형상을 통하여 당시 우리 나라 농촌에서의 심각한 계급투쟁의 일면을 보여 주면서 계급적원쑤들에 대하여서는 자그마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되며 놈들과는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는것을 강조하고 있다.

텔레비죤예술영화 《압록강 2천리》제1～7부

텔레비죤예술영화 《압록강 2천리》(제1～7부)는 무대를 떠나 어느 한 림산사업소에서 벌목공으로 일하던 주인공 오태훈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로 다시 무대에 나서는 이야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영화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배려로 마련된 독창회무대에서 관중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는 주인공 오태훈이 지나온 나날들을 회상하는것으로

시작된다.

당의 부름을 받들고 림산으로 진출하는 청년들로부터 래일의 환송공연때 《압록강 2천리》를 불러 줄데 대한 부탁을 받고 흥분해 있던 오태훈은 아버지의 이름을 확인해 보는 림업성 과장의 전화를 받게 된다.

다음날 극장에 나간 태훈은 자기의 아버지가 《변절자》라는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된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태훈에게 림업성 과장은 아버지에 대한 기사가 실린 신문까지 내보인다.

좌절감에 빠진 태훈은 심한 고민끝에 아버지가 조국앞에 진 죄를 자신이 씻을것을 결심한다. 그는 안해에게 장기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진출자들의 대오에 끼여 림산사업소로 떠난다.

그가 림산사업소로 오게 된 사연을 알게 된 사업소 당비서가 다시 극장에 가서 노래를 부를것을 권고하나 태훈은 자기의 결심을 굽히지 않는다.

비장한 각오밑에 그는 한몸을 아낌없이 바쳐 가며 헌신적으로 일한다.

이러한 때 성에서 내려 온 그 과장은 태훈을 알아보고 측은하게 여기며 일을 잘할것을 권고한다.

그러던 어느 날 다리건설문제가 제기되자 태훈은 세멘트로 건설해야 한다는 과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긴장한 세멘트대신 흔한 나무로 궁륭식다리를 건설할데 대한 방안을 내놓아 건설기일을 앞당길수 있게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태훈의 안해가 극장의 배우들과 함께 사업소에 이동공연을 온다. 뜻밖에 안해와 만나게 된 태훈은 그에게 자기가 림산에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며 자기를 잊어 줄것을 당부한다.

그후 떼를 무어 목재를 운반할데 대한 긴급과제가 사업소에 제기된다.

림업성 과장은 물살이 빠르기때문에 위험하다며 떼무이를 반대한다. 그러나 태훈은 조직과 동무들의 지지밑에 휴가기간을 바쳐 합리적인 떼무이방법을 배워 실천에 옮긴다. 그런데 예견치 않던 일로 사고가 일어 나며 그로 하여 태훈은 이전부터 미덥지 않게 대하던 과장의 조치로 다시 벌목장으로 조동되여 가게 된다.

모진 시련속에서도 태훈은 신념을 변치 않고 동무들의 방조속에 낮에는 나무를 베고 밤에는 떼를 무으며 자신을 꾸준히 단련해 나간다.

이러한 때 당중앙의 한 일군이 그를 찾아 온다. 그 일군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압록강 2천리》를 잘 불러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렸던 그에 대해 물으시고는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뒤집어 쓸수 없다고, 그 동무를 다시 무대에 세워야 한다시며 그의 마음속 상처가 크겠는데 아버지문제도 정확히 해명해 보도록 하시였다는것과 그후 태훈의 아버지가 변절자가 아니라 충실한 혁명가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그의 독창회를 조직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는 가슴 뜨거운 사연을 전달해 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렇듯 크나큰 사랑에 의해 오태훈은 평양대극장의 독창회무대에 나서게 되며 《압록강 2천리》를 훌륭히 불러 관중들의 열렬한 절찬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형상을 통하여 영화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삶을 보살펴 주고 꽃 피워 주는 위대한 사랑의 품이라는것을 밝혀 내고 있다.

영화는 평양음악무용대학 교원인 오매훈을 원형으로 창작된 작품이다.

텔레비죤예술영화 《민족의 사나이》 제1~15부

텔레비죤예술영화 《민족의 사나이》(제1~15부)는 세계프로레스링강자로 이름 떨쳤던 력도산(본명 김신락)의 곡절 많은 운명을 펼쳐 보이고 있다.

광복전 일제놈들의 꾀임에 속아 일본으로 건너 간 력도산은 일본씨름협회에서 씨름선수로 활동하게 된다. 강의한 의지와 용맹한 투지, 훌륭한 육체적조건을 지닌 그는 씨름계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조선사람이라는 그 한가지 리유로 하여 그는 응당한 평가대신 민족적멸시를 받게 된다. 이에 분노한 력도산은 상투를 잘라 버린다.

한편 《대동아공영권》을 꿈 꾸다 여지없이 패망한 일제는 일본국민의 떨어 진 사기를 북 돋아 주고 군국주의사상을 부활시키기 위한 출로를 찾아 모대기던중 프로레스링에 관심을 돌린다.

그리하여 국회의원 오노, 일본프로레스링협회 회장 신사꾸사이에 음모가 꾸며 지고 그 계책에 따라 력도산은 씨름선수로부터 전환하여 프로레스링을 시작하게 된다.

일제는 력도산이 프로레스링에서 성공하는 경우 그를 《일본남아》로 위장하여 패전으로 저락된 민심을 추켜 세우고 나아가서 세계제패의 야망을 기어이 실현할것을 꾀하고 있었다.

일제의 이런 음모를 알리 없는 력도산은 자기를 내세워 주는 놈들을 환상적으로 대하며 일본인행세를 하려고 한다. 지어 그는 프로레스링계에서 온 일본국민이 우상화하는 일본의 《영웅남아》가 될것을 꿈 꾸기까지 한다.

이러한 그에게 강창수가 찾아 와 언제나 조선사람임을 잊지 말것을 깨우쳐 주며 프로레스링에서 특기를 살릴수 있도록 우리 민족의 오랜 전통을 가진 가라데쪼브를 배워 준다.

가라데쪼브를 가지고 경기에 출전한 력도산은 점차 일본의 프로레스링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며 그의 지위는 확고한것으로 된다.

그러자 일제는 력도산의 머리속에서 조선사람의 넋을 완전히 말살해 버리려고 획책한다.

회장 니이다 신사꾸는 력도산이 마음에 들어 하던 자기의 쌍둥이딸 다미에가 조선사람과 살수 없다며 할복자살하자 역시 조선사람을 경멸하는 다미에의 동생 후미에를 다미에로 위장시켜 그와 결혼하도록 한다. 자기의 몸에서 조선사람의 넋을 완전히 빼앗으려는 놈들의 이러한 계책을 간파하지 못한 력도산은 프로레스링계에서 자기의 지위가 점차 확고한것으로 되자 독자적인 길로 나가려 한다.

이에 질겁한 신사꾸를 비롯한 놈들은 그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해하기 위해 날뛴다.

놈들의 협박에 의해 력도산의 가장 《충실》한 방조자의 하나였던 다나까도 그를 배반하게 되며 지어 안해의 사랑마저 잃게 된다.

놈들의 《힘》을 빌어서라도 조선민족의 기개를 떨치리라 생각했던 력도산은 군국주의정신이 활개치는 일본땅에서 자기의 《념원》이 너무도 어리석은것이였음을 절감하고 고민에 잠기게 된다.

바로 이러한 때 력도산은 우리 민족의 사나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 받게 된다.

드디여 그는 조선사람은 그 어디에서 살던 민족의 넋을 버려서는 안된다는, 민족의 넋을 버린다면 살아도 죽은 목숨이라는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놈들의 유화정책을 짓부시고 프로레스링으로서 조선민족의 기상을 과시하기 위해 애 쓴다.

이와 함께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자신의 진정이 담긴 편지와 함께 승용차를 올린다.

그의 이와 같은 결단에 질겁한 놈들은 제놈들의 음흉한 목적에 그를 더는 써먹을수 없게 되자 력도산을 살해할 모략을 꾸민다.

그리하여 력도산은 그토록 가고 싶고 안기고 싶어하던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기지 못한채 놈들에 의해 《라틴키터》식당에서 참혹하게 살해된다.

영화는 이처럼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조선사람의 넋을 찾고 지켜 나가는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을 신사꾸와 후미에, 다나까 등과의 극적인 심각한 관계속에서 깊이 있게 펼쳐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형상을 통하여 영화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이야말로 민족의 넋을 지키고 빛내여 가게 하는 사랑의 품이며 그 품속에 지난 날 죄를 지은 사람도 민족의 사나이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텔레비죤예술영화 《금패령의 겨울》 제1~6부

텔레비죤예술영화 《금패령의 겨울》(제1~6부)은 무산—청진사이의 철정광수송관을 책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김철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이야기를 보여 주고 있다.

정광수송관건설이 끝난후 주인공 주룡진이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기술과 부원으로 임명되였을 때 수송관의 용접부위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한다.

급히 현장에 나간 그는 서경제박사로부터 사고의 원인이 용접과 관련된것이 아니라 류례 없는 강추위에 있었다는것을 알고는 다시 기업소로 돌아 온다. 그러나 그의 머리속에서는 무서운 혹한속에서도 수송관을 정상관리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관리공들의 모습이 떠나지 않는다.

그는 마침내 애인인 예숙이의 만류도 물리치고 제일 불리한 구간인 금패령의 관리작업반장으로 자진해 간다.

그러나 령하 40°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속에서 수송관을 지켜 내기 위한 투쟁은 순탄치 않았다.

청춘시절에 위훈을 세워 보겠다며 자진해 왔던 조동렬은 뜻밖에 만난 곰이 무서워 쫓기다보니 발브를 제때에 열지 못하여 수송관을 동파시키는 사고를 저지른다. 이를 계기로 의기소침해 있던 그는 고난을 이겨 내지 못하고 원래의 자기 직장으로 도주해 간다.

북방의 맵짠 추위로 인한 불리한 작업조건, 대오내에서의 도피자의 발생…

이런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주인공 주룡진을 비롯한 작업반성원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수송관관리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간다.

이러한 때 지식인의 가정에서 태여나 고스란히 자라난 서경제박사의 손자인 서지현은 로동계급속에서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해 나갈 굳은 결심밑에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자 눈보라 사나운 금패령초소로 달려 나오며 순결한 마음씨를 지닌 녀당원 황봉금은 어린 딸에게 가정일을 맡겨 놓고 현장에서 작업반원들을 성심성의껏 도와 줌으로써 그들이 금패령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 내도록 떠밀어 준다.

또한 주인공 룡진과 서지현, 황봉금 그리고 애인인 채금이를 비롯한 반원들의 진실한 사랑과 방조속에 한때 초소를 버리고 도망쳤던 조동렬이도 다시 금패령으로 돌아 와 사나운 눈보라속에서도 굴할줄 모르는 참된 로동계급으로 성장한다.

주인공 룡진을 비롯한 이곳 작업반원들은 령하 40°를 오르내리는 혹한속에서도 수송관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고심어린 탐구를 거듭해 나간다.

이러한 때 주인공 룡진의 애인인 심예숙이 겨

울의 혹한속에서도 수송관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할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현장기사로 내려 온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은 한때 소극성, 보수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지배인 태정국이로 하여금 자신을 심각히 뉘우치게 한다.

영화에서는 우리 식의 철정광수송관이 완성되였을 때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250여리 수송관을 통해 넘어 온 쇠돌가루를 정히 손수건에 싸 건사하시며 김철의 로동계급이 보고 싶을 때마다 이 쇠돌가루를 보겠다고 하시며 그처럼 기뻐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덕성을 감명 깊게 전하고 있다.

영화는 이와 같은 형상을 통하여 수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는것은 우리 로동계급의 영예로운 본분이라는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텔레비죤예술영화 《한 보위일군의 수기》 제1~9부

텔레비죤예술영화 《한 보위일군의 수기》(제1~9부)는 한생을 높은 계급적자각과 순결한 량심을 지니고 살며 투쟁해 나가는 한 보위일군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영화는 어느 한 도시에서 40여년간 보위사업을 해온 주인공 영교가 소환장을 받고 평양으로 떠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조개잡이에 나갔던 사람들이 감탕속에 적들이 묻어 둔 무전기를 발견한 사실에 접한 영교는 그 무전기가 40여년전에 결속한 《석금망》간첩사건과 련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사건을 끝까지 결속할것을 결심한다. 그는 이미전에 자수한 당시《석금망》 무전수였던 창민을 만나 그때 망책의 뒤에 큰 놈이 움직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석금망》적발당시 도검찰소 책임검사(간첩망의 한 성원)였던 로기준은 자료가 명백치 않다는 리유로 체포된 자들을 석방시킬것을 내무분주소 소장이였던 영교에게 강박하며 그가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으며 이를 거부하자 이번에는 영교의 처남이 월남하여 미군첩보부에 복무한다면서 거짓편지까지 만들어 영교를 위협한다. 그래도 영교의 신념을 꺾을수 없었던 놈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 평양으로 가는 영교를 살해하려고까지 책동한다.

영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젊은 보안원인 석민이에게 이야기해 주며 깨끗이 결속하지 못하였던 40여년전의《석금망》간첩사건을 끝까지 파고 들것을 결심한다.

이러한 때 이들의 시야에 리성일이란 사진사가 걸려 든다.

이자는 광복전 동생을 찾아 다니다 로자가 떨어져 술집앞에 서 있던 영교의 안해 보배를 술집에 팔아 먹으려던 뚜쟁이로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미제의 충실한 주구가 되여 애국자들을 고발체포하여 처형하는데 앞장 섰던 당시《석금망》의 망책이였다. 그자의 처 역시《석금망》의 한 성원으로서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의 통역원으로 복무하였었다. 이자들은 전후 서로 갈라 져 살면서 제놈들의 정체를 교묘하게 숨기고《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놈들의 이와 같은 정체는 주인공 영교와 석민, 리철(영교의 양아들)을 비롯한 보위일군들의 예리한 분석과 판단, 정확한 추적에 의해 점차적으로 밝혀지게 된다.

무전기사건으로 위험을 느낀 놈들은 물욕이 강한 상업관리소 운전사에게 모든 감투를 씌우려 하며 윤혜인(리성일의 처)의 양딸 진옥이를 살해한다. 또한 어느 한 회사 사장인 형보(리성일의 아들.《석금망》성원) 역시 제놈의 정체가 드러날 정황에 부닥치자 자기 안해를 죽이려고 한다.

지어 놈들은 영교와 리철이를 보위사업에서 밀어내기 위해 침입간첩놈을 영교의 처남으로 위장시켜 보위기관에 체포되도록 한다. 그러나 놈들의 계교는 보배에 의해(처남의 어린 시절 아명 확인) 실패하게 된다.

상전인 브라운 2세가 파견한 련락관과 접선한 리성일놈은 변화된 국제정세에 맞게 공화국의 내부에서 무장폭동을 준비하며《특공대》를 맞을 준비를 갖출데 대한 지령을 받으며《석금망》의 새 망책과 망원들의 명단자료, 수십년동안 모아 들인 정보자료를 넘겨 준다.

그러나 영교를 비롯한 보위일군들의 예리한 눈초리에 걸려 들어 리성일이와 련락관 가나바야시가 체포되며 어느 한 료양소에서 영예군인들을《도와》주며 정체를 숨기고 있던 윤혜인도 체포된다.

또한 아버지인 리성일이로부터 전화에 의한 안전신호가 없게 되자 급히 도망치려고 비행장으로 나가던 도상업관리소 국장인《석금망》의 새 망책 정식이도 마침내 체포된다.

보위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40여년간이나 우리 내부에 숨어 기회를 엿보던《석금망》이 마침내 일망타진된것이다.

이와 같은 형상을 통하여 영화는 계급적원쑤들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따라서 놈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소멸해 버려야 한다는 사상과 함께 준엄한 계급투쟁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살며 투쟁해 나가야 하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텔레비죤실화극 《룡남산의 아들》 제1~2부

텔레비죤실화극《룡남산의 아들》(제1,2부)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던 김랑명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의 뜻을 받들고 신창탄광에 자진하여 내려 가 석탄증산을 위해 투쟁하던 도중 위급한 정황속에서 동지들을 구원하고 영웅적인 최후를 마친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주인공 김랑명은 원래 신창탄광에서 채탄공으로 일하다가 당의 배려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한다.

이 나날 그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석탄문제때문에 심려하시였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되새기며 석탄증산으로 수령님의 뜻을 기어이 관철할것을 결심한다.

그는 자기의 결의를 담은 편지를 경애하는 장군님께 삼가 올린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친필이 새겨 진 편지를 가슴깊이 간직한 그는 탄광에 내려 가 제일 뒤떨어 진 소대의 소대장으로 일하면서 탄부들을 석탄증산을 위한 투쟁에로 힘 있게 이끌어 나간다.

이 과정에 그의 소대는 월 5,000t 생산계획을 돌파하는 혁신을 일으킨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고로 탄차가 굴러 내리며 동지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 일촉즉발의 순간 그는 서슴없이 한몸을 탄차밑으로 내대여 동지들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장렬하게 희생된다.

실화극은 룡남산에서 다지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꽃 피우기 위하여 어렵고 힘든 초소로 서슴없이 달려 가 희생적으로 투쟁하는 주인공 김랑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삼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같은 충신들이 많기에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우리 혁명이 힘 있게 전진하고 있다는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텔레비죤실화극 《당 부》 제1~3부

텔레비죤실화극 《당부》(제1~3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90년대의 첫 영웅으로 내세워 주신 김광철영웅의 부모들이 남은 세 자식 모두를 맏아들이 섰던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우는 이야기를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여 펼치고 있다.

군사복무를 하던 맏아들 광철이가 뜻밖의 위급한 정황에서 동지들을 구원하고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부모들은 아들이 있던 까치봉중대에 간다.

초소에 도착한 김명룡, 신송옥부부는 아들이 없는 초소가 웬일인지 텅 빈것만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들은 집에 남은 세 자식들을 모두 혁명의 총대로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는 조국보위초소에 세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90년대의 첫 영웅으로 내세워 주신 맏아들의 넋을 지켜 가도록 할것을 결심한다.

그러나 맏딸은 자기가 오히려 군인들의 짐이 될가보아 주저하고 막내아들은 형의 이름밑에 덕이나 보려고 생각한다. 한편 둘째 딸은 대상자인 전연군관에게 아이가 있다는것을 알고는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한다.

영웅의 부모들은 이러한 자식들을 원칙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이 동지들을 위해 꽃다운 청춘을 바친 김광철영웅처럼 살아 나가도록 이끌어 준다.

그리하여 그들모두는 김광철영웅이 섰던 초소에 서서 영웅의 넋을 지켜 나가게 된다.

작품은 이와 같은 형상을 통하여 수령결사옹위의 제1선인 조국보위초소야말로 가장 영예롭고 긍지 높은 첫 자리이라는것을 강조하고 있다.

텔레비죤극 《갈매기》 제1, 2부

텔레비죤극 《갈매기》(제1, 2부)는 나라의 체육발전과 우리 인민의 문화정서생활을 위해 베풀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창광원을 무대로 하여 펼쳐 보이고 있다.

풍치 수려한 조국의 자연환경을 화면에 담기 위해 바다에 나갔던 환경보호연구소 연구사들인 철성과 명일이 백사장에서 훈련을 하는 해연을 비롯한 수중무용선수들의 아름다운 률동에 매혹되는것으로부터 작품이 시작된다.

한편 해연이 어머니인 창광원 수영작업반 반장 숙경은 딸이 수중무용을 하는것을 마뜩지 않게 여기는 남편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 주기 위해 그에게 수영장 고정출입증과 수영기재까지 안겨 주며 수영을 배우도록 충동질을 한다.

그러나 완고하기 그지없는 환경보호연구소 실장인 해연이 아버지는 딸을 수중무용이 아니라 도서관사서로 되게 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그는 자기처럼 수영이라면 겁부터 먹는 같은 연구소 수질연구사인 총각 철성을 딸에게 붙여 주며 그가 해연이를 수중무용에서 떼내여 오도록 《특별임

무》까지 준다.

그에 따라 창광원에 갔던 철성은 자기의 사업대상이 얼마전 바다에 촬영 나갔을 때 갈매기를 잡으려던 자기를 크게 혼내워 준 그 처녀였다는것을 알고 몹시 당황해 한다. 수중무용선수인 해연의 아름다운 지향세계에 대한 감복과 명일이의 충고에 의해 철성이 수중무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지게 됨으로써 실장의 계책은 실패하게 된다.

오히려 철성은 남편의 잘못된 리해를 고쳐 주기 위한 해연이 어머니의 작전에 합류하여 창광원의 수질검사를 구실로 실장을 수영장으로 유인한다.

창광원에 온 그는 리발실, 목욕탕, 한증탕 등 현대적으로 꾸려 진 각종 시설들과 수영장에서 마음껏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과 수중무용선수들의 아름다운 훈련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가슴 뜨겁게 새겨 안게 된다.

작품은 딸과 그의 동무들이 출연하는 수중무용공연을 보면서 문화정서생활을 누리는 실장과 숙경 그리고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펼쳐 보이면서 마감 짓고 있다.

이와 같은 형상을 통하여 작품은 갈매기가 바다를 떠나서 살수 없듯이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수 없다는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텔레비존극《우리 7현관 사람들》제1~2부

텔레비죤극《우리 7현관 사람들》(제1~2부)은 자체의 힘으로 극소형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푸는데 적으나마 기여한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사를 여러 차례나 받은 박두선애국차사업소에서의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강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중소형발전소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는 소식에 접한 작품의 주인공인 차수리반장 최호찬은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를 건설하여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해결을 위해 그토록 마음 쓰시는 장군님의 심려를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것을 결심한다.

거듭되는 사색과 탐구로 고심하던 그는 어느 날 쓸모없이 흘러 내리는 하수도의 물을 리용하여 극소형발전소를 건설할수 있지 않겠는가고 생각한다.

여러 모로 생각한 끝에 평양과 같은 도시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발전소를 건설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그는 기업소의 하수도에 설치할 발전기 설계를 완성한다.

그는 완성한 설계를 같은 현관에 사는 철제일용품공장 부직장장인 리만식에게 주며 도움을 청한다.

그러나 리만식은 과연 그것이 성공할수 있겠는가고 반신반의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하지만 주인공 최호찬은 현관사람들의 방조밑에 끝내 하수도에 극소형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을 생산해 냄으로써 사업소의 동력문제를 자체로 풀어 나간다.

자체의 힘으로 극소형발전소를 건설하여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푸는데 이바지하는 주인공의 소행을 놓고 리만식은 자신의 그릇된 관점과 처사에 대하여 심각히 자책하게 된다.

작품은 이와 같은 내용을 주인공 최호찬과 리만식이와의 관계속에서 경희극적인 양상으로 펼쳐 보이면서 당정책관철을 위해 머리를 쓰고 이악하게 노력할때 방도도 생기고 끝내 성공하게 된다는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영화문학○

사랑의 대지(전, 후편)

지 희 란

강기슭에 펼쳐 진 언덕으로 어린 두 처녀애가 달려 오더니 서로마다 들꽃을 꺾는다.

한 처녀애가 꺾어 든 민들레꽃을 입으로 분다.

들판에 떨어 져 내리는 민들레꽃씨앗들을 보며 두 처녀애는 한껏 웃는다.

여기에 울리는 노래.

봄바람 실어 온 작은 꽃씨앗
드넓은 대지에 내려 앉을 때
아직은 몰랐네 제 안긴 이 땅이
얼마나 포근한줄 미처 몰랐네

꽃송이들이 그득히 피여 난 언덕으로 두 처녀애가 달려 올라 간다.

여기에 새겨 지는 제명

사랑의 대지
(전 편)

설화

《나는 어려서 량부모를 다 잃고 30년 세월을 앉은뱅이로 살아 온 귀국공민 한정옥이라는 녀자입니다. 내가 태여난 곳은 일본 도야마현 다까오까시에 있는 어느 세탁소 빨래칸입니다. 차디찬 대지에서 한번 피여 보지도 못하고 눈물속에 한탄만 하던 내가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겨 새생을 찾게 된것은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어느 여름날부터였습니다.》

이상의 설화속에 정지화면들이 펼쳐진다.

문앞에 쓸쓸히 기대 앉아 있는 12살때의 정옥의 모습.

방안에 괴로운 기색을 띠우고 꺼꺼부정하게 앉아 있는 정옥의 모습이 22살의 정옥의 모습으로 바뀌운다.

귀국선을 환영하러 나온 군중들로 가득 찬 청진부두.

파도를 가르는 귀국선《만경봉》호.

공화국기발을 손에 들고《만경봉》호의 란간에 나와 조국땅쪽을 바라보는 정옥의 모습.

환영군중들속에 섞여 있는 정옥의 모습.

병원복도

한 녀성환자가 급하게 삼륜차를 몰고 지나간다.

밀대로 복도청소를 하던 간병원이 급히 비켜 서며 놀란 눈길로 그를 바라본다.

그 환자의 얼굴에 노기가 서렸다.

삼륜차가 복도 한쪽으로 사라진다.

병원 세면장

환자복을 입은 두 녀인이 빨래를 하며 말을 주고 받고 있다.

복남어머니《거 일 없을가? 정옥인 병을 오래 앓아 그런지 성격이 몹시 거칠던데…》

귀녀《호호… 같은 녀자들끼리야 뭐래요?》

복남어머니《금방 귀국한 처녀가 돼서 그런지 아직 우리 마음을 잘 모르는것 같애.》

《이제 알게 되겠지요.》하며 일어 서던 귀녀가 《아!》하며 허리를 짚는다.

급히 그를 부축하는 복남어머니.

《괜찮아요.》하며 귀녀가 빨래감을 들고 일어 서더니 빨래줄에 옷가지들을 넌다.

이때 여기로 삼륜차를 탄 정옥이 들어오더니 노기어린 시선으로 둘러 본다.

복남어머니《정옥이, 저걸 좀 보라구. 연구사선생이 정옥의 묵은 빨래를 새하얗게 빨아 놓았구만!》정옥이가 귀녀에게로 시선을 돌린다.

빨래를 널던 연구사 귀녀가 정옥을 보고 웃으며 나온다.

바라보던 정옥이 차거운 기색으로 빨래줄에 다가가더니 와락와락 빨래들을 걷어 쥔다.

놀라서 바라보는 귀녀.

정옥은 귀녀앞으로 다가와 그의 손에서 빨래감을 뺏는다.

삼륜차를 획 돌려 세면장에서 나가는 정옥을 맥없이 바라보는 귀녀.

복남어머니《내 뭐라던가. 글쎄 간병원도 몇번 혼났다니까!》

야속하게 문쪽을 바라보는 귀녀의 눈길이 좀처럼 떨어 질줄 모른다.

그의 눈물인가 소랭이에 떨어 져 내리는 물방울.

입원실

자고 있는 환자들.

정옥이가 꿈을 꾸고 있다.

《히노마루》수건을 이마에 감은 일본깡패놈이 무엇인가 부르짖는다.

《싫어요. 싫어요!》하며 꿈결에 헛손질을 하는 정옥. 자던 귀녀가 벌떡 일어나 정옥에게로 다가간다.

《엄마! 엄마!…》하며 헛손질을 계속하는 정옥.

귀녀가 정옥의 땀 흐르는 이마를 닦아주며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아 내리워 준다.

귀녀가 슬며시 정옥의 다리를 꼬집어본다.

그러나 정옥은 아무 감각 없이 잠을 자고 있다.

생각깊이 바라보는 귀녀.

정옥이 돌아 눕는데 무엇인가 바닥에 떨어 진다.

귀녀가 바닥에 떨어 진 소설책과 얼레빗을 집어 정옥의 탁우에 놓아 준다.

치료실

정옥의 다리에 뜸을 놓아 주며 서박사가 말한다.

《정옥이, 내 애길 하나 해줄가?… 언

젠가 우리 병원에 뜻밖의 사고로 두눈을 부상 당한 정옥이또래의 선반공처녀가 입원한적이 있었소. 일 잘하고 마음씨 고운 그 처녀를 위해 온 병원이 떨쳐 나섰댔지. 하하…

그런데 한해가 지나도록 처녀의 병엔 좀처럼 차도가 없었소. 의사선생들은 물론이고 담당간호원도 안타까와 울 때면 처녀는〈간호원동무, 난 눈을 꼭 떠요. 우리 나라에서야 못 고치는 병이 있나요!〉하면서 간호원을 위로했다오.》

정옥이 생각깊이 듣고 있다.

계속하는 서박사《마침내 그 처년 두눈을 고치고 다시 일터에 서게 됐소. 이제 우리 정옥이도 마음을 굳게 먹구 근기 있게 치료하느라면 꼭 일어 설 날이 있다니까. 허허…》

머리를 돌리며 두눈을 감는 정옥.

병원복도

귀녀의 이모가 마주 오는 간호원에게 묻는다.

《여기 2외과 녀성호실이 어디에요?》

《7호실이예요.》

그러자 황황히 걸음을 다그치는 귀녀의 이모.

입원실

귀녀가 면회 온 처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처녀《귀녀, 어제 우리 의학대학 연구생들의 배치를 발표했어.》

귀녀《그래? 난 어떻게 됐니?》

처녀《너야 희망대로 연구소로 가게 됐지.》《그래!?…》

《좋아는 한다.》

귀녀《참 넌 어떻게 됐니? 그리고 영휜?》

처녀《영휜 호흡기강좌 교원으로, 난 이 도병원 의사로 배치 받았어.》

귀녀《모두 잘됐구나.》

《귀녀, 이 소식을 빨리 알려야 되지 않을가?》

《어데?》

처녀《상위동지한테 말이야.》

귀녀《 애두 참!…》

처녀《아마 웅철동진 너보다 더 기뻐할거야.》

행복감에 잠기는 귀녀.

다른 침대에서는 환자녀인이 면회 온 아들을 만나고 있다.

《그래, 아버진 안 오시겠다면?》

《아버진 바쁘대.》

《하긴 그 뚝박새 같은 령감을 기다리는 내가 어리석지.》하며 떡 한개를 꿰서 아들에게 주는 환자녀인.《자, 어서 먹어라.》

《됐어요.》

또 다른 침대에서는 처녀환자가 면회 온 오빠에게 말한다.

《오빠, 담당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다음주엔 퇴원할수 있대요.》《그래?…》

이때 문이 열리며 귀녀의 이모가 안으로 들어 선다.

《귀녀야…》

《이모!》하며 반갑게 맞아 들이는 귀녀.

《아이구, 난 네가 입원했다는 소릴 듣구 심장이 다 멎는줄 알았다.》

귀녀《이젠 일 없어요.》

이모《에이구, 네가 연구사업인지 뭔지 한다면서 합숙에 나간다고 할 때 내 어떻게 하나 붙잡아 두었어야 하는건데, 이건 꼭 강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아서…》《이모 또 그 소리…》

《호호… 어서 들어라…》하며 들고 왔던 음식꾸레미를 펼치는 이모.

《오빠랑 형님이랑 다 잘 있어요?》

이모《그럼, 요샌 분기계획을 한다구 노상 현장에 나가살지. 허허…》

이모가 쥐여 주는 파일을 받아 들며 정옥의 침대쪽을 보던 귀녀 놀란다.

정옥은 없고 빈 침대뿐이다.

귀녀《복남어머니, 정옥이가 왜 안 보여요?》

복남어머니《아이구, 우리가 제 집사람 만나는 기분에 정옥이를 깜박 잊었구만!》

창밖을 내다보던 어린 처녀환자가 소리친다.

《저기 있는게 정옥언니 아니에요?》

창가로 다가간 호실녀인들이 텅 빈 마당에서 삼륜차에 외로이 앉아 있는 정옥이를 본다.

귀녀《정옥에겐 친척이 없는게지요?》

복남어머니《일본에서 함께 귀국한 고모가 한분 있었는데 갑자기 병으로 돌아갔다누만.》

《제가 가서 정옥이를 데리고 오겠어요.》

《가만, 정옥인 안 들어 올거네.》

《?…》

《나두 얼어 붙은 정옥의 마음을 녹여주려구 여러번 윈심을 써왔지만 통 결을 줘야지.》

귀녀《그렇다구 그대로 놔두겠어요? 우리 호실 사람들이야 한집안식구나 같은데…》하며 밖으로 나간다.

어린 처녀《참 우리 정옥언니 사물함에 간식이랑 모두 넣어 주는게 어때요? 그럼 조용할 때 혼자 맛 볼게 아니예요.》

녀인《그게 좋겠구만!》

《역시 우리 호실 막냉이가 괜찮거든!》

슬며시 창가로 다가간 이모가 마당에서 정옥을 이끄는 귀녀의 모습을 본다.

병원밖

이모와 귀녀를 비롯한 면회자들이 계단을 내린다.

이모《정말 불쌍한 처녀로구나. 몇살이게?》

귀녀《스물둘이래요.》

《쯔쯔, 다 큰 체네가… 참 내 어제 웅철이 그 사람한테 련락을 띄웠다.》

귀녀《아이참, 이몬 괜히…》

이모《야, 아무리 군대라도 제 애인이 병원에 실려 왔는데 몰라서야 되겠니?… 나두 널 시집 보내야 한시름 놓을게 아니냐! 자, 난 가겠다. 치료를 잘해라.》하며 떠나간다.

귀녀가 손을 흔들며 바래준다.

입원실(밤)

밤하늘에 보름달이 유난히 빛을 뿌리고 있다.

불 밝은 입원실창가에 녀인들의 웃음소리가 넘쳐 난다.

베란다에 나오던 귀녀가 환성을 지른다.

《야! 보름달!… 정옥이, 저 달 좀 봐!》

정옥이 보름달을 바라본다.

귀녀 빨래를 걸어 쥐며 노래 부른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정옥이 귀녀의 노래를 들으며 생각깊이 보름달을 바라보고 있다.

노래를 끝 마친 귀녀가 원탁우의 꽃병을 보며 말한다.

《정옥이, 꽃이 망울을 터치는걸 본적이 있어? … 나도 본적은 없어. 하지만 어느 책에선가 보니…》

정옥《연구사선생님은 제가 그렇게도 불쌍한가요?…》

고개를 돌리는 귀녀.

정옥《선생님은 제가 불쌍해서 옆방에도 놀러 가지 못하지요?》

귀녀《아이, 선생님은 무슨 선생. 그저 언니라고 불러요.》

정옥《선생님, 빨래랑, 절 위해 주는 맘은 고맙긴 하지만 저에겐 신세 갚을

그 무엇도 없어요. 다시는 저에게 그 어떤 동정도 베풀지 않기를 바래요.》

귀녀《정옥이, 사람의 진정을 그렇게 모욕하는게 아니야. 정옥인 조국의 품에 안긴지 얼마 안되니 아직은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다 모를거야.》

정옥이 의혹어린 눈길로 귀녀를 바라본다.

병원구내

간호원이 몰고 가는 삼륜차에 앉은 정옥의 귀전에 귀녀의 소리가 계속 들려온다.《정옥인 꽃이 망울을 터치는걸 본적이 있어?》

이때《저, 말 좀 물읍시다.》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에 돌아보는 간호원과 정옥.

한 군관이 다가오며 묻는다.

《여기 2외과 녀성호실이 어딥니까?》

간호원《누굴 찾으시나요?》

군관《김귀녀라구…》

《아이, 제가 담당간호원이에요.》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하며 빠지는 간호원.

군관을 의미 있게 바라보는 정옥.

병원정원

웅철이 귀녀에게 둘이서 같이 찍은 사진을 주며 말한다.

《우리 동무들이 이 사진을 보더니 꼭 오누이 같다는거요. 허허…》

귀녀《아이, 사진을 내돌렸어요?》

웅철《아, 그게 아니구, 거 붉은기판정때 엉큼한 2중대장이 훔쳐 들고 공개하는 바람에 그만…》

귀녀《거짓말!》하며 웃는다.

《정말이요. 하하…》

《참 붉은기판정은 잘됐어요?》

《응, 우리 중대가 이거요!》하며 엄지손가락을 내흔든다.

《그래요? 축하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그렇게도 기쁘오?》

《그럼요. 웅철동지일이라면 뭐나 다…》

《중대를 펄펄 나는 일당백중대로 꾸리자면 할 일이 많소. 그러니 우리가 결혼하면 귀녀동무의 부담이 더 클게요.》

《아이참, 전 웅철동지를 위한 일이라면 하늘의 별을 따오래도 웃으며 뛰여오르겠어요.》

《정말?》《음…》

《귀녀, 귀넌 정말이지 그 이름처럼 내게 더없이 귀중한 사람이요.》

뜨겁게 바라보는 귀녀.

웅철이도 그를 미덥게 바라본다.

입원실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긴 귀녀.

웅철의 소리가 그의 얼굴에 다시 들려온다.

《귀녀, 귀넌 정말이지 그 이름처럼 내게 더없이 귀중한 사람이요.》

귀녀가 행복감에 잠겨 있는데 정옥의 헛소리가 들려 온다.《아!… 아!…》

정옥의 꿈속에 펼쳐 지는 환각장면.

-허공에 휘저어 지는 야구방망이.

일본깡패《벗어라 벗어! 벗지 않으면 죽여 버릴테다!》

《싫어요!… 엄마! 엄마!…》하며 헛손질하는 정옥.

귀녀가 자리에서 일어 나 정옥에게 다가간다.

《싫어요. 싫어요!》계속 허우적이는 정옥.

귀녀《정옥아! 정옥아!》

그 소리에 벌떡 일어 나 앉는 정옥

귀녀《무서운 꿈을 꾸었어?》

정옥이 한숨만 내쉰다.

《정옥이, 우리 밖에 나가 바람 좀 쏘일가? 자.》하며 정옥을 이끌고 나가는 귀녀.

강가(밤)

정옥이를 태운 삼륜차를 밀고 오던 귀녀가 웃음기를 머금더니 삼륜차를 물속으로 반쯤 밀어 넣는다.

정옥《아니, 어쩌자는거예요?》

귀녀 아랑곳없이 그의 옷섶을 잡는다.

《정옥이, 옷을 벗어.》《네?》

《내 시원히 몸을 씻어 줄게.》

《아이, 싫어요.》

《호호, 여긴 우리 둘밖에 없지 않아.》

옷을 벗기는 귀녀.

물속에 몸을 잠근 귀녀와 정옥이 좋아하며 몸을 씻는다.

정옥《아, 시원하다!》

귀녀가 정옥에게 물을 끼얹어 준다.

정옥《아이, 간지러워.》

귀녀《간지러워? 그럼 난 더 간지럽힐테야!》하며 정옥을 간지럽히는 귀녀.

캐드득거리는 두 처녀의 웃음소리가 강가에 울려 퍼진다.

달빛에 물결이 반짝거린다.

강기슭

잔디밭에 나란히 앉아 달빛을 받으며 정옥의 머리를 빗어 주고 있는 귀녀.

정옥《선생님은 몇살이예요?》

귀녀《스물일곱.》

정옥《아이, 그럼 나보다 다섯살우네.》

《그러게 언니라고 부르라지 않아.》

《아이, 선생님보고 어떻게… 저, 선생님!》《또!…》

《선생님은 생활에서 남의 신세를 져본적이 있어요?》《그럼.》

《전 요즘 정말 꿈을 꾸는것만 같애요. 난 귀국한지 얼마 안되지만 저 일본땅에서는 상상도 못할 고마운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였어요. 처음엔 놀랍구 잘 믿어 지지 않았지만 모든게 꿈 아닌 현실이였어요. 하지만 난 병신인데다가 신세 갚을것도 하나 없는데 어쩌나 하고 생각하면 끝에 차라리 곁을 주지 말자고 결심했어요.》

《정옥이… 이 빗을 기념으로 받어.》

정옥《저에게도 빗이 있어요. 이 빗은 저의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외할머니가 준거에요.》하며 수건에 싼 얼레빗을 펼쳐 든다.

《어머닌 달 밝은 밤이면 이 빗으로 내 머릴 곱게 빗어 주군 했답니다.》

《음, 그래서 이걸 품고 있었구나. 하지만 일 없어. 이제야 정옥이를 돌봐 주는 고마운 품이 있지 않니?》

《그래요. 하지만 요즘은 어쩐지 어머니생각이 자꾸 나서…》

《어머니생각?…》

《돌아 가신 우리 엄마가 단 한번만이라도 살아서 돌아 와 날 품에 꼭 안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정옥아!》하며 그를 꼭 껴안는 귀녀.

입원실

퇴원준비하는 복남어머니에게로 간호원이 다가와 묻는다.

《복남어머니, 퇴원준비 다 됐어요?》

복남어머니《그럼, 뚝박새령감한테 갈 준비는 다 해놨네.》

삼륜차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정옥을 보며 간호원이 복남어머니에게 묻는다.《그런데 귀녀선생은 어데 갔어요? 정지증명서를 줘야겠는데…》

《쉿! 귀녀선생은 밖에서 못 들어 오고 있어. 자기가 퇴원하는줄 알면 정옥이가 섭섭해 한다면서…》

이 소리에 휙 머리를 돌려 바라보는 정옥.

병원로대

밖을 내다보고 있던 귀녀가 복도로 걸

음을 옮겨 입원실문앞에 이른다.

입원실 문손잡이를 잡은 귀녀가 안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에 손잡이를 놓는다.

간호원의 소리 《정옥언니, 왜 그래요?》

복남어머니《됐어, 아 병원생활이란게 그렇지. 만났다 헤여지구 또 새 사람을 만나구.》

정옥《저도 알아요. 하지만 난…》

귀녀 듣다가 참지 못하고 돌아 선다.

홀에 나서서 밖을 바라보는 귀녀를 찾는 소리.《선생님!》

귀녀《정옥아!》

삼륜차를 몰아 귀녀 가까이에 다가가는 정옥.

《선생님, 저때문에 마음 쓰시지 말구어서 퇴원하세요. 내 언제나 연구사선생님의 그 은혜만은 잊지 않겠어요.》

《정옥아, 내 매일매일 면회 올게 치료를 잘 받어.》하며 정옥의 손을 잡는다.

귀녀의 손에서 슬며시 자기 손을 빼는 정옥 《선생님, 잘 가세요.》하며 돌아서 간다.

그를 바라보는 귀녀의 얼굴에 수심이 어린다.

귀녀의 이모네 집

이모가 례장옷감들을 방바닥에 펴놓으며 말한다.

《어제 웅철이 그 사람 부대에서 사람이 왔댔다.인차 결혼식을 하자구.》

귀녀《아이, 토론도 없이…》

《야, 아 토론이구 뭐구 할게 있니? 언제부터 끌어 오는 문제라구… 자, 어서 걸쳐 봐라!》

옷감 하나를 귀녀에게 주는 이모.

옷감을 받아 몸에 대며 거울을 보는 귀녀.

이모《야, 그새 몸이 좀 축가긴 했어도 역시 우리 귀녀가 곱긴 곱구나! 하하…》

수집어 하는 귀녀.

합숙정원

가로등이 환하게 비치는 속에 합숙청년들이 둘러 앉아 노래를 부르며 저녁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이
땅우에 흐르는 강물과 같이
…

합숙생들에게로 다가와 같이 노래 부르던 귀녀는 정옥이 생각에 문득 시무룩해 진다. 그의 모습을 보고 옆의 처녀가 묻는다.《언니,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귀녀《아니, 아무것도 아니예요.》

병원정원

면회 온 귀녀가 사이다를 고뿌에 부어 정옥에게 준다.《정옥이, 받어.》

사이다를 받아 마시는 정옥.

이때《아지미!…》하며 귀녀의 조카처녀애가 달려 와 정옥의 머리에 꽃환을 씌워 준다.《야, 곱다!》

《고맙다.》하며 조카를 껴안아 주는 정옥.

이어 동무들과 같이 길가에 나선 조카처녀애가 망차기를 먼저 하기 위한 돌가보를 한다.

《자, 어서 먹어!》하며 떡 한개를 집어 정옥에게 주는 귀녀.

떡을 받아 먹으며 한쪽으로 시선을 돌리던 정옥이 망돌차기를 하는 조카애를 보며 굳어 진다. 망돌차기를 하는 처녀애에게 눈길을 준채 꼼짝 않고 있는 정옥에게 귀녀가 묻는다.

《내 언제부터 물어 보고 싶었는데 다리는 왜 그렇게 됐어? 병을 앓았어?》

정옥 머리를 젓는다.

귀녀《그럼 사고루?》

또다시 머리 젓는 정옥.

귀녀《내가 묻지 말아야 할것을 물었구나. 정옥아, 됐어.》

정옥《아니, 난 타고 난 병신이 아니예요.》

놀라 바라보는 귀녀.

정옥《내가 열두살 되던 해 우리 살던 고장에도 조국에서 보내온 교육원조비로 조선학교가 일떠섰답니다.…》

그의 말이 회상으로 펼쳐 진다.

일본의 어느 한 시골에 자리 잡은 정옥의 집안에서 그가 부르는 노래소리가 울려 나온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 …

정옥이 어머니가 그의 노래를 들으며 바느질을 하고 있다.

바느질을 멈추고 정옥의 팔에 기장을 재여 보는 어머니.

《정옥아, 자… 우리 정옥인 좋겠는데. 래일부터 우리 글을 다 배우구. 호호…》

《엄만 뭐 기쁘지 않나.》하며 어머니 등에 매달려 흔드는 정옥.

《엄마도 기쁘지. 호호…》

정옥《우리 엄마 제일이야.…》

다리우

기쁨에 겨워 어머니와 함께 뛰여 가는 정옥.

정옥의 웃음에 넘친 얼굴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다.

어느 한 거리

정옥에게 뭐라고 말한 어머니가 딴 건물로 들어 간다. 그사이 망돌차기를 하는 정옥.

어머니가 지어 준 색동치마저고리를 입고 좋아라 망돌차기에 여념이 없는 정옥.

이때 어디선가 야구뽈이 정옥이의 발앞에 굴러 와 선다.

의아히 주위를 둘러 본 정옥이 발로 야구뽈을 살며시 밀어 내고 계속 망차기를 한다.

그런데 갑자기《야, 조선놈의 계집애!》하는 야무진 소리가 정옥의 가슴을 놀래운다.

그 소리와 함께 야구방망이를 든 일본 깡패들이 휘파람을 불며 정옥에게로 다가든다.

한쪽에서 주시해 보는 깡패두목.

다가오는 놈들을 둘러 보는 정옥.

다가온 놈들이 지껄인다.

《하, 고거 조센징 곱게 생겼는데.》

《야, 너 여기가 어디라구 이따위 옷을 입고 다녀? 응…》

뒤걸음치는 정옥. 그의 눈에 공포가 어린다.

《벗어라, 벗어!》하며 다가드는 놈들.

깡패두목이 다가오더니 정옥에게 소리친다.《야, 벗어라. 벗지 않으면 죽여 버리고 말테다!》

뒤걸음치던 정옥이 놈을 쏘아 보며 소리친다.《싫어요! 이건 우리 엄마가 해 주었어요.》

깡패두목이《야!》하고 소리치자 정옥을 한쪽으로 끌고 가는 놈들.

정옥《엄마야!》하고 비명을 지르며 놈들에게 반항한다.

놈들이 그의 가방에서 학습장, 필갑을 마구 짓뭉갠다.

《야, 벗어라. 벗어!》

《싫어요!》

그러자 칼을 뽑아 든 깡패 한놈이 정옥의 치마를 마구 찢는다.

너풀거리는 치마. 쏘아 보는 정옥.

깡패두목《야, 벗지 못하겠어. 요 조선놈의 계집애, 여긴 일본땅이란 말이야!》하며 정옥의 멱을 쥔다.

정옥이 놈의 손을 꽉 깨물자 놈은 비명 지르며 물러 선다. 그러자 여러명의 깡패들이 이리떼처럼 달려 들어 정옥을 마구 때린다.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대다가 정옥의 다리를 힘껏 내려 치는 두목놈.

뼈가 부서져 나가는 아픔에 이그러지는 정옥의 얼굴. 사나운 비발이 그의 온몸을 적신다.

쓰러진 정옥을 마구 치고 때리는 놈들. 놈들의 발길에 이리저리 굴리우는 정옥.

꺾어 진 들꽃이 비바람에 몸부림친다.

한 건물에서 나오던 정옥의 어머니가 웅성이는 사람들쪽으로 급히 다가간다.

놀라 바라보는 정옥이 어머니.

《정옥아! 이게 웬일이냐. 응?… 누가? 어느 놈이?…》하며 정신 잃은 정옥을 부둥켜 안는다.

조선녀인《글쎄 왜놈들이 이 애가 치마저고리를 벗지 않는다고…》

《뭐라구?!… 정옥아, 눈을 떠라. 정옥아!…》

정옥이 눈을 감은채 대답이 없다.

어머니《정옥아, 정신 차려. 정옥아!… 이 짐승 같은 쪽발이놈들아!… 조선사람들이 제 나라 옷을 입는것도 죄란 말이냐. 이 짐승 같은 놈들아!…》하며 통절히 부르짖는다.

검은 하늘이 피빛으로 물든다.

정옥의 집

정옥 어머니가 약을 달이며 눈물짓는다.

정옥을 업고 거리를 헤매는 어머니.

여기에 정옥의 소리《어머닌 내 다리를 고쳐 보겠다고 별의별 고생을 다 했지만 돈밖에 모르는 저 자본주의일본땅에선 나와 우리 가족의 운명이 달리는 될수 없었어요.》

일본혈액원

피를 뽑은 정옥의 어머니가 계단에 쓰러진다.

《엄마!》하며 손달구지에 앉아 있던 정옥이가 계단으로 기여 가《엄마! 엄마!…》하며 어머니를 흔든다.

《오, 정옥아!…》하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던 정옥 어머니가 운명한다.

정옥이 눈물을 쏟으며 애 타게 어머니를 부르고 또 부르나 어머니는 영영 일어 나지 못한다.

정옥이 회상에서 깨여 난다.

정옥의 피눈물나는 이야기를 들은 귀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다.

당비서방

병원 당비서와 서박사, 귀녀가 심각한 기색으로 앉아 있다.

귀녀《전 정말이지 정옥이를 두고 가자니 발길이 떨어 지지 않습니다. 비서동지, 제가 정옥이를 친동생처럼 돌봐줄테니 데리고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

《…》

서박사《정옥인 우리가 맡은 환자인데 우리가 책임지고 끝까지 치료해 줄테니 자꾸 이러지 마오.》

귀녀《물론 저도 여기 병원선생님들이 정옥이를 위해 바쳐 온 정성이 얼마나 컸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정옥이병이 한두달 치료해서 완치될 병이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내내 병원생활만 시키겠습니까.》

당비서《연구사동무, 우리 병원에도 그렇게 제기해 온 사람들이 여러명 있소. 하지만 정옥이를 하루빨리 일으켜 세우자면 병원치료를 해야 하지 않겠소.》

《비서동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정옥인 그 무엇보다먼저 친혈육의 정을 그리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업고 다니며 박사선생님의 치료도 받게 하고 또 뜸자리를 잡아 주면 제가 …》

서박사《안되오. 우리가 있으면서 연구사동무를 고생시킬순 없소.》

귀녀《선생님이야 정옥이말구도 많은 환자들을 돌봐야 하지 않습니까?》

《글쎄. 안된다니까.》

《제가 이 병원 의사가 아니여서 그러시는것 같은데 전 결심했습니다. 절 이 병원에 받아 주십시오.》

서박사가 놀란다.

당비서가 귀녀를 뜨거운 눈길로 바라본다.

《고맙소. 하지만 동무야 자기가 연구하던 연구사업을 계속해야지?》

《아닙니다. 전 진정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연구사동무, 내 당비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동무에게 머리 숙여 지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 정옥이를 일으켜 세울테니까 마음 놓고 가보라구. 응?》

귀녀《야, 비서동지.》

복도(병원)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귀녀가 놀라 멎어 선다.

그의 환각속에 삼륜차를 탄 정옥이가 나타난것이다. 한참 자기를 바라보던 정옥이가 없어 진다.(환각)

《아!…》하며 눈을 감았던 귀녀가 다시 걸음을 옮긴다.

그런데《연구사선생님!》하는 정옥의 소리에 걸음을 멈춘 귀녀 돌아 본다.

삼륜차에 앉아 복도중간문을 열고 나오던 정옥이 슬며시 없어 진다.

귀녀가 다시 환각에 잠겼던것이다.

귀녀가 눈을 감자 그의 귀전에 되새겨지는 정옥이의 부르짖음소리.

《난 타고 난 병신이 아니란 말이예요.》

걸음을 옮기던 귀녀 오던 길로 다시 뛰여 간다.

복도청소를 하던 간병원이 귀녀를 의아하게 바라본다..

병원로대

녀의사가 시무룩해 앉아 있는 정옥에게 말한다.

《오늘 귀녀선생이 왔다 가더니 정옥의 마음이 또 산란한게지?》

간호원《정옥언니, 자꾸 이러지 말아요.》

녀의사《자, 어서 치료를 받자요. 어서…》하며 정옥을 이끈다.

병원복도

서박사와 남자의사가 로대쪽으로 온다.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는 정옥에게로 귀녀가 다가 간다.《정옥아!》

고개를 돌려 멍하니 바라보는 정옥.

귀녀《가자, 정옥아. 가서 나와 함께 살자. 자. 업혀라.》하며 등을 댄다.

뜨거움에 젖어 그들을 바라보는 녀의사와 간호원. 서박사와 남자의사도 고개를 떨군다.

말없이 앉아 있는 정옥이 귀녀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한다.

귀녀《정옥아, 널 선뜻 업고 가지 못한 날 용서해라.》하며 울먹인다.

정옥이 귀녀를 뚫어 지게 바라본다. 그의 얼굴에 알릴듯 말듯한 걱정이 스쳐 지나간다.

귀녀《정옥아, 가자. 응?…》하며 애타게 바라본다.

드디어《언니야!…》하며 업히는 정옥.

뜨겁게 바라보는 의사와 간호원, 서박사의 눈에 눈물이 글썽인다.

귀녀 정옥이 탄 삼륜차를 밀며 복도를 걸어 간다.

따라 선 서박사와 녀의사, 간호원들.

의사들과 간호원들의 바래움속에 병원문을 나서는 귀녀와 정옥.

위생차에 오르는 정옥.

의사들과 인사를 나누는 귀녀.

떠나는 위생차에서 손을 흔드는 귀녀와 정옥.

그들을 손 저어 바래주는 의사들과 간호원들.

병원홀

병원의사로 입직한 귀녀를 축하해 주는 당비서와 서박사, 의사들과 간호원들.

여기에 노래가 울린다.

봄바람 실어 온 작은 꽃씨앗
드넓은 대지에 내려 앉을 때
아직은 몰랐네 제 안긴 이 땅이
얼마나 포근한줄 미처 몰랐네

망울을 터치는 고운 꽃송이
그 모습 뽐내며 키돋움할 때
아직은 몰랐네 품어 준 이 땅이
얼마나 뜨거운줄 다는 몰랐네

합숙마당

합숙처녀들이 이사 가는 정옥을 병원차에 태운다.

살림집리용허가증을 주는 당비서를 고마움속에 바라보는 귀녀.

정옥과 귀녀를 태운 병원차가 사람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합숙마당을 떠난다.

귀녀의 집

살림도구들과 가장집물이 그쯘하게 꾸려 진 방안을 뜨거운 눈길로 돌아 보는 귀녀와 정옥.

탁우에 전화기까지 있다.

귀녀 집마당의 꽃밭에 피여 난 꽃들.

그우에 내리는 비.

그우에 내리는 눈. 다시 비 오는 꽃밭.

벼랑가

벼랑을 톺아 오른 귀녀가 약초를 캔다.

귀녀 집마당

마당에 꽃을 심는 당비서.

마루에 앉아 책을 보던 정옥이 당비서에게 말한다.

《비서아저씨가 가져 온 꽃들이 참 곱군요.》

당비서《오, 정옥이도 꽃을 좋아 하나?》

《아이참, 꽃을 싫어 하는 처녀도 있나요?》

《옳소, 그럼 내 정옥이한테 한가지 물어 볼가?》

《물으세요. 아무거나.》

《그럼 약속하기요. 정옥이가 맞히면 내가 한턱 내구 못 맞히면 정옥인 노래를 불러야 해. 어떻소?》

《좋아요.》

《정옥인 이 땅에 피는 꽃들이 왜 모두 아름답다고 생각하나?》

《그야 물이 좋구 공기 맑아 그렇지요 뭐.》

《그다음엔?》

《그다음엔 땅이 비옥하구.》

《옳소. 그다음엔?》

《그다음엔 저… 그런데 당비서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나요?》

《오? 하하하… 이렇게 꽃두 심어 주구 또 집도 꾸려 주구 정옥이 시중도 들어 주는 그런 사람이치.》

《어마나! 그럼 심부름군?!…》

《허허… 그래그래. 그러니 마음 놓고 호령해도 되오.》하며 수도가로 간다.

이때 귀녀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선다.

정옥이 반가와 하며《언니!》하고 소리친다.

《정옥아, 받어.》하며 약초배낭을 벗어 놓는 귀녀.

《수고했어요.》

당비서가 귀녀에게 다가서며 말한다.

《귀녀선생이 이제야 오누만. 일요일에야 좀 쉬지 않구.》

귀녀 그제야 당비서를 알아 보고《아이, 비서동지가 어떻게…》하며 그를 반긴다.

정옥《아침부터 와 계셨어요.》

《그래…》

당비서《귀녀선생, 뭐 불편한 점이 없소?… 애로되는것이 있으면 아무때나 애기하라구. 내 또 오겠소.》하며 돌아 서다가 정옥에게《참 정옥이 노래는 다음번에 와서 꼭 듣겠소.》하고 웃는다.

정옥《어마나, 난 노래 부를줄 몰라요.》

당비서《허, 나하구 약속을 하구서두? 허허허… 자, 그럼…》하며 마당을 나선다.

귀녀《안녕히 가십시오.》하고 바래운다.

귀녀 집안

웃방에서 뜸봉들을 빚고 있는 귀녀에게 아래방에서 사진첩을 보던 정옥이 묻는다.《언니, 이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

《언니를 꼭 껴안고 찍은 사람 말이예요.》

《오, 우리 큰아버지야.》하며 아래방으로 내려 오는 귀녀.

정옥《그리구 이 사람은?》

귀녀《그건 우리 큰어머니구 그옆엔 우리 삼촌.》

《야, 언닌 정말 좋겠네.》

《그뿐인줄 아니. 나에겐 동생들두 많구 또…》

《그리구 또 웅철아저씨두 있구. 호호호…》

《앤!…》하며 귀녀가 정옥을 간지럽힌다.

깔깔거리며 웃는 그들.

이어 귀녀가 정옥의 다리에 뜸을 놓아준다.

정옥《언니, 나 옛말 하나 해줘.》

귀녀《애두 참, 어린 애처럼 옛말은 무슨…》

《박사선생님은 뜸을 뜰 때마다 재미나는 옛말을 해주군 했는데뭐.》

《그럼 꽃니라는 소녀에 대한 옛말을 하나 해줄가?》《응.》

《광복된 어느 마을에 행복한 로동자부부가 살고 있었단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소문난 혁신자였구 어머닌 알뜰한 선반공이였지. 그 집엔 세살잡이 처녀애가 하나 있었는데 저녁이면 엄마가 그 애를 꼭 껴안구 꽃에 대한 옛말을 들려 주군 했어. 한해가 지나 네살 잡힌 해부터는 엄마가 들려 준 옛말을 어찌나 곧잘 했던지 달 뜨는 저녁이면 온 동네가 모여 와 그 처녀애의 옛말을 즐겁게 듣군 했단다. 그때부터 마을에선 그 처녀애를 꽃니라고 불렀어.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 났어. 미국놈들의 비행기가 까마귀떼처럼 날아 와 행복하고 웃음 많던 그 집도 하루아침에 재더미로 만들었지.

다행히 불속에서 살아 남은 처녀애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재더미를 헤치며 엄마를 애 타게 찾았지만 폭격에 죽은 엄만 다시 돌아 올수 없었어.》

이때 정옥이《앗! 따가와!》하며 놀란다.

귀녀《좀 참아. 그후 그 처녀애는…》하고 말을 잇다가 놀라며 정옥에게 묻는다.

《너 이자 뭐라고 그랬니?》

정옥《야, 따거워 혼났네.》

귀녀《뭐?… 살았구나. 신경이 살았어!》하며 기뻐한다.

정옥《정말?!… 언니!》하며 반가와 한다.

귀녀가 얼굴에 기쁨을 함뿍 싣고 어디론가 달려 간다. 병원계단을 나는듯이 달려 오르는 귀녀.

복도청소하던 간병원을 붙잡고 무엇인가 정열적으로 말하는 귀녀.

서박사방

서박사《뭐요? 신경이 살았다구?》

귀녀《글쎄 뜸을 수백장 떠도 감각 없던 정옥이가 오늘은 뜨겁다고 소리까지 치지 않겠어요. 호호…》

《삼년세월 고생고생하더니 끝내 빛을 보기 시작했구만. 허허… 사랑이 명의사보다 낫다더니 귀녀선생을 두고 하는 말이였구만.》

《사랑을 부어 주신건 선생님이예요. 매일같이 찾아 오셔서 치료법도 배워 주시구 또 귀한 약들도 구해 주시구…》

《됐소, 됐소. 허허… 귀녀선생, 이젠 정옥이를 다시 병원에 데려 오지 않겠소?》《병원에요?》

《음, 선생이야 이젠 가정을 꾸려야지.》

《아이, 전 이젠 정옥이와 헤여져서는 살지 못할것만 같아요.》

《귀녀동무, 결혼을 하구두 얼마든지 정옥이를 돌볼수 있지 않을가?》

《사랑은 나누어 주는게 아니랬어요. 난 우리 정옥이가 대지를 쾅쾅 내짚으면 그 애부터 먼저 시집 보낼 생각인데요. 호호…》

서박사가 그 말에 기특함을 금치 못하며 약꾸레미를 내놓는다.

《정옥이 약이요.》

《고맙습니다, 부원장선생님!》

뜨겁게 바라보는 서박사.

내과치료실

귀녀가 중년남자를 진찰하며 말한다.

《이젠 가슴소견도 퍽 좋아 졌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치료를 더 받으셔야겠어요.》

《아직두요?》

《직장장동진 병을 소홀히 하는게 탈이예요.》

《허허…》

《아무리 바빠도 병원에 꼭 오셔서 약도 타가시구 진찰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지요.》

귀녀가 처방증을 떼준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때 간호원이 들어 와 귀녀에게 묻는다.

《선생님, 이 환자를 렌트겐실로 보낼가요?》

《그러세요.》

옷을 입던 직장장이 귀녀에게《아, 이 정신 봐라. 내 우리 로친네 특별과업을 잊을번 했구만.》하며 두개의 크림단지를 내놓는다.

《분크림이야.》

《이건?…》

직장장《난 싫다는데 우리 로친이 자꾸 정옥일 갖다 주라구 해서… 선생도 하나 발라 보라구. 우리 로친이 이걸 발랐더니 얼굴이 시루떡처럼 환해졌 더구만. 허허…》

이때 녀선생이 귀녀를 찾는다.

《귀녀선생, 밖에 이모님이 찾아 오셨어요.》

귀녀《이모가?…》하며 나간다.

병원정원

이모《야, 웅철이 그 사람이 조동된다누나.》《어디루요?》

《전연부대 대대장으로 간다는것 같더라.》

《전번엔 아무 말도 없었는데…》

《그래서 군대가 아니냐.》

《그럼 난 어쩌면 좋아요?》

귀녀를 데리고 한쪽으로 가는 이모.

《여러 말 할것없이 정옥이를 나한테 맡기고 따라 가거라.》《그건 안돼요.》

《안되긴 뭐가 안돼. 내 너만 못지 않게 그 앨 잘 돌보면 되지 않겠나.》

《돌보는게 문제가 아니라 꼭 일으켜 세워야 한다니까요.》

《그럼 아예 정옥이까지 데리고 떠나던지.》

《그럼 치료는요?…》하며 돌아 선다.

귀녀《지금껏 정옥이때문에 애 써오신 박사선생님과 헤여지면 그만큼 치료가 늦어 질게 아니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대체 넌 어쩌자는거냐. 응?… 웅철이 그 사람이 지금껏 널 기다리느라 서른을 넘겼다. 서른을!》

귀녀도 어찌할지 안타까와 한다.

귀녀 집안

정옥이 트렁크안을 들여다 보며 무거운 생각에 잠겨 있다. 귀녀가 방문을 열고 들어 선다.《정옥아, 언니 왔다.》

정옥《언니 왔어요?》하며 트렁크를 감춘다.

귀녀《배 고프지? 내 인차 밥 해줄게.》하며 부엌으로 나간다.

트렁크를 한옆으로 밀어 놓은 정옥이 한숨 쉰다.

자고 있는 귀녀와 정옥.

눈을 감았던 귀녀가 살며시 뜨며 정옥을 돌아 본다.

그의 얼굴에 이모의 소리가 되새겨진다.

《웅철이 그 사람이 지금껏 널 기다리느라 서른을 넘겼다. 서른을!》

정옥의 얼굴을 쓰다듬는 귀녀.

정옥이가 언제인가 한 말도 되새겨진다.

《언니, 나 래일부터 뜸을 좀 더 떠볼가. 이젠 막 신심이 생기는것 같애.》

시계종이 열두점을 때린다.

귀녀의 얼굴에 떠오르는 생각.

-회상-

해변가의 소나무사이로 뛰여 가는 귀녀를 따라 잡느라고 모자가 벗어 지는것도 모르는 웅철.

귀녀가 줄다리로 뛰여 가자 뒤에서 다리를 흔드는 웅철.

비칠거리며 란간을 부여 잡는 귀녀.

들꽃 만발한 강기슭에 귀녀와 웅철이 앉아 있다.

웅철《귀녀, 내 어제 우리 부모님들에게 동무사진을 보냈소.》

귀녀《그 망칙하게 된걸요?》

《왜 실물보다야 훨씬 낫지뭐. 하하… 귀녀, 군대란 조국의 운명을 걸머 진 계급의 전위부대거던. 그러니 군대는 명령만 내리면…》

《무슨 말을 하자는거예요?》

《아무때건 이사짐을 싸들고 도시건 산골이건…》

《그러니 웅철동진 제가 따라 가지 않을가봐 걱정이 되는게죠?》

《천만에, 난 동무재간에 이제 어데 가서 나 같은 호남아를 또 만나겠는지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거요. 하하…》

《뭐예요?…》《하하하…》

《혼나보겠어요?》하며 웅철의 잔등을 때린다.

사진사가 사진기렌즈의 초점을 맞춘다.

꽃나무앞에 나란히 앉은 귀녀와 웅철.

웅철《아바이, 좀 빨리 찍어 주십시오.》

사진사《좀 기다리시오. 내 지금 흥분해서 그러오.》《예?…》

《그래, 약혼기념사진이요, 결혼기념사진이요?》

웅철《지금 어디 약혼식 따로 결혼식 따로 할새 있습니까. 한번에 다 해치워야지요.》

사진사《아, 약혼 및 결혼기념사진이라? 그럼 잘 찍어 봅시다. 자…》하며 초점을 맞춘다.

귀녀를 꽉 껴안는 웅철. 그 순간에 사진이 찍혀 진다.

-회상 끝-

귀녀가 책상앞에 마주 앉아 그날에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안절부절 못해 한다.

이때 헛소리치는 정옥.

《싫어요!… 싫어! 엄마!…》

귀녀《정옥아, 왜 그래, 응?》하며 일으켜 앉힌다.

《언니, 나 또 헛소리쳤어요?》

《그래, 막 무섭게.》

《언니, 나 물 좀…》

귀녀가 물을 떠주며 묻는다.

《정옥아, 너 이 언니한테 뭘 숨기는게 있지?》

《예?》

《넌 날 친언니로 생각 안해.》

《언니!》

《그럼 말해. 남 몰래 펼쳐 보군 하는 그 보자기에 뭐가 있지?》

고개를 수그리는 정옥.

《난 여직 묻고 싶어도 묻지 않았고 풀어 보고 싶어도 참았어. 참말로 네가 날 친언니로 생각하게 되면 스스럼없이 말하리라 믿고 말이야. 그런데 넌… 그 보자길 풀어 본 날이면 늘 헛소리를 치군 하지 않니. 난 그게 안타까와 그래.》

웃방에서 트렁크를 가져다 정옥의 앞에 놓는 귀녀.《자.》

고개 숙이고 있던 정옥이 지그시 트렁크를 열고 보자기를 펼친다.

귀녀가 깜짝 놀란다.

피 묻고 찢어 진 치마저고리가 나진것이다.

정옥이 근엄한 안색에 잠겨 말한다.

《난 야수 같은 그놈들을 잊을수가 없어 지금껏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숨겼니? 어째서 나한테까지 숨기냐 말이야!… 넌 이걸 숨겨선 안돼. 나뿐만아니라 모든 조선사람들이 두눈을 똑바로 뜨고 이 피 묻은 치마저고리를 보게 해야 한단 말이야. 응?…》

귀녀와 정옥의 얼굴에 격분이 사라지지 않는다.

강가(새벽)

빨래하는 귀녀의 가슴에 격분에 찬 정옥의 말이 되새겨 진다.

《난 야수 같은 그놈들을 잊을수가 없어 지금껏 가지고 있었어요.》

방치질하는 귀녀의 귀전에 웅철의 소리가 되새겨 져 들린다.

《귀녀, 귀넌 정말이지 내게 더없이 귀중한 사람이요.》

. 귀녀의 눈앞에 웅철의 모습이 계속 떠오른다.

부두

배낭을 멘 웅철을 바래우는 귀녀.

《함께 가지 못하는 절 용서하세요.》

웅철《아니,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보니 군복 입은 내 어깨가 더 무거워 지는구만.…

귀녀, 우리 정옥이를 꼭 일으켜 세우기요.

그에게 힘이 모자라면 힘을 주고 사랑이 모자라면 우리 둘의 사랑을 합쳐서라도 꼭 일으켜 세우잔 말이요.》

《고마워요.》

《고맙긴.… 귀넌 정옥이를 꼭 일으켜 세워야 해.》

《예.》

배에 오르는 웅철.

《앓지 말고 잘 있소. 그리구 정옥이한테 내 인사를 전해 주오.》

《예, 저 이걸…》하며 귀녀가 편지를 준다.

《이건 뭐게?》

《가면서 보세요.》

손 저으며 돌아 서는 웅철. 그의 얼굴에 뜨거운 미소가 어린다.

눈물을 머금으며 손 젓는 귀녀.

부두를 떠나는 배.

귀녀 입속말로 웨친다.《웅철동지, 잘 가세요.》

갑판에 앉은 웅철이 편지를 보고 있다.

편지의 내용이 귀녀의 목소리로 읽히운다.

《저도 따라 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도 설음 많던 정옥이가 포근한 품에 안겼다고 좋아 하며 하루빨리 일어 설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를 버리고 자기 사랑, 자기 행복만을 찾아간다면 어디 간들 제 마음이 편할수 있겠어요.

웅철동지, 그 동안 괴로움만 안겨 준 죄 많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절… 잊어 주세요.》

피로와 하는 웅철의 심중인가 배전을 세차게 스치는 물갈기.

웅철이 머리를 들어 부두쪽을 생각깊이 바라본다.

(전편 끝)

령길

바람에 들꽃들이 하느적이고 있다.

멀리 령길로 정옥을 업고 오는 귀녀의 모습이 보인다. 귀녀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어 주는 정옥.

귀녀의 얼굴에 웃음이 어린다.

설화

《뜨거운 사랑과 인정이 넘쳐 흐르는 이 땅에서 나의 기쁨과 꿈은 하루하루 커만 갔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를 바쳐 가는 고마운 사람들의 가슴속에는 남 모르는 괴로움과 걱정이 함께 커가고 있다는것을 나는 그때까지 미처 모르고 있었다.》

정옥을 업고 가는 귀녀의 모습이 멀리 사라진다.

여기에 새겨 지는 제명.

사랑의 대지
(후 편)

귀녀의 집안

귀녀가 성냥가치를 거꾸로 쥐고 성냥을 그어 대고 있다.

누워 있는 정옥이 그것을 보고 말한다.

《언니! 거꾸로 쥐였어요.》

귀녀《응?… 내가 왜 이러니?》하며 어색하게 웃는다.

정옥의 허리에 놓여 있는 뜸봉들이 타들어 간다.

애 써 참던 정옥이 그만에야 팩 소리친다.

《아 뜨거워!》《아프지?》

《아니… 언니, 나 전번에 하던 옛말을 마저 해줘. 꽃니라는 소녀가 미국놈폭격에 고아가 된데까지 했어.》

《그래, 고아가 됐지. 미국놈폭격에 량부모를 다 잃은 처녀애는 엄마를 찾으며 울고 울었어.

그런데 어느 날 부상 당한 군관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울고 있는 처녀애를 꼭 싸안고 멀리 후방병원으로 데리고 갔단다.… 그날부터 처녀애는 아저씨의 침대에서 잠도 자고 노래도 부르며 서러움을 모르고 자랐어. 그런데 하루는 글쎄 그 아저씨가 전선으로 떠난다는게 아니겠니.

그날 아저씬 따라 가겠다고 동동 매달리는 그 애를 육아원에 데려다 주면서 전쟁이 끝나면 꼭 다시 와 아버지가 돼주마 약속했단다. 그때부터 처녀앤 손가락을 꼽아 가며 아저씨를 기다렸지. …하지만 아저씬 끝내 전선에서 돌아 오지 못했어.

그때부터 처녀앤 인민군대만 보면 모두 그 아저씨 같아…》하며 울먹이면서 말을 끝 맺지 못한다.

깊은 생각에 잠겨 듣고 있는 정옥.

병원복도

계단을 내려 오는 녀의사에게 귀녀의 이모가 다가간다.《오, 이보라구.》

녀의사《이모님이시군요!》

《우리 귀녀 어데 있나?》

《강철공장에 이동치료 나갔어요.》

《이동치료?…》

《그런데 왜 그러세요?》

말없이 돌아 서는 이모.

녀의사《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닐세.… 수고하라구.》

의아히 바라보는 녀의사.

귀녀집안

정옥이 배를 그러쥐고 약을 먹더니 가까스로 전화기에로 다가간다.

《아이구 배야… 아이고… 아이… 언니야!… 아이고!…》

강철공장

이동치료 나온 귀녀가 용해공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말한다.

《이건 우리 병원에서 새로 제조한 구기자차예요. 피로를 푸는데도 좋지만 용해공들의 시력을 높이는데도 효과가 크답니다.》

고뿌에 차물을 따라 권하는 귀녀.

용해공① 《고맙습니다.》

귀녀《자, 또 드세요.》

용해공② 《야, 이거 의사선생에게 고맙다는 인사말만 해가지고서는 안되겠는데요.》

직장장 《귀녀선생, 정옥이를 돌보기도 힘들텐데 이렇게 또 수고를 시키누만!》

귀녀《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더 많은 쇠물을 뽑을수만 있다면 매일이라도 찾아 오겠어요.》

이때 전화가 왔다고 한 용해공이 귀녀에게 알려 준다. 귀녀가 급히 전화기에로 다가간다.

의아히 바라보는 직장장과 용해공들.

전화 받는 귀녀《예? 뭐라구요? 우리 정옥이가 병원에 실려 갔다구요?!》

바라보던 로동자들이 모두 놀란다.

소생실안

심장박동신호기가 급하게 움직인다.

그것을 긴장하게 바라보는 서박사와 의사들.

산소호흡기를 문 정옥.

병원으로 달려 오는 귀녀.

점점 떠지는 심장박동신호.

죽은듯이 누워 있는 정옥을 바라보며 안타까와 하는 서박사와 의사들.

병원복도로 급히 걸어 오는 당비서.

병원홀

귀녀가 마주 오는 당비서에게 묻는다.

《비서동지!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병이랍니까?》

《급성위장출혈이요.》

《생명은?》

《출혈이 심하여 몹시 위급하다누만. 자…》하며 귀녀를 한쪽으로 이끄는 당비서.

수술장앞 홀

《마취수술실》이란 간판이 붙은 문앞으로 물밀듯이 밀려 드는 의사들과 환자들.

녀의사가 그들을 막아 나선다.

여기로 들어 선 귀녀와 당비서가 그들을 바라본다. 저마다 팔을 걷으며 피를 먼저 뽑겠다고 독촉하는 의사와 간호원들.

녀의사《자, 이러지들 말구 어서 돌아들 가십시오. 네? 자꾸 이러시면 안됩니다.》

남의사《귀녀선생, 정옥이한테 많은 피가 요구되겠는데 우리 의사들의 피부터 넣어 줍시다. 예? 어서!…》

이구동성으로 소리치는 사람들.

《선생님, 전 정옥이와 같은 A형입니다. 제 피를 뽑아 주십시오. 예?》

《내 피부터 뽑아 주십시오!》

그들을 뜨겁게 바라보는 귀녀와 당비서.

녀의사《자꾸 이러지들 말구 어서 돌아들 가십시오. 어서요!…》

서박사가 소생실에서 나오며 소리친다. 《아, 이거 왜들 이러십니까?》

녀의사《선생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 낼 길이 없습니다.》

서박사《여러분! 마음 놓고 돌아들 가십시오.》

그러나 더더욱 밀려 드는 사람들.

간병원녀인이 사람들속을 헤쳐 나오며 말한다.《선생님, 난 정옥이를 잘 압니다. 저의 피는 안되나요?》

서박사《글쎄 마음 놓고 돌아 가라니까요!》《선생님!…》

뜨겁게 바라보는 귀녀.

이때 여기로 용해공들이 달려 들어온다.

용해공① 《선생님, 정옥동무가 위급하다는데 우리가 도울것은 없습니까. 예?》

용해공② 《선생님. 피면 피! 살이면 살! 무엇이든지 다 요구하십시오.》

서박사《고맙소. 하지만 지금 온 병원이 떨쳐 나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 마음 놓고 돌아들 가시오!》

그러나 계속 팔을 걷으며 다가드는 사람들.

직장장《가만!… 박사선생님, 우린 정옥이의 얼굴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피 묻은 치마저고리에 깃든 사연만은 잘 알고 있수다. 물론 병원에 피야 있겠지요. 허지만 우린 정옥이에게 꼭 우리 로동계급의 피를 넣어 주고 싶수다. 제발 부탁입니다. 자, 제 피를!…》

《선생님!…》하며 다가드는 사람들.

서박사의 얼굴이 감격에 젖는다.

여기에 울리는 노래.

봄바람 실어 온 작은 꽃씨앗
드넓은 대지에 내려 앉을 때
아직은 몰랐네 제 안긴 이 땅이
얼마나 포근한줄 미처 몰랐네

만물을 허치는 고운 꽃송이
그 모습 뽐내며 키돋움할 때
아직은 몰랐네 품어 준 이 땅이
얼마나 고마운줄 다는 몰랐네

귀녀가 격정에 못 이겨 당비서의 어깨에 얼굴을 묻는다.

수술장

정옥을 수술하는 서박사.

그의 손에 련속 수술도구가 놓여 진다.

그의 얼굴에 땀이 비 오듯 흐른다.

수술실밖 창가로 지켜 보는 귀녀와 당비서.

수술장문이 열리며 수술을 끝낸 정옥을 태운 담가대가 나온다.

당비서와 귀녀가 정옥에게 다가가 어루만지며 격정에 잠긴다.

입원실

정옥에게 미음을 먹이는 귀녀.

미음을 받아 먹으며 뜨거움에 우는 정옥.

당비서며 이모, 합숙처녀들과 용해공들, 옛 입원실 녀인들이 정옥을 찾아 와 기쁨을 나눈다.

귀녀와 당비서, 서박사가 퇴원하는 정옥에게 박수를 보낸다.

사람들에게 정히 인사하는 정옥.

길

승용차가 지나가다가 멈춰 선다.

차에서 내린 병원당비서가 한곳을 바라보다가 운전수에게 말한다.

《먼저 가보오.》

떠나는 차.

강가

귀녀가 학생들과 함께 반두질을 하고 있다. 《자! 이쪽으로!…》

당비서《거 귀녀선생이 아니요?》

반기는 귀녀《비서동지!…》

학생들이 당비서에게 인사한다.

당비서《예.… 헌데 거기서 뭘하오?》

귀녀《우리 정옥이한테 민물고기가 좋다기에…》

《그래?… 나도 한번 잡아 볼가…》하며 웃옷을 벗는 당비서.

《아이, 들어 서지 마십시오.》

《에, 나도 솜씨가 있소.》

《야, 물이 찬데…》

귀녀 가까이에 다가와 반두채를 잡으며 당비서가 말한다.

《애들까지 떨쳐 나섰구만.》

《그렇습니다.》

《귀녀선생, 듣자니 선생이 웅철대대장한테 영영 잊어 달라는 결별편지까지 보냈다면서?… 제 마음을 너무 괴롭히지 말구 그한테 편지를 다시 써보내오.》

《아이, 비서동지. 고기잡이하실 땐 집중하십시오.》하며 딴전 피우던 귀녀가 소리친다.《아, 고기!》

당비서도 소리친다.

《아아, 샌다, 샌다!…》

반두채를 바싹 조여 드는 당비서와 아이들, 다래끼안에 펄펄 뛰는 고기들이 그득히 잡혀 있다.

길

《애들아, 빨리 가자!… 선생님, 빨리 오십시오.》하며 뛰여 가는 학생들.

귀녀와.같이 걸으며 당비서가 말한다.

《힘들지?…》

《일없습니다.》

《귀녀선생, 내 요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오. 우리 정옥이가 조국의 품에 안기지 못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가 하구 말이요.…》

걸으며 사색에 잠겨 듣는 귀녀.

《아마도 그 작은 망울을 한번 펴보지도 못한채 영영 쓰러지고만 가엾은 인생이 됐을거란 말이요. 내나 귀녀선생도 그 얼음장 같은 세상에 태여났더라면 정옥이와 꼭 같은 운명이 되였을거란 말이요.…》

생각깊이 당비서를 바라보는 귀녀.

《하기에 꼭 같은 씨앗도 어떤 땅에 뿌려 지는가에 따라 피고 짐이 다르고 사람도 어떤 품에 안기는가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 지는게 아니겠소. 그래서 우리 인민모두가 자기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책임져 주는 우리 수령님과 당의 품을 친어머니품이라고 하는거지. 귀녀선생, 우리 정옥이를 꼭 일으켜 세우자구.》《예.》

굳은 결심을 다지는 귀녀.

귀녀집마당

야외전등을 켜고 생일준비로 붐비는 마당.

여기로 합숙처녀들이 들어 선다.

부엌에서 나오던 귀녀가 반긴다.

《잊지들 않구 왔구나!》

처녀①《3년이나 함께 쇤 생일인데 그걸 잊다니요?》

처녀②《그렇잖구요! 호호…》

웃으며 달려 가 정옥의 곁에 앉는 처녀들.《정옥언니, 생일을 축하해요!》하며 정옥에게 한 처녀가 꽃을 준다.

정옥《고마워요.》

거울을 든 처녀가 귀녀쪽을 보며 말한다.

《언니, 내가 여기로 올 때 우리 반장아바이가 뭐랬는지 아세요.〈야, 덕실아, 내 어제 밤 집에 가서 암만 생각해 봐야 정옥이란 처녀한텐 거울을 가져다 주는게 제일 의의가 있을것 같더라. 항상 생글생글 웃는 얼굴만 들여다 보라구 말이다.〉하면서 갔다와서 결과를 꼭 보고하라나요. 호호호…》

그 말에 만두를 빚던 녀인들도 웃는다.

정옥에게 거울과 신발을 주는 합숙처녀들.

《정옥언니, 이 구두는 우리 직장동무들이 보낸거예요.》

곽에서 구두를 꺼내보는 정옥.

수도가에서 뜨거움에 젖어 바라보던 귀녀가《수고들합니다.》하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다.

서박사와 간호원을 비롯한 병원의사들이 마당으로 들어 선다.

서박사《아 이거 벌써들 다 왔구만!》

《선생님들은 어떻게 아시고?…》반겨 마중하는 귀녀.

서박사《허, 아무리 바빠두 우리가 정옥이 생일날을 잊겠소. 허허…》

정옥에게 다가간 서박사가 정옥의 생일을 축하해 준다. 고맙다고 인사하는 정옥.

가지고 온 꾸레미들을 정옥에게 안겨 주는 의사들.

간호원이 삼륜차를 내놓으며 말한다.

《언니, 이건 우리 병원선생님들이 보내는거예요.》

삼륜차를 내려다 보며 정옥이 기뻐한다.

삼륜차를 쓸어 만지며 감격에 젖는 귀녀.

서박사며 의사들이 정옥을 삼륜차에 태운채 안아 들고 방으로 들어 간다.

귀녀집안

녀인① 《야참, 이건 인민반에서 특별히 해온건데》하며 음식그릇을 앞에 놓는다.

녀인② 《그럼 우리 성의는 물러 나야 하나요?》

주택관리원《야, 거 뭐 이렇구 저렇구 할게 있소. 주인한테 물어 보구려.》

녀인② 《귀녀선생, 어느걸 정옥이앞에 놓을가?》

부엌에서 방으로 들어 서던 귀녀가 말한다.

《호호. 어느거랄게 있어요. 겹쳐 놓더라도 다 놓자요.》

이때 당비서가 환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 선다. 《허, 오늘 이 집에 좋은 일이 있는거다?》

정옥이 당비서에게 인사한다.

당비서《정옥이, 그새 잘 있었소?》

귀녀《비서동지! 강습 가셨다더니 언제?…》

《지금 오는 길이요. 별루 정옥이가 보고 싶더라니…》

《마침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우리 정옥이 생일입니다.》

《그렇소?…글쎄 어쩐지 내 생각에도 어느날 같지 않더란 말이요. 하하…》

당비서를 바라보는 정옥의 얼굴에 뜨거움이 어린다.

생일상에 생화묶음이 놓여 진다.

정옥이를 가운데 앉히고 사람들이 량옆으로 빙 둘러 앉는다.

당비서《하아, 이거 어쩐다?… 이럴줄 알았으면 나도 선물을 준비하는건데… 할수 없지. 나한텐 이것밖에 없으니까… 》하며 주머니에서 수첩 하나를 꺼내 정옥에게 준다.

수첩에는《혁명가요집》이라고 씌여 져 있다.

당비서《정옥이, 난 힘들 때마다 노래 부르군 하오. 그러면 마음이 든든해 지구 신심이 생기더란 말이요. 허허…》

당비서가 유리잔에 단물을 부어 정옥에게 준다.

《정옥동무,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자 정옥이 고마움에 젖은 얼굴을 들지 못한다.

정옥《비서아저씬 언젠가 제 노래를 듣고 싶다고 했지요?…

언니! 나 노래 하나 부를가?》

머리를 끄덕이는 귀녀.

노래 부르는 정옥.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 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더 부르지 못하고 격정속에 머리 숙이는 정옥.

귀녀가 이어서 부른다.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모두가 받아 부른다.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 형제
세상에 부럼 없어라…》

귀녀가 슬며시 일어 나 밖으로 뛰여 나간다.

나무에 기대여 격정에 우는 귀녀.

토방에 나와 귀녀를 바라보는 정옥의 눈에 눈물이 흘러 내린다.

달아 오르는 얼굴을 수도가에서 씻은 귀녀가 정옥에게로 다가가 그를 끌어 안으며 눈물속에 웃는다.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눈물이 흐른다.

여기에 노래가 울린다.

동무들 다같이 노래를 부르자
손풍금소리 맞추어
천리마 나래 펴는 내 조국
백화가 만발하였네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 형제
세상에 부럼 없어라

노래속에 흐르는 화면들.

꽃밭에서 꽃을 가꾸고 있는 귀녀와 정옥.

서박사에게서 뜸치료법을 배우는 귀녀.

비 오는속에 정옥을 태운 삼륜차를 몰고 병원정문을 나서는 귀녀.

굴러 가는 삼륜차바퀴우에 눈이 내리다가 없어 지고 다시 비가 내린다.

정옥의 팔을 주물러 주는 귀녀의 얼굴에 비오듯 하는 땀방울.

정옥의 등허리에 뜸을 떠주며 귀녀에게 설명해 주는 서박사.

강철공장 작업현장을 찾아 온 정옥과 귀녀를 반갑게 맞이하는 용해공들.

보호안경으로 로안을 들여다 보는 정옥의 얼굴에 기쁨이 넘친다.

책을 읽던 정옥이가 뭔가 말하며 귀녀쪽을 보는데 웃방의 책상앞에 마주 앉아 끄덕끄덕 졸고 있는 귀녀.

귀녀의 집마당에 내리는 비. 그것이 눈 내리는 마당으로 변하였다가 다시 나무에 꽃이 핀 마당으로 변한다.

귀녀집마당

정옥이가 토끼풀을 주는데 통신원처녀가 들어 온다.

《정옥동무, 소포가 왔어.》

정옥《누가 보낸건데?》

《글쎄, 받을 사람 주소만 있구 보내는 사람 주소성명은 없구나.》《?…》

《고마운 사람들이 정옥이를 위해 보낸거겠지.》

통신원이 나가자 급히 소포를 뜯어 보는 정옥.

소포지함속에서 갖가지 약초들이 나진다.

《이 귀한걸 누가?…》하며 정옥이 지함속에 있던 종이를 펼쳐 본다.

종이에 씌여 진 글.

《정옥이, 마음을 굳게 먹구 병과 싸워 이기라구.》

생각에 잠겨 글을 보던 정옥이 삼륜차를 돌려 방안쪽으로 간다.

방안

방으로 들어 선 정옥이가 웃방책상우에로 시선을 주자 거기에는 귀녀와 웅철이 함께 찍은 사진액틀이 없고 정옥과 귀녀가 나란히 찍은 사진만 있다. 정옥의 얼굴빛이 의아해 진다.

급히 장쪽으로 기여 가 안을 뒤지던 정옥이 함에서 빈 사진액자를 꺼내든다.

《여기 사진을 누가 치웠을가?》하며 빈 사진액자를 허무한 기색으로 내려다 보는 정옥. 여기에 공명되여 울리는 정옥과 귀녀의 소리.

정옥《언니, 웅철아저씨한테선 왜 소식 한번 없어요?》

귀녀《글쎄, 바빠 그러겠지뭐.》

부엌쪽에 대고 소리치는 정옥.《이모!》

부엌에서 들어 서던 이모가 무슨 일인가 하여 정옥을 바라본다.

정옥《이모, 웅철아저씨한테선 왜 소식이 없을가요?》

이모《글쎄, 바…바빠 그러겠지뭐.》하며 불안해 한다.

이상한 느낌에 굳어 지는 정옥.

성냥을 켜 초불에 가져 가는 귀녀.

《후!》하고 꺼버리는 정옥.

《우리 정옥이가 오늘은 웬일일가. 어린애처럼.》

귀녀가 다시 성냥을 그어 초에 불을 달자 또 꺼버리는 정옥.

귀녀《정옥아, 고통스러워도 좀 참자. 이제 우리 정옥이 병이 재가 되여 하늘로 날아가 버리면…》

정옥《언닌 날 친동생처럼 생각 안해.》하며 앵돌아 진다.

《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왜 날 속여?》

《애두 참, 속이다니?》

《그럼 말해 봐, 웅철아저씬 어데 있어?》

《거야 부대에…》

《거짓말! 그럼 왜 두해가 지나도록 한번도 찾아 오지 않어?…》

귀녀 대답을 못하고 망설인다.

《언나, 말해 줘. 무슨 일이 있었지. 웅?》

눈길을 피하는 귀녀.《일은 무슨 일… 자, 어서 뜸이나 뜨자.》

《난 웅철아저씨소식을 얘기해 주기전엔 뜸을 안 뜨겠어요.》

귀녀《정옥아, 너 정 이 언니속을 태우겠니?》

정옥이 아무 응대도 안한다.

귀녀《좋다! 너 정 그러면 맘대로 해!…》하며 자리에서 일어 선다.《병을 고치건 말건 상관 안하겠다! 너혼자 백날이구, 천날이구 혼자서 울기나 해.》

돌아 서는 귀녀의 치마를 잡는 정옥.

귀녀《놔라!》

치마자락을 잡은 정옥의 떨리는 손.

정옥《언니, 가지 마.》

고개 돌려 바라보던 귀녀가 안타까움에 운다.

이때《정옥언니 있어요?》하며 담당간호원이였던 혜순이가 들어 선다.

그를 반갑게 맞아 주는 귀녀.《혜순이구나, 내 지금 우리 정옥이를 욕 좀 하던 참이야. 글쎄 따겁다고 뜸을 안 뜨겠다는것이 아니겠어.》

혜순《정옥언니, 더 아파요?》

정옥《…》

《오늘은 웬일이야. 혜순이답지 않게…》

《저 난 오늘… 마지막으로 왔어요.》

귀녀《그게 무슨 소리냐?》하며 놀란다.

혜순《전 래일… 시집을 가요.》

굳어 지는 귀녀의 얼굴.

놀랍게 바라보던 정옥이 묻는다.

《아니, 네 나이 몇이게 벌써?…》

혜순《스물여섯…》

귀녀《벌써 그렇게 됐구나.》

혜순《용서하세요. 사실은 정옥언니 병을 고친 다음에 가려고 했는데…》

귀녀《… 난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간줄도 몰랐구나. 혜순아, 정말 기쁘다. 그리구 널 축하한다. 우리 정옥이도 같은 심정이구… 그렇지, 정옥아?》

애써 미소 지으며 머리를 끄덕이는 정옥.

귀녀《혜순아, 준비할것도 많겠는데 어서 가봐. 부모님들이 기다리겠어.》

혜순《괜찮아요. 오늘 밤은 정옥언니 옆에서 자고 가겠다고 어머니에게 얘기했어요. 정옥언니, 일없지요?》

정옥《혜순아!》

혜순《언니!》

혜순을 껴안는 정옥의 얼굴에 괴로움이 비낀다.

쏟아 지는 눈물을 가까스로 참는 귀녀.

밤이 되여 귀녀와 정옥, 혜순이 나란히 잠자리에 누워 있다.

정옥이 돌아 누우며 슬며시 귀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린다.

귀녀《너 아직 안 자고 있었니?》

정옥《언니, 언닌 나때문에 시집도 못가고…》

귀녀《그런 말 하면 못써… 정옥아, 우리 래일 함께 양복점에 가자. 언제부터 너에게 새옷을 한벌 해준다는게… 이 언닌 우리 정옥이가 치마저고리를 입고 나서는걸 보는게 소원이야.》

《언니!…》

혜순이 그 소리를 듣고 조용히 흐느끼며 모포로 얼굴을 가리운다.

외과치료실

귀녀가 환자의 혈압상태를 재고 있다.

환자《제 혈압이 높습니까?》

귀녀《아니예요. 정상이예요.》

《아, 그런걸 난 또. …고맙습니다.》하며 자리에서 일어 나는 환자.

이때 문소리와 함께 들어 선 녀의사가 다가와 말한다.

《귀녀선생, 밖에 웬 군관동지가 찾아 왔어요.》

벌떡 일어 서는 귀녀.《뭐 군관?!… 어떻게 생겼어요?》

녀의사《키가 크구 눈이 억실억실한게… 호호… 미남이예요.》

귀녀《지금 어디 있어요?》

《저기 저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청진기를 벗으며 귀녀가 급히 나간다.

문쪽으로 뛰여 가 문을 열려던 귀녀 다시 돌아 서며 묻는다.

《몇이예요?》《한명.》

《아니, 별이 몇갠가요?》

《글쎄…아, 두줄에 한알.…》

《고마워요!》

웃으며 쏜살같이 문을 열고 나가는 귀녀. 녀의사도 웃으며 바라본다.

급히 복도계단을 뛰여 내리는 귀녀.

병원정원에서 오락가락하는 군관의 뒤모습을 바라본 귀녀가 달려 간다.

《웅철동지!…》하는 소리에 군관이 돌아 서자 귀녀가 놀란다. 웅철이가 아니였던것이다.

병원앞계단

병원으로 들어 서던 이모가 녀의사와 만난다.

《이모님이 어떻게? 어디 아프세요?》

《아니, 우리 귀녀를 좀 만나자구.》

《예- 그런데 저기서 웬 군관과 만나고 있어요.》녀의사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는 이모.

군관과 마주 선 귀녀가 울고 있다.

걱정속에 바라보는 이모와 녀의사.

녀의사《귀녀선생을 애인한테 빨리 보내야지 저러다 병나겠어요.》

이모《저두 얼마나 속이 타겠나…》

귀녀의 집

가면 쓴 얼굴이 춧으며 우습게 움직인다. 그것을 보며 웃는 정옥.

음악장단에 맞춰 가면을 쓴 녀인이 빙글빙글 돌아 간다. 배를 그러쥐고 웃는 정옥.

돌아 가던 녀인이 맥이 진한듯 방바닥에 넘어 지며 가면을 벗는다.

《휴! …아이구 나두 이젠 늙었구나.》하며 한숨 쉬는 이모.

정옥《이모는 언제 그런걸 다 배웠어요?》

이모《내 이래뵈두 처녀땐 한다하는 써클소조선생이였지.》하며 록음기스위치를 끈다.

이모가 정옥에게 다가앉으며 말한다.

《정옥아, 래일부터 우리 집에 가 있자. 말동무도 하는겸…》

《고맙긴 하지만 난 언니와 떨어 져선 못 살아요. 이제 언니가 강습 갔다와서 내가 없으면 얼마나 섭섭해 하겠어요.》

《정옥이, 사실은 어제 웅철이 그 사람 부대에서 사람이 왔댔다.》

《?…》정옥이 놀라 쳐다본다.

《그 사람이 떠난지도 두해가 지났으니 오죽이나 보구 싶겠나.》

《떠나다니요?》

《전연부대로 갔지.》

놀라는 정옥.

《기다리는 사람을 생각하면 가야겠구, 그렇다구 널 두고 갈수도 없으니 언닌 그저 안타까워서 울기만 하더라.》

《언니가요?…》

《정옥아, 내 언니만큼은 못해 줘도 널 친자식처럼 돌봐 줄테니 나하구 같이 살자 웅?》

《…》

《내 너한테 이 말만은 안하자고 했다만 사실 난… 귀녀의 친 이모가 아니란다.》

놀라는 정옥.

《귀넌 미국놈들에게 량부모를 다 잃은 전쟁고아였다…》하는 이모의 얼굴이 흐려 진다.

-회상-

하늘을 덮으며 날아 오는 미군폭격기들이 폭탄을 떨군다. 폭격에 무너진 집들이 불에 탄다.

죽은 어머니곁에서 발을 구르며 울고 우는 아이들.

파괴된 철그네가 흔들린다.

그네에 매놓은 인형이 폭풍에 흔들린다.

젊은 시절의 이모가 초등학원교실에서 나오다가 한 학생이 뭐라고 말하며 가리키는쪽을 본다.

이모의 소리《그 애가 여덟살쯤 되였을가, 난 그때 교원양성소를 졸업하고 학원선생으로 배치되여 갔었지. 그런데 난 거기서 일점혈육이 없는 한 처녀애가 밤마다 어머니를 그리며 울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학원정원의 그네우에 앉아 달을 보고 있는 어린 귀녀.

그네를 타고 있는 귀녀에게 다가가 흔들어 주는 이모.《넌 여기서 혼자 뭘하니?》

《…》

이모《어디 아픈게 아니냐?》

귀녀《아니요. 엄마생각이 나서 그래요. 우리 엄만 달 뜨는 저녁이면 날 그네에 태우고 재미나는 애길 해주군 했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내가 얘기해 줄가?》

《저 선생님, 우리 엄마가 한번만이라도 살아서 돌아 와 학원에서 공부하는 날 봐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굳어 지는 이모.

귀녀《우리 엄만 지금 내가 이렇게 잘 먹구 잘 입구 공부하는것도 모르고 걱정만 하고 있을거예요.》

귀녀를 꼭 껴안는 이모.《애, 넌 너한테 이모가 있다는 말 못 들었니?》

《이모요?》

《웅. 내가 바로 네 이모란다.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난 네가 여기 있다는 말을 듣고 학원선생으로 우정 왔단다.》

《정말이나요?》

《정말아니문.…》

그러자《이모!》하며 귀녀가 그의 가슴에 안긴다.

-회상 끝-

이모《이렇게 되여 난 이름도 모르던 그 애의 친 이모가 되였단다. 그래서인지 친자식보다 귀녀를 더 생각하게 되는구나.… 정옥아, 내 너두 친딸처럼 돌봐 줄테니 언니를 보내자꾸나.》

정옥《언닌 지금 어디 있어요?》

이모《웅철이 그 사람을 만나보려 부대에 갔다.》생각에 잠기는 정옥.

당비서방

문을 열고 들어 서는 서박사.

《비서동무. 이거 너무 기다리게 해서 안됐습니다.》

당비서《협의회가 끝났습니까?》

《예.… 이번에 적십자병원에 가보니 우리 정옥이와 류사한 환자가 기적적으로 다리를 폈더군요.》

《그래요?》

《내 그래서 그들의 치료경험도 듣구 실험자료들도 연구해 보았는데 신심이 생깁니다.》

당비서가 그의 말을 듣고 긍정하며 책상우에 지함 하나를 꺼내놓는다.

지함뚜껑을 열자 갖가지 약들이 가득 나진다.

서박사《이건 어디서?…》

당비서《웅철대대장동무가 훈련의 여가시간에 짬짬이 마련해 두었던겁니다.》

《그래요. 아 이거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명색이 박사라는 제가 있으면서도… 저 이젠 정옥이를 병원에 데려다 집중치료하겠으니 귀녀선생을 웅철동무한테 빨리 보내줍시다.》

말없이 자리에 가앉는 당비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당비서가 괴로운 안색으로 말한다.

《웅철대대장동무는 전사했습니다.》

《예?…》흠칫 놀라는 서박사.

당비서《갓 입대한 전사가 첫 근무를 서던 날 웅철대대장동문 그와 함께 잠복초소에 나갔댔답니다. 그런데 불의에 원쑤놈들이 우리 초소를 향해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졌다지 않습니까.… 폭발이 일어 난 다음 전사가 정신을 차려 보니 글쎄 웅철대대장이 그를 몸으로 덮고 그만…》

펄썩 자리에 주저 앉는 서박사.

-회상 -

《공화국영웅 김웅철동지 묘》라고 쓴 봉분앞에 머리를 숙이고 선 귀녀가 슬픔에 잠겨 있다.

묘앞에 꽃다발이 놓여 진다.

한 군관과 함께 당비서가 귀녀쪽을 비감에 잠겨 바라본다.

군관이 귀녀에게 다가와 말한다.

《대대장동지의 사품을 정리하면서 보니 이 편지가 있더군요.》편지봉투에서 웅철과 귀녀와 같이 찍은 사진과 편지가 나온다.

편지를 보는 귀녀의 가슴은 미여 진다.

편지의 내용이 웅철의 말로 전달된다.

《귀녀, 사랑은 하나지 둘이 아니요. 어떻게 깊어 진 우리의 사랑이길래 그렇게 쉽게 갈라 진단 말이요. 난 동무의 결별편지를 원쑤에 대한 증오로 영영 불태워 버렸소. 귀녀, 난 동무를 끝까지 기다리겠소. 10년, 20년… 아니 한생이 다 간대도 영원히 동무만을 이 가슴에 간직하고 살테요.》

봉분에 웅철의 편지와《결혼사진》이 떨어 진다.

휘청거리는 귀녀를 당비서가 부축해 준다.

봉분에 쓰러지며 오열을 터치는 귀녀.

비감에 잠긴 서박사와 당비서가 괴로운 심정으로 앉아 있다.

당비서《정말이지 난 지금 귀녀동무를 위로해 줄 말 한마디 찾을수 없군요.》

서박사《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창밖을 괴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당비서.

귀녀집

비 내리는 마당에 들어 선 귀녀 토방에 올라 선다.

《정옥아!… 정옥이, 언니 왔어…》

문이 걸려 있다.

부엌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는 귀녀.

텅 빈 방에 들어 선 귀녀가 웃방책상우에 놓인 접은 종이를 펴본다.

정옥의 소리《언니, 난 가요. 내 인생에 어디 가서 언니 같은 사람을 또 만나겠어요. 이 눈에 흙이 들어 가도 전 언니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해요. 언니, 부디 행복하세요.》

휘청거리며 돌아 서는 귀녀.

이모의 집

비가 세차게 내린다. 이모가 방에서 나오다가 길쪽에서 올라 오고 있는 귀녀를 보고 급히 안으로 들어 간다.

귀녀가 이모를 찾자 문이 열리며 이모가 나온다.

귀녀《정옥이가 여기 오지 않았어요?》

《아니 안 왔다》하며 꽃밭으로 가 호미를 잡는 이모. 그의 마음은 초조와 불안으로 안정치 못하다.

귀녀가《어딜 갔을가…》하며 토방에 주저 앉아 다시 이모를 찾는다.

귀녀에게 등을 돌려 댄채 호미질하던 이모가 흠칫 놀라며 돌아 보지도 않고 말한다.

《오?… 안…안 왔다는데…》하며 헛 호미질만 하는 이모.

의아하게 바라보던 귀녀가 방으로 들어 간다.

어쩔바를 몰라 하는 이모.

중간미닫이문을 여는 귀녀앞에 정옥의 모습이 나타난다. 귀녀는 그제야 반가운 기색을 지으며 한숨을 내쉰다.

귀녀《난 네가 가지 않으리라 믿었어.》

《…》

《정옥아, 집으로 가자.》《…》

《어서!》

정옥《전 그 집에 안 가겠어요.》

《전… 어째서?》

정옥《여기서 이모와 함께 사는게 더 좋아요.》

《뭐?…》하며 귀녀가 놀란다.

귀녀《정옥아, 내 너한테 잘못한게 있으면 용서해 다오. 하지만… 넌 나하구 살아야 해.》

정옥이 단호하게 말한다.

《싫어요. 싫어!》

《정옥아, 너 피 묻은 치마저고리를 벌써 잊었니. 널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원쑤놈들이 지금도 좋아라 웃고 있는데… 넌 다리를 펴기전엔 아무데도 못 간다!》

《싫어요. 싫어!… 전… 언니가… 싫어 졌어요.》하며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정옥.

그의 가슴도 미여 지는듯 하다.

억이 막혀 정옥을 바라보는 귀녀.

눈물속에 그들을 바라보던 이모가 고개를 떨군다.

《네 마음이 정 그러면… 내가 싫구 널 돌봐 줄 사람이 많은데야…》하며 돌아서던 귀녀가 그만 쓰러진다.

《귀녀야!》하는 이모의 손을 뿌리치고 나가는 귀녀. 정옥이도 괴로운 심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운다. 귀녀를 따라오며 어쩔바를 몰라 하는 이모.

귀녀가 쏟아 지는 비를 맞으며 어디론가 걸어 간다.

괴롭게 바라보는 이모.

당비서방

당비서가 문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든다.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 서는 귀녀.

《아니, 귀녀선생이 어떻게?…》하며 반가이 다가가는 당비서.

귀녀《비서동지,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정옥이가…》

《정옥이가 어떻게 됐다는거요?》

《집을 뛰쳐 나가 이모네 집으로 갔습니다.》

당비서가 생각 깊은 눈길로 귀녀를 보다가 그를 의자에 앉힌다.

《자, 여기 와 좀 앉소. 어서… 어제 우리 병원에 정옥이를 다시 데려다 집중치료하기로 토론이 있었소. 그러니 마음놓구 한 뒤달 갔다 오오. 온탕치료가 그렇게 좋다누만.》하며 당비서가 료양권을 귀녀앞에 내놓는다.

귀녀가 료양권을 보더니 조용히 밀어 놓는다. 《전 못 갑니다.》

《귀녀선생…》

귀녀《비서동지야 제 마음을 잘 알지 않습니까.》

당비서《안되오. 지금 그 몸을 가지군 아무 일도 못해! 그러니 래일 아침 무조건 떠나오.》

귀녀가 안타까이 바라보며 말한다.

《비서동지.》

《글쎄 안되오.》하며 창가에로 돌아서는 당비서.

귀녀가 조용히 흘러 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한다.

《비서동지, 저에겐 부모가 없습니다. 전 절 낳아 준 친어머니얼굴도 기억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까지 제 가슴속에 어머니의 모습으로 생생히 남아 있는것은 아버지가 되여 주겠다던 낯 모를 인민군대아저씨였고 날 꼭 품에 안아 잠재워 주던 육아원부모들의 얼굴이였고 태여나 처음으로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고맙습니다〉라는 글부터 익혀 준 학원선생님들의 모습이였습니다. 제가 정옥이를 단순히 동정으로만 돌보는줄 압니까. 그 정상이 가긍해서만 일으켜 세우자는줄 아시는가 말입니다.…》

뜨겁게 바라보는 당비서.

귀녀 《날 키워 준 고마운 사람들, 날 품어 준 고마운 이 조국이 바로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당의 품이라는걸 제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 우리 정옥이에게도 친어머니의 그 품을 가슴깊이 새겨 주자고 오늘까지 애 써 오는데… 비서동지까지 이러시면 전…》

격정에 목 메여 창가로 돌아 서는 당비서.

이모집안

서박사가 정옥을 타이르고 있다. 그들을 이윽히 지켜 보는 당비서.

서박사《뭐 그 집에 다시 안 가겠다구?… 정옥인 어쩌면 귀녀선생의 진정을 그렇게도 몰라 주오. 엉?》

정옥《선생님, 저도 인간이구 녀성입니다. 난 언니와 웅철아저씨가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수만 있다면…》

서박사《그만하오.》하며 감정을 묵새긴다.

당비서《그러니 정옥인 아직까지도 언니의 진정을 다 모르고 있었구만. 정옥인 자기를 위해 바친 언니의 사랑이 단순한 인간적인 애정이라고만 생각하나? 아니요. 그건 자기를 키워 준 고마운 조국에 바치는 깨끗한 량심과 의리이고 충성심의 발현인게요! 그래서 웅철대대장동무는 자기의 귀중한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거구…》

정옥《목숨을 바치다니요?》하며 놀란다.

그옆에 있던 이모도 놀라서 돌아 본다.

당비서《바쳤지. 그도 사랑을 위해 귀중한 생명을 바쳤소. 정옥인 언니나 웅철대대장이 정옥이에게 주고 싶었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몰라… 사람들모두가 친형제가 되고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이 되여 서로 돕고 위해 주는 인간사랑의 화원이 어떻게 이 땅에 생겨 났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단 말이요. 웅철대대장은 바로 이 사랑의 진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목숨을 바친거구 귀녀선생은 이 사랑의 진리를 정옥이에게 심어 주려고 청춘을 바친거요.》

격정에 머리를 떨구는 정옥.

귀녀의 집

문가에 바느질하는 귀녀의 모습이 어렸다.

마당에서 서박사와 이모, 당비서와 함께 삼륜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정옥이 격정에 잠긴다. 눈굽을 훔치는 이모.

당비서와 서박사도 뜨거움에 젖는다.

《귀녀야!…》하며 이모가 방으로 들어 선다.

귀녀 《이모 오셨군요. 이모, 웅철동지가 준 옷감으로 정옥의 치마저고리를 지었는데 그애 마음에 들가요?》

이모가 말없이 그를 뜨겁게 바라보다가 차오르는 격정에 주저 앉으며 흐느낀다.

귀녀 《이모 생각은 어때요? 치마기장이 좀 짧은것 같지 않아요? 그앤 서기만 하면 키가 늘씬하겠는데.》하며 웃방으로 올라 가는데 방안으로 당비서가 들어 선다.

《아, 마침 귀녀선생이 있었구만! 정옥이가 언니한테 데려다 달라구 어찌나 성화를 먹이는지 이 비서두 어쩌지 못하고 끌려 왔다니까. 하하…》

귀녀가 반가운 기색으로 당비서를 바라본다.

당비서 밖에 대고 소리친다.

《부원장선생, 어서 들어 오십시오.》

정옥을 안고 들어 서는 서박사.

《귀녀선생. 좀 받아 주. 나도 이젠 나이가 있으니 정옥이를 감당하기 힘들구만. 허허…》

당비서《부원장선생. 우선 그새 못한 치료부터 해야지요?》

서박사《예. 헌데 정옥인 꼭 담당선생한테서만 치료를 받겠다니 난 오늘 조수노릇이나 해야지요.》

당비서《거 담당선생이 대단하군요. 박사조수까지 다 데리고 있으니. 허허…》

웃방에 선채 웃으며 바라보는 귀녀.

정옥이 고개를 숙인채 격정에 잠겨 있다.

서박사《정옥이 치료는 귀녀선생이 해도 옛말은 내가 해줄가?》

정옥《아니요.》

《허, 그럼 할수없이 귀녀선생이 해야겠구만.》

귀녀가《아니예요.》하는 정옥의 소리에 그만 굳어 진다.

고개를 숙인채 말하는 정옥.《오늘 옛말은 내가 하겠어요.》

정옥이에게 시선을 돌리는 서박사와 당비서, 귀녀의 얼굴에는 의아한 기색이 어린다.

정옥《어느 한 마을에 미국놈폭격에 부모를 잃은 불쌍한 처녀애가 살고 있었답니다. 자본주의 일본땅 같으면 하루도 못 살고 숨 졌을 그 처녀앤 좋은 땅에 뿌려 진 씨앗처럼 그때 벌써 따스한 사랑의 대지에 포근히 안겨 육아원과 학원에서 마음껏 배우고 자라 오늘은 대학을 졸업한 어엿한 선생님이 되였답니다.》

귀녀가 정어린 시선으로 정옥을 본다.

정옥《안겨 사는 이 땅이 얼마나 포근한지 키워 준 그 품이 얼마나 뜨거운지 너무도 잘 아는 그 처녀선생은 오늘 불구자인 귀국동포처녀를 맡아 안고 청춘도 사랑도 자기의 귀중한 그 모든것을 깡그리 바쳤답니다.

혈육도 친척도 아니고 생판 남남인 그 처녀를 친형제처럼 돌봐 주고 온갖 정성을 다해 치료해 주는 그 사랑이 너무도 너무도 고마워…》

뜨거운 감동에 젖어 정옥을 바라보는 당비서와 서박사. 오열을 삼키는 귀녀.

그를 뜨겁게 바라보며 자기의 심정을 터치는 정옥.《…불구자처녀는 5살우인 그 언니를 …언니를…》격정에 말을 맺지 못하는 정옥.

그러다가 그의 입에서 나직이 나오는 소리.

《어-엄-마!…》

순간 자기의 귀를 의심하며 놀란 눈길로 정옥을 돌아 보던 귀녀가 들고 있던 뜸봉관을 떨어 뜨린다. 옆의 사람들도 놀라서 정옥을 주시한다.

드디여 격정을 누르지 못한 정옥이 삼륜차에서 떨어 져 내리며 귀녀에게로 한치한치 기여 온다. 한손을 귀녀에게로 뻗치며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터치는 정옥.《엄-마-야!…》

눈물을 흘리며 귀녀에게로 기여 오는 정옥.

마주 기여 가 뜨겁게 부둥켜 안는 귀녀.

감격하는 당비서와 서박사.

병원

귀녀가 정옥에게 다리안마를 해주고 있다.

허리에 감은 고무줄을 늘구며 검진 받는 정옥.

침대모서리를 잡고 일어 서려고 모지름을 쓰는 정옥. 요구성을 높이는 서박사.

이를 악물고 일어 서는 정옥.

기어이 일어선 그의 다리를 쓸어 만지며 눈물 짓는 귀녀.

여기에 노래가 울린다.

차디찬 대지에 울던 인생이
봄날의 꽃처럼 활짝 필적에
오늘은 알았네 고마운 이 땅이
어머니사랑 넘친 조국의 품인줄

병원홀에서 서박사와 의사들, 당비서와 귀녀가 정옥의 걸음을 긴장해서 지켜보고 있다. 크나큰 기대감을 안고 정옥의 걸음을 주시하는 귀녀.

한발자국 또 한발자국 지팽이를 짚고 가까스로 걸음을 옮기던 정옥이 커다란 격정에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린다. 드디여 대지를 마음껏 걸을수 있게 된것이다. 정옥의 걷는 모습을 보며 귀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감동에 젖는다.

중앙홀에 모셔 진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숭엄히 우러르며 자기의 격정을 터치는 정옥. 자애로운 그 영상을 우러르며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감격에 젖어 삼가 인사를 올린다.

여기에 울리는 노래.

아- 위대한 장군님의 어버이품이여

차디찬 대지에 울던 인생이
봄날의 꽃처럼 활짝 필적에
오늘은 알았네 고마운 이 땅이
어머니사랑 넘친 조국의 품인줄

너와 나 안겨 사는 사랑의 이 대지
위대한 장군님의 어버이품인줄

꽃밭

꽃송이를 꺾어 들고 달려 온 정옥이가 귀녀의 머리에 꽃환을 씌워 준다. 활짝 핀 꽃송이를 안고 기쁨에 넘쳐 정옥을 바라보는 귀녀.

정옥이 귀녀를 넁큼 업고 꽃대문밑을 빠져 자기들에게로 달려 오는 당비서와 서박사를 비롯한 사람들앞으로 마중간다.

귀녀에게 꽃묶음을 주는 당비서.

꽃속에 묻힌 귀녀가 그 꽃들을 하늘높이 뿌린다.

아름다운 꽃송이들이 축복의 꽃보라마냥 흩날리며 사랑의 대지에 포근히 내려 앉는다.

끝

우리 당의 총대철학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형상

다부작예술영화《민족과 운명》최현편 (1~3부)을 보고

류 윤 화

예술영화《민족과 운명》의《최현편》(1~3부)이 거둔 성과는 무엇보다먼저 우리 혁명의 총대가 어떠한 총대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혁명의 총대야말로 명실공히 수령결사옹위의 총대라는것을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한것이다.

영화는 미제침략자들이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여 많은 추종국가군대를 조선전쟁에 들이밀어 우리 인민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 왔던 주체39(1950)년 10월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문제가 시대적요구로 나서고 있는 오늘의 현 시점에서 그때의 사실을 펼쳐 보이고 있다. 바로 여기에 이 영화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할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있다.

영화에서는 우선 총대에 대한 철학적인 견해를 깊이 있게 펼쳐 보이고 있다.

미제의 충실한 주구 허성도놈은 강철무(당시에는 괴뢰군에 복무하고 있었다)에게 총은 모든 사물의 제왕이며 그앞에선 인간도 무력하다고 하면서 총이 누구의 손에 쥐여 있는가에 따라서 대통령자리를 타고 앉을수 있다고 지껄인다.

그러나 최현은 공화국북반부로 의거하여 온 강철무에게《우리가 쥔 총은 그저 탄알을 날리는 쇠덩이가 아니야. 살아 숨쉬는 육체의 한 부분이지. 제국주의자들은 총대에는 사상이 없고 계급성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총에는 철학이 있고 산피가 있고 인정이 있다고 보는거야》라고 말한다.

총대에는 사상이 있으며 총대에 사상이 없을 때는 총대가 자기의 사명을 옳게 수행할수 없다.

강철무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강철무는 정의의 총대를 잡기 위해 전쟁전에 의거해 온 사람이였으며 전투에서 언제나 용감하였다. 그러나 총대의 사명을 깊이 자각하지 못했던탓으로 최고사령부의 의도가 담겨 진 군단장의 명령을 어기고 개인복수적인 전투를 벌린다. 결국 최고사령부의 명령관철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된다.

사실 최현에게도 이러한 결함이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일이 있었다. 전쟁전 송악산전투때 간삼봉에서 도망친 김석원이라는 놈을 잡자고 38°선을 넘어 개성까지 밀고 나갔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무도 노하시여 총이 없이는 한시도 살수 없다던 최현에게서 자신께서 몸소 주셨던 권총까지 회수하신다.

그날 밤 최현의 숙소를 찾아 오신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장군님께서는 제가 떠나 올 때까지 내내 외우셨어요. 최현이 없이는 이 **김일성**을 생각할수 있느냐고, 이런 마음을 모르고 그가 적의 소굴에 함부로 뛰여 들었다고, 그러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쩔번했느냐고 몇번이나 되뇌이시였습니다.》

이 말씀속에는 총대를 쥐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사상을 같이 하는 사람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인간중심의 철학이 담겨 져 있다. 하기에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최현에게《최현동지, 장군님께서는 이 총을 전하라구 하시면서 사상이 없는 총대는 막대기 한가지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

총 그자체는 적의 유생력량을 소멸하기 위한 무기에 지나지 않지만 그 총을 쥔 사람의 사상에 따라 그 총이 동지가 될수도 있고 원쑤가 될수도 있다.

영화에서는 총에 대한 철학적해명에 기초하여 우리의 총대가 과연 어떠한 총대인가를 보다 깊이 파고 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후에 강력한 제2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작전적방침을 내놓으시고 적후군단의 지휘를 맡은 최현에게 지금처럼 준엄한 시기에 민족의 운명이 인민군대가 잡은 총대우에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영화는 우리의 총대가 어떠한 총대인가를 뚜렷한 대조속에 부각시키고 있다.

허성도, 송요찬은 미국이 준 총을 쥐고 나라와 민족은 안중에도 없이 미국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그 총대는 미국하사관놈이《국군》장교를 민족적으로 모욕해도 불질을 못하지만 같은 동족에게는 불질을 한다. 미군에게 순종하고 동족에게 불질하는 더러운 총대가 굴종과 범죄의 대명사라면 우리 혁명의 총대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건드리는 자들에게는 그가 누구든 무자비한 타격을 가하는 정의의 대명사이다.

영화에서는 우리 혁명의 총대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는 총대라는데 머물지 않고 보다 더 승화시켜 우리 혁명의 총대는 철두철미 수령결사옹위의 총대라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우리 혁명의 총대가 수령결사옹위의 총대라는것을 형상적으로 보여 준 여기에 이 영화의 주제사상적내용의 깊이가 있고 보다 큰 인식교양적의의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게 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오랜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보람찬 혁명의 새 시대를 맞이할수 있었으며 영광스러운 투쟁과 승리의 길을 걸어 올수 있었다.》

영화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심으로 하여 우리 혁명의 총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진정한 정의의 총대로 될수 있었으며 따라서 우리 혁명의 총대는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하는것을 자기의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했던탓으로 우리 인민이 겪은 비극은 그 얼마였던가?

최현의 아버지 화심은 나라를 찾기 위해 총을 들고 의병대에 들어 갔으나 간악한 일제의 모략에 의하여 부대가 전멸되고 결국은 자결하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남긴다.

화심《다시는 이 총을 손에 쥐지 말아라. 절대로! 알겠느냐!》

최현《아버님, 총이 있어야 나라를 찾는다고 하시지 않았소이까?》

화심《그랬댔다. 하지만 백만자루의 총을 가진대도 나라를 찾을수 없는것이 이 나라의 비극이다.… 득권아!(최현의 원래 이름) 이 총대가 우리를 배반했구나, 배반했어. 다시는 이 총을 잡지 말아라.…

득권아! 백만자루의 총이 있구 백만의 의병이 있어도 우리를 이끌어 줄 령수가 없구나. 내 나라의 독립은 망상이였구나.》

이런 뼈 저린 체험이 있었기에 최현은 위대한 수령님을 총대로 옹위하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의무로 가슴속깊이 간직하고 있다. 그는 강철무가 의거해 오던 날 그에게《장군님을 지켜 드리는데서 김정숙동지와 같은 경위대원이 되자》고 약속도 하였으며 자기의 권총을 강철무에게 주며《우리 평생을 벗 삼아 **김일성**장군님의 문전보초병이 되자》고 결의도 다진다.

영화는 최현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의 총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진정한 인민의 총대로 되자면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하는 총대가 되여야 한다는,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의 총대의 기본사명이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영화가 거둔 성과는 다음으로 인물성격의 전형화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는것이다.

실재한 사실과 원형에 기초하여 전형을 창조하는 것은 전형창조의 일반적요구이다.

영화는 종자의 요구에 맞는 실재한 인물들을 선택하고 전형화하였다.

영화의 주인공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총을 잡고 한생을 다 바친 항일혁명투사 최현동지를 원형으로 하고 있다.

최현의 성격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다. 그는 자기가 잡은 총대가 어떠한 총대인가를 심장으로 느끼고 총대로 위대한 수령님을 옹호보위하는것을 자기 생활의 신념으로, 도덕적의무로 생각한다. 그의 이러한 사상정신적기초는 의병에 나섰던 아버지의 죽음에서 피의 교훈을 찾은후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뵈오면서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그는 소왕청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총을 받아 안은 그날부터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키는것이 자기가 잡은 총대의 기본사명이라는것을 심장으로 체득한다.

특히 그이께서 계시는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키는 투쟁에서 김정숙동지께서 보여 주신 산 모범은 최현의 성격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최현은 김정숙동지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 받고《사상이 없는 총대는 막대기 한가지》라는 것을 생활의 좌우명으로 삼는다.

우리 혁명의 총대의 사상은 수령결사옹위의 사상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이 최현의 가슴속에 간직된 신념이고 의지였다. 전사들에 대한 웅심 깊은 사랑, 대담하고도 호방한, 군사가다운 성격을 비롯한 최현의 이여의 모든 성격적특징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한《최고사령부 문전보초병》으로서의 그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보여 주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영화는 강철무의 성격도 실재한 인물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혁명의 총대를 잡고 새로운 인간으로 성장하는 시대적전형으로 형상하고 있다.

최현이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서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손에 총을 잡고 싸워 온 인물이라면 강철무는 왜놈의 학도병총대도 미제의 앞잡이 리승만의 총대도 잡아 본 곡절 많은 인물이다.

정의의 총대를 잡고 싶었던 그의 절절한 소망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 안긴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영화는 강철무의 형상을 통하여 사상이 없는 총대는 막대기 한가지며 진정한 조국과 민족을 위한 총대로 되자면 우리 총대의 사상이 수령결사옹위의 사상으로 일관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영화가 거둔 또하나의 성과는 총에 대한 철학적인 대사들이 새롭게 탐구되여 영화의 주제사상적내용을 밝히는데 적극 이바지한것이다.

영화에서 대사는 성격창조의 기본수단의 하나이며 주제사상적내용을 밝히는데서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 영화에서는 주제사상적내용을 밝히는데 이바

지할수 있는 대사, 특히 총에 대한 철학적인 대사들이 적극 탐구리용되였다.

《사상이 없는 총대는 막대기 한가지》, 이 대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명대사이며 최현은 위대한 김정숙어머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전달 받고 자기 생활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대사는 총대에서는 사상이 기본이며 사상이 없을 때는 총대로서의 자기 사명을 옳게 수행할수 없게 되고 결국은 막대기나 다름이 없다는것을 보여 준다. 영화에서는 이 대사가 위대한 김정숙어머님께서 어버이수령님께서 회수하셨던 권총을 최현에게 돌려 주실 때와 강철무가 최고사령부의 의도가 담겨 진 명령을 어기고 개인복수전을 벌렸을 때 두번에 걸쳐 반복되면서 작품의 종자해명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영화에서 최현이 평강과 철원의 적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세포의 적들을 치는 싸움에로 떠나는 강철무에게 하는 대사는 참으로 뜻이 깊고 알기 쉬워 관람자들에게 잊을수 없는 여운을 안겨 준다.

《련대장, 순간도 장군님의 숨결을 떠나면 사상에 녹이 쓸고 사상에 녹이 쓸면 총대에도 녹이 쓸어. 결국은 우리의 운명이신 장군님을 지켜 드릴수 없다는것을 항시 명심하라구.》

총대는 총을 잡은 사람에 의해 그 사명이 수행된다. 수령결사옹위의 사명을 지닌 우리의 총대가 그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총대를 잡은 사람들이 자기 수령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수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혁명가가 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 혁명의 총대는 현 시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할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나라와 인민을 지키고 그 미래도 담보할수 있다.

이 외에도《총은 배신과 변절을 모른다.》라는 대사라든지,《총대를 쥐였을 때와 안 쥐였을 때 마음의 크기가 같아서야 안되지.》라는 대사들은 총에 대한 깊은 철학적의미를 안고 있는 대사들이며 영화의 주제사상적내용을 펼쳐 보이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영화는 이 외에 연출과 촬영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현이 마가을 하늘높이 날아 가는 기러기를 바라보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고산진을 그려 보는 장면이라든가, 독립군시절 위대한 수령을 모시지 못했던탓으로 총을 그처럼 사랑하면서도 그 총대를 꺾어 버리는 장면은 예술적으로 손색없이 처리된 장면들이다.

특히 주인공의 개성적특성을 잘 살려 낸것으로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최현역을 맡은 배우와 최현의 아버지역을 맡은 배우를 비롯한 배우들의 연기형상도 아주 잘되였다.

다부작예술영화《민족과 운명》의 최현편(제1~3부)은 우리 당의 총대철학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인민군군인들, 청소년들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리수복형의 육탄영웅, 길영조형의 자폭용사로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평 론

규모는 작아도 내용은 크다

-예술영화《명줄》을 보고-

손 태 광

오늘 우리 조국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고 있다. 이 장엄한 현실은 우리의 창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혁명적신념을 더욱 굳게 해주고 그들이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여 나가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영화를 더많이 창작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현실적요구에 비추어 볼 때 예술영화《명줄》은 담고 있는 사상적내용이 현실적으로 의의 있고 철학적으로 심오한것으로 하여 커다란 실효성과 영향력을 가진 작품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영화는 혁명전사의 참된 생의 명줄을 잇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인간의 운명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사상을 예술적으로 깊이 있게 해명함으로써 규모는 작지만 철학성이 담보된, 내용이 큰 작품으로 완성되였다.

작품이 내용이 큰 작품으로 되자면 제기한 문제가 심오하고 그것을 풀어 나가는 형상요소들마다에 철학적깊이가 보장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품에서 제기하는 인간의 운명문제가 심각하고 그에 해답을 주는 사상이 심원하며 형상이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헤아릴수 있게 하는 깊이를 가졌을 때 철학성이 있다고 말한다.》

예술영화《명줄》이 내용이 큰 작품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인물관계조직을 통하여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을 깊이 있게 밝혀 낸데서 찾아 볼수 있다.

영화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인물관계는 주인공 진석과 지하조직책임자 림시원, 진석과 그의 애인 초야 그리고 주인공과 죄를 지은 그를 호송하는 유격대원들과의 관계가 기본을 이루고 있다.

이 세 인물관계는 모두 자기의 뚜렷한 몫을 가지고 주인공의 성격과 작품의 사상을 깊이 있게 밝혀 내는데 복종되였다.

영화의 주인공 진석과 림시원의 관계는 처음 스승과 제자의 관계, 혁명의 선배와 후배의 관계로 설정되여 있다. 하지만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앞두고 국내무장대를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방침관철에서 엄중한 과오를 범하게 되자 그들의 관계는 사상적대립관계로 예리화된다. 비록 죽을 죄를 지었지만 살아도 죽어도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찾아가 혁명가답게 저지른 과오를 씻고 참된 혁명전사의 명줄을 잇는가 아니면 혁명가의 량심을 저버리고 투항변절하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사상적으로 대립된 두 인물의 극적인 인간관계, 바로 이것을 통하여 주인공 진석의 혁명적신념과 량심이 심각한 대립속에서 힘 있게 부각되게 되며 한때 오랜 혁명가로, 진석의 스승으로 자처하던 림시원의 기회주의적이고 보신주의적이며 투항주의적인 사상적립장이 날날이 드러나게 되는것이다.

영화는 이들의 관계속에서 드러나는 림시원의 형상을 통하여 혁명적신념과 량심은 결코 오랜 기간 혁명을 하였다고 하여, 아는것이 많다고 하여 고수되는것이 아니며 수령의 사상을 심장으로 지니지 못하면 반혁명의 길에 떨어 지게 된다는것을 심각히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진석의 형상을 통하여 순간이라도 혁명적각성을 늦추고 혁명의 원칙을 망각한다면 적들의 꾀임수에 속아 넘어 가게 되고 나중에는 혁명에 엄중한 후과를 끼치게 된다는것을 교훈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영화에서는 다음으로 주인공 진석과 그를 사령부로 호송하는 유격대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깊이 있게 보여 주고 있다.

언제나 함께 싸우던 전우가 엄청난 죄를 범한것이 너무도 통분하여 진석에게 가슴을 치며 이야기하는 대철의 형상은 사람들에게 강한 충격을 안겨 준다. 그가 진석에게 네가 지은 죄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뭔가.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어긴 죄다. 군중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싸울데 대한 장군님의 사상을 어긴 죄라고 준절하게 타이르는 장면은 관중들에게 모든 일에서 수령의 사상을 어기면 실패를 면치 못한다는 심오한 사상적내용을 안겨 주고 있는것이다.

영화에서는 또한 주인공 진석과 초야와의 관계도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을 깊이 있게 밝혀 낼수 있도록 극적으로 면밀히 조직되여 있다.

주인공 진석과 초야는 약혼한 관계이다. 하지만 진석은 나라 찾는 길에 나설 큰뜻을 품고 애틋한 말 한마디 남김이 없이 초야를 남겨 놓고 집을 떠난다. 이것이 오해로 되여 초야는 진석에 대한 사랑을 증오로 바꾸게 되며 그를 선뜻 용서하지 못한다.

창작가들은 이 극적인 관계를 설정하면서 관중이 초야의 시점에서 주인공 진석의 성격을 파악하도록 형상을 심화시켜 나갔다.

진석을《원쑤》로 규정한 초야는 밀영에 들어 와서야 가정보다 혁명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마음을 느끼고 다시 사랑하나 그가 죄를 짓게 되자 처벌 받는것을 우려하여 사령부로 가는 길을 막아 선다.

그만큼 초야는 아직 사상적준비정도가 어리였던것이다. 그러나 진석이에게서 그가 혁명투쟁과정에 심장으로 간직하게 된 장군님의 사랑을 전해 듣고서야 초야는 비로소 기어이 사령부로 찾아 가려는 그의 심정을 리해하고 뜨겁게 바래우는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영화에서는 인물관계의 규모가 작지만 그속에서 우러나오는 사상적내용은 철학적의미를 담고 있는 큰것으로 산생되였다.

예술영화《명줄》이 사상적내용이 큰 작품으로 될수 있는 비결의 하나는 하나의 엄청난 비극적인 사실을 기본사건으로 설정하여 주인공의 사상적립장을 철학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내보여 준데 있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준비해 나가던 룡천무장대가 진석의 경솔한 처사로 놈들에게 참변을 당하는 극적사건의 설정, 창작가들은 이것이 자칫하면 관중들에게 어두운 감정과 부정적영향을 미칠수도 있는 사건이지만 작품의 종자와 주제사상을 깊이 있게 밝혀 내기 위해, 주인공의 성격을 진실하게 그려 내기 위해 대담하게 그려 나갔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그렸기에 용서 받을수 없는 중죄를 지어 죽음을 앞둔 주인공의 심리세계를 깊이 있게 드러낼수 있었고 앞에서 언급한 세 인물관계가 첨예한 극적관계로 뻗어 나갈수 있었던것이다.

만약 창작가들이 소심성에 사로잡혀 주인공의 죄가 가볍게, 무난한 사건을 설정하였다면 피가 터지게 자신을 질책하는 그의 사상적심리세계를 극적으로 깊이 있게 보여 주지 못할것은 뻔한 사실이다. 참으로 룡천무장대의 참변사건은 비록 죽을 죄를 지었지만 살아도 죽어도 기어이 장군님품에 찾아 가 자기의 죄과를 총화 짓고 그 품에 영생하려는 주인공의 혁명적신념과 량심을 깊이 있게 부각시킨 사건으로서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크게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영화에는 또한 주인공 진석이를 사령부로 호송하던 유격대원들이 적들의 습격에 모두 희생되는 극적사건이 설정되여 있다. 이 사건은 주인공 진석에게 있어서 자기의 명줄을 두번째로 끊어 놓는것과 같이 억이 막힌 사실이 아닐수 없다. 죄를 지은 자기의 처

지에 대하여 그토록 가슴아파하며 엄하게 타일러 주던 혁명동지들. 이제 얼마 안 있어 조국광복성전에 참가해야 할 그들이 자기 같은 죄인을 호송하다 희생된것이 너무도 억울하여 그는 땅을 치며 통곡한다. 그에 못지 않게 더 억울한것은 그들을 자기가 죽였다고 해도 아니라고 증명해 보일수 없는 그것이였다. 하여 절망끝에 진석은 자살을 기도한다. 그러나 그는 쓰러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자기를 믿어 준 동지들을 위해서도 정다운 어머니와 애인을 위해서도 절대로 더럽게 죽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기어이 장군님품에 안겨서 죽겠다는 투철한 신념과 량심을 더더욱 가다듬는다.

이렇게 영화에서는 호송대원들이 희생되는 사건을 통하여 진석의 사상감정을 강한 극적굴곡속에 더욱 격조높이 보여 주었으며 따라서 작품의 내용을 감동 깊게 돋구어 나갔다.

예술영화《명줄》이 규모는 작아도 내용이 큰 작품으로 된것은 작품의 생리에 맞게 회상수법과 비약, 함축의 수법을 적절히 배합하여 작품의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심도 있게 하고 여운을 강하게 한데서도 찾아 볼수 있다.

영화는 사건론리, 성격론리에 따르는 생활세부들중에서 중심적인 장면들을 회상형식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즉 주인공이 림시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밀정을 끌어 들임으로써 엄중한 죄를 범하는 과정과 지난 날《민생단》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을번한 진석을 구원해 주시고 품에 안아 어엿한 혁명가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룡천무장대의 생활을 회상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주인공이 유격대공작원으로 성장한 과정, 초야가 무장대에 의해 구원되여 밀영으로 들어 오게 된 과정, 밀영이 불탄후 림시원의 사상적변질과정과 초야의 그후 생활, 사령부가 있는 백두산에 다달은 주인공의 그후 과정을 대담하게 비약, 함축시켜 군더더기를 피하고 작품의 사상을 명백하고 여운 있게 처리하였다.

만약 이 영화를 순차식구성법으로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을 유격대입대전 생활로부터 그가 과오를 범하고 사령부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일일이 순차적으로 형상하였다면 작품의 규모가 커지고 뒤가 빤드름하여 관중은 극적흥미를 잃게 될것이며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심오히 받아 들일수 없었을것이다.

참으로 예술영화《명줄》은 형상을 집약화, 집중화하여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대작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주체적문예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한번 뚜렷이 확증함으로써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속에 또하나의 귀중한 경험을 남긴 성과작으로 되였다.

평 론

형상의 진실성

텔레비죤련속극《열망》을 보고

조 성 근

텔레비죤련속극《열망》을 본 사람들은 너나 없이 말한다.

《참 좋다》,《우리의 생활그대로이다》.

사람들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찬탄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것인가.

사람들은 진실만을 인정하며 진실앞에서만 감동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아무리 묘사가 세련되고 구성이 째인 작품이라하여도 그것이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지 못한것이라면 쓸모가 없다.》

이 작품을 두고 제일 먼저 평가할점은 뭐니뭐니해도 우리 생활에 대한 진실한 반영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소설가 김문창의 장편소설《열망》을 각색한 이 작품은 우리 시대, 우리 생활을 툭 털어 놓고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런것으로 하여 작품은 시작되면서 벌써 관객과 한덩어리가 되였다고 볼수 있다.

사람들은 작품에서 자기 시대, 자기 모습을 볼것을 간절히 바란다. 먼 시대가 아니라 자기가 사는 시대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더 절실히 요구하며 자기 시대, 자기 생활의 참의미를 확인했을 때 그토록 기뻐 한다.

관중은 작품을 통해 우리가 헤쳐 온《고난의 행군》시기를 본다. 70년대도 80년대도 아니고 90년대 중엽에 겪어야만 했던《고난의 행군》이라는 엄혹하고 준엄했던 시기를 심장으로 감득해 본다.

참으로 이 시기가 길었던가, 짧았던가.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했으며 무엇을 타매했던가. 이 시대에 우리 어떻게 살아 왔으며 무엇을 지향했던가. 우리 무엇때문에 기뻐 했고 또 무엇때문에 괴로와 했던가. 무엇을 사랑했고 무엇을 증오했던가.…

관중은 주인공들과 함께 우리 시대를, 우리 생활을 갈피갈피 헤쳐 본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 한다.

작품의 이야기는 우리 나라 북부의 어느 한 탄광기계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벌린 대상설비생산과 선압기를 비롯한 현대적기계수단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투쟁이지만 관중은 자신이 주인공들이 되여 자기 단위, 자기 일터에서 자기 모습을 보며 울고 웃으며 환성을 지르는것이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화면마다 풍기는 형상앞에서 우리 사상, 우리 정신의 위대성과 정당성을 확인했으며 주인공들의 모습에서 우리 인민들의 참된 모습을 보았다.

《책임비서 전영범은 꼭 우리 당비서야》,《지배인 최관형에 비해 우리 책임자는 뭔가 부족해》,《주강직장 전기로작업반장(후에 직장장) 김형우의 모습은 그대로 마지막피방울까지 당을 위해 바치고 간 우리 단위 리동무의 모습이야》,《기사장 강형모 그리고 후방부지배인은 흡사 누구누구와 같애》.

관중은 눈앞에 펼쳐 지는 시련의 시기앞에서 제나름의 사색에 잠긴다.

정말로 우리가 주인공들이 된 이《고난의 행군》은 어떤 시기였던가.

세상에 못된 놈들은 우리 사회주의가 무너지기를 바랐고 우리 인민이 굶어 죽기를 바랐다.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와 위협은 얼마나 지독했고 또 자연은 얼마나 횡포한 재난을 들씌웠던가. 남들 같으면 몇번이고 죽어 넘어 지고 무릎을 꿇었을 이 최악의 시련속에서 우리는 작품의 주인공들처럼 풀죽을 먹고 통강냉이를 씹으면서 기어이 벋디디고 일어 섰고 우리 수령님 한생이 어린 붉은기를 더욱 높이 추켜 들었다.

우리가 이《고난의 행군》에서 쓰러지지 않고 승리자가 될수 있은것은 다 우리 장군님덕이였다.

자주적인민으로 승리하느냐 아니면 거꾸러 져 제국주의자들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이 판가리시기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운명,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작품에서 보다싶이 인민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열을 주시였다. 5년세월 최전선길에서 우리 장군님은 인민들생각에 자그마한 줴기밥도 제대로 못 드셨고 짧디짧은 쪽잠도 편히 주무시지 못하시였다.

그래서 우리 인민들은 거연히 일어 섰다.

위대한 장군님 사상을 지켜 더더욱 붉어 졌고 장군님 신념을 닮아 백배로 억세 졌고 장군님사랑에 하나의 식솔로 더욱 화목해 졌다.

작품이 펼친 현실은 바로 우리가 창조한 이 위대한 현실과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실한 화폭을 통하여 자기 사상, 자기 신념, 자기 생활방식의 정당성을 가슴뿌듯이 느낀다.

자기 시대의 거창함을 확인시켜 주고 자기 삶의 진미를 안겨 주는 텔레비죤련속극《열망》, 이런 의미에서 관중은 창작가들을 칭찬한다.

진실성, 이는 당정책에 대한 민감한 반영에 있었다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고 정신이 맑아 진다고 하는것은 다름아닌 우리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형상으로 꽃 피운 거기에 있다.

종자도 주제도 성격도 이야기줄거리도 모두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그대로 담았다. 그래서 관중이 좋아 한다.

당정책이자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생활이자 당의 로선과 정책의 구현이다.

작품은《고난의 행군》의 주인공들의 생활과 투쟁을 철저히 당정책에 기초하여 그리고 있다.

우리 장군님께서《고난의 행군》의 나날 당정책의 운명이 일군들의 어깨우에 지워 져 있다고 그 얼마나 가르치셨던가. 창작가들은 장군님의 이 말씀을 성격창조에 모를 박아 실현시켰다.

책임비서 전영범, 지배인 최관형, 직장장 김형우의 모습은《돌격앞으로!》가 아니라《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현자들이다. 기업소에 들이닥친 엄중한 난관-전기, 석탄이 모자랐고 쇠를 녹일 전극도 보장되지 않는다. 또 말할수 없는 식량사정…: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이다. 주저 앉느냐, 아니면 일어 서느냐. 현실은 심각한 물음을 제기한다.

작품은 이 문제에 힘 있는 대답을 준다.《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달려야 한다》고.

책임비서 전영범-그는 오늘 우리 당이 요구하는 당일군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 준 인물인것으로 하여 참으로 인상 깊다. 그의 위치는 언제나 대오의 일선이다.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틀어 쥐고 그것을 관철할수 있는 가장 실속 있고 과학적인 방도를 찾으며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 떠민다.

자력갱생, 이는 그의 투쟁기풍이였고 사람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것은 그의 사업방법이였다.

그가 뛰니 가열로의 개조도, 8개 기업소의 대상설비도 선압기도 다 만들어 졌으며 그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피니 기사장 강형모도 직장장 윤병암도 연구사 강필훈도 패배주의를 털어 버리고 다시 소생했으며 그가 내세워 주니 설계원 한석민도 가열공 옥련이도 새로운 위훈을 창조한다.

지배인 최관형은 맵시 있는 경제실무일군이다. 경제사업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 실속 있는 조직사업,

그는 경제관리 , 생산활동에서 실리를 가장 중시한다.

당면한 생산만 아니라 앞으로의 더 큰 생산을 위해 정확하게 타산하고 배짱 있게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 일군, 그에 의해 타산 없는 자체 전극생산이 취소되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일로 관심하시는 선압기생산이 작전되고 실천되여 간다.

책임비서, 지배인은 종업원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식량문제를 풀기 위해 아글타글하며 로동자, 기술자들과 꼭같이 생활한다. 이들의 형상은 당정책관철의 운명이 일군들의 어깨우에 지워 져 있다고 하신 우리 장군님의 말씀의 위대성을 힘 있게 확인했다.

우리 장군님께서《고난의 행군》의 어려운 시기 과학을 얼마나 중시하시였던가.

창작가들은 또한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형상의 전 고리에서 꽃 피워 냈다.

한석민설계원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기대, 강필훈연구사에 대한 뼈 아픈 질책과 고무, 가열공 옥란에 대한 믿음과 기쁨 등 책임비서의 희로애락은 과학자, 기술자들과 련관되여 있다.

그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경원시하는 사람들에게 준절히 말한다.《당일군이나 행정일군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과학과 기술사업은 누구나 할수 없다》고…

한석민설계원의 소심성, 강필훈의 기술에 대한 사대성은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에 의해 극복되여 나가며 그들은 드디여 승리자가 된다.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 뜨거운 사랑이 없었다면 그들이 어찌 최첨단기술의 집합체인 선압기를 우리 식으로 만들어 낼수 있었으랴.

작품에서는 이렇게 당의 과학중시사상이 힘 있게 뿜어 나온다.

우리 장군님께서《고난의 행군》의 나날 간부들의 관료화와《특세》를 얼마나 경계하셨던가.

창작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중한 대답을 주기 위해 여러모로 애 썼다.

기업소적인 명절날 후방부에서는 명절공급물자를 일정하게 내주었는데 책임비서집, 지배인집, 기사장집에는 엄청난 량을 후방부지배인이 직접 실어까지 온다.

집에 들어 와 사태를 일별한 책임비서는 후방부지배인을 찾아 따지며 일반공급량을 초과한것은 모두 후방부에 가져 가라고 한후 딸에게 말한다.

《책임비서집이라고 해서 남들이 10개를 먹을 때 15을 먹어서는 안된다》는 전영범의 말.

작품에서는 간부이기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것이 아니라 간부이기때문에 인민들과 꼭같이 생사고락을 해야 한다는 당의 사상을 얼마나 진실하게 펼쳐 보였는가.

전영범. 그는 아들의 혼사도 대상집의 지체가 아니라 본인의 참모습을 보고 결정하는 진짜배기당일군이다.

당의 사상, 당의 의도가 푹푹 풍겨 나오는 이런 화폭을 보며 관중은 가슴 후련해 하며 당에 대한 고마움을 금치 못하는것이다.

생활의 진실성, 이것 역시 당정책에 대한 민감한 반영에 있었다.

진실한 관계, 아름다운 모습

인정에 우는것이 사람이다.

관객은 김형우가정을 둘러 싼 책임비서와 안명신기사의 모습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사업상관계를 초월한 이 모습, 이것은 못 먹어도 다 같이 못 먹고 잘 살아도 다 같이 잘 살며 서로 위하고 바치며 그대로 장군님식솔로 살아 가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진실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가슴 뜨겁다.

터진 랭각관을 몸으로 막아 전기로를 구원하고 최후를 마치는 김형우, 그는 불 같은 사람이였다.

가장 힘들 때 안해를 잃고 룡화, 룡남이 두 어린것에게 집을 맡겨 두고 줄창 직장에 나가 생산정상화를 위해 애 써 온 사람, 아이들이 끓여 주는 통강냉이죽도 달게 들면서 오직 하나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 드릴 일념으로 살아 온 사람이였다.

관중은 김형우의 모습앞에서 그리고 아버지와 어린 자식들간의 오가는 인정선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 가정을 살펴 주고 품어 주는 책임비서와 안명신의 모습앞에서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본다.

어머니, 아버지를 잃은 룡화, 룡남이의 운명은 불행했던가.

아니다.

위대한 장군님 계시여 두 오누이는 불쌍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았다. 우리 장군님께서 그들의 작은 가슴에 영웅메달을 달아 주셨고 혁명학원에 불러 주신다. 그들의 진정한 아버지는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관객은 장군님은정이 너무 고마와 울고 운다.

이 관계야말로 위대한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화목하게 살아 가는 우리 사회의 진실한 모습이였다.

전영범, 김형우, 안명신… 정말로 아름다운 인간들이다.

안명신과 같은 처녀가 있을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 본다.

아마 실련당한 처지에 홀아비자식들에게 정을 주고 어머니가 되려고 하며 자기를 배반했던 남자를 용서해 주고 행복해 지기를 바라는 그런 처녀가 있을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일것이다.

있다. 있어도 너무도 많다.

90년대에 꽃 핀 수많은 공산주의미풍선구자들은 그대로《안명신》들이다. 여기에 이 인물성격의 진실성이 있고 아름다움의 높이가 있다.

관중은 마지막에 안명신과 강필훈이 다시 결합되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안명신은 강필훈을 리혼한 안해 미영에게 떠밀며 그들의 행복을 바란다.

얼마나 지성 있고 아름다운 처녀인가.

자신의 모든것을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 살아 가는 처녀, 이런 사람들을 우리 장군님께서 키워 주셨다. 그래서 안명신의 성격이 진실한것이며 그래서 아름다운것이며 관중들을 끝없이 감동시키는것이다.

이처럼 텔레비죤련속극《열망》은 우리 시대의 모습, 우리 생활의 의미, 우리 인민들의 모습을 정면에서 진실하게 그린것으로 하여 사람들이 그처럼 좋아 하는것이다.

관중은 진실을 요구한다.

영화예술부문소식

영화상영순간진행

2월의 명절을 맞으며

2.16경축 영화상영순간이 2월 10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맞으며 진행된 영화상영순간에 인민문화궁전, 대동문영화관, 개선영화관, 락원영화관을 비롯한 수도 평양과 전국의 모든 영화상영단위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백두산밀영에서 주체의 태양으로 솟아 오르시여 시대와 혁명, 조국와 인민을 위한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이 땅우에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은 인민으로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끊임 없는 로고를 바쳐 가고 계시는 불멸의 업적과 숭고한 풍모를 보여 주는 기록영화들이 상영되였다.

그가운데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령도해 나가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혁명전사들의 참된 삶을 빛내여 주고 계시는 감동 깊은 화폭을 수록한 기록영화들인《빛나는 삶의 품》과《위대한 령장을 모시여》,《조선의 신념》,《만민의 흠모》,《백두광명성》,《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등이 들어 있다.

영화상영순간에는 또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시대의 기념비적걸작으로 창작완성된 다부작예술영화《민족과 운명》의 련속편들과《밀림이 설레인다》,《보증》,《꽃에 깃든 사연》,《줄기는 뿌리에서 자란다》,《당원증》,《비행사 길영조》를 비롯한 많은 예술영화들이 상영되였다.

영화상영순간개막식이 2월 1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문화성 조찬구부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기록영화를 관람하였다.

태양절을 기념하여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기념하여 영화상영순간이 진행되였다.

영화상영순간에 전국의 모든 영화상영단위들에서는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혁명실천으로 우리 민족과 인류의 운명개척의 위대한 전환의 새 력사를 창조하시였으며 자주시대의 년대기에 영구불멸의 세계사적업적을 쌓아 올리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혁명활동을 보여 주는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어버이수령님 로동계급과 함께 계시여》,《위대한 력사》등의 기록영화들과 예술영화《조선의 별》,《화성의숙에서의 한해여름》,《민족의 태양》,《밀림이 설레인다》,《백두산》을 비롯하여 이번에 상영된 영화들은 80여성상 조국의 륭성번영과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치신 경애하는 수령님은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시조이시며 전국의 위대한 어버이이시라는것을 감명 깊은 화폭으로 보여 주었다.

사상도 령도풍모도 덕망도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고매한 위인적풍모와 불철주야의 혁명활동을 수록한 기록영화들이 영화상영순간에 상영되였다.

또한 다부작예술영화《민족과 운명》의 련속편들과《해빛이 그리워》,《인생의 봄》,《위대한 품》등의 예술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태양절기념 영화상영순간 개막모임이 4월 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개막모임에는 관계부문 일군들과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문화성 조찬구부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개막모임이 끝난 다음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각도들에서도 영화상영순간개막모임들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영화상영순간이 진행되였다.

영화상영순간에 전국의 모든 영화상영단위들에서는 한평생 오로지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보여 주는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그가운데는《어버이수령님 로동계급과 함께 계시여》,《어버이수령님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계시여》,《어버이수령님 지식인들과 함께 계시여》,《위대한 력사》를 비롯하여 인민의 수령으로서의 어버이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와 한없이 고매한 인민적풍모를 수록한 기록영화들과《조선의 별》,《민족의 태양》,《백두산》,《잊을수 없는 나날에》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예술적화폭으로 감명 깊게 형상한 예술영화들이 들어 있다.

또한 강성대국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선군혁명령도로 인민군부대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 가시며 승리만을 안아 오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혁명활동을 보여 주는 영화들도 상영되였다.

영화상영순간개막식이 7월 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 창작가, 예술인들,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문화성 조찬구부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기록영화《어버이수령님 군인들과 함께 계시여》, 예술영화《밀림이 설레인다》 제8부가 상영되였다.

뜻 깊은 10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2돐과 당창건 54돐,《ㅌ.ㄷ》결성 73돐에 즈음하여 영화상영순간이 진행되였다.

영화상영순간에 전국의 모든 영화상영단위들에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국광복을 이룩하시고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시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 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고매한 령도풍모를 보여 주는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전당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 오시였으며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속에 우리 당 총비서로 추대되시여 주체혁명과 당건설위업에서 위대한 전환의 새 시대를 펼치신 불멸의 업적과 령도풍모를 보여 주는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그가운데는 기록영화《위대한 계승》,《우리 당을 백전백승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향도》,《위대한 풍모에 매혹되여》,《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등의 영화들이 들어 있다.

영화상영순간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받들어 나가는 우리 당 일군들과 인민들의 충성의 모습을 보여 주는 기록영화《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예술영화《심장에 남는 사람》,《대홍단책임비서》등의 영화들도 상영되였다.

10월 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영화상영개막식에는 관계부문 일군들과 시내 창작가, 예술인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개막사를 강능수문화상이 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기록영화《민족의 끝 없는 영광과 행복》,《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여러 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주체88년 5~6월)가 상영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평양국제영화회관 현지지도 1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평양국제영화회관 현지지도 10돐 기념보고회가 5월 18일에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문화성 조찬구부상, 문화성 당위원회

조명국비서 등 관계부문 일군들, 국립희극단 일군들과 예술인들,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국립희극단 단장 류동남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78(1989)년 5월 18일 새로 건설된 평양국제영화회관을 찾으시여 개관을 선포하시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회관이 웅장화려하면서도 훌륭하게 꾸려 진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회관에서 국제적인 영화축전도 하고 영화예술인들의 무대공연과 영화보급사업도 진행하며 다채로운 국제, 국내 문화행사들도 할데 대한 문제 등 회관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였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그는 풍치 수려한 대동강의 양각도에 일떠선 국제영화회관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시고 형성도안과 설계를 보아 주시면서 지대적특성과 조화를 잘 이루도록 건축물의 종자를 잡아 주시였을뿐아니라 건설 전 과정을 세심히 보살펴 주시여 우리 인민들에게 마련해 주신 문화정서생활의 거점이라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국제영화회관을 국립희극단에 맡겨 주시고 희극단에서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하면서도 우리 인민의 랑만에 넘친 생활을 웃음속에서 진실하게 형상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 공연하도록 크나큰 믿음과 배려를 안겨 주시였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평양국제영화회관이 지난 10년간《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의 평양영화축전》을 비롯한 국제예술행사들과 국립희극단의 1,280여회 공연, 영화배우들의 580여회 공연, 각종 영화 8,570여회 상영 등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고 국제적인 예술교류사업과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기여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현지지도의 자욱이 새겨 져 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살며 일하는 크나큰 긍지와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로 인민들을 적극 고무추동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평양영화기계공장창립 50돐 기념보고회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평양영화기계공장창립 50돐 기념보고회가 2월 2일에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공장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평양영화기계공장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김기남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평양영화기계공장창립 50돐에 즈음하여 공장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주체37(1948)년 12월 24일에 창립된 평양영화기계공장은 지난 50년동안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화기계공업의 위력한 기지로 강화발전되여 맡겨 진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박판압연기, 선재압연기, 연신기를 비롯한 성능 높은 기계설비들을 만들어 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였다고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공장의 로동계급과 일군들이 자력갱생기지들을 꾸리고 내부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 영사기와 조명설비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화기자재들을 수많이 생산공급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공장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현대적인 문화기자재들을 많이 생산하여 우리 당 사상사업과 사회주의문화건설에 적극 이바지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공장지배인 박창근의 기념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인민군 4.25예술영화촬영소창립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인민군 4.25예술영화촬영소창립 40돐 기념보고회가 5월 15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와 장령들, 촬영소 일군들, 창작가, 예술인들, 군인, 종업원들, 인민군 문화예술인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조선인민군 4.25예술영화촬영소 창작가, 예술인들과 군인, 종업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축하문을 조명록동지가 전달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촬영소 윤두환총장의 기념보고에 이어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인민배우 조경순, 공훈배우 백영희가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영화예술부문 주체적문예사상연구모임 진행

주체88(1999)년 영화 및 텔레비존문예물창작총화를 위한 주체적문예사상연구모임(종합)이 12월 29일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경순부부장, 문화성 조찬구부상 등 관계부문 일군들과 영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문화성 조찬구부상이 보고를 하였다.

이어 예술영화《법동농민》의 영화문학 작가 설주용, 예술영화《사랑의 대지》연출가 리관암 등 많은 창작가, 예술인들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이해에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수많은 영화들이 창작되여 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군인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힘 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의 결과이라는데 대하여 한결같이 지적하였다.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을 강성대국건설에로 이끄시는 그토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편한편의 영화들을 보아 주시고 형상창조에서 나타난 성과와 부족점들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였을뿐아니라 몸소 수정대책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영화를 완성시켜 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모임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창작가, 예술인들이 높은 시대정신과 미학관을 지니는 문제, 형상창조에서 철학적깊이와 진실성을 보장하는 문제, 창작가, 예술인들의 실력을 높이는 문제 등 영화창조사업과 관련된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영화창조과정과 결부하여 구체적으로 토의되였다.

또한 영화창작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교훈들이 허심탄의하게 교환되였다.

모임은 새로운 시대적환경에 맞게 당의 의도대로 주체의 영화예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의 하나로 되였다.

이날에 진행된 종합토론에 앞서 조선인민군 4.25예술영화촬영소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조선영화문학창작사와 평양연극영화대학 등 여러 곳에서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창작총화를 위한 주체적문예사상연구모임 부문별 토론회가 진행되였다.

주체88(1999)년 무대예술 개관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력사에 아로새겨 진 주체88(1999)년.

이해는 이 땅우에 기어이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안아 오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이 하나하나 현실로 꽃 펴난 뜻 깊은 해이다.

위대한 선군령도로 력사에 전무후무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시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이룩해 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해에도 그처럼 바쁘신 시간들을 내시여 무대예술부문창작과 공연활동들을 지도해 주시고 가르치심을 주시여 주체의 무대예술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해 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무대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은 온 한해를 현지지도의 길에서 맞고 보내신 경애하는 장군님과 숨결을 함께 하며 장군님의 의지가 맥박치는 공동사설과업관철에 이바지할 무대예술작품창작과 공연활동으로 이해를 빛나게 장식하였다.

아직은 시련도 있고 난관도 있는 어려운 속에서도 래일의 승리를 굳게 믿고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창작과 공연활동을 벌려 나간것은 창작가, 예술인들의 긍지이고 자랑이 아닐수 없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에 매혹되여 수령결사옹위, 수령의 명령지시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을 모든 활동의 근본초석으로 삼은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만이 거둘수 있는 고귀한 결실이다.

예 술 창 작

이해에 무대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은《고난의 행군》, 강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 가기 위한 작품창작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자기를 키워 주고 내세워 주는 당과 수령의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는것을 인간의 도리로, 의리로 여길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을 강성대국건설의 미더운 담당자, 힘 있는 추동자로 내세워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에 명곡, 명작들을 창작하는것으로써 보답하기 위하여 창작가, 예술인들은 창작전투를 힘 있게 벌렸다.

우선 음악예술작품창작에서 성과가 이룩되였다.

가요부문에서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을 못 잊어 그리워 하며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우리 인민들의 한결 같은 마음을 서정적인 선률들에 잘 담은것이다.

보천보전자악단에서 창작한 가요들인《수령님 만고풍상 못 잊습니다》(작사 김명익, 작곡 리종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나라》(작사 송기원, 작곡 리종오), 《영원한 조선의 시간》(작사 주홍, 작곡 우정희), 《해님이 웃을 때면》(작사 황성하, 작곡 전권), 《태양절 봄명절》(작사 정성환, 작곡 우정희), 《수령님 그리는 마음》(작사 전진, 작곡 박진국),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에서 창작한 가요《수령님은 밝은 미소 보내시네》(작사 윤두근, 작곡 리광오), 만수대예술단에서 창작한 가요《수령님생각》(작사 류동호, 작곡 한성희) 등이 그러한 작품이다.

특히 가요《수령님 만고풍상 못 잊습니다》는 이 땅 그 어디를 찾아 가 봐도 수령님의 로고가 깃들지 않은 곳이 없기에 수령님을 더욱더 못 견디게 그리워 하는 우리 인민의 한결 같은 절절한 마음을 가사와 선률에 잘 밀착시켰다.

그 어느 때보다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가 더 많이 창작되여 명곡으로 불리워 지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못 잊어 하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이 날을 따라 더해만 가고 있고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 같은 신념은 억년 드놀지 않는다는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가요부문에서의 성과는 다음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끝까지 충성 다해 나가려는 우리 인민들의 사상감정을 잘 반영한 명곡들이 많이 창작된것이다.

가요들인《우리 따르네》(작사 강옥미, 작곡 전권), 《노래하세 친근한 인민의 장군》(작사 최준경, 작곡 황진영), 《정말로 오실줄이야》(작사 김명익, 작곡 리종오), 《장군님 만나 뵈온 그날에 살리》(작사 리광춘, 작곡 황진영),《인민의 축원을 받으시라》(안정호 작사, 작곡), 《장군님 초소에 모신 날》(작사 최준경, 작곡 계훈경), 《장군님은 위대한 수호자》(작사 리지성, 작곡 엄하진), 《천리방선 초병들은 아침인사 드리네》(작사 최준경, 작곡 김광훈), 《장군님과 함께라면》(작사 윤두근, 작곡 오병선)이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또한 가요부문에서의 성과는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 가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시대정신이 맥박치게 잘 반영한것이다.

가요들인《불패의 강국이여 앞으로》(작사 최준경, 작곡 엄하진), 《더 좋은 래일로》(작사 윤두근, 작곡 리광오), 《총대로 받들리 우리의 강성대국》(작사 김정훈, 작곡 강승웅), 《준마처녀》(작사 리광숙, 작곡 안정호), 《조선의 그 이름 하늘에 새겼네》(작사 류동호, 작곡 안정호) 등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이 땅우에 반드시 주체의 강성대국을 이룩해 갈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잘 반영한 작품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외에도 가요부문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가요들이 많이 창작되여 명곡으로 불리워 짐으로써 가요에

술의 보물고를 더욱 풍만하게 하고 우리 인민들에게 크나큰 힘과 고무를 안겨 주었다.

음악예술작품창작에서 또 하나의 성과는 여러가지 형식의 기악작품들이 많이 창작된것이다.

왕재산경음악단, 국립교향악단을 비롯한 여러 예술단체들에서는 명곡들을 여러 형식에 담아 편곡을 잘하여 형상함으로써 명곡의 선률을 살리면서도 사상예술성이 높고 품위 있는 기악작품들을 내놓았다.

피아노독주를 위한 경음악《하늘처럼 믿고 삽니다》(편곡 리영일, 김운룡), 바이올린협주곡《장군님식솔》(편곡 김연규), 녀성기악중주《그대밖에 내 몰라라》(편곡 차성철), 남성기악《젊음은 급행렬차》(편곡 박진국), 관현악《조선의 장군》(편곡 김용), 취주악《오늘도 7련대는 우리 앞에 있어라》(편곡 황철웅), 바이올린2중주《우리 님 영웅되셨네》(편곡 리한우)를 비롯한 수많은 기악곡들은 창작가들이 불 타는 열정을 지니고 새롭게 창작한 작품들로써 이해 기악작품창작의 면모를 엿볼수 있게 한다.

기악작품창작에서의 성과는 또한 제한된 예술단체들에서만 창작하던 현상이 없어 지고 모든 예술단체들에서 기악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벌려 좋은 성과를 거둔것이다.

윤이상음악연구소 관현악단에서는 실내관현악단의 특성에 맞게 현악합주, 바이올린합주, 바이올린2중주 등 여러 형식의 작품창작사업을 잘 조직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무대예술작품창작에서 거둔 성과는 다음으로 민족성을 살리면서도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무용 및 가무, 교예작품들이 창작되여 주체예술의 화원을 이채롭게 장식한것이다.

조선인민군협주단의 남성군무《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안무 김일룡), 인민보안성협주단의 녀성군무《정일봉 너를 닮으리》(안무 한금이), 만수대예술단의 혼성가무《웃음꽃이 만발했네》(안무 김해춘), 피바다가극단의 발레무용《은빛날개》(안무 박정민), 국립민족예술단의 녀성군무《모란봉》(안무 엄영춘)을 비롯하여 창작된 모든 형식의 무용과 가무작품들은 우리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투쟁모습을 다양한 주제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교예작품창작에서도 좋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교예부문 창작가들은 체력교예를 위주로 하면서 요술과 막간극, 동물교예 등 여러 형식의 교예작품들을 창작하여 교예예술의 다면성을 보여 주고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는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더 한층 북돋아 주었다.

교예작품창작의 성과는 요술작품창작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평양교예단의 요술창작가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물리치면서 짧은 기간에 많은 요술작품들을 창작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도를 받는 영광을 지니였다.

이해 1월 11일과 3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이 창작한 요술작품들을 보아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아주 잘한다고 짧은 기간에 새 작품들을 창작한데 대하여 만족해 하시면서 모든 작품들이 다 새롭고 특색이 있다는 과분한 평가를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요술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한 과업과 그 실현을 위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환히 밝혀 주시였다.

평양교예단 요술창작가, 예술인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몸 가까이 모시고 자기들의 작품을 보여 드려 기쁨을 드린것은 무대예술부문의 커다란 자랑이고 긍지이다.

다음으로 극작품창작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 창조한 경희극《동지》는 이해 극작품창작에서 최고의 성과작이다.

경희극《동지》는 우리 인민군대가 지니고 있는 정치사상적위력의 기초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혁명적동지애가 인민군대의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된다는것을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해명한 작품이다. 작품은 사상예술성이 비상히 높은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격동도 있는 특색 있는 작품으로서 지금까지 나온 경희극들가운데서 제일 잘된 명작중의 명작이다.

극부문에서는 또한 제8차 전국연극축전을 계기로 우리 인민들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혁명적인생관을 반영한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장막, 중막, 단막극들과 다양한 형식의 화술소품, 인형극 등 창작된 극작품들은 인민들과 군인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무장시키고 당정책관철에로 불러 일으키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이렇듯 무대예술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은《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 가 창작활동을 힘 있게 벌려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예 술 공 연

이해에 무대예술공연활동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성과는 무엇보다 모든 공연활동을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혁명적동지애와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는 혁명적락관주의로 일관시켜 경애하는 장군님께 여러 차례 기쁨을 드린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해 정초부터 온 한해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면서도 여러 형식의 무대예술공연들을 보아 주시고 예술인들과 근로자들, 군인들의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해 주시였으며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을 당정책관철에로 고무추동하는 전투적인 공연활동을 벌리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예술인들은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공연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이해에도 7차례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공연을 보여 드리고 치하를 받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였다.

공훈합창단의 공연은 매번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전투성과 호소성으로 일관되여 있으며 선창자들이건, 합창자들이건, 반주자들이건 모두가 기량이 높고 형상수준이 대단히 높은것이 특징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이 매번 공연에서 자신의 사상과 의지를 대변하고 자신께서 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다 한다고 말씀하시며 그처럼 만족해 하신다.

공훈합창단의 곡목은 다종다양하며 그 어떤 노래이든 훌륭하게 형상해 낸다.

이것은 위대한 선군령도가 안아 온 고귀한 결실이며 예술인들의 피 타는 노력의 결과이다.

조선인민군 4.25예술영화촬영소 예술인들도 경희극《동지》를 훌륭히 형상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들의 공연을 2차례나 보아 주시고 사상예술성이 높게 형상하고 공연활동을 힘있게 벌린데 대하여 대단히 만족해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큰 감화력과 견인력을 가지고 있는 경희극《동지》공연을 200회까지 하여 더 많은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보여 줄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희극《동지》의 창조자들은 최전연부대들과 지방의 여러 도시들에서 적극적인 공연활동을 벌림으로써 우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인 일심단결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는데 심오한 해답을 주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강성대국건설투쟁에 힘차게 떨쳐 나서도록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을 고무추동하였다.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 예술선전대, 제549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 제313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 조선인민군 청년기동선전대, 제2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 참가자들, 강계지구 로동자예술소조원들, 조선인민군교예단 예술인들도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충만되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을 힘 있게 벌리는 자기들의 모습을 담은 공연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여 드리고 기쁨을 드리였다.

예술공연에서 이룩된 성과는 또한 중앙과 지방의 예술단체들에서 자기 단체의 특성에 맞게 경축 및 기념공연들을 활발히 진행한것이다.

중앙과 각도의 모든 예술단체들에서는 태양절,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기념일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5돐, 조선인민군창건 67돐을 비롯한 여러 국가적명절과 기념일들을 경축하는 기념공연들과 위대한 수령님 서거 5돐《회고의 밤》공연을 매 예술단체의 얼굴과 특색을 살린 예술공연으로 빛나게 장식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다채로운 공연활동으로 강성대국건설에 떨쳐 나선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하였다.

국립연극단의 예술인들은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군건설업적을 형상한 혁명연극《어머님의 당부》를 무대에 올렸으며 만수대예술단, 피바다가극단, 국립민족예술단의 예술인들은 음악무용종합공연들과 혁명가극《사랑의 바다》,《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민족가극《박씨부인전》,《심청전》, 가무조곡《내 나라 제일로 좋아》등의 형상을 세련시켜 공연을 진행하였다.

국립교향악단의 예술인들도 큰 규모의 관현악작품들과 소품들을 가지고 째인 안삼불과 세련된 기교로 공연무대를 다채롭게 장식하였다.

하기에 국립교향악단의 음악회를 보고 난 미국의 대중가요가수인 로져 클린톤은 세계1등급의 교향악단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의 예술인들은 세계 5대륙의 예술인들이 참가한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과 제10차 8.15범민족통일대축전의 공연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 안았다.

이것은 무대예술부문 예술인들의 공연활동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이고 사랑이다.

공연활동에서 이룩된 성과는 다음으로 예술인들이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 가 정치선전, 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진행한것이다.

문화성 예술인경제선동대와 피바다가극단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예술단체들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경제선동의 봉화를 지펴 주신 승리자동차종합공장을 비롯하여 백두산3대장군의 령도업적단위들과 전력, 석탄, 철도운수, 농업, 토지정리전투장 등 인민경제 기간공업부문들에 달려 나가 다양한 경제선동을 힘 있게 벌렸다.

이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자나깨나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믿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려는 절대적인 숭배심, 그 어떤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물러 서지 않고 과감히 뚫고 나가는 혁명적기질, 견인불발의 의지와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웃으며 난관을 맞받아 나가는 혁명적락관주의 등 우리 시대영웅들의 고결한 사상정신적풍모를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에로 힘있게 불러 일으킴으로써 제2의천리마대진군을 힘 있게 벌려 강성대국건설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는 력사적위업에 참답게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해 경제선동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문화성 예술인경제선동대원들과 피바다가극단 경제선동대원들에게 보내주신 감사와 은정어린 선물은 이들에 대한 최대의 평가이다.

무대예술공연활동에서 이룩한 성과는 다음으로 주체예술의 위력을 대외에 널리 시위한것이다.

제7차 중국오교국제교예예술축전에 참가한 평양교예단의 예술인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온 30여종목의 경연작품들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아《공중철봉비행》은 제1위를 하고《금사자상》을 받았으며 명

예작품《비행가들》과 막간극《네다리재주》는 각각 《금사자영예상》과《특별상》을 수여 받았다.

또한 평양교예단의 예술인들은 이딸리아, 뽀르뚜갈, 도이췰란드, 네데를란드, 프랑스를 방문하여 교예공연을 대성황리에 진행함으로써 해당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교예예술의 발전면모를 자랑스럽게 시위하였다.

피바다가극단의 예술인들과 윤이상관현악단의 연주가들도 중국과 도이췰란드를 방문하여 음악무용종합공연과 연주회를 진행함으로써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해 무대예술공연활동에서 특이한것은 그 어느 해보다 독창회, 독무회가 더 많이 진행되여 우리의 예술무대를 다채롭게 장식한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속에서 마련된 홍정화독무회, 오매훈독창회, 최청희독창회, 리정언음악회, 리건우음악회는 창작가, 예술인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의 응결체, 예술인들의 행복의 무대였다.

하기에 독창회에 출연한 오매훈은 70고령의 나이지만 오직 당만을 믿고 변함없이 살아 온 자기를 다시 무대에 세워 주시고 온갖 사랑을 다 안겨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 충성의 노래를 심장으로 불렀으며 독무회에 출연한 홍정화도 자기의 생일 60돐을 계기로 독무회를 마련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행복의 률동을 펼쳐 놓았다.

떠나간 창작가, 예술인들도 잊지 않으시고 음악회를 마련해 주신 그 사랑에 관람자들도 가족들도 숭엄한 세계에 휩싸여 격정으로 눈굽을 적시였다.

이해 군중예술공연활동도 활발히 벌어 졌다.

국가적명절과 기념일들을 계기로 전국로동자예술소조종합공연, 전국농업근로자예술소조공연, 녀맹예술소조종합공연, 학생소년예술소조종합공연 등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다채로운 예술공연들이 진행되여 군중예술발전의 면모를 자랑차게 시위하였다.

황해남도안의 녀맹원들은 큰 규모의 합창단을 무어 가지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나가 공연활동을 활발히 벌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 안았다.

각도의 예술선전대원들은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장과 토지정리전투장들에 달려 나가 공연활동을 벌리였고 대학생들과 학생소년들도 예술소품공연과 취주악으로 강성대국건설전투장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도록 고무추동하였다.

이해 무대예술공연활동에서 이룩된 성과는 이밖에도 적지 않다.

제9차《2.16예술상》개인경연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전국음악무용축전, 제1차 전국요술축전, 제8차 전국연극축전, 각도 예술선전대경연, 제2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 전국 근로자들의 민족음악무용소품경연 등 축전과 경연이 이채를 띠고 활발히 벌어지고 종합공연들을 진행함으로써 예술무대를 더욱 풍만하고 다양하게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

무대예술부문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는 전적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하고도 정력적인 지도의 자랑찬 결실이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끊임 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나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무대예술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시고 그 실현에로 힘 있게 불러 일으키시였다.

창작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살리고 선률을 우리 식대로 쓸데 대한 문제, 창작가도 생각 못했던 경희극장면의 부족점을 대번에 포착하시고 고쳐 주신 이야기, 합창반주에서 손풍금의 역할을 높이자면 편곡단계에서부터 손풍금을 살려 쓸데 대한 문제, 요술작품창작에서 반주음악을 잘 쓰는데 주의를 돌릴데 대한 문제 등 실로 빛나는 예지로 창작가, 예술인들의 눈을 틔워 주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에서 형상한 노래《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를 들으시며 눈물이 나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고 하시며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때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힘을 얻군 하였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가수들이 노래를 잘 부른데 대하여 치하도 해주시고 목을 아끼라고 다심한 사랑도 부어 주시였으며 배우들이 연기를 개성적으로 잘한다고 이름까지 불러 가시며 치하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참으로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처럼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천재적인 예지와 빛나는 령도로 무대예술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시고 걸음걸음 따뜻이 이끌어 주시는 위대한 령도자는 이 세상에 없으며 우리의 장군님처럼 창작가, 예술인 한사람한사람을 어버이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시는 인민의 령도자는 없다.

하기에 우리 무대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은 온 한해를 위대한 사랑과 현명한 령도로 수 놓아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한 없는 고마움과 그리움에 목이 메여 다함 없는 감사의 노래, 충성의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는것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해 무대예술발전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라장윤

주체88(1999)년에 창작된 무대예술작품 주요목록

음 악

가요

예술단체	형 식	제 목	작사	작곡	출 연
보천보전자악단	녀성독창과 녀성방창	희망의 등대	조창제	황진영	윤혜영, 녀성방창조
	녀성독창과 혼성방창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나라	송기원	리종오	김광숙, 혼성방창조
	녀성독창과 녀성방창	나는 초병의 안해	김선지	박진국	김정녀, 녀성방창조
	녀성독창	영원한 조선의 시간	주 홍	우정희	전 혜 영
	녀성독창	나는 심장에 물으며 사네	강일진	안정호	김 광 숙
	녀성독창과 방창	우리의 사회주의 세상에 으뜸일세	안정기	전 권	김 정 녀
	녀성독창과 방창	수령님 만고풍상 못 잊습니다	김명익	리종오	김 정 녀
	녀성4중창	노래하세 친근한 인민의 장군	최준경	황진영	전혜영, 김광숙, 김정녀, 윤혜영
	녀성독창과 혼성방창	정일봉의 밤이여	윤두근	안정호	조금화, 혼성방창조
	녀성3중창과 남성방창	우리는 태양의 영원한 노을	장선국	박진국	전혜영, 김정녀, 윤혜영, 남성방창조
	녀성독창과 녀성방창	정말로 오실줄이야	김명익	리종오	전혜영, 녀성방창조
	녀성독창	행복의 요람	김은숙	황진영	김 정 녀
	녀성독창과 녀성방창	나의 고향집	전동우	안정호	전혜영, 녀성방창조
	녀성독창과 혼성방창	정일봉의 봄맞이	윤두근	안정호	김정녀, 혼성방창조
	녀성독창과 녀성방창	우리 따르네	강옥녀	전 권	김정녀, 녀성방창조
	녀성독창과 혼성방창	영원한 조선의 맹세	최경국	안정호	조금화, 혼성방창조
	녀성독창과 남성방창	군가에 발을 맞추자	리 석	황진영	윤혜영, 남성방창조
	녀성독창과 녀성방창	해님이 웃을 때면	황성하	전 권	김정녀, 녀성방창조

예술단체	형 식	제 목	작사	작곡	출 연
	녀성독창과 혼성방창	태양절 봄명절	정성환	우정희	김정녀, 혼성방창조
	녀성독창과 녀성방창	수령님 그리는 마음	전 진	박진국	윤혜영, 녀성방창조
	녀성독창과 녀성방창	장군님품은 우리 삶의 요람	배정순	전 권	전혜영, 녀성방창조
	녀성독창과 혼성방창	병사들은 노래하네 우리의 최고사령관	최준경	리종오	김광숙, 혼성방창조
	녀성독창과 남성방창	우리네 위성이 하늘에 떴소	김경기	리종오	김정녀, 남성방창조
보천보전자악단	녀성2중창과 남성방창	장군님 만나뵈온 그날에 살리	리광춘	황진영	전혜영, 김정녀, 남성방창조
	녀성독창과 혼성방창	룡남산을 나는 사랑해	전병구	안정호	윤혜영, 혼성방창조
	녀 독 창	막내손자 비행사라네	림공식	박진국	조 금 화
	녀성독창과 녀성방창	그이품엔 봄날만 있네	안근배	리종오	전혜영, 녀성방창조
	녀성독창과 녀성방창	준마처녀	리광숙	안정호	현송월, 녀성방창조
	녀성독창과 녀성방창	충신의 한 모습	허룡갑	황진영	김정녀, 녀성방창조
	녀성독창과 녀성방창	그 품에 안기면	정서촌	전 권	윤혜영, 녀성방창조
	녀성독창과 혼성방창	조선의 그 이름 하늘에 새겼네	류동호	안정호	김광숙, 혼성방창조
	녀성2중창과 녀성방창	고향집 달밤에	전동우	박진국	리분희, 현송월, 녀성방창조
	녀성3중창과 남성방창	병사가 거리를 지날 때	남병우	전 권	김광숙, 김정녀, 윤혜영, 남성방창조
	녀성독창과 혼성방창	고향집에 눈이 내리네	정서촌	전민철	리분희, 혼성방창조
	녀성독창과 혼성방창	인민의 축원을 받으시라	안정호	안정호	김광숙, 혼성방창조
	녀성독창과 남성방창	병사의 발자욱	최문식	황진영	현송월, 남성방창조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	남성합창	장군님 초소에 모신 날	최준경	계훈경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
	남성합창	불패의 강국이여 앞으로	최준경	엄하진	〃
	남성합창	더 좋은 래일로	윤두근	리광오	〃
	남성합창	장군님은 위대한 수호자	리지성	엄하진	〃

예술단체	형 식	제 목	작사	작곡	출 연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	남성합창	총대로 받들리 우리의 강성대국	김정훈	강승웅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
	남성합창	천리방선 초병들은 아침인사 드리네	최준경	김광훈	〃
	남성합창	우리의 장군님은 강철의 령장	최준경	리용호	〃
	남성합창	하얀 구름아	윤두근	리광오	〃
	남성합창	수령님은 밝은 미소 보내시네	윤두근	리광오	〃
만수대예술단	녀성합창	장군님 그 품속에	박정애	박정식	녀성합창조
	남성독창과 방창	감자자랑	엄애란	장설봉	김성일
	녀성독창	수령님생각	류동호	한성희	전경란
	혼성2중창	마중가자 통일해돋이	류동호	김형일	홍세봉, 최춘실
	남성독창과 합창	붉은 철령	류동호	조일룡	홍세봉, 합창조
	합창	환영한다 정성옥	류동호	한성희	합창조
	녀성중창	빛나는 삶의 품	리학범	리학범	녀성중창조
	남성독창과 합창	우리는 노래로 이겼네	김은숙	박정식	허광수, 합창조
피바다가극단	녀성독창	통일의 한길로 손 잡고 가자	김련실	김호일	조청미
국립민족예술단	혼성2중창과 합창	통일맞이 춤을 추자	정성환	최정만	리광호, 조영희
	녀성민요 3중창	이 땅우에 울리는 웃음소리 노래소리	김석천	림석창	신정애, 김애란, 김순실
	가야금독병창	장군님과 함께라면	윤두근	오병선	가야금병창조, 김숙희
	녀성민요독창	정일봉은 천하의 절경일세	리 호	최금철	고정숙
조선인민군협주단	남성중창	우리의 장군님은 강철의 령장	최준경	리용호	남성중창조
	녀성중창	장군님 모셨던 그날을 못 잊어	윤두근	설명순	녀성중창조
	녀성민요2중창	행복의 지름길	김춘호	조경준	김옥경, 최광실
	남성중창	전선길은 이야기하네	김준익	김동철	남성중창조

가요

예술단체	형 식	제 목	작사	작곡	출 연
조선인민군협주단	녀성민요2중창과 남성방창	노래하자 강원땅아	리 호	최금철	김옥경, 최광실
	녀성독창	당이여 언제나 그대와 같이	최준경	리 경	주명화

학생소년노래

형 식	제 목	작사	작곡	출 연
3 중 창	3대장군의 꽃 활짝 핀 나라	김승길	리기성	평양률곡고등중학교 전경희, 고은별, 김향
합 창	11m와 25초	김승길	리기성	평양률곡고등중학교
녀독창과 방창	할머니 부탁	김승길	리기성	평양률곡고등중학교 리향금
민요독창	돌아라 우리 학교 소년호발전소	윤동향	김길남	평양금성제1고등중학교 최시내
녀 중 창	최후승리의 날 우리도 웃자	엄형조	김수남	평양금성제1고등중학교 녀성중창조
혼성3중창	온 나라가 춤을 춰요	함기찬	함기찬	평양금성제1고등중학교 김진향, 리향선, 김성준
녀 중 창	효성의 취나물	엄형조	정명호	평양금성제1고등중학교 녀성중창조
녀 독 창	강성대국 첫 포성 울렸어요	엄형조	함기찬	평양금성제1고등중학교 최시내
3 중 창	노래하는 우리 위성	김영심	정명호	평양금성제1고등중학교
민요제창	수령복 장군복 온 세상에 자랑하자	김영심	리동원	평양금성제1고등중학교 민요제창조
민요제창	정다운 그 품이 우린 좋아요	엄형조	김소영	평양금성제1고등중학교 민요제창조
남 독 창	대홍단의 장수감자	김영심	전경성	평양금성제1고등중학교 리진혁
소 합 창	만경대혁명학원학생들 따라 배우자	엄형조	정명호	평양금성제1고등중학교
남 독 창	영웅된 내 모습 꿈이 아니야	신광혁	김수남	평양장원고등중학교 백철영
녀 독 창	해안초소의 감나무야	김승길	김소영	평양금성제1고등중학교 김진향
녀 독 창	꽃 다 발	김영심	리동원	평양금성제1고등중학교 김송미

영화 및 텔레비죤극노래

영화 및 텔레비죤극 제목	노래제목	작사	작곡
예술영화《우리 위원장》	나를 찾는 다정한 음성	오형식	전봉덕
예술영화《따뜻한 눈송이》	장군님의 품	리명원	함 철
예술영화《추억속에 영원하리》	이 땅에만 피는 꽃	리명수	김경민
예술영화《명줄》	아 장군님품	전동우	배용삼
예술영화《평양에 온 두 대표》	소원은 하나	김석천	김창걸
예술영화《민족과 운명》(최현편)	나의 한생	리춘구	배용삼
다부작예술영화《민족과 운명》(최현편)	빼앗긴 내 조국아	리춘구	서정건
	나의 보병총아	최현우	서정건
예술영화《벌둥농민》	내 따르는 품	한광춘	량영철
예술영화《우리는 여기서 산다》	고향아 너는 내 사랑	김석천	성동환
예술영화《밀림이 설레인다》	장군님의 동지애	리춘구	조성수
	흰 새	리춘구	김창걸
예술영화《불씨》	한없이 귀중해	김희옥	박용필
예술영화《미래를 사랑하라》	장군님은 조국의 미래	주정웅	조성수
예술영화《불 같은 사람》	불처럼 살리	고수영	고수영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전동우	고수영
예술영화《사랑의 대지》	사랑의 대지	리관암	전창일
텔레비죤련속소설《대하는 흐른다》	대하는 흐른다	한광춘	김 혁
	하얀 연아 올라라	한광춘	김 혁
텔레비죤실화극《룡남산의 아들》	맹세의 길	진호영	량영철
	변치 말자 우리 사랑	진호영, 윤광민	량영철
텔레비죤예술영화《압록강 2천리》	량심으로 가는 길	김영순	성동환

영화 및 텔레비죤극노래

영화 및 텔레비죤극제목	노래제목	작사	작곡
텔레비죤예술영화《금패령의 겨울》	이 산정에 우리 사네	한광춘	민유철
텔레비죤실화극《당부》	부디 잊지 말아	오형식	함 철
텔레비죤극《갈매기》	영원한 품	김광민	조일룡
	갈매기처녀의 노래	김광민	조일룡
텔레비죤극《열망》	당의 숨결 걸음마다 새겨 주리	김 철	한상철
	사랑하는 나의 공장 정다운 집이여	김 철	한상철
텔레비죤극《우리 7현관사람들》	우리는 한가정 한식솔	오영옥	한상철
텔레비죤예술영화《한 보위일군의 수기》	보위자의 노래	한유정	김영성
	내 사는 내 조국	한유정	김영성
	영원한 우리 사랑	한유정	김영성
텔레비죤예술영화《민족의 사나이》	타향의 하늘아래서	김석천	성동환

아동영화노래

아동영화제목	노래제목	작사	작곡	출 연
개구리가 그린 그림	더높이 날으자	오영옥	한상철	영화 및 방송음악단, 평양률곡고등중학교
신기한 수정구슬	이 한몸 바쳐 가리	오영옥	함 철	영화 및 방송음악단, 평양률곡고등중학교
	시내물의 노래	오영옥	함 철	영화 및 방송음악단, 평양률곡고등중학교
셋째의 착한 마음	착한 마음	오영옥	한상철	〃
양지동산 꼬마선수들	룡구는 신바람나요	오영옥	김성희	〃
샘늪의 참개구리	내 동산 지키여 일어 나 싸우자	오영옥	정병철	〃
	우리 자랑 노래하자	오영옥	정병철	〃
왜 몰랐을가요	샘	오영옥	백인선	〃

아동영화노래

아동영화제목	노래제목	작사	작곡	출 연
떡만이와 쇠돌이	지식의 큰 나래 펼쳐 가리라	오영옥	김성희	영화 및 방송음악단, 평양률곡고등중학교
농부와 얼룩이	고마운 그 손길	오영옥	한상철	〃
오동나무잎	믿을건 제 힘뿐	오영옥	정병철	〃

기 악

예술단체	형 식	제 목	편곡	출 연
보천보전자악단	남성기악	젊음은 급행렬차	박진국	남성기악조
	전기기타독주와 경음악	통일무지개	송 광	송광(남성기악조)
	전기기타독주와 경음악	뻐 꾸 기	전민철	송광(남성기악조)
왕재산경음악단	바이올린을 위한 경음악	신 아 우	안정호 정원철	삼지연조, 삼태성조
	경 음 악	우리 중대에 신입병사 왔네	류우현	삼일포조
	바이올린을 위한 경음악	제일 좋은 때지요	정원철	삼지연조
	바이올린을 위한 경음악	구름너머 그리운 장군별님께	전광수	삼지연조
	트럼베트를 위한 경음악	가마마차 달린다	전홍국	삼일포조
	바이올린독주	나의 어머니	전홍국	전일 (삼지연조)
	기타와 바이올린을 위한 경 음 악	그 품 떠나 못 살아	전광수	김철호 (삼지연조)
	경 음 악	부러움대요	전홍국	삼일포조
	전기바이올린3중주	장군님 생각	전광수	김철영 외 2명(삼지연조)
	피아노독주를 위한 경음악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리영일 김운룡	조호혁(삼지연조)
	쌕스폰독주	나의 어머니	집 체	김순길(삼태성조)
	쌕스폰독주	다부작예술영화《민족과 운명》중에서 운명의 갈림길	집체	김순길(삼태성조)
	트럼베트독주	기다려 다오	정원철	박철준(삼태성조)
	트럼본 독주	못 잊을 삼일포의 메아리	전홍국	유원철(삼일포조, 삼지연조)
	크라리네트독주	뻐 꾸 기	류우현	김순길(삼태성조)
	기타 독주	웃음꽃이 만발했네	〃	박주천(〃)
	〃	장군님 생각	정춘일	장은희(목란조)
	트럼본독주	내가 지켜 선 조국	류우현	장무길(삼태성조)
	〃	그이의 한생	차경주	유원철(삼일포조)
	쌕스폰독주	기러기떼 날으네	집 체	김순길(삼태성조)
	〃	기쁨절로 노래절로, 웃음도 절로	정원철	〃 (〃)

기 악

예술단체	형 식	제 목	편곡	지휘	출 연
국립교향악단	바이올린과 관현악	친애하는 그이는 우리와 함께	백고산 강태언	김병화	김선희(관현악조)
	관현악	조선의 장군	김 용	조 광	관현악조
	관현악	그리운 강남	김연규	김병화	관현악조
	바이올린협주곡	장군님식솔	김연규	최광성	정현희(관현악조)
	바이올린제주	병사들아 영웅이 되자	김호남	최광성	바이올린조
만수대예술단	녀성기악중주	그대밖에 내 몰라라	차성철	김일진	녀성기악중주조
	녀성기악중주	내 운명 지켜 준 어머니당이여	김학영	김일진	녀성기악중주조
조선인민군군악단	취 주 악	조선로동당 만세	리효선	리웅식	조선인민군군악단
	취 주 악	오늘도 7련대는 우리앞에 있어라	황철웅	리웅식	조선인민군군악단
윤이상음악연구소관현악단	현악합주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리한우	강룡웅	윤이상음악연구소 관현악단 현악조
	바이올린2중주	우리 님 영웅 되셨네	리한우		김철웅, 김귀녀
	바이올린합주	장군님의 군대가 되자	최영호	강룡웅	바이올린조

무 용, 가 무

예술단체	형 식	제 목	안무	편곡	출 연
만수대예술단	혼성군무	우리는 청년건설자	김해춘	김형일	김봉학 외17명
	녀성군무	경의를 드립니다	김해춘	박정식	리혜영 외14명
	혼성가무	웃음꽃이 만발했네	김해춘	김형일	김하철 외12명
	민속무용	봄의 서정	김해춘	김학영	박문희 외15명

무용, 가무

예술단체	형 식	제 목	안무	편곡	출 연
피바다가극단	녀성독무	조순옥영웅	전남영	리상룡	박 영 실
	바레무용	은빛날개	박정민	황철수	로정호 외7명
	6 인 무	붉은기 높이 끝까지 가리라	전남영	림대식	조문규 외5명
	2 인 무	붉은 꽃 드렸네	김목룡	리상룡	림진석, 리은희
	가 무	귀틀집 실물레	김목룡	오승학	리명희 외12명
	가 무	타향의 봄날에	김영선	김호일	태영숙 외8명
	가 무	보람찬 병사시절	박정민	황철수	리만선 외4명
	녀성군무	우리 당이 바란다면	전남영	강기창	신영미 외6명
	가 무	처녀시절 꽃시절	김인철	황철수	태영숙, 김영희, 한성실, 최윤희
국립민족예술단	가 무	군민일치 노래 부르자	김영옥	한 철	리순덕 외5명
	가 무	대홍단 삼천리	백환영 박용철	신영철	오란희 외9명
	녀성군무	모 란 봉	엄영춘	한 철	리순녀 외9명
	가 무	통일무지개	윤상흡	리경훈	김혜란 외3명
조선인민군협주단	남성군무	우리는 빈 터에서 시작하였네	김일룡	리 경	김승진 외10명
인민보안성협주단	혼성군무	송원땅의 메아리	집 체	집 체	윤광준 외11명
	남성군무	첫 보안서원	김현옥	현은철	한철수 외7명
	녀성군무	정일봉 너를 닮으리	한금이	김호성	김련희 외9명
	혼성군무	사랑의 정류소	방대호	백성일	김련희 외5명
	가 무	별들이 속삭이네 하나 둘 셋	김현옥	현은철	박선희 외8명

교 예

형 식	제 목	창작 및 연출	출 연
체력교예	남녀2인그네	한수복	조선인민군교예단 한충혁, 김은별
체력교예	사다리조형	한동호	평양교예단 로전의, 김영식, 김영덕, 손주광, 곽영철
체력교예	두 통신병	박소운	평양교예단 리관식, 김영옥
체력교예	바다는 부른다	박소운	평양교예단 오명국, 최광남, 고성애, 백영미, 김명희, 류은희
체력교예	봉 놀 이	고하준	평양교예단 리원하, 박춘성, 권순애
요 술	탈 놀 이	김광철	평양교예단 김철 외4명
요 술	팔각통재주	김택성	평양교예단 김광철 외 6명
요 술	교감 및 탁상요술	김광철	평양교예단 김광철, 주경란
요 술	허공에 나타난 처녀	김택성	평양교예단 김희철 외1명
요 술	꽃다발 드리옵니다	김택성	평양교예단 안철 외 1명
요 술	우리 장단 좋다	김봉일	평양교예단 김봉일 외1명
요 술	고뿌재주	박성철	평양교예단 박성철 외1명
요 술	시계재주	김택성	평양교예단 배광철 외1명
요 술	변하는 사람	김광철	평양교예단 김광철, 박성철
요 술	장군별님께	강유성	평양교예단 강유성 외1명
요 술	요술의 묘기	김 철	평양교예단 김철, 김희철 외4명
요 술	요술사의 재치	김택성	평양교예단 김희철 외2명
수중교예	돈 벌 레	림춘만	평양교예단 림춘만, 김인선
막 간 극	도피소동	김희영	평양교예단 허영, 김희영
막 간 극	어느놈 탓이냐	박소운	평양교예단 허영, 김희영
막 간 극	막을수 없다	안경욱	평양교예단 허영, 김희영, 안경욱
막 간 극	벌거벗은 양키	안경욱	평양교예단 안경욱, 림춘만, 량길남
동물교예	동물유희	한동호	평양교예단 리 경 빈

극 작 품

예술 단체	형 식	제 목	작가	연출	출 연
조선인민군4.25 예술영화촬영소	경희극	동 지	박호일	강중모	현창걸, 안영철, 리성일, 윤찬, 림영호, 장유성 외 배우단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경희극	살기 좋은 고장	리희찬 강창일	전종팔	리경희, 신명욱, 석성재, 김영숙, 김경애 외 배우단
조선인민군 협 주 단	재 담	제일이야	명진호	명진호	장재천, 곽철호, 한영순, 리명혜
	합창시이야기	총대로 열어 가리 통일의 길	함정언	함정언	함정언 외29명
국 립 연극단	극재담	우리가 만나는 곳	한규성	김석태	김순영, 리춘실, 김종환, 최우만
	짧은극	놓칠번한 사위	라성덕	장찬국	김영아, 김광일, 진순영, 하미옥, 박창만, 량선태
	경희극	귀한 손님	리성원	김방남	리화성, 신대식, 전옥희, 리춘실, 박철 외4명
인민보안성협주단	재 담	웃으며 가자	백동기	백동기	김룡철, 배영선
	막간극	모르는줄 알았더니	백동기	백동기	현혜성, 량영희
	촌 극	래일에 살자	최황룡	리승룡	김일남 외3명
	재 담	같이 달리자요	백동기	백동기	김룡철, 배영선
	막간극	끌 불 견	백동기	백동기	김은경, 리은택, 김추월, 리성권
	막간극	달라진 결심	백동기	백동기	길미화, 김명숙
	재 담	바람이 분다	백동기	백동기	리은택, 김추월
	장막극	고향땅에서	리철우	리승룡	박진우 외30명
	재 담	이기는 비결	백동기	백동기	김룡철, 배영선
평양인형 극 단	중막인형극	남쪽에서 온 편지	변광철	최만금	홍영미, 홍란희, 손경남, 차진매, 강숙림 외2명
	손인형소품	꾀 동 이	변광철	윤경철	김영철, 리명진
	손인형소품	효 심 이	변광철	정 철	김영철, 리명진
국 립 희극단	소개극	우리도 뛥시다	장창원	김 천	최경희, 김동건, 백련숙
	소개극	네탓 내탓	강문호	손원주	최창규, 송재완

예술단체	형 식	제 목	작가	연출	출 연
국립희극단	재 담	신천으로 가는 날	리승일	김 천	황학윤, 김명희
	재 담	복이 나간다	전봉국	한정훈	황학윤, 김명희
	독 연	약 속	박현철	손원주	함 영 신
	막간극	본산신발	강문호	김 천	정재만, 김동건
	막간극	우리는 청춘	박현철	손원주	송재완, 박미금
	막간극	같이 가자요	장창원	김 천	황학윤, 로춘란
	촌 극	골동품이 아니다	장창원	김 천	박찬수, 조정은, 리경무
	재 담	신파장날	전봉국	한정훈	리문호, 김명희
	재 담	쫄은 고기다	강문호	손원주	박찬수, 박미금
	재 담	시 간	전봉국	한정훈	박찬수, 최경희
	막간극	배 낭	정현옥	김 천	송재완, 박미금
	촌 극	일요일에 있은 일	장창원	김 천	리문호, 리경무, 박나리, 김동건
	촌 극	이사 다니는 토끼	강문호	리승일	리순홍, 백련숙, 황학윤, 로춘란
	재 담	진심으로 돕자	전봉국	김 천	송재완, 박미금
	만 담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 다	리순홍	손원주	리 순 홍
	노래독연	장군님의 딸	장창원	한정훈	최 광 호
	촌 극	누구의 배낭인가	리희영	김 천	김동건, 조정은
	재 담	똘똘이와 삼녀(전기절약편)	전봉국	김 천	리미성, 김영심
	노래독연	숲은 설레인다	박현철	한정훈	최 광 호
	막간극	전기를 절약합시다	박현철	김 천	황학윤, 김명희
	노래독연	기쁨 싣고 달리는 말발구	최광호	최광호	최 광 호
	재 담	안해의 충고	박현철	한정훈	정재만, 김명희
	노래독연	할아버지의 사진	박현철	최광호	최 광 호
	노래독연	한 지대장에 대한 이야기	최광호	최광호	최 광 호
	막간극	꿀 불 견	리희영	손원주	황 학 윤



주체88(1999)년에 출판된 문학예술도서중에서



주체88(1999)년에 출판된 문학예술도서중에서



예술영화

밀림이 설레인다 제7부

주요배역

	인민배우	강 덕
		김원숙
오백룡		김일현
오중흡	공훈배우	김 철
박덕산		김성수
설분옥		리금숙
문지학		박 성
허만덕		림호남
선 녀		김선옥
유스께		최웅철
아사꼬		김 순
노조에	인민배우	리지영

창조성원

영화문학	《김일성상》계관인	리춘구
		홍원철
		최영학
연 출		정건조
		길승철
촬 영	인민예술가	최병렬
		김동희
미 술		김일룡
작 곡	공훈예술가	유명천
	인민예술가	황진영

제작: 조선예술영화촬영소







항일유격대가 남편을 죽였다며 사령부를 해칠것을 강박하는 일제의 모략에, 걸려 밀영에 들어온 분옥은 너무도 판이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놈들의 거짓선전과 위협에 못 이겨 엄청난 죄악을 저지를번 한 자신을 두고 심한 량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 경악할 사실앞에서 대원들은 분개하며 그의 남편 문지학은 제손으로 분옥을 처단하겠다며 총을 내두른다.

허나 일제에게 속아 본의아닌 길에 들어 선 한 녀인의 마음속 고충도 깊이 헤아리시여 재생의 밝은 빛을 안겨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믿음에 의해 분옥이는 마침내 남편과 함께 혁명의 길에 나선다.

위대한 사랑이 또 한명의 혁명가를 키워 낸것이다.







예술영화

밀림이 설레인다 제8부

주요배역

	인민배우	강 덕
		김원숙
오중흡	공훈배우	김 철
오백룡		김일현
문지학		박 성
설분옥		리금숙
허만덕		림호남
유스께		최웅철
아사끄		김 순
선 녀		김선옥
기관총소대장		한성훈

창조성원

영화문학	《김일성상》 계관인	
		리춘구
		홍원철
		최영학
연 출		정건조
촬 영	인민예술가	최병렬
		김동희
미 술		김일룡
작 곡	공훈예술가	유명천
	인민예술가	황진영

제작: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사령부와 멀리 떨어 진 청봉밀영.

혁명가의 탈을 쓴 밀영책임자 엄가의 독단과 편견으로 녀대원들의 혁명적열의가 심히 모욕당하고 사령부작식대원이였던 금옥이가 변절자의 루명을 쓰고 처단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지어 엄가놈은 감히 사령부의 로선까지도 제멋대로 해석하며 딴 소리를 줴쳐 댄다.

이 엄혹한 정세속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한몸의 위험도 무릅쓰고 엄가와 맞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옹호고수하신다.

한편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선의 고비를 넘고 헤치시며 일제의 포위속에 들어 《전멸》의 위기에 처한 오중흡 7련대를 구원해 주신다.

그 위대한 동지애에 매혹되여 언제나 사령관동지만을 믿고 따르며 살며 싸워 나가는 오중흡, 문지학, 백사천…

















예술영화

밀림이 설레인다 제9부

주요배역

		김원숙
	인민배우	강 덕
엄광호	공훈배우	방석운
리동걸	공훈배우	조명선
금 옥		박영미
허만덕		림호남
아사끄		김 순
숙 자		원정련
후 남		최청희
태 선		강명희
영 금		김은숙

창조성원

영화문학	《김일성상》 계관인	
		리춘구
		최영학
		홍원철
연 출		김현철
촬 영	공훈예술가	한룡수
미 술	공훈예술가	최도일
작 곡	공훈예술가	유명천
	인민예술가	황진영
	인민예술가	김제선

제작: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위대한 수령님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는 아사꼬를 반동으로 몰아 사형하려고 획책하는 청봉밀영책임자인 엄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려 날뛰는 엄가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과업을 받고 밀영실태를 료해하면서 김정숙동지의 절대적인 충성심에 감복한 파견원은 엄가를 단죄할 대책을 세우고 떠난다.







한편 7련대에 대한 구출전투로 위치가 로출되여 적의 대병력이 사령부로 집중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된다.

사령부의 안전을 보위하기 위해, 적들을 청봉밀영으로 유인하기 위해 김정숙동지께서는 결사의 각오를 품고 사령부가 청봉으로 오게 된다는 거짓소문을 퍼뜨리도록 하신다.







예술영화

밀림이 설레인다 제10부

주요배역

		김원숙
	인민배우	강 덕
금 옥		박영미
아사꼬		김 순
숙 자		원정련
엄광호	공훈배우	방석운
후 남		최청희
리동걸	공훈배우	조명선
오백룡		김일현
허만덕		림호남
선 녀		김선옥
명 애		최영란
태 선		강명희







창조성원

영화문학	《김일성상》 계관인	리춘구
		최영학
		홍원철
연 출		김현철
촬 영	공훈예술가	한룡수
미 술	공훈예술가	최도일
작 곡	공훈예술가	유명천

제작: 조선예술영화촬영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집중적으로 보여 준 제 10 부.

적들의 대병력이 사령부로 집중된다는것을 아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놈들을 청봉밀영으로 유인하여 간고한 전투를 벌리신다.

불과 수십명의 녀대원들과 병약자들로 엄청난 적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 동지들이 적의 포위속에 들어 위급한 정황에 부닥치게 되였을 때 김정숙동지께서는 단신으로 적들을 유인하시다 벼랑턱에서 굴러 떨어 지시여 사경에 처하게 되신다.

청봉에 오시여 이 사실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감동하시면서도 김정숙동지의 《모험》적인 행동을 비판하도록 회의를 조직하신다.

그러나 회의는 모든 지휘관, 대원들이 김정숙동지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 배우는 회의로 전환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말씀하신다.

장군님께서 안 계시면 이 정숙이는 죽고 만다고…







예술영화

밀림이 설레인다 제11부

주요배역		
	인민배우	강 덕
		김원숙
오중흡	공훈배우	김 철
오백룡		김일현
아사끄		김 순
유스께		최웅철
허만덕		림호남
선 녀		김선옥
분 옥		리금숙
최일현		안현철
7련대통신원		정광남

창조성원		
영화문학	《김일성상》 계관인	리춘구
		홍원철
연 출		김현철
		정건조
촬 영	공훈예술가	한룡수
	인민예술가	전홍석
미 술		김일룡
	공훈예술가	최도일
작 곡	공훈예술가	유명천
		김창걸
		조성수

제작: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아사꼬,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7련대에 보내시는 문건을 책임적으로 전달하고 돌아 오는 길에 적들에게 체포되여 참혹하게 희생된다.

애인을 잃은 비분을 홀로 묵새기며 적후에서 몸부림칠 백사천 …

전사의 아픔이 그리도 괴로우시여 지휘관, 병사들의 절절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적구 신경에까지 찾아 가시여 백사천과 슬픔을 함께 나누시는 위대한 수령님.









한편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7련대에 통신을 띄워 동지를 위해 사선을 헤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장하도록 하신다.

영화에서는 투쟁속에서 맺어진 대원들의 혁명적사랑을 깊이 헤아리시여 허만덕이와 심선녀의 결혼식을 잘 차려 주자하시고 분옥을 혁명가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 등도 감명깊게 펼쳐 보이고 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제45부

최현편 제1부

주요배역

최 현	공훈배우	최봉식
강철무	인민배우	리원복
김설란	인민배우	오미란
정치부장	인민배우	리익승
성금석		김명호
산 옥		황성옥
안병서	공훈배우	현창걸
참모장		리상렬
박오달		김계현
허성도	인민배우	장유성
워 커	공훈배우	손대원
제임스	공훈배우	윤 찬

창조성원

영화문학	《김일성상》 계관인	리춘구
	《김일성상》 계관인	리덕윤
		리주민
연 출	《김일성상》 계관인 인민배우	조경순
	인민예술가	최부길
		김원하
촬 영	공훈예술가	오대영
	인민예술가	박세웅
미 술	공훈예술가	박상수
		민유진
작 곡	인민예술가	서정건
	공훈예술가	배용삼
		석 철

제작: 조선인민군4. 25예술영화촬영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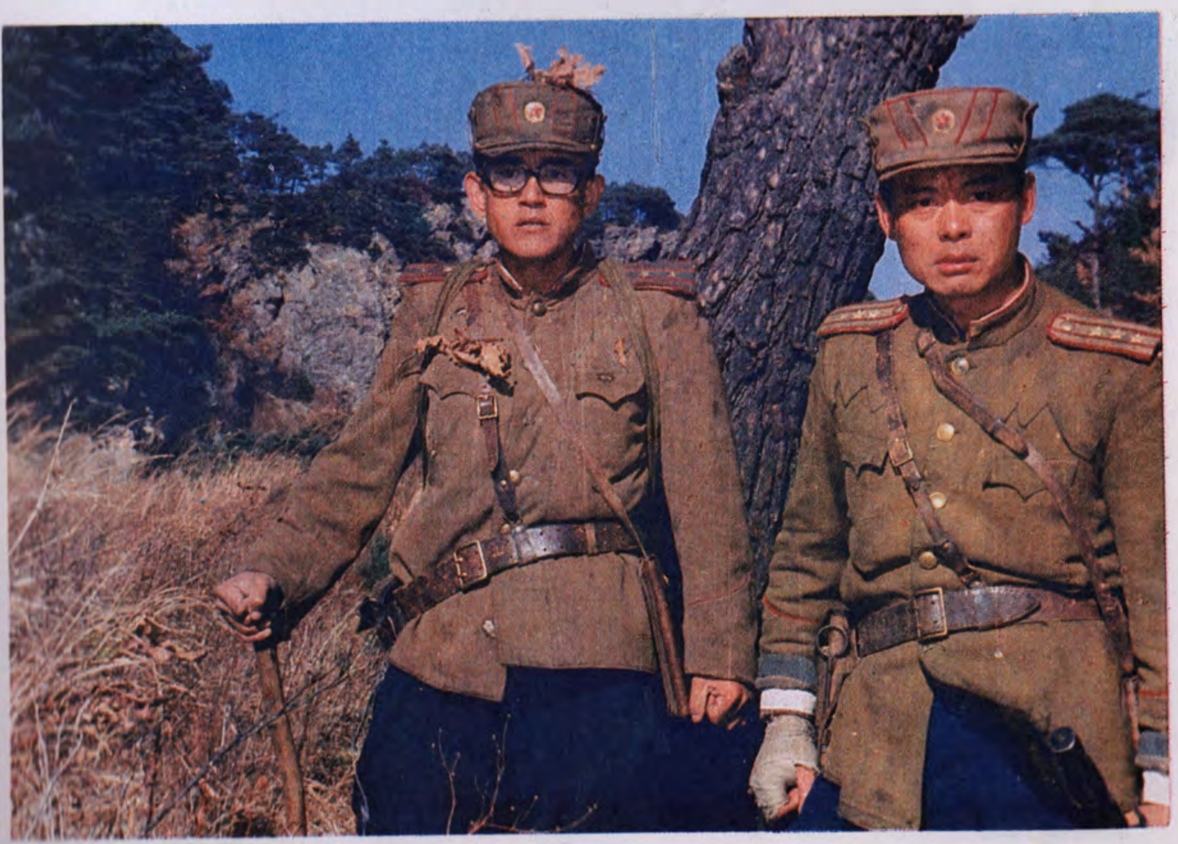
총대에도 사상이 있는가?

있다. 있어도 심오한 사상이 있다. 사상이 없는 총대는 막대기나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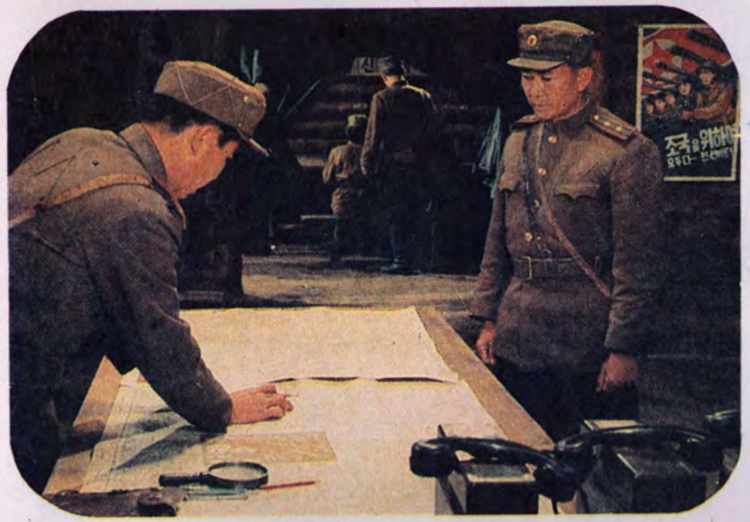
우리의 총대, 그것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고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혁명의 무기이다.

영화는 이와 같은, 총대철학에 관한 심오한 문제를 예술적 형상으로 밝혀 내고 있다.

혁명의 총대로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하는것을 삶의 목표로, 더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간직하고 있는 주인공 최현.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적후에 제2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새로운 과업을 받고 떠나기에 앞서 그는 최고사령부의 문전보초병이 되여 한밤을 지새우는것이며 강철무련대장이 최고사령부의 작전의도를 제멋대로 어기였을 때에는 추호의 용서도 없이 호되게 추궁한다.

그는 말한다. 혁명의 총대는 바로 자기 수령을 옹위하는 총대로 되여야 한다고.

이것은 수령결사옹위의 최고귀감이신 항일의 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 그에게 안겨 주신 총대철학이며 자신의 생활체험속에 깨달은 혁명의 진리였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제46부

최현편 제2부

주요배역

최 현	공훈배우	최봉식
강철무	인민배우	리원복
김설란	인민배우	오미란
정치부장	인민배우	리익승
최화심	인민배우	최창수
성관호	공훈배우	김순호
성금석		김명호
산 옥		황성옥
작전부장		문덕민
부 관		장성국
정치부련대장		태상훈



창조성원

영화문학 《김일성상》 계관인 리춘구

《김일성상》 계관인 리덕윤

오현락

연 출 《김일성상》 계관인 조경순

인민예술가 최부길

김원하

촬 영 공훈예술가 오태영

인민예술가 박세웅

미 술 공훈예술가 박상수

리병철

작 곡 인민예술가 서정건

공훈예술가 배용삼

석 철

조선인민군4. 25예술영화촬영소

제작







옳바른 령도자를 모시지 못한탓에 아버지를 비롯한 독립운동자들과 더불어 최현이 겪어야 했던 곡절은 그 얼마나 피눈물나는것이였던가.

독립군의 비참한 종말과 아버지의 한 많은 최후.

이 나날 최현의 가슴속에 새겨진것은 총대도 탁월한 수령을 모실 때에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참답게 구원해 낼수 있다는 진리이다.

하기에 최현은 리승엽도당이 자기를 《최현장군》으로 부르고 일부 군인들이 자기들을 《최현부대》로 자칭할 때 이를 엄중하게 단속하며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도록 교양한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제47부

최현편 제3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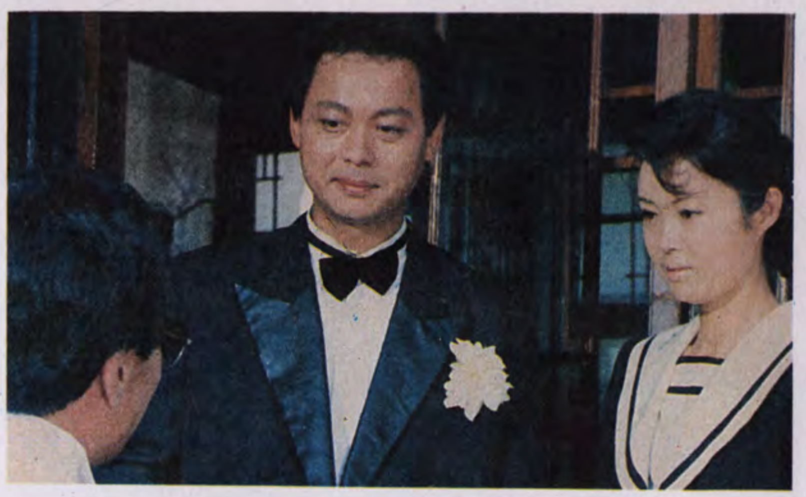
주요배역

최 현	공훈배우	최봉식
강철무	인민배우	리원복
김설란	인민배우	오미란
정치부장	인민배우	리익승
성금석		김명호
산 옥		황성옥
안병서	공훈배우	현창걸
박오달		김계현
최현누이		마성희
할머니	공훈배우	백일옥
주정금	공훈배우	정춘란
허성도	인민배우	장유성
송요찬	공훈배우	김광문

창조성원

영화문학	《김일성상》 계관인	리춘구
연 출	《김일성상》 계관인 인민배우	조경순
	인민예술가	최부길
		김원하
촬 영	공훈예술가	오태영
		황진석
미 술	공훈예술가	박상수
		민유진
작 곡	인민예술가	서정건
	공훈예술가	배용삼
		석 철

조선인민군4. 25예술영화촬영소
제작











중대장이 자기 부하에게 총질했다는 간과할수 없는 소식에 접한 최현.

현지에 내려 가 실태를 료해한 그는 스스럼없이 내여 준다고 하여 인민의 재산에 손을 댄 특무장과 함께 할머니의 집을 찾아 가 사죄하면서 모든 군인들이 인민의 군대로서의 의무를 자각하도록 깨우쳐 준다.

그는 안병서가 늘 가지고 다니는 사모관대에 깃든 가슴 뜨거운 사연을 통하여서도 군인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도록 이끌어 나간다.

이 과정에 기묘한 작전으로 철원해방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한다.





예술영화

추억속에 영원하리

창조성원

영화문학	《김일성상》 계관인	박호일
연 출	공훈예술가	강중모
촬 영	공훈예술가	김영욱
미 술		김원성
작 곡	《김일성상》 계관인	설명순 석 철









주요배역

철 석	인민배우	리익승
옥 심	공훈배우	박행순
허풍기	공훈배우	안영철
성 근	공훈배우	현창걸
돈순호	공훈배우	리성일
정치위원	인민배우	정의겸
미 옥	공훈배우	윤수경
인 남		장성국

조선인민군4. 25예술영화촬영소

제작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농장에 달려 나온 련대장 철석을 비롯한 인민군군인들,

그들은 농장원들과 함께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알곡생산을 높이기 위한 결사적인 전투를 벌려나간다.

스스로 밤을 지새우며 양수기를 수리해 내고 승용차바퀴를 떼내여 뜨락또르를 살리며 진펄논을 앞장에서 개간해 내는 군인들, 물바께쯔를 지고 들고 달리며 왕가물과 싸우고 태풍과 장마비에 의해 제방뚝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는 서로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희생적으로 막아 나서는 군인들과 농장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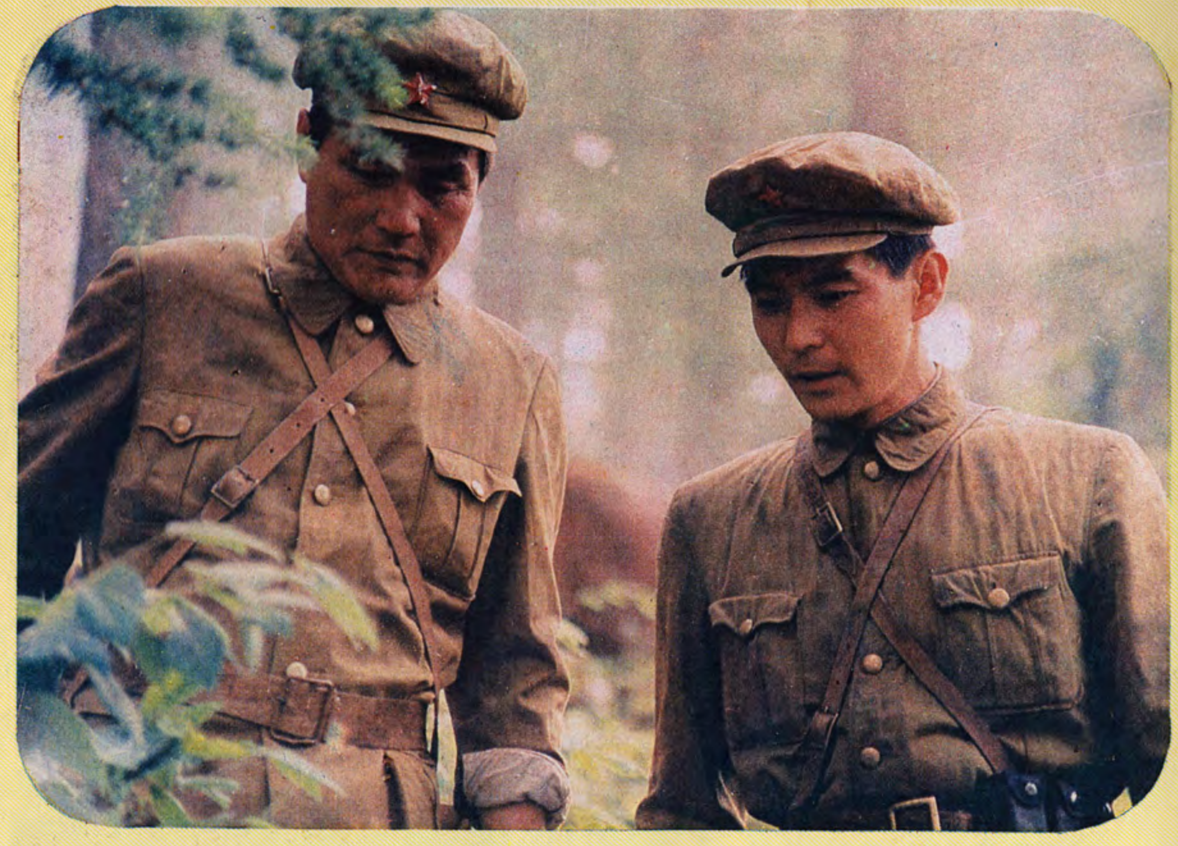
이 과정에 돈순호도, 허풍기도 군인들의 정신세계, 일본새를 본받는다.

영화는 《고난의 행군》시기에 발휘된 군대와 인민의 수령결사옹위정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령지시에 대한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속에서 군민일치사상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확증해 내고 있다.









예술영화

미래를 사랑하라



주요배역

박길산	공훈배우	리영호
인삼아바이		박성덕
리종호		리종국
김현순		공봉숙
손달연	공훈배우	김광렬
김석준	공훈배우	김명문
박길철	인민배우	신명욱
어머니	공훈배우	강여선





창조성원

영화문학	최영학
연 출	전백연
촬 영	심영학
미 술	안상복
작 곡	조성수

제작: 조선예술영화촬영소









그 어떤 엄혹한 정세와 시련앞에서도 비관을 모르며 오직 미래,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해 한 목숨 서슴없이 내댈줄 아는 열혈투사 주인공 박길송.

미래에 대한 그의 락관,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면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기에 한 지휘관이 신심을 잃고 전투를 포기했을 때 그는 스스로 위험속에 뛰여 들며 전투를 단행하여 사령부의 작전적구상을 실천하며 이 전투에서 실명 당했지만 신심을 잃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으로 다시 광명을 찾은 그는 적들을 자기 지대에로 유인하여 사령부의 안전을 보위하며 체포되여 모진 악형을 당하면서도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않는다.

최후를 앞두고 감방벽에 새긴 《미래를 사랑하라!》 글발은 투사들의 넋을 가슴 뜨겁게 전하여준다.





예술영화

명 줄



창조성원

영화문학 《인민상》 계관인 오혜영
연 출 공훈예술가 홍광순
촬 영 인민예술가 박세웅
미 술 최 용
리철호
작 곡 공훈예술가 배용삼
윤정호







주요배역

진 석 공훈배우 현창걸
초 야 리월숙
대 철 공훈배우 김봉삼
영 한 손철민
림시원 공훈배우 김광문
익 삼 김 철
서 분 공훈배우 김련옥
파견원 공훈배우 전룡주

조선인민군4. 25예술영화촬영소

제작





엄중한 파오를 범하고 처벌을 받기 위해 사령부로 호송되여 가게 되는 주인공 진석.

일제놈들은 그에게 살 길은 귀순하는 길밖에 없다고 투항을 강요하고 혁명을 포기한 그의 《스승》인 림시원은 형세를 두고 보자며 그를 유혹한다.

그의 애인 초야의 눈물어린 애원과 늙고 병약한 어머니의 모습도 그의 걸음을 붙잡는다.

호송원들마저 적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정황속에서도 그는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 내며 사령부로 향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을 지키는것이 곧 혁명가의 명줄을 잇는 길이라면서…









예술영화

법동농민 (전, 후편)

주요배역

기 태	인민배우	정운모
한 씨	인민배우	김옥희
정 임	공훈배우	김혜경
복 화		박영희
장 민		신학명
관 실		고삼혜
최선생	공훈배우	홍강휘
박선생		리영성
창 국	인민배우	김 원



창조성원

영화문학	《김일성상》 계관인	설주용
연 출	공훈예술가	장인학
촬 영	공훈예술가	곽철삼
미 술	공훈예술가	김철헌
작 곡	공훈예술가	량영철
		김수남

제작: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조국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홀몸도 건사하기 어려운 때 안해와 딸까지 데리고 아무런 친척형제도 없는 초행길을 걸으며 북으로 향하는 주인공 기태.

후퇴길에 안해를 잃고 아들의 비보에 접하고 달구지마저 파괴되지만 그의 북행길에는 변함이 없다.

남조선에서 들어 오는 과학자들을 위해 귀중한 가장집물마저 밀구어 두며 일행을 이끌어 가는













그의 가슴속에 간직된 신념은 수령님을 따르는 길에 인생의 참된 행복이 있다는것이다.

전선길에서 그를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행길에 오른 그의 소박한 심정을 높이 평가해 주시며 이런 인민이 있는 한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수 있다는 뜻 깊은 말씀을 하신다.

영화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존시에 그리도 잊지 못해 하시던 실재한 인물인 법동농민에 기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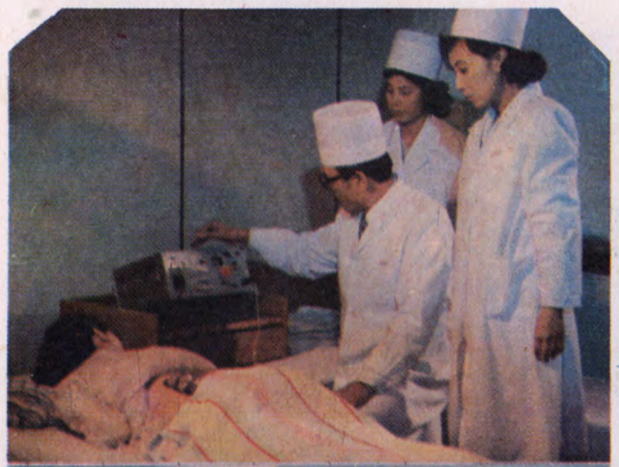
예술영화

사랑의 대지 (전, 후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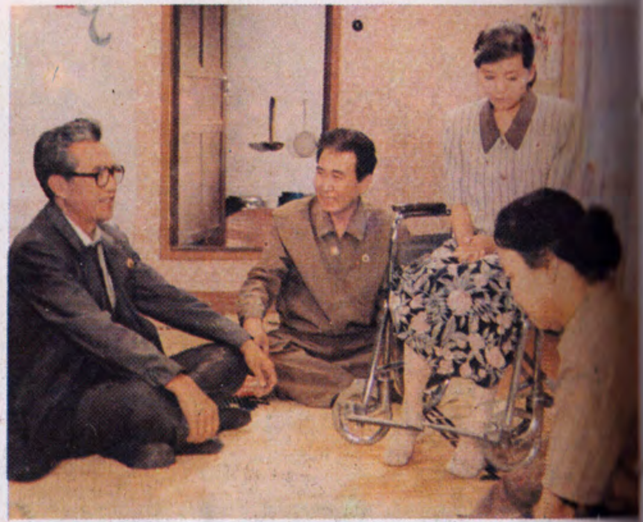


주요배역

귀 녀	공훈배우	장선희
정 옥		김련화
이 모	공훈배우	강여선
웅 철		리윤수
병원당비서	인민배우	신명욱
서박사	인민배우	김준식
혜 순		최명옥
직장장	공훈배우	량해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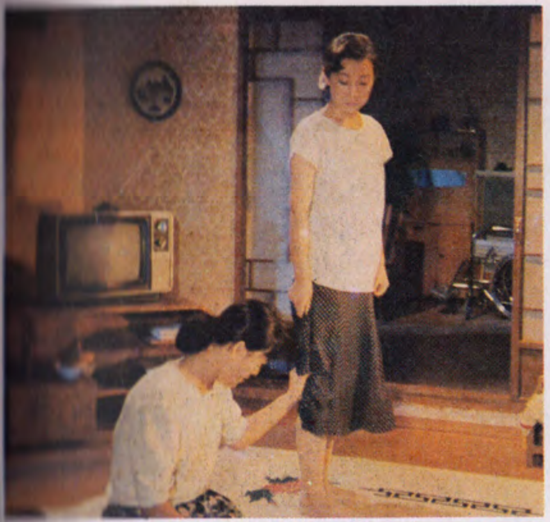


창조성원

영화문학	지희란
연　출	리관암
촬　영	류승철
미　술	장응준
작　곡	공훈예술가 전창일

제작: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병원에 입원했다가 우연히 알게 된 귀국동포처녀인 앉은뱅이 정옥.

그가 앉은뱅이가 된 피눈물나는 사연을 알게 된 주인공 귀녀는 비록 처녀의 몸이지만 자기가 정옥이를 맡아 치료해 줄것을 결심하고 병원당조직에 제기한다.

병원당조직과 의사들, 이웃들이 귀녀를 도와 정옥이의 병치료를 방조해 준다.

애육원에서 부모 없는 어린 귀녀를 데려다 키워 준것으로 인연이 맺어 진 귀녀의 이모는 정옥이때문에 그가 시집을 가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와 정옥이를 자기가 맡아 치료해 주려 한다.

하지만 귀녀는 정옥이를 끝까지 맡아 나선다. 사랑하는 애인과 갈라 지면서까지…

귀녀의 뜨거운 지성에 감복한 정옥은 《엄마야!》 하며 그의 품에 안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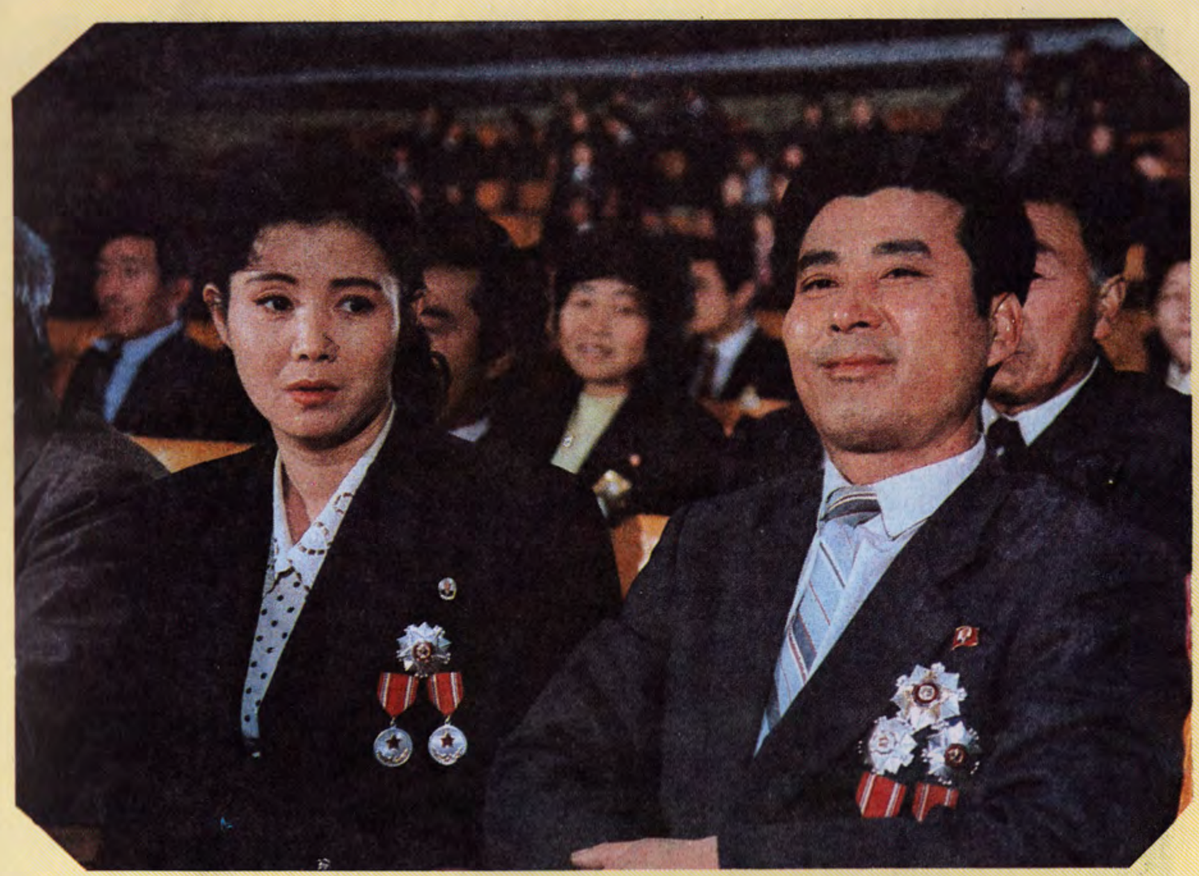




《엄마야!》, 그 부름속에는 귀녀와 더불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와 이 고마운 사회제도를 마련해 준 어머니당에 대한 감사의 정이 뜨겁게 어리여 있는것이다.

그 사랑의 품에서 정옥은 마침내 대지를 활보하게 된다.





예술영화

평양에 온 두 대표

주요배역

류순애		박금실
백창덕		리웅관
한상모	인민배우	신명욱
홍목금	공훈배우	강여선
백광실	공훈배우	전정희
도정근	인민배우	김윤홍
상무일군		백영수
정 옥		오명옥









창조성원

영화문학		신명식
연 출		김청일
촬 영	공훈예술가	황룡철
미 술		로영길
작 곡		김창걸

제작: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전국농업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올라 온 두 대표.

다같이 동등한 대표이건만 평양역에 도착하여서부터 서로 차이나는 대우를 받는다.

관리위원장이라고 으시대던 창덕은 일반뻐스를 타고 일반려관에 들게 되며 대신 그의 애인인 다른 농장 작업반장 순애는 예상치 않게 고급뻐스를 타고 고급호텔에 들게 된다.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한 대표와 수행못한 대표에 대한 응당한 대우인것이다.





한때 순애를 자기 제자처럼 여기던 창덕은 대회에 참가하면서 자기가 그의 제자라고 생각한다.

창덕관리위원장이 들려 주는 그의 이와 같은 교훈적인 이야기는 사람의 진가는 직위나 나이에 있는것이 아니라 실적에 있다는것을 깨우쳐 준다.







예술영화

불 씨

주요배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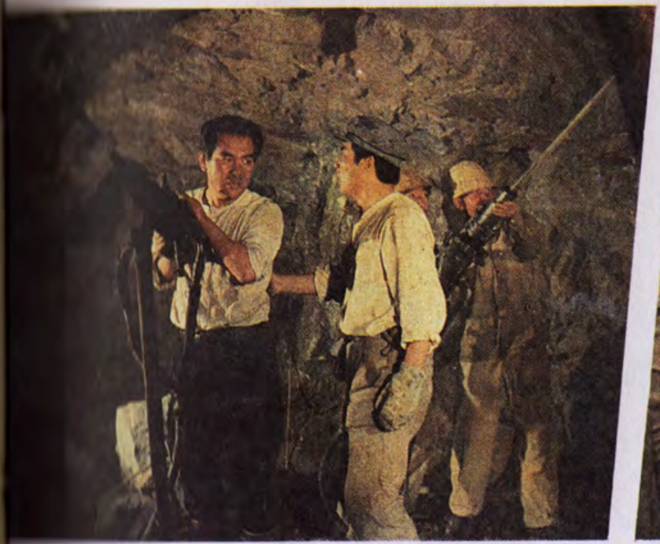
태 성 인민배우 최창수
익 준 공훈배우 김광렬
명 찬 리웅관
정 옥 공훈배우 류경애
명 수 최 룡
문 숙 공훈배우 홍순정
부기장 공훈배우 송만갑
덕 만 공훈배우 조성신

창조성원

영화문학 홍도준
연 출 리경진
리용진
촬 영 인민예술가 정봉추
미 술 정화진
작 곡 공훈예술가 박용필
인민예술가 한시준

제작: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우리의 현대적인 기계공업의 력사는 어떻게 시작되였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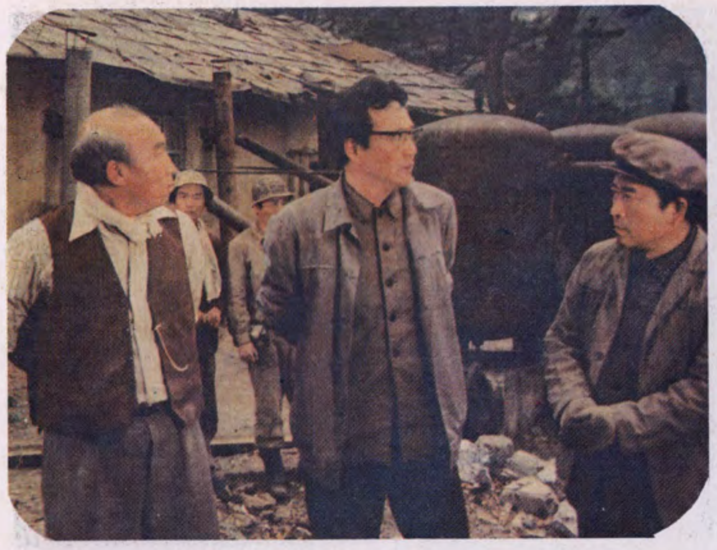
그것은 가장 준엄했던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시작되였다.

모든 인적, 물질적, 재정적자원을 전쟁승리를 위한데 돌려야했던 그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벌써 승리한 래일을 내다보시며 자신의 생활비까지 저축하여 마련한 귀중한 자금을 주인공인 지배인 강태성에게 안겨 주며 기계공업의 어머니공장을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주신다.













적기의 무차별적인 맹폭격, 식량난으로 인한 기아, 걸음걸음 시련과 난관이 막아 서지만 이들은 공장건설에 결사적으로 떨쳐 나선다. 건설자금을 가지고 행방불명이 되였다던 양덕만도 굶주려 쓰러지면서도 끝내 방수자재를 구해 온다.

그리하여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첫 기계공장이 건설된다.





예술영화 **우리는 여기서 산다**

주요배역

금 복		김련화
박대석	공훈배우	고승룡
영 민		김명남
석 화		최진화
리당비서	공훈배우	량해승
청 일		최 룡
부기장		안창순
대석어머니	공훈배우	리순정

창조성원

영화문학		리종현
		오금영
연 출	인민예술가	장영복
촬 영		김학철
미 술		리인식
		김명실

작 곡 성동환

제작: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전 세대들 그리고 언니의 피와 넋이 깃들어 있는 화암땅을 살기 좋은 락원으로 꾸리기 위해 애쓰는 관리위원장인 주인공 금복, 그는 농장청년 대식, 연구사 영민 등을 교양하고 적극 도와 주며 자체의 힘으로 대용연료를 연구하여 륜전기재의 가동을 보장하고 대용비료를 완성하여 우리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관철하는데 이바지하도록 이끌어 준다.

이 과정에 농장은 자력갱생모범농장으로 꾸려 진다.

금복은 한때 농장에 안착되지 못하던 대식이와 굳게 약속한다.

일을 더많이 하여 농장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꼭 모시자고.

그 약속을 지켜, 영광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그들은 더욱 분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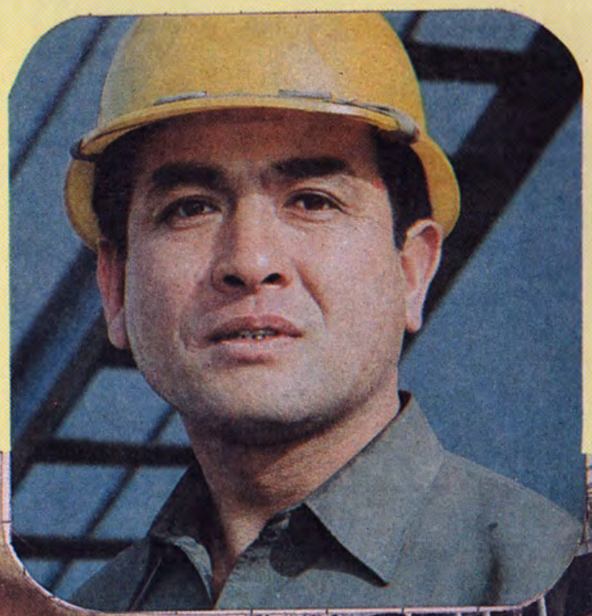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속에 우리 시대 청년들의 숭고한 지향세계가 비껴 있다.





예술영화

불 같은 사람





주요배역

용 철	공훈배우	고승룡
장 송	인민배우	김준식
명 신	공훈배우	김영숙
옥 금	공훈배우	정미숙
부기사장		남룡우
어머니	인민배우	정선화
직장장		김은홍
준 길		김명남
준 길어머니		김인영

창조성원

영화문학		안준보
		김국성
연 출		최형식
	인민예술가	리재준
촬 영		한희광
		류룡수
미 술		김철균
작 곡	공훈예술가	고수영

제작: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발전소건설용세멘트를 생산보장하기 위해 성에서 파견되여 세멘트공장에 내려 온 주인공 용철.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으로 세멘트생산이 어렵게 되자 생산계획을 조절 받으려는 지배인의 립장에 동조하던 그는 현장로동계급의 투철한 자세와 립장에서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뉘우친다.

생산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도를 모색하던 그는 옥금기사의 연구사업을 적극 떠밀어 주며 빠심을 들여 생산을 높이기 위해 애 쓸 대신 세멘트를 가지고 중유와 바꿈질을 하려던 지배인이 똑바로 살며 일해 나가도록 원칙적으로 비판하고 이끌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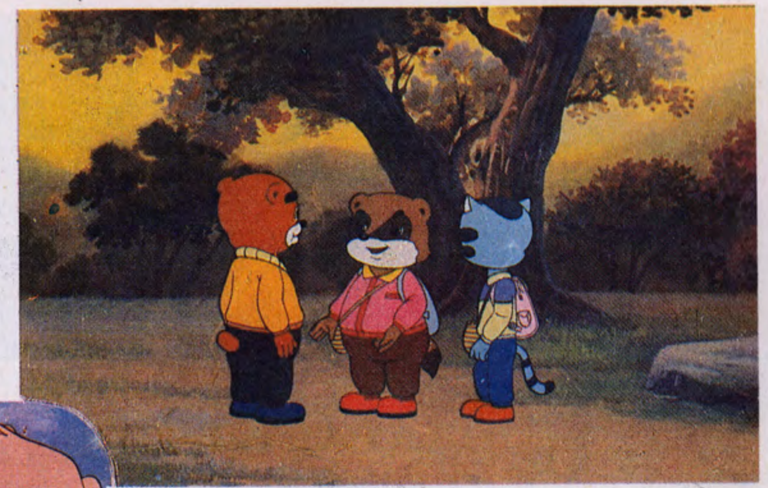
영화는 호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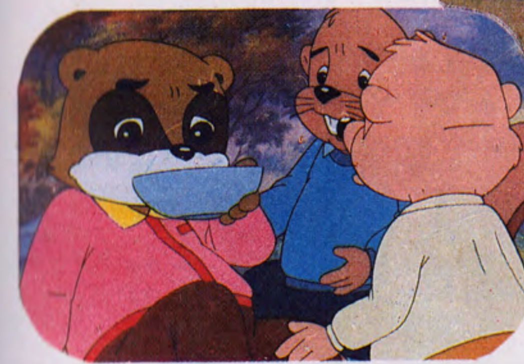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높은 실적을 내는 일군이 바로 진짜배기충신, 우리 당이 바라고 시대가 요구하는 일군이라고.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 제48부
꿀단지에 비낀 두 모습





앓는 멍멍이에게 필요한 산꿀을 구해 가지고 오다가 잉어와 바꾸는 곰과 그가 바꾼 산꿀을 너구리가 가져 오는 이야기를 통하여 동무를 위한 마음에는 티가 없어야 한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제작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 제49부
바다가에서 있은 일





밀물과 썰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곰과 야웅이가 너구리를 오해하면서 바다로 나갔다가 봉변을 당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바다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을 주면서 동무들을 함부로 의심하면 안된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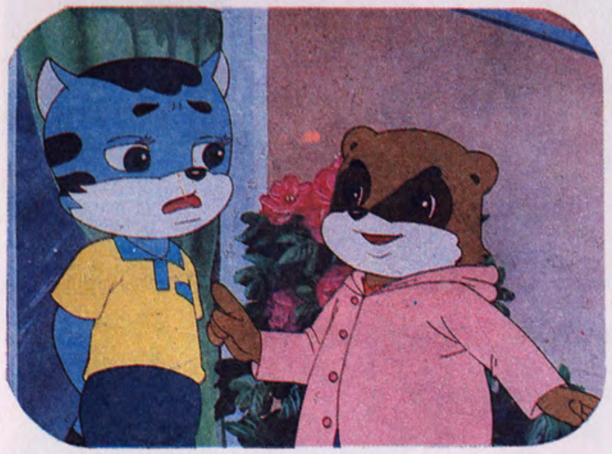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제작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 제50부

야웅이가 받은 꽃다발





음악경연날에 자유주의를 했던 야웅이를 끊어 진 다리로 건너 오게 하는 너구리의 형상을 통하여 중량의 균형에 대한 상식과 개인의 영예도 집단속에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제작

아동영화

다람이와 고슴도치 제14부

적후에서의 한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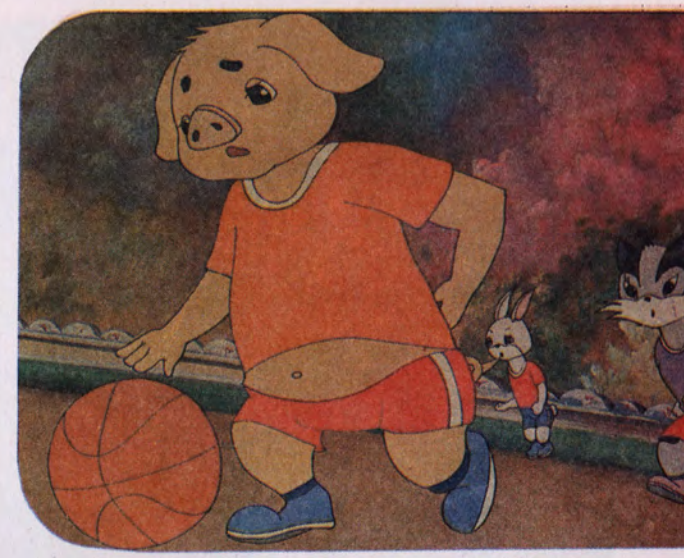


영화는 주인공 줄다람이의 한순간의 실책으로 동무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를 통하여 원쑤놈이 있는 한 단 한 순간도 절대로 해이돼서는 안된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제작

아동영화

양지동산 꼬마선수들



영화는 롱구를 잘한다고 우쭐대면서 남을 깔보던 멍멍이가 일상적으로 꾸준하게 훈련을 한 야웅이네한테 지게 되는 이야기를 통하여 자만하지 말고 언제나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제작



아동영화

샘 늪의 참개구리

영화는 포악한 가물치놈한테 이리저리 쫓겨 다니던 참개구리가 그놈과 견결히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통하여 원쑤가 무서워 뒤걸음치면 죽는 길밖에 없으며 끝까지 싸워 족쳐 버려야 한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제작

아동영화

신기한 수정구슬



영화는 어느 한 마을에서 해적놈들에게 빼앗겼던 신기한 수정구슬을 찾아 오는 이야기를 통하여 아무리 재주가 남다르다 해도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칠 때 그 어떤 원쑤도 이겨낼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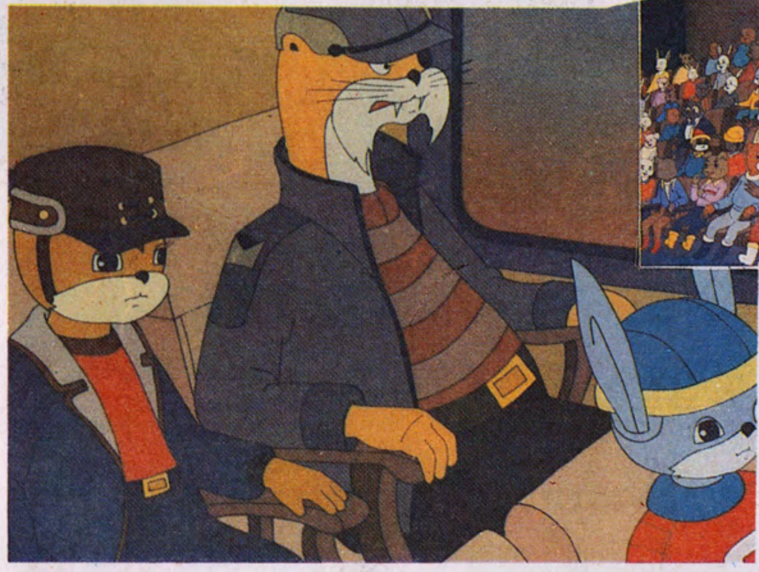
아동영화

다람이와 고슴도치 제15부

(흰 눈작전)

줄다람이가 간악한 애꾸륵무대장을 처단하고 꽃동산이 준 임무를 수행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자기 고향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고 싸울 때 그 어떤 강한 적도 이긴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조선4. 26아동영화촬영소 제작

아동영화

농부와 얼룩이

정성들여 키워 준 개가 불속에서 주인인 덕삼이를 목숨 바쳐 구원해 주는 이야기를 통하여 사람들이 의리를 저버리면 짐승보다 못하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조선4. 26아동영화촬영소 제작



아동영화

덕만이와 쇠돌이



공부를 잘한 덕만이는 나라를 위한 훌륭한 장수가 되고 공부를 잘하지 못한 쇠돌이는 마을을 지키는데 위험이 닥쳐오게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아는것이 많아야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조선4. 26아동영화촬영소 제작

아동영화

왜 몰랐을가요?

영화는 무더운 여름날 새로 배운 과학지식을 활용하여 양어장으로 종자고기를 안전하게 날라 가는 오소리와 그렇지 못한 반달곰의 형상을 통하여 보온에 관한 지식을 주고 있다.

조선4. 26아동영화촬영소 제작





경사로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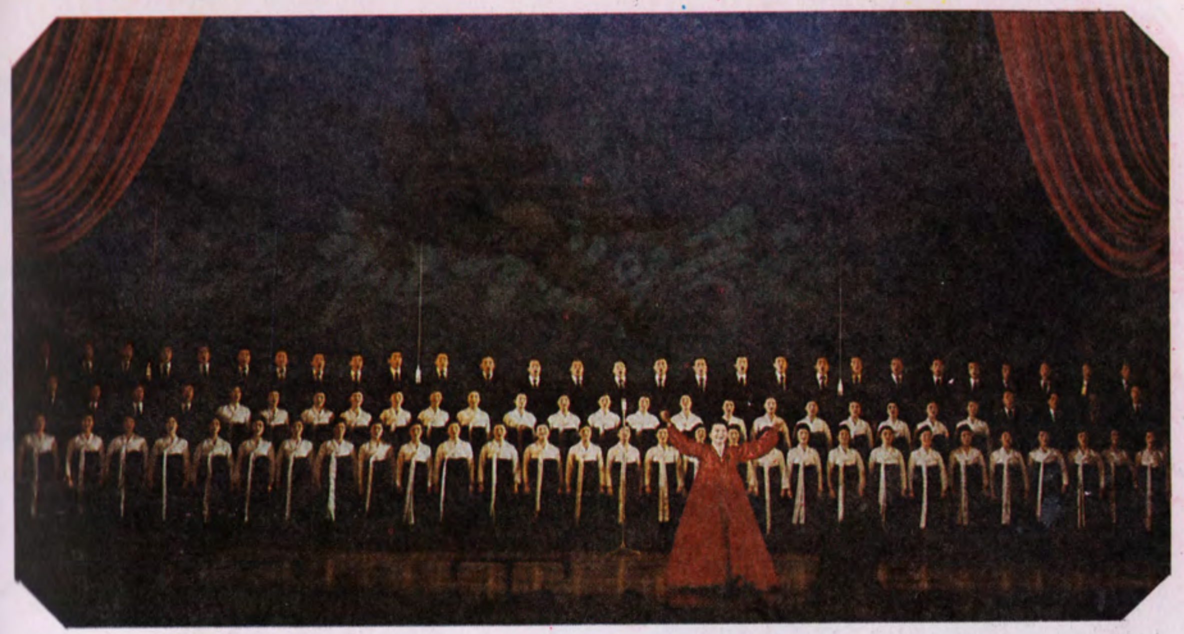
(만수대예술단공연중에서)



합창 《**김정일**장군의 노래》



녀성 2 중창과 남성 4 중창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나라》



녀성독창과 합창 《천리마선구자의 노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2월 15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중앙과 지방의 극장, 궁전, 회관들에서 2.16경축공연이 진행되였다.

수도의 동평양대극장에서는 만수대예술단이, 모란봉극장에서는 국립교향악단이 경축무대를 펼쳐 놓은것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공연들이 진행되였다.

만수대예술단 예술인들은 합창 《**김정일**장군의 노래》로 시작되는 2월의 경축무대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를, 국립교향악단 예술인들은 관현악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피아노협주곡 《백두산의 눈보라》 등을 무대에 올렸다.

함경북도예술극장, 강원도예술극장, 평안북도예술극장 등 각 도예술극장들과 문화회관들에서도 예술인들이 경축공연을 진행하였다.

합창과 무용 《우리의 **김정일**동지》, 남성저음독창과 합창 《만대에 빛나라 **김정일**시대》, 합창 《정일봉의 우뢰소리》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백두의 기상과 슬기를 한몸에 안으시고 백두광명성으로 솟아 오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 없는 흠모의 정 그리고 또 한분의 천출명장을 인민의 수령으로 높이 모신 끝 없는 영광과 행복,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소리높이 노래하였다.

(국립교향악단 공연중에서)



바이올린독주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장군님은 총련의 운명, 70만의 아버지》

—2.16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중에서—



경사로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평양대극장에서 재일조선인예술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2.16경축 음악무용종합공연 《장군님은 총련의 운명, 70만의 아버지》가 진행되였다.

출연자들은 남성독창과 가야금 《아버지의 심정》, 남성3중창《사랑만을 주셨네》, 혼성2중창과 무용 《태양과 별무리》, 장새납독주와 방창《우리 자랑 이만저만 아니라오》등 다양한 형식의 종목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재일조선인들의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끝 없는 영광과 행복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출연자들은 또한 녀성독창《긴아리랑》, 녀성3중창《묻지나 말라구 우리의 마음》, 쌍무《장기놀이》등의 종목들에서 유구한 력사를 단일민족으로 살아 온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전통과 아름다운 미풍량속,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감명 깊게 펼쳐 보이였다.





이번 경축공연의 지휘자이며 여러 종목의 작품들을 창작한 작곡가이기도 한 총련금강산가극단 부단장 김경화동무는 말하였다.

《해마다 맞이하는 2월의 명절이지만 이해의 봄명절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시금 높이 추대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뜻 깊은 기념일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빛나고 있는 우리 조국, 오늘 장군님은 우리의 운명이시며 70만재일동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장군님따라 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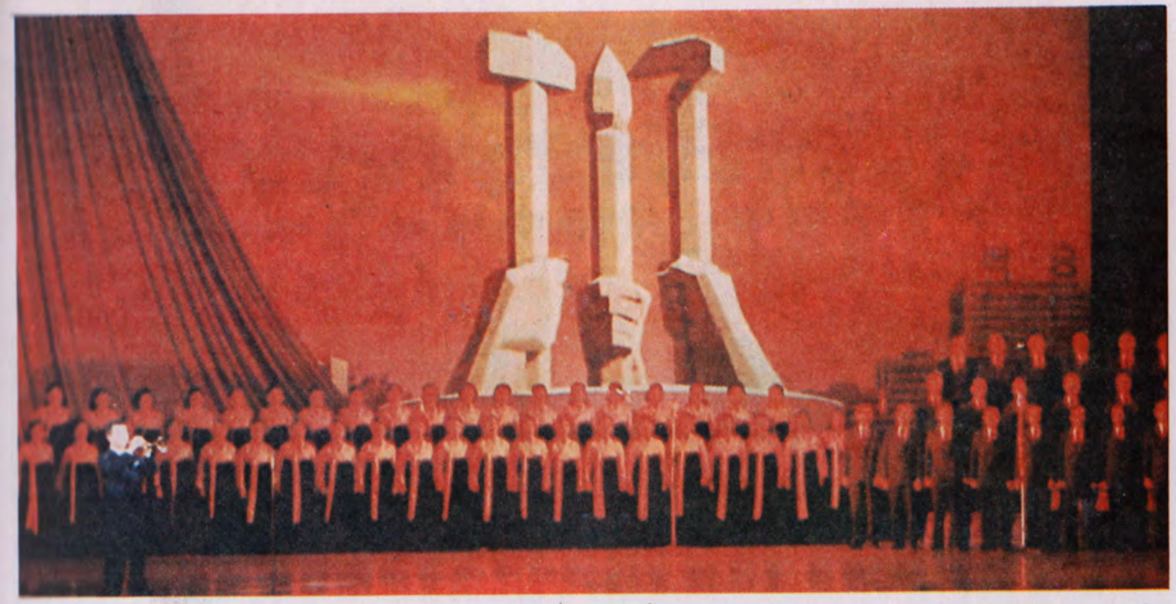
(만수대예술단조직 30돐 음악무용종합공연중에서)



피아노 2중주와 합창 《조선아 너를 빛내리》



남성 4중창 《수령님 은덕일세》



트럼베트독주와 합창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기악중주 《충성의 노래》



녀성중창 《수령님 높은 뜻 붉게 피였네》



혼성 2 중창과 합창 《충성의 한길로 가고 가리라》



무용

《조국의 진달래》



합창 《높이 들자 붉은기》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5 돐에 즈음한 회고의 밤)



남성독창과 합창 《우리 수령님》



녀성민요독창 《끝 없는 이 행복 노래 부르네》



녀성독창과 무용《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녀성독창과 합창《수령님 한품속에 우리는 사네》



녀성기악중주《포전길 걸을 때면》



녀성독창과 중창《오직 한마음》



합창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출연: 조선인민군 4.25 예술영화촬영소

경희극 《동지》는 한 인민군지휘관이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중대의 모든 병사, 사관, 지휘관들을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충성의 한길에서 영원한 동지가 되도록 이끌어 나가는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

병사복을 입고 신입병사들과 함께 설봉중대에 내려 와 병사생활을 하는 주인공인 사단장 정광철.

부모 없는 방시남의 누이동생을 데려다 곁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하고 전우들의 발싸개도 빨아 주고 목달개도 달아 주면서 그는 모든 병사, 사관, 지휘관들이 서로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도록 이끌어 준다.

하여 중대안에는 단순한 명령과 복종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관병일치, 상하일치의 전통적기풍이 더욱 뜨겁게 흐르게 된다.

이 과정에 한때 소대장의 강한 요구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던 지일섭이 위기일발의 순간 소대장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내대며 소대장은 자기의 손가락을 칼로 베고 피 흐르는 손가락을 중상을 당하고 갈증에 시달리는 지일섭의 입에 물려 주는것이다.

작품은 전사들을 보고 싶다 하시며 위험한 최전연 설봉중대를 찾아 오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동지애로 절정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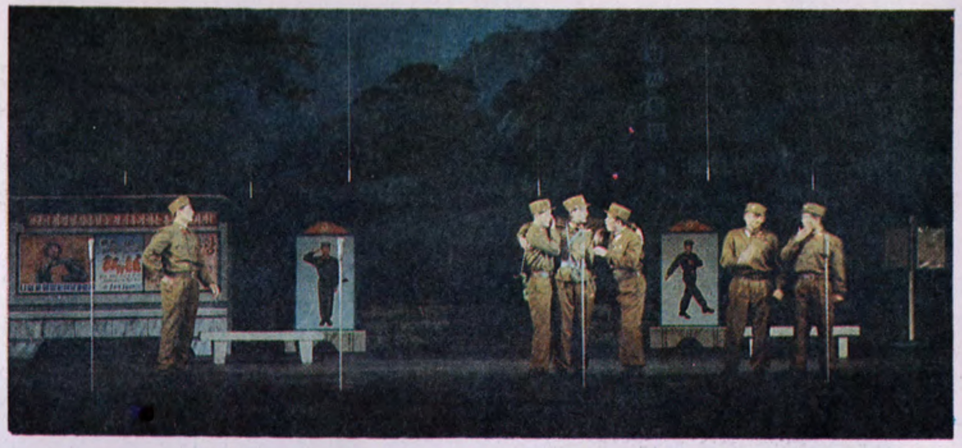














만수대예술단 공훈녀성기악중주단의 공연중에서



바이올린제주 《룡강기나리》



바이올린 3중주 《버섯 따는 처녀》



녀성고음독창 《사회주의락원일세》



홀류트독주 《뻐꾹새》



바이올린독주 《장군님 여기는 최전연입니다》



《웃으며 가자》

(국립희극단공연중에서)



재담 《복이 나간다》



노래독연 《할아버지의 사진》



재담 《똘똘이와 삼녀》



만담 《감자》



만담 《바가지》



막간극 《깨깨 탔다》

조선인민군 제549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공연중에서



녀성독창과 남성중창 《매봉산타령》



선동극 《우리의 총대는 용서치 않으리》



합창 《높이 들자 붉은기》

조선인민군 제526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중에서



합창《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



녀성독창《정일봉의 자장가소리》



시 이야기《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



노래와 요술이야기《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조선인민군 제264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중에서



5중창과 합창《자랑하세 천하제일명장》



극2중창《정다운 목소리》



중창이야기《꽃단지》



합창《불패의 강국이여 앞으로》

평양음악무용대학 창립 50돐기념 공연중에서



평양음악무용대학창립 50돐기념 공연이 3월 23일에 진행되였다.

합창 《김정일장군의 노래》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녀성민요독창 《수령님 만고풍상 못 잊습니다》, 녀성 3중창과 합창 《고향집추억》, 가야금독주 《조국의 대자연 개조해 가세》, 독무 《대홍단에 감자풍년 들었네》, 피아노협주곡 《결전의 길로》, 발레쌍무 《영웅의 동상에 붉은 꽃 드렸네》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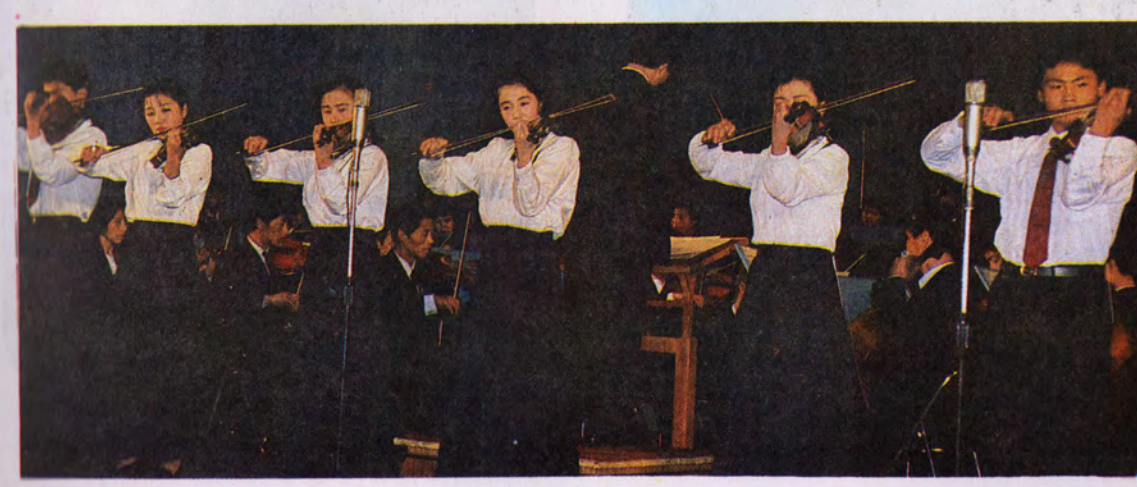
합창《혁명의 계주봉》으로 막을 내린 공연은 우리 당의 품속에서 자기의 예술적재능을 활짝 꽃 피우고 있는 학생들과 연구생들의 훌륭한 예술적기량의 시위로 이채를 띠였으며 예술인들과 음악애호가들의 커다란 관심과 이목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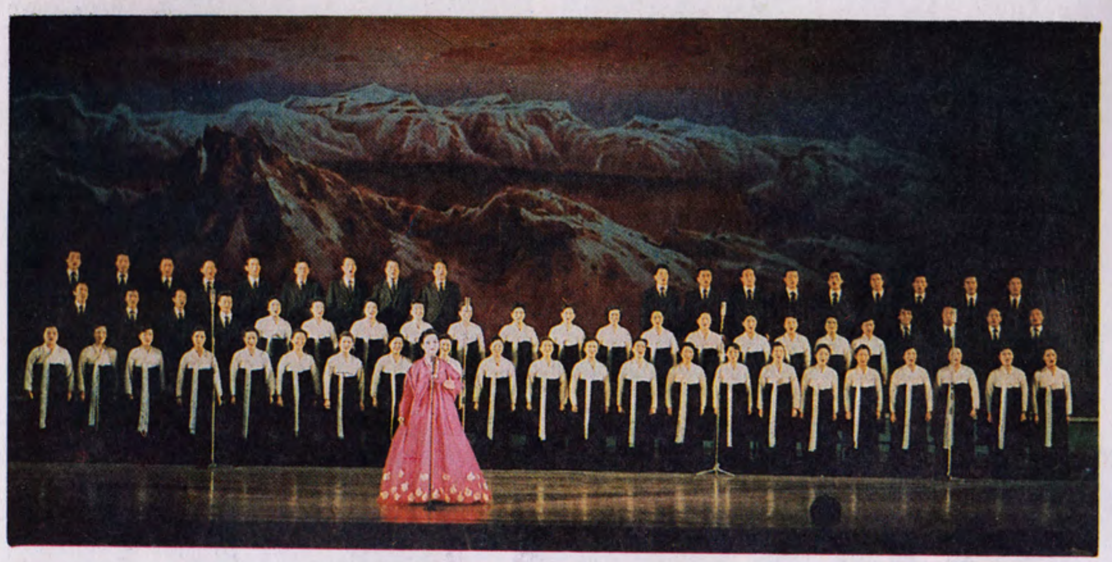








작곡가 인민예술가 리정언 음악회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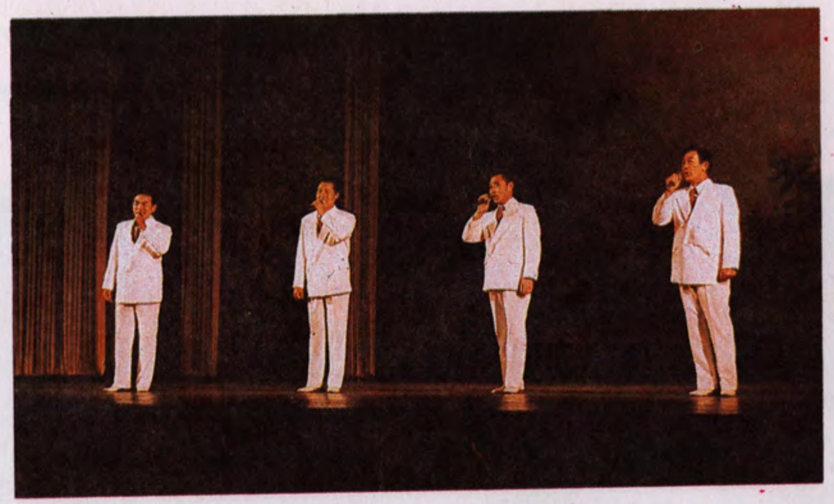
녀성독창과 합창 《해 솟는 백두산아 영광 빛나라》



녀성2중창과 합창 《소백수의 밤》



혼성 2 중창 《내 어이 잊으랴》



남성 4 중창 《주체의 나라 행복한 나라》



녀성고음독창 《온 세상에 만발한 김일성화》



녀성고음독창 《찬란한 나의 조국이여》



남성중창 《사랑의 길우에 눈이 내리네》

제18차 윤이상음악회중에서





윤이상음악연구소창립 15돐에 즈음하여 제18차 윤이상음악회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19일에 진행된 개막공연무대에는 윤이상초기가곡 《편지》, 윤이상교향시곡 《광주여 영원히!》, 라흐마니노브의 피아노협주곡 제2번 등이 올랐다.

21일에 진행된 폐막공연무대에는 윤이상의 현악 4중주곡 제6번, 첼로와 하프를 위한 2중주곡, 실내협주곡 제1번 등의 종목들이 올랐다.



북, 남, 해외통일예술축전중에서

북, 남, 해외통일예술축전이 8월 15일 판문점의 판문각앞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축전시작을 알리자 아름다운 노래선률이 울려 퍼지는 속에 민속무용 《통일줄꽃춤》과 《단심줄》이 펼쳐 졌다.

이어 《우리의 단결은 통일입니다》, 녀성독창과 무용 《봉선화》, 민속무용 《장고춤》, 혼성중창 《통일오작교》, 가무 《그네 뛰는 처녀》, 남성중창 《통일의 주체는 우리들이다》를 비롯하여 《위대한 내 나라》, 《장군님 모신 자랑 노래 부르자》, 《친근한 이름》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무대에 올랐다.

축전은 내외분렬주의세력의 온갖 반통일책동을 과감히 짓부시며 신심과 락관에 넘쳐 민족대단결의 진군, 통일실현의 대장정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려는 7천만겨레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힘 있게 과시하였다.









제 17 차 4 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축전참가자들은 만수대언덕에 모셔 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꽃바구니와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축전참가자들



합창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로씨야 알렉싼드로브명칭 군대협주단)



무용
《애국준마 타고 달리자》
(재일조선인예술단)



혼성2중창 《내 마음 내 조국》(재중조선인예술단)



노래와 춤 《더 잘 모시리》(재일조선인예술단)



첼로독주 《기다려 다오》(재미조선인예술단)



남성독창 《김정일각하께 축원을》

(네팔예술단)



무용 《겨울》(로씨야 알렉싼드로브명칭 군대협주단)



중창과 합창 《조선은 하나다》

(로씨야 알렉싼드로브명칭 군대협주단)



녀성독창 《쏠로강의 노래》

(인도네시아예술단)



녀성2중창 《따사로운 그품이 그립습니다》

(몽골예술단)



가야금독창과 방창 《구름 넘어 그리운 장군별님께》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



교예
《줄넘기와 모자재주》
(중국교예단)



교예 《손재주》 (꾸바교예단)



교예 《도립조형》
(스웨리예교예배우일행)



교예 《3단발전회》 (로씨야교예단)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성과적으로
페막되였다.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는 축전참가자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는
축전참가자들



축전참가자들은 지하의 명승 《룡문대굴》
을 돌아 보았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를 찾은 축전참가자들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과 로씨야 알렉싼드로브명칭 군대협주단의 련환공연중에서





선창가수 석지민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4월 19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진행된 련환공연은 로씨야 알렉싼드로브명칭 군대협주단의 합창 불멸의 혁명송가《**김일성**장군의 노래》로 시작되였다.

이어 두 나라 군대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합창 불멸의 혁명송가《**김정일**장군의 노래》와 합창들인 《언제나 수령님을 우러러》, 《장군님 백마 타고 달리신다》, 《정의의 싸움》, 《승리의 날》, 《로씨야병사들》, 독창《깔린까》, 《뻬쩨르거리를 따라》, 무용 《명절행진곡》, 《해병생활》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무대에 올랐다.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합창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로 막을 내린 련환공연은 풍만한 성량과 째인 안삼불, 세련된 기교 등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무용 《명절행진곡》 (로씨야 알렉싼드로브명칭 군대협주단)



선창가수 왈레리 가바 (로씨야 알렉싼드로브명칭 군대협주단)



선창가수 리성철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윤이상관현악단과
도이췰란드중주단의 합동공연중에서



바이올린제주 《우리의 아버진 **김정일**원수님》

제 17 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개막에 앞서 윤이상음악당에서 진행된 합동공연무대에는 도이췰란드중주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바이올린독주 《간격》, 첼로와 피아노 2중주 《조각》, 피아노 3 중주 《네니아와 칸 투스》, 윤이상관현악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관현악 《충성의 노래》, 녀성고음독창 《수령님 모신 행복 노래 부르네》, 남성중음독창 《정일봉의 우뢰소리》 등이 울렸다.

합동공연은 고유하고 특색 있는 음색과 잘 째인 안삼블, 세련된 기교 등으로 하여 관람자들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바이올린독주 윤이상작곡 《간격》



피아노 3중주
《네니아와 칸 투스》

경희극

동 지

박 호 일

△때:현대
△곳:전선중부의 설봉중대에서
△나오는 사람들
정광철:사단장
리 석:중대장
주일규:중대정치지도원
장득호:소대장
지일섭:상급병사
방시남:병사
석종팔:분대장
손기택:초급병사
장대철:상급병사
군단정치위원
사단정치위원
군사부사단장
박두칠:중대사관장
한 순:광철의 안해
시 옥:시남의 누이동생
리설향:중대장의 누이동생
금 실:녀성중대사관장
병 사:1, 2, 3, 4
사 관:1, 2, 3
군 관:1, 2, 3
신입병사:1, 2, 3
녀병사:1, 2
기타 남녀군인들, 군관가족들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배우들 다수

서 장

△최전연에 위치한 사단지휘부 마당
△경쾌한 음악속에 막이 열리면:
군인들이 씩씩하게 지나가고 지나온다. 사단정치위원과 군사부사단장이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나오는데 승용차가 급정거하는 소리.

직일관:(달려 나오며)부대 차렷!

△름름한 체격의 젊은 장령(사단장 정광철)이 들어 온다.

직일관:(접근보고)소장동지, 부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직일관 리철!

광철:쉬엿하시오.

직일관:쉬엿!

정치위원:사단장동지!

광철:아, 정치위원동지, 사단관하 구분대들과 방어구역들을 다 돌아 보았는데 군인들의 정신상태도 아주 좋고 싸움준비도 잘되고 정말 신심이 생깁니다.

정치위원:수고했습니다.

부사단장:이번에 저 설봉에도 올라 가 보았습니까?

광철:그 설봉중대는 내가 이제 병사생활을 가야 하기때문에 들려 보지 않았습니다.

부사단장:아니, 그럼 설봉중대에서 병사생활을 하겠다는겁니까?

광철:예.

정치위원:그 중대는 이번에 새로 교방하다나니 생활토대도 그래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은 중대입니다.

광철:바로 그래서 그 중대로 가보자는겁니다.(생각깊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은 신임으로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한개 사단을 맡고 보니 정말 생각되는바가 많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올해를 관병일치를 더욱 활짝 꽃 피우는 해로 정해주시면서 인민군지휘성원들은 어깨에 별이 많아 지고 직무가 높아 질수록 자기가 병사생활을 하던 때를 언제나 잊지말고 군인들속에 깊이 들어 가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그래서 이번에 한번 착실하게 병사생활을 해보자는겁니다.

정치위원:사단장동지, 군단정치부에서는 사단장동지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 왔습니다.

광철:그렇습니까. 그럼 내 준비하겠습니다.(나간다.)

부사단장:(웃으며)정치위원동지, 새로 온 우리 사단장동지가 시작부터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일욕심도 많구 내밀성도 있구말입니다.

정치위원:군사부사단장동지, 사단장동지가 병사생활을 하는 동안 부대지휘관리를 더욱 짜고 들어 집행위원회에서 토론한대로《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힘 있게 내밀어 봅시다.

부사단장:예, 다 토론이 됐습니다.

정치위원:그리고 사단장동지의 이사짐을 아직 풀지 못했다는데 잘 도와 주어야겠습니다.

부사단장:알겠습니다.

△병사복을 입고 배낭을 멘 광철 나온다.

광철:자, 이 병사복이 어떻습니까?

정치위원:아이구… 옷이 날개라고 그렇게 입으니 병사의 체모가 쭉 잡힙니다.

부사단장:정말 신통합니다.

광철:(손거울을 보며)나두 뭐 아직 쌩쌩하구만.

부사단장:그만하면 처녀장가라도 가겠습니다.

광철:그거 듣기 좋습니다.

모두:(웃음)

광철:(거수경례를 하며) 정치위원동지, 사단장 정광철 병사생활을 떠나겠습니다.

정치위원, 부사단장:(뜨겁게) 병사동지!…

△광철 언덕길에 오르며 손을 흔든다.
바래주는 두사람.
△음악속에 제명이 솟는다.

동 지

△무대 서서히 암전
△간막앞으로 신입병사들이 환성을 지르며 나온다.

신입병사들:야, 설봉이다!…

신입병사1:야! 꽤나 높구나야.

신입병사2:구름이 허리에 걸린걸 보라, 저거…

신입병사3:얼마나 높을가?…

신입병사들:글쎄…

광철:(뒤따라 나와 서 있다가)오, 거한 천이백쯤 잘돼 보이누만.

신입병사들:어엉?… 처음 보는 동무다?

신입병사1:여! 동무 이름이 뭐야?

광철:난 정광철이라고 하오.

신입병사들:하오?…(폭소를 터뜨린다.)

신입병사2:아주… 제법인데…

신입병사3:그런데 왜 신병훈련때 보지 못했을가?

광철:난 지금 저 다른데서 오는 길이요.

신입병사들:오, 그렇댔구나.

신입병사2:이치 이거 죽신히 나이 먹어 보이는데… 여 몇살이야?

광철:(웃으며) 그래 얼마쯤 나보이나?

신입병사:거 한 스물서너너덧 됐?…

광철:오 그쯤 돼.

신입병사들:데거…

신입병사2:우리 맏형님벌이로구나. 야, 자 못하겠는데…

광철:별소릴 다하는구만. 군대야 입대날자가 다 같으면 동급인데 뭘 그래?

신입병사1:야, 성격이 좋구만요. 알구 지내자요, 난 차일남이예요.

신입병사2:난 독고치만이예요.

광철:독고치마?

신입병사2:아니, 성은 독고, 이름은 치만이… 딱 부정인물 같지?

광철:아니, 전혀 그렇지 않은데 뭐…

신입병사3:난 서정순이야요. 녀자이름 같지요?

광철:허… 녀자 같구나.

△그러거나말거나 시남이는 한쪽에 서서 무슨 편지인가를 보고 있다.

신입병사1:여 시남이! 통성 안해?

시남:(와뜰 놀라며) 엉? 통졸임? 다 먹었어.

신입병사들:(폭소)

신입병사3:저치 안되겠구만. 신병훈련때두 늘 저래서 말을 듣더니… 아, 무슨 생각을 짬만 있으면 해?

시남: 됐어…

광철:(주의 깊게 본다.)

신입병사들:자, 동무들! 가자.

△신입병사들 달려 나간다.

신입병사2:(나가다가)여, 광철동무! 뭘해요? 빨리 가자우.…(달려 나간다.)

광철:(나가다가)뭐? 이 친구?… 핫, 순간에 친구가 됐구만.좋긴 좋은데…

△중대장 리석이와 정치지도원 주일규가 달려 나온다.

리석:저… 혹시 사단장동지가 아니십니까?

광철:그렇소

리석:안녕하십니까? 중대장 리석!

일규:정치지도원 주일규!

광철:그새 수고들 많았습니다.가만…(차렷하고 거수경례를 하며)중대장동지! 병사 정광철 병사생활을 하기 위하여 도착했습니다.

리석:아아…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일규:방금 사단정치위원동지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배낭을 주십시오.

광철:괜찮습니다.…(갑자기 웃음을 터뜨린다.)

리석, 일규: 아니? …왜 그러십니까?

광철:이자 말입니다. 여기 설봉중대로 오는 신입병사들과 통성을 했는데 순간에 친구가 됐습니다. 내 그 소리를 들으니 병사시절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리석.일규:예, 그렇습니까?…(웃는다.)

광철:가만가만…중대장동지, 이왕 일이 이렇게 된바엔 내가 사단장이라는걸 군인들에게 알리지 않는게 어떻습니까?

리석:예?… 그럼 아예 알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광철:병사생활이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됐는데 구태여 내가 사단장이라는걸 알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규:야, 그러다가 온 중대가 사단장동진줄 모르고 너나들이를 하면 어쩝니까?

광철:그게 어째서요, 너나들이가 얼마나 좋습니까.이제 병사들이 내가 사단장이라는걸 알게 되면 뭘하나 생겨두 골라 먹이려고 할게구, 또 서먹서먹해 하면서 속도 잘 주지 않을거구… 게다가 방금전까지 나에게 이 골받이를 하던 저 딱친구들이 얼마나 바빠하겠습니까.

리석:예… 알겠습니다. 사단장동지의 명령을…

광철:아,아… 이건 사단장의 명령이 아니라 병사의 부탁입니다.

리석,일규:(웃으며) 병사동지의 부탁을 명심하겠습니다.

광철:고맙습니다.

리석:어서 가십시다.

△세사람 웃으며 나갈 때 환영곡이 울리며 간막이 오른다.

제 1 장

△무대:아스라한 산중럭을 깎아 내고 평퍼짐하게 자리 잡은 중대마당, 아담한 중대병실이 환등으로 보인다. 대렬적면모와 경례법을 보여 주는 그림판과 중대속보판, 아담한 꽃밭들과 나무들, 쉼터의자들이 적당히 놓여 있다.

안개 흐르는 산아래로 유유히 흐르는 설봉천…

멀리 보이는 고지에 흉물스런 적들의 초소가 보인다.

△환영곡속에 막이 열리면:

리석이와 일규가 신입병사들을 데리고 들어 온다.

군인들이 박수를 치며 그들에게 꽃다발을 안겨 준다.

리석:신입병사동무들, 동무들은 이젠 자기 집에 왔소. 우린 오늘부터 모두가 다 같은 혁명동지들이요. 물론 중대가 갓 교방되여 오다나니 아직은 불편한 점들이 많소, 하지만 손 잡고 한번 잘해보기요.

신입병사들:알았습니다.

리석:(책을 펼치며)병사 차일남, 서정순, 1소대! 병사 독고치만, 2소대! 병사 방시남, 정광철 3소대!

신입병사들:알았습니다.

리석:자, 인사들을 나누시오.

△1, 2소대 군인들이 신입병사1, 2, 3을 데리고 나간다.

△3소대 군인들만 남는다.

득호:동무들! 내 3소대장 장득호요!

광철:(차렷하며) 병사 정광철!

득호:야, 끌끌하구만!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사회생활을 하다가 입대했소?

광철:그렇습니다.

득호:(광철의 가슴팍을 툭 치며) 아주 좋아.

종팔:예, 좋습니다.

득호:(시남에게 다가선다)

시남:병사 방시남

득호:동문 입대전에 뭘했소?

시남:전 고기전문을 다니다가 입대했습니다.

득호:고기전문?… 아, 고기전문식당!… 료리사요?

시남:(당황하여) 저…

득호:접대원?

시남:아니, 저…

광철:소대장동지, 그건 고등기계전문

학교를 다녔다는 소립니다.

득호:고등기계전문?… 난 또 고기전문식당이라구…

군인들:(웃음)

득호:애리애리해. 이 동무한테 누구 한동무 붙이라우.

종팔:초급병사 손기택동무를 붙이겠습니다!

득호:손기택이?… 좋지. 헌데 어데 갔소?

종팔:기통근무 나갔습니다.

득호:아, 그렇지… (광철이와 시남에게)자, 이젠 한집안 식구가 됐으니 툭 털어 놓고 말하기요. 이제 곧 3대혁명에 비관정도 있는데 지금 우리 소대의 실태는 어떤가? 훈련성적도 그래 규률상태도 그래 아직 관정기준에 도달하자면 멀었단 말이요. 게다가 요 며칠전엔 근무에 나가서 징후판단을 잘못하여 중대적으로 소문을 낸 병사도 바로 우리 소대에 있단 말이요. 내 그래 말하자는건 신입병사라고 해서 어루만질 형편이 못된다는거요. 우리 함께 손 잡고 중대에서 제일 앞서나가는 소대로 만들어 보기요.

광철, 시남:알았습니다.

득호:이 동무들을 병실로 안내하오.

종팔:알았습니다. 우로 돌앗! 날 따라 앞으로 갓!

△종팔, 광철, 시남과 군인들이 나간다.

득호:분대장동무!

종팔:옛!… (나가다가 돌아 선다.)

득호:지일섭동무가 아직 누워 있소?

종팔:예… 전투근무에서 제명된 다음부터 저럽니다.

득호:여긴 전연이요, 전연.… 징후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전투근무에 내보낸다고 그래. 좀 있다 일섭이를 나한테 보내오.

종팔:알았습니다.

△득호 나간다.

△염소 울음소리, 회초리를 든 대철이 들어 온다.

대철:(허우대가 장대 같다.) 분대장동지, 상급병사 장대철 만날수 있습니까?

종팔:왜 그러오?

대철:(물통을 내밀며) 저… 이걸 드십시오.

종팔:(받으며) 이게 뭔데?

대철:방금 짪인 염소젖인데 따끈따끈합니다.

종팔:그래두 장대철이가 이 분대장을 생각할줄 안단 말이야. (마신다.)

대철:뭘요 … 그런데 분대장동지, 며칠전에 분대장동지한테서 빌린 면도칼 또 잊어 먹었습니다.

종팔:(펄쩍 놀라며) 뭘 또?…

대철:저놈의 염소가 달아 나는 바람에 막 따라 가다가 그만…

종팔:(어이 없어) 아니 동무, 그거 이젠 몇개째야? 야… 그놈의 수염 나오는 구멍 고강도 세멘트로 모조리 매몰했으면 좋겠다.

대철:그래두 나올겁니다. 내 수염은 분당, 초당 나오는것이 대놔서…

종팔:내 참… 음음…

대철:이건 아마 유전의 고유한 법칙인것 같습니다. 난 이거 외탁을 했는지…

종팔:외탁?… 어머니가 그렇게 수염이 많소?

대철:아니… 우리 고조 외할아버지가…

종팔:(어이 없어 웃고 만다.)

대철:야… 분대장동지, 한번만 좀…

종팔:이젠 없어, 없어. 자꾸 따라 다니지 말라.

△종팔 달려 나간다

대철:(턱을 슬슬 어루만지며)에이… 이놈의 수염때문에 남 안하는 마음고생 되겐 하누나.…

이거 어디 가서 면도칼 또 빌린다?…(두리번거리며 나가려는데)

△광철, 시남, 신입병사 1, 2, 3 달려 나온다.

신입병사1:여 동무들, 저기가 놈들이 도사리고 있는 초소래.

△신입병사들 마당끝으로 달려 가 바라본다.

신입병사3:놈들하구 이렇게 가까이 있는줄 몰랐는데…

신입병사2:맑은 날이문 괴뢰군장교놈이 사병놈을 막 때리는것도 쨋쨋이 보인대…

대철:핫하하… (웃음을 터뜨린다.)

신입병사들:(놀라서 돌아 본다.)

대철:어, 동무네 전연에 온 기분이 어때?

신입병사들:좋습니다.

대철:나로 말하면 여기 중대 염소책임자 장대철이라고 하오.

신입병사들:안녕하십니까?

대철:(신입병사1, 3을 량팔로 껴안으며) 동무네 앞으로 출출하면 날 찾아 오라. 알았지, 잉?… (턱으로 두 병사의 볼을 쓸어 준다.)

신입병사1, 3:아야…(비명)

신입병사1:데거… 무슨 수염이 이렇게 많습니까?

대철:벌써 포착했구만. 내 그래서 속상해 그러지 않소. 동무네 누구 면도칼 좀 없어?

신입병사들:우린 뭐 아직…

광철:(빙그레 웃으며)아, 면도칼 여기 있소.(주머니에서 면도칼을 꺼낸다.)

대철:야!… 살았구나!… (덥석 받아쥔다.) 가만가만… 그런데 뭐 여기 있소? 말투가 좀 건방지긴 한데… 하여튼 괜찮아. 여, 좀 빌리자우.

광철:아주 쓰십시오.

대철:아주 가지란 말이야?

광철:예.

대철:야… 이 친구 통이 크구만. (물통을 주며) 여, 염소젖 마시라우.

광철:고맙습니다. (물통을 받아서 시남에게 준다.)

대철:(나가려다가) 여. 동무, 이거 정말 고맙다야. …(또 나가려다가) 여. 동무, 이거 정말 잘 쓰겠다야. (또 나가려다가) 여. 동무, 에이 됐다야… (달려 나간다.)

신입병사들:(웃음)

△이때 쌀마대를 등에 진 5~6명의 군인들이 헉헉거리며 지나간다.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신입병사들.

신입병사1:야… 저 산아래에서 후방물자를 다 등짐으로 져나르는구나.

신입병사3:뭐 삭도가 고장나서 그런다나.…

신입병사들:삭도?…

광철:(생각 깊은 얼굴)

△이때 기통가방을 멘 손기택이 달려 나온다.

기택:(작고 똥똥하다.) 아하! 신입병사들이 왔다더니 동무들이요.?

신입병사들:안녕하십니까?

기택:야, 이거 정말 반갑다야. 반갑소.(일일이 손을 잡아 주며)다 잡아 보기요.

신입병사들:(웃는다.)

기택:3소대에 배치 받은 동무들이 누군가?

광철, 시남:옛! (한걸음 나선다.)

기택:야. 동무네요? 정렬시키시오.

광철:알았습니다.

기택:동무넨 가보라우.

신입병사1, 2, 3:알았습니다!(나간다.)

광철:차렷! 초급병사동지, 병사 정광철 외 1명 명령대로 모였습니다.

기택:(틀을 차리며) 쉬엿하시오.

광철:쉬엿!

기택:동무네 나 알지?

광철, 시남:모릅니다.

기택:몰라?… 아니? 병사로부터 초급병사로 기한전 승급을 한 날 모른단 말이야?… 내가 바로 동무넬 책임지라는 임무를 받은 손기택이야. (손을 보이며) 손! (귀를 가리키며) 기! (턱을 짚으며) 택!

광철, 시남:(웃는다.)

기택:자, 그럼 담화 좀 해볼가. 앉으라.

△광철, 시남 앉는다.

기택:동무네 규정 배웠지?

광철, 시남:예.…

기택:병사의 의무 일곱번째! 키 큰 동무 한번 말해 보래.

광철:옛. 답변하겠습니다. 상급인 병사는 하급인 병사를 교육교양함에 있어서 분대장을 도와야 한다. 이상입니다.

기택:그래 이젠 내 위치가 확 알리나?

광철:(웃으며)에… 확-알립니다.…

기택:말하자면 동무네의 내적직속상관이라는것! 이걸 명심하라우. 어디 가서 또 내가 그러더라고 말하진 말구.

광철,시남:(웃으며) 다 압니다.

기택:다 알아? 히야, 이 동무들 아까부터 정말 귀엽게 논다야.… (광철이와 시남이의 볼을 톡톡톡 두드린다)

광철:(웃으며) 초급병사동진 더 귀엽습니다.

기택:(와뜰 놀라며) 뭐? 내가 귀엽다구? 일어 서라. 일어 서라.

광철:(일어 선다)

기택:같이 놀자? 동급 같애? 나보다 키 좀 크다구 그래?

광철:(웃으며) 고치겠습니다.

기택:고치라. 앉으라우.

광철:(앉는다)

기택:(틀 차리며 걷는다) 에-병사생활에서 중요한건 뭔가? 우선 이 엉치가 가벼워야 해… 엉치가.…

광철, 시남:예.…

기택:난 솔직히 말해서 병사생활을 할때 동무네처럼 이렇게 중관하게 앉아 있는 법을 몰랐어.

광철, 시남:(벌떡 일어 선다)

기택:아, 아 앉으라. 앉으라.

광철, 시남:(앉는다)

기택:그저 구대원들이 뭘 할세라《제가 합니다.》, 색 다른 음식이 하나 생겨도《어서 드십시오.》, 그 어떤 어려운 임무가 제기되여도《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팽이처럼 팽팽 돌아 가니 사방에서 그저 기택이, 기택이, 기택이… 정말 기특해!…

광철:(웃으며) 예.…

기택:비록 조선인민군신문에는 한번도 못 나왔지만 중대 벽보, 속보, 전투소보에 내 이름이 빠지는 날이 한번도 없었어. (속보를 가리키며) 동무들, 저걸 좀 보라.

△속보에《중대의 자랑 초급병사 손기택동무》라는 글발과 활짝 웃는 손기택의 모습이 그려 져 있다.

광철, 시남:야… (속보판에 달려 가 본다.)

기택:(시뜩해서)하아… 지내 오래 본다.

광철:싫지 않습니다.

기택:그래 이젠 내가 누군지 알만하지?

시남:예, 쎄게 알립니다.

기택:(감회 깊게) 바로 이런 피 타는 노력과 뜨거운 동지애를 지녔기에 오늘은 이렇게 병사들을 주런이 거느린 초급병사로,(기통완장을 툭툭 치며) 단독임무도 척척 수행하는 다재다능한 구대원으로 성장했소. 결론은 뭔가? 병사생활을《알았습니다.》로부터 시작하라! 이거요.

광철, 시남:알았습니다.

기택:자. 그럼 1차담화는 이쯤 해볼가.

광철:저 초급병사동지, 한가지 물어볼수 있습니까?

기택:뭐요?

광철:아까 소대장동지가 우리 소대에 징후판단을 잘못해서 중대적으로 소문을 낸 군인이 있다고 했는데 그 동무가 누굽니까?

기택:우리 분대 상급병사 지일섭동지요. 아, 마침 저기 온다야.

△주머니에 손을 찌른 지일섭 스적스적 나온다.

기택:쉿! 울랐어. 여, 가자우.

△기택이와 시남 나간다.

△광철이 나무밑에 서서 일섭이를 지켜 보고 있는데 목표판을 멘 득호가 나온다.

일섭:소대장동지, 상급병사 지일섭…

득호:말해 보오. 일섭동무, 요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오?

일섭:절 전투근무에 다시 내보내 주십시오.예?

득호:전투근무?… 그런 정신상태로 어떻게 전투근무에 나가?…

일섭:사실 제가 징후판단을 잘못한건…

득호:됐어, 됐어. 그런 변명은 듣고 싶지도 않소. 하, 이건 예비판정을 앞두고 소대를 한번 와짝 추켜 세워 보자고 하는데 이거야 어디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 그래 훈련에 참가하겠소 안하겠소?

일섭:훈련에는 참가하겠습니다. 하지만…

득호:그럼 됐소. 그렇게 하오.

일섭:(한숨)

득호:(목표판을 들고 나가려다가) 단단히 명심하오. 내 전번에도 말했지만 동무 정 그러면 군복 입고 있을 자격이 없어. 엉?…

△달려 나간다.

일섭:에익… (울분에 차서 달려 나간다.)

광철:(생각에 잠겨 서 있다.)

△이때 물배낭을 진 사관장 두칠이 땀을 철철 흘리며 나온다.

두칠:가만, 거 정광철동무가 아니요?

광철:안녕하십니까? 사관장동지!

두칠:그래 우리 설봉초소가 어떻소?

광철:(물배낭을 받아 내리워 주며) 마음에 듭니다.

두칠:우리 중댄 갓 교방되여 오다나니 아직 빈털터리야. 이 목욕물도 없어 저 설봉천에서 등짐으로 날라 와야 하니 이게 어디 말이 됐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느때 찾아 오셔도 기쁨을 드릴수 있게 중대를 잘 꾸려야 겠는데…

광철:사관장동지를 보니 마음이 든든해 집니다.

두칠:아직 할 일이 많아. 저 산기슭엔 부업밭도 한 서너정보 일구고, 저 설봉엔 소형발전소도 하나 세우고… 염소도 기르고 콩도 좀 대대적으로 심자는거요. 어떻소?

광철:멋 있습니다. 사관장동지, 부업밭에는 감자도 함께 심는것이 어떻습니까?

두칠:감자를?…

광철:여기도 고산지대이니만치 통알감자를 심으면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

두칠:그렇지!…

광철:그리구 저 뒤산에는 토끼동산을 하나 멋 있게 꾸려 봅시다.

두칠:토끼동산도?…

광철:이렇게만 하면 장군님의 말씀대로 토끼로 고기문제를 완전히 해결할것 같습니다.

두칠:하하하… 우리 중대에 보배덩이가 한사람 들어 왔구만. 대찬성이요. 감자, 토끼, 만세!

광철:만세!

처녀들:만세! 호호호…

△두칠, 광철 놀라서 돌아 본다.

△녀성중대 사관장 금실이와 녀병사 1,2가 웃으며 서 있다.

두칠:아이구… 고사총중대 사관장동무가 어떻게?…

금실:오늘 우리 중대에도 신입병사들이 왔길래 특식을 좀 했죠. 만두도 빚구 꽈배기도 튀기구…

두칠:그렇습니까.

금실:여기에도 신입병사들이 왔다는데 맛이나 보이십시오.

두칠:예?…야, 늘 이러면 우리가 미안하지 않습니까.

금실:이웃사촌이라구 린접끼리 뭘 그래요.(녀병사 1, 2에게) 식당에 가져 가세요.

녀병사1, 2:알았습니다! (밥국통과 지함을 들고 나간다.)

두칠:잘 먹겠습니다.

금실:나 좀… (두칠이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며) 중대에 지일섭이라고 있지요?

두칠:예 …그런데?…

금실:내가 그 일섭이의 이모에요. 나이는 동갑이지만…

두칠:아니… 그렇게 됩니까? 하하…

금실:저… 어떻게 될것 같아요?

두칠:일섭동무가 징후를 잘못 판단한건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실:좀 만날수 없습니까?

두칠:예, 내 가서 보낼테니 이모가 한번 만나보십시오.(나가다가) 광철동무, 그 물주머니 목욕탕에 좀 가져 가라우. (나간다)

광철:알았습니다!… (물주머니를 멘다.)

금실:(거들어 주며) 병사동무, 늦게 입대했군요.

광철:그렇습니다.

금실:야… 동무 체격이 꽤 크다야.…

광철:예… 멋없이 체통이 좀 큰건 사실입니다.핫하하… (웃으며 달려 나간다.)

△사이. 일섭이 나오다가 멈춰 선다.

금실:(쏘아 보며)홍!…잘 논다. 잘 놀아.

일섭:할 말이 있으면 빨리 하구레. 바쁜 사람 세워 놓지 말구.

금실:그렇게 바쁜 사람이《찔통》을 부리니?

일섭:뭐 찔통?… 이거 거기선 왜 또 도발이요?

금실: 뭐뭐? 거기?…(의자를 탕 내리치며) 야, 일섭아!

일섭:아니? 큰 소리는 왜 치는거요? 내가 뭐 자기네 중대 병사나?

금실:야! 내가 너한테 거기야? 거기야? 하… 촌수도 모르면서 빽빽 맞서?

일섭:글쎄 거기가 우리 어머니의 여섯번째 막내동생이니까 나한테 이모가 된다는건 나도 알아요. 그렇다고 이모라고 부를수야 없지 않소. 피차 동갑나이에…

금실: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어른 조카도 있구. 아이 삼촌도 있는데…

일섭:정 소원이라면 그렇게 부르자요. 이모님!… 이젠 됐시요?

금실:돌아 서… 돌아 서라는데…

일섭:(할수없이 돌아 선다.)

금실:너 다리는 왜 절룩거리니? 어디 보자.

일섭:아, 됐어요. 훈련하다 조금 다친걸 가지구…

△빈 물배낭을 들고 신입병사들과 함께 나오던 광철 멈춰 선다. 신입병사들을 먼저 보내고 지켜 보는 광철.

금실:일섭아, 너 왜 그러니? 징후판단은 왜 바로 못하니? 그리구두 채심할대신 훈련에도 제대로 참가하지 않아. 도대체 뭐가 되자구 그러니? 응… 말해 보렴. 속 시원히…

일섭:이모… 이모도 잘 알지 않나요. 내가 어떤 결심을 가지고 군대에 입대했는지… 그런데 이젠 미운털이 배겨서 여기선 안되겠어요.

금실:뭐?…

일섭:참. 이모, 날 정 도와 주겠으면 련대 대렬참모동지를 좀 소개해 달라요.

금실:아니?!… 거긴 왜?

일섭:글쎄 날보구 군복을 입고 있을 자격이 없다는데 차라리 다른 곳에 가서 새 출발을 하는게 낫지…

금실:아니. 야, 너 그것도 말이라고 하니? 일섭아!…

일섭:(왈칵하며) 아, 말이 아니문 듣지 말구레… 홍. (나가다가) 내 다시는 이모라고 안한다!… 쳇!…

△일섭이 휙- 달려 나간다.

금실:아니? 일섭아!… 일섭아!…

△금실이 부르며 뒤쫓아 나간다.

광철:지일섭…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맺혀 있는가?…

△생각에 잠긴 광철이의 앞으로 간막이 내린다.

△간막앞으로 군사부사단장과 중대장 리석이 웃으며 나온다.

군사부사단장:하하하… 그러니까 중대 군인들이 아직도 사단장을 모르고 있단 말이지?

리석:예, 일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군사부사단장:거 정말 멋이 있소. 그러니 그야말로 병사생활이겠소?

리석:그렇습니다. 그러니 부사단장동지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군사부사단장:알겠소. 사단장동진 지금 뭘하시오?

리석:식당근무에 나갔습니다.

군사부사단장:식당근무?… 허… 못해 보는 일이 없구만. 잘 도와 드리오.

리석:알았습니다.

군사부사단장:(나가다가) 참, 중대장동무, 4.25예술영화촬영소에 누이동생이 있지? 리설향이라구…

리석:아니?!… 군사부사단장동지가 그걸 어떻게?…

군사부사단장:지금 우리 사단에 와서 영화촬영을 하고 있소. 오늘 이 설봉중대에서 마지막촬영을 한다면서 오빠를 꼭 만나게 해달라고 나한테 신신당부하더구만.

리석:그렇습니까?… 챠 이거…

군사부사단장:전연에서 오누이상봉이라! 참 뜻이 깊소.

리석:예.…

△훈련시작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

군사부사단장:하… 훈련이 시작됐구만. 자, 가보기요.

△군사부사단장과 리석이 급히 나갈때 간막이 오른다.

제 2 장

△숲과 계곡, 벼랑으로 이루어 진 야외훈련장이다. 여러가지 목표판들과 훈련기재들이 배치되여 있다. 벼랑 한쪽에 큰 속보판《훈련도 전투다!》

△전투적인 음악속에 막이 열리면:

군인들의 훈련이 백열전을 이루고 있다. 총창을 비껴 잡고 비호같이 내달리는 군인들, 각개 약진으로 달려 나와 여러가지 이동목표를 소멸하는 군인들.

소대장 장득호의 엄한 구령소리가 훈련장을 뒤흔든다. 만족한 미소를 담고 바라보는 군사부사단장과 중대장 리석, 정치지도원 일규, 밥국통을 든 광철이가 취사복차림으로 달려 나와 군인들의 사기를 돋군다.

득호:(수기를 흔들며) 뛰여 내렷!

△군인들이 벼랑에서 맹호처럼 뛰여 내린다.

△이번에는 시남이 차례다. 벼랑끝

에서 뛰여 내리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시남.

득호:시남동무, 뭘 해?

군인들:시남이, 빨리, 빨리!

광철:시남동무, 겁을 먹지 말라구.

△시남이 끝내 내려 오지 못한다.

득호:에익!…

군사부사단장:저 동무 신입병사요?

득호:예.…

△시남이 머리를 푹 숙이고 나온다. 모두 침묵속에 바라본다.

군사부사단장:(시남에게 다가간다.) 훈련이 힘들지?

시남:?…

군사부사단장:일 없소. 뭐 첫술에 배 부르겠소. 하지만 동무, 훈련도 전투야. 전투에서는 용감성과 대담성이 있어야 해.

시남:알았습니다.

군사부사단장:잘 도와 주오.

리석:알았습니다.

△군사부사단장이 돌아 서다가 광철이와 마주친다.

광철:(황급히 거수경례를 하며) 안녕하십니까?

군사부사단장:(얼른 광철이의 손을 잡아 내리우며)도… 동무도 신입병사입니까?

광철:그렇습니다.

군사부사단장:좋구만.… (웃음을 참으며) 중대장동무, 좋지?

리석:조… 좋습니다.

군사부사단장:좋단 말이야. 이 신입병사동무도 잘 도와 주라.

리석:알았습니다.

군사부사단장:내 1소대에 가보겠소.

△군사부사단장이 웃음을 참으며 나간다.

일규:자. 동무들, 기쁜 소식이요. 오늘 우리 중대에서 배우동지들과 함께 영화촬영도 하고 축하모임이 있습니다.

△군인들 환성을 올린다.

대철, 기택;(동시에) 아이쿠… (머리를 싸쥔다.)

일규:아니? 대철동무, 왜 그러오?

대철:이 장대철이 번호가 잘 안 맞는구만요. 오늘 같은 날 딱 잠복근무에 나갈건 뭐람…

일규:기택동무두?

기택:예.… 하지만 뭐 일 없습니다. 영화화면에서 늘 보던 사람들인데…

대철:여, 영화에서 보는것하구 직접 보는것하구 같애?

리석:옳소. 다르구말구. 소대장동무, 휴식시키시오.

득호:알았습니다. 소대 휴식!

광철:자. 동지들, 휴식장에 가서 따끈따끈한 우유를 듭시다.

△군인들이 광철이를 따라 웃고 떠들며 나간다.

△리석이와 일규도 나간다.

득호:분대장동무!

종팔:옛!… (달려 온다.)

득호:이게 무슨 꼴이요?… 군사부사단장동지까지 내려 와서 훈련을 보는데…

종팔:다 제 잘못입니다.

득호:이제 방시남이때문에 애를 먹지 않나 보오. 망치가 약해, 망치가…

종팔:망치질을 세게 하겠습니다.

득호:예비판정날자가 바득바득 다가오는데 이거야 답답하지 않소. 거 방시남이와 한번 담화해 보라.

종팔:알았습니다.

득호:음음… 내 참…

△득호 휙 나간다.

종팔:(입을 다시며) 이건 어디서 물감자 같은게 하나 굴러 와가지구… (밖을 내다보다가) 어엉?… 저기 앉아 또 편지 보고 있는게 방시남이 아니야?… 야… 분대장은 저때문에 속이 새까매서 다니는데 편안히 앉아서 편지나 보고 있어?… 이거 도대체 어디에 걸렸는가?… 여, 시남이… 방시남이!…

소리:예.

종팔:오라!…

△시남이 달려 나온다.

시남:분대장동지, 병사 방시남…

종팔:(손을 휙 내리긋는다.)

시남:(흠칫 피한다.)

종팔:놀라긴… 가까이 오라!

시남:(주밋주밋 다가간다.)

종팔:(아래우를 훑어 보며)야… 이 복장 착용한 꼴 좀 보라.… 여, 호주머니엔 뭐가 이렇게 많아. 다 꺼내놓으라. 싹 다!…

시남:(주섬주섬 꺼내놓는다.)

종팔:아, 홀까닥 뒤집으라. (꽥 소리친다.)

시남:(주머니를 뒤집어 철갑모에 받는다.)

종팔:(철갑모안을 뒤적거리며) 이건 뭐야?

시남:동생한테서 온 편집니다.

종팔:(읽는다) 보고 싶은 오빠에게… 어이구… 그 잘난 오빠 봐선 뭘하니… (계속 철갑모안을 뒤적거리며) 야, 굉장하구나.… 전지약에다가 나사못에다가 볼트, 나트, 구리쇠줄, 장갑에다가 엉?… 베아링?… (베아링을 추켜 들며) 아이쿠… 경공업제품으로부터 중공업제품에 이르기까지 없는게 없구만.… 이걸 그저 팍… (베아링을 던지려고 한다.)

시남:(종팔이의 손을 덥석 잡으며) 분대장동지! 이건…

종팔:여, 이게 마대자루지 호주머니야? 동무두 지각이 있으면 생각 좀 해보라. 자 상학시간엔 멍청하니 앉아 있다가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만 하지, 철봉대에 매달리면 문어다리처럼 흐물흐물거리지, 벼랑에서 뛰여 내리라면 산골사람 바다에 내다 놓은것처럼 와들와들 떨지, 이게 속상한 일이 아니야? 온 중대가 예비판정을 잘 받자구 아글타글 애쓰는게 안 보여?… 아직두 학교때를 벗지 못하구 그런 베아링이랑 가지고 놀겠으면 저 수리소로 가구 말라. 필요 없어.

시남:분대장동지, 전 사실 이걸로…

종팔:사실이구 오실이구 고치겠나, 안 고치겠나, 못 고치겠나?

시남:고치겠습니다.

종팔:고치라. 그럼 다 좋지 않니…

△우유통을 들고 지나가던 광철이 걸음을 멈춘다.

종팔:내 오늘 임무 하나 줄테니 하겠나?

시남:하겠습니다.

종팔:오늘 밤중으로 그 미진된 동작 완성하고 나한테 보고하라. 알겠나?

시남:알았습니다.

종팔:그리구 이건 오물장에 싹 다 버리라.

△종팔이 나간다.

시남:야… 난 왜 다른 동무들처럼 훈련을 못할가.… (편지를 보며) 시옥아! 이 오빠 네가 바라는대로 군사복무를 잘 하지 못하는구나.… (주먹으로 눈물을 씻는다.)

△광철이 취사복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봉지를 꺼내들고 다가온다.

광철:시남동무 … 이걸 좀 먹으라우.

시남:예?

광철:가마치야.

시남:야… 이런건 뭘 다…

광철:먹으래두… (주머니에 넣어 주며)

옛말에 욕이 사람을 키운다고 했지. 사랑하기때문에 욕도 하고 믿기때문에 비판도 해주는거지.…

시남:그건 나두 알아요. 하지만 어쩐지 분대장동지한테 정이 붙지 않는걸 어떻게 해요.…

광철:가는 정 오는 정이라구 정을 주어야 정을 받을게 아니겠나.… 시남이, 내 하나 물어 보란?

시남:예.

광철:시옥이가 누구야?

시남:예예?…

광철:밤마다 잠꼬대를 하면서 시옥이를 찾군 하던데…

시남:아니?… 내가요?…

광철:응… 누구야?…

시남:아… 아무도 아니예요.

광철:에이… 늘 한 잠자리에서 같이 자는 병사끼리도 비밀이 있어?

시남:야… 이거… (한숨.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광철동무, 난 사실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광철:뭐라구?…(너무 놀라와 굳어 진다.) 그게 사실이요?

시남:아버진 몇해전에 돌아 가시고 어머닌 내가 신병훈련을 받고 있을 때 대홍수로부터 공장 부속품창고를 구원하고 그만…

광철:음…

시남:그래서 동생이 어머니가 다니던 공장 작업반장동지네 집에서 산대요. 참 이게 우리 시옥이가 보낸 편지에요. … (편지를 준다.)

광철:(편지를 펼친다. 처녀애의 목소리로 울리는 목소리)

오빠! 신입병사훈련을 마쳤다는 편지를 받고 오빠가 그리워 온밤 잠들지 못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니 학교에 가도 오빠생각, 잠자리에 누워도 오빠생각뿐이예요.

오빠… (아픈 가슴을 누르며 눈을 감는다.)

시남:우리 시옥이한테 부끄럽지 않게 군사복무를 잘해야겠는데 …에이… 시작부터 이게 뭐람 …

광철:시남동무, 이걸 왜 분대장동지한테랑 말하지 않았소?

시남:집생각만 한다고 흉 볼것 같아서…

광철:(엄하게) 우리가 군무생활에서 믿고 따라야 할 사람은 고향에 있는 부모형제가 아니라 늘 생활을 함께 하는 군관, 사관동지들이야. 그들을 친부모처럼 믿구 친형처럼 따르며 속을 주어야 해. 속을…

시남:광철동무, 내가 꿍했어요. 이제부터 광철동무 말대로 할래.

광철:그래야지. 헌데 왜 아까 이 베아링을 내가 준거라구 말하지 않았나?

시남:챠… 나 혼자 욕 먹으면 되는걸 뭐.

광철:시난이, 우리 어떻게 하나 저 고장난 삭도를 꽉 수리하자구.

시남:도와 줄래요?

광철:도와 주지 않구. 고기전문 졸업생동진 그저 저한테 기술지도만 주십시오.

시남:그래요?… 야!… 에헴 병사! 정광철!

광철:옛!

시남:이제부터 나의 조수가 될것!

광철:알았습니다.

둘이:(유쾌히 웃는다.)

시남:광철동무.

광철:응?

시남:(정답게) 동문 정말 좋은 동무야.…

광철:좋은 동무? 허허…

△여기로 나오는 중대장 리석.

리석:아, 다들 여기 있었구만.

광철, 시남:(차렷한다.)

리석:(시남에게)동문 가보오.

시남:알았습니다.

△시남 달려 나간다.

리석:사단장… 아니 병사동지,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광철:에?

리석:제 다 알고 있습니다.

광철:뭘 말입니까?

리석:병사들이 피곤해 한다구 발싸개, 목달개를 다 빨아 준다는거랑, 또 매일 밤을 꼬박 새면서 온 중대의 아침 세수물을 다 길어 온다는거랑… 아, 그러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쩔려구 그럽니까. 예?…

광철:그거야 병사들이 응당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리석:정 그러시면 전 사단장동지라는걸 아예 공개해 버리구 말겠습니다.

광철:허허.

리석:그러면 우리 병사들이 물지게 한번 지게 할것 같습니까?

광철:됐습니다. 중대장동진 어제 밤도 저 삭도수리장에서 꼬박 밝히지 않았습니까.

리석:그건 일을 쓰게 못한 이 중대장이 응당 겪어야 할 고생입니다.

광철:중대장동지, 그 삭도수리에 우리 방시남동무를 인입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리석:이자 그 고기전문 말입니까?

광철:예, 그 계통에 조예가 아주 깊은것 같습니다.

리석:그렇습니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그리구 오늘 밤 전투근무에 절 좀 내보내주십시오.

리석:아니?… 지금 근무중인데 또 전투근무에 나가겠단 말입니까?

광철:영화배우들이 중대에 온다고 모두 흥성거리고 있는데 근무에 나가게 된 동무들은 몹시 섭섭해 합니다.

리석:아!… 알겠습니다. 돌아 가겠습니다!

△리석 휙- 돌아서 나간다.

△분대장 종팔이 보자기를 덮은 오봉을 들고 나온다.

종팔: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면 마음 든든하리라 …(노래를 부르며 나온다.)

광철:분대장동지.

종팔:오, 광철동무, 수고한다야.

광철:그런데 이건 뭡니까?

종팔:오, 이거… 군사부사단장동지한테 가져 가는 식사야.

광철:부사단장동지의 식사요?…

종팔:거럼.

광철:어디 좀 봅시다. (보자기를 들춰 보며) 야!… 이거 요란한 특식이구만요. 아니? 그런데 요 쏘가린?

종팔:오, 동무하구 어제 밤에 같이 잡은 그거야.

광철:아니, 그럼 분대장동지하구 저하구 어제 밤 설봉천에서 밤새 잡은 쏘가릴 여기다 쓰자구?…

종팔:거럼… 동무 몰랐댔어?

광철:난 요긴한데 쓸 일이 있다고 하길래 어디에 쓰는가 했더니 결국《딴가마밥》때문에 그랬구만.

종팔:《딴가마밥》?…하 이거 신입병사가《딴가마밥》을 다 알구?…

광철:이걸 요구한건 아니겠지요?

종팔:요구하긴… 지금 이런걸 요구하는 지휘관이 어디 있겠어? 다 우리들의 성의지 뭐…

광철:분대장동지, 이걸 제가 가져 가겠습니다.

종팔:동무가?… 응, 그렇게 하라.

△광철 오봉을 들고 나간다.

종팔:언제 봐야 괜찮단말이야.(밖을 향해)복만동무, 십분후에 모이겠소.

소리:알았습니다.

△여기로 달려 나오는 소대장 장득호.

득호:분대장동무, 내가 동무한테 임무를 준 군사부사단장동지의 식사 어떻게 된거요?

종팔:방금 광철동무한테 보냈습니다.

득호:무슨 소릴 해? 이자 방금 병사들

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종팔:예예?… 챠, 이런…

△광철이 나온다.

종팔:여, 광철동무… 동무 이자 그 오… 오… 오봉 어떻게 했어?

광철:예, 삭도수리를 하고 있는 병사·방시남동무한테 다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득호, 종팔:어엉?…

△군사부사단장이 나오다가 멈춰 선다.

종팔:아이구… 건군력사에 부사단장동지의 식사를 도중에서 가로챘다는 소린 처음이구나.

득호:동무! 지금 제 정신이요?

종팔:제 정신이지?

광철:제 정신입니다.

△이때 뒤에서 웃음소리.

부사단장:어떻게 됐다구?

종팔:저 식사를… 다 처리했습니다.

부사단장:다 처리했다? 거 잘했구만. 동무들은 자기 일을 보오. 내 저 동무와 얘길 좀 하겠소.

종팔:다 제 잘못입니다.

부사단장:가보오.

△득호 보고하고 나간다.

△종팔 부사단장의 앞을 그냥 지나치려다가 황급히 물러서며 다시 거수경례를 붙인채 절도 있게 나간다.

부사단장:(광철의 손을 덥석 잡으며) 사단장동지!

광철:군사부사단장동지!

부사단장:야… 이거 뭐 적후에서 비밀접선하는것 같구만요. 물망초동지! …(손을 내민다.)

광철:(역시 손을 내밀며) 민들레동지!…

광철, 부사단장:(호탕한 웃음)

광철:자… 저기 좀 앉읍시다.

△두사람 바위에 앉는다.

부사단장:사단장동지, 힘들지요?

광철:솔직히 말하면 힘이 좀 들긴 하지만 병사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걸 배우는지 모릅니다.

부사단장:그렇습니까.…

광철:제 어제 밤에 말입니다. 우리 분대장동지와 함께 설봉천에 내려 가서 밤새 손바닥이 찔리면서 쏘가리를 잡았는데 알고 보니 군사부사단장동지의《딴가마밥》때문이였단 말입니다. 핫하하…

부사단장:(웃으며) 글쎄 그 동무들이 나한테《딴가마밥》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광철:(정색해 지며) 그 물고길 내가 잡았으니 망정이지 우리 병사들이 잡았다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부사단장:옳습니다.

△광철이 생각깊이 일어 선다.

광철:부사단장동지!

부사단장:예… (일어 선다.)

광철:난 이번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왜《딴가마밥》은 병사들과 지휘관들의 사이를 갈라 놓는《독약》이나 같다고 그렇게도 간곡하게 말씀하셨는지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부사단장:예.…

△음악이 흐른다.

광철:우리가 매일, 매 시각 심장으로 느끼고 있는바이지만 지금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고난의 행군》의 이 어려운 나날 쪽잠으로 피로를 달래시고 줴기밥으로 끼니를 이으시면서도 언제나 우리 병사들을 찾고 또 찾으십니다. 참으로 장군님의 이 위대한 선군령도사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 병사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 져 있고 그 하루하루가 동지애로 수 놓아 져 있습니다.… 제 이번에 제일 마지막병사의 위치에서 우를 올려다 보니 아직도 우리 군관들이 장군님의 이 높으신 뜻을 잘 받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사단장:사단장동지,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으신 뜻을 꼭 명심하겠습니다.

광철:예.… 참 이제 올라 가면 이 편지를 우리 집사람한테 좀 전달해 주십시오.

부사단장:(편지를 받으며) 아주머니에게요?

광철:예, 나하고 딱친구인 병사 방시남동무의 가정문제때문에 생각되는바가 있어서 그럽니다.

부사단장:알겠습니다.

광철:꼭 부탁합니다.

△이때 군인들의 떠들썩한 소리.

광철:(바빠 하며)아이쿠… 저기 병사들이 옵니다. 빨리 아무 욕이나 꽉 하십시오.

부사단장:욕을 하라구요?

△근무준비를 갖춘 대철, 기택, 병사 1, 2가 나온다.

부사단장:(어망결에) 동무말이야, 그러면 안돼!

광철:잘못했습니다.

△군인들 눈이 둥그래진다.

부사단장:(왈칵 큰소리로) 동무말이야, 그러면 못 써!

광철:명심하겠습니다.

부사단장:동무말이야, 그러면 혼나!

광철:고치겠습니다.

부사단장:말이야, 음음… 수고들 하오!

△부사단장 휙- 나간다.

기택:아니? 무슨 일이야?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안돼, 못써, 혼나 이런 욕을 먹나 말이야?

광철:군사부사단장동지의 식사를 도중에서…

군인들:도중에서?

광철:가로채가지구…

군인들:가로채가지구?

광철:병사 방시남동무한테…

군인들:뭐?… 아이쿠… (머리를 싸쥔다.)

대철:야… 내 이거 수염나기 시작해서 이런 일은 처음이구나.…

기택: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내가… 병사교양을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주저앉는다.)

광철:(웃으며) 초급병사동지, 일어 나십시오. (기택의 어깨를 그러 안으며)《딴가마밥》을 없애는거야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 그만 혼자 결심으로 하다나니…

기택:이게 뭐야? 이게 뭐야?…

광철:(황급히 기택의 어깨우에 올려 놓았던 손을 내리운다.)

기택:핫 나, 참… 동무가 어떻게 혼자 결심을 해? 동무우에는 나를 비롯한 숱한 상급들이 많은데…

대철:옳단 말이야. 동문 결론권이 없어. 동문 잉 이제 더 내려 갈래두 내려 갈데가 없는 맨 마지막병사라는것! 요걸 명심하라우.

광철:명심하겠습니다.

대철:가보라우.

△광철 밥국통을 들고 달려 나간다.

대철:어찌겠어. 우리가 잘 도와 주자구.

△여기로 철갑모를 쓰고 완전전투복장을 한 중대장 리석이와 군관1, 2, 3이 달려 나온다.

대철:근무조 모엿! (군인들 정렬한다.)

대철:차렷!

리석:쉬엿하시오

대철:쉬엿!

리석:동무들, 상급참모부의 지시에 의해서 오늘 밤 전투근무는 중대군관들이 나가게 되였습니다.

군인들:?!… (의아해 한다.)

리석:자 무기를 넘겨 받으시오.

대철:총번호 37264 총탄 있음.

기택:총번호 37053 총탄 있음.

병사1:총번호 37605 총탄 있음.

병사2:총번호 37852 총탄 있음.

△군관들 무기를 넘겨 받는다.

일규:(안타깝게) 중대장동지!…

리석:정치지도원동지, 집안에 누구 한사람 주인이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날 따라 앞으롯!

△군관들이 달려 나간다.

기택:아니, 정치지도원동지, 어떻게 된겁니까?

일규:이제 후에 다 알게 될거요.

△소리-정치지도원동지!

사관1이 달려 나온다.

사관1:정치지도원동지, 촬영소 영화배우동지들이 도착했습니다.

△군인들이 환성을 지르며 달려 나온다.

△촬영소 배우들(남녀)이 달려 나온다.

배우들:조국의 최전연초소를 지켜 선 초병동지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군인들:안녕하십니까?

△박수속에 배우들이 군인들에게 꽃다발을 안겨 준다.

종팔:(녀배우 1에게)야…《금희와 은희의 운명》주인공동지, 이거 정말 반갑습니다.

녀배우1:정말 반가와요.

종팔:아니 그런데 왜 모두 사복차림을 했습니까?

녀배우1:예, 우린 이번에 군관가족들도 남편들과 한전호에서 싸우는 혁명동지라는 내용을 담은 예술영화를 찍는답니다.

시남:우리 중대에서는 어떤 장면을 찍습니까?

녀배우2:《병사들을 위한 날》에 군관가족들이 중대에 찾아 와서 동무들의 훈련성과를 축하해 주는 장면을 촬영하게 됩니다.

기택:그럼 우리도 영화화면에 나옵니까?

녀배우2:아, 나오지 않구요.

군인들:야!… (환성)

병사3:아니?! …《쟌네트》,《헬렌》역을 수행한 배우동지! …야! … 이렇게 군복을 입으니 정말 보기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군인들:축하합니다!

녀배우3, 4:고맙습니다!

군인들:(박수)

남배우1:동무들, 우리가 만드는 영화의 주인공들이 그러한것처럼 지휘관도 병사도 군관가족도 모두가 혁명동지로 굳게 뭉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더욱 억세게 준비합시다!

군인들:알았습니다! 결사옹위, 총폭탄! 결사옹위, 총폭탄!

남배우1:자, 촬영장소로 갑시다!

△배우들과 군인들이 웃고 떠들며 나간다.

△설향이 두리번거리며 누구인가를 찾는다.

일규:저… 배우동지, 제 여기 정치지도원입니다.

설향:아이…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일규:안녕하십니까.

설향:사실 전…

일규:압니다. 설향동무지요?

설향:아니, 제 이름을 어떻게?

일규:설향동무가 영화에 나올적마다 중대장동지가 늘 자랑하군 했습니다.

설향:우리 오빠가요?… 그런데 우리 오빤 지금?…

일규:설향동무, 중대장동진 지금… (목이 메인다.)

설향:아니?… 우리 오빠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규:그런게 아니라 영화배우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는 병사들의 심정을 생각해서 대신 전투근무에 나갔습니다.

△뒤에서 지켜 보던 대철, 기택, 병사 1, 2가 놀란다.

설향:오늘저녁엔 못들어 옵니까?

일규:예, 래일아침에야 돌아 옵니다.

설향:그럼… 만나보지 못하겠군요.

병사들:정치지도원동지!…

기택:(울먹이며) 정치지도원동지… 그 이야기를 왜 이제야 합니까?… 자기 지휘관들을 다 잠복근무에 내보내놓고 우린 마음 편하게 배우동지들을 만나본단 말입니까?… 예?…

병사들:중대장동지! 너무합니다.… 중대장동지… (부르며 달려 나간다.)

설향:오빠… 전 기뻐요. 어버이장군님의 말씀대로 병사들을 친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는 오빠를 보니… 만난것보다 더 기뻐요.… (눈굽을 훔치며 달려 나간다.)

광철:(일규의 손을 잡으며) 정치지도원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일규:왜 이러십니까.… 어서 가십시다.

△광철, 일규 나가려는데《정치지도원동지-》하고 부르며 종팔이가 달려 나온다.

종팔:정치지도원동지, 일섭동무가…

일규:일섭동무가 어쨌다는거요?

종팔:없어 졌습니다.

일규:뭐요?

광철:아니?…

종팔:글쎄 영화촬영에 동원시키자고 찾아 보니 내 잠자리에 이걸 써놓고… (쪽지편지를 준다.)

일규:(쪽지편지를 읽는다.) 분대장동지, 련대에 올라 갔다 오겠으니 절 찾지 말아 주십시오.… 동문 가보오.

△종팔이 머리를 숙이고 나간다.

일규:(억이 막힌듯 멍하니 서 있다.)

광철:정치지도원동지, 일섭동지는 아마 련대대렬참모를 만나러 갔을겁니다.

일규:대렬참모동지를요?

광철:예, 다른 중대로 보내달라구요.

일규: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광철:병사의 속이야 병사가 잘 알지요.

일규:!…

△사관1이 달려 나온다.

사관1:정치지도원동지, 촬영조직때문에 정치지도원동지를 찾습니다.

일규:알겠소, 가기요.(나가려다가)병사동지, 갑시다.…

광철:먼저 가십시오.

△일규가 사관1에게 이끌려 할수없이 나간다.

광철:왜 병사들이 지휘관들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다 주려고 하지 않는가?…

△뜨거운 음악속에…

광철: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이렇게 병사들속에 들어 와보니 관병일치에서 기본은 군관, 사관문제라고 하신 장군님의 말씀이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게 됩니다.

△깊은 생각속에 박힌듯 서 있는 광철.

△간막이 내린다.

△처녀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녀성중대사관장 금실이와 녀병사 1, 2가 광주리를 안고 간막앞으로 나온다.

△반대쪽으로 녀병사 3, 4가 달려 나온다.

녀병사3:사관장동지, 빨리 갑시다. 당장 오락회가 시작된답니다.

금실:군중무용이랑 좀 도와 줬어요?

녀병사4:예, 쨋쨋하게 다 배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남성중대 동무들이 오락회를 벌려 놓고 우릴 보고 노래춤 경쟁을 하잡니다.

금실:그럼 어디 한번 겨뤄 보잔다고 하세요.

녀병사3, 4:알았습니다! (달려 나간다.)

△ 쇠줄퉁구리를 멘 광철이 나온다.

금실:아니? 광철동무 아니예요?

광철:안녕하십니까? 사관장동지.

금실:헌데 무슨 선들을 이렇게?…

광철:고장난 삭도를 수리하는중입니다.

금실:야… 동문 정말 살림군이로구만요.

광철:그런데 어델 이렇게?…

금실:동무네 정치지도원동지의 정식초청을 받고 가는 길이죠. 군중무용도 좀 도와 주고 또 토끼동산이랑 잘 꾸렸다는데 우리 토끼세대들을 지원해 주려구요.

광철:그렇습니까, 어데 좀… (녀병사1의 광주리에서 토끼를 쳐들어 보며) 그러니까 자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아 이젠 대외수출까지 하는구만요.

녀병사1, 2:어마나…

광철:(자기를 망각하고) 정말 사단의 모든 중대가 동무네처럼 토끼로 고기문제를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소.

녀병사1, 2:어엉?… 사단의 모든 중대가?…

광철:아차!…

녀병사1:호호호… 사관장동지, 이 병사동무 완전히 탁-를 계통입니다.

녀병사2:자기가 무슨 큰 간부라구…

녀병사1:그러게 말이야.

광철:허허… 고치겠습니다.

금실:가자요.

녀병사1, 2:알았습니다.

금실:광철동무, 수고하세요.

광철:고맙습니다.

녀병사1, 2:(나가다가 광철의 흉내를 낸다)

하… 얼마나 좋겠소! 탁!-

△ 처녀들이 웃으며 달려 나갈 때 경쾌한 음악과 함께 간막이 오른다.

제 3 장

△ 무대: 위장한 방탄벽을 두른 소대부가 반쯤 나와 있다. 마당에 나무들과 쉼터의자들이 적당히 놓여 있다.

△ 경쾌한 음악속에 간막이 오르면:

《뵙고 싶었습니다》음악에 맞추어 남녀군안들의 춤판이 한창이다. 녀성군인들이 자기들의 생활을 담은 춤장면을 펼치면 뒤따라 남성군인들이 뒤질세라 씩씩한 춤장면을 펼친다. 손풍금, 피리, 북으로 반주를 하며 서로 경쟁적으로 흥을 돋구는 남, 녀 군인들.

△ 음악이 고조되면서 서로 어울려 돌아 가던 춤이 절정을 이루며 끝난다.

△ 홍겨운 박수소리.

△ 여기로《동무들-》하고 부르며 신문묶음을 안은 정치지도원 일규가 달려 들어 온다.

일규:동무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 대련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습니다!

남녀군인들:야!… (환성)

△ 여기저기에 모여 서며 신문을 에워싸는 남녀군인들.

병사1:야! 교양실과 침실, 식당과 창고까지 다 돌아 보셨구만요.

사관1:예술소조공연도 보아 주시고…

금실:기념사진도 찍어 주셨구만요.

병사1:야!… 우리 중대에도 한번 오셨으면….

남녀군인들:오셨으면…

일규:동무들! 우리 장군님께서 어느 시각에 찾아 오셔도 꼭 기쁨을 드릴수 있게 중대를 일당백의 대오로 더 잘 꾸려 갑시다.

군인들:알았습니다!

△ 남녀군인들 웃고 떠들며 나간다.

두칠:정치지도원동지!

일규:예… (사관1에게) 가만 나 좀…

사관1:(나가다가 돌아 선다)

두칠:이제 식사가 끝나면 어제 토론한대로 1소대는 주패와 윷놀이경기를 하고 2소대와 3소대는 롱구 결승경기를 붙이자고 합니다.

일규:좋구만, (사관1에게) 예술소조책임자동무, 오늘 저녁에도 련습을 냅다 밀어야지.

사관1:예, 오늘 저녁부터는 안삼불을 다지자고 합니다.

일규: 예비판정날자가 점점 다가오는것만큼 바싹 다그쳐야겠소.

사관1:그런데 거 장대철동무를 중창조에서 아예 빼버립시다.

일규:왜?

사관1: 턱수염도 시커먼데다가 늘 염소와 함께 있어서 그런지 목소리가 완전히 염소창입니다.

일규:염소창?

사관1:(흉내를 내며 염소창으로 노래를 부른다)

나의 조국 아아아…

일규, 두칠:(폭소)

일규:수염은 깎으면 되는거구 소리는 맞추면 되는건데 빼긴 왜 뺀단 말이요. 자, 이 대본을 받소. (대본을 준다.)

사관1:(대본을 받아 보며) 야… 대화시구만요.

일규:탁상교양자료에 있는 혁명일화《장군님과 병사》를 보고 광철병사가 쓴거요.

사관1:야… 그 동무 다재구만요. 당장 멕이겠습니다. (달려 나간다.)

두칠:돌아 가겠습니다. (나간다.)

△ 무슨 일때문인지 몹시 흥분한 소대장 득호가 나온다.

득호:정치지도원동지… (분을 삭이지 못하여 씨근거린다.)

일규:아니… 왜 그러오?

득호:거 지일섭동무 말입니다. 련대에 갔다 온 문제를 놓고 좀 되게 추궁을 했더니 이건 무슨 의견이 있는지 통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힘이 듭니다.

일규:소대장동무, 지휘관이 그렇게 흥분을 앞세우면 아무일도 잘될수 없소.

득호:정치지도원동지, 나두 남들처럼 소대를 쇠소리 쨍쨍나는 결사옹위의 총폭탄으로 한번 꾸려 보자는겁니다. 그래서 요구성도 더 높이는거구요. 이게 과연 잘못된겁니까?

일규:아니요, 요구성을 높이는건 백번 옳소. 하지만 병사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끄는가에 따라 소대가 총폭탄이 될수도 있고 불발탄이 될수도 있소.

득호:정치지도원동지.

일규: 소대장동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병사들을 진정한 동지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등급에 따르는 하급으로 생각하는가, 바로 여기에서 모든것이 갈라 진다고 하시지 않았소. 우리 서로 장군님의 이 말씀을 놓고 자신들을 심각히 돌이켜 봅시다. 어서 가기요.

△ 일규 나간다. 득호 머뭇거리다가 따라 나간다.

△반대쪽으로 배낭을 멘 광철이가 땀에 젖어 나온다.

광철:(의자에 앉아 땀을 씻으며 수첩을 펼치고 읽는다.) 조뱅이풀을 절구에 짓찧어서 붙임띠에 바르고 상처부위에 대주면 아주 좋다.… (배낭속의 풀을 한줌 꺼내보며) 이만 하면 되겠지.… 빨리 붙임띠를 해야지.

△ 광철이 수첩을 의자에 놓은채 배낭을 들고 나간다.

△ 대철 발성련습을 하며 나온다.

대철:마이, 마이, 마이… 음음… (큰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내 한생 총 잡고 초소에 섰네 아-아- (올리뽑다가 소리가 뒤집어 진다.)

야… 소리를 높이면 뒤집어 지지 낮추면 염소소리가 나오지… 죽여 주는데… (의자에 앉다가 수첩을 발견하고) 이거 누구거야?… 정광철?… (수첩을 펼치고 본다.)

△ 기택이와 병사1이 하모니카를 불며 나온다.

기택:이건 뭡니까?

대철:광철동무거야, 한번 읽어 보라.

기택:알았습니다. (수첩을 읽는다) 병사생활을 하면서 몇가지 생각되는 점? 우리 병사들이 어떤 병사들인가? 귀중한 청춘시절에 고향과 부모를 떠나 초소에 사는 우리 장군님의 귀중한 병사들이다.

대철:좋구만.

기택:병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참된 군관, 사관이라고 말할수 있다.

대철:괜찮아.

기택:중대강화의 기본 력량도 조국통일의 직접적담당자도 바로 우리 병사들이다!

대철:야!… 이 동무 수준이 높구만.

병사1:예, 글이 있습니다.

기택:동지들, 전 이 글을 보는 순간 내적직속상관으로서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를 다시한번 느끼게 됩니다.

일동:(웃음)

대철:기택동무, 계속 읽으라.

기택:알았습니다. (계속 읽는다.) 그런데 일부 군관, 사관들은 우리 병사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엉?

대철:뭐라구?… 어디 보자. (넘겨 받아 읽는다.) 군관, 사관들은 병사들을 시켜먹고 부려 먹지 말고 어려운 일에 앞장서자. (굳어 진다)

병사1:뭐? 시켜 먹구?

기택:부려 먹지 말자?

대철:(계속 읽는다.) 설사 죽을 먹고 랭돌바닥에서 자는 한이 있어도 병사들의 리익을 침해하지 말자.

셋이:(동시에 읽는다.) 추운 잠자리는 군관, 사관들에게, 더운 잠자리는 병사들에게? (너무 아연하여 마주 보며 눈만 데룩거린다.)

기택:이 동무 군관, 사관들을 내세우는가 했더니 로골적으로 비판했구만요.

병사1:이게 혹시 신소문 초안이 아닐가요?

둘이:신소문?

대철:그렇다면 문제가 간단치 않아. 이게 이제 대대를 거쳐 련대를 지나 사단을 넘어 군단까지 쭉 올라 가보라. 우리 중대의 꼴이 뭐가 되겠어.

기택:그러게 말입니다.

대철:기택동무, 동무의 임무는 빨리 분대장동지를 데려 오는거요.

기택:알았습니다.

△ 기택이 달려 나간다.

병사1: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더니 이렇게 속으로 호박씨를 까는줄은 정말 몰랐구만요.

대철:가만가만?… 이거 나두 걸려 든게 아니야?… 상급병사 장대철이는 왜 면도칼을 돌려 주지 않는가?

병사1:걸렸구만.

대철:아이구… (머리를 싸쥔다.)

△ 종팔이와 기택이가 달려 나온다.

종팔:뭐? 신소문이라구?…

대철:이걸 좀 보십시오. (수첩을 준다.)

종팔:(수첩을 받아 읽는다.) 군관, 사관들은 병사들을 혁명동지로 대하며《야, 자》하지 말고《동지》,《동무》로 부르자, 간혹 결함이 나타나도 욕설, 추궁하지 말고 인격을 존중해 주자?… 어엉?… 날보고 하는 소리로구나.

광철이, 그랬댔구나. 군무생활을 잘하기에 이 분대장이 감사를 두번씩이나 주었는데 이럴줄은 몰랐소. 여보, 관정성원들이 이걸 알면 우리 중대를 뭐라고 하겠소?

기택:완전히 인상 잡칠것이 예견됩니다.

종팔:정확한 판단이요.

대철:그런데 우리 중대 군관들이 우릴 위해 주지 못한것이 뭐가 있소? 내가 앓을 때도 그래, 기택이, 동무가 입맛이 없어 할때도 토끼곰까지 해다주지 않았소.

기택:옳습니다. 전번에 배우동지들이 왔을 때도 우릴 대신해서 근무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대철:그럼.

기택:전 그때 막 울었습니다.

△ 소대장 득호가 걸음을 멈춘다.

병사1:옳단 말이야. 그런데 이 동무 엊그제 입대해 가지구 우리 지휘관들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구 그래?

종팔:(득호가 등뒤에 서 있는것도 모르고) 동무들, 이걸 절대로 군관동지들에게는 말하지 마오.

병사들:알았습니다.

종팔:그들이 알면 얼마나 섭섭해 하겠소.

득호:뭘 말하지 말라는거요?

종팔:(와닥닥 놀라며)아… 아… 아니…저… 아닙니다. 아무것도… (수첩을 등뒤에 감춘다.)

득호:이리 내오!

종팔:야… 소대장동지!…

득호; 보자니까.…

종팔:그런게 아니라… (수첩을 등뒤로 기택이에게 넘긴다.)

△ 수첩은 기택에게서 병사1에게로, 다시 대철에게로 번개같이 넘어 간다.

△ 대철이 수첩장을 뜯으려고 헤덤빈다.

득호:(꽥 소리친다.) 대철동무!

대철:옛!… (급한김에 수첩을 올려 받친다.)

득호:(수첩을 읽는다.) 군관, 사관들은 병사들을 명령과 호령으로만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병사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 가자.

군관들을 위해 병사들이 있는것이 아니라 병사들을 위해 군관들이 있다?…

군인들:(긴장한 침묵속에 주시한다.)

득호:음… (입이 쓰거운듯 돌아서 걷는다.)

종팔:야… 이거… (득호가 자리를 뜬줄도 모르고 병사1에게 다가가) 소대장동지, 다 제 잘못…

병사1:아닙니다.

종팔:어엉?…

대철:저쪽에… (득호를 가리킨다.)

종팔:(득호에게로 다가가) 소대장동지, 다 제 잘못입니다.

득호:광철동무가 어데 있소?

군인들:예… 저기에… (당황한 나머지 서로 이쪽 저쪽을 가리킨다.)

△ 득호 휙- 나간다.

대철:야… 소대장동지의 인상이 장마철 날씨가 됐으니 이거 무슨 변이 나겠구만.

종팔:다 내 잘못이지. 병사들을 건당해부학적으로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고찰했거든.

기택:아닙니다. 분대를 위해서 너무나도 한 일이 없는 제가 내적직속상관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받아 안았지만 그것을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대철:분대장동지, 전 그저 하루종일 염소무리만 몰고 다니다나니 신병교양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종팔: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동무들이 결함의 본질을 정확히 끄집어 냈소. 대철동무, 모이시오.

대철:모엿!

△ 대철, 기택, 병사1이 정렬한다.

종팔:(엄숙하게) 동무들! 3대혁명붉은기예비판정이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온

이 시각 지금 우리앞에는 뜻하지 않은 정황이 조성되였소. 그래서 나는 동무들에게 정광철동무의 신발을 똑바로 신기기 위한 분공을 조직하겠소.

병사들:알았습니다.

종팔:상급병사 장대철동무!

대철:옛!

종팔:동무는 염소관리에 신경을 쓰면서도 정광철동무의 상급에 대한 태도와 자세문제를 바로 잡아 줄것!

대철:알았습니다.

종팔:초급병사 손기택동무!

기택:옛! (수첩을 펼친다.)

종팔:(빠르게) 동무는 내적직속상관으로서…

기택:야… 좀 천천히 불러 주십시오.

종팔:(천천히) 동무의 지식과 상식을 다 동원해서라도 동지애의 뜨거운 사상으로 일관된 단수 있는 해설담화자료를 준비할것!

기택:(받아 쓰며) 알았습니다. 래일밤까지, 아니 오늘중으로 초고를 끝내겠습니다.

종팔:이와 관련하여 성호동무는…

병사1:옛!

종팔:당분간 잠자리를 광철동무옆으로 옮기고 그의 속마음을 알아 내여 기택동무에게 제공해 줄것!

병사1:알았습니다.

종팔:난 동무들이 이 중요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믿소.

병사들:알았습니다!

종팔:그럼 더 제기할 문제가 있어도 그만하기요.

헤쳐!

△ 종팔, 대철, 기택, 병사1이 헤여져 나간다.

△ 사이. 광철이 붙입띠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 온다. 의자우에 놓아 두었던 수첩을 찾는 광철.

△ 여기로 득호가 들어 온다.

득호:광철동무!

광철:옛!

득호:여기서 뭘하오!

광철:저… 상처의 독을 빼는데는 조뱅이풀이 좋다고 해서…

득호:조뱅이풀?

광철:어제 밤 잠결에 신음소리가 나길래 일섭동지의 면내의를 걷어 올려 보니 다리의 상처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득호:일섭동무가?…

광철:그렇습니다.

득호:음… (수첩을 내보이며) 이걸 동무가 썼소?

광철:아니? 그 수첩이 어떻게?… (수첩을 받는다.)

득호:동무네 분대장한테서 받았소. 거기에 날 념두에 둔것도 있는것 같은데… 말해 보오. 나한테 무슨 의견이 있는지…

광철:아무 의견도 없습니다.

득호:수첩에까지 썼을 때야 뭘 생각되는게 있어서 그랬겠는데 툭 털어 놓고 애기해 보오.

광철:아니 저…

득호: 애기하라니까.

광철:(복장을 정돈하며) 그렇다면 한마디 하겠습니다. 소대를 중대의 맨 앞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아글타글 애 쓰는 소대장동지를 볼 때마다 정말 느끼는바가 큽니다. 하면서도 생각되는 점은 높은 요구성도 뜨거운 인정미와 결합이 될 때 은을 내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득호:으응?…

광철:일섭동지의 문제가 바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소대장동지가 그에게 정을 주었더라면 지금처럼 삐뚤게 나가지 않을거라구 말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정이 통하면 뜻이 통하고 뜻이 통하면 동지로 되는 법이다.》

득호:아니?… (놀란다.)

광철:제가 할 말은 이것이 답니다.

득호:?… (놀라운 눈으로 새삼스럽게 광철이를 본다.)

△ 이때 일섭이가 절룩거리며 들어온다.

광철:아… 일섭동지!…

일섭:(머리를 숙인다.)

광철:어델 갔댔습니까? 소대장동지가 계속 찾았는데…

일섭:(침묵)

광철:자, 어서 여기 앉으십시오. (일섭이의 손을 이끌어 의자곁에 세워 주고) 돌아 가겠습니다!

△ 광철이 득호에게 보고하고 나간다.

득호:?!… (놀란 눈으로 광철이를 바라보며 머리를 기웃거린다.)

△ 득호 일섭이를 향해 돌아 선다.

득호:일섭동무, 다리를 상했다면서?

일섭:(침묵)

득호:앉소!

(침묵)

득호:앉으라는데… (억지로 의자에 눌러 앉힌다.)어디 상처를 좀 보기요!

△ 일섭이의 바지를 걷어 올리는 득호, 험한 상처가 드러난다.

득호:어엉?… (놀란다.) 이렇게 되도록 왜 말하지 않았소?

일섭:(침묵)

득호:(약초를 싼 붙입띠를 상처에 감아 준다.)

자, 한잠 푹 자고 나면 일 없을거요. (일어 선다.)

일섭:(입술을 깨문다.)

득호:어서 가기요. 정치지도원동지가 밥그릇을 놓고 기다리고 있소. (나가려 한다.)

일섭:(벌떡 일어 서며) 소대장동지, 왜 한마디 욕도 안합니까. 예?

득호:무슨 욕을 해. 다른데로 가겠다는 사람한데…

일섭:예?…

득호:말해 보오. 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소?

일섭:사실은 소대장동지에게 의견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득호:뭐?

일섭:소대장동진 말끝마다 저에게 군복을 입고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지요? 언젠가 제가 열이 몹시 나서 훈련에 참가하지 못했을 때도 소대장동진 제 병상태는 알아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꾀병을 할바엔 차라리 군복을 벗는게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소대장동진 화김에 한 말이겠지만 전 어쩐지 그 말이 가슴에 꼭 맺혀 내려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징후를 잘못 판단하고 소동을 일으켰고 이젠 다른데로 갈 생각까지…

득호:아니?…

△ 음악이 흐른다.

일섭:소대장동지 … 저의 어린 시절은 영예군인인 아버지의 삼륜차를 밀면서 흘러 갔습니다.

언덕길을 오를 때마다 학교 가던 우리 동무들이 서로 달려 와 삼륜차를 함께 밀며 아버지에게 노래를 불러 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소대장동진 아십니까.… (운다.) 그 나날에 저의 가슴에 굳어 진건 한생 군복을 입고 아버지가 못다한 몫까지 총대로 우리 장군님을 받들겠다는 결심뿐이였습니다. 소대장동지, 대답해 주십시오. 전 정말 군복을 입고 있을 자격이 없습니까?… 예?… 소대장동지!… (득호의 팔을 잡은채 주저앉으며 운다.)

득호:(석상처럼 굳어 져 서 있다가 일섭이를 와락 일으켜 세우며) 그걸 왜 인제야 말해?… 내가 남이야? 응?…

일섭:소대장동지 … (안기며 흐느낀다.)

득호:하긴 동무를 탓할것도 못되지.… 암만봐야 맏형 같아 뵈질 않으니까 말안했겠지.… 날 욕하오.… 동무를 친동생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 무관심했겠소?

일섭:아닙니다. 소대장동진 날 위해서 이렇게 약초까지 캐왔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엇드레질만 했으니 절 용서하십시오.

득호:일섭동무, 그건 내가 아니라 저 정광철동무가 캐온거요.

일섭:아니? 그럼 우리 사단장동지가?… 사단장동지!…

득호; (놀란다.) 동무 이자 뭐라고 했소? 사단장이라니?…

일섭:소대장동지, 바로 저 정광철동지가 새로 오신 우리 사단장동지란 말입니다.

득호:뭐요?

일섭:며칠전에 련대에 갔다가 사단장동지가 우리 3소대에서 병사생활을 한다는걸 알았습니다. 내 그래서 자기를 돌이켜 보며 그 길로 돌아 섰던겁니다.

득호:아!… 그랬댔구나, 음… (주먹으로 이마를 친다.)

일섭:소대장동지, 미안합니다. 사단장동지가 자기 직무를 밝히지 않는것이 무슨 생각이 있어 그러는것 같애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득호:일섭동무, 우리 이 말을 아직은 다른 동무들에게 하지 말자구.

일섭:알았습니다.

△ 소리《소대장동지 -》

△ 병사 1이 달려 나온다.

병사1:소대장동지! 방시남동무의 누이동생이 왔습니다.

득호:뭐요?… 동문 빨리 삭도수리장에 가서 시남동무에게 알리오.

병사1:알았습니다. (부르며 달려 나간다.)

△ 군관들과 병사들이 달려 나온다.

△ 반대쪽에서 한순이와 시옥이 그리고 군관가족들이 나온다.

수많은 군인들속에서 오빠를 찾느라 두리번거리는 시옥.

△ 정치지도원 일규가 시남이를 데리고 나온다.

일규:시남동무.… 저기 누가 왔나 보오.…

군인들:시남동무!…

△한발 두발 나가는 시남.

△ 순간 정적이 깃드는 무대.

시남:(갈린 목소리로) 시옥아!…

시옥:(그제야 오빠를 발견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오… 빠!…

시남:시옥아!…

시옥:오빠야!… (어푸러질듯 달려 가 품에 안긴다.)

△ 남매가 붙안고 운다. 모두 눈굽을 찍는다. 군인들의 뒤에 서서 이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고 있는 광철.

시남:그런데 네가 여길 어떻게 왔니?

시옥:오빠… 사단장아저씨네 아지미가 날 데리러 왔댔어요.

시남:뭐!…

시옥:작업반장아버진 못 보내겠다고 하고… 아지민 날 꼭 데리구 가겠다구 하고… 그래서 아지미가 그 집토방에서 꼬박 세밤씩이나…

시남:아주머니, 정말 고맙… (흐느낀다.)

한순:고맙긴…

시남:전 사단장동지의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일을 다 알구…

한순:(웃으며) 지휘관이라면 모든걸 다 알고 있어야지요. 시옥이, 시남이! 이제부런 우린 한가정이예요. 우린 모두가 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식솔이 아니나요.

시옥:엄마!… (품에 안긴다.)

한순:자 시옥이, 오빠를 만나면 꼭 부르겠다던 노래를 불러야지.

시옥:예.…

△ 가족1이 손풍금으로 반주해 준다.

시옥:(노래를 부른다.)

비바람 창가에 몰아 쳐오고

찬서리 내린다 해도

시남, 시옥:귀여운 아이들아 두려워말아

아버지가… (울먹이며) 계신단다

△ 노래는 군인들의 합창으로 변한다.

포근한 너의 요람 지켜 주신다

온 나라 아이들을 보살피신다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아버지

아- 아버지-

△ 박수가 터진다.

일규:사관장동무, 오누이상봉을 축하해서 한상 차려야지요.

두칠:예, 다 준비됐습니다. 자, 모두 갑시다!

△ 시남, 시옥 그리고 군인들과 가족들이 한데 어울려 웃으며 나간다.

리석:(한순에게) 아주머니, 잠간만 좀… 병사 정광철동무!

광철:(나가다가) 옛!

리석:(광철이와 한순이를 맞세워 놓고) 야!… 거 노울도 참 멋 있다!…

△ 리석이 웃으며 달려 나간다.

△ 무대에 광철이와 한순이만 남는다.

광철:여보, 시옥이를 데려와 주어 정말 고맙소.

한순:호… 당신생각이자 내 생각인걸요. 참, 여보. 군사부사단장동지가 그러시는데 여기 병사들이 당신이 누군지 모른다지요?

광철:허허… 일이 그렇게 됐소. 그러니 당신도 주의해야겠소.

한순:호호… 알겠어요. 어마나… 입술이 다 부르텄군요. 어디 아파요?

광철:아프긴… 내 얼굴을 좀 보오. 얼마나 검실검실하게 탔는가.…

한순:병사생활이 좋긴 좋군요. 목달개를 가져 왔어요. (준다.)

△ 이때 종팔, 대철, 기택, 병사1이 나오다가 눈이 둥그래서 바라본다.

한순:어마나, 손이 왜 이렇게 됐어요?

광철:일 없다는데…

종팔:(그들의 주위를 빙빙 돌다가) 에헴!- (큰 기침소리를 낸다.)

한순:어마나…

광철:(당황하여) 아주머니, 중대 전체 병사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순:고마워요.

광철:또 오십시오.

종팔:(와락 광철이를 잡아 끌어 한쪽으로 데리고 간다.) 뭐? 동무가 중대를 대표한다구? 어떻게 대표해? 어떻게?

기택:이 동무 오늘 따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놀가? 지자기날도 아닌데…

한순:예?… 복잡하다구요?

종팔:아니… 아니… 저 동무 군무생활도 잘하고 좋은 측면도 많지만 뭐 어찌겠습니까. 나이 먹어서 군대에 입대하다나니 틀도 좀 있구 이따금 단독결심하는 측면도 있지만…

병사들:우리 구대원들이 집중적으로 도와 주겠습니다.

광철, 한순:하하하… (호호호)

한순:병사동무, 동무 그러면 됩니까?

광철:안됩니다.

한순:고치십시오.

광철:고치겠습니다.

종팔:광철동무, 명심해 들으라. 자기 위치를 좀 지키란 말이요.

병사들:지키란 말이요.

광철:예, 구대원동지들의 말이 다 옳습니다. 제 이제 올라 가면 자기 위치에서…

병사들:뭐? 올라 가?…

한순:(너무 급해서) 여보!

광철:어엉?

병사들:여보?

한순:여보, 동무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할수 있습니까?

광철:고… 고치겠습니다.

한순:고치십시오.

종팔:야… 내 오늘 저 동무때문에 깨깨 망신을 당하누만. 여 광철동무!

(왈칵한다.)

한순:(광철이를 막아 서며) 야… 아저씨, 아직은 신입병사가 돼서 그러는데 우리가 리해합시다. 예?…

종팔:예. 리해해야지요 뭐.…

한순:병사동무, 앓지 말아요.

광철:예.

한순:상급들 말두 잘 듣구.

광철:예.

한순:훈련도 잘하구.

광철:아주머니, 이젠 빨리 집으로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한순:예, 분부대로 가겠습니다. (나간다.)

종팔:아니… 아니… (한순이를 붙들어 세워 놓고 광철에게) 여, 동무가 뭐가 돼서 집으로 가라 말라 해?… (꽥 소리친다.)

한순:(종팔이를 끌어 당기며) 야… 아저씨, 됐어요. 내가 가면 되지 않아요?

종팔:가더라도 좋은 인상을 안고 가야지 그냥 가시면 우린 뭐가 됩니까?

한순:난 정말 좋은 인상을 안고 갑니다.

군인들:고맙습니다.

한순:그럼 아저씨들, 잘 있어요.

군인들:안녕히 가십시오.

△ 한순 한손으로 터쳐 나오는 웃음을 막으며 나간다.

대철:야… 령감님 망신 고불통이 다시킨다더니 이거 오늘 깨깨 망신하누나.

기택:오늘중으로 이 사실이 사단장동지에게 알려 지겠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종팔:드디여 때는 왔소. 기택동무!

기택:옛!

종팔:동무가 준비한 해설담화자료 있지? 읽어 주라!

기택:알았습니다.

△ 종팔, 대철, 병사1은 의자에 나란히 앉는다.

기택:(수첩을 펼치며) 음음… (광철의 턱밑에 바싹 다가서며 큰 소리로 읽는다.) 제목.《우리는 영원한 혁명동지!》… 병사들은 군관, 사관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자.

아무리 작고 소소한 문제라도 꽁하게 속에다 품어 두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 맏형, 맏누이에게 말하듯 깨깨 속을 주며 살자!

종팔:좋구만.

대철, 병사1:좋습니다.

기택:어렵고 힘든 일은 우리가 다하고 맛 있는 음식이나 기쁜 일이 생기면 군관, 사관들부터 먼저 생각하자. 추운 잠자리는 우리 병사들이, 더운 잠자리는 군관, 사관들에게!

종팔:(찡해서 눈을 슴벅거린다)

대철, 병사1:좋아요!

기택:효과음악!

△ 종팔, 대철, 병사1 노래를 부른다.

포연이 날리는 전선길에서

루루루 루루루…

기택:(시랑송으로 넘어 간다.)

만약 위험이 조성되면

이 한몸 서슴없이 탁 바쳐 군관, 사관들부터 먼저 구원하려니

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충성의 한길에서

영원한 동지로 우리 살리라! …끝!

모두: (숭엄한 감정, 이윽고 박수)

종팔:광철동무, 어떻소? 뭐 좀 생각되는바가 없소?

광철:정말 생각되는바가 많습니다.

종팔:뭐요?

광철:이렇게 분대장동지랑 구대원동지들의 뜨거운 모습을 보니 제 앞으로 자기 위치에서 일을 더 잘해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게 됩니다.

종팔:자기 위치에서, 엉?…

광철:예!

병사들:야!…

종팔:바로 고거요, 고거!…

기택:이 동무 이제야 자기 신발문수를 제대로 찾아 신은것 같습니다.

종팔:긍정감화교양이 이래서 좋구만! 광철동무!

광철:분대장동지!

△ 그들이 서로 얼싸 안고 기쁘게 웃을 때 소리《삭도가 오른다.-》

군인들:뭐? 삭도가?…

△ 환희로운 음악과 함께 험준한 계곡사이로 삭도들이 두둥실 오른다.

△ 군인들이 달려 나오며 환호를 올린다.

리석:동무들, 우리 시남동무가 고장난 삭도를 고쳐 냈습니다.

군인들:(시남이를 추켜 올린다.) 어쌰! 어쌰! 어쌰!

종팔:시남동무!

시남:분대장동지!

종팔:시남동무, 정말 수고가 많았소.

시남:아닙니다. 나보다도 중대장동지와 광철동무가 더 수고했습니다.

종팔:그래서 베아링이랑 가지고 다닌것두, 모르구… 내가 미웠댔지.

시남:사실 처음엔 쬐꼼 미웠댔는데 이젠 정이 푹푹 듭니다.

종팔:그래…

모두:(웃음)

종팔:사관동무들, 우리우에는 군관들이 있고 밑에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중대의 관병일치가 보장되는가 하는건 우리 사관들에게 결정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 병사들을 진정한 동지로 대해 주지 못했습니다. 제 앞으로 진짜배기 사관이 되겠습니다.

모두:(박수)

일규:동무들, 우리모두 이 기세를 늦추지 말고 관정준비를 적극 다그칩시다!

모두:알았습니다.

△ 군인들이 기쁨에 넘쳐 달려 나간다.

득호:(자책에 잠겨 군인들을 바라본다.)

일규:소대장동무, 얼마나 좋은 우리 병사들이요!

득호:정치지도원동지, 전 소대장 자격이 없습니다.

일규: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요?

득호:정치지도원동지도 정광철병사가 우리 사단장동지라는걸 알고 있었겠지요?

일규:동무가 그걸 어떻게?

득호:전 어제야 알았습니다. 사단장동진 벌써 병사들의 마음속 문을 열고 들어 갔는데 전 그들을 진정한 동지로 대할 대신 명령과 호령으로만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일규:소대장동무, 그건 내 경우에도 마찬가지요. 우리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물우에 뜬 기름방울이 되지 맙시다!

득호:알았습니다.

△무대 어두워 지며 우뢰소리가 울린다.

일규:(하늘을 쳐다보며) 이거 날씨가 좋지 않구만. 어서 초소들을 돌아봅시다.

득호:예.…

△득호와 일규가 갈라 져 나갈 때 간막이 내린다.

△사나운 비바람소리, 우뢰소리, 비

옷을 입고 완전전투복차림을 한 일섭이 간막앞으로 달려 나온다.

일섭:날씨가 심상치 않은데…

△《일섭동지-》하고 부르며 광철이 달려 나온다.

광철:일섭동지, 축하합니다. 드디여 전투근무에 나가게 됐구만요.

일섭:사단장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광철:고맙다는 인사야 내가 해야지요. 내 얘길 다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라는걸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고 있다는걸 말입니다.

일섭:절 욕많이 하십시오.

광철:됐습니다. 일섭동지, 요즘 불리한 일기조건을 리용해서 적들의 도발이 있을수 있으니 모든 징후들을 침착하고 예리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일섭:사단장동지, 이제 더는 제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광철:자, 모일 시간이 됐습니다. 갑시다!

△그들이 나갈 때 간막이 오른다.

제 4 장

△무대:전투근무성원들의 진출장소이다. 무대를 가로 질러 분계선 철조망이 굽이쳐 지나갔다. 무대 한쪽에《변하지 않는 양심》이라는 제목의 계급교양그림판이 있다. 환등으로 펼쳐 진 산발우에 뾰얀 비발이 서리고 검은 구름이 뒤덮인 하늘에서 번개와 우뢰가 내닫는다.

△비장한 음악속에 간막이 오르면:

득호, 일섭, 대철, 기택, 병사1 등 군인들이 완전전투복차림으로 정렬해 서 있고 중대군인들이 서 있다.

△방금 근무진입전 계급교양이 끝난듯

병사3:(구호를 웨친다.) 미일제국주의자들과 우리의 계급적원쑤들을 씨도 없이 소멸하자!

군인들:소멸하자! 소멸하자! 소멸하자!

일섭:(한걸음 나선다.) 동무들! 저는 이자 그림을 통한 선동을 들으며 계급적원쑤들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것을 더욱 똑똑히 알았습니다. 지금 원쑤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동지로 굳게 뭉친 우리의 혼연일체를 제일 무서워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나 이 계급진지를 허물려고 별의별 발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우리모두 계급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 쥐고 수령결사옹위의 제일선, 사회주의조국사수의 전초선으로 나갑시다!

군인들:(총대를 쳐들며) 나가자!

득호:근무조, 우로 돌앗! 날 따라 앞으로!

△득호를 선두로 근무조가 달려 나간다.

△하늘을 가르는 번개, 천둥소리.

△군관1이 달려 나온다.

군관1:중대장동지-

리석:무슨 일이요?

군관1:중대장동지, 지금 불리한 일기조건을 리용해서 적들이 움직이는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리석:뭐라구?

△이때 자지러지게 울리는 총소리.

△군인들이 무기를 벗겨 들며 전투태세를 취한다.

△무선전화기를 뽑아 드는 리석.

리석:3호초소, 3호초소! 나요. 무슨 총소리요?

△증폭되는 득호의 목소리.

《중대장동지! 적들의 도발입니다》

리석:뭣이?

△안타깝게 증폭되는 득호의 목소리.

《어떻게 하랍니까? 중대장동지! 중대장동지!-》

군인들:중대장동지, 칩시다!

리석:(입술을 깨문다.)

△콩볶듯하는 총소리, 총소리.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왔다갔다하는 리석.

△이때 무선전화기에서 울리는 호출신호음.

리석:(급히 무선전화기를 조절한다.)

예, 중대장 리석입니다 … 알았습니다!

사단장동지!-

군인들:뭐? 사단장?

△이중무대우에서 적정을 살피던 광철이 달려 내려 온다.

리석:사단장동지, 군단사령관동지가 찾습니다.

(무선전화기를 넘겨 준다.)

군인들:아니?… (깜짝 놀란다.)

종팔:광철동무가 사단장이라니?…

시남:…(굳어 진다.)

광철:(무선전화기를 넘겨 받으며) 사단장 정광철입니다.

군인들:아! (놀람, 흥분, 격정)

광철: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군단사령관동지! (리석에게) 중대장동무, 놈들이 다시는 집적거리지 못하게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라!

리석:알았습니다!

광철:중대 폭풍!

리석:옛! 중대 폭풍!

△군인들이 번개같이 달려 나간다.

△약동하는 음악.

광철:(무선전화기에 대고) 철산! 철산! 나 1번! 3번, 4번, 5번, 6번! 내 명령을 들으라. 이 시각부터 사단은 전투태세에 들어 간다.

모든 부대와 구분대들은 전투태세를 갖추고 차후 명령을 기다릴것! 나의 위치는 설봉!…

△**소리**:《중대장동지 -》

병사1이 다급히 달려 들어 온다.

병사1:중대장동지.

리석:뭐요?

병사1:일섭동지가… 일섭동지가…

광철:일섭이가 어떻게 됐소?

병사1:적들의 총탄이 날아 오는 순간 소대장동지를 몸으로 막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리석:뭐라구?

광철:중대장! 빨리!-

△광철, 리석, 병사1이 달려 나갈 때 무대 어두워 지며 북분계선의 철책문이 흘러 나온다. 철책문이 열리며 피가 랑자한 일섭이를 업은 득호와 기택, 병사2가 달려 나온다.

득호:(일섭이를 바위우에 눕힌다.) 일섭이… 일섭동무…

병사2:일섭동지…

기택:일섭동지… 정신 차리십시오.

일섭:물… 물…

기택:(물통을 벗겨 들며) 물이 여기 있습니다.

득호:(와락 물통을 빼앗으며) 안돼. 지금 물을 먹이면 위험해!…

기택:아니?… 그럼?…

일섭:물… 물…

득호:(입술을 깨물며 일어 선다.)

기택:으흑흑… (운다.)

득호:(천천히 칼집에서 단도를 뽑아 든다. 단호한 빛이 어리는 그의 얼굴)

기택:아니?… 소대장동지! 어찌자고 그럽니까? 예?

득호:(서서히 옆으로 돌아 서며 자기의 손가락에 단도를 대고 힘을 준다.) 으-음-

△무릎을 꿇고 앉으며 피 흐르는 손가락을 일섭이의 입에 물려 주는 득호.

기택, 병사2:소대장동지!… 으흐흑!…

△노래가 울린다.

정다운 어머니 손길이런듯

지금도 내결에 감도는 사랑

떠나온 고향은 아득히 먼데

그 사랑 곁에 있구나

아-동지여 생사운명 같이 할 전우

영원한 나의 동지

△여기로 달려 나온 광철이 뜨거움속에 이 광경을 목격한다.

광철:소대장동무!

득호:사단장동지!

△두사람 뜨겁게 포옹한다.

광철:빨리 후송합시다.

득호:알았습니다! (오열을 참으며 일섭이를 업고 달려 나간다.)

△기택이와 병사2도 따라 나간다.

광철:(그 모습을 이윽토록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친다.)

△《사단장동지!-》하고 부르며 전투를 마친 군인들이 달려 나온다.

리석:사단장동지! 놈들의 초소를 아예 날려 버렸습니다.

광철:잘했소, 동무들! 아주 잘 싸웠소.

군인들:사단장동지!…

시남:(울먹이며) 한잠자리에서 한모포를 쓰고 자면서도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씨… 난 몰라요.… (광철에게 안기며 왕왕 운다.)

종팔:(목이 메여) 이런 법이 어데 있습니까. …정말 너무합니다.…

광철:허허… 안됐소. 분대장동무, 시남이, 우리 그래서 더 딱친구가 되지 않았소?

시남:사단장동지!

군인들:사단장동지!… (광철이를 에워싸며 한덩어리가 된다.)

△여기로 급히 나오는 사단정치위원.

사단정치위원:사단장동지, 군단정치위원동지가 왔습니다.

△군단정치위원과 군사부사단장을 비롯한 일군들이 나온다.

군단정치위원:사단장동무… 동무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지금 이 설봉초소로 오고 계십니다.

군인들:예?… 최고사령관동지께서요?!…

△격정으로 설레이는 무대.

광철:(입술을 깨물며 머리를 숙인다. 이윽고 번쩍 머리를 쳐들며) 정치위원동지, 안됩니다. 전 사단장으로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이 위험한 곳에 절대로 모실수 없습니다. 지척에 적들이 있고 방금전에도 놈들의 도발이 있었습니다. 여긴 안됩니다!

군인들:안됩니다!

△뜨거운 음악이 흐른다.

군단정치위원:이미 보고 드렸습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위험해도 꼭 가야 합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역만리 오두막의 동지를 찾아 하루밤에도 수백리 길을 가시였습니다, 병사들은 다 나의 귀중한 동지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이라면 하늘끝이라도 찾아 가야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군사분계선을 옆에 낀 소로길로 자신께서 직접 운전대를 잡으시고 지금 여기로 오고 계십니다.

광철:최고사령관동지! 여기는…

군인들:여기는 최전연입니다.

△광철이와 군인들 두팔을 벌리며 결사옹위의 군상을 짓는다.

△영사막이 내려 온다.

△격동적인 음악속에 최전연초소로 찾아 오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엄한 모습이 실사화면으로 펼쳐 진다.

-높고 험한 산길로 오르는 승용차들의 모습.

-굽이굽이 험한 령길 돌고 도는 승용차대렬.

-눈물을 흘리며 환호성을 터치는 군인들의 모습.

-험한 길을 에돌아 드디여 엄엄하게 뻗어 간 철조망사이로 난 철책문안으로 들어 서는 승용차들.

-장군님을 마중하기 위하여 달려 나가는 광철이를 비롯한 지휘성원들.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터치는 군인들의 모습.

△이상의 화면우에 설화가 울린다.

(설화)

《아!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혁명을 시작하여 이 땅우에 동지애의 대화원을 유산으로 남겨 놓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모습으로 혁명의 이 난국을 사랑과 믿음의 힘으로 타개해 나가시며 험로역경을 헤쳐 가시는 열의인, 정의인이시며 동지애의 최고화신이신 우리 장군님! 동지애로 수 놓아 진 사랑의 그 자욱은 오늘 조국의 최전연-여기 설봉초소에도 뜨겁게 이어 졌어라!》

△저녁노을이 불 타는 최전연의 하늘과 산발우에 만세의 환호소리가 끝없이 울려 간다.

△환희로운 음악속에 영사막이 오르면:

종 장

△감격으로 들끓는 중대마당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바래워 드리며 경건히 거수경례를 하고 있는 광철이를 비롯한 지휘성원들.

△선물로 주신 쌍안경이며, 기관총, 자동보총을 안고 있는 중대군관들,

광 철:동무들!…

군인들:사단장동지!

광철:동무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헤여지기 아쉬워 하는 우리들의 손을 꼭 잡으시고 이 어려운 속에서도 모두가 동지로 굳게 뭉쳐 인민군대의 세포이며 기본전투단위인 중대를 일당백의 혁명대오로 꾸려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군인들:예?!… 장군님께서요?!…

△군인들이 어깨를 떨며 소리없이 흐느낀다.

광철: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실수 있는 사랑을 다 안겨 주시고도 무엇인가 부족한것만 같으시여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중대예술소조공연을 할 때 한 군인이 면도를 하지 못한것까지 돌이켜 보시며 대다수 군인들이 면도를 하지 않는 어린 나이에 입대하는것만큼 중대에 면도칼이 많지 못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전군의 모든 장병들에게 면도칼을 보내주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대철:장군님!… (흐느낀다.)

군단정치위원: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적탄을 자기 몸으로 막고 지휘관을 구원한 동무가 기념촬영에서 빠졌다고 하는데 마음에 걸려 내려 가지 않습니다, 피로 맺어 지고 피와 살도 나누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혁명적동지애입니다. 그 동무가 한생 군복을 입고 총대로 당을 받들겠다고 한다는데 잘 도와 주어 군관학교에도 보내주고 앞으로도 인민군대에서 큰 대회를 할 때 그 동무를 꼭 참가시켜 기념촬영을 하게 하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인들:(감격으로 설레인다.)

군단정치위원: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최고사령관과 병사들간의 관계를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생각한적이 한번도 없다고… 나와 군인들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간의 혈연적인 관계, 동지적인 관계입니다.… 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군인들:최고사령관동지! 아버지-

△음악이 터치며 인민군군인들속에 계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영상이 모셔 진다.

△군인들이 만세의 환호를 올린다.

△《동지애의 노래》음악이 흐르는 속에 격조 높은 시가 터진다.

광철: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로동자도 농민도 병사도 일군도 당도

군대도 인민도

모두:동지로 굳게 뭉쳤습니다.

군단정치위원:준엄하고 시련에 찬 조선혁명은 이 힘으로 미제와 일제도 때려 부셨고 이 힘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있습니다.

사단정치위원:이 세상에

지구를 깨뜨릴 원자탄은 있어도

이 혼연일체를 깨뜨릴 힘은 없습니다.

득호: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천만산악이 막아 서고

억만시련이 겹친다 해도

군사부사단장: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김정일장군님의 동지로 살겠습니다.

모두:장군님!

군단정치위원:만약 혁명동지-이 대렬에서 우리와 사상과 뜻이 다른 자들이 나타난다면

그가 누구든 인민의 원쑤로 락인하고

우리의 총대는 무자비할것입니다.

모두:무자비할것입니다!

종팔:21세기를 향하여!

강성대국을 향하여!

위대한 동지이신 김정일장군님 따라

광철:동지애로 시작되고

동지애로 승리하여 온 조선혁명을

장군님의 총대로

모두:끝까지, 끝까지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두팔을 억세게 처들며 웨친다.

△환등에 위대한 장군님의 명제가 자막으로 모셔 진다.

나는 온 사회를 하나의 동지의 세계로 만들고 혁명적동지애로 뭉친 단결의 위력으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고 합니다.

김 정 일

음악이 고조되는 속에 막이 내린다.

경개문

경희극 《살기 좋은 고장》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예술인들이 출연한 경희극《살기 좋은 고장》(극문학《김일성상》계관인 리희찬, 강창일, 연출 전종팔)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꽃피워 주신 공산주의락원 대홍단에서 감자농사를 훌륭히 지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대홍단사람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작품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홍단인민들에게 새 품종의 감자종자를 보내주시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군안의 인민들은 평양에서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대홍단에 내려 온 주인공 단희연구사의 도움밑에 새 감자종자시험포전을 꾸리고 알뜰히 농사 짓는다.

백두삼천리벌의 첫 개척자들중의 한 사람인 할아버지의 넋이 깃든 대홍단에 영원히 뿌리 내릴것을 결심한 단희는 대학동창생인 대홍단총각 대홍이와 고향을 위해 큰 일을 하자고 굳게 약속하고 감자농사에 온넋을 바쳐 간다. 그런데 단희를 평양처녀로만 알고 있는 대홍이의 아버지 고탁제와 분장장 성보는 그를 서로 마음에 두고 저마다 자기쪽으로 끌어 당기려 한다.

대홍단인민들은 감자농사를 잘 지어 나라의 식량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시려는 장군님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급작스레 쏟아 지는 우박 등 불리한 자연현상과 결사적인 투쟁을 벌려 나간다. 그들은 혁명전적지답사생들과 힘을 합쳐 감자포기들을 우박피해로부터 구원해 낸다.

마침내 시험포전에서는 정당 70t의 소출이 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풍년이 든 대홍단을 찾아 주시며 감자농사를 잘 지은 대홍단사람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잘 아시던 농장의 첫 분장장이였던 박철삼로인의 손녀인 단희의 소행을 높이 평가해 주시며 대홍단을 온 나라가 다 아는 감자농사의 원종장으로 더 훌륭히 꾸려 가라고 수많은 제대군인들과 농기계들을 보내주신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갈 충성의 결의가 차고 넘치는 대홍단에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끌끌한 제대군인들과 농기계들이 도착한다.

고탁제의 아들 대홍이도 감자역병예방농약연구에 성공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단희와 감격적으로 상봉한다.

대홍단의 청년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하신 영광의 땅에서 힘과 지혜를 합쳐 행복을 활짝 꽃피워 갈 불 타는 결의를 다진다.

경희극은 세상에 오직 한분이신 어버이장군님을 높이 모신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랑을 끝없이 노래하는 출연자들의 열정적인 노래로 끝난다.

웃음, 눈물, 격동도 있는 경희극

—경희극《동지》에 대하여—

계여제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경희극《동지》(박호일작,강중모연출)를 창작하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경희극《동지》를 2차에 걸쳐 보아 주시고 동지애로 시작되고 동지애로 승리하여 온 우리 혁명의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을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격동도 있는 감동 깊은 형상속에 깊이 있게 천명한 만점짜리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척도로 하여 사람을 원칙적으로 대하면서도 동지를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뜨거운 동지애를 지녀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경희극이 우리 혁명과 온 사회앞에 하나의 큰 기둥을 세운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하여 주신것은 작품의 종자가 철학적깊이가 있고 주제사상적대를 튼튼히 세웠기때문이다.

경희극《동지》는 인민군 한 사단장이 병사복을 입고 병사생활을 하는 과정에 체험하게 되는 사실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인민군대의 지휘관과 병사들간에 맺어 지는 관계를 단순히 명령지시를 내리고 복종하는 상하관계만이 아니라 경애하는 장군님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충실성에 기초한 진정한 동지관계라는것을 깊이 있게 형상함으로써 혁명적동지애는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라는것을 힘 있게 확증하였다.

경희극《동지》가 거둔 성과를 어떻게 특징지울수 있는가. 작품이 제기한 문제를 어떻게 감동적으로 형상하였는가.

1

경희극작품에 웃음은 다같이 있다. 하지만《동지》에서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밝고 락천적이며 용기를 주는 웃음을 담은 작품은 흔치 않다.

이 경희극작품에서 웃음에 대하여 말할 때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게 되는것은 새로 부임된 젊은 사단장 정광철이 신입병사들과 같이 중대생활을 하게 한 설정이다.

그는 사단에 오자마자 병사생활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한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올해를 관병일치를 더욱 활짝 꽃 피우는 해로 정해 주시면서 인민군지휘성원들은 어깨에 별이 많아 지고 직무가 높아 질수록 자기가 병사생활을 하던 때를 언제나 잊지 말고 군인들속에 깊이 들어 가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경희극에서 어떤 오해선으로 사람들을 웃기기 위한 설정이 아니라 사단장이 병사생활을 성실하게 하며 관병일치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생활선이다.

사단장은 병사복을 입고 신입병사들의《친구》가 되여 그들의 심중을 깊이 알고 도와 주려 한다. 그렇기때문에 사단장이라는것을 사단정치위원과 군사부사단장만이 알게 하고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다.

늦어 입대한《신입병사》로 된 사단장이 훈련을 마치고 중대로 가는 신입병사의《친구》가 된 극의 첫 장면부터 관중은 련속 웃음을 터친다.

그러나 그 웃음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사단장의 말과 행동에서 크게 공감을 받게 하는 웃음이다.

관중들은 병사복을 입고 병사들과 꼭같이 생활을 하며 그들을 도와 주는 정광철《병사》가 언제 사단장으로 나설가 기대를 가지고 그의 가지가지의 극적행동을 주시하게 된다.

징후판단을 잘못하여 전투근무에 혼란을 주어 소대장에게서 신임을 잃은 지일섭이 고민을 하다가 다른 중대로 보내달라고 련대대렬과에 올라 갔다 와서 정광철《병사》가 사단장이라는것을 소대장에게 이야기한다. 소대장도 그에게서 항상 공감을 받던 때를 생각하며 지일섭에게 우리도 그《비밀》을 지켜 주자고 말한다.

이런《비밀》속에서 웃음은 계속 폭발한다.

2

기뻐서도 울고 감동되여서도 울고 격동되여서도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경희극에서 웃기기보다 감동되고 격동되여 울린다는것은 헐치 않다.

소대에서 정황판단을 잘못한 지일섭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 영원히 총대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 나가겠다는 그 심정자체가 큰 감동을 준다.

그 심정을 알지 못한 소대장이 그를 다른 중대로 보내려 할 때 정광철《병사》가 도와 주어 지일섭이 안착되여 군무하게 하는데서 사람들은 더 큰 감동을 받게 된다.

정광철《병사》는 자기의 심중의 말을 이렇게 터놓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이렇게 병사들속에 들어와 보니 관병일치에서 기본은 군관, 사관문제라고 하신 장군님의 말씀이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게 됩니다.》

그는 소대장에게 다리에 상처를 입은 지일섭을 한번 만나보라면서 그한테 필요한건 욕이 아니라 정이라면서 정이 통하면 뜻이 통하고 뜻이 통하면 동지로 되는 법이라고 말한다. 사실 정이 통하지 않으면 동지관계라고 말할수 없다.

정광철《병사》가 전사들의 발싸개도 빨아 주고 목달개도 달아 주고 지일섭의 상처를 고쳐 주기 위해 깊은 산속에 들어 가 약초를 뜯어 온것은 다 동지에 대한 정에서 출발한것이다.

방시남이 부모를 잃고 누이동생을 고향에 홀로 두고 온것으로 하여 고민할 때 정광철《병사》가 안해에게 편지를 보내여 그의 누이동생을 데려다 함께 살게 하고 삭도를 고쳐 움직이게 하는것은 눈물없이는 볼수가 없다.

특히 적들의 도발로 소대장이 위험에 처했을 때 지일섭이 자기 몸을 내대여 소대장을 구원하는 병사의 희생정신, 그가 부상을 당하여 물을 찾을 때 물을 먹으면 안된다면서 자기의 피를 뽑아 병사를 살려 내는것은 더욱 큰 감동을 안겨 준다.

경희극작품에서 웃음과 함께 이런 감동의 눈물을 련속 흘리게 하는것은 우리 사회주의현실, 인민군군인들이 지닌 숭고한 동지애의 세계를 우리 식 경희극의 양상적특성을 살려 진실하게 그린 결과에 이루어 진것이다.

3

경희극《동지》에 격동적인 생활이 여러 곳에 펼쳐지게 되는것은 새로운것이다. 작품에서 극적국면을 조성하다 그것이 터지면 감동과 격동적인 생활을 펼쳐 보여 주는것이다.

특히 작품의 절정장면인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적들의 도발로 인한 긴장한 정황에서 병사생활을 하던 사단장이 자기를 드러내는 장면은 격동적이다.

병사들은 정광철이 사단장인줄 모르나 관중은 다 알고 있다.

관중들은 그가 언제 사단장으로 나설가 처음부터 기대를 가지고 보아 왔는데 군단장이 무선전화로 사단장을 찾자 병사복을 입은 정광철이 그제야 나서며 사단장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군관과 사관, 병사들은 방금전까지《병사》였던 정광철이 사단장임을 알자 깜짝 놀라며 그를 친근하게 바라보며 사단장이 주는 전투임무를 수행한다.

사단장이《병사》로 있다 전투정황이 벌어 지자 사단장으로 나타나 임무를 수행하는 극적장면은 우리 인민군대에서만 찾아 볼수 있는것이다.

더우기 격동적인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최전연에 있는 이 중대를 찾아 오시는 장면이다.

사단장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이 위험한 곳에 절대로 모실수 없다는것이다.

이때 군단정치위원은 격정을 누르며 이렇게 말한다.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위험해도 꼭 가야 합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역만리 오두막의 동지를 찾아 하루밤에도 수백리길을 가셨습니다, 병사들은 다 나의 귀중한 동지들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이라면 하늘끝이라도 꼭 가야 합니다라고 하시면서 군사분계선을 옆에 낀 소로길로 자신께서 직접 운전대를 잡으시고 지금 여기로 오고 계십니다.》

작품은 이처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동지애의 높은 세계를 깊이 있게 그림으로써 위대한 령장의 위인적풍모를 힘 있게 격찬하고 있다.

경희극《동지》는 종자가 철학성이 있고 주제사상적대가 튼튼히 서고 양상도 특색이 있다. 구성도 째이고 면도칼과 같은 생활세부도 의의 있게 잘 형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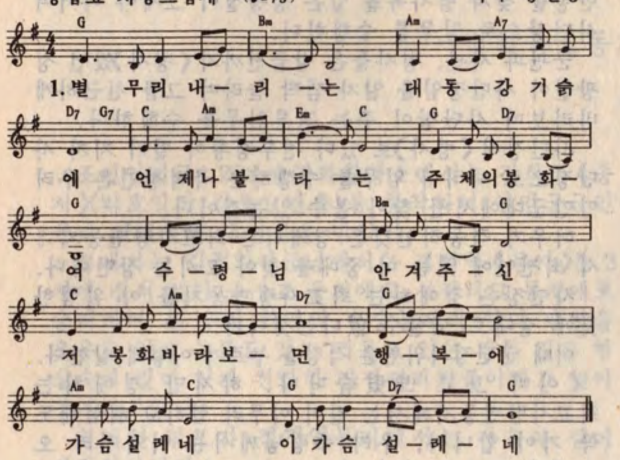
그리하여 경희극《동지》는 웃음도 눈물도 격동도 있는 명작으로 우리 주체문학예술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였다.

보천보전자악단 노래중에서

희망의 등대

작사 조창제
작곡 황진영

정답고 자랑스럽게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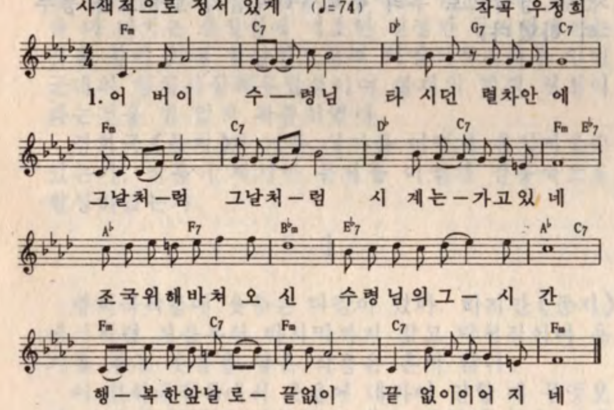
2. 내 때로 먼길을 다녀 온 밤에도
생각깊이 바라보며 가슴 젖었네
수령님 안겨 주신 저 봉화아래서
세상을 보는 마음 커졌네
이 마음 커졌네

3. 평양의 하늘에 밝은 빛 뿌리며
우리 앞길 밝히는 희망의 등대여
수령님 안겨 주신 저 봉화 마음에 안고
세상끝까지 가리라
내 삶의 영원한 불빛

영원한 조선의 시간

작사 주 홍
작곡 우정희

사색적으로 정서 있게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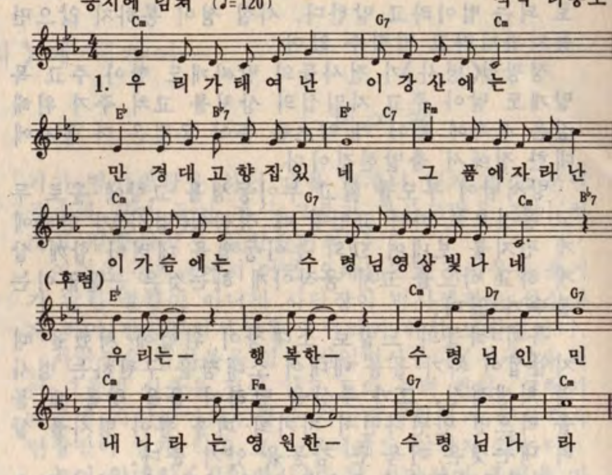


2. 인민행렬차 타고 한평생 가신 그 길
뜨거웁게 뜨거웁게 시계에 어려 오네
인민 위해 바쳐 오신 수령님의 그 시간
어버이사랑으로 끝없이 끝없이 이어 지네

3. 주체의 그 위업 장군님 빛내시니
그날처럼 그날처럼 시계는 가고 가리
력사에 새겨 지는 수령님의 그 시간
번영하는 이 땅에 끝없이 끝없이 이어 지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나라

작사 송기원
작곡 리종오

궁지에 넘쳐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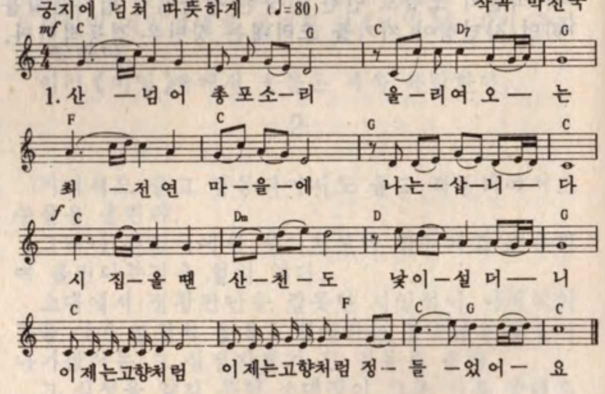
2. 백두의 그 넋을 숨결로 지녀
인민은 슬기로워라
주체의 신념을 의지로 떨쳐
조국은 불패이여라
(후렴)

3. 수령님 영원히 높이 모시고
장군님 믿고 따르리
나라도 인민도 그 이름으로
만대에 길이 빛나리
(후렴)

나는 초병의 안해

작사 김선지
작곡 박진국

궁지에 넘쳐 따뜻하게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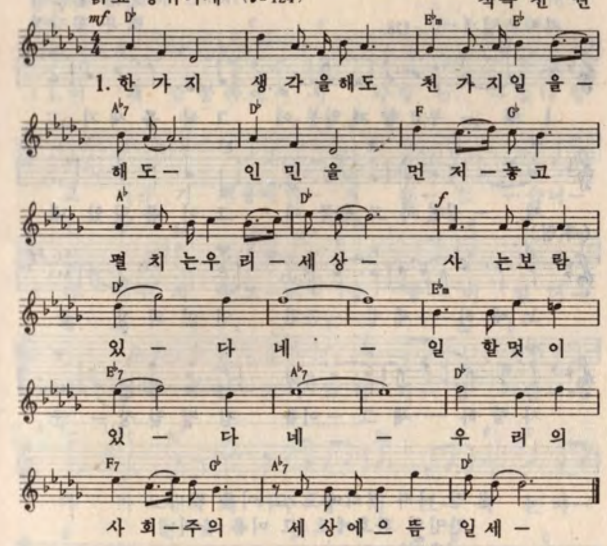


2. 전연초소 찾아 오신 우리 장군님
초병의 안해들이 혁명가라 하셨네
우릴 불러 기념사진 찍어 주실 때
장군님 그 사랑에 장군님 그 사랑에
목 메여 울었어요

3. 평양은 천리길 멀고 멀어도
장군님 가까이 우리 삽니다
충효의 한마음 불 태워 가며
언제나 초소생활 언제나 초소생활
꽃 피웁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세상에 으뜸일세

작사 안정기
작곡 전 권

밝고 흥취나게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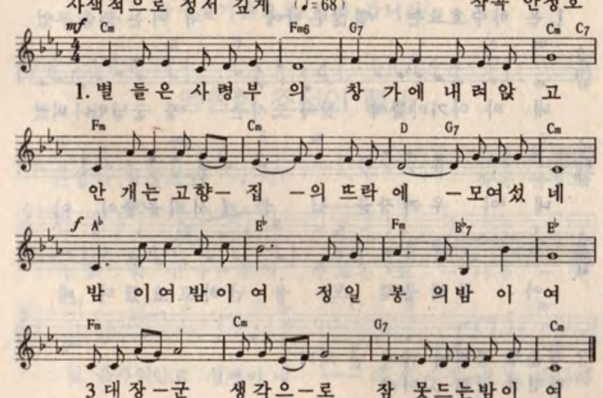
2. 가꾸어 주렁지는 행복은 우리의것
받들어 번영하는 조국도 우리의것
주인으로 산다네 자랑 안고 산다네
우리의 사회주의 세상에 으뜸일세

3. 다같이 일을 하고 다같이 잘 살아
누구나 심장으로 받드는 우리 나라
수령님이 세우셨네 장군님이 이끄시네
우리의 사회주의 세상에 으뜸일세

정일봉의 밤이여

작사 윤두근
작곡 안정호

사색적으로 정서 깊게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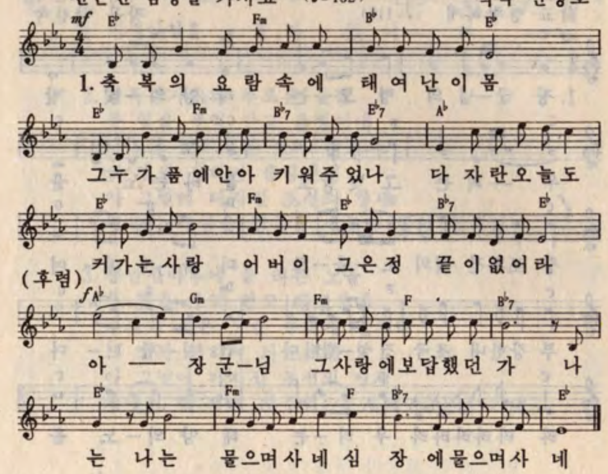
2. 항일의 그 전설은 밀림이 들려 주고
2월의 그 환희는 소백수 속삭이네
밤이여 밤이여 정일봉의 밤이여
3대장군이야기로 깊어 가는 밤이여

3. 오늘도 그날처럼 붉은기 나붓기고
이 밤도 그 밤처럼 불빛은 찬란하네
밤이여 밤이여 정일봉의 밤이여
3대장군 그 력사로 이어 지는 밤이여

나는 심장에 물으며 사네

작사 강일진
작곡 안정호

친근한 감정을 가지고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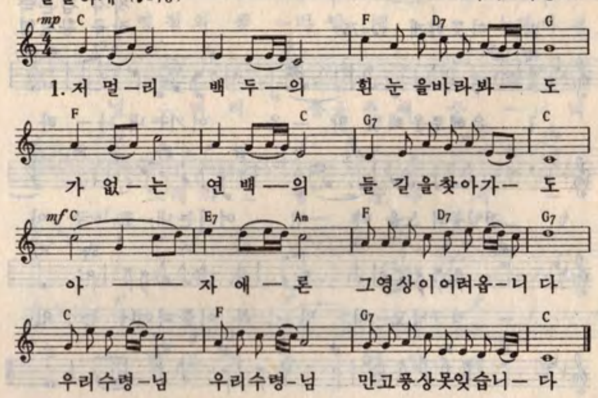
2. 행복의 창가에서 우러러 보면
한밤도 지새시는 장군님모습
나의 꿈 지켜 준 뜨거운 사랑
번영의 새 아침 펼쳐 주시네
(후렴)

3. 우리의 운명 지켜 전선길 천리
우리의 요람 지켜 조국땅 만리
불멸의 그 자욱 따르는 마음
내 한생 끝까지 다 바치리라
(후렴)

수령님 만고풍상 못 잊습니다

작사 김명익
작곡 리종오

절절하게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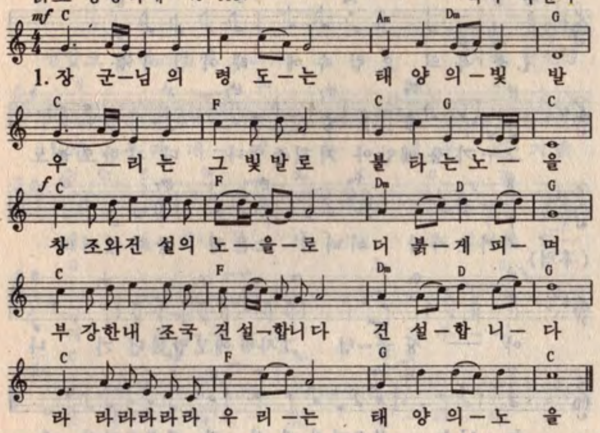


2. 빈터에 일떠선 조국을 생각해도
이 나라 사랑의 전설을 들어 봐도
아 위대한 그 한생이 어려 옵니다
우리 수령님 우리 수령님
만고풍상 못 잊습니다

3. 금수산기슭의 노을을 바라봐도
이 땅의 무궁한 래일을 그려 봐도
아 사랑의 그 미소가 어려 옵니다
우리 수령님 우리 수령님
만고풍상 못 잊습니다

우리는 태양의 영원한 노을

작사 장선국
작곡 박진국

밝고 명랑하게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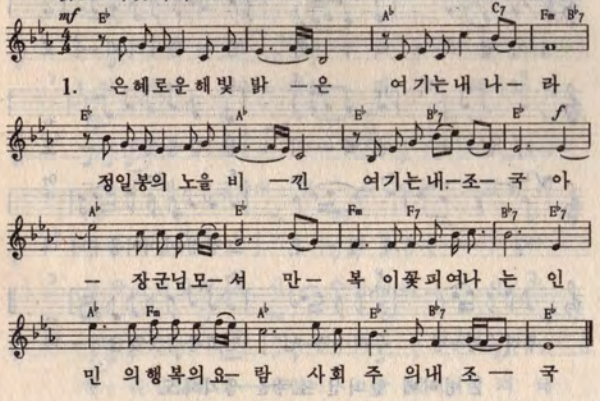
2. 저 하늘의 노을은 피고 지지만
우리는 이 땅우에 영원한 노을
로력과 혁신의 노을로 세차게 타며
장군님 높은 뜻 꽃 피웁니다 꽃 피웁니다
라 우리는 태양의 노을

3. 태양의 그 빛발 펼치여 가는
우리는 변함 없는 주체의 노을
삼천리강산에 이 노을 가득 채우며
통일의 새 아침 마중 갑니다 마중 갑니다
라 우리는 태양의 노을

행복의 요람

작사 김은숙
작곡 황진영

밝고 따뜻하게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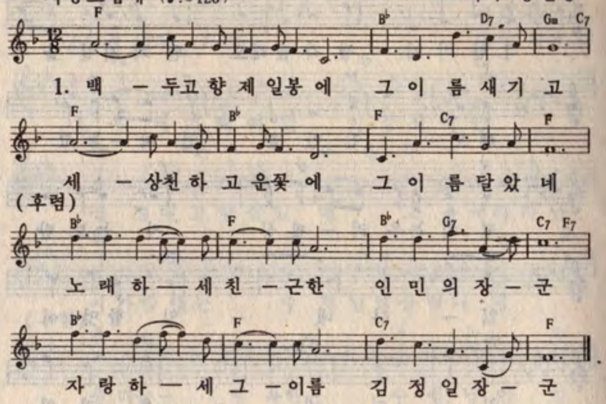
2. 집집마다 자랑 많은 여기는 내 나라
사랑의 전설 꽃 핀 여기는 내 조국
아 장군님 모셔 친형제로 모두 화목한
인민의 행복의 요람 사회주의 내 조국

3. 눈 내려도 따뜻한 여기는 내 나라
붉은기 휘날리는 여기는 내 조국
아 장군님 모셔 천만년 무궁번영할
인민의 행복의 요람 사회주의 내 조국

노래하세 친근한 인민의 장군

작사 최준경
작곡 황진영

자랑스럽게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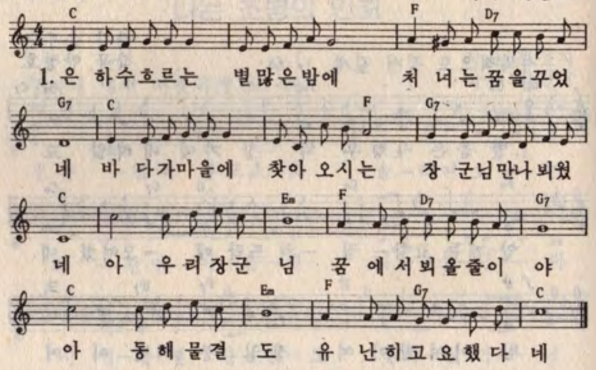
2. 먼 나라 거리에도 그 이름 빛나고
만민의 환호에도 그 이름 울리네
(후렴)

3. 그 이름 해님처럼 밝은 빛 주고
그 이름 기발처럼 승리를 주네
(후렴)

정말로 오실줄이야

작사 김명익
작곡 리종오

그리움에 넘쳐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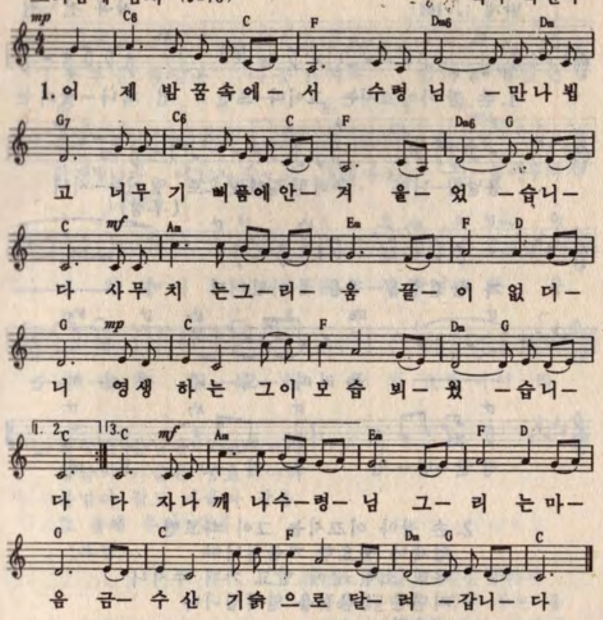
2. 황홀한 꿈결에 깨여 난 처녀
해변길 달려 갔다네
푸르른 대양에 해가 솟는데
장군님 찾아 오셨네
아 우리 장군님 정말로 오실줄이야
아 동해물결도 기쁨에 설레였다네

3. 머나먼 전선길 이어 가시는
아버지 우리 장군님
그 품에 안기는 처녀의 모습
동해의 절경 이뤘네
아 우리 장군님 그 품에 안길줄이야
아 동해물결도 춤 추며 파도쳤다네

수령님 그리는 마음

작사 전 진
작곡 박진국

그리움에 넘쳐 (♩=78)



2. 많은 일 하였다고 치하해 주시며
공장일도 농사일도 물었습니다
장군님 모시였던 발전소에도
우리 함께 나가보자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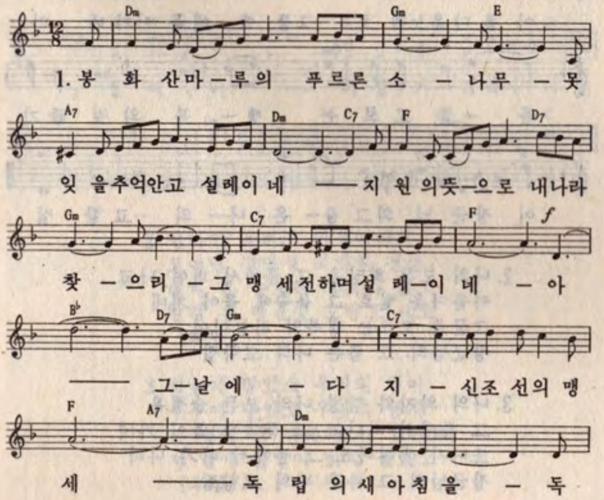
3. 수령님 뵈온 꿈 꿈 같지 않아서
그리움은 더없이 넘쳐 납니다
오늘밤도 또다시 오실것 같아
이 가슴은 한없이 설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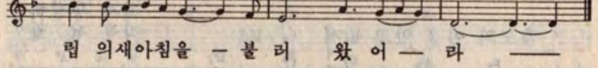
자나깨나 수령님 그리는 마음
금수산기슭으로 달려 갑니다

영원한 조선의 맹세

작사 최경국
작곡 안정호

근엄한 감정으로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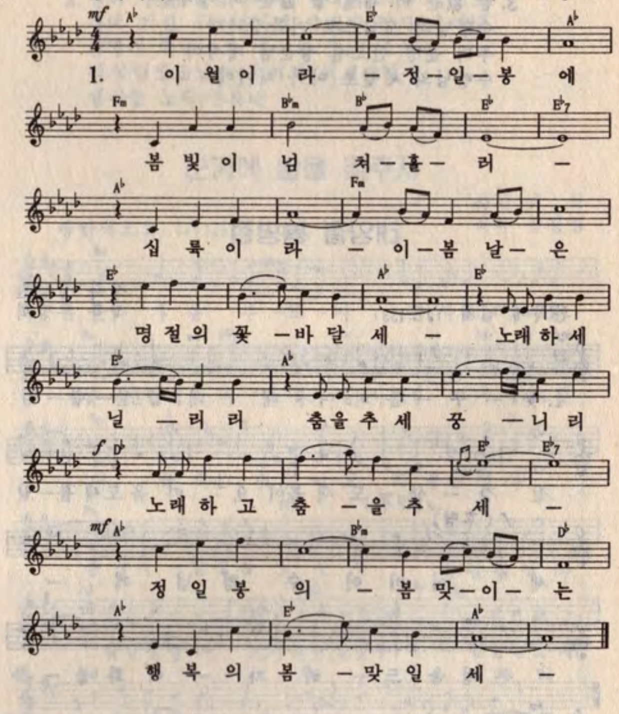




2. 압록강기슭의 푸르른 물결
못 잊을 추억 안고 출렁이네
나라를 찾기전엔 오지 않으리
그 맹세 전하며 출렁이네
아 그날에 다지신 조선의 맹세
광복의 새봄을 광복의 새봄을 안아 왔어라

3. 룡남산마루에 불 타는 노을
못 잊을 추억 안고 타오르네
주체의 붉은 노을 누리에 펼치리
그 맹세 전하며 타오르네
아 그날에 다지신 조선의 맹세
자주의 새 세계 자주의 새 세계 빛내여 가네

정일봉의 봄맞이

작사 윤두근
작곡 안정호

경쾌하게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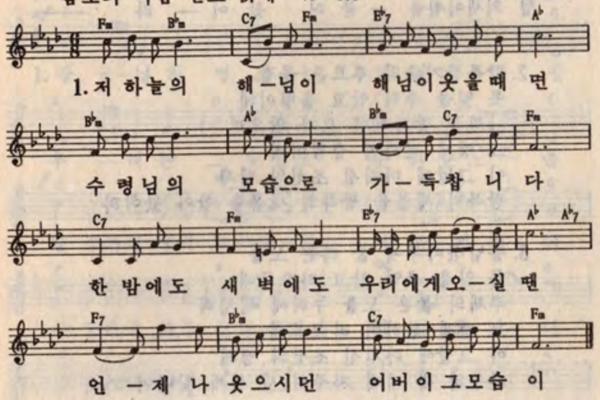
2. 2월이라 이 강산은 충효의 꽃바구니
16이라 이 봄날에 핀 꽃은 우리라네
노래하세 닐리리 춤을 추세 꿍니리
노래하고 춤을 추세
정일봉의 봄맞이는 축원의 봄맞일세

3. 2월이라 눈계절에 꽃계절 펼쳐 놓은
16이라 이 봄날을 세상이 모두 맞네
노래하세 닐리리 춤을 추세 꿍니리
노래하고 춤을 추세
정일봉의 봄맞이는 태양의 봄맞일세

해님이 웃을 때면

작사 황성하
작곡 전 권

흠모의 마음 안고 밝게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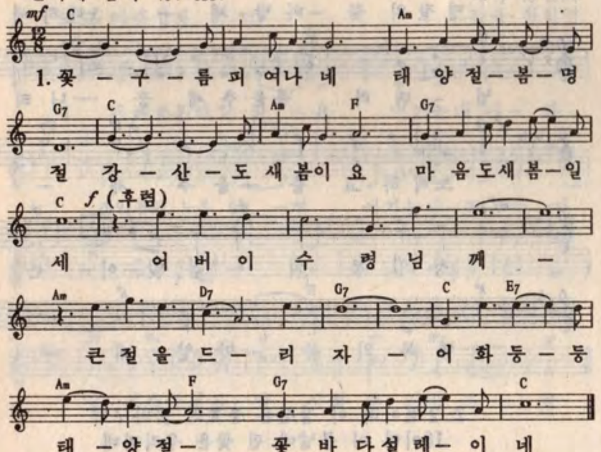
2. 대지에 꽃들이 꽃들이 필 때면
수령님의 모습으로 가득찹니다
축복 받은 이 땅에 만발한 꽃들처럼
우리 생을 품에 안아 키우신 그 모습이

3. 끝 없는 이 세월 끝 없는 이 강산은
수령님의 모습으로 가득찹니다
우리 운명 안으신 장군님 계시여
수령님의 세월로 이어 지기에

태양절 봄명절

작사 정성환
작곡 우정희

환희에 넘쳐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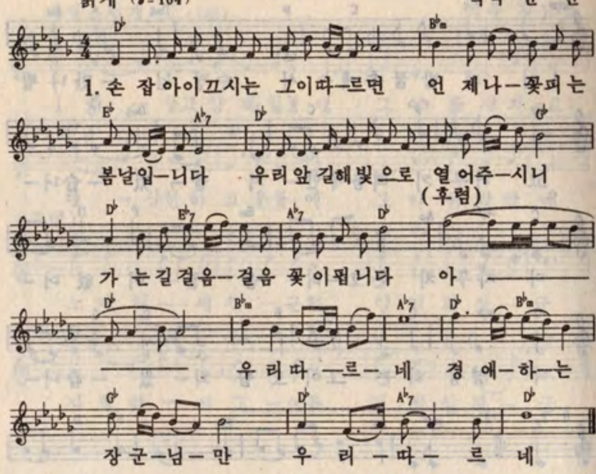
2. 민족의 삶이 꽃 핀 태양절 봄명절
걸어 온 길 돌아 보니 영광의 자욱일세
(후렴)

3. 온 세상이 함께 맞는 태양절 봄명절
강성대국 새 세계에 영원한 봄을 주네
(후렴)

우리 따르네

작사 강옥녀
작곡 전 권

밝게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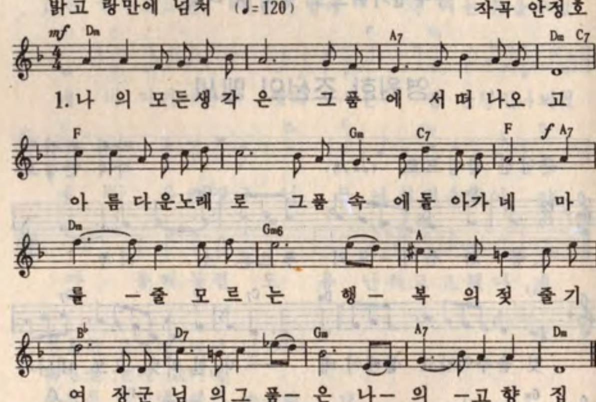
2. 손 잡아 이끄시는 그이 따르면
언제나 풍요한 가을입니다
우리 소원 품에 안고 가꿔 주시니
지나온 걸음걸음 열매입니다
(후렴)

3. 손 잡아 이끄시는 그이 따르면
언제나 넘치는 행복입니다
바라는 모든 희망 꽃 펴주시니
미래도 앞당겨 펼쳐 집니다
(후렴)

나의 고향집

작사 전동우
작곡 안정호

밝고 랑만에 넘쳐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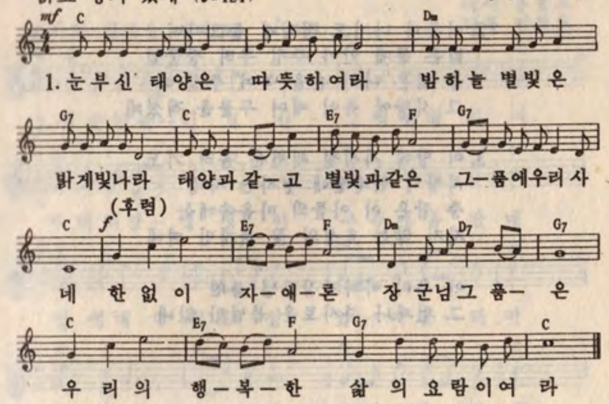
2. 나의 모든 희망은 그 품에서 피여 나고
아름다운 별로 그 품속에 돌아 가네
그끝을 모르는 행복의 하늘이여,
장군님의 그 품은 나의 고향집

3. 나의 의지와 감정 나의 모든 숨결은
그 품에서 떠나고 그 품속에 돌아 가네
또다시 태여나도 그 품에서 내가 나리
장군님의 그 품은 나의 고향집

장군님 품은 우리 삶의 요람

작사 배정순
작곡 전 권

밝고 생기 있게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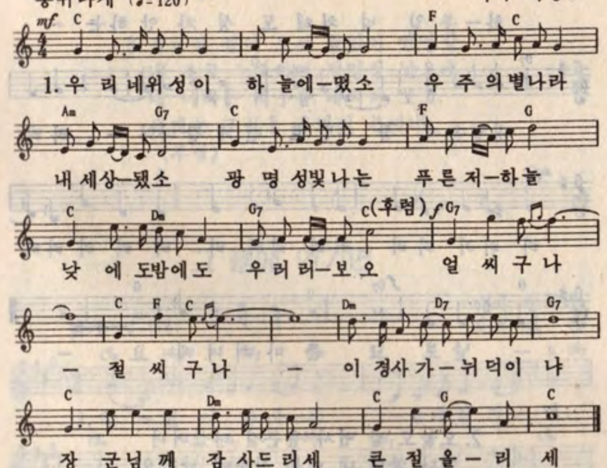
2. 화창한 봄날은 포근하여라
황금의 가을은 풍요하여라
봄날과 같고 가을과 같은
그 품에 우리 사네
(후렴)

3. 오늘도 래일도 세상끝까지
우리의 운명을 지켜 주는 품
고마운 그 품에 효성 다하며
천만년 따르리라
(후렴)

우리네 위성이 하늘에 떴소

작사 김경기
작곡 리종오

흥취나게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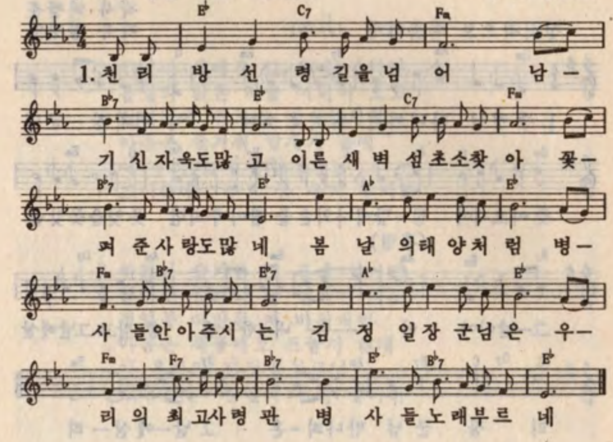
2. 만나면 우리의 위성이야기
모이면 광명성 희한한 전설
헤쳐 온 눈보라 후회가 없고
달려 온 행군길 보람도 크오
(후렴)

3. 하늘에 닿았소 우리의 힘이
우주에 닿았소 우리의 궁지
저 별에 내 나라 높이 빛나고
저 별에 앞날이 밝게 실렸소
(후렴)

병사들은 노래하네 우리의 최고사령관

작사 최준경
작곡 리종오

흠모의 정을 안고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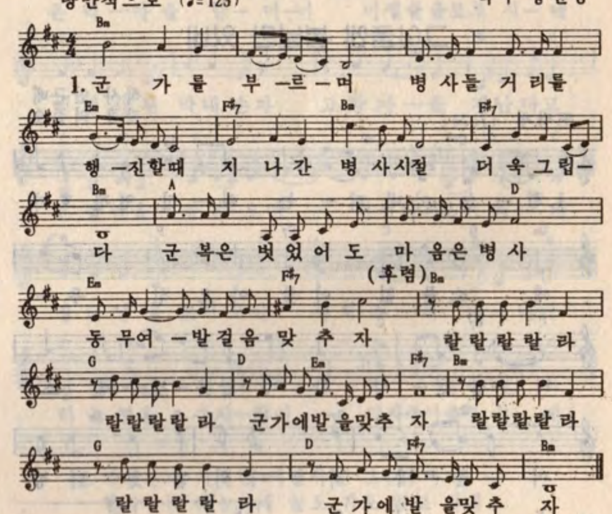


2. 파도 세찬 갑판에 올라 항로도 잡아 주시고
노을 비낀 하늘가 멀리 은빛날개 펼쳐 주셨네
강철의 담력으로 병사들 키워 주시는
김정일장군님은 우리의 최고사령관
병사들 노래 부르네

3. 안겨 주신 총검마다엔 멸적의 기상 넘치고
다녀 가신 초소마다엔 승리의 만세 울리네
금별의 위훈으로 병사들 빛내 주시는
김정일장군님은 우리의 최고사령관
병사들 노래 부르네

군가에 발을 맞추자

작사 리 석
작곡 황진영

랑만적으로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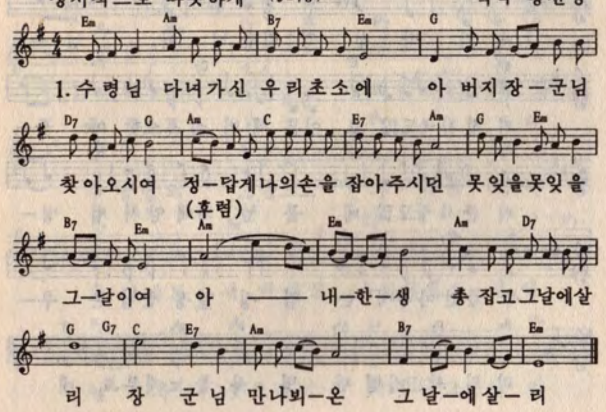
2. 군가를 부르며 걸어 온 우리의 병사시절
위훈의 자욱으로 빛나고 있다
병사의 그 걸음새 변치를 말고
동무여 발걸음 맞추자
(후렴)

3. 군가를 부르며 나가는 씩씩한 저 대오에
마음의 보폭을 맞추며 살리
조국을 위한 길에 청보로 걷자
동무여 발걸음 맞추자
(후렴)

장군님 만나뵈온 그날에 살리

작사 리광춘
작곡 황진영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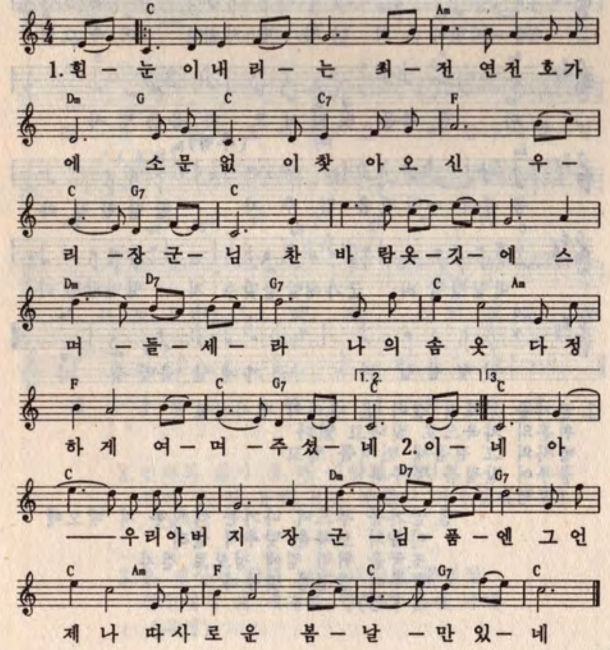
2. 고향은 어데인가 물어 보시며
소박한 이야기도 들어 주시고
어버이 넓은 품에 안아 주시던
못 잊을 못 잊을 그날이여
(후렴)

3. 장군님 만나뵈온 영광의 날은
아쉽게 하루하루 흘러 가도
영원히 마음속엔 그날을 안고
조국의 조국의 방선 지키리
(후렴)

그이품엔 봄날만 있네

작사 안근배
작곡 리종오

뜨겁게 (♩=74)



2. 이름과 나이도 정답게 물으시며
넓은 품에 안아 주신 우리 장군님
총 잡은 나의 손을 녹여 주실 때
그 사랑에 목이 메여 두볼을 적셨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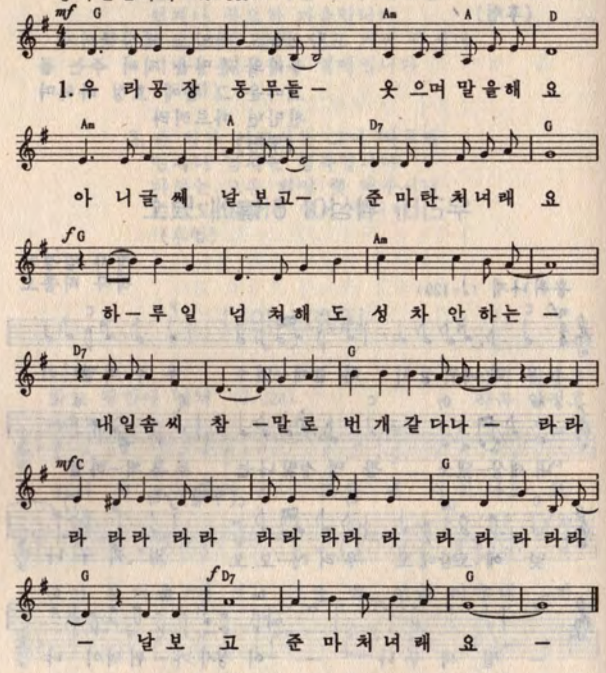
3. 이 땅에 사시절 세월은 흘러 가도
사랑의 한계절에 병사는 사네
총 잡은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지지 않는 효성의 꽃 붉게만 피네

아 우리 아버지장군님 품엔
그 언제나 따사로운 봄날만 있네

준마처녀

작사 리광숙
작곡 안정호

생기발랄하게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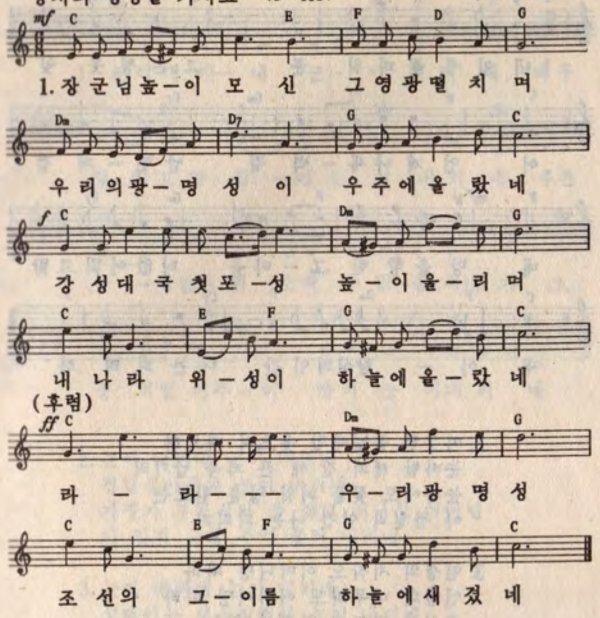
2. 오늘도 남 먼저 출근길 나섰더니
아니 글쎄 내 이름 신문에 났지요
비약하는 시대에 날으며 사는
청춘에게 안겨 주는 표창인가봐
라
날 보고 준마처녀래요

3. 창조로 들끓는 로동당시대가
청춘에게 안겨 준 값 높은 새 이름
장군님 태워 주신 준마에 올라
내 한생 그 이름을 빛내며 살리
라
날 보고 준마처녀래요

조선의 그 이름 하늘에 새겼네

작사 류동호
작곡 안정호

긍지와 영광을 가지고 (♪=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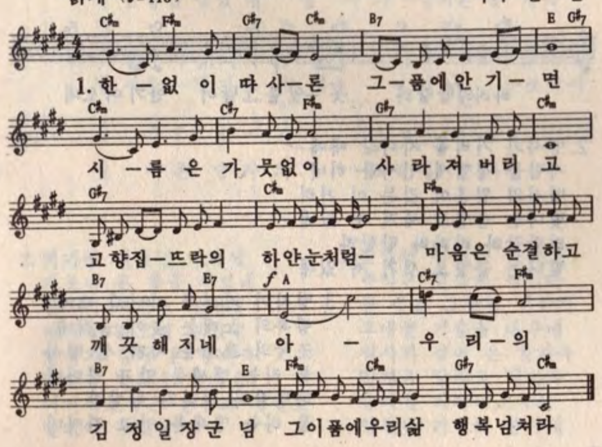
2. 장군님 안겨 주신 그 위용 떨치며
우리의 광명성이 유난히 빛나네
끝없이 넓고 넓은 우주의 별나라에
민족의 슬기와 용맹이 나래치네
(후렴)

3. 장군님 길이 모셔 끝없이 번영할
내 조국 노래하며 광명성 날으네
내 나라는 지구를 내려다 보고
세계는 조선을 우러러 본다네
(후렴)

그 품에 안기면

작사 정서촌
작곡 전 권

밝게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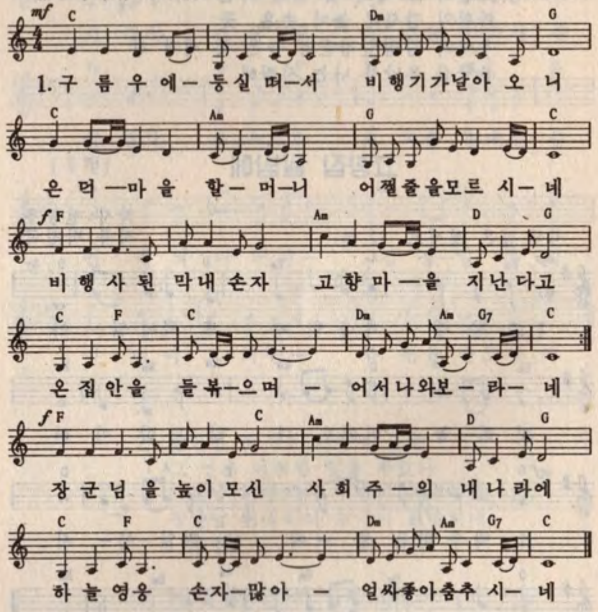
2. 한없이 자애론 그 품에 안기면
봄날의 맑은 하늘 어리여 오고
잔디밭에 뛰노는 아이들처럼
마음은 즐거워 날개가 돋네
아 우리의 김정일장군님
그이품에 푸른 꿈 우리 펼쳐라

3. 한없이 슬기론 그 품에 안기면
찬란한 승리의 길 펼치여 지고
정일봉 떠받든 저 바위처럼
마음은 폭풍에도 드놀지 않네
아 우리의 김정일장군님
그이품에 영원히 우리 살리라

막내손자 비행사라네

작사 림공식
작곡 박진국

건드러지게 (♩=112)



2. 막내손자 어엿한 비행사된 그날부터
할머니는 하늘가에 눈도 귀도 없고 사네
비행기의 발동소리 들리기만 하여도
손자인듯 싶어서 동네방네 자랑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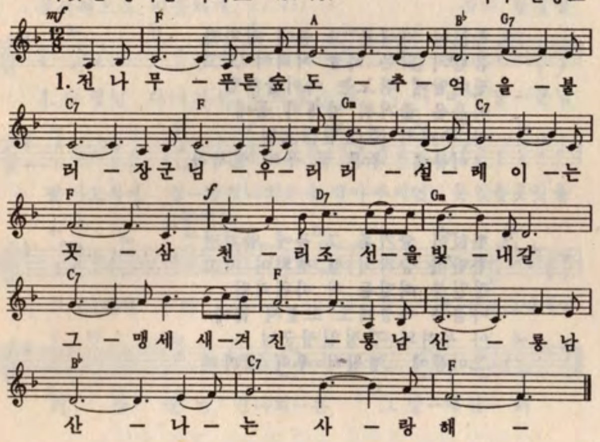
3. 저 하늘의 비행사들모두가 손자 같아
비행기를 보며는 그저 좋아 싱글벙글
손자들이 조국하늘 미더웁게 지켜 가니
어느 놈이 얼씬하랴 어림도 없다네

장군님을 높이 모신 사회주의 내 나라에
하늘영웅 손자 많아 얼싸 좋아 춤 추시네

룡남산을 나는 사랑해

따뜻한 정서를 가지고 (♩.=79)

작사 전병구
작곡 안정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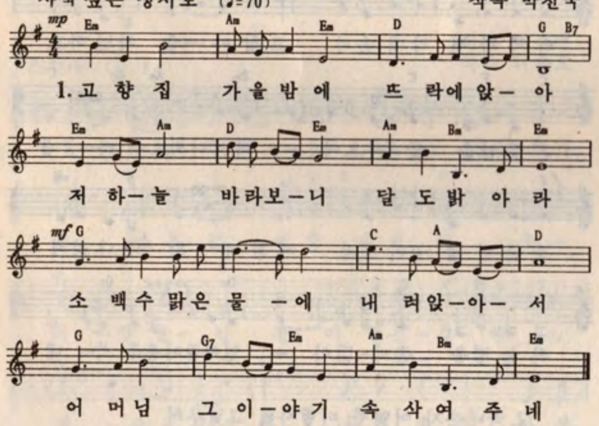
2. 위대한 장군님 그 미소인듯
찬란한 해빛이 넘쳐 나는 꽃
내 조국 부강을 떨쳐 갈 그 맹세 새겨 진
룡남산 룡남산 나는 사랑해

3. 그날의 그 맹세 꽃 피여 나는
락원의 강산에 높이 솟은 꽃
우리의 김정일장군님 높은 뜻 새겨 진
룡남산 룡남산 나는 사랑해

고향집 달밤에

사색 깊은 정서로 (♩=70)

작사 전동우
작곡 박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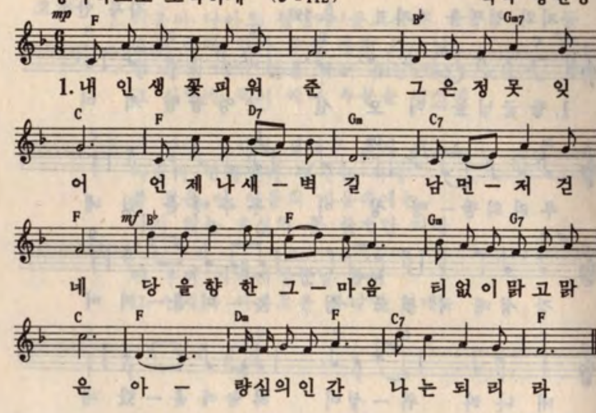
2. 창가에 타오르던 작은 등잔불
하늘에 높이 걸어 달이 되였나
어머님 동불심지 돋구시던 모습
오늘도 달빛속에 어려여 오네

3. 한평생 미래 위해 불 태우시며
이 나라 빛이 되신 우리 어머님
이 밤도 태양의 해빛을 안고
정일봉마루우에 함께 계시네

충신의 한모습

정서적으로 소박하게 (♪=112)

작사 허룡갑
작곡 황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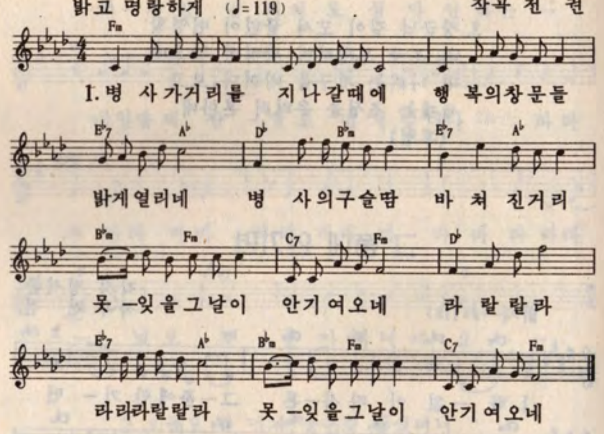
2. 따뜻한 봄날에만 웃으며 따르랴
눈바람 헤쳐 갈 때 큰 자욱 남기려
눈속에도 꽃을 피워 당을 받드는
아 정열의 인간 나는 되리라

3. 인생의 시작도 어머니당 따라
인생의 마무리도 어머니당 따라
충신의 한모습 변함이 없는
아 의지의 인간 나는 되리라

병사가 거리를 지날 때

밝고 명랑하게 (♩=119)

작사 남병우
작곡 전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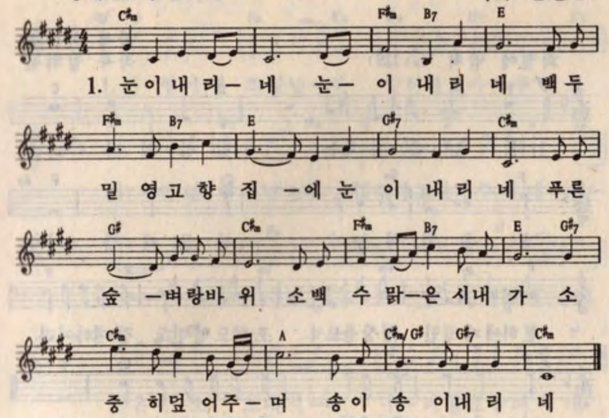
2. 병사가 거리를 지나갈 때에
사람들 정답게 인사를 하네
병사의 위훈이 깃든 이 거리
빛나는 금별로 새겨 져 있네
라랄랄라 라라라 랄랄라
빛나는 금별로 새겨 져 있네

3. 병사가 거리를 지나갈 때에
행복의 노래는 높이 울리네
조국의 초소를 지켜 선 병사
불 타는 맹세를 안고 간다네
라랄랄라 라라라 랄랄라
불 타는 맹세를 안고 간다네

고향집에 눈이 내리네

정서 있게 (♩=70)

작사 정서촌
작곡 전민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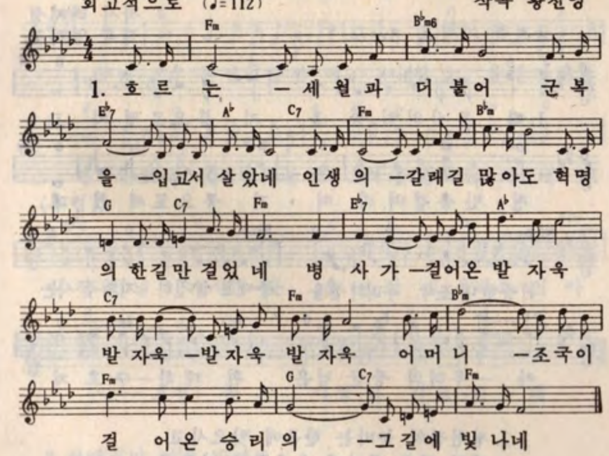
2. 눈이 내리네 눈이 내리네
정일봉마루에 눈이 내리네
자장가 부르시다 총 잡고 떠나신 어머님
아 잊지 못해 추억 불러 내리네

3. 눈이 내리네 눈이 내리네
설레이는 백두밀림에 눈이 내리네
못 잊을 고향집의 뜻 깊은 그 사연 전하며
락원의 이 강산에 눈이 내리네

병사의 발자욱

회고적으로 (♩=112)

작사 최문식
작곡 황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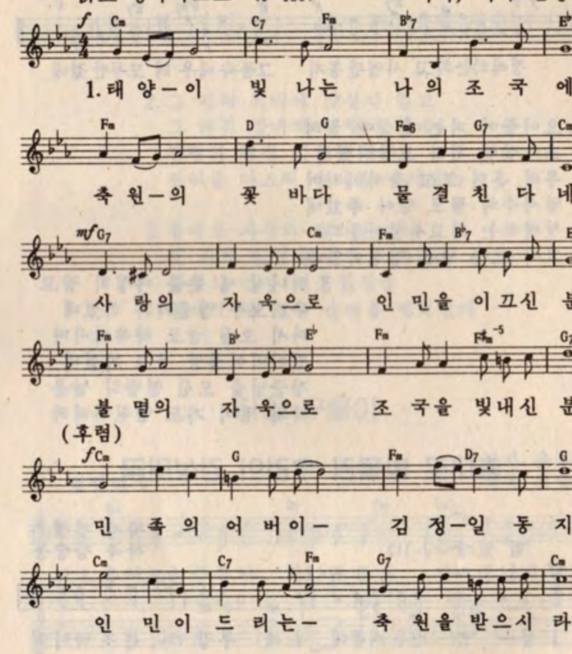
2. 책가방 메였던 어깨에
키보다 큰 총을 메였네
발목이 빠지는 전선길
탄피를 밟으며 걸었네
병사가 걸어 온 발자욱
발자욱 발자욱 발자욱
어머니조국은 훈장과 메달로
빛내여 주었네

3. 젊었던 시절은 갔어도
추억은 심장에 남았네
공 세운 그날의 이야기
후대들 가슴을 태우네
병사가 걸어 온 발자욱
발자욱 발자욱 발자욱
승리한 어머니조국이
영원히 기억해 준다네

인민의 축원을 받으시라

밝고 경축적으로 (♩=130)

작사, 작곡 안정호



2. 반만년 력사로 자랑찬 조국
그 언제 이처럼 빛을 뿌렸나
장군님 위대하여 인민이 위대하고
장군님 위대하여 조국이 위대하네
(후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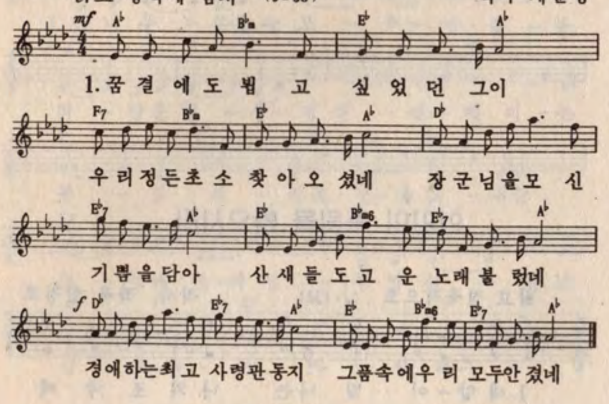
3. 이 땅에 력사가 흘러 간대도
쌓으신 그 업적 길이 빛나리
장군님령도로 인민은 뭉치고
장군님령도로 조국은 번영하리
(후렴)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노래중에서

장군님 초소에 모신 날

밝고 행복에 넘쳐 (♩=68)

작사 최준경
작곡 계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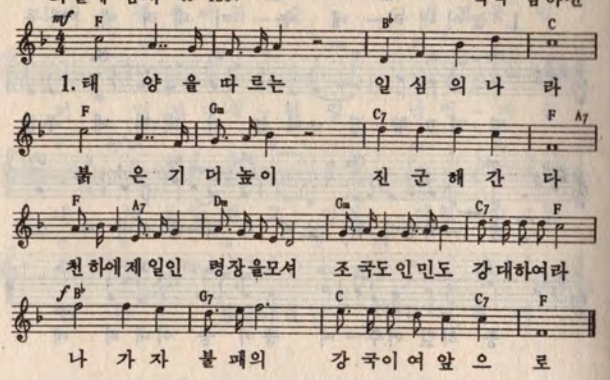
2. 오이꽃이 피는 온실에 들러
초소살림 친히 보살피셨네
우리 훈련 보고 축하하시며
명사수의 꽃도 달아 주셨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그이 모신 날은 명절이였네

3. 떠나실 땐 손을 다정히 잡고
우리모두 영웅되라 하셨네
다시 오실 날도 약속하시며
친어버이사랑 두고 가셨네
장군님을 모신 영광의 날은
해와 달이 가도 영원하리라

불패의 강국이여 앞으로

희열에 넘쳐 (♩=126)

작사 최준경
작곡 엄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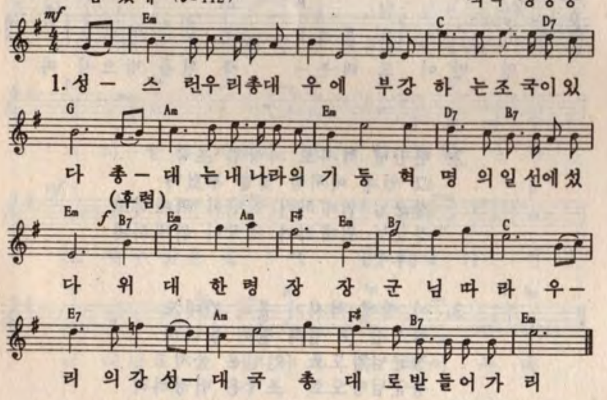
2. 이 땅은 불락의 요새로 솟고
위성은 우주를 정복해 간다
무적의 총검이 철진을 펼쳐
그 어떤 대적도 얼씬 못한다
나가자 불패의 강국이여 앞으로

3. 창조와 건설의 억센 힘으로
원하는 모든것 이룩해 간다
장군님 이끄는 강성대국을
새 세기 령봉에 우뚝 세우리
나가자 불패의 강국이여 앞으로

총대로 받들리 우리의 강성대국

힘 있게 (♩=112)

작사 김정훈
작곡 강승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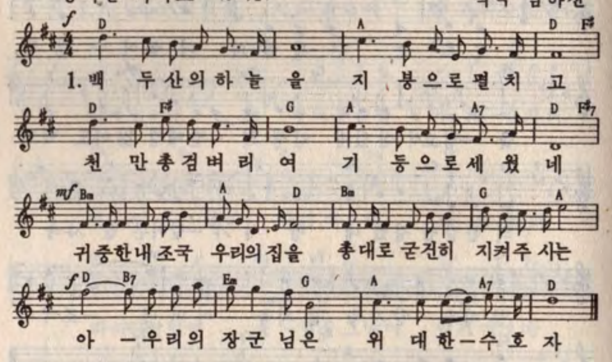


2. 백두산밀림의 전통
총검마다 빛발치여라
총대는 내 나라의 위력
대적도 내려다 본다
(후렴)

3. 조국은 우리들을 믿고
부흥의 길 구보로 간다
총대는 내 나라의 승리
태양의 위업 빛낸다
(후렴)

장군님은 위대한 수호자

긍지를 가지고 (♩=72)

작사 리지성
작곡 엄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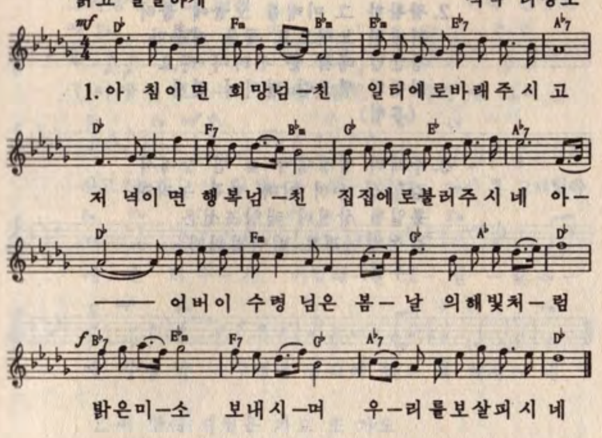
2. 전선길의 눈비는 한몸에 맞으시고
해빛 밝은 창가엔 웃음꽃만 피우네
일심의 대가정 우리의 집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 주시는
아 우리의 장군님은 위대한 수호자

3. 붉은 기발 날리는 강성대국 이 조선
사회주의보루로 온 누리에 빛내네
태양의 나라인 우리의 집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 주시는
아 우리의 장군님은 위대한 수호자

수령님은 밝은 미소 보내시네

밝고 절절하게

작사 윤두근
작곡 리광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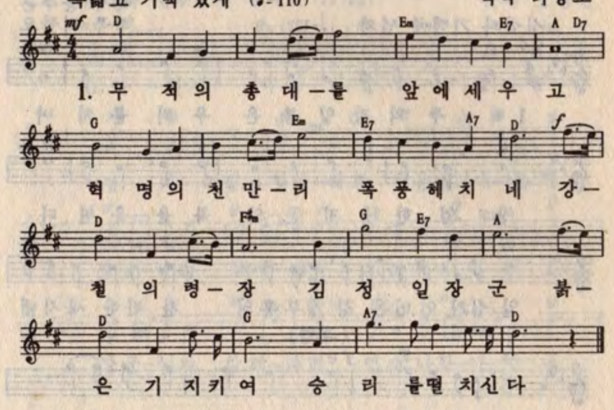


2. 창가마다 넘친 노래 기쁨속에 들어 주시고
요람속에 피는 꿈도 고이 안아 지켜 주시네
아 어버이수령님은 낮에도 한밤에도
밝은 미소 보내시며 우리를 보살피시네

3. 장군님을 잘 모시고 행복하라 축복하시고
장군님을 잘 받들어 승리하라 당부하시네
아 어버이수령님은 세월이 다하도록
밝은 미소 보내시며 우리를 보살피시네

우리의 장군님은 강철의 령장

폭넓고 기백 있게 (♩=110)

작사 최준경
작곡 리용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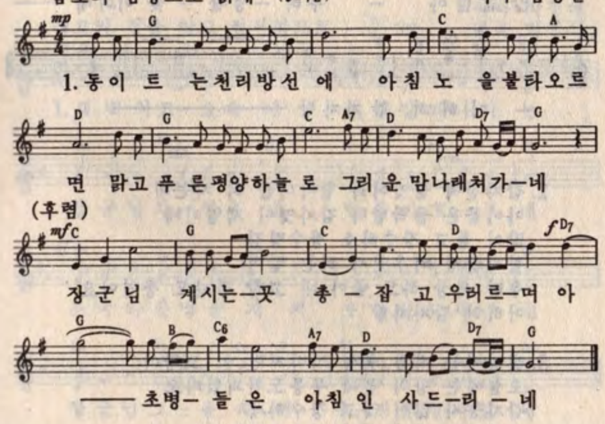
2. 그 지략 위대해 맞설자 없고
그 타격 강대해 피할자 없네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
천하를 다스려 승리를 떨치신다

3. 총대로 자주와 평화를 지켜
새 세기 앞길에 번영을 주네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
불패의 내 조국 승리를 떨치신다

천리방선 초병들은 아침인사 드리네

흠모의 감정으로 밝게 (♩=72)

작사 최준경
작곡 김광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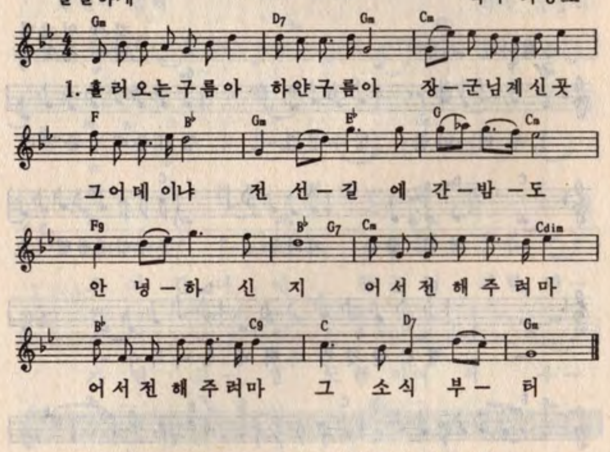
2. 삼태성이 기운 밤에도
전호가에 가슴을 대고
당중앙의 불빛 그리며
우리 한몸 방패가 됐네
(후렴)

3. 장군님의 안녕을 지켜
밤을 새고 새날 맞칠 때
내 조국은 강성의 길로
천리만리 달음쳐 가네
(후렴)

하얀 구름아

절절하게

작사 윤두근
작곡 리광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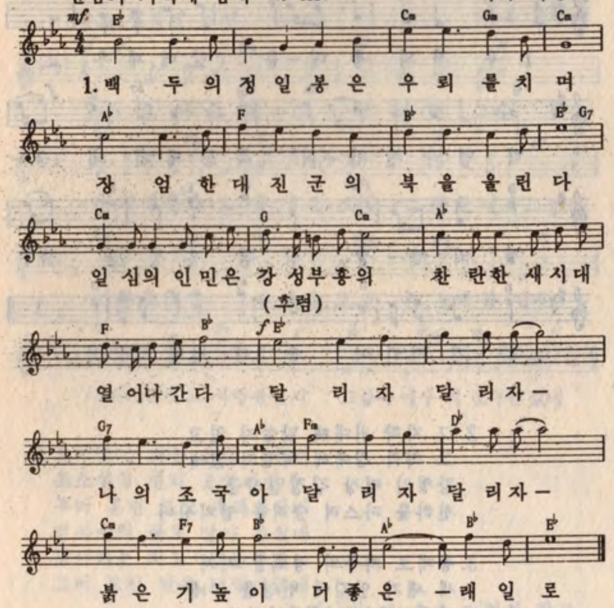
2. 흘러 오는 구름아 하얀 구름아
장군님전선길 따라 가주렴
오르시는 전호에 안개로 내려
걸음걸음 감싸며 걸음걸음 감싸며
지켜 주려마

3. 흘러 오는 구름아 하얀 구름아
장군님 없으면 우린 다 없어
전선길에 이 몸을 어서 싣고 가
그이곁에 방패로 그이곁에 방패로
세워 주려마

더 좋은 래일로

작사 윤두근
작곡 리광오

신심과 기백에 넘쳐 (♩=132)



2.광활한 그 미래를 오늘에 불러
위대한 노력으로 꽃을 피운다
장군님 태워 준 천리마 타고
락원의 행군길 펼치며 간다
(후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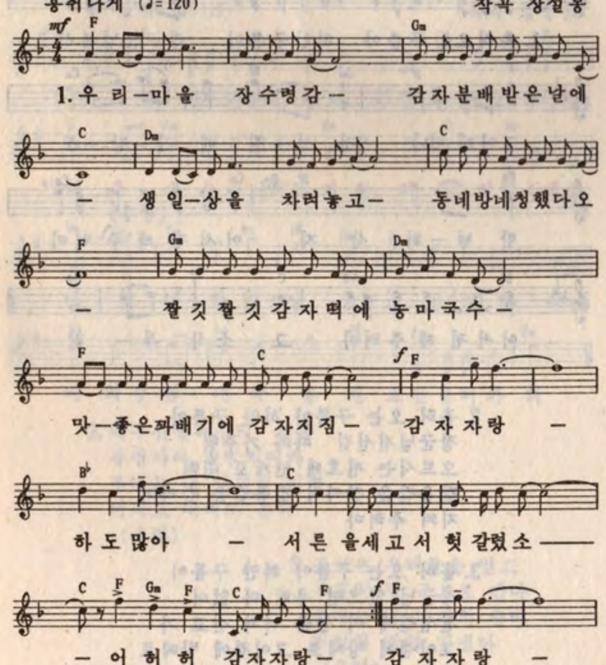
3.주체의 강성대국 꽃 핀 땅에서
김일성 우리 민족 만복 누리리
통일된 삼천리 태양조선은
김정일나라로 번영하리라
(후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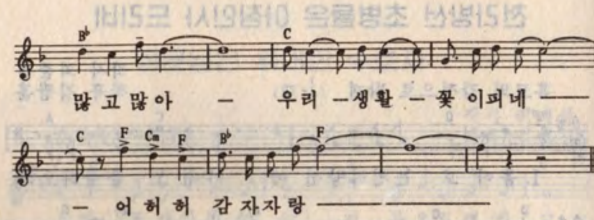
여러 예술단체 노래중에서

감자자랑

작사 임예란
작곡 장설봉

흥겨나게 (♩=120)





2.감자찰떡 꿀맛이라 할머니들 혀 차는데
아이들은 들락날락 감자엿이 제일이래
많이 들고 장수하소 장수명감
감자술잔 비우면서 하는 말이
우리 세상 하도 좋아 내 고향 감자도 풍년이요
어허허 감자자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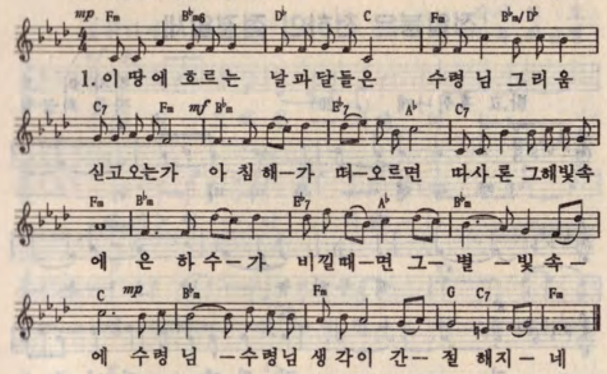
3.옛날에는 사람 못살 막바지던 이 고장이
오늘에는 당의 품에 무릉도원되였다오
감자농사 많이 짓고 장수하세
아들딸도 많이 낳아 락을 보세
좋은 세월 노래하며 장수집 명감님 춤을 추네
어허허 감자자랑

감자자랑 많고 많아 우리 생활 꽃이 피네
어허허 감자자랑

수령님생각

작사 류동호
작곡 한성희

그리움을 안고 밝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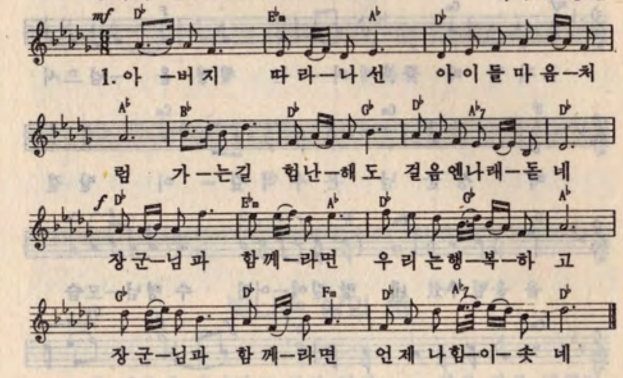
2.이 땅에 세월은 가고 또 가도
수령님사랑은 잊을수 없네
포전길의 황금이삭 끝 없는 설레임속에
구내길의 쇠물폭포 그 노을속에
수령님 수령님 생각이 더욱 뜨겁네

3.세월은 모든것 싣고 가지만
수령님생각만은 안고 온다네
태양없이 생각 못할 우리의 세월이여서
그 품 떠나 생각 못할 행복이여서
수령님 수령님 영원히 모시고 사네

장군님과 함께라면

작사 윤두근
작곡 오병선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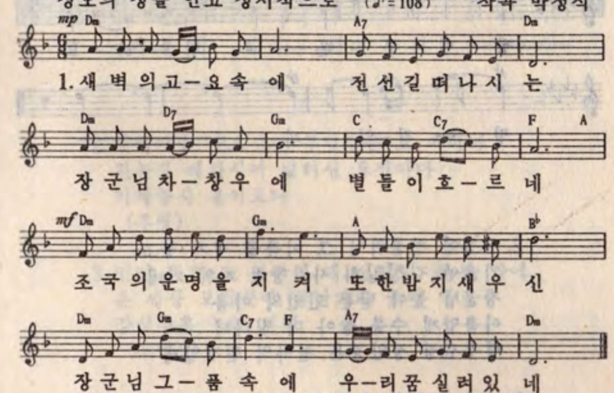
2.그 손길 잡고 가면 하늘의 별도 따고
그 자욱 따라 가면 고생도 락이 되네
장군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두렴 없고
장군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용맹하네

3.사랑과 믿음으로 이끄는 천만리길
신념과 량심으로 따르는 천만리길
장군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신심 높고
장군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승리하네

장군님 그 품속에

작사 박정애
작곡 박정식

경모의 정을 안고 정서적으로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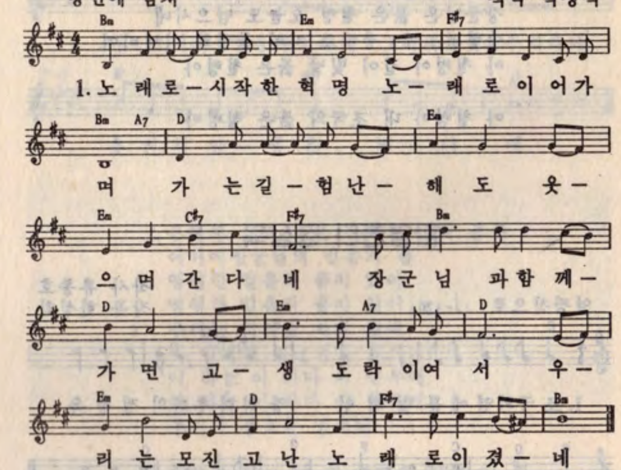
2.인민의 안녕 위해 험한 령 넘으시는
장군님 차창가에 아침이 밝아 오네
내 나라 존엄을 지켜 전선에 계시는
장군님 그 품속에 행복은 꽃 피나네

3.승리의 작전도에 지략을 펼치시며
이 땅에 밝은 미래 열어 가시네
인민을 위한 길에 날과 날 보내시는
장군님 그 품속에 우리 앞날 영원하리

우리는 노래로 이겼네

작사 김은숙
작곡 박정식

랑만에 넘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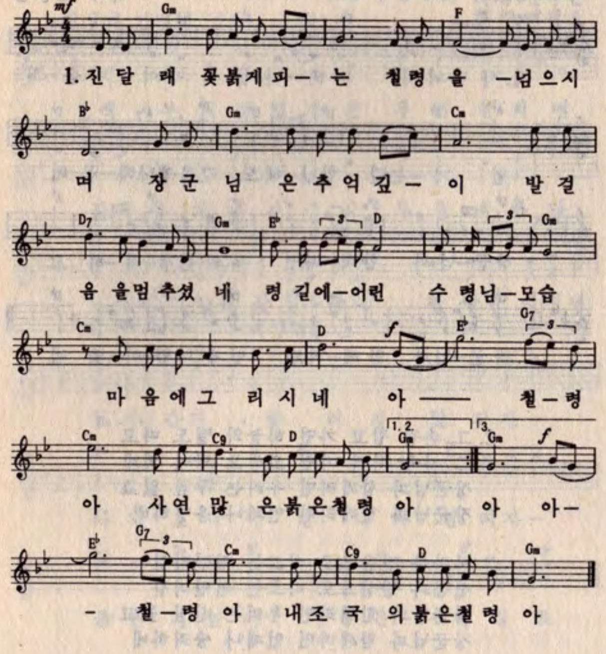


2.백두의 눈보라길도 노래의 천만리
가렬한 전화의 길도 노래의 천만리
장군님만 따라 가면 찬란한 앞날 있어
우리는 신심높이 노래와 함께 가네

3.승리를 안고 살아 노래가 있다네
미래를 내다보아 노래소리 높다네
장군님의 령도를 따라 강성대국 세워 가며
우리는 그 언제나 노래로 승리하리

붉은 철령

작사 류동호
작곡 조일룡

사색적으로 (♩=85)



2. 붉은기를 지키시려 수령님 넘으신 령
굽이굽이 그 자욱이 뜨거운 봉우리여
그날에 날린 기폭이 어려 꽃들도 붉게 폈네
아 철령아 내 조국의 붉은 철령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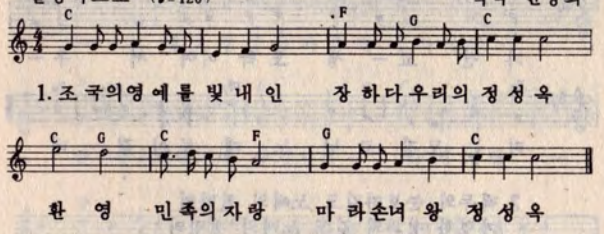
3. 사랑하는 조국 위해 혁명의 승리 위해
장군님은 붉은 철령 오늘도 넘으시네
수령님조국 총대로 지킨 불멸의 기념비여
아 철령아 길이 빛날 붉은 철령아

아 철령아 내 조국의 붉은 철령아

환영한다 정성옥

작사 류동호
작곡 한성희

열광적으로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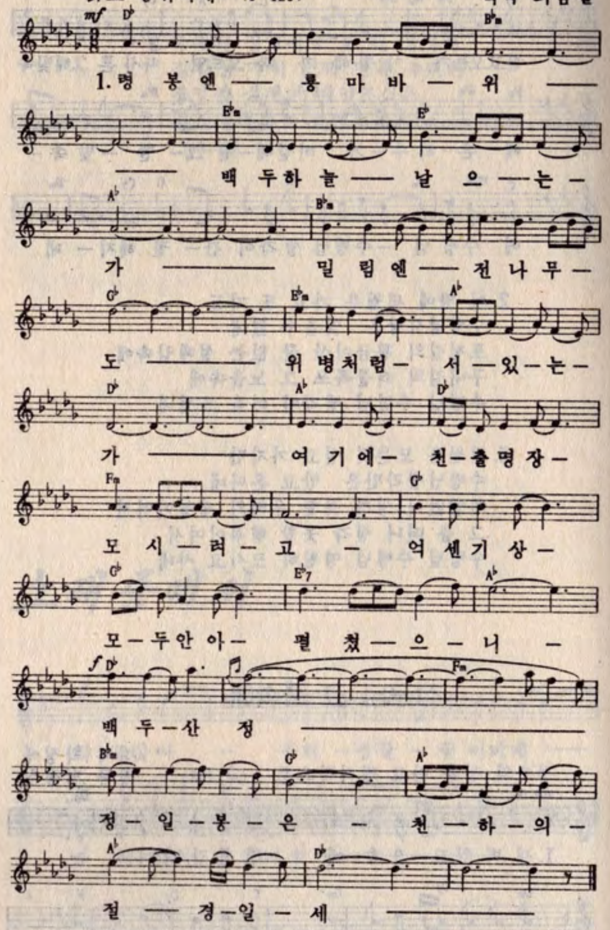


2. 장군님 그리며 달려 온
장하다 우리의 정성옥
환영 민족의 자랑
조선의 영웅 정성옥

정일봉은 천하의 절경일세

작사 리 호
작곡 최금철

밝고 흥취나게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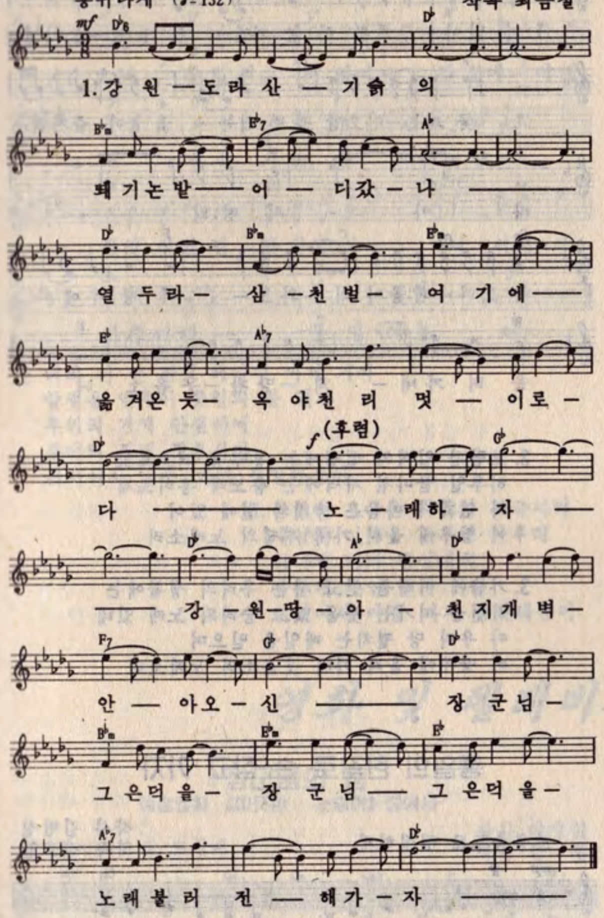
2. 산정엔 천출위인 그 이름을 새겨 놓고
기슭엔 김정일화 사시장철 피워 가네
장군님 높이 받든 인민의 마음
아름답게 수를 놓아 더 빛나니
백두산정 정일봉은 천하의 절경일세

3. 여기서 솟은 태양 온 세상을 밝혀 주고
여기서 피는 노을 온 누리를 물들이네
만민의 가슴속에 높이 솟아
새 세기의 밝은 미래 안겨 주니
백두산정 정일봉은 천하의 절경일세

노래하자 강원땅아

작사 리 호
작곡 최금철

흥취나게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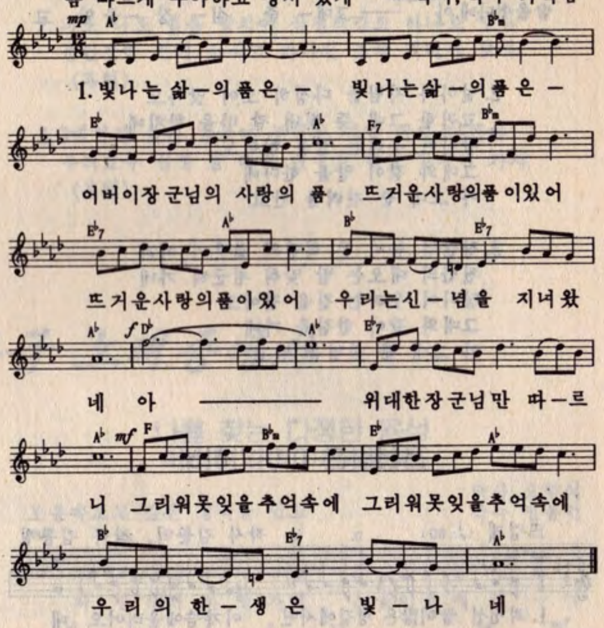
2. 새벽이슬 맞으시던 두렁길은 그 어디냐
찬눈길 헤치시며 넓히신 포전마다
기계농사 홍이로다
(후렴)

3. 인민 위한 그 사랑이 새 전설로 꽃 핀 땅에
온 세상 보란듯이 금난가리 높이 쌓고
강성부흥 누려 가리
(후렴)

빛나는 삶의 품

작사, 작곡 리학범

좀 빠르게 우아하고 정서 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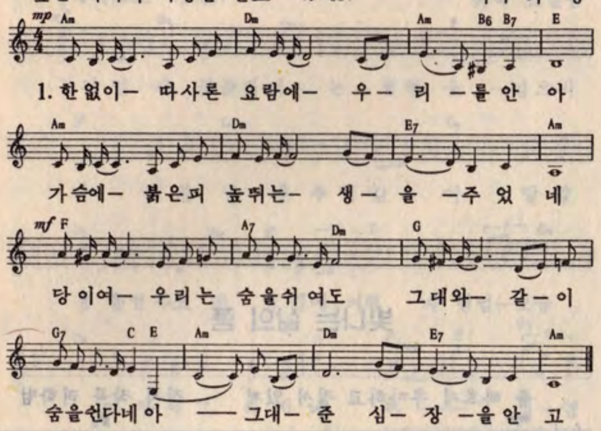
2. 은혜론 삶의 품은 은혜론 삶의 품은
어버이장군님의 믿음의 품
영원한 믿음의 품이 있어
영원한 믿음의 품이 있어
우리는 의리를 지켜 왔네
아 위대한 장군님만 받드니
이 하늘 이 바다 이 땅우에
이 하늘 이 바다 이 땅우에
우리의 충효는 넘치네

3. 혁명의 멀고 먼 길 혁명의 멀고 먼 길
가야 할 그 길은 간고해도
신념을 안겨 준 품이 있어
신념을 안겨 준 품이 있어
승리의 신심을 안고 가네
아 위대한 장군님만 따르며
한생을 그이의 기억속에
한생을 그이의 기억속에
빛나게 살리라 맹세하네

당이여 언제나 그대와 같이

깊은 사색과 격정을 안고 (♩=68)

작사 최준경
작곡 리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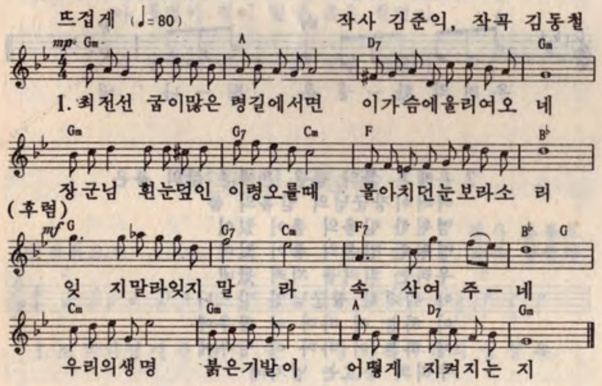


2. 날마다 사람들 다정히 모여 앉아도
고귀한 그대 뜻 빛내 갈 마음 합치네
당이여 우리는 말을 하여도
그대와 같이 말을 한다네
아 그대 준 진리를 안고

3. 장군님 높이 든 혁명의 붉은기 따라
천만의 대오는 발 맞춰 진군해 가네
당이여 우리는 길을 걸어도
그대와 같이 한길을 가네
아 그대 준 신념을 안고

전선길은 이야기하네

뜨겁게 (♩=80) 작사 김준익, 작곡 김동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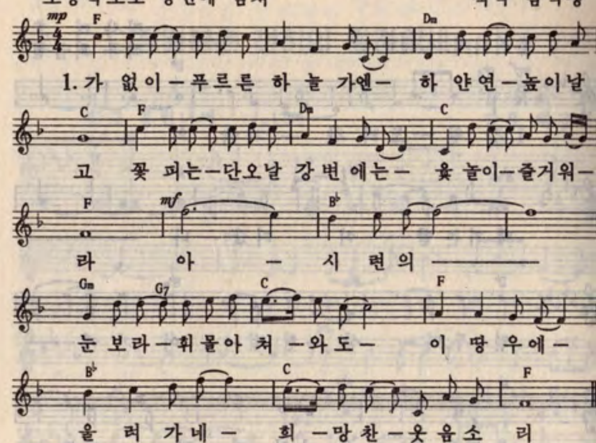
2. 섬초소 파도 세찬 기슭에 서면
이 가슴에 어리여 오네
장군님 풍랑 헤쳐 이 섬 찾을 때
울부짖던 험한 파도가
(후렴)

3. 이 강산 어디 가나 사연도 깊은
전선길이 이야기하네
장군님 바치시는 로고도 많아
조국방선 철벽이라고
(후렴)

이 땅우에 울리는 웃음소리 노래소리

보통속도로 랑만에 넘쳐

작사 김석천
작곡 림석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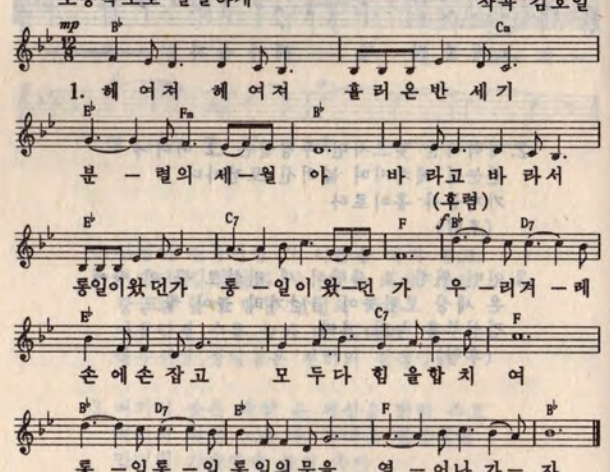
2. 보람찬 일터의 쉴참에는 롱구공 떠오르고
하루일 끝마친 저녁에는 춤노래 홍이로세
아 언제나 마음은 승리의 날에 있어
이 땅우에 울려 가네 투쟁의 노래소리

3. 가슴에 미래를 안고 사는 우리의 생활에는
시련을 이기는 웃음 있고 승리의 노래 있네
아 우리 당 펼치는 래일을 믿으며
이 땅우에 울려 가네 웃음소리 노래소리

통일의 한길로 손 잡고 가자

보통속도로 절절하게

작사 김련실
작곡 김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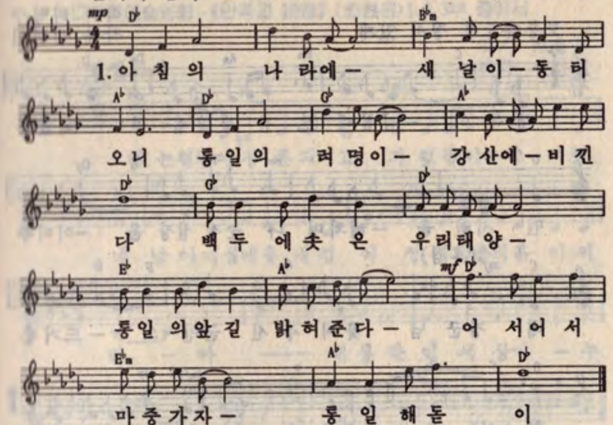


2. 이제는 이제는 갈라 져 못 살아 더 이상 못 참아
부르고 불러서 통일이 왔던가 통일이 왔던가
(후렴)

3. 겨레여 겨레여 7천만 겨레여 하나의 민족아
달리자 달리자 통일의 한길로 통일의 한길로
(후렴)

마중 가자 통일해돋이

환희에 넘쳐 (♩=128)

작사 류동호
작곡 김형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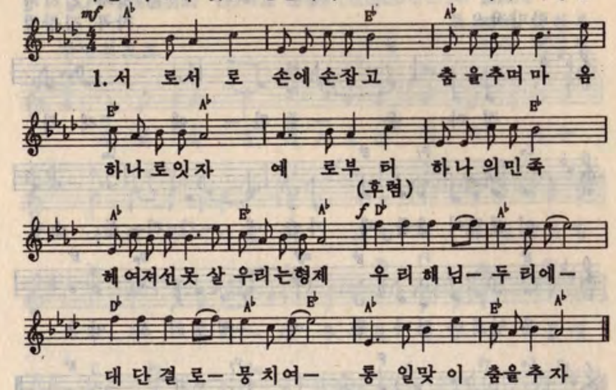
2. 너와 나 손 잡고 해맞이 어서 가자
발걸음 맞추어 통일의 문 열자
우리의 겨레 단결하여
분단의 장벽 짓부시자
어서어서 마중 가자 통일해돋이

3. 삼천리 조국은 겨레의 보금자리
태양의 민족은 한가정 이루리
하나된 나라 강성대국
세상에 존엄 떨쳐 가리
어서어서 마중 가자 통일해돋이

통일맞이 춤을 추자

약간 빠르게 밝고 친근하게 (♩=140)

작사 정성환
작곡 최정만



2. 너도 나도 힘을 합치여 삼천리강토 하나로 잇자
분단장벽 함께 부시고 하나된 조국 겨레여 찾자
(후렴)

3. 3대헌장 높이 받들어 통일의 새날 열어 나가자
우리모두 심장 불 태워 애국의 한생 빛내여 가자
(후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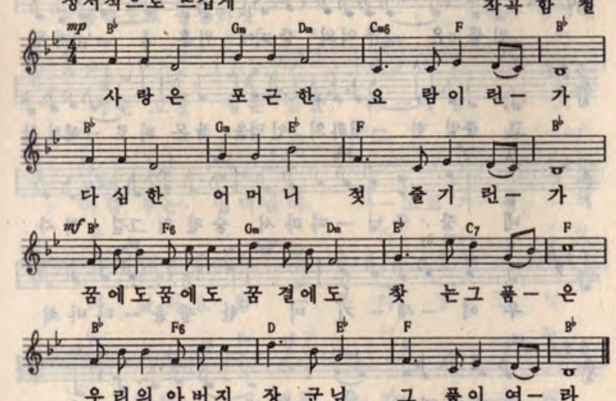
영화 및 텔레비죤극 노래중에서

장군님의 품

예술영화 《따뜻한 눈송이》 중에서

정서적으로 뜨겁게

작사 리명원
작곡 함 철



사랑은 따뜻한 봄날을 불러
찬바람 눈비를 막아 주는가
목 메여 목 메여 부르며 안긴 그 품은
우리의 아버지장군님 그 품이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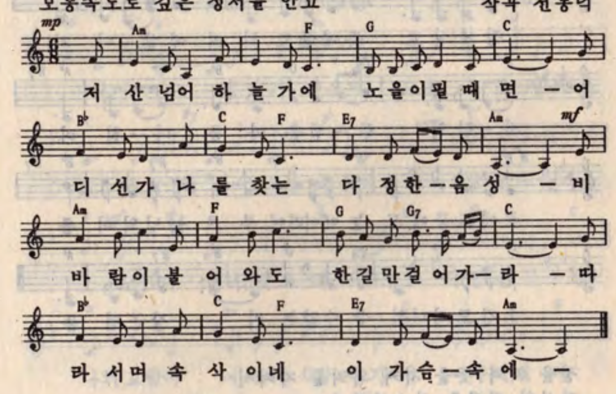
사랑은 불 타는 태양과 같아
이 땅에 영원한 생을 주는가
아득한 세월의 끝까지 따를 그 품은
우리의 아버지장군님 그 품이여라

나를 찾는 다정한 음성

예술영화 《우리 위원장》 중에서

보통속도로 깊은 정서를 안고

작사 오형식
작곡 전봉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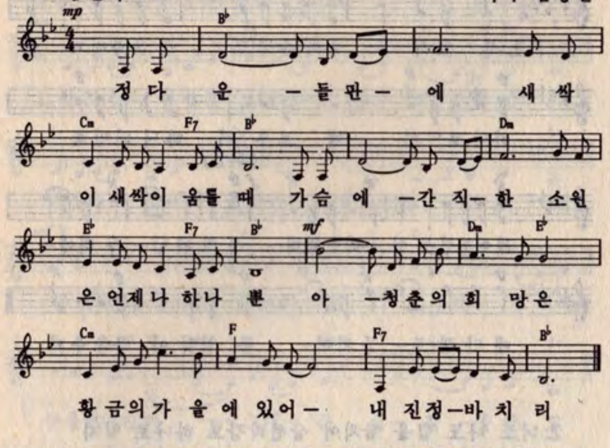
자식 많은 어머니의 그 마음이런가
그 언제나 나를 찾는 다정한 음성
험한 령이 막아서도 에돌아 가지 말아
따라 서며 속삭이네 이 가슴속에

가고 가다 다 못 가면 넋이라도 가리
이 세상의 한끝까지 그 품 따르리
한걸음을 걸어 가도 천만리 걸어 가도
한생토록 장군님만 받들고 살리

소원은 하나
예술영화 《평양에 온 두 대표》 중에서

작사 김석천
작곡 김장길

랑만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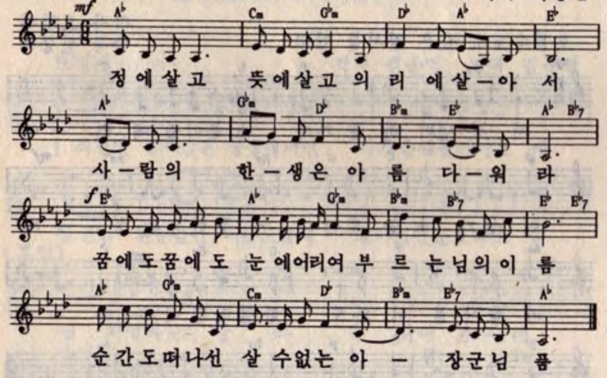


이 땅에 바치는 사랑이 사랑이 없이야
그 어이 말하랴 인생의 참된 보람을
아 깨끗한 량심을 이 땅에 정히 묻으며
내 사랑 다하리

청춘의 행복은 어디에 어디에 있는가
내 희망 꽃 피난 가을에 가을에 있다네
아 풍년든 들에서 장군님 기뻐 하실 때
내 행복 있으리

아 장군님품
예술영화 《명줄》 중에서

작사 전동우
작곡 배용삼

약간 느리고 절절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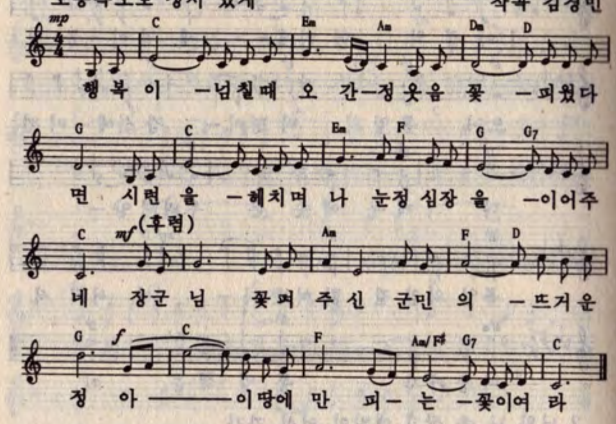
정을 지켜 뜻을 지켜 의리를 지켜서
전사의 한생은 성스러워라
못 잊어 못 잊어 피가 터지게
부르는 님의 이름
부르며 부르며 내가 안길
아 장군님품

의리에 사는 생은 영생이 따르고
의리를 버린 생은 살아도 죽음
그리워 그리워 세상끝까지
부르는 님의 이름
천년을 만년을 안겨 살리
아 장군님품

이 땅에만 피는 꽃
예술영화 《추억속에 영원하리》 중에서

작사 리명수
작곡 김경민

보통속도로 정서 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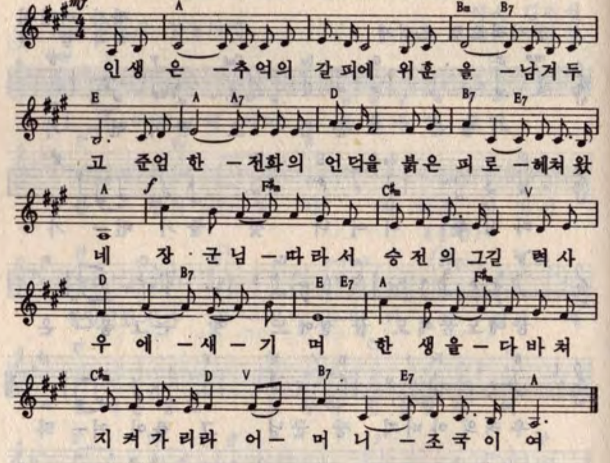
정 깊은 아버지품에선 자식들 정도 깊어
나누는 밥 한술우에도 사랑이 넘쳐 나네
(후렴)

아버지 따르는 한마음 오가는 정이 되고
뜨겁게 오가는 그 마음 아버지 기쁨되네
(후렴)

나의 한생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최현편) 1, 2, 3부 중에서

작사 리춘구
작곡 배용삼

약간 느리고 절절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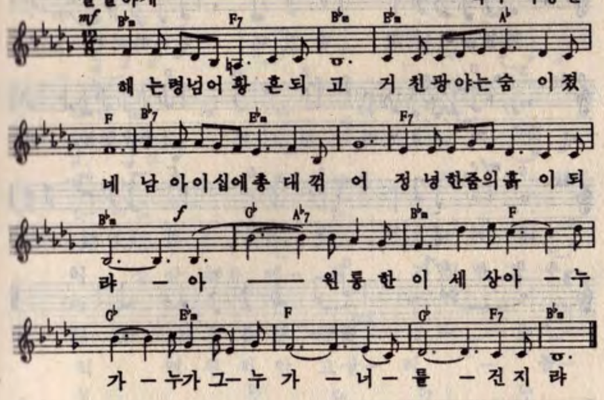


인생은 푸른 산 저 너머 피여 난 노을인가
눈보라 헤쳐 온 그 시절 피로 새긴 혼적이러
혁명의 장로에 시련을 헤친 선렬들이 없다면
번영할 조국의 영원한 행복 우리에게 없으리라

인생은 아득한 저 멀리 혈전의 언덕 넘어
생사를 함께한 그 시절 잊지 못할 추억이러
장군님 받들어 싸워 온 그 길 영광 넘친 행로우에
내 한생 안겨 살 사랑의 그 품 어버이 그 품이여

빼앗긴 내 조국아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최현편) 1, 2, 3부 중에서

작사 리춘구
작곡 서정건

절절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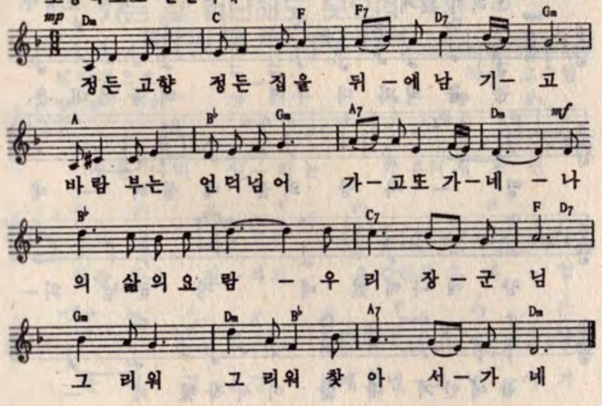
울고 울어도 풀 길 없네 찾고 찾아도 갈 길 없네
밤이 지새면 동트련만 검은 구름이 해를 덮네
아 짓밟힌 내 조국아 누가누가 그 누가 너를 위하랴

고국강산을 멀리 두고 이국산야를 헤매었네
독립성전에 총든 이 몸 망국설음에 피가 찼네
아 빼앗긴 내 조선아 누가누가 그 누가 너를 찾으랴

내 따르는 품
예술영화 《법동농민》 중에서

작사 한광춘
작곡 량영철

보통속도로 절절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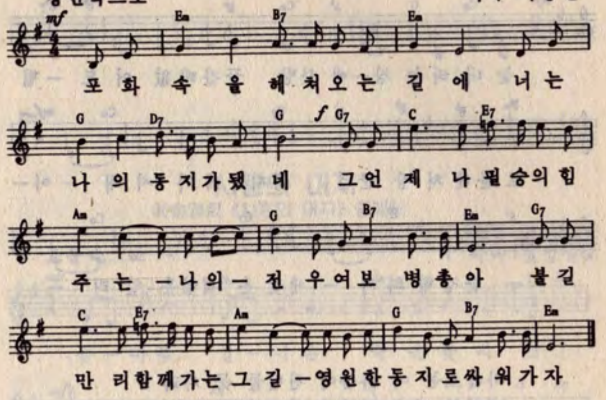


씨 뿌리던 내 땅도 그 품에 있고
가을날의 금나락도 그 품에 있었네
나의 행복의 품 우리 장군님
한마음 한마음 달려만 가네

가야 할 길 천리라고 걸음 멈추랴
시련의 길 만리라고 되돌아서랴
나의 운명의 품 우리 장군님
한생을 한생을 나는 따르리

나의 보병총아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최현편) 1, 2, 3부 중에서

작사 최현우
작곡 서정건

랑만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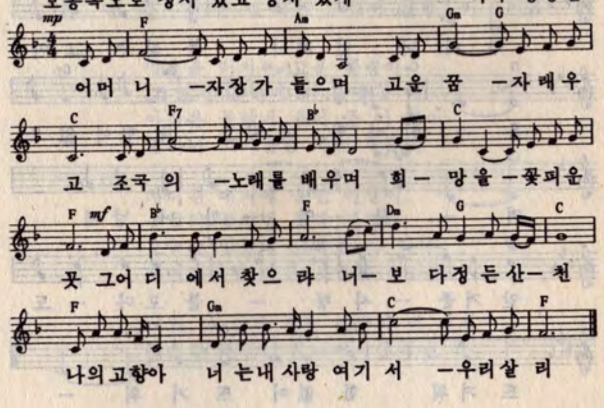
전호에서 지새이던 밤도 나와 함께 너는 있었지
이 병사의 심장을 불 태운 나의 전우여 보병총아
장군님께 피로 다진 맹세 병사의 의리로 지켜 가자

비발치는 탄우속을 헤쳐 우리 갈 길 그 얼마냐
자폭정신 그 힘을 안겨 준 나의 전우여 보병총아
위대하신 장군님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앞으로

고향아 너는 내 사랑
예술영화 《우리는 여기서 산다》 중에서

작사 김석천
작곡 성동환

보통속도로 정서 있고 궁지 있게



순결한 피와 땀 묻으며 바쳐 온 정이 있어
내 사는 이 땅의 한줌 흙 황금보다 귀중해라
네 품 떠나서 못 살아 추억 깊은 정든 산천
나의 고향아 너는 내 사랑 여기서 우리 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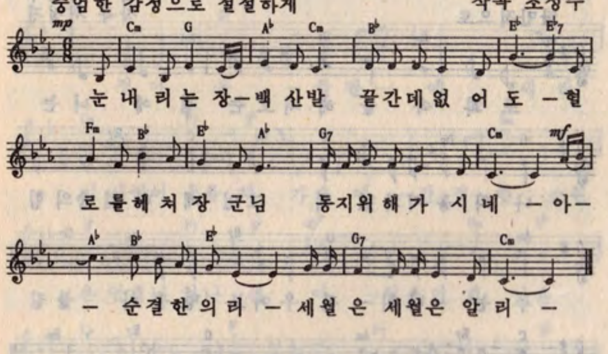
한생의 리정표 세워 준 어머니고향에서
봄날을 찾아서 떠나는 철새처럼 어이 살라
삶의 뿌리를 내리고 가꿔 가는 정든 산천
나의 고향아 너는 내 사랑 여기서 우리 살리

장군님의 동지애

예술영화 《밀림이 설레인다》 11부 중에서

작사 리춘구
작곡 조성수

숭엄한 감정으로 절절하게



바래오는 이 마음이 천리들 못 가랴
생사의 길에 끝까지 바람되여 따르리
아 장군님 따라 전사는 전사는 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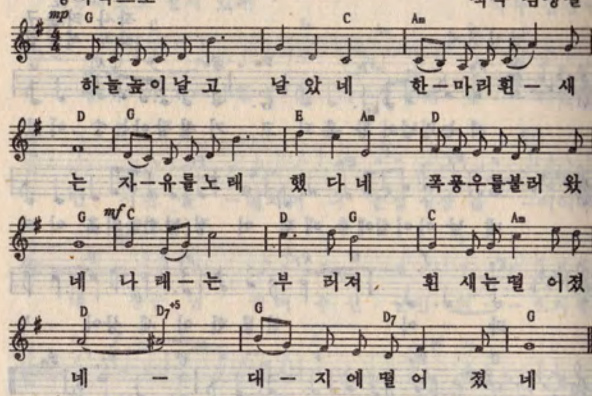
동지 위해 이 목숨이 이슬이 될적에
참된 동지를 우리는 얻을수가 있어라
아 영광의 그 길 우리는 우리는 가리

흰 새

예술영화 《밀림이 설레인다》 11부 중에서

작사 리춘구
작곡 김창걸

정서적으로



깃을 찾아 가고 싶었네 한마리 흰 새는
죽어도 가고 싶었네 님이 계신 보금자리
기어이 가리라 흰새는 맹세했네
숨지면서 맹세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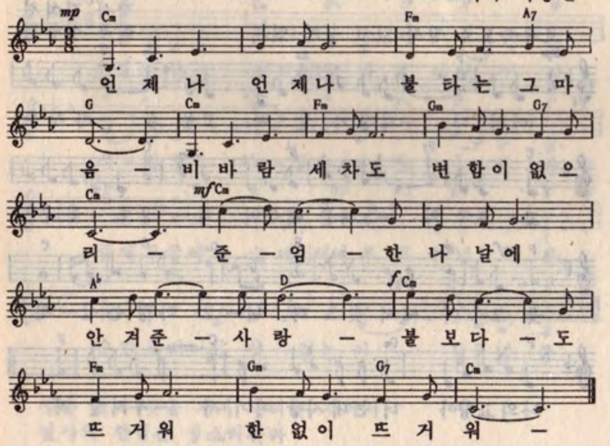
몸은 죽어 묻히였어도 한마리 흰 새는
그리운 품에 안겼네 영생의 삶 안겨 줬네
하늘땅 울리게 흰새는 노래했네
그 사랑 노래했네

한없이 귀중해

예술영화 《불씨》 중에서

작사 김희옥
작곡 박용필

보통속도로 감동적으로



영원히 영원히 받드는 마음
강산이 변해도 드팀이 없으리
준엄한 나날에 안겨 준 믿음
천금보다 귀중해 한없이 귀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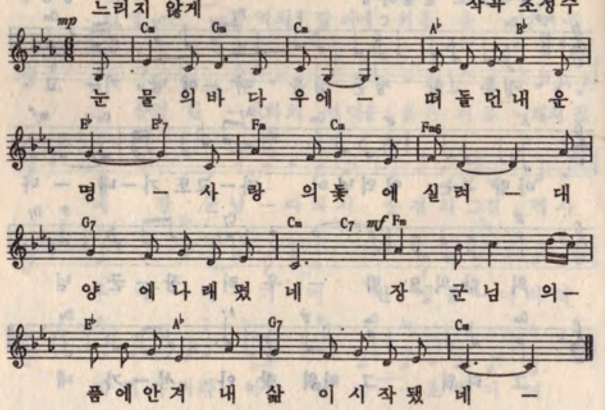
심장에 새겨 준 그 사랑 그 믿음
승리의 축포성 이 땅에 울려 오리
폭풍이 불어도 두려움없이
장군님만 따라서 끝까지 가리

장군님은 조국의 미래

예술영화 《미래를 사랑하라》 중에서

작사 주정웅
작곡 조성수

정서적으로 락관을 안고
느리지 않게



키워 준 정에 살며 그 사랑 내 알고
안겨 준 뜻에 살며 혁명을 배웠네
장군님의 품에 안겨 내 삶이 꽃 피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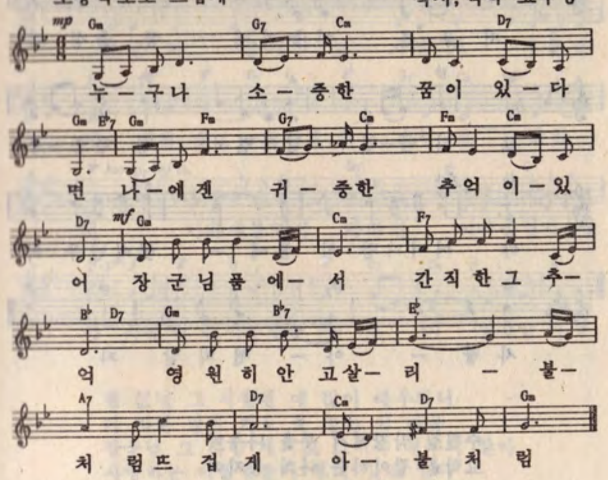
삼천리 금수강산 백두산조국에
부강한 나라 세워 빛내실 장군님
아 장군님은 조국의 미래여라

불처럼 살리

예술영화 《불 같은 사람》 중에서

보통속도로 뜨겁게

작사, 작곡 고수영



누구나 소중한 희망 있다면
나에겐 귀중한 소원이 있어
장군님병사로 영생할 그 소원
영원히 안고 살리 불처럼 뜨겁게
아 불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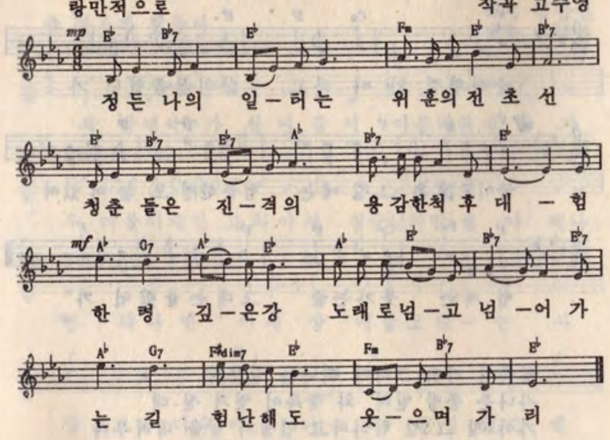
인생의 걷는 길 갈래 많아도
나에겐 가는 길 한길뿐이네
장군님 받드는 한생의 그 맹세
영원히 안고 살리 불처럼 뜨겁게
아 불처럼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예술영화 《불 같은 사람》 중에서

작사 전동우
작곡 고수영

랑만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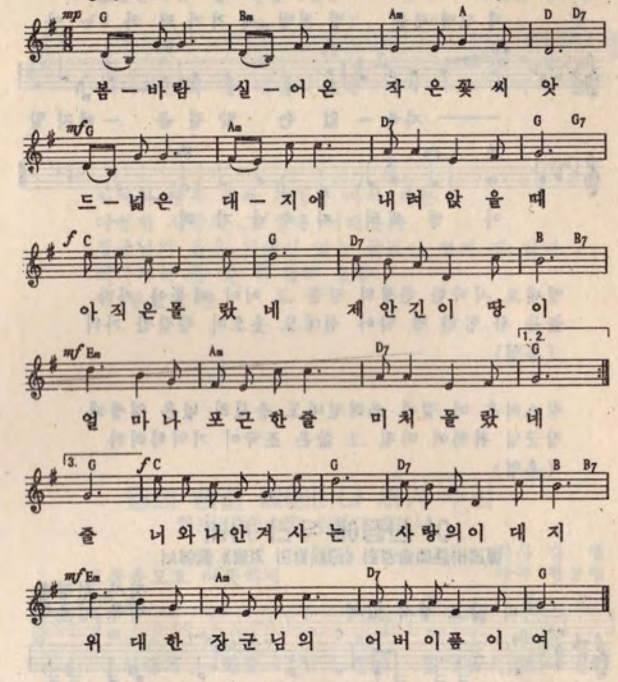
우리들의 행군은 노래로 넘치고
우리들의 투쟁은 노래로 승리해
험한 령 깊은 강 노래로 넘고 넘어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리

사랑의 대지

예술영화 《사랑의 대지》 중에서

작사 리판암
작곡 전창일

보통속도로



망울을 터치는 고운 꽃송이
그 모습 뽐내며 키 돋움할 때
아직은 몰랐네 품어 준 이 땅이
얼마나 고마운줄 다는 몰랐네

차디찬 대지에 울던 인생이
봄날의 꽃처럼 활짝 필적에
오늘은 알았네 고마운 이 땅이
어머니사랑 넘친 조국의 품인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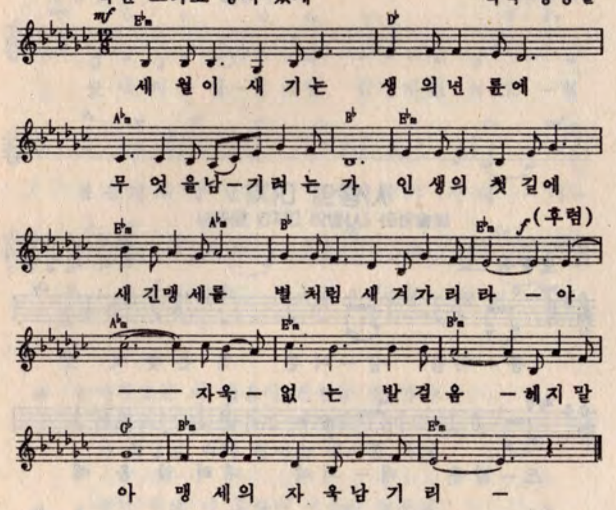
너와 나 안겨 사는 사랑의 이 대지
위대한 장군님의 어버이품이여

맹세의 길

텔레비죤실화극 《룡남산의 아들》 중에서

작사 진호용
작곡 량영철

약간 느리고 정서 있게



맹세로 시작한 한생의 길을 그 어이 에돌아 가랴
높은 산 험한 령 막아 선대도 웃으며 한길만 가리
(후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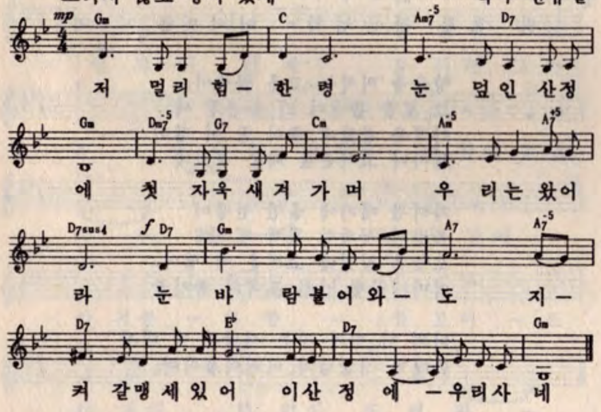
성스러운 이 길에 쓰러진대도 충신의 넋은 영생해
장군님 위하여 바친 그 삶은 조국이 기억하리라
(후렴)

이 산정에 우리 사네

텔레비죤예술영화 《금패령의 겨울》 중에서

작사 한광춘
작곡 민유철

느리지 않고 정서 있게



못 잊을 우정도 영원한 사랑도
여기서 우리 맺고 소중히 키웠네
바람찬 험한 령에 더운 땀 뿌려 가며
이 산정에 우리 사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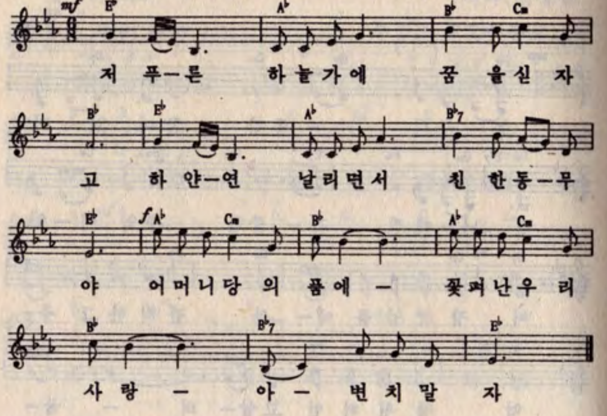
사나운 겨울을 이기여 낼수록
맞이할 새봄도 더욱더 따뜻해
내 조국 받들어 갈 한마음 변함없이
이 산정에 우리 사네

변치 말자 우리 사랑

텔레비죤실화극 《룡남산의 아들》 중에서

작사 진호용, 윤광민
작곡 량영철

보통속도로 정다웁게



수천길 막장에서 뜻을 나누며
고락을 같이하는 나의 동지여
귀중한 조국 위해 간직한 우리 사랑
아 변치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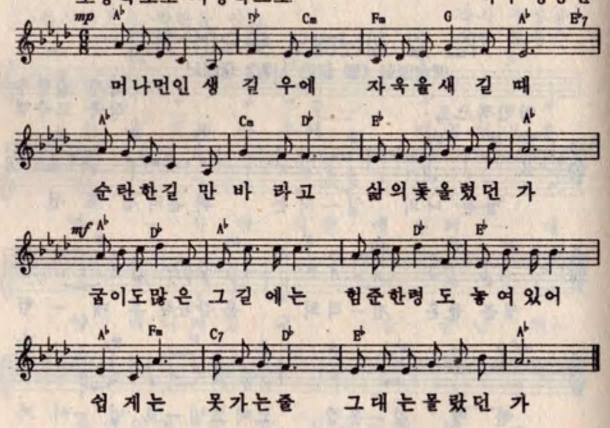
즐거운 나날에만 벗으로 살랴
어려운 나날속에 동지가 되자
언제나 당을 따라 함께 갈 우리 사랑
아 변치 말자

량심으로 가는 길

텔레비죤예술영화 《압록강 2천리》 중에서

작사 김영순
작곡 성동환

보통속도로 서정적으로



행복의 기슭 그리며 떠나온 길우에
사나운 풍랑 밀려 와 돛폭이 찢겨 질 때
가야 할 그 길 험하다고 인생의 닻을 내리우랴
신념의 항로우엔 에돌길 없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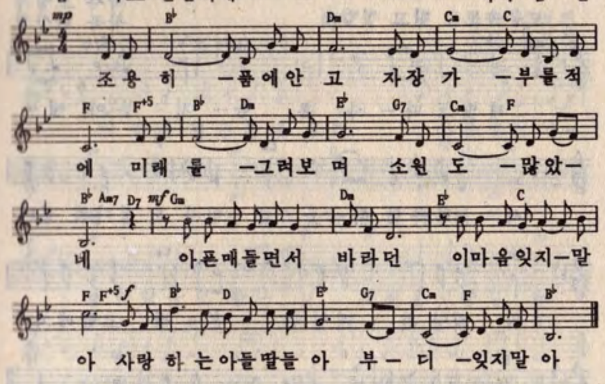
심산의 작은 샘물을 대하에 품어 준
뜨거운 믿음 고마워 스스로 따라 선 길
가슴속깊이 고이 지닌 깨끗한 량심 지켜 갈 때
그대의 참된 삶은 값높이 빛나리

부디 잊지 말아

텔레비죤실화극 《당부》 중에서

작사 오형식
작곡 함 철

좀 느리고 절절하게



철 없던 그 시절엔 애 많이 태우더니
다 자라 멀리 가도 못 놓는 이 마음
장군님 그 사랑 새기고 그이속 태우지 말아
사랑하는 아들딸들아 부디 잊지 말아

이 나라 부모들이 정답게 부르는
우리의 장군님은 너희들 아버지
장군님자식된 이 행복 잠시도 잊지 말아
사랑하는 아들딸들아 부디 잊지 말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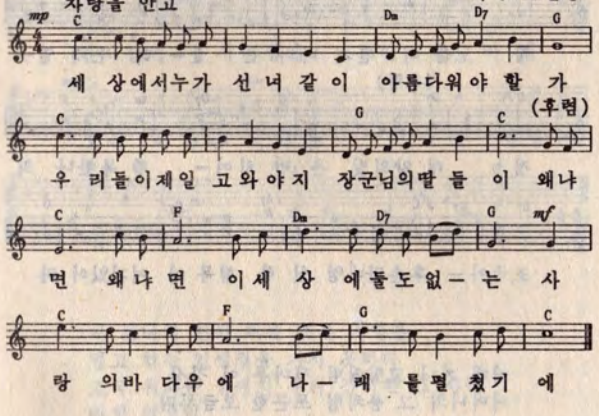
조국에 한몸 바쳐 나라의 자랑될 때
자식 둔 이 행복을 목 메여 웨치리라
언제나 바라는 이 마음 장군님 위한 뜻인줄
사랑하는 아들딸들아 부디 잊지 말아

갈매기처녀의 노래

텔레비죤극 《갈매기》 중에서

작사 김광민
작곡 조일룡

좀 빠르게 행복과
자랑을 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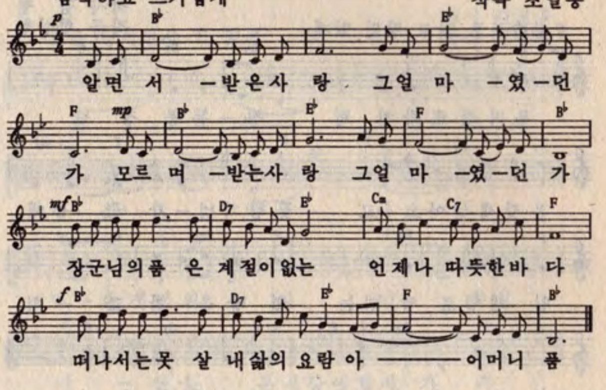
무지개와 같이 아름다운 희망은 무엇일가
너와 나와 지닌 꿈이라네 장군님의 딸들이
(후렴)

영원한 품

텔레비죤극 《갈매기》 중에서

작사 김광민
작곡 조일룡

침착하고 뜨거웁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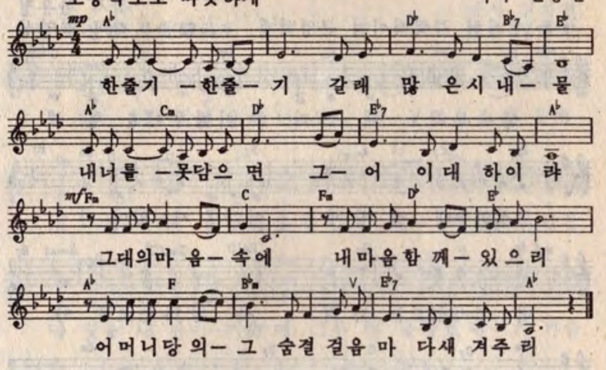
자식의 행복 위해 진정을 바쳐 가는
다심한 사랑의 그 끝은 어데일가
장군님의 품은 기슭이 없는 끝없이 펼쳐 진 바다
떠나서는 못 살 내 삶의 요람
아 영원한 품

당의 숨결 걸음마다 새겨 주리

텔레비죤련속극 《열망》 중에서

작사 김 철
작곡 한상철

보통속도로 따뜻하게



한그루 나무에도 가꿔 가는 정성없이
그 어이 푸르고 무성하는 숲이 되랴
그대의 마음속에 내 마음 함께 있으리
어머니당의 그 숨결 걸음마다 새겨 주리

창가에 비 내리는 깊은 밤에도
내 요람 지켜 주는 어머니모습이런가
우러러 바라보면 한없이 고마운 품이여
내 한생 손 잡고 따르리 은혜로운 당의 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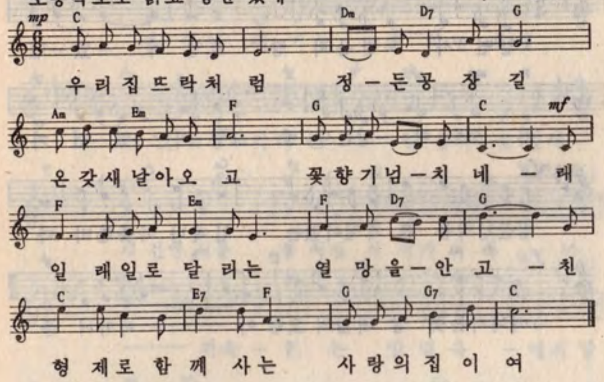
해 지는 저녁이면 노을 비낀 동구길에
날 찾아 마중 오던 어머니모습이런가
우러러 바라보면 한없이 고마운 품이여
내 한생 손 잡고 따르리 은혜로운 당의 품

사랑하는 나의 공장 정다운 집이여

텔레비죤련속극 《열망》 중에서

작사 김 철
작곡 한상철

보통속도로 밝고 랑만 있게



청춘의 사랑도 여기서 꽃 피고
희망의 푸른 꿈도 여기서 펼쳐 가네
래일 래일로 달리는 열망을 안고
친형제로 함께 사는 사랑의 집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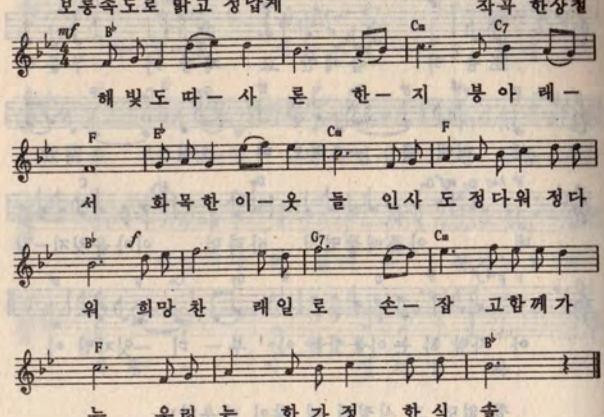
오늘에 바쳐 가는 우리의 구슬땀
래일엔 위훈으로 추억을 남기리
어머니조국에 바치는 사랑을 안고
우리모두 한몸되는 정다운 집이여

우리는 한가정 한식솔

텔레비죤련속극 《우리 7현관 사람들》 중에서

작사 오영옥
작곡 한상철

보통속도로 밝고 정답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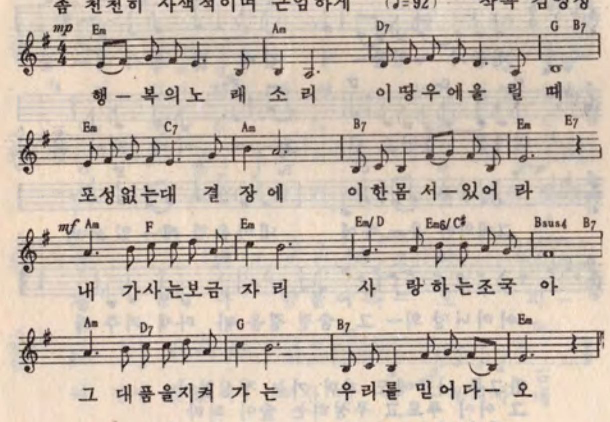
우리가 하는 일 서로 달라도
내 나라 가정의 너와 나 주인된 집안일
찬란한 래일로 발 맞춰 함께 가는
우리는 한가정 한식솔

보위자의 노래

텔레비죤예술영화 《한 보위일군의 수기》 중에서

작사 한유정
작곡 김영성

좀 천천히 사색적이며 근엄하게 (♩=92)



고요한 강변에는 웃음이 넘쳐도
수호자의 낮과 밤은 전투로 흐르네
이 세상에 오직 하나 사랑하는 조국아
그대품을 지켜 가는 우리를 믿어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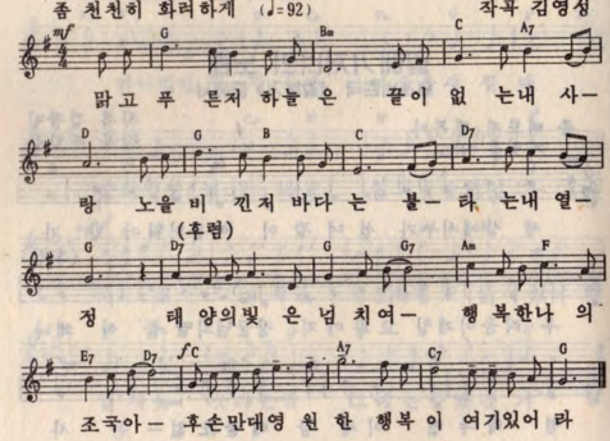
흐르는 세월속에 강산은 변해도
우리앞에 놓인 과녁 변하지 않았네
보위자가 가는 길은 그 언제나 한길뿐
장군님을 옹위하는 그 길에 있어라

내 사는 내 조국

텔레비죤예술영화 《한 보위일군의 수기》 중에서

작사 한유정
작곡 김영성

좀 천천히 화려하게 (♩=92)



어데 가나 고향처럼 정다운 이 강산
어머니의 그 품처럼 포근한 보금자리
(후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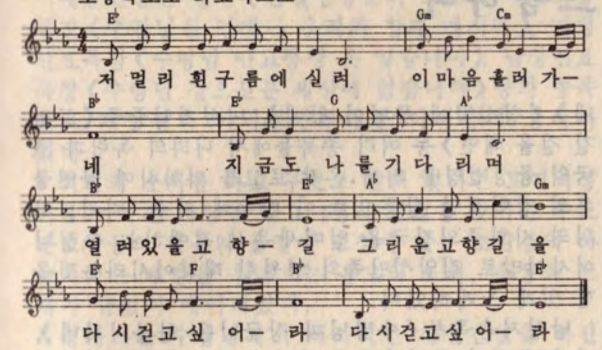
아낌 없는 나의 정을 이 땅에 묻어 가리
둘도 없는 이 심장도 그대에게 바쳐 가리
(후렴)

그리운 고향생각

텔레비죤예술영화 《민족의 사나이》 중에서

작사 김석천
작곡 성동환

보통속도로 회고적으로



종다리 지저귀는 동네 눈앞에 어려 오네
송아지동무들과 함께 뛰놀던 버들숲
머나먼 이역에서 안아 보는 내 고향
안아 보는 내 고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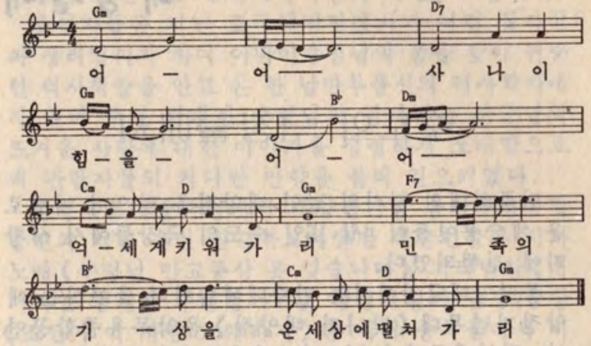
추억의 작은 문을 열고 꿈에도 찾는 고향
이 몸이 돛배라도 되면 파도 넘어 가련만
지는 해 바라보며 눈물 짓는 마음아
눈물 짓는 마음아

민족의 기상 떨쳐 가리

텔레비죤예술영화 《민족의 사나이》 중에서

작사 김원복
작곡 성동환

조금 당기면서 힘 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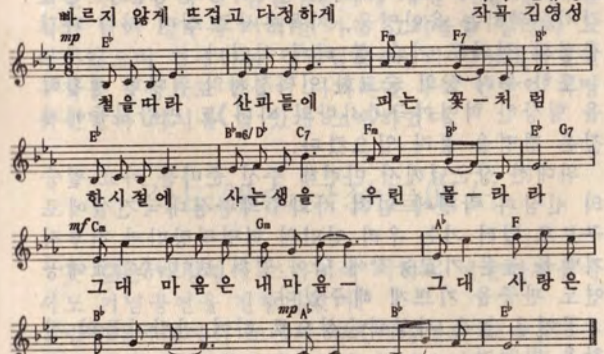
어어 사나이의지
어어 억세게 다져 가리
민족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쳐 가리

영원한 우리 사랑

텔레비죤예술영화 《한 보위일군의 수기》 중에서

작사 한유정
작곡 김영성

빠르지 않게 뜨겁고 다정하게



저 하나의 안락 위해 맺은 사랑은
멀고 험한 인생길을 가지 못하리
조국 위하는 길에서 우리 간직한 그 사랑
변함 없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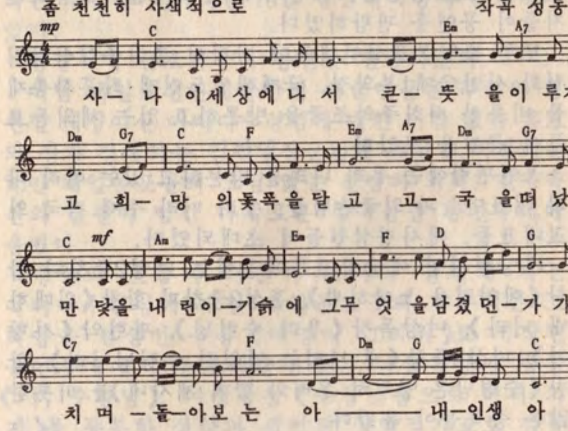
심장으로 주고 받는 참된 우리 사랑
흘러 가는 세월속에 더욱 불 타네
바람 분다고 변하랴 눈비 내린다 식으랴
동지의 사랑

타향의 하늘아래서

텔레비죤예술영화 《민족의 사나이》 중에서

작사 김석천
작곡 성동환

좀 천천히 사색적으로



이국의 거치른 땅에 피땀을 묻어 가며
눈 부신 황금도 얻고 명예도 찾았건만
넋이 없이 사는 생은 살아서도 죽은 몸인줄
어이하여 몰랐던가 아 내 인생아

조국을 어머니라고 그 누가 말했던가
타향의 하늘아래서 눈물로 새겨 온 뜻
살아서 못 가면 넋이라도 안기고 싶어
사무치게 불러 보는 아 내 조국아

기념 및 경축공연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수도의 극장들에서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태양절을 맞으며 다채로운 예술공연들이 4월 15일 수도의 극장들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동평양대극장에서는 만수대예술단이 출연하는 태양절기념무대《빛나라 태양절》음악무용종합공연이, 평양대극장에서는 피바다가극단의 혁명가극《사랑의 바다》공연이, 평양극장에서는 국립연극단의 혁명연극《어머님의 당부》공연이, 평양교예극장에서는 평양교예단의 종합교예《장군님 받들어 내 조국 빛내리》공연이, 모란봉극장에서는 국립교향악단의 태양절기념 음악회가 진행되였다.

당 및 국가 지도간부들인 김영남동지, 리종옥동지, 박성철동지, 홍성남동지, 전병호동지, 계응태동지, 한성룡동지, 김철만동지, 백학림동지, 김일철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 최영림동지, 김기남동지, 김중린동지, 김용순동지, 리하일동지, 박기서동지, 리종산동지, 김룡연동지, 조창덕동지, 김윤혁동지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김영대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류미영위원장,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내각위원회,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평양시내 근로자들, 로력혁신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또한 재일본조선인대표단 단장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서만술제1부의장, 국제태권도련맹 최홍희총재를 비롯한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공연을 보았다.

공연관람에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여러 나라 대표단들과 외국손님들, 우리 나라 주재 각국 외교대표들,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태양절기념 예술공연무대들에는 녀성2중창과 합창《태양절을 노래하세》, 혼성2중창과 합창《위대한 내 나라》, 녀성독창《우리 수령님》, 관현악《사향가》, 녀성2중창《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나라》, 합창《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를 비롯한 많은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공연들에서 심오하고 독창적인 사상리론과 걸출한 령도력, 한없이 고매한 덕성으로 인민을 한품에 안아 행복의 상상봉에 세워 주시고 민족과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가꾸어 오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 없는 흠모와 사무치는 그리움을 아름다운 선률에 담아 뜨겁게 노래하였다.

또한 출연자들은 녀성민요독창《수령님 만고풍상 못 잊습니다》, 관현악《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녀성기악중주《포전길 걸을 때면》등 여러 종목들에서 나라의 독립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해 온갖 로고를 다하시며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경애하는 수령님이시야말로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라는것을 힘 있게 노래하였다.

남성저음독창《수령님과 장군님은 한분이시네》, 녀성6중창과 합창《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남성중창《3대장군의 총》, 무용《오가는 정》, 《우리는 청년건설자》등의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21세기의 태양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려 가는 우리 인민의 무한한 행복과 긍지,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반드시 건설하고야 말 우리 인민의 철석 같은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힘 있게 보여 주었다.

광복후 위대한 수령님의 군건설사상을 높이 받드시고 우리 인민군대를 수령님의 군대, 당의 군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 바쳐 지켜 가도록 공군건설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주제로 한 혁명연극《어머님의 당부》는 관람자들에게 우리 조국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육탄영웅, 자폭용사로 살며 싸워 나갈 충성의 결의로 가슴 불 타게 하였다.

또한 우리 당의 숭고한 인덕정치의 위대한 생활력을 형상한 혁명가극《사랑의 바다》도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불러 일으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 주신 준마를 타고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로 구보로 달려 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랑만과 전투적기백을 높은 기교동작에 담아 펼쳐 보인 종합교예공연도 관중을 기쁘게 해주었다.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수도의 공원, 유원지들에서

뜻 깊은 태양절을 기념하여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이 수도의 공원, 유원지들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진행하였다.

공연장소들마다는 민족최대의 경사로운 명절을 즐기기 위해 찾아 온 평양시내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로 흥성거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사적이 깃들어 있는 모란봉에서는 만수대예술단 예술인들의 공연무대가 펼쳐 졌다.

예술인들은 합창《**김일성**장군의 노래》, 녀성고음독창《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네》, 녀성민요독창《수령님 만고풍상 못 잊습니다》, 남성민요독창《수령님 같으신분 세상에 없습니다》등의 종목들로 태양절의 야외공연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혁명의 준마를 타고 구보로 달려 빛나는 로력적성과를 이룩한 자랑을 안고 4월의 명절을 맞이한 수도근로자들의 행복의 물결이 그칠새 없는 모란봉의 하늘가에는 태양을 우러르는 흠모의 노래, 충성의 노래가 끝없이 메아리쳤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개선연설을 하신 뜻 깊은 개선문광장에서는 피바다가극단 예술인들의 공연무대가 펼쳐 졌다.

출연자들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김일성**장군의 노래》합창과 녀성중음독창《위대한 그 영상 영원하리》, 녀성합창《수령님 한품속에 우리는 사네》, 혼성합창《태양절의 노래》를 비롯한 여러 종목들에서 인류의 영원한 봄명절을 뜨겁게 노래하였다.

만경대유희장에서는 평양교예단 배우들의 교예공연이 진행되였다.

《용감한 해병들》, 《힘재주》, 요술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로 엮어 진 이들의 공연은 유서 깊은 혁명의 요람 만경대에서 명절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는 근로자들에게 혁명적랑만과 전투적기백을 안겨 주었다.

이날 여러 예술단체 예술인들은 공연을 통하여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 없는 감사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그리움을 절절히 노래하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힘 있게 노래하였다.

각도예술극장들에서

뜻 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지방의 예술단체들에서도 기념공연을 진행하였다.

함흥대극장에서 노래와 춤《태양절의 노래》로 공연의 막을 올린 함경남도예술단 예술인들은 녀성중창《인민은 노래하네 4월의 명절》, 합창《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가무《장군님 모신 자랑 노래 부르자》, 3인재담《그날이 보인다》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그들은 일찌기 만경대의 추녀 낮은 초가집에서 만민의 위대한 태양으로 솟아 오르시여 조국과 민족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 올리시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존엄 높은 인민으로 되게 하여 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 없는 흠모와 경모의 정에 넘쳐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려 가는 태양민족의 무한한 행복과 긍지에 대하여 감명 깊게 노래하였다.

평안북도예술극장무대에는 평안북도예술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단막극《사랑의 태양》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어린 딸자식과 생리별까지 하며 어버이수령님의 품을 찾아 귀중한 력사책들을 안고 온 한 남반부출신의 력사학자에게 돌려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절절하게 노래함으로써 관람자들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키였다.

함경북도예술극장에서 태양절기념 음악무용종합공연의 막을 올린 함경북도예술단 예술인들은 시와 노래《수령님 만고풍상 못 잊습니다》, 기타병창《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나라》, 남성독창과 남성4중창《조선아 이 자랑 노래하자》등 여러 종목들에서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오시며 우리 인민을 행복의 상상봉에 올려 세워 주신 어버이수령님은 꽃 피는 4월과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것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강계, 원산, 개성을 비롯한 지방의 여러 극장과 문화회관, 공원, 유원지들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뜻 깊게 기념하는 예술인들의 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70만이 드리는 태양찬가》 재일조선인예술단의 공연진행

재일조선인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70만이 드리는 태양찬가》가 4월 19일 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이날 재일조선인예술단의 예술인들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 없는 흠모의 정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충성을 다하려는 70만 재일동포들의 드팀 없는 신념과 의지, 만수축원의 념원이 담긴 다채로운 종목들을 공연무대에 올렸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더욱 간절해 지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재일동포들의 사무치는 그리움을 형상한 무용《태양이 그리워》로 시작된 공연무대에서 동포예술인들은 남성독창과 방창《아, 수령님》, 녀성중창《수령님품으로 어서 가자》를 풍부한 성량과 세련된 성악적기교로 감동깊게 형상하였다.

출연자들은 또한 녀성독창《**김정일**세기를 해빛처럼 빛내가리라》, 무용《가고파》, 혼성 2중창《아버지의 심정》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이야말로 70만 재일동포들이 안겨 살 자애로운 품이며 21세기를 **김정일**세기로 빛내가려는 재일동포들의 뜨거운 마음과 애국의 대, 민족의 대를 굿굿이 이어 나가는 이역땅 새 세대 동포청년들의 지향과 심정을 생동

한 예술적형상으로 펼쳐 보였다.

공연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 따라 주체조국의 기상을 떨쳐 갈 우리 민족의 굳센 의지와 장군님을 더잘 모시고 그이께 충성 다하려는 70만 재일동포들의 한마음을 담은 무용《애국준마 타고 달리자》, 합창과 무용《더잘 모시리》로 막을 내렸다.

공연은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 따라 조국땅우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 조국인민들과 70만 재일동포들의 충성과 애국의 열의가 뜨겁게 차넘치는 속에서 진행되였다.

어버이수령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회고의 밤《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5돐 회고의 밤《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가 7월 8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당 및 국가 지도간부들인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 최영림동지, 김기남동지, 김중린동지와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장내에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뜨겁게 넘쳐 흐르는 속에 시《수령님은 영원히 인민의 마음속에》가 랑송되였다.

출연자들은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서여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 올리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무대배경에 태양과도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셔 지자 참가자들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우리 인민모두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 따뜻이 손 잡아 이끌어 주신 자애로운 어버이, 민족의 태양을 우러러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며 눈굽을 적시였다.

이어 펼쳐 진《충성의 노래》,《우리 수령님》,《세상에 부럼 없어라》등의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장백의 험한 산발을 헤치시며 빼앗겼던 이 땅우에 광복의 새봄을 안아 오시고 우리 나라를 온 세계가 우러러 보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으로, 우리 인민을 이 세상 가장 긍지 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을 노래하였다. 잊지 못할 추억을 불러 일으키는《새봄의 노래》,《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등의 종목들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 따라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사회주의락원을 보란듯이 일떠세우던 투쟁과 위훈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장내에는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경모의 정이 세차게 굽이치고 수령님을 그리는 마음이 더욱 뜨겁게 차넘치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봄날에 어버이수령님께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 드렸던 녀성기악중주조 예술인들이 수령님을 그리는 열렬한 흠모의 마음을 안고 연주하는 기악중주《포전길 걸을 때면》에 이어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모시고 받들어 갈 충성의 마음을 담은 여러 종목들이 무대에 올랐다.

무대배경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끝없이 칭송하는 만민의 념원을 담아 몸소 지으신 불멸의 송시가 구절구절 새겨 졌다.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등의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사상도 령도도 풍모도 우리 수령님 그대로이신 천하제일명장 **김정일**장군님을 굳게 믿고 따르며 그이를 한목숨 바쳐 결사옹위할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힘 있게 과시하였다.

회고의 밤《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는 어버이수령님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우리 인민과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며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조국은 **김정일**장군님 계시여 영원한 태양의 나라로 누리에 빛을 뿌릴것이라는 확신을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 주었다.

텔레비죤무대《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텔레비죤무대《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가 7월 5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장소에는《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라고 쓴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6,000석극장에는 하늘땅도 빛을 잃고 산천초목도 목 놓아 울던 5년전 7월의 그 비통한 날로부터 5년에 이르는 1,820여일의 매일, 매 시각 어느 한 순간도 잊은적 없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욱더 사무쳐만 가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과 뜨거운 경모의 정이 굽이치고 있었다.

당 및 국가 지도간부들, 당, 정권기관, 무력기관, 근로단체, 내각위원회,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항일혁명투사들과 혁명렬사유가족들, 접견자, 연고자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령들과 군인들, 영웅들, 공로자들, 시내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합창 영생불멸의 혁명송가《**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대의 대형영사막에 태양과 같이 환히 웃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셔 지자 참가자들은 크나큰 격정에 넘쳐 우렁찬 박수갈채를 터쳐 올렸다.

먼저 무대에 나선 내각부총리 곽범기동지가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이 빛나게 실현된 지난 5년을 통하여 우리 인민이 얼마나 위대한 어버이를 수령으로 모시고 살아 왔으며 또 얼마나 위대한 령도자를 혁명의 최고수위에 모시였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였다고 하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회고하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인 황순희, 김옥순은《**반일전가**》와 더불어 잊지 못할 천교령에서 있었던 사실들을 가슴 뜨겁게 이야기한후 혁명의 3세, 4세들과 함께 준엄한 그 나날에 높이 울려 퍼졌던 노래《**반일전가**》를 합창하였다.

이어 중앙검찰소 소장 최영림동지와 청산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고명희, 평양청년려객렬차승무대 초급당부비서 정인순, 광포오리공장 지배인 남용활, 서성구역 상신동 김석창, 온천군 룡월리 김례식 등 무대에 나선 출연자들은 새 사회건설의 첫날부터 위대한 생애를 마치신 그날까지 무려 8,000여회에 걸쳐 1만 8,000여개의 단위를 현지지도하시였으며 장장 55만여km에 달하는 로정을 걸으시여 이 땅우에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워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령도와 사랑의 이야기들을 절절히 전하였다.

출연자들과 함께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속에 시대의 영웅으로, 일군으로, 과학자로 자라난 접견자, 연고자들이 뜨겁게 부르는 노래《수령님 한품속에 우리는 사네》가 울려 퍼지는속에 대형영사막에는 조국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인민에 대한 끝 없는 사랑을 지니시고 공장과 농어촌, 분계연선과 두메산골의 마을 등 인민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찾으신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로정들이 펼쳐 졌다.

이어 무대에 나선 전쟁로병들인 조선인민군 장령 리활, 강덕수, 녀성장령들인 태선희, 김학실, 권영교 그리고 단발머리처녀비행사로부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 군관 신금연 등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이 혁명무력건설에 쌓아 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대형영사막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군전사들을 찾으시는 력사적인 화폭들이 련이어 새겨 지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대를 가지고 혁명도 시작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완성도 이룩하려고 하시였다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뜻 깊은 명제가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하여 모셔 졌다.

대를 이어 혁명의 총을 억세게 틀어 쥐고 총대로 시작한 주체혁명위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 나가고 있는 혁명가유자녀들이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과 함께《어버이품이여》의 노래를 부르자 참가자들은 위대한 어버이의 숭고한 의리와 사랑으로 빛나는 력사의 천만갈피를 경건한 마음으로 추억하였다.

대형영사막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오래전에 곁을 떠난 한 남조선혁명가의 유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화폭이 펼쳐 졌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정당성을 확증하시기 위해 평양창전인민학교도 찾으시였고 어린이들과 함께 있는것이 제일 기쁘시여 원아들과 함께 씨름도 하시고 설맞이공연에 참가한 학생소년들과 춤도 추신데 대한 나날들을 추억하는 김형직사범대학 학장 홍일천을 비롯한 출연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은 온 나라 어린이들의 영원한 해님이라고 한결같이 강조하였다.

무대에 나온 조국통일연구원 원장 리종혁,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오형진, 외무성 부상 리인규는 우리 인민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 하시면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불철주야의 로고를 거듭하시며 조국통일과 관련된 문건에《**김일성 1994. 7. 7**》이라는 친필을 남기시였으며 재일동포들에게 육친적사랑과 배려를 베풀어 주시고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을 력사는 영원히 잊지 못할것이라고 격조높이 말하였다.

출연자들은 지난 5년간의 력사와 더불어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은 위대한 한분이심을 절감한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는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 **김정일**동지를 잘 받들라고 간곡히 당부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의 뜻이 새겨 져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서사시《불멸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의 일부가 랑송되였다.

무대에 나선 조선인민군 장령 방관복,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리일환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군대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아 해제끼는 강성대국건설의 주력군으로 더욱 억세게 준비하며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선봉대, 돌격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별동대로서의 영예와 자랑을 남김없이 떨쳐 갈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텔레비죤무대는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합창《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로 끝났다.

경사로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2. 16기념무대《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우에 수 놓아 진 위대한 령도》진행

2. 16기념무대《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우에 수 놓아 진 위대한 령도》가 2월 12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당 및 국가 지도간부들인 박성철동지, 김일철동지, 백학림동지, 전병호동지, 양형섭동지, 연형묵동지, 김용순동지, 리종산동지, 김룡연동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김영대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류미영위원장, 당, 정권기관, 내각위원회,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령들과 군인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기념무대에 참가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기념무대는 합창《축원의 꽃보라》로 시작되였다.

기념무대에는 력사의 온갖 풍파를 맞받아 나아가는 고난과 시련의 행군길의 진두에 서시여 부강조국건설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 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자기들의 고장과 일터, 조국방선에서 만나뵙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는 무상의 영광과 행복을 지닌 각지 일군들과 인민군장병들, 로동자, 농민, 과학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근로자들이 출연하였다.

먼저 무대에 나온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연형묵동지는 모진 고난과 애로가 겹쌓인 력사의 언덕길에서 창조된 강계정신, 자강도사람들의 일본새를 온 나라가 따라 배우도록 하시고 강행군의 돌파구를 열어 놓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하여 말하였다.

강계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오정심,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 지배인 방철순, 희천려관 지배인 안금순도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나날에 직접 목격한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을 전하였다.

북방의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시고 쉬임 없는 현지지도를 이어 가시는 길에 새해농사차비에 쓸 거름을 가득 싣고 지고 가는 인민들의 긴 행렬을 보시고 이런 인민과는 하늘땅 끝까지라도 함께 갈수 있다고 하시며 그들의 미덥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오래오래 보고 싶으시여 15분이면 가닿을수 있는 길을 우리 장군님께서는 1시간나마 승용차로 천천히 가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러면서 령도자의 마음속에 인민이 있고 인민은 령도자를 받들고 따르는 이런 나라, 이런 인민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한결같이 격정을 터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 시기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수많은 공작기계를 생산했던 희천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공작기계 1만대를 생산할 때보다 더 어렵겠지만 구보로 달려 대고조의 불길을 계속 지펴 나가도록 해주신 이야기, 어려운 고난의 시기 로동계급을 도와 준것은 기특한 소행이라고 하시며 앓지 말고 인민을 위하여 봉사를 잘해 달라고, 후에 다시 오겠다는 사랑의 약속까지 남기고 가신 이야기도 참가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 주었다.

무대에 나온 과학원 원장 리광호와 과학자들은 지난 1월 11일 오매에도 그립던 어버이장군님께서 소문도 없이 자기들의 과학연구기지에 찾아 오셨던 영광의 그날에 있은 이야기를 전하였다.

천만대사를 돌보시면서도 누구보다 최첨단과학기술에 정통하시고 온 나라에 과학중시정치를 펼쳐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대한 령도자로, 스승으로 모시였기에 우리 과학자들은 100%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인공지구위성을 단번에 쏴올렸고 인류사상 처음으로 자기 수령의 노래로 우주를 정복한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고 그들은 소리높이 자랑하였다.

장내에 강계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여 갈 군중들의 결사의 각오가 세차게 소용돌이치고 있는 속에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이 무대에 나섰다.

주체84(1995)년 새해를 맞이한 설날아침 금수산기념궁전을 나서시여 다박솔초소를 찾으신 때로부터 4년동안 무려 11만 5,700여리의 력사적인 장정을 이어 오시며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조국을 굳건히 수호해 주시고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그들은 조국의 높고 험한 산발들을 오르내리시고 파도 세찬 바다길을 헤치시며 최전연초소와 섬초소에 이르는 무려 330여개의 인민군부대, 구분대들을 찾으시여 우리 인민군대를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생명으로 하는 리수복형의 육탄영웅, 길영조형의 자폭용사로 튼튼히 준비된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무적필승의 전투대오로 키워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불면불휴의 현지시찰의 나날들에 대하여 감회깊이 말하였다.

3년전 이른봄 어느날 야전용승용차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진눈까비가 날리는 미끄러운 진창길을 달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집무실에서 한밤을 지새우신 그길로 해발 1,000m나 되는 고지를 넘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장마길을 헤치기도 하시며 우리의 장군님께서 한해에도 3차례나 자기 부

대를 찾아 주신데 대하여 조선인민군 장령 리종무는 뜨거움에 젖어 회고하였다.

출연자들은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을 위해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고와 강행군의 어려운 시기에 더욱 뜨겁게 맺어 진 어버이장군님과 인민들사이의 혈연적뉴대에 대한 감동 깊은 이야기들도 전하였다.

대홍단군종합농장 지배인 박근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삼천리벌을 찾으시여 감자농사혁명의 새 력사를 펼쳐 주시고 강성대국건설의 지름길을 마련하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지금 온 나라 청년들이 푸른 꿈을 안고 대홍단으로 끊임없이 달려 오고 있다고 자랑에 넘쳐 말하였다.

나서 자란 수도를 멀리 떠나 대홍단으로 탄원해 가는 20명의 평양처녀들이 무대에 나와 참가자들의 열렬한 축복과 환송을 받았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직장장 안농식, 만포시 고산진혁명사적관 강사 김철순 등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나라일에 그토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일터에 친히 찾아 오시여 혁신의 봉화를 지펴 주시고 온 나라의 본보기로 내세워 주시였을뿐아니라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앞장에 서도록 고무격려해 주셨다고 말하였다.

무대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 집들이한 평범한 농장원가정에 들려 주시고 전기로 밥을 해먹고 온돌을 덥혀야 전기화라고 말할수 있다시며 일군들에게 꼭 전기밥가마를 놓아 주라고 절절한 당부를 남기신 경성군 상온포협동농장 김성보부부도 소개되였다.

출연자들은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온 나라 대가정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우리모두는 그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사는 장군님식솔들이라고 격조높이 웨치면서 노래《장군님 찬눈길 걷지 마시라》를 합창하였다.

기념무대는 혁명적군인정신과 혁명적랑만이 차 넘치는 예술작품들을 창조하여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 적극 아바지한 작가, 예술인들이 출연하여 더욱 이채를 띠였다.

조선인민군 4.25영화문학창작사 작가 박호일, 조선인민군협주단 배우 명진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경희극《편지》와 재담《부탁》등 화술작품들을 시대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게 훌륭히 완성한데 대하여 이야기하였으며 10여년전 설맞이공연무대에서 아버지대원수님을 모시고 노래를 불렀던 조선인민군군부대 예술선전대 대원인 계순영은 전선시찰의 길에 오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또다시 노래를 불러 드린 크나큰 영광을 안고 학생소년들과 함께 노래《제일 좋은 내 나라》를 불렀다.

전기석탄공업상 신태록, 농업상 리하섭,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리일환, 조선인민군 군관 리종만이 무대에 나섰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따라 가까운 앞날에 대규모수력발전소와 중소형발전소들을 더많이 건설하고 감자농사를 비롯한 농업생산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며 청년들이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 등 사회주의건설장들에서 돌격대의 영예를 떨치며 전군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성새, 방패로 억세게 준비해 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은정 깊은 사랑을 받으며 혁명의 준엄한 길을 승리적으로 헤쳐 오면서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이 얼마나 위대한 령도자, 자애로운 어버이를 모시고 사는가를 가슴뿌듯이 느껴 온 체험자, 목격자들의 이야기는 시종 격정과 흥분으로 이어 졌다.

기념무대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전체 참가자들의 충성의 열정이 굽이치는 가운데 불멸의 혁명송가《**김정일**장군의 노래》합창으로 끝났다.

뜻 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진행된 기념무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이 땅우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야 말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굳은 의지를 잘 보여 주었다.

중앙과 지방의 극장들에서 경축공연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기념 경축공연이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이에 중앙과 지방의 극장, 궁전, 회관들에서 진행되였다.

동평양대극장에서는 만수대예술단의 경축무대《우리 장군님 제일이야》음악무용종합공연이, 평양극장에서는 국립연극단의 혁명연극《어머님의 당부》공연이, 모란봉극장에서는 국립교향악단의 경축음악회가, 평양교예극장에서는 평양교예단의 종합교예《장군님 받들어 내 조국 빛내리》공연이,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는 학생소년예술소조원들의《해님과 노래》와《축원의 노래, 효성의 노래》종합공연이 있었다.

당 및 국가 지도간부들인 김영남동지, 리종옥동지, 박성철동지, 조명록동지, 리용무동지, 김일철동지, 전병호동지, 계응태동지, 김철만동지 양형섭동지, 최영림동지, 최태복동지, 김중린동지, 백학림동지, 리하일동지, 박기서동지, 리종산동지, 김룡연동지, 김윤혁동지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오익제선생,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내각위원회,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항일혁명투사들, 조선인민군장병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또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서만술제1부의장을 비롯한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공연을 보았다.

공연관람에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여러 나

라 대표단들과 외국손님들, 우리 나라 주재 각국 외교대표들,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경축공연무대들에는 불멸의 혁명송가《**김정일**장군의 노래》합창과 녀성6중창과 합창《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녀성기악중주《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남성4중창과 녀성2중창《노래하세 친근한 인민의 장군》, 관현악《정일봉의 우뢰소리》,《사향가》, 무용《백두산의 해돋이》를 비롯한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공연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2월 16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인류공동의 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하는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끝 없는 영광과 환희,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 없는 경모와 열화 같은 축원의 마음을 감명 깊게 펼쳐 보이였다.

백두의 기상과 담력을 지니시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탁월한 령도로 주체혁명위업과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 계시는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칭송하는 시대의 찬가들이 높이 울려 퍼지고 공연종목들이 바뀔때마다 장내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 올랐다.

녀성저음독창《장군님은 명사수 우린 명중탄》, 녀성독창과 합창《천리마선구자의 노래》, 남성중창《사회주의승리가 보인다》, 관현악《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무용《우리는 청년건설자》등의 종목들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며 미래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 따라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힘 있게 보여 주었다.

광복직후 위대한 수령님의 군건설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시며 나라의 공군건설을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업적을 주제로 한 혁명연극《어머님의 당부》는 관람자들에게 우리 조국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김정일**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육탄영웅, 자폭용사로 살며 싸워 갈 충성의 결의로 가슴 불 타게 하였다.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고 준마를 타고 구보로 달려 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랑만과 전투적기백이 넘쳐 나는 종합교예공연도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어은금중주《축원의 꽃보라》, 바이올린제주《우리의 아버진 **김정일**원수님》, 민요제창과 합창《장군님 손길 따라 강성대국 솟아요》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린 학생소년들은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나는 자기들의 밝은 모습과 혁명과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억세게 준비해 갈 불타는 충성심을 훌륭히 보여 주었다.

또한 인민문화궁전에서는 국립희극단 예술인들이 다채로운 화술소품들을 무대에 올렸고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는 영화예술인들이 출연하는 경희극《살기 좋은 고장》이 공연되였다.

경희극《살기 좋은 고장》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배려속에서 살기 좋은 락원의 고장으로 전변된 대홍단사람들의 행복한 생활과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어 대홍단을 공산주의리상촌으로 더잘 꾸려 가려는 이곳 근로자들의 투쟁모습을 잘 보여 준 작품이다.

함경북도예술극장, 강원도예술극장, 평안북도예술극장, 함흥대극장 등 각도 예술극장들과 궁전, 문화회관들에서도 예술인들과 학생소년예술소조원들이 출연하는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였다.

합창과 무용《우리의 **김정일**동지》, 남성저음독창과 방창《만대에 빛나라 **김정일**시대》, 합창《정일봉의 우뢰소리》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백두의 기상과 슬기를 한몸에 안으시고 백두광명성으로 솟아 오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 없는 흠모의 정 그리고 또 한분의 천출명장을 인민의 수령으로 높이 모신 끝 없는 영광과 행복,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소리높이 노래하였다.

출연자들은 또한 혼성6중창《봄빛입니다 해빛입니다》, 녀성독창과 남성중창《토지정리 홍이로세》등 여러 종목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자애로운 어버이로 모신 우리 인민의 끝 없는 영광과 그이의 령도 따라 이 땅우에 기어이 륭성번영할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워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 오려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 주었다.

재일조선인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장군님은 총련의 운명 70만의 아버지》진행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2. 16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장군님은 총련의 운명 70만의 아버지》공연이 2월 16일 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홍성남내각총리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대부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류미영선생, 문화성 송석환부상 등 관계부문 일군들과 시내 근로자들, 예술인들, 청소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출연자들은 먼저 온 민족과 진보적인류의 축복속에 뜻 깊은 탄생일을 맞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70만 재일동포들의 끓어 넘치는 충성과 다함 없는 경모의 한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다.

민족의 운명이시며 미래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을 민족공동의 대경사로, 위대한 력사적사변으로 노래하면서 장군님께 드리는 만수축원의 인사를 담은 노래와 춤《축원의 큰절을 드립니다》로 시작된 이날의 공연무대에는 남성3중창《사랑만을 주셨네》, 혼성2중창과 무용《태양과 별무리》, 장새납독주와 방창《우리 자랑 이만저만 아니라오》, 녀성3중창《묻지나 말라구 우리의 마음》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세계가 우러르는 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대한 령도자로 모시고 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존엄과 영예를 떨쳐 가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자랑과 행복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에 담아 펼쳐 보였다.

관람자들은 공연을 보면서 2월의 명절을 가장 뜻깊게 맞이하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 있었으며 민족이 낳은 위인, 희세의 령장을 모시여 배심 든든함을 더욱 깊이 간직하였다.

공연은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 따라 주체조국의 기상을 떨쳐 갈 우리 민족의 굳은 의지를 잘 보여 준 노래와 춤《장군님 강성대국 빛내가리라》로 막을 내렸다.

공연은 시종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끝 없는 존경심과 흠모심으로 굽이치고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셔 갈 충성의 열정으로 맥박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가 전달되였다.

전국예술선전대 화술소품종합공연 진행

2. 16경축 전국예술선전대 화술소품종합공연이 2월 1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양형섭동지, 김기남동지와 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보았다.

공연무대에는 력사상 류례 없는 풍파를 진두에서 뚫고 나가시며 전당, 전군, 전민을 새로운 투쟁에로 이끌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따라 강성대국건설에 한결같이 떨쳐 나선 우리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랑만을 안겨 주는 다양한 주제의 화술소품들이 올랐다.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의 재담《감자꽃 핀다》에서 출연자들은 우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켜 나감으로써 우리 인민의 식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황해남도와 남포시예술선전대대원들은 재담《웃으며 가자》와 촌극《제힘을 믿자》에서《〈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힘차게 이어 가자!》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심장깊이 새기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신심과 락관에 넘쳐 투쟁할 때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자체의 힘으로 능히 뚫고 나갈수 있다는 생활의 교훈과 혁명의 진리를 해학적으로 감명 깊게 펼쳐 보이였다.

무대에는 또한 평안북도예술선전대의 대화시《세계를 굽어 본다》, 철도성예술선전대의 독창이야기《철도의 1분1초는 조국의 1분 1초》, 청년중앙예술선전대의 실화이야기《신천의 교훈》등 우리 인민을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총진군에로 힘 있게 고무추동하며 계급의 전위투사로 키우는데 이바지하는 다채로운 종목들도 올랐다.

공연은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다그치는 우리 인민들을 고무하며 승리의 신심을 안겨 주는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조선인민군창건 67돐을 경축하여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67돐을 맞으며 4월 25일 평양시내 극장들에서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였다.

동평양대극장에서는 만수대예술단의 4. 25경축무대《조선인민군에 영광이 있으라》, 평양대극장에서는 피바다가극단의 혁명가극《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모란봉극장에서는 국립교향악단의 경축음악회, 평양극장에서는 국립연극단의 혁명연극《어머님의 당부》, 평양교예극장에서는 평양교예단의 종합교예《장군님 받들어 내 조국 빛내리》공연이 진행되였다.

극장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뜻 깊은 건군절을 맞이한 커다란 기쁨과 긍지를 안고 모여 온 인민군군인들과 시내 근로자들로 차고 넘치였다.

출연자들은 혼성2중창과 합창《**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녀성6중창과 합창《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무용《경의를 드립니다》등에서 독창적인 군건설사상을 내놓으시고 우리 혁명무력을 강화발전시키시여 이 땅우에 자위로 위용 떨치는 사회주의군사강국을 일떠 세우신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관람자들은 무대배경에 모셔 진 백두산3대장군의 거룩한 영상을 우러르면서 절세의 위인들을 모시고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온갖 침략과 도전을 물리치며 걸어 온 우리 혁명무력의 자랑찬 승리의 년대기들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 보았다.

출연자들은 혁명연극《어머님의 당부》와 혁명가극《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그리고 피아노협주곡《백두산의 눈보라》, 남성독창《최고사령관기 날리

며 승리를 떨치리》를 비롯한 여러 종목들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백두령봉에서 시작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총대로 기어이 완성할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철의 신념을 힘 있게 보여 주었으며 녀성민요4중창《군민일치 노래 부르자》등 다채로운 종목들에서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속에서 날을 따라 더욱 활짝 꽃펴 나는 옹군애민의 전통적미풍을 예술적으로 잘 형상하였다.

또한 공중교예《날아 다니는 처녀들》, 공중조형《별조형》, 손재주《병사와 처녀》를 비롯한 다채로운 교예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당의 령도 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백과 랑만적인 생활모습을 높은 기교동작들에 담아 훌륭히 보여 주었다.

관람자들은 공연을 보면서 위대한 령장들을 모시여 대를 이어 누리는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영웅, 자폭용사로 억세게 살며 싸워 나갈 충성의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뜻 깊은 6월 19일에 즈음하여

음악무용종합공연 《위대한 35년》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5돐을 맞으며 만수대예술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음악무용종합공연《위대한 35년》이 6월 18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인 김영남동지, 전병호동지, 리용무동지, 양형섭동지, 최영림동지, 김기남동지, 김용순동지, 리하일동지와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내각위원회,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령들과 군인들, 평양시내 로력혁신자들,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은 피아노2중주, 시랑송과 합창《조선아 너를 빛내리》로 시작되였다.

장중한 노래선률이 울려 퍼지고 무대배경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셔 지자 관람석에서는 우렁찬 박수갈채가 터져 올랐다.

출연자들은 백두산의 영웅적기상과 기질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새 력사를 펼치시고 전선에서 전선으로 끊임 없는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 가시며 우리 인민군대를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군으로 키워 오신 령군업적을 노래련곡《선군령도를 따라서》에 담아 감명 깊게 보여 주었다.

무용《백두산의 해돋이》, 녀성민요독창《우리 따르네》를 비롯한 여러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려 가는 **김일성**민족의 한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공연무대에는 혼성가무《웃음꽃이 만발했네》, 녀성4중창《우리네 위성이 하늘에 떴소》, 남성민요독창《감자자랑》, 무용《우리는 청년건설자》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펼쳐 졌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땅우에 펼쳐 진 천지개벽의 새 모습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한 오늘의 보람찬 총진군길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쳐 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실감 있게 보여 주었다.

바이올린합주《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트럼베트독주, 시랑송과 합창《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시랑송, 혼성2중창과 합창《강성대국 빛내여 가자》등 여러 종목들을 통하여 관람자들은 이 세상천지가 열백번 변하고 그 어떤 광풍이 불어 와도 일편단심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그이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울 불 타는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합창《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로 끝난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의 극장들에서 경축공연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5돐 경축공연이 중앙과 지방의 극장들에서 진행되였다.

공연들이 진행된 평양대극장, 평양극장을 비롯한 수도의 극장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 따라 혁명의 년대와 년대들을 세기적인 창조와 변혁으로 빛내여 왔으며 오늘은 보다 휘황찬란할 래일을 위한 강성대국건설을 신심과 락관에 넘쳐 다그치고 있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국립연극단, 피바다가극단 예술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훌륭히 완성된 혁명연극《성황당》과 은혜로운 빛발아래 온 세상에 자랑 떨치는 내 나라, 우리 당의 인덕정치의 생활력을 실감 있게 보여 주고 있는 혁명가극《사랑의 바다》공연들로 경축무대를 뜻 깊게 장식하였다.

모란봉극장, 평양교예극장, 평양인형극장들에서는 국립교향악단 예술인들의 경축음악회와 평양교예단배우들이 출연하는 종합교예《장군님 받들어 내 조국 빛내리》, 인형극, 인형소품공연들이 이채롭게 진행되였다.

각 지방극장들에서도 도 예술단예술인들의 경축공연이 이채롭게 진행되였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과 5대혁명가극들에서 나오는 명곡들을 무대에 올려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 주었다.

합창《백전백승 조선로동당》, 《태양의 위성이 되자》, 녀성독창《그이만을 생각하네》, 설화와 무용《락원을 꾸리자 우리의 손으로》, 재담《웃으며 가자》등의 종목들로 이루어 진 공연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 따라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고야 말 우리 인민의 철석 같은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보여 주었다.

무산지구전투승리 60돐을 기념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조직지휘하신 무산지구전투승리 60돐기념 량강도내 예술인들의 종합공연이 5월 23일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였다.

량강도내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무산지구전투승리 60돐을 맞으며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여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워 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인민의 다함 없는 경모의 정이 장내에 넘쳐 나는 가운데 공연은 합창과 무용《노래하세 대홍단》으로 시작되였다.

공연무대에는 이어 남성5중창《갑무도로개통식 유격대가 했다네》, 녀성독창과 남성방창《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녀성독창《보란듯이》, 《미제가 덤벼들면 죽음을 주리》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백전백승의 지략과 탁월한 령군술로 력사적인 무산지구전투를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그들은 또한 어려운 정세속에서 사회주의의 운명과 조국과 인민의 미래를 한몸에 안으시고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려 있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휘날리며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노래하였다.

재담《지름길》, 녀성독창《대홍단 삼천리》, 《미래를 안고 살자》등 무대에 펼쳐 진 종목들은 관중들로 하여금 대홍단의 전변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 보며 강성부흥할 조국의 래일을 위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다그쳐 갈 결의를 더욱 가다듬게 하였다.

공연은 항일혁명투사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 배워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감으로써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관중들의 심장이 불 타는 속에 합창과 무용《오늘도 7련대는 우리앞에 있어라》로 끝났다.

전승 46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46돐 경축공연들이 7월 27일 중앙과 지방의 극장, 회관들에서 진행되였다.

4.25문화회관에서는 조선인민군협주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무용조곡《장군님 받들어 군민은 한마음》공연이 진행되였다.

또한 동평양대극장과 모란봉극장, 윤이상음악당에서는 만수대예술단과 국립교향악단, 윤이상음악연구소 관현악단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음악무용종합공연과 경축음악회들이 펼쳐 졌다.

경축공연무대들에는 합창《우리의 7.27》, 바이올린독주와 현악합주《수령님 남기신 사진》, 녀성민요독창《매봉산의 노래》, 바이올린독주《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녀성기악중주《문경고개》, 바이올린2중주《우리 님 영웅되셨네》, 피아노독주《내 고향의 정든 집》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불굴의 신념과 강인담대한 의지로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을 불러 일으키시고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법, 탁월한 령군술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승하신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과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 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을 뜨겁게 노래하였다.

그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방송연설을 높이 받들고 조국보위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사수하고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 넣은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과 전쟁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친 생활을 감동깊이 펼쳐 보였다.

노래련곡《선군령도를 따라서》, 남성4중창과 녀성2중창《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혼성2중창과 합창《강성대국 빛내여 가자》, 남성4중창《보란듯이》, 합창《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등의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물려 주신 사회주의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전선에서 전선에로 끊임 없는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 가시며 선군혁명령도의 위대한 서사시를 펼쳐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이 땅우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반드시 건설하고야 말 우리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 있게 노래하였다.

평양대극장과 청년중앙회관에서는 혁명가극《피바다》, 민족가무《내 나라 제일로 좋아》공연이, 평양극장과 평양인형극장, 평양교예극장에서는 화술소품공연과 련속풍자인형극, 종합교예공연이 진행되였다.

이날 함흥대극장을 비롯한 각 도극장무대들에도 다채로운 경축공연들이 펼쳐 졌다.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의《강대성》의 신화를 깨여버리고 영웅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힘 있게 과시한 전승기념일을 맞으며 진행된 경축공연들을 통하여 관람자들은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승리의 기치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충성다해 받들고 50년대 영웅전사들처럼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며 강계정신, 대홍단기풍으로 강성부흥의 력사적위업수행을 위한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더욱 힘 있게 다그쳐 나갈 불굴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하였다.

12월의 경사의 날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협주단 음악무용 종합공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8돐경축 조선인민군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이 12월 23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인 김영남동지, 조명록동지, 홍성남동지, 리을설동지, 김영춘동지, 김일철동지, 김철만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 최영림동지, 김국태동지, 김중린동지, 백학림동지, 리용무동지, 리하일동지, 김윤혁동지, 박기서동지, 리종산동지, 김룡연동지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김영대위원장, 당, 무력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공로자들, 로력혁신자들, 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뜻 깊은 12월의 경축공연무대에는 노래와 춤《장군님 우러러 받들어 총》, 녀성독창《장군님 가까이엔 병사가 산다네》, 녀성중창《사랑의 약속》등의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선군정치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시며 우리 인민군대를 사상의 강군,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령도업적과 백두령장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려가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혼성2중창《우리 중대 맏형과 맏누이》, 녀성민요4중창《우리를 당할자 없다네》등의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항일의 전통을 이어 상하일치, 관병일치의 미풍을 활짝 꽃 피우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천만대적도 단숨에 쳐부실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불패의 기상과 위용을 힘 있게 과시하였다.

출연자들은 또한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안고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아 해제끼며 강성대국건설에서 선봉적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인민군의 혁명적군인정신과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만난을 이겨 내며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녀성민요독창《노래하세 대홍단》, 무용《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독창련곡《병사의 마음속에 고향이 있어》,《어머니조국은 부른다》등의 종목들을 통하여 잘 보여 주었다.

공연무대에는 무용《조국의 진달래》, 혼성합창《장군님 모시고 기어이 돌아 오리》등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투쟁업적을 형상한 종목들이 펼쳐 져 관람자들로 하여금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어버이수령님을 충성으로 받들어 태양의 빛발을 온 누리에 바쳐 가신 백두산녀장군에 대한 절절한 흠모의 정으로 가슴 들먹이게 하였다.

노래와 춤《천만이 총폭탄되리라》로 끝난 공연은 조국과 혁명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며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질풍같이 달려 주체의 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 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기상과 확고부동한 의지를 힘 있게 보여 주었다.

음악무용종합공연 《빛나는 12월》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8돐과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탄생하신 82돐기념 음악무용종합공연《빛나는 12월》이 12월 24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인 김영남동지, 최영림동지, 김중린동지, 백학림동지, 리종산동지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김영대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류미영위원장, 당, 무력기관, 근로단체, 내각위원회,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군인들, 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공연을 보았다.

공연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김정일**장군의 노래》와《나의 어머니》합창으로 시작되였다.

공연무대에는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치시였으며 불패의 혁명무력을 건설하고 강화발전시키신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노래하는 녀성민요독창《수령님 만고풍상 못 잊습니다》, 남성저음독창《3대장군의 총》을 비롯한 많은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녀성중창《병사들은 노래하네 우리의 최고사령관》, 남성4중창《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녀성고음독창《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 녀성4중창과 합창《우리 장군님 제일이야》등의 종목들에서 천리방선의 인민군부대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주체의 군건설위업에서 력사적 전환의 새 시기를 펼치시였으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수호하시고 내 나라, 내 조국의 강성부흥을 앞당겨 가시는 위대한 령장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 있게 다그쳐 주체의 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우며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 실현하고야 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노래한 남성저음독창과 합창《장군님은 명사수 우린 명중탄》, 녀성고음독창과 합창《천리마선구자의 노래》등의 종목들도 무대에 올랐다.

무용《조국을 그리며》, 녀성기악중주《기다려다오》, 녀성고음독창《떠나는 마음》, 가무《도천리의 5월단오》등의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 없는 충실성과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시고 조국광복성전에 한몸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혁명활동에 대하여 예술적으로 잘 형상하였다.

합창《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로 끝난 공연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조국과 혁명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모든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이를 결사옹위하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 같은 의지와 혁명적기상을 힘 있게 보여 주었다.

중앙과 지방의 극장들에서 공연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8돐과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탄생하신 82돐을 맞으며 12월 24일 중앙과 지방의 각 극장들에서 공연이 진행되였다.

국립교향악단은 모란봉극장에서, 국립민족예술단과 윤이상음악연구소 관현악단은 윤이상음악당에서 합동공연을 진행하였다.

관현악《정일봉의 우뢰소리》와 바이올린독주《사향가》로 막을 올린 공연들에서 출연자들은 녀성고음독창《**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 남성민요독창《장군님 모신 자랑 노래 부르자》, 가야금병창《우리 장군님 높이 모시리》등 여러 종목들에서 선군혁명령도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령도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천출명장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군대와 인민의 끝 없는 영광과 행복을 소리높이 노래하였다.

그들은 또한 바이올린독주《못 잊을 삼일포의 메아리》, 녀성독창과 방창《김정숙어머님 우리 어머님》, 현악합주《녀전사의 노래》를 비롯한 여러 종목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한평생을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해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정력적인 혁명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명속에 보여 주었다.

평양극장에서 진행된 혁명연극《어머님의 당부》공연을 관람한 인민군군인들과 근로자들은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주체적인 정규무력건설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뜨거운 격정속에 되새기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하고 그이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 혁명적신념을 더욱 굳게 하였다.

평양대극장에서는 혁명가극《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가, 평양교예극장과 인민군교예극장, 평양인형극장에서는 종합교예와 인형극《봉선화》공연이 진행되였다.

이날 지방의 극장과 문화회관들에서도 각 도예술단체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공연이 있었다.

김정숙동지 서거 50돐에 즈음하여

회고음악회《어머님은 붉은기와 함께》진행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 서거 50돐에 즈음하여 회고음악회《어머님은 붉은기와 함께》가 9월 22일 모란봉극장에서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예술인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김일성**장군의 노래》합창으로 시작된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친위전사이시며 조국광복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신 김정숙동지에 대한 다함 없는 경모와 그리움으로 끓어 번졌다.

녀성독창과 혼성합창《**김일성**장군님은 우리의 태양》, 시와 음악《나의 어머니》, 녀성독창《사령부를 멀리 떠나서》등의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때로부터 위대한 태양의 해발이 되시여 항일의 혈전만리, 건국의 초행길에서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였으며 수령님의 안녕을 위하여 심신을 다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노래하였다.

무대에는 이어 김정숙어머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과 위인적풍모를 노래한 녀성독창《도천리의 5월단오》, 녀성중창《기다려다오》,《김정숙어머님 우리 어머님》, 바이올린독주를 위한 협주곡《못 잊을 삼일포의 메아리》등 여러 종목들이 울랐다.

추억 깊은 노래들을 들으며 관람자들은 항일의 명사수로, 백두의 녀장군으로 삼천리조국강산에 명성을 떨치신 김정숙동지의 위대한 모습을 마음속 깊이 그려 보며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녀성독창《들으시라 그날의 감격을》의 노래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조용히 귀 기울이면 태고연한 밀림을 뒤흔들며 백두광명성탄생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던 목 메인 웨침이 들려 오는듯 싶고 눈을 감으면 백두의 거목마다에 항일선렬들이 새긴 백두광명성칭송의 글발들이 눈에 삼삼히 떠오르게 하는 노래를 들으며 관람자들은 뜻 깊은 2월의 그날 백두광명성을 안아 올리시여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굳건히 이어 놓으신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 김정숙동지의 세기에 빛날 불멸의 업적을 되새기였다.

출연자들은 관현악《정일봉의 우뢰소리》에서 백두의 기상과 정기를 지니시고 천하를 쥐락펴락하시는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어머님의 념원이 활짝 꽃 핀 이 땅에서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려 가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자랑높이 노래하였다.

남성독창과 합창《어머님은 붉은기와 함께 계시네》, 합창《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로 끝난 회고음악회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고귀한 생애를 바치신 김정숙동지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고 계시며 그이께서 발휘하신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우리모두의 심장속에 세차게 고동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공화국창건 51돐을 경축하여

공화국창건 51돐경축 공연들이 9월 9일 중앙과 지방의 극장, 회관들에서 진행되였다.

평양극장과 모란봉극장, 동평양대극장, 윤이상음악당에서는 피바다가극단과 국립교향악단, 강원도예술단, 윤이상음악연구소 관현악단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음악무용종합공연과 경축음악회들이 펼쳐졌다.

또한 평양대극장에서는 국립연극단의 혁명연극《어머님의 당부》공연이, 청년중앙회관에서는 국립민족예술단의 민족가무《내 나라 제일로 좋아》공연이, 평양인형극장에서는 련속풍자인형극《남쪽에서 온 편지》의 공연이, 평양교예극장에서는 종합교예공연이 진행되였다.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인, 김영남동지, 백학림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 최영림동지, 김중린동지, 리하일동지, 리종산동지, 김룡연동지, 곽범기동지, 김윤혁동지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김영대위원장,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내각위원회,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로력혁신자들, 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1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단장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권순휘부의장을 비롯한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공연을 보았다.

《한민전》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가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관람에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여러 나라 대표단들과 외국손님들, 우리 나라 주재 각국 외교대표들,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공연무대들에는 합창《**김일성**장군의 노래》,《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관현악《빛나는 조국》, 남성독창《내 나라》, 교향곡《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등 많은 종목들이 울랐다.

출연자들은 공연들에서 이 땅우에 인민이 주인된 새 세상을 세워 주시고 자유와 독립의 기치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으며 그 존엄과 위용을 온 세계에 빛내여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 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 진정한 삶의 요람인 어머니조국의 정다운 품을 절절하게 노래하였다.

출연자들은 또한 관현악《내 고향의 정든 집》, 남성군무《한치의 땅도 내줄수 없다》, 녀성독창《천리마선구자의 노래》, 바이올린합주《사회주의는 우리거야》등의 종목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 주신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하여 력사의 만난애로를 뚫고 나가며 세기를 주름 잡아 달려 온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개와 열렬한 조국애, 영웅적투쟁정신을 예술적으로 잘 보여 주었다.

관현악《백두의 말발굽소리》, 혼성무용《천지개벽의 새 력사》, 합창《우리 장군님 높이 모시리》, 교향곡《우리는 맹세한다》등의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강성부흥할 **김일성**조국의 미래를 안아 오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따라 이 땅우에 반드시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야말 우리 인민의 철석 같은 신념과 억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혁명연극《어머님의 당부》는 관람자들에게 우리 조국의 운명이시며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결의로 가슴 불 타게 하였다.

민족가무《내 나라 제일로 좋아》와 종합교예공연을 비롯한 다른 공연들도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랑만, 전투적기백에 넘쳐 구보로 달리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 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잘 형상하여 관람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이날 함흥대극장을 비롯한 각 도극장무대들에서도 다채로운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였다.

공연들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당창건 54돐을 경축하여

조선로동당창건 54돐 경축공연들이 10월 10일 중앙과 지방의 극장, 궁전, 회관들에서 진행되였다.

동평양대극장에서는 만수대예술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음악무용종합공연《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이, 모란봉극장에서는 국립교향악단의 경축음악회, 인민문화궁전에서는 전국근로자들의 민족음악무용소품종합공연이 진행되였다.

합창《조선로동당 만세》,《백전백승 조선로동당》, 녀성고음독창《어머니당의 품》, 관현악《사향가》,《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등의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고 조국광복후 주체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시였으며 인민에 대한 끝 없는 사랑과 열렬한 조국애로 천만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 세우시여 백전백승의 력사를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노래하였다.

출연자들은 또한 피아노협주곡《백두산의 눈보라》, 관현악《정일봉의 우뢰소리》, 녀성중창《수령님 높은 뜻 붉게 피였네》, 녀성4중창《내 조국은 어디 가나 노래 넘치네》, 녀성독창과 어은금가무《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등의 종목들에서 당과 혁명, 조국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을 백두의 혁명정신이 나래치는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개척해 나가시는 불멸의 업적과 우리 인민의 진정한 삶을 꽃 피워 주고 보살펴 주는 어머니당의 품이야말로 한시도 떨어 져 살수 없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품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잘 형상하였다.

평양극장에서는 혁명연극《어머님의 당부》공연이, 평양대극장에서는 혁명가극《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공연이 진행되였다.

공연들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충성으로 받드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범을 본 받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결사옹위하며 당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충성의 열의로 가슴 불 타게 하였다.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된 국립민족예술단의 민족가무《내 나라 제일로 좋아》와 평양교예극장과 인민군교예극장무대에 펼쳐 진 종합교예들은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백과 랑만적인 투쟁모습을 훌륭히 형상하였다.

이날 봉화예술극장과 평양인형극장에서는 연극과 인형극들이 공연되였으며 함흥대극장을 비롯한 각 도극장들에서도 다채로운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였다.

공연들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평양음악무용대학창립 50돐을 맞으며

온 나라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3월 23일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는 창립 50돐을 기념하는 공연이 뜻 깊게 진행되였다.

공연관람에는 관계부문 일군들,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과 시내 창작가, 예술인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열화 같은 흠모의 마음을 담은 합창《**김정일**장군의 노래》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녀성민요독창《수령님 만고풍상 못 잊습니다》, 녀성3중창과 합창《고향집추억》, 가야금독주《조국의 대자연 개조해 가세》, 독무《대홍단에 감자풍년 들었네》, 피아노협주곡《결전의 길로》, 발레쌍무《영웅의 동상에 붉은 꽃 드렸네》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공연은 음악무용예술교육의 최고전당에서 자기의 예술적재능을 활짝 꽃 피우고 있는 학생들과 연구생들의 훌륭한 예술적기량의 시위로 하여 이채를 띠였으며 나라의 예술인후비들을 키우는 원종장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 주었다.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음악예술부문에 이룩하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앞으로도 음악무용대학에서 세계적인 독창가, 독주가, 독무가들을 더많이 키워낼 불 타는 결의와 드높은 의지로 충만되여 있었다.

공연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음악예술인들의 위대한 스승으로,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령도 따라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려는 전체 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충성의 마음을 담아 합창《혁명의 계주봉》으로 막을 내렸다.

공연은 대학이 걸어 온 50년의 자랑찬 력사를 총화하는 뜻 깊은 계기에 진행된것으로 하여 예술인들과 음악애호가들의 커다란 관심과 이목을 끌었다.

만수대예술단조직 30돐에 즈음하여

음악무용종합공연《장군님 따라 30년》진행

만수대예술단조직 30돐기념 음악무용종합공연《장군님 따라 30년》이 10월 1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인 김영남동지, 홍성남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 김기남동지, 김중린동지, 곽범기동지, 김윤혁동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김영대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류미영위원장과 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무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문학예술혁명의 불길을 지펴 주시고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펼치신 불멸의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게 하는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피아노2중주, 시와 합창《조선아 너를 빛내리》, 녀성기악중주《충성의 노래》에 이어 녀성중창《수령님의 높은 뜻 붉게 피였네》, 녀성고음독창《수령님 사랑속에 우리 행복 꽃 피네》, 남성4중창과 죽관4중주《수령님 은덕일세》등의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이 땅우에 인민의 행복 넘치는 사회주의락원을 세우시려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으시고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 없는 흠모의 정과 사무치는 그리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한 없는 사랑속에 인간의 참된 삶과 행복을 누려 가는 우리 인민의 끝 없는 영광을 아름다운 선률에 담아 뜨겁게 노래하였다.

관람자들은 혁명가극《꽃파는 처녀》중에서 장면음악《하늘중천 밝은 달은 하나이건만》을 들으면서 가극혁명방침을 제시하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혁명가극으로 옮기는 창조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여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혁명적인민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시대의 대걸작으로 완성시켜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천재적인 예지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대하여 가슴 뜨겁게 느끼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려 가는 우리 인민의 끝 없는 행복과 긍지가 차넘치는 속에 무대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따사로운 손길아래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완성된 녀성4중창과 장새납독주《내 조국은 어디 가나 노래 넘치네》, 무용《조국의 진달래》, 어은금가무《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비롯한 종목들이 련이어 올랐다.

합창《장군님 백마 타고 달리신다》, 남성저음독창《정일봉의 우뢰소리》, 남성중음독창《우리의 총대》등의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물려 주신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선에서 전선에로의 끊임 없는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 가시며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워 주시고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하신 선군혁명령도의 위대한 생활력을 힘 있게 노래하였다.

출연자들은 또한 합창《높이 들자 붉은기》, 트럼베트독주, 시와 합창《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남성중창《조국을 사랑하라》, 무용《우리는 청년건설자》등의 종목들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려 있는 혁명의 붉은기를 더욱 높이 추켜 들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다그치고 있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과 청년영웅도로(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을 힘 있게 벌리고 있는 청년건설자들의 자랑찬 모습을 잘 보여 주었다.

혼성2중창과 합창《충성의 한길로 가고 가리라》로 끝난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세계《마라손녀왕》을 축하하여

《축하를 받으라 조국의 장한 딸이여》 텔레비죤축하무대 진행

제7차세계륙상선수권대회 녀자마라손경기에서 영예의 1위를 하고 에스빠냐의 쎄빌리야상공에 공화국기발을 높이 휘날려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과시한 민족의 장한 딸 정성옥을 축하하는 텔레비죤축하무대《축하를 받으라 조국의 장한 딸이여》가 9월 8일 봉화예술극장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장소에는《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조국의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친 정성옥선수의 투쟁정신을 따라 배우자!》라고 쓴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사회안전상인 조선인민군 차수 백학림동지 등 관계부문 일군들과 체육인들, 과학자, 예술인, 지식인들, 시내 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축하무대는 합창《환영한다 정성옥》으로 시작되였다.

정성옥선수와 함께 무대에 나온 백학림동지가 우리 당이 키워 준 담력과 투지로 세계 수많은 마라손강자들을 물리치고 경기에서 단연 1위를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개를 온 세상에 시위한 우리 민족의 장한 딸이라고 그를 열렬히 축하하자 인민체육인, 인민배우들이 무대에 달려 나와 정성옥선수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안겨 주었다.

체육성 체육기술련맹 문재덕위원장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해 온갖 로고를 다 바쳐 오시며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고 하면서 이번에도 정성옥선수의 승리의 보고를 받으시고는 그 누구보다도 제일 기뻐하시며 전투영웅들과 꼭 같은 공화국영웅의 금별메달을 그의 가슴에 달아 주도록 해주시고 전당, 전민이 정성옥선수를 따라 배울데 대한 조치까지 취해주신데 대해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이어 예술인들이 정성옥선수가 쓴 시《장군님 결승선에서 맞아 주셨네》를 읊고 노래《위대한 내 나라》를 불렀다.

다음으로 정성옥선수의 학창시절의 교원들이였던 리만석, 황춘호, 정옥화의 축하발언과 정성옥선수와 스승들과의 감격적인 상봉이 펼쳐 졌다.

사회안전성협주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재담《함께 달리자요》와 조선인민군교예단의 요술이 펼쳐진데 이어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미술가들이 무대에 나와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 가신 포전에서 수확한 과일과 미술작품을 정성옥선수에게 안겨 주고 그를 뜨겁게 고무하였다.

무대의 대형영사막에《민족의 장한 딸 정성옥!》이라는 글발과 환영의 꽃보라가 날리는 장면이 펼쳐지는 속에 학생소년들이 나와 축하시를 랑송하며 축하의 꽃바다를 펼쳐 놓았다.

정성옥선수는 폭양이 내려 쪼이는 이국땅 100여리의 전 구간을 달리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마음속에 그려 보았고 그것이 힘의 원천이 되여 자신도 놀라울 정도의 힘이 폭발하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그의 어머니 리춘희녀성은 자기 딸이 거둔 자그마한 성과를 그리도 높이 평가하시여 주실수 있는 최대의 은정을 다 베풀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한 없는 사랑에 대하여 감격에 넘쳐 말하였다.

이어 정성옥과 그의 가족들은 압록강체육선수단 선수들과 함께 끝 없는 흠모의 노래《구름 너머 그리운 장군별님께》를 불렀다.

모임에서는 체육인들과 공화국영웅, 인민체육인 정성옥의 결의와 맹세가 표명되였다.

축하무대는 사회안전성협주단의 합창《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로 끝났다.

축하무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여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세계만방에 떨쳐 갈 우리 인민과 인민군군인들의 드팀 없는 신념과 의지를 힘 있게 보여 주었다.

세계《마라손녀왕》정성옥선수와 문학예술인들과의 상봉모임 진행

우리 민족의 정신과 기개를 만천하에 떨치고 돌아온 **김일성**조선의 자랑스러운 딸 정성옥선수와 문학예술부문 일군들, 창작가, 예술인들과의 상봉모임이 9월 17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문화성과 예술단체 일군들, 이름 있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문화성 조찬구부상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는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주체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치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린 민족의 장한 딸, 공화국영웅, 인민체육인 정성옥선수를 문화예술부문 전체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의 이름으로 열렬히 축하하였다.

그는 이국의 하늘가에 높이 울려 퍼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마음속에 그리며 달렸다고 한 정성옥선수의 심장의 웨침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하늘처럼 믿고 사는 우리 인민모두의 심정그대로이라고 하면서 이번 성과는 온갖 시련을 뚫고 강성대국건설의 진군길을 다그치고 있는 **김일성**민족의 강의한 정신을 과시한것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의 딸, 장군님의 딸로서 응당 할 일을 한 정성옥선수의 경기성과를 두고 그처럼 만족해 하시며 한가슴에 받아 안기에는 너무도 벅찬 최상의 영예와 뜨거운 사랑을 안겨 주시였을뿐아니라 우리 민족사에, 우리 문학예술력사에 특기할 정성옥환영곡을 비롯한 다양한 문학예술작품들을 창작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정성옥선수처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사는것을 최상의 영광,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고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인민을 노래하는 세계적인 명작, 명곡을 더많이 창작해 냄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의 결승테프를 끊기 위하여 구보로 달리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힘 있게 고무추동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공화국영웅, 인민체육인 정성옥선수가 연설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찌기 체육사업을 령도하시는 첫시기부터 마라손은 조선사람의 기상과 의지, 조선사람의 체질과 특성에 맞는 체육종목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체육의 상징종목으로 내세워 주시였다고 하면서 우리 식의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마라손전법이 있었기에 평범한 선수에 불과하던 자기가 세계패권을 쥔《마라손녀왕》이 될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장군님의 전사로서, 딸로서 응당 할 일을 한 자기를 민족의 자랑스러운 영웅으로 떠받들어 내세워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에 앞으로 더 높은 경기성과로 보답해 갈 굳은 결의를 피력하였다.

그는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장군님의 위대성을 더 폭넓고, 더 깊이 있게 형상한 시대의 명작, 명곡들을 수많이 창작하여 로동당시대를 빛내여줄것을 부탁하였다.

모임에서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인민배우 신명욱, 만수대예술단 작곡가 한성희, 평양연극영화대학 강좌장 김현숙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 준 정성옥선수의 투쟁정신을 따라 배워.백두의 기상과 민족의 정신을 반영한 문학예술작품들을 끊임없이 내놓아 민족의 장한 아들딸들을 더많이 배출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굳은 결의를 피력하였다.

이어 축하공연이 진행되였다.

축하공연

민족의 장한 딸 정성옥선수를 축하하는 공연이 9월 12일 황해남도예술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지방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사회안전기관 책임일군들과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정성옥선수가 장내에 들어 서자 관람자들은《장하다 정성옥!》등의 구호를 부르면서 민족의 자랑스러운 딸을 열광적으로 축하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에 이어《환영한다 정성옥》의 노래합창으로 시작된 축하무대에는 도와 시내예술인, 시인들과 전쟁로병들, 대학교원들, 학생소년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남성중창《우리 장군님 제일이야》등 종목들에서 인민의 행복을 위해,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해 험한 길, 포전길을 걷고 걸으시며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 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령도업적, 천하제일명장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한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특히 즉흥시《해주의 딸, 장군님의 딸》을 들으며 관중들은 폭양이 내려 쪼이는 이국땅의 무더위속에서도 오직 어버이장군님만을 마음속에 그리며 장군님께서 안겨 주신 기상과 담력, 배짱으로 달리고 달린 정성옥선수의 맑고 깨끗한 충성심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마음속으로 뜨겁게 되새겨 보았다.

재담《구보로 달리자》, 노래와 춤《농업생산은 강성대국건설의 천하지대본》, 체육무용《대를 이어 빛내여 갈래요》등 여러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당의 참된 딸 정성옥선수가 발휘한 숭고한 모범을 따라 배워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제2의 천리마대진군길을 구보로 달려 나감으로써 이 땅우에 강성부흥하는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야 말 우리 인민의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힘 있게 보여 주었다.

공연은《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의 노래합창으로 끝났다.

민족의 자랑스러운 딸 정성옥선수의 고향방문과 세계《마라손녀왕》에 대한 열광적인 환영은 해주시민들의 마음속에 조국애, 향토애를 더욱 깊이 심어 주고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새로운 창조에로 그들을 힘 있게 고무하였다.

제18차윤이상음악회 진행

제18차윤이상음악회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음악회는 19일 모란봉극장에서 개막공연, 윤이상음악당에서 20일과 21일에 2일공연, 페막공연으로 진행되였다.

음악회에는 국립교향악단과 윤이상관현악단의 연주가들이 참가하였다.

문화성 송석환부상 등 관계부문 일군들과 시내 근로자들, 예술인들이 음악회를 관람하였다.

또한 윤이상선생의 부인 리수자선생과 그의 딸 윤정,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 우리 나라 주재 스웨리예왕국 림시대리대사 스반떼 킬

란데르,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 리권보호사무소대표 토마스 월핑이 음악회를 관람하였다.

음악회에서는 윤이상선생의 작품들인 초기가곡《편지》, 교향시곡《광주여 영원히!》, 현악4중주곡 제6번, 첼로와 하프를 위한 2중주곡, 실내협주곡 제1번, 목관5중주곡, 바이올린협주곡 제3번 등의 작품들과 라흐마니노브의 피아노협주곡 제2번, 모짜르트의 피아노와 관악기를 위한 5중주곡 등의 작품들이 연주되였다.

국립교향악단과 윤이상관현악단의 예술인들을 비롯한 출연자들은 민족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독특한 작곡기법으로 창작된 윤이상선생의 작품들과 여러 종목의 음악작품들을 세련된 연주기법으로 열정적으로 훌륭히 형상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축전, 경연, 독창회 진행

제9차《2.16예술상》개인경연 진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2월 16일을 맞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평양에서는 제9차《2.16예술상》개인경연이 진행되였다.

중앙과 지방의 예술단, 예술대학들에서 예술인들과 교원, 학생들이 참가한 경연무대는 민족성악부문, 민족기악부문, 양악기부문으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경연참가자들은 당의 품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높여 온 자기들의 기량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1등에 당선된 입선자들에게 금메달과 증서 그리고 고급피아노가, 2등에 당선된 입선자들에게 은메달과 증서, 손풍금이, 3등에 당선된 입선자들에게 동메달과 증서, 기타가 수여되였다.

제9차《2.16예술상》개인경연순위는 다음과 같다.

△민족성악부문

－남자

1등 김성일(만수대예술단 배우)
2등 우명식(만수대예술단 배우)
3등 백광전(평안북도예술단 배우)
〃 한석복(국립민족예술단 배우)

－녀자

2등 황련희(국립민족예술단 배우)
〃 리순향(국립민족예술단 배우)
3등 김향숙(국립민족예술단 배우)
〃 송윤희(청진예술대학 학생)

△민족기악부문

－죽관악기

1등 최병철(만수대예술단 연주가)
2등 최영덕(총련금강산가극단 연주가)
3등 배경수(국립민족예술단 연주가)
〃 허정학(평양음악무용대학 학생)

－지탄악기

2등 백은희(국립민족예술단 연주가)
〃 계련주(평양음악무용대학 학생)
3등 로현화(평양음악무용대학 학생)
〃 김현옥(평양음악무용대학 학생)

△양악기부문

－바이올린

1등 김선희(평양음악무용대학 학생)
〃 정현희(국립교향악단 연주가)
2등 배은주(평양음악무용대학 학생)
〃 리일향(평양음악무용대학 학생)
〃 리성일(평양음악무용대학 연구생)
3등 김달진(평양음악무용대학 학생)
〃 동정인(만수대예술단 연주가)
〃 문경진(평양음악무용대학 학생)

－첼로

2등 최우민(평양음악무용대학 학생)
〃 김옥란(평양음악무용대학 연구생)
3등 맹혜영(만수대예술단 연주가)
〃 김향숙(평양음악무용대학 학생)
〃 림순미(피바다가극단 연주가)

제1차 전국요술축전 진행

문화성 무대예술지도국에서는 우리 나라 요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해에 제1차 전국요술축전을 조직진행하였다.

축전은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되였는데 예선은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각 도(시)문화회관에서, 본선은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평양극장과 평양교예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축전에는 중앙예술단체와 각 도(시)예술단, 예술선전대 요술배우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요술애호가들이 참가하였다.

축전무대에는 기능, 환상, 일반, 희극, 탁상요술들이 올랐다.

전문가부류와 비전문가부류로 나뉘여 진행된 축전에서는 1등부터 3등까지의 순위가 발표되였으며 특이한 기술을 발휘한 대상에게는 기술상, 우수한

연기형상을 보여 준 대상에게 연기상이 수여되였다.

입상자들에게 메달과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으며 입상자들의 종합공연이 진행되였다.

전국음악무용축전 진행

뜻 깊은 10월의 명절을 계기로 진행된 전국음악무용축전 총화모임이 10월 말 청년중앙회관에서 있었다.

문화상 강능수를 비롯한 관계부문 일군들, 축전참가자들과 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총화보고에 이어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축전에서 당선된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1등 강원도예술단
2등 황해북도예술단
황해남도예술단
3등 자강도예술단
평안북도예술단
남포시예술단

제8차 전국연극축전 진행

제8차 전국연극축전이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해당 예술단체극장들에서의 부문심사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작품들을 평양에서 다시 종합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된 이번 축전에는 국립연극단, 평양인형극단, 청년예술선전대, 철도성예술선전대, 각도(시) 예술단 등 수많은 예술단체들이 참가하였다.

축전기간 출연자들은《고난의 행군》시기와 강행군시기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높이 발휘된 당과 수령에 대한 끝 없는 충실성과 수령결사옹위정신, 당칭책에 대한 결사관철의 투쟁기풍과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형상한 장막극, 중막극, 단막극을 기본으로 하여 풍자극과 경희극, 인형극들을 무대에 올렸다.

황해북도예술단 예술인들이 출연한 단막극《네번째 술잔》은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사랑과 믿음이 어린 사연 깊은 술잔을 받아 안은 한 로과학자가 수령님의 유훈교시를 높이 받들고 동지들과 집단의 방조속에 산소열법에 의한 철생산방법을 연구완성해 내는 과정을 통하여 과학자의 높은 충실성과 고결한 인생관을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함경북도예술단의 예술인들도 단막극《추운 날》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웅대한 전기화구상을 빈말로써가 아니라 순결한 량심으로 받들어 나가는 청년기술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시대 청년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깊이 있게 잘 보여 주었다.

그런가 하면 평안북도예술단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 다진 맹세를 지켜 그처럼 어려웠던《고난의 행군》시기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친 수풍로동계급의 뜨거운 충성심과 영웅적투쟁모습을 형상한 단막극《수풍의 숨결》을, 함경남도예술단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고 동해기슭에 수백정보의 소금생산기지를 건설해 나가는 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모습을 보여 주는 장막경희극《동해의 소금꽃》을 축전무대에 올렸다.

국립연극단 예술인들은 경희극《귀한 손님》을 통하여 온 나라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워나가는데서 제기되는 교훈적인 문제들을 웃음속에서 잘 해명하였다.

제8차 전국연극축전은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주체적인 연극리론을 옹호고수하고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의 연극예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강성대국건설에 떨쳐 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힘 있게 고무추동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축전총화모임이 10월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축전에서 당선된 단위들은 다음과 같다.

△단체상

－장막극
2등:인형극《봉선화》평양인형극단
－단막극
2등《네번째 술잔》황해북도예술단
3등《경고》인민보안성협주단
《추운 날》함경북도예술단

△개인상

문학상 김 영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연출상 황동욱 평안북도예술단 연출가
연기상 변준신 황해북도예술단 배우
박경순 〃 〃
리복순 평안북도예술단 〃
강 길 〃 〃
홍란희 평양인형극단 〃
미술상 차승례 인민보안성협주단 미술가
음악상 리종석 함경북도예술단 작곡가

전국악기품평회 진행

전국악기품평회가 지난 9월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전국의 악기공장들과 기관, 기업소의 생필직장, 개별적인 악기제작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품평회에는 전문가용악기 24점, 대중용악기 56점이 출품되였다.

품평회에서는 우수한 악기들을 출품하여 당선된 공장들과 개별적인 악기제작자들에게 단체상과 개인상, 공로상, 제작상이 수여되였다.

당선대상은 다음과 같다.

△단체상

평양악기공장
평양민족악기공장

전천청년악기공장

△개인상

권학순 홍원영예군인사적지기념품공장
박성규 홍원군 문화회관
김재현 평양악기공장
장철재 개성악기공장
김승근 함흥악기공장
권영묵 평양민족악기공장

△공로상

김민희 평양민족악기공장 지배인
윤태근 평양악기공장 과장
한철용 홍원영예군인사적지기념품공장 부원
김성환 개천영예군인악기공장 기사장
김건식 서흥악기공장 부원

악기품평회는 우리 나라 악기생산수준을 한계단 더 높여 주체예술의 화원을 더욱 활짝 꽃 피울수 있게 하는 훌륭한 계기로 되였다.

《아리랑축전》진행

일본에서 발행되는《조선신보》에 의하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조일우호와 친선을 주제로 한《아리랑축전》이 5월 16일 일본 도꾜의 신쥬꾸역전광장 일대에서 진행되였다.

축전에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서만술제1부의장, 허종만책임부의장, 권순휘부의장, 사무총국장, 국장들, 총련 도꾜도본부 위원장, 총련 신쥬꾸지부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이 재일동포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축전개회식에서 축전실행위원회 구본현위원장과 그리고 일본 중의원 의원 가이에다 방리, 일조문화교류협회 리사장 하야시 로쇼를 비롯한 일본인사들이 발언하였다.

축전장에서는 금강산가극단과 지방가무단의 예술공연과 조선학교 학생들의 가두공연활동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최청희독창회 진행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동안 윤이상음악당에서는 평양시내 예술인들과 음악애호가들의 커다란 기대속에 공훈배우 최청희독창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올해 61살인 그는 현재 황해북도예술단의 민요가수로 있다.

주체43(1954)년 3월에 평양종합예술학교(오늘의 평양음악무용대학)에 입학한 그는 전승의 기쁨을 안고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한 개교식에서 노래를 부르는 영광을 지니였으며 주체46(1957)년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제6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조선청년학생대표로 참가하였다.

그후 주체49(1960)년에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졸업한 그는 주체51(1962)년에 공훈배우의 영예를 지니였으며 주체50(1961)년 9월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를 기념하여 진행한 공연에서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노래를 잘 불렀다는 높은 치하를 받았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여러차례 공연을 하는 영광을 지닌 그는 그때마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최청희동무가 노래를 잘 부른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 은정에 보답할 일념을 안고 그후 수많은 노래를 불렀고 재능 있는 민요가수들을 많이 양성하였다.

독창회무대는 그가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공연하는 자리에서 불렀던 노래《모란봉》과《오직 한마음》으로 시작되였다.

또한《아리랑》,《양어장처녀》,《그네 뛰는 처녀》에 이어《수령님을 노래하네》,《정일봉은 제일봉일세》,《도천리의 5월단오》,《대홍단삼천리》들이 무대에 올랐다.

이밖에도 제자들이 부르는 녀성3중창《서도아리랑》,《행복의 닐리리》와 혼성2중창《우리 장단이 좋아》,《우리를 당할 자 없다네》, 제자들과 함께 부른 녀성5중창《그이 따라 나갈 때》,《자랑하세 천하제일명장》들이 올라 관중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환갑이 지난 그가 맑고 부드러우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흥취나게 노래를 부르는것을 본 관람자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홍정화독무회 진행

7월 16일 4.25문화회관 1,100석극장에서는 인민배우 홍정화독무회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해 8월에 인민군협주단 안무가 홍정화동무가 생일 60돐을 맞는다는것을 보고 받으시고 생일을 계기로 그의 독무회를 조직해 주자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는 어릴 때부터 무용을 잘하여 세계적으로 소문을 낸 좋은 동무라고, 배우들의 생일 60돐이나 70돐을 계기로 독창회나 독주회를 하는것은 많지만 생일 60돐을 계기로 독무회를 하는것은 흔치 않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그의 독무회를 텔레비죤방송과 출판물을 통하여 널리 소개선전할데 대한 은정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였다.

이런 사랑과 은정속에 마련된 독무회의 무대에는 홍정화동무가 창작한 9개의 무용작품들이 올랐다.

자신이 창작하고 출연한 독무《북춤》, 민속무용《3인무》, 독무《장고춤》, 쌍무《목동과 처녀》, 독무《나의 초소》, 독무《환희》에서 그는 청춘의 패

기와 열정을 가지고 무용형상을 재치 있고 기백 있게 함으로써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사실 집에 앉아서 손자들의 엉치를 두드려 주면서 할머니란 말을 들을 나이에 청춘의 활력을 지니고 무용창작도 하고 출연도 한다는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겠다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을 가슴에 품고 창작창조사업을 해온 그였기에 100여편이나 되는 무용작품을 창작할수 있었고 제7차, 8차, 9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 창작품들인《환희》,《목동과 처녀》,《북춤》,《3인무》,《청춘의 기쁨》,《고난의 행군》을 가지고 무용예술축전무대에 출연하여 금메달들을 쟁취하고 조국의 영예를 온 세상에 빛내일수 있었다.

독무회무대에는 또한 그가 창작한 녀성군무《친애하는 그이 품에 안긴 이 행복》, 2인무《할머니와 병사》, 남성군무《우리는 조국의 수호자, 행복의 창조자》가 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재능있는 무용배우로, 안무가로 성장한 그의 독무회를 보면서 관람자들은 한생을 변함없이 위대한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혁명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 갈 마음속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오매훈독창회 진행

곡절 많은 인생길을 거쳐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 주신 정치적생명을 다시 되찾고 은혜로운 **김정일**장군님의 품속에 안긴 평양음악무용대학 성악학부 교원인 공훈배우 오매훈의 독창회가 8월 중순에 모란봉극장에서 3일동안 진행되였다.

나라 없던 지난 날 평양과 서울, 일본 등지로 정처없이 방황하며 꿈결에도 노래를 불러 보던 어제날의 소년로동자였던 오매훈동무,

당과 조국의 품속에서 그는 재능 있고 관록 있는 성악가로 자라났다.

독창회무대에서 그는 자기를 키워 주고 내세워 주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한 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담아 첫 노래로 불후의 고전적명작《**충성의 노래**》와《매혹》을 불렀다.

숭엄하고 절절한 감정세계에 젖어 격조높이 부른 이 노래들에 이어 그는 45년전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참 잘 부른다는 높은 평가의 교시를 받은 노래《내 나라》를 불렀다.

또한《아리랑련곡》,《전호속의 나의 노래》,《압록강 2천리》를 비롯한 여러편의 노래들과 영화주제가들도 풍부한 형상력을 발휘하여 인상 깊게 불렀다.

그가운데서도 그가 부른 노래《압록강 2천리》는 관중들에게 강렬한 여운을 남겼다.

이 노래는 10여년전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은정깊은 말씀을 받아 안은 잊을수 없는 곡들중의 하나이다.

언제인가 다른 가수가 부르는 이 노래를 들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노래는 오매훈동무가 제일 잘 불렀다고 뜻 깊은 회억의 말씀을 주시였던 것이다.

한가슴에 가득히 넘쳐 나는 위대한 사랑과 믿음을 안고 오매훈동무는 수십여년전에 즐겨 부르던 노래, 일부 편협한 일군들의 처사로 하여 10년간의 림산로동을 할 때 마음속으로 불러 보고 또 불러 보던 이 노래를 뜨거운 격정을 안고 흥취나면서도 건드러지게 그리고 랑만적으로 힘 있게 불렀다.

그는 한생에 처음으로 올라 보는 독창회무대에서《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치리》와《하늘처럼 믿고 삽니다》,《혁명의 승리가 보인다》와 같은 노래들도 품위 있게 형상하여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랑스러운 첫 걸음을 뗀 인생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 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께 영원히 충성 다해 갈 결의를 다지고 또 다졌다.

독창회에는 오매훈동무와 함께 20대, 30대 시절에 예술창조활동을 힘 있게 벌려 온 공훈배우들인 오영애, 김점순동무들과 오매훈동무의 제자들로서 오늘은 주체의 음악예술인후비양성사업을 함께 해나가고 있는 인민배우들인 전우봉, 김승연, 손대원동무들이 참가하여 무대를 더욱 특색 있고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리건우음악회 진행

작곡가 리건우음악회가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윤이상음악당에서 진행되였다.

그의 생일 80돐을 계기로 성황리에 진행된 음악회는 지난해에 세상을 떠난 작곡가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마련된것으로 하여 관중들로 하여금 크나큰 격정에 휩싸이게 하였다.

문화성 송석환부상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군들과 시내 근로자들, 예술인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또한 조국에 체류하고 있던 작곡가 윤이상의 부인 리수자선생이 음악회를 관람하였다.

음악회무대에는 작곡가 리건우의 많은 작품들중에서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 진 가요음악들과 기악작품들이 올랐다.

합창《인민의 어버이수령님》, 녀성고음독창《동백꽃》, 남성민요독창《몽금포의 배노래》, 바이올린독주《행복한 마을에서》, 아동합창《소년빨찌산의 노래》,《우리도 총폭탄되리라》등의 작품들은 우리 안민들속에 널리 알려 지고 즐겨 부르는 음악들로서

작곡가 리건우의 뛰여 난 음악적재능과 심오한 창작세계를 그대로 잘 보여 주었다. 특히 남성고음독창《통일의 봄맞이》, 녀성중음독창《북녘하늘 바라보며》등의 작품들은 남조선출신의 음악가인 리건우의 숭고한 조국애와 열렬한 조국통일지향도 훌륭히 펼쳐 보였다.

윤이상음악연구소 관현악단연주가들과 국립민족예술단 예술인들의 합동공연으로 진행된 이번 리건우음악회는 이름 있는 배우들과 많은《2.16예술상》수상자들이 출연하고 특히 평양인흥고등중학교 학생들이 부르는 아동합창종목이 배합된것으로 하여 매우 뜻 깊고 이채롭게 진행되였다.

공연을 통하여 사람들은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였던 작곡가 리건우의 한생을 더듬어 보면서 한 작곡가의 음악창작성과를 귀중히 여기시여 그의 음악회를 가지도록 하여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을 가슴 뜨겁게 느끼였다.

리정언음악회 진행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동안 동평양대극장에서 인민예술가 리정언음악회가 진행되였다.

음악회에서는《**김일성상**》계관인, 인민예술가였던 작곡가 리정언이 창작한 수많은 음악작품들중에서 10여편의 노래가 연주되였다.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 진 작곡가 리정언의 창작활동은 그가 공화국의 품에 안긴 그때부터 시작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남반부에서 기악연주가생활을 하다 찾아 온 그를 사랑의 넓은 품에 안아 주시고 그의 희망대로 마음껏 작곡을 하며 재능을 활짝 꽃 피우도록 보살펴 주시였다.

그는 받아 안은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언제나 잊지 않고 창작활동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쳤다.

그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싸우는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을 전쟁승리에로 힘 있게 고무하는 노래들을 지었고 전후와 사회주의건설시기에는 수많은 명곡들을 창작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끝 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그의 창작적재능은 예술의 영재이시며 스승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믿음과 사랑, 지도속에서 더욱 활짝 꽃 펴났다.

리정언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노래한 가요를 비롯하여 혁명전통주제의 노래, 조국애를 심어 주는 작품, 혁명가극의 노래 등 다양한 주제, 다양한 양상의 음악작품들을 창작하였다.

녀성독창과 합창《해 솟는 백두산아 영광 빛나라》로 시작된 음악회에서는《온 세상에 만발한 **김일성화**》,《사랑의 길우에 눈이 내리네》,《삼지연》,《소백수의 밤》,《2월의 아침》등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노래한 작품들이 올랐다.

이밖에도 무대에는《전사의 소원》,《만수대의 목란꽃》,《초병》,《사회주의락원일세》,《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자》,《전투에서 전투에로》등 다양한 주제의 노래들과 불후의 고전적명작《**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꽃 파는 처녀》에 나오는 노래《검은 구름 몰려 오고 번개치는데》, 혁명가극《밀림아 이야기하라》중에서《세상사람 모두다 믿지 않아도》가 올랐다.

무대에는 인민예술가들인 신경학, 조정림, 인민배우들인 주창혁, 로용권, 김창룡, 조혜경, 리영욱, 공훈예술가 김일진, 공훈배우들인 허광수, 안화복, 윤희숙, 백정숙을 비롯한 만수대예술단의 관록있는 예술인들과 재능 있는 배우들이 나와 합창, 중창, 독창 등으로 작품의 형상을 더욱 돋구어 음악회에 대한 인상을 깊게 하였다.

무대예술부문소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대예술단 예술인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중국방문공연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만수대예술단 예술인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이 1월 8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이곳 창작가, 예술인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김기남동지가 전달하였다.

이어 만수대예술단 단장 리학범, 배우 윤희숙, 연

주가 신병현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감사를 받아안은 영광과 기쁨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번에 자기들이 중국방문공연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불후의 고전적명작《**꽃 파는 처녀**》를 온 세계가 다 알고 경탄하는 위대한 혁명가극으로, 주체문학예술의 만년재보로 되게 하여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주체예술의 보물고를 빛내여 나가는 **김일성**조선의 예술인 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중국방문기간 6만여명의 관람자들을 대상으로 수십회의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말하였다.

혁명가극《꽃 파는 처녀》공연이 중국인민들의 심장을 틀어 잡고 파문을 일으킬 때마다 위대한 명작을 시대의 기념비적걸작으로 빛내여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한 없는 그리움과 고마움에 격정을 금할수 없었으며 예술적재능의 나래를 활짝 펴도록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 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다시금 깊이 절감하군 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기대가 담겨져 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에 충성으로 보답할 결의를 피력하였다.

그들은 앞으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문학예술부문에 이룩하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시대정신을 반영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들과 인민들이 사랑하는 명곡,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 주요단위들에 나가 화선식정치선전, 경제선동을 힘 있게 벌려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에 떨쳐 나선 인민들과 군인들을 적극 고무추동함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의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라고 토론자들은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문화성, 피바다가극단, 평안남도예술선전대 경제선동대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승리자동차종합공장에 나가 경제선동활동을 힘 있게 벌린 문화성, 피바다가극단, 평안남도예술선전대 경제선동대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 나선 승리자동차종합공장 로동계급을 적극 고무할 한마음안고 이곳에 달려 간 경제선동대원들은 도착한 첫날부터 들끓는 일터마다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였다.

이들은 혁신자축하모임, 출근길정문환영, 전투속보발간, 가정방문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혁신과 위훈창조에로 힘 있게 고무추동하였다.

경제선동대원들은 또한 로동자들속에서 노래, 군중무용보급사업도 진행하였으며 자기들의 지성이 어린 지원물자들도 넘겨 주는 아름다운 소행을 발양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이 8월 12일과 13일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였다.

모임들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평안남도당위원회 리길송책임비서 등 관계부문 일군들, 경제선동대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경제선동대원들에게 보내신 감사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일찌기 사회주의건설에서 경제선동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독창적인 경제선동방침을 제시하시고 경제선동활동의 내용과 형식, 방법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시여 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게 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를 받들고 모든 경제선동대원들이 결사관철의 정신, 강계정신으로 자동차생산을 다그치도록 생산자대중속에서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려 성과를 거둔데 언급하고 응당 할 일을 한 자신들이 커다란 영광을 지닌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의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제2의 천리마대진군으로 들끓는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서 경제선동대활동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도록 하는데 이바지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준마를 타고 구보로 내달려 시대와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명작창작에서와 경제선동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경제선동활동을 힘 있게 벌린 시, 군 기동예술선동대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경제선동활동을 힘 있게 벌린 시, 군 기동예술선동대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전국각지에서 달려 온 21개의 시, 군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고속도로건설장에서 항일유격대식경제선동활동을 진공적으로 벌려 청년돌격대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불러 일으켰다.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건설장 이르는 곳마다에서 항일유격대식으로 천막을 치고 침식을 하면서《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에서 모두다 청년영웅이 되자》,《조국과 민족의 영예를 빛내인 정성옥선수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 배워 고속도로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하자》등의 선동연설과 전투적인 노래로 돌격대원들의 열의를 높여 줌으로써 전반적인 공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이 9월 20일 고속도로건설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문화성 조찬구부상, 관계부문 일군들, 시, 군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모임에서는 만포시기동예술선전대 대장 박재수, 만경대구역기동예술선전대 대원 김영춘, 개천시 방송선전차 방송원 류상화가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감사에는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앞으로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더욱 힘차게 불러 일으킬것을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 져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오늘의 영광과 기쁨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자신들을 위대한 **김정일**사상의 절대적인 숭배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로, 리수복형의 육탄영웅, 길영조형의 자폭용사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 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농업과 전력, 석탄과 금속, 철도운수를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중요단위들에서 정성옥선수의 높은 충성심과 투쟁정신을 따라 배우기 위한 경제선동활동을 더욱 참신하게 벌려 나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당면하여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제때에 실속 있게 끝내기 위한 투쟁에 떨쳐 나선 농업근로자들속에서 경제선동활동을 진공적으로 벌려 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해 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경제선동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여러 단위들에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제선동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중앙예술단체예술인경제선동대, 문화성 경제선동대, 자강도예술선전대, 중앙예술인경제선동대, 륙해운성 자동차운수관리국 기동예술선동대와 철도성 예술선전대, 평양철도국과 청진철도국 녀성취주악단, 청진철도국 기동예술선동대에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받들고 만수대예술단, 피바다가극단, 국립민족예술단, 평양교예단, 국립연극단, 국립희극단 예술인경제선동대원들을 비롯한 여러 단위 경제선동대원들은 이해 정초부터 들끓는 현실속에서 혁명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다양한 경제선동활동을 힘 있게 벌리였다.

특히 이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자강땅을 비롯하여 강원도와 평안북도의 토지정리전투장, 덕천과 태천 등지에서 집중적인 경제선동을 진행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제2의 천리마대진군에로 힘 있게 불러 일으키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이 12월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 해당 단위 일군들과 예술인들, 경제선동대원들이 모임들에 참가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총 진군을 힘 있게 다그치고 있는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은정어린 감사를 받아 안은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는것은 전사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우리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 적극적인 선전자, 철저한 관철자로 더욱 억세게 준비해 나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경제건설로선과 경제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힘을 넣으며 구두선동, 직관선동, 예술선동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들을 배합하여 경제선동활동을 힘 있고 기동성 있게 벌려 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군대 정치일군들의 모범을 본 받아 경제선동을 대중의 심장을 울릴수 있게 더욱 전투적으로, 기백 있게 해나감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참된 투쟁의 기수, 진격의 나팔수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국경제선동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생일상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전국경제선동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생일상을 보내시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총 진군을 힘 있게 다그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전국경제선동부문 열성자회의를 마련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회의기간에 60돐을 비롯한 생일을 맞는 79명의 참가자들에게 생일상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생일상이 3월 17일 청류관에서 그들에게 전달되였다.

중앙예술선동사 과장 조기태와 희천시 기동예술선동대 대원 김종식, 삼지연군당 부부장 김영수, 화대군 방송선전차 방송원 남영일, 개천철도국 기동예술선동대 대원 정명순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배려하여 주신 생일상을 받아 안은 참가자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크나큰 행복을 누리게 된 감격과 뜨거운 감사의 정에 넘쳐 있었다.

이들은 지난 기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식 경제선동방침을 높이 받들고 들끓는 현실속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건설에로 힘 있게 불러 일으키기 위한 경제선동사업에 자기들의 모든 힘과 지혜를 바쳐 왔다.

생일상을 받아 안은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강성대국건설에로 힘 있게 불러 일으키는 우리 당 사상전선의 전초병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더욱 훌륭히 수행해 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앙청년예술선전대와 금성제1고등중학교에 보내신 문화기재전달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중앙예술선전대와 금성제1고등중학교에 문화기재들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문화기재들을 전달하는 모임이 9월 25일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리일환1비서 등 관계부문 일군들, 청년중앙예술선전대 창작가, 예술인들, 금성제1고등중학교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문화기재들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그 바쁘신속에서도 이번에 또다시 청년중앙예술선전대와 금성제1고등중학교에 예술선전사업과 학생들의 교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문화기재들을 보내주도록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아 안은 문화기재들마다에는 우리 청소년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낌없이 다 돌려 주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다심한 친어버이사랑과 크나큰 믿음이 뜨겁게 깃들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모든 창작가, 예술인, 교직원, 학생들은 오늘의 이 영광과 행복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예술작품들을 더많이 창작하여 사회주

의대건설장들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더높이 울리여 강성대국건설에 떨쳐 나선 청년들을 영웅적위훈에로 고무추동하며 학생들속에서 예술교육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당의 믿음직한 예술인후비로 준비해 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연구토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문화예술부문 연구토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5돐 문화예술부문 연구토론회가 7월 1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문화예술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인민을 자주정신이 강한 혁명적인민으로 키워 주신 위대한 업적》,《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한 사상은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일관하게 틀어 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광폭정치로 민족의 대단합을 이룩하신 위대한 정치가이시다》,《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리념을 지니시고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세계만방에 빛내여 주신 위대한 애국자이시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평양연극영화대학 강좌장 정병관, 평양음악무용대학 학장 김두일, 국립민족예술단 초급당비서 김룡웅, 조선중앙력사박물관 관장 장정신,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조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인민이 자주정신이 강하고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인민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 가도록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해 오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한 사상이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일관하게 틀어 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을데 대한 문제와 민족허무주의와 복고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등 좌우경적편향들을 극복하기 위한 문제, 민족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하고 옳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주체적인 문화예술건설에서 나서는 원칙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창작가, 예술인들을 따뜻이 손 잡아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날로 로골화되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속에서도 우리의 문학예술이 자기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건전하고 혁명적이며 민족성과 현대성이 잘 결합된 인류시대의 참다운 사회주의적 문학예술로 눈 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오늘의 자랑찬 현실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또한 조국과 민족을 한없이 사랑하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바쳐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온 세상에 빛내여 주신 업적에 대하여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의 원시조를 찾아 주시고 반만년의 민족사를 정립하여 주시였을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곳곳의 력사유적들을 찾으시여 그 성격과 보존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 주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보람찬 문학예술창작의 활무대를 마련해 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창작적나래와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꽃 피워 나가도록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더욱 개화만발하는 주체문학예술의 대화원과 더불어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자애로운 어버이로 영생하고 계신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칭송하여 광복후부터 지금까지 세계 5대륙 170여개나라 진보적인민들이 8만 5,000여건의 흠모도서와 작품들을 창작하여 삼가 드리였거나 신문,방송들에 발표.

그중《**김일성**백과전서》를 비롯하여 1,520여건의 도서와 3만 5,000여건의 시, 노래, 접견회상실기, 수기, 방문인상기 5대륙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40여개 어종으로 창작발표.

어버이수령님 서거이후 5개월동안에만도 세계의 저명한 작가, 예술인들, 각계층 인사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근 200여편의 흠모시가 창작발표.

△ 지난 5년간 어버이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여 우리 시인들이 1,200여편의 시와 300여편의 가사 창작발표.

토론자들은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에서 이룩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 나가며 강성대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시대의 명작창작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해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뜻 깊은 6월 19일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5돐기념 문화예술부문 연구토론회가 6월 9일에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문예총중앙위원회 장철위원장 등 관계부문 일군들, 문화예술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는 주체영화예술건설위업의 생명선》,《수령형상작품창작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세워 주신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에 대하여》,《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노래로 혁명을 이끌어 나가시는 희세의 위인》,《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작가들을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키워 주신 위대한 어버이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부총장 김무전, 만수대창작사 사장 주수용, 만수대예술단 초급당비서 김기철, 피바다가극단 총장 김수조,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보행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일찌기부터 혁명과 건설에서 문학예술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거대한 생활력을 깊이 통찰하시고 이 부문에 대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해 오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문학예술은 인민을 교양하고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불러 일으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영화예술은 지난 30여년간 위대한 변혁의 길을 걸어 왔다고 하면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가 주체영화예술건설위업의 영원한 생명선으로 되는 근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의 세심한 지도와 뜨거운 사랑속에《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의 어려운 시기에도 다부작예술영화《민족과 운명》로동계급편과《밀림이 설레인다》련속부들, 예술영화《줄기는 뿌리에서 자란다》,《당원증》등이 시대의 기념비적작품으로 창작완성될수 있었다고 하면서 우리 영화예술이 걸어 온 빛나는 로정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주체영화예술의 생명선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 준 나날이였다고 강조하였다.

30돐을 맞는 목요기량발표회

주체58(1969)년 6월 14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화음악창작가, 예술인들의 첫 기량발표회를 지도해 주신 그날로부터 30년세월이 흘렀다.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현명한 령도속에 지난 30년간 목요기량발표회는 창작가, 예술인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더욱 높여 주는 위력한 수단의 하나로 될수 있었고 우리의 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수 있었다.

영화 및 방송음악단에서만도 지난 30년간 1,100여회의 기량발표회와 1만 8,000여회의 경제선동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수많은 창작가, 예술인들이 기량수준을 한계단 더 높여 인민의 사랑을 받는 재능 있는 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 인민배우, 공훈배우들로 자라났으며 4만여편의 영화 및 방송음악작품들을 창작하여 주체영화예술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었다.

그들은 계속하여 60년대와 70년대 전반기에 걸쳐 수령형상창조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미술령도업적에 대하여 피력하였다.

특히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숭엄한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도록 하여 주시고 수령님의 태양상과 선전화들을 평양시와 전국의 중요장소들에 정중히 모시도록 하시여 이 땅우에 수령영생위업의 새 력사를 펼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이야말로 주체미술발전사상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특기할 업적으로 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또한 문학예술인들을 언제나 전진하는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 주시고 혁명적예술인으로서의 본분을 원만히 수행해 나갈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사회하에서의 음악의 사명을 독창적으로 밝혀 주시고 혁명적수령관이 튼튼히 선 송가작품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하여 론증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우리 문학은 수령형상문학을 자기의 중심, 중추로 하는 주체의 인간학으로 확고히 전환되여 인류문학의 최정상에 오를수 있었으며 불멸의 혁명문학들을 창작하는 과정에 우리의 작가들은 세계적인 문호들로 성장할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대를 이어 길이 빛내이며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으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무장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로 힘 있게 고무추동하는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제13차 윤이상음악연구토론회 진행

윤이상음악연구소창립 15돐에 즈음하여 제13차 윤이상음악연구토론회가 10월 20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문화성 송석환부상 등 관계부문 일군들과 음악전문가들, 시내 예술인들이 참가하였다.

윤이상선생의 부인 리수자와 그의 딸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윤이상음악의 창작단계와 그 주요특징》,《민족전통과 윤이상음악》,《윤이상음악의 음향수단》,《작곡가 윤이상의 자서전적인 작품〈첼로협주곡〉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학사 장영철, 박사 리창구, 연구사 허창활, 학사 김성률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윤이상음악의 민족성과 혁신성, 심오성, 그 기법과 수법의 다양성, 풍부성에 대하여 깊이 있게 해설론증하였으며 조국통일과 민족의 단합을 위한 음악활동을 벌려 현대음악의 경지를 개척한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선생의 애국애족적인 창작활동을 높이 평가하였다.

기념보고회 진행

평양음악무용대학창립 50돐을 맞으며

평양음악무용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가 3월 23일에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관계부문 일군들과 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평양음악무용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보고회에서는 대학학장 김두일의 기념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지난 기간 대학이 우리의 무대예술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한몫하는 창작가, 예술인들과 뛰여 난 예술적재능과 기량을 가진 독연가를 수많이 키워 내는데서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주체적인 예술교육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대학의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의 주체적인 예술교육사상과 불멸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이며 일편단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만을 굳게 믿고 음악과 예술로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충신, 열렬한 애국자로 튼튼히 준비해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자강도예술단창립 50돐을 맞으며

자강도예술단창립 50돐 기념보고회가 4월 1일 도당회의실에서 진행되였다.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연형묵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예술단 창작가, 예술인들,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자강도예술단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연형묵동지가 전달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자강도당위원회 비서 박초영의 기념보고에 이어 도예술단 부단장 김욱, 연출가 장철원, 배우 오정숙이 토론을 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만수대예술단조직 30돐을 맞으며

만수대예술단조직 30돐기념보고회가 9월 28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장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라고 쓴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만수대예술단 창작가, 예술인들, 평양시내 문학예술부문 일군들, 창작가, 예술인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자랑스러운 30년

-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당 및 국가행사공연 근 220회 진행
-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 460여회
-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 2,160여건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직접 공연을 지도해 주신 날자 근 330일
- 국내공연 근 5,300회
- 대외행사공연 500여회
- 《**김일성**훈장》수훈자,《**김일성**상》계관인을 비롯하여 배출된 인민예술가, 인민배우, 공훈예술가, 공훈배우 110여명
- 국제콩쿨수상자 및《2.16예술상》수상자 수십여명

보고회는《김정일장군의 노래》합창으로 시작되였다.

보고회에서는 만수대예술단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김기남동지가 전달하였다.

이어 만수대예술단 리학범단장이 기념보고를 한 다음 부단장 허금종, 부원 오필배, 작곡가 한성회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예술단조직 30돐을 맞이하는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보내주시고 은정깊은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여기에는 지난 30년간 당과 함께 걸어 온 만수대예술단의 자랑찬 승리의 로정과 사업성과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평가와 앞으로도 당의 의도를 훌륭히 실현해 나갈것을 바라시는 두터운 신임과 기대가 깃들어 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지난 30년간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손길아래 예술단이 걸어 온 자랑찬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았다.

그들은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마련되던 력사적시기인 주체58(1969)년 9월 27일 위대한 장군님의 발기와 구상에 의하여 만수대예술단이 조직됨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문예방침이 더 잘 관철되게 되였으며 우리의 문학예술은 당과 수령, 인민을 위한 참다운 주체의 문학예술로 더욱 강화발전되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예술단이 걸어 온 력사의 갈피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령도가 뜨겁게 아로새겨 져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예술창조의 직접적담당자들인 창작가, 예술인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워 주시고 우리의 예술을 세계최고봉의 예술의 지위에 올려 세워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30년간 만수대예술단에서는 수백회의 중요행사공연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으며 문학예술작품창작과 창조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말하였다.

예술단이 이 기간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절세의 위인상을 보여 주는 송가작품들을 비롯한 수 많은 노래, 무용, 기악곡들을 창작공연하였으며 특히 1,200여회에 걸치는 혁명가극《꽃 파는 처녀》의 국내외공연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주체예술의 위력을 과시하고 당과 수령의 위대성선전에 적극 기여한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 5년간《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선군혁명령도로 낮과 밤을 이어 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여러차례 예술단사업을 료해하시고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높은 신임을 안겨 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만수대예술단은 이 나날에 영예의《**김일성**훈장》을 수여 받았으며 창작가, 예술인들속에서는《**김일성**훈장》수훈자,《**김일성**상》계관인, 인민예술가, 인민배우들이 수많이 배출되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만수대예술단이 이룩한 성과는 전적으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의 결과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탁월한 문예사상리론과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모두를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 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전체 참가자들의 열화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감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사상사업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주제의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예술단앞에는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인민을 제2의 천리마대진군에로 힘 있게 고무추동하는 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공연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장군님께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장군님을 한목숨 바쳐 보위하는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창작가, 예술인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만수대예술단에 쌓으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 나가며 집단안에 혁명적인 창작창조기풍이 차넘치게 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창작가, 예술인들은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 가 생활을 체험하고 창작창조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주제로 한 예술작품을 창작창조하는것은 예술단이 틀어 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당과 수령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폭 넓고 깊이 있게 형상한 명작들을 더 많이 내놓아 강성대국건설을 위하여 구보로 달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줄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 반드시 승리한다는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혁명적락관을 반영한 노래들을 창작창조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 깊이 간직하게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 모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감으로써 만수대예술단이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하며 예술단을 이름 높은 예술단으로 끊임없이 빛내여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윤이상음악연구소창립 15돐을 맞으며

윤이상음악연구소창립 15돐 기념보고회가 10월 19일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강능수문화상 등 관계부문 일군들과 윤이상음악연구소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윤이상선생의 부인 리수자와 그의 딸, 윤이상음악연구소 부소장인 재일조선예술연구소 리철우소장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윤이상음악연구소 최창일소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윤이상음악연구소가 지난 15년간 음악연구 및 보급선전활동과 공연활동을 줄기차게 벌려온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연구소의 창립과 발전에 돌려 주신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윤이상선생이 해외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의로운 창작활동을 벌리고 있는것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그를 만나주시고 유럽의 현대음악계에서 민족의 재능을 떨쳐가고 있는데 대하여 치하도 하시고 조국의 음악발전을 위하여 한몫하라고 크나큰 믿음도 안겨 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주체73(1984)년 9월 윤이상선생과 그의 부인을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에 민족음악연구소를 내왔으면 하는 그들의 소청을 들어 주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음악연구소를 내올데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주체73(1984)년 9월 27일 새로 조직되는 음악연구소를《윤이상음악연구소》로 부르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고 보고자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주체76(1987)년 10월 5일은 연구소일군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잊을수 없는 영광의 날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윤이상음악회에 참석하시여 교성곡《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의 공연을 보아 주시고 작품에 반영된 윤이상선생의 애국의 넋과 통일의지를 높이 평가해 주시였으며 겨레의 통일운동이 그 어느때보다 앙양되고 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윤이상음악회를 통일념원의 음악축전으로 더욱 성대하게 조직할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윤이상음악연구소를 나라의 음악예술발전과 조국통일위업에 보다 적극 기여하는 강력한 통일음악교류기지로 튼튼히 꾸려 주시기 위하여 윤이상관현악단을 새로 내오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데 대하여서와 수도에 윤이상음악연구소청사와 윤이상음악당을 건설하여 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17차례의 자랑스러운 년륜을 새긴 윤이상음악회가 국제적성격을 띤 품위 있는 음악회로 내외에 알려 졌으며 음악연구토론회들과 출판보급선전, 공연활동에서 연구소가 이룩한 성과들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 따라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 있게 벌려 주체의 강성대국건설과 주체적음악예술발전,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과학연구사업과 공연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기 위한 과업들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평양음악무용대학 현지지도 30돐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평양음악무용대학 현지지도 30돐기념보고회가 10월 22일에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강능수문화상, 문화성당위원회 조민제비서 등 관계부문 일군들,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평양음악무용대학 초급당비서 리호원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온 나라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북소리 높이 울리며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고 있는 시기에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크나큰 감격과 기쁨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을 현지지도하신 30돐을 뜻 깊게 기념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감격도 새로운 주체58(1969)년 10월 2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음악무용대학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력사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창작집필한 각종 교재곡집들과 여러가지 개량악기들 그리고 대학창립 20돐경축공연을 보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우리 혁명과 주체예술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학사업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음악무용은 민족적이고 혁명적이면서도 예술적형상이 높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학이 학생들을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높은 예술적기량을 소유한 예술인들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였으며 교직원,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어 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날 학생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적 예술인으로 키우는데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 주시였으며 어버이수령님의 뜻대로 대학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지도하신 그때로부터 대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80여차례 강령적인 말씀을 주시여 대학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 나가도록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쳐 오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립하여 주신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예술교육의 최고전당, 나라의 주체예술발전을 담당한 예술인후비를 키우는 원종장으로 더잘 꾸리시기 위하여 570여점에 달하는 훌륭한 각종 악기들과 교육설비들을 보내주시였으며 교직원, 학생들의 사업과 생활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 주시였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지난 30년동안 대학의 교육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계속 철저히 관철하며 우리 당의 주체적 문예사상과 리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대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 주신대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며 교원, 연구사들이 교육사업과 함께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학생들이 폭 넓고 깊은 지식과 훌륭한 예술적 기량을 소유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교직원, 학생들이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사적이 깃들어 있는 대학을 더잘 꾸리며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국가표창수여

자강도예술선전대 배우부부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

자강도예술선전대 배우 리옥실, 김인복부부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는 모임이 3월 20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전국경제선동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랑독된 다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예술선전대원으로 오래동안 사업하면서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경제선동을 힘 있게 벌림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로 불러 일으키는데 크게 이바지한 그들에게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낫) 및 국기훈장 제1급이 수여되였다.

모임에서는 리옥실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평범한 부부경제선동대원들의 활동정형을 료해하시고 한날한시에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격에 넘쳐 말하였다.

자기들이 지난 25년간 경제선동의 길에서 적으나마 성과를 거둘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독창적인 경제선동방침을 제시하시고 자기들을 그 앞장에 내세워주시고 이끌어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결과이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그는 오늘의 이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앞으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 주신 강성대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농업전선과 전력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부문에 달려 나가 힘 있는 경제선동으로 이르는 곳마다에 수령결사옹위의 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이 꽉 들어 차게 함으로써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국경제선동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 대한 국가표창수여식 진행

전국경제선동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 대한 국가표창수여식이 3월 1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회의

참가자들이 수여식에 참가하였다.

수여식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랑독된 다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중요부문의 생산현장에 나가 경제선동사업을 힘 있게 벌림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 일으키는데 이바지한 선전, 선동담당 일군들과 경제선동대원들에게 국가표창이 수여되였다.

수여식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이 8월28일공장 방송선전차 방송원 김성금에게,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표창장이 철도성예술선전대 과장 주봉남에게 수여되였다.

또한 평안남도예술선전대 배우 동성일을 비롯한 4명에게 공훈배우칭호가, 검덕광업련합기업소 방송선전차 방송원 김성헌을 비롯한 3명에게 국기훈장 제1급이 그리고 많은 회의참가자들에게 훈장과 메달이 수여되였다.

수여식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선물이 회의참가자들에게 전달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다그쳐 나가기 위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더욱 높이 울려 나감으로써 당의 믿음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해 나갈 불 타는 결의에 넘쳐 있었다.

국립희극단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국가표창 수여

국립희극단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국가표창이 수여되였다.

국립희극단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 기간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희극작품들을 많이 창작공연하여 우리 인민에게 혁명적락관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 주고 강성대국건설에 떨쳐 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고무추동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수여식이 12월 2일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수여식에는 강능수문화상, 관계부문 일군들, 국립희극단 일군들과 종업원들, 평양시내 문화예술인들이 참가하였다.

수여식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랑독된 다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예술부문에서 오래동안 일하면서 당정책직요구를 훌륭히 반영한 수많은 희극작품들을 창작공연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제2의 천리마대진군에로 불러 일으키는데 이바지한 국립희극단 배우 손원주에게 인민배우칭호가, 배우 리문호에게 공훈배우칭호가 수여되였다.

또한 연출가 김천, 과장 김철기에게 로력훈장이, 작가 전봉국외 2명에게 국기훈장 제2급이 수여된것을 비롯하여 많은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훈장과 메달이 수여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국립희극단에 보내주신 선물이 전달되였다.

수여식에서는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오늘의 이 영광, 이 기쁨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제2의 천리마대진군으로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혁명적신념과 락관을 안겨 주고 그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부르는 참신하고 생동한 희극작품들을 더많이 창작공연함으로써 당의 믿음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해 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만수대예술단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국가표창 수여

만수대예술단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국가표창이 수여되였다.

만수대예술단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많이 창작공연하고 화선식 경제선동을 힘 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로 불러 일으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수여식이 12월 7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수여식에는 강능수문화상, 만수대예술단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참가하였다.

수여식에서는 예술부문에서 오래동안 일하면서 당의 문예정책관철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배우 윤희숙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이, 작곡가 김윤붕, 지휘자 신경학에게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표창장이 수여되였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이 랑독된 다음 작곡가 김건일에게 인민예술가칭호가, 배우들인 리영욱, 조혜경에게 인민배우칭호가, 연주가 김행일, 배우 박계수에게 공훈배우칭호가, 배우 주창혁외 4명에게 국기훈장 제1급이 , 배우 김금이외 8명에게 로력훈장이 그리고 많은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훈장과 메달이 수여되였다.

수여식에서는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당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를 언제나 잊지 않고 혁명적인 창작예술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림으로써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는 력사적위업에 참답게 이바지해 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희극《동지》에 인민상 수여

경희극《동지》에 인민상이 수여되였다.

경희극《동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동지애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한 인민군대의 참모습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함으로써 군인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수여식이 12월 16일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 진행되였다.

수여식에는 조선인민군 박재경대장과 촬영소 일군들, 예술인들이 참가하였다.

수여식에서는 인민상을 수여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랑독된 다음 경희극《동지》에 인민상 상장이 수여되였다.

경희극《동지》창작공연에서 공로를 세운 배우 현창걸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이, 배우 림영호에게《**김일성**청년영예상》이, 록음사였던 유한걸에게 로력훈장이 그리고 많은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훈장과 메달이 수여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오늘의 이 영광, 이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혁명군대의 전투적예술부대답게 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로 불러 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해 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수여식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경희극《동지》공연 성황리에 진행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 창작한 경희극《동지》공연이 수도의 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의 절찬을 받으며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친히 보아 주시고 사상예술적으로 손색이 없고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하신 경희극《동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병사대중속에 깊이 들어 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전사들을 따뜻이 보살펴 주는 인민군지휘관들의 고상한 혁명적동지애를 숭고한 예술적화폭으로 펼쳐 보여 주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은 정치사상적우월성에 있으며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혁명대오의 동지적인 단결입니다.》

경희극은 인민군대안에서 관병일치의 미풍을 더욱 활짝 꽃 피워 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를 받들고 주인공이 자기의 첫 사단장사업을 설봉초소의 병사들속에 들어 가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초소에 도착한 그는 소대장에 대한 고까운 생각을 품고 고민하다가 징후판단을 잘못하여 전투근무에서까지 제명 당한 상급병사 지일섭과 무턱대고 추궁부터 앞세우는 분대장의 욕을 삭이지 못해 하는 신입병사 방시남 등 각이한 성격의 병사들과 함께 병사생활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 그는 관병일치에서 기본은 군관, 사관사이의 관계문제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의 정당성을 심장으로 깨달으면서 지휘관들이 병사들을 어떻게 대하고 사랑해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 준다.

부모없이 남의 집에 홀로 두고 온 누이동생생각을 하면서 남 몰래 속을 쓰고 있는 신입병사의 마음속고충과 어릴적부터 영예군인인 아버지의 삼륜차를 밀어 주며 한생 군복을 입고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다하리라고 맹세도 컸던 상급병사의 속마음도 다 헤아려 보며 사랑과 믿음으로 그들을 따뜻이 돌보아 준다.

그의 모습에서 요구성만을 높이면서 병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탓에 물우에 뜬 기름방울처럼 병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속문을 열지 못했던 소대장, 분대장들도 자신들을 심각히 뉘우치게 된다.

그리하여 상급병사 지일섭은 적들이 도발을 걸어온 긴급한 정황속에서 소대장을 몸으로 막아 구원하고 중상을 입으며 소대장은 중태에 빠져 물을 찾는 그에게 자기의 손을 베여 낸 피를 먹여 준다.

부모와 형제간의 혈연적사랑을 초월한 가장 숭고

한 동지적사랑과 혁명적의리의 아름다운 화폭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인덕정치하에서 갈리는 될수 없는 동지관계, 비록 사회적분공과 직위에서는 차이가 있어도 혁명동지로서의 존엄과 인격에서는 누구나 차별없이 존중을 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가슴깊이 느끼였다.

무대에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적들이 지척에 도사리고 있고 금방 놈들의 도발을 물리친 최전연초소의 군인들을 찾아 험준산발을 넘어 오시는 장면이 펼쳐 지자 관람자들은 혁명의 난국을 동지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힘으로 헤쳐 나가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위인적풍모에 눈굽을 적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동지애의 최고화신이시라는것을 뜨겁게 절감하였다.

병사들은 다 나의 동지들이라고, 최고사령관과 병사들과의 관계는 혈연적관계, 동지적인 관계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동지의 세계, 쪽잠과 줴기밥으로 날과 달을 이으시며 선군령도의 순간순간을 혁명적동지애의 가장 아름다운 력사로 수 놓아 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경희극은 이런 장면들을 통하여 온 사회를 하나의 동지의 세계로 만들고 혁명적동지애로 뭉친 단결의 위력으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를 관람자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 주었다.

관람자들은 전군을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위용 떨치게 하는 상하일치, 관병일치의 위력한 정치사상적무기가 있기에 우리 조선인민군은 앞으로도 영원히 승승장구할것이라는것을 힘 있게 노래한 공연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당, 전군, 전민의 위대한 혼연일체의 힘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기어이 건설하고야 말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장에서 경제선동 진행

새해공동사설에 접한 중앙예술단 예술인들과 성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1월 6일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장에서 경제선동을 진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새해벽두부터 충성의 열정으로 세차게 끓어 번지고 있는 건설장을 찾은 예술인들은 청년돌격대원들의 전투적사기를 북 돋아 주는 여러가지 예술소품들로 경제선동의 무대들을 펼치였다.

함경북도, 평안남도, 황해남도려단 청년돌격대원들의 전투장으로 달려 간 만수대예술단, 피바다가극단, 국립민족예술단 예술인들은 그들의 로력적성과를 축하해 주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부르며 강행군으로 최후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를 마련한 지난 한해를 긍지높이 돌이켜 보게 하는 격동적인 선동과 소합창《**김정일**장군의 노래》로 경제선동을 시작하였다.

남성독창《우리 장군님 높이 모시리》, 녀성고음독창《천리마선구자의 노래》,《혁신 앞으로》, 녀성저음독창《황금을 뿌리여도 청춘은 못 사》,《보란듯이》등의 노래들로 엮어 진 공연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운 혁명의 전 세대들이 지녔던 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을 따라 배워 건설장마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도록 청년돌격대원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안겨 주었다.

국립민족예술단 예술인들의 재담《못 본체 하지 맙시다》,《사랑하시라》를 비롯한 화술소품종목들은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랑만과 열정 넘친 생활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는것으로 하여 건설장분위기를 흥겹게 하였다.

이날 륙해운성 무역선대관리국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을 비롯한 성기동예술선동대원들도 량강도, 황해북도, 평안북도, 개성시려단 청년돌격대원들의 건설장을 찾아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였다.

선동과 기악중주《사회주의 지키세》, 재담《우리의 정신》, 녀성기타병창《멈추지 말자》등의 노래들과 선동종목들은 청년건설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 주며 일터마다를 혁명적열정과 기백으로 들끓게 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 체육선수들이 국제경기들에 출전하여 주체조선의 위력을 과시한 체육소식들과 체육인들의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보여 주는 화술소품종목들로 엮어 진 체육성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이채로운 경제선동은 건설자들의 투쟁열의를 더욱 북돋아 주었다.

전국경제선동부문 열성자회의 진행

전국경제선동부문 열성자회의가 3월 1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장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 져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영광스러운 조

선로동당 만세!》라고 쓴 구호들이 회의장에 나붙어 있었다.

회의장에는 또한《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경제선동대원들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진격의 나팔수가 되자!》라고 쓴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김중린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각 도, 시, 군 당 및 중앙기관의 선전, 선동담당 일군들, 모범적인 경제선동대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이어 평안남도당 비서 최창결, 함경북도예술선전대 대장 장성히, 자강도예술선전대 배우 리옥실, 만수대예술단 단장 리학범, 남포시예술선전대 작가 최기준, 검덕광업련합기업소 방송선전차 방송원 김성현, 철도성예술선전대 배우 오성희, 대흥단군 당비서 박준길, 평양시청년동맹 청년기동해설대 대장 오국두, 륙해운성기동예술선동대 대원 배숙, 문화성 경제선동대 대장 전용화, 평양가방공장 초급당부비서 동명수, 통천군 방송선전차 방송원 김금옥,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기동예술선동대 대장 최학현, 남포시 항구구역 갈천협동농장 오금숙, 철도성 정치국 부부장 전춘삼 등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의 전투적호소 따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총 진군을 힘 있게 다그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63(1974)년 3월 7일 불후의 고전적로작**《경제선전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를 발표하신 25돐을 맞으며 전국경제선동부문 열성자회의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고전적로작에서 경제선전선동을 힘 있게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주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신 항일혁명투쟁시기의 군중정치사업의 빛나는 전통과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화선식정치사업 그리고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의 대중정치사업의 경험을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하시여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고 경제건설을 다그쳐 나갈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경제선동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경제선동대원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과 결사관철의 정신을 지니고 우리 당 사상전선의 전초병답게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온 나라에 충성의 열정과 무한대한 창조적힘이 넘쳐 나게 함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힘차게 열어 나가는 투쟁의 기수, 진격의 나팔수가 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무용부문 강습 진행

조선무용가동맹의 주최로 전국무용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을 위한 강습이 5월 중순 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강습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무용예술론》**에서 밝혀 주신 무용작품창작과 창조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와 방도들에 대한 문제들이 취급되였다.

강습참가자들은 현 시기 무용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작완성된 4대명작의 수준에로 모든 작품들을 끌어 올리는데 있다고 하면서 창작실천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피바다가극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을 보아 주시는 자리에서 높이 치하해주신 무용《혁명의 승리가 보인다》,《한치의 땅도 내여 줄수 없다》와 같이 사상성이 뚜렷하고 예술적으로 완벽한 무용소품들을 더많이 창작하며 민속무용춤가락들의 특성을 잘 살릴데 대하여서와 최근 민속무용을 더잘 창작하기 위하여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방도들에 대하여서도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강습에서는 또한 지난 시기 무용소품창작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들도 서로 교환되였다.

문화예술인체육대회 진행

문화예술인체육대회가 11월 23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문화예술인들의 첫 체육대회를 마련하여 주신 30돐을 계기로 진행된 이번 체육대회에 참가한 문화성과 그 산하단위 일군들과 예술인들, 종업원들은 로동과 국방에 더잘 준비되기 위한 전통적인 체육활동을 힘 있게 벌리는 과정에 련마해 온 체육적재능과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롱구, 배구, 국방체육경기와 유희종목경기들이 진행되였다.

당의 문예방침을 빛나게 관철하면서 대중률동체조, 건강태권도 등을 생활화하고 롱구를 비롯한 구기경기들과 국방체육경기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온 여러 단위 일군들과 예술인들, 종업원들은 예선경기들에서 좋은 성적을 쟁취하고 결승경기들에 출전하였다.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영화예술부문이 종합 1등을 그리고 교육 및 혁명사적, 문화유물보존부문과 무대예술 및 미술부문이 각각 2등과 3등을 하였다.

롱구경기에서는 영화예술부문(남자, 녀자)이, 배구경기에서는 영화예술부문(남자)과 문화기자재생산부문(녀자)이, 국방체육경기에서는 영화예술부문이 우승의 영예를 지니였다.

체육대회는 당의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방침을 받들고 예술인들속에서 체육활동이 힘 있게 벌어 지고 있음을 잘 보여 주었다.

한덕수작사가요집 출판기념모임 진행

한덕수작사가요집《우리의 미래는 찬란하다》의 출판기념모임이 9월 11일 일본 도꾜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 서만술제1부의장과 허종만책임부의장, 박재로부의장, 재정위원회 최병조위원장, 리기석사무총국장과 국장들, 재일본문학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김정수위원장, 간토지방의 총련본부 위원장들, 단일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총련일군들과 문예인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서만술제1부의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한덕수작사가요집을 출판할데 대한 크나큰 배려를 돌려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이번 가요집의 출판은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커다란 기쁨이며 자랑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가요집에 수록된 노래에도 있듯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단결하여 나아 가는 동포들의 미래는 찬란하다고 하면서 동포들은 21세기를 향하여 애국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 나가고 있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크게 고무해 주는 이번 가요집을 널리 보급활용하여 동포가 사는 곳곳마다에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며 총련애국사업을 강화발전시켜 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모임에서는 가요집에 수록된 작품들에 대한 감상토론들이 있었다.

모임에서는 한덕수의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친히 가요집의 제목과 편집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데 언급하고 조국에서 출판된 작사가요집을 받아 안게 된것은 자기 인생에서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닐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민족성을 안겨 주자면 우리 말과 력사를 알려 주고 우리 민족문화의 우월성을 잘 배워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애국의 노래, 민족의 노래가 일본땅 방방곡곡에서 소리높이 울려 퍼지리라고 굳게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모임이 끝난후 총련의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기념공연이 있었다.

《조선민요교실》운영

일본 도꾜도내와 간토린근지역을 비롯하여 조선동포들이 사는 일본의 여러 곳에서《조선민요교실》이 활기 있게 운영되고 있다.

녀성동맹 니시도꾜 동부지부에서는 주체87(1998)년 11월부터《조선민요교실》이 열리였다.

초기에 몇명 안되던 수강생들이 점차 늘어 나 한달에 두번씩 열리는《교실》은 매번 흥성거리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배우인 금강산가극단 민요가수 정호월강사는《모란봉》,《아리랑》,《그네 뛰는 처녀》를 비롯하여 민족적정서가 짙은 조선민요를 수강생들에게 배워 주면서 민요가 창작되던 당시의 력사적배경과 가사에 담긴 뜻도 들려 주고 있다.

《조선민요교실》을 통해 수강생들은 민요를 배우고 그에 대한 친근감, 애착을 가지게 되는것은 물론 민족의 넋을 더욱 키워 가고 있다.

이제는 민요를 멋들어 지게 부를수 있게 된 변금련동포는《민요를 통해 새삼스레 우리의 력사를 더듬어 보게 되며 민족의 긍지가 가슴뿌듯이 안겨 와요.》라고 말하였다.

녀성동맹 가나가와현 가와사끼지부 일군들도 민족문화를 발전시켜야 민족성을 지켜 낼수 있다고 하면서 지난 4월부터《조선민요교실》을 열기 시작하여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동포들은 조선민요를 흥겹게 부르면서 세상에 으뜸인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한 끝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총련애국사업에 열정을 다 바쳐 나갈 마음을 굳게 가다듬고 있다.

남조선출판물들 우리의 예술단을 널리 소개

남조선에서 주간잡지《한겨레21》, 신문《대한매일》등 출판물들이 보천보전자악단, 왕재산경음악단을 비롯한 우리의 예술단들에 대하여 널리 소개하고 있다.

출판물들은 보천보전자악단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각별한 관심속에 1985년에 최초의

전자악단으로 조직되였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전자악단의 공연도 자주 보아 주심으로써 악단의 연주곡이나 독창곡, 합창곡 등은 모두가《북을 대표하는 노래》로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출판물들은 보천보전자악단에는 북에서는 물론이고 해외공연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이름난 가수들인 인민배우 김광숙, 전혜영과 공훈배우 리경숙, 리분희, 조금화 등이 있다고 하면서 특히 인민배우 전혜영은《뛰여 난 미모와 가창력, 무대에 서면 유난히 밝은 표정과 다양한 률동》으로 하여《북을 대표하는 최고인기가수로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출판물들은 전혜영이 부르는 노래《휘파람》은《북을 방문하고 돌아 온 남쪽사람들도 입에 익어 흥얼거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출판물들은 또한 보천보전자악단에는 재능 있는 음악창작가들이 있어《휘파람》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명곡들을 많이 창작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창작한 노래《반갑습니다》는 따라 부르기가 쉽고 간절한 통일념원이 담겨 져 있기때문에 북과 남은 물론 해외동포들속에서도 즐겨 부르는《애창곡》으로 되고 있다고 썼다.

출판물들은 왕재산경음악단은 이북에서 보천보전자악단과 함께 가장 인기 있는 예술단의 하나로 되고 있으며 경쾌하고 률동적인 노래들을 많이 부르는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사람의 목소리는 본래부터 아름답다고 하시며 석쉼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지 말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였다고 하면서 그이의 교시를 받들고 이 악단에서는 맑고 밝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출판물들은 썼다.

민요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가락은 옛것을 그대로 두면서도 시대적인 정서를 반영하여 가사들만 바꾸어 부르는것이 많다고 하면서《노들강변》,《양산도》,《밀양아리랑》등은 그 대표곡이라고 출판물들은 지적하였다.

왕재산경음악단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우는 인민배우 렴청이라고 하면서 출판물들은《렴청은 혁명적인 노래들과 민요풍의 노래들을 경쾌하고 빠른 박자로 불러 매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지적하고《물레타령》,《신고산타령》,《까투리타령》등이 그 대표적인 노래들이라고 썼다.

출판물들은 평양교예단에 대하여서도 널리 소개하였다.

출판물들은 평양교예단은 인민군교예단과 함께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북 교예의 쌍두마차》로 불리우고 있다고 하면서 1952년에 설립된 평양교예단은 300여명의 배우들과 연 건평 7만m^2로 수중, 빙상, 공중교예 등을 진행할수 있는 원형무대와 최신식조명시설, 텔레비존중계시설을 갖춘 3,500석 규모의 전문교예극장을 가지고 있다고 썼다.

출판물들은 교예단은 지금까지 1,000여개의 교예종목을 창작하여 국내는 물론 130여개 나라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국제교예축전에서도 여러차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주요공연종목으로는 민속놀이를 소재로 한《바줄타기》,《널뛰기》를 비롯하여《공중3단그네비행》,《원통굴리기》,《바줄우에서 자전거타기》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출판물들은 요술과 동물교예도 수준이 높은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1987년 교예단에 보내주신《팔월》,《구월》,《륙월》이란 이름을 가진 3마리의 애완용개의 교예공연이 매우 인기가 높다고 썼다.

출판물들은《북에서는 **김정일**총비서의 지시로 1972년에 평양교예학교를 설립하고 10살 안팎의 어린이들을 특별히 선발하여 9년과정의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후비양성으로부터 공연에 이르기까지 교예예술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리고 계시는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출판물들은 예술단들을 소개하는 글들과 함께 보천보전자악단, 왕재산경음악단, 평양교예단 배우들의 공연사진들을 함께 편집하였다.

북, 남, 해외통일예술축전 진행

북, 남, 해외통일예술축전이 8월 15일 판문점의 판문각 앞마당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이날 판문점은 대결과 분렬의 상징인 이곳을 민족의 슬기로운 문화전통과 통일열망을 소리높이 노래하는 단합과 통일의 투쟁마당으로 확고히 전환시킴으로써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단군민족의 단일성과 막을래야 막을수 없는 7천만겨레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과시하려는 전체 축전참가자들의 드높은 열의로 세차게 끓어 번지고 있었다.

판문각로대들에는《북, 남, 해외통일예술축전》이라는 글발과 대형조선지도가 나붙어 있었으며 삼색댕기들이 드리워 져 있었다.

축전장은 범민족통일대축전기발과 오색기, 댕기, 고무풍선 등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였으며 곳곳에 우리 겨레의 대단결의지와 조국통일의 신념을 담은 구호판들이 세워 져 있었다.

상공에는《민족자주》,《민족대단결》이라는 글발을 드리운 대형기구가 떠 있었다.

축전에는 북과 남, 해외의 동포예술인들과 축전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정당, 사회단체, 종교단체 책임일군들과 범민족통일대축전 북과 남, 해외 대표들, 개성시내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그리고 대축전명예손님들이 축전공연을 관람하였다.

축전시작을 알리자 아름다운 노래선률이 울려 퍼지는 속에 민속무용《통일줄꽃춤》과《단심줄》이 조화를 이루며 펼쳐 졌다.

무용수들에 의해 조선지도모형밑에 드리운 단심줄의 삼색댕기가 힘 있게 당겨 지자 세송이의 대형꽃송이가 피여 나면서《대단결》이라는 글발이 새겨 지고 오색찬란한 꽃보라, 꽃테프들이 쏟아 져 내렸다.

순간 장내에서는《전 민족대단결 만세!》의 힘찬 구호소리가 터져 올랐으며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우리의 단결은 통일입니다》의 노래를 합창하였다.

축전무대에는 민족의 슬기를 보여 주는 민속교예소품들에 이어 녀성독창과 무용《봉선화》, 민속무용《장고춤》, 혼성중창《통일오작교》, 가무《그네 뛰는 처녀》등 다채로운 예술종목들이 련이어 올랐다.

나라를 빼앗긴 지난 날 망국노의 설음을 노래에 담아 부르며 울고 울던 우리 민족이 오늘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국토량단, 민족분렬의 비극을 놓고 통일을 애타게 찾고 찾으며 부르고 있는 종목들과 다시는 빼앗길수 없는 우리의 문화, 우리의 력사를 아름다운 선률과 흥겨운 춤가락으로 형상한 공연종목들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분위기가 고조되는 속에 해외동포대표들이 무대에 올랐다.

그들이 출연하는 혼성3중창《애국준마 달린다》, 혼성중창《통일의 노래》, 무용《소고춤》, 남성독창《통일의 주체는 우리들이다》등의 종목들이 무대에 펼쳐 질 때마다 참가자들은 그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열광적으로 환호하였다.

이제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분렬의 고통을 두고 하루속히 안아 와야 할 조국통일을 찾고 부르며 북과 남, 해외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부르는 통일노래소리는 7천만 겨레의 피 타는 절규, 통일기원의 열렬한 호소로 뜨겁게 울리며 분렬의 장벽을 넘고 넘어 남녘의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쳐 갔다.

《위대한 내 나라》,《우리를 부러워 하라》,《장군님 모신 자랑 노래 부르자》,《장군님 강성대국 빛내가리라》,《친근한 이름》등 태양민족의 끝 없는 존엄과 긍지, 신념의 맹세가 담긴 성악종목들에 이어 무대에 또다시 다채로운 교예종목들과 농악무가 올랐다.

이어 전체 참가자들은 흥겨운 춤판을 펼쳐 놓았다.

장내에《전 민족대단결 만세!》등의 구호가 연방 터져 오르고《조선은 하나다》의 취주악선률이 울려 퍼지자 참가자들은 민족단합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 땅우에 세계제일의 통일된 강성대국을 기어이 건설해 나갈 불 타는 마음과 마음들을 합쳐 힘차게 노래를 합창하였다.

력사의 땅, 판문점을 뒤흔든 북, 남, 해외통알예술축전은 내외분렬주의세력의 온갖 반통일책동을 과감히 짓부시며 신심과 락관에 넘쳐 민족대단결의 진군, 통일실현의 대장정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려는 7천만 겨레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힘 있게 보여 주었다.

범청학련 통일노래무대 진행

범청학련 통일노래무대가 8월 14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이날 통일무대장소인 청년중앙회관에는 통일애국운동의 믿음직한 선봉대가 되여 조국통일위업에 피끓는 청춘을 바쳐 가는 북과 남, 해외청년학생들의 억센 기상과 랑만이 한껏 넘쳐 나고 있었다.

무대정면에는 범청학련마크와《범청학련 통일노래무대》,《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해 1999. 8. 14 평

양》이라는 글발이 걸려 있었다.

통일노래무대장소에는《범청학련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 앞당기자!》,《북과 남, 해외의 청년학생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기수가 되자!》 등의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으며《민족대단결》,《조국통일》이라는 글발을 드리운 기구들이 떠 있고 갖가지 전광장치들이 화려하게 설치되여 있었다.

범청학련 북측본부 김인호의장, 남측본부《한총련》황혜로대표, 해외본부 고덕우, 강성실 공동의장들을 비롯한 범청학련 북, 남, 해외대표들과 해외동포청년학생들, 시내청년학생들이 통일노래무대에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김영대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류미영위원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오익제부위원장, 사회단체 책임일군들, 대학 총장, 학장들, 범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범민련 남측대표들과 해외동포대표들,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또한 국제적련대성행사들에 참가하고 있는 국제기구 대표들과 지역 및 여러 나라 련대성조직 대표단, 대표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반갑습니다》노래선률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남과 해외의 대표들이 들어 서자 시내 청년학생들이 그들에게 꽃다발을 안겨 주면서 열렬히 환영하였다.

합창과 무용《청년학생통일대축전가》로 시작된 무대에는 통일에 대한 청춘들의 뜨거운 열망이 힘있게 맥박치는 3인시《3자련대, 승리의 포성이여》, 남성5중창《범청학련진군가》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아름답고 박력 있는 선률에 맞추어 장내가 들썩하게 부르는 출연자들의 씩씩한 노래소리를 들으며 관람자들은 내외분렬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통일위업을 위해 힘찬 투쟁을 벌려 가는 북과 남, 해외청년학생들의 불굴의 통일의지와 전투적기개를 뜨겁게 절감하였다.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사는 곳은 서로 달라도 애국의 피가 끓는 민족의 아들딸이기에 대양과 대륙을 넘어 통일의 한마당으로 달려 온 해외동포청년들도 무대에 올라 노래《해빛 같은 미소 그립습니다》,《통일아 통일아》등을 불렀다.

출연자들은 50여년간 흘러 온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을것을 열렬히 호소하는 노래《통일아리랑》,《그리운 강남》,《통일의 날 마중하자》등을 민족기악과 합창으로 무대에 펼쳐 놓았다.

하나된 조국의 평화로운 하늘밑에서 온 겨레가 화목하게 살아 갈 통일의 그날을 간절히 그리며 부르는 출연자들의 노래는 장내를 민족애와 통일열망으로 더욱 끓어 번지게 하였다.

7인시《불굴의 <한총련>》등의 종목들에 이어《한총련》대표가 무대에 나와 7천만 겨레의 통일념원을 안고 범청학련의 기발높이 조국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 가자고 호소하며 노래를 부르자 전체 관람자들은 그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였다.

통일조국이야말로 청년들의 삶이고 미래이며 희망이기에 배움의 교문을 박차고 항쟁의 거리, 투쟁의 거리에 떨쳐 나선 남녘청년학생들의 통일애국의 마음을 담아 부르는《한총련》대표의 노래는 장내를 통일의 분위기로 더욱 설레이게 하였다.

통일의 노래, 투쟁의 노래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고조되였다.

선동과 남성중창《로동당을 잘 만나 청춘이 빛나네》,《웃으며 가자》,《젊음은 급행렬차》,《장군님 백마 타고 달리신다》등의 노래선률이 울려 퍼지고 청춘들의 통일열의가 더욱 높아 가는 속에 참가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온 겨레를 통일애국의 한길로 이끌어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따라 자주의 한길, 통일의 한길로 억세게 걸어 갈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장내에《통일렬차 달린다》의 경쾌한 노래음악이 울리자 참가자들은 서로서로 어깨를 겯고 줄을 지어《통일렬차》를 이루고 달리고 또 달리였다.

《조국통일》,《조선은 하나다》의 힘찬 구호들이 울려 나오는 통일노래무대는 내외분렬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통일위업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는 새 세대 청년학생들의 드팀 없는 투쟁의지와 변함 없는 불굴의 기상을 힘차게 과시하였다.

주체88(1999)년 미술개관

주체88(1999)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여러해째 계속되던《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을 이룩한 력사의 해였다.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거룩하신 영상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에 대한 끝 없는 존경과 흠모, 그이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하고야 말 철석의 신념과 의지로 심장을 불 타게 하였다.

이해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지고 수령과 인민이 단합된 혼연일체로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과감하게 벌려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과의 정치군사적대결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주체조선, **김일성**민족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떨치였다.

미술부문의 창작가들과 지도일군들은 벅찬 시대정신의 요구에 맞게 창작사업을 보다 혁명적으로 짜고 들어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우리 인민의 시대적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수많은 우수한 미술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강성대국건설에 떨쳐 나선 우리 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 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깊이 있게 형상한 미술작품은 큰 감화력을 가지고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에 대한 끝 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으로 인민대중을 교양한다.》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인 생활과 투쟁기풍, 고상한 문화정서적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훌륭한 미술작품들은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교양하는데서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미술가들은 주체미술을 떠메고 나가는 당의 혁명적미술가답게 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조선화, 유화, 조각을 비롯한 미술의 모든 분야에서 높은 창작적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주체88년을 빛나게 장식하였다.

이해 미술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형상한 150여상의 영상작품들을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창작하여 주체미술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위대성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만수대창작사와 평양미술대학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을 사상주제적내용으로 하는 수많은 영상작품들을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시대의 명작들로 창작하여 내놓았다.

조선화《향도의 태양》(공훈예술가 리동건외3명작),《백두밀영의 봄》(인민예술가 리경남작),《혈전의 진두에 서시여》(정현일작),《인민군군인들의 스키훈련을 보아 주시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정철작)와 유화《천리방선을 떠나시며》(인민예술가 최하택작)를 비롯하여 이해에 창작된 모든 영상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한 없는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에 의해 개척되고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해 계승되여 나가는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확신하는 우리 인민의 철석 같은 신념과 의지를 감명 깊게 형상하였다.

그리하여 작품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고 가까운 앞날에 부강번영할 강성대국이 반드시 건설될것이라는 혁명적락관과 신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받드는 길에서 백번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 나 끝까지 싸우는것은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간고한 투쟁과정에 우리 인민이 창조한 혁명적기질이며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를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 우리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이다.

조선화《혈전의 진두에 서시여》는 강도일제를 쳐부시기 위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 생사를 판가리하는 격전장에서 한몸의 위험도 무릅쓰시고 전투의 앞장에 서시여 유격대와 인민들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김일성**장군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힘 있는 조선화의 필치로 감명 깊게 형상하였다.

작품에서는 항일의 그 나날 가렬처절하였던 처창즈방어전투에서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이 한덩어리가 되여 불사신처럼 떨쳐 일어 나 위대한 백두의 장군, **김일성**장군님의 령도 따라 죽기를 각오하고 멸적의 기세로 싸우는 사령관과 군대, 인민의 혼연일체의 불패의 위력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숭엄한 화폭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작품은 적들의 총탄이 비발치듯 날아 오는 생사를 판가리하는 격전장에서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없이 무비의 담력과 기상을 지니시고《한놈도 살려 보내지 말라!》고 하늘땅이 울리도록 뢰성을 치시며 전투를 진두지휘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화면중심에 모시고 있다. 이와 함께 작품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따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는 수령숭배의 사상을 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하나와 같이 떨쳐나 싸우는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의 군상을 사선의 반원형구도로 배치함으로써 수령과 군대, 인민의 혼연일체의 사상을 형상적으로 강조하였다. 조선화의 전통적인 몰골기법을 현대적미감과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에 맞게 세련된 필치로 대담하게 살려 씀으로써 작품의 내용을 힘 있게 부각시키고 있다.

작품은 주체혁명의 려명기 백두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 혁명의 영광에 찬 승리의 로정과 더불어 불패의 위력을 떨쳐 온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의 사상을 력사적화폭으로 진실하게 펼쳐 보임으로써 오늘의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의 길은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강철같이 뭉치고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데 있다는 철학적인 심오한 사상을 웅변적으로 시사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유화《천리방선을 떠나시며》는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기 위한《고난의 행군》의 앞장에 서시여 선군혁명령도로 혁명앞에 가로 놓인 난국을 과감하게 뚫고 나가시는 거룩한 영상을 숭엄한 화폭으로 형상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강철의 령장, 세기의 위인을 모신 우리 인민의 한 없는 긍지와 자부심,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더욱 굳게 하여 주고 있다.

선전화《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건국의 길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강성대국건설의 만년재보이다》(김용, 김학림, 김영호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자!》(박명철, 김철호작)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토대이고 영원히 빛내여 나가야 할 만년재보라는 사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때 조국과 인민이 부강번영할 강성대국이 건설된다는 철의 진리를 조형적형상으로 힘 있게 펼쳐 보이고 있다.

선전화는 내용의 심오성과 형상의 강한 호소성으로 하여 강성대국건설에 떨쳐 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할 때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 나가며 이 세상 무서울것 없고 못해 낼 일이 없다는 신심과 용기를 더욱 굳게 하여 주었다.

이해에 창작된 수많은 영상작품들은 수령에 대한 절절한 신뢰와 존경심, 가장 위대한 수령을 모신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드는 길에서 한생을 빛나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시대적지향과 요구를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한것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위대성으로 교양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 세우는데 이바지하였다.

이해 미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불 타는 충성심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보다 훌륭히 꾸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만수대창작사 창작가들과 일군들은 금수산기념궁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리용하시던 렬차와 승용차 보존실, 울음홀과 훈장메달진렬실을 정중히 꾸리며 돌울타리와 돌대문을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는 우리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담아 최상의 수준에서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하게 완성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은 크나큰 슬픔으로 피눈물의 바다를 이루었던 력사의 그날을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과 더불어 영원히 전하기 위하여 최상의 수준에서 정중히 꾸린 울음홀 건축장식의 하나하나에는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한 없는 그리움과 영생기원의 절절한 념원,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위대한 장군님 따라 기어이 완성하고야 말 충정과 의리의 맹세가 력력히 어리여 있다.

또한 한쪽의 무게가 수십톤이나 되는 돌대문의 화강석바탕에 부각장식되여 있는 금빛대원수별과 대원수별을 정중히 받들어 올리는 목란꽃과 진달래, 굽도리를 감싸고 있는 대원수견장 월계수장식, 한 경간의 길이가 5m 되는 통돌에 량면수형식으로 학과 구름을 투각장식한 천연화강석울타리, 참으로 금수산기념궁전의 돌대문과 돌울타리는 장중하면서도 우아하게 서로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주체의 최고성지로서 금수산기념궁전의 지위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형상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해 미술부문에서는 선군혁명령도로 강성대국건설의 진두에 서시여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이룩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우리 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과 고상한 문화정서적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천수백점의 미술작품들을 창작하여 근로자들의 사상교양과 문화정서교양에 이바지하였다.

만수대창작사에서는 조선인민군 대학, 학교들에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과 견결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철주동지를 비롯한 혁명일가분들과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김책동지를 비롯한 혁명투사들의 동상창작과 건립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군사교육기관들이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보다 훌륭히 꾸려 지게 하였고 군인들의 사상교양에 이바지할수 있게 하였다.

미술부문에서는 신천박물관을 반미교양, 계급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꾸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박물관에 전시할 수십점의 계급교양주제미술작품들을 창작하여 박물관개관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를 받는 영광을 지니였다.

선전화《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강상홍작),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다그쳐 나가자!》(김익현작), 《과학기술은 강성대국건설의 힘 있는 추동력》(김명건, 남철호작) 등 많은 선전화작품들은 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과 형상의 강한 호소성으로 하여 새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들을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에 떨쳐 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 있게 고무추동하였다.

풍경화작품들인 조선화《가림천의 6월》(한성철작), 《감자꽃 설레이는 대홍단》(허영일작), 《눈꽃핀 직령고개》(김경석작), 《녕원의 푸른 등판》(곽철선작), 유화《감자꽃 필 때》(박봉연작), 《황철의 숨결》(오락삼작), 《양어장의 저녁》(공훈예술가 장명룡작), 판화《소백수의 아침》(박영일, 리승철작) 등 많은 작품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투쟁업적, 령도사적이 깃들어 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인민의 락원으로 변모된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도시와 마을, 산천경개를 화폭에 담아 훌륭하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정서적감흥과 여운을 주었다.

또한 조선화 《영생의 꽃 **김일성**화》(리광영 외 6명 작), 《불멸의 꽃 **김정일**화》(공훈예술가 김규학 외 7명작), 《충성의 꽃 진달래》(전영삼 외 8명작), 출판화《**김정일**화》(강철영 작), 수예《**김일성**화》(류충심, 리향옥작), 《불멸의 꽃》(박청미, 황희선, 김향옥작), 유화《**김정일**화》(리덕신작), 조선보석화《우리 나라》(김선희작) 등 미술의 다양한 형식과 기법들로 불멸의 꽃 **김일성**화, **김정일**화와 진달래꽃을 훌륭하게 형상함으로써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형상적으로 깊이 있게 부각시켰다.

이해 미술부문에서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100여점의 각종 우표, 엽서, 축하장을 창작하였다.

우표《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김철웅작), 《태양절》(로정구작),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정구작), 《제7차 세계륙상선수권대회 녀자마라손 우승자 정성옥》(김혜영, 최철민작)을 비롯하여 로농적위대창건 40돐기념우표, 조중외교관계설정 50돐기념우표 등 우표, 엽서, 축하장들은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의 현명성을 주제사상으로 하여 조형예술적으로 잘 형상한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해에 창작된 수많은 미술작품들은 여러 전람회, 전시회를 통하여 활발히 보급됨으로써 강성대국건설에 떨쳐 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며 문화정서생활과 교양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해에 미술작품보급을 위한 전람회, 전시회는 16회에 걸쳐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주체87(1998)년에 이어 올해 주체88(1999)년 1월 15일까지《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최고사령관추대 7돐,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탄생 81돐기념 중앙미술전시회》가 인민문화궁전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전람회에는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력사와 투쟁업적, 고매한 덕성을 사상주제적내용으로 한 30여상의 영상작품과 백두밀림에서 총대로 시작된 우리 혁명을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의 령도 따라 기어이 완성하려는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사상주제적내용으로 하는 200여점의 일반작품들이 전시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새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선전화전람회》, 《2.16경축 전국풍경화전람회》, 《태양절기념〈**김일성**화〉, 〈**김정일**화〉미술전람회》가 성대히 열리여 새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에로 우리 인민을 힘 있게 고무추동하였을뿐아니라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과 2월 16일을 맞는 우리 인민을 기쁘게 하여 주었다.

이해에 또한 8.15를 계기로《민족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통일대축전 제7차 범민족대회기념 미술전시회》가 성대히 진행되여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해외동포들과 우리 인민들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커다란 신심과 락관을 안겨 주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해 힘차게 싸워 나갈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하였다.

11월에는《만수대창작사창립 40돐기념 미술전람회》와《평양미술대학창립 52돐기념 미술전람회》가 사회의 커다란 관심속에 진행되였다.

전시된 모든 작품들은 형상의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 세심한 지도의 손길아래 세계굴지의 종합적인 미술창작기지로 훌륭히 꾸려 지고 높은 창작적기량을 소유한 미술가 대집단으로 성장발전한 만수대창작사의 면모를 과시하였으며 주체미술인재양성의 원종장으로서의 평양미술대학의 높은 교육수준을 보여 주고 주체미술발전의 창창한 미래를 락관할수 있게 하였다.

이해에는 또한 미술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커다란 관심속에《태양절기념 송화미술전시회》를 비롯하여《**김일성**상》계관인이며 2중로력영웅, 인민예술가인 정영만, 인민예술가 김승희, 공훈예술가 황영준의 개인미술전람회도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이와 함께 태양절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8돐과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탄생 82돐,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5돐을 맞으며 원산시와 사리원시, 강계시들에서 이동미술전람회가 열리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위대성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미술부문에서는 이밖에도 중화인민공화국창건 50돐기념 중국미술전람회를 진행하였으며 프랑스세계우표전람회와 오스트랄리아에서 진행된 우표전람회

를 통한 미술대외사업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참으로 주체88년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강성대국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온 우리 당과 인민의 불 타는 혁명적열의와 창조적투쟁기풍 그리고 우리 인민의 시대적지향과 요구에 맞게 주체미술을 보다 높은 경지에로 발전시켜 당의 사상과 령도를 높은 창작적성과로 빛내인 자랑찬 승리의 한해였다.

이해 미술부문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는 주체의 미술을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의 하나로 여기시며 미술부문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령도업적의 자랑찬 결실이며 미술로써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려는 미술부문의 창작가, 일군들의 불 타는 충성심이 낳은 고귀한 열매이다.

미술부문의 창작가들과 창작지도일군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주체미술이 거둔 자랑찬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에 토대하여 발전하는 현실, 높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시대적지향과 요구에 맞게 시대의 명작들을 수많이 창작하여 주체미술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는것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야 할것이다.

학사 **정 연 철**

주체88(1999)년에 창작된 미술작품주요목록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선전화전람회주요작품

작 품 명	창작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건국의 길에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강성대국건설의 만년재보이다!	김 용 김학림 김영호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김학림 강상홍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으로 빛내이자!	김창수
혁명의 수뇌부가 있는 평양을 결사수호하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자!	장성일 리정섭 리 영
장군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치자!	김학림
혁명의 수뇌부를 무장으로 옹위하자!	김동철 원신철
명령만 내리시라!	양병수 김홍일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리수복형의 육탄영웅, 길영조형의 자폭용사가 되자!	송진국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박원일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더욱 힘 있게 벌리자!	김학림 송진국 김영남

작 품 명	창작가
사회주의군사강국의 제일기둥, 수령옹위의 제일결사대!	임명길 홍수강 황철호
우리의 타격목표!	송진국 김철훈
일당백! 일당천!	리철민 리홍종
우리의 총창우에 통일된 조국이 있다!	박명철
육탄병사	박영일 리홍철 김국보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인공지구위성 발사! 강성대국건설의 첫 포성	김학림
미국놈부터 박살낼것이다!	임명길
침략전쟁에는 해방전쟁으로!	김 용
무자비하게 징벌하자!	박명철
이 행성우에 피할 자리가 더는 없다!	김 용 리철민
우리 인민군대 타격에는 한계가 없다!	김명건
조선의 대답	김창수
우리는 준비되였다!	리석남 김미경

작 품 명	창작가
타격목표는 명백하다!	동하도 김동철 홍용일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더욱 활짝 꽃 피우자!	박룡구 김광철
우리의 총창은 자비심을 모른다 미제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	임명길 홍수강 황철호
옹군애민,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활짝 꽃 피우자!	박래천 박광일 김우진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힘차게 이어 나가자!	김영호 김봉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 진격 앞으로!	황정균 리광원 진용훈
과학기술은 강성대국건설의 힘 있는 추동력!	김명건 남철호
다시 한번 천리마를 타고 세기를 주름 잡아 달리자!	김 용
새로운 다수확품종을 더많이 심어 감자대풍을 이룩하자!	김학림
논과 밭에 질 좋은 거름을 더많이 내자!	김영호 황인재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전 군중적운동으로 토지정리사업을 힘 있게 벌리자!	김학림 김 용 김홍일
물거름을 많이 내여 감자생산을 늘이자!	홍용일
당은 부른다 모두다 토지정리사업에로!	김영일
돼지를 많이 길러 더 많은 물거름을!	김명건 김경학
강계의 모범 따라 인민들의 식생활을 풍족하게 하자!	박화순
지대적특성에 맞게 2모작을 적극 받아들여 만풍년을 이룩하자!	박명일 고영일
희천의 로동계급들의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자!	김 용 리 영 김성철
중소형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공장과 마을에 더많은 전기를 보내주자!	김창수 리홍종
청년들이여! 사회주의대건설장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치자!	황인재 리석남

작 품 명	창작가
강성대국건설의 기본열쇠는 오직 자력갱생!	김경학 김상철
평양－남포사이고속도로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자!	방원일 김학림
평양－남포사이고속도로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치자!	김익현 김영남
우리의 힘, 우리의 식, 우리의 기술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자!	김영일
병사시절의 그 나날처럼 당의 뜻 받들어 가자 대홍단으로!	림철호
전국이 대홍단의 자력갱생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 배우자!	리철민
청년들이여 전화의 나날에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자!	김창수
명랑하게 신심과 랑만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자!	리홍종
온 나라에 강계정신이 차고 넘치게 하자!	김창수
전국적범위에서 반외세자주화투쟁을 힘 있게 벌리자!	양병수
민족대단결로 외세와 분렬주의세력을 때려부시자!	리철민
조선은 하나다! 콩크리트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조국을 통일하자!	손창학
남조선에 있어서 출로는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련공련북 하는 길!	김영훈 고영철
새들도 자유로이 넘나들건만… 분렬의 장벽을 하루 빨리 허물어 버리자!	김 용
민족대단결로 민족반역자들과 반통일세력을 단매에 쳐부시자!	김영남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자!	박영철
변치 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맹세!	김학림 리철민
전민이 무장하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자!	김인봉 외 3명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다그쳐 나가자!	김익현
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 경제과업관철에로!	최재식 박상일 리정복
청년들은 강성대국건설의 돌격대가 되자!	김휘웅 김미경 주정철
승리의 신심높이 강성대국건설에로!	리철민 박원일

공동사설관철 선전화 조선인민군 전람회 주요작품

작 품 명	창작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권병호
백두산빨찌산의 전통은 우리 군대의 본성이고 전투적기질이다!	리성구 백창혁
불가능을 모르는 공격정신으로!	조 광
육탄영웅, 자폭용사가 되자!	오성종
사상에서도 투쟁에서도 생활에서도 인민군대가 앞장에 서자!	정병훈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자!	리철묵
전군이 오늘의 오중흡 7련대가 되자!	문수철
모기장을 든든히 치자!	김성철
공격정신은 혁명군대의 기질, 단숨에 결판을 내자!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성새가 되자!	김종정
혁명의 총대우에 사회주의조국의 강성부흥이 있다!	김 철 김 현
계급적원쑤들에게 무자비하자!	리성욱
수령옹위의 제일결사대가 되자!	리계성 조명철
우리의 총대우에 사회주의조국의 강성부흥이 있다!	최무광
미제살인귀들에게서 천백배로 피값을 받아내자!	최광혁 김성철
계급적원쑤들과 끝장을 볼 때까지!	리동준
계급적원쑤들과 끝까지 싸우는 사나운 맹호로 준비하자!	안광혁
지휘관들의 어깨우에 강성대국건설의 중하가 지워 져 있다 나를 따라 앞으로!	문기철
그 어떤 바람 불어 와도 싸움준비를 백방으로 강화하자!	강학수
더 많은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자!	최강호 안성근
옹군애민의 미풍을 활짝 꽃 피우자!	윤경복
애국속에 조국의 부흥이 있고 참된 삶이 있다!	리성구
관병일치의 전통적미풍을 활짝 꽃 피우자!	전의길

작 품 명	창작가
그 어떤 적의 아성도 불바다로 만들것이다!	리수강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힘차게 이어 가자!	라강철
붉은기를 높이 들고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자!	박룡식
인민군대에서 감자농사혁명을 일으키자!	함영희
우리 나라에 꽃 펴나는 옹군애민의 사상!	송수영 오학건
농업생산은 강성대국건설의 천하지대본!	림혜련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활짝 꽃 피우자!	송수영
하나의 건축물을 일떠세워도 후대들이 덕을 볼수 있게!	박영철
소왕청의 정신으로 전국을 요새화 하자!	전호성 리재수
훈련을 해도 통일만을 생각하자!	황영학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살림살이를 제손으로 꾸리자!	정명기
인민군대에서 더 많은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자!	한해성
허리띠를 졸라매고 건설해 놓은 우리의 국방공업의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자!	김은숙
전군이 강성대국건설의 력사적진군에 앞장서자!	안정철
수령결사옹위는 최대의 애국, 최고의 충정!	리계성
군인정신!	한혁철
세계《유일초대국》도 내려다 보는 만만한 배심으로!	신성철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다그쳐 강성대국 건설하자!	림춘길
이 행성에서 우리의 타격을 막아 낼 자 없다!	차여상 김철준
리수복형의 육탄영웅, 길영조형의 자폭용사가 되자!	류동수
위대한 김정일사상의 절대적인 숭배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자!	김창일
《고난의 행군》길에서 단련된 우리 다시 한번 분발하자!	권혁남
조국통일의 결사전에서 맹호가 되자!	최광수

작 품 명	창작가
인민군대는 사회주의군사강국의 제일 기둥!	김명일
우리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다!	송수영
우리의 타격 피할 자리 이 행성우에는 없다!	김은숙
우리의 존엄 건드리는 놈 혁명의 붉은 칼로!	김성칠
침략전쟁, 략탈의 원흉, 너는 이 행성우에서 없어 져야 한다!	문기철

작 품 명	창작가
명령만 내리시라!	서문성
침략자들은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치 못한다!	김철
불은 불로써 다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것이다!	원경복
총대로 찾은 사회주의 총대로 사수하자!	박명국
마라손녀왕 정성옥!	오광호 류동수
세계는 보게 되리라 강성대국의 조선을!	오광호

2.16경축 전국풍경화전람회 주요작품목록

조선화

작 품 명	창작가
구월산 단풍골	김철룡
대동강의 눈석이	박창룡
장수산의 세심폭포	림진혁
양어장의 달밤	리광영
고향의 아침	정현일
산천의 새 풍경	리학성
천지에서의 장군봉과 향도봉	서광익
모란봉의 겨울	곽영운
묘향산의 지원바위	조원남
감자꽃 피는 대홍단	리영일
선죽교의 아침	김광식
백두산의 봄	홍정식
가림천의 6월	한성철
성균관의 가을	황철진
단풍계절의 박연폭포	전영삼
방목지의 여름	박광림
신양의 5월	정 철
병원의 푸른 등판	곽철선
안국사의 가을	조인선
흰모란	김근이
뒤동산의 봄	리종천
사적지로 가는 길	리완선
봄	한명렬
시원한 여름	안운원
구월산의 단풍계절	김홍식
신덕산	문광남
와우도원의 가을	박수남
구월산의 동문앞에서	공종열

조선화

작 품 명	창작가
석담내가	박인선
소나무와 비선폭포	강찬주
우리 마을 삼탄	리영봉
천지의 눈보라	리근선
모란봉의 봄	리용철
원흥의 여름	최관성
묘향산의 천길폭포	최명식
록음정의 가을	최은철
청류벽의 봄	배영걸
보현사의 조계문	최광현
금강산천하대계곡	강철해
복숭아	서기복
석왕사의 가을	리현창
신양의 가을	김동수
향산촌계곡에서	장강별 김광일
모란봉만경폭포	명시환 김광일
단풍계절	림 과
눈꽃 핀 직령고개	김경석
금천리의 가을	우연락
상직동혁명사적지	리광섭
외금강의 천하대	안창국

유 화

작 품 명	창작가
황철의 숨결	오락삼
구월리의 봄	로신현

유 화

작 품 명	창작가
삼방의 가을	마경선
구월산으로 가는 길	정승길
개성집뜨락	안성렬
산천의 가을	주복인
장수산	〃
정방산유원지	김영철
신평의 가을	조봉룡
묘향산풍경	리성일
정방산의 가을	김철웅
파도치는 기슭	정룡수
청진고발산사적지풍경	리경숙
백두산장군봉의 해돋이	김덕신
10월의 아침	김문환
천마산의 가을	〃
5월의 선죽교	〃
백운산기슭	한명철
사랑의 길	홍종원
리원대덕사적지의 봄	표세종
금진강격류	장영삼
동오골밀영	강석호
구전각이 보이는 곳에서	윤신재
삼발산의 작식터	강석호
백두삼천리대홍단벌기슭에서	김권봉
와우도로 가는 길에서	림명일
염탄리가을	김 광
내천하류	김성호
못가	허남일
늪	〃
1월	〃
천마산골짜기에서	손진철
금야리의 풍경	윤성찬
9월의 압록강	서유준
양어장의 저녁	장명룡
정주성터에서	리명식
학사대의 초대바위	문광철
정물	박창준
삼지연의 가을	조명남
금강산의 여름	리명호
포태산의 여름	강명철
송백산의 가을	정수희

유 화

작 품 명	창작가
봄	송효일
아침	송효일
보통강풍경	리영민
장덕사적지	김명운
금강산무봉폭포	리룡이
만폭동의 가을	리룡섭
역전거리의 아침	리진영
양어장에서	최병규
식물원에서	최홍칠
보통강의 저녁	최경호
감자꽃 핀 백두삼천리벌	고학철
1월	유광혁
역전거리	김건호
첫눈	문학철
봄	문학림
주체의 성지를 바라보며	김길웅
감자꽃 필 때	로백산 리원철
대동문의 가을	윤경수 송남철
사랑의 집	김봉일
대동강의 9월	김현철
해칠보에서	박명일
평양의 교외	한희복 정인삼
청봉으로 가는 길	림철룡
2월의 창가	김건일
식물원의 겨울	리경철
외금강의 봄	김승철
감자꽃 필 때	백봉연
2월의 저녁	장명철
우리 마을	신영남
고향집의 불빛	오종익

수 채 화

작 품 명	창작가
경암호	김용휘
고구려나무다리터 유적	박대성
대성산의 풍치	〃
장산혁명사적지의 가을	박대성 박영도

수채화

작 품 명	창작가
조국의 산촌	박대성
건산리의 풍경	백락현
못가의 사슴떼	리해강
사슴떼가 북바위산에 흐른다	장승환
대흥사의 가을	손성렬
기암사적지의 겨울	리봉춘
숲속에서	편길선
신흥리의 풍경	〃
2월의 소백수	전정욱
7월의 보덕암	천승택
대동강	권시백
좌리의 아침	정병수 리영숙
와우도 유원지에서	김 석
식물원에서	황정균
유원지풍경	〃
거리풍경	김명남
석왕사느티나무	엄태섭
무지개	동하도
석암사적지	김일호

꾯슈화

작 품 명	창작가
삼지연에서 본 포태산	정성일
유원지에서	홍성훈
식물원에서	김승일
플라타나스숲속에서	최경희
보현사의 가을	리명철
소형발전소가 보이는 곳에서	홍성훈

파스텔화

작 품 명	창작가
묘향산 친선다리아래서	홍방선

뗌뻬라화

작 품 명	창작가
산촌의 가을	홍정철 장 철

뗌뻬라화

작 품 명	창작가
아양리소형발전소풍경	신철호 김명학
저녁	김명건
릉라도에서	임명길
월정리등판에서	홍수강
황철의 저녁	강성철 장광별

연필화

작 품 명	창작가
대홍단의 황금노을	한경보
비류강풍경	〃
허천강반의 아침	백승학

펜 화

작 품 명	창작가
박연폭포	박종국
소백산기슭에서	전정욱
화차수리전투장	강순동

판 화

작 품 명	창작가
소형발전소	한봉근
룡등의 밤	백경운
삼개리의 가을	박춘화
새 철길	주시웅
묘향산의 아침	리성남
소백수의 아침	박영일 리홍철
금강산의 봄	김동철 고영철
아침	김국보
해바라기풍년	리홍철 박영일
대성산의 물길에도	김원철
석양	박 길
삼수의 겨울	한성호
호수가	문영옥

김일성화, 김정일화미술작품전람회 주요작품목록

조선화

작 품 명	창작가
영생의 꽃 김일성화	리광영 외 6명
불멸의 꽃 김정일화	김규학 외 7명
회령의 봄	전영삼 외 7명
태양의 꽃	김상철 김명옥
4월의 김일성화	김용국 오영성
불멸의 꽃 만발한 주체조국의 아침	리명학 림철호
만민의 태양	조광일
김일성화	송시엽
충성의 꽃 불멸의 꽃	서재홍
태양의 꽃	김영남
김일성화	김재혁
영원한 태양	김하진 김용국
조선의 영광	최옥균
불멸의 꽃	조일남 림철호
회령의 봄	리옥인
조선의 향기	서기복
조선의 꽃	김명제
은정화원	량동화
4월명절의 아침	김철룡
김일성화	황영준
창가	곽철선
태양절아침	박춘화
김일성화	김근이

유 화

작 품 명	창작가
김정일화	김덕신
진달래	허남일
효성화	김명운
2월	김옥선

유 화

작 품 명	창작가
영생	차계상 외 3명
태양의 꽃	김인환
충성의 꽃바구니	리룡히
태양의 꽃	리병의
4월의 향기	손진철
2월의 김정일화	홍성훈
김일성화	서홍진
이국땅에 핀 꽃	방금철 정성일
념원의 꽃	리용섭

꽛 슈 화

작 품 명	창작가
기다리는 마음	최명길
정일봉의 아침	리명철 김태식
김일성화, 김정일화	김광범

뗌뻬라화

작 품 명	창작가
평양으로	오영남 리명호
김정일화	강철명
김일성화와 김정일화	최경화

수 예

작 품 명	창작가
김정일화	박청미 박명희
불멸의 꽃 김정일화	김정순 외 2명
4월의 만경대	김영희 리희방
김일성화	류충심 리향옥
2월의 아침	번명옥 전영희

수예

작 품 명	창작가
불멸의 꽃	황희선 외 2명
김일성화	박춘실 송선화
효성화	고혜영

서예

작 품 명	창작가
영생의 꽃	최경춘
김정일화	허이화

도안

작 품 명	창작가
기념우표, 축하장	량편제, 박연희, 차련희, 김계순, 김은실

판화

작 품 명	창작가
만경대의 봄	장종식

날염

충성의 꽃	윤득수

도자기

작 품 명	창작가
불멸의 꽃장식 백자꽃병	정세영 김광수
김일성화와 김정일화 장식꽃병	김명식 리광남
김정일화장식꽃병	정세영 리광남

돌공예

작 품 명	창작가
김정일화	박승빈 한영식
태양절의 아침	방 철

옻칠공예

작 품 명	창작가
김일성화와 김정일화	리명학

나무공예

작 품 명	창작가
김일성화장식 어은금	류수혁 김명철

태양절송화미술원전람회 주요작품목록

조선화

작 품 명	창작가
해금강의 아침	김상직
백산의 수리개	〃
금강산의 구룡폭포	〃
목란꽃	〃
송화	〃
물고기	리맥림
옛 고향집	최동수
봄	〃
향산의 봄기상	황영준
포도	지달승
금강산	〃
남포시가 보이는 곳에서	최창섭
우산장의 가을	〃

조선화

작 품 명	창작가
삼지연 소년단각	최창섭
금강산이 보인다	〃
고향의 봄	문화춘
소백수골안의 룡마바위	〃
가림천기슭	〃
만물상의 보슬비	〃
달밤의 물소리	〃
4월	강정님
백살구앞에서	〃
동백꽃	한명렬
금강산의 가을	리근화
금강산	〃
광명사적지	〃

조선화

작 품 명	창작가
만경대생가	리근화
송학	〃
고향언덕	김린권
옛 고향마을	〃
륙승정	〃
동해해돋이	〃
성지에 백학이 날아 든다	〃
대성산의 봄	한희봉
농장길	〃
사원의 달밤	〃
동평양문수공원에서	〃
을밀대	박제일
록음	〃
백두산	〃
호랑이	리률선
금강산	〃
잉어	〃

유화

작 품 명	창작가
봄	림 렬
가을	〃
바다	〃
해돋이	〃
대동강유보도	〃
거리풍경	최원수
바다	한남선
손주	
폭포	〃
칠성문	〃
호박	박경희
계곡의 아침	〃
흥성하는 탈곡장	〃
내가에서	〃
백두산	〃

유화

작 품 명	창작가
묘향산으로 가는 길	박창준
금강산 세존봉	〃
계곡	표세종
호반의 봄	〃
산천의 아침	〃
말	홍종원
강철직장의 이른새벽	송찬형
이른 봄	〃
구월산기슭	〃
홍원보현리	김형철
가을	〃
두부산	〃
소백수	〃
국제친선전람관	〃
꽃	류환기
갈매기	〃
정일봉	유홍섭
금강의 가을	〃
외금강	〃
파도	〃
해칠보	〃
꽃과 책	김장한
바다가	〃
백두산	〃
어촌	〃

판화

작 품 명	창작가
첫눈	함창연
보천보해불	〃

출판화

작 품 명	창작가
손녀	박진수
뜨개질	〃

만수대창작사창립 40돐기념 미술전람회작품

조선화

작 품 명	창작가
만경대의 사립문	김인석
전화의 나날에 리승기박사를 찾아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고수진
강성대국건설의 나날에	정동혁
눈보라만리	김성민
감자농사의 사령관이 되시여	리성근
온실의 포전마다에 깃든 사랑	조명길
현지지도의 길에서 맞으신 새벽	김수남
인공지구위성발사의 새 력사를 펼쳐 주시며	최창호
칠보산을 인민의 휴양지로 꾸려 주시려	최강림
이른 새벽 포전을 찾으시여	오대영
희천의 한 선반공을 만나주시며	임 혁
자강도 인민들을 락원의 행군에로 이끄시여	김성민
락원의 불빛	김동환
제2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을 지펴 주시며	김성민
맨 주먹으로 자동차를 만들던 때처럼 억세 게 전진하자고 하시며	박동철
과학자들을 강성대국건설에로 힘차게 이끌 어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김인석 최현주
토끼를 잘 기른다고 치하해 주시는 어버이장군님	송재철 김성복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김철희
녀성비행사들 속에 계시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	김학림

유화

작 품 명	창작가
소사하의 밤	장명식
혁명의 새벽길을 함께 걸으시며	리지현
김책동지와 첫 상봉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오성규
위대한 수령님과 위증민	김홍광
옥돌골군민운동회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엄정민
태양의 품	김웅남 김창길
국제련합군회의에서 조국광복을 위한 전략 적방침을 제시하시는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최하택

유화

작 품 명	창작가
고향 만경대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	전병진
《판문점의 초병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소》	로운봉

출판화

작 품 명	창작가
조국의 숲을 가꾸는 숨은 애국자라고 하시며	김영호
강원땅에 천지개벽이 일어 나도록 이끌어 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김철희 외 3명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동지	홍춘웅

조선보석화

작 품 명	창작가
어버이수령님	김원식 박 철
우리 어머님	김기석

벽화

작 품 명	창작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동성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리구을

조각

작 품 명	창작가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황순학 김철수
온 나라 어린이들을 한품에 안아 주시는 태양의 품	리병일

조선화

작 품 명	창작가
군민일치	한현준
성강의 봉화	김광남 와 3명
추억	홍성광
염소방목공들	황금옥
희천의 로동계급들	리명학

조선화

작 품 명	창작가
대홍단의 주인들	림철호
감자꽃 필 때	김영호
기적의 창조자들	지정식
총대가정	정철성
우리 집 토끼	최옥심
가는 길 험난해도	조선화
웃으며 가자	2실집체작
북방의 숨결	조명관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장에 나래치는	함성철
청춘의 기상	강원홍
서해의 승리자들	정철호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조선화 4실집체작
민속놀이풍경도(10폭)	리영학
묘향산국제친선전람관	서례진
철령의 진달래	류명복
홍원사적지	박규섭 리 창
정방산 4계절(4폭)	최경희
대홍단풍경	최춘만
태양의 성지	리혜옥
계승봉의 파도	김성근
구월산병풍(8폭)	지순희
하루방목을 마치고	최영수 김영준
분계선에서	정창모
토끼	리정해
양어장의 풍경	서재홍
풍요한 가을의 정물	오영성
성강의 파도	김성근
화조	정참모
양어장풍경	리문길
삼지연(금니화)	황병호
백두산(〃)	〃
중소형발전소가 보이는 곳의 풍경	임명일
백두산 4계절(4폭)	2.16창작실 집체작
2월의 소백수	최영식
야망	안영일

유화

작 품 명	창작가
안길동지	강헌호
림춘추동지	리철호
동해의 15명 영웅들	김응남
강성대국의 첫 포성	고정길
우리의 힘과 지혜로	강영민
아침(학생가창대)	최영남
감자풍년	김성룡
길영조영웅	김 진
작가 백인준	황 호
계응상박사	김주현
민비학살	홍성일
고종독살	김지웅
정성옥	오명우
정성옥	강 철
《치안대》	김정중
탄광로동자들의 반항	리영남
2월의 소백수	강헌호
가을의 삼지연	김춘렬
소백수2호발전소	고정길
천지의 저녁노을	서충진
양어장	홍 일
건창숙영지	리승일
구월산	심정식
월정사	강 철
월청사	정인국
정방산	홍근찬
연광산	리승진
도라지	허영범
양어장에서	조성진
양어장	서충진
2월의 대동강	심정식
포도정물	리승일
대홍단풍경	황금룡
대홍단풍경	허재성
안변	리룡수
과일정물	오성규
잉어	강성룡
모란봉	최명길

출판화

작 품 명	창작가
남녘의 마음	김홍일
푸른 숲으로	김봉욱
과외시간	박화춘
성균관의 가을	최영순
100명의 제대군인	황인제
지원자들	김영범
풍작이룬 감자밭	〃
뜨거운 마음	〃
대홍단에 뿌리 내린 선녀선남	황인제 김영범
살기 좋은 대홍단	〃
노을 비낀 백두산	리석남
불빛	리철민
들끓는 강원땅	리 영 김학림
야영지로 가는 길	강상홍
대홍단의 숨결	리철민
꽃다발	김익현
대홍단의 새 주인들	리정섭
민족의 자랑 계순희	김철훈
군인가족노래	김영일
혈육의 정	송진국
북방의 초병들	박원일
백두밀영	강재원
새 초소에서	장성일
소년과 개미	손창학
들끓는 김종태전기기관차	박태수
분노의 함성	양병수
산소열법도입의 선구자들	리석남 김학림
양어장의 밤	황인제

조선보석화

작 품 명	창작가
쌍지암	백성현
모성암	김일광
비선대	조준호 박 철
닭바위	백 용
가재다리바위	김기석
래경암	황병근

조선보석화

작 품 명	창작가
기원암	리호혁
큰절바위	정명길
꽃병바위	김영호
장수바위	함용혁
활촉바위	박헌철
선영바위	곽영철
조약대	국강현
장군대	조창복
침상바위	장 수
장검바위	백성철
호수가의 학	김문규
범	김기서
사냥의 쉴참	김원식
사계절 －봄	백성현
－여름	〃
－가을	〃
－겨울	〃
기념궁전의 학	〃
토끼	한 철
뒤뜰	김혜숙
선물동물	리 률
대홍단의 꽃	김광일
남새정물	한 철
과일정물	김영호
우리 나라	최선희
씨름	〃
노래하는 소녀	〃
2월의 소백수	백 용
중소형발전소	함용혁
밀림	조준호

수예

작 품 명	창작가
불멸의 꽃(량면수예)	박청미
백두산의 꽃 만리향	윤려순
백두산의 두메양귀비와 룡남꽃	〃
백두산의 산불주머니의 꽃	박청미
백두산의 패랭이꽃	〃
잠자리꽃	김청희
2월의 대동강	장설화
꽃고비와 은행초꽃	〃

수예

작 품 명	창작가
백두산의 만병초	김현숙
백두산의 돌꽃	〃
백두산의 원추리	공혜경
백두산의 털쥐손이꽃	〃
백두산의 우정금	리희방
백두산의 작란화	김철영
장미	〃
백두산의 매발톱꽃	홍순덕
백두산의 동자꽃	〃
백두산의 초롱꽃	량혜란
목란	〃
금강산풍경(기계수예)	리희방
각종 받치개 8점(기계수예)	전봉녀
백두밀영고향집 뜨락의 김정일화	류충심
백두산의 산천어	차경주
백두산의 대황꽃	김성실
전선길에 피여 난 들국화	김향옥
감	김성희
백목련	양순희
찔레꽃과 초롱꽃	양순옥
구름 너머 그리운 곳으로	공정옥
강아지	림신순
도라지	김성희
감자풍년	김영란
정물	전영복

벽화

작 품 명	창작가
평양의 밤	김의성
방목지의 밤	김병태
대홍단의 새 주인들	안병준
90년대의 길영조, 김광철이 되자!	천세민

도안

작 품 명	창작가
계급교양로천박물관 형성도안(5점)	김영섭 외 2명
농촌살림집 형성도안(4점)	명현철
인민예술극장 형성도안(6점)	김병일 명현철
꽃박물관 형성도안(5점)	홍철수

도안

작 품 명	창작가
보통강유원지 꾸림새도안(8점)	김정호 리원남
양각도호텔물놀이장형성도안(4점)	로승일
영생탑형성도안(5점)	서명수 외 2명
조선민족공원 형성도안(6점)	오영일
칠보산관광호텔 형성도안(5점)	승영호 리동석
과학공원 꾸림새도안(7점)	장영환
어린이공원 꾸림새도안(5점)	김정혁
초물제품형태도안(6점)	박연희 외 3명
명승지기념엽서도안(17점)	홍경일 리종호
계절달력(어린이)(24점)	김남수
명절, 기념일 축하장도안(15점)	김은실 외 3명
꽃엽서도안(17점)	리혜정 외 3명

도자기

작 품 명	창작가
고려청자꽃병	우치선
고려청자꽃병	임사준
물고기장식수반	김명복
오리장식수반	〃
호수가의 학유상감꽃병	백광제
락원투각장식꽃병	김철수
신선어투각장식청자꽃병	우복단
은방울상감장식과일반	〃
《환희》은중착장식꽃병	방효성
투각장식꽃병	〃
봇나무분장꽃병	조명훈
등꽃하회꽃병	〃
정방산하회꽃병	〃
정방산분장장식꽃병	〃
소백수산천어(도자조각)	김명식
코발트은중착함	〃
우산꽃이	김명식
설경유상감꽃병	리광남
오리장식꽃병	〃

도자기

작 품 명	창작가
붓꽂이 장식꽃병	리광남
만경대, 정일봉 부각꽃병	임관익
만물상 색분장꽃병	신현수
리조청화꽃병	리현순
백화하회장식꽃병	〃
향오동투각꽃병	구형순
물오리차세트	〃
소나무청화장식꽃병	주광룡
줄당콩투각꽃병	우형순
파도장식꽃병	임정미
참대투각꽃병	전영남
제비투각꽃병	오화진
오지신선로	김경섭
구호나무투각종이말이통	위국현
탁상등(형태)	림봉식
나무잎장식꽃병	박동철
목란장식차세트	원용선
배추형차세트	한수복
물까치장식꽃병	정명섭
목란과 밀화부리장식꽃병	정세영
종석정장식주전자	박연철
달밤의 기러기하회꽃병	리명환
살구꽃장식차세트	리춘금
수박형주전자	〃
목란하회꽃병	송덕수
하회장식꽃병	림순호
붓꽃장식투각필통	손정원
련속무늬장식차세트	홍명철
은방울분장장식꽃병	김예순
오리장식차세트	박찬복
장색도부각장식꽃병	홍명식
탁상등	장은영
기러기장식꽃병	강대범
흐름유꽃병	강명철
진달래장식청자투각꽃병	정명호
동물교예투각장식품	김명복
보가지형차세트	조순학
금강산투각꽃병	전희대
호박단지	윤창욱
차세트	최성환
호박형주전자	최성일

도자기

작 품 명	창작가
목단투각꽃병	김영철
오리장식과반기	장인철
진사흐름유꽃병	김두홍
목란하회꽃병	김대성
호수가의 저녁하회꽃병	김광수
농촌풍경하회꽃병	백문길
룡부각고려청자꽃병	한경수
참대하회꽃병	최응권
진사장식꽃병	엄 철
백두산명소하회꽃병	김광수
밀림장식차세트	원용선
백살구돋을무늬꽃병	정명섭
정일봉분장꽃병	박연철

공예

작 품 명	창작가
백두산(옻칠공예)	한정철 여상현
만경대생가(〃)	여상현
금수산기념궁전(〃)	장철웅
회령생가(〃)	주성일
백두밀영생가(〃)	한정철
목란꽃장식화병(〃)	〃
등꽃장식화병(〃)	주성일
포도장식화병(〃)	여상현
은방울꽃장식화병(〃)	리명학
신선어장식필통(〃)	리문남
살구꽃장식꽃병	김동건
금강산(만년화)	김은철
모란봉의 가을(〃)	서광은
칠보산의 무지개바위(〃)	정영일
삼선녀(인형)	장혜영
물동이춤(〃)	리정실
부채춤(〃)	조수옥 김강호
호수가의 학(뿔공예)	안창국
포도(조개부각)	현영재
등꽃(조개부각)	〃
나비(〃)	〃
백두밀영(돌공예)	박승수 김정길

공예

작 품 명	창작가
만경대생가(돌공예)	박승수
잉어(〃)	김웅기
신선어(수지공예)	백금남 리봉수
룡장식초대(정밀주조)	조명철 박창룡
룡장식신선로(〃)	김명일 외 4명
김일성화 장식화병(금속)	김명종
김정일화 장식화병(〃)	〃
포도장식과일반(〃)	채성일 방성혁
회령생가(목공예)	백성연
다람쥐장식등(〃)	김 혁
코끼리(〃)	홍성일
강아지(〃)	박정혁
말	리철삼
사슴	박성일

조각

작 품 명	창작가
출근길(석고)	정윤애
사색(리승기박사)(〃)	최길호
장령과 전사(〃)	최광철
감자대풍(석고)	김철흡
출강을 앞두고(〃)	강영일
재미 있는 책(〃)	리원철
롱구(〃)	리동건
훈련의 쉴참에(〃)	조동혜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주물)	리창식
물동이춤(〃)	김솔고
비둘기춤(〃)	김 욱
언제건설자들(〃)	김군호
조선민족의 딸 정성옥(〃)	김철식
마라손녀왕 정성옥선수(〃)	김철근
첫 등교(돌)	황성호
고심(〃)	김철수
한삽 더(〃)	최송림
어린 과학자(〃)	김현철
처녀뜨락또르운전수(〃)	방철웅
영웅 길영조(〃)	전두봉
입대(목각)	리일명
또 한대의 갱목을(〃)	강춘길
염소떼 흐른다(목각)	김영덕
풍산개(〃)	고동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8돐과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탄생 82돐기념 전국풍경화전람회 주요작품목록

조선화

작 품 명	창작가
풍년탈곡장	김정수
정방산의 봄	곽정호
눈 내리는 날	리옥인
풍요한 미곡벌	조정철
구월산의 가을	진수룡
향도의 사계절	김철룡
정방산의 봄	〃
사리원의 여름	〃
길성포의 가을	〃
서흥호의 겨울	〃
구월산의 석양	김태원
경암산의 가을	원창선
정방산의 봄	조일남
청천강사적지의 봄	현승학
연풍호의 봄	김기선
연풍취수구의 봄	신정길
남천강발전소건설장	리영철
은하리오솔길	량동화
은하리계곡	〃
원동혁명사적지의 봄	조인성
황금산의 가을	곽철산
금성호반의 초여름	〃
6월의 금강산	홍은석
옥계혁명사적지	차광준
가을의 녕원	김영봉
덕골혁명사적지	김용남
흰박꽃과 황금새	김근이
철령의 아침	홍근학
산간마을의 불빛	〃
우산장 풍월루	박수남
내진나루사적지	〃
비 내리는 밤	안서준

조선화

작 품 명	창작가
양어장의 아침	리종래
연하산기슭	리종철
신흥양어장의 아침	〃
석우전적지의 달밤	한창길
중성모래온천	김준철
광천덕마루	한지호
장수산현암절간이 보이는 풍경	강경복
구월산의 가을	김찬순
봄을 맞는 은하리	라 현
신양의 첨성문	김동수
감찬정의 봄	조광형
2월의 장자산	김상철
장자강반의 아침	김광남
느티나무골 혁명사적지	리현창
황금파도	서기복
감계절	한명렬
문수봉사적지 샘물터	조원남
변천되는 전야	곽영운
불멸의 글발	리광연
삼지연의 풍경	김규학
황철의 숨결	정 철
백두밀영고향집	홍정식
쑥섬혁명사적지의 아침	송기찬
장군님 다녀 가신 양어장의 아침	문세웅
밀영의 식사터	한성철
인민대학습당의 불빛	배영걸
평양의 환호	리학성
금강산혁명사적관풍경	오석진
만경대의 아침	정현일
연풍혁명사적지의 아침	김관식
황초령을 넘어서	장시묵
산천의 봄	황용철

조선화

작 품 명	창작가
조종의 산 백두산	황영준
해칠보의 저녁	현종성
방목지의 아침	리정철
신흥청년공원의 아침	리성일
위인칭송의 성지 백두산마루	박창룡
양어장건설장풍경	김혜숙
장안산의 가을	우연학
소금꽃 핀 광명성제염소	김창수
강원땅의 새 아침	박성근
구월산의 월정사	림정복
장강의 1월	림은성
구월산명제바위	차성현
봄	최우철
풍년노래	송정우
북방의 불빛	한경호
출근길	신영남
라진항의 아침	최준호
우리 학교 토끼사	김광철
묘향산풍경	김광일
랑림	지승석
철쭉	리경철
영생	주룡천
장연호혁명사적지	최 정
눈꽃 핀 만경대생가	김건사
덕골혁명사적지	김경석
북창양어장의 저녁	신성섭
9월의 곰산	김정상
양곡리의 가을	로윤태
만경대생가	황영준
석양	안운원
구월산의 석양	김태원
회령고향집	리천일
대홍단의 아침	안영일
일떠서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전유성
홍원혁명사적지	박규섭
양떼 흐로는 산천	김철혁
석왕사의 가을	라영식
질풍	림호철
신양의 가을	황경훈

유화

작 품 명	창작가
구월산의 마사봉	로신현
사랑어린 포도밭	김천수
구월리의 봄	리성열
구월산기슭	〃
옥계천	김영철
수양산	〃
황금산계곡	허남일
석암골의 저녁	김덕신
연풍호의 저녁	김천홍
영웅의 모교	오인남
염분진의 아침	리진환
이른 봄	정보영
선죽교풍경	박영익
자남산기슭에서	김문환
그 자욱 따라서	김복남
사자봉기슭	지재호
부령팔담의 가을	최정선
풍년소식	리화춘
부전군 문암리혁명사적지	표세종
남대천기슭	조락규
성천강32호발전소	강석호
떼목	홍룡원
7월의 만경대	한명철
구월산의 가을	리철만
옥계천의 식사터	김성호
해주수양산의 가을	김성호
양어장의 아침	송효일
강계 인풍루	정온녀
향하리의 가을	백창길
10월의 고산진	리태성
판교군 천암리에서	오세일
천마군 신봉혁명사적지의 아침	손진철
압록강기슭	장명룡
겨울	김재남
보통강의 저녁	강철영
지름길	황서량
향산의 내가	곽지진
을밀대가 보이는 곳에서	방희룡
5호물동의 가을	정선일
촬영소구내에서	김승연
출근길	박명철

유화

작 품 명	창작가
가을	신영남
보슬비가 내린 뒤	김광호
강원땅의 새 력사(3부작)	
· 변혁의 동음	리룡히 오재옥
· 은정의 쌍무지개	리용섭 리형찬
· 천지개벽의 첫 가을	김명운 강승규
아침	김봉일
개선문풍경	림철룡
양어장의 여름	전재원
우리 학교	김원일
가을의 서해	김수광
소백수의 봄	김길운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장이 보이는 풍경	김현철
가을의 련광정	〃
승리산의 동음소리	윤경수
모교	리원철
대동강반에서	리경철
천지개벽	오종익
광복전의 만경대	백봉연
어머니생각	로백산
대동강의 10월	송남철
광명성제염소	문성림
겨울	권경수
백두산	한희복
대홍단방목지에서	박경호
눈 내린 뒤	양국진
장자강반에서	리명호
농촌의 저녁	한태룡
강성대국건설의 첫 포성	원성룡
대극장공원에서	강영민
고려성균관의 가을풍경	김주현
모란공원	김유동
대홍단의 가을	김웅남
양어장에서	김충진
천지기슭에서	장재식
안산공원에서	고충혁
위원 구암리의 봄	리태성
창범산의 가을	김영철

수채화

작 품 명	창작가
구월산월정사	리평강
내칠보의 형제폭포	백락현
포태산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권시백
저녁	천승택
구룡골의 아침	김진철
만경대의 봄	김수남
산촌의 메아리	장승환
염분혁명사적지풍경	김명학
석암느티나무	김응모
사랑의 다리 해돋이	김영철
조옥희영웅의 석상이 보이는 풍경	손기찬
선물영농물자가 온다	김성남
풍화리의 4계절	김의향
밤을 모르는 언제건설장	김광혁
옥도리풍경	문광철
대성산유원지에서	황정균
주체탑거리	송왈은
보통강의 밤	김경호
릉라도식수터에서	최명길
대동강의 저녁	강영남
금부리가 바라보이는 곳에서	함준혁
사동공원사적지의 화초원	박대성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건설장	〃
무진촌의 가을	김일조
장군봉이 보이는 곳	전정욱
백두밀영의 아침	편길선

뗌뻬라화

작 품 명	창작가
칠보산의 오봉산	리종해
옥련2호소형발전소풍경	신철호
룡흥강상류	전호일
새벽	박원일
사자봉이 보이는 곳에서	한창혁
석담풍경	리명철
상원암의 푸른 소나무	최경화
천리마동상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박영호
만폭동으로 가는 길에서	홍수강
사랑의 무지개	윤성호
아침	조영철

뗌뻬라화

작 품 명	창작가
포태산이 보이는 곳	정선일
고향의 아침	지철혁
백두고원의 가을	리영림
오산덕의 가을	황현철
산촌의 아침	전병구
양두리의 가을	박춘화
간백산에서 본 정일봉	리철민
소백수발전소	강재원

펜화

작 품 명	창작가
김정숙료양소풍경	장승동
만경봉92호	엄유현

연필화

작 품 명	창작가
천지의 노을	백승학
선봉항의 저녁	한경보

판화

작 품 명	창작가
부두가의 밤	주시웅
고말산사적지풍경	〃
풀판으로	정광수
안변의 가을	김국보
동음	고영철
압록강상류	문영옥
구월산의 저녁	김인철
저녁	김영철
산촌의 여름	정일선
진군의 첫 아침	박영일
양어장의 저녁	한성호
첫눈	홍용일
이른 봄	〃
백두산	안광명
첫눈	리홍철
자성강계곡	홍준식
12월	리광철
불빛	박 길
12월의 아침	리국철
월정사의 저녁	김동철

판화

작 품 명	창작가
불멸의 글발(금속판화)	리원철
아침(수인판화)	윤하도

꽛슈화

작 품 명	창작가
어랑의 바다풍경	리경학
대동강반의 저녁	김명진
안개 낀 강변	최재식
인곡동사적지풍경	전호일
사자봉으로 가는 길(크레파스)	리문학

도자기

작 품 명	창작가
방목지로	김승진 임호익
푸른 잎	김승진
못가	김승진 박민석
목련장식화병	전장만
초롱꽃	〃
국화장식꽃병	김문갑 라정철
봄	김문갑
목장의 여름	리만균
설경장식꽃병	김문갑
민들레장식꽃병	김성호
은방울장식꽃병	박인석
코발트흐름유꽃병	〃
흐름유꽃병	김문갑
감자꽃장식꽃병	민경춘
버섯장식간식함	박성남
설경	한현호
약동하는 봄	한명찬
회령의 백살구꽃	현 웅
백살구장식꽃병	김성호
이삭장식단지	안정심
메기장식꽃병	홍동철
줄당콩투각장식꽃병	〃

수예

작 품 명	창작가
사연 깊은 곰취	김미숙
백두광명성	함련희
2월의 환희	김영숙
철령의 서리꽃	리순영
삼지연의 가을	김진숙
새 품종	권혜경
회령의 백살구	서미경
정일봉의 쌍무지개	현향미 손의선
안변의 아침	라국화
철령의 진달래	김선희
소백수의 박우물	박혜경 리명희

수예

작 품 명	창작가
만경대의 봄	박창원 김성희 송선희
눈꽃 핀 백두밀영고향집(장식수예)	김경숙

나무공예

작 품 명	창작가
민족의 자랑	고영남
포도장식붓꽂이	리승섭
붓꽂이	류성호
국화장식붓꽂이	전형묵
심술 부리는 염소(돌공예)	방 철
앵두그릇(유리공예)	송왈은
계승(라크화)	서승명

평양미술대학창립 52돐 미술전람회
주요작품목록중에서

조선화

작 품 명	창작가
혈전의 진두에 서시여	정현일
인민군군인들의 스키훈련을 보아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정 철
승리의 신심과 랑만을 안겨 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김기철
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길에서	박창룡 곽영운
첫 녀성락하산병이 되시여	최광현 최옥균
묘향산계곡	리경남
불영대로 가는 길	〃
모란봉감찬정의 가을	허현하
신평1호발전소가 보이는 곳	차성철
모란봉유원지에서	김민성
정물	강은주
신평발전소로 가는 길	김경애
소녀(반신)	천광혁
출강	김철민

조선화

작 품 명	창작가
묘향산하비로암	강명건
꿩	김학철
로동자(얼굴)	김대철

유화

작 품 명	창작가
비행장복구건설에 동원된 대학생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정문철
대동문의 봄	리유성
빙상관이 보이는 풍경	리경준
백두산밀영답사각	리길호
평양종의 아침	유춘미
소백수풍경	김정혁
인물(전신)	리신철
장수산바위	임현선
인물(얼굴)	리영경
은파호가 보이는 풍경	강상일

수채화

작 품 명	창작가
묘향산보현사수림	차현호
련광정의 풍경	손영호
인물(반신)	리철진
인물(반신)	최경미
숲	김정순
인물(반신)	한승혁
묘향산풍경	김길연
식물원풍경	리광영
만수교가 보이는 풍경	양영찬
대동문풍경	김성진
유점사종각	리경철

수예

작 품 명	창작가
목란	김충복
진달래	리혜성
도라지꽃	김명순
원추리	홍선화

소묘

작 품 명	창작가
녀성군인초상	원광진
청년학생	오은별
유격대지휘관	지현일
녀성과학자	김진규
락동강할아버지	최은철
인물(반신)	김영미
인물(전신)	김경철
과거의 어린 탄부	김철만
피바다 어린이석고상	신애현
눈	리기성
귀	라명일

도안

작 품 명	창작가
벽등도안(건축장식)	문혜경
환기구장식도안(건축장식)	김미경
어린이자전거도안(공업미술)	리복순
여러가지 어린이옷도안(의상미술)	오현선
화대장식도안(건축장식)	로인삼
어린이옷도안(의상미술)	송계옥

조각

작 품 명	창작가
시료공	김광석
어린 머슴	하인범
용해공(얼굴)	김진영
호랑이	박철준 리원철
강성대국렬차 달려요	오은성
무용수	궁광식
항쟁	리주혁
양어장의 처녀들	강유철
녀성락하산병	심종철
풍년 든 남새온실	박금일
고역	김성학
전승의 날	박무성
장애물극복	임세혁
장고춤	홍철혁
우리분단토끼	조명일

공예

작 품 명	창작가
정일봉상감장식꽃병	김수남
꽃병	최광일
코끼리무리(돌공예)	장영진
고구려무사(목칠공예)	리명일

서예

작 품 명	창작가
강성부흥	최미순
묘향산가을날에	주은희

선전화

작 품 명	창작가
태양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총대로 지키고 총대로 떨치자!	최성근
감자농사에서 대풍을!	리만규
신천땅의 사무친 원한을 천백배로 복수하리라!	문성민
물 있는 모든 곳에서 양어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자!	김영철
우리 시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자!	선전화강좌 집체작
포부는 시대의 영웅, 목표는 강성대국 모두다 제2의 천리마대고조에로!	〃

공훈예술가 황영준풍경화전람회 작품목록

조선화

작 품 명
금강의 세존봉 아침노을
금강폭포
금강산의 집선봉계곡
소백수기슭
새 아침을 맞는 금강의 기상
수정봉 한하계 옥계수
백정봉의 백계수절경
천폭동삭주폭포절경
천불동계곡
간백산기슭
세지봉계곡의 청계수
채하봉계곡
묘향산비단폭포가을
묘향산의 봄향기
금강의 락락장송
천폭동륙선암가을단풍
금강의 풍경
삼지연의 봄
설옥동계곡
묘향산하비로계곡
금강의 발연두계곡
금강의 령신동계곡
묘향산비선폭포
렴주폭포, 백연폭포
동석동
구정봉기상
성문동
금강산문수쌍폭포
아, 천하절승 금강산
만물상의 천주봉
금강의 천하대
천불산계곡의 가을단풍
해바라기
금강의 집선봉절경
금강의 만물상웅좌
만물상 삼선암절경
금강의 부운대가을
천하계곡의 쌍폭포

조선화

작 품 명
박연동계곡
만물상천선대
만물상
일출봉
만물상세지봉으로
대성산성남문의 기상
금강의 로송은 푸르다
가을의 금강
해금강
홍원바다기슭
계곡의 진달래
바다기슭
백두밀영
통천바다기슭
회창계곡
만물상의 가을
리원학사대
만물상의 삼선암
리원어항에서
리원바다
초여름
양덕의 가을
홍원바다
잔잔한 바다
포태산의 봄
청봉으로 가는 길
보천보
구성동계곡
묘향산의 가을단풍
관음련봉계절폭포
금강의 선하계
모란봉 을밀대의 서정
모란봉기슭
김일성화
김정일화
평방천리마작업반
하비로로 가는 길
리명수발전소건설장에서

조선화

작 품 명
가림천의 하루
리명수중소형발전소 건설자
수선화
금강산의 옥녀봉
5호물동 첫 행군로
벽성군 장현리
금강산 보덕굴
팔가조
금강산 만폭동
금강산 관음련봉
금강의 옥녀봉절경
리명수강기슭
백두산천지
홍기하전투
리명수발전소
염소떼
포태산이 바라보인다
보천보
건창숙영지
성북성의 봄
양덕은하리가을
포태산기슭
2.8비날론공장
청봉숙영지
무산군 박천리숙영지
성청군 회창에서
소백수로 가는 길
건창계곡의 청계수
밀림
삼일포
봄을 맞으며
보금자리로 돌아 왔다
백두산
소백수도 기쁨에 설레인다
벌목공
류벌공의 첫 떼

인민예술가 김승희미술전람회주요작품목록

조선화

작 품 명
청류벽을 바라보며
만물상의 봄
마하연의 묘길상
보통강에 비둘기 날아 든다
분계선의 달
칠보산 월정사
장수산현암에 가을이 왔다
대성산성에 눈이 내린다
청류벽의 가을
우리 나라
구룡연이 보이는 풍경
모란봉에 눈이 내린다
모란봉의 봄

조선화

작 품 명
구룡각을 내려다 보며
감찬정의 가을
청류벽의 봄
만물상으로 올라 가는 길에서
신념의 화신 리인모동지
뒤뜰
신천의 백둘어린이들
봄
칠성문에 봄이 왔다
외금강, 만물상의 가을
평양성벽에 눈 내린다
묘향산의 등산길
널뛰기

조선화

작 품 명
온수령
꽃속에서(통일놀이)
유구한 문화전통
봉화갑문건설장
충성의 다리건설장
자화상
인물속사(어린이)
녀인속사
인물속사(5점)
현실속에서(로인)
창작을 위한 습작(31점)

《김일성상》계관인, 2중로력영웅, 인민예술가 정영만미술작품전람회작품목록중에서

조선화

작 품 명
백두산천지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적의 포위망을 뚫고 신입대원의 권총을 찾아 주시는 열렬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
만경대의 갈림길에서
재진격하는 부대들의 환호에 답례하시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
용해공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조국의 미래를 그리시며
삼지연의 새벽길
만경대생가앞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석탄전사들을 현지에서 고무격려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조선화

작 품 명
강선땅을 찾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새로운 갑문건설의 러전을 마련하시며
강선의 로동계급을 전리마대고조에로 불러 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
농촌기계화초병들을 찾으신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
영화촬영현장을 찾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광복거리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펼치시며
조국통일의 념원을 안으시고
백두산천지에 오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강선의 저녁노을
백두의 해돋이
백두산의 붉은노을
집선봉의 여름
선전화《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을 목숨으로 옹호 보위하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자!》

이외 사진자료 총 67점

만점짜리 창조물로 훌륭히 건립된 돌대문과 돌울타리

금수산기념궁전의 정면에 높이 모셔 져 있는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과 함께 위엄 있게 안겨 오는 화강석바탕에 금빛으로 빛나는 대원수별 그리고 대원수별을 정중히 받들어 올린 목란꽃과 진달래꽃부각장식들, 굽도리를 감싸며 장식된 대원수견장월계수로 이루어 진 돌대문과 구름학을 형상한 돌울타리…

바라보면 볼수록 천하제일위인의 위대성과 인민의 절절한 념원이 하나로 집대성되여 경건히 안겨오는 국보적인 걸작품이다.

세상에는 에짚트의 피라미드와 같이 인류의 자랑으로 널리 알려 져 온 세계적인 건축물들이 있다. 하지만 력대의 그 어떤 건축물도 수십t의 통돌로 품위를 돋구며 조형예술적으로 훌륭하게 그리고 웅장하면서도 무게 있고 특색 있게 건립된 금수산기념궁전의 돌울타리와 돌대문에 비길수 없다.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이 기념비적창조물이 그 어느 창작가나 석공들의 높은 재능과 열정에 의하여 마련되였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수령존대의 사상으로 일관된 끝 없는 충정과 뜨거운 지성이 낳은 또하나의 위대한 결정체입니다.》

격정에 넘쳐 말하는 만수대창작사 일군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숭고한 령도의 손길아래 엮어 져 온 창조의 나날들을 감동깊이 되새기게 된다.

주체85(1996)년 10월 13일 해당 부문의 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듭되는 지도와 가르치심대로 다듬고 다듬어 형상완성한 돌울타리와 돌대문 1대1 모형을 그이께 보여 드리게 되였다.

현지에 나오시여 자기 위치에 설치된 모형들을 크나큰 만족감을 안고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정말 요란하고 아주 보기 좋다고 하시면서 할바에는 이렇게 세상에 없는 20세기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남게 우리식으로 되여야 하며 하나의 훌륭한 예술작품으로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여러 규모와 형태의 울타리모형들에 대하여 료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돌로 만든 울타리가 품위 있고 보기도 좋다고 하시며 울타리가 허전한 감이 없이 만년대계로 될수 있게 통돌로 하자면 5m짜리를 3개로 무어 한 경간을 이루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그후에도 여러차례나 현지에 나오시여 울타리를 통돌로 꼭 같게 찍어 놓은것처럼 할데 대하여서와 규모와 형식, 재질과 장식형상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옛날사람들이 한 단청을 지금 사람들도 재간 있게 하였다고 감탄하시며 22세기나 23세기는 물론 그이상의 먼 후날에도 금수산기념궁전 돌울타리를 보는 사람마다 20세기 로동당시대의 사람들이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신 금수산기념궁전 울타리를 정말 정성 들여 건설하였다고 칭찬하도록 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충성으로 불 타는 가슴에 새긴 만수대창작사의 창작가들과 전투원들은 온 나라 인민의 뜨거운 지성속에 엄동설한과 무더위속에서도 70여t이나 되는 원석을 100여개나 가공하여 돌울타리와 대문을 최상의 수준에서 제작하였다.

주체86(1997)년 4월 하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제작된 금수산기념궁전 돌울타리견본을 보아주시기 위하여 만수대창작사를 찾으시였다. 정교하고도 세밀하게 부각형상된 웅장한 돌울타리를 보고 또 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아주 훌륭하게 만들었다고 크나큰 만족을 표시하시며 말씀하시였다.

《돌울타리가 정말 희한합니다. 이런 돌울타리는 세상에 우리 나라밖에 없을것입니다.》

이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제 돌울타리까지 완성해 놓으면 금수산기념궁전이 주체의 최고성지로서 더욱 빛을 뿌리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에서 하라고 하면 기어이 해내고야 마는 만수대창작사 일군들과 창작가들의 충성심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진짜배기 충성의 집단이라고 높은 평가를 안겨 주시였다.

최상의 영광을 받아 안은 창작가들과 전투원들은 끝 없는 충성과 지성을 바쳐 착공한지 불과 몇달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웅장화려한 돌울타리와 돌대문을 일떠세웠다.

오늘에 와서 보게 되는것처럼 금수산기념궁전에 새로 세워 진 천연화강석울타리는 그 길이가 수백m이고 한 경간의 길이는 수십t의 무게를 가진 통돌조각 3개로 이루어 져 있다. 그리고 돌대문의 무게는 한쪽만도 수십t이나 된다. 울타리와 대문의 규모와 형식, 내용에 이르기까지 세계에 없는 거창한 창조물로 세우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통이 크고 대담한 발기, 거기에는 충정과 지성을 다하여 최상의 경지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확고한 신념과 철석 같은 의지가 넘치고 있다.

어느 날 현지지도의 길에서 기념궁전에 세워 진

돌울타리를 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돌울타리가 경치에 어울리게 잘 조화되여 정말 멋 있다고, 버드나무가 울타리를 가리운다고 하여 없애려고 한다는데 한대도 없애지 말라고, 경치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념원과 정력적이고 세심한 령도의 손길에 의하여 세계에 하나뿐인 위대한 창조물로 돌울타리와 돌대문이 세워 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금수산기념궁전은 주체의 최고성지로 온 세상에 더욱 빛을 뿌리게 되였다.

관 평

주체미술의 위용을 과시하는 자랑찬 화폭들

－만수대창작사창립 40돐기념 미술전람회장을 돌아 보고－

만수대창작사창립 40돐기념 미술전람회에는 조선화, 유화, 출판화, 보석화, 수예, 공예, 조각을 비롯하여 700여점의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였다.

전람회는 일찌기 세계굴지의 종합적인 미술창작기지를 꾸려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지난 40년간 미술창작의 활무대에서 마음껏 재능을 꽃 피워 온 미술창작가들의 놀라운 실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빛나는 혁명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미술작품은 수령의 위대성을 보여 주며 수령의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데 이바지한다.》

수령의 위대성을 화폭에 담아 후세에 길이 전하는것은 사회주의미술의 기본임무이다.

전람회는 수령영생위업의 성스러운 혁명실록이 엮어 진 지난 50년간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령도밑에 수령형상창조에서 빛나는 장을 아로 새긴 주체미술의 새로운 발전높이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전시된 많은 작품들을 보면 수령형상창조에서 주제의 폭을 더욱 넓히고 깊이 있고 참신한 종자를 골라 잡아 훌륭히 형상하기 위하여 창작가들이 진지한 탐구와 사색을 기울이였음을 알수 있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완성된 조선화《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조선화작품들인《항일의 혈전만리》,《몸소 불 타는 고지에 오르시여》,《풍년든 포전마다》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눈보라만리, 혈전만리를 헤치시고 한평생 험한 길을 다 걸으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영상을 생동하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수령형상창조의 모범작이라고 말할수 있다.

조선화《몸소 사선을 헤치시고》, 유화들인《태양의 품》,《고향 만경대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국제련합군회의에서 조국광복을 위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는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비롯한 작품들도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의 순간순간을 불멸의 화폭으로 훌륭히 담은것으로 하여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빛내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전람회에는《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진두에서 단신으로 헤치시여 우리 인민앞에 강성대국건설의 앞길을 열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형상한 작품들도 많이 전시되였다.

조선화작품들인《자강도인민들을 락원의 행군에로 이끄시여》,《락원의 불빛》,《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승리의 행군길》, 조각《최전연의 령길에서》등은 철학성 있는 종자와 주제를 가지고 풍부하고 세련된 형상적수법으로 완성된 작품들이다.

그러므로 작품들을 보느라면 독창적인 선군령도로 이 땅우에 강성부흥의 새 력사를 안아 오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로고가 심장으로 헤아려 지고 장군님에 대한 한 없는 그리움이 가슴 가득 고여오른다.

전람회는 또한 조선보석화《우리 어머님》을 비롯한 위대한 김정숙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미술작품들을 통하여 주체미술이 백두산3대위인의 불멸의 모습을 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한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음을 잘 보여 주었다.

전람회는 또한 오늘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 있게 고무추동하는 무기로서의 주체미술의 면모를 훌륭히 보여 주었다.

전람회에 전시된 일반주제작품들은 현시기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우리 시대 영웅들의 투쟁정신을 따라 배워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다그쳐 나가는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생동하게 형상하고 있다.

조선화들인《성강의 불길》,《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구보로》,《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와 같은 작품들은 창작에서 전형화의 원칙을 구현하여 오늘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지향과 생활을 진실하게 보여 준 잘된 작품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 작품들은 차강도와 성강 그리고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장 등 강성대국건설의 불꽃 튀는 전투장에서 기적과 위훈을 새겨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개성이 있게 생동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시대의 숨결이 그대로 느껴 지고 산 인간들의 모습이 비낀 그림이라야 사람들의 심장을 그러 잡고 당의 부름앞에 자신의 심장을 끓이고 있는가를 되새겨 볼수 있게 하는 감화력과 여운을 남길수 있는것이다.

전람회에서 주목되는것은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대홍단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려 나가는 청년들의 모습을 순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판화《대홍단의 숨결》과 조각《한삽 더》등의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도 사상예술성이 높은것으로 하여 부강조국건설을 위하여 떨쳐 나선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 주었다.

전람회에 전시된 풍경화들도 사상주제적내용이 명백하고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이다.

《백두밀영고향집에 피여 난 **김정일**화》와 백두산에서 피여 나는 각이한 아름다운 꽃들을 화폭에 담은 많은 수예작품들, 조선화들인《성강의 파도》,《양어장의 버드나무》,《정방산의 사계절》그리고 조선보석화《칠보산의 쌍지암》을 비롯하여 풍경화들은 모두 주제가 뚜렷하고 뜻이 깊으며 정서 있게 형상되여 사람들에게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조국애를 더욱 깊이 심어 주었다.

전람회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그에 토대하여 끊임 없는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주체미술의 발전수준을 남김 없이 보여 주었다.

그리고 지난 시기 주로 장식용으로만 쓰이던 틀을 마스고 우리 나라의 재료로 창작한 자개박이《금수산기념궁전》,《만경대생가》,《백두밀영생가》,《회령생가》, 그런가 하면 주체미술의 고유한 형식으로 나날이 발전되여 가는 조선보석화작품들, 또한 세계에 이름 높은 고려청자기들을 비롯한 민족의 슬기가 넘쳐 흐르는 도자기와 공예작품들은 그 하나하나의 작품들이 다 정교성과 예술성을 보여 주었다.

특히 조선화작품들인《소백수》,《철령》은 그 형상수준에 있어서 놀라움을 자아내는 작품으로서 천연색사진을 보는듯 한 감을 주고 있다.

참으로 이번 전람회는 주체미술발전에서 중추를 이루고 있는 만수대창작사의 40년력사를 보여 주는 동시에 눈 부신 발전의 길을 걸어 온 주체미술의 높은 수준을 보여 주었다.

전성기를 자랑하는 주체미술은 오늘도 자랑스럽지만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류미술의 최절정에서 영원히 개화발전할것이다.

관 평

주체미술교육의 찬란한 모습을 보여 준 뜻 깊은 전람회

－평양미술대학창립 52돐 미술전람회를 보고－

최 광 송

주체88(199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조선미술박물관에서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을 비롯한 미술애호가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평양미술대학창립 52돐 미술전람회가 련일 대성황리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이번 전람회에는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으로 인한 그처럼 어려운《고난의 행군》속에서도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며 주체미술교육의 대를 꿋꿋이 이어 온 평양미술대학 교원, 창작가들과 학생들이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창작한 조선화, 회화, 조각, 출판화, 공예, 산업미술, 서예를 비롯한 미술의 전반적종류와 형태의 작품들과 습작품들 그리고 소묘, 채색, 교재작품 등 364점의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였다.

전람회는 생활경력과 년령심리적특성이 서로 다른 1년제 예비과의 나어린 재능 있는 학생들로부터 대학과 함께 한생을 걸어 온 능력 있는 교원, 창작가들과 연구사들이 창작한 회화작품들, 실용미술작품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성격을 띤 미술작품들을 비롯하여 국가미술전람회에서는 찾아 볼수 없는 다양하면서도 다채롭고 참신한 작품들이 수많이 창작전시되였다.

전람회에 전시된 모든 작품들에 일관하게 관통된 특징은 우리 당의 독창적인 미술교육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였고 주체적인 미술교육분야에 쌓아 올리신 우리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빛나게 구현되고 있으며 주체성과 민족성이 고수되고 확고히 담보되고 있다는것이다.

뿐만아니라 미술교육의 체계와 내용, 그 방법에서 이색적이며 범벅교육의 모든 불건전한 요소들

이 철저히 극복되고 우리 식의 미술교육이 주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발전하고 있는것이다.

전람회에는 교원, 창작가들이 창작한 조선화작품들인《혈전의 진두에 서시여》(교원 정현일작), 《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길에서》(교원 박창룡, 곽영운작), 《첫 녀성락하산병이 되시여》(최광현, 최옥균작), 《인민군군인들의 스키훈련을 보아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교원 정철작), 《승리의 신심과 랑만을 안겨 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교원 김기철작), 유화《황주비행장복구건설장에 동원된 대학생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교원 정문철작)는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과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을 다양한 화폭들에 담아 숭고한 높이에서 훌륭하게 형상한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교원, 창작가들이 창작한 이 모든 작품들은 내용에서나 형상성에 있어서 심오하고 세련된 기교와 함께 진실한 묘사로 하여 전람회장을 찾는 관중들이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하였다.

전람회장에는 우리 당의 품속에서 마음껏 재능을 꽃 피우고 있는 학생들이 현실에 대한 깊은 조형적 안목과 탐구심을 가지고 원리적인 묘사로 순차성 있게 그려 생신한 감을 주고 있는 수백점의 우수한 미술작품들이 미술교육기관의 특성에 맞게 다채롭게 전시되여 찾아 오는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끌었다.

세화기법으로 조국의 최전연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있는 인민군초병들의 모습을 형상한 조선화《조국의 안녕을 지켜》(조선화학과 5학년 송학진작), 준엄한 시련의 고비를 헤쳐 온 승리자들의 자랑찬 모습을 집약적으로 보여 준 조선화《강행군의 승리자들》(조선화학과 5학년 문세웅작),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 주신 조국땅에서 토지를 분여 받은 기쁨 안고 첫봄을 맞이하고 있는 한 녀인의 형상을 특색 있는 형식으로 창작한 조선화《새봄》(조선화학과 5학년 강학철작) 그리고 교재작품들인《묘향산계곡》,《불영대로 가는 길》(조선화학과 4학년 리경남작), 《모란봉 감찬정의 가을》(조선화화조학과 5학년 허현화작), 《신평1호발전소가 보이는 곳》(조선화화조학과 3학년 차성철작), 《정물》(조선화화조학과 1학년 강은주작), 《로동자얼굴》(조선화학과 3학년 김철민작)은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조선화의 전통적인 다양한 수법과 기법들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작품의 사상예술적품격을 높이고 민족적특성을 뚜렷이 살려 냄으로써 조선화를 우선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주체적인 미술건설방침의 독창적인 사상이 조선화교육분야에 훌륭히 구현되고 있다는것을 뚜렷하게 실증하여 주었다.

이번 전람회에는 유화, 보석화, 벽화, 영화 및 무대미술, 텔레비죤미술작품들도 특색 있게 전시되였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비롯하여 전국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 그리고 명승지들에 직접 나가 그린 유화교재작품들인《백두산밀영답사각》(유화학과 4학년 리길호작), 《소백수풍경》(유화학과 4학년 김정혁작), 《대동문의 봄》(유화학과 1학년 리유성작)은 유화전공부문의 학생들이 현실을 간결하고 선명하고 섬세하게 묘사하는 우리 식의 유화기법들을 능란하게 구사하였다.

전람회에는 우리 나라에서 최근에 새로운 미술형식으로 창조한 보석화를 미술교육분야에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 처음으로 창작한《수중금강》, 《산촌의 겨울》(연구원 한광호작)과 같은 보석화작품들이 전시되였는데 그것들은 한결같이 형상이 아름답고 정교한것으로 하여 전람회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특이한 정서를 안겨 주었다.

그리고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쪽무이와 색부각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내용을 반영한 벽화작품들과 수채화, 괏슈화작품들도 수많이 전시되여 주체적인 미술교육발전의 일면을 잘 알수 있게 하였다.

전람회장에는 또한 일찌기 우리 나라에 흔한 돌과 나무 그리고 금속과 세멘트를 가지고 조각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조각학부 교원, 학생들이 창작한 조각작품들과 장식조각작품들이 수많이 창작전시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태양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총대로 끝까지 지키고 빛내여 나갈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드팀 없는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직관적으로 힘 있고 선명하게 보여 준 선전화《태양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총대로 지키고 총대로 떨치자!》(교원 최성근작)와 같이 우리 인민들을 강성대국건설에로 적극 고무추동하는 선전화《우리 시대의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자!》(선전화강좌 교원 집체작)를 비롯하여 계급교양을 주제로 한 작품들, 감자농사혁명을 일으키며 양어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사상을 민감하게 반영한 작품들은 화폭마다에 차넘치는 내용의 선동성과 호소성, 전투성으로 하여 시대를 안고 사는 교원들과 학생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높은 창작적기량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또한 공예와 산업미술의 교육적성과를 보여 주는 인상 깊은 공예 및 실용미술작품들이 전시됨으로써 전람회장을 더욱 다채롭게 장식하고 흥성거리게 하였다.

도자공예《정일봉상감장식꽃병》(도자유리공예학과 4학년 김수남작), 《물고기하회장식꽃병》(도자유리공예학과 5학년 장금호작), 《대동강숭어떼》(도자유리공예학과 5학년 진상용작)는 학생들이 재료에 대한 깊은 파악에 기초하여 다양한 형태구성과 재치 있게 그려 넣은 그림솜씨에 의한 다양한 장식수법으로 하여 도자공예품의 예술적가치를 더욱 높여 주었다.

옥돌공예《코끼리무리》(돌 및 금속공예학과 5학년 장명진작), 옻칠공예《모란상감 장식옻칠상》(목칠공예학과 5학년 김영원작)을 비롯하여 나무공예, 유리공예, 금속공예, 교재작품들과 창작품들 그리고 섬세하고 정교한 솜씨에서 수예가의 고상한 예술적기교가 독특하게 표현되는 수예작품들인《목란》(수예학과 4학년 김충복작), 《진달래》(수예학과 4학년 리혜성작), 《토끼》(수예학과 4학년 김향미작)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은 공예학부학생들의 높은 예술적재능으로 하여 공예교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고 주체적으로 발전하는 공예예술교육의 풍부성과 다양성을 널리 시위하였다.

이와 함께 전람회에는 실용미술의 기본형식인 여러 갈래의 산업미술작품들이 종류별로 다양하게 전시되였다.

공업미술도안작품들인《어린이자전거도안》(공업미술학과 5학년 박길준작), 《평양99궤도전차도안》(공업미술학과 5학년 최창범 작), 방직미술도안작품들인《날염장식물도안》(방직미술학과 6학년 리명호작), 《날염원피스감도안》(방직미술학과 6학년 류현숙작), 의상미술도안작품들인《여러가지 어린이옷도안》(의상미술학과 4학년 오현선작), 《명절옷도안》(의상미술학과 6학년 김성영작), 《뜨개옷도안》(의상미술학과 5학년 리영심작)을 비롯하여 우수한 수십점의 산업미술도안들은 산업미술교육에서도 주체성과 민족성을 옳게 살려 나가고 있다는것을 잘 보여 주었다.

작품들은 발전하는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과 사회주의적생활양식에 맞게 세련된 형태미와 아름답고 고상한 색갈로 특색 있게 창작한것으로 하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적랑만과 기백이 차넘치게 하였다.

이번 전람회에는 이밖에도 활달한 필력으로 다채롭게 쓴 서예작품들인《강성부흥》(서예학과 5학년 최미순작), 《묘향산 가을날에》(서예학과 2학년 주은희작)를 비롯하여 수많은 서예작품들과 미술전공기초교육에서뿐아니라 앞으로 모든 미술창작가들이 필수적으로 근기 있게 진행하는데서 참고로 될 수십점의 석고소묘교재작품들과 인물교재작품들이 전시된것으로 하여 청소년학생들을 비롯한 미술애호가들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참으로 이번에 진행된 평양미술대학창립 52돐미술전람회는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자기들의 예술적재능을 마음껏 꽃 피우고 있는 학생들과 한생을 미술교육사업에 바쳐 가고 있는 숨은 노력가들인 교육전사들에 의하여 우리의 주체미술교육은 끊임없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것을 널리 시위하였을뿐아니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에게 우리의 주체미술교육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 당의 미술로 빛나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였다.

미술전람회, 전시회 진행

선전화전람회 진행

새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에로 부르는 선전화전람회가 주체88년(1999)년 1월 19일부터 2월 5일까지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전람회에는 90여점의 선전화작품들이 전시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건국의 길에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강성대국건설의 만년재보이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충성으로 받들어 모시자!》,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등 선전화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건국시조로,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 따라 이 땅우에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장엄하고 보람찬 총진격에 전당, 전군, 전민이 한사람같이 떨쳐 나설것을 힘 있게 호소하였다.

또한 전람회에는 전후 천리마선구자들의 투쟁정신과 생활기풍을 따라 배워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다그쳐 강성부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대중을 적극 불러 일으키는 선전화들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신다면 침략자들을 단매에 쳐부시고 주체조선의 존엄을 만천하에 떨쳐 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 있는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선전화들이 전시되였다.

개막식에는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문화성 송석환부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된 선전화들을 돌아 보았다.

경사로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중앙미술전시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중앙미술전시회가 주체88(1999)년 2월 11일 조선미술박물관에서 개막되였다.

전시회장에는 백두의 정기를 안으시고 탄생하시여 수십성상 조선혁명을 령도하여 오시면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휘황한 전망을 열어 놓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과 업적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우리 인민의 억센 기상을 보여 주는 100여점의 조선화, 유화, 선전화 등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였다.

전시회장정면에는 백두의 눈보라속에서 준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 잡으신 백두령장의 담력과 기상을 형상한 조선화《위대한 령장 **김정일**원수》가 모셔져 있었다.

조선화《뜻 깊은 설날에 전사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과학자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사색》을 비롯한 작품들은 언제나 인민의 힘에 튼튼히 의거하시여 우리 나라를 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으로뿐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일떠세우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사색과 로고를 바쳐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풍모를 훌륭히 형상하였다.

또한 선전화《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는 리수복형의 육탄영웅, 길영조형의 자폭용사가 되자!》,《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다그쳐 나가자!》등 당과 혁명,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며 당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투쟁할 우리 인민의 굳센 신념과 기상을 보여 주는 작품들, 우리 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 주는 작품들, 백두산의 명소들과 각지의 절승경개들을 형상한 작품들이 전시되였다.

중앙미술전시회 개막식에는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미술창작가들과 애호가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인민군 미술전시회 진행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탄생 기념일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미술전시회가 주체88(1999)년 2월 11일 4.25문화회관에서 개막되였다.

전시회장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위인적풍모와 혁명무력강화발전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 고매한 령도풍모를 형상한 미술작품들을 비롯하여 360여점의 조선화, 선전화, 유화, 조선보석화 등이 전시되였다.

전람회장 중심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거룩한 모습을 형상한 조선화《3대장군위인립상》이 모셔 져 있었다.

전시회에는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고 우리 나라를 자위의 국방력을 가진 강위력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업적을 보여 주는 유화《장군님과 전사들》,《승리의 포성을 들으시며》, 선전화《무적강군》등의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였다.

이와 함께 조선화《위대한 력사의 아침》,《친어버이사랑》, 유화《우리 첫 땅크병들이 정말 대단합니다》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인민군군인들에게 자애로운 사랑을 부어 주시는 모습을 형상한 여러편의 작품들도 전시되였다.

또한 선전화《수령결사옹위는 최고의 애국, 최대의 충정》등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리수복형의 육탄영웅, 길영조형의 자폭용사로 준비하는 투쟁모습을 형상한 작품들도 전시되였다.

이밖에도 선전화《이 행성에서 우리의 타격을 막아낼 자 없다!》등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침해하는 원쑤들에게 무자비한 타격을 안길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난 우리 혁명무력의 전투적기상과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꽃 피워 가는 인민군군인들의 모습을 형상한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였다.

조선인민군 미술전시회 개막식에는 륙해공군장병들과 군인창작가들이 참가하였다.

전국풍경화전람회 진행

2.16경축 전국풍경화전람회가 주체88(1999)년 2월 12일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개막되였다.

전람회장에는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재능 있는 미술창작가들이 지혜와 정력을 바쳐 창작한 조선화, 유화, 출판화 등 200여점의 풍경화작품들이 전시되였다.

조선화《천지의 눈보라》,《백두산의 봄》, 유화《백두산 장군봉의 해돋이》,《주체의 성지를 바라보며》, 출판화《2월의 소백수》를 비롯한 작품들에는 주체조선의 찬란한 태양으로 솟아 오르시여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어버이수령님의 유훈대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 나갈 인민의 맹세가 어려 있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꾸려 주신 구월산과 칠보산, 정방산을 비롯한 명산들의 사계절풍경을 생동하게 형상한 조선화《구월산의 단풍계절》,《모란봉의 겨울》,《묘향산천길폭포》, 유화《만폭동의 가을》,《해칠보에서》등 작품들은 조국산천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전람회에는 또한 선명하고 섬세하면서도 함축과 집중의 기본특징을 잘 살려 형상한《감자꽃 설레이는 대홍단》,《방목지의 여름》,《우리 마을 삼탄》등 조선화작품들, 강성대국건설로 들끓고 있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거세찬 숨결을 설득력 있는 조형직관적 형상으로 훌륭히 반영한《아암리소형발전소풍경》,《룡등의 밤》을 비롯한 출판화작품들도 전시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과 평양시내 미술창작가들, 미술애호가들이 참가한 개막식에서 문화성 송석환부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2.16경축《전국풍경화전람회》참가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5월 19일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입선자들에게 메달과 증서가 수여되였다.

입선된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1등

유 화 **《감자꽃 필 때》** 백봉연
중앙미술창작사

2등

조선화 **《가림천의 6월》** 한성철
평양미술대학

유 화 **《황철의 숨결》** 오락삼
황해북도 사리원시

유 화 **《1월》** 유광혁 철도성미술창작사

판 화 **《소백수의 아침》**박영일, 리홍철
중앙미술창작사

3등

조선화 **《감자꽃 설레이는 대홍단》** 허영일
평양미술대학

〃 **《눈꽃 핀 직령고개》** 김경석
중앙미술창작사

〃 **《석왕사의 가을》** 리형창
강원도미술창작사

유 화 **《양어장의 저녁》** 장명룡
평안북도미술창작사

판 화 **《새 철길》** 주시웅
청진철도미술창작사

태양절을 기념하여

중앙미술전시회 진행

태양절기념 중앙미술전시회가 주체88(1999)년 4월 6일 조선미술박물관에서 개막되였다.

전시회장에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한없이 숭고한 위인적풍모를 보여 주는 120여점의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였다.

전사회장의 정면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애로운 태양상과 백두산3대위인의 영상이 정중히 모셔 져 있었다.

조선화《만경대생가앞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12년 4월 15일》,《사향가》,《미제를 타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 유화《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 주어야 하오》등 작품들은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 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활동과 령도업적을 잘 보여 주었다.

또한 유화《백두고원에 감자풍년을 안겨 주신 위대한 수령님》,《우리 인민의 건강은 나라의 재부입니다》,《동무들이 제일이라 하시며》, 조선화《미래의 과학자들에게 신심을 주시며》등의 작품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인민적풍모와 육친적사랑을 감동적인 화폭으로 펼쳐 보였다.

전시회장에는 유화《해가 갈수록 아버지대원수님 그리워》, 수예《충성의 꽃》을 비롯하여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사는 우리 인민의 충성의 마음을 보여 주는 작품들, 선전화《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자!》,《위대한 장군님 계시여 우리는 백전백승한다!》,《4월 15일－태양절 만만세!》등과 같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감으로써 인류의 태양절을 세세년년 빛내일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신념을 보여 주는 작품들이 전시되였다.

제2차송화미술전람회 진행

태양절기념 제2차송화미술전람회가 진행되였다.

전람회장에는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오래동안 미술창작활동을 벌려 왔으며 지금은 송화미술원에 망라되여 창작의 길을 변함없이 걷고 있는 로화가들이 창작한 130여점의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송화미술원의 로화가들이 70, 80고령의 년로한 몸이지만 강성대국건설에 떨쳐 나선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는 힘 있는 미술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하고 있는 소행을 헤아리시고 그들이 내놓은 작품들로 국가적인 전람회를 조직하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전람회장에는 유화《성지에 백학이 날아 든다》, 조선화《만경대생가》, 서예《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옵니다》, 조선화《송화》등의 작품들이 전시되였다.

또한 조선화《백두산천지》, 유화《빛나는 정일봉》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 우리 인민의 드팀 없는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작품들이 전람회에 전시되였다.

미술전람회 개막식이 주체88(1999)년 4월 2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개막식에는 관계부문 일군들과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5돐 중앙미술전시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5돐 중앙미술전시회《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개막식이 주체88(1999)년 7월 2일 조선미술박물관에서 진행되였다.

전시회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을 령도하시면서 쌓아 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드시고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기 위해 정력적인 활동을 벌려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 그이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갈 우리 인민의 혁명적신념과 영웅적투쟁모습을 형상한 조선화, 유화, 출판화 등 100여점의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였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이 모셔 져 있었다.

전시회에는 조선화《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유화《해가 갈수록 아버지장군님이 그리워》등 태양과도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그 모습을 가슴깊이 안고사는 우리 인민의 높은 충성의 세계를 형상한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였다.

또한 간고한 항일대전을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하시고 이 땅우에 자주 , 자립, 자위로 빛나는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업적과 고매한 인민적풍모를 보여 주는 유화《18명 대오를 이끄시고》, 조선화《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심어 주시며》, 유화《어뢰정대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비롯한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였다.

전시회에는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시고 수령영생위업의 새 력사를 펼쳐 주시였으며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여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혁명활동을 보여 주는 유화《금수산기념궁전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을 고무격려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해병들을 고무격려하시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비롯한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였다.

이와 함께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물려 주신 유산인 내 나라, 내 조국을 강성대국으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 나선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의 투쟁모습을 형상한 유화《위대한 **김정일**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렵니다》, 선전화《장군님의 전사들은 언제나 준비되여 있습니다!》등의 미술작품들도 전시되였다.

10월의 명절을 맞으며 중앙미술전시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2돐과 당창건 54돐,《ㅌ. ㄷ》결성 73돐에 즈음하여 개막식이 주체88(1999)년 10월 7일 조선미술박물관에서 진행되였다.

전시회장에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고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당건설업적과 령도풍모 그리고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모습을 보여 주는 조선화, 유화, 선전화 등 80여점의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였다.

조선화《〈ㅌ. ㄷ〉결성의 나날에》, 유화《당창립대회를 지도하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조선화《10월의 환호》등의 작품들은 일찌기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의 초석을 마련하시고 준엄하고 간고한 시련속에서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업적을 숭엄한 화폭으로 보여 주었다.

조선화《백두의 눈보라》,《꺼질줄 모르는 당중앙의 불빛》,《당사상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불러 일으키시며》, 유화《위대한 전환의 4월 14일》등의 작품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선포하시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당건설과 당사업에서 일대 전성기를 마련

하여 오신 내용들을 감명 깊게 형상하였다.

또한 조선화《당은 언제나 영예군인들을 잊지 않습니다》,《사랑의 약크림》,《일심단결》, 선전화《당중앙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앞으로!》등과 같이 위대한 인덕정치로 우리 당과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특출한 위인적풍모 그리고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보여 주며 전당, 전군, 전민을 강성대국건설에로 힘 있게 고무추동하는 작품들도 전시되였다.

만수대창작사창립 40돐기념 미술전람회 진행

만수대창작사창립 40돐기념 미술전람회가 11월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전람회장에는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굴지의 종합적인 미술창작기지로 그 위용을 떨치고 있는 만수대창작사의 창작가들이 창작완성한 다양한 주제의 조선화, 유화, 조각, 수예, 도자기 등 700여점의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였다.

조선화《만경대의 사립문》, 유화《고향 만경대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태양의 품》,《김책동지와 첫 상봉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조각《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은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어버이수령님의 영원불멸할 업적을 잘 보여 주었다.

전람회장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성부흥의 위대한 전환을 이룩해 가시는 불멸의 령도업적과 그이의 위인적풍모를 보여 주는 조선화《승리의 행군길》, 유화《판문점의 초병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소》등의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였다.

또한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친위전사의 모습으로 영생하시는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 주는 출판화《녀성비행사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 조각《백두의 봄》등의 작품들이 전람회장에 전시되였다.

그리고 전람회장에는 조선화를 기본으로 하여 미술의 모든 종류와 형태를 우리 식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창작가들이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 가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모습을 형상한 80여점의 조선화작품들과 40여점의 유화작품들, 수예, 조선보석화, 조각, 벽화, 출판화, 도자기, 공예, 도안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였다.

평양미술대학 미술전람회 진행

평양미술대학창립 52돐 미술전람회가 주체88(1999)년 11월 25일 조선미술박물관에서 개막되였다.

전람회장에는 우리 당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속에 주체미술을 떠메고 나갈 인재교육기지로 훌륭히 꾸려 진 평양미술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현실속에 들어 가 창작완성한 조선화, 유화, 조각, 출판화 등 470여점의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였다.

조선화《비행장복구건설장에 동원된 대학생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승리의 신심과 랑만을 안겨 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길에서》를 비롯한 작품들은 백두산 3대장군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위인적풍모를 훌륭히 형상한것으로 하여 조선화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식 미술교육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선전화《모두다 제2의 천리마대진군에로》,《우리 시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자!》등의 선전화작품들과 현지실습작품들, 교재작품들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 있게 다그치고 있는 격동적인 시대정신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람회에는 수채화, 소묘, 영화 및 무대미술 등 우리 미술교육의 당정책화, 과학화, 원리화 수준을 생동하게 보여 주는 다양한 주제의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 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한 개막식에서는 문화성 송성환부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12월의 경사의 날을 맞으며

12월경축 중앙미술전시회, 전국풍경화전람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8돐과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탄생 82돐을 맞으며 주체88(1999)년 12월 21일 조선미술박물관에서 진행되였다.

중앙미술전시회장에는 우리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여 내 나라, 내 조국을 존엄높은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백전백승의 선군혁명령도업적과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위인적풍모를 보여주는 작품들, 강성대국건설에 떨쳐 나선 우리 인민의 투쟁 모습을 담은 조선화, 유화, 출판화 등 수십점의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였다.

전람회장정면에는 위대한 령장 **김정일**장군님의 강철의 담력과 의지를 안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수호해 나가며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 없는 불패의 위용을 세계앞에 과시하는 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숭엄한 화폭으로 펼친 대형조선화가 전시되여 있다.

유화《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되새기며》, 조선화《최전선의 가시덤불길을 몸소 헤쳐 나가시며》,《공군의 주체적발전의 길을 밝혀 주시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천지의 번개》등의 작품들은 백두의 령장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수령님의 건군위업을 빛내여 나가시기 위하여 천리방선을 주름 잡으시며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한 앞길을 밝혀 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는 불멸의 로고와 업적을 형상하고 있다.

전시된 작품들가운데는 백두산의 녀장군이신 김정숙동지께서 항일대전의 나날들과 새 조국건설시기에 변함 없는 친위전사의 자세로 경애하는 수령님을 호위하시고 그이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신 불멸의 투쟁업적과 숭고한 덕성을 형상한 조선화《첫 녀성락하산병이 되시여》,《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길에서》, 유화《우리 어머니》,《집삼인민들의 생활을 념려하시여》등의 작품들도 있다.

또한 조선화《90년대의 첫 영웅 김광철》,《병사들》,《첫 딸기》,《칠보산의 가을》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군민이 하나로 뭉쳐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는 투쟁모습과 아름다운 조국강산의 모습을 형상한 작품들이 전시되였다.

전국풍경화전람회장에는 조선화《위인칭송의 성지 백두산마루》,《만경대의 아침》,《백두밀영고향집》,《회령고향집의 봄》과 같이 뜻 깊은 혁명성지들의 자연풍경을 형상한 작품들, 백두산 3대장군의 혁명사적과 령도업적이 깃들어 있는 사적지와 명승지들 그리고 토지정리, 중소형발전소건설, 양어 등으로 천지개벽하고 있는 도시와 산촌의 새 모습을 반영한 조선화, 유화, 출판화, 보석화, 수예, 도자기 등 320여점의 작품들이 전시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미술창작가들과 애호가들,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풍경화전람회에서는 출품된 작품들에 대한 심사결과가 발표되였다.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등

조선화《**랑림**》중앙미술창작사 지승석

유 화《**강원땅의 새 력사**》(제3부) 강원도미술창작사

· 변혁의 동음 리룡히, 오재옥

· 은정의 쌍무지개 리용섭, 리형찬

· 천지개벽의 첫 가을 김명운, 강승규

판 화《**성균관의 가을**》만수대창작사 최영순

수 예《**백두밀영고향집의 박우물**》 중앙미술창작사 박혜경, 리연희

2등

조선화《**만경대의 아침**》평양미술대학 정현일

조선화《**향도의 4계절**》사리원철도미술창작사 김철룡

정방산의 봄

사리원의 여름

길성포의 가을

서흥호의 겨울

판 화《**압록강의 상류**》중앙미술창작사 문영옥

수채화《**선물영농물자가 온다**》강원도미술창작사 김성남

수 예《**사연 깊은 곰취**》중앙미술창작사 김미숙

3등

조선화《**영생**》중앙미술창작사 류룡천

조선화《**봄**》중앙미술창작사 최우철

조선보석화《**우리집 토끼**》만수대창작사 한철

도자기공예《**버섯장식간식함**》중앙미술창작사 박성남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시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8돐을 맞으며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시회가 진행되였다.

전시회장 중심에는 노을빛으로 물든 백두산천지에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셔 져 있었다.

전시회장에는 탁월하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사회주의건설과 인류의 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여 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비롯하여 6,000여부의 각종 도서들과 120여상의 사진, 150여종에 3,000여점의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여 있었다.

전시회장에는 8개의 어문으로 번역출판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들중에서 그 일부가 어종별로 전시되여 있었다.

전시된 도서들가운데는 절세의 위인들을 흠모하여 외국인들이 집필한 도서들인《길이 빛날 숭고한 의리》,《불굴의 항일녀투사 김정숙동지》등도 있었다.

이밖에도 전시회장에는 각종 문예도서, 일반도서, 화첩 등이 전시되여 있었다.

그리고 백두산3대장군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혁명활동을 수록한 사진들과 조선화《우리 어머니》, 유화《일당백전초병들과 함께》, 선전화《전군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오늘의 7련대가 되자!》등의 미술작품들도 전시되였다.

개막식이 12월 22일 평양문화전시관에서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 창작가들,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개막사에 이어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 보았다.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 회고 중앙미술전시회 진행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 회고 중앙미술전시회가 주체88(1999)년 9월 20일 조선미술박물관에서 진행되였다.

전시회장에는 조국의 광복과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혁명활동과 불멸의 업적, 숭고한 풍모를 보여 주는 작품들을 비롯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60여점의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였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립상화가 정중히 모셔 져 있었다.

전시회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장 충직한 친위전사로서 항일혈전의 나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견결히 고수하시고 그이의 신변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보여 주는 조선화《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목숨으로 보위하시는 김정숙동지》,《사령부의 안녕을 위하여》등이 전시되여 있었다.

또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안아 키우시여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굳건히 이어 놓으신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동지의 혁명업적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전시되여 있었다.

개막식에서는 문화성 송석환부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정영만미술전람회 진행

《김일성상》계관인, 2중로력영웅, 인민예술가 정영만미술전람회가 주체88(1999)년 9월 8일부터 21일까지 조선미술박물관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세계적인 명화가로 자라난 그는 수십년동안의 창작생활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혁명활동을 형상한 미술작품들과 풍경화, 화조화 등 1,500여점의 국보적인 미술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고 조선화를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풍부화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전람회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정영만이 창작한 미술작품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정중히 모셔 져 있으며 그가 생전에 창작한 미술작품들가운데서 90여점의 미술작품과 사진자료들이 전시되였다.

《백두산천지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서해갑문건설의 터전을 마련하시며》,《강선땅을 찾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등 작품들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감동 깊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백두산의 해돋이》,《백두산천지의 붉은 노을》,《강선의 저녁노을》등의 조선화작품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희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끝 없는 영광과 긍지를 안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억센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 줌으로써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정영만은 강원도 원산시 영석동에서 로동자의 아들로 태여나 원산에서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주체44(1955)년에 평양미술대학 전문부에 입학하였다. 7년간의 전문부와 대학기간은 금강산을 그리는 미술가가 되겠다는 커다란 포부를 안고 있던 그에게 사상정신적으로, 기술적으로 성장할수 있는 많은 지식과 넓은 견문을 주었다.

주체51(1962)년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조선미술가동맹 현역미술가로 배치되였다. 현역미술가로서의 첫 창작은 주체52(1963)년에 열린 제7차국가미술전람회에 내놓은 조선화《대안전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다.

그는 이 작품을 반년남짓한 기간에 창작하여 내놓았다. 련이어 제8차국가미술전람회에 조선화《금강산》(1965년)을 내놓아 조선미술박물관 소장품으로 되였다. 제9차국가미술전람회에 조선화《불사조》(1966)를 내놓았다.

그는 적극적인 창작활동과 그 성과로 하여 1963년에 조선화분과 위원, 1966년에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되였다.

1960년대 후반기와 1970년대 전반기는 정영만의 창작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이 시기 그의 작품에서 주되는 내용은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전면적으로 반영하는것과 함께 대를 이어 계승되는 우리 혁명의 력사적요구에 맞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활동을 반영한것이다.

조선화 《농민들과 함께》(합작 1968년), 《만경대의 갈림길에서》(합작 1970년), 《적의 포위를 뚫고 신입대원의 권총을 찾아 주시는 열렬한 공산주의자이시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정숙동지》(합작 1969년), 《소할바령회의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합작 1972년), 《삼지연의 새벽길》(합작 1973년), 《강선땅을 찾으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1974년), 《백두산천지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합작 1975년), 《만경대고향집앞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1975년) 등은 그가 중심이 되여 창작완성한 대표작들이다.

이 시기 그의 창작생활에서 특기할 사변으로 되는 것은 조선화《강선의 저녁노을》의 창작이다.

이 작품창작과정을 통하여 정영만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독창적인 문예방침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심장으로 더욱 절감하게 되였으며 미술가로서 받아 안을수 있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주체62(1973)년 8월 10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화《강선의 저녁노을》을 보시고 아주 잘 그렸다고, 조선화는 확실히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에서 만든 안료로 그린 조선화《강선의 저녁노을》을 미술박물관에 전시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이 작품은 국내는 물론 대외전람회에서 금메달을 수여 받았다.

정영만은 조선화분야에서 이룩한 창작적성과로 주체63(1974)년에 공훈예술가칭호를, 주체78(1989)년에 영예의《**김일성상**》을 수여 받았다.

정영만은 주체79(1990)년에 조선미술가동맹 위원장으로 선거되였고 주체80(1991)년에는 창작에서 이룩한 공로로 하여 로력영웅칭호를 수여 받았다. 그후 주체86(1997)년에 2중로력영웅칭호를 수여 받았다.

1990년대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새해 신년사와 공동사설관철을 위한 여러 선전화전람회들, 여러 차례에 걸치는 국가미술전람회, 부분전람회들에 모실 백두산3대장군에 대한 집중창작조직, 국가적으로 제기되는 대상작품창작과제수행 그리고 미술작품을 통한 대외활동으로 당정책의 적극적인 선전자, 옹호자, 관철자로서의 본분을 영예롭게 수행하고 주체미술의 끊임 없는 발전과 위력을 대내외에 널리 시위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이 과정에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신임과 배려를 거듭 받아 안았다. 련일 계속되는 창작사업으로 심히 쇠약해 져 병으로 쓰러졌을 때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 차례 치료정형을 료해하시고 유능한 의료진을 동원시켜 치료대책을 취하여 주시였으며 친히 산삼닭곰, 영양식료품, 희귀한 남방과일들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2월 그가 만수대창작사 미술가들과 함께 완성한 백두산천지에 관한 그림들을 보아 주시면서 백두산화폭들이 잘되였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우리 나라에 정영만동무만한 미술가가 없다고 치하해 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조선의 심장이며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민족사의 발상지인 조종의 산 백두산은 우리 당의 영광찬란한 혁명전통이 뿌리 내리고 조국광복의 려명을 안아온 혁명의 성산이라고 하시면서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거룩한 발자취가 뜨겁게 어리여 있고 민족의 넋이 고이 간직되여 있는 백두산은 우리 인민의 영원한 투쟁의 기치, 승리의 기치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정영만은 주체84(1995)년과 주체85(1996)년에 이어 주체87(1998)년에 일본에서 열린 평화미술전람회에 참가하였고 80여점에 달하는 작품을 가지고 주체87(1998)년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본에서 개인전람회를 진행하였다. 일본에서의 그의 첫 개인전은 현대조선화의 높은 발전면모를 대내외에 널리 시위하고 유럽위주로 되였던 중세근대미술에 대한 도식화된 관념에 결정적타격을 가한 영향력이 큰 전람회였다.

전람회를 본 일본의 이름 있는 평론가들과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은 이 전람회는《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미술전람회》,《사그라져 가던 동양화에 재생의 활력을 부어 준 전람회》라고 찬양하였으며 작품을 창작한 그를《세계적인 미술가》,《단연 패권을 쥔 아시아의 자랑, 인간국보》라고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주체미술의 일인자로 동방은 물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 진 정영만동무는 주체미술사에 생의 흔적을 뚜렷이 남겼다.

김승희미술전람회 진행

인민예술가 김승희미술전람회가 주체88(1999)년 9월 18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되였다.

광복전 낯 설은 이국땅에서 갖은 민족적멸시와 천대를 받아 온 그는 40년전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후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 피우게 되였으며 창작생활기간에 백두산3대장군의 빛나는 혁명활동을 형상한 국보적인 미술작품들과 풍경화, 화조화를 비롯하여 600여점의 미술작품들을 창작하여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선전하고 인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에로 고무추동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전람회장에는 그가 창작한 작품들 가운데서 90여점의 미술작품과 사진자료들이 전시되였다.

《총련일군에게 주체의 혈통을 심어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첫 귀국동포들을 한품에 안으시여》,《어버이품》,《혁명의 천리길을 떠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등의 작품들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해 바쳐 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해외동포들에 대한 한 없는 사랑을 형상한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에게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새겨 주고 있다.

또한 유화《네거리에서》, 조선화《백두산의 만병초》,《모란봉에 눈 내린다》,《통일춤》,《광주의 원한》, 수예원화《참나리》를 비롯한 작품들은 주체조선의 억센 기상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아름다운 조국산천과 우리 인민의 뜨거운 통일념원을 생동하게 형상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황영준풍경화전람회 진행

송화미술원 미술가 공훈예술가 황영준풍경화전람회가 주체88(1999)년 5월 19일~6월 16일까지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황영준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저주로운 남조선사회와 결별하고 참다운 민족문화건설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안긴후 지금까지 근 50년간 국보적인 풍경화작품들을 비롯하여 우수한 미술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였다.

이 나날에 그는 당과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을 주제로 한 작품들과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 주는 풍경화작품들을 조선화의 우수한 기법과 독특한 묘사수법으로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뜻이 깊고 정서가 있게 형상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전람회장에는 조선화《백두산천지》,《삼지연의 봄》,《묘향산비단폭포가을》,《금강산풍경》을 비롯하여 그가 창작한 160여점의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였다.

그의 작품들은 개성이 뚜렷하고 민족적정서가 짙은 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깊은 감명을 안겨 주었다.

제10차범민족대회기념 사진전시회와 미술전시회 진행

제10차범민족대회기념 사진전시회와 미술전시회가 주체88(1999)년 8월 14일에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되였다.

전시회장들에는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 련석회의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원칙과 방도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 주는 작품들이 전시되였다.

또한 일찌기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구상과 유훈을 높이 받드시고 그 실현을 위해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을뿐아니라 판문점에 거룩한 자욱을 남기시며 조국통일의 밝은 길을 펼쳐 주시고 온 민족을 통일위업실현에로 힘 있게 불러 일으키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보여 주는 작품들이 전시되였다.

전시회장들에는 정견과 신앙, 과거를 불문하고 조국통일성업실현에 나선 사람이라면 그가 남조선에 있건 해외에 있건 관계없이 만나주시고 동포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여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 없는 도량과 뜨거운 동포애를 보여 주는 감동적인 화폭들과 제1차범민족대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강화발전하여 온 범민련과 범청학련의 투쟁력사를 보여 주는 작품들이 전시되였다.

이와 함께 민족의 통일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내

외분렬주의세력의 가혹한 탄압속에서도 굴함없이 전개되고 있는 남조선과 해외의 범민련, 범청학련조직들과 통일애국단체들, 각계각층 동포들의 투쟁과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하고야 말 온 겨레의 통일의지를 보여 주는 작품들 그리고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 주는 작품들이 전시되였다.

개막식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김영대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류미영위원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오익제부위원장, 범민족통일대축전 북과 남, 해외대표들과 해외동포들, 시내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범민련 북측본부 송석환부의장이 개막연설을 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제시하신 1돐이 되고 10번째로 범민족대회를 진행하게 되는 뜻 깊은 시기에 범민련이 걸어 온 9년간의 애국행로를 긍지높이 돌이켜 보면서 제10차 범민족대회기념 사진전시회와 미술전시회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번 전시회들에는 많은 사진과 미술작품이 전시되였다고 하면서 범민련 재일조선인본부를 비롯한 여러 해외지역본부들에서 좋은 작품들을 보내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이번 전시회들을 통하여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고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수행을 위해 얼마나 정력적인 활동을 벌려 오시였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유훈을 받드시고 우리 인민의 투쟁을 어떻게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시는가 하는데 대하여 깊이 알게 될것이라고 지적하고 온 겨레가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통일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된 사진들과 미술작품들을 돌아 보았다.

미술부문 소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대창작사에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는데 기여한 만수대창작사에 감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한 만수대창작사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5돐을 맞으며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담아 금수산기념궁전을 보다 숭엄하게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높은 충성심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수령영생위업의 새 력사를 펼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 나선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해 7월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형성도안을 지혜와 힘을 합쳐 완성하고 그 공사를 힘 있게 벌리였다.

자기들이 만든 형성도안을 여러 차례 보아 주시고 그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를 가슴깊이 새기고 줄기찬 투쟁을 벌린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끝 없는 충성의 마음에 떠받들려 금수산기념궁전 홀은 짧은 기간에 력사의 증견자, 시대의 기념비로 최상최대의 수준에서 가장 숭엄하게 꾸려 지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이 7월 23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 만수대창작사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위대한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는것은 수령님의 전사, 제자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한 응당한 본분이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사를 받는 커다란 영광을 지닌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당의 믿음과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창작사를 세계굴지의 종합적미술창작기지로 전변시켜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시며 시대의 걸작, 기념비적작품들을 더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맡은바 혁명임무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공훈예술가 황영준, 인민예술가 우치선에게 은정어린 생일 80돐상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송화미술원 미술가인 공훈예술가 황영준에게 보내신 생일 80돐상이 주체88(1999)년 5월 20일 그에게 전달되였다.

만사람의 축복속에 크나큰 영광을 받아 안은 그는 혁명전사들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아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 없는 경모와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주체8(1919)년 5월 충청북도 옥천군의 한 빈농가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남 다른 미술적재능을 가지고 있던 그는 아름다운 우리 조국을 마음껏 그려보고 싶은 포부를 안고 눈물겨운 고학으로 미술공부를 하였지만 미제와 그 주구들이 살판치는 남조선사회에서 자기의 소원을 이룰수 없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참다운 민족문화건설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안긴 그는 전쟁기간 종군화가로 활약하였고 전후에는 평양미술대학 교원 등 여러 직무에서 사업하여 왔다.

이 나날에 그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조선화《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지상락원 이룩하세》,《결판을 내자》를 비롯한 30여점의 국보적인 작품을 포함한 2,500여점의 미술작품들을 창작하였으며 유능한 미술가

후비들을 많이 키워 냈다.

그는 이날 생일 80돐을 맞는 자신의 미술전람회를 마련해 주시고 은정어린 생일상까지 보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은 진정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품, 위대한 인간사랑의 품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면서 강성대국건설로 보다 아름다와 질 조국의 자연을 화폭에 훌륭히 담아 후손만대에 전해 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상**》계관인이며 인민예술가인 만수대창작사 창작가 우치선에게 보내신 생일 80돐상이 주체88(1999)년 11월 2일 그에게 전달되였다.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크나큰 영광과 사랑을 받아안은 그와 그의 가족, 친척들은 강성대국건설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평범한 한 전사를 잊지 않으시고 생일상까지 보내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 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해 하였다.

주체8년 11월 평양시 강남군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여나 어릴 때부터 남 다른 미술적재능을 가지고 있은 그는 10대의 어린 나이에 일본놈이 경영하는 도자기공장에서 소년로동자로 일하면서 자기의 희망을 꽃 피우려 하였지만 그 꿈을 실현할수 없었다.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고 민족문화건설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품속에서 그는 도자기공예창작에서 자기의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왔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안고 만수대창작사에서 일하면서 특색 있는 고려청자기를 비롯하여 국보적인 명작들을 수많이 창작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적극 살리고 주체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한 창작가의 예술적재능을 귀중히 여기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응당한 일을 한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여 《**김일성상**》을 비롯하여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도 거듭 안겨 주시고 개인미술전람회도 마련해 주시였으며 생일 70돐상에 이어 이번에 생일 80돐상까지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버이의 손길아래 참된 삶을 누리며 지금도 정력에 넘쳐 일하고 있는 그는 이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웅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받드는 창작의 길에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기념보고회, 연구토론회 진행

만수대창작사창립 40돐을 맞으며 기념보고회 진행

만수대창작사창립 40돐 기념보고회가 주체88(1999)년 11월 1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 만수대창작사 일군들, 창작가,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만수대창작사 창작가, 종업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이어 만수대창작사 주수용사장이 기념보고를 한 다음 부사장 리용택, 단장, 김룡권, 직장장 장용선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창립 40돐을 맞는 만수대창작사 전체 창작가, 종업원들과 일군들에게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보내주시는 최상의 영광과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만수대창작사가 걸어 온 40년의 력사는 주체미술을 찬란히 개화발전시키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불멸의 로고, 위대한 사랑의 력사라고 격조높이 말하였다.

그들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주체적인 미술건설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후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던 력사적인 시기에 만수대창작사의 전신인 조각창작단을 무어 주시고 영웅조선의 기상인 천리마동상을 기념비적걸작으로 건립할 영예로운 과업을 맡겨 주시였으며 그후 여러차례에 걸쳐 만수대창작사를 찾으시여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훌륭히 건립하도록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 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미술건설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미술을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미술로 개화발전하도록 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주체미술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우리의 주체미술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미술건설사상을 전면적으로 발전완성하시고 주체미술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 주시였다고 그들은 지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에 관한 사상리론을 창시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형상하여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보장하는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지난 40년간 만수대창작사는 백두산 3대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 주는 시대의 대기념비들과 함께 조선화《강선의 저녁노을》,《백두산천지의 붉은 노을》과 같은 국보적인 회화작품들을 수많이 창작보급하고 우리 식의 조선보석화를 새로 창작하여 주체미술의 화원을 더욱 풍만하게 하였으며 기념비적벽화작품들과 회화와 조각, 공예와 산업미술과 건축장식미술을 비롯한 미술의 모든 종류와 형태들에서 최상의 사상예술적수준을 창조하였을뿐아니라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전투적인 명화들을 창작하여 우리 인민들을 투쟁과 위훈에로 적극 고무추동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만수대창작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 속에 영예의《**김일성훈장**》과 2중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 받았으며 그 어떤 어려운 창작과 제작도 능히 맡아 수행할수 있는 강력한 창작비량과 함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춘 종합적인 미술창작기지로 그 위용을 힘 있게 떨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만수대창작사앞에는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주체미술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3대장군의 영상작품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형상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든 창작지도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조선화창작에서 여러가지 기법을 끊임없이 개척하고 발전시키며 벽화와 출판화, 조선보석화를 비롯한 회화와 조각, 수예, 공예, 도자기 등 모든 미술종류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뚜렷이 살리고 그 사상예술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주체미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할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황해남도미술창작사창립 30돐을 맞으며

황해남도미술창작사창립 30돐 기념보고회가 3월 4일에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과 창작사 종업원들이 기념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랑독된 다음 황해남도미술창작사에 국기훈장 제1급이 수여되였다.

또한 형상실장 리일국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예술가칭호(로력훈장)가, 많은 창작가, 종업원들에게 훈장 및 메달이 수여되였다.

기념보고회에서는 사장 장기준의 기념보고에 이어 공예창작단단장 리웅찬, 형상실장 리일국, 수복원 안명규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주체57(1968)년 11월 21일에 창립된 그날로부터 지난 30년간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속에 창작사가 걸어 온 자랑찬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면서 혁명적인 미술작품창작성과로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 결의를 피력하였다.

자강도미술창작사창립 30돐을 맞으며

자강도미술창작사창립 30돐 기념보고회가 주체88(1999)년 3월 8일에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연형묵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창작사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자강도미술창작사 창작가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연형묵동지가 전달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자강도당위원회 비서 박초영의 기념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수령형상미술작품창작에 관한 주체적문예사상연구토론회 진행

수령형상미술작품창작에 관한 주체적문예사상연구토론회가 주체88(1999)년 9월 6일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문예총중앙위원회 장철위원장 등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과 지방의 미술가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 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형상창조에 관한 사상, 리론의 정당성과 수령형상창조사업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 미술가들에게 돌려 주신 어버이사랑 그리고 주체미술의 강화발전에서 나서는 원칙과 방도들에 대하여 만수대창작사 사장인 인민예술가 주수용, 미술작품국가심의위원회 심의원 리재현, 문예총중앙위원회 론설원, 학사 홍의정, 남포시미술가동맹 위원장 박경희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58(1969)

년 9월 6일 미술창작현장에 친히 나오시여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문제를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완벽하게 밝혀 주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여 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일찌기 수령형상창조를 위한 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현지지도의 거룩한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들을 몸소 보아 주시고 하나하나 지도해 주시면서 자주시대미술발전에서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의 인식교양적의의와 그 실현에서 나서는 원칙과 요구, 형상방향에 이르기까지 뚜렷이 명시하시였을뿐아니라 창작지도체계도 새롭게 세워 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의 새 시대를 펼쳐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화국창건 20돐과 당 제5차대회를 비롯한 여러 계기들을 통하여 혁명전적지와 사적지, 도소재지 등 전국각지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과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모시도록 이끌어 주시였으며 최근 년간에만도 수령님의 태양상 등 수령형상작품들을 국보적이며 시대의 기념비적인 명작으로 되도록 정력적으로 령도하여 오신데 대하여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더 밝고 정중하게 형상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종합적인 수령형상창작기지를 꾸려 주시고 모든 물질기술적조건들을 충분히 마련해 주시였을뿐아니라 정연한 사업체계도 세워 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하는 우리 미술가들을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유능한 미술가로 키우시기 위하여 작품의 구상으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 주시고 모든 성과를 창작가들에게 돌려 주고 내세워 주시였으며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가장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만수대대기념비》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활동을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하게 형상한 수많은 미술작품들이야말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독창적인 수령형상창조에 관한 사상과 리론의 정당성, 불면불휴의 로고와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실증해 주고 있다고 그들은 한결같이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것은 주체미술건설의 결정적담보이라고 하면서 모든 미술가들이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수령형상창조사업을 새로운 높이에로 계속 발전시켜 주체미술의 혁명적대화원을 활짝 꽃 피워 나감으로써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기여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국가표창수여식 진행

조선미술박물관에 《김일성훈장》 수여

《**김일성**훈장》이 조선미술박물관에 수여되였다.

조선미술박물관은 지난 기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나라의 미술작품보존사업과 군중교양활동을 힘 있게 벌려 우리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사회주의위업을 다그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김일성**훈장》수여식이 5월 6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수여식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문화성 송석환부상 등 관계부문 일군들, 박물관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랑독된 다음 훈장이 수여되였다.

이어 박물관 관장 한창규, 과장 박확실, 작품보조원 리명수가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 져 있는《**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영광과 기쁨에 언급하고 그 사랑과 은정에 충성으로 보답해 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영상을 형상한 미술작품을 비롯한 국보적가치가 있는 미술작품들에 대한 원작보존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그것이 후세에 길이 전해 지도록 하며 미술작품을 통한 군중교양활동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림으로써 인민들을 강성대국건설투쟁에로 불러 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해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강원도미술창작사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

강원도미술창작사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는 모임이 2월 23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과 창작사의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랑독된 다음 강원도미술창작사에 국기훈장 제1급이 수여되였다.

또한 미술창작사업에서 공로 있는 일군들과 미술가들에게 훈장 및 메달이 수여되였다.

모임에서는 사장 강승규, 미술가 리길만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만수대창작사 일군들과 창작가, 종업원들에게 국가표창 수여

만수대창작사 일군들과 창작가, 종업원들에게 국가표창이 수여되였다.

이곳 일군들과 창작가, 종업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금수산기념궁전의 돌울타리를 짧은 기간에 조형예술적으로 최상의 수준에서 제작하여 주체의 최고성지를 품격 있게 더 잘 꾸리는데 이바지하였으며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미술작품을 많이 창작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수여식이 12월 29일에 진행되였다.

수여식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김윤혁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만수대창작사 일군들과 창작가,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수여식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랑독된 다음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시대의 명작으로 훌륭히 창작완성된 대형조선화《해금강의 파도》에 인민상이 수여되였다.

수여식에서는 금수산기념궁전 돌울타리제작과 미술작품창작에 크게 기여한 형상원들인 리도섭, 김광정, 운전사 신정남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낫) 및 국기훈장 제1급이, 부사장 김성민에게《**김일성**상》이, 미술가 김성근에게 인민상이, 형상원 오성준외 3명에게《**김일성**청년영예상》이, 미술가 서대무외 3명에게 인민예술가칭호가, 미술가 문정웅외 8명에게 공훈예술가칭호가, 운전사 리동영에게 공훈운전사칭호가, 단장 최원규외 15명에게 국기훈장 제1급이 수여된것을 비롯하여 많은 일군들과 창작가, 종업원들에게 훈장과 메달이 수여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이 단장 차상률외 12명에게,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표창장이 형상원 전종선외 13명에게 수여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수여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만수대창작사 미술가 김승희에게 국가표창수여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 40돐에 즈음하여 공로 있는 귀국동포들에 대한 국가표창수여식이 주체88(1999)년 12월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있었다.

수여식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이 모셔 져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귀국동포들이 수여식에 참가하였다.

수여식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랑독된 다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미술부문에서 오래동안 일하면서 시대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수많은 미술작품들을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하게 형상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단 미술가 김승희에게《**김일성**상》이 수여되였다.

만수대창작사 오동명동무가 사업하는 제작단에 3중3대혁명붉은기 수여

만수대창작사 오동명동무가 사업하는 제작단에 3중3대혁명붉은기가 주체88(1999)년 11월 26일에 수여되였다.

이곳 제작단은 지난 기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고 혁명적인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으로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 가 창작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보여 주는 작품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창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수여식에 만수대창작사 일군들과 종업원들, 가족들이 참가하였다.

수여식에서는 만수대창작사 오동명동무가 사업하는 제작단에 3중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랑독된 다음 표창장과 기발이 수여되였다.

이어 제작단 부단장 김선태에게 공훈기술자칭호가, 제작단 단장 오동명에게 국기훈장 제1급이 수여

된것을 비롯하여 많은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훈장이 수여되였다.

수여식에서는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들이 오늘의 이 영광, 이 영예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우리 시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결사관철해 나가는 참된 충신으로 더욱 철저히 준비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현실속에 깊이 들어 가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명작들을 더많이 창작보급함으로써 제2의 천리마대진군으로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는 우리 인민을 투쟁과 위훈에로 힘 있게 고무추동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수여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명작 《묘향산 가을날에》가 묘향산 상원동의 천연바위에 새겨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5돐을 맞으며 천하절승 묘향산에 불후의 고전적명작《묘향산 가을날에》가 만년대계의 글발로 새겨 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묘향산 가을날에

로대우에 올라 서니 천하절승 예로구나
묘향산 절경이야 태고부터 있는것을
전람관 여기 솟아 푸른 추녀 나래 펴니
민족의 존엄 빛나 비로봉 더욱 높네

만산에 붉은 단풍 가을마다 붉었으리
로동당 새 시대에 해빛도 찬란하니
단풍도 고와라 더욱 붉게 물 들면서
산천에 수 놓누나 이 나라 새 력사를

사대로 망국으로 수난도 많던 땅에
온 세계 친선사절 구름같이 찾아 든다
5천년 력사국에 처음 꽃 핀 이 자랑을
금수강산 더불어 후손만대 물려 주리

주체88. 7. 8 새김》

묘향산 상원동의 인호대아래 천연바위에 불멸의 글발로 새겨 진 불후의 고전적명작 《묘향산 가을날에》는 무궁번영할 **김일성**조선과 더불어 만대에 길이 전해 질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국보이다.

《묘향산 가을날에》는 주체68(1979)년 10월 15일 묘향산에 거룩한 현지지도의 자욱을 새겨 가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국제친선전람관 로대에서 친히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이다.

한 없는 긍지와 자부, 만족감에 넘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읊으신 이 시는 조선민족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축되여 있고 조국강산의 아름다움이 령롱하게 비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의 순결한 결정체, 열렬한 조국애의 정화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명작이 불멸의 노래로 온 강산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이 시와 더불어 우리 인민의 가슴에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 더욱 불 타 오르게 하시였으며 이번에는 또다시 천하절승 묘향산의 천연바위에 시대의 기념비적글발로 빛나게 해주시였다.

500여m^2면적의 천연바위에 새겨 진 글발의 제목글자 높이는 1.5m, 너비는 1.3m, 깊이는 0.15m이며 내용글자 높이는 0.9m, 너비는 0.7m, 깊이는 0.09m이다.

조선의 자랑이며 세계의 명산인 묘향산의 천연바위에 불후의 고전적명작이 새겨 짐으로써 위대한 수령,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 위대한 문호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위인적풍모를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수 있게 되였다.

묘향산 천연바위에 새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명작《묘향산 가을날에》글발제막식이 7월 4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천출명장 **김정일**장군》글발이 해주시 수양산 자연바위에 새겨 졌다

수양산 자연바위에 새긴《천출명장 **김정일**장군》글발 제막식이 주체88(1999)년 10월 6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돐과 조선로동당창건 54돐에 즈음하여 해주시 수양산 자연바위에 21세기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칭송하는 만년대계의 글발이 새겨 졌다.

《천 출 명 장
김 정 일 장군》

주체88년 10월 8일 새김

풍치수려한 수양산 자연바위에 조형예술적으로 훌륭히 새긴 이 글발에는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백전백승의 군사전략가로,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위대성,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대를 이어 빛내이려는 우리 인민의 끝 없는 충성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겨 안고 해주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만년대계의 글발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새기였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들어 있는 수양산에 인류의 한결 같은 념원과 시대의 요구를 담은 글발이 장쾌하고 우아하게 훌륭히 새겨 짐으로써 이미 새겨 진 여러개의 글발들과 더불어 수양산이 더욱 빛나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칭송한 이 글발의 존함글자 한자의 높이는 20.8m, 너비는 8m, 획깊이는 0.8m이며 존칭글자 한자의 높이는 15~16m, 너비는 5~6m, 획깊이는 0.5m이다.

조국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 세우시려는 백전백승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을 칭송하는 기념비적글발이 새겨 지게 됨으로써 장군님을 주체시대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21세기를 **김정일**시대로 더욱 빛내여 나가려는 우리 인민과 우리 민족의 철석 같은 신념과 의지가 천세만세 전해 지게 되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동상 김형직군의대학에 건립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동상이 김형직군의대학에 건립되였다.

김형직선생님의 탄생 105돐을 맞으며 건립된 동상은 조국의 광복과 후대교육사업을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신 선생님의 숭엄한 모습을 형상하고 있다.

김형직군의대학에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동상이 건립됨으로써 나라의 자주권과 무산민중의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신 선생님의 고귀한 생애와 혁명업적을 더욱 길이 빛내일수 있게 되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동상 제막식이 7월 10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인민무력상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동지, 조선인민군 차수들인 박기서동지, 김룡연동지와 인민무력성 책임일군들, 장령들, 대학 책임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 종업원들, 근로자들이 제막식에 참가하였다.

제막식은《남산의 푸른 소나무》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동상 제막을 군대간부들이 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김형직선생님의 동상에 진정되였다.

이어 인민무력성과 김형직군의대학을 비롯한 조선인민군 각급 군사학교와 부대들의 명의로 된 화환과 꽃다발들이 진정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조국의 광복

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고귀한 한생을 바치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조선인민군 조명록차수가 제막사를 하였다.

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동상에 대한 해설을 듣고 동상을 돌아 보았다.

견결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철주동지의 동상 건립

견결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철주동지의 동상이 김철주포병종합군관학교에 건립되였다.

동상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눈 부신 정치군사활동을 벌리시며 반일통일전선실현을 위해 몸 바쳐 투쟁하신 김철주동지의 숭엄한 모습을 형상하고 있다.

김철주포병종합군관학교에 견결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철주동지의 동상이 건립됨으로써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쌓아 올리신 김철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더욱 길이 빛내일수 있게 되였다.

견결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철주동지의 동상 제막식이 11월 9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김철주동지의 동상주위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 있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 인민무력상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동지, 조선인민군 차수 김룡연동지와 인민무력성, 각급 군사학교 책임일군들, 김철주포병종합군관학교 교직원, 학생들, 군인들, 종업원들, 가족들, 근로자들이 재막식에 참가하였다.

제막식은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견결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철주동지의 동상제막을 군대간부들이 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김철주동지의 동상에 진정되였다.

이어 인민무력성과 김철주포병종합군관학교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각급 군사학교의 명의로 된 화환들과 꽃다발들이 진정되였다.

화환들의 댕기에는《견결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철주동지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하리라!》라는 글발이 씌여 져 있었다.

참가자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수령과 그 위업에 무한히 충실하시였으며 불굴의 혁명정신을 안고 항일성전에 고귀한 한생을 바치신 견결한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신 김철주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가 제막사를 하였다.

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견결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철주동지의 동상에 대한 해설을 듣고 동상을 돌아 보았다.

안주탄광소년근위대군상 건립

문덕군 신리고등중학교를 안주탄광소년근위대 신리고등중학교로 명명하는것과 관련하여 이 학교에 안주탄광소년근위대군상이 건립되였다.

군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을 안고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사랑하는 고향땅에 기여 든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쳐물리치는 투쟁에 떨쳐 나선 소년근위대원들의 모습을 형상하였다.

안주탄광소년근위대원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적들의 무기를 빼앗아 무장을 갖추고 고향땅에 기여 든 원쑤놈들과 용감하게 싸웠다.

이들의 투쟁소식을 보고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년근위대원들을 최고사령부로 부르시여 친히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년근위대원들모두가 안주탄광 로동자자녀들이라고 하는데 아주 장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군복을 안겨 주시고 고향의 부모들에게는 감사편지와 사랑의 선물을 보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안주탄광소년근위대원들의 투쟁위훈을 높이 평가 하시여 문덕군 신리고등중학교를 안주탄광소년근위대 신리고등중학교로 부르도록 하고 이 학교에 근위대원들의 군상을 세우도록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시였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시기 7명의 공화국영웅과 2명의 로력영웅, 6명의《**김일성**소년영예상》수상자들이 배출되였다.

문덕군 신리고등중학교를 안주탄광소년근위대 신리고등중학교로 명명하며 안주탄광소년근위대군상을 제막하는 모임이 5월 7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공동사설관철 선전화전람회작품중에서



김학림



김학림, 강상홍



김영호, 김봉주



박원일



김창수



김창수, 김영남, 송진국



김홍일



리철민, 박원일



김창수



김철훈



황정균, 리광원, 진용훈



김경학, 김상철



강상홍, 리정섭



황인재, 리석남



김영일



최재식, 박상일, 리정복



장성일, 리정섭,리영



송진국



강재원, 리홍종, 박원일



김휘웅, 김미경, 주정철



김학림, 송진국, 김영남



함명희



김은숙



송진국, 김철훈



임명길, 홍수강, 황철호



임명길



김용, 리철민



안정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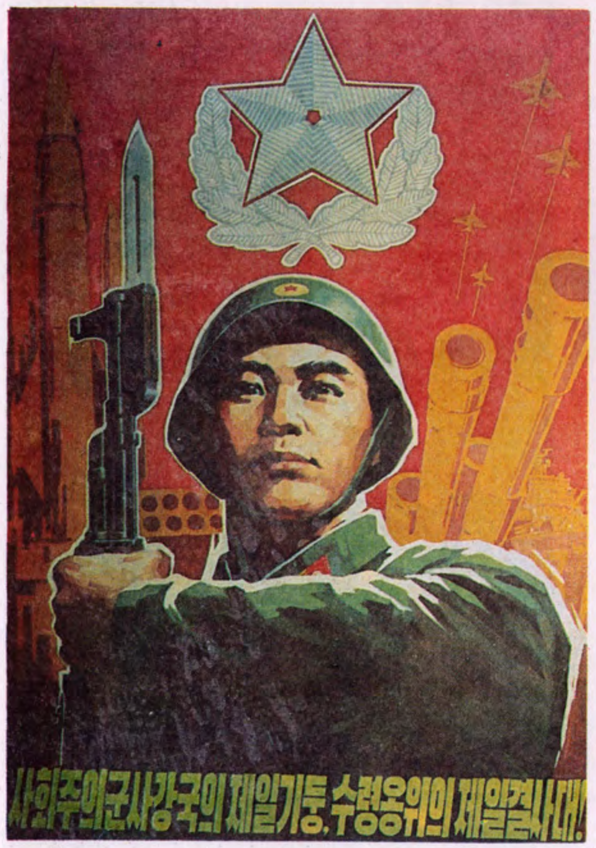
김순혁



림춘길



권병호



임명길, 홍수강, 황철호



문수철



전의길



최무광



박대천, 박광일; 김우진



백창혁, 리성구



백원국, 강명환



류동수



권혁남



김명욱



김철, 김현



김철



리성구



리동준



윤경복



정병기



박영철



최강호, 안성근



라장철



송수영



윤경복



황인제, 김철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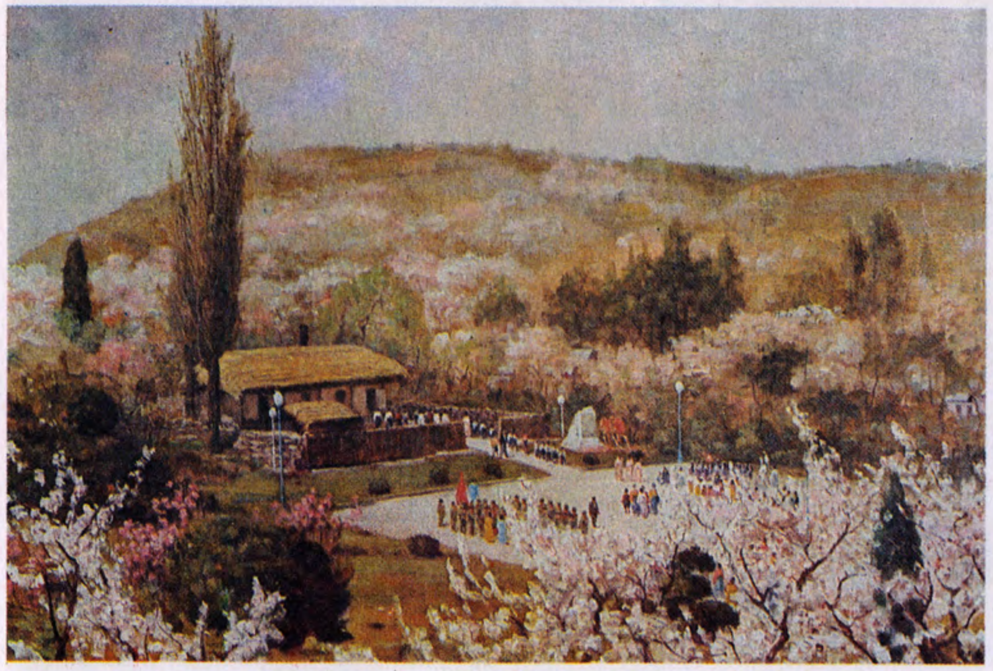


리홍종, 박원일

송화미술전시회작품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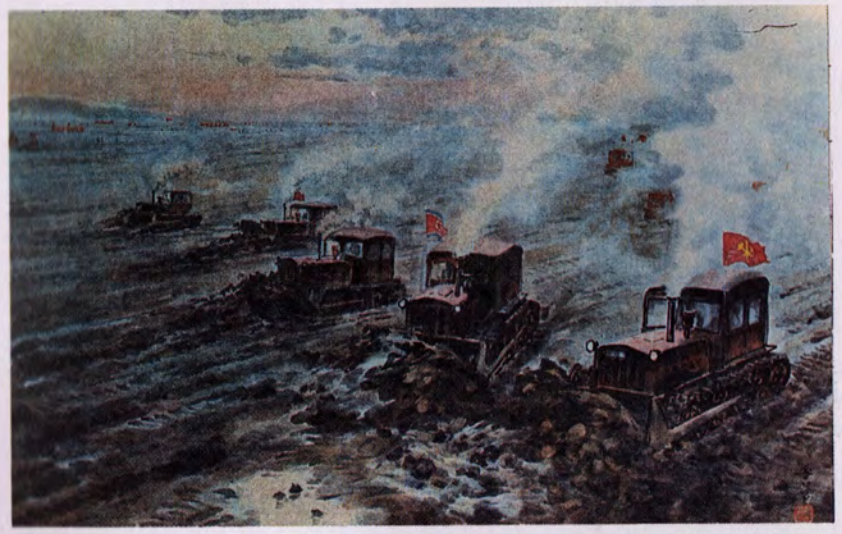
조선화 **백두산** 김상직



유 화 **회령생가** 김형철

유 화 **빛나라 정일봉** 최제남





조선화 **동음소리** 송시엽



조선화 **대동강기슭** 황영준



조선화 **구룡폭포** 한희봉



조선화 **정방산 성불사**
송시엽



유 화 **정방산성의 가을**
최제남



유 화 **전선시찰** 한남선



유 화 **소형발전소** 유홍섭



조선화 **림진강격류**
문화춘

김일성화, 김정일화 전람회 작품중에서



조선화　영생의 꽃 **김일성**화　리광영 외6명



조선화　**불멸의 꽃 김정일화**　김규학 외7명



조선화　**회령의 봄**　전영삼 외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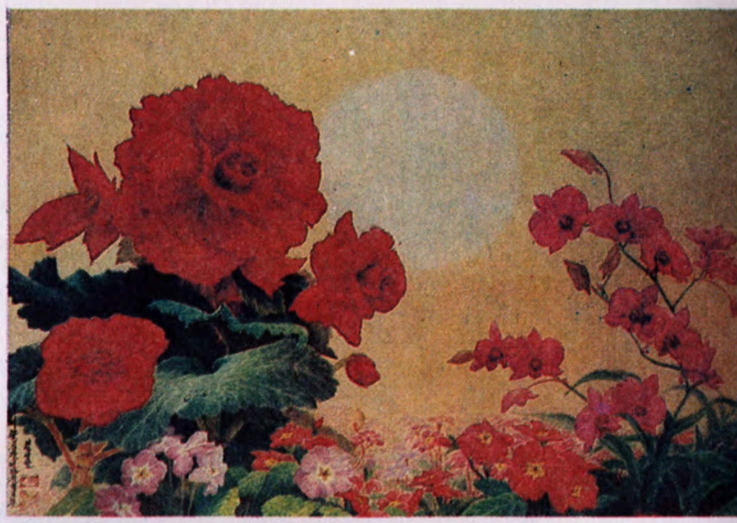
서예　**영생의 꽃**　최경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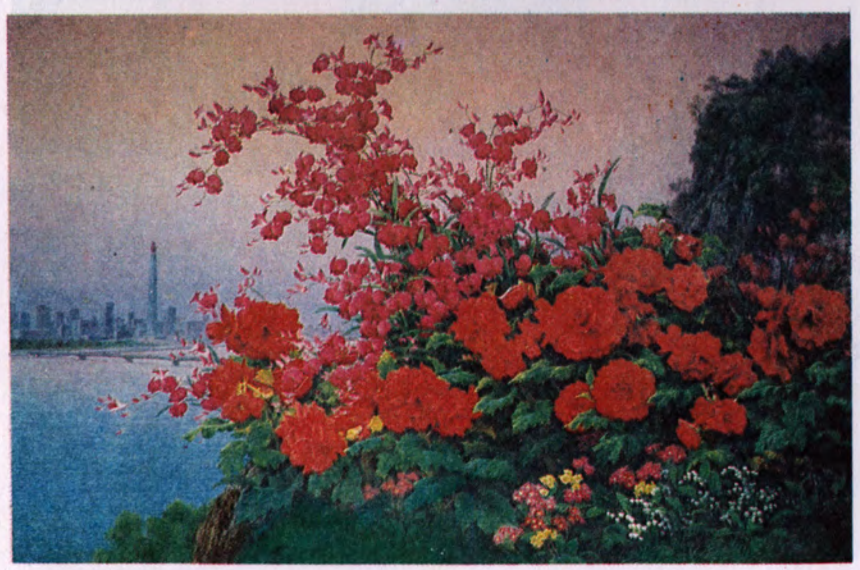
조선보석화　**우리 나라**　최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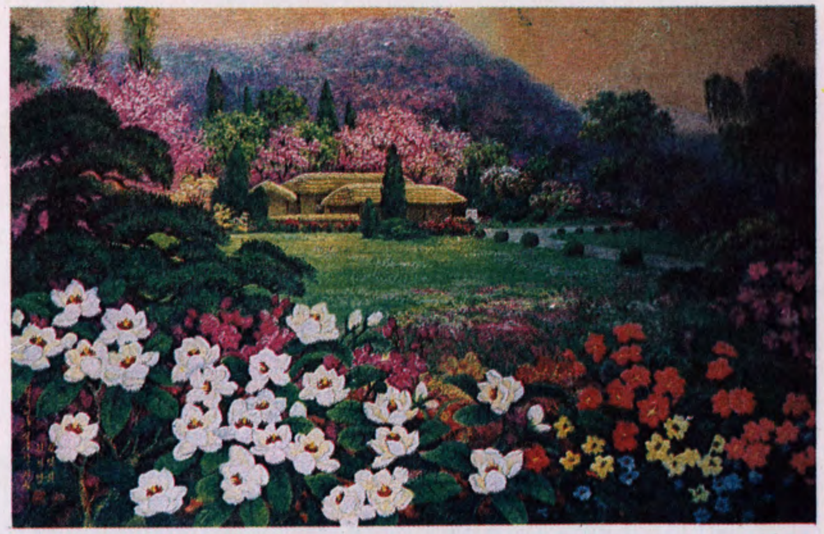
조선화 **김일성**화 송시엽



조선화 태양의 꽃 김영남



조선화
불멸의 꽃 만발한 주체
조국의 아침
오영성, 리명학, 림철호



수예 4월의 만경대
김영희, 리희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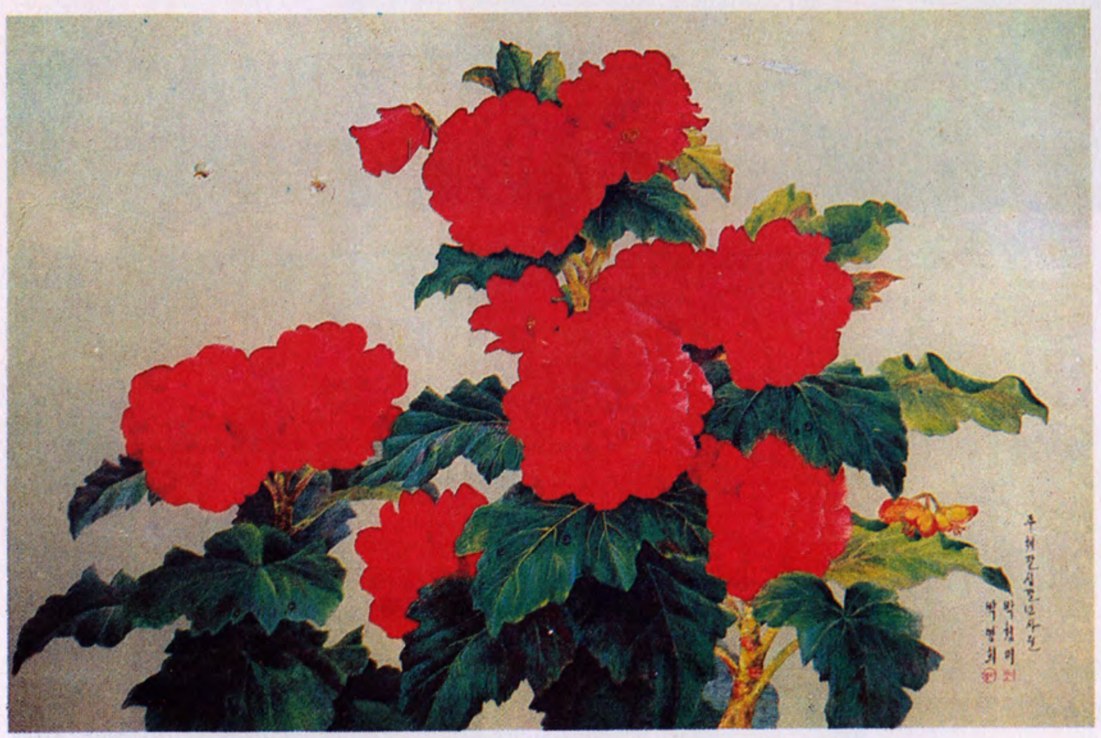
조선화 4월의 **김일성**화
김용국



조선화 만민의 태양
조광일



수예 **김일성화** 류춘심, 리향옥



수예 **김정일화** 박청미, 박명희



꽈슈화 기다리는 마음 최명길



뗌뻬라화 **평양으로** . 오영남, 리명호



도안 기념우표 축하장 량련제, 박연희, 차련희

전국 풍경화전람회작품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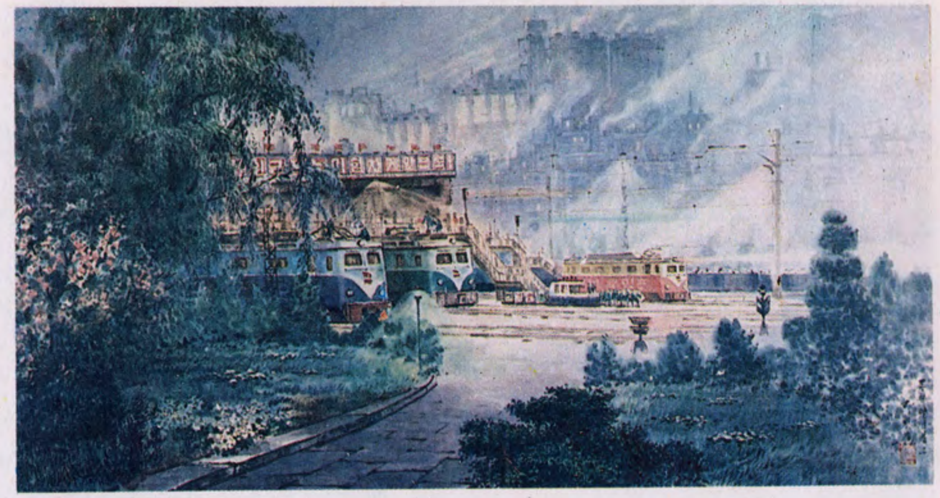
—뜻 깊은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뗌뻬라화 **무지개** 동하도



조선화 **대동강의 아침** 박창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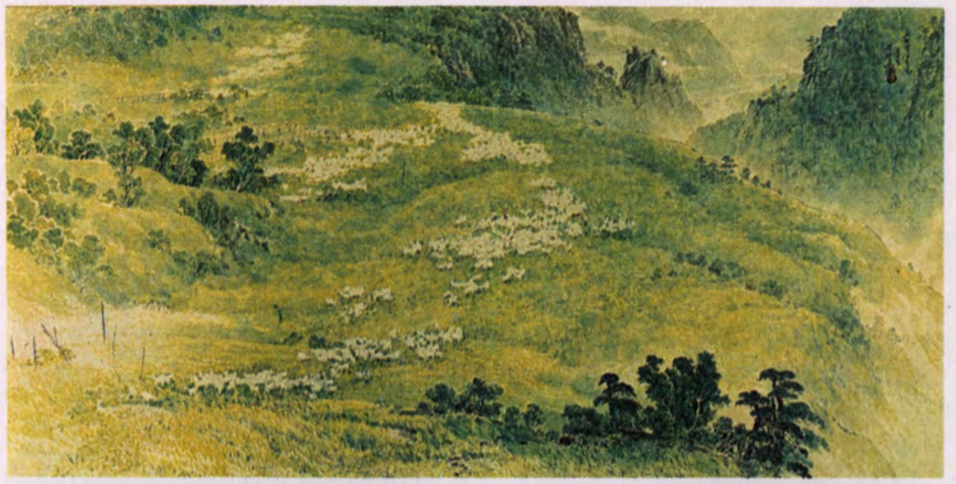
조선화
정비장의 밤
리원춘



조선화 **구월산의 단풍계절**
김홍식



유화 **금야리풍경**
윤성찬



조선화
병원의 푸른 등판
곽철선



유화
양어장의 저녁
장명룡



뗌뻬라화
아양리소형발전소풍경
신철호, 김명학



수채화 7월의 보덕암 천승택



조선화 단풍계절 림과

—뜻 깊은 12월 24일에 즈음하여—



조선화 **만경대의 아침** 정현일



조선화 **조종의 산 백두산** 황영준



수채화 **주체사상탑거리**
송왈은, 박룡운



수채화 **대동강의 저녁**
강영남



조선화 **대홍단의 아침** 안영일



조선화 해칠보의 저녁 현종성



관화 저녁 김명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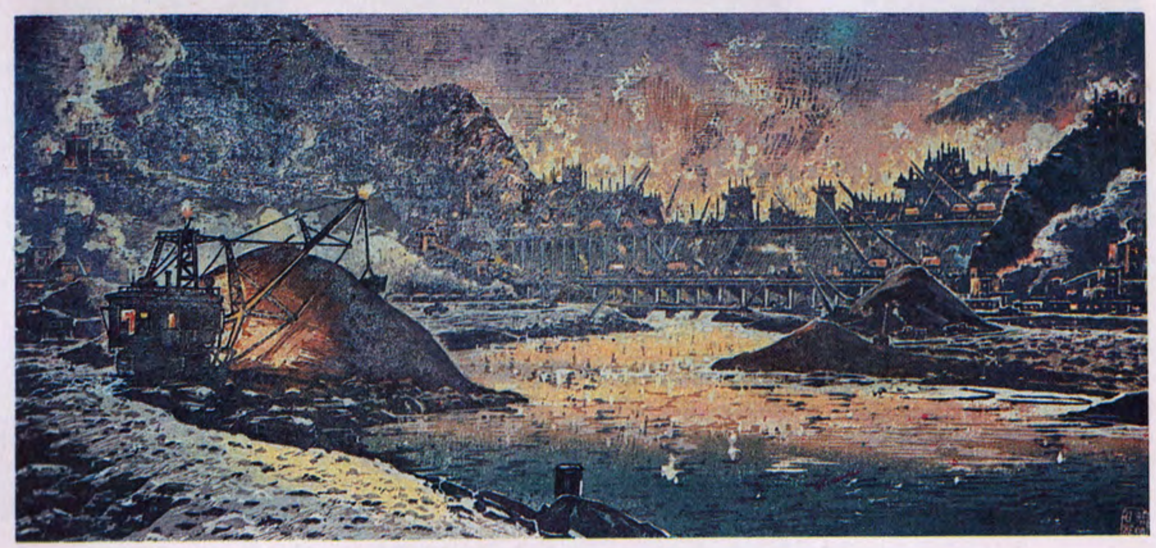
관화 성균관의 가을
최영순



뗌뻬라화 해운동 풍경
오창남, 최은철



뗌뻬라화 백두고원의 가을
리영림



관화 밤을 모르는 언제건설장 김광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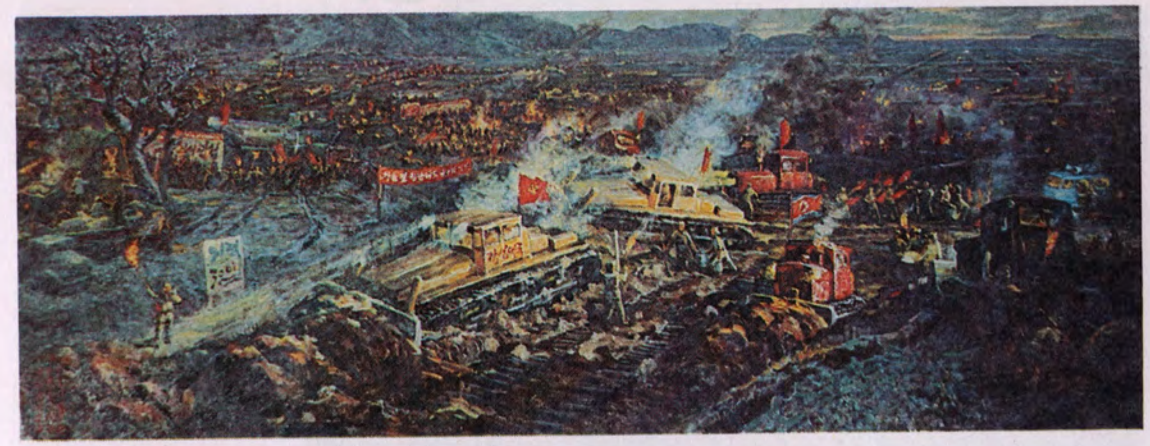


조선보석화 **우리 집 토끼** 한철



수예 **만경대의 봄** 박창원, 김성희, 송선희

유화 **강원땅의 새 력사** (제3부작)



1부 **변혁의 동음** 강승규 외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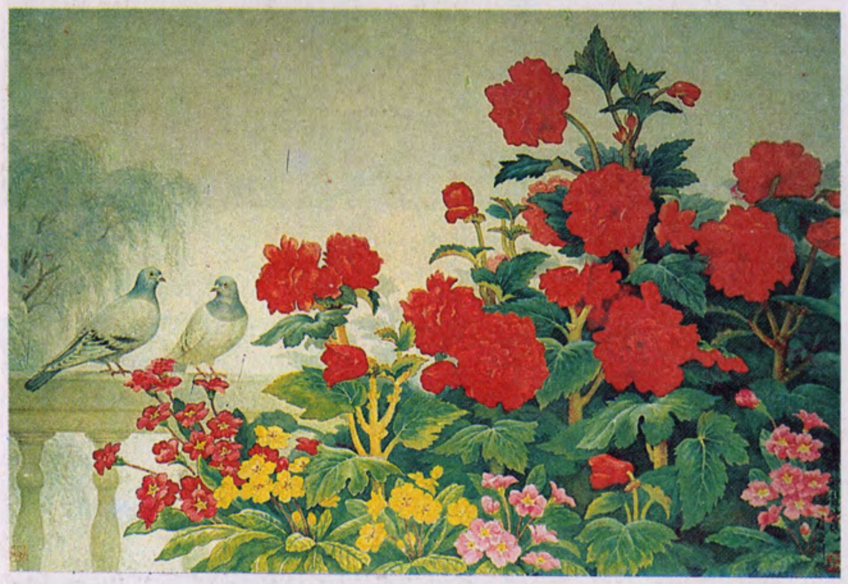


2부 **은정의 쌍무지개** 강승규 외5명



3부 **천지개벽의 첫가을** 강승규 외5명

평양미술대학창립 52돐
미술전람회작품중에서



조선화
불멸의 꽃 김정일화
김근이



조선화 **중대의 하루** 김성현



조선옷도안 리인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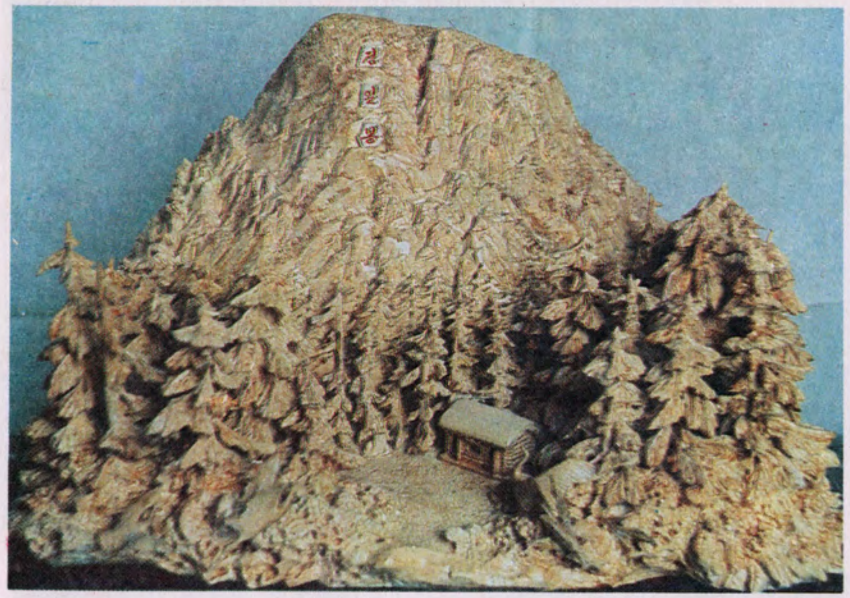
조선화 **육탄용사** 전광석



출판화 **녀성혁신자** 최경미



유화 **할머니의 마음** 윤광영



목공예 **백두밀영고향집** 류수혁





출판화 **항쟁** 리명진

수예 **참대** 한송이



조선화 **풍성한 우리 집** 박현철



괏슈화 **련못가** 리경준



유화 **나어린 독주가** 황서량



수예 **봄** 김은희



괏슈화 **보통강이 보이는 풍경** 최성혁



조선화 **우리 분단 토끼** 림철



문성민



최성근



출판화 **혁신자** 최경미



유화 **탄부** 최철민



안광명



리만규

경공업미술창작사에서 창작한 상품도안중에서



손란숙, 조경화, 주성일



천영일



한수현, 리봉실



정순희, 최인순, 김광수



황명희, 리봉수



전일찬, 전창옥, 리혜영, 박영학, 황명희



송명희, 리혜숙, 전일찬, 조광일, 함광철



김영훈



김하진



김동욱, 조경화,천영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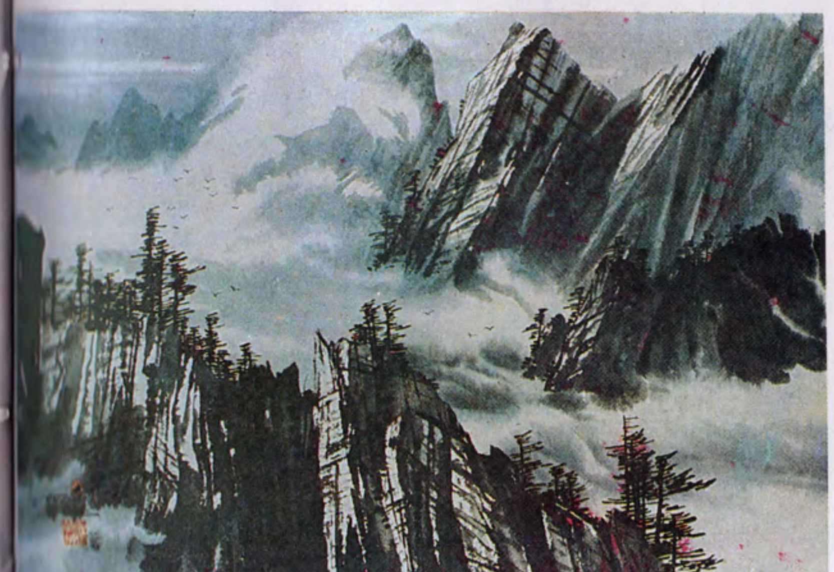
정영만미술전람회작품중에서



만수대창작사 부사장 《김일성상》 계관인
2중로력영웅 인민예술가 정영만



조선화 금강산세존봉계곡



조선화 안개 흐르는 집선봉



조선화 금강산

금강산의 4 계절



구룡연의 봄



관음봉의 여름



련주담의 가을



집선봉의 겨울



조선화

북부철길건설자들



조선화

서해갑문건설의 위대한 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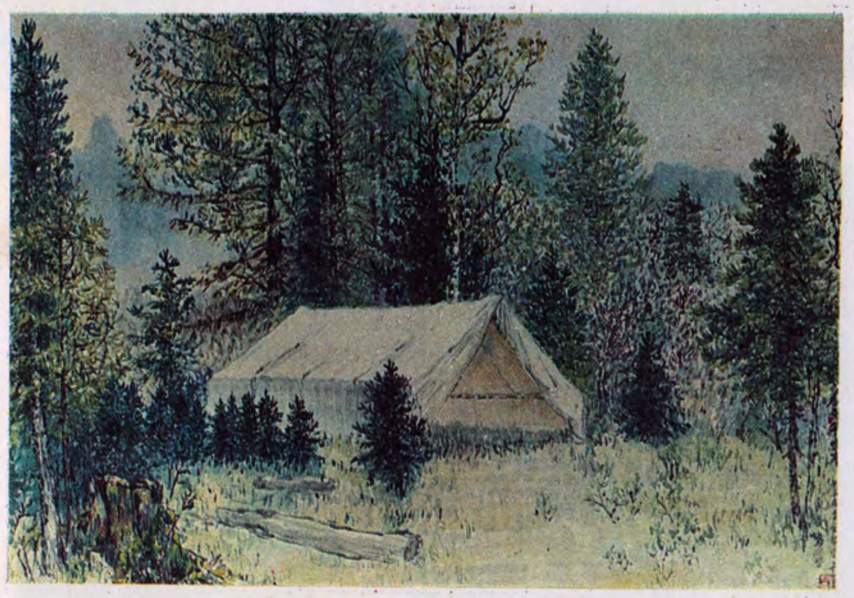
황영준풍경화전람회 작품중에서



송화미술원 미술가
공훈예술가 황영준



백두산천지



건창숙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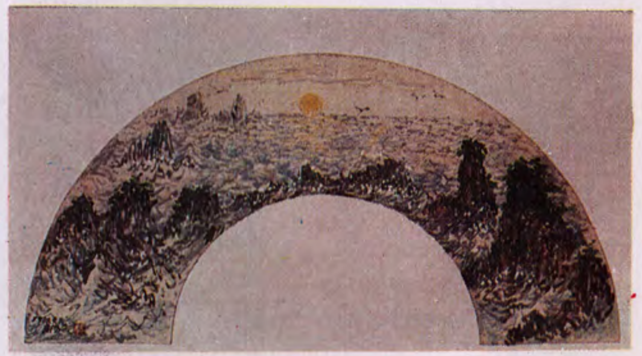
해바라기



묘향산의 봄향기



모란봉의 가을



동해의 아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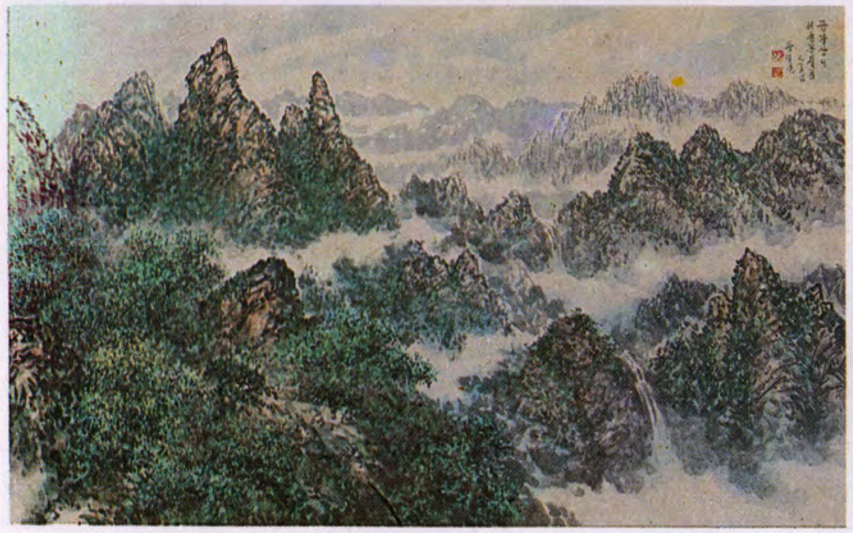
포태산 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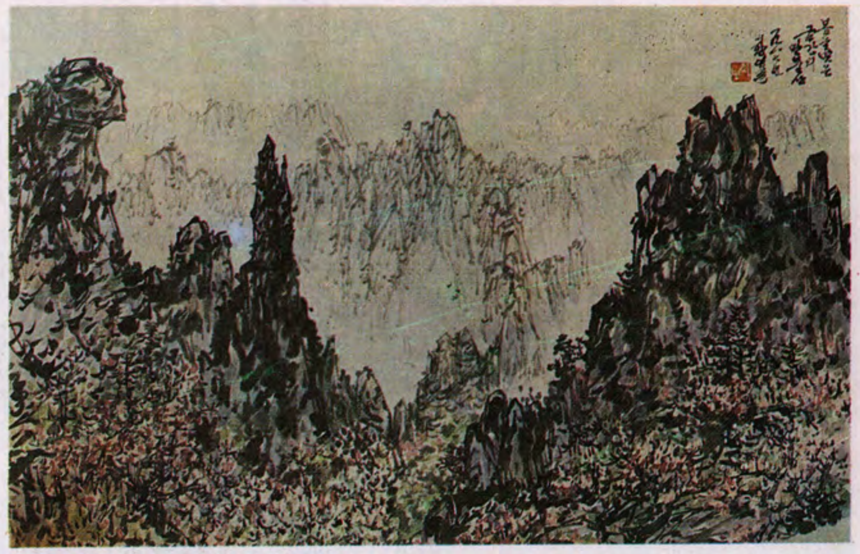
삼지연의 봄



금강의 세존 계곡



금강산의 세존봉절경



봄을 맞은
금강산의 만물상



금강산 채하봉계곡



봄을 맞으며

김승희미술전람회 작품중에서



만수대창작사 미술가
《김일성상》 계관인
인민예술가 김승희



조선화 폭포



조선화 분계선의 달



조선화 칠성문밑에 살구꽃 만발하다



조선화 가을의 감찬정



조선화 신천의 백둘어린이



조선화 자화상



조선화 적위대원



조선화 내금강 묘길상

만수대창작사창립 40돐기념 미술전람회작품중에서



조선화 추억 홍성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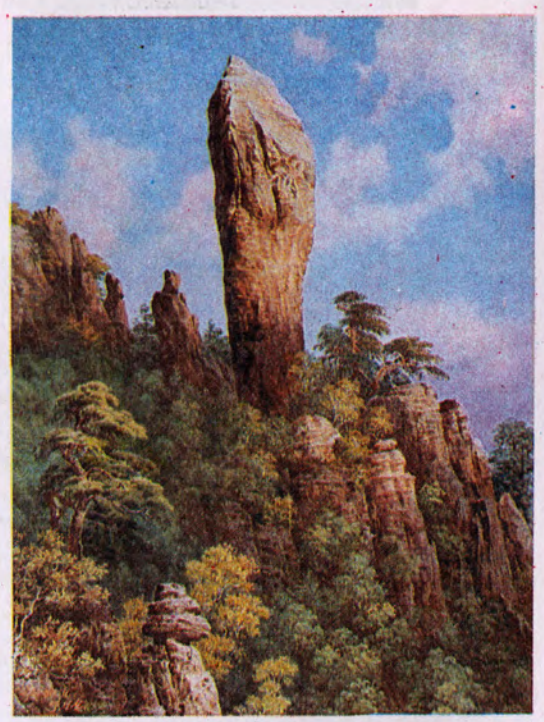
조선화 영원한 태양의 성지 리혜숙



조선화 **태양의 성지** 리혜옥



김학림, 리철민, 김영일



보석화 **칠보산 단검바위** 백성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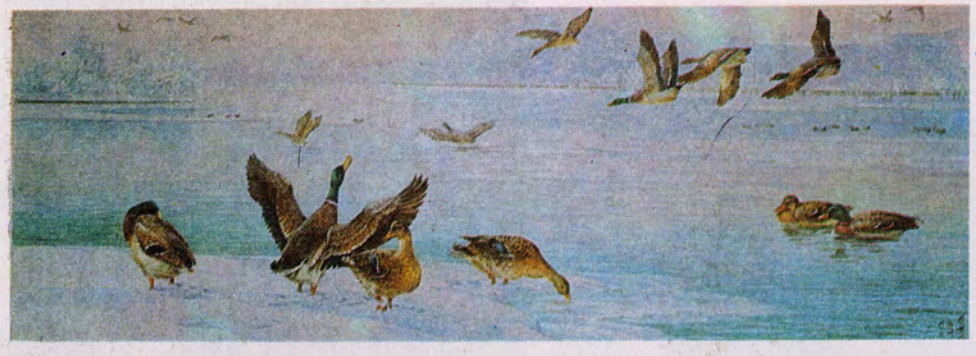
수인화 **정일봉** 박정식, 송철산



뗌뻬라화 **축하해요** 김익현



판화 **대흥단의 숨결** 황인재, 김인범



수예 **2월의 대동강** 장선화, 한영화, 김은숙



수예 **양귀비꽃**
윤려선, 박명희



기계수 **금강산의 만물상** 리희방 외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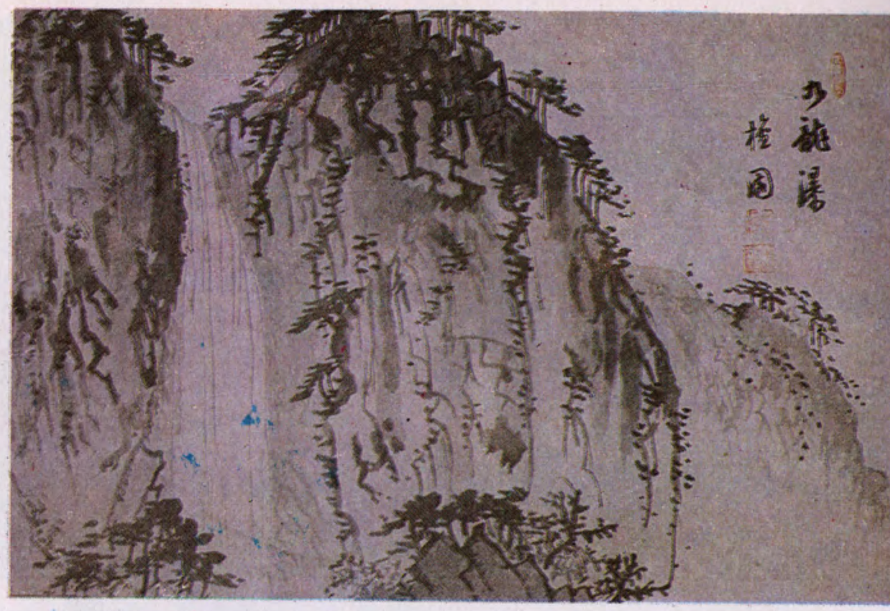
회벽화 **대홍단의 새 주인들** 안영준



수채화 **우리 군대** 송진국



수인화 **다람쥐** 리경남



수인화 **구룡폭포** 허상애



조선보석화 **씨름** 최선희



조선화 **구보로** 함성철



유 화 **감자풍년** 김성룡



공예 **선녀** 장혜영



조각 **어린이와 토끼** 김기철



조각 비둘기춤 김욱



조각 감자풍년 김철흡



조선보석화 우리 나라 최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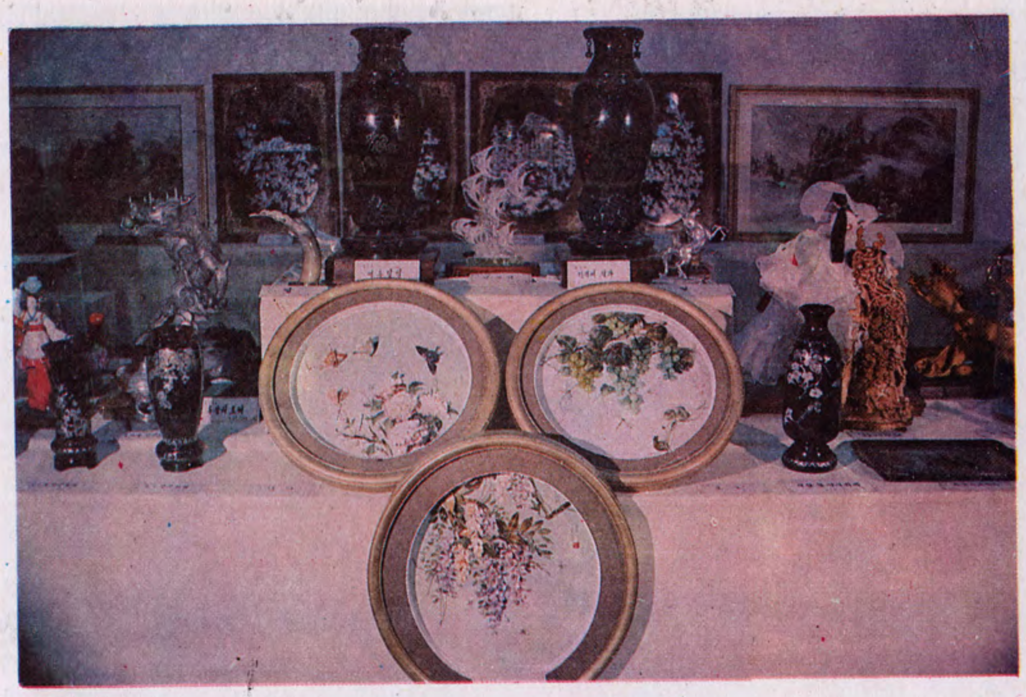
리홍종



조각 봄갈이 박철웅



라광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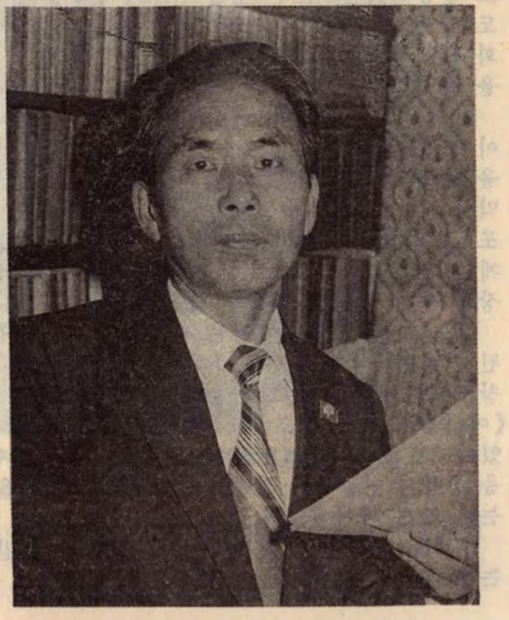


공예품들



도자기작품들

값 높은 영예를 지닌 창작가, 예술인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김일성상》계관인 김우경

이해에 영예의《김일성상》을 수여 받은 그는 재능있는 동화작가이며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과 관련된 혁명전설수집발굴사업의 개척자의 한사람이다.

그는 이해에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5돐을 맞으며 국보적의의를 가지는《금수산기념궁전전설집》(1)합작)과 백두광명성전설집 (4)《무지개대문》을 세상에 내놓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그가 수집발굴한 혁명전설들을 지도해 주시면서 내용이 좋은데 대하여 높이 치하해 주시였다.

주체34(1945)년 2월 1일 평안북도 신의주시 백운동에서 출생하여 주체63(1974년)에 작가양성반을 졸업한 그는 지난 시기 동화창작에서 자기의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특히 그는《날개 달린 룡마》,《토끼와 사자》,《셋째의 착한 마음》등 백두산3대장군들께서 창작하신 동화와 이야기들을 수집발굴하여 우리 당의 불멸의 문예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이밖에도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추모설화집《하늘도 울고 땅도 운다》,《하늘땅의 조화》(합작), 그리고《백두산전설집》,《백두광명성전설집》(1~3) 등 수많은 혁명실화와 혁명전설들을 수집발굴하여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교양에 크게 공헌하였다.



4.15문학창작단 작가
《김일성상》계관인 안동춘

이해에《김일성상》계관인의 영예를 지닌 그는 우리 나라의 재능 있는 작가들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이해에 총서《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평양의 봉화》를 창작해 내놓았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준비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이끌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을 통하여 그는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에서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과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우리 청년들을 따뜻이 손 잡아 이끌어 주신 장군님의 영원불멸할 업적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진실하고도 감명 깊게 보여 주었다.

병사시절에 첫 단편소설《당원》(1967년)을 창작발표한 그는 제대후 로동생활을 거쳐 작가양성반에 입학하였다. 작가양성반을 졸업(1977년)한 이후부터 그는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문예출판사(당시)《조선문학》편집부 편집원, 조선문학창작사(당시) 심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로 주체74(1985)년부터 현재까지 4.15문학창작단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 기간 그는 총서《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50년여름》(1990년), 중편소설《돌파》(1985년) 그리고《영원》,《삶》,《언약》등 20여편의 단편소설들을 창작하였다.



평양연극영화대학 강좌장

인민예술가 **정래범**

우리 나라의 관록 있는 무대연출가이며 교육자인 그는 주체27(1938)년 5월 2일 청진시 포항구역에서 석공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주체46(1957)년에 조선인민군대에 입대한 이후부터 30여년간 그는 군악단 연주가, 대련합부대협주단 연극배우, 조선인민군 연극극장과 조선인민군협주단, 사회안전부협주단(당시) 등 군대부문 연주가, 작가, 배우, 연출가, 예술지도일군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또한 만수대예술단 연출가로도 활동하였으며 주체80(1991)년부터 평양연극영화대학 희곡강좌 교원, 강좌장으로 후대교육사업을 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남 다른 예술적재능을 지닌 그는 자신이 직접 작품도 쓰고 출연도 하였으며 많은 작품들을 연출도 하였다. 그가 창작, 연출하고 출연한 단막극《녀성고사총수들》은 주체51(1962)년에 진행된 조선인민군군무자예술축전에서 특등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고 이를 계기로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표창장을 수여 받는 영광을 지니였다.

그는 지난 시기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혁명가극《밝은 태양아래서》,《당의 참된 딸》의 창조사업에 참가했으며 혁명연극《충성의 해발》,《어머님의 념원》창조시기 작가로, 연출가로 활약하였다. 또한 주체68(1979)년에는 음악무용종합공연을 훌륭히 연출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주체68(1979)년에 공훈예술가칭호를 수여 받은 그는 이해에 인민예술가의 영예를 지니였다.



만수대예술단 작곡가

인민예술가 **김건일**

그는 우리 나라 가요음악예술에 커다란 공헌을 한《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인민예술가 김원균의 맏아들이다.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받고 작곡가가 된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에 의하여 혁명가극의 창조사업에 참가하는것으로서 창작의 첫 걸음을 떼였다. 혁명가극들인《피바다》와《꽃 파는 처녀》의 창조에서 주로 편곡에 참가한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체적인 지도를 받으며 혁명적음악예술의 창조원칙과 방법, 원리들을 하나하나 터득하게 되였다. 그 후 혁명가극《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창조사업에 참가한 그는 처음으로 노래《꽃 피는 이 봄날에》를 작곡하여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노래는 한번만 들어도 선률을 다 외울수 있는 명곡이라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이에 무한히 고무된 그는 이후 20여편의 예술영화들에 나오는 음악작품들과 40여편의 가요들을 창작하였다. 그중 영화노래들인《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기쁨 싣고 달리는 말발구》,《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전사의 어머니》와 가요들인《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사회주의는 우리 생활 우리 생명》,《백두산의 눈보라》,《내 사랑하는 꽃》,《흰 눈 덮인 고향집》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치하를 받은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만수대예술단조직 30돐이 되는 이해에 그는 인민예술가칭호를 수여 받았다. 폭이 넓고 웅심 깊으며 랑만적인 감정정서를 선률에 잘 밀착시키는것이 그의 특징이다.



만수대예술단 인민배우 **조혜경**

그는 이해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속에서 38살에 인민배우로 되였다. 30대에 인민배우. 들어만 봐도 벅차고 흐뭇하기 그지 없다.

강원도 평강군의 산골에서 평범한 군관가정의 셋째로 출생한 그는 인민학교때부터 노래에 소질이 있어 마을과 군은 물론 도에까지 소문났다.

자그마한 새싹도 귀중히 여기고 키워 주는 어머니당에서는 그를 도예술학원으로, 얼마후에는 평양음악무용대학으로 불러 주었고 졸업후에는 대학연구원을 거쳐 외국류학도 보내주었다. 이런 사랑속에 그는 세계적인 독창가수로 자랐고 국제콩클에도 입선하여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고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의 노래를 들어 주시고 실력이 있고 성악가로서 완성됐다고 치하하시며 우리 나라에서 녀성고음가수로서는 그만한 사람이 없다고 내세워 주시였다.

성악가로서 그의 특징은 호흡이 좋고 성량이 대단히 풍부한것이며 아래우로 완벽하게 통일된 소리로 노래형상을 열정적으로 하는것이다.

그가 제일 사랑하고 많이 부른 노래는《**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이고 특별히 애독하는 도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음악예술론**》이다.

그는 말한다.《형상에서 모를것이 있으면〈**음악예술론**〉을 펼쳐 보라. 창작과 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이 다 들어 있다. 예술인은 마땅히〈**음악예술론**〉을 통달하고 자자구구 음미해볼줄 알아야 한다.》고



만수대예술단 인민배우 **리영욱**

어제날 조선인민군 군무자예술축전에서 소박한 남성중창의 선창을 하였던 그도 이해 인민배우의 영예를 지니였다.

황해북도 봉산군의 어느 한 리에서 중학교 교원의 아들로 태여난 그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인민군대에 입대하기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노래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다만 목소리가 남보다 좋다는 소리를 들어 왔을뿐이다.

목소리가 인연이 되여서인지 그는 군인예술소조활동에도 참가하였고 군무자예술축전에서 선창도 담당하게 되였다. 하지만 자기가 후날 독창가가 되고 국제콩클수상자로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어머니당은 이런 그를 제대후 예술단으로 불러 주었으며 기초가 약한 그에게 유능한 강사들을 붙여주었고 외국류학도 보내주었다.

이런 사랑과 은정의 나날속에 그는 세계적인 독창가수로 자라나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언젠가 혁명가극《꽃 파는 처녀》를 지도해 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극에서 철룡이역을 하던중 그가 제일 잘한다고 하시며 다른 배우들에 비하면 선생이라고 치하하시였다.

남성고음가수로서 그의 특징은 극성이 있는 소리로 노래형상을 재치가 있고 열정적으로 하여 듣는 사람들을 후련하게 하는것이다. 그의 딸도 대학에서 성악가수로 준비해 가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만 노래형상을 하라, 그러면 인민의 사랑을 받는 가수가 된다.

이것이 그의 주장이다.



국립희극단 부단장 인민배우 **손원주**

사람들은 믿지 않을것이다. 희극적인 연기로 영화화면들과 희극작품들에서 지울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긴 그가 배우생활의 첫 시작을 경희극에서 단역도 차례지지 않아 단역의 대리역에 겨우 출연하였다는 것을 알면.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키가 작고 목이 밭은 저를 연출가들이 처음에는 써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따라 다니며 성화를 먹이니 할수없이 출연시켜 준것이 단역이 자리를 뜰 때에만 하는 대리역이였습니다》. 그때를 두고 그가 어느 기회인가에 한 말이다.

시작은 어떠하든간에 그는 오늘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희극명배우로 자라났고 이해에 인민배우칭호를 수여 받았다.

저절로 이루어 지는것이란 하나도 없듯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손길과 믿음이 없이 어찌 오늘의 그를 생각할수 있으랴.

일찌기 영화혁명의 나날로부터 손 잡아 이끌어 주시고 대담하게 배역들을 맡겨 주신 장군님의 믿음에 그는 맡겨 진 역형상들을 훌륭하게 창조하는것으로 보답해 왔다.

배우로서의 그의 특기는 평범한 생활속에서도 희극적인 세부를 찾아 역형상에 적절히 써먹는것이며 개성이 뚜렷한것이다. 대본을 받아 쥔 배우는 사색하고 또 사색하여 자기의 몫을 찾으라, 이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현재 국립희극단의 예술부단장으로서 웃음으로 생활의 본질을 파헤치고 웃음으로 사람들을 투쟁과 위훈에로 불러 일으키는데 자신의 모든 재능을 다 바치고 있다.



평양음악무용대학 강좌장

인민배우 **손대원**

《임자의 친어머니는 박우필이를 돌덩이처럼 버렸지만 우리 수령님은 자넬 안아 먹여 주시구, 입혀 주시구, 대학을 졸업시켜 오늘은 나라의 큰 간부로 내세워 주셨어.》

조선예술영화《군당책임비서》에서 최관배로인이 기사장 박우필에게 하는 이 대사에는 손대원동무의 인생사가 깃들어 있기도 하다.

낳아 준 부모도 세상에 출생한지 20여일밖에 안된 그를 돌덩이처럼 버렸지만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사랑의 품에 안아 대학까지 졸업시켜 나라의 훌륭한 독창가로 내세워 주셨다.

성악가수로보다《클라우스》로 더 잘 알려 진 그다. 하지만 그는 세계적인 독창가수이고 국제콩클수상자이다.

그는 이해에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인민배우칭호를 수여 받았다.

지난 해에는 몸소 자신의 곁에 불러 주시고 온갖 사랑을 다 부어 주시고 자식의 문제까지 관심해 주시더니 이해에는 또다시 값 높은 영예를 안겨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오늘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특색 있는 남성고음독창가수로 될수 있었다.

가수로서 그의 특징은 가창력이 좋고 형상에서 섬세하고 열정적이며 관중과의 교감이 특별히 좋은것이다.

현재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성악학부 양악성악강좌장으로 사업하고 있는 그는 세계적인 독창가수들을 키워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것을 삶의 최고목표로 간주하고 있다.



만수대창작사 부사장《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인민예술가 **김성민**

그는 피눈물의 해였던 주체83(1994)년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밑에 어버이수령님의《태양상》을 형상하여 슬픔에 잠겨 있던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을 안겨 준 공로 있는 미술가이며 창작지도일군이다.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을 후손만대의 최대의 국보로 훌륭히 형상한것으로하여 그는 로력영웅칭호(1995년)를 수여 받았다.

그는 지난 시기 조선화《혁명연극〈3인 1당〉공연의 날에》(1985년),《원한 깊은 원철로》(1987년),《평양의 새봄》(1988년),《수령님의 뜻을 이어 조국을 통일하리》(1994년),《뜻 깊은 설날에》(1995년)를 비롯하여 근 20점의 국가미술전람회 금메달수상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는 수령형상미술작품창작에서도 공로가 있다.

특히 조선화《항일의 혈전만리》(1997년)는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대걸작이라는, 명화가가 그린 그림이 다르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가 창작한 조선화《국제평화대행진》중에서《평양의 대환호》(1989년)는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력사적인 작품이라는, 영구보존할데 대한 치하의 교시를 받았으며《백두산천지의 번개》(1998년)는 경애하는 장군님으로부터 대단히 훌륭하다는 평가의 말씀을 받았다.

그는 이해에 영예의《김일성상》을 수여 받는 영광을 지니였다.



만수대창작사 돌조각제작단 형상원

로력영웅 **리도섭**

그는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영상을 형상한 동상과 대리석상, 우리 나라에 일떠선 수많은 기념비들의 돌조각제작사업에 참가하여 커다란 공로를 세운 재간 있는 돌조각형상원이다.

만수대창작사 돌조각제작단에서 형상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주체63(1974)년부터 현재까지 25년기간 그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과 금수산의사당, 인민대학습당에 어버이수령님의 대리석상을 모시는 영광스러운 사업에 참가하였으며 삼지연혁명전적지를 비롯한 수많은 혁명전적지, 사적지들에 수령님의 동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모시기 위한 사업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삼지연대기념비의 돌조각《진격의 나팔수》, 주체사상탑 부주제군상돌조각, 대성산혁명렬사릉 돌조각, 서해갑문기념비 돌조각 등을 시대적인 기념비로 완성하여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데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

이 나날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감사(2차)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사(2차)를 받는 영광을 지니였다.

일을 잘한다는,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진짜배기충성의 집단이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듭되는 평가와 감사를 받은 만수대창작사의 자랑찬 영광속에는 그의 숨은 노력도 새겨 져 있다.

그는 이해에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를 수여 받았다.



만수대창작사 돌조각제작단 형상원

로력영웅 **김광정**

그는 이해에 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를 수여 받았다.

주체41(1952)년 4월 9일 평안북도 정주군 청운리에서 출생한 그는 주체67(1978)년 조선인민군대에서 제대된후부터 현재까지 20여년간 돌조각제작단 형상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 기간 그는 주체사상탑 부주제군상 돌조각, 대성산혁명렬사릉 돌조각, 서해갑문기념비, 동명왕릉기념비를 비롯하여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의 돌조각창조사업에 참가하여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 우리 인민과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투쟁위훈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그는 이해에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자신의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다 바침으로써 기념궁전의 통돌울타리를 세계적인 대걸작품으로 짧은 기일안에 완성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만족과 기쁨을 드리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우리 당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주체미술의 자랑찬 발전면모를 뚜렷이 과시하는 이와 같은 돌조각품마다에는 당과 수령에 대한 그의 불타는 충성심과 헌신적인 노력이 력력히 아로새겨져 있다.



만수대창작사 도안창작단 미술가

인민예술가 **김영섭**

이해에 인민예술가칭호를 받은 그는 우리 나라의 재능 있는 도안미술가이다.

주체56(1967)년에 평양미술대학 전문부를 졸업한 후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 산업미술창작사에서 도안가로 창작생활을 하면서 평양미술대학을 졸업(1976년)한 그는 그 이후부터 만수대창작사 도안창작단 미술가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지난 시기 묘향산의 국제친선전람관과 만수대의사당, 인민대학습당 등 중요대상들의 부분도안을 맡아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여 실현하였다. 특히 그가 도안하여 생산한《지상전동차》(1968년)를 보아 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멋 있다고, 날씬하게 잘 만들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주체》호라고 차이름까지 달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제11차 국가미술전람회(1969년)에 그가 출품한《이동수술차》의 형태도안을 잘한데 대하여 치하해 주시였다.

도안창작가로서의 그의 재능은《**김일성**훈장》도안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가 다시 도안한《**김일성**훈장》(1982년)을 보아 주시고 도안이 이전보다 잘된데 대하여 거듭 높이 평가해 주시였다.

그는 이해에 돌울타리를 비롯하여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는 사업에서도 도안가로서의 재능을 남김없이 보여 주었다.



만수대창작사 돌조각제작단 조각가

인민예술가 **인영일**

주체40(1951)년 10살나이에 미제에 의해 량부모를 다 잃은 전쟁고아인 그는 어머니당의 사랑의 품에 안겨 자기의 희망을 마음껏 꽃 피운 재능 있는 돌조각가이다.

주체59(1970)년 6월 평양미술대학을 졸업한 그는 현재까지 돌조각단 조각가로 근 30년간 활동하면서 기념비적인 조각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여 우리 인민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교양하고 주체미술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난 시기 그는 삼지연대기념비와 국제친선전람관, 인민대학습당과 3대혁명전시관, 평양지하철도 개선역, 대성산혁명렬사릉과 회령고향집 등 여러 중요대상들에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영상을 모시는 영예로운 사업에 참가하였으며 이해에는 태양의 성지 금수산기념궁전에 어버이수령님의 대리석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데 기여하였다.

이밖에도 그는 만수대대기념비와 왕재산대기념비,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동명왕릉과 단군릉을 비롯한 수많은 기념비들을 만년대계의 국보로 완성하는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공로로 그는 이해에 인민예술가칭호를 수여 받았다.



만수대창작사 도자기창작단

인민예술가 **신현수**

이해에 55살인 그는 주체57(1968)년에 평양미술대학 도자기학과를 졸업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30여년간의 창작생활기간에 수천점의 백자기, 분장자기, 투각고려청자기들을 창작하여 내놓은 공예실력가들중의 한사람이다

그가 창작한《참대무늬 투각장식종이꽂이》는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아주 잘되였다는 치하의 교시를 받았으며《참새무늬재털이》는 경애하는 장군님으로부터 높은 평가의 말씀을 받았다.

이밖에도《**김일성**화 장식세공투각꽃병》,《목란하회꽃병》,《금강산하회장식꽃병》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여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그가 창작한 작품들가운데서《목란하회철사꽃병》,《버들과 오리》,《다리야꽃 상감꽃병》,《설경》,《버들과 오리분장꽃병》,《은방울세공투각꽃병》을 비롯한 25점이 세련되고 기발하게 착상되고 훌륭히 형상된것으로 하여 국가소장품으로 되였다. 그는 10여차에 걸쳐 국가미술전람회에서 1등의 영예를 지니였다.

그가 창작한 수많은 작품들은 일본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된 대외전람회에 출품되여 우리 나라의 도자기발전수준을 과시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그는 주체78(1989)년 세계발명권전시회에서 은메달을 수여 받았으며 주체81(1992)년에는 우리나라 발명권전시회에서 발명증서를 수여 받았다.

그는 이해에 인민예술가의 영예를 지니였다.



만수대창작사 벽화창작단 단장
인민예술가 **서대무**

주체 29(1940)년 4월 3일 평안북도 구장군에서 출생하여 평양미술대학 벽화학과를 졸업(1964년)한 그는 우리 나라의 기념비적벽화창작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재능 있고 공로 있는 미술가이다.

35년이라는 오랜 창작생활기간 그는 평양대극장의 북쪽측면벽화《근거지의 봄》(1970년)과 정면벽화《꽃 파는 처녀》(1974년),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외부벽화인《문학예술의 혁명전통》(1974년), 인민문화궁전 내부정면벽화인《수령님의 해빛 아래 번영하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1974년), 청년동맹회관 야외벽화《청년사회주의건설자들》(1978년), 그리고 평양지하철도 영광역의 벽화들인《평양의 봄》(1, 2. 1987년)을 비롯하여 30여점의 기념비적벽화들을 직접 초안을 구상하고 창작에서 주동이 되여 완성하였다.

이 벽화들은 쪽무이를 기본으로 하면서 물유리 또는 수성안료형식을 리용하여 창조되였다.

주체64(1975)년 10월 7일 평양지하철도 2계단 지하역들의 내부장식물들을 지도해 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사회주의농촌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 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비롯하여 그가 중심이 되여 창작한 벽화들이 훌륭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해 주시였다.

우리 나라 벽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그는 이해에 인민예술가칭호를 수여 받았다.



조선인민군창작사 박사 **하경호**

우리 나라 미술부문의 이름 있는 평론가이며 리론가인 그는 이해에 예술학박사칭호를 수여 받았다.

그는 박사학위론문으로서《조선화화론》을 제출하였다.

론문에서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미술론**》에 기초하여 조선화의 고유한 특성과 조선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리론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서술론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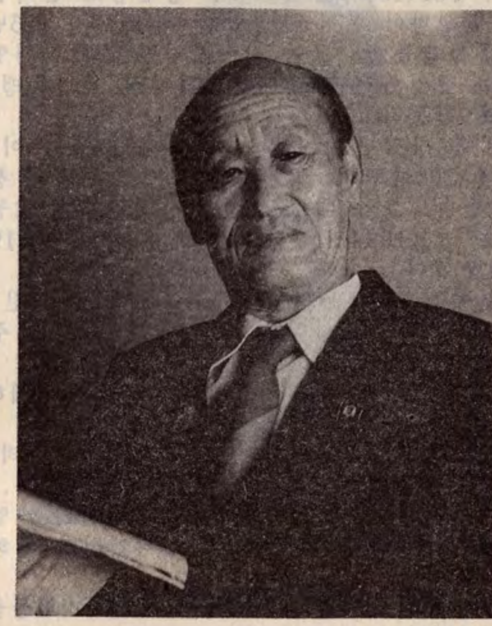
주체30(1941)년 4월 22일 황해남도 신천군 신천읍에서 출생하여 주체52(1963)년에 평양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원까지 거친 그는 문예출판사(당시) 잡지《조선미술》,《조선예술》기자로, 조선문학예술총동맹 론설원, 평론가로 활동하였다.

이 기간 그는《위대한 3대령장에 대한 철학적형상》,《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우리는 이긴다》를 비롯한 200여건의 론설, 관평, 평론 등을 집필편집하여 주체미술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주체미술건설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는 평양미술대학 분교의 교무과장으로서 후비육성사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는 주체76(1987)년에 학사칭호를, 주체83(1994)년에 부교수학직을 수여 받았다.

실적으로 당을 받든 창작가, 예술인들



4.15문학창작단 작가《**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권정웅**

그는 이해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당사업개시 35돐을 계기로 총서《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전환》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당년 74살의 년로한 몸이지만 그는 력사적사실에 대한 철학적인 분석과 묘사로 일찌기 수령론을 창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당사업과 군대, 경제사업과 문학예술전반에서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위대한 전환의 새 시대를 펼쳐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심오하게 형상해 냄으로써 수령형상문학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주체14(1925)년 1월 8일 평안북도 박천군에서 출생한 그는 광복후 고원군당에서 당사업을 하였으며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고원빨찌산에서 투쟁하였다. 전후 검덕광산 직맹위원장사업을 하면서 문학수업을 하던 그는 주체47(1958)년에 당시의 작가학원에 입학하였다.

학원을 졸업한후 전문작가로,《문학신문》주필, 4.15문학창작단 작가로 활약하면서 유명한 단편소설《백일홍》으로 단연 두각을 나타냈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도밑에 장편소설인《1932》년을 창작하여 총서《불멸의 력사》창작의 개척자의 한 성원으로 되였다.

그는 지금까지 총서《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빛나는 아침》, 총서《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푸른 하늘》그리고 장편소설《시대의 숨결》등을 창작하였다.

그는 주체71(1982)년에 영예의《**김일성상**》을 수여 받았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백의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6월 16일 그가 쓴 장시《6월의 푸른 하늘아래에서》를 보아 주시고 시가 잘되였다고 높이 평가해 주시였다.

그는 시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35성상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여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적복무의 세계를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그는 또한 이해에 송년시《아름다운 추억의 해 1999년이여》를 창작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도를 받는 영광을 지니였다.

주체34(1945)년 1월 15일 평안북도 피현군 농건리에서 출생한 그는 신의주방직기계공장에서 로동생활을 하면서 문학수업을 하였으며 주체61(1972)년부터 작가동맹 맹원으로, **김일성**종합대학 작가양성반을 졸업한 주체63(1974)년부터 전문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창작한 서정시《산촌의 목소리》(1969년)는 당시 전국군중문학현상모집에서 1등으로 당선되였다.

그는 현재까지 서정시《흰 눈》,《고요한 별》, 시초《멀고도 먼 곳》, 가사《백두산의 2월을 사랑하셨네》를 비롯하여 10여편의 장시, 100여편의 서정시와 가사들을 창작하였다.

장시들인《우리의 공지》(1990년),《하나의 대가정》(1991년)은 사상예술성이 높은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들이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정은옥**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9월 15일 그가 창작한 장시《인민의 어머니》(김은숙과 합작)를 보아 주시고 시가 잘되였다고 높이 평가해 주시였다.

주체52(1963)년 1월 7일 평안남도 문덕군에서 출생하여 온천군 광량만제염소에서의 6년간 로동생활을 한 그는 김형직사범대학 작가양성반을 졸업한 주체80(1991)년부터 작가동맹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비록 창작년한은 많지 못하지만 그는 이 기간에 200여편의 서정시와 가사작품들을 창작해 냈다. 그의 대표적인 서정시들은《12월에 오는 눈》(1994년),《백두밀림은 푸르다》(1996년)등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토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가 창작한 이 시들을 지도해 주시였다.

그는 지난 시기 많은 명가사들을 창작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가 쓴 가사《우리 장단이 좋아》,《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에 대하여 높이 평가해 주시였으며《우리의 래일이 말해 줄거야》에 대하여서도 잘되였다고 치하해 주시였다.

그는 우리 나라의 젊고 재능 있는 녀류시인들중의 한사람이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김은숙**

주체57(1968)년 2월 1일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에서 출생한 그는 당의 배려로 김형직사범대학 어문학부를 졸업한후 조선영화인동맹 중앙위원회 부원으로 사업하다가 주체84(1995)년부터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도유망한 녀류시인들중의 한사람이다. 그의 시편들마다에는 녀성특유의 섬세성과 아릿다운 서정이 깃들어 있어 특징적이다.

그는 이해에 여러편의 시들을 훌륭히 창작하여 내놓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해에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서거 50돐에 드리는 장시《인민의 어머니》(정은옥과 합작)를 보아 주시고 시가 잘되였다고 높이 평가해 주시였으며 서정시들인《좋은 아침이다》,《최고사령부는 전선에 있다》도 지도해 주시였다.

지난 시기에도 그는《밀림의 절경》,《나의 아침이여》,《우리의 날》과 같은 훌륭한 서정시들을 창작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이 밖에도 그는 시초《모란봉 꽃시초》와 가사들인《내 삶의 보금자리》,《장자강의 불빛》,《인민의 요람》,《달력을 번질 때면》등과 같은 우수한 작품들을 내놓았다.

그가 창작한 시와 가사들마다에는 높은 시대정신이 풍만하고도 참신한 서정속에 섬세하게 그려져 사람들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배우 **림영호**

그는 이해에 경희극《동지》에서 소대장역을 훌륭히 수행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드리였다.

지난 5월 7일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경희극《동지》를 보아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가 소대장역을 아주 잘하였다고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그의 연기는 개성이 있다고 치하해 주시였다.

그후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의 연기형상성과를 치하해 주시면서 그는 생긴것도 구분대소대장처럼 패기 있게 생기고 연기에서도 소대장성격을 생동하게 형상하였다고, 진짜 소대장을 보는것 같다고, 그가 연기를 잘한다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 주시였다.

그는 이해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임과 배려로 조선청년의 최고의 영예인《**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 받았다.

그의 연기형상에서 특징적인것은 형상의도를 앞세우지 않고 인물의 성격과 내면심리세계를 가식이 없이 진실하면서도 섬세하게 형상해 내는것이다. 특히 패기가 있고 열정이 있으며 결단성이 강하게 표현되는것이 특징적이라 할수 있다. 그는 화술형상에서도 자기의 특기를 살릴줄 아는 묘기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 주체87(1998)년에도 그는 예술영화《비행사 길영조》에서 대렬기비행사역을 잘 형상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평가를 받았었다.

그의 앞으로의 연기성과가 기대된다.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공훈배우 **최봉식**

젊고 전도유망한 배우로 영화계에 등장한 그는 이해에 다부작예술영화《민족과 운명》최현편에서 주인공 최현의 역을 맡아 훌륭한 연기형상을 창조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치하를 받아 안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다.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간직하고 총대로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길에 한생을 바친 항일혁명투사 최현동지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품위가 있으면서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 준 그의 연기형상은 참으로 인상적이다.

이해에 41살인 그의 배우생활년한은 14년밖에 되지 않지만 이 기간에《철길을 따라 천만리》,《광주는 부른다》,《림꺽정》등 수십편의 영화들에 주단역으로 출연하여 성격적인 인물형상들을 창조하였으며《소속 없는 부대》에서는 주인공역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주체74(1985)년에 평양연극영화대학을 졸업한후 조선인민군 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 배우생활을 하고 있는 그의 첫 출연영화는 예술영화《조선의 별》제7부로서 그는 이 영화에서 량세봉사령의 비서역을 맡아 수행하였다.

선이 굵직굵직할뿐아니라 결패가 있으면서도 웅심 깊은 인물성격창조가 그의 연기형상의 특징의 하나로 된다고 볼수 있다.



조선인민군협주단 안무가 인민배우 **홍정화**

아마 조선사람치고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것이다. 그만큼 그는 어릴 때부터 무용을 잘하여 세계적으로 소문을 냈고 조선을 빛내였다.



평양음악무용대학 교원 공훈배우 오매훈

이해 무대예술부문에서는《공훈배우 오매훈독창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어버이사랑속에서 훌륭한 무용배우로, 안무가로 성장하여 국제국내무대들에서 많은 금메달을 쟁취하고 주체조선의 영예를 떨친 인민배우 홍정화.

그는 이해에 자기가 창작한 작품들을 가지고 독무회에 출연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해 8월에 홍정화동무가 생일 60돐을 맞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계기로 그의 독무회를 조직해 주자고 하시였으며 독무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는 홍정화는 수령님과 우리 당에서 키운 재능 있는 무용배우라고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사실 환갑나이에 무용을 한다는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무용배우인 경우 세계적으로 무대생활을 45살이상하는 사람이 드물며 예술인들의 생일 60돐을 계기로 독창, 독주회는 많았지만 독무회를 진행한적은 없었다.

위대한 령장의 품속에서 혁명의 군복을 입고 예술활동을 하는 홍정화동무만이 지닐수 있는 행운이고 영광이다.

하기에 그는 말한다.《장군님이시야말로 내 운명을 지켜 주고 보살펴 주신 은인이시다》라고.

무용배우로서 그의 특징은 형상에서 재치가 있고 몸은 작지만 동작이 크고 시원스러우며 북춤과 장고춤을 특별히 잘 추는것이다. 안무가로서 그의 작품의 주제는 다양하지만 군인들의 생활을 취급한것이 대부분이다.

《고목재봉춘》이라고 한때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졌던 76살의 그가 독창회에 출연한것이다.

하다면 여기에 어떤 가슴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 있는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것이다.

텔레비죤예술영화《압록강2천리》에서 주인공 오태훈이 어떤 가정환경에서 나서자랐고 외국류학중에 어떻게 되여 광산학이 아니라 성악을 전공하게 되였으며 어떻게 되여 림산사업소로 가게 되였고 시련속에서도 어떻게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변함 없는 량심과 보답의 길을 걸어왔는가를. 또다시 무대에 나서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까지에는 어떤 사연이 깃들어 있는가를.

여기에서 나오는 주인공 오태훈의 원형인물이 바로 오매훈이고 영화의 모든 사실과 사건은 예술적과장이 없는 진실이다. 이렇게 되여 그는 평양음악무용대학의 교원으로 독창회무대에 나서게 되였고《반일애국렬사》의 후손으로 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오늘의 행복한 내 삶이 있다.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 낼수 있다.》 이것이 세상에 대고 웨치는 그의 목소리이다. 하기에 그가 제일 사랑하며 즐겨 부르는 노래는 조선예술영화《보증》에서 나오는《그대밖에 내 몰라라》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해 4월 15일 조선인민군창



조선인민군 창작사
미술가 **류동수**



조선인민군 창작사
미술가 **리경수**



조선인민군 창작사
부단장 공훈예술가 **김순규**

작사 창작가들이 창작한 군복을 입으신 어버이수령님과 장군님의 초상화를 지도해 주시면서 품을 들여 잘 형상하였다고, 새로 형상한 3대장군위인상도 좋다고 높이 평가해 주시였으며 창작가들의 수준이 높은데 대해서도 높이 치하하시였다.

미술가 류동수 그는 대원수복을 입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형상하는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환하게 태양의 미소를 지으신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인자하고 거룩하신 영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끝없는 경모감에 휩싸이게 한다.

그는 이해에 선전화《리수복형의 육탄영웅, 길영조형의 자폭용사가 되자!》와 풍경화들인《철령의 진달래》,《삼일포의 참대숲》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창작하여 내놓았다.

미술가 리경수 그가 핵심이 되여 완성한 원수복을 입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는 백두의 기상과 담력,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고 계시는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우리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훌륭히 반영하고 있다.

그는 서예에도 조예가 있다. 서예《3대장군 만만세》는 국가미술전람회에서 2등으로 당선되여 은메달을 수여 받았다. 그는 이해에 서예《김정숙》도 창작하였다.

조선화창작단 부단장 공훈예술가 김순규 해빛 같은 미소를 지으신 군복을 입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초상화는 그가 핵심이 되여 형상하였다.

초상화에는 수령결사옹위의 위대한 귀감이신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한생이 그대로 어려 있어 사람들을 뜨거운 사색의 세계에로 이끌어간다.

조전화《당은 영예군인들을 언제나 잊지 않습니다》와 《천출명장 백두광명성》은 국가미술전람회들에서 각각 1등상을 수여 받은 그의 작품들이다.

당의 품에 영생하는 창작가, 예술인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일성훈장》수훈자,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백인준

백인준동지의 서거에 대한 부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백인준동지는 불치의 병으로 주체88년 1월 20일 3시에 78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

백인준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문학예술부문의 유능한 일군으로 자라나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사업하였다.

동지는 당의 령도밑에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키던 시기에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와 가극에 옮기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혁명영화《민족의 태양》을 비롯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들을 창작하여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중요한 직책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문학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으며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의장으로서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사업하였다.

백인준동지는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하였다.

백인준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우리 당과 혁명위업에 바친 그의 공로는 길이 남아 있을것이다.

주체88년 1월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저명한 사회정치활동가이며 다재다능한 세계적인 대문호인 그는 주체9(1920)년 10월 27일 평안북도 운산군 영흥리에서 출생하였다.

광복전 평양고등보통학교, 서울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한후 일본 도꾜에서 철학을 공부한 그는 광복후 당, 정권기관, 군대에서 선전사업을 맡아 보면서 시작품들을 창작발표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도를 받으며 시와 가사, 영화문학과 가극대본 등을 창작하였다.

50여년의 창작기간 그는《누리에 붙는 불》,《민족의 태양》제1부와 제5부,《미래를 꽃 피운 사랑》,《사령부를 멀리 떠나서》,《친위전사》,《압록강을 넘나들며》,《해발》,《푸른 소나무》,《려명》,《성장의 길에서》(제1, 2부),《최학신의 일가》,《금강산처녀》,《금희와 은희의 운명》,《돌아 오지 않은 밀사》,《영원한 전우》등 21편의 영화문학과《꽃 파는 처녀》,《당의 참된 딸》,《밀림아 이야기하라》등 가극대본 4편,《최학신의 일가》,《두메산속에 꽃이 피다》등 희곡 5편과《왕이야기》등 수많은 극소품,《**김일성**장군님은 우리의 태양》,《오직 한마음》등 수십편의 명가사들을 내놓았다. 이 기간 그는《인민의 노래》,《소박한 사람들의 목소리》,《벌거벗은 아메리카》,《백인준시선집》등 4권의 시집을 내놓았다. 그가 쓴 시들은 서정시, 담시, 풍자시, 정론시 등 시문학의 모든 종류가 다 포함되여 있다.

처녀작인 시《그대를 불러 우리의 태양이라 노래함은》(1947년)으로 시작되여 운명을 앞두고 창작한 가사《인민은 그 품에 길이 살리라》(1999년)로 마친 작가로서의 그의 창작생활은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 형상과 칭송에 바쳐 졌다.

그는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김정숙동지, 김형직선생님을 형상한 예술영화창작의 개척자의 한사람이다.

또한 그는 우리 나라에서 첫《**김일성상**》수상자(1972.4)의 한사람이며 우리 나라 문학예술계의 첫 로력영웅(1972.12)이기도 하다.

그는 한생에 당중앙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부의장,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중요한 직책에서 사업하면서도 언제나 창작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의 삶은 곧 창작이였다.

그는 한생을 당과 수령께 충성 다해 온 수령의 전사, 국보적인 작품창작으로 주체문학예술건설과 발전에 력력한 자욱을 남긴 다재다능한 대문호였다.

그가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월 21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으며 고인의 령구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여 영생하는 삶을 누리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인민배우 문예봉

문예봉동지의 서거에 대한 부고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인민배우인 문예봉동지는 오랜 병환끝에 주체88년 3월 26일 4시에 82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

문예봉동지는 일제식민지통치와 미제강점하에서 예술적재능을 발휘할수 없었으며 광복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에 안김으로써 영화예술활동을 마음껏 할수 있게 되였다.

동지는 광복후 50여년간 배우생활을 하면서 우리 나라의 첫 예술영화《내 고향》의 녀주인공으로부터 시작하여《빨찌산처녀》,《성장의 길에서》,《춘향전》,《은비녀》를 비롯한 수십편의 예술영화들에 출연하였으며 수많은 신인들을 훌륭한 배우로 키워 냄으로써 주체의 문학예술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동지는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우리 당의 문예정책관철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였다.

문예봉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그의 공로는 길이 남아 있을것이다.

주체88년 3월 26일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조선예술영화촬영소

그는 우리 나라 영화계의 오랜 로배우들중의 한 사람이며 우리 인민이 사랑하던 재능 있는 영화배우였다.

주체6(1917)년 1월 3일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출생한 그는 연극광신자라고도 할수 있는 아버지 문수일을 따라 다니는 과정에 16살에 처음 그것도 남자차림으로 무대에 나선것이 계기가 되여 연극배우생활을 시작하였다.

그후 라운규에 의해 영화에로 방향전환을 한 그는 처음 무성영화《임자 없는 나루배》에 출연한데 이어 우리 나라에서의 첫 발성영화인《춘향전》(1935년),《무지개》,《아리랑고개》,《수업료》,《장화홍련전》,《나그네》등 십여편의 영화들에서 사람들의 인기를 모았다.

그는 일본《천황》을 찬양하며 일제의 태평양전쟁을 찬미하는 영화에 출연할데 대한 일본반동들의 요구를 배격하여 주체33(1944)년에《조선일보》에 은퇴성명을 낸후 영화계에서 스스로 물러 났다.

광복후 남조선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찾아 공화국북반부로 들어 온 그는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지도와 사랑을 받으며 공화국의 첫 예술영화인《내 고향》에서 녀주인공 옥단이의 역형상을 수행하였다.

진정한 조국의품에 안겨 영화계에 다시 등장한 그는《용광로》,《소년빨찌산》,《정찰병》,《빨찌산처녀》,《신혼부부》,《춘향전》(1958년),《금강산처녀》,《다시 찾은 이름》,《침략선〈셔먼호〉》,《성장의 길에서》,《춘향전》(1979년),《우리 웃집 문제》,《푸른 소나무》,《봄날의 눈석이》,《은비녀》등 수십편의 예술영화들에 출연하여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는 재능 있고 관록 있는 명배우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였다.

그가 창조한 역인물형상에서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지성도가 매우 높은것이다.

처녀로부터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그가 형상한 모든 인물들은 주로 조선녀성답게 유순하면서도 강의하고 교양이 있는것으로 특징지어 진다.

그의 마지막출연작품은 예술영화《먼 후날의 나의 모습》(1997년)이다.

명배우로서의 그의 한생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꽃 펴났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를 만나주시고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안겨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때 영화계를 떠났던 그를 다시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배우(1978년)로 불러주시여 영화배우로서의 그의 한생을 빛나게 장식해 주시였다.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생일 80돐을 맞는 그에게 생일상까지 보내주시고 그가 앓고 있을 때에는 병상태를 거듭 알아 보시고 필요한 대책을 다 취해 주시였을뿐아니라 그가 사망했을 때에는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을 보내주시고 령구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는 등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연출가《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인민예술가 김영호

김영호동지의 서거에 대한 부고



《김일성상》계관인이며 로력영웅, 인민예술가인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연출가 김영호동지는 오랜 병환끝에 주체88년 5월 19일 67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은혜로운 당의 품속에서 인민의 사랑을 받는 재능 있는 영화연출가로 자라 나 지난 30여년간 우리 나라 영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동지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훌륭히 구현하여《인민상》계관작품들인 예술영화《꽃 피는 마을》,《이 세상 끝까지》와 다부작예술영화《민족과 운명》의 로동계급편을 비롯한 30여편의 작품들을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주체적인 영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동지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였다.

김영호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우리 나라 영화예술발전에 크게 기여 한 그의 공로는 길이 남아 있을것이다.

주체88년 5월 19일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조선예술영화촬영소

그는 우리 나라의 재능 있고 관록 있는 영화연출가였다.

주체21(1932)년 2월 20일 평안북도 피현군 피현읍에서 출생한 그는 주체51(1962)년에 평양연극영화대학을 졸업한 이후부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연출가로, 연출실장으로 영화창조사업에 한생을 바치였다.

《인민을 위한 숨은 투쟁》(1969년)은 그가 연출한

첫 예술영화이다.

그후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꽃 피는 마을》(1970년)을 농촌혁명화의 본보기적인 작품으로 완성한데 이어《두 유가족에 대한 이야기》(1974년),《이 세상 끝까지》(1977년),《불 타는 마음》(1983년),《개척자들》(제1, 2부 1984년),《평범한 사람》(1985년),《보증》(제1, 2부 1987년),《나의 행복》(1988년),《화성의숙에서의 한해 여름》(제1, 2부 1997년) 등 수많은 영화들을 사상예술성이 높은 우수한 작품들로 창작하여 내놓았다. 이 과정은 연출가로서의 그의 재능을 충분히 보여 준 시기로서 연출가로서의 그의 지위는 점차 확고한것으로 되였다.

특히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도밑에 세계적인 걸작으로 완성되고 있는 다부작예술영화《민족과 운명》창조사업에서 자기의 연출적솜씨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그리하여 이 영화의 제1~4부와 로동계급편 제1~8부를 조선영화의 얼굴로 완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당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로 인민예술가(1987년), 로력영웅칭호(1997년)를 수여 받았으며《김일성상》계관인(1992년)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영호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시여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고 령구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였다.

만수대창작사 부사장,《김일성상》계관인
2중로력영웅 인민예술가 정영만

정영만동지의 서거에 대한 부고



《김일성상》계관인이며 2중로력영웅이며 인민예술가이며 조선미술가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인 만수대창작사 부사장 정영만동지는 불치의 병으로 주체88년 6월 17일 16시 50분에 61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품속에서 재능 있는 미술가로, 유능한 창작지도일군으로 자라난 정영만동지는 오랜 기간 당의 문예방침을 높이 받들고 주체미술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사업하였다.

동지는 당의 령도밑에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키던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상을 미술작품들에 형상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조선화를 기본으로 하여 우리 미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하였다.

동지는 조선화《강선의 저녁노을》,《백두산천지의 붉은 노을》을 비롯한 수많은 명작들을 창작하여 조선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주체미술의 화원을 더욱 풍만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동지는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는 미술가로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도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하였다.

정영만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우리 당과 혁명위업에 바친 그의 공로는 길이 남아 있을것이다.

주체88년 6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성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주체27(1938)년 12월 5일 강원도 원산시에서 출생한 그는 주체51(1962)년 평양미술대학 조선화학부를 졸업한 이후부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미술가로, 미술창작지도일군으로 활동하면서 주체미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유능한 미술인재였다.

그의 창작생활은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형상창조와 밀접히 결부되여 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할 당시 조선화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형상하는것은 교원들조차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던 일이였다. 그러나 그는 그때 벌써 조선화《보통강개수공사장에서 첫삽을 뜨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졸업작품으로 내놓아 미술계의 이목을 끌었다. 대학졸업후 현역미술가로서의 첫 작품 역시 조선화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형상

한《대안전기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63년 합작)이다.

이외에도 그는《재진격하는 부대들의 환호에 답례하시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1978년),《삼지연의 새벽길》(합작 1973년),《백두산천지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합작 1975년)를 비롯하여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과 혁명적가정을 형상한 120여상의 국보적인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는 풍경화와 일반주제화창작에서도 남 다른 특기를 지니고 있었다.

그가 창작한《금강산》(1965년)은 제8차 국가미술전람회에 입선하여 국가소장품으로 되였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신 조선화《강선의 저녁노을》(1973년)은 심오한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미술계에 대파문을 일으킨 걸작품으로서 국내는 물론 대외전람회에서도 금메달을 수여 받았다. 또한 조선화《백두산천지의 붉은 노을》과《백두산의 해돋이》(합작 1998년에 새로 창작)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신 그의 풍경화대표작의 하나이다.

그는 조선화들인《국제평화대행진》(합작 1989년)《불사조》(1966년) 등 수많은 일반주제화도 국보적가치가 있게 창작해 내놓았다.

근 40년의 창작생활기간 그는 250여점(국보)에 달하는 일반주제화와 풍경화 그리고 1,000여점에 달하는 풍경소품들을 창작하였다.

그는 조선미술가동맹중앙위원회 집행위원(1966년),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단 실장(1978년), 만수대창작사 창작부사장(1989년), 조선미술가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1990년)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국제조형예술협회 민족미술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였다.

그는 작품창작과 주체미술발전에서 이룩한 공적으로 인민예술가칭호(1979년),《김일성상》(1989년), 로력영웅칭호(1991년), 2중로력영웅칭호(1997년)를 수여 받았다.

1900년대 후반기 우리 나라 미술계의 권위자, 세계적인 미술가로서의 그의 한생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사랑속에서 가꾸어 지고 꽃 피여 났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작품창작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며 걸음걸음 이끌어 주시였을뿐아니라 그의 건강에도 각별한 관심을 돌려 주시였다.

그리고 그가 사망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고 령구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배려해 주시였을뿐아니라 그는 당에 충실하고 재능 있는 미술가였다고, 참으로 아까운 사람을 잃었다고 애석해 하시며 조선화창작분야에서는 그를 따를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가 창작한 작품들가운데는 우리 나라 미술사에 남을 훌륭한 작품들이 많다고 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해 주시였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의 유가족들이 삼가 올린 편지도 보아 주시고《**정영만동지는 우리 당이 제일 아끼던 예술가였습니다**》라는 사랑의 친필회답서한까지 보내주시였다.

조선영화문학창작사 작가《김일성상》계관인 **전동우**



한생에 수백편의 시와 가사를 남긴 그는 우리 나라의 재능 있는 작가였다. 특히 그는 가사창작에서 특출한 재능을 보여 준 재사였다.

주체20(1931)년 4월 20일 함경남도 금야군 룡당리에서 출생한 그는 주체38(1949)년에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였으나 1년만에 조국해방전쟁이 일어 나자 펜을 총으로 바꾸어 잡고 조국보위성전에 나섰다. 그후 당의 조치로 다시 대학에 돌아 온 그는 문학수업에 전념하였다. 이 시기 그가 쓴 서정시《살구나무》(1953년)는 잡지《우리 조국》에 발표되였다.

주체43(1954)년 대학을 졸업한 그는 조선작가동맹작가로, **김일성**종합대학 교원으로, 조선영화문학창작사 작가로 있으면서 본격적인 시, 가사창작을 시작하였다.

서정시《당비》는 시인으로서의 그의 재능의 싹을 보여 준 초기작품의 하나이다. 이밖에도 그는《불빛》,《봄밤》,《행복에 대한 생각》,《압록강기슭에서》,《우리 어머니》,《박달나무》등의 서정시들과 시초《여기에 길이 있다》를 비롯한 많은 시들을 내놓았다.

그의 재능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도를 받으며 영화노래의 가사들을 창작하면서부터 폭발적으로 분출되였다.《수령님 바라시는 오직 한길에》,《류벌공의 이 영에 끝이 없어라》,《나는 알았네》,《누가 나에게 가르쳤던가》,《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구름 너머 그리운 장군별님께》,《기쁨의 노래 안고 돌아 가리라》,《수차야 돌아라》등 그가 창작한 영화노래의 가사들은 짙은 서정속에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것이 특징이다.

그는 생활적인 노래와 정책가요, 정론적인 가요들의 가사창작에서도 자기의 특기를 남김없이 보여 주었다.

그 대표작의 하나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듭되는 평가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이다. 이밖에도《밤하늘에 내리는 눈송이야》,《추억》,《매혹》,《청춘》,《푸른 버드나무》,《나를 부르는 소리》등 수많은 명가사들을 써냈다.

개인시집으로는《청춘》(1961년)이 있으며 집필한 교재로서는《서정시창작수업》이 있다.

그는《북은 내가 치겠소》의 영화문학도 썼다.

주체75(1986)년에 그는《**김일성상**》을 수여 받았다.

그는 주체88(1999)년 10월 9일 68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우리의 곁을 떠나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동우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시여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주시였으며 령구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조선인민군 4.25예술영화촬영소 인민배우 **전재연**



그는 20세기 영화예술력사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남긴 명배우들중의 한 사람이였다.

주체24(1935)년 4월 8일 강원도 안변군의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한 그는 전후 군사복무를 하였다.

주체49(1960)년에 평양연극영화대학에 입학하여 전문적인 배우수업을 받은 그는 졸업후 40년간 조선인민군 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 배우생활을 하였다.

예술영화《적구도시에서》(1966년)에 적 특무대장교로 출연하여 인상 깊은 연기형상으로 자기의 첫 얼굴을 보인 그는 그후《작전문건》(1969년),《빛나는 별들》(1971년) 등 군사정탐물영화들에서 주로 적 특무대, 정보장교역을 맡아 수행하였다.

그후《잊을수 없는 사람》(1976년)의 주인공 불새,《누리에 붙는 불》(1977년)에서 변절자 최진팔역《혈육》(전, 후편. 1979년)의 주인공 준도,《초행길》(1980년)의 산업부국장역,《인민상》계관작품인《려단장의 옛 상관》(1984년)의 주인공 현철 등 많은 영화들에서 관록 있는 연기형상을 창조하여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명배우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다.

그가 창조한 다부작예술영화《민족과 운명》에서 최현덕의 아버지 최정로역 역시 그의 세련된 연기형상수준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다부작예술영화《민족과 운명》최현편에서 나오는 설란이의 아버지역은 그가 창조한 마지막역형상이다. 그는 불치의 병에 걸린 상태에서도 순결한 량심으로 맡은 역형상을 책임적으로 훌륭히 창조하여 영화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주체영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으로 그는 주체73(1984)년에 인민배우칭호를 수여 받았다.

그는 주체88(1999)년 9월 18일 불치의 병으로 64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재연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여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국립연극단 공훈배우 **김중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8(1999)년 6월 15일 재능 있는 연극배우였던 국립연극단 공훈배우 김중신동무가 사망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의 장례를 기관장으로 하고 유가족들에게 사회주의애국희생증을 수여하도록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였다.

주체23(1934)년 5월 28일 평범한 가정에서 출생한 그는 의무교육과정을 마친후 동평양자동차수리공장등에서 로동생활을 하였다.

독특한 소리색갈과 능란한 화술을 지닌것으로 하여 주체49(1960)년부터 주체56(1967)년까지 철도방송위원회,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서 방송원으로 활동하던 그는 당의 배려로 자기의 희망에 따라 국립연극단 배우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는 혁명연극들인《성황당》에서 중,《혈분만국회》에서 미국선교사 쇼트,《딸에게서 온 편지》에서 소경, 그리고 새로 재형상한 연극《승냥이》에서 스티븐슨역 등 다양한 역을 맡아 훌륭히 형상하였다.

또한 그는 예술영화들인《조선의 별》제7부에서 황참모,《민족의 태양》제2부에서 종파사대주의자인 김상도,《화성의숙에서의 한해 여름》에서 일제의 간첩 마필천역을 개성적으로 특색이 있게 훌륭히 형상하여 사람들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재능 있는 연극배우였던 그는 주체88(1999)년 6월 13일 65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우리곁을 떠났다.

주체88(1999)년 문학, 예술학 학위수여자들

△박사학위

— 리대철: 평양연극영화대학 학부장
론문제목: **《희극창작리론》**

론문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지도밑에 창작된 풍자극들과 경희극들을 비롯한 다양한 희극예술작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주체의 희극창작리론의 정당성을 전면적으로 해설론증하였다.

— 김혜숙: 평양연극영화대학 연구소 실장
론문제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과학, 아동영화령도사》**

론문은 크게 4개 장으로 되여 있다.

1장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과학, 아동영화분야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조직령도하신 내용, 2장과 3장에서는 과학, 아동영화창작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며 대전성기를 펼치기 위한 사업을 조직령도하신 내용, 4장에서는 과학, 아동영화를 세계적인 본보기로 발전시키며 그 보급과 대외진출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령도하신 내용이 서술되였다.

론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954—1989년 사이에 진행하신 과학, 아동영화에 대한 령도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 하경호: 조선인민군창작사 평론가
론문제목: **《조선화화론》**

론문은 크게 6개의 체계로 구성되여 있다.

1. 조선화화론은 우리의 국화론
2. 조선화는 우리 인민의 오랜 력사와 감정을 반영한 우월한 민족회화형식
3. 집중력과 함축은 조선화화법의 기본조형원리
4. 조선화의 형상적언어조직은 묘사방식의 기초
5. 화면구성과 구도는 기본형상체계
6. 조선화화법에 정통하여야 한다.

△학사학위

—조웅철: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연구사
론문제목: **《다부작예술영화〈민족과 운명〉중에서 리정모편의 영화문학에 대한 연구》**

론문에서는 다부작예술영화《민족과 운명》의 련속편들중의 하나인 리정모편의 영화문학창작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분석론증하였다.

—박건천: 김형직사범대학 연구원
론문제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연극혁명후 개화발전한 전투적인 형식의 극문학작품에 대한 연구》**

론문은 연극혁명이후 전투적인 형식의 극문학발전과정을 연구분석하고 체계화함으로써《성황당》식 혁명연극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본보기로 연극예술발전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 오도록 하시였으며 극문학발전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령도업적을 론증하고 있다.

—김국환: 신의주교원대학 교원
론문제목: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작된 전시가사문학에 대한 연구》**

론문은 이미 널리 알려 진 전시가사들과 함께 새로 수집발굴한 전시가사 200여편을 통하여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전시가사문학의 발전정형과 거대한 사상예술적성과들을 분석일반화하고 있다.

—리종혁: 선천교원대학 상급교원
론문제목: **《실화소설의 특성과 미학적요구에 대한 연구》**

론문은 실화소설의 특성과 실화소설창작에서 제기되는 미학실천적문제들을 주체적문예사상에 기초하여 과학리론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김화심: 평양외국어대학 강좌장
론문제목: **《공산주의미풍주제의 단편실화문학연구》**

론문은 단편실화문학의 개념과 그 특성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 와 공산주의미풍주제의 실화문학작품들이 왕성하게 창작되게 된 중요요인과 이 주제의 실화문학작품의 사상미학적특성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손일훈: 차광수신의주제1사범대학 교원
론문제목: **《벽소설특성연구》**

론문은 주체적문예사상과 문예리론에 기초하여 이여의 소설형식과 다른 벽소설의 내용상 특성과 형식상 특성연구에 주되는 힘을 넣었다. 론문에서는 벽소설의 내용상 요소들인 인간문제와 생활소재, 성격형상의 일반적특성과 형식상요소들인 인간관계와 이야기줄거리조직의 특성, 그리고 양상과 묘사문체적특성을 장중편과 단편소설형식과의 부단한 대비속에서 서술하였다.

—김용철: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연구사
론문제목: **《목은 리색의 시문학 연구》**

론문은 아직 연구가 심화되지 못한 리색의 문학유산들을 발굴정리하고 그의 창작경향과 그 특성을 연구분석함으로써 고려의 시문학의 력사를 자료적으로 풍부히 하는데 의의가 있다.

—황명실: 김형직사범대학 학생
론문제목: **《고대중세시기 평양지방에서 창작된 설화문학연구》**

론문은 우리 나라 문화유산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평양지방의 설화문학에 관한 연구를 통해 평양지방에서 창작된 설화문학이 우리 나라 설화문학의 발생발전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해명하고 있다.

—김일수: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연구사
론문제목: **《다부작예술영화〈민족과 운명〉의 영화문학 허정순편에 대한 연구》**

론문은 다부작예술영화《민족과 운명》의 련속편의 하나인 허정순편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민족의 운명문제에 관한 우리 당의 사상리론을 전면적으로 폭 넓게 해설하고 있다.

—김병수: 선천교원대학 교원
론문제목: **《1970—1980년대에 창작된 현실주제동화에 대한 연구》**

론문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1970—1980년대에 새롭게 발전한 현실주제동화를 단편작품을 기본으로 분석일반화함으로써 현실주제동화의 혁신적면모를 밝히고 주체적인 동화문학창조발전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확증하고 있다.

—리주정: 김형직사범대학 교원
론문제목: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 등장인물의 형상과제에 대한 연구》**

론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혀 주신 등장인물의 형상과제에 대한 사상리론을 실천적견지에서 서술함으로써 그 진리성, 과학성을 론증하였다.

—김철만: 평양연극영화대학 교원
론문제목: **《우리 식 인형극창작에 대한 연구》**

론문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이 철저히 구현된 우리 식의 독특한 인형극창작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론문은 크게 3가지 체계로 구성되여 있다.

1. 인형극과 그 특성
2. 인형극창작원칙
3. 인형극형상창조

—오영철: 평양연극영화대학 교원
론문제목: **《예술단체참모부사업에 관한 주체적문예리론》**

론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혀 주신 예술단체 참모부사업에 관한 리론과 방법들을 깊이 있게 해설론증하고 있다.

—김명실: 평양연극영화대학 부원
론문제목: **《영화문학분석연구》**

론문은 영화문학에 대한 분석방법과 방도들을 례증의 방법으로 서술하고 있다.

론문은 5가지 체계로 구성되여 있다.

제1장 영화문학분석의 일반적원칙과 방법
제2장 영화문학의 종자, 주제, 사상 및 성격분석
제3장 영화문학의 구성에 대한 분석
제4장 영화문학의 갈등과 양상에 대한 분석
제5장 영화문학의 대사와 지문에 대한 분석

—조봉천: 평양연극영화대학 교원
론문제목: **《배우의 교제, 교감》**

론문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배우예술에 관한 사상리론에 철저히 기초하여 교제, 교감에 관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분석일반화하고 있다.

—최상운: 평양연극영화대학 상급교원
론문제목: **《연극개론》**

론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연극예술에 대하여》**에 기초하여 연극예술에 대한 리해를 더욱 깊이 주며 연극창작과 창조에서 제기되는 원리적인 문제들과 개념들을 밝히고 있다.

—안승천: 평양연극영화대학 교원
론문제목:《가극연출형상분석》

론문은 크게 6개 장으로 구성되여 있다.
제1장 가극연출형상분석의 특성과 일반적원칙
제2장 연출의도에 대한 분석
제3장 연출가의 가극구성조직에 대한 분석
제4장 연출가의 인물성격형상에 대한 분석
제5장 연출가의 무용형상과 무대미술형상에 대한 분석
제6장 연출가의 장면형상과 작품의 양상적통일에 대한 분석

—진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기자
론문제목:《예술사진창작에서 실재성구현문제 연구》

론문은 예술사진창작에서 형상의 실재성에 대한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연구분석하고 있다.
론문의 구성체계는 다음과 같다.

1.실재성은 사진예술의 고유한 형상적특성
 1)사진예술의 실재성에 대한 주체적리해
 2)외곡된 사진자료들에 대한 새로운 평가
2.예술사진의 실재성구현에 리용되는 수단들
 1)사진구도작업과 사진의 실재성
 2)순간포착과 사진의 실재성
 3)광화학적수단과 사진의 실재성
3.예술사진의 제 형태에 따르는 실재성구현 방도
 1)생활사진에서 실재성구현 방도
 2)초상사진에서 실재성구현 방도
 3)풍경사진에서 실재성구현 방도
 4)정물사진에서 실재성구현 방도

—허영송: 사회안전성협주단 지휘실장
론문제목:《합창지휘》

론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주체적인 지휘리론가운데서 합창지휘에 관한 리론을 전면적으로 종합체계화하고 있다.

—김승연: 평양음악무용대학 교원
론문제목:《대중가요가수의 발성과 노래형상지도》

론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을 옹호고수하며 예술부문의 대중가요가수들과 각급 예술학교 대중가요학과 학생들의 전공실기교육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대중가요가수발성과 창법에서 나서는 제반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해설론증하고 있다.

—김명식: 해주제2사범대학 교원
론문제목:《서정가요의 사상예술적특성》

론문의 구성체계는 다음과 같다.
머리글
제1장 서정가요의 개념과 혁명적서정가요의 발생발전
 제1절 서정가요의 개념
 제2절 혁명적서정가요의 발생발전
제2장 서정가요의 사상정서적특성
 제1절 서정가요의 주제사상적특성
 제2절 서정가요의 정서적특성
제3장 서정가요의 선률적특성
 제1절 민족성과 현대성의 구현
 제2절 통속성과 예술성의 구현
맺는 말

—장련희: 김형직사범대학 박사원생
론문제목:《주체음악의 인민적형식에 관한 연구》

론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음악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이며 원리적인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명하여 주시고 그것을 음악창작과 창조활동에 구현하시여 우리 음악을 력사상 가장 참다운 인민적음악으로 발전풍부화시키신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장명숙: 평양교원대학 강좌장
론문제목:《우리 나라 유치원무용과 그 특성에 대한 연구》

론문은 1장에서 우리 나라 유치원무용의 본질적특성과 그 교양적기능에 대하여, 2장에서는 어린이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의 기초를 마련해 주기 위한 주제사상적내용을, 3장에서는 모방적이고 표현적인 춤동작과 단순한 대형, 직선을 위주로 한 춤도구의 특성을 성인무용과의 대비속에서 구체적으로 밝혔다. 4장에서는 우리 시대에 새롭게 창조되고 일반화되고 있는 유치원무용의 종류와 그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론문에서는 내용서술의 필요한 부문들에서 유치원 춤동작을 표기한 무용보를 제시하고 대표적인 유치원무용들을 총보화하여 부록으로 달아 주고 있다.

—김 향: 피바다가극단 창작가
론문제목:《기악독주곡집》

론문의 구성체계는 다음과 같다.
1.민족기악독주곡편
2.양악기악독주곡편
3.양악기악독주곡편

—김시택: 평양미술대학 강좌장
론문제목:《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의한 영화 및 무대미술발전》

론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화 및 무대미술발전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그 위대한 생활력에 대해 서술하였다.

—심봉화: 만수대창작사 조선보석화단 단장
론문제목:《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조선보석화 창작리론》

론문은 오늘 미술분야에서 조선보석화창작이 빠른 속도로 일반화되여 가고 있는 현실적조건에서 창작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체계화하여 서술하였다.
론문은 제1장부문에서 조선보석화에 대한 개념과 형상적특성에 대하여, 제2장부문에서는 조선보석화창작의 형상과정을 주고 제3장에서는 조선보석화형상방법을 서술하였다.

—성광익: 평양미술대학 교원
론문제목:《조선화색채》

론문은 조선화색채의 발전에 대한 고찰과 조선화색채의 특성, 본색위주의 색채형상에서 제기되는 리론적문제들, 조선화화법, 체계와 색채에 대한 문제를 원리적으로 서술하였다.

—김옥성: 평양미술대학 교원
론문제목:《인물형상과 모델》

론문은 불후의 고전적로작 《미술론》에서 제시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에 기초하여 모델에 대한 새로운 리해와 함께 그것을 창작실천에 구현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리론적, 실천적문제들을 서술하였다.

—오광섭: 평양미술대학 강좌장
론문제목:《주체서예에 관한 연구》

론문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주체적서예리론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주체서예의 시원과 전통, 전면적개화발전에 대한 력사적고찰과 함께 서예의 기초리론들과 우리 나라 서예의 근본으로 되는 서법과 서체들에 대한 전면적분석을 통하여 서예의 형상원리들과 다양한 종류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김혜란: 평양미술대학 학생
론문제목:《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현대 조선수예발전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관한 연구》

론문은 현대 조선수예발전에 쌓아 올리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이미 발굴된 혁명사적과 함께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잘 알려 지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들로 해설론증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해에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연구사 하천홍, 김윤송, 최영, 평양외국어대학 교원 배현숙, 강계천리길대학 송용선, 북청사범대학 교원 배영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방송편집원 황장영, 예술교육출판사 편집원 김경해, 평양음악무용대학 강좌장 지영조, 남포교원대학 교원 리경로, 청진2사범대학 부학부장 김명호, 교원 림형남, 평양음악무용대학 연구원 김명희, 예술학원 교원 정중철, 한경옥, 김형직사범대학 연구원 김경선, 평양미술대학 교원 리정조 등 많은 문학, 예술학학사학위수여자들이 배출되였다.

군중문학예술

주체88(1999)년에 창작된 군중문학작품 주요목록

소 설

단편소설

제 목	작가	출판된 출처
향기	현성하	조선문학 주체88년 제5호
륜리	리준호	〃 제6호
귀향	현성하	〃 제12호
함께 가는 사람들	리명순	청년문학 주체88년 제1호
어제와 오늘	조권일	〃 제2호
고향길	허 웅	〃 제3호
이어 가는 길	김하명	〃 제4호
유격대행진곡	강태정	〃 제6호
산국화	김귀선	〃
어머니의 편지	김해일	〃
군복	류원규	〃 제7호
소금밭	김영길	〃
전쟁이 끝날무렵에 (추리소설)	리금철	〃 제8호
사랑은 연분이 아니다	송영금	〃 제9호
교원	박영진	〃
나의 거울	황병필	〃 제11호
백양이	강 수	〃
첫돌기	차수봉	〃
우리가 가는 길	김철혁	〃 제12호

단편소설

제 목	작가	출판된 출처
당세포비서의 모습	리영근	문학신문 주체88년 제4호
《옛친구》의 모습	김치권	〃 제11호
단오날	김양영	〃 제26호
두 할아버지	권령선 (총련)	〃 제31호
천리마기수휘장(벽소설)	류원규	〃 제32호
나의 누나	백남호	〃 제33호
좋은 밤(벽소설)	민운기	〃 제34호
십메터	김영림	〃 제37호
뜨거운 별	김철혁	〃 제40호
《리수복-길영조!》 (벽소설)	리영식	〃 제23호

실화문학

제 목	작가	출판된 출처
그가 부른 노래 (단편실화소설)	송출언	청년문학 주체88년 제2호
설한령	구정건	〃 제3호
《파발리사람》	유종원	〃 제5호
승리의 출발선	송영금	〃 제12호

시, 가사

시초

제 목	작가	출판된 출처
군인가정의 가풍	한채경	청년문학 주체88년 제1호
그 별빛에 마음 이끌려		
시내가 빨래터에서		
제일근위병의 안해		
비상소집의 밤에		
생활소묘		
군인가정의 가풍		
꽃 피는 원료기지의 노래	림미숙	〃 제5호
여기가 내 일터이다		
장군님을 기다려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꽃목걸이		
끝나지 않는 메아리	리찬호	〃 제6호
질러 오신 길		
통나무의자		
전사의 즉흥시		
부루쌈에 깃든 이야기		
샘줄기		
영원한 순간		
나는 여기서 자랐다	전수철	〃 제7호
파견장		
아침검사		
나는 미장공이다		
집터를 닦으며		
첫 훈장		
우정		
나는 여기서 자랐다		
나는 온성에서 자랐다	박유철	〃 제8호
나는 온성에서 자랐다		
렬차에서		
삶의 길앞에		
두만강기슭에서		
유 물		
곧은 길에 대한 생각		

시초

제 목	작가	출판된 출처
우리는 시로 말하며 산다 (련시)	모원혁 김성희	청년문학 주체88년 제10호
우리는 시로 말하며 산다		
남편과 안해의 담화		
봄날의 따스한 거리에서		
미인이 되라고		
장기판		
나도 싸울수 있다		
총번호 4048을 나에게!		
나는 이 밤도 시를 쓴다		
푸른 가을	오인철	〃 제10호
푸른 가을		
쉴참의 한때		
무지개		
말다툼 마시라!		
푸른 계절은 가지 않네		
시련과 녀인	렴형미	〃 제11호
땅이여!		
떨리는 손		
겨울		
나는 왜 사회주의를 지키는가		
시련과 녀인		
당원증은 보이지 않아도 (시초)	리해성	문학신문 주체88년 제47호
나의 당세포		
충고		
당생활수첩을 펼쳐 놓고		
내물속의 차돌		
당원증은 보이지 않아도		

서정시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그 봄날에 가꾸신 백리향은	방종욱	청년문학 주체88년 제1호
위대한 스승의 모습	김순학	〃
영생의 언덕에 서서	〃	〃
가자 병사의 《이동병영》아	강승혁	〃
청춘의 보람	량송호	〃
조국과 나	〃	〃
우리의 길	황규희	〃
날벼락을 떨구라!	서춘일	〃
《감사합니다》	윤 희	〃 제2호
상 봉	김한대	〃
먼 후날 그때에 가서도	김 연	〃
여기가 대홍단이다	김은하	〃
선원들이 걷는 길	최명철	〃
놓치지 않으리	김명길	〃
목도채앞에서	김경석	〃 제3호
저 하늘에 빛나는 별이여	황응수	〃
문수봉	권련주	〃
시내물이 불을 주네	계영남	〃
우리의 유산	리성애	〃
나의 고등중학시절	김청송	〃
영웅고지	김정혁	〃
이 땅에 슴배인것은	김대성	〃
경보신호	리학문	〃
아픔이 시작된 점에서	리진협	〃
력사강의시간에	김광민	〃
해적의 후예들(풍자시)	리영복	〃
백두산과 더불어 영원하리	리영남	〃 제4호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박영실	〃
영광이 있으라	김연화	〃
만대에 길이 빛날 력사의 길이여	림선영	〃
경적소리	박시철	〃
병사들과 종소리	최길호	〃
이 땅의 흙 한줌이	장만식	〃
조국의 하늘가에	한정현	〃
건국의 첫삽이여	김성웅	〃 제5호
내 고향의 새봄	백용원	〃
바꾸지 않으리라 병사의 성격을	허 일	〃
푸른 군복 누런 논벌	강승계	〃
나는 책이 되고 싶어라	림정학	〃
건설장의 봄	박만재	〃

서정시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병원문을 나서며	리진묵	청년문학 주체88년 제5호
청수동의 새벽	함영근	〃 제6호
이날을 경축하자	주명옥	〃
영원한 불길	리영철	〃
땅에 비낀 나의 모습	박기남	〃
알아 다오 신천이여!	량성국	〃
내 고향의 출렁다리	우광복	〃
피 묻은 못 하나	윤광민	〃
전주대는 오늘도 운다	김성호	〃
영광의 기념사진 우러를 때면	김성웅	〃 제7호
삶에 대한 생각	림홍룡	〃
빛나는 삶이여	김철혁	〃
다음 교대를 위하여(벽시)	김학철	〃
나는 사회주의의 《성돌》을 캔다	리광용	〃
신천의 단풍	김경란	〃
그 울음 달래여 주시리	전선희	〃 제8호
홰 불	김태룡	〃
7련대의 우등불	리영남	〃
내 한생 바쁜 걸음으로	남순복	〃
아버지	정일향	〃
아버지의 훈장	김현희	〃
분계연선마을	오인철	〃
전사의 자리	조혁철	〃
노 끈	전순애	〃
옛 갱구앞에서	권미순	〃
보리고개	한승길	〃
눈물에 대한 생각	김이준	〃 제9호
평화로운 나날들은 어떻게 흘러 가는가	라성국	〃
공화국기발이여	림홍룡	〃
장하다 청년돌격대	박권철	〃
박사메달	김증수	〃
기관사의 안해	량히성	〃
마당은 왜 넓어 지는가	오영환 (총련)	〃
달리는 빠스에 노래가 있었네	〃	〃
농민들은 살아 있네	박종일 (총련)	〃
내 조국의 시간	최명철	〃
인 사	김정길	〃

서정시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출장세대주	하영희	청년문학 주체88년 제9호
최전연의 병사가 되리	김옥숙	〃
할아버지의 군공메달	김은경	〃
논머리의 점심참에	김창호	〃
모교에 남기는 말	김경철	〃
률동체조 흥겨웁소	오영춘	〃
자동차병은 오늘도 철령을 넘는다	장은하	〃 제10호
대동강반에서	김정임	〃
어머니에게	서경미	〃
나는 그려 보네	신 혁	〃
낚시군의 경고	김성웅	〃
얼굴을 들어야지	한춘희	〃
흰 두루미들 날아 온다	리태선	〃 제11호
어머니에게	장은하	〃
《병사시인》	차은남	〃
당 부	량송호	〃
너를 멀리 떠나 있다 해도	〃	〃
전사의 마음	리윤철	〃
백여리길	김성웅	〃
우리 집엔 세개의 배낭이 있다	전수철	〃
가을소문	유경철	〃
즐거운 저녁	리종원	〃
푸른 시내가에서	라성국	〃
머리말	서영희	〃
나의 인사를 받아 다오	최영철	〃
전승기념일날에	리일주	〃
고향집문턱	윤광민	〃
이것이 청춘의 멋이다	〃	〃
백두산정에서	김하윤	〃 제12호
붉은기와 나의 청춘	전윤해	〃
구보의 한해	전수철	〃
어머님의 축복	차은남	〃
조국의 첫날밤	허창길	문학신문 주체88년 제1호
세월이 다하도록 영원히	조 윤	〃
위대한 나의 조국	조석영	〃 제2호
우리는 기발을 내리지 않는다	라성국	〃 제3호
수령님 오늘도 용해장에 계시기에	허창길	〃
용선로여!	황응수	〃 제6호

서정시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승리산의 메아리	안윤식	문학신문 주체88년 제6호
믿는다	강남섭	〃
영원한 행복동아	김진묵	〃 제8호
우리네 당비서	림미숙	〃
장하다 군복 입은 내 아들아	김순학	〃
내 삶의 영원한 품이여	리찬호	〃
선거자명부앞에서	허 일	〃 제9호
《만악관》(풍자시)	리영복	〃
초물모자	김 택	〃 제11호
벌로 가자 들로 가자	리영복	〃 제12호
전선길에 새겨 진 사랑의 전설	김경석	〃 제13호
땅에 주는 마음	윤기찬	〃
대덕산	박원종	〃
나무람 마십시오	림미숙	〃
긍지높이 나는 산다	장영남	〃
끝없이 이어 지는 그 길우에	김영홍	〃 제17호
빛나라 령장의 원수별이여	황영철	〃
위대한 어머님의 영원한 사랑이여	김순학	〃 제18호
대자연개조의 첫삽	리병호	〃 제20호
세기의 분기점에서	정 삼	〃
풍년봄맞이	조한구	〃 제21호
보천보의 홰불이여	리창일	〃 제22호
나를 받아 다오	호대선	〃 제23호
한삽이라도 더(벽시)	변옥란	〃
조선의 마지막경고	김 원	〃 제25호
억세게 틀어 쥐자 혁명의 총검!	김웅수	〃
목숨과 량심	장현국	〃 제26호
저 하늘도 이 땅도…	리영성	〃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창현	〃 제27호
신천의 피는…	오인철	〃 제29호
아침	김은희	〃 제30호
전승기념탑 군상앞에서	최창남	〃
소중한 휘장을 보며	로재룡	〃 제32호
신천의 글발	최명일	〃
백두산은 오르면 오를수록	리영호	〃 제33호
속보에 난 이름은(벽시)	조향선	〃 제35호
우리의《잠》(〃)	〃	〃
발걸음소리(〃)	김순희	〃
제일 가까운 자리	로형직	〃

서정시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시를 사랑한 처녀	림선영	문학신문 주체88년 제37호
어머님 걸으신 길에는	동 철	〃 제39호
나도 아버지처럼	리정애	〃
병사들은 듣고 있다	한태준	〃
아 백두산아	정정국	〃 제40호
그대의 주로에 내 마음 세워 놓고	문은희	〃 제43호
회답편지	한태준	〃
무봉마을	서봉재	〃
여기에로 오시라	박용봉	〃 제44호
설레이라 푸른 산천이여	정정국	〃 제45호
종소리	리영희	〃
냉이찬	김순학	〃 제46호
꿩 잡은 매에 대한 이야기	전수철	〃 제47호
나도 돌격대원이다	로형근	〃
청춘이여 구보로	심재훈	〃
통일친필비앞에서	구동신	〃
공화국기발	김은희	〃 제48호
장군님과 처녀들	리광숙	〃
개꿈을 꾸지 말라(풍자시)	리영복	〃 제49호
쪽발이는 떠들어도(〃)	〃	〃
어머님의 목소리	박시호	〃 제51호
음악회는 막을 내려도	한원군	〃 제52호
달 력	박미선	〃
나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김정식	〃
《대통령》의 처가집(풍자시)	김영림	〃
다시한번 비약하자 조선의 천리마여	리명수	평양신문 주체88년 2월 2일
청춘로반 뻗어 간다	전수철	〃 3월 16일
어버이장군님 부디 안녕히	김순학	〃 4월 28일
벌써 나는 본다	승철진	〃 5월 25일
피 묻은 머리태	박금희	〃 6월 15일
조국의 집	류근배	〃 7월 13일
나는 신천의 복수자	김광철	〃
군민일치 모범부대	리형권	〃 7월 29일
피 묻은 못이여	김광철	〃
나도 오늘은 병사가 되였다	〃	〃 8월 10일
다 리	류근배	〃 8월 18일
우리모두는 군인들이였다	김광철	〃 9월 14일
혁명렬사릉 계단앞에서	김태룡	〃 9월 22일
너를 닮으면	김광우	〃 10월 20일

서정시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어머님 울리신 재봉기소리	김광철	평양신문 주체88년 11월 12일
태양의 집과 이어 진 다리	성곽영	〃 11월 27일
행복동이소년	〃	〃
전선길에 이어 진 령도의 자욱이여	박주천	〃 12월 30일

가 사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이 가슴에 빛나게	량 률	조선문학 주체88년 제4호
발사준비끝!	〃	〃 제6호
평양하늘	오재일	〃 제10호
대홍단의 별무지개	전완식	〃 제11호
물어 보자 나의 량심에	한덕윤	청년문학 주체88년 제1호
너와 나는 속삭이였지	김은희	〃
한송이의 꽃	한영팔	〃
우리에게 큰 짐을 달라	류해성	〃
백두산은 장군님의 모습	리영남	〃 제2호
너처럼 피리라	량련희	〃
높이 들자 자력갱생의 보검을	김영수	
시간을 맞추자	최길호	〃
해당화 첫 열매 익었네	송수일	제3호
시내가에서	주 홍	〃
풀판조성 좋구나	주시현	〃
태양의 나라	김영옥	〃 제4호
사랑하노라 총이여	권오준	〃
장군님 옹위해 우리의 총대가 있다	리영남	〃 제5호
선생님 마음	리철남	〃
건설장의 불바람 좋다	리병호	〃
잊지 말자 신천땅의 원한을	배정현	〃
땅크여 너와 함께	림현일	〃 제6호
병사는 대홍단에 아주 왔대요	김홍진	〃
3대각오 안고 내 한생 살리	김장렬	〃 제7호
명승의 칠보산아	박용학	〃
나의 공장	김성원	〃
잊지를 말아 다오	주명옥	〃

가 사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수령님 약속	김광철	청년문학 주체88년 제8호
다시한번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이자	박용학	〃
내 고향의 자랑이라오	한병화	〃
영원히 이끄시네	김형삼	〃 제9호
총대와 운명	조룡철	〃
축복해 다오	박영진	〃
병사의 총탄	장은하	〃
대 답	공룡덕	〃
우리의 최고사령관기	동 철	〃 제10호
여기서 우리 나이 생각해 보자	윤광민	〃
녀자축구선수들	리명철	〃
누구나 불러요	탁명진	〃
동백꽃	김재환	〃 제11호
행복한 청춘	김철호	〃
조선은 영원한 청춘의 나라	리윤겸	〃
장군님 모신 자랑 노래 불렀네	김호식	〃 제12호
압록강 푸른 물아	서봉주	문학신문 주체88년 제2호
이 마음 노래되여 울려 가리	오철호	〃 제3호
대홍단처녀들은 기다렸다네	송강일	〃
꿈결에도 뵙고 싶어	리룡성	〃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 병사다	오재일	〃 제9호
우리 가정 사진첩	량 률	〃
수령님 사랑하신 꽃	김종학	〃
장군님 소식	황 영	〃 제10호
북방청춘도시의 밤	리상건	〃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리라	리봉성	〃 제12호
그 이름 빛나라 김정숙동지	리의석	〃
대답하라 나의 량심아	김청일	〃
장군님 안겨 주신 보검	리영복	〃
축복의 진달래	김봉구	〃 제13호
대홍단은 우리의 고향	김교훈	〃
대홍단 삼천리에 봄비 내리네	전완식	〃
청춘이여 앞으로	림무아	〃
축복을 받고 삽니다	홍덕용	〃 제14호
장군님 아시는 청춘이 되자	윤광민	〃
감자농사 좋을시구	김형찬	〃
자력갱생덕이라네	정 삼	〃
인민은 태양절을 노래합니다	리영호	〃 제16호

가 사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장군님 군대에서 배운거래요	김갑분	문학신문 주체88년 제16호
장자산의 갈림길	주 홍	〃
병사의 량심	리기택	〃 제17호
장군님과 병사들	정예남	〃 제18호
정말 아쉬워	량 률	〃
사랑의 봄	한향미	〃 제20호
우리의 병사시절	장은하	〃 제22호
구보로 달리자 강성대국 향하여	김기영	〃 제24호
어머님의 당부	리철규	〃 제30호
병사의 총탄	김광민	〃
장군님 한분밖에 우리 몰라라	한관호	〃 제31호
장군님의 청년전위	리금주	〃
대를 이어 장군님 받들어 가리	김광혁	〃
시내가에서	주 홍	〃 제32호
장군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라면	김준영	〃 제33호
통일된 조국의 이름으로	김련실	〃
내 마음 변함 없으리	정정국	〃 제35호
장자강 너와 함께	김령욱	〃
통일조선 만만세	리병호	〃
제것이 좋아 내것이 좋아	리영복	〃 제36호
추억은 조국의 래일에	최정옥	〃
초소의 목란꽃	전완식	〃 제39호
풍년벌 노래로 가꾸는가봐	강남섭	〃
병사들의 노래를 사랑하시네	최정호	〃 제40호
그 처녀 행복했네	김철호	〃
고마워라 장군님 사랑	김순녀	〃
한걸음을 걸어도 순간을 살아도	리진묵	〃 제42호
하늘의 별들만 알고 있었네	김령욱	〃
장군님의 전투복	김 숙	〃 제43호
사랑의 품에 안겨	조윤천	〃
나의 초소 맑은 시내	리정수	〃 제44호
우리는 장군님의 병사	한성호	〃
두벌농사 좋아라	리경순	〃 제45호
통일만세 부르자	리영호	〃 제46호
군항의 밤	정춘봉	〃 제48호
충성의 금메달	리철남	〃
이 마음 언제나	량 률	〃
백두의 후손들	장영옥	〃

아 동 문 학

단편소설

제 목	작가	출판된 출처
보 물	리기범	아동문학 주체88년 제1호
봄 날	려인순	〃 제4호
아버지를 찾은 소년	김룡복	〃 제5호
신천아이	전태화	〃 제6호
큰 모습	리혁민	〃
팔씨름(유년소설)	림동철	〃 제7호
편지	김기범	〃 제8호
땀방울	김성국	〃
맑은 하늘	류선희	〃 제9호
내 고향의 꽃	김학연	〃 제11호
분이(유년소설)	정일향	〃 제12호

영화문학

제 목	작가	출판된 출처
팔랑이가 당한 봉변	배광숙	아동문학 주체88년 제2호

동화

제 목	작가	출판된 출처
솔이가 만난 두 구슬아기	강영희	아동문학 주체88년 제1호
참게와 칠색송어	백영환	〃 제3호
힘에 대한 이야기	한태수	〃 제4호
장미의 눈물	리영숙	〃
잃어 버렸던 이름	문명일	〃 제5호
남손이가 얻은 보물	김봉화	〃 제8호
고추잠자리의 날개	리영식	〃
따뜻한 목수건	홍순월	〃 제9호
벽보에서 나온 아이	고명근	〃 제10호
조롱박	김명철	〃 제11호

우 화

제 목	작가	출판된 출처
깨여 진 독	궁철호	아동문학 주체88년 제2호
금붕어와 얼룩고양이	장기봉	〃 제4호
청개구리가 찾은 교훈	김홍철	〃
그때뿐	백영환	〃 제5호
쪽배와 두 친구	윤 옥	〃
서로 물고 뜯던 놈들	림정호	〃
쫓겨 난 게골뱅이	문홍기	〃 제6호
금빛오리의 자랑	리정혁	〃 제7호
꿀꿀이의 손님대접	김성헌	〃 제9호
야웅이의 신발	손석일	〃 제11호
방울새의 뉘우침	박원국	〃
외과의사	배종렬	문학신문 주체88년 제6호
들쥐의《선물》	김철우	〃 제9호
명백한 증거	리완기	〃 제18호
그늘밑의 들장미	박현우	〃 제37호
검둥이가 먹은《꿀떡》	림정호	작품집《공화국기발》
네마리의 승냥이	〃	〃
경찰서장놈과 그 아들놈	〃	〃
주대 없는 낚시대	〃	〃
생명의 은인	박송이	작품집《붉은 넥타이》
미욱한 곰	류설경	〃
황소와 여우	김충국	〃
결심을 해야지	최수련	〃
개울가에서 벌어 진 싸움	리영옥	〃
누렁소의 교훈	최진혁	〃

동 요

제 목	작가	출판된 출처
룡악산의 곰취야	김용준	아동문학 주체88년 제1호
우리 나라 자랑별	오영란	〃
아장아장 걸음마(유년동요)	장신제	〃
눈행군길	윤례영	〃
나를 반겨 속삭이지요	로진주	〃
축복의 눈이 내려요	정은성	〃
돌고 돈대요	구은옥	〃
기계들도 기뻐 기뻐	박인갑	〃 제2호
별 달고 가자(유년동요)	김금희	〃
꽃눈송이 되고파	최봉숙	〃
멍멍아(유년동요)	리새별	〃
봄꿈 꾸며 자거라	김순렬	〃 제3호
꼬마라면 난 싫어	김금희	〃
우리 집	김승희	〃 제4호
백두산의 우리 집	리성일	〃 제5호
하나가 제일로 좋아	리병호	〃
오빠야 동생아(유년동요)	황규순	〃
우리 엄마 주머니	전룡우	〃
김일성화 꽃향기	김 철	〃
대홍단 감자산	류행복	〃
시내물이 지은 노래	윤봉식	〃 제6호
언제 쌓을가	조명철	〃
춤 추는 떼목다리	김금희	〃
별단추(유년동요)	김현일	〃
더 고와 져요	설 경	〃
따뜻한 품	박명진	〃
나의 발전소	라인철	〃 제7호
더하기계산(풍자동요)	김현일	〃
엄마엄마 봐 주세요 (유년동요)	송시찬	〃
우리 집 제비	리진혁	〃
자장자장 잘 자거라	고정철	〃 제8호
작아도 보배	리분임	〃
빨간 잠자리(유년동요)	김은희	〃 제9호
돌아 가자요(〃)	리향숙	〃
우리 집 수닭	정 림	〃
남아 있는 새별	김은경	〃
별 마중 가자	최성희	〃 제10호
꽃돌방석	강금철	〃 제11호
큰 북 친다야	안성옥	〃
날개 돋친 승리산	주경희	〃
《마리손왕자》될테야(유년동요)	고정철	〃

동 요

제 목	작가	출판된 출처
통일줄넘기(유희동요)	손미경	아동문학 주체88년 제11호
우리를 정성옥이래요	전금주	〃
로병할머니	고은별	〃
언제마을	김명혁	〃
연자방아	윤례영	〃
밉고 미운 미국놈	서학철	〃
단심줄	김지현	〃 제12호
사진을 찍자	김순렬	〃
신갈파의 물레방아	최준혁	〃
다듬이질소리	현 철	〃
누나자랑	신성진	〃
젊어 지는 평양	리정혁	문학신문 주체88년 제18호
고향집 러발	허은주	〃
벼포기 소곤소곤	김금희	〃 제39호
1등자리	〃	〃 제40호

동시

제 목	작가	출판된 출처
정일봉 수 놓아요	박정순	아동문학 주체88년 제1호
밝은 앞날로 향해 가요	림선칠	〃
내 고향의 쇠물봉화	강금철	〃
인사 드리자	마꽃순	〃
전자벽시계	김철룡	〃
영웅의 자리	김철준	〃
별아 별아 알려 주렴	박봉숙	〃
닳지 않는 지우개	로선희	〃
꽃바구니 엮었어요	김성일	〃 제2호
고드름	김한대	〃
함께 찍혔죠	리학철	〃
내가 만든 바람개비	안성옥	〃
함박눈 펑펑	김정녀	〃
어머님의 련락쪽지	최금실	〃
특등이래요	장명심	〃
구월산의 폭포소리	리철진	〃
왜 따라 올가요	안송희	〃
꽃을 심자야	조인숙	〃
자랑하겠죠	정국철	〃
신천의 돌멩이	림성철	〃
원한의 석당교	전명희	〃 제3호
깜빡 속았죠	리학철	〃

동시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책장 번지는 소리	박선옥	아동문학 주체88년 제3호
롱구공 통통	한철호	〃
만경대의 붓	고정철	〃 제4호
너도 나도《명배우》	황규순	〃
종주먹	라인철	〃
북대봉	한창혁	〃
대탕지의 샘물	박영복	〃
큰 마음 솟았죠	김현영	〃
돌돌돌 노래하지	김순향	〃
꽃으로 피여 났죠	정철호	〃
기쁨물결 찰랑찰랑	리금철	〃
톰	오영일	〃
지금도 들려 와요	리경숙	〃
사시절 꽃 펴요	우정국	〃
도 적	김정심	〃 제5호
충성의 장대	리철준	〃
우리 별	김현미	〃
자랑 많은 텔레비죤	조광철	〃
신천의 딸랑방울	유정혁	〃
봄 비	김은혜	〃
《조국통일》달리기	리현이	〃
내 고향의 풍년산	강금철	〃 제6호
황천으로 보낼테다	김금희	〃
간절한 마음	윤오성	〃
사랑의 록음기	리영심	〃
쌍둥이래요	김충혁	〃
계절 없이 피지요	정은실	〃
이번엔 내 차례야	채금성	〃
거 울	김광식	〃
나는 리수복영웅의 동생	리대성	〃
백두산천리벌의 방풍림아	동경희	〃 제7호
명신학교 호각소리	전봉준	〃
제 엄만줄 아나 봐	리학철	
붉은 넥타이	태정화	〃
사계절 피는 꽃	김명희	〃
영웅의 키	전명덕	〃
보물바다 아침노을	김은철	〃
바다의 날이 좋아	강철국	〃
만세만세 만만세!	황규순	〃 제8호
마음은 더 컸겠지	로철남	〃
만수대의 보슬비야	리들국화	〃
영원한 홰불	고광혁	〃
노래하는 선반기	황성혜	〃

동시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잊지 못할 오솔길	김광철	아동문학 주체88년 제8호
소년단원 그 이름	김송이	〃
대홍단 누나란다	리광호	〃
내 친구	황봉희	〃
신천의 도장	배정현	〃
공화국기발	안형국	〃 제9호
조국광복 큰 걸음	김덕영	〃
초침소리	김영수	〃
유치원 하루	리은희	〃
오각별	김정향	〃
꽃방석	권정철	〃
그날의 모습	안광숙	〃
별아 별아	한진숙	〃
음악회	리금석	〃
노래하며 뚜-뚜-	정홍식	〃
구월산이 들썩쿵	리일남	〃
내 마음과 꼭 같아	최진성	〃
웃음 많은 집	리국철	〃
1등그림	최윤철	〃 제10호
대홍단	윤창도	〃 제11호
한집안 식구	김정심	〃
지구를 달렸어요	김금희	〃
백두의 흰 눈이 내려요	김　혁	〃
큰절 드려요	최창일	〃
우리 형님 닮았대요	박성일	〃
5점꽃 피울 때	리철준	〃
쌀샘이야기	박향미	〃
통일의 그날도 보인답니다	리정혁	〃
내 마음 천배만배	황규순	〃 제12호
나의 총	김철혁	〃
백두밀영 사격경기	김향숙	〃
사랑의 만년필	박　진	〃
명사수 될테야	로영환	〃
등 불	강　건	〃
고향집화로	신용철	〃
영웅누나처럼	김용남	〃
장수함마 쿵-쿵	윤철민	〃
큰 걸음	김유성	문학신문 주체88년 제18호
큰 산도 훌	고정철	〃 제24호
키 크는 경쟁도표	윤　옥	〃 제33호
사랑의《꽃수레》	서진철	〃 제39호
우리 집	김광옥	〃 제44호

가 사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하늘가에 피우신 꽃	조철숙	아동문학 주체88년 제1호
롱구공이 좋아	주현이	〃 제3호
장군님 가신 길	구영금	〃
우리의 해님	안형국	〃 제5호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요	〃	〃 제7호
우리들은 행복동	장신제	〃 제8호
행복한 우리 집	김윤희	〃

가 사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꽃 핀 내 자랑	김　과	아동문학 주체88년 제10호
원쑤놈들 무서워 벌벌 떨었지	전금옥	〃
꿈나라 가자	장신제	〃 제11호
꽃속에 향기속에 길이 빛나요	김성옥	〃 제12호
사랑의 집 행복의 집	엄미라	〃

군 중 문 학 작 품

시 초

시련과 녀인

－고난의 강행군을 돌파한 이 나라 녀성들에게 삼가 드린다－

렴 형 미

땅 이 여!

땅이여
서른해나마 너를 꾹꾹 밟으며
한 사내애의 엄마로 되기까지
나는 너를 너무도 몰랐구나

너의 달고 화려한 열매만을
천진한 웃음속에 따먹으며
얼마나 무심히 밟아 왔던가
쑥잎이며 민들레, 길짱구들을…

오, 시련의 오늘
못난 쐐기풀조차 덥석 밟을수 없노라
말없이 네 품에 뿌리내린 그것을
나에겐 흰쌀마냥 귀중하거니

씁쓸한 향기 그 떫음을
인생의 참맛으로 달게 먹으며
행복의 서른해에 몰랐던것을
고난의 한해에 다 알았노라

오, 알고서는 밟을수 없는 땅이여
불 타는 내 심장에 싸 안아
머리우에 소중히 이고 다니고 싶은
내 조국땅이여!

새로운 인사말

누구나 아는이 만나면
인사처럼 되여 버린 말
《어떻게 삽니까》

육체의 안녕이 아니라
마음을 묻는 그 인사말
얼마나 솔직하고 정다웁던가

그 말앞에 위선과 겉치레는 부끄럽고
저 혼자의 호강은 죄스럽더라
너와 나는 한운명이라고 진심으로
　대답하고 싶을뿐

떨리는 손

한송이 들꽃을 쥐고도
좋아라 뛰는 아들애 손에
무언가 흠뻑 들려 주고파

떨리는 나의 손

밤일 가는 남편의 밥상에
진수성찬 내 마음 고일수 없어
행주치마 매만지며
떨리는 나의 손

오, 불끈 주먹이 쥐여 지노라
미국! 네놈을 굶겨 봤으면
너의 새끼를
너의 에미를 사흘만 굶겨 봤으면!

무서워 하라
네놈이 보복을 받는 그날을
이 나라의 사나이들보다
녀인들을 천백배 무서워 하라

죽가마 저으며 떨리는 이 손
총창을 잡는 그날엔
총창을 잡는 그날엔
단 한번도 떨리지 않으리라!

겨 울

아우성치는 거리의 눈보라속에
법석 떠드는 녀인들의 웃음소리
괭이 메고 삽날 번쩍이며
발전소건설장으로 뭉쳐 가는 가두의 행렬

꽁꽁 동여 맨 털수건속에서
불쑥 튀여 나온 북변사투리
—에그, 신통히두《ㄹ》받침 달린것들만
녀자들속을 태우지 않습메?—

와하 웃으며 받아 치는 목소리들
쌀! 물! 불!…
허나 그게 무슨 큰 일인가고
또다시 타래쳐 오르는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 사랑하노라, 녀인들이여
그대들의 그 귀중한 웃음으로
대용식량도 가마속에 구수히 끓고
방안도 따뜻하지 않던가

하루일 끝마치고 돌아 오면
식구들은 더운물에 온몸을 씻고
이악스레 빨아 널은 옷가지들에선
삶의 향기 벅차게 풍기지 않던가

잔악한 봉쇄의 겨울이
생존의 모든것을 빼앗으라 하랴
허나 사랑의 단젓으로 끓어 치는
녀인들의 신비론 심장만은
  건드릴수 없거니

오, 굳세고 강직한 조선녀성들
이 땅에 그들이 있는 한
이 땅에 그들이 있는 한
삶과 행복은 무궁한것이다

나는 왜 사회주의를 지키는가

오늘 공급소에서 공급 받은 쌀
너무도 눅은 값이여서
새삼스레 만져 보기만 하네
×
해 지는줄 모르고 일을 하다가
불 밝은 탁아소로 달음박질칠 때면
말 못할 고마움에 가슴이 뛰네
×
색시감 골라서 소문난 내 동생
영예군인처녀를 듬쑥 안고
우리 집에 들어 섰네
×
내 엄숙히 투표한 그 대의원
언젠가 내 구두도 고쳐 준
신발수리공이라네
×
겨울김치 담그는 날
두팔 걷고 도와 준 동네녀인들
그들에게 첫맛을 보이고 싶네
×
전기온돌 스위치 넣을 때면
북변의 추위속에 온포발전소 돌아 보시던
장군님의 그 모습 잊을수 없네

시련과 녀인

손에 익은것은 부엌일밖에
몸에 익은것은 애틋한 숨결밖에
물 오른 앵두마냥 연연하던
이 녀인도 시련의 몇천날을 살았다

빈손으로 식량공급소문을 나서며
나약하던 그 걸음은 저 멀리 사라졌노라
빨래감 모아 놓고 수도물 기다리던
천진스런 그 모습도 없어 졌노라

이악하고 씩씩하고 두렴 모르는 내 마음
인민반 윷놀이에 남편까지 불러 오고
주먹밥 싸든 지원부대의 한 대원으로
명승지건설장에 더운 땀 바치노라

오, 괭이날 휘두르면 감자밭 늘어 나고
중소형발전소 수풀처럼 솟거니
조선옷 차려 입으면 춤판이 더덩실
총창을 틀어 쥐면 육탄이 못되랴

그렇다, 봉쇄의 시련은
이 땅의 연약하던 한 녀인조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난듯
강철의 투사 로병으로 만들었거니

위대한 장군님 계시기에
오늘도 웃으며 낳는 귀여운 아이들
조국이여, 소중히 받아 다오
사회주의를 믿는 이 나라 녀인들의
  뜨거운 확신을

(전국군중문학작품 현상응모
1등당선작품)

련시

우리는 시로 말하며 산다

모원혁, 김성희

우리는 시로 말하며 산다

시—이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 준
사랑의 띠!

시—이는
비관에 항거하는
생명의 푸른 즙!

조국의 고마움에 눈물 머금고
다시 또다시 삶의 나래 퍼덕여 오르며
우리는 시로 말하며 사는
영예군인부부

인사를 받아 다오, 사람들이여
우리 서로
남 몰래 간직해 온 이 노래의 시첩
오늘은 여기 함께 펼치노니

남편과 안해의 담화

남편—나는 기적을 바라지 않소
  이미 내 생활엔
  기적이 일어 났거니
  그것은 내 육체가
  삶과 죽음의 계선에 살아도
  흘리다 남은 이 뜨거운 피 깡그리
    바칠수 있는
  그 길을 찾았기때문이요
  아, 내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
    조국에
  시를 바치며 사는 이 기쁨!
  시로 말하며 사는 이 기쁨!

안해—나는 그 기적을 알아요
  나는 불사신처럼 일떠선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언제 한번
  내 검은 머리에
  들꽃 한송이 꺾어 얹어 준적 없어도

  나는 행복해요
  당신의 상처는 깊어
  아기처럼 돌보아 드려야 해도
  당신이 불처럼, 시처럼 살기에
  언제나 따르며 살아요
  나도 당신처럼 때때로 시를 쓰군
    해요

봄날의 따스한 거리에서

해빛 뒹구는
봄날의 따스한 거리에서
나는 만났네
유모차에 앉아 가는 아기를

귀여운 아기야
너와 나 똑같이 삼륜차를 탔구나
네뒤엔 어머니
내뒤엔 안해

젖살 오른 네 손을 잡아 보자
어제날의 병사 이 큰 손에
네 작은 손을 얹어라
친구처럼
마치 동무처럼

너 말을 몰라도 일 없어
우리 벌써 맘속말을 하고 있거니
이렇게 잠간만 서서
서로서로 축복하자 약속을 하자
그래그래
너 어서 커서 어른되여라
씩씩한 젊은이 되여라
나도 마음 커서 시인이 되련다

그때—
너는 힘센 팔로
화려한 수레를 만들거라
나는 네가 만든 그 수레우에
아름다운 시의 꽃들을 장식하리라

그 수레우에
수고 많은 너의 어머니, 나의 안해를
태워 드리자
우리 함께 타고 달리고 달리자
고마우신 우리 장군님께 인사 드리러 가자

미인이 되라고

열자식 키울 품을
지의 남편에게 다 기울여 주시는
우리 장군님께서
오늘은 저에게도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름도
《금강산선녀》화장품

명절날 아침에 예뻐 지라고
그래서 남편과 나란히
거리에 나서라고
아, 장군님 보내주신
고마운 선물

영예군인남편을 시중드느라
치장을 잊고 산다고
일식으로 갖추어 주신 화장품
보고 보고 또 만져 봅니다
연지며 크림, 향기로운 흰 분…

시집 온 첫날부터
고와 져서 무엇하랴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만은 잊고 산 저에게

더 고와 지고
더 화목한 부부가 되라고
고운 얼굴 안겨 주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눈물에 젖은 량볼에
바르고 바르며
나는 웁니다
장군님의 그 사랑에 울고 웁니다

장 기 판

오늘은 마침내
며칠째 바라던 소원
드디여 이루었다
장기판을 가운데 놓고
안해와 마주 앉았네

상을 차처럼 가며
말을 먹는 안해를 아량 있게 눈감아 주고
포가 포를 먹자 덤비는
안해를 비웃기도 하며
양보 두번, 공격 한번

아뿔싸! 그러다나니
통장에 걸렸구나
분수 없는 양보로 지게 됐구나
어쩐담, 내 절 받소

사양 말고 절 받소
수고 많은 그대가 기뻐 웃으니
내 기쁨도 끝 없도다

나도 싸울수 있다

나도 들었다
미제의《작전계획 5027—98》을
방송원의 그 목소리 들으며
내 주먹은 지금 분노로 떨린다

좋다, 복수의 그날은 왔다
내 심장 증오로 뛰나니
나를 부축해 다오, 안해여
나에게 병사시절의 군복을 입혀 다오
나의 총 4048을 다오

몸이 부러 졌어도
결코 이렇게는 끝맺지 못할
나의 군사복무
당기면 나가는 총알처럼
심장의 노래 부르며
이 몸은 초소에 서 있었나니

그렇다
한알 또 한알
닦아 재우던
증오의 총탄이
지금 내 가슴에 만탄창되여 있다

조국이 아껴 준 몸
이제는 조국 위해 바치겠노라
나도 조국땅 한 구역을 맡아
전호가 사격좌지에 나서겠노라

안해여!
어서 나를 일으켜 다오
나를 업고 고지로 올라 다오
나에게 병사시절의 그 총을 다오
나도 싸울수 있다
싸우면 이길수 있다!

총번호 4048을 나에게!

남편이 비록 침상에 누워 살아도
자애 깊은 조국의 보살핌속에
행복을 꽃 펴온 우리 가정

그런데!
원쑤들은 우리의 이 행복마저 앗아 가려고
《작전계획 5027—98》을 내들었거니
아 조국이여, 나에게 총을
내 남편이 잡았던 총번호 4048을 달라

나는 연약한 녀인
허나 가슴 아프게 침상에 누워 사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선 복수하기 위해선
녀인—나도 원쑤와의 대결장에 나서리라

피 흘리면서도 님이 지켜 낸 조국
이 한몸 바쳐서라도 지켜 가리니
남편이 채 쏘지 못한
복수의 총탄이 그대로 재워 진
총번호 4048은 나에게!

원쑤들을 이 땅에 들여 놓는다면
그 검은 발길에 제일먼저 짓밟힐
  내 남편이거니
보라,《작전계획 5027—98》의 시중군들아
네놈들에게 하반신을 빼앗긴 님의 그 상처
3년세월 아프게 쓸어 보며 복수를
  다짐하던
이 녀인의 손에 무엇이 쥐여 있는가를 보라

침략자 미제가 다시는 달려 들지 못하게
네놈들의 두다리와 팔, 더러운 몸뚱이까지
형체없이 토막내리라 섬멸의 총탄을
  퍼부으리라
우리의 님들이 다시는 피 흘리지 않도록
조국이여, 나에게 총을
총번호 4048을 나에게 달라!

나는 이 밤도 시를 쓴다

따스한 이불에 싸여
사랑의 보약을 먹으며
삼륜차에 몸을 싣고 다닐 때면
가슴 뭉클 차오르는 생각

조국이여
어머니조국이여
그대없이 나는
한시도 살수 없는 몸

내 서투른 시줄도
대견스레 신문에 내주는 조국이여
복스럽고 얌전한 처녀를
나의 영원한 동반자로 안겨 준 조국이여

내 비록 몸은 침상에 누워 있어도
이 심장만은 뜨거이 그대 위해 뛰나니
나에게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상처의 아픔이 아닌
못다 바친 자식의 도리이여라

그래서 나는 이 밤도 시를 쓴다
한줄한줄 가슴 태우며 다듬는다
내 그대 위해 할수 있는 일은
어머니조국에 노래를 바치는 그것뿐

하거니 동무들이여
내 이 길에서 잠시라도 주춤한다면
용서없이 나를 침상에서 밀어 던지라
내가 타고 가는 삼륜차에 돌을 던지라

내 심장속 피 한방울까지
고마운 조국 위해 바치리라
우리 장군님께 바치리라
이렇게 이렇게 시를 쓰며 행군하리라

(전국군중문학작품 현상응모 1등당선작품)

서정시

그 울음 달래여 주시리

전 선 희

무거우시여
걸음 무거우시여
차마 옮기지 못하시여라
전선과 전선길을 이으시여
신천땅을 찾으신 우리 장군님
사백 어머니 무덤앞에서
백둘 어린이 무덤앞에서

가벼이 봉분을 어루쓸던 초겨울의 찬
  바람도
고요히 숨 죽이고 숭엄한 정적만 흐르는데
그이는 듣고 계시여라
불길속에 휩싸여 엄마를 찾는
  아기들의 울음소리
아기를 찾는 어머니들의 피 타는 웨침소리

천추에 잊지 못할
그 원한 그리도 사무쳐
반세기 기나긴 세월
그 울음 그칠줄 모르는것인가
어버이장군님 찾아 주신 이 순간
더 서럽게 더 아프게
그 울음 목 놓아 터치는것인가

그 누가 달래 주랴 그 울음을
그 누가 씻어 줄수 있으랴 그 피눈물을
산천초목도 치를 떨고
천만가슴이 찢어 지는 그 울음소리
언제까지 우리 듣고만 있어야 할것인가

악귀 같은 인간백정 미제원쑤를
천백배로 복수하기전에는
백년이고 천년이고 그칠줄 모를
그 울음소리 한가슴에 안으시고
우리 장군님 서리발 이는 분노의 눈빛을
남녘의 저 하늘가로 보내신다

또다시 그날의 신천을 이 땅에 가져
  오려는
원쑤들을 용서치 않으리라
불은 불로써 대답하리라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을 피할 자리
이 행성우에 없으리라

멸적의 총검을 비껴 든
복수의 대군을 거느리신 최고사령관
원쑤들이 무모하게 포아구리를 터친다면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강철의 령장
원한에 맺힌 신천의 붉은 피로
때가 오면 진격의 화살표를 그으시리니

신천의 하늘땅에 울리고 있는
그 울음 달래여 주실분은
백년숙적인 미제의 아성을 통쾌하게
  날려 버리시고
눈 감지 못하고 쓰러진 어머니와 아이들을
고이 잠재워 주실분은
오직 한분 무적필승의 우리 장군님

아, 그날에 우리는 보리라
맺히고 맺힌 그 원한을 풀고 고이 잠든
사백 어머니
백둘 어린이들의 령혼을

(전국군중문학작품 현상응모 1등당선작품)

동시

1등 그림

최 윤 철

세번째 도화시간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
동무동무 깔깔깔
선생님도 호호호
1등이래요

연필낚시대 번쩍 쳐드니
5점낚시코에
미국놈이 코에 꿰여
두손 싹싹 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허허허
아버지 어머니도 하하하
형님 누나도 배를 안고 대굴대굴
모두모두 눈물 찔끔 그냥 큰 웃음
미국놈 코를 꿴 1등 내 그림

(전국군중문학작품 현상응모 1등당선작품)

기념 및 경축공연

뜻 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전국로동자예술소조종합공연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87돐기념 전국로동자예술소조종합공연이 4월 13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박성철동지, 김중린동지, 곽범기동지와 직총중앙위원회 렴순길위원장,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로력혁신자들, 평양시내 직맹일군들, 직맹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은 합창《태양절을 노래하세》로 시작되였다.

무대배경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셔 지자 관람자들은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우리 인민들에게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 주신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대를 이어 태양복을 누려 가는 끝 없는 긍지와 행복감에 넘쳐 있었다.

녀성3중창《수령님 같으신분 세상에 없습니다》, 녀성독창《수령님 우리 공장에 찾아 오셨네》, 녀성중창《만경대의 노래》, 기악과 노래《천리마대진군의 노래》등의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혁명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 오르시여 주체의 사회주의 새 조선을 세워 주시고 꽃 피워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그이의 령도 따라 이 땅우에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 우리 로동계급의 영웅적 투쟁모습을 펼쳐 보였다.

출연자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나가시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아 끊임 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령도풍모를 보여 주는 녀성소합창《장군님 찬 눈길 걷지 마시라》, 실화이야기《장군님 찾으신 설계가》등의 종목들도 무대에 올렸다.

시와 이야기《주체의 쇠물이 흐른다》, 제창이야기《자력갱생의 길만이 살 길이다》, 남성중창《불패의 강국이여 앞으로》를 비롯한 여러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 주신 필승의 보검인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할 때 이 세상에 못해 낼 일이 없으며 **김일성**민족이 사는 내 나라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될 것이라는것을 힘 있게 보여 주었다.

공연무대에는 또한 혼성2중창과 방창《기관사총각과 차장처녀》, 혼성중창《우리 공장 구내에서 찌꼴새 노래하네》, 노래이야기《고향의 향기를 병사들에게》등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확립된 정다운 일터에서 희망찬 래일의 앞날을 그려 보며 랑만에 넘쳐 있는 우리 로동계급의 행복한 모습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사들인 인민군군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노래한 다채로운 종목들도 펼쳐졌다.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 준 공연은 시와 합창《무쇠마치》로 끝났다.

전국녀맹예술소조종합공연 진행

태양절기념 전국녀맹예술소조종합공연이 4월 12일 녀성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중린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녀맹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합창《태양절을 노래하세》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민요3중창《수령복 인민복 꽃 핀 내 나라》, 소합창《우리 수령님》, 중창《만경대 찾아 가네》등의 여러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공연에서 한평생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지니시고 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끊임 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가시며 이 땅우에 조국의 만년터전을 쌓아 올리시고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수 놓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한 없는 경모의 정을 뜨겁게 노래하였다.

그들은 또한 중창《봄빛입니다 해빛입니다》, 제창이야기《꽃 피는 우리 생활》, 북제창《자랑하세 **김일성**민족》, 기타병창《녀성은 꽃이라네》, 6중창이야기《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자요》등의 종목들에서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여 수령님의 력사가 변함없이 흐르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인민에게 영원한 태양절을 마련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 장군님의 령도밑에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과 녀성들의 신심과 락관에 넘친 생활모습을 훌륭히 형상하였다.

시와 합창《장군님 높이 받들리》로 끝난 공연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의 앞길은 보다 휘황찬란하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웅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차고 장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녀성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힘 있게 보여 주었다.

농업근로자들의 태양의 노래모임 《우리 수령님》진행

태양절기념 농업근로자들의 태양의 노래모임《우리 수령님》이 4월 12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농근맹중앙위원회 승상섭위원장 등 관계부문 일군들,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설화와 노래《태양절을 노래하세》로 시작되였다.

출연자들은 백화만발하는 4월의 봄날에 맞이하는 우리 민족의 태양절, 인류공동의 경사스러운 명절에 즈음하여 온 나라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가슴속에 더욱더 넘쳐 나는 한 없는 그리움과 뜨거운 경모의 정을 안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소리높이 칭송하였다.

녀성중창《발갈이노래》, 대화시《빈 봉투이야기》, 녀성2중창과 가야금병창《수령님 같으신분 세상에 없습니다》, 실화이야기와 노래《포전길 걸을때면》등의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우리 농민들에게 땅을 주시여 세기적숙망을 실현해 주신 그날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사회주의농촌문제의 빛나는 해결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가슴 뜨겁게 노래하였다.

특히 당과 수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농민영웅》으로 자라난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무대에 올린 중창《우리 수령님》의 절절한 노래소리는 참가자들의 눈굽을 적시여 주며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강성대국건설의 천하지대본인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고야말 불 타는 결의를 더욱 굳게 해주었다.

출연자들은 또한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 따라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실현함으로써 태양민족, 태양조국의 무궁번영을 이룩할 우리 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담아 시와 노래《장군님 찬눈길 걷지 마시라》, 남성독창《장군님 가리키신 곳》등의 종목들을 무대에 펼치였다.

모임은 시와 합창《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로 끝났다.

전국청년전위들의 충성의 노래모임 진행

태양절기념 전국청년전위들의 충성의 노래모임이 4월 12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중린동지, 조선인민군 차수 리종산동지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 리일환1비서 등 관계부문 일군들과 청년동맹일군들, 각도청년기동해설대 성원들, 평양시내 청년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설화시와 합창《충성의 노래》로 모임은 시작되였다.

녀성독창《수령님 만고풍상 못 잊습니다》의 선률이 울리자 장내에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 없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넘쳐 흘렀다.

모란봉제1고등중학교 교원 하계숙과 로력영웅이며 인민체육인인 배길수, 모란봉구역당위원회 비서 최영옥,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작곡가 김영성 등이 출연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며 주체혁명위업완성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감동 깊게 이야기하였다.

녀성중창과 합창《수령님 같으신분 세상에 없습니다》,《**김일성**대원수님 고맙습니다》의 노래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출연자들은 시와 노래《조선아 이 자랑 노래하자》와 남성독창과 합창《**김일성**대원수 만만세》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려는 청년전위들의 기상을 힘 있게 노래하였다.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자라나고 있는 만경대혁명학원 학생들이 무대에 달려 나와 주체혁명의 대를 굿굿이 이어 갈 충성의 열정을 담아《혁명의 계주봉》의 노래를 씩씩하게 불렀다.

모임은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대국건설의 돌격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갈 청년전위들의 충성의 열정 차넘치는 속에 불멸의 혁명송가《**김일성**장군의 노래》합창으로 끝났다.

학생소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 진행

태양절기념 학생소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이

진행되였다.

4월 14일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는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 참가자들의 종합공연이,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는 이곳 학생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이 진행되였다.

당 및 국가 지도간부들인 리종옥동지, 백학림동지, 김일철동지, 양형섭동지, 최영림동지, 김중린동지, 리하일동지, 박기서동지, 리종산동지, 김룡연동지, 곽범기동지, 김윤혁동지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 리일환1비서,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관람에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여러 나라 당대표단들과 외국손님들이 초대되였다.

기념공연무대들에는 관현악과 합창《**김일성**장군의 노래》와 합창《태양절을 노래해요》,《대원수님은 우리의 해님》, 5중창《4월은 그리움의 계절》, 민요독창《제일자랑 만경대》를 비롯한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종목들에서 한평생 혁명의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오신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대원수님을 온 나라 꽃봉오리들의 영원한 해님으로 높이 모시고 태양절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인류공동의 대경사로 성대히 기념하는 우리 학생소년들의 끝 없는 영광과 환희,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 없는 경모의 정을 감명 깊게 노래하였다.

자나깨나 대원수님을 못 잊어 하는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마음이 뜨겁게 어려 있는 독창과 합창《**김일성**대원수님 고맙습니다》, 녀독창《사진》, 녀중창《대원수님은 우리 궁전에 계셔요》, 무용《보고싶은 대원수님》등 종목들이 바뀔 때마다 장내에서는 박수갈채가 련이어 터져 올랐다.

체육무용《우리의 아버진 **김정일**원수님》, 장고와 노래《수령복 장군복 온 세상에 자랑해요》, 시와 이야기《사랑의 야영길》, 손풍금중주《장군님과 아이들》등의 종목들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충성동, 효자동으로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나는 우리 학생소년들의 긍지와 행복을 잘 보여 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청소년시절을 적극 따라 배워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항상 준비해 나가며 강성대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려는 우리 학생소년들의 굳은 결의를 보여 주는 남독창과 방창《욕심이 하늘 갈대요》, 3중창《우리집 토끼》, 무용《고속도로건설장 찾아 가요》등의 종목들도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공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참된 아들딸로 억세게 자라나는 우리 학생소년들의 밝고 씩씩한 모습을 훌륭히 보여 주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청년학생들의 무대 《수령님을 그리는 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5돐 청년학생들의 무대《수령님을 그리는 밤》이 7월 5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원동구부장 등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청년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은 서시《영원한 태양의 노래》로 시작되였다.

출연자들은 서시에서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 없는 그리움을 안고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진귀한 꽃을 고르고 골라 영생기원의 꽃바구니만을 엮어 온 5년은 수령님을 잃고 보낸 5년이 아니라 수령님과 함께 보낸 5년이라고 하면서 붉은기 휘날리는 **김일성**조선에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태양의 노래《**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울려 퍼질것이라고 격조높이 랑송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못 잊어 꿈결에도 그 품을 찾아가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마음이 담긴 노래가 련이어 합창으로 울리자 참가자들은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절세의 위인의 품속에 안겨 참된 삶과 행복을 누려 온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 없는 흠모의 정이 장내에 차넘치는 가운데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비서 최휘가 무대에 나와 어버이수령님께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청년들을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참신하고 전투적인 부대로, 사회발전을 힘 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력량으로 규정하시고 시종일관 청년중시의 정치를 실시하시였으며 새 세대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 주신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의 각별한 사랑속에서 시대의 영웅으로, 로력혁신자로 자라난 체험자들이 출연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청춘시절을 보람 있게 보내는 과정에 로력영웅들로 자라난 사회안전성 부원 한계옥, **김일성**고급당학교 학생 김관일 그리고 칠리탄광《차광수청년돌격대》대장 류승남의 이야기는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 주었다.

나어린 학생들이 그림을 잘 그리고 글을 잘 쓴다고 그처럼 기뻐 하시며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훌륭한 과학자가 되라고 축복도 해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을 가슴에 소중히 간직하고 오늘은 대학생으로, 연구사로 자라난 평양미술대학의 오은별, 주은희와 **김일성**종합대학의 20대박사 리관호를 비롯한 각계각층 청년들의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참가자들로 하여금 후대들을 위하여 바치신 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에 가슴 뜨거워 옴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출연자들은 한결같이 우리 민족사와 인류사에 영원히 빛날 경애하는 수령님의 한생은 조국과 혁명을 위한 위대한 혁명가의 성스러운 한생이였으며 후대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인간사랑의 력사였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혁명의 1세대로부터 새 세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모두를 따사로운 한품에 안아 걸음걸음 손 잡아 이끌어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빛나게 구현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 인민과 청년들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가장 긍지 높고 행복한 인민, 청년으로 되였으며 우리 조국의 앞날은 휘황찬란하다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혁명은 동지애의 력사로 시작되였으며 오늘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국땅우에 영원한 동지애의 력사가 흐르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대화시《동지애》가 랑송되였다.

출연자들은 노래《우리 수령님》,《세상에 부럼 없어라》,《혁명의 계주봉》, 합창시와 합창《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등 종목들을 련이어 무대에 펼치며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 있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이 땅우에 기어이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 놓기 위한 투쟁에서 앞서 나갈 청년전위들의 만만한 의지와 기개를 보여 주었다.

모임은 수령영생위업이 빛나게 실현되고 있는 이 땅에서 **김일성**조선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 나갈 참가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가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평양시 청소년학생들의 시와 노래모임들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평양시 청소년학생들이 시내 여러 혁명사적지들에서 덕성이야기모임, 웅변모임, 시와 노래모임 등을 진행하였다.

모임들에는 평양시당위원회 강현수책임비서, 평양시인민위원회 량만길위원장, 평양시청년동맹위원회 장용철1비서 등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모임들에서 출연자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 새 세대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위대한 사랑과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 불 타는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창덕학교에서 진행된 평양시학생소년들의 시와 노래모임참가자들은 먼저 학교에 모셔 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어버이수령님을 경모하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출연자들은 합창《대원수님은 우리 해님》, 독창《만수대언덕》등에서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아버지대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대원수님을 영원한 조선의 해님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어 갈 학생소년들의 뜨거운 충효의 마음을 노래하였다.

시《위대한 맹세》등에서 출연자들은 일찌기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조국광복의 원대한 뜻을 지니시고 20성상의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또한 이야기와 독창《제가 바로 그 학생이랍니다》, 실화무대와 합창《세상에 부럼 없어라》에 출연한 접견자들은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품속에서 우리 학생소년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누리며 자라난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출연자들은 또한 시《위대한 력사의 다섯해》, 독창《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 합창시와 합창《**김정일**장군님 위하여 항상준비》등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 5년간 이 땅우에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고《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의 진두에서 험로역경을 단신으로 헤쳐 오신 위대한 혁명실록에 대하여 노래하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지덕체로 받들어 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주체사상탑앞에서 진행된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시와 노래모임《수령님은 언제나 청년들과 함께》를 비롯하여 여러 모임들에서 출연자들은 지난 5년간은 우리 인민과 청년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것을 철석의 신념으로 새긴 성스러운 나날이였으며 수령영생위업의 새 시대가 펼쳐 진 빛나는 력사의 나날이였다고 강조하였다.

시《7월의 하늘아래서》, 웅변과 시《수령님은 영원히 청년들과 함께》등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영원한 인민의 태양으로 인민들과 청년들의 마음속에 영생하고 계신다고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출연자들은 또한 합창시《장군님 령도 따라 청년들

앞으로!》, 취주악과 합창《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를 비롯한 여러 종목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받들어 모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할 청년전위들의 철석 같은 신념과 의지를 힘 있게 보여 주었다.

경사로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평양시 학생청년들의 시와 노래모임 《조선아 너를 빛내리》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기념일을 맞으며 2월 12일 룡남산언덕에 모셔 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앞 교양마당에서 평양시 학생청년들의 시와 노래모임《조선아 너를 빛내리》가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원동구부장,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리일환1비서, 최기룡교육상 등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학생청년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은 서시와 합창《조선아 너를 빛내리》로 시작되였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라는 불 타는 맹세를 안으시고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때로부터 수십성상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과 혁명앞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해 솟는 룡남산마루에 서니
삼천리강산이 가슴에 안겨 온다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은 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
…

정일봉의 서리꽃이 활짝 피여 나고 쉰일곱번째의 봄우뢰가 강산을 진감하는 2월, 해 솟는 룡남산마루에 울려 퍼지는 노래《조선아 너를 빛내리》.

일찌기 우리 조국을 온 세상이 부러워 하는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일떠세우실 원대한 포부를 안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지으신 서정시《제일강산》을 읊고 와산동－룡성도로확장공사장에서 힘있게 울려 퍼지던 노래《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를 부르는 출연자들의 얼굴마다에는 백두의 기상을 안으시고 내 나라, 내 조국을 길이 빛내여 나가시는 천출위인을 높이 모신 청년전위들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무한한 행복감이 한껏 어려 있었다.

녀성중창《진달래》, 어은금병창《조국의 품》등 종목이 련이어 펼쳐 지는 속에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는 영광을 지녔던 출판지도국 리봉수국장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우리 대학생들을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한 견결한 혁명가로 키우시기 위해 걸음걸음 손 잡아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로고에 대한 그의 이야기는 참가자들의 가슴속에 깊은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이어 여러명의 학생청년들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부강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험준한 전선길과 공장길을 끝없이 걷고 걸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충성과 효성을 다해 나갈 자기들의 불 같은 결의를 피력하였다.

모임은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제일결사대, 제일근위병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로 준비해 나가는 청년전위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출연자들이 부르는《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의 노래로 끝났다.

전국학생소년궁전, 회관소조원들의 웅변 및 화술소품공연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기념일 경축 전국학생소년궁전, 회관소조원들의 웅변 및 화술소품공연이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되였다.

공연무대에는 각도, 시들에서 진행된 학생소년궁전과 회관소조원들의 경연에서 당선된 웅변 및 화술소품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며 혁명과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억세게 준비해 가는 우리 학생소년들의 행복한 모습과 충효심을 진실하게 잘 형상하였다.

평양학생소년궁전, 린산, 서흥학생소년회관 소조원들은 웅변《우리는 이긴다》,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 만세!》, 《우리 아버지》에서 만민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온 나라 가정의 자애로운 아버지로 높이 모신 끝 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격조높이 토로하면서 아버지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 학생소년들의 행복은 영원하고 강성대국의 미래는 찬란하다는것을 힘 있게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위하여 배우고 또 배워 지덕체를 갖춘 충효의 꽃송이로 활짝 피여 나려는 우리 학생소년들의 불 타는 결의는 함흥, 장연학생소년회관 소조원들이 출연하는 웅변《붉은 손》, 《5점과 나》에도 잘 반영되였다.

연탄, 함흥학생소년회관 소조원들의 대화시《장군님께서 아십니다》, 《웃음꽃》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끊임 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가시며 가슴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과 학생소년들의 다함 없는 감사와 만수축원의 마음을 감명깊게 보여 주었다.

인공지구위성《광명성1호》의 성과적발사로 온 세상에 과시된 우리 조국의 위력과 감자농사준비로 들끓는 현실을 동심에 맞게 잘 형상한 평성, 만경대학생소년회관 소조원들의 재담극《축하연》과 재담《감자 좋다》도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 주었다.

공연무대에는 이밖에도 신천, 원산학생소년회관 소조원들의 합창시《신천의 10월은 되풀이될수 없다》, 구연《뙈기논에 서린 원한》을 비롯한 계급교양주제 화술소품들과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앞날의 리수복형의 육탄영웅, 길영조형의 자폭용사로 자라날 학생소년들의 굳은 맹세가 담긴 화술소품들도 올랐다.

공연을 관람한 수도의 학생소년들은 앞으로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하며 사회정치활동과 좋은일하기를 더많이 함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의 충직한 아들딸로 억세게 자라나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 나갈 열의로 가슴 불 태웠다.

무산지구전투승리 60돐을 기념하여

청년학생들의 시, 노래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조직지휘하신 무산지구전투승리 60돐기념 청년학생들의 시, 노래모임이 5월 23일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였다.

량강도당위원회 리수길책임비서, 량강도인민위원회 리공필위원장,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박경철비서 등 관계부문 일군들, 전국각지의 모범적인 청년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장소에는《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항일혁명선렬들의 끝 없는 충성심을 본 받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자!》등의 구호가 세워 져 있었다.

모임참가자들은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국의 자유와 인민의 해방을 위한 항일대전의 그나날 신출귀몰하는 유격전법으로 강도 일제를 쳐부신 천출위인이시며 백두의 령장이신 **김일성**대원수님과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광복성전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정숙어머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잊지 못할 그날에 울려 퍼진 멸적의 총소리, 승리의 함성소리가 쟁쟁히 울려 오는 뜻 깊은 자리에서 출연자들은 시《불멸의 기념탑이여》를 읊었다.

출연자들은 지금으로부터 60년전 일제식민지통치의 악정밑에서 신음하던 조선인민에게 민족재생의 서광을 안겨 주며 전민항쟁의 결정적전환의 계기를 열어 놓으시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높이 울리신 대홍단의 총성은 일제의 악랄한 반동공세속에서도 조선인민혁명군이 더욱더 강대한 력량으로 자라나고 있음을 과시하였으며 우리 인민들을 반일투쟁에로 힘 있게 고무추동하였다고 하면서 무산지구전투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조국진군방침과 탁월한 령군술의 빛나는 결실이였다고 격조높이 지적하였다.

3인시《대홍단의 총소리》, 남성3중창《3대장군의 총》, 남성독창《적기가》, 시와 노래《사향가》등 여러 종목이 무대에 련이어 오르자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해 나갈 불 타는 열의에 넘쳐 있었다.

모임은 사회주의대건설장마다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쳐 나가는 청년전위들의 씩씩한 기백이 약동하는 합창시《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장군님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리라》가 울리면서 더욱 고조를 이루었다.

출연자들은 이 세상 천지가 열백번 변하고 그 어떤 모진 광풍이 휘몰아 쳐와도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김정일사상의 절대적인 숭배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며 자폭정신, 육탄정신을 체질화한 수령결사옹위의 제일근위병, 사회주의위업의 견결한 수호자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준비해갈 불 같은 맹세를 다지였다.

모임은 합창《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로 끝났다.

청년학생들의 항일혁명 군중무도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조직지휘하신 무산지구전투승리 60돐기념 청년학생들의 항일혁명군중무도회가 5월 23일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였다.

무도회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항일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여 가려는 불변의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안고 모여 온 청년학생들로 들끓고 있었다.

《김일성대원수 만만세》의 노래선률이 울려 퍼지자 청년학생들은 탁월하고 세련된 군사정치적령도로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강도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찾아 주시고 사회주의강국을 일떠 세워 주신 강철의 령장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 없는 경모와 사무치는 그리움의 정을 안고 서로 손을 잡고 원을 지으며 항일혁명군중무도회를 시작하였다.

잊지 못할 60년전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또다시 조국에 진군하여 원쑤격멸의 총성을 높이 울리였던 항일혁명선렬들의 승리의 개가인양《유격대행진곡》,《동무야 모여라》,《총동원가》등의 노래선률에 맞추어 청년학생들은 박력 있고 패기 있는 춤률동들을 련속 펼치여 갔다.

청춘의 열정과 기백이 한껏 넘치는 무도회참가자들속에는 5호물동가와 삼지연의 진달래, 청봉의 구호나무, 신사동의 귀틀집에 아로 새겨 진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적과 위인상을 되새겨 보며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언제 어디서나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해갈 충성의 맹세를 다지는 청년학생들과 당의 뜻 받들고 백두산 3대장군의 위대한 손길아래 개척되고 부흥하는 영광의 땅 대홍단군에 집단진출한 각지 녀성청년들도 있었다.

무도회장에《인민주권가》,《자유가》,《즐거운 무도곡》이 울려 퍼지자 청년학생들은 흥겨운 춤판을 더욱 넓혀 나갔다.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아래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마련해 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더욱 빛내여 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의 고마운 사회주의제도.

인민의 참다운 자유와 행복이 있고 혁명선렬들이 고귀한 생명과 피를 바쳐 지켜 온 소중한 그 품을 대를 이어 온 세상에 빛내여 갈 청년학생들의 혁명적열의가 어린《우리 장군님 제일이야》,《3대 자랑가》,《백두산에 오르자》의 노래선률이 끝없이 메아리치면서 무도회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성황을 이루었다.

청년학생들의 항일혁명군중무도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여 나가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강성대국건설에서 자랑찬 기적과 위훈을 세워 갈 우리 청년학생들의 혁명적신념과 전투적기상을 힘 있게 보여 주었다.

전승 46돐에 즈음하여

사회안전성군무자들의 전승음악회 진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46돐을 맞으며 전승음악회가 7월 26일 봉화예술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사회안전상인 조선인민군 차수 백학림동지와 사회안전성 책임일군들, 사회안전원들, 조선인민경비대 군인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취주악과 설화《우리의 7.27》로 막을 올린 음악회에서 출연자들은 가렬처절하였던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이 무비의 희생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며 부르던 전시가요들을 무대에 올렸다.

무대배경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모셔 지고 영생불멸의 혁명송가《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참가자들은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과 독창적인 전법들을 창조하시고 전화의 불비속을 헤치시며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을 전쟁승리에로 이끌어 오신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 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으로 가슴 들먹이였다.

이어 출연자들은 불 타는 고지에서와 후방에서 어버이수령님을 전승의 광장에 높이 모실 승리의 그날을 그리며 신심과 랑만에 넘쳐 부르던《조국보위의 노래》,《진군 또 진군》,《전호속의 나의 노래》,《직동령의 승리방아》등의 전시가요들을 취주악과 독창으로 형상하여 무대에 펼치였다.

인민군용사들을 원쑤격멸에로 힘 있게 부르던 전시가요들을 부르며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 주신 조국의 한치의 땅을 지키기 위해 생명도 청춘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1950년대 영웅전사들의 무비의 희생정신과 투쟁기풍을 가슴 뜨겁게 새기였다.

취주악《최고사령관기 날리며 승리를 떨치리》,《전선에서 전선에로》가 울리는 속에 무대배경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걸머지시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 가시며 우리 인민군대를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수호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영상이 모셔 졌다.

참가자들은 간고하고 시련에 찬 조선혁명의 준엄한 난국을 단신으로 헤쳐 나가시며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을 강성대국건설에로 힘 있게 이끌어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어버이수령님의 건군업적과 전승업적은 만대에 빛나고 사회주의조선의 위용이 만방에 자랑높이 과시되고 있음을 가슴 뜨겁게 절감하였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승의 날을 맞이한 50년대의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의 투쟁전통을 계승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 따라 승리의 길을 꿋꿋이 이어 갈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담긴 노래《총대로 받들리 우리의 강성대국》을 부르고《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를 힘 있게 주악하였다.

뜻 깊은 전승절을 경축하여 진행된 군무자들의 음악회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위대한 당과 영원히 운명을 함께 해나갈 사회안전성 군무자들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혁명적의지를 힘 있게 과시하였다.

전쟁참가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무대《백두의 령장을 모시여 우리는 언제나 승리한다》진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46돐경축 전쟁참가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무대《백두의 령장을 모시여 우리는 언제나 승리한다》가 7월 23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농근맹중앙위원회 승상섭위원장 등 관계부문 일군들, 전쟁로병들, 평양시내 농근맹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먼저 승상섭위원장이 경축연설을 하였다.

그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주체전법에 의하여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어버이수령님과 꼭 같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 하여 우리 인민과 인민군군인들은 제국주의자들과 세계반동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반사회주의고립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보위하여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원들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사회주의승리의 기치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지니고 장군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강성대국건설의 천하지대본인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어 무대에 시와 합창《김일성대원수 만만세》의 노래가 울려 퍼지자 참가자들은 한 세대에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을 만방에 떨쳐 주신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만고절세의 영웅이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 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으로 가슴 들먹이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령공을 지켜 내기 위한 싸움에서 인민군용사들이 발휘한 영웅적위훈을 자랑높이 전하는 공화국2중영웅 김기우의 전투담과 싸우는 전선에 더 많은 식량을 보내주기 위해 처녀보잡이로 이름 떨치였던 김락희의 실담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 주었다.

이어 무대에 나온 전쟁로병들과 예술소조원들은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 우리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이 신심과 용기에 넘쳐 포탄이 울부짖는 고지우에서, 후방에서 부르고 또 부르던《조국보위의 노래》,《샘물터에서》,《결전의 길로》,《싸우는 고지로 탄약 이고 어서 가자》등의 전시가요들을 힘 있게 불렀다.

시와 중창《조선의 장군》, 녀성5중창《그이 따라 나갈 때》, 혼성북제창《우리 장군님 높이 모시리》등의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무적필승의 백두령장이시며 천하제일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여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려 가는 우리 인민의 무한한 행복과 끝 없는 긍지, 장군님의 령도 따라 농업생산에서 앙양을 일으켜 나갈 농업근로자들의 불 타는 열의를 힘 있게 노래하였다.

시와 합창《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로 끝난 무대는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전시가요실화무대《승리의 노래 영원히 부르리》진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46돐경축 전시가요실화무대《승리의 노래 영원히 부르리》가 7월 22일 녀성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녀맹중앙위원회 천연옥위원장 등 녀맹일군들, 녀성전쟁로병들, 녀맹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합창《우리의 7.27》,《**김일성**대원수 만만세》로 시작된 실화무대에서 출연자들은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의 자유와 독립,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여 주시고 영원불멸할 혁명업적을 쌓아 올리신데 대하여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실화무대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녀성정찰병으로 위훈을 세운 최복남,《우리 간호원》, 고지의《찌꼴새》로 사랑을 받은 의용군출신 홍인숙, 통신병으로 복무한 림찬주, 전쟁시기 가수였던 공훈배우 김정복로병들의 가슴 뜨거운 실담이 이어 지는 속에 전화의 나날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에게 멸적의 투지와 승리의 신심을 안겨 준 전시가요들이 울려 퍼지였다.

무대에 펼쳐 진《조국보위의 노래》,《우리의 최고사령관》,《정찰병의 노래》,《전호속의 나의 노래》,《직동령의 승리방아》,《우리 님 영웅되셨네》등 전시가요들과《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비롯한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방송연설을 받들고 손에 총을 잡고 용약 전선으로 떨쳐 나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랑하는 조국의 촌토를 목숨으로 지켜 싸운데 대하여 뜨겁게 노래하였다.

또한 그들은 불비속에서 전시생산을 보장하였으며 싸우는 고지우에 탄약과 식량을 날라다 주면서 군대와 한덩어리가 되여 전쟁승리에 적극 기여한 후방인민들의 굴함 없는 투쟁에 대하여 참가자들이 긍지높이 돌이켜 보게 하였다.

출연자들은 중창《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에서 백두산의 장군,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여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승리와 영광만을 떨칠것이라는것을 힘 있게 보여 주었다.

전화의 나날을 감회깊이 추억하는 로병들도, 그들과 함께 못 잊을 노래들을 부르는 출연자들도, 참가자들도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여 미제를 쳐부시고 제2해방의 날을 맞이할수 있었음을 절감하면서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감으로써 이 땅우에 기어이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울 혁명적열의에 충만되여 있었다.

실화무대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김정일**장군의 노래》합창으로 끝났다.

뜻 깊은 6월 19일에 즈음하여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시와 노래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5돐경축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충성의 시와 노래모임이 6월 15일 당창건기념탑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중린동지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리일환1비서 등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청년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주시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난 35성상 혁명과 건설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참가자들이 가슴 뜨겁게 돌이켜 보는 가운데 모임은 서시《경애하는 장군님께 드리는 청년전위들의 충성의 노래》로 시작되였다.

출연자들은 서시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당의 탁월한 령도자로 높이 모시여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이 영원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되고 청년학생들이 혁명의 계주봉을 이어 받은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들로 억세게 자라난데 대하여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불면불휴의 령도로 당과 조국,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 올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여 갈 불 같은 마음을 피 끓는 청춘의 심장으로 토로하는 청년학생들…

20대의 젊으신 청년시절부터 장장 서른다섯해동안 빛나는 예지와 강철의 의지로 우리 당을 승리만을 떨치는 영광스러운 당으로 빛내여 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존함은 인민의 삶과 희망의 표대이며 인류의 승리와 미래의 상징이라고 높이 칭송하는 시《위대한 존함》을 읊고 노래《조선로동당 만세》,《로동당을 잘 만나 청춘이 빛나네》를 부르는 출연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우리 당의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뜨거운 경모의 정이 한껏 어려 있었다.

출연자들은 인민에게 꽃 피는 봄날만을 안겨 주시려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걸으신 자욱마다에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새장이 펼쳐 진다는 내용을 담은 시《장군님의 눈보라》를 랑송하였다.

혁명의 첫 걸음을 인민을 위해 옮기시고 그 길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걷고 또 걸으시는 우리 장군님께서 순간의 휴식도 없이 바치시는 크나큰 로고와 심혈이 가슴 뜨겁게 안겨 와 참가자들은 뜨거운 격정에 휩싸였다.

출연자들은 련이어 시와 노래《우리 안겨 사는 어머니당이여》, 노래《장군님 백마 타고 달리신다》,《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등의 종목을 펼치며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을 안고 영원히 장군님을 받들어 나갈 청년전위들의 굳은 의지를 힘 있게 보여 주었다.

모임은 장구한 기간 우리 당과 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령도하여 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결사옹위하며 장군님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 나갈 맹세를 안고 청년전위들이 부르는《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의 노래합창으로 끝났다.

학생소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5돐경축 평양학생소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이 6월 18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인 김일철동지, 최태복동지, 김국태동지, 김중린동지, 백학림동지, 리종산동지, 김윤혁동지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김영대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류미영위원장,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리일환1비서,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관현악과 합창《빛나라 6월의 해빛》, 경음악《축원의 꽃보라》, 독창과 대방창《아버지장군님 최고야》, 녀성독창《희망 넘쳐라 장군님 모신 앞날》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공연무대에 올린 학생들은 21세기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자애로운 아버지로 높이 모신 끝 없는 행복과 기쁨, 휘황한 미래에 대하여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공연무대들에서는 관현악《조선아 너를 빛내리》, 손풍금5중주《대동강의 해맞이》등 아버지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조국애가 어린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형상한 종목들과 혁명가극의 명곡들도 올라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위하여 지덕체를 갖춘 충효의 꽃송이로 활짝 피여 나려는 우리 학생소년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무용《학습이 첫째》, 남성5중창《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등 여러 종목에 담아 공연무대들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무용《꽃길에 모시리》, 민요제창《장군님 손길아래 강성대국 솟아요》, 합창시《우리모두 새겨 가자 서른다섯해》, 남성5중창《제일 센 장검》, 합창《영원히 장군님만 따르렵니다》등의 종목들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 나가시며 력사의 역풍을 맞받아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시는 아버지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학생소년들의 불 타는 충효심을 잘 형상하였다.

출연자들은 아버지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주체혁명의 길에서 나어린 소년근위대로 억세게 준비해 갈 학생소년들의 충성의 결의를 체육무용《우리도 높이 들자 혁명의 홰불》, 합창《**김정일**장군님 위하여 항상준비》등의 종목들에 잘 반영하였다.

태양을 따르는 꽃송이들마냥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을 위해 항상준비해 갈 학생소년들의 다함 없는 충효의 열정이 뜨겁게 굽이쳐 흐른 종합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공화국창건 51돐에 즈음하여

로동자예술소조종합공연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1돐경축 로동자예술소조종합공연이 9월 7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중린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직맹일군들과 평양시내 직맹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에 앞서 직총중앙위원회 렴순길위원장의 경축연설이 있었다.

이어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와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합창으로 경축공연이 시작되였다.

장중한 노래선률이 장내에 울려 퍼지자 관람자들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 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력사적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았다.

녀성중창《산업건국의 노래》, 남성독창과 녀성방창《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남성독창《태양의 노래는 영원하리라》등의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만고절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인민이 광복후 건국위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고 미제를 타승한 이 땅우에 재더미를 헤치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도 일떠세울수 있었다는것을 실감 있게 펼쳐 보이면서 수령님께서 조국과 혁명, 인민앞에 쌓아 올리신 업적은 강성부흥하는 **김일성**조선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라는것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출연자들은 또한 녀성3중창《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 남성중창《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경음악과 녀성5중창《우리 앞날 밝다》, 취주악과 남성중창《천리마대진군의 노래》를 비롯한 여러 종목들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유산으로 물려 주신 사회주의조국을 강성대국으로 건설하시기 위하여 눈비 내리는 멀고 험한 령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와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다그쳐 나가는 우리 로동계급의 투쟁모습과 불굴의 신념을 힘 있게 노래하였다.

시와 합창《무쇠마치》로 끝난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평양시 녀맹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1돐경축 평양시 녀맹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이 9월 7일 녀성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녀맹중앙위원회 천연옥위원장 등 관계부문 일군들, 녀맹일군들과 평양시내 녀맹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은 합창《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조선의 행운》으로 시작되였다.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 우리 공화국이 선포되던 력사의 그날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는 관중들의 얼굴마다에는 이 땅우에 가장 우월한 인민의 나라를 세워 주시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을 온 세계에 빛내여 주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 없는 경모의 정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장내에 뜨겁게 굽이치는 가운데 무대에는 대화시《영원한 9월》, 민요2중창《수령님 만고풍상 못 잊습니다》, 가무《삼색기》, 소합창《녀성의 노래》, 독창《사회주의락원일세》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펼쳐 졌다.

출연자들은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꼭 같은 권리를 안겨 주시였으며 온 나라 인민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려 가는 사회주의락원을 마련하여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힘 있게 노래하였다.

그들은 또한 녀성중창《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 북제창《수령복 인민복 꽃 핀 내 나라》, 기악과 노래《녀성은 꽃이라네》등 여러 종목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여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인민의 긍지와 영광,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드시고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를 지켜 주시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이룩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령도와 그 품속에서 꽃 피는 녀성들의 행복에 대하여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무대에 펼쳐 진 노래와 춤 《노래하세 조선의 장한 딸》은 관중들을 격동시키였다.

그들모두는 **김일성**민족의 정신과 기상을 세계에 과시한 세계《마라손녀왕》정성옥선수의 끝 없는 충성심을 따라 배워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억세게 떠밀며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 있게 다그침으로써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데 적극 기여할 불 타는 열의에 충만되여 있었다.

공연은 노래와 춤《위대한 내 나라》로 끝났다.

김정숙동지 서거 50돐에 즈음하여

직맹원들의 회고무대 《어머님의 영원한 미소》진행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서거 50돐 직맹원들의 회고무대《어머님의 영원한 미소》가 9월 21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중린동지와 관계

부문 일군들, 로력혁신자들, 직맹일군들과 직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합창《김정숙어머님 우리 어머님》으로 모임은 시작되였다.

먼저 무대에 나선 직총중앙위원회 렴순길위원장은 온 나라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때로부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가장 충직하게 받들어 오신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어머님의 빛나는 생애와 혁명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 보고 있다고 말하였다.

조선혁명의 년대기에 찬연히 아로 새겨 진 김정숙동지의 혁명업적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백두광명성을 안아 올리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굳건히 이어 놓으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려 가는 인민의 영광과 긍지는 끝이 없다고 격조높이 말하였다.

이어 항일혁명투사 리종산동지가 무송현성전투에 참가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우박치듯 날아 오는 적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말그대로 육탄이 되시여《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고 웨치시며 적들을 무자비하게 족쳐 버리시던 백두산호위장군의 숭고한 모습은 오늘도 잊을수 없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였다.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동지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광복후 경위대원으로 성장한 나날을 돌이켜 보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성새, 방패가 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담은 전동일의 시랑송과 남성중창《어머님은 붉은기와 함께 계시네》를 들으며 참가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 오신 혁명의 어머님처럼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해 갈 확고한 결의로 가슴 불 태웠다.

회고무대에서는 김정숙동지께서 신갈파를 비롯한 북부조선일대에서 벌리신 혁명활동에 대한 이야기와 광복후 인민경제 여러부문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들, 혁명가유자녀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키워 주고 내세워 주신 어머님의 크나큰 믿음과 배려에 대한 이야기들도 참가자들의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어버이수령님의 건국위업을 받드시고 공장들을 끊임없이 찾아 주신 김정숙동지께서 부령야금공장에서는 로동자들과 험한 일도 같이 하시며 공장이 나아갈 앞길도 밝혀 주시고 평양제사공장에서는 퉁퉁 부어 오른 단발머리처녀의 손을 보시고 가슴 아파 하시며 약을 꼭 바르고 자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으며 어려운 속에서도 합숙생들을 위한 아담한 건물도 마련해 주시고 포근한 담요와 식기까지도 보내주신 이야기, 부모를 잃은 한 녀성에게 자신의 군복까지 안겨 주시고 직맹일군으로 키워 주신 사실 등 가슴 뜨거운 체험자들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의 광복과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에 대한 다함 없는 경모의 정이 장내에 뜨겁게 굽이치는 속에 평양수지건재공장 초급직맹위원장 김진혁, 동평양화력발전소 로동자 리창주, 강동탄광 굴진공 손수연을 비롯한 직맹일군들과 세 세대 로동계급이 어머님께서 그토록 바라시고 념원하신대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해 나갈 피 끓는 맹세를 다지였다.

회고무대는《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의 취주악과 합창으로 끝났다.

청년전위들의 무대《어머님을 그리는 추억의 밤》진행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서거 50돐 청년전위들의 무대《어머님을 그리는 추억의 밤》이 9월 21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중린동지, 조선인민군 차수 김익현동지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 리일환1비서 등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청년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은 시와 합창《김정숙어머님 우리 어머님》으로 시작되였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김정숙동지의 생애는 어버이수령님을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모신 충성의 한생이며 태양의 해발이 되시여 수령님의 두리에 인민들을 굳게 묶어 세워 조국의 광복과 새 조국건설에로 떨쳐 나서도록 하신 빛나는 한생이였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미래의 태양으로 안아 키우신 영원불멸할 거룩한 한생이였다는것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장내에 혁명의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불러 일으키는 은은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자 참가자들은 항일의 녀성영웅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업적이 가슴 뜨겁게 새겨 져 크나큰 격정에 휩싸여 있었다.

이어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를 모시고 간고한 항일혈전의 불길속을 헤쳐 온 김혜순, 김익현, 박경숙 항일혁명투사들, 어머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 있는 여러 단위의 일군들인 김민섭, 길확실, 리혜숙, 리금별, 박경훈 등이 그이의 고귀한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 온 나라의 수천만 아들딸들의 깊은 추억과 뜨거운 숭배심을 담고 이야기를 펼치였다.

그들은 혁명의 어머니라는 한없이 숭고한 부름속에 김정숙동지의 위인상과 공적이 집약되여 있고 누구도 대신할수 없고 오를수 없는 항일의 녀성영웅의 특출한 지위와 권위가 있으며 영원히 혁명의 붉은기와 함께 계시는 어머님의 영생의 모습이 있다고 하

면서 어머님의 거룩한 한생과 더불어 길이 빛날 력사적인 사실들에 대하여 감동 깊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불멸의 투쟁업적은 세기에 세기를 이어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뜨겁게 간직되여 있을것이며 주체혁명위업의 년대기우에 별처럼 빛나는 혁명생애를 아로 새기신 백두녀장군은 강성부흥하는 **김일성**조국과 더불어 영생하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녀성독창과 합창《녀전사의 노래》, 무용《조선아 다시 안아 보자》, 남성독창과 합창《전사의 념원》, 독창과 무용《정일봉의 자장가소리》, 남성중창《어머님은 붉은기와 함께 계시네》등 종목들이 무대에 펼쳐 져 참가자들로 하여금 어머님에 대한 한 없는 그리움에 더욱 차 넘치게 하였다.

참가자들모두가 백두의 기상 안고 억세게 전진하는 우리 혁명과 더불어 별처럼 찬란히 빛나는 어머님의 한생에 대하여 감회 깊게 돌이켜 보는 가운데 합창시《어머님의 높은 뜻 빛내여 가자》가 랑송되였다.

우리 혁명의 가장 간고한 시기에 수령옹위의 기발, 애국, 애족, 애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한생을 빛내이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시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

출연자들은 어머님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 혁명의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하며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청년전위들의 불 타는 마음을 힘 있게 노래하였다.

수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 없는 충실성으로 하여, 민족과 시대앞에 쌓아 올리신 고귀한 업적으로 하여 영원히 공산주의혁명가의 귀감으로 빛나시는 혁명의 어머니를 그리는 청년전위들의 무대는《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의 노래합창으로 끝났다.

경사로운 10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직맹원들의 경축무대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돐과 조선로동당창건 54돐 직맹원들의 경축무대가 10월 8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중린동지와 시안의 직맹일군들, 로력혁신자들, 직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직총중앙위원회 렴순길위원장의 경축연설이 있었다.

연설자는 지금으로부터 2년전인 주체86(1997)년 10월 8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전당, 전군, 전민의 한결 같은 념원과 의사에 의하여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과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지난 35성상 우리 당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하지 않는 주체형의 혁명적당,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전당, 전군, 전민을 이끄시여 당과 군민의 철통 같은 일심단결을 이룩하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정세속에서 위대한 선군령도로 원쑤들의 온갖 도전과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이 땅우에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력사적전변의 새 시대를 펼쳐 놓으시고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세기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출연하는 경축무대가 펼쳐 졌다.

불멸의 혁명송가《**김정일**장군의 노래》와 《조선로동당 만세》의 합창으로 시작된 무대에는 녀성민요독창 《수령님 만고풍상 못 잊습니다》를 비롯한 음악련곡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주체의 혁명적당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광복직후 지체없이 당을 창건하시여 당과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 오심으로써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을 강위력한 향도적력량으로, 백전백승의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업적에 대하여 힘 있게 노래하였다.

대화시《해돋이》, 남성독창《장군님은 전초선에 계시네》, 웅변《어머니당》, 녀성소합창《인민의 소원입니다》등의 종목들을 통하여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시여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 당복을 누려 가는 우리 인민의 끝 없는 긍지와 자부심, 어버이장군님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우리 로동계급이 온갖 행복을 다

누려 가며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여 온 보람찬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았다.

모임장소에 고마운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칭송의 찬가가 끝없이 울려 퍼지는속에 무대에 나온 중구공공건물건설사업소 직맹위원장 리경언, 애국편직물공장 직맹위원장 강옥순,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로동자 리붉은, 평양기관차대 기관사 박일은 우리의 운명이시고 조국과 민족의 수호자이시며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싸워 나가는 위대한 **김정일**사상의 절대적인 숭배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며 강성대국건설의 핵심부대답게 정성옥선수의 충성심과 투쟁정신을 따라 배워 높은 생산적앙양과 끊임 없는 대고조로 우리 당을 받들어 나갈 불 타는 결의를 피력하였다.

경축무대는 시와 합창《높이 들자 붉은기》로 끝났다.

평양시 학생소년들의 취주악대행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돐과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54돐을 경축하는 평양시 학생소년들의 취주악대행진이 10월 7일에 진행되였다.

이날 평양시안의 5,000여명의 학생소년들이 당마크를 형상한 장식물들과 당의 령도 따라 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갈 우리 인민의 억센 기상을 보여 주는 선전화들 그리고《만수축원》,《강성대국》,《결사옹위》등의 구호판들, 당기, 공화국기, 붉은기, 소년단기를 들고 행진이 시작되는 **김일성**광장으로 모여 들었다.

관계부문 일군들, 청년동맹일군들이 대행진모임에 참가하였다.

평양시청년동맹위원회 최용남비서의 발언이 있은 다음 대행진참가자들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취주악에 맞추어 힘차게 합창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 만세!》,《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등의 힘찬 구호와 노래를 부르며 취주악대행진을 시작하였다.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취주악에 맞추어 힘차게 행진해 나가는 학생소년들의 얼굴마다에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하여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 주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일편단심 충성을 다해 나가며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억세게 준비해 나갈 철석의 맹세가 비껴 있었다.

대행진참가자들은《**김정일**장군님을 위하여 항상 준비》,《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높이 들자 붉은기》,《청년동맹후비대는 준비되였다》등의 취주악들을 연주하며 발걸음높이 개선문, 당창건기념탑, 주체사상탑, 평양체육관, 평양역방향으로 보무당당히 행진해 나갔다.

수도의 거리거리를 힘찬 취주악소리로 진감시키며 씩씩하게 행진해 나간 평양시내 학생소년들의 취주악대행진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충직한 충성동, 효자동으로 억세게 자라나는 학생소년들의 밝고 랑만에 찬 모습을 힘 있게 보여 주었다.

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종합공연 진행

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종합공연이 10월 27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인 김영남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 김윤혁동지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김영대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류미영위원장, 변영립교육상, 관계부문 일군들, 교육, 문화, 보건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 학생청년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무대에는 합창《높이 모셨죠 아버지장군님》,《보고 싶은 대원수님》, 녀중창《장군님 전선길 가고 가서요》를 비롯한 많은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종목들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나라의《왕》으로 내세워 주시고 이 세상 모든 행복을 안겨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세상에 부럼없이 무럭무럭 자라는 온 나라 꽃봉오리들의 행복한 모습을 감명 깊게 펼쳐 보였다.

출연자들은 또한 무용《민속놀이 좋아요》, 노래이야기《영수의 글읽기》, 남중창《영남이가 만든 바람개비》등의 종목들에서 은혜로운 태양의 품속에서 희망의 나래를 활짝 펴고 앞날의 주인공으로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의 밝고 명랑한 동심세계를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공연무대에는 또한 조국의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친 공화국영웅 정성옥선수처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억세게 받드는 훌륭한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해 나가는 우리 어린이들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 주는 남성독창《우리 누나 제일 좋아요》, 독창과 방창《우리 집 토끼》, 교예무용《우리도 꼬마해병》등의 종목들이 올랐다.

공연은 합창《아버지장군님 만수무강하세요》로 끝났다.

공연이 끝나자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이 무대에 올라 가 어린이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해 주었다.

12월의 경사의 날에 즈음하여

전국녀맹예술소조종합공연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추대되신 8돐과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탄생 82돐기념 전국녀맹예술소조종합공연이 12월 22일 녀성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중린동지와 녀맹중앙위원회 천연옥위원장 등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녀맹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합창《축원의 꽃보라》,《진달래》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빛나는 생애를 노래한 시와 노래, 기악 등 다채로운 종목들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 따라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이 땅우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고 있는 우리 인민들과 녀성들의 락천적이며 보람찬 생활을 보여 주는 예술종목들이 올랐다.

설화와 노래《대사하 그 언덕에 우리가 산다》, 기악중주《도천리의 5월단오》, 노래이야기《어머님을 닮으렵니다》등의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충직한 친위전사가 되시여 수령님의 안녕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집행하신 김정숙어머님의 고매한 풍모를 적극 따라 배워가는 우리 녀성들의 철석 같은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잘 보여 주었다.

출연자들은 노래이야기《소금꽃》, 가무《자강땅의 자랑일세》,《강원땅에 벼이삭 설레이네》, 시와 중창《장군님과 아이들》, 시와 이야기《량림땅의 새 전설》등에서 끊임 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령도풍모에 대하여 가슴 뜨겁게 전하면서 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의 행복도 있고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도 약속되여 있다는것을 힘 있게 노래하였다.

공연무대에는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강성대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억세게 떠밀며 신심 드높이 나아가는 우리 녀성들의 밝고 락천적인 생활모습을 보여 주는 기타와 중창《녀성은 꽃이라네》, 3중창《갱막장에 울리는 칼장단소리》, 북과 합창《우리는 천리마 타고 달린다》, 합창《미래를 안고 살자》등의 종목들이 올랐다.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충성의 노래모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추대되신 8돐과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탄생 82돐기념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충성의 노래모임이 12월 24일 평양시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리일환1비서, 평양시인민위원회 량만길위원장 등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 청년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온 나라에 필승의 기상이 나래치고 강성대국건설의 진군가가 힘 있게 울려 퍼지고 있는 시기에 뜻 깊은 날을 맞이한 청년학생들은 다채로운 종목들로 노래모임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노래와 춤《축원의 꽃보라》, 선동과 정론재담《탄생일에 비낀 천기》등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 주고 빛내여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영광과 행복에 대하여 노래하였다.

출연자들은 눈보라 사나운 험산준령과 바람 세찬 전선길을 걷고 걸으시며 위대한 선군령도로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에 대하여 되새겨 보게 하는 3인시《장군님의 눈보라》, 손풍금6중주를 위한 관현악과 합창《정일봉의 우뢰소리》, 남성2중창과 합창《위대한 내 나라》등 종목들을 련이어 펼치였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무비의 담력, 강철의 의지와 령활무쌍한 지략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리는 한 없는 기쁨과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동지에 대한 다함 없는 경모의 정이 무대에 차넘치는속에 출연자들은 설화와 녀성3중창《고향집추억》, 무대선동《위대한 신념의 총소리》등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백두의 기상 안고 억세게 전진하는 우리 혁명과 더불어 별처럼 찬란히 빛나는 어머님의 한생을 칭송하는 설화와 남성중창《어머님은 붉은기와 함께 계시네》, 송시와 합창《나의 어머니》등이 울려 퍼지자 참가자들은 항일의 녀성영웅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업적이 가슴 뜨겁게 새겨 져 커다란 격정에 휩싸여 있었다.

탁월한 군사의 영재이시며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대, 돌격대로 억세게 싸워 나갈 청년전위들의 불 타는 맹세를 안고 출연자들이 부르는 민요5중창《우리 힘 당할 자 없네》, 남성독창과 합창《전사의 념원》이 힘 있게 울려 퍼지며 더욱 고조를 띤 모임은 합창《높이 들자 붉은기》로 끝났다.

전국청년동맹초급단체 예술소품공연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추대되신 8돐과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탄생 82돐을 맞으며 전국 청년동맹초급단체예술소품공연이 12월 22일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청년동맹일군들과 시내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끝 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 나는 가운데 진행된 공연무대에는 북제창《우리 장군님 높이 모시리》, 시와 노래《장군님 찬 눈길 걷지 마시라》, 3인시《크나큰 믿음》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노래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한생을 충성과 위훈으로 수 놓아 오신 항일의 녀성영웅에 대한 한 없는 그리움이 담긴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설화와 노래《조국도 빛나리 청춘도 빛나리》, 합창시《충성의 맹세》, 설화시와 합창《혁명의 계주봉》, 남성4중창《우리는 강성대국건설의 돌격대》, 합창《**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가》 등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에서 청춘의 위훈을 자랑스럽게 떨쳐 갈 청년전위들의 불 타는 맹세와 의지를 잘 보여 주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탄생 105돐에 즈음하여 청년학생들의 시랑송모임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탄생 105돐기념 청년학생들의 시랑송모임이 7월 9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원동구부장 등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서시《위대한 생애》로 시작된 모임에서 출연자들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한평생은 나라와 인민을 위한 사랑의 한평생, 혁명의 대를 이어 주신 위대한 한평생이며 억년 드놀지 않는 민족의 대, 애국의 대를 세워 주신 성스러운 한생이라는데 대하여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출연자들은 또한 3인시《푸른 소나무》에서 모진 비바람, 눈보라 휘몰아쳐 와도 굴함없이 서 있는 푸른 소나무의 기상을 지니시고 빼앗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력사의 새벽길을 헤치시며 투쟁을 벌리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남산의 푸른 소나무와 더불어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 내린 영원한 조선의 기상, 조선의 정신에 대하여 힘 있게 강조하였다.

모임장소에 뼈가 부서지고 몸이 찢겨 가루가 되여도 대를 이어 싸워 반드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시려는 김형직선생님의 그날의 굳센 신념과 의지가 세차게 맥박치는속에 노래《남산의 푸른 소나무》가 울리자 참가자들은 혁명가는 어디가나 항상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을 3대각오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고 하시며 정력적인 혁명활동을 벌리신 선생님의 고결한 풍모에 대하여 되새겨 보았다.

독시《지원》, 3인시《민중의 벗》에서 출연자들은 가는 앞길 험난하고 억사철사로 몸은 묶이였어도 기어이 조국광복을 실현할 큰 뜻을 품으시고 수천수만리길을 걸으시며 동지들을 규합하시고 군중계몽활동을 벌리시며 평범한 사람들을 나라와 민족을 아는 애국자로, 투사로 키워 주신 선생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하여 감동깊이 전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몸소 지으신 노래《명신학교교가》,《전진가》를 들으며 참가자들은 일찌기 혁명의 미래육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모든것을 다 바치신 선생님의 크나큰 로고에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하였다.

5인시《수령을 키우신 위대한 품》에서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키우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버님으로부터 물려 받으신《지원》의 높은 뜻과 3대각오, 동지획득에 대한 사상, 두자루의 권총으로 피어린 항일대전을 벌리시여 찾아 주신 사회주의조국에서 혁명의 계승자로 씩씩하게 자라나는 우리 청년학생들의 한 없는 긍지와 행복상을 자랑스럽게 펼쳐 보였다.

모임은 김형직선생님의《지원》의 뜻 어려 있

고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려 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필승의 신념이 어려 있는 혁명의 붉은기를 더욱 높이 추켜 들고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에서 앞장서 나갈 청년전위들의 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출연자들이 부르는 시와 합창《높이 들자 붉은기》로 끝났다.

청년절기념 공연, 야회 진행

전국각지의 청년들이 8월 28일 청년절을 뜻 깊게 기념하였다.

이날 청년중앙회관에서는 청년중앙예술선전대 종합공연이 진행되였다.

합창《**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가》로 공연의 막을 올린 출연자들은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의 승리의 상징이시며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높이 칭송하고 그이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 청년전위들의 불 타는 충성의 마음을 담은 다채로운 종목들로 무대를 장식하였다.

출연자들은 녀성민요제창《노래하세 친근한 인민의 장군》, 합창《청년들은 우리 당의 자랑이라네》, 무용《당의 뜻 받들어 갑자꽃 피웠네》를 비롯한 종목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살며 일하는 끝 없는 행복과 당이 부르는 사회주의대건설의 어렵고 힘든 초소들에 남 먼저 달려 가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잘 형상하였다.

청년절의 하루해가 저물자 수도와 지방의 도시들에서는 청춘들의 흥겨운 야회가 진행되였다.

평양시 청년학생들은 주체사상탑, 당창건기념탑, 3대혁명전시관, 4.25문화회관, 평양체육관앞마당을 비롯한 시내 여러 장소들에서,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에 동원된 청년돌격대원들은 건설장에서 환희에 넘친 춤바다를 펼쳐 놓았다.

야회에 참가한 청년들의 가슴은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이으시여 청년들을 나라와 민족의 꽃으로, 사회의 가장 활력 있는 부대로 귀중히 여기시고 내세워 주시며 청년중시의 위대한 력사를 펼쳐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 없는 감사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 번지였다.

《친애하는 그이는 우리와 함께》,《청년동맹 800만은 총폭탄이다》,《청춘과 용감성》등의 노래선률에 맞추어 박력 있는 춤률동을 펼쳐 가는 야회참가자들속에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요부문들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 있는 청년로력혁신자들의 믿음직한 모습들이 보이였다.

《청년절원무곡》,《조국도 빛나리 청춘도 빛나리》,《로동당을 잘 만나 청춘이 빛나네》등 흥겹고 랑만에 넘친 노래선률이 련이어 울려 퍼지는 야회장들마다에는 당의 뜻을 받드는 한길에서 충성으로 빛나는 위훈의 별이 될 청춘남녀들의 굳센 의지와 기상이 힘 있게 맥박쳤다.

평양시 학생소년들의 축하공연 진행

온 나라 인민이 민족의 장한 딸, 조선이 낳은 세계적인《마라손녀왕》을 맞이하여 환희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9월 6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는 정성옥선수를 환영하는 평양시 학생소년들의 축하공연이 진행되였다.

우리 민족사에 처음 있은 대경사에 접한 그때로부터 크나큰 기쁨과 격정에 넘쳐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온 평양시안의 학생소년들이 궁전앞거리에 떨쳐나와 백두령장의 슬하에서 키워 온 필승의 신념과 완강한 투지로 세계무대에서 **김일성**조국의 기상을 힘 있게 과시한 정성옥선수를 뜨겁게 맞이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리일환1비서등 관계부문 일군들, 압록강체육선수단 선수들, 시내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정성옥선수와 가족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은 축하서시로 시작되였다.

이어 무대에는 노래와 춤《축하합니다》, 손풍금중주《환영한다 정성옥》, 남성5중창《우리 조선 이겼다》를 비롯하여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자라나 세계《마라손녀왕》의 영예를 지닌 정성옥선수는 **김일성**조국의 자랑이라고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그 이름도 빛나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며 폭양이 쏟아 지는 이역의 100여리 길을 달리고 달린 정성옥선수가 발휘한 불굴의 투쟁정신이 있었기에 위대한 령장을 모신 오늘의 조선이 또 한차례의《위성》을 발사한것과 같은 쾌거를 이룩할수 있었다고 긍지에 넘쳐 노래를 부르는 출연자들.

출연자들은 련이어 남성독창《희망 넘쳐라 장군님 모신 앞날》, 민요제창《정다운 그 품이 우린 좋아요》, 녀성중창《나의 조국 정다운 품아》, 체육무용《우리도 높이 들자 혁명의 홰불》을 무대에 펼치였다.

출연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당과 수령을 받드는 전사는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영웅적인 실천행동으로 보여 준 정성옥선수를 열렬히 축하하면서 그가 지닌 높은 충성심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적극 따라 배워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만방에 떨쳐 나갈것을 관람자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 주었다.

현상모집, 경연심사결과

전국군중문학작품현상모집 심사결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진행된 전국군중문학작품현상모집에 대한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모임이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김병훈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군들과 당선자들, 평양시내 문학통신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이번 현상모집에서 우수한 문학작품을 창작한 당선자들에게 상장과 상품이 수여되였다.

또한 단편소설《륜리》(리준호작), 시초《조국과 병사》(김광민작), 동화《잃어 버렸던 이름》(문명일작)을 훌륭하게 창작한 문학통신원들에게《6월 4일문학상》이 수여되였다.

모임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이번에 진행된 전국군중문학작품현상모집에서 당선된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 소설부문

—장편소설

3등 **《영원한 불길》** 오광철
평양연극영화대학 학생

—단편소설

1등 **《륜리》** 리준호
김형직사범대학 학생

〃 **《형제봉의 새벽노을》** 김성희
평안남도 순천구두공장 로동자

2등 **《그가 부른 노래》** 송출언
개성시 장풍군 장풍읍

3등 **《우리 세대》** 김홍철
평안남도 인평청년광산 로동자

〃 **《락관》** 김철호
평안남도 은산군 천성탄광 로동자

《오늘》 김홍균
함경북도 어랑군 련결농기계공장 로동자

〃 **《사랑은 연분이 아니다》** 송영금
평양시 만경대구역송배전소 로동자

〃 **《자기 구간》** 엄 석
평양주철관공장 로동자

〃 **《태양은 여기서 먼저 뜬다》** 주강별
중앙악기연구소 로동자

〃 **《아침노을》** 차수봉
조선작가동맹 강원도위원회 로동자

〃 **《기관차는 달린다》** 현명수
평양시 만경대렌트겐공장 로동자

〃 **《래일은 오늘부터 시작된다》** 임창학
평안북도 곽산군 천태협동농장 농장원

〃 **《망해봉》** 김순영
강원도 원산시 신풍진료소 간호원

〃 **《작업총화》** 리명순
평양종합방직공장 로동자

3등 **《밝은 얼굴》** 조상철
함경남도 금야군 안동협동농장 농장원

〃 **《한식솔》** 박경철
평안북도 피현군 정산협동농장 농장원

〃 **《푸른 하늘아래 흰 눈세계》** 엄선용
함경북도 청진예술대학 교원

〃 **《고향의 민들레》** 리순호
평안북도 염주군 신정협동농장 농장원

〃 **《숲의 노래》** 조권일
김일성종합대학 박사원생

〃 **《보지 못한 편지》** 김은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 **《꽃할머니》** 리봉재
황해북도 은파군 로동자

〃 **《별 하나 나 하나》** 리종곤
황해남도 옹진군 사곳경로동직장 로동자

가작

〃 **《축구의 매력》** 윤승림
자강도 강계시 류동 31인민반

〃 **《임오년의 들국화》** 윤기룡
함경남도 금야군 덕산협동농장 농장원

—수필

3등 **《아름다운 밤》** 전명식
황해북도 수안군 대각광산 로동자

〃 **《우리의 웃음》** 조재화
평양연극영화대학 학생

△ 평론

3등 **《청춘의 품》** 백위영
자강도 강계제1사범대학 어문학부

△ 시부문

—서정서사시

3등 **《우리 아버지》** 한채경
평안남도 덕천시 신흥동 28인민반

—시초

1등 **《시련과 녀인》** 렴형미
함경북도예술단 작가

〃 **《조국과 병사》** 김광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 **《우리는 시로 말하며 산다》**
모원혁, 김성희
남포시 천리마구역 천진동

2등 **《통일은 해빛 안고 오고 있다》** 주경
강원도 문천시 도로보수관리대 로동자

〃 **《신천의 메아리》** 림선영
김형직사범대학 학생

〃 **《애국렬사릉 시초》** 권오준
당원돌격대 남포시련대 로동자

3등 **《조국이여 마음껏 설계하시라》**
집체작
성동규동무가 일하는 기업소 문학소조

〃 **《내 사랑 벼이삭들아》** 박창근
황해남도 신천군 월성협동농장 농장원

〃 **《나는 아버지를 자랑한다》** 림은숙
조선로동당 강원도위원회 로동자

〃 **《어머니찬가》** 도명희
자강도 희천시 갈골동

〃 **《포성 없는 결전장에 우리가 서 있다》** 리명철
평양시 동대원영예군인공장 로동자

—서정시

1등 **《그 울음 달래여 주시리》** 전선희
과학원 물리학연구소 로동자

2등 **《대홍단의 사계절》** 정룡택
량강도 대홍단군 대홍단읍

〃 **《하늘가의 작은 창문》** 김옥화
남포시 남포항 부두1대 로동자

2등 《나는 숲에 산다》함강철
평안남도 대동군산림경영소 로동자

3등 《어머니의 손을 잡아 봅니다》리미옥
함경남도 신흥군 원료기지사업소 로동자

〃 《꽃과 이삭》리옥석
함경남도 정평군 독산협동농장 농장원

〃 《어머니에게》장은하
조선인민군 군인

〃 《붉은기가 내리워 진 하늘의 소녀야》
최원찬 신흥화학련합기업소 사무원

〃 《어머니당에》박혁
강원도 통천군 군산협동농장 농장원

〃 《아들이 철들면》신동필
강원도 천내군 로운협동농장 농장원

〃 《승리자로 추억하리》박순옥
함경남도 고원군 동흥협동농장 농장원

〃 《나는 웃으며 산다》김인철
남포시 강서구역 전진동

〃 《울가, 웃을가》김윤걸
평양시 형제산구역 상당영화관 로동자

〃 《방풍림이여 너처럼》오상철
조선작가동맹 량강도위원회 로동자

〃 《병사와 꼬마들》박영진
조선인민경비대 군인

〃 《만수대언덕을 내리며》전재훈
함경남도 금야군 긴재협동농장 농장원

〃 《용해공의 웃음》김재연
성진제강련합기업소 로동자

〃 《병사의 땀이여》리철수
조선인민군 군인

〃 《나의 출근길》장순화
함경북도 도시설계사업소 로동자

〃 《밤하늘의 별들과 하는 말》라성국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 《이해의 이삭이 무거운것은》차종수
함경북도 온성군 학생소년회관 작가

〃 《임자 없는 모닥불》진동화
개성자전거공장 로동자

〃 《그 나이에 우리는 락동강을 넘었다》
김정삼 청진제강련합기업소 로동자

〃 《보금자리》리진협
함경북도 북청군 상세동리

〃 《우리를 살리는 자력갱생》김영숙
평안북도 박천견직공장 로동자

〃 《어머니의 당부》리정녀
평양시 모란봉구역 비파 1동

〃 《기쁜 가을》권승호
함경남도 금야군 삼봉협동농장 농장원

3등 《오솔길에서 만난 이야기》류길성
황해남도 은천군 량담협동농장 농장원

〃 《어머니 이삭이 패였어요》손미경
황해남도 송화군 화학공장 로동자

〃 《내 마음은 언제나 그이곁에》
리명수 평양시 대동강구역 동문 1동

〃 《꽃보라》리태식
평양시 강동군

〃 《즐거운 저녁》리종원
황해북도 수안군 좌위협동농장 농장원

〃 《후대들의 추억속에》오혜성
조선인민군부대 종업원

〃 《계절보다 먼저》리문철
평안북도 정주시 고현협동농장 농장원

〃 《피 붉은 바위앞에서》리상도
평안북도 개천시 서남협동농장 농장원

〃 《축복》정일향
평양종합인쇄공장 로동자

〃 《어머님의 단발머리》서명옥
개성시인민병원 로동자

〃 《고향의 샘》김명철
조선인민군 군인

〃 《병사들과 종소리》최길호
내각사무국 로동자

〃 《정방산의 일만경치》김호중
조선작가동맹 황해북도위원회 사무원

〃 《병사는 약속을 어디 두고 사는가》
박춘남 강원도 원산시 락수리 1반

〃 《배낭이 곱대요》신금순
황해북도 은파군 산림경영소 로동자

〃 《나는 고향도시를 사랑한다》유춘애
남흥화학련합기업소 로동자

〃 《나에게도 붓이 있다》김태룡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 《내 여기에 서 있으리》류영국
함경남도 룡성기계련합총국 사무원

〃 《청춘은 추억에 살지 않는다》김정경
자강도 시중군 천장협동농장 농장원

〃 《너의 머리우에 비둘기가 난다》
김봉남 평안남도 북창군 관하로동자구

〃 《오직 장군님의 믿음 안고》리광춘
자강도 희천시 인민병원

-가사

1등 《우리에게 옵니다》김영옥
과학기술통보사

2등 《신천과 병사》리명일
황해남도 재령군 재령읍

〃 《수령님 다시 뵙는 날》최향실
평양시 만경대공작기계공장 로동자

2등 《영웅과 이야기하네》정예남
황해남도 재령군 재령읍

3등 《모교의 종소리》차형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평양시위원회

〃 《나를 반겨 문을 여네》김용식
평양미림강재가공공장 로동자

〃 《내 고향의 동구길》김일철
락원기계련합기업소 로동자

〃 《내 마음》김순녀
평안북도 신의주시 채하동

〃 《사회주의는 승리의 길》성순영
조선인민군부대 종업원

〃 《김매기 어서 하세》김성호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 《붉은기 더높이 청년들아 앞으로》
전현철 평양시 락랑종이공장 로동자

〃 《나는야 속삭였네》박종덕
평안남도 은산군 량정사업소 로동자

〃 《향기》리치한
남포시 서해해운회사 로동자

△ 아동문학부문

-단편소설

1등 《땀방울》김성국 평안남도 증산군
증산제1고등중학교 교원

2등 《힘차게 걸어라》김성숙
평양시 순안구역체신소 로동자

3등 《야영소식》김정혁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자

〃 《아는 아이》김영식
평양시설건설사업소 로동자

〃 《한식솔》최영호
평양시 모란봉공원관리소 로동자

〃 《내 고향의 꽃》김학연 평안북도
곽산군 국영장도간석지농장 로동자

〃 《우린 형제》김원석
평양시 만경대구역 금성 2동

〃 《편지》김기범
평양시 양각고등중학교 교원

〃 《별들이 웃는다》임순희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작가

가작 《장수골소녀》김순희
평안북도 신의주시 민포동

-지능소설

3등 《비결》장의복
김형직사범대학 학생

-동화

1등 《잃어 버렸던 이름》문명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2등 《따뜻한 목수건》홍신원
강원도 천내군 금성협동농장 농장원

3등 《남손이가 얻은 보물》김봉화
황해남도 해주시 룡궁고등중학교 교원

〃 《조롱박》김명철
강원도 법동군 어유협동농장 농장원

〃 《백화동의 청자기》리순기
강원도 천내군 풍전고등중학교 교원

〃 《홍일이가 갔던 세상》조광철
평안남도 문덕군 만흥협동농장

가작 《벽보에서 나온 아이》고명근
황해남도 송화군 명례협동농장 농장원

-우화

2등 《승냥이의 청혼》윤옥
고려전자출판물사 로동자

〃 《싸움을 말렸던 곰》리경애
함경북도 은덕군 안길협동농장 농장원

3등 《길손과 그림자》안경운
함경북도 길주군 평륙협동농장 농장원

〃 《약을 발라 주던 승냥이》홍병호
평양시 사동피복공장 로동자

〃 《검은 염소》김동만
함경북도 청진자동차부속품공장 로동자

〃 《박제품이 된 멍멍이》민춘화
평양시 모란봉구역 인흥고등중학교 교원

-동시초

1등 《북천의 새 노래》최용숙
평양고등교육도서인쇄공장 로동자

2등 《총 쥔 아이들》라인철
조선인민군 군인

3등 《명당소년이 부르는 노래》김영수
평양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자

〃 《물음표 지팽이》곽대남 황해남도
은천군 편의봉사사업소 로동자

가작 《장군님 마중 가자》김금희
보건성 로동자

-동시

1등 《1등 그림》최윤철
김형직사범대학 학생

3등 《나는 신천소년》박정순
평양시 만경대구역 축전2동

〃 《우리 언니 편지》김정심
평성사범대학 학생

〃 《5점열병식》한일형
함흥학생소년회관

〃 《내 고향도 대홍단》고정철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로동자

〃 《쇠물이 좋아》위진향
교육성 유치원지도국 작가

〃 《아버지의 군복》조성심
황해남도 과일군 률리협동농장 농장원

〃 《대홍단》윤창도
조선인민군부대 종업원

〃 《바다의 꽃》김희
김형직사범대학 학생

가작 《피 묻은 열성자표식》우광영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동요

2등 《별마중 가자》최성희
황해남도 청단군 학생소년회관 부원

3등 《큰 북 친다야》안성옥 남포시 천리
마구역 고창협동농장 농장원

가작 《감자산이 둥실》박화선
황해북도 송림시 도서관 사서

-유년동요

3등 《돌아 가자요》리향숙 평양시 만경
대구역 축전고등중학교 교원

-유년가사

3등 《구월산단풍》박명철
황해남도 은천군 소년회관

△ 희곡부문

-장막희곡

1등 《숨결》남원경
32화학건설사업소 부원

3등 《새 세기의 모습》리정웅
황해남도 조옥희해주교원대학 교원

〃 《자기를 증명하라》방홍만
평양연극영화대학 학생

-단막희곡

2등 《다시 세운 좌우명》최향심
만경대피복공장 기능공학교 학생

3등 《삶의 뿌리》리우선
조선인민경비대 군인

〃 《아버지의 믿음》김철호
평양시 모란봉구역 장현동

〃 《첫 발명》박봉석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로동자

〃 《기자가 온 날》리순화
평양시 상원군 상원읍 로동자

〃 《탄원》리종식
평양시 동대원구역 동신 1동

〃 《로병연구사》최일선
만경대사적지 유희장관리소 부원

〃 《봉산처녀》한룡호
평양시 대동강구역 동문2동

〃 《세월은 흘러》강승철
평양영화기계공장 로동자

〃 《본분》김명철
평안남도 은산군 룡흥구

〃 《구현령의 기적소리》현호철
철도성 개천철도관리국 부원

〃 《빛나는 별》김백송
강선산업건설사업소 문화회관 관장

〃 《내 고향의 달밤》송창건
자강도 만포시 건상리

〃 《젊음을 자랑하라》정성남
평안남도 장안탄광 로동자

〃 《높은 령마루》허광철
황해남도 청단군 신흥로동자구

〃 《돌려 세울수 없다》리성남
원산시 5.16건설사업소 로동자

-촌극

3등 《우리의 정신》김희섭
평양연극영화대학 학생

〃 《벼락 맞는 날》한영희
개성시 대덕산협동농장 부원

-텔레비죤극

3등 《꽃을 가꾸시라》고정옥
황해북도 수안군 상덕리

태양절기념 전국영화문학 및 텔레비존문학작품 현상모집 심사결과

조선영화문학창작사에서 태양절기념 전국영화문학 및 텔레비존문학작품현상모집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선된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장편영화문학

2등《평범한 날에》최성주
함경북도 길주읍
〃 《용서하시라》김순애
남포항 로동자
〃 《가는 길 험난해도》리종대
황해남도 벽성군 백운협동농장 농장원
〃 《분조는 한가정》백성렬
함경남도 정평군 문창협동농장 농장원
〃 《복무자는 대답한다》한순남
평안북도 구장군 구장읍협동농장 농장원
〃 《철옹성》정기건 조선인민군 군관
〃 《전방군의소장》김수일
평양시 모란봉구역 북새동
〃 《미안해요 아저씨》박영호
량강도 영화보급관리처 부원
〃 《계수나무》김림호
평안북도 염주군 서림리
〃 《바다의 처녀들》강락천
평안남도 곽산군 영천고등중학교 교원
〃 《기억하는 얼굴》김성철
평양시 강동군 문안고등중학교 교원
〃 《심장을 바쳐 가자》정일룡
평성사범대학 로동자
〃 《청악산의 주인》원학수
강원도보안국 로동자

3등《새겨 지는 모습》리영실
함경남도 홍원군 운포로동자구
〃 《성문이 열린다》황옥련
함경북도 화대군 석성협동농장 농장원
〃 《무쇠주먹》김백송
남포시 천리마구역 포구동
〃 《병사의 나이》전호철
단천영예군인공장 로동자
〃 《꽃바다》김영기
함경남도 고원군 황송고등중학교 교원
〃 《전사의 모습》장계련
구성시 학생소년회관 작가
〃 《맏형의 심정》백근원 조선인민군 군관
3등 《우리 중대》서연재 조선인민군 군관
〃 《육탄》박성룡 조선인민군 군관
〃 《다시 돌아 온 아들》유광렬
조선인민군 사관
〃 《잊을수 없는 모습》최두일(〃)
〃 《녀성대위》김성진 조선인민군 병사
〃 《흑막속의 사건》최광찬
인민보안성 병사
〃 《그대의 자욱을 남기라》권승희
청진시 신암구역 편의관리소 로동자
〃 《미래를 축복한다》김우
평안북도 구성시 역전동
〃 《녀자축구선수들》우경일 체육출판사 기자
〃 《불을 끝까지 지피라》마영호
함경북도 김책시 동흥협동농장 농장원
〃 《산천에 무지개 비낀다》김명옥
강계고등물리전문학교 로동자
〃 《준엄한 봄》백인봉
평성시 자산고등중학교 교원
〃 《나를 따라 앞으로》김명수
남포시 항구구역 해안동
〃 《별빛》안영길
함경남도 정평군 다호협동농장 농장원
〃 《전사의 아버지》정영옥
평안남도 평성시 주례동
〃 《성실성》강충진
무산광산련합기업소 로동자
〃 《땅을 사랑하라》장혁주
과학원 전자재료연구소 로동자
〃 《맑은 물》리영애
평안남도 북창군 북창읍
〃 《사랑하시라》김창식
서평양베아링공장 로동자
〃 《후방가족》리홍식 강원일보사 부장
〃 《황금의 시절》안대현 농업성 부원
〃 《내 삶의 한생》박창선
평안남도 개천시 준혁리
〃 《파도소리》김성전
라진-선봉시 유현리
〃 《참된 보호자》심영택
평양시 평천구역 평천1동
3등 《은반우에 핀 꽃》안광렬
함경남도 정평군 식료종합수매소 로동자
〃 《불 타는 청춘》김명희
대안구역 충성동
〃 《마지막사람》최성훈
황해북도 서흥군 락촌협동농장 농장원

△ 중편영화문학

2등《화약》리경명 신창탄광 도서실 사서
〃 《깊은 마음》강제활
량강도 혜산시 장안협동농장 부원
〃 《나의 상관》최익수 조선인민군 군관
〃 《시작점》전상경 (〃)
〃 《내 한생의 맹세》유경희
함경남도 단천시 광천동
〃 《행복을 지키는 처녀》윤해국
황해남도 신천군 명석협동농장 농장원
〃 《전선》채봉금
평안남도 맹산군 은포협동농장 농장원

3등《렬차에서 만난 사람》유병기
평안남도 순천시 금사동
〃 《키 큰 처녀》류정숙 8호제강소 로동자
〃 《마차들은 전선으로》김의훈
2.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자
〃 《붉은 땅》권영삼 조선인민군 사관
〃 《두 녀병사》강영준 조선인민군 군관
〃 《병사의 보람》리영민 조선인민군 사관
〃 《임무》김광철 조선인민군 병사
〃 《삶의 좌표》전광철 (〃)
〃 《평양소년》리정범
사리원시 동리고등중학교 학생
〃 《구보로》박석
함경북도 화성군 룡반협동농장 농장원

△ 단편영화문학

2등《보통》신지호 생기령광산 로동자
〃 《한사람때문에》강희숙

평양학용품공장 로동자
2등 《이른 새벽에》리영호
조선인민경비대 사관
3등《수술합시다》박성혁
평양시송변전종합기업소 로동자
〃 《전야의 영각소리》최민
강원도 천내군 구포협동농장 농장원
〃 《선 보는 날》오남희
신의주청년역 안내원
〃 《우등사수의 뉘우침》김정걸
황해북도 영화보급관리처 부원
〃 《가는 사람 오는 사람》김남희
평양모란봉제1고등중학교 학생

△ 텔레비죤문학

2등《제일강산》(다부작) 안금성
원산의학대학 교원
2등 《이 땅에서 산다》(다부작) 함춘단
함경남도 신포시체신소 로동자
〃 《노을속에 비낀 삶》김용범
함흥시 회상구역 세거리동
3등《그 청년을 알기까지》김구문
사리원 수문지질탐사대 로동자
〃 《합금은 녹이 쓸지 않는다》(다부작)
최광영 8호제강소 로동자
〃 《다시 쓴 평정서》(다부작) 김정률
인민보안성 군관
〃 《곡마단의 어리광대》조순남
황해남도 옹진군 장송수산협동조합 로동자
〃 《따뜻한 바다》(다부작) 신혁
평양토성고등중학교 학생
〃 《룡산리에 봄이 온다.》(다부작)
김옥희 개성시 개풍군 룡산협동농장 농장원

△ 장편영화문학 가작

《나의 청춘시절》김성훈
원산시 룡천협동농장 농장원
〃 《진정》리명수 자강도 회천시 역평동
〃 《피는 바꿀수 없다》김철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로동자

△ 중편영화문학 가작

〃 《병사의 편지》 엄기천 인민보안성 사관
〃 《행복》박성
함경북도 화성군 룡반협동농장 농장원
〃 《심장의 열도》우순봉 8호제강소 로동자

《4.15충성의 만경대창작상》 전국청년학생 문예작품현상모집 심사결과

《4.15충성의 만경대창작상》전국청년학생 문예작품현상모집 심사결과가 발표되였다.

현상모집에는 소설, 시, 가사, 수필, 단상, 실화문학 등 여러가지 형식의 작품들이 투고되였다. 이번 현상모집에서는 단편소설《숨결》, 가사《병사는 맹세 다졌네》, 수필《영웅들이 태여나는 집》, 실화《신념과 의지의 결정체》등이 우수하게 평가된것을 비롯하여 500여편의 작품들이 당선되였다.

현상모집은 각지 청년학생들속에서 문학작품창작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재능 있는 시인, 작가후비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현상모집 심사결과발표모임에서는 당선자들에게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표창장이 수여되였다.

또한 사리원시 경암제1고등중학교 교원 김상녀와 평양남산고등중학교 교원 리금녀에게 공훈교원칭호가 그리고 20여명의 교원들과 일군들에게 훈장과 메달이 수여되였다.

전국 영화 및 텔레비죤, 아동영화문학작품 현상모집 심사결과

조선로동당창건 54돐을 맞으며 조선영화문학창작사와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에서는 전국 영화 및 텔레비죤, 아동영화문학작품 현상모집사업을 진행하고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선된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 장편영화문학

2등《웃으며 가는 사람들》유병기
순천시 금산동
2등 《우리는 간다》김순애 남포항 로동자
〃 《소경음악가》강히덕
봉산모피가공공장 로동자
2등 《땀방울》안영길
정평군 다호협동농장 농장원
〃 《우물은 마르지 않는다》류희봉

조선인민군 4.25예술영화촬영소 로동자
2등 《돌아 올 권리》강락천
곽산군 제1고등중학교 교원
〃 《순결한 땅》윤영복
함경남도예술선전대 지휘자
〃 《붉게 피는 꽃》김백송
천리마구역 포구동
《신혼부부》김철심
평양연극영화대학 학생
3등 《이어 지는 생》채봉금
맹산군 은포협동농장 농장원
(이외 25편)
가작《우리 어머니》전남순
청진시 신암구역영화보급소 로동자
(이외 7편)

△ 중편영화문학
2등 《오늘에 비낀 량심》김성환
문천시 가평동
〃 《옥은 녹쓸지 않는다》백광수
안악군 강산협동농장 농장원
〃 《전사의 의리》정영옥
평성시 주례동
〃 《생보다 소중한것》홍일룡
조선인민군 군관
2등 《인생의 마무리》배운봉
해주시 구제동
〃 《돛을 올려라》배웅국
문천시 삼동리
3등 《청춘시절》박동현
온성군 산성로동자구
(이외 6편)
가작 《진출자들》진일훈
김책수산사업소 로동자
(이외 6편)

△단편영화문학
2등 《기회만 노리던 청년》김봉수
조선인민군 군관
〃 《새끼오리》리영호
조선인민경비대 병사
〃 《첫 자리》리명수 회천시 역평동
〃 《바쁜것은 토끼요》김봉철 원산시 탑동
3등 《지름길》김성건 조선인민군 군관
(이외 3편)
가작《명사수의 비결》김영식
조선인민군 군관
(이외 3편)

△텔레비죤문학
2등 《한식술》한진실
압록강류벌사업소 로동자
〃 《한가정의 잔치》고상두
신의주청년객화차대 부원
3등 《공격수의 아들》장원식
문평제련소 로동자
(이외 3편)

△아동영화문학
2등 《꿀꿀이의 뉘우침》오명철
제11화력발전소건설사업소 로동자
〃 《거만해 진 코끼리의 신세》김봉수
장연군인민위원회 사무원
〃 《낚시코》김영기
고원군 황송고등중학교 교원
〃 《나무에 걸린 풍선》김영길 평양시
교수강습 및 학생답사견학소 지도
교원
〃 《슬기로운 소년》우경일
체육출판사 기자
3등《깡충이가 받은 새집》김춘원
함주군 신경고등중학교 교원
(이외 13편)

전국희곡작품현상모집 심사결과

조선로동당창건 54돐을 계기로 진행된 전국희곡작품현상모집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희곡
-장막
2등 《두 지배인》정영철
순천화력발전소 기동예술선동대 대장
3등 《녀장군》현정준
개천시 룡암동
-중막
3등 《주체철》김형찬
황해북도예술단 작가
〃 《료양소에 온 청년》정진
태천군 건재공장 로동자
〃 《첫 불길》석도욱
평안남도예술단 작가
-단막
1등 《네번째 술잔》 김영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2등 《저녁노을》유형길, 리만수
영광군 삼흥협동농장 농장원
영광군 홍봉리 진료소 의사
〃 《정도 깊어 사랑도 깊어》리명학
철산군 리화협동농장 농장원
2등 《추운 날》김영길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3등 《기쁨》리광식
함흥철도국 함흥기관차대 로동자
〃 《첫 경기종목》김성심
안악군 월정협동농장 농장원
〃 《삶의 보람》박종호 룡천군 읍
〃 《입대보증》한영림
천리마구역 강선협동농장 농장원
〃 《내가 사랑하는 처녀》문희석
조선인민군 사관
〃 《제자의 도리》지윤세
김종태해주제1사범대학 학부장
〃 《맹세》리성복
강서구역 문화회관 관장
가작 《주인》권오준
당원돌격대 남포시련대 부원
〃 《분노》리철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가작 《방목공의 기쁨》리영도
덕천시 삼탄동

△극소품
-촌극
2등 《선생님의 가정방문》림동기
공업종합출판사 로동자
3등 《선 보는 날》리은택
신창탄광 로동자
-아동극
2등 《보물열쇠》김금해
평양인형극단 배우
-텔레비죤극
○ 다부작
1등 《삶의 좌표》김성균
금야군 상중협동농장 농장원
2등 《그대들 없다면》조남근
함흥시 성천강구역 신흥2동
3등 《잎은 뿌리를 덮는다》민경훈
천리마제강소 로동자

○ 단부작
2등 《그는 방위자의 딸이였다》정훈
구성시 청룡리
3등 《맑은 물이 흐른다》한영팔
9월 28일공장 로동자
3등 《순결한 량심》정천록
요덕군 의약품관리소 김정원
가작 《전선을 넘어 온 녀자》리공대
벽성군 백은협동농장 농장원
가작 《에돌지 말라》조정심
6월1일청년전기기구공장 로동자

군중문학예술부문 소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강계지구로동자예술소조종합공연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강계지구로동자예술소조종합공연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강계지구로동자예술소조원들은 이번에 또다시 자강도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지난해 현지지도에서 주신 전투적과업관철에서 이룩한 성과와 충성의 결의를 담은 예술소품들을 보여 드리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보시고 로동계급의 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이들에게 감사를 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이 6월 17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연형묵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예술소조종합공연 출연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연형묵동지가 전달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강도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사업을 현지지도해 주시고 소박한 로동자예술소조종합공연을 보아 주신것은 우리 로동계급과 공연참가자들에 대한 높은 정치적평가로 되며 여기에는 군중문화예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전체 인민들이 락관의 정신을 가지고 락원의 행군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갈것을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 져 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해 여러 차례 자강땅을 찾아주시고 인민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돌려 주신 은정만도 고마운데 올해에 또다시 찾아 오시여 도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 주시였으니 그이의 품속에 안겨 살며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은 끝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충성을 다하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며 행복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이 세상 끝까지 모시고 따르며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 힘차게 부르면서 강계정신을 더높이 발휘하여 중소형발전소건설을 질적으로 하고 공장, 기업소의 생산을 정상화하며 누에고치생산과 감자농사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군중문화예술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황해남도내 여러 녀맹조직들에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동을 활발히 벌려 녀성들과 근로자들의 교양사업과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다그치기 위한 들끓는 분위기를 세우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는 황해남도녀맹위원회와 옹진군, 신천군, 은률군 녀맹위원회와 가두녀맹합

창대들에 감사를 보내시였다.

황해남도녀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녀맹조직들에서 많은 녀맹원들이 참가하는 합창공연과 예술선전대활동을 벌리기 위한 사업을 면밀히 짜고 들었으며 시기별, 계기별로 이에 대한 경연을 조직하였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칭송한 노래들, 전시가요 등 다채로운 곡목들로 조직된 합창공연은 녀성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우리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으며 이 땅우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울 충성의 맹세를 더욱 굳게 다지게 하였다.

옹진군녀맹위원회에서는 읍가두녀맹원 1000여명을 망라하는 합창대를 무어 군안의 여러 단위들과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나가 수십차례의 공연을 진행하였다.

은률군녀맹위원회와 은률광산 초급녀맹위원회에서는 수백명의 광부안해들로 합창대를 조직하고 광산,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공연하도록 함으로써 대중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에로 고무하였다.

신천군녀맹위원회에서도 수백명의 녀맹원들로 합창대를 뭇고 근로자들과 신천박물관 참관자들을 대상으로 예술선전활동을 진행하여 그들의 가슴속에 원쑤들에 대한 불 타는 증오심을 심어 주고 계급적 근본을 잊지 말고 맡은바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가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이 11월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였다.

모임들에는 관계부문 일군들, 녀맹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오늘의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의 의도에 맞게 군중문화예술활동을 더 잘 벌려 도안의 녀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시대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불굴의 투쟁정신을 따라 배워 강성대국건설에 더욱 힘 있게 떨쳐 나서도록 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을 근로자들의 가슴속에 깊이 안겨주기 위한 주제의 노래와 춤을 더많이 준비하여 예술선동을 진행함으로써 그들이 **김일성**민족의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인민의 락원으로 더 훌륭히 꾸려 나가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맹세문과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여러 단위들에 문화기재들을 보내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승리자동차종합공장과 대홍단군종합농장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 등 여러 단위들에 문화기재들을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문화기재들을 전달하는 모임이 각각 진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모범적인 청년분조, 청년작업반들에 보내신 문화기재전달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35돐을 맞으며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강동군 향목협동농장 청년담배작업반, 순천시 리수복청년협동농장 청년담배작업반, 운산군 좌리협동농장 청년분조, 룡림군 남상협동농장 청년축산작업반, 선봉군종합농장경영위원회 백학농장청년분조,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청년작업반, 순안농장 청년작업반에 문화기재들을 보내시였다.

농촌에 집단진출한 청년들을 우리 시대 청년들의 모범으로 내세워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과 숭고한 사랑을 가슴깊이 새긴 이들은 지난 기간 당의 농촌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이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회주의농촌건설자로 믿음직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3중모범청년분조(작업반)》의 영예를 지니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문화기재들을 전달하는 모임이 2월 24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리일환1비서 등 관계부문 일군들, 농업부문 청년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문화기재들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모임에서는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 있는 시기에 은정 깊은 배려를 받아 안은데 대하여 지적하고 여기에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청년들이 돌격대가 될것을 바라시는 장군님의 크나큰 기대가 담겨 져 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원들이 《**김정일**시대를 빛내이는 보람찬 투쟁에서 청년영웅이 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앞장에서 쌀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고 강성대국을 담보하는 참된 충신, 열렬한 애국자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 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문화기재들을 더 잘 관리하고 그 리용을 잘해 나가며 군중문화예술,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집단안에 언제나 혁명적랑만과 청춘의 기백이 차넘치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룡문대굴관리소에 보내신 문화기재전달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룡문대굴관리소에 보내신 문화기재를 전달하는 모임이 6월 2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평안북도당위원회 김평해책임비서, 관계부문 일군들, 룡문대굴관리소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문화기재들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번에 자기들의 관리소에 은정어린 문화기재들을 보내주신데는 지하명승 룡문대굴을 원상대로 영구보존하며 세계적인 관광지로,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더 잘 꾸릴것을 바라시는 그이의 깊은 의도가 담겨 져 있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뜨거운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는것은 자기들의 신성한 의무라고 하면서 그들은 당의 뜨거운 은정이 깃든 룡문대굴을 더 잘 관리운영하며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금성제1고등중학교에 보내신 교육문화기재 전달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금성제1고등중학교에 교육문화기재들을 보내시였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교육교양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유서 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 가까이에 금성제1고등중학교를 훌륭히 일떠세워 주시고 학교가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 주시였으며 지난 기간 근 40차례에 걸쳐 학생들의 교수교양사업과 문화적소양을 높이는데 필요한 수많은 교육설비들과 교육문화기재들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또다시 예술인후비양성사업에 필요한 교육문화기재들을 보내주시는 은정 깊은 사랑과 배려를 돌려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교육문화기재들을 전달하는 모임이 6월 4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중린동지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리일환1비서 등 관계부문 일군들, 학교 교직원, 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교육문화기재들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모임에서는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보내주신 교육문화기재들에는 학교학생들이 주체예술의 앞날을 떠 메고 나갈 재능 있는 예술인후비로 더 훌륭히 자라날것을 바라시는 크나큰 기대와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 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돌려 주시는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는것은 자기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세월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그이의 사랑과 믿음을 영원히 잊지 않고 장군님께 충성을 다해 나감으로써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김일성**조선의 아들딸로 억세게 자라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교직원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와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 새 세대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에 끝없이 충실한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키워 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승리자동차종합공장에 보내신 문화기재전달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승리자동차종합공

장에 보내주신 문화기재들을 전달하는 모임이 8월 5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평안남도당위원회 리길송책임비서 등 관계부문 일군들, 공장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문화기재들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동차공업을 주체적으로 더욱 발전시키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였으며 오늘은 또다시 공장의 로동계급이 혁명적신념과 락관에 넘쳐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문화기재들을 보내주시는 은정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격에 넘쳐 말하였다.

지금 승리자동차종합공장 전체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 없는 감사의 정을 안고 그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할 한마음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고 그들은 지적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이 깃든 문화기재들을 가지고 군중문화사업과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활발히 벌려 전투장마다에서 혁명의 노래, 투쟁의 북소리가 힘 있게 울려 퍼지게 하며 로동계급의 문화가 활짝 꽃 펴나게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해 12월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제시하신 전투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더욱 다그쳐 현대적인 자동차를 더많이 생산함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사적간부학교에 보내신 교육 및 문화기재전달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사적간부학교에 보내주신 교육 및 문화기재들을 전달하는 모임이 9월 2일 혜산시에서 진행되였다.

량강도당위원회 김길성비서 등 관계부문 일군들과 학교 교직원, 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교육 및 문화기재들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만대에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서 혁명사적간부학교의 중요성과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학교를 내오도록 하시였으며 학교사업을 언제나 따뜻이 손 잡아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학교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또다시 학생들의 교육교양에 필요한 교육 및 문화기재들을 배려하여 주신것은 자기들에 대한 더 없는 사랑과 믿음의 표시로 된다고 그들은 지적하였다.

그들은 받아 안은 사랑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는것은 혁명전사들의 도리이라고 하면서 학교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학교의 교직원, 학생들이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하기 위하여 교수교양사업과 학습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교육 및 문화기재들을 소중히 보존관리하고 교수교양에 널리 리용하면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해 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홍단군종합농장에 보내신 문화기재전달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홍단군종합농장에 문화기재들을 보내시였다.

북방의 머나먼 대홍단군을 거듭 찾으시여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을 지펴 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백두삼천리벌에 뿌리 내린 제대군인청년들과 녀성청년들의 문화정서생활까지 깊이 헤아리시고 문화기재들을 보내주시는 은정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홍단군종합농장에 보내신 문화기재들을 전달하는 모임이 10월 8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관계부문 일군들, 대홍단군종합농장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문화기재들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성대국건설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그처럼 바쁘신속에서도 자기들의 농장에 수많은 문화기재들을 보내주신것은 감자농사에서 전환을 일으키며 백두삼천리벌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꾸릴것을 바라시는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언제나 심장깊이 간직하고 대홍단기풍을 더높이 발휘하며 정성옥영웅의 불 타는 충성심과 불굴의 투쟁

정신을 따라 배워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 있는 백두대지에 세세년년 감자대풍의 력사를 펼치여 갈 굳은 결의를 피력하였다.

당면하여 알심히 가꾼 감자를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 들이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벌릴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이 깃들어 있는 문화기재들을 더 잘 애호관리하고 효과있게 리용함으로써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광명성제염소에 보내신 문화기재전달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광명성제염소에 문화기재들을 보내시였다.

동해안에 제염공업을 창설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손 잡아 이끄시여 갈대만 무성하던 금야만의 바다가에 소금생산기지를 일떠세워 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10월 광명성제염소를 찾으시여《고난의 행군》시기에 방대한 대규모의 소금밭을 건설해 놓은것은 로동당시대에 기록할만 한 자랑찬 성과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제염소를 운영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 주신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문화기재들을 보내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문화기재들을 전달하는 모임이 11월 10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함경남도당위원회 리태남책임비서, 함경남도인민위원회 김풍기위원장 등 관계부문 일군들, 광명성제염소 종업원들, 건설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문화기재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랑림군과 강계시 상업관리소에 보내신 문화기재전달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랑림군과 강계시상업관리소에 문화기재들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인 뜻 깊은 이해 자강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 가시며 농업생산과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였으며 또다시 문화기재들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랑림군과 강계시상업관리소에 보내신 문화기재들을 전달하는 모임이 12월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모암들에는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연형묵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이곳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문화기재들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모임들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아동문학상》첫 시상식 진행

작가후비양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잡지《아동문학》의《우리 교실》글짓기란에 작품을 발표한 우수한 학생들에게《아동문학상》을 수여하도록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시상식을 평양에서 진행하는 기회에 글짓기소조원들의 시내견학을 조직하여 그들의 시야을 넓혀 주고 다양한 주제의 생동한 글작품들을 더많이 쓰도록 따뜻한 사랑도 베풀어 주시였다.

《아동문학상》첫 시상모임이 5월 8일 문학예술종합출판사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관계부문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 전국의《아동문학상》입선자들과 그들의 지도교원, 학부형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보고에 이어 잡지《아동문학》의《우리 교실》글짓기란에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발표한 학생들에게《아동문학상》이 수여되였다.

《아동문학상》수상작품과 학생들은 다음과 같다.

△ 우화

《줄당콩과 덕대》최진혁(신의주시 청송고등중학교 학생)
《놓쳐 버린 잉어》궁철호(해주시 룡당고등중학교 학생)
《포악한 승냥이》림충일(강남군 고읍고등중학교 학생)
《알룩고양이의 뉘우침》리창봉(전천군 리만고등중학교 학생)
《청개구리가 찾은 교훈》김홍철(양덕군 구상고등중학교 학생)

△ 동요

《메아리》리영철(해주시 룡당고등중학교 학생)
《초침소리》리정심(〃)
《기차놀이》오영국(〃)
《왕재산의 꽃단풍》리영일(온성군 남인인민학교 학생)
《할아버지의 훈장》강은옥(신의주시 개혁고등중학교 학생)
《눈속에서 나왔지》리성혁(순천시 서남고등중학교 학생)
《대원수님동상을 찾아》박향미(평원군 화진고등중학교 학생)
《제일 큰 학교》한혜성(평양시 축전고등중학교 학생)
《빨리 크면 좋겠네》김동현(사리원시 구천고등중학교 학생)
《울음 뚝 그쳤죠》한남호(순천시 봉두고등중학교 학생)
《봄꽃 폈어요》김은희(청단군 화산고등중학교 학생)
《하늘나라 축하》안순옥(〃)
《별들이 반짝》오정남(〃)
《어서 크려마》빅춘금(〃)
《오가산의 하얀 안개》함별(전천군 장자강고등중학교 학생)
《잊을수 없어요》김성심(평양시 건국고등중학교 학생)
《빛나는 은수저》김미경(경성군 대항고등중학교 학생)
《너구리 신호수》리명진(신포시 오매고등중학교 학생)
《척척박사》리경숙 (문덕군 동림고등중학교 학생)
《설날아》리귀남(만경대혁명학원 학생)
《눈길행군》윤례영(평양시 장원고등중학교 학생)
《축복의 눈이 내려요》정은섭(평양시 개선고등중학교 학생)
《돌고 돈대요》구은옥(사리원시 동리고등중학교 학생)
《눈꽃송이 되고파》최봉숙(삼천군 룡천고등중학교 학생)
《멍멍아》리새별(〃)
《봉화리 배나무》김경일(강동군 수정천고등중학교 학생)
《빨간 딸기》김정화(금호지구 강상고등중학교 학생)
《우리 집 룡마》정림(평양시 성북인민학교 학생)
《내가 쓰는 수지연필》김영해(평양시 장충고등중학교 학생)
《애기나무야》김향미(청단군 청단고등중학교 학생)
《빨간 눈동자》우향미(평양시 성안인민학교 학생)

△ 동시

《우리들의 마음이죠》한혁(해주시 룡당고등중학교학생)
《커만 가지요》오은혜(〃)
《춤 추는 분수》김금명(〃)
《쌍둥이》리주혁(〃)
《자매섬의 종소리》손철범(〃)
《춤 추며 노래해요》임영빈(〃)
《웃음꽃이야》박정실(신의주시 남중고등중학교 학생)
《반짝별》김은경(신의주시 백사인민학교 학생)
《백두산의 아침노을》함명진(신의주 근화고등중학교 학생)
《다래향기》김연희(은률군 은률고등중학교 학생)
《웃음꽃 피는 집》민금철(신천군 동룡고등중학교 학생)
《꼬끼요》렴옥별(평양시 해운고등중학교 학생)
《불 타는 노을》리혜숙(개천시 광산고등중학교학생)
《진달래》박은영(평양시 충효고등중학교 학생)
《영생탑의 조약돌아》리경주(사리원시 상하고등중학교 학생)
《나의 마음》김순남(선천군 부현인민학교 학생)
《뽐내지 말아》장국현(평양시 중신고등중학교 학생)
《봄바람아》김은주(장연군 명천고등중학교 학생)
《우리 마을》박영명(곡산군 고성고등중학교 학생)
《영광의 우리 학교》최원(평양제4인민학교 학생)
《식지 않은 난로》차설미(평양제4인민학교학생)
《연필총은 진짜총》강정건(〃)
《둥근 달아》최무송(〃)
《매미야 울지 말아》오향옥(〃)
《큰 부채》원성해(〃)
《포도송이》김영란(〃)
《빛나는 메달》김은향(〃)
《장자산의 고운 새야》조철옥(송화군 수중고등중학교 학생)
《꽃주단 되여 주렴》김명남(대동군 장산고등중학교 학생)
《나는 평양의 아들》김평산(장연군 장연고등중학교 학생)
《우리도 함께 가요》정철준(재령군 신곤고등중학교 학생)
《엄마손》류형복(평양시 문수고등중학교 학생)
《궤도전차 스르릉》김설희(평양시 김창복고등중학교 학생)
《나의 희망》리철(평양시 장훈고등중학교 학생)
《말하는 밀림》김진혁(연사군 국사봉고등중학교 학생)
《우리의 학교길》리광복(평양시 련광고등중학교 학생)
《내 마음 불 타요》차광혁(강계시 장자산고등중학교 학생)
《기념비》박옥별(평양금성제2고등중학교 학생)
《우리 행복 우리 앞날》민경옥(청단군 화산고등중학교 학생)
《내 고향의 은행나무야》오영희(〃)
《밝게 밝게 웃으셔요》림혜영(〃)
《꽃길 만들죠》최성순(〃)
《제일이래요》리혜숙(〃)
《우리 학습반》리은화(〃)
《매매 염소야》박윤희(〃)
《10월명절 기쁜 명절》김광옥(평양시 동성고등중학교 학생)
《지팡이》서향미(해주시 룡당고등중학교 학생)
《대답할테야》리상혁(〃)
《그날의 웨침소리》림동실(평양시 장훈고등중학교 학생)
《물통수류탄》박설향(평양시 신리고등중학교 학생)
《꼭 같아요》김청석(황주군 흑교고등중학교 학생)
《묘향산기념품》남경옥(평양시 휴암고등중학교 학생)
《장담을 해요》표혜성(문덕군 동림고등중학교 학생)

《우리 엄마 제일》김은경(금성제2고등중학교 학생)
《저 끌 멋 있다》조동철(평양시 새마을고등중학교 학생)
《만경대군함바위》김철(만경대혁명학원 학생)
《어머님 오신 날》조현준(〃)
《빨간모자 딱따구리》리남철(〃)
《재봉기소리》정명일(〃)
《우리의 희망》정려명(〃)
《공격수》강충혁(〃)
《인사 드리자》마꽃순(평양시 진흥고등중학교 학생)
《전자벽시계》김철룡(덕성군 임자고등중학교 학생)
《영웅의 자리》김철준(평양시 장충고등중학교 학생)
《별아 별아 알려 주렴》박봉숙(문덕군 룡북고등중학교 학생)
《닳지 않은 지우개》로선희(평양시 건지고등중학교 학생)
《함박눈 펑펑》김정녀(삼천군 룡천고등중학교 학생)
《어머님의 련락쪽지》최금실(〃)
《특등이래요》장명심(〃)
《구월산의 폭포소리》리철진(〃)
《왜 따라 올가요》안송희(〃)
《꽃을 심자야》조인옥(삼천군 룡천고등중학교 학생)
《자랑하겠죠》정국철(삼천군 룡천고등중학교 학생)
《신천의 돌멩이》림성철(〃)
《책장 번지는 소리》박선옥(평양시 대흥고등중학교 학생)
《롱구공 좋아》한철호(판문군 판문고등중학교 학생)
《북대봉》한창혁(양덕군 거상고등중학교 학생)
《대탕지의 샘물》박영복(〃)
《큰 마음 솟았죠》김현영(〃)
《돌돌돌 노래하지》김순향(〃)
《꽃으로 피여 났죠》정철호(〃)
《기쁨물결 찰랑》리금철(〃)
《지금도 들려 와요》리경숙(〃)
《롬》오영일(〃)
《사시절 꽃 펴요》우정국(〃)

△ 가사

《우리의 인사》김향주(평양시 해운고등중학교 학생)
《우리 사는 집》조윤아(평양시 류성고등중학교 학생)
《영원한 성새》조은덕(만경대혁명학원 학생)
《나도야 하나의 총폭탄》리철혁(삼천군 룡천고등중학교 학생)
《하늘가에 피우신 꽃》조철숙(신천군 근로자고등중학교 학생)
《장군님 가신 날》구영금(평양시 봉화고등중학교 학생)
《장군님을 만나뵈오면》김유희(평양시 파둥고등중학교 학생)

△ 수기

《크나큰 영광, 행복》김정혁(만경대혁명학원 학생)

△ 작문

《피고 싶은 마음》김진아(모란봉구역제1고등중학교 학생)
《꽃신발》리영미(해주시 룡당고등중학교 학생)

△ 일기

《뜨거운 마음》조영진(평양4인민학교 학생)

시상식에 이어 학생들인 림성철, 장미, 교원 김봉화가 토론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드리는 맹세문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우리 교실〉문학상》수상자들의 글작품발표회 진행

이해에 《〈우리 교실〉문학상》을 수여 받은 수상자들의 글작품발표회가 2월 5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발표회출연자들은 동요, 동시, 가사, 단상 등 여러 종류의 글작품들을 발표하였다.

동요《오늘만은 쉬여 주세요》, 동시《나의 집》등에서 출연자들은 혁명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초소길, 공장길을 찾고 찾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온 나라 인민들과 학생소년들의 축복속에 2월의 명절날만은 편히 쉬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은 우리모두를 안아 품어 주고 키워 주는 은혜로운 사랑의 요람이라는것을 동심에 담아 노래하였다.

또한 단상《돌사진》, 가사《나도야 영웅처럼》, 《장군님의 군대가 되자》등 여러 작품들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이 땅에 인덕정치의 대화원을 꽃 펴가고 계시는 장군님의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아버지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300만의 총폭탄으로 억세게 준비해 나가며 강성대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해 나갈 자기들의 충성의 마음을 깊이 있게 펼쳐 보였다.

발표회는 각지 학생소년들속에서 문학작품창작사업이 활발히 벌어 져 재능 있는 시인, 작가후비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음을 잘 보여 주었다.

전국 근로자들의 민족음악무용소품경연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88(1999)년 7월 21일 가르치심에 따라 문화성 군중문화지도국에서는 전국근로자들의 민족음악무용소품경연을 조직 진행하였다.

주체88(1999)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경연에는 공장과 농촌, 어촌과 지하막장을 비롯한 전국의 1만 1천 4백여개 단위에서 7만 2천여명의 군중예술소조원들이 참가하였다.

경연무대에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반영한 작품,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반영한 작품, 지방마다 전해 져 내려 오는 민족적정서가 넘치는 여러가지 형식의 무용소품들을 비롯한 1만 3천 6백여편의 작품들이 올랐다.

경연은 시, 군경연과 도경연에서 당선된 작품들이 중앙경연에 참가하여 심사 받고 순위를 가르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중앙경연에서 당선된 작품들을 가지고 평양에서 종합공연을 진행하였다.

경연에 대한 총화 및 시상식이 10월 20일 철도성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경연순위는 다음과 같다.

△ 도별 종합순위

1등 황해북도
2등 철도성
3등 평양시

△ 종목별순위

－제창부문

1등 장고제창《우리 장군님 높이 모시리》(황해제철련합기업소)
2등 녀성민요4중창《통일그네 쌍그네》(평양역전백화점)
〃 혼성6중창《내 고향의 자랑》(외교단사업국)
3등 시와 소합창《철길을 다지세》(철도성)

－독창부문

1등 녀성민요독창《그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사리원시)
2등 녀성민요독창《직동령의 승리방아》(외교단사업국)
3등 남성민요독창《감자자랑》(사리원시 량정사업소)

－무용부문

1등 농악무《농사는 강성대국건설의 천하지대본》(평양시 석정농장)
2등 농악무《주체농법 만세》(해주시 신광농장)
〃 탈춤《봉변 당한 지주》(사리원시 만금농장)
3등 가무《천지개벽된 강원땅에 벼바다 설레이네》(원산시안전국)

－기악부문

1등 민족기악2중주《초소의 봄》(청진시 인민병원)
2등 장새납독주《대홍단삼천리》(철도성돌격대)
3등 북과 퉁소《혁명을 위하여》(함경남도)

전국학생청년기동대경연 진행

청년절기념 전국학생청년기동대경연이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장에서 진행되였다.

경연에는 각도경연에서 당선된 24개 대학, 전문학교의 500여명의 학생청년기동대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경연기간 260여차의 출근길환영과 700여차의 현장축하공연, 210여차의 군중무도회를 조직하는 등 힘 있는 화선식경제선동을 진행함으로써 청년돌격대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령도, 풍모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도록 하고 그들이 리수복형의 육탄영웅, 길영조형의 자폭용사로 준비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또한 청년돌격대원들이 강성대국건설의 돌격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자각하고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며 새로운 로력적위훈을 세우도록 힘 있게 고무추동하였다.

특히 김형권신포사범대학, 김종태해주제1사범대학, 남포사범대학 학생청년기동대원들은 사상예술성이 높고 호소성이 강한 선동작품들을 만들어 출연함으로써 청년돌격대원들의 가슴마다를 뜨겁게 울려 주었다.

20일에 있은 경연총화에서는 우수한 단체들과 학생청년들에게 우승컵과 표창장, 시상품이 수여되였다.

종합순위에서는 함경남도단체가 1등의 영예를 지니였으며 황해북도, 황해남도단체가 2등을, 남포시단체가 3등을 하였다.

전국학생소년들의 독창, 독주, 독무경연 입선자들의 공연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돐경축 전국학생소년들의 독창, 독주, 독무 경연 입선자들의 공연이 10월 7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리일환1비서, 청년동맹일군들, 평양시안의 과외교양부문 창작가, 교원, 학생소년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무대에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억세게 자라나는 학생소년들의 충효의 마음과 행복상을 보여 주는 독창, 독주, 독무종목들이 올랐다.

독무《장군님 만세를 높이 불러요》, 손풍금독주《장군님 백마 타고 달리신다》, 남독창《장군님은 온 세상이십니다》등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신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끝 없는 기쁨과 행복 넘친 모습을 잘 보여 주었다.

출연자들은 녀독창《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남독창《위대한 사랑의 길》등 종목들에서 강성대국건설의 밝은 앞날을 위하여 조국의 초소들과 방방곡곡으로 끊임 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가시며 우리 인민에게 온갖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다함없는 감사와 흠모의 정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펼쳐 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주체혁명위업완성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자라나는 학생소년들의 랑만에 넘친 모습을 보여 주는 남독창《우리 앞날 찬란하여라》, 녀독창《끝 없어라 나의 희망 나의 기쁨》, 고음저대독주《입단의 기쁨》, 독무《나도 영옥이처럼》등도 무대에 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당의 참된 소년근위대로 억세게 자라나고 있는 학생소년들의 기상과 슬기를 힘 있게 보여 주며 진행된 공연은 합창《**김정일**장군님 위하여 항상준비》로 끝났다.

공연은 높은 예술적기교와 기량을 보여 준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전국농근맹경제선동경연 진행

전국농근맹경제선동경연이 9월 11일부터 16일까지사이에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경연에는 각도경연에서 당선된 19개 협동농장경제선동대들이 참가하였다.

경연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항일유격대식선동방법의 요구에 맞게 들끓는 포전들에 나가 대중을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로 힘 있게 불러 일으킨 전투적이고 호소성이 강한 경제선동종목들을 가지고 출연하였다.

출연자들은 이 땅우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나라의 농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끊임 없는 로고와 심혈을 바쳐 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 그리고 우리 농업근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가슴 뜨겁게 노래하였다.

그들은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로 감자농사와 두벌농사, 풀 먹는 집짐승기르기, 토지정리를 비롯하여 농업부문 전반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 나고 있는 현실을 생동하게 펼치였으며 모두가 당의 농업정책관철에 힘과 지혜를 다 바쳐 나갈데 대하여 힘 있게 호소하였다.

출연자들은 경연과정을 통하여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정성옥선수의 투쟁정신을 본 받아 알곡증산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며 당면한 가을걷이전투에 한결같이 떨쳐 나 올해 농사를 하루빨리 결속하도록 불러 일으킴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의 천하지대본인 농업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는 경제선동대원들의 자랑찬 투쟁모습을 잘 보여 주었다.

경연에서는 염주군 서림, 순천시 평리, 신흥군 영고, 봉천군 성기협동농장 경제선동대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국유치원 음악반어린이들의 독주경연 진행

문화성 교육지도국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세워 주신 조기예술교육체계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이며 유치원음악반어린이들속에서 우수한 독주가후비들을 전망성 있게 키워 내기 위하여 전국유치원 음악반어린이들의 독주경연을 조직진행하였다.

주체88(1999)년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평양 경상유치원에서 진행된 전국유치원 음악반어린이들의 독주경연에는 이미 1선과 2선경연에서 선발된 유치원어린이(소해금 12명, 가야금 2명, 바이올린 15명, 첼로 6명, 피아노 26명)들이 참가하였다.

경연이 끝난 다음 입선한 어린이들의 모범출연이 있었다. 경연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민족기악부문

1등 손철현(남, 평양 경상유치원, 소해금)
〃 안향미(녀, 평양 대동문유치원, 가야금)
〃 오현아(녀, 사리원 동리유치원, 소해금)

2등 김금철(남, 평성시 평성유치원, 소해금)
〃 리일심(녀, 청진 청암유치원, 소해금)
〃 리성표(남, 해주 옥계유치원, 소해금)
〃 김설향(녀, 평양 경상유치원, 소해금)
〃 최미향(녀, 평양 대동문유치원, 가야금)

3등 승혜성(녀, 개성 고려유치원, 소해금)
〃 김일광(남, 신의주 본부유치원, 소해금)
〃 김일화(녀, 원산 해방유치원, 소해금)
〃 조순미(녀, 청진 청암유치원, 소해금)

△ 양악기악부문

1등 최수연(녀, 평양 대동문유치원, 바이올린)
〃 장은심(녀, 사리원 동리유치원, 바이올린)
〃 윤효심(녀, 청진 청암유치원, 바이올린)

2등 권송미(녀, 평성시 평성유치원, 바이올린)
〃 김 군(남, 사리원 동리유치원, 첼로)
〃 지수련(녀, 신의주 본부유치원, 바이올린)
〃 장진영(남, 청진 청암유치원, 바이올린)
〃 리신향(녀, 신의주본부유치원, 바이올린)
〃 리범철(남, 평성시 평성유치원, 첼로)
〃 최은화(녀, 평양 대동문유치원, 바이올린)
〃 우승진(남, 평양 경상유치원, 첼로)
〃 최현성(남, 평양 대동문유치원, 바이올린)
〃 리춘경(녀, 평양 대동문유치원, 바이올린)

3등 강진옥(녀, 혜산 혜장유치원, 바이올린)
3등 오영미(녀, 원산 해방유치원, 바이올린)
〃 류태석(남, 원산 해방유치원, 바이올린)
〃 리정심(녀, 해주 옥계유치원, 바이올린)
〃 박향심(녀, 평양 창광유치원, 바이올린)

△ 피아노부문

1등 오대윤(남, 평양 경상유치원)
〃 장복향(녀, 평양 경상유치원)
〃 조영순(녀, 사리원 동리유치원)
〃 리유미(녀, 신의주 본부유치원)

2등 김소연(녀, 평양 창광유치원)
〃 송경아(녀, 평양 경상유치원)
〃 윤진화(녀, 평양 경상유치원)

3등 안일국(남, 원산 해방유치원)
〃 한리경(녀, 평성시 평성유치원)
〃 김설향(녀, 해주 옥계유치원)
〃 임수경(녀, 강계 백산유치원)
〃 정봄향(녀, 함흥 해방유치원)

△ 반주상

박금순(녀, 신의주 본부유치원, 가야금)
한정임(녀, 신의주 본부유치원, 피아노)

문학예술교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여러 나라 문화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한 에짚트아랍공화국 정부문화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나굴라 무함마드 후쎄이니 라하단장이 백남순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중국정부문화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한 문화부 부부장인 애청춘단장이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인도네시아문화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관광 및 예술문화상 마루주끼 우스만단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따쥐끼스딴대외친선문화련락협회 및 친선협회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한 따쥐끼스딴대외친선문화련락협회 및 친선협회대표단 단장인 따쥐끼스딴대외친선문화련락협회 위원장 마이씨라 꽐로노바가 해당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한 미국대중음악가수가 선물을 드리였다.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미국대중음악가수로저 클린톤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용순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세기의 위인에 대한 다함 없는 칭송

세계 40여개 나라에서 200여편의 시 창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칭송하여 이해에만도 세계 40여개 나라에서 200여편의 시가 창작되였다.

시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시대의 앞길을 밝혀 주시고 인민의 자유와 해방, 행복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네팔시인 디빠끄 샤르마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풍모와 령도력에 감복하여 60편의 시를 창작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창작발표된 시들중에는 로씨야신문《보에보이뿌찌》편집위원 올레그 나우모브가 쓴 시《탄생일에 즈음하여》, 대리비아아랍사회주의인민공동체 알 베이다 다이름사장이 쓴 시《21세기 태양》, 수리아시인 쟈우다트 샤힌이 쓴 시《친근한 인민의 령도자》, 마다가스까르시인 이본느 라자나마지가 쓴 시《태양은 누리에 희망의 빛을 뿌린다》등이 있다.

로씨야시인 깐따미로브 레오니드 빠블로위츠는 백발의 나이이지만 열정을 담아 21세기의 태양을 우러러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시《새 세기의 태양을 우러러》를 썼다고 하면서 주체의 홰불로 인류의 앞길을 밝혀 주시고 인간의 참된 삶을 꽃 피워 주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새 세기의 위대한 향도자로, 새 세기의 찬란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네팔기자 뿌르나 챤드라 샤르마는 시《친근하고 위대한 령도자》에서 만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쌓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온 누리에 빛을 뿌리는 해빛과도 같이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하면서 그이이시야말로 인류의 걸출한 향도성이시라고 칭송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을《자주시대의 향도성》, 《21세기의 태양》으로 격조높이 칭송한 그 모든 시편마다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따르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백두산3대장군을 칭송하여 외국인들이 창작한 시작품 주요목록

주체88(1999)년

제 목	작 가	출판된 출처
김정일최고사령관	알렉싼드르 브레쥬네브(로씨야작가)	로동신문 주체88년 3월 27일
백두광명성	마뜨웨이츄크 이고리 와씰리예비치(로씨야인)	〃 2월 21일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	프라브죠트 카우르(인도인)	〃 2월 25일
그이는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깐따미로브 레오니드 빠블로위치(로씨야인)	〃 2월 26일
21세기의 태양	라팔라 다이름(리비아인)	〃 5월 24일
친근한 인민의 령도자	샤우다르 샤힌(수리아시인)	〃
조선의 성스런 발걸음	와씰리 그리샤예브(로씨야작가)	〃 7월 15일
오늘도 우리를 한품에 안아 주셔요	장맹맹(중국인)	〃 8월 7일
선군정치 만세	베우까뜨 따쏘우(에티오피아인)	〃
민족대단결사상 만세!	이리 야르까(체스꼬인)	〃 11월 13일
인류의 량심에 칼을 박지 말라	게. 데 베르디쉐브(우크라이나인)	〃 11월 15일
통일친필비를 우러러	쑤르야 랄(네팔인)	〃 11월 16일
빛나는 태양	유니쓰 지아드(요르단인)	평양신문 주체88년 1월 23일
력사의 창조자	쌀림아브둘 샤리프(리비아인)	〃 10월 20일
위대한 사회주의건축가	호쎄 까스뜨로 뽀쏘(뻬루인)	〃 11월 13일
영원히 빛나는 태양	샤히르 무함마드 아브둘라흐(팔레스티나인)	민주조선 주체88년 7월 16일
위대한 령도자와 위대한 민족	〃	〃 8월 1일
수령님 탄생일	후다 둘 홈씨(수리아시인)	〃 8월 10일
축하하노라	샤우다르 샤힌(〃)	〃 8월 29일
그이는 태양이시다	호쎄 까스뜨로 뽀쏘(뻬루인)	〃 9월 15일
친근하고 위대한 령도자	뿌르나 챤드라 샤르마(네팔인)	〃 10월 24일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호쎄 까스뜨로 뽀쏘(뻬루인)	〃 11월 7일
아침은 조선에서 밝아 온다	샤으반 알리(리비아인)	〃 11월 11일
주체의 태양이여	올레그 나우모브(로씨야인)	〃 11월 17일
정다운 조선아 내사랑 언제나 너와 함께	엘 와씰리꼬바(로씨야인)	〃 11월 17일
만민의 축복	무함마드 알리 아브까라티(수단인)	조선문학 주체88년 제2호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헌시	올라비 린누스(퓐란드시인)	〃 제3호
승리의 그날을 축하하네	프레드 아그보불리(가나인)	〃 제4호
김정일찬가	아싸까 쑤마일라(니제르인)	〃 제5호
김정일동지 만세	헤르쥼 뻬떼르(마쟈르인)	〃 제6호
향도의 별	후안 아부르또(니까라과작가)	〃 제9호
오, 그대는 위대하여라	뎀바 마피코(짐바브웨인)	〃 제10호
혁명과 인민에게 바치시는 길	다다 다쯔야(일본인)	문학신문 주체88년 제7호
새 세기의 태양을 우러러	깐따미로브 레오니드 빠블로위츠(로씨야인)	〃 제18호
찬연히 빛나는 **김정일**	호쎄 까스뜨로 뽀쏘(뻬루인)	〃 제50호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진행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개막

온 행성이 태양절을 인류공동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뜻 깊게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4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되였다.

개막식이 진행되는 4.25문화회관앞에서는 축전기발들과 붉은기들이 봄바람에 나붓기고 축전을 형상한 대형탑과《환영》이라고 쓴 대형선전화가 세워져 있었다.

개막식장에는《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그리고《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한다!》,《자주, 평화, 친선의 노래 힘차게 부르자!》라고 쓴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개막식에는 관광 및 예술문화상 마루주끼 우스만을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문화대표단, 문화부 부부장 애청춘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정부문화대표단, 따쥐끼스딴문화대표인 문화성 제1부상 미르조 호지예브 미르조 마흐마디, 에짚트문화대표인 문화성부상 오마르 엘 브라이, 캄보쟈문화대표인 문화예술성 국무비서 씨쏘와트 씨리부르 빠나라, 몽골문화대표단 등 여러 나라 문화대표단, 예술단, 음악가, 배우일행이 참가하였다.

내각총리 홍성남동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백남순외무상 등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 예술인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 외국손님들, 해외동포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무대배경에 주체의 태양이 솟아 오른 만민의 마음의 고향 만경대고향집이 새겨 지고 무대우에서 무용수들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률동을 펼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과 외국손님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을 비롯하여 력사적이며 감동적인 화면들이 무대배경에 펼쳐 지자 참가자들은 태양의 존함을 지니시고 한생을 빛내이신 인민의 수령이시며 만민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휩싸여 있었다.

여러 나라 민족옷을 입은 5명의 녀성예술인들이 무대에 올라 이번 축전을 상징한 17마리의 비둘기를 날리였다.

개막사를 축전조직위원회 장철위원장이 하였다.

그는 먼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조직위원회의 이름으로 이번 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대륙과 대양을 넘어 평양의 축전장에 온 여러 나라 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 문화관계 인사들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 인민의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성대히 열리게 되는 이번 축전은 민족예술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서로 나누며 문화적협조와 교류를 발전시켜 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국제적인 대 예술축전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열리게 되는 이번 축전에는 여러 나라 대표단들과 46개 나라에서 국제콩클수상자들, 명배우들로 구성된 80여개의 이름 있는 예술단, 교예단, 해외동포예술단들이 참가하게 된다고 하면서 세계 수많은 나라의 벗들이 친선과 단결의 두터운 정을 안고 우리 나라에 온것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의 자랑찬 전통을 끊임없이 빛내여 나가려는 세계 진보적예술인들의 한결 같은 념원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또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진군길을 힘 있게 다그치고 있는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대한 지지와 고무로 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축전의 성과를 위하여 고위급문화대표단들과 함께 훌륭한 예술단과 재능 있는 예술인들을 보내준 친선적인 여러 나라 정부와 문화예술계에 깊은 사의를 표시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여러 나라 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에 의하여 특색 있게 준비된 이번 축전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21세기를 건설하려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인류의 송가가 화창한 4월의 봄하늘가에 높이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예술의 활무대로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축전참가자들은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 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승리의 신심 드높이 강성대국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선 우리 인민의 장엄한 투쟁모습과 날로 개화발전하는 우리 민족문화예술의 자랑찬 면모를 직접 보게 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이번 축전이 우리모두의 기대와 념원에 맞게 훌륭한 결실을 거두게 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하면서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개막을 선언하였다.

우리 나라 노래《빛나는 조국》의 장엄한 선률이 울리는 가운데 여러 나라 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이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기발을 게양하였다.

개막식에서는 홍성남동지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여러 나라 대표단, 예술단 단장들이 연설하였다.

인도네시아문화대표단 단장인 관광 및 예술문화상 마루주끼 우스만은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초청해 준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 심심한 사의를 표시한다고 하면서 대표단의 축전참가는 인도네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에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번 축전은 조선인민의 행복과 조선의 문화예술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을 기념하여 진행되는 의의 깊은 축전이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중국정부문화대표단 단장인 문화부 부부장 애청춘은 화창한 4월의 봄날에 중국정부문화대표단과 중국예술단은 조선인민과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두터운 친선의 정을 안고 아름다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 와서 축전에 참가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중조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부합될뿐아니라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도 유익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중국당과 인민은 중조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이 **김정일**총비서동지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축원한다고 하면서 이번 축전이 훌륭한 성과를 거둘것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륭성번영하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 알렉싼드로브명칭 군대협주단 단장 니꼴라이 예르피모브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문화예술발전에 끊임 없는 배려를 돌려 주시고 지구의 모든 대륙에서 우수하고 재능 있는 예술인들이 모여 앉을수 있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그이께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6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번 축전이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고 친선과 호상리해를 강화하는데 기여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으며 영웅적조선인민에게 복리와 번영이 있을것과 조선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하였다.

그는 끝으로 조선말로《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조선은 하나다!》,《로씨야조선친선 만세!》의 구호를 불렀다.

로므니아예술단 단장 마리아 마그달레나 싸베쓰꾸는 근면하고 열정적이며 영웅적인 인민의 나라인 조선을 방문하게 된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정일**동지께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개막식에 이어 개막공연이 있었다.

불멸의 혁명송가《**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장중한 선률이 힘 있게 울려 퍼지고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라 공연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개막식에서 한 내각총리 홍성남동지의 축 하 연 설

여러 나라 문화관계 인사들과 예술인 여러분.

해외동포예술인 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나는 오늘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87돐에 즈음하여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이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 모여 열일곱번째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성대히 진행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축전의 개막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진보적인류의 지지와 환영을 받으며 그 명성이 날로 높아 가고 있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자기의 탄생을 선포한 때로부터 90년대의 령마루에 이른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예술의 건전한 발전과 인류문학예술의 화원을 꽃 피우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나라들사이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고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이것은 인류문화건설위업수행에 유익한 일로 되며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고 사회적진보와 번영을 이

룩하려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대한 고무적힘으로 됩니다.

나는 평양축전이 시대와 력사의 흐름에 부합되게 자기의 리념과 지위를 확고히 고수하고 인류의 지향과 념원을 실현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하고 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난 시기 평양축전을 통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둔 여러 나라 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을 다시한번 열렬히 축하합니다.

우리는 머지 않아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 문화인들은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혁명적이며 아름답고 고상한 내용의 예술창조사업과 적극적인 문예활동을 통하여 새 세기를 인류문화예술의 자랑찬 년대기로 빛내이는데 적극 합류하여야 할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 문화예술인들은 민족문화예술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 주고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시대와 력사를 대표하는 기념비적명작들을 많이 창작하여 강성대국건설에 떨쳐 나선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 있게 고무추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주체의 문학예술건설로선에 따라 민족문화예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면서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기초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 문화적협조와 교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것입니다.

이번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대수령에게 바치신 가장 성스러운 수령영생위업의 5년사가 흐르는 해에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모두의 사무치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더욱 뜨겁게 불러 일으키게 될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의껏 준비하여 온 영생기원의 숭엄한 작품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고 계신다는 신념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될것이며 다채로운 춤과 노래를 펼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대미문의 간고한 시련을 승리적으로 이겨 내고 사회주의위업수행과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 나가고 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 있게 고무하여 줄것입니다.

나는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온 예술인들과 그리운 조국을 방문한 해외동포예술인들이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 기간 건강한 몸으로 즐겁고 유익한 나날을 보낼것을 바라면서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의 성과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관, 관람 및 의례관계

- 4월 10일 오전 만경대고향집 방문, 저녁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을 위한 환영연회에 참가.
- 4월 12일 오전 주체사상탑, 당창건기념탑, 개선문 참관.
- 4월 13일 오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애하는 수령님께 경의를 표시, 청년중앙회관에서 민족가무《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관람.
- 4월 14일 오전 인민문화궁전에서 조선기록영화《위대한 수령님 탄생 80돐을 성대히 경축》을 관람, 평양교예극장에서 평양교예단이 출연하는 종합교예 관람, 오후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참관.
- 4월 15일 오전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꽃바구니와 꽃다발 진정, 대성산유원지에서 야외련환공연 관람, 오후 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된 **김일성**화전시회 참관, 옥류관, 청류관에서 진행된 태양절기념연회에 참가, 저녁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태양절기념야회에 참가.
- 4월 16일 오전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참관, 궁전극장에서 소조원들의 종합공연 관람, 오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참관.
- 4월 17일 오전 국제친선전람관 참관, 오후 룡문대굴 참관.
- 4월 18일 오전 3대혁명전시관 참관, 저녁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된 친선련환모임에 참가.

축 전 공 연 종 목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련환공연 종목

제 1 조

제 1 부

1. 기악중주(싱가포르예술단) 《만경대의 노래》(조선곡)
2. 바느독주(싱가포르예술단) 《경축의 축제》
3. 녀성독창(인도네시아예술단) 《쏠로강의 노래》
4. 기악과 무용(인디아예술단) 《샤흐메흐힐》
5. 혼성2중창(네팔음악단) 《조선은 반드시 통일될것이다》
6. 녀성2중창(인도네시아예술단) 《고향의 봄》(조선노래)
7. 녀성독창(아르메니아음악가일행) 부치니가극《라보엠》중에서《미미의 아리아》
8. 남성독창(유고슬라비아독창가일행) 비제의 가극《카르멘》중에서《투우사의 노래》
9. 녀성독창(유고슬라비아독창가일행) 비제의 가극《카르멘》중에서《하바네라》
10. 2인무(싱가포르예술단) 《탐구》

제2부(알렉싼드로브명칭 로씨야군대협주단)

1. 합창《불패의 로씨야군대》
2. 합창《김일성장군의 노래》(조선노래)
3. 합창《정의의 싸움》
4. 남성독창《깔린까》
5. 무용《해병생활》
6. 합창《앞으로》
7. 남성독창《내 고향》(조선노래)
8. 무반주합창《오 광활한 초원이여》
9. 남성독창《뻬쩨르거리를 따라》
10. 합창《로씨야병사들》
11. 무용《명절행진곡》
12. 합창《김정일장군의 노래》(조선노래)

제 2 조

제 1 부

1. 녀성독창(웰남독창가일행) 《해빛 같은 미소 그립습니다》(조선노래) 《루롱싼산의 메아리》
2. 남성독창(웰남독창가일행) 《위대한 사랑의 길》(조선노래) 《긍지높이 전진하는 웰남인민》
3. 남성독창(체스꼬음악단) 《사향가》(조선노래)
4. 기악중주(체스꼬음악단) 《슬로벤스꼬의 자랑》
5. 노래와 춤(체스꼬음악단) 《상봉의 기쁨》
6. 녀성독창(벨라루씨음악단) 가극《아드리엔나 레꾸불료브》중에서《데부이온의 아리아》
7. 트럼베트독주(벨라루씨음악단) 《무도곡》
8. 녀성독창(벨라루씨음악단) 가극《농촌의 기쁨》중에서《싼뚜찌의 아리아》
9. 녀성2중창(벨라루씨음악단) 가극《삐꼬바야 다마》중에서《리자와 뽈리나》
10. 남성독창(벨라루씨음악단) 가극《돈 까를로스》중에서《로드리오의 죽음장면》
11. 혼성2중창(몰도바음악가일행) 《쓰무굴랸까》

제2부(중국예술단)

1. 녀성군무《꽃향기 그윽한 달밤》
2. 남성독창《노래하라 만경대갈림길이여》(조선노래) 《압록강 2천리》(조선노래)
3. 녀성독창《그보다 정다운 품 나는 몰라라》(조선노래) 《나는 중국을 사랑하네》
4. 남성군무《물샐틈 없는 매복》
5. 남성독창《내 나라》(조선노래) 《오 나의 태양》
6. 독무《다듬이춤》
7. 녀성독창《반갑습니다》(조선노래) 《즐거운 방목길》(조선노래)
8. 혼성군무《란화화》

제 3 조

제 1 부

1. 기악중주(몽골예술단) 조선노래련곡《새봄을 노래하세》,《봄노래》,《예가 바로 수령님이 다녀가신 마을입니다》
2. 남성독창(몽골예술단) 《김일성대원수 만만세》(조선노래)
3. 녀성2중창(몽골예술단) 《따사로운 그 품이 그립습니다》(조선노래)
4. 무용(에짚트예술단) 《에짚트청년들》
5. 피아노독주(꾸바음악가일행) 《꾸바춤》
6. 녀성독창(꾸바음악가일행) 《우리 수령님》(조선노래)
7. 흘류트독주(에짚트예술단) 《내 마음속으로부터》
8. 무용(에짚트예술단) 《엘가와지》
9. 녀성독창(라오스독창가일행) 《우리 생활 즐거워》
10. 녀성독창(라오스독창가일행) 《그 품 떠나 못 살아》(조선노래)
11. 2대의 홀류트를 위한 피아노3중주(스위스음악단) 프란쯔 도플레의《안단떼론도》
12. 무용(에짚트예술단) 《7일 생일놀이》

제2부(몽골예술단)

1. 녀성독창《반갑습니다》(조선노래)
2. 남성독창《정일봉의 우뢰소리》(조선노래)
3. 녀성4중창《내 나라 제일로 좋아》(조선노래)
4. 바이올린독주《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조선곡)
5. 남성독창《장군님 백마 타고 달리신다》(조선노래)
6. 녀성독창《내 고향을 나는 사랑해》(조선노래)
7. 남성독창《청춘의 기쁨》
8. 남성3중창《사향가》(조선노래)
9. 기악중주《왈쯔곡》

제 4 조

제 1 부

1. 남성독창(수리아독창가) 《김정일각하 만세》(창작) 《우리 서로 만났을 때》
2. 녀성독창(일조음악예술교류회예술단) 《나의 어머니》(조선노래) 《하마치도리》
3. 남성독창(로므니아예술단) 《잊지 못할 빛나는 조선이여》(창작) 《오 나의 태양》
4. 무용(일조음악예술교류회예술단) 《도죠지》
5. 녀성독창(캄보쟈예술단) 《내 운명 지켜 준 어머니당이여》(조선노래) 《브레이 브로 썻》
6. 남성독창(일조음악예술교류회예술단) 《백두산은 혁명의 고향》(조선노래) 《둥 둥》
7. 녀성독창(일조음악예술교류회예술단) 《김정일화》(조선노래)
8. 남성독창(캄보쟈예술단) 《생이란 무엇인가》(조선노래)
9. 녀성독창(로므니아예술단)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조선노래) 가극《라와리》중에서《와리의 아리아》
10. 남성독창(일조음악예술교류회예술단) 《위대한 사랑의 길》(조선노래)
11. 기악4중주(이딸리아예술단) 고렐리작곡《쏘나타 1번》

제2부(로씨야베료슈까무용단)

1. 로씨야민속가무《봇나무》
2. 무용《약동하는 거리》
3. 무용《추억》
4. 무용《마차군들》
5. 무용《레스 짜는 처녀들》
6. 희극무용《새끼모기》
7. 무용《수건춤》
8. 무용이야기《인형들》
9. 무용《무지개》

제 5 조

제 1 부

1. 남성독창(로씨야명배우단) 《우리 수령님》(조선노래)
2. 녀성독창(로씨야명배우단) 《그 보다 정다운 품 나는 몰라라》(조선노래)
3. 바이올린독주(로씨야명배우단) 챠이꼽스끼곡《멜로디아》, 크레이 쏠레르곡《사랑의 기쁨》
4. 남성독창(로씨야명배우단) 모짜르트가극《휘가로의 결혼》중에서《휘가로의 아리아》
5. 혼성2중창(로씨야명배우단) 베르디작곡《뜨라비아따》중에서《축배의 노래》
6. 관현악(오스트리아음악가일행) 로씨니가극《쎄빌리아의 리발사》중에서《서곡》
7. 관현악(미국지휘자) 교향곡《피바다》중에서 제3악장《혁명의 기치》(조선곡)

제 2 부

1. 녀성독창(끼쁘로스음악가일행) 《금수산》(아다모스 까찬또니스곡)
2. 녀성독창(오스트리아음악가일행) 크록크곡《떠나버린 유리디체》
3. 피아노독주(로씨야명배우단) 쏘펜곡《스케르쪼 2번》 리스트곡《캄파네라》
4. 남성독창(뿔스까독창가) 챠이꼽스끼가극《돈 쥬앙》중에서《쎄레나데》
5. 관현악과 합창(끼쁘로스음악가일행) 《백두》(아다모스 까찬또니스곡)
6. 관현악(벌가리아지휘자일행) 《아리랑》(조선곡) 챠이꼽스끼교향곡《제4번 4악장》

제 6 조

제 1 부

1. 독창과 무용(재일조선인예술단) 《김정일화》
2. 녀성독창(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 《어머니 나의 조국》(창작)
3. 가야금독병창과 방창(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 《구름너머 그리운 장군별님께》
4. 독무(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 《청춘의 기쁨》
5. 첼로독주(재미조선인예술단) 《기다려 다오》
6. 녀성독창(재미조선인예술단) 《충성의 노래》
7. 피아노독주(재미조선인예술단) 《베토벤 쏘나타 8번》
8. 녀성독창(재중조선인예술단) 《소무가》(중국노래)
9. 민요련곡(재중조선인예술단) 《금강산타령》,《홍타령》,《강타령》
10. 남성독창(재중조선인예술단) 《내 마음 내 조국》
11. 녀성중창(재중조선인예술단) 《보란듯이》
12. 가무(재중조선인예술단) 《내 나라 제일로 좋아》
13. 시와 노래이야기(재중조선인예술단) 《간절히 바라는 마음》

제2부(재일조선인예술단)

1. 노래와 춤《태양이 그리워》
2. 남성독창과 방창《아 수령님》
3. 녀성중창《수령님품으로 어서 가자》
4. 무용《가고파》
5. 녀성독창《김정일세기를 해빛처럼 빛내가리라》
6. 혼성2중창《아버지의 심정》
7. 혼성4중창《그 손 잡아 보자》
8. 쌍무《장기놀이》
9. 민요중창《묻지나 말라구 우리의 마음》
10. 남성중창《여보시오》
11. 무용《애국준마 타고 달리자》
12. 노래와 춤《더잘 모시리》

제 7 조

제 1 부

1. 줄 타는 교예사(로씨야교예단)
2. 1인조형(몽골교예단)
3. 도립재주(중국교예단)
4. 바줄놀이(웰남교예배우일행)
5. 손재주(꾸바교예배우)
6. 줄넘기와 모자재주(중국교예단)

제 2 부

1. 어깨장대재주(로씨야교예단)
2. 줄우에서 무술재주(중국교예단)
3. 공중조형(웰남교예배우일행)
4. 녀자도립조형(스웨리예교예배우일행)
5. 남자2인조형(몽골교예단)
6. 3단발전회(로씨야교예단)

대성산남문앞 련환야외공연종목(4월 15일)

1. 합창(국립민족예술단)
《**김일성**장군의 노래》(지휘:손금철)
2. 무용(국립민족예술단)
《손북춤》
3. 남성독창(일조음악예술교류회예술단)
《위대한 사랑의 길》(조선노래)
4. 녀성독창(유고슬라비아독창가일행)
《하바네라》
5. 녀성4중창(국립민족예술단)
《장군님 모신 자랑 노래 부르자》
6. 무용(국립민족예술단)
《샘물터에서》
7. 녀성독창(로씨야명배우단)
《그보다 정다운 품 나는 몰라라》(조선노래)
8. 녀성독창(알렉싼드로브명칭 로씨야군대협주단)
《내 고향》(조선노래)
9. 가야금독주와 병창(국립민족예술단)
《옹헤야》
10. 남성저음독창(몽골예술단)
《**김일성**대원수 만만세》(조선노래)
11. 녀성독창(웰남독창가일행)
《해빛 같은 미소 그립습니다》(조선노래)
12. 교예(몽골교예단)
《2인조형》
13. 녀성민요독창(국립민족예술단)
《오직 한마음》《모란봉》
14. 녀성독창(인도네시아예술단)
《쏠로강의 노래》
15. 무용(국립민족예술단)
《쟁강춤》
16. 합창(국립민족예술단)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개막, 페막공연종목

개막공연종목

1. 합창……………………만수대예술단
《**김일성**장군의 노래》(지휘: 벌가리아지휘자 국제콩클수상자 안드레이 안드레이에브)
2. 혼성2중창과 합창 …… 만수대예술단
《위대한 내 나라》(지휘: 인민예술가 신경학)
3. 무용 ……………… 국립민족예술단
《장고춤》
4. 녀성기악중주 ……… 만수대예술단
《**충성의 노래**》
5. 녀성고음독창 ……… 만수대예술단
《그보다 정다운 품 나는 몰라라》
(《2.16예술상》수상자 전명희)
6. 무용 ……………… 만수대예술단
《조국의 진달래》
7. 남성저음독창 ……… 만수대예술단
《수령님과 장군님은 한분이시네》(공훈배우 허광수)
8. 녀성4중창 ………… 만수대예술단
《태양절을 노래하세》
9. 합창 ……………… 만수대예술단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지휘:인민예술가 조정림)

페막공연종목

1. 합창(알렉싼드로브명칭 로씨야군대협주단)
ㄱ)《**김정일**장군의 노래》(조선노래)
ㄴ)《깔린까》
2. 무용(알렉싼드로브명칭 로씨야군대협주단)
《명절행진곡》
3. 녀성2중창(인도네시아예술단)
《고향의 봄》(조선노래)
4. 녀성고음독창(꾸바음악가일행)
《우리 수령님》(조선노래)
5. 남성저음독창(뽈스까독창가일행)
베르디가극《마스체라》중에서《마스체라의 아리아》
6. 혼성2중창(유고슬라비아독창가일행)
《오 쏠레미오》
7. 무용(에짚트예술단)
《엘가와지》
8. 무용(재일조선인예술단)
《가고파》
9. 남성중음독창(재중조선인예술단)
《내 마음 내 조국》(창작)
10. 남성독창(중국예술단)
《내 나라》
11. 녀성2중창(벨라루씨음악단)
가극《삐꼬바야다마》중에서《두마리의 익살쟁이고양이》
12. 혼성군무(중국예술단)
《란화화》
13. 무용이야기(로씨야베료슈까무용단)
《인형들》
14. 녀성고음독창(재미조선인예술단)
《**충성의 노래**》(조선노래)
15. 남성중음독창(몽골예술단)
《장군님 백마 타고 달리신다》(조선노래)
16. 녀성독창(오스트리아음악가일행)
《떠나 버린 유리디체》
17. 혼성2중창(몰도바음악가일행)
《쓰무굴랸까》
18. 무용(로씨야베료슈까무용단)
《무지개》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이 작시, 작곡하여 축전무대에 올린 작품목록

1.《**김정일**각하 만세》(수리아독창가 나임 함디)
2.《잊지 못할 빛나는 조선이여》(로므니아예술단 뜨라안 미리쵸아우)
3.《**김정일**각하께 축원을》(네팔예술단 나라얀 박따쉬레스타)
4.《**김정일**각하께 드리는 노래》(방글라데슈예술단 사라즈 쵸드리후우)
5.《아버지의 심정》(재일조선인예술단 김경화)
6.《내 마음 내 조국》(재중조선인예술단 박학림)
7.《어머니 나의 조국》(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 김미화)
8.《자애로운 그 품이 그립습니다》(연변조선인예술문화참관단 렴승학)
9. 관현악《백두》(끼쁘로스음악가일행 아다모스 까찬토니스)

중국예술단 공화국정부를 위한 초대공연 진행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공동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중국예술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를 위하여 4월 17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초대공연을 진행하였다.

공연관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들인 리종옥동지, 박성철동지, 내각총리 홍성남동지, 인민무력상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와 내각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만영상과 대사관성원들, 중국손님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장소에는 력사의 온갖 시련과 풍파를 이겨 내고 피로써 맺어 지고 공고발전되여 온 조중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뉴대와 친선단결의 정이 넘쳐 나고 있었다.

국제, 국내 콩클수상자들을 비롯하여 우수한 배우들로 구성된 중국예술단은 우리 인민에 대한 형제적 중국인민의 뜨거운 친선의 감정을 담아 성의껏 준비한 다채로운 종목들을 공연무대에 올렸다.

중국예술인들은 많은 종목의 조선노래들을 우리나라 말로 열정에 넘쳐 류창하게 불러 관람자들의 깊은 감명을 불러 일으켰다.

출연자들은 조선혁명과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시였으며 가장 숭고한 공산주의적의리를 지니시고 중국의 로세대혁명가들과 함께 조중친선의 공고한 뉴대를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 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우리 나라 노래《노래하라 만경대갈림길이여》,《그보다 정다운 품 나는 몰라라》등을 감동 깊게 형상하였다.

중국예술인들은 또한 새 사회건설을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해 나가고 있는 중국인민의 정신세계와 민족적감정을 세련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실감 있게 보여 주는 성악, 무용작품들을 무대에 펼치였다.

출연자들은 녀성독창《나는 중국을 사랑하네》,《즐거운 고향》을 비롯한 종목들에서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자기 조국이 오늘은 특색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데 대한 자랑과 기쁨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특히 출연자들은 녀성군무《꽃향기 그윽한 달밤》, 혼성군무《샘물에 비낀 달》, 혼성2인무《새 신랑을 떠나보내다》, 혼성군무《란화화》등 종목들로 공연무대를 더욱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공연은 시종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다져 진 조중 두 나라, 두 인민들사이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우의의 뜨거운 정이 넘쳐 흐르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공연이 끝난 다음 공화국정부 간부들이 무대에 올라 가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고 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해 주었다.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과 로씨야 알렉싼드로브명칭 군대협주단 련환공연 진행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과 로씨야 알렉싼드로브명칭 군대협주단의 련환공연이 4월 19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인민군 박재경대장 등 장령, 군관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 대사 왈레리 제니쏘브와 대사관성원들이 공연을 보았다.

관록 있는 인민배우, 공훈배우들이 많이 망라되여 있는 두 나라 군대예술단체들은 이날 공연무대에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형상한 합창을 비롯한 노래와 무용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올렸다.

공연은 로씨야 알렉싼드로브명칭 군대협주단의 합창 불멸의 혁명송가《**김일성**장군의 노래》로 시작되였다.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국통일과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위하여 바치시였으며 시대와 인류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자욱을 되새겨주는 혁명송가는 관중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장내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 없는 흠모와 칭송의 마음이 세차게 굽이치는 가운데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 예술인들이 합창《언제나 수령님을 우러러》를 펼치였다.

공연무대에는 로련인민배우 웍또르 표도로브가 지휘하고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예술인들이 부르는 불멸의 혁명송가《**김정일**장군의 노래》가 힘 있게 메아리쳤다.

시대의 송가로 울려 퍼지는 노래소리를 들으며 관람자들은 수령영생위업의 빛나는 력사를 창조하시고 이 땅우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세세년년 흐르도록 하여 주시였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끝 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에 휩싸여 있었다.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은 합창《장군님 백마 타고 달리신다》에서 백두의 기상과 강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김일성**조선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풍만한 성량과 째인 안삼불, 세련된 기교로 수준 높게 형상하였다.

로씨야 알렉싼드로브명칭 군대협주단 예술인들은 합창《로씨야병사들》,《앞으로》, 무용《명절행진곡》,《해병생활》등 종목들에서 독특한 창법과 개성적이면서도 활달한 률동으로 자기 나라 군인들의 생활모습을 잘 보여 주었다.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 예술인들도 로씨야노래《로씨야사람들이 전쟁을 원하는가》,《정의의 싸움》,《승리의 날》을 로씨야군인들과 인민들의 미감과 정서에 맞게 훌륭히 형상하였다.

또한 로련인민배우 와씰리 뉴떼푸짜의 독창《꾀꼴새》,《깔린까》, 로련인민배우 왈레리 가바의 독창《뻬쩨르거리를 따라》, 와짐 아나니예브의 독창 우리 나라 노래《내 고향》, 무반주합창《오 광활한 초원이여》등 종목들이 올라 련환공연무대를 더욱 의의깊게 장식하였다.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합창《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는 우리의 운명이시며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결사옹위하며 그이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사회주의위업을 총대로 억세게 보위해 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펼쳐보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제2차《현 시대와 민족문화문제》에 관한 토론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성대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2차《현 시대와 민족문화문제》에 관한 토론회가 4월 1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다.

토론회장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다.

토론회에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조직위원회 장철위원장 등 관계부문 일군들과 평양시내 창작가, 예술인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고 있는 캄보쟈정부문화대표단 단장인 문화예술성 국무비서 씨쏘와트 씨리부트 빠나라, 따쥐끼스딴문화

대표인 문화성 제1부상 미르조 흐지예브 미르조마흐마디, 에짚트문화대표인 문화성 부상 오마르 엘 브라이, 몽골문화대표 멘디 우묘 곰보쟈브, 외국예술인들, 해외동포예술인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먼저《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켜 자주적인 민족예술의 새 시대를 빛나게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으로 장철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인류공동의 경사스러운 태양절로 성대히 기념하고 있는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새 세기의 민족예술발전전망을 토론하는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민족문화유산이 옳게 계승발전되여 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우리 인민은 지난 기간 주체적인 민족예술건설에서 민족허무주의와 복고주의를 극복하고 선조들이 남겨 놓은 아름답고 진보적인 예술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켰으며 음악과 무용, 미술을 비롯한 문화예술의 여러 분야에 걸쳐 자기의 고유한 민족적특성을 적극 살려 왔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구현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고 우리의 민족예술이 주체의 한길을 따라 나아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였다고 하면서 그는 조선의 넋과 기상, 조선의 향취가 넘쳐 나는 우리 민족예술은 세인을 경탄시키는 숭고하고 민족적인것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존함과 더불어 길이 전하여 질 인류문화의 재보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우리 인민은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켜 자주적인 민족예술발전의 새 시대를 더욱 빛나게 열어 나갈것이라고 하면서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세계 진보적인 문화예술인들과의 단결과 협조, 교류를 강화하고 자주적인 민족문화예술건설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할것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책동과 사상문화적침투를 짓부시고 평화롭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끝으로 보고자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 세기의 민족문화예술을 훌륭히 건설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우리들의 한결 같은 지향과 념원은 인류의 민족자주리념과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피바다〉식가극음악의 특성에 대하여》,《조선민요의 특성과 현대적발전》,《우리 나라의 민족무용유산과 그 계승발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음악평론가 학사 김득청, 교수, 박사 리창구, 부교수, 학사 리만순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우리 나라에서《피바다》식가극음악창작에서 이룩된 성과와 민요를 기본으로 하여 음악예술을 발전시키며 민속무용을 비롯한 민족무용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빛나는 결실이라는데 대하여 한결같이 말하였다.

토론회에서는《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총련문화예술인들은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살려 해외현실과 동포들의 감정에 맞는 특색 있는 민족예술을 빛나게 창조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정수가 토론하였다.

또한 로씨야《평화와 오늘》위원회 부위원장인 시인 웨.에쓰. 크라울린, 에짚트 까히라민속아까데미야중앙연구소 교수, 박사 샤프와트 카말, 몽골문화예술종합대학 연구부장 게. 남쑤렌, 로씨야작곡가 겐나지 샤린, 몽골문화예술종합대학 교수, 박사 잠발 에네비쉬가 토론에 참가하였다.

토론자들은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켜 자주적인 민족예술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소개하였으며 민족예술운동을 새 세기에 다가선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보다 적극화하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들은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 민족문화유산을 주체성, 력사주의적원칙에서 계승발전시켜 나가는것이 민족예술을 더욱 빛내이고 인류예술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것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공세가 더욱 악랄해 짐에 따라《국적 없는 문화》를 제창하는《세계화》,《일체화》의 어지러운 흐름이 민족예술의 건전한 발전을 저애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이에 대처하여 민족예술을 고수발전시키는 길에서 진보적문화예술인들이 단결과 협조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참가자들이 감사편지를 올리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 삼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일**각하

우리는 귀국의 오랜 문화와 력사가 깃든 아름다운 수도 평양에서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가장 뜻 깊고 성대하게 진행한 자랑을 안고 존경하는 각하께 삼가 이 편지를 올립니다.

우리는 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변모되는 귀국땅에 첫발을 들여 놓는 순간부터 친근한 조선인민과 문학예술인들의 열렬한 환영과 진심어린 환대를 받으며 축전의 나날을 인상 깊게 보내였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달려 온 우수한 예술단체들과 예술인들의 참가하에 성대히 진행된 축전은 민족예술의 성과와 경험을 서로 나누고 제 인민들간의 친선을 도모하는데 적극 기여한 참다운 친선예술축전이였습니다.

특히 봄꽃이 피여 나는 아름다운 화원속에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각하의 탄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귀국인민들과 함께 기념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광으로 됩니다.

이번에 귀국 정부와 문화예술계에서는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매우 이채롭고 특색 있게 준비하였을뿐아니라 축전참가자들이 예술활동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도모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은 나라들사이의 친선과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번 축전이 성대하고 높은 수준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만족감을 가지게 되며 이 훌륭한 축전을 마련해 주시고 그 성과를 위하여 깊은 관심과 두터운 배려를 돌려 주신 존경하는 각하께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각하

우리들은 비록 귀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근면하고 재능 있는 조선인민이 자기의 위업에 대한 확신을 안고 새로운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모습을 직접 볼수 있었으며 민족문화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잘 알게 되였습니다.

우리들은 귀국의 여러 곳을 돌아 보면서 조선에서 이룩되고 있는 모든 기적적인 사변들과 성과들에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각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 있다는것을 현실속에서 느끼였으며 조선의 어린이들과 인민들, 문학예술인들의 밝은 모습에서 보다 번영하고 광명할 조선의 미래를 확신할수 있었습니다.

지금 인류는 희망찬 21세기를 눈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평화, 친선의 숭고한 리념밑에 해마다 가장 좋은 계절에 성대하게 열리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성의 있게 참가할것이며 아름다운 예술의 화원으로 새 세기를 더욱 빛내여 나갈것입니다.

우리들은 각하의 세련되고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새로운 목표들을 하루빨리 점령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들은 세계 여러 나라 문화인들의 친선을 위하여, 조선인민의 번영과 행복을 위하여 가장 존경하는 **김정일**각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일동

주체88년 4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에게 감사문을 보내였다.

감사문은 다음과 같다.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다함 없는 경모심을 안고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여 우리 인민에 대한 두터운 친선의 정과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유감없이 보여 준 여러 나라 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인류공동의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이번 축전은 자주, 평화, 친선의 숭고한 리념밑에 세계 5대륙의 진보적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매개 나라 민족예술의 고유한 전통과 우수성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고상한 예술활동을 통하여 나라들사이의 친선과 단결, 문화적교류와 협조를 강화발전시키는데 적극 기여한 국제적인 대 예술축전이였습니다.

축전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은 지난 시기 축전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련마한 높은 예술적기교와 재능을 가지고 인류의 공통된 지향과 념원을 담은 훌륭한 작품들을 펼쳐 보임으로써 날로 발전하는 각국 민족예술의 면모를 뚜렷이 시위하고 인류문화예술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전체 축전참가자들은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흠모심을 반영한 태양찬가, 위인송가들을 격조높이 잘 형상하여 태양절을 더욱 의의깊게 장식하고 력사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면서 사회주의기치높이 강성대국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선 우리 인민들을 힘 있게 고무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속에서도 우리의 혁명위업에 대한 깊은 리해를 가지고 변함 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친선적인 여러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진실한 우의심과 지성에 대하여 언제나 잊지 않을것이며 자주화된 새 세계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세계인민들의 한결 같은 지향과 념원에 부합되게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갈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모든 축전참가자들이 앞으로도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의 리념과 전통을 계속 아름답게 꽃 피워 나가기 위한 사업에 아낌 없는 노력과 성의를 다하여 주리라고 확신하면서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창조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88년 4월 18일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시상식 진행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시상식이 4월 18일 오후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시상정형은 다음과 같다.

-단체상(상장과 컵)

- 알렉싼드로브명칭 로씨야군대협주단
- 중국예술단
- 로씨야베료슈까무용단
- 몽골예술단
- 재일조선인예술단
- 재중조선인예술단

-특별상(상장과 금컵, 상금)

○상장과 금컵, 상금
- 알렉싼드로브명칭 로씨야군대협주단 부단장 웨. 아. 표도로브
- 로씨야베료슈까무용단 부단장 엠. 엠 꼴조바
- 일조음악예술교류회예술단 단장 오가사와라 미쯔꼬
- 재미조선인예술단 단장 홍정자
- 중국예술단 피아노연주가 고처

○상장과 금컵
- 재일조선인예술단 단장 김홍철
- 재중조선인예술단 단장 최은복

-개인상

○독창(상장과 금컵, 상금)
- 알렉싼드로브명칭 로씨야군대협주단 독창가수 웨. 이. 슈메푸쨔《깔린까》
- 중국예술단 독창가수 공덕성《내나라》
- 몽골예술단 독창가수 아. 다쉬펠제《장군님 백마 타고 달리신다》
- 로씨야명배우단 독창가수 류드밀라 이와노바《따란께라》
- 꾸바음악가일행 독창가수 마리아 에스떼르 뻬레노《우리 수령님》
- 뽈스까독창가 독창가수 마르찐 브로니꼽스끼《쎄레나데》
- 재일조선인예술단 독창가수 류전현《아 수령님》
- 재중조선인예술단 독창가수 김홍도《우리 수령님》
- 재미조선인예술단 독창가수 양경자《충성의 노래》

○독창(상장과 금컵)
- 알렉싼드로브명칭 로씨야군대협주단 독창가수 웨. 엔. 가바《뻬제르거리를 따라》
- 중국예술단 독창가수 우융비《그보다 정다운 품 나는 몰라라》
- 알렉싼드로브명칭 로씨야군대협주단 독창가수 보니스 미츄크《골로바에 대한 노래》
- 몽골예술단 독창가수 쓰 터브신터그스《정일봉의 우뢰소리》
- 몽골예술단 독창가수 브 쟌가드《청춘의 기쁨》
- 로씨야명배우단 독창가수 웨. 아. 바까《넓은 들판》
- 일조음악예술교류회예술단 독창가수 야마모도 데이찌《위대한 사랑의 길》
- 중국예술단 독창가수 리성주《노래하라 만경대 갈림길이여》
- 알렉싼드로브명칭 로씨야군대협주단 독창가수 웨. 뻬. 아나데브《해빛 넘치는 숲속에서》
- 로므니아예술단 독창가수 리리아나 두미뜨라체《와리의 아리아》
- 유고슬라비아독창가일행 독창가수 올리베르 네고《투우사의 노래》
- 벨라루씨음악가일행 독창가수 엠. 아. 즐류크《에삐딸라마》
- 재일조선인예술단 독창가수 김명희《김정일세기를 해빛처럼 빛내여 가리라》
- 재중조선인예술단 독창가수 강미자《소무가》
- 재중조선인예술단 독창가수 김재분《보란듯이》
- 연변조선인예술문화참관단 독창가수 림향숙《자애로운 그 품이 그립습니다》

○독창(상장과 은컵)
- 몽골예술단 독창가수 브 에르덴투야《물새》
- 몽골예술단 독창가수 르 우란만다흐《새봄》
- 오스트리아음악가일행 독창가수 다그마르 안나호다《사랑가》
- 끼쁘로스음악가일행 독창가수 조안나 차파넬리《금수산》
- 벨라루씨음악가일행 독창가수 떼짜지우노바《하바네라》
- 로씨야명배우단 독창가수 베.에. 뜨리뻬쯔니꼬브《려행의 노래》
- 웰남독창가일행 독창가수 레기아홀《위대한 사랑의 길》
- 인도네시아독창가수 벨리아 쑤잔나 따리간《쏠로강의 노래》
- 중국예술단 독창가수 장홍련《차잎 따는 처녀》
- 라오스독창가일행 독창가수 말라와 드앙푸미《그 품 떠나 못 살아》
- 캄보쟈예술단 독창가수 통김쳉《내 운명 지켜 준 어머니당이여》
-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 독창가수 남벌《구름 너머 그리운 장군별님께》

○지휘(상장과 금컵, 상금)
- 벌가리아지휘자 일행 지휘자 안드레이 안드레이예브《아리랑》
- 알렉싼드로브명칭 로씨야군대협주단 지휘자 웨. 아. 꼬르브꼬《명절행진곡》

○지휘(상장과 은컵)
로씨야명배우단 교수 에두아르드 그라치

○지휘 및 연출, 연기(상장과 금컵)
- 로씨야베료슈까무용단 지휘자 스미르노브 레오니드 꼰스딴찌노위치《무지개》
- 미국지휘자 개리 파긴 교향곡《피바다》
- 몽골예술단 지휘자 브 친바트《왈쯔곡》
- 오스트리아음악가일행 지휘자 로베르트 피쎄르《챠이꼽스끼교향곡 제4번 4악장》
- 재일조선인예술단 지휘자 김경화《태양이 그리워》
- 재일조선인예술단 연출가 김재현
- 중국예술단 배우 류민
- 로씨야베료슈까무용단 배우 오. 웨. 깔리오삐나

○독주(상장과 금컵)
- 벌가리아지휘자일행 독주가 마리아 싸웨바《베토벤작곡 피아노협주곡 1악장》

- 로씨야명배우단 독주가 미하일 리바《리스트곡 캄바네라》
- 재미조선인예술단 독주가 배익환《챠이꼽스끼 바이올린협주곡 전악장》
- 재미조선인예술단 독주가 리방은《싼싼스첼로협주곡》
- 꾸바예술단 독주가 아바도 로두또부싸

○독주(상장과 은컵)
- 몽골예술단 독주가 즈 엥흐《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 로씨야명배우단 독주가 올가 씨다로비치《챠이꼽스끼 스켈쪼》
- 일조음악예술교류회예술단 독주가 샤브다니 가쯔오《아이야부시》
- 아르메니야음악가일행 독주가 아브라만 마리나《샤손사람들의 무곡》
- 싱가포르예술단 독주가 탄채통《방목공의 노래》
- 에짚트예술단 독주가 이나쓰아무드 엘다엠《내 마음속으로부터》
- 재일조선인예술단 독주가 로상현《조선은 하나다》

○독무(상장과 금컵, 상금)
중국예술단 김순복《다듬이춤》

○독무(상장과 은컵)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 김순복《청춘의 기쁨》

-예술상

○성악(합창)(상장과 금컵, 상금)
- 알렉싼드로브명칭 로씨야군대협주단 합창과 관현악《김정일장군의 노래》,《앞으로》
- 몽골예술단 기악중주와 3중창《사향가》

○성악(합창)(상장과 금컵)
- 알렉싼드로브명칭 로씨야군대협주단 무반주합창《오 광활한 초원이여》
- 알렉싼드로브명칭 로씨야군대협주단 합창《로씨야병사들》

○성악(중창)(상장과 금메달)
- 몰도바음악가일행 혼성2중창《스므글랸까》
- 유고슬라비아독창가일행 혼성2중창《오 나의 태양》
- 벨라루씨음악가일행 녀성2중창《리자와 뽈리나》
- 로씨야명배우단 혼성3중창《평양의 밤》
- 재일조선인예술단 남성중창《여보시오》, 혼성2중창《아버지의 심정》
- 재중조선인예술단 민요련곡《금강산타령》

○성악(중창)(상장과 은메달)
- 재일조선인예술단 녀성중창《수령님품으로 어서 가자》
- 재중조선인예술단 가무《내 나라 제일로 좋아》, 독창과 무용《김정일화》
- 재중조선인예술단 시와 노래이야기《간절히 바라는 마음》

○기악(중주)(상장과 금메달)
- 스위스음악단 2중주《안단떼 론도》
- 이딸리아예술단 4중주《발레트 떼르쏘 3번》
- 도이췰란드중주단 2중주《조각》

○기악(중주)(상장과 은메달)
- 몽골예술단 기악중주《왈쯔곡》
- 체스꼬예술단 기악중주《슬로벤스꼬의 자랑》
- 인디아예술단 기악《샤흐메흐힐》
- 싱가포르예술단 기악중주《만경대의 노래》

○무용(상장과 금컵, 상금)
로씨야베료슈까무용단 무용《무지개》

○무용(상장과 금컵, 상금)
- 알렉싼드로브명칭 로씨야군대협주단 무용《명절행진곡》
- 로씨야베료슈까무용단 무용극《모스크바거리에서》
- 로씨야베료슈까무용단 무용《마차군들》

○무용(상장과 금컵)
중국예술단 무용《샘물에 비낀 달》

○무용(상장과 금색공예)
- 중국예술단 무용《꽃향기 그윽한 달밤》
- 알렉싼드로브명칭 로씨야군대협주단 무용《쏘로친의 장날》
- 알렉싼드로브명칭 로씨야군대협주단 무용《해병생활》
- 로씨야베료슈까무용단 무용《인형들》
- 에짚트예술단 무용《엘가와지》
- 중국예술단 무용《란화화》
- 인디아예술단 무용《샤흐메흐힐》
- 재일조선인예술단 2인무《장기놀이》

○무용(상장과 은색공예)
- 로씨야베료슈까무용단 무용《레스 짜는 처녀들》
- 싱가포르예술단 2인무《탐구》
- 에짚트예술단 무용《7일 생일놀이》

○교예(상장과 금색공예, 상금)
- 로씨야교예단《3단발전회》
- 중국교예단《줄우에서 무술재주》
- 중국교예단《줄넘기와 모자재주》
- 몽골교예단《남자2인조형》
- 로씨야교예단《줄 타는 교예사》

○교예(상장과 금색공예)
- 꾸바교예단《손재주》
- 로씨야교예단《어깨장대재주》
- 스웨리예교예배우일행《녀자도립재주》

○교예(상장과 은색공예)
- 웰남교예배우일행《바줄놀이》
- 몽골교예단《2인조형》
- 중국교예단《도립재주》
- 웰남교예배우일행《공중조형》

-창작상

○상장과 금컵, 상금
- 수리아독창가 나임 합디《김정일각하 만세》
- 끼쁘로스음악가일행 아다모스 까찬토니스 관현악《백두》
- 로므니아예술단 뜨라얀 미리쵸아우《잊지 못할 빛나는 조선이여》

○상장과 금컵
- 네팔예술단 나라얀 박띠쉬레스타《김정일각하께 축원》
- 방글라데슈예술단 사라즈 쵸드르후우《김정일각하께 드리는 노래》
- 재일조선인예술단 김경화《아버지의 심정》
- 재중조선인예술단 박학림《내 마음 내 조국》
-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 김미화《어머니 나의 조국》
- 연변조선인예술문화참관단 림승학《자애로운 그 품이 그립습니다》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페막

인류공동의 국제적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지난 4월 10일에 성대히 개막되였던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페막되였다.

축전페막식이 4월 18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페막식장에는《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한다!》,《자주, 평화, 친선의 노래 힘차게 부르자!》라고 쓴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페막식에는 이번 축전에 참가하였던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 문화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내각총리 홍성남동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백남순외무상, 축전조직위원회 장철위원장 등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 예술인들이 페막식에 참가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 외국손님들, 해외동포들이 페막식에 참가하였다.

페막식에서는 먼저 축전시상식이 있었다.

페막식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이 드리는 감사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페막식에서는 양형섭동지가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감사문을 전달하였다.

장철위원장이 페막사를 하였다.

그는 우리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문화예술인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막을 올렸던 제1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오늘 페막하게 된다고 하면서 적극적인 지지협력과 예술활동으로 이번 축전을 의의 깊게 장식한 축전참가자들의 공연성과를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번 축전은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뜻 깊게 기념하는 시기에 진행된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과 축전참가자들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고 하면서 세계 46개 나라에서 온 관록 있는 예술단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 국제국내콩클수상자들, 재능 있는 예술인들은 아름답고 우아한 노래와 춤, 독특하고 세련된 교예작품들을 축전무대에 펼쳐 놓음으로써 태양절을 뜻 깊게 장식하고 인류문예사에 새로운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나라들사이의 친선과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번 축전은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깊은 관심과 배려속에서 훌륭히 진행되였다고 하면서 축전을 통하여 나라와 풍속, 언어와 피부색은 서로 달라도 참다운 예술로 인류의 행복과 번영에 이바지하려는 세계 진보적문화예술인들의 념원은 하나이라는것을 다시한번 힘있게 시위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축전기간 참가자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위업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축전참가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자주, 평화, 친선의 숭고한 리념을 안고 인류문화예술화원을 함께 꽃 피워 나가려는 세계 진보적문화예술인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전통화된 국제예술축전으로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끝으로 그는 세계 여러 나라 벗들이 서로 멀리 떨어 져 있어도 이번 축전을 통하여 맺어 진 우리의 정을 소중히 간직하고 다음해 화창한 봄날에 다시 만나 새 세기를 빛내여 나갈 친선의 노래, 단결의 노래를 더욱 힘차게 부르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나라 노래《빛나는 조국》의 장엄한 선률이 울리는 가운데 여러 나라 예술인들과 해외동포들이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기발을 내리웠다.

이어 페막공연이 있었다.

예술단 왕래

평양윤이상관현악단 중국, 도이췰란드 방문

출 발

윤이상음악연구소 부소장 림상호를 단장으로 하는 평양윤이상관현악단이 5월 1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관현악단공연활동

—중국의 베이징에서—

관현악단은 5월 2일 오후 베이징《21세기호텔》에 있는《세기의 극장》음악홀에서 무대공연을 하였고 5월 1일 오후에《옹화궁》을, 2일 오후에《베이징고궁》을 참관하였다.

—도이췰란드에서—

관현악단은 도이췰란드에서 7회의 공연과 1회의 C. D록음을 진행하였다.

- 5월 6~7일 베를린《국제문화회관》음악홀에서 2회공연 진행
- 5월 8일 데트몰트음악대학음악당에서 1회공연 진행
- 5월 9일 본문화회관연주홀에서 1회공연 진행
- 5월 10~11일 슈베칭엔베르고 C.D회사에서 C.D 록음 진행
- 5월 13일 위스바덴 《스타트 데아터》극장의 축전홀에서 1회공연 진행
- 5월 15일 라인초 베르그성당에서 1회공연 진행
- 5월 18일 엘마우성에서 1회공연 진행

평양윤이상관현악단의 공연을 도이췰란드의 10개의 신문들이 12회이상 크게 보도하였다.

중국주재 도이췰란드문화원 원장 켐프는 현대음악연주회에서《브라보》의 환성이 터져 나오는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하면서 오늘 당신들의 공연은 동양적인 매력, 개성이 뚜렷한 연주였다고 하면서 그를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음악발전수준을 충분히 리해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위스바덴시 시장은 평양윤이상관현악단이 위스바덴에서 진행된 인터나쇼날축전에 자기의 독특한 얼굴을 가지고 참가하였으며 유럽에 처음으로 자기의 얼굴을 선명하게 보여 주었다고 말하였다.

관현악단은 도이췰란드를 방문하는 기간에 베를린에 있는 윤이상선생의 묘소와 저택을 방문하였고 베를린 휠하모니극장에서 공연관람, 시내참관, 엘마우 바이올린박물관 참관, 잡지《도이췰란드음악》의 기자와의 회견을 진행하였다.

공연종목

윤이상작곡들인《현을 위한 융단》,《밤이여 나뉘라》,《환상적단편》, 목관3중주《협주적단편》, 현악4중주《6번》과 조선곡《봄타령을 주제로 한 현악4중주》를 무대에 올렸다.

귀 국

중국과 도이췰란드를 방문하였던 윤이상음악연구소 림상호부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평양윤이상관현악단은 5월 27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피바다가극단 중국 방문

출 발

문화성 국장 박순태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방문 피바다가극단은 6월 7일 렬차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공연활동

피바다가극단은 중국의 베이징을 비롯한 12개의 성 및 직할시의 38개 도시에서 67회의 공연(그중《99 중국국제민족가무의 해》공연에 7회)을 진행하였다.

피바다가극단은 호남성 장사와 하북성 형대에서 중국인민지원군 로전사들과의 상봉모임, 위문공연을 의의 있게 진행하여 신문, 방송, 텔레비죤을 통해 크게 보도되였으며 이 장면을 본 중국인민들은 중조친선이야말로 피로써 맺어 진 친선, 깨뜨릴수 없는 친선이라고 하였다.

공연기간 약 15만명의 관중들이 공연을 보았으며 베이징과 성소재지, 지방도시들의 신문, 소리방송, 텔레비죤방송들이 거의 매일과 같이 공연실황과 공연소식을 보도하였다.

주요공연종목

1. 합창
  ㄱ 《김정일장군의 노래》
  ㄴ 《당이여 친근한 어머니》(중국노래)
2. 무용《부채춤》
3. 녀성고음독창
  ㄱ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
  ㄴ 《나는 너 중국을 사랑한다》(중국노래)
4. 독무《장고춤》
5. 남성저음독창《김일성대원수 만만세》
6. 녀성3중창 혁명가극《피바다》중에서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
7. 무용《손북춤》
8. 남성고음독창
  ㄱ 《조선의 장군》
  ㄴ 《내 고향》
9. 무용《온 세상에 만발한 김일성화》
10. 녀성고음독창
  ㄱ 혁명가극《꽃 파는 처녀》중에서
    《꽃 사시오》
  ㄴ 《매운 처녀》(중국노래)
  ㄷ 《산과 강마다 정이 흐르네》(중국노래)
11. 무용《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
12. 남성중음독창
  ㄱ 혁명가극《밀림아 이야기하라》중에서
    《설레이는 밀림아 이야기하라》
  ㄴ 《마음속의 말》(중국노래)
13. 혼성2중창《늘 집을 찾아 가요》(중국노래)
14. 무용《련꽃춤》(중국무용)
15. 무용《쟁강춤》
16. 녀성민요독창
  ㄱ 《모란봉》
  ㄴ 《청장고원》(중국노래)
17. 합창과 무용《조중친선은 영원하리라》

참관 및 의례관계

· 6월 8일 저녁 피바다가극단을 환영하여 중국문화부에서 차린 환영연회에 참가
· 6월 10일오후 베이징에 있는 고궁 참관
· 6월 11일 저녁 중국교예단공연 관람
· 6월 13일 저녁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중국문화부에서 차린 축하연회에 참가
· 6월 15일 저녁 상해시 문화국에서 차린 환영연회에 참가
· 6월 17일 오전 상해무용학원, 상해대극장 참관
· 6월 18일 오전 상해동방명주텔레비죤탑, 중국공산당 제1차대회 회의장소 참관
· 7월 2일 저녁 호남성 장사에서 환영연회에 참가
· 7월 5일 오전 호남성 장사에 있는 소산 참관
· 7월 29일 오전 복건성 하문에 있는 고광섬 유람
· 8월 20일 저녁 길림성에서 차린 환영연회에 참가
· 8월 23일 오전 길림육문중학교, 북산공원 참관

도 착

피바다가극단은 중국 방문공연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9월 3일 렬차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피바다가극단의 공연에 대한 반향

우리 나라 피바다가극단은 중국 당과 정부와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베이징을 비롯한 12개의 성 및 직할시의 38개 도시에서 67회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을 대성황리에 진행함으로써 관람자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문화부 대외련락국 부국장 동준신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피바다가극단은 중국을 방문한 첫 순간부터 우리 중앙지도간부들의 중시를 받고 있다.

리붕위원장과 문화부와 외교부의 책임일군들이 공연을 본것은 그들이 중조친선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것을 보여 준다.

피바다가극단은 오늘 공연을 관람한 지도간부들과 관중들을 격동시키고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오늘 공연은 대성공이다. 두 나라 친선을 더욱 강화하는 의미에서 2000년에는 중국에서 제일 훌륭한 예술단을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시키려 한다.

오늘 공연은 오랜 전통을 가진 뿌리 깊은 중조친선을 더욱 두터이 하고 두 나라 문화교류를 밀접히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중국인민해방군예술극장 성악배우 류정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문가로서 조선예술인들의 공연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조선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솟는다. 독창가수들이 조선노래를 부를 때 관중들이 가사를 모르면서도 계속 박자를 맞추어 박수로 화답한것을 보면 그 노래들이 사람들의 감정을 틀어 잡는다는것을 알수 있다.

조선예술인들의 공연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중국대외연출공사 지배인 장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조선피바다가극단을 세번째로 맞이하는데 매번 배우들의 높은 예술수준에 감탄하군 한다. 어제 본 공연을 오늘 다시 보아도 마치 처음 보는것 같이 새로운 감을 주는것이 바로 조선예술이다. 많은

무용수들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고도로 째인 안삼불은 조선무용에서만 볼수 있는것이다.

피바다가극단의 공연은 중앙지도간부들을 흥분시켰고 관중들을 격동시켰다.

조선예술은 무용뿐아니라 성악, 기악 등 모든 측면에서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오늘 공연은 대성공이며 관중을 완전히 틀어 잡았다.

나는 조선예술에 감화되여 조선을 가장 동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였다.

중국 통산부동산총회사 상무대표 구양천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조선예술단이 공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은 물론 형제들과 장인, 장모까지 데리고 와서 피바다가극단의 공연을 보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오래간만에 사회주의적정서가 풍기는 훌륭한 예술을 보았다. 《피바다》라는 명칭자체가 중국사람들의 기억속에서 희미해 지고 있는 비참한 과거를 되새겨 주는 훌륭한 명칭이다.

공연은 그야말로 오늘의 조선의 변함 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 준 훌륭한 공연이였다.

이처럼 건전하고 아름다운 예술을 그대로 보존해 나가고 있는것을 보고 김정일장군의 령도를 받는 조선의 모습을 그려 보게 된다.

상해시로동자궁전 일군 신관아는 공연을 본후 우리 예술단에 편지를 보내왔다.

그는 편지에서 지난해 온 가족과 함께 가극《꽃 파는 처녀》를 관람하는 행운을 지니게 되였고 오늘 또다시 조선예술가들이 출연하는 가무를 보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의 아름다운 예술은 나의 머리속에 영원히 아로 새겨 져 있다.

귀국의 우수한 작품들은 수십년전에 벌써 중국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되였다.

바로 그때부터 아름답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조선의 가무가 나의 심장을 틀어 잡았고 그때부터 나는 조선의 가무에 완전히 반해 버렸다.

그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러 이 땅에 천지개벽의 변화가 생겼지만 나는 지금도 나의 넋을 사로잡은 조선노래들을 계속 부르며 산다. 갈증에 시달리는것처럼 조선노래를 듣고 싶고 조선무용을 보고 싶다. 그것으로 정신생활의 만족을 얻고 싶은것이 이제 남은 반생의 소원이다.

무한가무극원 부원장 백운룡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50년동안 예술에 종사해 온 전문가이다. 조선예술인들의 수준이 매우 높다. 특히 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나도 제노라 하는 무용전문가인데 조선무용가들의 우아하고 세련된 기교에 감탄을 금할수 없다.

모두가 일류급수준이다.

피바다가극단은 손색이 없는 국가급의 예술단체이다.

무한강철집단공사 로동자 한금맹은 공연도중 피바다가극단 일군들을 찾아 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예술은 아름다울뿐아니라 사람들에게 힘을 안겨 준다. 우리 로동자들의 감정에 잘 맞는다. 우리 무한에 숱한 외국예술단들이 와서 공연하지만 조선예술처럼 건전하면서도 참신한 예술은 볼수 없다.

나의 감정을그대로 표현한다면 조선예술은 깨끗하고 고상한 감을 준다. 그리고 보고 나면 속이 후련해 진다. 지금은 이런 예술을 보기 헐치 않다. 조선에서 계속 잘 보존해 주기 바란다.

무한 순례문호텔 지배인 류사명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김일성주석을 흠모한다. 김일성주석은 모주석과 함께 중국인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위대한 수령이시며 중국인민의 오랜 벗이다.

조선예술인들의 공연을 볼 때마다 김일성주석에 대한 흠모의 정, 조선인민에 대한 친선의 정이 더욱 깊어 진다. 그리고 당신들을 만날 때마다 김일성주석의 초상휘장을 모시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 진다. 당신들은 중국에 와서 아름다운 예술을 선사해 주었을뿐아니라 전통적인 두 나라 친선을 더욱 두터이 하였다.

호북 박강과학기술개발유한공사 리사장 사정국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처럼 관중을 격동시키고 그들의 심장을 틀어 잡는 예술이라면 누가 마다하겠는가.

무용은 동작이 하나와 같고 너무나 우아하여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을 정도이며 성악가들이 부르는 중국노래들은 매우 신통하여 외국가수가 부르는지 아니면 중국가수가 부르는지 가려 볼수 없을 정도다.

조선예술은 자기의 고유한 본색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기때문에 관중들에게 잊을수 없는 인상을 남겨 준다.

《무한만보》기자 조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화예술발전에서도 지도자가 관건적인 역할을 논다. 조선에서는 김정일동지께서 예술에 조예가 깊으시고 큰 관심을 돌리시기때문에 예술이 발전하지 않을수 없다. 이것은 조선예술인들의 행운이고 복이다.

강문시당 서기 종양승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수들의 수준이 일류급이다. 가수들은 노래《조선의 장군》,《내 고향》등에서 자기 수령과 특히 고향에 대한 숭배와 사랑의 감정을 잘 형상하였다. 조선말로 부르는 노래이지만 그런 감정이 잘 안겨온다.

《양성만보》기자 아자는 조선피바다가극단의 순회공연은 첫 시작부터 관중들의 열렬한 환영과 절찬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째인 안삼불은 조선무용의 특색일뿐아니라 조선의 집단주의정신의 발현이다. 류행적인것은 자기의 고유한 본색이 없고 날마다 변한다. 그러나 고전적인 예술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조선무용이 바로그런 예술작품이다.

광동성가무극원 무용배우 연가전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무용은 그 어디에 가도 인정 받을수 있는 세계급예술작품이다.

특히 따라 배워야 할것은 민족적인것을 위주로 내세우고 그 본색을 보다 아름답고 훌륭하게 장식하는데 추세적인것, 현대적인것을 복종시킨것이다. 예술에서 이 문제를 조선만큼 훌륭하게 해결한 나라가 없다.

조선의 예술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 당신들이 출연한 무용에서 조선의 기질과 풍격, 자기의 것에 대한 사랑과 긍지를 안고 있는 조선인민의 정신상태를 볼수 있었다.

《광주일보》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노래는 매우 선명한 민족적특색을 띠고 있다.

그것은 시종일관 장중하고 순결한 주제와 아름답고 서정적인 음악을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것이다.

민족적특색이 넘쳐 흐르는 서정적인 가사와 곡은 조선음악의 주요 형식이다.

조선의 무용도 선명한 민족적특색을 띠고 있다.

눈 부시게 아름다운 의상, 가벼운 발걸음, 재치 있고 변화무쌍한 손과 팔, 어깨동작, 정기와 열정을 뿜는 눈동자, 이 모든것이 펼쳐 보이는 아름다움은 그야말로 사람들을 취하게 한다.

조선무용은 또한 다양한 주제로 각이한 맛을 낸다. 서정적인 무용은 힘과 열정이 넘쳐 나며 생활적인 무용은 환희와 랑만에 젖어 있다.

변화무쌍한 무용자세와 하나같이 움직이는 정연하고 째인 안삼불은 무용가들의 높은 기량과 안무가의 풍부한 상상력을 보여 준다.

하문시 진기공예품공장 지배인 오검봉은 공연이 끝난후 우리 예술인들을 찾아 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대원수 만만세》,《**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를 들으며 정말 기뻤다. 수령에 대한 숭배와 흠모의 정이 차넘치는 노래라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가수들이 자기 수령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는것을 보면서 조선은 여전히 변색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감회가 깊어 졌다.

당신들이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흠모하는것처럼 우리도 모택동주석을 그리워 한다.

조선예술인들은 공연을 통해 용감하고 근면한 조선인민의 기상, 난관을 극복하면서 계속 높은 곳을 향해 앞으로만 전진하는 조선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나는 조선예술인들이 오늘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구상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조선은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강한 나라이며 지금 난관을 겪고 있지만 꼭 이길것이다.

이처럼 기백과 신심에 넘쳐 있는 인민은 반드시 승리한다. 조선예술의 색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것은 조선사회주의의 색이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말해 준다.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에서 사회주의붉은기가 영원히 변색을 모르고 휘날리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우리 예술단의 중국순회방문공연을 보장하기 위해 동행한 무한연출공사 당서기 담명화는 이렇게 말하였다.

피바다가극단과 동행하면서 조선예술인들의 풍모에서 많은것을 배우고 있다. 규률이 있고 근면하며 집단주의정신이 강하다. 조선예술인들에게는 개인이라는 관념이 없는것 같다. 모두가 서로 도와 주고 집단에 복종하며 지휘성원들의 지시에 따라 한사람같이 움직이고 있다.

하루에 수백㎞를 달려 가 그날 저녁으로 공연을 하고 다음날에 또 그런 로정을 반복해야 할 때가 많았고 극장조건이 불비하여 공연을 진행하기 어려울때도 있었지만 조선예술인들은 난관을 이겨 내면서 매번 공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술단체가 아니라 군대 같다.

조선의 예술도 따라 배워야 하지만 그보다도 예술인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기풍을 따라 배워야 한다.

중국전국독무경연수상자인 하문백로무용단 배우 림수진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조선무용을 사랑한다.

때문에 우리 무용단에서는 조선무용을 중요한 공연종목의 하나로 정하고 정상적으로 조선춤을 춘다.

조선춤은 무용가가 자기의 예술적감정과 재능을 마음껏 보여 줄수 있는 독특한 춤이다. 무대우에서 조선춤을 추고 나면 자기가 해보고 싶은것을 실컷 해본것처럼 마음이 통쾌하고 후련해 진다.

관중들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마다 미학관도 다르고 예술감상수준도 다르지만 조선무용에 대해서는 한사람같이 감탄을 금치 못한다.

노래들도 언어가 달라 가사내용은 전달해 주지 못하지만 관중의 심금을 울린다. 두 나라가 언어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지만 중국관중이 왜 조선예술을 좋아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여 그것은 조선예술이 통속화된 예술이고 대중을 위한 예술이기때문이다.

조선예술은 전문가들이 높이 평가하고 대중이 좋아 하는 독특한 예술이다.

료녕성인민정부 문화청 외사처장 리덕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예술단의 공연은 매번 중국관중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는다.

오늘 공연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한 공연이라고 말하였다. 관중들의 반향이 너무 좋기때문에 우리 문화청에서는 료녕성가무단과 심양발레무용단 간부, 배우들에게 조선피바다가극단의 공연을 보고 이 기회에 조선예술가들한테서 배우라고 지시하였다.

우리 성에서는 앞으로 조선과의 문화예술교류를 더욱 강화하여 이름 있는 혁명가극《꽃 파는 처녀》를 비롯한 훌륭한 예술작품들을 더많이 초청하려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 문화국장 방용성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번에 피바다가극단의《피바다열풍》이 연변의 하늘을 뒤덮었다.

계절적으로 보면 지금은 이곳 날씨가 선선한 때이다. 그런데 피바다가극단이 공연하는 기간 연길날씨가 더워 졌다. 그것은《피바다열풍》이 우리 연길사람들의 마음을 덥혀 주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연길시에서 이틀동안 공연을 무려 5차례나 하였는데 매번 관중이 초만원이였다.

당신들과 함께 있은 나날은 짧으면서도 긴 기간이였다.

중조 두 나라 친선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장기간의 투쟁속에서 피로써 맺어 진것이다. 이 친선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모택동주석이 친히 마련하시고 키워 주신것으로 하여 더욱 귀중한것이다.

우리는 이 귀중한 친선을 대를 이어 가며 지켜 낼것이다.

국립평양교예단 중국 방문

출발

중국의 운남성과 상해시를 방문하는 평양교예학원 부원장 김명수를 단장으로 하는 국립평양교예단은 8월 19일 렬차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공연활동

교예단은 운남성의 곤명시, 안녕시, 옥계시, 개구시, 상해시와 매산구역에서 13회의 공연(1회공연은 친선공연, 2회공연은《날아 다니는 처녀들》한 종목이 참가한 련환공연)을 진행하였다.

교예단은 상해교예촌 개통공연과 제22차 만국우편동맹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축하공연에 참가하여《날아 다니는 처녀들》을 공연하였다.

공연종목

1. 비행가들
2. 륜돌리기
3. 의자째앗기
4. 바드민톤
5. 2인그네
6. 널뛰기
7. 그네우에서
8. 취사병
9. 통나무
10. 그네중심
11. 줄넘기
12. 원통 굴리기
13. 두 친구
14. 날아 다니는 처녀들

참관 및 의례관계

- 8월 27일 오전 곤명강철공장 참관
- 8월 31일 오전 곤명세계원예박람관 참관
- 9월 2일 오전 곤명시내 참관
- 9월 5일 오전 옥계시에 있는 홍탑산담배공장 참관
- 9월 11일 오전 상해교예촌 참관

교예단은 매 도시들에서 환영 및 환송 동석식사들에 초대되였다.

공연에 대한 반향

교예단은 곤명강철공장, 홍탑산담배공장, 개구석공장, 매산강철공장 등 로동자들이 집중되여 있는 도시와 구역들에서 공연을 진행하여 1만여명의 로동계급들에게 공연을 보여 주었으며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시와 구역들에서는 공연시작행사를 정중히 조직하고 축하연설들을 하였으며 공연이 끝난 다음에는 시와 구역정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을 무대에 올렸다.

운남성 문화청장 하광서는 공연을 보고 나서《평양교예단의 공연은 소문 그대로 세계일류급의 교예

입니다. 세련된 기교로 어려운 동작들을 능숙하게 수행하는 공중교예종목들은 조선인민의 완강한 정신적기질과 강의한 의지를 잘 보여 줍니다.》라고 하였다.

상해시 문화국장 마박민은《기교에서 세계일류급이고 내용에서 고상하고 건전한 조선교예의 발전모습을 통하여 조선 당과 정부에서 문화예술발전에 얼마나 힘을 넣고 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조선과의 교예부문에서의 교류에 선차적인 특권을 부여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였으며 운남성 홍하주당 선전부장 우지위는 《평양교예단의 공연은 통쾌하게 시작하여 깨끗하게 막을 내리는 열정적인 한편의 시 같기도 하고 고상한 선률 같기도 한 정교한 교예공연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곤명세계원예박람회 조직위원회 행정보장처장 등은항은《얼마전에 제7차세계륙상선수권대회에서 조선의 나어린 처녀 정성옥이 녀자마라손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만난을 이겨 내고 강성대국에로 내닫는 조선인민의 기개를 보여 주어 다시한번 세계를 경탄시켰습니다. 확실히 조선인민은 난관에 굴복할줄 모르는 강의한 의지를 가진 영웅적인민입니다. 공연에서 이것을 잘 보여 주었습니다. 조선에서 강성대국건설은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운남성교예단 단장 룡강은《조선교예배우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에 감복하였습니다. 공연기재들을 설치하고 해체할 때에 남자나 녀자나 할것없이 모두가 떨쳐 나서고 공연할 때에는 일심동체가 되여 움직이는것을 보고 생각되는것이 많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귀 국

김명수를 단장으로 하는 국립평양교예단은 중국(운남성, 상해시)방문공연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9월 20일 렬차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교예단 소편대 이딸리아 방문

출 발

이딸리아의 여러 도시들에서 진행되는 겨울철 국제교예합동공연에 참가하기 위하여 박소운을 단장으로 하는 평양교예단 소편대가 10월 16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공연활동

이딸리아의 도시들인 아스티, 카샬리, 크네오, 토리노, 밀라노, 싸보나, 제노아, 볼로니아에서 진행된 겨울철 국제교예합동공연은 11월 23일부터 주체89(2000)년 3월 5일까지 진행되였다.

180회나 진행된 공연에는 우리 나라와 이딸리아, 로씨야, 마쟈르, 벌가리아, 네데를란드, 영국, 미국의 교예작품들과 로씨야발레트무용단, 아르메니아기악연주단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공중교예작품들인《날아 다니는 처녀들》,《그네중심》이 참가하였다.

《날아 다니는 처녀들》,《그네중심》에 출연한 우리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찬란히 개화발전한 주체교예예술의 위력을 남김없이 시위함으로써 이딸리아의 정계, 사회계, 언론계인사들과 수십여만의 이딸리아시민들로부터《세계교예예술의 최절정》,《알프스산정에 날아 온 조선의 신선들》,《20세기의 절정을 장식한 교예》라는 아낌없는 찬사와 폭풍과 같은 절찬을 받았다.

주체89(2000)년 2월 11일 이딸리아의 고대항구도시인 제노아에서 진행된 첫날 공연에서는 이딸리아의 150여개 모든 교예단들을 망라하는 이딸리아전국교예련합회의 주관하에 이딸리아의 정계, 사회계, 언론계 인사들과 수천명의 관중들의 참가하에 평양교예단의 공중교예종목인《날아 다니는 처녀들》에 최우수상을 수여하는 행사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반 향

이딸리아전국교예련합회 위원장 에쥐디오 빨미리는《2000년도를 맞이한 력사적인 시기이며 이딸리아와 북조선간의 첫 외교관계가 설정된 뜻 깊은 시기에 나는 이딸리아전국교예련합회를 대표하여 평양교예단의 공중교예작품〈날아 다니는 처녀들〉에 최우수상을 수여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이딸리아는 수천년의 교예력사를 가지고 있고 150여개의 크고 작은 교예단이 있으나 아직까지 최우수상을 받은 교예는 없으며 또 수많은 나라 교예단이 오고 갔으나 다른 나라 교예작품에 상을 준 실례는 없다. 나는 이 최우수상을 수여하기전에 우리 나라에 이처럼 훌륭한 교예작품을 보내주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딸리아세계교예회사 사장 에니오 토니는《나는 요즘 동료들로부터 이딸리아에 〈21세기의 첫 향기〉를 가져 온 사람이라고 환대와 찬사를 받고 있다. 한편의 조선교예작품이 이렇듯 이딸리아사람들을 격동시키고 있으니 조선의 예술이야말로 인간의 예술이고 만민의 예술이며 21세기의 예술이다. 나는 우리 극장에서 조선교예가 상연되는 기간에 이딸리아와 조선간의 외교관계가 설정되니 마치 내가 큰일이나 한것 같은 기분이다. 진정 백두산과 알프스산에 아름다운 친선의 무지개다리가 놓였으니 이제는 조선의 신선들이 그 다리를 타고 계속 내릴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딸리아신문인《커리오 카레롤리》주체89(2000)년 2월 12일부는《환상적이며 매혹적인 북조선교예》라는 제목밑에《세계에서 다시 볼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북조선의 공중교예〈날아 다니는 처녀들〉은 인간의 아름다움과 재능, 교예의 매혹과 환상을 첨단의 높이에서 구현한 작품이며 오늘은 물론 먼 후날에도 창조될수 없는 작품이기에 이딸리아예술계의 최우수상을 수여한다.》고 찬양하면서 공연장면과 함께 소개선전하였다.

귀 국

평양교예단 박소운을 단장으로 하는 평양교예단 소편대는 이딸리아에서 진행된 겨울철 국제교예합동공연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주체89(2000)년 3월 17일 렬차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교예단 소편대 중국 방문

출 발

중국의 하북성 석가장시에서 진행되는 제7차 중국오교국제교예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교예단 단장 홍재식을 단장으로 하는 평양교예단 소편대가 10월 27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축전활동

11월 1일부터 8일까지 하북성 석가장시에서 진행된 제7차 중국오교국제교예예술축전에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 메히꼬, 영국, 스웨리예, 카나다, 몽골, 핀란드, 미국, 까자흐스딴, 메히꼬, 중국의 24개단체에서 30개의 교예종목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연작품《공중철봉비행》, 막간극《네다리재주》와 명예작품《비행가들》이 참가하였다.

축전은 심사공연 2회, 일반공연 2회, 폐막공연 1회로 진행되였다.

경연작품인《공중철봉비행》은 축전에 참가한 경연작품들중에서 최고점수 339.9로 단연 제1위를 차지하고 축전의 최고상인《금사자상》을 받았고 명예작품《비행가들》도 축전참가자들과 관람자들의 높은 평가로《금사자영예상》을 받았다.

막간극《네다리재주》도 축전경연에 참가하여《특별상》을 수여 받았다.

소편대는 중국에 체류하는 기간에 베이징에 있는 교예학교를 돌아 보았다.

반 향

중국교예예술가협회 부주석이며 중국교예리론가협회 주석이며 제7차 중국오교국제교예예술축전 심사위원회 위원장인 람천은《조선의 교예가 이미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는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듯 매번 교예작품창작에서 변혁을 일으키고 있는줄은 정말 몰랐다. 이번 축전에 내놓은〈공중철봉비행〉작품에서 철봉을 리용하여 공중을 비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교출현은 오직 조선에서만이 창작될수 있는 기교로서 정말 놀랍고 희한하다. 〈공중철봉비행〉작품은 기교도 세계 최첨단이지만 공중교예의 고정격식의 틀을 마스고 새롭게 출현한 새롭고도 놀라운 공중교예로서 우리 교예전문가들을 감동시키였다.

조선의 교예예술이 이룩한 성과의 비결은 존경하는 지도자 **김정일**총비서동지의 세련되고 현명한 령도가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펼쳐 보였다.

로씨야교예아까데미위원장 쎄르게이 미하일로비치 마까로브는《나는 오늘 조선의 교예를 보면서 자기식으로 교예를 창조하는것 바로 이것이 성공의 길이며 영예의 길이라는것을 교예예술가의 진리로 간직하게 되였다. 바로 자기 식으로 교예를 창작하니 조선은〈공중철봉비행〉작품과 같이 영예의 1등상인〈금사자상〉을 받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열렬한 박수와 환영을 받을수 있었다》라고 하였다.

이딸리아교예리론협회 위원장이며 로마교예학교 교장인 에지디오 팔미라는《나는 조선이 예술의 나라라는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처럼 교예예술까지도 민족적이며 세계적인줄은 정말 몰랐다.

나는 교예리론가로 일생을 살아 오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그처럼 훌륭한 교예기교를 보여 주는〈공중철봉비행〉과〈비행가들〉작품을 보고 정신을 차리게 되였다. 나뿐만아니라 모든 교예전문가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였다. 조선의 악사들의 연주수준도 매우 높고 음악소리색갈도 아름답다. 훌륭한 예술의 뒤에는 언제나 위대한 지도자가 있기마련인

데 경애하는 **김정일**총비서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령도의 결과라니 정말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조선의 교예예술발전수준 하나만 놓고 보아도 경애하는 **김정일**총비서동지야말로 예술의 천재이시고 영재이시며 세계의 위인중의 위인이시라는것을 잘 알게 되였다. 21세기 교예예술창조에서는 조선이 단연 첫 자리를 차지할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귀국

중국에서 진행된 제7차 오교국제교예예술축전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둔 홍재식을 단장으로 하는 평양교예단 소편대는 1월 13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교예단 소편대 뽀르뚜갈 방문

출발

뽀르뚜갈의 리스봉시에서 진행되는 겨울철교예합동공연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교예단 박수억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평양교예단 소편대는 11월 30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공연활동

소편대는 리스봉시 꼴리저우극장에서 진행된 1999년 겨울철교예합동공연에 참가하였다.

합동공연은 12월 3일부터 12월 26일까지 21일간 37회 진행되였다.

합동공연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벌가리아, 슬로벤스꼬교예단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그네중심》,《공중3단그네비행》이 참가하였다.

공연반향

꼴리저우극장 총지배인 리까르도 꼬보에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00년이 넘는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극장에서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의 수많은 이름 있는 예술단, 교예단들의 공연이 진행되였지만 이번처럼 우수한 종목이 상연되기는 처음입니다.

평양교예단의〈공중3단그네비행〉종목은 기술적면에서나 예술적면에서 흠잡을데 없는 최고의 걸작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공연에 완전히 매혹되였습니다.》

20년이상 꼴리저우극장에서 예술활동을 했다는 이번 합동공연 총연출가 안또니오 로뻬스는《당신들의 공연에 대한 소식은 리스봉시민들과 어린이들에게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매일 관중이 이처럼 초만원을 이루기는 극장이 생겨 처음입니다. 정서적인 음악선률속에 섬세하고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기교동작들을 보여 주는〈그네중심〉작품과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기교동작들로 구성된〈공중3단그네비행〉작품에 출연하는 배우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은 뽀르뚜갈에 온 조선의 첫 예술사절들이며 리스봉시민들에게 교예예술의 참모습을 보여 준 천사들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번 합동공연에 함께 참가한 도이췰란드의 63살난 교예배우 부비는《나는 당신들이 몽떼까를로 국제교예축전에서 금상을 받을 때 직접 본 사람입니다.〈공중3단그네비행〉작품은 볼수록 또 보고 싶은 작품입니다. 공중4회전은 세계 최고의 기교동작입니다.

국가의 령도자께서 직접 지도를 주시였다니 조선의 교예가 최절정에 도달한것은 응당한것입니다.》라고 감탄을 금치 못해 하였다.

도착

박수억을 단장으로 하는 평양교예단 소편대는 주체89(2000)년 1월 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교예단 소편대 도이췰란드, 모나꼬 방문

출발

모나꼬에서 진행되는 제24차 몽떼까를로국제교예축전과 도이췰란드의 슈튜트가르트, 뮨헨에서 진행되는 국제교예합동공연에 참가하기 위하여 문화성 부국장 유창덕을 단장으로 하는 평양교예단 소편대가 12월 7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공연 및 축전활동

－슈튜트가르트에서－

슈튜트가르트의 천막교예극장(2천석)에서 진행된 국제교예합동공연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 로씨야, 까자흐스딴, 우크라이나, 벨지끄, 메히꼬가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철봉비행》,《널뛰기》,《줄넘기》,《쌍그네》작품들이 참가했다.

공연은 12월 15일부터 주체89(2000)년 1월 9일까지 46회 진행되였다.

－뮨헨에서－

뮨헨의 크론교예극장(2천석)에서 진행된 국제교예합동공연에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 이딸리아, 에스빠냐, 프랑스, 스위스, 영국, 도이췰란드, 미국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공중교예작품인《철봉비행》이 참가했다.

공연은 주체89(2000)년 2월 1일부터 27일까지 44회 진행되였다.

－모나꼬에서－

평양교예단 소편대는《철봉비행》종목을 가지고 주체89(2000)년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모나꼬에서 진행된 제24차 몽떼까를로국제교예축전에 참가하였다.

축전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 로씨야, 프랑스, 우크라이나,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스위스, 에스빠냐, 영국, 로므니아, 카나다, 미국이 참가하였다.

축전은 1조와 2조로 나누어 각각 2회의 경기공연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1조에 속한 우리 나라 배우들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과 랑만, 용맹을 보여 주는 공중교예《철봉비행》종목에서 높은 예술성과 교예기교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축전참가자들과 관람자들의 인기를 집중시키고 단연 1등을 쟁취하여 금상을 받았다.

경기공연에서 관람자들은 우리 배우들이 아슬아슬한 공중에서 높은 예술적기교를 펼칠 때마다 극장이 떠나 갈듯한 박수갈채를 보냈으며 배우 길은혜의 공중에서 련속3회전돌기와 배우 리학성의 뒤로 한바퀴 돌면서 옆으로 3회전돌기기교를 보여 줄 때에는 저저마다 발을 구르며 폭풍 같은 환호를 보내였다.

축전결과를 1월 23일 모나꼬《그랑드호텔》에서 모나꼬국왕이 발표하고 시상식은 1월 25일 몽떼까를로교예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시상식에는 모나꼬왕자와 공주 그리고 이 나라 정부인사들의 참가하에 성대하게 진행되였다.

동상이 없고 금상과 은상이 있는 축전에서 우리 나라의《철봉비행》종목은 최고점수로 금상을 수여받았다.

금상	《철봉비행》(평양교예단)	178점
	《널치기》(로씨야)	172점
	《손재주》(미국)	163점
은상	《장대재주》(중국)	149점
	《2인조형》(카나다)	147점
	《동물교예》(영국)	144점

공연 및 축전반향

도이췰란드신문《칸스타드》는 12월 16일과 17일 2일간에 걸쳐 평양교예단이 출연하는《줄넘기》와《쌍그네》장면사진을 크게 내고 공연소식을 보도하였으며 12월 27일에는《우리는 공중에서 련속4회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널뛰기》와 공중교예《철봉비행》공연장면사진을 크게 내고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조선의 교예배우들은 교예기교에서나 육체적으로 잘 준비되여 있다.

그들은 공중에서 아슬아슬한 기교로 관람자들에게 긴장감을 주기도 하고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한다.

이번 국제교예합동공연에서 조선의 교예배우들은 처음에는 공중교예〈쌍그네〉종목으로부터 시작하여〈줄넘기〉,〈널뛰기〉종목으로 공연전반부를 결속하고 공연후반에 들어 와서 절정을 이루는 마지막장면을〈철봉비행〉으로 장식한다.

공중녀배우 길은혜는 올해 19살이다.

그는〈철봉비행〉종목에서 세계최첨단기교인 공중에서 련속 3회전 두번돌기동작을 훌륭히 수행하여 관중들의 대절찬을 받고 있다. 그는 우리에게〈공중에서 련속 3회전 두번돌기는 물론 어려운 기교이지만 다음해에는 공중에서 련속 4회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신심에 넘쳐 말하였다.》고 하면서 공연성과를 크게 소개하였다.

연출가 빠뜨리트 크니는 슈튜트가르트에서《나는 이름 있는 평양교예단 배우들과 오래전부터 함께 공연하고 있다. 조선의 교예배우들은 매번 특색 있는 교예종목들을 준비하여 관중들의 커다란 절찬을 받고 있다. 조선에서는 예술의 천재이신 귀국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서 교예예술이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있다니 다른 나라 교예배우들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조선교예의 발전비결은 여기에 있다. 조선의 교예배우들은 남들이 상상도 못할 특전을 누리고 있으니 참으로 행복하다.》고 말하였다.

이딸리아의 메드라노교예단 단장 유고 더로취는《모나꼬축전에서 자주 목격하는 바이지만 조선의

교예를 따를 나라는 없다.

교예 〈철봉비행〉은 예술성이나 교예기교에 있어서 완전무결한 작품이다. 나는 교예에 일생을 바쳐오지만 조선의 교예와 같이 훌륭한 작품을 보지 못했다. 이번 축전에서 〈철봉비행〉작품이 단연 최고점수로 평가 받은것은 당연하다. 〈철봉비행〉종목은 형식이 새롭고 독특하다. 또한 배우들의 육체적준비와 기교가 대단히 높다. 조선은 나라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이지만 세계 교예강자들과의 대결에서 단연 1등을 쟁취할수 있은것은 문화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인민들의 높은 문화적요구가 없이는 생각할수 없다고 본다. 교예를 통하여 귀국의 문화발전면모를 볼수 있다.》고 말하였다.

귀 국

도이췰란드와 모나꼬를 방문하였던 문화성 부국장 유창덕을 단장으로 하는 평양교예단 소편대는 주체89(2000)년 3월 7일 렬차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교예단 소편대 도이췰란드 방문

출 발

도이췰란드의 카셀에서 진행되는 국제교예합동공연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교예단 고치송을 단장으로 하는 평양교예단 소편대가 12월 7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공연활동

교예단은 도이췰란드의 카셀에서 진행된 1999년 겨울철 국제교예합동공연에 참가하였다.

합동공연에는 우리 나라와 도이췰란드, 네데를란드, 프랑스, 중국, 로씨야가 참가하였다.

공연은 12월 17일부터 주체89(2000)년 1월 9일까지 42회 진행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봉놀이》,《비행가들》작품이 합동공연에 참가하였다.

평양교예단의 공연을 본 국제교예협회 사무소책임자 호쎄 마아쓰는《조선의 교예는 정말 놀랍습니다. 용감성과 대담성을 보여 주는 최첨단기술을 자랑하는 조선의 교예비행가들은 확실히 체력교예에서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국제교예축전들에서 금상을 수여 받았는데 그것은 응당합니다.》고 하면서《이런 훌륭한 교예명작은 예술의 대가이신 위대한 령도자의 세심한 보살피심을 받는 조선에서만이 창작될수 있습니다. 해마다 훌륭한 교예작품들을 보내주는 귀 정부에 사의를 표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네데를란드 국제교예업자인 헨크 반데르 메이덴은《공연을 정말 잘합니다. 이런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동작은 조선의 용감한 배우들만이 할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스위스의 로베까 씨에모네트방송원은 공연을 소개할 때마다 흥분된 목소리로《관람자 여러분, 동방의 아름다운 나라에서 온 명성 높은 세계 일류급의 조선의 교예를 보시겠습니다.》고 하면서 공중비행을 18m, 20m를 날으는 우리 배우들에 대해 이름을 두세번씩 찍어 가면서 소개하였다.

귀 국

도이췰란드를 방문하였던 고치송을 단장으로 하는 평양교예단 소편대는 주체89(2000)년 1월 20일 렬차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교예단 소편대 네데를란드 방문

출 발

네데를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진행되는 국제교예합동공연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선예술교류협회 리기현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평양교예단 소편대는 12월 9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공연활동

네데를란드국제교예회사가 크리스마스절과 신년을 맞으며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국제교예합동공연에 참가한 평양교예단 소편대는 12월 18일부터 2000년 1월 9일까지 46회 공연을 진행하였다.

합동공연에는 우리 나라와 스위스, 로씨야, 이딸리아, 프랑스, 카나다의 우수한 교예작품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바다는 부른다》종목이 참가하였다.

공연에 참가한 우리 배우들은 공연회수가 많은 조건에서도 평시에 련마한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합동공연에 참가한 모든 공연종목중에서 관중

들의 가장 높은 절찬을 받았다.

반 향

암스테르담의 카레극장 지배인 헤인 젠스는《평양교예단이 우리 극장에서 진행되는 합동공연에 참가할 때마다 우리 극장의 인기를 높여 주고 있습니다. 이번 합동공연에 참가한 평양교예단의 〈바다는 부른다〉는 새롭고 우아하고 용맹스러운 작품으로서 암스테르담시민들에게 다시한번 더 깊은 인상을 남기였습니다. 조선은 정말 교예기술이 발전된 나라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공연업자 끼스 반은《조선은 교예기술이 발전된 나라입니다. 특히 공중교예기술에서는 왕입니다. 이번 합동공연이 만석을 채우며 대성황리에 진행되는것은 귀국의 교예종목이 훌륭하기때문입니다. 조선교예 〈바다는 부른다〉는 여기 사람들에게 환상적인 작품으로서 구상이 좋고 그에 맞게 배우들의 기량도 세련되였습니다.

유럽사람들은 이런 기교동작을 할수 없습니다. 대담하고 경험이 많은 조선교예배우들만이 할수 있는 기술입니다.》라고 자기의 소감을 말하였다.

귀 국

네데를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진행된 국제교예합동공연에 참가하였던 평양교예단 소편대는 주체89(2000)년 1월 17일 렬차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중국 방문

출 발

중국을 방문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비서 최휘를 단장으로 하는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8월 16일 렬차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공연활동

예술단은 중국방문기간 5차의 공연과 3차의 련환공연을 진행하였다.

-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베이징청년궁전극장에서 2회 공연 진행
- 8월 22일 복건성 서호대주점에서 복건성소년예술단과의 련환공연 진행
- 8월 23일 복건성 복주대극장에서 공연 진행
- 8월 25일 강소성 남경대행궁극장에서 공연 진행
- 8월 26일 강소성 남경혁명렬사탑회관에서 강소성학생소년예술단과의 련환공연 진행
- 8월 27일 산동성 제남8.1극장에서 공연 진행
- 8월 28일 산동성 제남시의 경호로소학교회관에서 이 학교의 학생소년들과 련환공연 진행

공연종목

－성악

1. 합창《**김정일**장군의 노래》
2. 독창《제일 좋은 내 나라》
《꽃 피는 만경대》
3. 4중창《강성대국 첫 포성 울렸어요》
4. 독창 혁명가극《꽃 파는 처녀》중에서《꽃 파는 처녀》,《구름 너머 그리운 장군별님께》
5. 독창과 방창《**김일성**대원수님 고맙습니다》
6. 2중창《만경대나라 백두산나라》
7. 3중창《배움의 나라 참말 좋아요》
8. 독창《장군님 만세 높이 불러요》
《울려 가라 나의 노래여》
《욕심이 하늘 같대요》
《영천아리랑》
9. 2중창《양산도》
《신고산타령》
10. 합창《조중친선은 영원하리》

－기악

1. 바이올린독주《소년단행진곡》
2. 손풍금독주《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3. 고음저대독주《조선팔경가》
4. 장새납독주《모란봉》
5. 가야금독주《옹헤야》
6. 장고독주《승전고 울려라》
7. 금관2중주《친근한 이름》
8. 경음악《정일봉의 우뢰소리》

－무용

1. 《명절의 아침》
《만경대에 꽃씨 뿌려요》
2. 민속무용《꽃줄놀이》
3. 유희무용《꼭꼭 숨어라》
4. 쌍무《장고와 방울》
5. 3인무《손북춤》
6. 우화무용《개미와 매미》
7. 독무《공차기 신나요》
8. 체육무용《바다는 좋아요》
《즐거운 등산야영》

참관 및 의례관계

- 8월 17일 오후 베이징천안문광장, 베이징제5중학교 참관.
- 8월 18일 저녁 베이징에서 예술단을 환영하여 중국국제우호련락회가 차린 환영연회에 참가.
- 8월 19일 오전 베이징천단공원 참관.
- 8월 22일 오전 복건성 복주좌해공원 참관, 저녁 복건성에서 차린 환영연회에 참가.
- 8월 23일 오후 복주시 5.2광장, 림측서박물관 참관.
- 8월 25일 오전 강소성 남경시의 매원신촌 기념관 참관, 오후 중산릉공원, 현무호 참관.
- 8월 26일 오전 남경시의 우화대렬사릉 참관, 오후 장강대교 참관, 저녁 강소성에서 차린 환영연회에 참가.
- 8월 27일 산동성 제남시의 천불산 참관.

귀 국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최휘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방문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은 8월 31일 렬차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공연 반향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과 출연자들의 훌륭한 기량으로 하여 공연장소마다에서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으며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공연을 보고난 관중들은 저저마다《대단히 훌륭하다》,《공연이 완전히 성공적이다》,《조선학생소년들의 예술기량이 대단하다》고 하면서 예술단의 공연성과에 아낌 없는 축하와 찬사를 보내였다.

중국국제우호련락회 부회장 왕준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연이 대단하다. 조선학생소년들의 예술기량에 감탄하게 된다. 관중들이 공연 전과정에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보낸데서도 이것을 찾아 볼수 있다.

베이징국제우호련락회 상무부회장 왕배희는 격동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은 기량이 높을뿐아니라 매우 열정적이다. 특히 중국노래들을 정말 그럴듯하게 잘 부른다. 나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 어린이가 중국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는것을 처음 보았다.

중국음악가협회 편집심사일군 왕효공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조선학생소년들의 예술수준이 이렇게 높은 줄은 정말 생각지 못하였다. 공연을 보면서 시종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가야금, 손풍금, 장새납, 장고독주수준이 전문배우들 못지 않게 높으며 성악도 발음이 정확하고 형상이 매우 훌륭하다.

조선학생소년들의 예술공연은 우리 베이징시 학생소년들이 따라 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공연을 통하여 조선학생소년들의 생기발랄한 면모를 엿볼수 있었다. 무대전반이 시대적정서와 함께 활력 있고 생기발랄한 사회주의의 혁명적열정으로 충만되여 있다.

중국아동가무학회 부비서장 리영기는 조선어린이들의 공연이 매우 훌륭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특히 나는 조선에서 로동당의 령도밑에 아동예술교육이 매우 발전하였으며 이 측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해 경탄하게 된다. 이것은 중국의 아동예술교육일군들이 연구하고 따라 배워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복건성정치협상회의 주석 유덕금은 공연을 보고나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기교가 전문가들처럼 완벽하고 대단히 훌륭하다. 커다란 감명을 자아내는 공연이다. 특히 체육무용에서의 3인탑조형은 나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학생들을 조선의 미래의 훌륭한 예술가로 키우기 바란다.

복건성국제우호련락회 회장 임자유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오늘의 성공적인 공연에 대해 사상성이 높고 예술성이 완벽하며 조직규률성이 강한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공연은 복주시민들을 완전히 매혹시켰다.

복건성예술단 가수 조수란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10여년동안 무대생활을 해오지만 조선학생들처럼 중국노래를 생동하고 절절하게 부르는것을 처음 보았다.

또한 무대형상에서 학생들의 높은 책임감, 관중들에 대한 예술형상태도 등은 전문예술인들도 따라 배워야 할 점이다.

대만에서 온 한 인사는 흥분된 심정을 누를길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공연을 보기 위해 나는 대만에서 복주로 달려 왔다. 정말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지금까지 세계 많은 나라를 돌아 다니면서 수많은 공연을 보았지만 오늘처럼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보기는 처음이다. 꼬마들의 공연을 보고 훨씬 젊어 진 감을 느끼게 된다.

강소성국제우호련락회 부회장 왕익근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오늘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이채로운 공연을 보면서 훌륭한 예술인재들을 키워 내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해마다 설맞이때면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의 어린이들을 만나주시였다. 바로 후대들에 대한 그이의 크나큰 관심과 사랑이 원동력으로 되여 조선의 소년예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본다.

오늘의 공연을 계기로 중국의 많은 교육자들이 귀

중한 경험을 배웠을것이다.

남경예술단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국제적으로 이름 있는 예술단이라는것을 잘 알고 있다. 기량과 예술형상에 있어서 완전히 전문가들의 수준이다. 일반관중들은 물론 예술전문가들도 매우 탄복하였다.

조선예술은 이미 최고상상봉에 도달하였다.

나도 앞으로 우리 소년예술단을 이끌고 귀국에 가서 조선의 찬란한 예술을 배우겠다.

산동성국제우호련락회 수석고문 악전의는 공연이 정말 훌륭하다고 감탄을 금치 못해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의 예술은 상상을 초월하는 극치의 예술이다. 나는 지금까지 이처럼 훌륭한 학생소년예술을 처음 보았다.

꼬마예술인들에게 머리가 다 숙여 진다.

제남시교예단 단장이며 1급배우인 등옥금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오늘 공연을 보고 조선인민의 투쟁정신과 혁명적기질을 잘 알게 되였다. 사상적내용과 감정표현이 참 잘 어울린다. 특히 무용수들의 높은 기교를 보면서 그들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가를 잘 알수 있었다.

나는 영광스럽게도 1987년과 1992년에 진행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여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았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내가 출연한 의자쌓기종목을 보시고 매우 기뻐 하시면서 나에게 축전의 금상을 수여하도록 해주시였다.

나는 지금도 **김일성**주석의 자애로운 영상을 그리며 훈련을 거듭하고 있다.

평양학생소년예술단처럼 조선의 꼬마예술인들이 훈련을 더 많이 하여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 기쁨을 드리기 바란다.

제남시인민정부 문화국 부국장 리향명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오늘 학생소년들의 공연을 보면서 대단히 흥분되였다.

첫째로, 조선예술의 기초가 참으로 든든하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예술교육은 조선에서와 같이 어릴때부터 틀어 쥐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참된 예술인으로서의 건전한 수양과 자질을 갖출수 있다.

조선의 당과 정부가 청소년들을 귀중히 여기고 내세우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둘째로, 두 나라 선대 수령들께서 마련해 주신 중조친선이 새 세대들에 의해 굳건히 이어 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나도 후대들을 잘 교육하여 두 나라사이의 친선이 21세기에로 이어 지도록 하겠다.

교예창작가이며 1급배우인 필장강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오늘 참신한 예술을 감상하였다. 공연을 보면서 학생소년들이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존경하는 **김정일**원수님에 대한 끝 없는 흠모와 한 없는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당과 조국,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는것을 느꼈다. 비록 나어린 학생들이지만 무한한 지혜와 뛰여 난 창조성, 전문가적인 기교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들의 예술적특기에 매우 감동되였다.

무대우에 올라가 그들과 함께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수 없었다. 참으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제남시 교육위원회 일군 수암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교육자로서 많은것을 배웠다. 무용에 출연한 학생들의 동작 하나하나는 재치 있으면서도 높은 기교로 숙련되였으며 하나와 같다. 조선무용에는 앞으로 전진하는 내용이 짙다. 오늘 공연을 통해 정말 많은것을 배웠다.

미국대중음악가수일행 우리 나라 방문

도 착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초청에 의하여 미국대통령 동생인 대중음악가수 로져 클린톤일행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기 위하여 12월 2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리종혁부위원장, 문화성 송석환부상이 일행을 맞이하였다.

참관, 관람 및 의례관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미국대중음악가수가 선물을 드리였다.

- 12월 2일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꽃다발을 진정하고 경모의 정을 표시.
- 12월 3일 만경대고향집 방문, 주체사상탑, 단군릉, 평양지하철도 참관, 모란봉극장에서 국립교향악단이 출연하는 음악회 관람.
- 12월 4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참관, 궁전극장에서 이곳 예술소조원들이 출연하는 종합공연 관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용순위원장과의 담화 진행.
- 12월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생의 모

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애하는 수령님께 경의를 표시, 개선문 참관.

· 12월 6일 국제친선전람관 참관, 묘향산의 력사유적들을 참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목란관에서 차린 연회에 참가.
· 12월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을 만나 담화를 진행, 판문점을 참관.
· 12월 8일 평양비행장에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 진행.

평양에서 공연

미국대중음악가수 로져 클린톤은 12월 5일 봉화예술극장에서 공연을 진행하였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용순위원장과 리종혁부위원장, 조선대외문화련락위원회 문재철위원장대리, 문화성 송석환부상, 예술인들, 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에는 로져 클린톤일행과 우리 나라 예술인들이 출연하였다.

로져 클린톤은 독창종목을 가지고 출연하였고 그의 일행은 노래와 무용, 남녀독창 등의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우리 예술인들은 녀성기악중주, 녀성고음독창, 독창과 무용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펼쳤다.

공연은 합창《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막을 내리였다.

우리 나라 방문 반향

로져 클린톤은 방문기간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평양에서 공연한것을 자랑으로 간직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인민과 공화국정부가 나에게 베풀어준 영광이다.

나는 우리들이 공연할수 있게 해주신데 대해 **김정일**장군님께 감사를 드린다.

나는 나의 평양방문이 조미관계개선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친선전람관참관을 마치고 그는 감상록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이곳 참관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에 대한 세계 수많은 나라 지도자들이 간직하고 있는 깊은 경모의 정을 느낄수 있었다.

여기에 전시되여 있는 선물들의 진귀함은 그 무엇으로써도 다 헤아릴수 없다.

주체사상탑전망대에 올라 평양의 아름다운 모습에 경탄을 표시하며 로져 클린톤은 주체사상탑은 기념비적건축물이다, 기념비의 훌륭함에 대하여 감탄을 금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고 여러 소조실들을 돌아 본 그는 예술공연을 관람하고 나서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며 재능을 마음껏 꽃 피워 가는 조선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에 감동을 금할수 없다, 나는 지금까지 세계 많은 나라들을 돌아 보았지만 아이들을 위한 과외교양기지로서 이처럼 훌륭한 곳은 처음 보았다, 궁전소조원들의 예술공연과 같은 것은 세계의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다, 정말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판문점을 참관하면서 그는 인류가 새로운 천년에 들어 서고 있는 이 순간까지 조선이 분렬되여 있고 수많은 군사인원들이 대치되여 있는것은 비극이 아닐수 없다, 나는 무력충돌에 의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조선의 통일이 이룩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분렬의 비극이 하루빨리 끝장나야 한다고 말하였다.

귀국에 앞서 평양비행장에서 그는 체류기간 평화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여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체류기간 조선예술인들의 공연을 볼수 있었다.

조선예술인들의 수준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데 대하여 감탄하게 된다.

특히 인상 깊은것은 어린이들의 예술적재능이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본 어린이들의 공연은 놀라운것이였다.

세계의 그 어디에서도 어린이들의 이러한 공연을 볼수 없다.

정말 기백 있는 공연이라고 말할수 있다.

나는 조선에 꼭 다시 오려고 한다.

귀국하여 나는 조선에서 받은 잊을수 없는 인상들과 내가 느낀 모든것을 미국민들에게 그리고 나의 형인 빌 클린톤에게 전달할것이다.

출 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초청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미국대중음악가수 로져 클린톤일행은 귀국하기 위하여 12월 8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리종혁부위원장, 문화성 송석환부상이 일행을 전송하였다.

기타 소식

시집《아 수령이시여》 발행식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54돐에 즈음하여 시집《아 수령이시여》발행식이 10월 5일 네팔 까뜨만두에서 진행되였다.

발행식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 져 있었다.

발행식장에는《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위대한 주체사상 만세!》라는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발행식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혁명활동사진들, 발행도서들이 전시되여 있었다.

발행식에는 네팔국회 상원 의장, 전 상원의장,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를 비롯한 정계, 사회계, 학계, 출판보도계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발행식에서는 네팔시인청년연단 위원장인 시인 디빠고 샤르마가 발언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풍모와 령도력에 감복하여 60여편의 시를 창작하였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칭송하여 쓴 시를 읊었다.

전 국회상원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는 인덕정치로 세상을 놀래우신 가장 위대한 정치가들이시다.

세상을 돌아 보면 인민을 위한 정치가 펼쳐 지고 있는 조선의 현실이 제일 훌륭하다.

정치는 조선에서처럼 실시되여야 한다.

조선의 수령들께서는 응당 인류의 찬양을 받으실만 하다.

시집《영원한 태양》발행

시집《영원한 태양》이 로씨야의《빨레야－미쉰》출판사에서 발행되였다.

로씨야작가 와씰리 그리샤예브가 쓴 시들을 편집한 시집《영원한 태양》에는 장편서사시《동트는 조선과 대진군의 노래》, 장시《그대 태양의 시선》을 비롯하여 20편의 시가 들어 있다.

시집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린이들과 함께 계시는 사진을 모시였다.

시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세기의 앞길을 밝혀 주시고 인민의 자유와 해방, 행복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령도업적과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시들은 또한 온갖 원쑤들과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사회주의기치를 끝까지 고수해 나가고 있는 영웅적 조선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과 련대감을 열정적으로 노래하였다.

시집《조선에 경의를 드리네》 발행식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5돐에 즈음하여 시집《조선에 경의를 드리네》발행식이 6월 2일 뻬루의 리마에서 진행되였다.

발행식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 져 있었다.

발행식에는 뻬루사회혁명당 총비서 구스만 리베라 까스따네다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발행식에서는 뻬루작가예술인전국협회 위원장이 개회를 하였다.

이어 연설들이 있었다.

뻬루작가예술인전국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봉쇄와 고립압살책동, 계속되는 자연재해속에서도 변함없이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의 모범을 창조해 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는것은 우리 시인들, 예술인들의 본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집의 표제를《조선에 경의를 드리네》로 단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소박한 시편들을 통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와 조선인민에게 최대의 영광과 감사를 드리였다.

시집《주체의 태양을 우러러》를 발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8돐에 즈음하여 뽀르뚜갈 그라피까 에우로빵출판사에서 뽀르뚜갈시인 파비아옹 까뇨뚜 고디뉴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 시인들이 쓴 시집《주체의 태양을 우러러》를 발행하였다.

시집의 앞부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 져 있다.

시집에는《**김일성**주석은 영원하리》,《영광의 빛발》,《21세기의 태양을 우러러》등 23편의 시들이 들어 있다.

필자들은 시에서 인민의 자유와 행복,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위인상을 시구절들에서 높이 격찬하면서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인류정치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필자들은 또한 시에서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천재적인 사상리론활동과 선견지명, 선군혁명령도로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시는데 대하여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시집《영생의 녀성영웅 김정숙》을 출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87돐에 즈음하여 재로씨야동포 한피미나가 시집《영생의 녀성영웅 김정숙》을 출판하였다.

시집의 앞표지에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영상사진이 모셔 져 있다.

또한 시집은 백두산밀영고향집에 모셔 진 3대장군의 초상화를 비롯하여 6상의 영상사진을 모시였다.

시집은《김정숙동지의 생애》,《인민의 딸》,《조국의 진달래》등 16개의 소제목을 달고 김정숙어머님의 생애와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투쟁업적을 칭송하는 시들로 편집되여 있다.

일조 교육,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아이찌의 회 결성모임 진행

일조 교육,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아이찌의 회 결성모임이 9월 3일 일본 나고야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아이찌현과 시 의회의원, 로동조합 등 단체대표들, 언론계, 학계, 문화계 인사들, 재일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첫째로, 일조간의 교육, 문화의 교류를 촉진하고 둘째로, 아이찌현민 각계각층과 재일조선인과의 우호와 교류를 발전시키며 셋째로, 일조국교정상화의 조기실현을 위한 활동을 벌려 나갈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의 규칙이 채택되였다.

모임에서는 이전 수상인 중의원의원 가이후 도시끼가 회의 최고고문으로, 불교대학 미즈다니 고쇼리사가 명예고문으로, 도까이텔레비죤회사 스즈끼 다까시상담역이 회장으로 선출되였다.

또한 정계, 언론계, 학계, 문화계의 유력한 인사들이 부회장, 고문, 사무국장, 간사로 각각 선출되였다.

모임에서는 호소문이 랑독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창건 50돐에 즈음하여

중국영화상영주간 진행

중화인민공화국창건 50돐경축 중국영화상영주간이 9월 23일부터 시작되였다.

영화상영주간 개막식이 9월 23일 개선영화관에서 있었다.

개막식장에는 조중 두 나라 기발이 드리워 져 있었다.

문화성 조찬구부상 등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 만영상과 대사관성원들, 중국 방송, 영화 및 텔레비죤총국 대표단 성원들, 우리 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류학생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이어 참가자들은 중국예술영화《장정》을 감상하였다.

중국미술전람회 진행

중화인민공화국창건 50돐에 즈음하여 문화성의 주최로 중국미술전람회가 진행되였다.

미술전람회 개막식이 9월 27일 조선미술박물관에서 진행되였다.

개막식에는 최고인민회의 장철부의장, 문화성 송석환부상,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대외문화련락위원회 홍선옥부위원장과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 만영상과 대사관성원들, 중국미술전람회대표단 성원들, 우리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찬란히 개화발전하고 있는 중국미술의 일단을 보여 주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미술작품들을 돌아 보았다.

중국사진전시회 진행

중화인민공화국창건 50돐경축 중국사진전시회가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의 기간에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사진전시회 개막식이 29일에 있었다.

개막식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기남비서와 문화성 송석환부상,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대외문화련락위원회 홍선옥부위원장 등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 만영상과 대사관성원들,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이 개막식에 초대되였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새 중국이 걸어 온 50년간의 빛나는 로정을 보여 주는 사진들을 돌아 보았다.

문학예술도서출판 주요목록

주체88(1999)년

구분	제 목	간 단 한 내 용	페지	판형	출판기관
도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화예술령도사	어버이수령님께서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령도내용이 편집되였다.	651	국	예술교육출판사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화예술령도사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지도내용이 편집되였다.	619	″	″
″	주체예술의 새 력사를 빛내이시며(28)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뜨거운 사랑에 대해 쓴 작가, 예술인들의 회상실기들을 편집하였다.	187	″	″
″	주체예술의 새 력사를 빛내이시며(29)	″	189	″	″
″	위대한 창조의 길에서(1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혁명가극《당의 참된 딸》의 창조과정을 지도해주신 내용들을 담고 있다.	311	4×6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주체영화리론총서(3) 영화문학창작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독창적으로 체계화하신 영화문학창작리론에 대해 서술하였다.	280	국	″
″	주체영화리론총서(4) 영화극작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극작술에 관한 리론에 대해 서술하였다.	339	″	″
″	주체의 기록영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기록영화창작에 관한 리론에 대해 서술하였다.	251	″	″
″	조선음악전집(15)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도해 주신 국가행사례식곡 18편과 취주악곡 15편이 편집되여 있다.	440	4×6^2	″
″	우리 식 경음악편곡	경음악편곡에서 제기되는 리론, 실천적문제들이 서술되여 있다.	220	국	″
″	조선구전문학연구(1)	구전문학에 관한 주체적문예사상과 원시, 고대, 중세구전문학에 대해 서술하였다.	343	″	″
장편소설	총서《불멸의 향도》중 전 환	력사상 처음으로《수령론》을 창시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소설이다.	491	″	″
″	총서《불멸의 향도》중 평양의 봉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준비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신 내용을 담은 소설이다.	480	″	″
″	산촌의 홰불	산골군을 살기 좋은 군으로 꾸려 나가는 군당책임비서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464	″	″

구분	제 목	간 단 한 내 용	페지	판형	출판기관
장편소설	지금은 봄이다	일군들과 탄부들을 불러 일으켜 석탄생산을 정상화해 나가는 당일군을 형상한 소설이다.	439	국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수 평 선	우리 당의 수산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투쟁내용을 담은 소설이다.		″	″
″	열 망	최신설비인 선압기생산을 당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당일군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411	″	″
″	월 계 관	체육으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기 위해 노력하는 축구선수들과 일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355	″	″
″	봄 잔 디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한 재일조선인들의 투쟁을 담은 소설이다.	383	″	″
″	인간을 지키라	다시마양식공들의 생활을 반영한 소설이다.	398	″	금성청년출판사
″	현대조선문학선집 25 황 혼	광복전 혁명적으로 각성되여 가는 로동계급을 형상한 소설이다.	476	″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중편소설	불 타는 대양	이라크－쿠웨이트전쟁시기 우리 나라 무역선원들이 미제의 도발을 짓부시고 조국으로 돌아 오는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303	4×6	″
″	은 장 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세쌍둥이에게 사랑의 은장도를 보내주신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132	4×6	금성청년출판사
작품집	태양찬가	어버이수령님 서거 5돐을 맞으며 창작된 문학작품들이 편집되였다.	323	국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경례를 받으시라	경애하는 장군님의 최고사령관 추대와 관련하여 창작된 문학작품들이 편집되였다.	372	″	″
″	정일봉의 해돋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칭송하여 창작된 아동문학작품들이 편집되였다.	135	4×6	금성청년출판사
″	영원한 해님	어버이수령님을 그리는 심정을 담은 아동문학작품들이 편집되였다.	167	국	″
″	하얀 조약돌	작가 정덕철이 창작한 아동문학작품들이 편집되였다.	195	4×6	″
″	붉은 넥타이	제12차《우리 교실》문학상 당선작품들이 편집되였다.	183	국	″
″	소백수의 노래	작가 최전훈이 창작한 아동문학작품들이 편집되였다.	144	4×6	″
″	공화국기발	공화국창건 50돐을 맞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 올린 학생들의 문예작품중에서 일부가 편집되였다.	135	4×6	″

구분	제 목	간 단 한 내 용	페지	판형	출판기관
작품집	인민의 추억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서거 50돐을 맞으며 창작된 문학작품들이 편집되였다.	427	국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꽃 향 기	군중예술소조활동을 위한 문예작품들이 편집되였다.	245	〃	중앙예술선동사
〃	우리의 하늘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인민의 투쟁을 반영한 문학작품들이 편집되였다.	248	〃	금성청년출판사
시집	향도의 빛발아래(5)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80년 6월～주체82년 12월까지 기간에 지도하여 주신 시의 일부가 편집되였다.	335	4×6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사랑의 요람	오홍심이 창작한 시들이 편집되였다.	104	〃	〃
〃	서사시 《살아서 만나라》	박세옥의 서사시《살아서 만나라》가 편집되였다.	204	〃	〃
〃	장편서사시 《민족을 사랑하라》	김희종의 장편서사시《민족을 사랑하라》가 편집되였다.	188	〃	〃
〃	정서촌시선집	정서촌이 창작한 시들을 편집하였다.	391	〃	〃
〃	따사로운 해빛아래 (22)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칭송한 시들이 편집되였다.	256	〃	〃
전설집	금수산기념궁전전설집(1)	태양의 성지 금수산기념궁전과 관련된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보여 주는 전설들이 편집되였다.	231	국	〃
〃	백두광명성전설집(4) 무지개대문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관련된 전설들이 편집되였다.	270	〃	〃
〃	명소에 깃든 전설	정방산과 관련한 전설들이 편집되였다.	156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조선사화전설집 (15)	우리 나라에서 예로부터 전해 져 내려 오는 사화전설들이 편집되였다.	231	〃	문학예술종합출판사
미술작품집	정관철작품집	인민예술가 정관철이 창작한 미술작품의 일부가 편집되였다.	112	4×6^2	〃
그림책	백두광명성전설그림책(7) 3대위인이 내린 성산	백두광명성과 관련된 전설들이 그림과 함께 편집되였다.	128	국	〃

조선문학예술년감 주체89(2000)

편집 최성호, 라장윤, 리춘화, 박영철
사진 임재학, 김정옥, 진도천, 리철구
교정 림정인, 오순미
낸 곳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주체90(2001)년 11월 25일
발행 주체90(2001)년 11월 30일

ㄱ－16140